

#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허 응 지음

샘 문화사



## 머 리 말

15세기 국어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체계와 현대 국어의 체계를 역사적으로 연결시켜 보자는 것이 내 스무살 전후의 무모한 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에 착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5세기 옛문헌들을 수집하고 카드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전의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해방 바로 뒤에 있어서도 옛문헌을 얻어 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값이 비싼 태다 사진으로 찍는 일도 아주 어려워서, 결국은 필사를 해가면서 자료를 모으는 도리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소절음으로 일을 진행시켜 오다가 겨우 자료 모으기를 끝내고 원고 집필에 착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이었다. 이제 교정을 끝내고 머리말을 쓰게 되니, 무딘 붓이 무척 더디기는 했으나 나로서는 감개가 그지없다.

자료 모으기를 일단 끝내고 난 뒤에도 여러가지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어 나오고 하여, 애써 그것으로 다시 보충하노라 했으나, 만족할만 한 지경에는 이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가 발견되어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책은 그에 따라 더 보충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니, 정작 보다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마땅할 것이지만, 그랬다가는 언제 끝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므로,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완전하나마 그것을 공포하는 데 어느 정도는 만족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처음 계획으로는 통어론도 아울러 한 책에다 넣을 작정이었으나, 집필에 너무 지쳤고, 또 한 책의 분량으로는 좀 벅찰 것도 같아서, 통어론은 딴 책으로 내기로 했는데, 이것이 언제 나오게 될지 기약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말본 학제는 매우 어수선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선 날



말의 규정 방법부터가 각인각색이며, 그에 따라 말본의 체계도 여러가지로  
서, 중·고등학교 말본 교육에 커다란 고민의 씨가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  
나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로 볼 때는, 그 자료의 해박함과  
전후 모순 없는 체계를 세운 점에 있어서, 최 현배 선생님의 「우리말본」을  
따를만 한 말본은 나와 있는것 같지 않다.

나는 일찍 고등보통학교 삼학년 시절에 선생님의 「중등조선말본」을 읽고,  
그에 감명을 받아 그 뒤에 나온 「우리말본」을,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기 전  
에 내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다 읽고, 그 영향으로 그 때 선생님이 계시던 연  
희전문학교로 갔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말본의 체계는, 내 어릴  
때부터 내 살과 피와 뼈에 스며들어 있는, 내 학문의 알맹이를 차지하고 있  
는 부분이다. 뿐만아니라, 내가 이 책을 쓰기를 한 평생의 소원으로 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이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체계가 우리말본의 그것을 뼈다귀로 하고 있음은 당연  
한 일이다. 이 책의 제목을 「우리 옛말본」이라 한 것도 오로지 선생님의 학  
문을 잊지 않겠다는 내 조그마한 충정에서다.

그러나 모든 점이 우리말본과 같아질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술어를 다  
소 고친 데가 있는데, 그것은 그 문법범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까 해서이며, 세부적인 체계가 달라진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는 현  
대말과 15세기 옛말의, 말의 조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데도 있지만, 어떤 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 고친 데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연히 신기함을 내세워 독창적인착  
하려는 심정은 전혀 개재된 것이 아니다.

한 민족의 말은 그 민족의 창조적인 정신 활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다듬어져 가는, 민족 정신의 가장 거대한 소산일뿐 아니라, 이 말은 또한 민  
족의 고유한 정신을 형성하는 데,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우리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과거 중국 문화의 영  
향을 지나치게 입었고, 일제 침략 시대에는 민족 정신과 민족의 말과 글을 조  
직적으로 파괴당했고, 해방 뒤에는 또한 서양 문화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고  
있어서, 우리 민족의 사고의 근저에는 아직까지 민족의 언어와 글자에 대한  
멸시감이 가시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민족의 앞날을 크게 잘못 이끌어갈 것임을 우려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을 한 평생의 과업으로 짊어지신 분이 주 시경 선생님이었으며,  
그 정신적인 감화는 그 후계 학자들에게 크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  
는 주 시경 선생님의 교화를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방  
면의 공부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근 사십년 동안  
변치 않고 이 방면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이러한 고귀한 정  
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쓰게 된 목적도 단순한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데 있  
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올바른 언어생활을 해나가는 데 약간의 도움  
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려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한  
줌의 거름이나마 되려는 데 그 더 큰 목적이 있다. 만약 이러한 더 큰 목적  
을 위해 이바지할 수 없다면 이 책의 가치는 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 책의 본문에는 한문자를 섞지 않았다. 그러나 옛문헌의 인용문에는 많  
은 까다로운 한문자가 섞여 있을뿐 아니라, 지금 쓰지 않는 옛글자도 여간  
많지 않다. 판을 짜는 데 이보다 더 어려운 책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근  
여덟 달 동안 성심성의를 다 기울여 이 책을 만들어 주신, 서울대학교 출판  
부에서 일보시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이 자  
리에 이런 사언을 적어 두는 것이 혹시나 그분들에 대한 보답의 방법이 될  
까 하여 머리말 끝에나마 몇 자 적어 둔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낙산 기슭 연구실 밖에서는 관악산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 연구실은 근 20년 동안 나의 연구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다. 그런데 이곳을 이제 떠나야 한다. 봄이 오면 이 방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릴 것이다.

이 머리말이, 이 방에서 쓰는 글로는 마지막이 될 것임을 생각하면서, 붓을 놓고 잠시 명상에 잠겨 본다.

1975. 1. 29. 저녁

지은이 적음

## 차례

머리말

인용한 옛 문헌.....21

일러두기.....23

## I. 앞머리

|                                       |    |
|---------------------------------------|----|
| 1. 말본의 두 큰 부문——통어론(統語論)과 형태론(形態論)——   | 25 |
| 2. 형태론 .....                          | 30 |
| 1) 굴곡법(屈曲法) .....                     | 30 |
| 2) 조어법(造語法)——낱말 만들기—— .....           | 31 |
| 3) 형태소 .....                          | 33 |
| (1) 형태소의 끝바꿈(변동) .....                | 33 |
| (2) 가상 형태소와 불구 형태소 .....              | 36 |
| (3) 끝없는 가지와, 끝 있어도 가지가 되지 못하는 것 ..... | 37 |
| 3. 통어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 .....               | 40 |
| 4. 월성분 .....                          | 42 |
| 1) 풀이말(서술어)과 그에 종속되는 성분들 .....        | 42 |
| 2) 그밖의 성분들 .....                      | 44 |
| 5. 씨의 분류(품사분류) .....                  | 45 |
| 6. 그 당시의 음운학 대강 .....                 | 51 |
| 1) 글자와 그 소리 .....                     | 51 |
| (1) 글자 .....                          | 51 |
| (2) 없어진 글자의 소리 .....                  | 53 |
| (3) 소리 바뀐 글자의 소리 .....                | 61 |



|                    |    |
|--------------------|----|
| 2) 음운 .....        | 62 |
| 3) 음소의 연결 .....    | 63 |
| (1) 음절 구조 .....    | 63 |
| (2) 모음조화 .....     | 66 |
| (3) 사잇소리 .....     | 67 |
| 7. 그 당시의 표기법 ..... | 69 |

## Ⅱ. 조어론

### — 낱말 만들기 —

|                                    |    |
|------------------------------------|----|
| 1. 조어론과 인접 부문과의 한계 .....           | 74 |
| 1) 굴곡의 가치와 파생의 가치 .....            | 74 |
| 2) 입음(피동)과 하임(사역)의 가치 .....        | 77 |
| 3) 토씨, 씨끝의 파생가치 되기 .....           | 80 |
| 4) 파생어찌씨의 통어적 기능에 관한 문제 .....      | 82 |
| 2. 합성법과 파생법의 관계 .....              | 84 |
| 1) 매김씨와 앞가지 .....                  | 84 |
| 2) 가치와 구별하기 어려운 뿌리 .....           | 85 |
| 3) 뿌리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지 .....           | 85 |
| 4) 「하다」형 풀이씨는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  | 86 |
| 3. 합성법—그 종류, 그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 | 88 |
| 1) 합성어와 그 종류 .....                 | 88 |
| 2) 통어적 합성법과 비통어적 합성법의 관계 .....     | 89 |
| (1) 풀이씨의 줄기와 파생어찌씨 .....           | 89 |
| (2) 매인이름씨를 가진 합성어 .....            | 90 |
| (3) 합성 성분의 끝바꿈 .....               | 90 |
| 4. 합성어 .....                       | 92 |
| 1) 통어적 합성어 .....                   | 92 |

|                              |     |
|------------------------------|-----|
| (1) 임자씨 .....                | 92  |
| (1-1) 이름씨+이름씨 .....          | 93  |
| (가) 대등적인 합성이름씨 .....         | 93  |
| (나) 수식적인 합성이름씨 .....         | 94  |
| (다) 파생적인 합성이름씨 .....         | 97  |
| (1-2) 매김씨(끝)+이름씨 .....       | 99  |
| (가) 매김씨와의 합성 .....           | 99  |
| (나) 풀이씨의 매김씨와의 합성 .....      | 100 |
| (1-3) 어찌씨+이름씨 .....          | 102 |
| (1-4) 셈씨+이름씨 .....           | 103 |
| (1-5) 셈씨+셈씨 .....            | 103 |
| (1-6) 셈씨+매김씨 .....           | 105 |
| (2) 풀이씨 .....                | 105 |
| (2-1) 풀이씨+풀이씨 .....          | 106 |
| (2-2) 어찌씨+풀이씨 .....          | 109 |
| (2-3) 이름씨+풀이씨 .....          | 111 |
| (가) 임자씨 → 임자말 .....          | 111 |
| (나) 임자씨 → 부림말 .....          | 112 |
| (다) 임자씨 → 위치말 .....          | 113 |
| (라) 임자씨 → 방편말 .....          | 113 |
| (마)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음 .....      | 113 |
| (바) 한 성분이 불구적임 .....         | 113 |
| (사) 통어적 구성으로도 처리될 수 있음 ..... | 114 |
| (아) 한 성분이 다시 쪼개지는 것 .....    | 115 |
| (3) 매김씨 .....                | 115 |
| (4) 어찌씨 .....                | 116 |
| 2. 비통어적 합성어(풀이씨) .....       | 116 |



|                             |     |
|-----------------------------|-----|
| (1) 대등적 합성어.....            | 117 |
| (2) 종속적(수식적) 합성어.....       | 120 |
| (3) 파생적 합성어.....            | 129 |
| 5. 파생법.....                 | 134 |
| 6. 앞가지(접두) 파생어.....         | 136 |
| 1) 풀이씨(용언).....             | 136 |
| 2) 임자씨(체언).....             | 142 |
| 7. 뒷가지(접미) 파생어.....         | 149 |
| 1) 풀이씨.....                 | 150 |
| (1) 풀이씨에서.....              | 150 |
| (1-1) 하임말(사역어).....         | 150 |
| (가) 「이」 제.....              | 150 |
| (나) 「오/우」 제.....            | 162 |
| (다) 하임의 의미 내용.....          | 168 |
| (라) 다른 제열의 하임말.....         | 171 |
| (마) 하임말의 의미상의 독립성.....      | 173 |
| (1-2) 입음말(피동어).....         | 174 |
| (1-3) ㅂ-계 뒷가지로 파생된 그림씨..... | 182 |
| (1-4) 힘춤말.....              | 189 |
| (1-5) 그밖의 파생풀이씨.....        | 199 |
| (2) 임자씨에서.....              | 201 |
| (3) 그밖의 품사에서.....           | 207 |
| (4) 「ㄸ다」형 풀이씨.....          | 209 |
| (4-1) 이름씨+ㄸ다.....           | 209 |
| (4-2) 어찌씨+ㄸ다.....           | 212 |
| (4-3) 불구뿌리(불구어근)+ㄸ다.....    | 215 |
| 2) 임자씨.....                 | 222 |

|                   |     |
|-------------------|-----|
| (1) 임자씨에서.....    | 222 |
| (2) 풀이씨에서.....    | 229 |
| (3) 그밖의 품사에서..... | 238 |
| 3) 어찌씨.....       | 239 |
| (1) 풀이씨에서.....    | 239 |
| (2) 임자씨에서.....    | 255 |
| (3) 그밖의 품사에서..... | 257 |
| 4) 매김씨.....       | 259 |
| 5) 이음씨.....       | 260 |
| 6) 토씨.....        | 260 |

### Ⅲ. 준굴곡론

#### — 임자씨와 토씨 —

|                                         |     |
|-----------------------------------------|-----|
| 1. 임자씨(체언).....                         | 262 |
| 1) 그 됴됨이.....                           | 262 |
| 2) 임자씨의 다양한 용법.....                     | 263 |
| 3) 매인이름씨(불완전명사).....                    | 274 |
| (1)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      | 275 |
| (1-1) 전형적인 매인이름씨.....                   | 276 |
| (1-2) 불구적인 매인이름씨.....                   | 287 |
| (1-3) 수단위 매인이름씨.....                    | 294 |
| (2) 전체구성을 한가지 월성분으로만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 | 296 |
| (2-1) 어찌말 매인이름씨.....                    | 296 |
| (2-2) 위치말 매인이름씨.....                    | 297 |
| 4) 임자씨의 형태음소적 변동.....                   | 300 |
| (1) 끝음소 변동.....                         | 302 |



|                              |     |
|------------------------------|-----|
| (1-1) 바뀔 .....               | 302 |
| (가) /ㅈ, ㅊ, △/→/ㅅ/.....       | 303 |
| (나) /ㅌ/→/ㄷ/.....             | 305 |
| (다) /(ㄹ)ㅍ/→/(ㄹ)ㅂ/.....       | 306 |
| (1-2) 줄임 .....               | 307 |
| (가) 끝닿소리 줄임 .....            | 307 |
| (가-1) /ㅈ, ㅊ, ㅌ/의 끝소리 줄임..... | 307 |
| (가-2) /ㅎ/ 줄임 .....           | 309 |
| (가-3) 사잇소리 앞 닿소리 줄임 .....    | 313 |
| (나) 끝(반)홀소리 줄임 .....         | 315 |
| (나-1) /ㅇ, 으/ 줄임.....         | 315 |
| (나-2) /이/ 줄임 .....           | 320 |
| (나-3) ㅁ이 /j/ 줄임 .....        | 323 |
| (다) 끝홀소리 줄고 /ㄱ/이 덧붙 .....    | 324 |
| (라) 썸씨의 경우 .....             | 326 |
| (2) 첫음소 변동.....              | 326 |
| (3) 운소 변동.....               | 327 |
| (4) 요약 .....                 | 329 |
| 2. 토씨 .....                  | 330 |
| 1) 토씨의 분류 .....              | 330 |
| 2) 자리토씨(격조사).....            | 332 |
| (1) 첫째자리 토씨.....             | 334 |
| (1-1) 임자자리 토씨(주격 조사) .....   | 335 |
| (1-2) 부림자리 토씨(목적격 조사) .....  | 339 |
| (1-3) 위치자리 토씨(위치격 조사) .....  | 343 |
| (1-4) 견준자리 토씨(대비격 조사) .....  | 348 |
| (1-5) 방편자리 토씨(방편격 조사) .....  | 352 |

|                                            |     |
|--------------------------------------------|-----|
| (2) 둘째자리 토씨 —매김자리 토씨—.....                 | 353 |
| (3) 세째자리 토씨 —부름자리 토씨—.....                 | 356 |
| 3) 연결토씨.....                               | 360 |
| (1) 낱말연결 토씨.....                           | 361 |
| (2) 마디연결 토씨.....                           | 364 |
| 4) 물음토씨.....                               | 367 |
| (1) 고-물음 토씨 .....                          | 367 |
| (2) 가-물음 토씨 .....                          | 369 |
| 5) 도움토씨(보조조사).....                         | 370 |
| (1) 임자씨에뿐 아니라 다른 말에도 붙을 수 있는<br>도움토씨 ..... | 371 |
| (2) 임자씨에만 붙을 수 있는 도움토씨 .....               | 388 |
| (3) 임자씨에는 붙지 않는 도움토씨.....                  | 393 |
| 6) 토씨의 겹침 .....                            | 395 |
| (1) 연결토씨와 다른 토씨와의 겹침.....                  | 395 |
| (1-1) 연결토씨+자리토씨 .....                      | 396 |
| (1-2) 연결토씨+도움토씨 .....                      | 398 |
| (1-3) 연결+자리+도움 .....                       | 398 |
| (1-4) 연결+도움+도움 .....                       | 399 |
| (2) 자리토씨와 다른 토씨와의 겹침.....                  | 399 |
| (2-1) 자리+도움(+도움) .....                     | 399 |
| (가) 임자자리 토씨와의 겹침.....                      | 399 |
| (나) 부림자리 토씨와의 겹침.....                      | 400 |
| (다) 위치자리 토씨와의 겹침.....                      | 400 |
| (라) 방편자리 토씨와의 겹침.....                      | 402 |
| (2-2) 자리+연결 .....                          | 403 |
| (2-3) 자리토씨 끼리 겹침 .....                     | 403 |



|                     |     |
|---------------------|-----|
| (3) 물음+연결 .....     | 404 |
| (4) 도움토씨와의 겹침 ..... | 404 |
| (4-1) 도움+도움 .....   | 404 |
| (4-2) 도움+자리 .....   | 405 |
| (4-3) 도움+연결 .....   | 406 |

#### IV. 굴곡론

##### — 풀이씨와 그 활용 —

|                                                        |     |
|--------------------------------------------------------|-----|
| 1. 풀이씨(용언)의 특색과 그 갈래 .....                             | 409 |
| 1) 풀이씨의 특색 .....                                       | 409 |
| 2) 풀이씨의 갈래 .....                                       | 411 |
| (1) 잡음씨(지정사)와 다른 풀이씨 .....                             | 411 |
| (2) 매효(도움)풀이씨 .....                                    | 416 |
| (2-1) 「-아/어」 활용형에 접속되는 매효풀이씨 .....                     | 418 |
| (2-2) 「-게」에 접속되는 매효풀이씨 .....                           | 429 |
| (2-3) 「-아/어」와 「-거(어)」, 「-가(아)」에 두루 접속되는<br>매효풀이씨 ..... | 430 |
| (2-4) 「-다, -게, -아/어」에 접속되는 매효풀이씨 .....                 | 431 |
| (2-5) 여러가지 말에 붙을 수 있는 매효풀이씨 .....                      | 432 |
| (2-6) 매효풀이씨의 겹침 .....                                  | 439 |
| (3) 불구풀이씨 .....                                        | 440 |
| 2. 풀이씨의 줄기 .....                                       | 444 |
| 1) 그 됴름이 .....                                         | 444 |
| 2) 형태음소적 변동 .....                                      | 445 |
| (1) 끝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뀔 .....                               | 446 |
| (1-1) 끝닿소리의 바뀔 .....                                   | 446 |
| (가) 여덟 종성이 아닌 경우 .....                                 | 446 |

|                               |     |
|-------------------------------|-----|
| (가-1) /ㅈ, ㅉ, △/→/ㅅ/ .....     | 446 |
| (가-2) /ㅌ/→/ㄷ/ .....           | 449 |
| (가-3) /ㅍ, ㅑ/→/ㅂ/ .....        | 450 |
| (가-4) /ㅎ/의 경우 .....           | 452 |
| (나) 여덟 종성인 경우 .....           | 453 |
| (1-2) 끝닿소리의 바뀔 .....          | 454 |
| (2) 끝소리 줄임 .....              | 455 |
| (2-1) 끝닿소리 줄임 .....           | 455 |
| (가) /ㅃ, ㅅ, ㅈ/→/ㅂ, ㅅ, ㅅ/ ..... | 455 |
| (나) /ㄹ/ 줄임 .....              | 456 |
| (다) /ㅊ/→/ㅈ/ .....             | 458 |
| (2-2) 끝닿소리(또는 끝음절) 줄임 .....   | 459 |
| (가) /ㅇ, 으/ 줄임 .....           | 459 |
| (가-1) 「ㅍ→파」 형 .....           | 459 |
| (가-2) 「다르→달아」 형 .....         | 460 |
| (가-3) 「시르→심거」 형 .....         | 462 |
| (나) 「ㅎ다」 형 풀이씨 .....          | 463 |
| (나-1) 「-오/우-」 앞에서 .....       | 463 |
| (나-2) /ㄱ, ㄷ/ 앞에서 .....        | 463 |
| (나-3) /ㄱ, ㄷ/ 사이에서 .....       | 463 |
| (나-4) 「퍼러ㅎ-」 따위 .....         | 465 |
| (나-5) 「만ㅎ-」 .....             | 466 |
| (다) 「녀-」→「니-」 .....           | 467 |
| (라) 「이시-」→「잇-」 .....          | 467 |
| (마) 「위여」→「무여」 형 .....         | 467 |
| (3) 잡음씨의 「-이-」 .....          | 469 |
| (3-1) 닿소리에 붙음 .....           | 469 |



|                                  |     |
|----------------------------------|-----|
| (3-2) /i, j/ 이외의 홀소리에 붙음.....    | 470 |
| (3-3) /i, j/에 붙음 .....           | 470 |
| (4) 운소 변동.....                   | 471 |
| (4-1) 한 음절.....                  | 471 |
| (가) 평~거~상.....                   | 471 |
| (나) 상~평.....                     | 472 |
| (4-2) 두 음절.....                  | 472 |
| (가) 평~거~상.....                   | 472 |
| (나) 상~평.....                     | 473 |
| (다) 평~거.....                     | 473 |
| (라) 평거~상.....                    | 473 |
| 3. 씨끝의 분석.....                   | 475 |
| 1) 맺음씨끝.....                     | 476 |
| (1) 기능에 의한 맺음씨끝의 분류.....         | 477 |
| (1-1) 두기능법의 두가지 하위범주 .....       | 479 |
| (1-2) 한기능법의 두가지 하위범주 .....       | 480 |
| (2) 줄기와의 연결 방식에 의한 맺음씨끝의 분류..... | 481 |
| 2) 안맺음씨끝 (도움줄기, 보조어간) .....      | 483 |
| 3) 씨끝의 굴곡범주 .....                | 485 |
|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              | 486 |
| 1) 한기능법의 굴곡범주 .....              | 486 |
| (1) 마침법(종지법) — 의향법 — .....       | 486 |
| (1-1) 서술법 .....                  | 487 |
| (1-2) 물음법(의문법) .....             | 495 |
| (가) 인칭물음법.....                   | 496 |
| (가-1) 2-인칭 물음법 .....             | 496 |
| (가-2) 1·3-인칭 물음법 .....           | 500 |

|                                 |     |
|---------------------------------|-----|
| (i) 고-물음법.....                  | 500 |
| (ii) 가-물음법.....                 | 501 |
| (나) 비인칭물음법.....                 | 505 |
| (나-1) 「니, 리」 개입.....            | 505 |
| (i) 고-물음법.....                  | 505 |
| (ii) 가-물음법.....                 | 509 |
| (iii) 맺음씨끝 「-고」, 「-가」의 줄임 ..... | 513 |
| (나-2) 잡음씨의 경우 .....             | 514 |
| (i) 고-물음법.....                  | 514 |
| (ii) 가-물음법.....                 | 515 |
| (1-3) 시킴법(명령법) .....            | 516 |
| (1-4) 피임법 .....                 | 519 |
| (2) 이음법(접속법) .....              | 521 |
| (2-1) 제약법(구속법).....             | 522 |
| (2-2) 불구법(양보법).....             | 563 |
| (2-3) 나열법.....                  | 583 |
| (2-4) 가림법(선택법).....             | 591 |
| (2-5) 의도법.....                  | 593 |
| (2-6) 미침법.....                  | 601 |
| (2-7) 전환법.....                  | 605 |
| (2-8) 비교법(견준법).....             | 608 |
| (2-9) 동시법.....                  | 612 |
| (2-10) 설명법.....                 | 612 |
| (2-11) 비례법.....                 | 615 |
| (2-12) 흡사법.....                 | 616 |
| (2-13) 힘준법(강세법).....            | 618 |
| (2-14) 가치법.....                 | 619 |



|                              |     |
|------------------------------|-----|
| (2-15) 되풀이법                  | 620 |
| (2-16) 연결법                   | 621 |
| 2) 두기능법의 굴곡범주                | 627 |
| (1) 이름법(명사법)                 | 627 |
| (2) 매김법(관형법)                 | 639 |
|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 655 |
| 1) 높임법                       | 655 |
| (1) 상대높임법(들일이높임)             | 656 |
| (1-1) 높임                     | 656 |
| (가) 서술법                      | 656 |
| (나) 물음법                      | 663 |
| (나-1) 고-물음법                  | 663 |
| (나-2) 가-물음법                  | 665 |
| (다) 피임법                      | 667 |
| (라) 시킴법                      | 668 |
| (1-2) 안높임                    | 669 |
| (가) 서술법                      | 669 |
| (나) 물음법                      | 670 |
| (나-1) 고-물음법                  | 670 |
| (나-2) 가-물음법                  | 671 |
| (나-3) 물음말과 관계 없는 물음법         | 672 |
| (다) 피임법                      | 672 |
| (라) 시킴법                      | 672 |
| (2) 주체높임법                    | 673 |
| (2-1) 주체가 임자말로 표현된 경우        | 674 |
| (2-2) 주체가 바로 임자말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 683 |
| (2-3) 주체높임이 아닌 「-으시-」        | 686 |

|                                 |     |
|---------------------------------|-----|
| (2-4) 「-으시-」와 「이시-」             | 688 |
| (3) 객체높임법                       | 691 |
| (3-1) 「-습-」의 변이형태               | 691 |
| (3-2) 그 용법                      | 696 |
| (가) 객체⇒부림말                      | 696 |
| (나) 객체⇒위치말                      | 700 |
| (다) 객체⇒전증말                      | 704 |
| (라) 속구조에 있는 객체                  | 704 |
| (3-3) 풀이씨 둘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706 |
| (가) 으뜸풀이씨와 도움풀이씨                | 706 |
| (나) 으뜸풀이씨와 으뜸풀이씨                | 708 |
| (3-4) 다른 안맺음씨끝들과의 결합            | 710 |
| (3-5) 말할이의 주관에 좌우되는 「-습-」의 용법   | 721 |
| (3-6) 객체높임의 낱말들                 | 723 |
| (3-7) 「-습-」에 대한 다른 견해들          | 724 |
| (4) 높임법의 겹침                     | 728 |
| (4-1) 주체-객체높임의 겹침               | 728 |
| (4-2) 주체-상대높임의 겹침               | 728 |
| (4-3) 객체-상대높임의 겹침               | 729 |
| (4-4) 주체-객체-상대높임의 겹침            | 730 |
| 2) 인칭법                          | 730 |
| (1) 안맺음씨끝 「-오/우-」와 맺음씨끝과의 관계    | 730 |
| (2) 안맺음씨끝 「-오/우-」에 의한 인칭법       | 732 |
| (2-1) 「-다, -으니」 활용형 (1)         |     |
| —— 「-으리-」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        | 732 |
| (가) 1-인칭법                       |     |
| —— 「-오/우-」를 가진 「-다, -으니」 활용형 —— | 732 |



|          |                                    |     |
|----------|------------------------------------|-----|
| .....    | (가-1) 전형적인 1-인칭 활용.....            | 732 |
| 100..... | (가-2) 인용말에 나타나는 1-인칭 활용 .....      | 740 |
| 100..... | (가-3) 임자말의 표현 형식.....              | 744 |
| 000..... | (가-4) 임자말이 둘인 경우.....              | 748 |
| 000..... | (나) 2·3-인칭법 .....                  |     |
| 000..... | ——「-오/우-」 없는 「-다, -으니」 활용형 ——..... | 750 |
| 000..... | (다) 예외.....                        | 755 |
| 000..... | (다-1) 이유 없는 예외.....                | 755 |
| 000..... | (다-2) 이유 있는 예외.....                | 756 |
| 000..... | (다-3) 잘못된 표기 .....                 | 758 |
| 000..... | (라) 남은 말 .....                     | 758 |
| 000..... | (라-1) 일반적인 진리의 표현.....             | 758 |
| 000..... | (라-2) /병/ 소실 후의 어형 혼란.....         | 759 |
| 000..... | (라-3) 두가지 어형이 한 월 안에 나타나는 일.....   | 759 |
| 000..... | (라-4) 인칭활용형과 혼동되기 쉬운 예 .....       | 760 |
| 000..... | (마) 「-오/우-」와 배타적인 안맺음씨끝과의 결합.....  | 760 |
| 000..... | (2-2) 「-다, -으니」 활용형 (2) .....      |     |
| 000..... | ——「-으리-」가 연결된 경우 —— .....          | 763 |
| 000..... | (가) 1-인칭 의도법 .....                 | 764 |
| 000..... | (가-1) 전형적인 예 .....                 | 764 |
| 000..... | (가-2) 인용말의 예 .....                 | 767 |
| 000..... | (나) 2·3-인칭 무의도법 .....              | 771 |
| 000..... | (다) 예외적 용례 .....                   | 773 |
| 000..... | (다-1) 말할이의 의도 없는 1-인칭월 .....       | 773 |
| 000..... | (다-2) 말할이의 의도 있는 2·3-인칭월 .....     | 774 |
| 000..... | (다-3) 그 밖의 예외.....                 | 777 |
| 000..... | (라) /병/ 소실 후의 어형 혼란.....           | 780 |

|          |                                       |     |
|----------|---------------------------------------|-----|
| .....    | (2-3) 「-다, -으니」 이외의 활용형 .....         | 781 |
| 000..... | (가) 인칭 표시가 분명한 활용형 .....              | 782 |
| 000..... | (나) 인칭 표시가 똑똑하지 않은 활용형.....           | 783 |
| 000..... | (다) 불구적 맺음씨끝 .....                    | 787 |
| 000..... | (3) 「오/우-」 이외의 다른 안맺음씨끝에 의한 인칭법 ..... | 788 |
| 000..... | (3-1) 「-다-」:「-더-」 .....               | 788 |
| 000..... | (가) 1-인칭법.....                        | 788 |
| 000..... | (나) 2·3-인칭법.....                      | 793 |
| 000..... | (다) 예외.....                           | 795 |
| 000..... | (3-2) 「-과-」:「-으니-」 .....              | 796 |
| 000..... | (가) 1-인칭법.....                        | 796 |
| 000..... | (나) 2·3-인칭법.....                      | 798 |
| 000..... | (3-3) 「-가-」:「-거-」 .....               | 800 |
| 000..... | 〈인칭법 마무리〉.....                        | 807 |
| 000..... | 3) 주체-대상법 .....                       | 807 |
| 000..... | (1) 매김법 활용과 「-오/우-」.....              | 807 |
| 000..... | (2) ㄴ 매김꼴.....                        | 809 |
| 000..... | (2-1) 주체법과 대상법.....                   | 810 |
| 000..... | (가) 완전한 임자씨를 한정하는 경우 .....            | 810 |
| 000..... | (가-1) 「-은」:「-오/우+ㄴ」 .....             | 810 |
| 000..... | (가-2) 「-스(스, 즈)ㄴ」:「-스(스, 즈)ㄴ」.....    | 819 |
| 000..... | (가-3) 「-(습)으신」:「-(습)으샤」.....          | 819 |
| 000..... | (가-4) 「-(습)(으시)ㄴ」:「-(습)(으시)ㄴ」.....    | 822 |
| 000..... | (가-5) 한 월 안에서 대조적으로 쓰인 두 활용형.....     | 829 |
| 000..... | (가-6) 잡음씨의 두 활용형.....                 | 833 |
| 000..... | (나) 매인이름씨를 한정하는 경우.....               | 834 |
| 000..... | (2-2) 주체-대상법 아닌 ㄴ 매김꼴 .....           | 840 |



|                                  |     |
|----------------------------------|-----|
| (가) 입자말 부립말 이외의 성분인 경우           | 840 |
| (가-1) 위치말                        | 842 |
| (i) 주체법 활용을 사용한 예                | 842 |
| (ii) 대상법 활용을 사용한 예               | 842 |
| (iii) 두가지 활용형이 섞여쓰인 예            | 843 |
| (가-2) 방편말                        | 846 |
| (i) 주체법 활용이 쓰인 예                 | 846 |
| (ii) 대상법 활용이 쓰인 예                | 846 |
| (iii) 두가지 활용형이 섞여쓰인 예            | 846 |
| (가-3) 견준말                        | 848 |
| (나) 속구조로 돌이킬 수 없는 매김꼴            | 848 |
| (2-3) 총괄                         | 855 |
| (2-4) 예외                         | 856 |
| (가) 입자말로 돌이킬 수 있는 말에 대상활용이 쓰인 예외 | 856 |
| (나) 부립말로 돌이킬 수 있는 말에 주체활용이 쓰인 예외 | 857 |
| (다) 예외에 대한 풀이                    | 860 |
| (2-5) 「-단」, 「-간」과 「-던」, 「-건」     | 861 |
| (가) 「-단」: 「-던」                   | 862 |
| (나) 「-간」: 「-건」                   | 864 |
| (다) 「-거신, -더신」 형에 대해서            | 865 |
| (2-6) 독립적으로 쓰인 ㄴ 매김꼴             | 865 |
| (가) 「-오/우+ㄴ」 형                   | 865 |
| (나) 「-은」 형                       | 866 |
| (3) ㄴ 매김꼴                        | 866 |
| (3-1) 주체법과 대상법                   | 867 |

|                                |     |
|--------------------------------|-----|
| (가) 완전한 입자씨를 한정하는 경우           | 867 |
| (가-1) 「-을」: 「-오/우+ㄴ」           | 867 |
| (가-2) 「-스(스, 즈)불」: 「-스(스, 즈)불」 | 869 |
| (가-3) 「-으실」: 「-으샤」             | 869 |
| (나) 매인이름씨를 한정하는 경우             | 869 |
| (3-2) 주체-대상법 아닌 ㄴ 매김꼴          | 871 |
| (가) 입자말 부립말 이외의 성분인 경우         | 871 |
| (가-1) 위치말                      | 871 |
| (가-2) 방편말                      | 872 |
| (나) 속구조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           | 873 |
| (나-1) 주체활용을 씀                  | 873 |
| (나-2) 대상활용을 씀                  | 874 |
| (나-3) 「ㄷ, 디」                   | 874 |
| (3-3) 예외                       | 875 |
| (3-4) 독립적으로 쓰인 ㄴ 매김꼴           | 876 |
| 4) 때매김법                        | 877 |
| (1) 현실법                        | 878 |
| (2) 확정법(기정법)                   | 882 |
| (2-1) 안맺음씨끝으로                  | 882 |
| (가) 「-으니-」                     | 882 |
| (나) 「-과/와-」                    | 887 |
| (2-2) 맺음씨끝 「-은(-)」으로           | 888 |
| (가) 매김법에서                      | 888 |
| (나) 물음법에서                      | 889 |
| (3) 추정법(미정법)                   | 891 |
| (3-1) 안맺음씨끝 「-으리-」로            | 891 |
| (3-2) 맺음씨끝 「-을(-)」로            | 896 |



|                                                                |     |
|----------------------------------------------------------------|-----|
| (가) 매김법에서.....                                                 | 896 |
| (나) 물음법에서.....                                                 | 899 |
| (4) 회상법(경험법) .....                                             | 900 |
| (4-1) 2·3-인칭 「-더/러-」로 .....                                    | 900 |
| (4-2) 1-인칭 「-다/라-」로 .....                                      | 904 |
| (5) 때매김 씨끝들의 겹침 .....                                          | 905 |
| (5-1) 「-은」과 다른 때매김 씨끝들과의 겹침<br>——「-은」은 본디의 뜻을 잃어버린다——.....     | 906 |
| (가) 「-ㄴ+ㄴ(-)」.....                                             | 906 |
| (가-1) 매김법에서.....                                               | 906 |
| (가-2) 물음법에서.....                                               | 909 |
| (나) 「-으리+ㄴ」 .....                                              | 911 |
| (다) 「-더+ㄴ(-)」.....                                             | 911 |
| (다-1) 매김법에서.....                                               | 912 |
| (다-2) 물음법에서.....                                               | 913 |
| (라) 「-다+ㄴ」 .....                                               | 914 |
| (5-2) 「-으니-」와 다른 때매김 씨끝들과의 겹침<br>——「-으니-」의 뜻은 약간 번져나간다—— ..... | 915 |
| (가) 「-ㄴ+니-」.....                                               | 915 |
| (나) 「-으리+니-」.....                                              | 917 |
| (다) 「-더+니-」.....                                               | 918 |
| (라) 「-다+니-」.....                                               | 920 |
| (5-3) 「-으리-」와 「-더-」와의 겹침<br>—— 두 형태소가 다 제 뜻을 유지한다 ——.....      | 920 |
| (5-4) 「-으리+러+니-」 .....                                         | 921 |
| (6) 때매김이 표시되지 않은 활용형 .....                                     | 922 |
| 5) 강조-영탄법 .....                                                | 923 |

|                       |     |
|-----------------------|-----|
| (1) 「-아/어-」 계 .....   | 923 |
| (1-1) 「-아/어-」.....    | 923 |
| (1-2) 「-애/에-」.....    | 930 |
| (1-3) 「-엿/엇-」.....    | 931 |
| (2) 「-거-」 계.....      | 932 |
| (2-1) 「-거/어/나-」 ..... | 932 |
| (2-2) 「-가/아-」.....    | 941 |
| (2-3) 「-게-」 .....     | 943 |
| (2-4) 「-것-」 .....     | 943 |
| (3) 「-도-」 계.....      | 944 |
| (3-1) 「-도(두)/로-」..... | 944 |
| (3-2) 「-똥-」 .....     | 948 |
| (4) 「-노-」 계.....      | 948 |
| (4-1) 「-노-」 .....     | 948 |
| (4-2) 「-똥-」 .....     | 949 |
| (5) 「-다-」 계.....      | 950 |
| (5-1) 「-다/라-」.....    | 950 |
| (5-2) 「-닷/랏-」.....    | 951 |
| (6) 「-샤-」 계.....      | 952 |
| (6-1) 「-으샤-」 .....    | 952 |
| (6-2) 「-으샷-」 .....    | 953 |
| (7) 「-소, 스-」 계 .....  | 953 |
| (7-1) 「-소-」 .....     | 954 |
| (7-2) 「-스-」 .....     | 955 |
| 6. 씨끝형태소의 연결 .....    | 956 |



## V. 그밖의 품사들

|                    |     |
|--------------------|-----|
| 1) 꾸밈씨(수식사).....   | 979 |
| (1) 매김씨(관형사) ..... | 979 |
| (2) 어찌씨(부사) .....  | 981 |
| 2) 홀로씨(독립사).....   | 983 |
| (1) 이음씨(접속사) ..... | 983 |
| (2) 느낌씨(감탄사) ..... | 984 |
| 찾아보기.....          | 985 |
| 씨끝형태소 연결표          |     |

## [인용한 옛 문헌]

### <15세기 후반기의 문헌>

| <문헌 이름>         | <펴낸 연대>   | <줄임표>     |
|-----------------|-----------|-----------|
| 龍飛御天歌           | 1445 A.D. | (용)       |
| 訓民正音 解例         | 1446 A.D. | (훈, 해례)   |
| 訓民正音 諺解         | 1450 경    | (훈, 언해)   |
| 釋譜詳節            | 1447 A.D. | (석보)      |
| 月印千江之曲          | 1448 경    | (천강곡)     |
| 月印釋譜            | 1459 A.D. | (월석)      |
| 楞嚴經 諺解          | 1462 A.D. | (능엄)      |
| 妙法蓮華經 諺解        | 1463 A.D. | (법화)      |
| 蒙山和尚法語略錄        | 세조 때      | (몽산)      |
| 圓覺經 諺解          | 1465 A.D. | (원각)      |
| 金剛經 諺解          | 1464 A.D. | (금강)      |
| 禪宗永嘉集 諺解        | 1464 A.D. | (영가)      |
| 金剛經 三家解         | 1482 A.D. | (금강삼가)    |
| 永嘉大師證道歌 南明泉禪師繼頌 | 1482 A.D. | (남명)      |
| 六祖法寶壇經 諺解       | ?         | (육조)      |
| 內訓(일본 蓬左文庫 판)   | 1475 A.D. | (내훈)      |
| 杜詩 諺解           | 1481 A.D. | (두언)      |
| 佛說阿彌陀經 諺解       | 1464 A.D. |           |
| 佛頂心經            | 1485 A.D. |           |
| 五臺山上院寺 重創勸善文    | 1464 A.D. | (상원사 권선문) |
| 般若波羅密多心經 諺解     | 1464 A.D. | (반야심경)    |
| 救急方 諺解          | 1466 A.D. | (구급방)     |



救急簡易方 1489 A.D.  
樂學軌範 1493 A.D.

<그밖에 참조로 한 문헌>(16세기 이후의 문헌)

|           |           |         |
|-----------|-----------|---------|
| 杜詩 諺解 重刊  | 1632 A.D. | (두언 중간) |
| 訓蒙字會      | 1527 A.D. | (자회)    |
| 匹聲通解      | 1517 A.D. |         |
| 七大万法      | 1569 A.D. |         |
| 靈驗略抄      | 1550 A.D. |         |
| 續三綱行實圖    | 1514 A.D. |         |
| 正俗 諺解     | 1518 A.D. |         |
| 樂章歌詞      | 중종 때      |         |
| 朴通事 諺解 初刊 | 16세기 초    |         |
| 朴通事 諺解 重刊 | 1677 A.D. |         |
| 老乞大 諺解    | 1670 A.D. |         |
| 譯語類解      | 1690 A.D. |         |

## 일러두기

1. 이 책은, 서기 15세기 후반기의 국어 말본을 공식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인용한 문헌은 서기 15세기 후반기에 나온 것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후의 옛 문헌도 참조로 하였다. (이 경우에는 그 인용문 앞에 ☆표를 붙인다.)

2. 학술어는 되도록이면 고유한 우리말을 가려쓰도록 노력하였으나, 너무 어색한 것은 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자어와 순수국어의 혼합어를 만들어 쓴 것도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의 학술어 만드는 한 방향을 제시하노라 한 것이다.

3. 한 학술어는 되도록이면 하나로 붙여쓰도록 하였으며, 매인이름씨 (불완전명사)는 띄어쓰도록 하였다.

4. 편, 절, 항목의 계층 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I, II, III.....

1, 2, 3, 4.....

1), 2), 3).....

(1), (2), (3).....

(1-1), (1-2), .....(2-1), (2-2), .....(3-1), (3-2).....

(가), (나), (다).....

(가-1), (가-2).....(나-1), (나-2).....

(i), (ii), (iii).....

5. 인용문장의 소재를 밝힐 때는, 그 끝 ( ) 안에 줄임표와 권수와 책장수를 나타내도록 하되, 권수와 책장수는 ‘:’으로 구분한다. 예, (능엄 2: 15)——楞嚴經 諺解 2권 15장

숫자가 한가지로만 된 것은 단권으로 된 책이다. 예, (금강 25)——金剛經 諺解 25장



다만 '용가'와 '천강곡'은 그 장(章)을 표시하기로 했다.

6. 형태소는 「 」 안에 넣고, 구속형태는 그 앞이나/과 뒤에 「-」을 둔다.

7. 한 인용문 안에, 풀이가 필요한 말이나 일이 있을 때는, 그 바로 밑줄에서 설명하되, 그 글 앞에는 ㅍ표를 둔다.

8. 월인천강지곡은 한글이 한자 위에 놓여 있으므로 한자어도 응당 한글로 표기해야 마땅할 것이나, 동국정운의 표음방법의 복잡성 때문에, 다른 문헌과 같이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 I. 앞머리

### 1. 말본의 두 큰 부분

—— 통어론(統語論)과 형태론(形態論) ——

1. 한 낱말은 한 형태소<sup>(1)</sup>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둘 이상의 형태소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다리, 눈, 머리, 집, 해, 달」 따위는, 이것을 다시 쪼개면, 이 말들이 가지고 있던 뜻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로 된 말이고, 「눈-물, 덧-신, 먹-었-다, 짓-밟-다」 따위는 둘이나 셋의 형태소로 쪼갤 수 있다.

이와같이 낱말은 하나 또는 둘 더 되는 형태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 형태소의 끝과 종류와 그것이 결합되는 방법은 각 언어에 따라 다르다. 형태소의 됴됨이, 그 종류,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낱말을 만드는 방법, 또는 낱말을 형태소로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문법학의 한 부분을 「형태론」이라 한다.<sup>(2)</sup>

2. 낱말은 다시 모여서, 이은말<sup>(3)</sup>이나 마디나 율을 만드는 것인데, 낱

(1) 소리와 뜻이 결합된 말의 낱덩이로서 가장 작은 것. 이것을 다시 쪼개면 그 말이 가지고 있던 뜻이 파괴되기에 이른다. 즉 「다리」(동물 몸의 아랫부분)는 소리로서는 /ㄷㅏ/와 /ㄹ/로, 또는 /ㄷ/과 /ㅏㄹ/로, /다ㄹ/과 /ㅣ/로 쪼갤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다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은 파악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다리」는 더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형태소다. 형태소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허 용: 언어학 개론(1963, 정음사) p.174 이하.

(2) 같은 책. pp.170-171. 참조.

(3) “개나리 꽃, 닭의 알”과 같이,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기는 하나, 말로서는 둘 이상의 낱말로 된 것을 최 현배 님은 「이은말」이라 했다.

우리말본〈네번째 교침〉(1971, 정음사), p.149. 참조.



말이 모여서 이러한 말들을 만드는 방법, 또는 거꾸로, 이러한 말들을 낱말로 쪼개는 방법을 연구하는 부문을 「통어론」이라 한다.<sup>(4)</sup>

3. 그런데 여기 한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낱말의 성격이다. 낱말은 일반적으로 확고한 말의 단위로 인정되는 것이지만,<sup>(5)</sup>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낱말의 정의는 결정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때로는 그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국어에서는 낱말 띄어쓰기의 전통이 오래지 않기 때문에, 낱말을 규정하는 방법이 문법학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것은 붉은 집이다”란 일은 세 낱말로 보는 일도 있고, 넷으로 보는 일도 있고, 다섯이나 여섯 또는 일곱으로 보는 일도 있다.<sup>(6)</sup> 그러므로 우리는 통어론과 형태론의 경계를 다른데에 찾아보아야 한다.

4. 일정한 소리와 일정한 의미 내용이 서로 맞붙어 있는 말을 「언어형식」<sup>(7)</sup>이라 하는데, 이 언어형식은, 짧은 것으로는 형태소에서, 긴 것으로는 율이나 말의 도막까지를 다 포함한다. 언어형식 가운데는 그것만

(4) 「통어론」은 일반적으로는 「통사론」(統辭論)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한자어의 「사」란 말은 그 내용이 그리 분명하지 않을뿐 아니라, 국어문법에서는 일정한 정의가 주어져 쓰이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통사론」이란 말 대신에 「통어론」을 쓰기로 한다. 「어」(語)는 낱말의 뜻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며, 또 「어절」(語節)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통어」란, ‘낱말이나 어절의 통합’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통어론의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허 용 : 언어학 개론. p.170.

(5) 그 일례만을 들어 보면;

R.H. Robins: General Linguistics, An Introductory Survey. (London, 1964). p.192.

그러나 그 띄어쓰기와 언어 연구의 역사가 오랜 인도구라파어에 있어서도 낱말 규정은 학자에 따라 다른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허 용 : 언어학 개론. p.170 참조.

(6) 저것은 붉은 집이다. (7)

—— — (6)

—— — (5)

—— — (4)

—— — (3)

(7) 言語形式. linguistic form의 번역.

으로 따로 서는 힘을 가진 「자립형식」<sup>(8)</sup>과, 따로 서는 힘이 없는 「구속형식」<sup>(9)</sup>이 있다. ‘범을 잡았다’는 하나의 자립형식이다. ‘범을’과 ‘잡았다’도 다 각각 자립형식이다. 또 ‘범’도 자립형식이다. 그러나 ‘-을, 잡-, -았-, -다’와 같은 형태소는 구속형식이다.

범-을 잡-았-다

[ — 그은 것은 자립형식 (f) ]  
[ ~ 그은 것은 구속형식 (b) ]

이 말에는 자립형식이 넷이 있는데, 그 성질은 각각 다르다. ‘범’은 단 하나의 형태소로 되었고(f), ‘범을’은 자립과 구속 두 언어형식으로 되었고(f+b), ‘잡았다’는 셋의 구속형식으로 되었고(b+b+b), ‘범을 잡았다’는 둘의 자립형식으로 되어 있다(f+f)<sup>(10)</sup>. 두 자립형식의 통합으로 된 자립형식(‘범을 잡았다’) 아닌 자립형식(범을, 잡았다, 범)을 「최소 자립형식」<sup>(11)</sup>이라 한다.

최소 자립형식을 만들고 있는, 자립형식과 구속형식의 통합 방법, 또는 구속형식과 구속형식의 통합 방법(이 두 통합은 어느 한 쪽이 구속형식이란 점으로 공통성이 있다)을 연구하는 부문이 형태론이고, 둘의 자립형식의 통합방법(그리하여 더 큰 자립형식이 형성된다)을 연구하는 부문이 통어론이다.<sup>(12)</sup>

(8) 自立形式. free form의 번역.

(9) 拘束形式. bound form의 번역.

(10)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f+b)+(b+b+b)로 되어 있지만, 제일차적인 분석으로 얻어지는 직접성분(IC)으로 보면, ‘범을’과 ‘잡았다’의 두 자립형식으로 되어 있다.

(11) 最小 自立形式. minimum free form의 번역.

다만, ‘눈물’과 같은 말은 둘의 자립형식으로 되었지만, 이 두 자립형식은 아주 녹아붙은 한 낱말이기 때문에, 역시 최소 자립형식으로 본다.

(12) 허 용 : 언어학 개론 pp.169-174 참조.

자립형식 끼리를 통합하는 방법을 「통어론」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최소 자립형식은 대체로 「어절」(語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통어」란 말은 어절 끼리를 통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술어가 꼭 들어맞지는 않는데, 그것은, 첫째, 최소 자립형식은 어절과 일치하지는 않고(‘나는 간다



5. 용비어천가에;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아니 뫼썌 곳 도쿄 여름 하느니(제2장)

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 겹으로 분석된다.

이 한 일은, 크게 앞마디 ‘불휘……뫼썌’와, 뒷마디 ‘곳……하느니’로 분석되는데, 이 두 마디는 다 자립형식이며, 이들 두 자립형식은 앞마디의 끝 낱말의 씨끝 「-르썌」에 의해서 이어져 있다.

6. 앞마디는 다시 다음과 같이, 여러 겹으로 분석된다.

제 일차적으로, 입자조각(주부)인 ‘불휘 기픈 남곤’과, 풀이조각(서술부)인 ‘브르매 아니 뫼썌’로 분석되는데, 이 두 성분도 다 같이 자립형식이다.

이 입자조각은 다시 매김조각(관형부)인 ‘불휘 기픈’과, 그 한정을 받는 ‘남곤’으로 분석되는데, 이 두 성분도 다 자립형식이다.

이 매김조각은 또다시 입자말(주어)인 ‘불휘’와 풀이말(서술어)인 (동시에 이 「입자말+풀이말」을 매김마디로 만드는) ‘기픈’으로 분석되는데, 이 두 성분도 모두 자립형식이다.

앞마디의 풀이조각인 ‘브르매 아니 뫼썌’는 위치말<sup>(13)</sup>인 ‘브르매’와,

마는……’은 하나의 최소 자립형식이지만, 어절로는 둘이다.) 둘째, 통어론은 어절 아닌 두개의 자립형식을 통합하는 방법에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나는 집으로 간다’에서 ‘나는’과 ‘집으로 간다’의 통합은 통어론에서 다루는 일인데, 이 말의 뒷성분은 한 어절이 아니다.)

어절이란, 말의 한 단위로서, 한 어절 안의 여러 음소들은 긴밀하게 연결(連接)되어 있으나, 어절과 어절 사이는 그 연결이 개방적인(즉 그 사이에 휴식을 둘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의 띄어쓰기는 대체로 어절이 단위가 되어 있다.

「연접」에 관해서는;

허 용: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1965, 정음사) p.108 이하, p.225 이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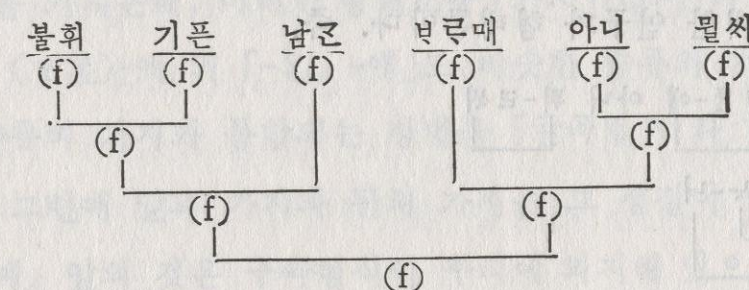
띄어쓰기와 어절에 관해서는;

같은책 p.277 이하 참조.

(13) 位置語. 시간과 공간 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중심적인 의미로 삼고, 원인·이유 따위를 나타내는 것을 주변적인 의미로 삼는 월성분의 한가지. 일반적으로는 어찌말에 포함시키고 있다.

풀이조각인 ‘아니 뫼썌’로 나뉘는데, 이 두 성분도 다 자립형식이다.

‘아니 뫼썌’는 또 다시 어찌말(부사어)인 ‘아니’와, 풀이말인 ‘뫼썌’로 나뉘는데, 이 두 성분도 다 자립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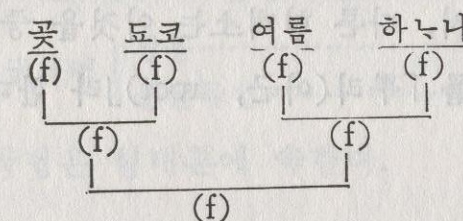


여기 — 표로 맺어진 언어형식들은 모두 자립형식들이므로, 이 통합 방법은 모두 통어론에서 다루어진다.

7. 뒷마디도 다시 다음과 같이 여러 겹으로 분석된다. 즉 이 뒷마디는 ‘곳 도쿄’와 ‘여름 하느니’의 두 마디로 나뉘는데, 이 두 성분도 다 자립형식이다.

‘곳 도쿄’는 다시 입자말 ‘곳’과, 풀이말 ‘도쿄’로 나뉘는데, 이 두 성분도 모두 자립형식이다.

‘여름 하느니’도 입자말 ‘여름’과 풀이말 ‘하느니’로 나뉘는데, 이 두 성분도 모두 자립형식이다.



앞마디에서와 같이, — 표로 맺어진 언어형식들은 모두 자립형식들인데, 이들 자립형식들끼리의 통합 방법은 통어론에서 다루어진다.

8. 이렇게 분석해서 얻은 언어형식들,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아니, 뫼썌, 곳, 도쿄, 여름, 하느니’ 따위는 한 형태소로 되었거나, 다시 쪼개면, 어느 한 성분이 구속형식이 되든지, 둘 다 구속형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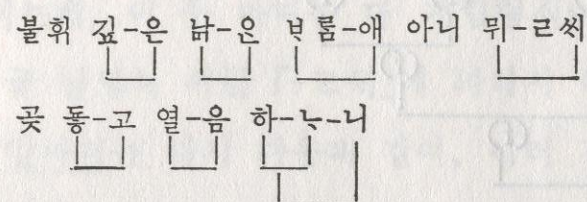
한 형태소: 불휘, 아니, 곳



자립형식과 구속형식 : 남근<sup>(14)</sup>, 브룸

구속형식 끼리 : 기쁜, 필썸, 도쿄, 하느니, 여름

즉 이러한 언어형식들은 최소 자립형식이니, 이것을 더 쪼개서 얻은 형태소들의 통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형태론이다. 즉,



여기 — 표로 맺어진 언어형식들의 통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형태론이다.

## 2. 형태론

### 1) 굴곡법(屈曲法)

1. 둘 이상의 형태소로 된 최소 자립형식(어절)에는 반드시 하나의 중심될만 한 형태소가 있다. 「깊-, 남-, 브룸, 뒤-, 동-, 열-, 하-」는 그 어절 안의 다른 형태소들보다 비중이 커서, 다른 형태소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묶여져 있다. 이러한 형태소를 「뿌리(어근, root)」라 한다. 「불휘, 꽃, 아니」도 뿌리이다.

(14) 「남근」은 「남-」과 「-은」으로 쪼개지는데, 「남-」은 반드시 뒤에 「-은, -을, -이, -으」로 따위 토씨가 이어날 때 쓰이는, 「나모」의 한 변이형태이다. 그러므로 「남-」이란 형태 하나만을 가지고 본다면 자립형식이 되지 못하겠지만, 「남-」을 한 형태소로 보면, 이 형태소는 자립형식이 된다. 이것은, 「값-」이란 형태도 뒤에 「-이, -은, -을, -에」 따위 토씨가 올 때에 쓰이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보면 구속형식이 되겠으나, 「값-」의 묶음인 형태소는 자립형식임과 같다. 자립 형태소 안의 구속적인 변이형태는 자립형식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구속형식은, 다른 언어형식이 연결되어야 할 자리에 「-」을 두어 표시한다. (앞의 예 참조)

2. 「(깊)-은, (뒤)-르썸, (동)-고, (하)-느-니」의 뿌리 「깊-, 뒤-, 동-, 하-」에 의지해 있는 여러 구속형태소들은, 한 자립형식과 다른 자립형식의 관계라든지, 또는 일 전체의 판단 내용에 관여하는 문법적인 의의를 가지는데, 이러한 형태소를 「가지」(접사)라 한다. 그리고 「(남-) -은, (브룸)-애」의 「-은, -애」도 비슷한 종류의 가지이다. 뿌리에 이러한 종류의 가지가 통합되는 방법을 「굴곡법」이라 한다.

3. 그런데 앞의 가지와 뒤의 가지는 그 성질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앞의 것은 구속형식인 뿌리에 의지해 있으나, 뒤의 것은 자립형식인 뿌리에 의지해 있고, 둘째, 뒤의 것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낱말로 보는데, 앞의 것은 독립된 낱말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점으로 보면, 이 두가지의 통합 방법은 꼭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의 경우를 「순수한 굴곡법」, 또는 「활용(끝바꿈)」이라 하고, 뒤의 경우를 「준굴곡법」이라 하여 구별한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가지」도 그 이름을 구별하여, 앞의 것을 「활용의 씨끝(어미)」이라 하고, 뒤의 것을 「준굴곡법의 가지」, 또는 「토씨(걸림씨)」라 한다. 씨끝과 토씨를 아울러 부를 때는 「굴곡의 가지(접사)」란 말이 쓰인다. 「깊-은」은 뿌리와 씨끝으로 된 최소 자립형식인데, 이 통합 방법은 활용이고, 「브룸-애」는 뿌리와 토씨로 된 최소 자립형식인데, 이 통합 방법은 준굴곡법이다.

굴곡법 { 활용.....뿌리+씨끝  
준굴곡법.....뿌리+토씨

굴곡법은 형태론에 속한다.

### 2) 조어법(造語法)

#### — 낱말 만들기 —

1. 「여름」의 「-음」도 뿌리 「열-」에 의지해 있는 점은, 「(깊)-은, (브룸)-애」의 「-은, -애」와 한가지다. 그러므로 「-음」도 가지라 하는데, 「-은, -애」와는 그 성질이 좀 다르다.



첫째, 「-은」은 받침을 가진 풀이씨의 줄기에는 제한 없이 붙을 수 있고, 「-애」는 밝은 홀소리 계통의 입자씨에 제한 없이 붙을 수 있는데, 「-음」은 그렇지 못하여, 극히 국한된 뿌리에 붙을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음」이 뿌리에 붙으면, 그 밑말 「열다」와는 다른 낱말이 만들어지는데, 「-은, -애」는 그러한 일이 없다. 즉 「여름」은 이름씨로서 「열다」와는 독립된 낱말이지만, 「기쁜, 베풀매」는 「값다, 베풀」과 다른 낱말이 아니다. 따라서 「여름」은 사전에 실리지 않는 「기쁜, 베풀매」는 그렇지 않다.

셋째, 「-은, -애」는 자립형식과 자립형식과의 관계를 밝혀 주는 문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나, 「-음」은 그러한 구실을 가지지 않고, 오직 「열-」에 붙어서 그것을 이름씨로 바꿔 주는 힘을 가졌을 뿐이다. 「-은」은, 「값-」이 다음에 오는 자립형식 「남-」의 매김말임을 밝혀 주고, 「-애」는, 「베풀」이 다음에 오는 풀이말(아니 뭘씨)의 위치말임을 밝혀 주는 일을 맡아 있다. 그러나 「여름」이 다음에 오는 「하느니」의 입자말임을 표시해 주는 것은 「-음」이 아니다.

이러한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음」은, 「-은, -애」와 구별하여, 「(날) 말 만드는 가지(파생의 접사)」라 한다. 「열-」에 「-음」이 붙어서 새로운 낱말 「여름」을 만들기(파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뿌리에 말만드는 가지가 통합되는 방법을 「파생법」이라 한다.

## 2. 日月은 히드리라(석보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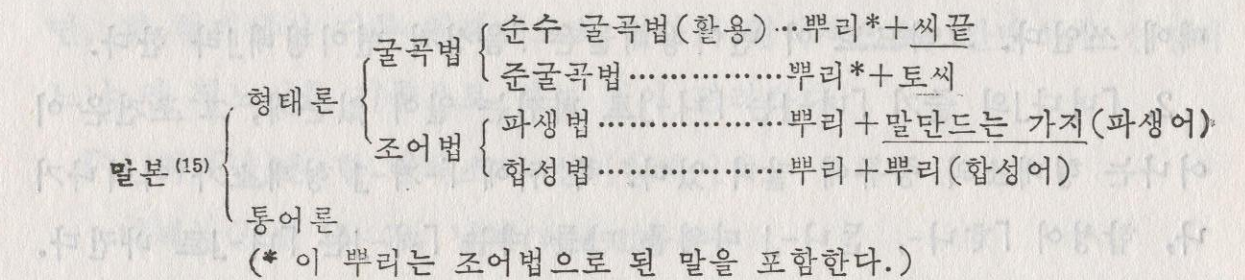
밤나재 精進하야(금강 83)

위의 「히드리라, 밤나재」는 각각 최소 자립형식(어절)인데, 여기에는 뿌리가 들쭉 있어서 그것들이 각각 「히들, 밤낫」과 같은 낱말을 만들고, 다시 「-이라, -애」가 통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두개의 뿌리가 땀어져서 한 낱말을 만드는 방법을 「합성법」이라 한다.

3. 파생법과 합성법은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방법이란 점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조어법」(낱말 만들기)이라 하고, 파생법에 의한 낱

말(여름)을 「파생어」, 합성법으로 만들어진 낱말(히들, 밤낫)을 「합성어」라 한다.

조어법은 한 최소 자립형식의 내부 구성에 관한 일이므로, 굴곡법과 같이, 형태론에 속한다.



## 3) 형태소

형태소에 대해서는 앞에 그 성격을 대강 설명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므로, 여기 다시 몇가지 문제를 설명해 두기로 한다.

### (1) 형태소의 쏘바꿈(변동)

1. 한 형태소의 쏘는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놓이는 자리에 따라 소리가 바뀌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쏘바꿈」 또는 「변동」<sup>(15)</sup>이라 한다.

「값」이란 한 형태소는 그 놓이는 자리에 따라 /가ㅁ-/ , /가ㅂ-/ , /가

(15) 말본의 하위 부문에 대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히 용 : 언어학 개론 pp. 169-189

의 설명과 같으나, 다만 「준굴곡법」을 따로 인정한 점이 다른데, 그것은, 국어의 토씨가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한 독립된 낱말의 자격을 인정 받을만 한 여러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6) 형태음소론적 변이(morphophonemic change)를 「변동」이라 부르기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히 용 :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 p. 234 이하 참조.



ㅏ-/<sup>(17)</sup>으로 끝바꿈을 하게 되므로 이것들을 「값」 형태소의 「변이 형태」라 한다. 그 바뀌는 조건은 뒤에 이어나는 음소의 종류에 달려 있다. 즉 /가ㅏ-/은 홀소리 토씨 앞에 쓰이고, /가ㅑ-/은 콧소리 이외의 닿소리 토씨 앞이거나 뒤에 휴식이 올 때, /가ㅓ-/은 콧소리 토씨가 이어날 때에 쓰인다. 그러므로 이 변이형태들은 「음성적 변이형태」라 한다.

2. 「녀다」의 줄기 「녀-」는 「니-」로 바뀌는 일이 있는데, 그 조건은 이어나는 형태소의 종류에 달려 있다. 즉 뒤에 「-거-」 형태소가 이어나거나, 합성어 「히니-, 돈니-」 따위를 만들 때는 「녀-」는 「니-」로 바뀐다. 이러한 변이형태를 「형태적 변이형태」라 한다.

3. 형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뿌리 형태소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토씨나 씨끝과 같은 가지 형태소도 형태 변동을 일으킨다.

위치말을 표시하는 토씨 「-애/에」는, 그 앞 임자씨의 홀소리의 밝음(오, 아, 으), 어두움(우, 어, 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음성적 변이형태이며, 「-예」는 위의 임자씨의 끝소리가 /i/나 /j/(단이)일 때에 쓰이는 것이므로 역시 「-애/에」의 음성적 변이형태의 하나이다. 그러나 「-의/의」가 위치말을 나타낼 때는, 어느 한정된, 특별한 음성적 공통성이 없는 임자씨에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태적 변이형태이다. 다만 「-의」와 「-의」의 변동은 음성적이다. 이리하여 「-애, -에, -예, -의, -의」<sup>(18)</sup>들은 모두 한 형태소의 변이형태들이다.

4. 한 형태소의 변이형태들은 대개는 그 꼴이 비슷하다. 「값-, 감-, 감-, 「녀-, 니-, 「-애, -에, -예, -의, -의. 그러나 그 꼴이 매우 다르면서도 한 형태소의 변이형태가 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현대 국어의 임자말을 표시해 주는 토씨 「-이」와 「-가」는 그 의의가 꼭 같으면서 그 쓰이는 자리가 서로 배타적이기<sup>(19)</sup> 때문에 한 형태소의 변이형태

(17) / /은 음소를 표기한다.

(18) 이러한 형태소 표기 방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변이형태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그 하나만을 표기하는 일도 있다.

(19) 현대 국어에서는, 「-이」는 닿소리 뒤에, 「-가」는 홀소리 뒤에 쓰이면서,

가 되는 것이다.

5. 한 형태소가 여러 변이형태를 가졌을 때는, 그 형태소의 표기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변이형태들 중 하나를 대표로 뽑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는, 확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나, 가능하다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에로의 변이가 합리적으로, 간명하게 설명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뵈」와 「뵈」는 한 형태소의 변이형태이다.

니폐논(두언 15:7), 뵈폐(석보 13:47)

이 경우에 「뵈」가 「뵈」로 바뀐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즉 「뵈」 뒤에 홀소리가 이어나서 /ㅏ/이 다음 음절의 초성이 될 때는 제대로의 소리를 유지하게 되지만, 뒤에 닿소리가 이어나면 /ㅏ/은 「니」 음절의 종성으로 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종성<sup>(20)</sup>은, 15세기에서는, 「ㄱ, ㄷ, ㄹ, ㄴ, ㄷ, ㄴ, ㄷ, ㄴ」의 여덟 밖에 없었으므로, /ㅏ/은 이 여덟 중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ㅑ/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뵈」가 「뵈」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려면,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난관이 있다. 즉 이 경우에는 /ㅑ/이 홀소리 앞에서 /ㅏ/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합리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뵈」를 대표형태로 뽑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기본형태」<sup>(21)</sup>라기도 한다.

서로 그 자리를 바꿀 수 없다. 즉 닿소리 뒤에 「-가」가 쓰일 수 없고, 홀소리 뒤에 「-이」가 쓰일 수 없으므로, 그 쓰이는 자리를 「서로 배타적」이라 한다. 그리고 이 변동은 음성적이다.

(20) 「초성」, 「종성」이란 말은, 맞춤법 상의 이름이 아니라, 발음 상의 이름으로 쓰기로 한다. 현대말로 보면, 「발이」의 「ㅌ」는 맞춤법으로는 종성이나, 발음 상으로는 다음 음절의 초성이다. 그러나 15세기 문헌은 대개 소리대로 적고 있기 때문에, 발음 상의 초·종성은 맞춤법 상의 초·종성과 대개 일치한다.

(21) 기본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허 용 :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 p.236 이하.



6. 기본형태의 결정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임의로 하나를 뽑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매김말을 표시하는 토씨 「-의/-의」는 음성적 변이형태인데, 「-의」에서 「-의」로 변이된 것으로 설명하든지, 그 반대의 방향으로 설명하든지, 다 같이 편리하게 설명된다. 이럴 때는 그 중의 한가지를 임의로 뽑을 수 밖에 없다.

## (2) 가상 형태소와 불구(不具) 형태소

1. 「낮잡다」(低), 술잡다(慧)는 「넉잡다(淺), 맛잡다(適)」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파생어이다. 그러나, 「넉잡다, 맛잡다」의 뿌리 「넉-, 맛-」은 단독으로 풀이씨의 줄기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서의 자격이 뚜렷한데, 「낮잡다, 술잡다」의 「낮-, 술-」은 풀이씨의 줄기로서 활용하지 못할뿐 아니라, 다른 가지와도 연결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 술-」을 뿌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말들과 「넉잡다, 맛잡다」와의 동형성(同型性)에 있다. 이러한 뿌리를 「가상적 뿌리」라 부르기로 한다. 완전한 뿌리로서의 자격이 모자라지마는, 다른 여러 말과의 관련 상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단 뿌리로 잡고(가상하고) 풀이한다는 뜻이다.

「뵈왓브다, 밋브다(忙), 날브다(不足), 어엿브다」 따위의 「뵈왓-, 밋-, 날-, 어엿-」을 뿌리로 잡는 것도, 「민브다(←민-), 아철브다(←아철-), 뉘웃브다(←뉘웃-), 잇브다(←잇-)」 등등 낱말과의 동형성에 의한 것이다. 그 밖에 「간답다(涼)」의 「간-», 「언극드뵈다」의 「언극-」 따위 모두 가상적 뿌리들인데, 이러한 말들은, 뿌리를 가상해 주지 아니할것 같으면 모두 단순어가 되어 버린다. (「만ㅎ-, 과ㅎ-」의 「만-, 과-」도 뿌리로 가상할 수 있을듯 하나, 이런 말들은 단순어로 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2. 가지에도 가상적인 것이 있다. 필자는 그림씨 만드는 「日」계 가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답잡다(←답씨다), 뜨겁다(←뜨기다), 붓그럽다

(←붓그리다)」의 「-압/업-」과, 「넉잡다, 맛잡다」의 「-잡-」을, 설명의 편의상, 「-아/어-」와 「-日-», 「-가-」와 「-日-」으로 각각 분석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아/어-」와 「-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한 형태소로 가정한 것인데, 이것은 가상적 가지의 예로 들 수 있다. (→p.186-9)

3. 「맛들-」( 좋아하다), 드놓-, 굳브르-, 것서-와 같은 말도 두 형태소로 된듯 한데, 확실한 분석이 잘 되지 않으므로 우선 합성어에 넣어 두고서 뒷날의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다.

4. 앞에 들어 보인 「낮잡다, 술잡다」의 「낮-, 술-」은 뿌리로 가상된 형태소인데, 이것들은 다른 형태소와 연결되는 일이 없다. 한 형태소가 오직 하나의 다른 형태소와만 연결될 수 있을 경우에, 이 형태소를 「불구 형태소」라 한다. (최 현배 님이 「우리말본」에서 내세운 「모자란 움직씨」(〈고친판〉 p.348)의 줄기에 해당되는 것은 불구적 형태소이다.)

## (3) 끝없는 가지와, 끝 있어도 가지가 되지 못하는 것

1. 「노외다」(反復)에서 파생된 어찌씨에 「노외」가 있다.

내 말웃 아니 드르시면 노외 즐거본 므슴미 업스레이다(원석 2:5) 이 파생어찌씨의 파생법의 설명은 두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풀이씨의 줄기가 가지를 붙이지 않고 바로 어찌씨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좋지않다. 왜그러냐 하면, 국어의 다른 모든 파생법은 대개는 끝있는 가지를 취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지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 다음 다른 설명 방법은, 여기 끝없는 가지가 있다고 보는 방법인데, 이에도 두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어찌씨 만드는 뒷가지 「-이」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뿌리의 끝소리가 /i/ 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줄어졌다고 보는 것: 이 경우에는 「-이」 뒷가지가 끝없는 변이형태로 나타난 셈이 된다. 그 둘째 방법은, 「-이」와는 다른 끝없는 가지가 있다고 보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한 형태소의 변



이형태가 끝없게 된 것이 아니라, 한 형태소가 완전히 끝없게 나타난 셈이 된다. 뒤의 두가지 방법은 다 같이 끝없는 가지가 있다고 보는 점은 한가지이나, 한편은 끝없는 변이형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한편은 끝없는 형태소가 있다고 보는 데 차이가 있다.

2.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서, 「고초다」(拱)에서 파생된 어찌씨 「고초」가 있고, 「모도다」(集)에서 파생된 어찌씨 「모도」가 있다.

훈 발로 고초 드되여 셔샤(월석 1:52)

總觀想은 모도 보는 想이라(월석 8:15)

이 파생어찌씨의 설명 방법도 위의 경우처럼 세가지가 가능하겠는데, 가지 없다고 보는 방법을 제거한다면, 하나는 가지 「-오」의, 끝없는 변이형태가 있다고 보는 방법과, 다음은, 바로 끝없는 한 형태소가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 뒤의 경우에는 이 끝없는 형태소는, 앞의 「노외」에 있어서의 끝없는 형태소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그런데 한편, 이미 존재하는, 그 어떠한, 어찌씨 만드는 가지의 존재도 가정할 수 없는 파생어찌씨가 있다.

바른 自性을 스뵈 아룩샤=直了自性(월석, 서:18)

애왈븐 ㅅ스뵈 비룩 펴도다=憤始據(두언 20:44)

이 파생어찌씨는, 이미 있는, 어찌씨 만드는 가지가 끝없게 된 것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여기 가지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끝없는 한 형태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수 밖에 없게 된다.

4. 만일 우리가 끝없는 변이형태를 생각한다면, 「노외」에는 「-이」의 변이형태가, 「모도」에는 「-오」의 변이형태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비룩, 바룩」은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세 경우가 모두 접사를 가진다고 보고, 그것은 끝없는 한 형태소(뒷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5. 끝없는 가지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있다. 즉 가지가 놓이는 자리에, 꼭 가지처럼 보이기는 하나, 가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 나타나는 일

이 있다.

長生인 不肖홀씨(월석 1:41)

安樂國인 ㄴ(월석 8:87)

光目일 勸야(월석 21:54)

이러한 예에 나타나는 「-이」는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아무런 뜻이 없고, 오직 소리를 고루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현대말의 「복동이, 수남이」와 같이). 즉 여기의 「-이」는 닿소리로 끝난 이름씨를 홀소리로 끝나도록 하는 구실 밖에 가지지 않았다. 이것은 흡사 뒷가지 같으나, 그러나 뒷가지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가지는 엄연한 하나의 형태소로서 반드시 어떠한 뜻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이」를 가지로 보지 않는다면, 그 처리에 있어서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밑에 오는 토씨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그 위의 이름씨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첫째 방법을 취하면, 「長生인」에 있어서 닿소리 밑에 토씨 「-인」이 쓰이는 셈이 되는데, 「-ㄴ」 토씨는 닿소리 밑에서는 「-은, -온」을 취하는 것이니, 「-인」은 그것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기 곤란해진다. 현대말의 경우로 보더라도, 「복동이가 복동이를, 복동이는」 따위 말에서 「-이」를 토씨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가, -를, -는」 이외에 또 다시 닿소리 밑에서는 「-이가, -이를, -이는」과 같은 토씨가 쓰이는 셈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닿소리 밑에 쓰이는 토씨 「-이, -을, -은」과, 이 「-이가……」 따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변이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둘째 방법, 즉 「-이」는 그 앞 이름씨의 한 부분으로 보려는 것인데, 「-이」는 이름씨의 소리를 고루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름씨 자체가 두가지 변이형태를 가지는 셈이 된다. 현대말로 본다면, 「복동」은 「복동이」라는 변이형태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복동이, 복동을, 복동은……」보다 「복동이가, 복동이를, 복동이는……」이 훨씬 부드



려운 느낌을 준다.

7. 「-이」는 가지와 비슷하나 참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가지」(유사접사)라 불러두기로 하는데, 「뻘」(←뻘)의 「-의」도 이 종류의 가지이다. (→p. 228)

### 3. 통어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

1. 「여름 하느니」를 크게(직접성분으로) 분석하면, <sup>(22)</sup> 「여름」과 「하느니」로 나뉘는데, 이 두 성분은 다 자립형식이어서, 그 통합 방법은 통어론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형식을 「통어(론)적 구성」<sup>(23)</sup>이라 한다.

2. 이에 대해서 「열-음」이나 「하-느-니」의 성분은 다 구속형식이어서 그 통합 방법은 형태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형식은 「형태(론)적 구성」이라 불린다. <sup>(24)</sup> 「남-은, 봄-애」와 같은 언어형식도 자립형식과 구속형식의 통합이어서, 그 통합 방법은 형태론에 관여되기 때문에 형태론적 구성이다.

3. 「히-들, 밤-낮」은 두 자립형식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통어론적 구성인 「여름 하느니」나 「아니 뭘썬」 따위와 같으나, 다만 「히들」 따위는 한 낱말인 데 비해, 「아니 뭘썬」은 두 낱말이기 때문에, 「히들」 따위는 통어론적 구성으로 보지 않고, 형태론적 구성으로 보게 된다.

(22) 작게는 「열-음/하-느-니」와 같은 형태소로 분석되기도 한다. 한 언어형식을 크게 분석하면, 대개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p. 29의 ‘불휘 기쁜 남근 브르매 아니 뭘썬’의 통어론적 분석 그림과, ‘꽃 도쿄 여름 하느니’의 같은 분석 그림을 참조), 한 언어형식의 큰 성분을, 그 언어형식의 「직접성분」이라 한다.

(23) 統語(論)的 構成. syntactical construction의 번역.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허 용: 언어학 개론, p. 173.

(24) 形態(論)的 構成. morphological construction의 번역. →주(23)

4. 그런데, 낱말의 규정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현대말의 예로 보더라도, 「언어형식」이란 술어는, 여기에서는 한 낱말로 보아, 「언어형식」으로 붙여 썼으나, 이것을 두 낱말로 보아 안 될, 확고한 이론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 「붙여 쓰다, 띄어 쓰다」 따위도 한가지다. 「띄어쓰기」는 한 낱말(합성어)로 붙여 쓰는 것이 보통인데, 「띄어 쓰다」까지 그렇게 쓸 수 있느냐는 의문시된다.

5. 이와같이, 두 자립형식의 결합으로 된 합성어는 통어론적 구성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국어 말본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의 하나이요, 맞춤법 띄어쓰기의 고민의 한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음 몇가지 사실은 이 두가지 구성을 구별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

합성어의 두 성분은 매우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서, 문법적으로 하나의 낱말처럼 작용한다. 따라서 두 성분 사이에는 다른 말을 끼어 넣을 수 없다. 현대말의 경우로 보면, 「그 사람」은, 그 사이에 「큰」을 넣어서 「그 큰 사람」이란 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은말」이나, 「산돼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합성어이다. 이 말을 「큰」으로 꾸밀 때는 「큰 산돼지」로 해야 한다.

합성어의 각 자립성분의 뜻은, 그것이 독립된 낱말로서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와는 꽤 심하게 바뀌는 일이 많다. 물론 통어적 통합에 있어서도, 그 문맥에서 오는 「문맥적 의의」(文脈的 意義)가 첨가되는 일이 있으나, 합성어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이의 정도가 더 심한 것이 보통이다. 「눈물」은 단순한 「눈의 물」은 아니며, 「칠손」의 「손」은 사람의 손은 아니다. 「밤낮」은 「밤과 낮」의 뜻으로 쓰이지만, 「늘」의 뜻을 가진 말로도 쓰인다. 「한숨, 한숨」은, 그 성분의 뜻으로 말하면, 「큰 숨」(15세기 말로)이란 뜻을 가진 말이나, 이 말은 단순한 큰숨(심호흡)이란 뜻으로 쓰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합성어의 성분은, 통어적 구성의 한 성분과 같은 말일지라도 그 문법



적 기능을 달리하는 일이 있다. 현대말의 「들것, 들보, 질손」 따위 말의 첫 성분은 남움직씨에서 왔으나, 이것은 남움직씨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 즉 부림말(목적어)을 취할 수 없다.

6. 그러나 이러한 기준도 어디까지나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지, 그 많은 두 자립형식으로 된 합성어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이론적 근거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우리 국어학의 수준으로 본다면, 국어에 있어서, 합성어를 통어적 구성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기준은 좀처럼 세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매인이름씨와 그 매김말은 대개는 통어론적 통합으로 보아지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p. 274 이하 매인이름씨 참조)

또, 으뜸풀이씨와 도움풀이씨는 낱말로는 각각 독립성을 가진 것이나, 이것들의 결합을 통어론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통어론과 형태론의 한계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은, 15세기 말에서나, 현대말에서나, 다 같이 제기되는 어려운 일이다.

## 4. 월성분

통어적 구성에 있어서의 각 성분을, 월 안에서 차지하는 그 기능(구실)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월성분」이라 한다.

### 1) 풀이말(서술어)과 그에 종속되는 성분들

1. 월의 중심이 되는 성분은 풀이말인데, 주로 풀이씨(움직씨, 그림씨 따위)가 풀이말의 노릇을 한다.

닐굽히 너무 오라다(월석 7:2)

너희들히...부텃 마를 바다 디니라(월석 13:62)

2. 이 풀이말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성분이 이에 딸려서 월이나 마디를 만든다.

(가) 임자말(주어) : 풀이말에 대한 말거리를 보이는 성분이다.

世尊이 象頭山에 가샤(석보 6:1)

우린 드로니(월석 2:69)

닐굽 도라오시니(용 33장)

正法 法 마르초미 어렵더니(석보 6:21)

(나) 부림말(목적어) : 풀이씨로 표시된 행동·상태의 대상·상대 따위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天下를 맛드시릴씨(용 6장)

부야미 가칠 드러(용 7장)

내 말옷 아니 드르시면(월석 2:5)

姓 골히야 員이 오니(용 16장)

(다) 위치말(위치어) : 주로 풀이말의 내용이 드러나는, 공간이나 시간에 있어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성분.<sup>(25)</sup>

山에 오샤 虛空에 住히시니(법화 4:167)

부텃기 솔오디(능엄 2:8)

如來 長常 이어기 겨쇼셔(월석 7:49)

이 날애사 머리 좇스븄니(천강곡 상, 기 109)

처설 와 傲色 잇더니(용 95장)

(라) 견쭈말(대비어) : 비교나 함께함의 뜻을 나타내는 성분.

微塵과 존하야(능엄 5:68)

(25) 위치말은 우리말본(최 현배 지음)의 어찌말의 한가지인데, 이 책에서는, 우리말본의 어찌말을 여러가지 성분으로 갈라 붙이고, 어찌말은 어찌씨로 된 성분에 국한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치」는 「자리」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리」는 공간(장소)에는 적용되지만, 시간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므로 「위치」를 쓰기로 했다. 즉 「시간상의 위치」란 말은 있을 수 있으나, 「시간상의 자리」란 말은 쓰이지 않는다.



光明이 히들두고 더으니(월석 1:26)

東海人 마시 저재 존하니(용 6장)

즉자히 文殊와 하샤 世尊의 오나시늘(월석 21:7)

(마) 방편말(방편어): 주로 수단·방법을 나타내는 성분.

梅檀香 꼴오로 브르고(석보 6:38)

흔 소리로 偈를 솔보디(월석 13:64)

(바) 어찌말(부사어): 풀이씨의 뜻을 꾸미는 성분.

그르 알면(월석 1:51)

굿븐 썬을 모디 놀이시니(용 88장)

(사) 인용말(인용어):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여 오는 성분인데, 대개는 여러 어절로 된다.<sup>(26)</sup> 그리고 인용말은 풀이말에 종속되는 일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또 닐오디 내 無上涅槃을 得호라 하고(능엄 9:91)

내 노포라 하릴 만나든(월석 21:67)

부테 니르샤디 올타 올타 네 말 마든니라(석보 9:22)

## 2) 그밖의 성분들

1. 매김말(관형어): 풀이말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주로 임자씨(이름씨, 대이름씨, 셈씨)에 달려서 그 뜻을 한정해 주는 성분.

徐卿의 두 아드리(두연 8:24)

童女는 아히 거지비라(월석 2:28)

부텃 것 도죽혼 罪(석보 23:3)

平生 기 뜰 (용 12장), 하늬 뜨들(용 86장)

2. 홀로말(독립어): 월 가운데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

(26) 한 성분이 여러 어절로 되어 있을 때는 「~조각」이란 이름으로 「~말」과 구별하는 일이 있는데(최 현배: 우리말본), 여기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말」로 부르기로 한다.

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성분.

엥 올하시이다(석보 13:47)

彌勒아 아라라(석보 13:29)

## 5. 씨의 분류(품사분류)

1. 다른 나라 말본에서도 그러하지마는, 특히 국어 말본에서는 낱말의 규정은 매우 모호하다. (→p.26)

주 시경 님이나 김 윤경 님의 말본 체계에 있어서는, 「사람-이, 밤-을, 집-에」와 같은 말이 두 낱말로 보아졌을뿐 아니라, 「가-다, 먹-고, 보-니」와 같은 말도 두 낱말로 다루어지고 있다.<sup>(27)</sup>

최 현배 님의 말본 체계에 있어서는,<sup>(28)</sup> 주 시경 님 말본 체계에서 두 낱말로 보아졌던 「가-다」 따위를 한 낱말로 보았고, 이 희승 님은, 최 현배 님과 거의 같으나, 다만 「집-이다」와 같은 말만을, 최 현배 님과는 달리, 한 낱말로 보았다.<sup>(29)</sup>

낱말에 대한 규정 방법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과」 따위 말들까지를 모두 한 낱말로 보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sup>(30)</sup>

그러나 여기에서는 최 현배 님의 낱말 규정에 따라 기술하기로 한다.  
2. 낱말은, 월 안에서 차지하는 그 구실(기능), 즉 월의 어떠한 성분이 될 수 있는 그 자격과, 굴곡의 방식에 의해서 몇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나뉜 낱말의 부류를 「씨」(품사)라 한다.

(27) 주 시경: 국어문법 (「주시경 선생 유고」, 1933, 중앙인서관)

김 윤경: 나라말본 (1948, 동명사)

허 용: 주시경 선생의 학문 (「우리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 (1974, 과학사)에 들어 있음)

(28) 최 현배: 우리말본 (<고친판>, 1971, 정음사)

(29) 여러번 개정되어 나온, 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의함.

(30) 그 대표로, 이 승녕 님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들 수 있다.



3. 낱말을 분류하는 데는,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고려하는 수도 있기는 하나, <sup>(31)</sup> 뜻에 의해 분류를 해나가 보면 도저히 견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서, 이로써는 몇가지 국한된 부류의 갈래를 세울 수 없게 된다. 낱말의 뜻은 복잡하고 다기적이어서 낱말 사이의 뜻의 공통성에 따라 몇가지 국한된 수의 갈래를 세우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이에 비해서 낱말이 월 안에서 차지할 수 있는 구실은 얼마 되지 않는 수에 그치고, 굴곡을 하는 낱말의 굴곡 방식(형태 변화)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낱말의 분류, 즉 씨가름(품사분류)은, 그 구실과 굴곡의 방식에 따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말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뜻보다 굴곡과 구실(기능)이 더 중요한 것이다.

4. 그러나 낱말의 뜻의 일반적인(개별적이 아닌, 추상도가 높은) 성격은, 구실과 굴곡에 의한 갈래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데, 그것은 인간의 사고의 근저에는, 비슷한 개념은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유추작용이 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엄격하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사물의 이름은 대개는 이름씨가 되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은 대개는 움직씨가 되는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씨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뜻도 어느 정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5. 낱말 중에는 뿌리(어근)를 포함한 것이 대부분이나, <sup>(32)</sup> 「사람이 밥을 먹는다」에 있어서의 「-이, -을」 따위 낱말은 <sup>(33)</sup> 뿌리를 가지고 있지

(31) O. Jespersen: The Philosophy of Grammar (1924, London) p.60 참조.

(32) 이를테면 「봄, 사람」 따위는 뿌리 하나로 되었고, 「국물, 눈물」 따위는 뿌리 둘로 되었고, 「가다, 오며, 빨리」 따위는 뿌리 하나와 가지 하나로 되었고, 「듣보다, 눈पूर्दा」 따위는 뿌리 둘과 가지 하나로 되었으나, 모두 뿌리를 포함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33) 이런 형태소는 어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접사)와 꼭 같은 것으로 보아서 낱말로 보지 않으려는 일도 있으나, 이 책에서는 이런 말들도 독립된 한 낱말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않다. 어근을 가지지 않은 이러한 낱말은, 주로 임자씨에 의지해서 그것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걸림씨」(관계사), 또는 「토씨」(조사)라 한다. <sup>(34)</sup>

토씨는 굴곡을 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는 뿌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통어론 상의 어떠한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임자씨에 의지해서 그 말의 기능을 표시해 주거나, 또는 임자씨나 다른 씨에도 의지해서 뜻을 정밀하게 표현해 준다. 이 점이 다른 말들과 구별되는 토씨의 특색이다.

太子를 하늘히 꺾히샤(용 8장)

「太子를」의 「-를」과 「하늘히」의 「-」는 이름씨에 의지해서 이름씨와 「꺾히샤」(폴이말)와의 통어론 상의 기능을 표시해 주는 토씨인데(「-」는 임자말을, 「-를」은 부림말을 나타내어 준다), 이 말들은 굴곡을 하지 않는다. <sup>(35)</sup> 또,

어미도 아득를 모르며(석보 6:3)

닐웨를 곱죽도 아니호야(월석 1:52)

큰 劫에 씨디여 잇다가도 기티디 아니호몬(월석 13:59)

에 있어서의 「-도」는 이름씨 어찌씨 폴이씨에 두루 의지하여, 그 말들의 통어론 상의 기능을 표시해 주지 않고, 오직 말의 뜻을 한층 정밀하게 해 줄 뿐이다.

6. 뿌리를 포함한 낱말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굴곡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굴곡을 하는 것이다. 후자는 「폴이씨」(용언)인데 폴이씨는 통어론상 폴이말로 기능한다.

(34) 「걸림씨」 가운데는 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의 뜻을 정밀하게 표현해 주는 것도 있으므로, 이것을 모두 걸림씨라 하는 것은 그다지 적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문법범주의 명칭은 대개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35) 「굴곡」이란, 앞에서(p.31) 설명한 바와 같이, 한 뿌리에 여러개의 굴곡의 가지가 붙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를」이 「-을/을, -를/를, -르」의 여러가지 변이형태를 가지는 것을 굴곡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서낫 대를 시드노라 (두언 6:52)

꽃 도코 여름 하느니 (용 2장)

흔두 곧 아니시니 (용 114장)

일후미 헨槃이라 헛더니 (능엄 2:3)<sup>(36)</sup>

7. 굴곡을 하지 않는 말은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통어론 상한가지 월성분으로만 기능하는 것이고, 하나는 여러가지 월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월성분으로 기능하는 말은 「임자씨」인데, 원칙적으로 토씨의 의지를 받아 여러가지 월성분으로 기능하게 되나, 그렇지 않고 문맥에 의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는 일도 있다.

그어기 쇠 하아 쇼로 천 사마 흥정<sup>헛</sup>느니라 (월석 1:24)

쇼를 牛王이라 헛며 (월석 1:23)

쇼 ㄴㄷ시며 (월석 2:41)

「쇠, 쇼로, 쇼를」은 토씨 「-」, -로, -를」에 의해서 각각 임자말(주어), 방편말(방편어), 부림말(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끝의 예는 문맥에 의해서 전춤말(대비어)로 기능하고 있다.

8. 한가지 월성분으로만 기능하는 말도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홀로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꾸밈말이 되는 것이다. 전자를 「홀로씨」, 후자를 「꾸밈씨」라 한다.

엘 을헛시이다 (석보 13:47)

인 男子아 엇던 이를 爲<sup>헛</sup>야 이 길헤 든다 (월석 21:118)

헛을 겨지비 (두언 25:45)

그르 알면 外道 | 오 (월석 1:51)

「엇, 인」은 홀로말로만 기능하는 말이고,<sup>(37)</sup> 「헛을, 그르」는 꾸밈말로

(36) 「-이라」(-이다)는 토씨처럼 자립성이 없고, 뿌리(어근)로서의 성격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 낱말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이것도, 토씨와 같이, 한 낱말의 자격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 말은 굴곡을 하며, 통어 상 풀이말로 기능하기 때문에, 풀이씨의 한가지로 보아진다.

(37) 둘째 예문의 「男子아」도 통어론 상 홀로말이나, 「男子」는 다른 월성분으로도 기능할 수 있으므로, 홀로씨가 되지 못하고, 임자씨가 된다.

만 기능하는 말이다.

9. 이상의 설명을 일람표로 보이면 :

|    |         |       |                |                                            |
|----|---------|-------|----------------|--------------------------------------------|
| 낱말 | 뿌리를 포함함 | 굴곡 없음 | 여러가지 월성분으로 기능함 | .....임자씨(체언)                               |
|    |         |       | 한가지 월성분으로만 기능함 | { 꾸밈말로 .....꾸밈씨(수식사)<br>홀로말로 .....홀로씨(독립사) |
|    |         | 굴곡 있음 | 풀이말로 기능함       | .....풀이씨(용언)                               |
|    |         |       | 뿌리를 포함하지 않음    | .....결림씨(관계사)                              |

10. 임자씨는 다시, 이름씨(명사), 대이름씨(대명사), 셈씨(수사)로 나누는 일이 있는데, 이 세가지 씨는, 그 기능이나 굴곡의 방식이 같기 때문에, 국어 말본에서는 이 세가지 씨를 구별할 필요가 거의 생겨나지 않는다.<sup>(38)</sup> 다만 그 뜻으로는 그 다름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일이 편리할 때가 더러 있을 뿐이다.

11. 풀이씨(용언)는 통어론 상 풀이말로 기능하며, 굴곡(활용)을 하게 되는 말로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씨」(동사)와, 모양을 그리는 「그림씨」(형용사)와 제사(繫詞)의 구실을 하는 「잡음씨」(지정사)로 나뉘는데, 이 세가지의 구분은, 임자씨의 경우와는 달리, 말본 상 의의를 가진다.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는 그 굴곡의 방식, 즉 줄기에 연결되는 씨끝의 종류가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각 낱말의 굴곡의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활용형을 확인해야 하는데, 옛말본을 다룰 경우에는, 모든 낱말의 활용형을 죄다 수집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세가지 구분은 반드시 분명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점이 현대말의 말본을 연구하는 경우와 다른, 불리한 점인데, 다만 잡음씨는 그 수효가 극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굴곡의 특이성이 바로 파악된다. 한 예를 들면 :

語는 말<sup>ㅅ</sup>미라 (훈, 언해 1)

(38) 주 시경 님이나 김 윤경 님의 말본 체계에 있어서는, 임자씨는 세가지로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한 씨 「임」으로 총괄된다.

주 시경 : 국어 문법 (주 27).

김 윤경 : 나라말본 (주 27) pp.38-42.



日은 나리라 (훈, 언해 3)

내 智分 아니라 (법화 2: 239)

의 「-」라], 「아니라」가 잡음씨인데, 그 줄기 「-」, 「아니-」에 연결되어 있는 씨끝 「-라」는, 움직씨나 그림씨의 줄기 밑에서는 「-다」로 나타난다.

또 緣을 보다 亨샤몬 (능엄 2: 29)

너도 또 이 존하다 (능엄 2: 23)

그러나 움직씨와 그림씨의 구별은 그리 분명하지 못하다. (39)

12. 꾸밈씨(수식사)는 굴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어론 상의 구실(기능)에 의지해서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임자씨를 꾸미는 매김말(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매김씨」(관형사)이고,

의 섬 (용 5: 42)

진딧 金 (월석 7: 29)

다른 하나는 풀이씨를 꾸미는 어찌말(부사어)의 구실을 하는 「어찌씨」(부사)이다.

菩薩이 ㅈ 나샤(월석 2: 37)

百千寶鈴이 ㅈ로 울어늘(월석 21: 209)

13. 홀로말의 구실을 하는 홀로씨도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말을 이어가는 데 쓰이는 「이음씨」(접속사)와——「그러나, 그러면」 따위——다른 하나는 느낌이나 부름이나 대답 따위를 나타내는 「느낌씨」(감탄사)——「엥, 익」 따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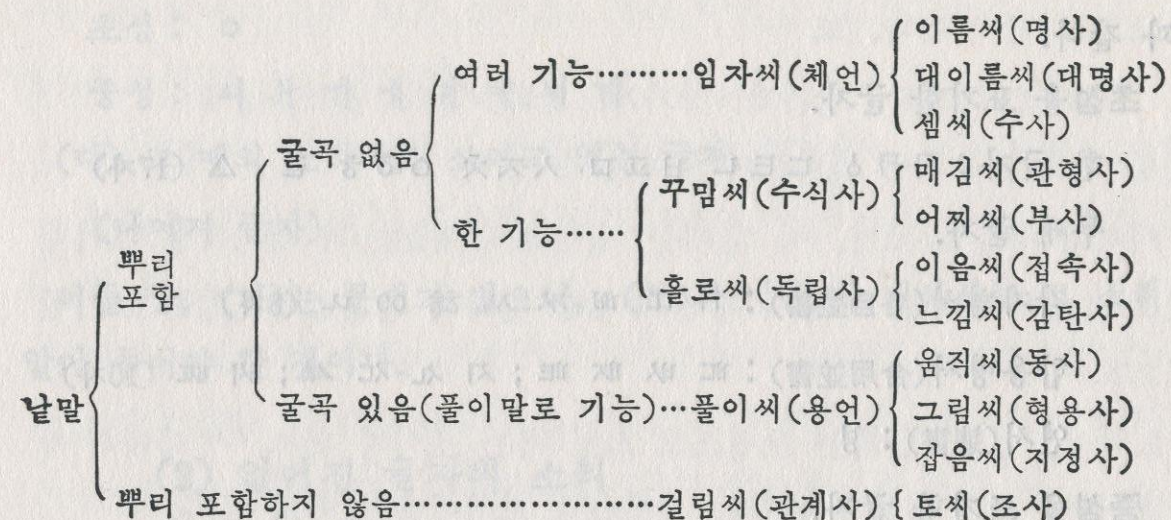
14. 걸림씨 즉 토씨는 다시 나누지 않는다.

15. 이상 설명한 씨가름의 일람표를 만들면: (40)

(39) 그러나 때로는, 그 구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부득이 그 뜻에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

(40) 이 분류 방법과 최 현배 님의 우리말본의 분류 방법(주 28, p. 206)의 다른 점은 다음 두가지다.

(가) 이음씨를 우리말본에서는 어찌씨에 포함시켰으나, 여기에서는 독립시켰음.



## 6. 그 당시의 음운학 대강

말소리에 관한 설명은 말본의 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당시의 말본을 이해하려면 그 때의 말소리를 알아 두어야 할 것이므로, 그 당시의 음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두기로 한다. (41)

### 1) 글자와 그 소리

#### (1) 글자

##### 1. 훈민정음 해례와, 그 당시 문헌에 보이는 글자를 총망라하면 다음

(나) 느낌씨를 우리말본에서는 꾸밈씨의 한가지로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

그렇게 처리한 이유는:

(가) 이음씨는 통어론 상 어찌말로 기능하지 않고, 홀로말로 기능하는 접어찌씨와 다르다. 우리 말본에서도 이음(어찌)씨는 홀로말로 보고 있다(우리말본 pp. 783-785).

굴곡을 하지 않는 말의 씨가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통어론 상의 기능이므로, 홀로말로만 기능하는 이음씨를 어찌말로 기능하는 어찌씨와 분리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나) 느낌씨도 통어론 상 홀로말로만 기능하므로, 꾸밈말(매김말, 어찌말)로 기능하는 꾸밈씨와 분리함이 마땅하다.

(41) 여기의 기술은 전적으로 다음 책을 쫓는다.

허 용: <개고신판>국어 음운학(1965, 정음사) p. 281 이하.



과 같다.

초성을 표기한 글자.

(한 글자: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 (17자)

두세 글자.

각자병서(各自並書): ㄱ ㅋ ㆁ ㅌ ㅕ ㅛ ㅜ ㅠ (8자)

합용병서(合用並書):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ㅌ ㅕ ㅛ ㅜ ㅠ (10자)

연서(連書): ㅁ

중성을 표기한 글자.

한 글자: ㆍ ㅡ ㅣ ; ㅓ ㅕ ㅗ ㅛ ; ㅜ ㅠ ㅡ ㅟ (11자)

두세 글자: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 ㅓ ㅕ ; ㅜ ㅠ (14자)

중성을 표기할 때는 초성 글자 중에서 필요한 것을 가려 쓰게 된다.

그리고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성점」(四聲點) 또는 「방점」(旁點)이라 한다.

한점 찍은 것——거성(去聲)

두점 찍은 것——상성(上聲)

점 없는 것——평성(平聲)

2. 이상이 그 당시의 우리말을 표기하던 글자의 전부인데, 이 중에는 지금은 쓰이지 않게 된 글자(실음자; 失音字)도 있고, 지금 쓰이고 있기는 하나, 그 소리가 지금과 달랐으리라고 생각되는 것(변음자; 變音字)도 있고, 지금도 그대로 쓰이면서 소리도 같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다.

(가) 없어진 글자.

초성: ㅁ ㅂ ㅅ ;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ㅌ ㅕ ㅛ ㅜ ㅠ

중성: ㆍ ㅡ ㅓ ㅕ

방점<sup>(42)</sup>: 평·상·거성

(나) 소리 바뀐 글자.

(42) 「방점」은 글자라 할 수 없겠으나, 편의상 여기에 넣어 둔다.

초성: ㅁ

중성: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다) 그 때의 소리대로 쓰이고 있는 글자.

(나머지 글자)

이들 중, (다)는 문제가 없으나, (가)와 (나)에 대해서는 그 소리를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 (2) 없어진 글자의 소리

1. [ㅁ] 우선 이 글자가 쓰인 예를 약간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서불(서울; 용 18장), 사비(새우; 훈, 용자례), 밀밥(마름; 월석 21: 80),

홍불사(훈자; 용 35장), 어드불(어두운; 용 30장), 갓가불(가까울; 월석,

서: 3), 열불(열은; 용 30장), 슬불니(사리니; 용 22장)

이 글자는, 훈민정음에서는 「입술 가벼운 소리」(唇輕音)라 부르고, 그 소리에 대해서는 “입술이 잠깐 닫겨서 목소리 바탕이 많다”(唇乍合而喉聲多——훈민정음 제자해)라 하였다. 또 최 세진(崔世珍)은 “입술을 닫아서 소리를 내면 ㅁ이 되니, 입술 무거운 소리라 하고, ㅁ을 낼 때에 입술을 닫으려다가 닫지 않고 공기를 내뿜어 소리를 내면 ㅁ이 되니, 입술 가벼운 소리라 한다”(合唇作聲爲ㅁ而曰唇重音 爲ㅁ之時 將合勿合吹氣出聲 爲ㅁ而曰唇輕音——四聲通解에 실려 있는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라고도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은 두입술 같이소리이었던 모양이다.

한편 앞에 보인, 그 쓰인 예로 보면, 이 글자는 반드시 홀소리(/ㄱ/을 포함)와 홀소리 사이에서만 나타나고, 역사적으로는 /ㅁ/이 이러한 자리에서 「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ㄴ, ㄹ/(w)로 바뀌어간 것임이 증명된다. 즉 「ㅁㄴ비」(월석 1: 36)는 「ㅁㄴ」과 「비」의 합성어이니,

\*ㅁㄴ비 > ㅁㄴ비

로 변화한 말이며, 용비어천가 지명 표기에 나타나는 「대밭」(竹田; 5: 26)도

대+밭 → 대받 > 대밭

6. 그 당시의 음운학 대강



으로 변화한 것이다. 또

어드븄>어드워, 갓가바>갓가와, 꼴바>꼴와, 설븄>설워  
따워 변화는 문헌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이 글자는 울림소리(有聲音)의 한가지를 표기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입술 같이의 울림소리 [β]를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2. [ㅁ] 이 글자는 초성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고,<sup>(43)</sup> 미래의 매김팔(풀이씨의) 씨끝 「ㅁ」과, 사잇소리 표기에만 쓰이고 있다.

〈씨끝〉 도라웁 軍士(용 25장), 날 거웁 도조꼴(용 115장), 값 길히(용 19장), 避仇 窩 소년 마리(용 28장), 드르웁제, 건너웁제(용 50장)  
〈사잇소리〉 先考 ㅁ 뜰(용 12장), 하웁 브디시니(용 4장), 快 ㅁ 字, 那 ㅁ 字(훈, 언해)

용비어천가의 사잇소리 표기 글자는 「ㄱ, ㄷ, ㄴ, ㅁ, ㄴ, ㅁ」의 여섯인데, 「ㅁ」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는 모두 무성음이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분류법으로는 「ㅁ」은 후음(喉音) 전청(全淸)으로 되어 있다. 전청은 원칙적으로 무성음이니, 「ㅁ」은 목구멍에서 조음되는 무성음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목구멍에서 조음되는 소리는 [h]와 [ʔ]가 있을 수 있고, [h]는 ㅎ으로 표기 되었으니 ㅁ은 [ʔ]이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므로 사잇소리 표기나 「ㅁ」 씨끝의 ㅁ은 목청을 닫는 무성음, 즉 목청을 닫고 일단 소리를 끊는 현상을 표기한 글자로 추측된다.

3. [△] 이 글자는 치음(齒音)의 불청불탁(不淸不濁)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내는 자리는 치음의 「ㄴ, ㄷ, ㄸ」과 같고, 내는 방법은 「ㄴ, ㄷ, ㄸ」들과 같은(비슷한) 소리를 표기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그 당시 △을 가진 말의 중요한 것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

(43) 중국음을 표기할 경우는 예외이고, 「동국정운」의 조선 한자음 표기에 초성의 ㅁ이 쓰인 예가 있으나, 동국정운의 음은 그 당시의 소리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한 형태소 안에 쓰인 것이오, 다른 하나는 한 형태음소 [ㅁ-△]의 변이음소<sup>(44)</sup>로 쓰인 것이다.

거의(거의), 겨슬(겨울), ㅁ슬(가을), ㅁ슬(마을), ㅁ슬(마음), 스시(사이), 아스(아우), ㅁ스덜-다(가덜다)——이상 한 형태소 안에 쓰인 예.

니셔(→넋-; 용 44장), 브수려히시니(→붓-; 용 109장), 우스샤(→웃-; 월석 7:26), 지셔(→짓-; 석보 13:24), ㅁ시(→ㅁ; 용 6장), 즈시(→줏-; 월석 21:24)——이상 [ㅁ-△]의 변이음소로 쓰인 예.

/ㅁ/과 한 형태음소에 속했음을 보면, 처음들 가운데에서도 /ㅁ/에 가장 가까운 소리, 즉 불같이소리(破擦音) 아닌 같이소리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 쓰인 예는 거의 다 울림소리(유성음) 사이에서만 쓰였을뿐 아니라, 향음(響音)<sup>(45)</sup>인 /ㄴ, ㄷ, ㄸ, ㄹ/들과 한가지로 분류해 놓았으니 /△/도 울림소리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은 [z] 음이었으리라 추측된다.

4. [ㅇ] 현대말의 표기 방법으로는 「ㅇ」은 첫소리로 쓰였을 때는 소리 없는 것으로 되고, 받침으로 쓰였을 때는 [ŋ] 소리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표기법으로는, 「ㅇ」은 어디 있든지 소리 없는 글자이오,<sup>(46)</sup> 「ㅇ」은 어디 있든지 [ŋ] 소리를 표기하는 글자로 쓰였다.

(44) 한 형태소가 형태음소론적 변동을 일으킬 때에 그 한 부분에서 같음하는 음소의 예를 「형태음소」라 하고, 같음하는 음소를 그 형태음소의 「변이음소」라 부르는 일이 있다. 「니셔」의 /ㅁ/은 「넋다」에서는 /ㅁ/으로 변동하므로 [ㅁ-△]의 묶음을 형태음소라 하고, /ㅁ/과 /△/을 그 형태음소의 변이음소라 하는 것이다.

(45) 향음은 홀소리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울림 닿소리(유성자음)이다.

(46) 그러나 「ㅇ」을 후음(喉音)의 불청불탁음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그 때 언어학자들은 이것이 소리 없는 글자가 아니라, 어떠한 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만일 우리가 「ㅇ」에 어떤 소리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ㅎ/의 울림소리로 가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소쉬르는 그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p.75-6>에서 'h' 소리는 그와 접촉되어 있는 홀소리의 안울림소리로 보고 있다. 즉 ha=ʔa, he=ʔe, hu=ʔu.



러울/ləŋul/, 서애/səŋəj/, 비울/pəŋol/——이상 초성.

올창/olčʰaŋ/, 부형/puhəŋ/, 밍꼴-/mɒŋkɒl-/——이상 중성.

5. [𪛗, 𪛘, 𪛙, 𪛚; 𪛛, 𪛜, 𪛝, 𪛞; 𪛟, 𪛠] 훈민정음에는, 초성 17글자와 중성 11글자의 소리와, 그것을 만든 방법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여기 내세운 「뽳, ㅼ-, ㅼㅅ, ㅼㅅ우-; ㅼㅅ, ㅼㅅ히, ㅼㅅ, ㅼㅅ; ㅼㅅ, ㅼㅅ」 따위 말의 초성인 합용병서(合用並書)의 소리에 대한 설명은 따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합용병서에 대한 소리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日/ 소리가 없는 자리에 「日」 글자를 썼다면(달리 표현한다면——「日」 글자를 써놓고도 /日/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훈민정음 해례를 지은, 극히 치밀한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무엇인가 설명을 했을 것이다. /日/이나 /入/ 소리가 있는 곳에 日이나 入 글자를 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추리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합용병서는,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대로 발음되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또 다른 증거로는, 「햐쌀, 줍쌀, 찹쌀; 입햐, 접햐」 따위 말의 /日/은 옛말 「햐, 햐」의 첫소리가 남은 것이고, 「업스-, 업서-」 따위를 「어ㅼ-, 어ㅼ-」 따위로 표기한 데가 있는 것은, 「ㅼ, 햐」의 첫소리가 /日/으로 발음되었기 때문이란 사실들을 들 수 있다.

남ㄴ티 들리도 어ㅼ새라, 어마님ㄴ티 괴시리 어ㅼ라(時用鄉樂譜 思母曲)

늑티 시늬 불ㅼ 말며 (내훈 1:6)

이리 쉬ㅼ 아니ㅎ니 (내훈 3:6)<sup>(47)</sup>

이렇게 해석하면 'h'의 올림소리란 결국 접촉해 있는 홀소리 그것이 되는 셈이다. 「아」=aa=a.

(47) 이러한 표기의 동요는 음절 경계의 동요로 볼 수 있다. 현대말에서는 두 홀소리 사이에 들 수 있는 닿소리는 많아야 둘이며, 그 경우 음절의 경계는 두 닿소리 사이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ㄱㅏㅓ-ㅓㅏ/, /日ㅏㅓ-ㅓㅏ/ 등등) 그 당시에는 그 경계가 다소 동요되고 있어서, 「VCCV」(V=홀소리, C=닿소리)의 결합에 있어서는 「VC-CV」(=음절 경계)로도 해석되고,

入 첫소리 합용병서의 경우에도 이러한 표기 상의 동요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日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된다.

갓ㄴ니(두언 16:57), 갓꼴(월석 1:17)——가ㅅ라(월석 7:8), 가ㅅ(석보 13:20)/ 닷가(월석 2:25), 닷곤(월석 2:37)——다ㅅ라(월석 7:14), 다ㅅ(석보 13:20)<sup>(48)</sup>

6. [ᄒᄐ, 00, ㄴ] 각자병서 「ㄱ, ㄷ, ㅁ, ㅂ, ㅅ」의 소리를 올림소리인 [g, d, b...]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들은 현대말의 소리처럼 된소리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ᄒᄐ, 00, ㄴ」들도 역시 된소리 내는 요령으로 발음되었으리라 추측된다.

「ᄒᄐ」은 [j]에 앞서 나타난다.

ᄒᄐ爲引(훈, 합자해), 년즈시 치ᄒᄐ시니(용 87장), 光明을 두르ᄒᄐ(월석 서:23), 拔은 ᄒᄐᄐᄐ시니(월석, 서:10), 塵을 드리ᄒᄐᄐ(능엄 3:2)

[j]에 앞서 나는 「ᄒᄐ」은 [ç] 소리로 나게 된다. 따라서 「ᄒᄐ」은 [ç]를 되게 내는 소리로 추측된다. 즉 앞혀바닥을 센입천장에 접근시켜 갈아내는 것을, [ç]보다 더 길고 세게 해서 내면 「ᄒᄐ」의 발음이 된다.<sup>(49)</sup>

「00」은 /i, j, u/에 앞서는 것인데, 「ㅇ」은 일반적으로 소리 없는 글자로 생각되고 있으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sup>(50)</sup> 그 당시 사람들은 그와 접촉되는 홀소리와 같은 소리로 생각하고 있을 듯 하니, 「00」은 결국 뒤에 오는 /i, j, u/의 된소리였다고 추측된다. 즉 보통의 /i, j, u/ 보다

때로는 「V-CCV」로도 해석되었으며(「업서」는 VC-CV로 해석한 표기, 「어ㅼ」는 V-CCV로 해석한 표기), 「VCCCV」의 결합에 있어서는 「VCC-CV」로도 해석되고, 「VC-CCV」로도 해석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불ㅅ」는 VCC-CV로 해석한 표기, 「불ㅼ」는 VC-CCV로 해석한 표기.)

(48) ㅅ받침은 그 때에는, 현대말과는 달리, [s] 발음이었으리라 추측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음.(→p.65 주 60)

(49) 「ᄒᄐ」과 「ᄒᄐ」의 /ᄒᄐ/:/ᄒᄐ/의 차이는, 「서」와 「썌」의 /ㅅ/:/ㅅ/의 차이와 같은 것이니, 이 양자를 비교하면 「ᄒᄐ」의 발음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ᄒᄐ」이 한자음 표기에서는 다른 홀소리 앞에 쓰이는 일이 있으나, (「ᄒᄐ」 따위) 이것은 그 당시의 실지의 소리 표기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50) 각주의 (46)참조.



혀를 입천장에 더 접근시키고 (/u/의 경우에는 입술을 더 둥글게 좁혀서) 약간 길게 내면 된다.

使는 히여 흥논 마리라 (훈, 언해)

生死에 띠온 根源 (능엄 5:5)

사르미게 띠옌 고들 곳 아라 (몽산 19)

뭇똥 내야 싸호미 업스면 (월석 14:14)

「ㄴ」은 더 이상 된소리로 낼 수 없는 소리이니, 길게만 내면 된다. 다만 단순한 긴 소리가 아니라 두 /ㄴ/ 소리로 내는 것이다. 「당느니라」의 실현인 「단느니라」를 「다ㄴ니라」(훈, 언해)로 표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까」와 「갓가」의 표기가 동요하는 현상과 한가지다. 즉 현대말과는 달리, 두 홀소리 사이에 두 닿소리가 이어날 때에, 음절의 경계를 앞 홀소리와 그 바로 다음 닿소리 사이에 둘 수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표기법이다. (V-CCV)

## 7. [·, ㄴ, ㅍ, ㅍ]

「·」는, 「ㄴ술(가을), ㅁ술(마을), ㄹ(가), 하늘(하늘), 사름(사람)」<sup>(51)</sup> 따위 말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소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적인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나, 어느 정도로 그 범위를 좁혀 볼 수는 있다.

훈민정음 해례에 「·」에 대해서 “혀는 움츠러지고(오그라지고) 소리는 깊다”(·舌縮聲深)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소리가 대체로 뒤혓바닥소리(후설모음)임을 암시해 준다. 뒤혓바닥소리는 앞혓바닥소리(전설모음)보다 혀가 더 오그라지고 소리는 더 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 해례의 같은 자리에서, “ㄴ는 ·와 같되 입은 오므라지고 … ㅍ는 ·와 같되 입은 펴진다”(ㄴ與·同而口蹙 … ㅍ與·同而口張)란 말이 있는데, “·와 같다”는 것은, 혀 움츠리고 소리 깊은 점이 같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소리는 「ㄴ」, 「ㄴ」와 그 혀의 모양이 비슷했음을

(51) 여러 문헌에 자주 나타나는 말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다.

집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 사실로도 인정된다.

「ㅍ-, ㅋ-, ㅌ-, ㅍ-」 따위 풀이씨의 줄기에 씨끝의 「-우-」나 「-어」가 연결되면 앞의 「-」는 줄어지는데, 이것은 「-」와 「ㄷ」, 「ㄱ」가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sup>(52)</sup>

ㅍ(크, 쓰, ㅌ)+우+口 → 뽕(쿰, 쑤, 뽕)

ㅍ(크, 쓰, ㅌ)+어 → 뻬(커, 써, 뻬)

이와 꼭 같이, 「다-», 「ㅍ-», 「다-», 「오-」에 씨끝의 「-오-」나 「-아」가 붙으면 앞의 「·」가 줄어지는데, 이것도 「·」와 「ㄴ」, 「ㅍ」가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

다- (ㅍ…) + 오 + 口 → 다옴(품…)

다- (ㅍ…) + 아 → 다아(파…)

이러한 사실들로 보면 「·」, 「ㄴ」, 「ㅍ」의 관계는 「-」, 「ㄷ」, 「ㄱ」의 관계와 평행한다. 그런데 「-」소리의 혀에, 입술을 오므리면 「ㄷ」소리가 되므로, 「ㄷ」소리의 혀에, 입술 오므림을 덜면 「-」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꼭 같이, 「·」소리의 혀에, 입술을 오므리면 「ㄴ」소리가 되므로, 「ㄴ」소리의 혀에, 입술 오므림을 덜면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는 「ㄴ」소리의 혀에, 입술 오므림을 덜 소리, [Λ] 내지는 [ɣ]<sup>(53)</sup> 소리의 표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ㄴ, ㅍ, ㅍ」들은 각각 「·, ㄴ, ㅍ」와 「ㄴ」이 겹쳐진 소리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한다. ([ㄴ, ㅍ]참조)

## 8. [방점] 그 당시의 문헌에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은 것이 있

(52) 훈민정음 제자해에는 “ㄷ는 -와 같되 입이 오므라지고, ㄱ는 -와 같되 입이 펴진다”(ㄷ與一同而口蹙 ㄱ與一同而口張)란 말이 있다. 그러나 입술이 움직이면 혀도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이므로, 이 소리들의 혀의 위치가 꼭 같았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53) [Λ]는 [ɔ]의, [ɣ]는 [o]의 입술 편 소리이다. 「ㄴ」은 [o]와 [ɔ]의 중간 소리이니, 「·」도 [Λ]와 [ɣ]의 중간 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는데, 이것을 「방점」 또는 「사성점」<sup>(54)</sup>이라 한다.

1) 평성(平聲)——점 없음. 예 「활」

2) 상성(上聲)——두점. 예 「:돌」

3) 거성(去聲)——한점. 예 「•갈 (갈)」

이것은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니, 훈민정음 언해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그대로 믿어도 좋다.

去聲은 못노퐁 소리라

上聲은 처서미 늦잡고 乃終이 노퐁 소리라

平聲은 못늦가뵈 소리라

入聲은 썰리 굻튼 소리라

거성은 (가장)높은 소리, 평성은 (가장)낮은 소리, 상성은 낮다가 높아 가는 소리인데, 입성에 대해서는 높낮이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중국어의 입성은 -k, -t, -p 종성을 가진 글자 소리를 말함인데, 우리말의 이러한 종성을 가진 음절은, 어떤 것은 「길(기둥), 녀(옆구리)」처럼 평성과 같고, 어떤 것은 「:날, :집」처럼 상성과 같고, 어떤 것은 「•몫(몫), •입」처럼 거성과 같아서, 결국 한가지의 운소<sup>(55)</sup>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입성에 대해서는 높낮이의 설명을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성조」(높이의 운소)는 결국 세가지가 되는 것이다.<sup>(56)</sup>

(54) 중국어의 평, 상, 거, 입의 사성과 같은 것을 표시하는 것이란 뜻으로 이렇게 흔히 불리지만, 사실은 국어의 방점은 세가지의 성조(聲調, toneme)를 표시할 뿐이다.

(55) 소리의 길이, 높이, 세기와 같은, 홀·닿소리에 속할 수 없는 소리의 자질이 말의 뜻을 분화하는 데 봉사하는 것을 「운소」(韻素, prosodème)라 한다.

(56) 미국의 기술언어학이 한창 성할 무렵, 우리 나라에서도 그 조류를 타고서, 상성을 평성과 거성의 복합으로 보고, 상성을 독립된 한 운소(이 경우에는 톤, toneme)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 상의 편의는 별로 있을것 같지 않다. (성조의 수효가 하나 줄기는 하나, 그 표기법에 있어서는, 상성은 두개의 기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의식(직감)으로는 상성을 독립된 한 성조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 성조를 내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 (3) 소리 바뀐 글자의 소리

1. [ㅇ] 이 글자에 대해서는 앞에 이미 설명하였다. (→p. 55)

2. [ㄱ, ㆁ, ㆊ, ㆋ, ㆌ, ㆍ, ㆎ, ㆏, ㆑, ㆒, ㆓, ㆔] 각 중성글자의 소리에 대한 설명은 훈민정음 해례에 비교적 상세하나, 그 글자들을 둘·셋 아우른 글자에 대한 소리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사실은, 이 아우른 글자들이 두·세 글자의 본딧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ㄱ/나 /ㄴ/ 소리가 없는 곳에 이 두 글자를 아우른 「ㄱ」을 쓴 것이라면 「ㄱ」의 현대말 소리에는 /ㄱ/도 없고 /ㄴ/도 포함되지 않았다) 치밀한 해례의 성격 상, 마땅히 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우른 글자<sup>(57)</sup>들의 소리는, 각 성분 글자의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만 이 두·세 글자는 두·세 음절로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한 음절로 발음되었을 따름이다.

이렇게 보아야 다음과 같은, 그 당시의 언어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끝소리가 /i, j/<sup>(58)</sup>인 형태소 다음에 토씨 「-에」, 씨끝 「-아/어」, 「-오/우-」가 이어날 때는, 이 두 홀소리 사이에서, 앞의 /i, j/로 말미암아, /j/가 첨가된다.

「-에」: 두리에 (용 87장), 귀에 (석보 9:7)

「-아/어」: 이기여 (월석, 서:9), 뛰여 (월석, 서:2)

「-오/우-」: 어귀음 (금강 15), 이기유물 (두언 7:7),

뛰유미 (월석 2:21의 1)

그런데 이렇게 /j/ 소리가 첨가되고 나면, 같은 소리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의 /j/가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다.

(57) 이것들도, 초성과 같이 「합용병서」라 불렸던 모양이다.

(58) 끝소리의 /j/는 탄이를 말함이다.



부여 → 부여 (남명, 상 : 12)

이러한 현상은, 현대말에서 홀로 나는 「ㄱ, ㅋ, ㆁ」와 같은 글자들  
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lt;/j&gt; 첨가&gt;

그르메예 (월석 7:23), 비예 (월석 2:24)

괴여 (후, 합자해), 득의야 (월석 1:5), 내야(월석 2:31)

보요미 (석보 13:47), 혜요미 (능엄 3:24)

〈앞 /j/ 탈락〉

개여 → 가여 (능엄 4:40)

꼴히야 → 꼴햐 (석보 13 : 46)

화예 → 화예 (월석 2:33)

이러한 사실은, 「끼, 뭉」가 /kij/, /muj/이듯이, 「메, 괴, 개, 핵」 따  
위도 /məj/, /koj/, /kaj/, /hwaj/였다고 가정해야, 쉽사리 이해되는 것  
이다.

2) 음음 (59)

지금은 없어졌거나 소리가 바뀐 글자의 소리를 위와같이 추정해 놓고 보면, 그 당시의 음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음소〉

## 당소리

/ 日 本 口 兵 /

/C 4 E 2 2/

/天 天 天/

(59) 음소와 운소를 아울러서 「음운」이라 부르기로 한다.

/ 入 从 Δ /

/ 7 7 7 8 /

/ ㄱ ㄱ /

출소리

/ · - 1 ⊥ ⊢ ⊤ ⊣ (∞) /

반출소리

$$/ \text{Y} (j), (\text{oo}) ; \text{Y}, \text{Y} (w), (\text{oo}) /$$

〈운소〉

각 음절은 다음 세가지 높이 중의 하나를 가지며, 이 높이는 말의 뜻을 분화하는 구실을 한다.

평성 (낮은 소리)

상성 (높아가는 소리)

거성 (높은 소리)

### 3) 음소의 연결

### (1) 음절 구조

1. 한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 삼성으로 성립되는데, 초성과 종성은 소리가 없을 경우도 있다.

(가) 초성

2. 닿소리 22은 다 단독으로 초성이 될 수 있는 점은 현대말과 같으나, 들·셋의 닿소리떼가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점은 현대말과 다른 특색이다.

𣎵 : 攆은 땀씨라 (월석, 서 : 9), 情은 뜨디라 (훈, 언해),

垢는 때라 (능엄 4 : 76)

以：用은 쓸씨라 (훈, 언해), 種은 씨라(월석 2:2),

## 6. 그 당시의 음운학 대강



제 팔란 ㄴ초고 (월석 1:45)

𪛗: 簡은 대빠개니 (월석 8:96), 𪛗爲隻 (훈, 합자해),

𪛗는 뜯 머리니 (월석 8:33)

𪛗: 骨髓 뼈디며 (월석 2:38), 현번 뛰운들 (용 48장),

밤 구름제...뚝 뼈딜씨니 (몽산 44)

지: 𪛗 한 도즈굴 (용 19장), 꾸므로 (용 13장), 𪛗븐 췌을 (용 88장)

쇼: 𪛗히 소리 (석보 19:14), 𪛗히 𪛗 (석보 19:17)

𪛗: 𪛗爲地 (훈, 합자해), 열본 𪛗 (월석 1:42),

孝道 𪛗 𪛗리 그를 (용 96장)

𪛗: 角은 𪛗리오 (석보 13:53), 促急은 𪛗를씨라 (훈, 언해),

𪛗나뭇 니피 (두언 21:36)

𪛗: 두 놀이 혼사래 𪛗니 (용 43장), 𪛗마시 𪛗 ㄴ티 들오 (월석 1:42),

𪛗爲隙 (훈, 합자해)

𪛗: 𪛗𪛗爲酉時 (훈, 합자해), 𪛗릿 물이 𪛗며 (월석 7:6, 기 179),

𪛗무저글 𪛗리니=破塊 (두언 16:66)

#### (나) 중성

3. 앞에 들어 보인 여덟의 홑홑소리가 중성 자리에 올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것 이외에, 반홑소리와 홑홑소리의 결합으로 되는 여러 가지의 두·세 겹홑소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다.

4. 두겹홑소리에는, 반홑소리가 앞에 있는 상승적인 것과, 그것이 뒤에 있는 하강적인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상승적 { 1겹: 야 여 요 유  
          2겹: 와  
          3겹: 위  
          4겹: ㅞ ㅟ ㅠ ㅡ  
          5겹: ㅢ  
          하강적: 의 의 외 외 에 에

5. 상승적 두겹홑소리에 /j/가 뒤따라서 세겹홑소리를 만든다.

예 예 외 외 왜 왜

#### (다) 중성

6. 중성에는 닿소리 중 /ㄱ, ㄷ, ㄱ, ㄴ, ㄷ, ㄴ, ㄷ, ㄴ/의 여덟만이 쓰일 수 있다.

7. 현대말에 있어서는, 중성으로서의 ㄷ, ㄴ은 모두 [t'] (혀끝 단음 소리)로 발음되어 같은 소리가 되어 버리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ㄴ받침은 [s] 음으로 발음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60)</sup>

8. 또 /ㄷ/을 앞세운 두 중성도 쓰인다.

/리/: 𪛗, 𪛗

/피/: 𪛗디, 𪛗겨

/페/: 𪛗디, 𪛗듯

9. 「ㄷ」을 하나의 정상적인 음소로 보기가 주저스럽기 때문에, 「𪛗」을 두 중성으로 보아야 할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10. 그리고 글로는 「ㄱ, ㄴ」 받침이 나타나지마는, 그것이 다 발음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𪛗 바도물 (월석 1:46)

𪛗 업슨 (월석 17:30)

(60) 필자는 일찍, 「이조 초기 문헌의 표기법에 나타난 문법의식」(국어국문학회 3호 1953년)에서 이 「ㄴ」중성이 “[s]음으로 발음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고 “이 「ㄴ」은 「웃」과 같은, 그 원형이 분명히 「ㄴ」인 말의 체언 형태를 밝힌 것이지, 발음의 「ㄴ, ㄷ」이 분별되어 발음된 것은 아니리라 보는 것이 안전한 단정일 듯 싶다”라 하였고, 이 논문을 다소 고친 「월인천강지곡의 표기법」(이 강로와 공저: 「주해 월인 천강지곡 상」, 신구문화사, 1962년)에서는, “「웃」이 바로 [os]으로 발음되었다고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음절 말의 ㄴ은 그 형태소의 기본형태(basic allomorph)를 어느 정도 밝히려는 의도에서 오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즉 중성의 ㄷ과 ㄴ이 구별 표기된 것은 소리의 다름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본형태를 밝히려는, 현대 맞춤법의 원칙과 같은, 심리작용에서 온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 뒤 「개고 신판」 국어 음운학에서는 몇가지 이유로, 중성의 ㄴ은 [s]이었을 것으로 밝혀보려 했으나, 이 단정에는 아직 불안한 점이 전혀 없지 않다.



(라) 음절의 경계

11. 두 중성(V) 사이에 오직 하나의 닿소리(C)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닿소리는 둘째 음절의 초성이 되는 점, 현대말과 한가지다. 이것은, 그 당시의 표기법으로는, 이 닿소리가 받침으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 참조. (→p.69 이하))

12. V 사이에 둘의 C가 있을 때는 음절의 경계는 대체로 VC-CV와 같이, 두 C 사이에 놓였던듯 하나, 때로는 V-CCV와 같은 분리 방법도 가능했던 모양이고, 세 C가 있을 때는 VC-CCV와 VCC-CV의 두 가지 분리 방법이 가능했던 모양이다. (→p.56 각주 47)

(2) 모음조화

1. 그 당시의 홀홀소리는, 모음조화의 관점으로 세가지로 나뉜다.

밝음(양성) : 으, 오, 아

어두움(음성) : 으, 우, 어

중간 : 이

2. 겹홀소리들도 밝음-어두움(양-음)으로 나뉜다.

양+양→양 : 와

음+음→음 : 위

양+중→양 : 애, 외, 야, 요 ...

음+중→음 : 에, 위, 여, 유 ...

3. 그 당시의 모음조화는 현대말보다 그 범위가 넓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화 작용이 지배한다.

한 형태소 안의 홀소리들은, 밝음과 어두움의 섞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양+양 : ㅗ롭, 나라ㅎ, 나모, 도죽, 다웃, 놀애, 가마괴, 다ㄹ-, 다ㄹ-

음+음 : 굴형, 구롬, 드르ㅎ, 허플, 겨를, 브르-, 어듭-, 더으-

양+중 : 가지, 가치, 기르마, 드리, 스시, 할미, 아비

음+중 : 닐굽, 닐흔, 닐금, 일흠, 머리, 서리, 그리-

중+중 : 미리, 이기-

예외 : 몬져, 저재, 섣벽

토씨의 「-애/에」, 「-이/의」(위치와 매김)는 임자씨의 끝 홀소리와 조화된다.

ㅅ르매, ㅅ르래, ㅅ래 / 뒤헤, 굴허에, 드르헤, 東征에 / 이페, 길헤, 日에

알피, 東의, 소너 / 우희, 겨틱, 열희, 員의  
씨끝의 「-아/어」, 「-오/우-」는 풀이씨 줄기의 끝 홀소리와 조화된다.

물라, 짜호아, ㄴ라 / 드러, 드러, 주거, 버서 / ㄴ려, 터, 그려

예외 : 업사(용 110장), 펴아시늘(천강곡 상, 기 7)

솔보더, 스랑ㅎ요더, 고보미 / 뿌메 (←ㅅ+음+에) / 두리부미,

예외 : 업소라(월석 21:26), 드로니(월석 21:24)

고름홀소리(조성모음)의 /으/와 /으/는 앞 형태소의 끝 홀소리와 조화된다.

ㄴ르샤, 사르샤, 안즈니 / 그출췌, 여르시니, 주그니 / 니즈실췌,  
기프샤

예외 : 연즈니(용 7장)

남곤, ㄴ몬 / 드른

故논, 나논 / 語는, 興는

나라홀, 말짜물 / 그를, 년글, 님그물

췌를, 놀애를 / 번게를, 氣를

자ㅎ로, 소ㄴ로, 行幸으로 / 꾸므로, 請으로

(3) 사잇소리

1. 현대말의 두 형태소 연결에 있어서, 울림소리(유성음) 사이의 여린소리(연음) /ㄱ, ㄷ, ㄴ, ㄹ/이 울림소리로 변이하여 약화하는 것을 막

6. 그 당시의 음운학 대강



기 위하여, 이 여린소리를 된소리로 바꾸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심리 작용으로 아래 형태소의 첫 /ㄴ, ㄹ/을 겹으로 내는 일을 「사잇소리」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 소리 현상은 현대말과 꼭 같은 것은 아니었던 듯 하다.

2. 용비어천가와 훈민정음 언해의 사잇소리 표기는 그 당시의 다른 문헌에 비해 가장 정밀하니, 이것은 그 소리 현상을 짐작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

3. 둘째 형태소의 첫소리가 여린소리의 /ㄱ, ㄷ, ㄱ, ㅅ, ㅈ/일 경우에는, 그 윗소리(첫째 형태소의 끝소리——이것은 /ㅇ, ㄴ, ㄹ, ㄷ/이거나 홀소리다)와 같은 자리에서 나는 여린소리인 /ㄱ, ㄷ, ㄱ/을 그 사이에 두고, 홀소리와 /ㄷ/ 다음에는 「ㅇ」을 둔다.

[ㄱ] 讓兄 ㄱ 뵈(용 99장), 遮陽 ㄱ 세 쥐(용 88장), 兄 ㄱ 브더(용 8장),

乃終 ㄱ 소리(훈, 언해)

[ㄷ] 몇間 ㄷ 지브(용 110장), 君 ㄷ字(훈, 언해)

[ㄱ] 사롭 브더리잇가(용 15장), 侵日字(훈, 언해)

[ㅇ] 先考 ㅁ 뵈(용 12장), 快 ㅁ字(훈, 언해); 하늬 브들(용 86장)

훈민정음 언해에는 「ㅁ」도 사잇소리 표기로 쓰인다.

漂(漂)ㅁ字, 斗(斗)ㅁ字

즉 한자음의 끝소리가 「ㅁ」일 때에 「ㅁ」이 쓰이는데, 이 한자음은 동국정운(東國正韻)의 인위적인 표준음을 표기한 것이며, 실지음으로는 「ㅁ」 받침소리가 발음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 글자는 사잇소리의 소리 현상을 추정하는 데는 참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잇소리 표기 방법으로 보면, /ㄴ, ㄹ, ㅇ/ 다음에서는 혀를 움직이지 않은채 소리를 끊고, 홀소리와 /ㄷ/ 다음에서는 목청을 닫고서 소리를 끊었다가 다음 형태소의 첫소리를 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4. 또 둘째 형태소의 첫소리가 홀소리이거나 향음(/ㄴ, ㄷ, ㄹ/따위)일 때에는 「△」을 사잇글자로 쓰고 있다.

나랏 일흠(용 85장), 世子△位(용 110장), 英主△알피(용 16장), 바ळ우희(용 83장), 늪므를(용 91장)

「△」은 분명히 울림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니, 이러한 특별한 환경에 한해서 「△」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경우의 사잇소리는 소리를 끊지 않고, 여기에 울림(성, 聲)의 약화(앞소리를 약간 끝면서)가 온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5. 그러나 용가에서 이미 「ㄱ, ㄷ, ㄱ, ㅁ」 대신에 「ㅅ」 한가지를 쓰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野人ㅅ 서리(4장), 님궤 德(118장), 아바늬 뒤(28장), 나랏 小民(52장) 값 ㅅ새(58장) …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ㄱ, ㄷ, ㄱ, ㅁ」로 끊는, 이 사잇소리 현상들이 공통성을 가진 것임을 인식했던 것으로——바꾸어 말하면, 음운학적으로 같은 현상이었던 것으로——해석된다.

6. 다시 약간 뒤시기로 가면 「△」의 경우에까지 「ㅅ」으로 통일되어 가는데, 이것은, 「△」 사잇소리 현상마저 음운학적으로 같은 현상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텃말(법화 3: 156), 聖人ㅅ 물(법화 5: 42), 神通ㅅ 이틀(법화 3: 146)

아릿 因(법화 3: 165) ……

## 7. 그 당시의 표기법<sup>(61)</sup>

1. 현대 국어의 음절 중성<sup>(62)</sup>은 /ㄱ, ㄷ, ㄱ, ㅇ, ㄴ, ㄹ, ㄷ, ㄷ/의 입곱이다. 그러므로 현대 국어를 소리 나는대로 적는다면, 받침의 표기는

(6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 60」의 두 논문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나, 이 책을 읽는 데 편의를 위해서, 여기 다시 간추려 둔다.

(62) 여기에서는, 「초·중·종성」이란 말은, 글자와 관계 없이, 소리의 면으로 본 용어로 쓰기로 한다. 그러므로 「읽이」의 「ㅍ」은 받침이기는 하되 종성이라 부르지는 않기로 한다.



이 일곱 글자만으로 충분하다.

2. 이조 초기의 음절 구조로는, 이 일곱 음소 이외에 /ㅅ/도 종성이 될 수 있었던 듯 하여, 「훈민정음 해례」에, “「ㄱ ㆁ ㄷ ㄴ ㅂ ㅅ ㅈ」의 여덟 받침이면 족하다”고 하였고, 또 그 당시 문헌의 실지 표기법으로도 「ㄷ, ㅅ」 받침은 구별되어 혼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당시의 말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받침의 표기는 이 여덟이면 족했던 것이다.

3. 여덟 받침을 사용한, 소리대로 적기의 표본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인데, 여기에는 한 음절 한 음절을 소리대로 적으려는 욕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풀이씨(용언)의 줄기(어간)와 씨끝(어미)은 물론이요, 입자씨(체언)와 토씨의 구별은 맞춤법에 반영되지 않는다.

[줄기+씨끝]: 업슬, 업시(엷-), 아나(안-), 빌머그라(빌떡-), 안자(얏-), 바다(반-), 어드리라(얼-), 소사(삿-) …

[입자씨+토씨]: 모물(뭍), 사르미(사름), 도노로(돈), 브들(뵈), 소내(손), 느미(눔), 꾸물(쑤), 드를(들), 흘꼴(흙), 누니라(눈) …

4. 여덟 받침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 이외에 「ㄷ, ㅅ」과 같은 받침도 쓰인다.

흙과, 엷디 아니헛며, 뵈디 말라, 몬숯뇌, 앗境(얏) …

5.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것은, 「ㅅ」이 받침으로 쓰인 예가 보인다. 즉 이름씨 「아스(아우), 여스(여우)」에 「-이, -을/을, -온/은」 따위 토씨가 붙을 때나, 풀이씨의 줄기 「비스-(꾸미다), 브스-(부수다)」에 씨끝 「-아/어」가 연결될 때는,

앗이라(석보 13:2), 엷이(월석 2:76), 봇아브려(월석 21:181), ㅅ장 빗어(월석 7:3)

와 같이, 「스, 스」가 「ㅅ」으로 바뀌어 표기되나, 때로는 이것이 「ㅅ」으로 표기된 일도 있다.

ㅅ장 빗어 (월석 2:5)

6. 다음, 용비어천가의 표기법을 보면, 여덟 받침 이외에, 「ㅅ」 받침이 많이 쓰일뿐 아니라, 「ㅈ, ㅊ, ㅊ」 따위 받침도 쓰이고 있다.

앗이(103장), 앗온(24장), ㅅ(58장, 125장); ㅊ ㅊ코(2장); ㅊ거늘(36장)

빋나시니이다(80장); ㅊ고(34장), ㅊ고(34장), 새 ㅊ(84장)

이러한 표기법으로써, 우리는 용비어천가 작자들의, 줄기나 입자씨의 기본형태를 밝혀 적으려는——이것이 지금 맞춤법의 기본 원칙이다——의욕을 엿볼 수 있으니, 앞의 석보상절의 작자에 비해서, 문법적 분석이 한 걸음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7. 그러나 이러한 경향도, 기본형태의 끝 「ㅈ, ㅊ, ㅊ」이 종성으로 발음될 경우에 국한되었고, 이것이 초성으로 발음될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어서, 지금 맞춤법과 달라진다.

기픈(2장), 노픈시니(49장), 조춘샤(112장), 나지(101장), ㅊ치(40장) 그리고

소너 마리(28장), 소노로(87장), 브른(2장), ㅊㅊ래(2장), 그를(7장), 브르래(2장), 시미(2장)

와 같은 표기는 석보상절의 그것과 꼭 같으며, 「ㅈ, ㅊ」이 종성이 될 때에도 그 기본형태(원형)를 철저히 밝혀쓰지는 못했다.

맛거늘(←맛-: 40장), ㅊ디(←ㅊ-: 100장)

8. 이와같이, 용가의 작자들은, 어느 정도 기본형태를 밝혀 쓰려는 노력을 한 듯 하나, 음절의 경계를 바꾸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초성을 받침으로 적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sup>(63)</sup>

9. 월인석보 중의 월인천강지곡의 부분이나, 월인천강지곡 상권의 표기법은, 위의 두가지 계통의 문헌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 특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3) 지금 맞춤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나타난다. 「입이, 입을, ㅊ이, ㅊ을……」이나, 「먹으니, 먹어, ㅊ으니, ㅊ아, ……」 따위 말의 받침은 소리로는 다음 음절의 초성이다. 즉 초성을 받침으로 적는 것이다.



첫째, 기본형태의 /ㅈ, ㅊ, ㅌ, ㅍ/ 따위가 종성이 될 때는 그 원형이 밝혀지는데, 이것은 용가의 경우보다 철저하다.

다섯 곳 두 고지(기 7), 낮과(기 16), 꽃 우희(기 211), 맞나승불며(기 179, 단행본으로는 178), 꽃비(기 420), 뒷동울(기 239), 길거다(기 249), 세날불(기 40), 웅노이다(기 167), 웅늑니이다(기 167), ㅈ 업슬썩(기 26), ㅈ 업스리이다(기 210) ...

둘째, 임자씨의 기본형태의 끝소리가 /ㄴ, ㄹ, ㄷ, ㅁ, ㅂ/인 것은, 이 소리들이 토씨의 초성으로 날 경우에도 임자씨의 받침으로 하여, 임자씨와 토씨를 구별하여 적는다.

눈에(기 2), 훈 눈이(기 164),兄님을(기 4), 몸엿필(기 4), 썸을(기 8), 늑이, 늑을(기 11), 아바님이(기 11), 훈 몸애(기 416), 일이시나(기 2), 말이시나(기 2), 일을(기 9), 날들이(기 17), 기별을(기 23), 비늘을(기 28), 종을, 종애(기 229), 뒷동울(기 239), 三동울, 三동이(기 247), 중을(기 189)

세째, 풀이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줄기의 기본형태의 끝소리가 /ㄴ, ㄹ/인 것은, 그것이 씨끝의 초성으로 나더라도 받침으로 하여 줄기와 씨끝을 구별하여 적는다.

안아, 안으시니이다(기 241), 줌으며(기 423), 담아(기 4) ...

10. 이와같이, 천강지곡의 표기법은 용가의 그것보다 지금 맞춤법에 더 가까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도 일정한 한계를 넘지는 못한다.

첫째, 임자씨의 경우에 있어서, 그 끝소리가 /ㄴ, ㄹ, ㄷ, ㅁ, ㅂ/과 같은 불청불탁음(不淸不濁音)일 경우에만 음절의 경계를 깨뜨려가면서까지(초성을 받침으로 적어서) 임자씨와 토씨를 구별하여 적고, 다른 소리가 끝소리 될 때는 그러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목이, 낮이, 꽃이」와 같은 표기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풀이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줄기와 씨끝의 구별 표기가 /ㄴ, ㄹ, ㅂ, (ㅁ)/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1. 이 두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첫째, 소리가 연결되어 나갈 때에 있어서, 한 홀소리의 길이는, 종성이 없거나 유성음 종성이 올 때는 무성음 종성이 올 때에 비해 길어진다. 즉 불청불탁음의 종성을 가진 음절의 홀소리는 그것이 없는 열린음절의 홀소리와 그 길이가 비슷하나, 무성음을 종성으로 가진 음절의 홀소리는, 열린음절의 그것보다 짧다. 그러므로 /nun-i/와 /nu-ni/의 첫 음절의 홀소리 길이는 서로 비슷하나, /mok-i/와 /mo-gi/의 첫 음절의 홀소리 길이는 매우 서로 다르다. 「눈이」와 「목이」는 다 같이 음절의 경계를 깨뜨린 표기이나, 전자는 실지의 소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데 비해서, 후자는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다. 이것이 「목이」 따위로 적기를 주저하게 한 이유이다.

둘째, 「다르-, 도르-」의 「-아/어」 활용형은 「달아, 돌아」이며, 「브스-, 그스-」의 같은 활용형은 「보아, 굶어」이다. 만일 「달-, 돌-」의 「-아/어」 활용형을, 「안아」 식으로 적는다면, 「달아」가 될 것이니, 이때서는 「다르-」의 활용형과 혼동될 우려가 있을 것이고, 「넋-」의 활용형 「니서」를 「넋어」로 적었다가는 「\*니스-」의 활용형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풀이씨 줄기의 원형 표기가 임자씨의 경우보다 더 제약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다.

임자씨에 있어서도 이러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노르」에 토씨 「-이」가 붙은 끝은 「놀이」가 되므로 「\*놀」(이런 임자씨가 있다면)의 임자끝(주격형)과 혼동이 될 것이고, 「아스」의 임자끝도 「앗이」이니 「\*앗」(이런 임자씨가 있다면)의 그것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임자씨에는 풀이씨보다 이러한 혼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말이 훨씬 적다.

(그리고 /ㅁ/으로 끝나는 풀이씨 줄기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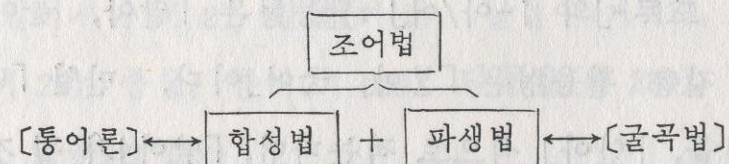


## Ⅱ. 조어론

### — 낱말 만들기 —

#### 1. 조어론과 인접 부문과의 한계

1. 조어법은 합성법과 파생법으로 나뉘는데, 합성법으로 된 합성어 가운데는 두 자립형식을 성분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어론과의 한계가 문제 되는 일이 있고, 또 파생의 가지(접사)는 굴곡의 가지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파생법과 굴곡법의 한계가 문제 되는 일이 있다.



2. 이 두가지 문제 중, 통어론과의 한계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p. 40 이하)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파생법과 굴곡법의 한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굴곡의 가지와 파생의 가지

1. 가지(접사)는 어떤 것이든, 뿌리(어근)에 의지해야만 그 뜻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굴곡의 가지와 파생의 가지는 때로는 잘 구별이 안 되는 일이 있으나, 이 두가지 가지는 다음 몇가지 점으로 구별된다.

첫째, 파생의 가지는 일반적으로 불구적이고, 그것이 붙는 뿌리도 불구적인 것이 있으며, 때로는 한 가지가 붙을 수 있는 뿌리의 종류가 문법적으로 이질적인 것이 있는데, 굴곡의 가지는 그렇지 않다.

한 형태소 A가 연결될 수 있는 형태소가 오직 하나일 경우, A 형태

소를 전형적인 「불구형태소」라 부를 수 있는데, 파생의 가지는 불구적인 것이 많다. 즉 극히 국한된 수의 뿌리와만 연결될뿐, 그밖의 다른 뿌리와는 연결되지 않는 가지가 흔히 있다. 이를테면 「눅잡다」의 「-잡-」은 「눅-」 이외의 다른 뿌리와는 별로 결합되지 않으며, 「박춧다」의 「박-」, 「브르쁘다, 브르돋다」의 「브르-」도 그밖의 다른 뿌리와 결합되어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굴곡의 가지는 그렇지 않다. 「먹다, 막다, 가다, 오다...」의 「-다」, 「먹지, 막지, 가지, 오지...」의 「-지」, 「먹고, 막고, 가고, 오고...」의 「-고」 따위는 어떠한 줄기에도 붙을 수 있고, 「가시다, 오시다, 막으시다, 잡으시다...」의 「-(으)시-」도 풀이썩 줄기에 두루 붙을 수 있다.

파생의 가지도, 이러한 극단에 가까운 불구형태소가 있는 반면, 꽤 널리 여러 뿌리에 연결되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동작성 풀이썩을 상태성 풀이썩으로 바꾸는 「-되-」 뒷가지는, 15세기 국어에서는, 「그리-, 두리-, 너기-, 놀라-, 피-, 띠-, ~ㅎ-」 따위 꽤 많은 풀이썩에 연결될 수 있고, 힘썩의 가지 「-혀-」는 「느리-, 뻬-, 드위-, 기우리-, 그우리-, 내-, 드리-, 주리-, 가도-, 걸위-, 도록-, 두르-, 니르-」 따위 많은 줄기에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뿌리에 연결될 수 있어야 굴곡이고, 어느 정도의 수로 국한되어야 파생일까? 이에선 명확한 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말하면 굴곡의 가지는 문법적으로 같은 종류의 뿌리에는 별로 제한을 받지 않고 연결되는데, 파생의 가지는 그렇지 못하여, 언제든지 그 뿌리는 하나하나 벌여놓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 나온 「-혀-」는 꽤 많은 남음직썩에 붙게 되나, 이것이 연결되지 못하는 많은 남음직썩이 있다. 그러나 높임의 「-으시-」와 같은 형태소는 풀이썩에는 거의 제한 없이 연결된다.

또 굴곡의 가지는 문법적으로 같은 종류에 속하는 말에 거의 제한 없이 붙을 수 있되, 한 굴곡의 가지는 오직 한가지 종류의 말에 붙음이



원칙인데, 파생의 가지는 문법적으로 다른 종류의 뿌리를 취하는 일이 많다. 이를테면, 「-롭-, -롭-」은 이름씨 「아스」에도 붙고, 매김씨 「외」에도 붙으며, 「ㄷ춤내, 내춤내」의 「-내」는 이름씨에 붙었는데, 「몰내」는 어찌씨를 뿌리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굴곡의 가지에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다만 토씨는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언어형식에 붙는다.)

둘째, 굴곡의 가지는 이은말이나 월에까지 연결될 수 있으나, 파생의 가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이를테면 국어의 토씨는 독립된 하나의 낱말이지마는, 굴곡의 가지의 한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이은말에 붙고, 또 월에도 붙는다.

을 여름철에 들어서부터...

보아달라가 아니다.

간나는 그를 존경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굴곡의 가지라 해서, 죄다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어의 전형적인 굴곡의 가지인 풀이씨의 씨끝은 이은말이나 월에는 붙지 않는다.

그가 하라는 일을 하지 못했다.

간다는 말은 있으나.....

의 「-는」도 “그가 하라”, “간다”와 같은 월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으나, 이것은 그 앞에 “하-”가 줄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째, 굴곡의 가지는 한 뿌리에 여러개가 같은 쪽에 겹쳐지는 일이 많다. 「가셨읍니다」는 뿌리 「가-」 뒤에 굴곡의 가지 「-시-, -었-, -읍-, -니-, -다」가 연결되어 있다. 또 「~더-시-니, ~습-더-니, ~리-러-라」 따위. 파생의 가지도, 때로는 「드리혀다, 드리티다」와 같이, 둘이 겹쳐지는 일이 있기는 하나, 굴곡의 가지처럼 그렇게 여러개가 붙을 수는 없다.

네째, 파생의 가지와 굴곡의 가지가 겹쳐질 때는, 앞것은 뒷것에 비

해서 뿌리에 가까운 자리에 놓임이 보통이다. 「니르-혀-시-니-라, 니르-왈-느-니-라」에서 굴곡의 가지 「-시-», 「-느-», 「-니-», 「-라」 따위는, 파생의 가지인 「-혀-, -왈-」보다 뿌리 「니르(르)-」에서 먼 자리에 놓여 있다. 이것은, 파생의 가지는 뿌리에 붙어 새로운 하나의 낱말을 만들어 내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도 예외가 없지 않다. 「마짜비」는, 뿌리 「맛-」에 객체높임의 굴곡의 가지 「-줍-」이 먼저 붙고, 그 뒤에 이름씨 만드는 파생가지 「-이」가 붙어서 된 파생어인데, 굴곡가지가 파생가지보다 뿌리에 더 가깝게 놓여 있다.

2.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파생의 가지와 굴곡의 가지는 그 구별이 대체로 분명하기는 하나, 때로는 그 어느 편에 넣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따라서 파생법에 속하는 문제인지, 굴곡법에 속하는 문제인지 잘 결정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 몇가지 문제를 15세기 국어에서 들어 보기로 한다.

## 2) 입음(피동)과 하임(사역)의 가지

1. 입음말(피동어)과 하임말(사역어)에 나타나는 가지는 현대말에 있어서나 15세기 말에 있어서나, 굴곡인지 파생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다.

2. 이 가지를 굴곡적인 것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여러가지다.

첫째, 입음·하임의 가지는 상당히 많은 풀이씨에 연결될 수 있어서, 불구 가지인, 「프성귀, 말쌈」의 「-성귀, -쌈」 따위에 비하면, 굴곡의 가지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이 가지는 월의 구조를 바꾼다. 원칙적으로 파생가지는,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뿌리의 뜻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통어적 성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데, 하임말은 제움직씨나 그림씨를 남움직씨



로, 남음직씨를 접남음직씨로 만들기 때문에, 원래의 풀이씨의 경우와는 다른 월 구조를 가지게 된다.

불이 밝다—불을 밝히다.

아기가 잔다—아기를 잔다.

아기가 젖을 먹는다—아기에게 젖을 먹인다.

입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즉 이 경우에는 월 구조는 반대로 변한다.

산을 본다—산이 보인다.

떡을 먹는다—떡이 먹힌다.

세째, 굴곡의 가지는 그것을 가진 모든 어형에 공통적인 문법적 의의를 일률적으로 부여하여, 굴곡의 범주<sup>(1)</sup>가 성립된다. 이러한 일은 파생가지에는 없는 일인데, 이 가지는 입음법, 하임법과 같은 문법범주를 형성하는 것으로, 국문법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가지는 굴곡법에 넣어서 설명함이 옳을것 같이 생각된다.

3. 그러나 필자는 다음 몇가지 이유로, 이것을 조어법 중의 파생법에 서 다루기로 한다.

첫째, 이 가지가 꽤 많은 풀이씨에 연결되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한성을 면하지 못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굴곡의 가지는 문법적으로 같은 종류의 뿌리에 거의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특색이다. 그런데 하임의 가지는, 그림씨 제음직씨 남음직씨에 붙을 수 있으나, 이 세가지 종류의 말들을 합한 풀이씨에 일률적으로 붙을 수는 없어서, 어떤 풀이씨가 하임말을 만들 수 있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낱말을 하나하나 벌여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기술 방

(1) 屈曲의 範疇. inflectional category 의 번역.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허 응: 언어학 개론 (1963, 정음사) pp.189-193.

법은 굴곡법에는, (예외의 설명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 점 입음말도 한가지인데, 이러한 사정은 현대말의 경우나 15세기 국어의 경우나 한가지이다.

둘째,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파생의 가지는 굴곡의 가지보다 뿌리에 더 가까이 자리잡는다. 그런데 하임의 가지는 분명한 파생가지보다 뿌리에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한다.

들다(入)—드리다(하임)—드리혀다.

들다—드리다(하임)—드리티다.

기울다(傾)—기우리다(하임)—기우리혀다.

나다(出)—내다(하임)—내티다.

하임의 가지 「-이-」는, 분명한 파생가지인 「-혀(혀)-, -티-」 따위보다 뿌리에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굴곡의 가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리에 올 수는 없는 것이다.<sup>(2)</sup>

세째,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밝히다, 좁히다, 높이다」 따위, 그림씨를 음직씨 만드는 가지는 하임·입음과는 달리 다루고 있고, 최현배 님의 「우리말본」에서도 그림씨에 붙는 「-히-」는 하임·입음과는 달리 파생가지로 다루고 있는데,<sup>(3)</sup> 「밝히다」의 「-히-」를 파생가지로 본다면, 「얹히다」의 「-히-」도 역시 파생가지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네째, 하임말이나 입음말은 사전에 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먹이다, 입히다」 따위는 「먹다, 입다」와는 다른 낱말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임·입음말이 월의 구조를 바꾼다고 하나, 이러한 정도로 월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파생가지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있다. 15세기 말의 「일다→이르다, 돌다→도르다, 살다→사르다, 날다→니르다」와 같은 말은 파생법으로 된 것인데, 이 파생법은 제음직씨를 남음직씨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소위 하임말의 경우와 한가지인데, 이러한 남음직씨는

(2) 「마짜비」는 굴곡가지가 파생가지의 앞에 와 있는데, 이것은 예외다.

(3)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항.

최 현배: <고친판> 우리말본 (1971, 정음사) p.679.



당연히 월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또 15세기 말의 「즐기다→즐겁다, 피다→뵈다, 뜨기다→뜨겁다, 짓다→짓쁘다, 웃다→웃쁘다」 따위, 움직씨를 그림씨 만드는 파생법은 역시 월의 구조를 바꾸게 된다. 한 예를 든다면 「즐기다」는 남움직씨이기 때문에 부림말을 취할 수 있는데, 「즐겁다」는 그렇지 못하다.

수으를 즐기거나 (석보 9:37)

모든 므스미 즐겁더니 (월석 21:207)

월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굴곡가지만의 특권은 아닌 것이다.

4. 위에 들어보인 몇가지 근거에 의거해서, 우리는 하임·입음의 가지는, 그림씨에 붙어서 남움직씨 만드는 가지——밝히다, 높히다, 불히다, 낮추다 따위——와 같이, 파생가지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에서는 하임법 입음법은 굴곡의 범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 3) 토씨, 씨끝의 파생가지 되기

1. 풀이씨의 활용형(끝바꿈꼴)이 파생어로 되는 것이 있다. 즉 씨끝 「-기, -口, -아/어」가 파생가지의 노릇을 하는 일이 있다.

15세기 국어의 「거름(步), 그림(畵), 어름(氷)」 따위는 모두 움직씨 「걸-, 그리-, 얼-」에서 파생된 이름씨다. 15세기에 있어서는 풀이씨의 이름꼴은 반드시 「-오/우-」를 가지는 것인데, 이 말들은 「-오/우-」를 취하지 않고 바로 「-口」을 붙였기 때문에, 이 「-口」은 쉽사리 끝바꿈의 씨끝과 구별된다. 그리고 같은 근거에 의해서, 「무덤, 주검, 구지럼(구지람)」도 파생어임이 분명하다.

2. 그런데, 「-오/우-」를 가진 「-口」 이름씨, 「춤(←츠-), 우숨(←웅-), 우름(←울-), 즈오름(←즈울-)」 따위는 끝바꿈의 이름꼴과 어형상 구별이 안 된다. 그러나 이 파생어들은 완전히 이름씨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통어상 입자말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기」 끝바꿈꼴에서 파생된 이름씨는 별로 있는 것 같지 않다. 「모삼기, 물보기」 따위 몇 말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도 끝바꿈꼴과의 구별은 그 통어상의 특색에서 찾을 것이다.

3. 「-아/어」 활용형에서 어찌씨로 파생된 것은 꽤 많다. 「다(皆), 모다(皆), 비르서(始), 가시야(更), 마초아(適)」 따위 상당한 수효의 어찌씨를 들 수 있다. 이 파생어찌씨와, 풀이씨의 끝바꿈꼴과의 구별도, 이름꼴의 경우처럼, 그 통어적 특색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입자말이나 부림말이나 어찌말 따위를 취할 수 없다. 한 예로써 설명하면,

비르서 어루 무를 여희오=始可離群 (영가, 하:112)

「비르서」는 ‘누가’, ‘어디에서’ 「비르」한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그리고 어떤 파생어찌씨는, 끝바꿈꼴과 그 외형을 달리하여, 쉽사리 파생어임이 분별되는 것도 있다.

滅와 생과 다 다아=滅生俱盡(능엄 4:69)

앞의 「다」는 파생어찌씨이오, 뒤의 「다아」는 풀이씨 「다으-」의 끝바꿈꼴이다.

4. 「-도록」은 「미침」을 나타내는 씨끝인데, 이것이 풀이씨의 줄기에 붙지 않고, 어찌씨 「이리」(이렇게)에 붙을 때는 파생가지로 바뀐다.

涅槃애 드로려 하시니 이리도록 설볼씨 (월석 21:201)

5. 그리고,

世尊이 또 文殊師利드려 니르샤터 (석보 9:11)

阿鼻地獄브터 有頂天에 니그시니 (석보 13:16-7)

에 있어서의 토씨 「-드려, -브터」는 풀이씨 「드리-, 블-」의 끝바꿈꼴에서 온 것인데, 이 경우에 씨끝 「-어」는 풀이씨를 토씨로 파생하는 가지의 구실을 하고 있다.

6. 「그럴씨, 그러면, 그러나」 따위 파생이음씨(접속사)에 있어서의 「-르씨, -면, -나」도 역시 한가지다. (풀이씨를 이음씨로 만드는 가지이다.)



7. 토씨가 파생가지로 되는 일도 있다. 「진실로, 간대로, 날로」 따위 「-로」를 접미한 파생어찌씨는, 그 뿌리가 이름씨이지만, 통어상으로 꾸밈말을 취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새로, 훗날로」의 「-로」가 파생가지인 것은, 그 뿌리가 순수한 이름씨가 아닌 데서 명확하다.

8. 어찌씨에 붙어서 여운(餘韻)을 남기게 하는 「-곰」은 「다시곰, 시러곰, 이리곰, 뼈곰」 따위 말에 나타나는데, 다음 용법을 참조하면 이것은 파생가지로 보아야 할지, 토씨로 보아야 할지, 잠깐 망설이게 된다.

눌 보리라 우리골 온다 (월석 8:87)  
이 「우리」는 어찌씨로 파생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울-」 동사의 끝바꿈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곰」은 토씨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제여곰」의 「제여-」는 가상적이오 불구적인 뿌리<sup>(4)</sup>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곰」은 파생가지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프리프리에」의 「-에」는 역시 가상적이오 불구적인 뿌리에 붙어서 파생가지이다.

#### 4) 파생어찌씨의 통어적 기능에 관한 문제

1. 현대 국어에 있어서, 그림씨에 「-이」가 접미한 「높이, 길이, 멀리」 따위는 완전히 파생어찌씨로 보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나, “돈 없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어서의 「없이」는, 그것이 임자말을 취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단순한 어찌씨로는 보기 어렵고, 이것은 오히려 풀이씨의 끝바꿈꼴에 가깝다. 그러므로 최 현배 님은 이 경우의 「-이」는 어찌꼴 씨꼴으로 보고 있다.<sup>(5)</sup>

(4) 가상적 형태소란, 한 형태소로서 분리될 수 있을지 아직 의심스러운 것을 가리킴이다. 따라서 가상적이오 불구적인 뿌리란, 뿌리의 자리에 나타난 형태소(?)가 오직 하나의 가지에만 연결될 수 있고, 아직 하나의 뿌리로 성립될 것인지 의심스런 것을 말함이다.

(5) 우리말본 〈고친판〉 p.503에서는 “이 물을, 차기가 어름과 같이 식혀라”의 「같이」는 어찌꼴로 보고, “같이 놀던 동무”의 「같이」는 어찌씨로, 그리고 “어름같이 찬 물”은 토씨로 보고 있다.

2. 파생어찌씨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정은 15세기에서도 한가지다.

돈 업시 (두언 20:37)

처섬 들적부터 百千劫에 니르리 (월석 21:46)

이 용례에 나타나는 「업시」는 임자말 「돈」을 취하고 있는 점, 순수한 어찌씨와는 다르고, 「니르리」도 「百千劫에」란 위치말을 취하고 있는 점,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만은, 다른 파생어찌씨와 구별하여 굴곡법(활용법)으로 처리하고 싶어진다.

3. 그러나 우리는, 굴곡의 가지의, 뿌리에 연결됨에 있어서의 그 일률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가치가, 위의 경우와 같이, 굴곡적으로 쓰이는 예는 드물다. 그리고 분명히 같은 형태소를, 한편에서는 파생가지로 보고, 한편에서는, 이 드문 예를 의거해서, 굴곡가지로 보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우의 「-이」는 모두 파생가지로 보고, 위의 용례에 나타나는 「업시」, 「니르리」는 파생어찌씨의 한 예외적인 용법으로 다루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파생어찌씨의 풀이말다운 용법의 특례는, 그것이 「없-」, 「니를-」이란 풀이씨에서 파생되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4. 이와 꼭 같은 예는 몇가지 더 들 수 있다.

龍을 조초 잇도다 (두언 16:31)

「조초」는 「쫓-」에서 파생된 어찌씨이다. 그런데 이 말은 「龍을」이란 부림말을 취하고 있다. (이 부림말은 「잇도다」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한 예로써 「-오」를 씨꼴(굴곡의 가지)으로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조초」는 어디까지나 파생어찌씨이며, 그것이 부림말을 취하는 통어적 특례가 존재하는 것은 이 말이 풀이씨에서 파생되어서 아직 풀이씨의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 합성법과 파생법의 관계

우리는 앞에서, 파생가지와 굴곡가지의 구별이 똑똑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조어법(파생법)과 굴곡법의 한계가 분명하지 못한 일이 있음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뿌리와 파생가지의 구분이 똑똑하지 못하여, 합성법과 파생법의 한계가 모호하게 되는 일이 있음을 살피기로 한다.

### 1) 매김씨와 앞가지

1. 앞가지와 매김씨의 구분은, 대체로 그 뒷말과의 연결이 자유로운지 제한되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뒤에 오는 이름씨와의 연결이 자유로워서, 그 수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매김씨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오는 말의 수가 극도로 제한되어서, 완전한 불구적 형태소이거나, 그에 가까운 것은 앞가지가 된다. 가지는 완전한 불구적 형태소이거나, 그에 가까운 정도로 다른 형태소와의 연결이 제한되는 것이 큰 특색이기 때문이다(→p.74 이하).

2. 그러나 이러한 기준도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 연결의 제한성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못된다. 연결의 절대적인 자유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5세기 말의 「외」(孤)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외섬, 외팍, 외뵤로」 등의 용법으로 보면, 「외」는 앞가지처럼 보인다. (사실상 현대말의 사전에서는 「외-」는 앞가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형태소는 「외롭다」에서는 틀림없는 뿌리이다. 한 형태소를 앞가지로 보았다가 뿌리로 보았다가 합은 좋은 처리방법이 못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가지 「외」를 다 같이 뿌리로 보는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외」는 매김씨로 봄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외섬」의 「외」는

매김씨로서 뒤의 이름씨와 합성어를 만들고, 「외뵤로」는 뒤의 어찌씨와 역시 합성어찌씨를 만들고 있다. (→p. 99, p. 116)

### 2) 가지와 구별하기 어려운 뿌리

1. 「헤더르다, 헤든다, 헤든니다, 헤조치다」 등등의 말에서는, 그 뜻의 중점이 「더르-, 든-, 든니-, 조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은 파생어이며 「헤-」는 앞가지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 「헤-」를 가진 말에, 「헤여디다, 헤잇다, 헤티다」 따위가 있는데, 여기 「-잇-, -티-」 따위는 분명한 뒷가지이므로, 「헤-」는 뿌리로 보아지며, 분명히 「披」의 뜻이 간취된다. 그러므로 「헤더르다」 따위에 있어서의 「헤-」도 뿌리로 보고, 「헤더르다」 따위를 모두 합성어로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헤더르다」의 「헤-」는 가지로 보고, 「헤티다」의 「헤-」는 뿌리로 본다고 해서 아주 설명이 안될 것은 아니지만, 한 형태소를 두고 때로는 뿌리로 때로는 가지로 보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피함이 좋다.

2. 「다쫓다, 다더르다」 따위도 그 의미의 중점은 「쫓-, 더르-」에 있고 「다-」는 가지처럼 보이나, 「다왈다, 다티다, 다잇다」에서는 분명한 가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뿌리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다쫓다, 다더르다」의 「다-」도 뿌리로 보고, 이 말들을 합성어로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합성어는 첫 성분이 독립된 풀이씨의 줄기로 쓰이지 못하는 불구적 뿌리란 점으로, 전형적인 비통어적 합성어인 「딛먹다, 죽살다」 따위와는 다르다.

### 3) 뿌리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지

1. 가지에 가까운 형태소를 뿌리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뿌리에 가까운 것을 가지로 보는 일도 있다.

2. 「내혀다, 기우리혀다, 드위혀다, 가도혀다」 따위 말의 「-혀-, -혀-」

2. 합성법과 파생법의 관계



는 풀이씨의 줄기 「해(해)-(引)」에서 온 분명한 가지이다. 그러나 「드리해다(入)」의 「-해-」는 풀이씨 줄기로서의 본래의 뜻이 꽤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합성어로 보아도 좋을 듯 하나, 다른, 이와 비슷한 유형에 속하는 말들에 있어서는 「-해(해)-」는 분명한 가지이므로, 「드리해다」도 역시 파생어로 보아진다.

3. 「긋든다(止), 맞든다(會), 세든다(覺)」 따위 말의 뒷가지 「-든-」은 원래 풀이씨의 줄기 「돈-」(走)에서 온 것이나, 이 말들에서는 분명한 가지로 되어 버렸다. 그러나 「숫든다, 넘든다」에서는 그 줄기로서의 본래의 뜻이 약간 느껴지며, 「낫든다(進), 나든다(出), 티든다(昇)」에서는 그것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낫든다, 나든다」등은 「돈-」을 뿌리로 보고, 합성어로 볼 수도 있겠으나, 「긋든다, 세든다」들과의 동형성을 살리기 위해서, 「낫든다」도 모두 파생어로 보기로 한다.

#### 4) 「하다」형 풀이씨는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1. 일반적으로 그러하지만, 여기에서도 15세기 국어를 서술함에 있어서 「~하다」형에 속하는 풀이씨는 모두 파생어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름씨나 어찌씨에 「~하다」가 붙은 말들은 모두 합성어에 가까운 것이다. 즉 「노릇하다, 지조하다, 말하다」 따위에 있어서는 「-하-」의 동작성(動作性)이 매우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합성어로 보는 편이 나을 것도 같고, 「이리하다, 잘하다」 따위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은, 역시 다른, 분명한 파생어, 「ㄴ독하다, 당당하다, 거머하다, 누러하다」 따위 말들과의 동형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2. 「다하다, 더하다」의 뿌리 「다-, 더-」는 「다오다, 더오다」의 활용형 「다아, 더어」에서 파생된 어찌씨이며, 이 경우의 「-하-」는 가지이나, 이와 비슷한 「-아/어 활용형+하다」의 「하다」는 독립된 움직임씨이다.

알피 들더 업서 하던 브들 牒하야 (능엄 2:56)

더욱 迷惑하야 답써 하노니=重增迷悶 (능엄 2:77)

내 諸佛 니르삼 ㄴ티 좇즈바 호리라 (석보 13:59)

世尊入 말을 듣좁고 도라보아 하니 제 몸이 고타 ㄴ외니(월석 2:48, 기 29)

제 모땃 고기를 바혀 내논드시 너겨 하며 (석보 9:12)

내 해여 호니 (석보 13:26)

善慧 듣좁고 깃거 하더시다 (월석 1:18)

제 즐겨 하며=自樂 (법화 2:118)

「깃거 하다, 즐겨 하다」 따위 말은, 현대말의 느낌으로 하면, 파생어로 보아질 듯도 하나, 그와 동형적인 「좇즈바 호리라」는 아무래도 두 낱말로 보아야 하며, 또 그와 동형적인,

오직 魔王곳 ... 시름하야 하더라 (월석 2:42-3)

의 「시름하야 하더라」도 두 낱말로 보아야 하므로, 「깃거 하다, 즐겨 하다」도 두 낱말로 보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한다.

① 시름하야 하더라

② 좇즈바 호리라

③ 깃거 하더시다

④ 다하다

에 있어서, ①~③는 「-아/어 활용형+하다」로 동형적이나, ④는 「파생어찌씨+하다」이어서 ①~③과는 그 유형을 달리한다. 그리하여 ①~③의 「하-」는 독립된 줄기로 보지마는, ④의 「하-」는 가지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④의 「하-」도 뿌리에 가까운 성질을 띠고 있음은 부인되지 않는다.

3. 「그속하다, ㄴ독하다, 당당하다」의 뿌리는 자립형식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말에 있어서의 「하-」는 분명한 가지이다. 그리고 「흔하다, 가죽하다, 장망하다」 따위 말의 「흔-, 가죽-, 장망-」 따위는, 위의 「그속-, ㄴ독-, 당당-」과는 달라서, 한 형태소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지 못



하다. 그러나 여러 동형적 낱말들과의 관련으로 해서 「흔-」 따위도 뿌리로 보아지며, 따라서 「흔하다」 따위의 「-ㅎ-」는 가지이다. (「흔-, 가죽-, 장망-」 따위는 가상적이오 불구적인 형태소이다.)

「만하다, 과하다」 따위의 「만-, 과-」도 뿌리로 가상되지 않는, 이것은 단순어로 보는 것이 나을 듯 하다.

### 3. 합성법

— 그 종류, 그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

#### 1) 합성어와 그 종류

1. 한 낱말 안에는 뿌리가 둘(또는 둘 이상)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합성어」라 한다. 현대말의 「산돼지, 국물, 눈물; 오가다, 오르내리다, 듣보다」 따위는 각각 한 낱말인데, 각 낱말은 그 가운데 둘의 뿌리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

2. 합성어 가운데는 뚜렷이 자립성을 가진 두개의 낱말(자립형식)이 겹쳐진 것이 있다. 즉 현대말의 「산-돼지, 눈-물」 따위는, 합성된 각 성분이 모두 뚜렷한 자립성을 가진 합성어이다. 이런 합성어는, 때로는 하나의 낱말인지, 두 낱말이 결합된 이은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일이 흔히 있기 때문에, 「통어적 합성어」(syntactic compound)라 불린다. 두 요소가, 통어론에서 다루는 두 자립형식의 통합과 같은 방법으로 결합된 합성어란 뜻이다.

3. 그러나 「오-가-(다), 오르-내리-(다)」에 있어서의 두 뿌리는 자립성을 가진 두 낱말이 겹쳐진 것은 아니다. 「오-», 「오르-」는 분명히 뿌리이기는 하되, 자립형식은 아니다. 이러한 합성어의 두 성분의 통합은 통어론에서 다루는 자립형식끼리의 결합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비

통어적 합성어」(asyntactic compound)라 불린다.

4. 합성어는 같은 뿌리를 겹쳐서 만드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반복(되풀이) 합성어」(repetitive compound)라 한다. <sup>(6)</sup>

#### 2) 통어적 합성법과 비통어적 합성법의 관계

##### (1) 풀이씨의 줄기와 파생어씨

1. 「어리미혹하다」는 풀이씨의 줄기가 합성된 비통어적 합성어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일은 아니다. 「어리-」는 파생어씨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끝없는 가지에 의한 어씨 파생법을 설명한 일이 있었는데(p.37 이하), 「어리미혹하다, 그르다, 나소견다」 따위의 첫 성분은 각각 풀이씨 「어리다, 그르다, 나소다」의 줄기에서 파생된 파생어씨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말들은 통어적 합성어가 된다. 또 그 첫 성분을 어씨로 보면, 이 말들을 합성어로 보지 않고 이은말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말들은 통어적 구성이 된다. 여기에, 통어적 구성——통어적 합성어——비통어적 합성어의 한계의 불분명한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좀처럼 합리적인 방법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주관적 판단이 개재될 여지가 있다.

2. 풀이씨의 줄기와, 끝없는 가지에 의한 파생어씨를 가름에는, 그것이 꾸미고 있는 풀이씨와 직접적으로만 연결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테면, 「물리그을다」에 있어서의 「물리」는, 그것이 꾸미고 있는 「그을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말은 비통어적 합성어이다.) 그러나,

바른 自性을 스뵈 아르사 = 直了自性 (월석, 서: 18)

(6) 합성어에 관해서는, 우선 다음 참조.

허 용: 언어학 개론, pp.185-7.



의 「바르」는 그렇지 못하여, 바로 꾸미고 있는 말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 점은 끝없는 가지에 의한 파생어찌꺼기와 줄기를 구별하는 데 한가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자료가 국한되어 있는 옛말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 점을 철저히 밝혀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 (2) 매인이름씨를 가진 합성어

1. 풀이씨의 매김꼴에 매인이름씨가 연결된 말, 「늘그니, 저르니, 드르리」의 「-이」는 그 자체로서는 자립할 수 없는 구속형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 말들은 비통어적 합성어가 된다.

2. 그러나 국어의 매인이름씨는, 그 형태론 상의 특질로 보나, 통어론 상의 기능으로 보나, 완전한 이름씨와 거의 같다. 즉 형태론 상의 특질로 보면, 토씨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완전한 이름씨와 같으며, 통어론 상의 기능으로 보면, 완전한 이름씨가 차지할 수 있는 월의 성분이 될 수 있고, 매김씨나, 풀이씨의 매김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완전한 이름씨와 한가지다. 이와같이 매인이름씨의 대부분은, 비록 구속형식이기는 하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문법 상의 특질로 본다면, 월 분석에 있어서는, 자립형식인 완전한 이름씨와 같이 다루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새 집」이나 「큰 집」이 통어적 구성이듯이, 「새 것」과 「큰 것」도 통어적 구성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매인이름씨는 순수한 구속형식과는 그 성질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인이름씨를 자립형식의 한가지로 보고서 「준자립형식」이라 부르기로 한다.

3. 매인이름씨를 이렇게 보고 나면, 매인이름씨를 가진 합성어 「늘그니, 드르리」들은 모두 통어적 합성어가 된다.

## (3) 합성 성분의 끝바꿈

1.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연결됨에 있어서 끝바꿈을 일으켜, 몇

가지 변이형태를 가지는 데 대해서는, 앞에서(p.33) 설명한 바인데, 합성어에 있어서는 물론 이러한 변이가 일어난다.

2. 「나들」(←날+들), 「벼들」(←별+들), 「시우대」(시울+대), 「화살」(←활+살), 「묵쇼」(←물+쇼) 따위가 그러한 예들인데, 「날」이 「나-」와 같은 자립할 수 없는 변이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나들」 따위는 비통어적 합성어로 볼 수도 있다. 통어적 합성어는 원칙적으로 둘의 자립형식의 결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그렇게 되면, 현대 국어의 「담뱃대」도 비통어적 합성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에 있어서는 「대」는 「-때」라는 자립할 수 없는 변이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대」가 「때」로 바뀌는 것은 반드시 앞에 다른 형태소가 올 때에 한하므로, 「-때」는 자립적이 아니다.) 그러나 「담뱃대」를 비통어적 합성어로는 볼 수 없다. 그것은, 「국물」의 첫 성분도 「궁-」으로 바뀌지마는, 이 말은 여전히 통어적 합성어임과 한가지다. 통어적 합성어란, 두 성분 형태소가 자립형식인 합성어를 가리키는 말이며, 따라서 그 한 성분이 자립할 수 없는 변이형태를 가지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자립형식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다.

4. 합성어의 성분은, 때로는 기본형태와 상당히 다른 변이형태를 가지는 일이 있다. 「가막가치」는 「가마괴」와 「가치」의 합성어인데, 한 성분이 한 음절을 완전히 잃었으며, 「어비아들」의 「어비」는 「아비」의 한 변이형태로 보아진다. 「식아비어미」는 「식아비」와 「식어미」의 합성이며, 「사나울」은 「사울」과 「나울」의 합성인데, 두번 되풀이되는 음절이 하나 줄어진 것이다.

매김씨의 「두서」는 분명히 「둘」과 「서」(三)의 합성이고, 「너덧」도 「너」(四)와 「닷」(五)의 합성인데, 「닷」이 「덧」으로 변한 것은 동화작용(同化作用)에 말미암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5. 이와같이, 합성어의 한 성분은, 상당한 정도로 기본형태에서 멀어지는 것이 많기는 하나, 그 형태소 자체가 자립형식이면, 모두 통어



적 합성어가 된다.

## 4. 합성어

합성어에는 통어적 합성어와 비통어적 합성어가 있는데, 그 품사는 합성어의 둘째 성분의 품사와 같아지는 것이 특색이다.

### 1) 통어적 합성어

두 자립형식의 결합으로 되어서, 통어론적 구성과 쉽사리 구별되기 어려운 합성어를 「통어적 합성어」라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말들에는 입자씨, 풀이씨, 매김씨, 어찌씨 등이 있는데, 그 품사는 대개 합성의 둘째 성분에 의해 결정된다.

#### (1) 입자씨

1. 합성된 입자씨는 그 합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다음 몇가지로 구별된다.

1. 이름씨+이름씨
2. 매김씨(꼴)+이름씨
3. 어찌씨+이름씨
4. 셈씨+이름씨
5. 셈씨+셈씨
6. 셈씨+매김꼴

2. 이 합성입자씨의 성분 분석은 직접성분을 말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은 다시 더 작은 성분으로 쪼개질 수 있다. 이를테면 「악대한쇼」와 같은 말은 제일 차적(직접성분)으로는 「악대」와 「한쇼」로 쪼개지므로 「이름씨+이름씨」의 유형에 속하지마는, 그 둘째 성분의 「한쇼」는 다시 「매김꼴+이름씨」의 부류에 들어

가는 합성입자씨이다.

#### (1-1) 이름씨+이름씨

3. 이름씨와 이름씨가 합성한 합성어는, 그 두 성분 사이의 관련에 의해서 다음의 몇가지 종류로 다시 나누어진다.

- (가) 대등적인 것
- (나) 수식적인 것
- (다) 파생적인 것

#### (가) 대등적인 합성이름씨

4. 이것은 두 성분 사이에 「-과」를 축뜻으로 가지고 있음이 특색이다.

종-오줌 : 糞尿는 종오조미라 (월석 21:77)

밤-낮(낮-밤) : 밤나재 精進하야=晝夜精進(금강 83)

낮바물=日夜(두언 15:3)

손-발 : 손바리 (월석 2:40)

손-가마 : 鑊은 손가마 곧 혼 거시라 (월석 21:45)

어시-아들 : 우리 어시아드리 외롭고 입게 드외야 (석보 6:5)

「어시」는 「어머니」의 뜻이나, 이 말은 바로 「부모」의 뜻으로도 쓰인다.

네 雪山에 혼 鸚鵡 | 이쇼티 어시 다 눈 멀어든(월석 2:12)

<참고>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악장가사, 사모곡)

옷-마외 : 그티의 옷마외 호오진돌 아노라=覺君衣裳單 (두언 22:56)

옷-밥 : 사룻 옷바비사 (월석 10:28)

히-들 : 日月은 히드리라 (석보 9:4)

5. 이상은 합성어의 두 성분이 아무런 변이를 입지 않은 것이나, 다음은 변이를 입은 말들이다.

가막가치 : ☆南녀그로 느는 가막가치 잇더니 =南飛有鳥鵲(두언 중간 12:3)

「가막-」은 「가마괴」의 변이형이다.

다섯 가마괴 디고 (용 86장)

## 4. 합성어



날(나)-들 : 날들이 츠거늘 (천강곡 상, 기 17)

나드리 길어다=日月長 (두언 15:23)

막(←말)-쇼 : 막쇼 머기는 아히=牧童 (두언 7:18)

벼(←별)-들 : 벼드리 虛空에 들인듯하야 (월석 8:7)

시우(←시울)-대 : 樂音은 봄 티는 막디며 시우대를 니르코=樂音謂鼓  
節絃管 (범화 1:49)

안-팻기(안ㅎ+팻기) : 안팻기 스몯 물가 (석보 9:4)

어비(←아비)-아들 : 어비아드리 사르시리잇가 (용 52장)

어버시 : 어버시 孝養하며 (월석 2:63)

「어비(←아비)」와 「어시」의 합성.

활(화)-살 : 甲 니브시고 활살 츠시고 (월석 10:27),

화사리 江海에 어드워셔=弧矢暗江海 (두언 6:39)

아라(←아래)-우ㅎ : 몯골 아라우히 썩디 아니하샤 (월석 2:41)

6. 합성어의 두 성분의 같은 자리에 같은 음절이 있을 때는, 그것을  
되풀이하기를 피하는 일도 있다.

사을+나을 → 사나을 : 사나을 머구릴 뷔여 오니 (월석 1:45)

식아비+식어미 → 식아비어미 : 비록 식아비어미 섬골 주리 업스나  
=雖無舅姑事 (두언 11:24) <비교> 식어미 식아비=姑嫜(두언 8:67)

(나) 수식적인 합성이름씨

7. 앞 성분이 뒷 성분에 종속되어서 그것을 어떤 의미로 꾸미는 합성  
이름씨는 그 수가 매우 많다.

앞성분이 뒷성분을 꾸미는 그 속뜻은 매우 다기적이다. 이를테면 「갓옷」은  
「가죽으로 만든 옷」이요, 「꽃비」는 「꽃과 같이 내리는 비」, 「겨집종」은 「종 중  
의 겨집」 등등과 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성어는 그 꾸밈의 속뜻에 의해 다사  
세분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뫼-골 : 뫼골애 苦行하샤 (천강곡 상, 기 141)

뫼-글 : 노푼 뫼그테 올라 (석보 11:29)

뫼-기슭 : ☆蒼崖는 프른 뫼기슬기오 (두언 중간 1:3)

뫼-보오리 : 그 뫼보오리 쇠머리 ㄴ틀썩 (월석 1:27)

뫼-부리 : 노푼 뫼부리=崇岡(두언 7:23)

뫼-쌍 : ☆뫼쌍자=柘(자회, 상:10)

뫼-수플 : 뫼수프를 스랑하야 (석보 13:22)

뫼-언덕 : ☆뫼언덕애=崖(자회, 상:3)

물-구비 : ☆물구비에=泖(자회, 하:35)

물-언덕 : ☆물언덕안=岸(자회, 상:3)

몯-결 : 바궤 몯결 소리 (석보 13:9)

「몯결」은 자립적으로 쓰인다.

물와 결왜=水波(영가, 상:90)

몯-골 : ☆다긔히를 몯고래 브리여쇼물 기리 슬노라=永痛...五年委溝谿  
(두언 중간 4:12)

몯-ㄹ : 하오사 몯ㄹ새 잇다니 (월석 10:24)

몯-뫼 : 雙 몯들곤=雙灘(두언 7:2)

「ㄹ」 다음에 사잇소리가 올 때는, 「ㄹ」이 줄어드는 일이 흔히 있다.

☆몯뫼계=灘(자회, 상:17)

몯-새 : 鵲은 몯새라 (능엄 5:25)

몯-중심 : 몯중심이 다 기피 들씨라 (월석 2:38)

므(←물)-쇼 : ☆므쇼셔=犀(자회, 상:18)

8. 이러한 예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출처를 밝히는 번잡을 피  
하고, 합성어만 순서 없이 더 들어 보인다.

뫼시울, 문팻, 문돌, 갓뫼, 갓옷, 갓썩, 쇠뫼, 돌고, 돌비늘, 돌블,  
흙무디, 흙무적, 흙비, 흙손, 삼신, 삼대, 꽃비, 꽃부리, 꽃봉우리,  
꽃고의, 겨집종, 계집동세, 겨집심방, 남진종, 남진동세, 男人심방,  
악대돌, 악대물, 안넝, 안뜰, 안집, 밧집, 살짓, 샅오너, 살대, 살뫼,  
살글, 입거웃, 입궐(궐), 입시울, 입아피, 말궐, 눈섬, 눈시울, 눈곰,



늪물, 늪부터, 늪즈스, 불쇠, 손가락, 손목, 손뿔, 손톱, 솟바당, 발  
 툽(바툽), 𪚩(밧)바당, 발가락, 𪚩(밧)등, 𪚩귀머리, 발목, 𪚩물, 𪚩  
 𪚩르, 집기슭, 옷기슭, 거죽말, 거죽일, 길거리, 𪚩접질, 𪚩고도리,  
 𪚩고리, 𪚩별, 𪚩(구)밀, 옷깃, 𪚩르비(←비), 𪚩청, 𪚩줄, 𪚩대, 𪚩  
 대, 네뉘, 누비중, 누비웃, 𪚩대야, 𪚩소, 𪚩뚝, 드레줄, 𪚩드리, 𪚩  
 머리, 먹갈, 먹고조, 모밀, 모시뵈, 목구무, 목숨, 𪚩무적, 민집, 민  
 얼굴, 집𪚩르, 바굴에, 방앗고, 𪚩틀, 𪚩물, 𪚩을히, 𪚩더집, 𪚩암당  
 어, 𪚩대, 산뵈즈, 산갈, 술윗살, 솟방울, 𪚩방울, 쇠손, 술민, 술집,  
 술위통, 시르민, 𪚩눈, 𪚩뵈리, 스매𪚩르, 술슴, 엄지가락, 솟잔, 𪚩  
 어미, 𪚩粥, 즈룽길, 𪚩물, 𪚩뵈, 통발, 프서리(𪚩서리, 𪚩서리, 프  
 서리), 𪚩(𪚩)더, 하늘드래, 회로리브름, 𪚩뵈야기, 엄쇼, 도톨밤(왓),  
 𪚩동새, 할미새, 버듿꽃(버듿꽃), 𪚩나모, 실나모, 소나모, 𪚩나모,  
 𪚩나모, 피썸, 갈공막대, 심통, 𪚩뵈, 물엿무디, 𪚩무디, 𪚩무디, 피  
 𪚩, 조뵈, 대뵈, 오래문(門子), 글초, 𪚩뵈, 𪚩뵈들, 드림쇠, 불뵈들  
 𪚩, 갈잡개, 옷머리, 옷웃, 𪚩뵈에, 𪚩궂, 집터, 술윗바회, 𪚩바회,  
 𪚩진(소진), 𪚩어미, 니썸길, 비술ㅎ(←비+술ㅎ)<sup>(7)</sup>

9. 이름씨와 이름씨의 합성어이기는 하나, 앞의 성분이 토씨를 취한  
 것도 보인다.

쇠-젓 : 쇠저즈로 (능엄 3:26)

▽「쇠」는 「쇼」(牛)에 매김자리 토씨 「-」가 붙은 풀이다.

(7) 다음의 말들은, 그 한 성분의 말뫼이 분명하지 않으나, 합성어 같아 보인  
 다.(— 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불무궂, 말뵈(말뵈), 살뵈, 위안ㅎ, 𪚩어월, 𪚩내, 𪚩돌, 𪚩대(사궂대)  
 산막, 애막, 𪚩뵈록, 반대줄, 물왕하, 𪚩궂어미, 돌썸, 𪚩발치, 나뵈궂  
 𪚩지궂, 𪚩뵈음, 가막조개, 𪚩뵈, 𪚩밀, 𪚩궂, 𪚩궂물, 𪚩니물, 문선,  
 문전, 𪚩만울, 불궂, 솟궂, 𪚩궂, 𪚩궂나모, 𪚩나모.

이러한 말들은, 우선 여기 들어 두고 뒷날의 연구를 기다리기로 하겠는  
 데, 말뫼이 분명하지 않은 성분이 끝내 이름씨로서 밝혀지지 않을 때는,  
 이 성분은 가지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말들은 파생어에 들게 될  
 것이다.

불뵈-궂회 : 𪚩은 불뵈궂회라 (영가, 하:45)

궂엿-궂 : ☆궂엿궂이=𪚩, 𪚩궂궂당=𪚩(자회, 중:24)

▽「궂」은 「-엿」의, 「궂」은 「궂회」의 줄어진 풀이다.

<참조> ☆호뵈 𪚩궂궂회 (박통사 언해, 상:20)

10. 다음 말들은 직접성분의 한쪽이 다시 분석이 되는 예들이다.(이러  
 한 말도 그 각 성분의 됴뵈이로 다시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거  
 기까지 세분하지 않는다.)

악대-한쇼 : ☆악대 건=𪚩(자회, 하:7)/☆악대 한쇼=𪚩牛(자회, 하:7)

▽「한쇼」는 다시 분석되어, 「매김궂+이름씨」 유형에 드는 합성어가 된다.

손발-가락 : 손발가락조 (월석 18:45)

▽대등적으로 합성된 「손발」이, 「가락」에 종속적으로 합성되어 있다.

#### (다) 파생적인 합성이름씨

11. 한쪽 성분이 가지에 가까우나, 가지가 아니라 이름씨인 것이 있다.

궂장-바치 : ☆궂장바치궂=工 (자회, 중:3)

노궂-바치 : ☆노궂바치궂=𪚩, 노궂바치우=𪚩(자회, 중:3)

홍궂-바지 : 𪚩궂는 홍궂바지오 (월석 10:21)

성냥-바지 : 네 百姓은 ... 성냥바지와 (능엄 3:88)

▽「바지」와 「바치」는 같은 말일지며, 뒷가지와 같으나, 이것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었던 이름씨이다.

匠은 바지라 (법화, 서:21)

또 「바지」는 홀소리 사이에서 「바지」로 변동하는 일도 있다.

네 내 옷 𪚩고 내 宮殿에 드려 내 𪚩류바지 𪚩리고 (석보 24:28)

뵈-아들 : 내 부궂 뵈아드리스오니 (법화 1:169)

뵈-며느리 : 뵈며느리=𪚩婦 (내훈 1:56)

뵈-오라비 : 뵈오라비 客卿=母兄客卿(내훈, 2상:40)

뵈-누의 : 𪚩는 뵈누의오 (월석 21:162)

뵈-아자비 : 鄭氏의 뵈아자의 셔울 글워리 오니=鄭氏伯父京書至(두연  
 8:68-9)

#### 4. 합성어







요-스시 : 向은 아니 오란 요스시라 (월석, 서 : 26)

요-주숨 : 요주숨=近者 (두언 25 : 9)

이 말은 「요조숨, 요조숨, 요조숨」으로 표기된 데도 있는데, 「조숨, 조숨, 조숨, 주숨」들은 「즈숨」의 변이형이다.

요조숨 아자비 마손 사루물 보니=比看伯叔四十人 (두언 8 : 16)

요조숨 누네 보니=頃來目擊 (두언 25 : 47)

요조숨브터 오매=從來 (두언 21 : 25)

孟季入 즈스메 겨실씨=在孟季之間 (영가, 하 : 46)

더-즈슴, 더-주숨 : 더즈슴뻬 도흔 政事를 세니=頃來樹嘉政 (두언 8 : 3-4), 더주숨뻬브터=向來 (두언 6 : 31)

#### 14. <참고>

이어긔 : 天女 | 이어긔 앳더니 (월석 2 : 27)

그어긔 : 그어긔 쇠 하아 (월석 1 : 24)

더어긔 : 더어긔와 이어긔=彼此 (두언 11 : 16)

이 세 말은 각각

이  
그  
더 } +혁(←\*역(?))+의

로 분석될듯 한데, 「\*혁」은 자리를 나타내는 매인이름씨로 가상되며, 「-의」는 자리를 나타내는 토씨이다.

이렇게 보면, 이 말들의 「-의」는 일종의 가지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더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 (나) 풀이씨의 매김꼴과의 합성

15. 이러한 유형은 상당히 많다.

하나비 : 하나빌 미드니잇가 (용 125장)

한-물 : 한므리=多水 (두언 15 : 13), ☆한물딜탕=漲(자회, 하 : 35)

한-비 : 한비=大雨(용 67장, 68장)

「한」은 「하다」(多)의 매김꼴임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하다」는 ‘많다’의 뜻인데, 그 매김꼴인 「한」은 ‘큰’의 뜻으로도 쓰이는 것

이 주목된다. 그리고 「항것」의 「항-」은 앞가지이나, 「한」에서 전화한 것 일지며, 「할미」의 「할-」도 이와 유래를 같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어미>\*한미>할미

한-숨(숨) : 시름하야 한숨 디난 소리(석보 19 : 14)

嗚呼는 한숨 더토흔 겨치라 (월석, 서 : 23)

「-숨」은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숨」의 변이형이다.

한-쇼 : 싸호는 한쇼 (용 87장)

한-새 : ☆한새관=鸛(자회, 상 : 15)

한-삼(삼) : ☆한삼률=蓴(자회, 상 : 8)

蓴草蔓生有刺 한삼너출 (사성통해, 상 : 70 「蓴」 조)

간-밤 : ☆간바미 도죽 왓던주를=夜來寇(두언 중간 1 : 50)

젠-물 : ☆젠물찬=驢(자회, 하 : 10)

즌-퍼리 : ☆즌퍼리져=沮(자회, 상 : 5)

흔-머리 : 흔는 흔머리니 (월석 8 : 33)

「흔」은 「흔-」의 「-오/우-」를 취한 매김꼴이다.

흔는 머리 흔라(능엄 7 : 21)

이 매김꼴이 「-오/우-」를 취한 것은 이 말의 꾸밈을 받는 「머리」가, 속뜻으로는 「흔-」의 부림말이 되기 때문이다.

玉으로 흔 우므레=玉璫 (두언 15 : 21)

<주> 흔는 우물 흔는 뵈이니...

거문-고 : 조흔 거문고=淨琴(두언 15 : 55)

늙-중성 : 禽은 늙중성이라 (월석 21 : 113)

늘-살 : 箭은 늘사리라 (월석 21 : 74)

열-쇠 : 이논 ...差別智慧를 열 열쇠라 흔니=開差別智底鑰匙(몽산 53)

즈물-쇠 : 門入 즈물쇠 여로물 듣고=聽金鑰 (두언 6 : 14)

들-그(으)물 : ☆俗稱打扮罽 들그물 티다 (자회, 중 : 17, “罽” 주), 今俗 打扮 들으물 (사성통해, 하 : 60)

들-보 : 俗呼過樑 들보 (자회, 중 : 6)

밀-술위 : ☆밀술위장=韁 <주>中施一輪一人所推俗呼韁軸(자회, 중 : 26)



밀-돌 : ☆밀돌아=砥, 밀돌넌=碾(자회, 중 : 11)

밀-물 : 밀믈 마<sub>ㅁ</sub>시니 (용 68장),

☆밀물도=潮, 밀물석=汐 (자회, 상 : 5)

날-물 : 날믈 의오시니 (용 68장)

울-고도리 : ☆울고도리호=臍(자회, 중 : 29)

<참조> 俗呼響髀頭 (같은 자리)

늘그니<sup>(10)</sup> : 두 늘그니 骨髓=二老骨髓 (몽산 32)

저므니 : 열우니며 저므니 이 經 듣고 (석보 19:1)

드르리 : 그 드르리=其聽者 (능엄 9:94)

현-디 : 현디=凍破瘡 (구급방, 상 : 7)

달-엇 : 陶師는 달엇 굽는 사르미라 (월석 2:9)

▽「디-」는 ‘鑄’의 뜻이며, 「-엇」은 「것」의 변이형일 것이다.

陽燧는 구리로 디여 명<sub>ㅁ</sub>느니=陽燧鑄銅爲之 (능엄 3:74)

<참조> ☆달거스로 쓰시리=用瓦器者 (정속언해 25)

16. 다음 말들은 합성 성분의 한쪽이 다시 쪼개진다.

한-아바님 : 내 한아바님 棺을 메스바지이다 (월석 10:10)

▽「아바님」은 「\*아바-」와 「-님」으로 쪼개진다.

한-어버이 : ☆한어버이=祖父母 (속삼강행실도, 열녀 17)

▽「어버이(<어버시>)」는 대등적 합성어.

### (1-3) 어찌씨 + 이름씨

17. 어찌씨가 이름씨를 꾸밀 수는 없겠으나, 그 사이에 사잇소리를 두

(10) 다음말들도 이 유형에 들것 같다.

자본것 : 짜해 자본것 시루미 (월석 1:38)

<참조> 자본 이리 無常하야 (석보 6:11)

「자본」은 풀이씨의 매김꼴 같아 보이나, 그 말미는 분명하지 않다.

가불(은)터 : 깊 가불터 (월석 14:80)

中은 가온터라 (훈, 언해 9)

「가불-」의 말미도 분명하지 않으나, 풀이씨의 매김꼴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앞가지로 처리한다. →p. 143)

어서 매김씨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호오삿말 : 호오삿말=獨言 (능엄 9:118)

▽「호오아」는 어찌씨로 쓰인다.

호<sub>ㅁ</sub>삿 나사가샤 (용 35장)

호<sub>ㅁ</sub>아 안자 잇더시니 (월석 1:6)

### (1-4) 셈씨 + 이름씨

18. 셈을 나타내는 말은 매김말로만 쓰이는 것도 셈씨로 본다

훈-적 : 그 金이 훈적 純<sub>ㅁ</sub>면=其金一純 (능엄 4:37)

▽이 말은 ‘때’를 나타내는 매임이름씨의 「적」으로 생각된다.

훈-가지 : 同은 훈가지라 (훈, 언해 12)

훈-더 : 부테 ... 굴근 比丘 八千人과 훈더 잇더시니 (석보 9:1)

훈-뻘 : 훈뻘 다 (석보 19:4)

▽「뻘」은 「쁘」와 토씨 「-의」의 융합된 꼴이다.

훈<sub>ㅁ</sub> : 훈<sub>ㅁ</sub>고론 깃그시고 훈<sub>ㅁ</sub>고론 두리여 훈<sub>ㅁ</sub>더시다 (월석 2:43-4)

▽「훈<sub>ㅁ</sub>」의, 겹친 닿소리 준 꼴이다. (동음생략)

▽「훈」은 매김씨로 보는 것이 보통이나 이 책에서는 셈씨 「하나」의 형태적 변이형태로 보기로 한다. (→pp. 270-1)

### (1-5) 셈씨 + 셈씨

19. 셈을 나타내는 말로서 매김씨처럼 쓰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꼴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임자씨로 쓰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자어는 죄다 그러하다), 매김씨처럼 쓰이는 것도 모두 셈씨로 다루기로 한다. (→p. 271)

훈-두 : 훈두 곳 아니시니 (용 114장)

두-서 : 두서 사름 (월석 7:16)

▽두개의 셈씨 「두」와 「서」의 합성인데, 「서」의 ㅅ은 올림소리 사이에서 올림소리가 된다.



두 갈히 (용 36장) / 선 되 (월석 10:119)  
 켜씨의 「서」는 뒤에 오는 이름씨에 따라 「석」으로 변이함은 현대말의 경  
 우와 한가지이나, 「\*두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석 드리 다으거늘 (월석 21:200)

두서-열 : 두서열 거르플 거리=行數十步(몽산 3)  
 ▽합성어 「두서」에 다시 「열」이 합성된 결합성어이다.

서-너 : 서너헛 스시에 큰 나라히 드외어늘 (월석 2:7)  
 ▽「서」와 「너」의 합성인데, 「너」는 「넉」으로 변이하나, 「\*서넉」은 나타  
 나지 않는다.

호들 넉들 (석보 19:24)  
 너-덧 : 너덧 지비로다=四五家(두언 15:28)  
 ▽「五」의 켜씨는 「-덧」이 아니라, 「닷」이다.  
 닷말=五斗 (두언 15:41)  
 「\*너닷」이 되지 않고, 「너덧」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화작용(모음조화)의  
 탓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엿 : 내 다엿 버늘 受호니 (남명, 상:42)  
 여-닐굽 : 나히 ... 열 여닐구비니=年...十六七 (杜 8:30)  
 ▽「엿」이 「여-」로 변이함은, 「닷」이 「다-」로 변이함과 한가지다.  
 닐-여들 : 禽獸 | 호마 열헤 닐여들비 주그니=禽獸已斃十七八(두언 중  
 간 5:49)  
 열-아홉 : 나히 열 열아호비러라=十七八(두언 8:55),  
 江村애 여다홉 지비로다=江村八九家(두언 7:5)  
 ▽「여들」이 「열-」으로 변이한다.

20. 켜씨 「스플, 설흔, 마순...」 따위는 대개 무연적(無緣的)이어서 형  
 태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으나, 「여원」만은 「열」과 「원」의 합성으로 보  
 아진다.

이제 여원니오=于今六十(능엄 2:6)  
 부텃 나히 쉬니러시니 (월석 8:103)  
 다만 「여원」의 뒷성분이 「원」과 다소 다른 것이 난점이나, 이 정도의

변이는 허용될 것이다.

### (1-6) 켜씨 + 매김꼴

21. 합성어의 품사는 그 둘째 성분의 품사와 일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예는 그 점 특이하다.

22. 수를 나타내는 켜씨는 「나몬」(餘)과 합성된다. (→p.115)  
 여-나몬 : ☆그를 보내요마로브터 호마 여나몬 히오=自枉詩已十餘年  
 (두언 중간 10:5)

▽「열」의 /ㄹ/이 /ㄴ/ 위에서 줄어진다.  
 스프-나몬 : ☆스프나몬 히 드외여 가느니=向二紀 (두언 중간 2:54)  
 ▽「스플」→「스프-」의 변동은 「열」→「여-」의 경우와 같다.  
 설흔-나몬, 설호-나몬 : 설흔나몬 히=三十餘歲(육조, 서:7),

☆설호나몬 히=三十載 (두언 중간 19:2)  
 마순-나몬 : 나순나몬 히=四十餘年 (법화 5:65)  
 쉬-나몬 : 出家 아니호 道士 | 쉬나몬니러라 (월석 2:77)

▽「\*원나몬, \*마순나몬, 설흔나몬」의 /ㄴ/이 하나 줄어진 것은 동음생  
 략(同音省略)이다.  
 이 말들은 대개 매김말로 쓰이고 있으므로, 매김씨로 보는 것이 나을듯  
 도 하나, 끝의 「쉬나몬니러라」의 예로 미루어 보면, 다른 말들도 모두 이  
 렇게 쓰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모두 임자씨로 보기로 한다.

### (2) 풀이씨

1. 합성 풀이씨도, 그 합성 성분의 품사 부류로 보아 다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풀이씨 + 풀이씨
2. 어찌씨 + 풀이씨
3. 이름씨 + 풀이씨
4. 합성어



## (2-1) 풀이씨 + 풀이씨

2. 앞의 풀이씨는 모두 「-아/어」 활용형을 취한다.

[~뉘다]

차(←츠)-뉘다 : 날들이 츠거늘 (월석 2:27), 보빅엿 帳이 王宮을 다  
두프며 (월석 2:32) / 奔茶利花 | 물 우희 차두퍼 잇느니라 (월석  
1:23)

퍼(←프(?))-뉘다 : 이운 남지 고지 프며 (월석 2:31) / 싸히 즐거늘...  
머리를 퍼두퍼시닐 (월석 1:16)

▽「퍼뉘다」의 「퍼」가 「프-」(開)의 활용형인지는 다소 의문이 없지 않으나,  
「퍼디다」(뒤에 나옴)의 「퍼」는 「프-」의 활용형임이 분명한듯 하니, 「퍼뉘  
다」도 「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다]

나사(→낫)-가다 : 오직 낫고 물롬 업수미=唯進無退(능엄 8:18) / 訶  
불사 나사가샤=獨詣(용 35장)

도라(←돌)-가다 : 도즈기 도라가니 (용 33장)

디나(아)-가다 : 도즈기 알폴 디나샤(용 60장) / 精舍入 겨득로 다나  
가니 (월석 1:6), 디나아가니 (월석 1:2)

아사(→앗)-가다 : ☆孟冬애 비야호로 길힐 아아=孟多方首路(주: 首는  
向也)라, 두언 중간 19:29) / 무퇴 올라 將次入 길힐 아사가느니=  
登陸將首途(두언 8:53)

[~오다]

나(아)-오다 : 그 法이 이에 나오리로소이다(월석 2:49), 나아오리잇  
가(용 62장)

나사(→낫)-오다 : 나사오던텐 목숨 기트리잇가(용 51장)

도라-오다 : 나라해 도라오시고 (용 24장)

디나-오다 : ☆이는 디나오느디 艱苦를 니르다 (두언 중간 1:3)

녀러-오다 : 斯隨舍은 흥번 녀러오다 혼 뜨디니(월석 2:19)

▽이 말의 첫 성분의 줄기로 추측되는 「\*넬-」은 따로 나타나지 않으나,  
분명히 「너-」와 같은 계통의 말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참조.

췌저재 너러신고요 (악학궤범, 정음사)

[~든니다]

디나-든니다 : 디나든노매=經過(두언 15:4)

뼈(←프)-든니다 : ㄹㄹ 서리에 누비웃 님고 뼈든니노니=江湖漂短褐  
(두언 21:1)

[~들다]

드라(←돌)-들다 : 龍이 두리여 부텃 그르메에 드라드러 (월석 7:39)

가-들다 : 그되 가들 찌비 불써 이도다 (석보 6:35)

나사-들다 : 鬼兵 모던 잠개 나사드디 묻게 드외니 (천강곡 상, 기 69)

[~나다]

가-나다 : 하늘해 가날 福을 다샤라 (월석 7:14)

드라-나다 : 즉자히 ... 드라나샤 比丘入 알피 나사가샤 (월석 8:90)

호러(←홀)-나다 : 도즈글 수머 흥번 호러나소니 =避寇一分散(두언 8:  
29)

기러-나다 : ☆明妃 | 기러난 村이 오히려 잇도다 =生長明妃尙有村  
(두언 중간 3:68)

나다(←날)-나다 : 도흔 비치 나다나시며 (월석 2:59)

버서-나다 : 地獄애 기리 이서 버서날 時節이 업스리라 (월석 21:121)

니러-나다 : 瞿曇氏 다시 니러나시니라 (월석 1:8)

췌-나다 : 저머서 나 아로미 췌나샤 =少挺生知 (영가, 서:7)

▽「췌-」는 움직씨의 줄기로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으나, 「췌해-」가 있음  
으로 보아 줄기로 쓰였던듯 하며, 또 「췌디-」가 있음으로 보아서는 그  
「-아/어」 활용형도 「췌-」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도라-보다 : 地藏菩薩을 도라보스불며 (월석 21:115)

췌아-보다 : 눈 췌아보신대 (천강곡 상, 기 49)



「살아」의 줄기로 추측되는 「\*싸르-」가 다른 활용형으로 나타남이 보이지 않으나, 이 활용형이 단독으로 쓰인 예는 나타난다.

그때 阿難이 모든 大衆과 살아 아득히 부터 보수와 =于時阿難與諸大衆證誓佛 (능엄 2:145)

저버-보다: 저버 내 모드로 저버 불씨라 (능엄 3:82)

☆슴저버 불씨 = 恕(자회, 하:25)

▽이 말의 「저버」의 줄기도 분명하지 않으나, 풀이씨의 활용형일 것으로 추측된다.

### 3. 그 밖에:

타(←ㅌ)-낱다: 숨 튼 거슬 다 衆生이라 하느 나라 (월석 1:11) / 不生이라 하느니 ... 느외야 生死果報에 타나티 아니할씨라 (월석 2:19-20)

니러-셔다: 누븐 남기 니러셔니이다 (용 84장)

살아-잡다: 부러 저히샤 살아자브시니 (용 115장)

▽「살아」는 「사르-」의 활용형이다.

### 4. 다음은 매희풀이씨와의 합성이다.

떠(←ㅌ)-디다: 손바리 어러 뜨고 = 手脚凍斃(두언 25:26) / 온가짓 중 씨이 머리엿 뼈 떠디며 (월석 2:38)

즐어(←\*즈르)-디다: 天는 즐어딜씨라 (월석, 서:14)

▽이 줄기의 용례가 보이지 않으나, 「즐어」는 활용형임이 분명하다.

물 아드리 즐어 업스니 = 長嗣夭亡(월석, 서:14)

스라디다: 太子 스르시고(월석 21:219) / 비와 구름과 스라디여 업슬 씨오 (월석 10:85)

스러-디다: 色陰이 슬오 = 色陰銷(능엄 9:70) / 消는 스러딜씨라 (월석, 서:25)

붓아(←ㅂ수)-디다: 내 모물 엇메 드틀 마티 브스디 문관디(월석 21:219) / 돌히 ... 뵈오 붓아디나라 (능엄 7:88)

붕어(←\*브스)-디다: 피해 돌히 붕어디도다 = 山石碎(두언 25:7)

▽「브수-」에 대해서 「\*브스-」도 쓰였을 것 같은데, 예를 찾지 못했다.

플러(←ㅍ르)-디다: 도로 플러디여 五道에 흐르닐씨 (월석 13:31)

떠러-디다: 匣을 떠러 = 拂匣(두언 20:50) / 모던 길헤 아니 떠러디게 호리라 (석보 9:6)

싸-디다: ☆綻은 싸딜씨라 (두언 중간 1:5)

☆싸딜탄 = 綻(자회, 하:16)

▽「싸-」가 줄기로 쓰인 예를 찾지 못했으나, 현대말의 「따다」와 비교해 보면, 「싸-」가 줄기로 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빠(←ㅍ)-디다: 서르 侵勞하야 쁘디 아니호물 = 不相陵滅(능엄 4:6) / 空애 빠디며 = 沈空(몽산 37)

씨-디다(「빠디다」의 변형): 씨딘 씨를 (용 37장)

헤(히)여-디다: 옷가스물 헤여셔 = 披襟(두언 20:45) / 巨渠 | 마장 네브터 헤여멧느니 = 巨渠決太古(두언 6:47), 나뭇그테 나비 헤여 멧고 = 流離木杪猿(두언 14:2)

퍼-디다: 이제 教法이 東土애 퍼디릴씨 (월석 2:52)

퍼-디다: 도훈 좁내 두루 퍼디며 (월석 2:31)

▽앞에 나온 「퍼들다」의 「퍼」와 같이, 여기의 「퍼」도 「프-」의 활용형으로 보아진다.

버서-디다: 關鍵이 버서디여 = 關鍵脫然(법화 4:131)

젓바-디다: 沛는 젓바딜씨오 (능엄 5:32)

▽젓 성분의 「젓바-」는 어떤 말의 활용형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 꼴로 보아서는 활용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떠(←ㅌ)-디다: 두리에 떠딜 씨를 (용 87장)

샤라(←ㅅ)-디다: 브르미 가시아 샤라디 불오 = 風更落(두언 14:30-1)

### (2-2) 어찌씨 + 풀이씨

### 5. 앞의 어찌씨는 앞가지처럼 보인다.

달-나다: 모론 서르 어울면 알오 달나면 모르느니 (석보 19:10)

### 4. 합성어



달-내다: 別은 달내야 하듯흔 브디라 (석보, 서: 4)

달-니르다: 나미닌 달닐을 존하니 (영가, 하: 68)

달-살다: 상넛 사름과 달사느니 (월석 21: 218)

달-담다: 윈넛 피 달담고 올흔넛 피 달다마 두고 닐오더 (월석 1: 7)

달-해다: 므스미 뷔디 몬하야 내 몸 달해오 닐미 몸 달해오물 人相我  
相이라 하느니라 (월석 2: 63)

「달」은 앞가지로 볼 수도 있을것 같으나, 이 형태소는 여러 움직임에 붙을 수 있고, 또 다음과 같은 용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달 凡夫의 報境을 펴시니라 = 別開凡夫報境(능엄 9: 12)

聖賢이 달 靜慮를 닛가 = 聖賢別修靜慮(능엄 9: 12)

ㄹ-디르다(駕): 답사흔 트리 三峽에 ㄹ-디르엿고 = 積水駕三峽 (두언 22: 28)

ㄹ-건나다(絶流): ☆므를 ㄹ-건나 사르미 디나가미 通하고 = 亂水通人過 <주> 絶流曰亂이라(두언 중간 9: 38)

ㄹ-미다(橫構): 히드래 나모 ㄹ-미야 밍 ㄹ-론 門의 잇노라 = 歲月在衡門 <주> 衡門은 橫一木於門上하니 貧者의 所居라(두언 11: 49)

ㄹ-셔다(遮): ☆발 구르고 길헤 ㄹ-셔서 우느니 = 頓足欄道哭 (두언 중간 4: 1)

「ㄹ」도 여러 줄기에 붙을 수 있을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에 있어서는 뿌리의 구실을 한다.

ㄹ-디다(橫): ☆므리 츠고 긴 어름 ㄹ-메시니 = 水寒長氷橫 (두언 중간 1: 17)

따라서 「ㄹ」은 어찌씨로 봄이 좋다.

츠기-너기다(恨): 諸天이 다 츠기너기니 (월석 2: 8)

「츠기」는 어찌씨로서 다른 풀이씨를 꾸미는 일이 없는듯 하나, 이 말은 분명히 「츄하-」에서 파생된 어찌씨이다.

엿시-너기다: ☆말하며 우음우어서 河北을 엿시너기고 = 談笑無河北 (두언 중간 5: 53)

므더니(므던히)-너기다(輕視): 사름 므더니너겨 (석보 19: 32), 우흘

므던히너기고 = 陵上(영가, 하: 142)

「므더니, 므던히」는 「므던하-」에서 파생된 어찌씨이다.

儘: ... 今俗語曰儘教므던타 (사성통해, 상: 58)

몰이-너기다: ☆몰이너겨 治民하논 이리 常法을 두어하니라 = 哀矜存事常(두언 중간 1: 52)

「몰이」는 「몹-」(哀)의 파생어찌씨이다.

갓(고)로-디다: 오솔 갓(고)로 니버 = 倒衣(두언 15: 11) / 갓고로딘 돌흔 = 倒石(두언 20: 10)

## (2-3) 이름씨 + 풀이씨

6. 이 경우에는 이름씨가 풀이씨에 통솔되어서, 통어론적 구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통어론적 구성과의 구별이 더욱 어렵게 된다.

### (가) 이름씨→임자말

가슴-답끼다: 두려 답써 든더니 = 周樟悶走(법화 2: 130) / 子息들하

後에 다룬 藥 먹고 ... 가슴답겨 짜해 그우더니 (월석 17: 16)

값-없다: 한 보비 香鑪에 값업슨 香을 휘우니 (월석 17: 30)

골-없다: 몹골 아라우히 (월석 2: 41) / 골업슨 양조를 지서 (월석

7: 35), 醜는 골업슬씨라 (월석 17: 67)

조-없다: 無邊은 조업슬씨라 (월석 8: 39)

놀-나다: 네 엄니 히오 놀나시며 (월석 2: 41)

말-굳다: 訥은 말구들씨라 (월석 21: 199)

맛-나다: 士子 ㄹ-돌오 맛난 거시 업슬씨 = 士子甘旨闕(두언 22: 56)

물-들다: 濡므리 물드러 = 染淚(두언 6: 29)

빛-나다: 太平之業이 빛나시니이다 (용 80장)

수-없다: 數업슨 존자리 = 無數蜻蜓(두언 7: 2)

안-답끼다: 尸王이 안답써 惑心을 니르와다 (월석 7: 16)



「안」은 '마음 속'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깃-날다: 脩는 깃는 양지라 (영가, 하: 44) <참고> 脩=飛羽聲

#### (나) 이름씨→부림말

금-실다: ☆금시를문 = 豐 (자희, 하: 16)

길-잡다: 導는 길자블씨니 (월석 9: 12)

낮-받다: 그제사 낮바도물 하니 (월석 1: 46)

너름-짓다: 너름지슨 지븐 = 田家 (두언 7: 34)

「너름」은 원래 「여름(夏)」의 뜻이었는데, 「농사」의 뜻으로 유용된 듯 하다

넉툼비 時節에 마초하야 너르미 드의야 (석보 9: 34)

너름도호풍 = 豐 (자희, 하: 19)

낯-짓다: 상네 不善호 只습 머저 낯지서 부터 구지즈면 = 常懷不善心 作色面罵佛 (법화 4: 83)

당가-들다: 당가들며 셔방 마조물 다 婚姻하다 호느니라 (석보 6: 16)

뒤-쫓다: 앞서니 儼이오 뒤조츠니 從이라 (법화 2: 140)

맛-보다: 새 바를 맛보아서 = 嘗新 (두언 7: 38)

목-내다: 西方天王 毗留博父는 龍神 億百千衆 데려와 다 목내야 우더 라 (월석 10: 11)

변-삼다: ☆프레 자맨 을히를 벗삼노라 = 水宿伴鳬鷺 (두언 중간 3: 20)

본-받다: 模는 法이니 남으로 본 밍글씨라 (월석 17: 54) / 威儀는 擧 動이 식식고 본바담직 흘씨라 (능엄 1: 24)

숨-득다: 雜 숨튼 중싱 (석보 9: 32)

실-혀다: 실혀몬 = 繰絲 (두언 25: 50)

애-긋다: 뉘지비셔 애긋는 소리틀 工巧히 깃느니오 = 誰家巧作斷腸聲 (두언 16: 50)

줄-혀다: ☆줄혀 돈니는 개야미 = 行蟻 (두언 15: 56)

활-혀다: ☆활혈만 = 彎 (자희, 하: 10)

힘-넙다: 賴는 힘니블씨라 (법화 3: 195)

힘-쓰다: 오직 힘뿌몬 = 惟務 (능엄 2: 108)

힘-플다: 바르래 드러 몰애 헤요미 혼갓 힘플뿌니니 = 入海算沙徒費力 (금강삼가 2: 71)

#### (다) 이름씨→위치말

물-줄다: ☆今俗語水淹了 물줄다 (사성통해, 하: 84)

스시-들다(?): 衙은 스시들씨라 (법화 5: 27)

앞-셔다: 墓애 가심제 부테 앞셔시니 (월석 10: 3, 기 266)

#### (라) 이름씨→방편말

종-들다: 給侍는 피수바 돈너 종들씨라 (월석 18: 37)

뒤-돌다: 내 썩리 뒤도라 날 브라다가 (석보 11: 29)

#### (마)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음

깃-깃다: 깃爲巢 (훈, 용자례), ☆기슬서 = 棲 (자희, 하: 7) / 鳳凰의 깃깃던 가지 늘갓도다 = 棲老鳳凰枝 (두언 6: 10)

「깃다」가 다른 이름씨를 통솔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ㄹ름-받다: ㄹ르매 受코져 호리 업스며 (월석 21: 78) / 父子 비록 親호나 ㄹ름받디 아니호느니라 = 父子雖親不容替 (남명, 하: 33)

피-쫓다: ㄴ출 피쫓고 뵈들 므를 브르니라 (월석 8: 98), ☆피조솔경 = 黥 (자희, 하: 29)

「피」는 「血」, 「쫓다」는 「刻」의 뜻이다.

☆돌홀 조아 = 刻石 (두언 중간 3: 71)

#### (바) 한 성분이 불구적임

7. 다음의 예들은, 합성 성분의 한편이 단독으로 쓰인 예가 잘 나타나지 않으나, 역시 이 유형에 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선 여기 넣어 둔다.

입-덜다: 焦逐는 입더토더 술 醉면 말숨을 잘 호느니라 (두언 15: 41)



혀-덜다 : ☆혀덜들걸 =吃(자회, 하 : 28)

▽「\*덜다」가 단독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석-다티다 : 석슬 치자브시니 (용 58장) / ☆석다틸송 =駭 ; 搖銜走馬  
(자회, 하 : 9)

▽「다티-」는 다음 용례의 「다티-」와 같은 말인듯 하다.

翠華 ] 하늘해 다터 =翠華拂天 (두언 16 : 39)

불-님글다 : ☆불님글신 =燼 (자회, 하 : 35)

▽「\*님글다」가 다른 말과 연결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물-끼다 : 마술 貪食야 物을 그물끼는 전츠로 =貪味網物故 (능엄 8 : 103)

너-끼다 : ☆하늘 조 너썬디 나조히 자와 =暮宿天邊烟 (두언 중간 1 : 12)

잇-끼다 : ☆잇썬 길헤 마루물 더렌는 대오 =苔徑臨江竹 (두언 중간 10 : 3)

구름-끼다 : ㄷ님씨 구름끼듯 하엿거늘 (월석 14 : 60)

질-들다 : 白鹿이 질드닐 타 돈니돏다 =騎行白鹿馴 (두언 16 : 23-4)

▽임자씨로서의 「질」은 단독으로 쓰인 예가 보이지 않는다.

매-ㄷ다 : ☆매틀미 =黴 (자회, 하 : 12)

마룻-받다 : 마룻바다 더러 지거나 (월석 21 : 102)

▽위의 두 말도 임자씨와 풀이씨의 합성어인것 같으나, 「매」와 「마룻」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마룻」은 「마루츠다(替), 마름(代)」 따위 말과 인연(motivation)이 있는 말일 것이다.

마루츄터 =代(자회, 중 : 1)

### (사) 통어적 구성으로도 처리될 수 있음

8. 다음의 말들은 두 낱말의 통어적 연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술-지다 : 肥는 술질씨라 (능엄 6 : 97)

▽다음 용례로 보면, 이 말은 통어적 구성으로도 보아진다.

술히 지도 여위도 아니하니라 (월석 1 : 26)

그지-없다 : 제 그지 마고미 ㄷ의야 =自爲限礙(법화 1 : 61) / 허근 地獄

이 그지업스니 (월석 1 : 29)

▽다음 말과 비교할 것.

智慧 그지 이시면 (월석 18 : 42)

(아) 한 성분이 다시 쪼개지는 것

빈입-십다 : 니기 자며 빈입십는 마래 =熟寐 𣎵言(능엄 9 : 84)

▽「빈입」은 매김꼴과 이름씨로 된 통어적 합성어이다.

한물-디다 : ☆한물딜탕 =漲(자회, 하 : 35)

▽「한물」은 매김꼴과 이름씨로 된 통어적 합성어이다.

질-드리다 : ㄴ 能히 질드리리오 =誰能馴(두언 16 : 35)

▽이 말의 직접성분은 「질들-이(다)」로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 것이 못된다. 그리고 「질」은 다른 풀이씨에 통솔된 예가 나타나지 않으나, 「드리다」와의 분립성이 강한 것으로 느껴진다.

붓-도도다 : ☆붓도돌빅 =培(자회, 하 : 5)

▽임자씨로서의 「붓」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나, 혹은 「붓-」(種)의 변이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釋種은 어딘 붓기라 하는 마리라 (월석 2 : 7)

### (3) 매김씨

너-나몬 : 이뿐 아니라 너나몬 祥瑞도 하며 (월석 2 : 46), 고사리를 먹고 구뵈여 너나몬것 아니호리라 =食薇不敢餘(두언 6 : 40)

▽이 말은 「너느」와 「나몬」의 합성으로 ‘他餘’의 뜻일것이다. 「석보 19:1」에 “너느 고대”란 말이 있고, 이와 꼭 같은 사실을 설명한 「월석 17 : 45」에서는 “너나몬 고대”로 되어 있음을 보면, 「너나몬」이 「너느」+「나몬」임을 짐작할 수 있다. (→p. 105)

그-나몬 : 그나몬 小洲 =其餘小洲(능엄 2 : 84)

아니-한 : 아니한 스시 (석보 19 : 5), 아니한 더데 =俄頃(두언 15 : 33),

아니한 디 몰다 ㄷ렛거늘 (석보 6 : 25)

▽부정의 「아니」와, 「하-」(多)의 매김꼴 「한」과의 합성이다.

온-갓 : 봄이 오나돈 온갓 고지 프며 (남명, 상 : 63)

▽「온+가지」의 변형이다.



#### 4) 어찌씨

1. 어찌씨 둘이 합성하여 어찌씨로 쓰이는 일이 있다.

몰-다 : 말로 몰다 니르리라 (월석 18:56)

2. 이름씨가 되풀이되면 어찌씨로 쓰이게 된다.

나-날 : 中使 | 나날 또 타고돛다 = 中使日相乘 (두언 8:8)

막더-막더 : 내 네 막더막더 四支를 글힐제 = 我於往昔 節節支解時 (영가 하:50)

가지-가지 : 說法이 가지가지 겨샤미시니 = 說法有種種 (법화 5:137)

3. 다음의 말은 상징적(象徵的)인 뿌리를 겹친것:

다풀-다풀 : 서르 스므차 노겨 자브샤 다풀다풀 다오미 업스시니 = 交徹 融攝 重重無盡 (법화 6:137)

다풀-다풀 : 다풀다풀 다오 업수믈 니르시니 = 謂...重重無盡 (법화 7:9)

4. 또 다음과 같이, 매김씨와 어찌씨가 결합된 것도 있다.

외-뻬로 : 외뻬로 나샤 (월석 9:11)

#### 2) 비통어적 합성어(풀이씨)

1. 한 낱말 안에 뿌리가 둘이 있어서 합성어이기는 하되, 두 뿌리 중의 한 편이 구속형식이어서 통어론적 구성과 쉽사리 구별되는 것을 「비통어적 합성어라」 한다.

2. 국어의 비통어적 합성어는 풀이씨에 국한되는데, 줄기 둘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낱말은 현대말에도 있다. 「눅푸르다, 오가다, 보살피다」 따위가 그 예인데, 이러한 조어법은 옛말에는 그 합성이 자유로워서 풍부한 어휘를 제공한다.

3. 비통어적 합성어는, 그 두 뿌리의 의미상의 관련으로 보아서, 대등적인 것과, 수식적(종속적)인 것과, 그리고 그 한 편이 분명히 줄기이기는 하되 가지에 매우 가까운 것의 세가지로 나눈다.

#### (1) 대등적 합성어

1. 대등적 합성어는 수식적 합성어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두 뿌리가 의미상 서로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맞서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두 성분 사이에 수식-피수식, 종속-통속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양자의 구별은 의미상의 구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명확한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은 물론이다.

오르-느리다 : 그 摩尼水 곳 서리에 흘러 즈믈을 조차 오르느리니 (월석 8:13)

이(←일)-싯다 : 淘汰는 싯 일씨니 (월석 14:62) / 이시서 여려내산 諄諄히 싯 慈 = 淘汰啓迪히 싯 諄諄之慈 (능엄 1:3)

죽-살다 : 그되 이제 죽살 싸해 가느니 = 君今死生地 (두언 8:67)

죽-배다 : 두버디 비 배안마른 (용 90장) / 徐와 陳과 저기 죽배도다 = 徐陳略喪亡 (두언 8:14)

석-배다 : 늘거 석배게 다시 옷곳히리로다 = 衰朽再芳菲 (두언 24:50)

슬(←슬하)-피다 : 三塗入 受苦를 슬하야 = 獸三塗苦 (금강 21), 太子를 세와 피여히더라 (월석 21:214) / 보스름 사르미 슬뵈 뉘 모르며 (월석 2:59)

▽줄기 「슬하-」는 「슬-」로 변동한다.

깁-보타다 : 부텃고들 깁스오히다 = 補佛處 (능엄 5:82), 補는 보탈씨오 (월석 2:8) / 纏縫은 깁보탈씨라 (내훈 2하:40)

붓-달다 : 막넉 바르를 어즈러이 붓달터니 = 煩煎心海 (금강삼가 5:45)

나-들다 : 世間애 나시느니 (석보 13:48), 나며 드로매 만고 (석보 19:10) / 나드는 수미 잇느니 = 有出入息 (능엄 9:17)

므(←물)-너홀다 : 불근새 그를 므러 (용 7장), 혼匹은 프를 너홀오 = 一匹齷草 (두언 16:41-2) / 가히는 ... 蒿무저글 므너홀오 (금강삼가 2:21)

여위-막르다 : 뼈와 슬패 여위몰라 = 骨肉枯竭 (법화 2:164)<sup>(11)</sup>

(11) 흔히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그 용례를 보이지 않기로 한다.



여위-시들다 : 病하야 시드러 (석보 9:29) / 天台寒山子는 양지 여위

시들오 (남명, 하:8)

이우-시들다 : 이우시드러사 畎辟苦를 비르서 시름하느니=憔悴始憂畎

辟苦(남명, 상:62)

\*물으다 : ☆물지=裁(자희, 하:19), 너희... 香木을 마사 오라 羅漢

들히... 香木 마사 즉차히 도라오나눌(월석 10:13) / 翠駝을 뉘 물으

사 밍꼴리오=翠駝誰剪剔(두언 16:2), 雲霧를 물으사 화 님금 오솔

땡 마라 =裁縫雲霧成御衣(두언 25:48)

「마사」와 「물으사」 이외의 다른 용례는 나타나는 일이 없으나, 「마애」(剪)와 대비하면, 「마사」의 줄기는 \*「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물으사」는 「물」과 「으사」로 분석되는데, 「물」은 「마르」의, 「으사」는 「마사」의 변이형태다.

「마르」+「마사」→ 물으사

감-꼭다 : 四千里 감은 龍 (천강곡 상, 기 95), 綠은 꼭틀씨라 (월석

8:10) / 눅죽식 감꼭르며 (월석 2:41)

검-붉다 : 니 검디 아니하며 (석보 19:6), 紅은 검글씨라(월석 1:23) /

검블근 碼礪盤 =殷紅碼礪盤 (두언 16:38)

검-어듭다 : 나랏 中間 어드본 싸흔 곧 나르논 鐵圍山 검어드본 스시

라 (월석 14:17)

시-자리다 : 막스매 노푼디 올오물 想하면 밧바다에 시요미 니느니=

心想登高足心酸起(능엄 10:79), ☆風熱病 자리다 (사성통해, 하:29) /

사르미... 노푼 밧에 올오물 스랑하면 밧바다이 시자리느니 =思蹋懸

崖足心酸起(능엄 2:115)

도춧다 : 막스미 正티 몸하야 도쿠주물 문그리하야 (석보 9:36)

들-보다 : 눈귀에 들보미 업거든 (월석 21:126)

비리-누리다 : 비린 피를 먹고저컨마론 (월석 21:124-5), 黃羊은 비르

르 머저도 누리디 아니하고 =黃羊飫不羶(두언 22:36) / 비리누류미

섯모드며 =腥臊交遘(능엄 1:42)

어위-크다 : 좁던 東山이 어위며 (월석 2:28) / 가스야 어위큰 恩惠

는 업고 =更無寬大恩(두언 25:37)

질괴-굳다 : 伯强이... 식씩하며 질괴구드며 方正홀시 =嚴毅方正(내훈

3:17)

\*일-점글다, \*일-저물다 : 여러밋고래 치움 나미 이르니 =衆壑生寒早

(두언 15:17), 빗돛 글어가매 歲月이 점그느니 =解帆歲月暮(두언 22:

42), 나리 적뜨러 히 더거늘 (월석 8:93) / 일점그리 님금 시름호

물 드로니=夙夜聽憂主(두언 23:33), 머느리 드외리 일저뜨리 恭敬하

며 저허 =爲之婦者 夙夜祇畏(내훈 1:47)

「일」은 어찌씨의 「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점글-」, 「저물-」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풀이씨 「이르-」의 한 변이형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願호든 일 正覺을 일워지이나 =願早成正覺(영가, 하:148)

그리고 풀이씨로 쓰이는 「\*일점글-」, 「\*일저물-」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이에서 파생된 「일점그리, 일저뜨리」만이 나타난다.

2. 다음 말들은, 그 성분이 다시 쪼개질 수 있는 합성어이다.

내-드리다 : 券은 財物 내드릴씨오 =券以出納財物(법화 2:238)

「내」나 「드리」나 다 파생어이다.

나소-물리다 : 나소물리며 히돌아 (=進退循環(능엄 4:123))

「나소-」는 「낭」에서, 「물리」는 「프르」에서 파생된 말이다.

놈-눅잡다 : 臺와 亭子왜 싸이 놈눅가오물 조차하니=臺亭隨高下(두언 6:36)

「눅잡-」의 「눅」이 줄기로 쓰인 예가 없으나, 이 말도 파생어일 것으로 추측된다.

드(←들)-나들다 : 더나갈 나그내논... 드나드로물 시름하고 =過客... 愁出入(두언 21:4)

「드나들다」는 「나들다」에 다시 「들」이 합성된 말로 보아지는데, 두 「들」의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편이 「들」로 이화(異化)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두언 중간」에는 「드나들-」로 쓰인 데도 있다.

☆드나드로매 암문 마외도 업스니라 =出入無完裾(4:8)



「-줄-」이 앞에 하나 더 붙은 것은, 「나들-」의 합성어적인 성격이 분명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추측된다.

못-그치다: 목수물 못치리라(월석 21:119), 寢食을 그쳐시니 (용 116장) / ☆德을 닦아 하여곰 제 오게 하여 굴에 써여 못그치더 아니홀 만 홀디어늘 =修德使其來 羈縻固不絕(두언 중간 4:13)

「그치-」는 「긋-」에서 파생된 말이다.

어리-미혹하다: 어린 百姓=愚民(훈, 언해), 미혹고 鈍<sup>한</sup> 衆生(석보 11:6) / 엇대 어리미혹하야 귀를 기우려 드로물 쓰리오 =何用歎歎側耳聽(금강삼가 4:41)

식-서늘하다: 붉근 나치 식오 드로물 =紅艷酸甜(두언 15:21) / 알피 타며 식서늘호미 百萬 가지니 =痛楚酸寒百萬般(남명, 하:32-3)

위의 두 말은 한 성분이 「-하다」 형 풀이씨이다.

### 3. 「-하다」형 풀이씨가 합성될 때는 그 뿌리를 합치게 된다

\*푸러하다(靑)+누러하다(黃)→푸러누러하다: 누런고지 =黃花(영가 상 116), ☆마르맷 雲霧 | 누러<sup>하</sup>도다 =江霧黃(두언 중간 10:45) / 더리는 푸러<sup>하</sup>누<sup>러</sup>코 =毛爲綠縹(주) 縹는靑黃色이라(두언 16:40)

「\*푸러하다」가 단독으로 쓰인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꼭라하다+\*불가하다→꼭라불가하다: 더릿 비치 꼭라<sup>하</sup>불<sup>하</sup>샤미 孔雀의 모기 마르시며 (월석 2:58)

「\*꼭라하다」나 「\*불가하다」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은 찾지 못했으나, 다음의 「불가꼭라하다」로 보면, 이 두 말이 단독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불가꼭라하다: 紺은 불가꼭라<sup>하</sup>홀씨라 (법화 2:12)

괴외하다(靜)+좁좁하다(默)→괴외좁좁하다: 靜은 괴외<sup>하</sup>야 일 업슬씨라 (월석, 서:25), 阿難이 좁좁<sup>하</sup>야 =阿難默然(능엄 3:66) / 牟尼는 괴외<sup>하</sup>좁<sup>하</sup>홀씨니 (월석 1:15)

## (2) 종속적(수식적) 합성어

1. 의미 상으로 두 뿌리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한편

이 다른 편에 딸리어서, 두 성분이 수식-피수식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이 름인데, 「수식」은 ‘방법, 수단’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앞에 설 명한 대등한 비통어적 합성어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대등적이기 때문에 두개의 따로 되는 동작·상태를 나타내지만, 여기의 종속적인 합성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작·상태를 나타냄이 특색이다.

가슴며(←가슴)·살다: 衣食이 가슴<sup>하</sup>며리니 (월석 21:99) / 居士는 천 량 만히 두고 가슴<sup>하</sup>며사는 사름이라 (석보 9:1)

감-쫓(←돌)다: 세 불을 감도라<sup>하</sup>늘 (천강곡 상, 기 151)

거두-들다: 穡은 穀食 거두<sup>하</sup>미라 (능엄 1:19) / 摳衣는 옷 거두<sup>하</sup>들씨라 (영가, 서:13)

거두-불다: 黃屋을 北<sup>하</sup>녁 거두<sup>하</sup>부<sup>하</sup>니라 =黃屋朔風卷(두언 24:33)

거두-뜯다: ☆거두뜯보 =撈, 거두뜯로 =廬(자회, 하:23)

거두-잡다: 攝化는 거두<sup>하</sup>자바 教化<sup>하</sup>실씨라 (월석 8:99)

거두-쥐다: 입시우리... 또 우호로 거두<sup>하</sup>쥐<sup>하</sup>디 아니<sup>하</sup>며(월석 17:52), ☆몰라 거두<sup>하</sup>쥬 거시 사를 쓰디 잇도다 =攬卷有生意(두언 중간 12:17)

「거두-」의 뜻이 똑똑하지 않다.

거르-뛰다: 놀이 거르<sup>하</sup>아 뛰여나=躡獨跳(영가, 하:41) / 비호미 等を 거르<sup>하</sup>뛰<sup>하</sup>디 아니<sup>하</sup>와디 거르<sup>하</sup>뛰<sup>하</sup>는 전치라 (월석 14:41)

걸나-뛰다: 生死海를 걸나<sup>하</sup>뛰<sup>하</sup>니 =超生死海(금강삼가 2:38)

걸-끼다: 琉璃로 누네 걸씨=以琉璃籠眼(능엄 1:58), 고기 뼈에 걸씨<sup>하</sup>닐오디 肯이오 =肉骨曰肯(능엄 4:62) / 거마 불기 보샤 걸씨<sup>하</sup>디 업스실씨 =旣明見無滯(법화 5:144)

것(←것-)·들다(擡): 두 같이 것그<sup>하</sup>니 (용6 3장) / 이 威神力으로 그 같이 片片이 것들<sup>하</sup>거늘 =其刀片片段擡(영험약초 10)

빼-들다: 貫은 빼씨라 (월석 8:25), 시는 四明入 누네 빼고 =履穿四明雪(두언 24:39) / 百萬衆入 서리에 빼들<sup>하</sup>워 드나드로물 咫尺 스시로 브터 빼터라 =貫穿百萬衆 出入由咫尺(두언 24:11)



빼-물다: 빼부는 브르문 아름다운 氣運을 앗는다=衡風奪佳氣(두언 18:19)

빼-스듯다(貫通): 모도디니면 빼스듯고 =揔持則貫通(법화 5:194)

빼-알다: 빼아라 기튼 恨이 업스니 =貫穿無遺恨(두언 24:37)

글(←꺾)-꺾다: 杜曲애 애를 鴿돌아 글탈노라 =回腸杜曲煎(두언 20:4)

꺾-꺾다: ☆꺾꺾과 =抓(자회, 하:22)

꺾-누르다: 곧 도히 鴿디위 말하야 여러 方옛 마를 꺾누르니=便好着一轉語 截斷諸方舌頭(몽산 32-3)

나-가다(出去): 太子 | 鴿마 나가시고 (석보 6:7)

나-놀다(出遊): ☆꺾꺾는 鴿해 나노로니 =出遊翰墨場(두언 중간 2:38)

넙-꺾다: 瓶鴿 물이 꺾며 다돈 이피 열어늘 (월석 7:6) / 조터 아닌 거시 흘러 넙꺾여 =不淨流溢 (영가, 상:35), 흘러 넙꺾면 (능엄 9:54)

「넙~꺾」의 표기 상의 동요는 앞의 /ㅁ/으로 말미암아 /ㅂ/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녀-가다: 길 鴿 사르미어나 (월석 21:119)/ 程節은 길 녀가는 鴿더라 (몽산 38), 그디 녀가미 =君行(두언 8:67)

니르(르)-다오다: 鴿테 어루 니르다오리오 =何可勝窮哉 (법화 5:42), 功德이... 니르다오디 鴿홀전치라 =...不可勝窮故也(법화 6:107)

니르-들다: 우鴿 正호 機 正호 行 鴿호닌 니르드디 鴿호시릴씨 =不可勝舉(법화 2:173)

니르-헤다: 나뭇 가지에 흘러 프른 여르물 헤옥=條流數翠實(두언 15:4) / 이러트시 고태 鴿외샤미 鴿 니르헤리러라 (월석 1:21)

닐-뫼다(起動): 닐뫼여 鴿니논 中에 =於動用中(몽산 27)

닐-뫼다: 슬피 브르미 鴿뫼는듯 鴿니=慘淡壁飛動(두언 16:28)

느(←놀)-쑹다: 歡喜踊躍은 鴿거 느쑹쑹시라 (월석 8:48)

덥-달다: 더본 煩惱는 煩惱 | 鴿 마티 다라나는 거실씨 덥다 鴿느니라 (월석 1:18) / 안히 덥다로론 요스시에 鴿더호노 =內熱比何如(두언

20:50-1)

도(←돌)-놀다: 도느라 오르코져 鴿야도 =陵厲 (두언 21:10) <주> 陵은 上이오 厲는 越也 | 라

도(←돌)-돈다(遁逃): 漢陰에 槎頭는 머리 도드르리로다 =漢陰槎頭遠遁逃(두언 16:62)

뽀-놀다: 三界를 뽀여 디나샤 =超過三界(금강 8) / 魴魚 | 뽀노니=魴魚鰈鰈(두언 16:61-2)

딧-먹다: 點 鴿거나 點 아니 鴿거나 (월석 14:8) / 鸚鵡의 鴿먹던 鴿나치 나맏고 =啄餘鸚鵡粒(두언 6:10)

돈-디르다: 男子女人 百千萬數 | 바를 가운데 나락 鴿락 鴿거든 모딘 중성돌히 돈덜어 자바 머그며 (월석 21:23)

맞-보다(逢): 안자서 楊子의 東州에 鎮호요돌 맞보라 =坐逢楊子鎮東州(두언 15:27)

메-봏다 > 메왓다: 호미를 메오 셔니=荷鋤立(두언 7:15), 니버잇더신 鹿皮 오솔 바사 (월석 1:16) / 올흔 鴿게 메봏고 올흔 무릅 쭈러 (석보 9:29), 올흔 鴿게 메왓고 =偏袒右肩(능엄 4:2)

「메-봏」은 「봏」의 /ㅂ/이 /ㅁ/으로 변동한 변이형태임이 분명한데, 이것이 「-왓」으로 다시 변하고 난 뒤로는 「봏」과의 유연성(motivation)이 끊어지고, 따라서 합성어로 인정 받기 어렵게 된다.

메-지다: 鴿론 풀 메지여 =擔負乾草(법화 4:143)

문-꺾다: 倉은 鴿물씨니 나들 鴿물씨라 (석보 9:20) / 여덟 鴿를 시러 鴿꺾디 鴿호야 =八年不得營葬(내훈 1:72)

므르-꺾다: 鴿마 玄妙호거든 또 모디 鴿르거러 =既盡玄妙又要退步(몽산 45)

므르-늑다: 鴿이 누르며 애 鴿어 =燠背爛腸 (영가, 상:34) / 主人이 鴿디 鴿르노마니 =主人情爛熳(두언 15:54)

므르-늑다: 鴿근 果實은 가지에 鴿르니거 하도다 =朱果爛枝繁(두언 15:13)

므르-들다: 언 鴿히 鴿르르르니 雲嵐入 어드운디 鴿도다 =崩凍嵐陰



ㅍ(두언 25:12)

미-죽다: 追는 미조출씨니 先王人 ㅍ들 미조츄샤 孝道호스불실씨라  
(월석, 서:16)

미-엮다: ㅍ엮거 지순 더 안자쇼매 重疊호도다 =結構坐來重(두언 23:26)

▽「ㅍ엮다」의 두 뿌리의 순서를 바꾼 말이다. (→p. 126)

받들다: 奉은 바들씨라(월석, 서:13) / ☆받들봉 =捧(자회, 하:22)

썩-들다: 썩 더리 썩보물 =鑷白(두언 14:20), 집기슬겻 고지 들눗다 =  
簷花落(두언 15:37) / 니... 이저디며 썩들디 아니호며(석보 19:7)

뵈-들다: ☆뵈차=搓, 뵈나=挪(자회, 하:23) / 고히 ㅍ코 엮디 아니호  
며 ㅍ트디 아니호며 (석보 19:7)

분-들다: 서르 분드러 도바 (월석 21:102)

분-동키다: ㅍ스물 동키야 =撮心(능엄 9:72) / 妙音을 體호면 말쌔매  
겻이디 아니호고 能히 조차 應호면 ㅍ스 자취에 분동키디 아니호리  
니(월석 18:63)

▽「분동키-」와 비슷한 말에 「분동키-」가 있는데, 「분-」은 앞가지로 보아진  
다.

妄心 妄見이 本來 眞實호 體 업서 분동키요물 브더 닌돌 나토시니=皆顯  
妄心妄見 本無實體 由攀緣起(능엄 1:46)

분-잡다: 眞實로 자취 이레 분자분 ㅍ스물 니르와드면 (월석 13:42)

분-질기다: ☆분질길근 =斬, 분질길식 =齧(자회, 하:30)

▽「분-」은 가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데, 그렇게 파악되면 (3)의 「과생적  
합성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p. 129)

빌-뿌다: 돈 一百貫을 ㅍ어 (불정심경<정양사 영인> p.74) / 이 일후미  
빌뿐 일후미며 =是名爲假名(금강삼가 5:37)

빌-먹다: 와 비는 사르물 주리여 (석보 9:12) / 나라해 빌머그라 오  
시니 (월석 1:5)

썰-먹다: 현맛 벌에 비늘을 썰라노 (월석 2:47) / 無量이 썰먹고=無  
量師食(능엄 8:101)

뽏-드되다(뽏뜨되다): 이 길홀 뽏디 말라 (월석 21:119), 훈 발로 고  
초 드되여 서샤 (월석 1:52) / 거름 거르며 뽏뜨되요물 모로매 즈눅  
즈눅기 호며 =步履必安詳(내훈 1:26)

사르-묻다: 오샤샤 사르시릴씨 =來則活己(용 38장) / 도죽 罪 주는  
法은 주겨 제 거집조쳐 사르묻더니 (월석 10:25)

사르-잡다: ☆사르자불부=俘(자회, 하:25), ☆아홉 靑兕를 사르자바  
왓느니 =生致九靑兕(두언 중간 5:49)

▽이 말은 앞 뿌리가 활용되어 통어적 합성어로 쓰이기도 한다. →「살아  
잡다」(p.108)

섯-결다(交結): 眞實호며 正호야 섯근 것 업서 (월석 8:24), 結은 거  
를씨오 (법화 1:55) / 叉手는 두 손가라를 섯겨를씨라 (능엄 2:21)

섯-들다: 瓔珞과 옷과 곳비와 섯들더니 (월석 2:42)

섯-버물다: 繞는 버물씨라(월석 2:32) / 하늬 쯤이 섯버므러 곧곧마  
다 뽏비치 나더라 (월석 2:52)

섯-느리다(섞어치다): 金 노호로 길홀 느리며 (석보 9:10) / 璃瑠 싸  
우희 黃金 노호로 섯느리고 (월석 8:7)

섯-묻다: 비리누류미 섯모드며 =腥臊交遘(능엄 1:42)

섯-돌다: ☆鬱鬱히 剛直호 心腸이 섯도노매라=鬱鬱回剛腸(두언 중간  
1:54)

섯-더르다: 刺는 디를씨라(월석 21:77) / 섯딜어 어즈러우미 =交交  
擾擾(능엄 3:116)

섯-미다: 交는 섯딜씨오 (법화 1:85)

섯-밋다: 섯미더 섯미자 썸 업스샤미(법화 2:15)

섯-닐다: 邪와 暴와 섯니러 =邪暴交作(법화 5:43)

섯-돌다: 여러가짓 모딘 벌에무리 섯드르며 (법화 2:107)

섯-박다: 보빅 섯바곤 帳 =寶交露慢(법화 4:123)

섯-배다: 世와 道와 섯배며 =世道交喪(법화 5:43)

섯-엮다: 보빅 노호로 섯엮고 =寶繩交絡(법화 2:72)



셋-들다: 쇠그므리 셋두퍼 잇거늘 (월석 23:83)  
 솟-끓다: 몸과 이비 글혀 느소스며=身口沸騰(영가:하;72) / 혼 바름  
 ㄴ새 다드르니 그 므리 솟글코 (월석 21:23)  
 솟-나다: 堅牢地神이 솟나아 니르니 (천강곡 상,기 82)  
 업-들다: 어픈 손=伏手 (금강삼가 3:14), 둘 업슨 바리 虛空에 들면  
 (월석 1:26) / 여덟 겨우루를 取하야 虛空에 업드라 =取八鏡覆懸  
 (능엄 7:21)  
 업-미다: 더본 鐵로 모뎀 얼거 (월석 21:44), 뎀 미요뎀=繫馬(두언 6:  
 31) / 一切外道の 업미요뎀 버서나게 호리니 (석보 9:8)  
 엇-보다: 弟子 | 窓으로 여시 지블 보니 =我有弟子 窺窓觀室(능엄 5:  
 72) / 새는 새 거든 바를 엇보느다 =鳥窺新卷簾(두언 7:11)

「엇보-」와 같은 뜻으로 「엇오-, 엇으-」가 있다.

天魔 | 엇와 그 便을 得하야=天魔候得其便(능엄 9:87)

모던 鳥獸 | ...四面을 向하야 窓隔를 엇오더니=鳥獸 ...四向窺看窓隔(반  
 화 2:123)

天魔 | 엇와 그 便을 得호미오=天魔候得其便(능엄 10:41)

엇음도 能히 못하려니와=不能窺(남명, 상:65)

이 말은 아마, 「보-」의 /ㅂ/이 /ㅅ/과 홀소리 사이에서 /ㅃ/으로 변하고,  
 다시 「보 > 오」로 변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림씨 뒷가지  
 「-브-」가 이러한 환경에서 「-보-」(웅보-)로 변하여 다시 「-우-」(웃우-)로  
 변한 것과 같은 일이다.

엇보- > \*엇보-, \*엇보- > 엇오-, 엇으-

/ㅂ/이 /ㅅ/, ㅅ/과 홀소리 사이에서 /ㅃ/로 변한 것은, 받침의 /ㅅ/, ㅅ/  
 이 같이소리로 발음되었던 탓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2)</sup>

우기-누르다: 헛다가 이에 오래 이시면 시혹 우기눌러 일 시기리로다  
 헛고 (월석 13:13), 시혹 우기누르리라 호몬 (월석 13:15)

잡-가티타: 罪 업시 가티노라 (월석 13:17) / 罪 업시 잡가티노나  
 一定하야 주그리로다 (월석 13:16)

(12) 받침(종성)의 「ㅅ, ㅅ」이, 15세기에 있어서는 [s, z] 음이었으리란 추측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허 웅: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 p.327 이하.

잡-달호다: 비 달홀 사르미=篙工(두언 15:3) / 蓮葉 비 가빅얹거든  
 스식으로 잡달호물 비호돏다 =蓮葉舟輕自學操(두언 22:16)

잡-들다: 支는 서르 잡드려 괴을찌니 (석보 7:18)

잡-쥐다(操): 能者의 비 잡쥐유물 썰리 호미 벅름 ㄴ드니 =能者操舟  
 疾若風(두언 16:63)

죇(←죇)-드되다: 그르 혼 이를 죇드되여 말며 =母循枉(내훈 1:9)

죇-블다: 官屬은 그위에 죇브튼 사르미라 (석보 11:7)

죇구리-앓다: 쯤무딧 우희 죇구려서 (월석 9:35 하) / 더 주거미...  
죇구리앓거늘 (월석 9:36 상)

호리시-가슴덜다: 비록 해 호리시가슴며나 엇메 저기 물기 가난호미  
 존호리오 =雖然多濁富 爭似少清貧(금강삼가 4:31)

「호리-」와 「가슴덜-」의 합성임에는 틀림 없으나, 가운데 「시」가 들어간  
 이유는 해명되지 않는다.

2. 다음 말들은, 그 앞 성분을 파생어찌씨로 볼 수도 있으나, 모두  
 줄기로 보고서, 비통어적 합성어로 다룬다.

고초-드되다: 부더 向하스바 손 고초샤 (월석 1:52) / 혼 발로 고초  
드되여 셔샤 (월석 1:52)

ㄴ리-들다: 陰은 ㄴ리두플씨니 (월석 1:35)

느리-니르다: 子孫은 아드리며 孫子 | 며 後入 孫子를 無數히 느리닐  
운 마리라 (월석 1:7)

느리-드리오다: 즘든 갓 노홀 바르 느리드리오니 =千尺絲綸直下垂(금  
 강삼가 5:26)

3. 합성 성분의 한편이나 둘 다가 파생법으로 된 것.

걸(건)네(내)-뻘다: 濟는 걸날씨라 (월석, 서:9), 度는 生死大海에  
건넌씨니 =度者渡生死大海也(금강 18); 내 너를 건네요미 올하나라 =  
 舍是吾 | 渡汝 | 니라(육조, 상:33), 벅르미 부러 (나물) 더 ㄴ새 건



내쇼셔 (월석 8:99) / 이 사름미 三十劫罪를 건내뿌리라 (월석 21: 85), 三賢을 건내뿌여 = 超三賢(능엄 8:22)

▽각 성분의 밑말의 출처를 다 밝혔으나, 앞으로는 출처를 죄다 밝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로 한다. 또 「건내」는 어찌씨로도 볼 수 있다.

몹새 건내 부처니(월석 8:99)

그치-누르다: 止는 그치누를씨라 (능엄 1:40)

▽이 말은 앞에 보인 「굿누르다」와 비슷한 말인데, 얼핏 보면 「굿-」의 파생어씨 「그치-」와의 합성어인 것 같으나, 「그치」가 어찌씨로 쓰이는 예는 없으므로, 하임말의 줄기로 보아야 한다.

그치-티다: 千差를 그치터 안조샤 = 坐斷千差(금강삼가 2:3)

나소-걸다: 너의 나소거러 寶에 드를 이틀 ㄴ르쳐 = 指汝進步入室(몽산 30)

나소-드티다: 다시 댕그테 어원 거르를 나소드티 여사 大丈夫의 이틀 ㄴ르치라 = 更進竿頭闊步 了大丈夫事業(몽산 21)

내-들다: 城門에 내드라 하늘 祭하던 싸흘 보고 (석보 6:19)

내-밀다: 돌히 내미니 = 石出(두언 23:30)

내-쫓다: 斥은 내조출씨라 (월석 14:62)

두르-돌니다(周行): 佛子 | 자디 아니하야 수프레 두르돌녀 (석보 13:21)

드리-비취다: 紫閣 뒷 그리메 漢陂에 드리비취엿느니라 = 紫閣峯陰入漢陂(두언 6:10)

드리-소다: 旄頭 | 紫微에 드리좌시니 = 旄頭躔紫微(두언 6:21)

드리-들다: 소리코 싸 허위여 드리드라 오더니 (천강곡 상, 기 162),

엇테 몹새를 爲하야 드리드르리오 = 寧爲衆禽沒(두언 16:47)

드리-흘리다: ☆눈물란 犬羊 잇는 하늘해 드리흘리노라 = 淚入犬羊天 (두언 중간 3:42)<sup>(13)</sup>

(13) 「擧」의 뜻으로 「드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혹시 「드러」의 잘못새김(誤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二處理行을 長行에 各各 事行을 니서 드리 니르시고 = 二處理行 各連事行而擧(법화 5:29)

물리-걸다: 迷人이... 즉재 물리거러 이 길헤 나고저커늘 (월석 21:118)

물리-그우다: 阿鞞跋致는 물리그우디 아니타 혼 마리니 (월석 7:69)

들리-들다: 萬乘이 오려려 들리드르니라 = 萬乘猶辟易(두언 24:12)

물리-쫓다: 氣運이 西戎을 물리조츠며 = 氣却西戎(두언 17:33)

▽「드리」와 「물리」와는 어찌씨로도 볼 수 있다.

브티-들다: ☆옷 브티들며 발 구르고 = 牽衣頓足(두언 중간 4:1)

브티-동기다: 諸着은 여러가짓 브티동킨 거시니 (석보 13:38)

▽위의 두 말은 각각 「붙들다」, 「붙동기다」와 비슷한 말이다.

「굿누르다」: 「그치누르다」와 비교.

셋-꼴이다: 엇테 오래 꼴이느뇨 = 如何久磨礪(두언 23:33) / ☆終南山

入 프른 비치 셋꼴이고 = 鎔磨終南翠(두언 중간 13:14)

셋-흘리다: ☆눈믈 셋흘류라 = 淚交墮(두언 중간 9:5)

웁-돈니다: 惑業의 웁돈노미 一切 이틀 브터 흐느니라 = 惑業轉徙 |

一切由此 흐느니라 (능엄 1:45)

줏구리-걸었다: 畝무적에 줏구리걸안자 = 躊躇土埕(법화 2:118)

▽「줏구리-었다」와 비교.<sup>(14)</sup> (→p.127)

### (3) 파생적 합성어

1. 한 성분이 가지에 매우 가까우나, 아직 그 줄기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은 합성어이다.

(14) 「픽얼키다, 내조치다, 물리조치다, 브티들이다, 붙동기이다」 따위 말의 직접성분을 각각 「픽-얼키다, 내-조치다, 물리-조치다, 브티-들이다, 붙-동기이다」와 같이 분석하면, 모두 이 유형에 들 것이다. 그러나 이 말들은 제일차적으로는 「픽얼-히다, 내쫓-이다, 물리쫓-이다, 브티들-이다, 붙동기-이다」로 분석되므로 모두 파생어에 들게 된다. 「픽얼히다」 따위는 합성법으로 된 「픽얼다」 따위가 다시 파생법으로 입음말이 된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으로 된, 「두르-돌니다, 웁-돈니다, 셋-꼴이다, 셋-흘리다, 드리-흘리다, 나소-물리다」 따위는 합성어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두르-들다, \*웁-들다, \*셋-꼴다, \*셋-흐르다, \*드리-흐르다, \*나소-므르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니-」와의 합성:

견-니다: 世尊이... 밋기 나아 견니더시니 (석보 6: 20)

겻(←겻7)-니다: 그 罪業의 갑스로 果報 겻구미 次第러니 (월석 2:

63) / 아랫 果報 겻니단 주를 슬보니 (월석 2: 63)

그우(←그울)-니다: 모던 길헤 빠러디여 그지업시 그우니느니이다  
(석보 9: 27)

나-니다: 집主ㅣ 갓가비 나니거늘 그 지비서 (월석 17: 16)

노(←놀)-니다: 請 드른 다대와 노니샤 (용 52장)

느(←놀)-니다: 吉慶엿 새 느니며 (월석 2: 33)

도(←돌)-니다: 부테 도녀 諸國을 教化하샤 (석보 9: 1)

디나-니다: ☆글 이퍼 다시 디나니거라 許하리런가 = 吟詩許更過 (두언  
중간 3: 69)

든-니다: 攻戰에 든니샤 (용 113장)

들이-니다: 들이니는 戎馬入 마쉬서 = 崩騰戎馬際(두언 16: 19)

빠-니다: 큰 마르미 이쇼디 비 업거늘 마술 조차 바니다가 (월석 8:  
99)

▽「바-」는 「傍」의 뜻을 가진 「발-」의 변이형이 아닐까 생각된다.

뽕비춘 九霄에 바라 하도다 = 月傍九霄多(두언 6: 14)

뵤든-니다: 다솜 길헤 뵤드러 든녀 = 踰躰五道(금강삼가 5: 45) / 逃亡

하야가 뵤든녀 辛苦호미 쉬나몬 히러니 (월석 13: 29)

얼-니다: 婆羅門이 그 말 듣고 고불 얼니노라 하야 (석보 6: 13)

우(←울)-니다: 고불니 못 보아 슬웃 우니다니 (월석 8: 102)

휏도(←휏돌)-니다<sup>(15)</sup>: 여섯 길헤 휏도녀 값간도 머므디 못하며 = 輪廻六  
道 而不暫停(월석, 서: 4)

호르-니다: 도로 물러디여 五道에 호르닐썩 (월석 13: 31)

하-니다: 生은 世界에 나아 사라 하니는 것들히라 (석보, 서: 1)

▽「니-」는 「녀-」(行)의 한 변이형태인데, 「녀-」의 변이형태로서의 「니-」

(15) 한 성분이 다시 분석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유형을 따로 내세우지 않는다. 뒤에 나오는 「헤-조치다」도 한가지다.

는 씨끝 「-거-」앞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합성어의 한 성분으로서의 「니-」는 「녀-」와 같음되는 일이 없음이 그 특색이다.

길 넌 사르미어나 (월석 21: 119)

行者는 녀아 더 나라해 갈 싸르미라 (월석 8: 24)

東이 니거시든 (용 38장)

淨土에 니거지이다 (월석 8: 1)

어서 도라 니거라 (월석 8: 101)

2. 다음 말들은 그 한 성분의, 줄기로서의 성질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

쥐-주다: 湏達이 가슴머러 천량이 그지업고 布施하기를 즐겨 艱難하  
며 어엿븐 사르물 쥐주어 거리칠썩 (석보 6: 13)

▽이 말은 「쥐-」(把)와 「주-」(與)와의 합성어일 것이나, 첫 성분이 움직씨  
줄기 「쥐-」와 잘 유연화(有緣化)되지 않은듯 하기에 여기 넣어 둔다.

뽕-뽕다: ☆조하며 사오나오미 만디 아니호디 기리 서르 뽕뽕돗다 =  
好惡不合長相蒙(두언 중간 4: 29)

▽「뽕-」은 「뽕-」의 옛말인데, 옛말에서는 「뽕-」은 줄기로 쓰이지 않는다.

꼰히-나다: 솟가락 文이 꼰히나시며 (월석 2: 57)

꼰히-집다: 識蘊은 꼰히지버 알씨라 (월석 1: 35)

▽「꼰히나다」의 「-나-」는 움직씨 「나-」(出)의 유연성이 그리 똑똑하지 않  
으며, 「꼰히집다」의 「-집-」은 현대말 「집다」와 관련이 있을듯도 하나,  
「집-」이 줄기로 쓰인 예는 찾지 못했다.

막-즈르다: 사르미 느출 막즈르고 = 防人面(두언 15: 17)

▽뒤의 성분은 움직씨 「즈르-」에서 온듯 하나, 그 유연성이 좀 박약하다.  
絞는 목 즈를썩오 (능엄 8: 86)

3. 다음 말들의 한 뿌리는 더욱 가짐에 가깝다.

헤-디르다(突): 끊겨를 헤딜어 义를 들오 드돗다 = 撐突波濤挺义入 (두  
언 16: 63)

헤-돋다: 꺾거시 헤드라 굴허에 어즈러우니 = 鬼物掀振亂坑壕 <주> 掀  
振은 奔逸也 ㄴ니 (두언 16: 55)

헤-돋니다: 衆生이 짓물 마름 가온디 이셔 끊겨를 조차 헤돋니니(월석  
23: 80)



헤-들다(狼藉): 주검 너호러 썩어 고기왜 헤드루문 = 齊賊死屍 骨肉狼藉(법화 2: 111)

헤-므르다: 등이 누르며 애 물어 = 爛背爛腸 (영가, 상: 34) / 남지너 모미 괴하며 헤물어 썩 글희드렛거늘 (월석 10: 24)

헤-불다(破): ☆벼룩미 치운 마루물 헤부루물 더디흐놋다 = 風破寒江漚 (두언 중간 19: 25)

헤-조치다: 돌호로 터든 조치여 드러 머리 가 (석보 19: 31) / (귀신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니까) 百姓들히 츠림 몸하야 헤조쳐 돌더니 (석보 24: 21)

헤-부치다: 倉廩으로 다붓 부쳐 돈니듯 호물 慰勞하노라 = 倉廩慰飄蓬 (두언 7: 19) / ☆헤부치는 바람과 오란 비왜 마을히 어즈러우니 = 關風伏雨秋紛紛 (두언 중간 12: 14)

헤-퍼디다: 蕩은 헤퍼딜씨라 (능엄 1: 62)

▽「헤-」는, 위의 용례들로 보아서는 얼핏 그 뜻이 잘 파악되지 않으나, 이것은 분명히 「헤어디다」의 뿌리인 「헤-」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뜻도 ‘사이가 뜨는것’이었으리라 추측된다.

巨渠 | 마장 네브터 헤어뱃느니 = 巨渠決太古 (두언 6: 47)

☆울히들러 헤어뱃고 = 兇鷲散亂 (두언 중간 13: 12)

「헤-」가 불완전하나마 뿌리로 쓰이는 예는, 「헤잇다, 헤티다, 헤츠다, 헤히다」에서 볼 수 있다.

모로매 이 벼룩물 헤이즐 毛質이 잇느니라 = 會是排風有毛質 (두언 8: 31)

시혹 깃구터 혹 헤티도 하며 (월석 18: 32)

☆千騎 | 티양 므를 헤츠놋다 = 千騎常撤烈 <주> 撤烈은 相撤이니謂揚波渡水也 | 라 (두언 중간 4: 14)

네 微細히 萬象에 헤히 빼야 = 汝可微細披剝萬象 (능엄 2: 48)

飄飄히 섰진 옷기줄 헤히노라 = 飄飄散疎襟 (두언 25: 4)

위와 같이 「헤-」를 뿌리로 보게 되면, 위에 들어 보인 「헤퍼디다, 헤불다」 따위는 합성어가 되는 것이나, 「헤-」는 여전히 가지에 매우 가깝다.

다-쫓다: 흐다가 아니 오리 잇거든 四天王이 더본 鐵輪을 놀여 보내야 다조차 자바 오라 하시니 (석보 6: 46)

다-디르다: 刺는 디를씨라 (월석 21: 77) / 뭉며 괴외호미 다디르는

바를 좃놋다 = 動靜隨所激 (두언 7: 23-4), 周秦엔 놀란 고래 다디르놋다 = 周秦觸駭鯨 (두언 23: 2)

▽「다-」는 ‘접근’의 뜻을 붙일 수 있는 형태소로서, 가지에 매우 가깝게 느껴지나, 「다-왈다, 다-티다, 다-잇다, 다-돌다」 따위 말에서는 뿌리의 구실을 하고 있다.

겨지비 온가짓 어려본 이리 다와다 (석보 9: 7)

머리를 기도애 다터 (월석 23: 87)

擊은 다이즐씨라 (월석 2: 14)

月支國에 다드라 (월석 2: 66)

두르(루)-힐후다(轉): 서르 일며 서르 니서 두르힐휘 虛妄하니 = 相成相續展轉虛妄 (능엄 3: 67), 두루힐휘 虛妄하야 = 宛轉虛妄 (능엄 4: 43)

가도-힐후다: 더운 氣運이 비취니 허튀를 수이 가도힐홀시라 (두언 14: 2)

▽「容易收病脚」의 주.

드(두)위-힐후다(反覆): 드위힐휘 推尋컨댄 = 反覆推尋 (영가, 상: 40), 쉬나몬 헛 스시 순바당 두위힐후미 곤하니 = 五十年間似反掌 (두언 16: 48)

▽「힐후-」는 가지에 매우 가깝게 느껴지나 뿌리(줄기)로 쓰인다.

헛 브스며 숨 힐후는 重病 = 鼓喘重病 (법화 7: 186)

阿蘭若는... 世間과 힐후디 아니홀씨라 (월석 7: 4-5)

法을 듣고 도로 당당이 힐후고 = 聽法還應難 (두언 22: 14)

우(←울)-지지다: ☆우지질조 = 噪 (자화, 하: 8)

브르-지지다: 즐거우물 取하야 브르지저서 = 取樂喧呼 (두언 15: 44)

▽이 말들도 파생어 같아 보이지만, 「지지-」가 줄기로 쓰인다.

새 지지며 가마괴 우루미 = 雀噪鵙鳴 (법화 6: 149) <sup>(16)</sup>

(16) 그 밖에 다음 말들도 그 됄됨이로 보면 합성어인것 같으나, 그 성분이 확실하지 않다. (우선 여기 실어 두고서 다음 날을 기다린다.)

맛줍다(應): 應은 맛줍씨라 (월석 9: 10)

響은 맛줍는 소리라 (능엄 4: 125)

맛들다( 좋아하다): 王이 맛드러 갓가비 하거시놀 (월석 2: 5)

드놓다: 드노하 소리 스몏느니 = 激揚音韻徹 (두언 23: 8-9)

군브르다: ☆거스리 너매 몏겨리 군브르도다 = 逆行波浪慳 (두언 중간



## 5. 파생법

1. 엄격한 의미로서의 낱말의 규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낱말은 그 됴됨이로 보아서, 대체로 세가지로 나뉜다.

2. 하나의 형태소가 한 낱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낱말 가운데서 가장 간단한 것이다. 「집, 범, 봄」 따위 낱말은, 다시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 된 것으로서, 이러한 낱말을 단순어(單純語 simple word)라 한다.

3. 낱말은 이러한 단순한 것 이외에, 둘 이상의 형태소로 형성되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복잡한 종류에도 두가지가 구별된다.

한 낱말 안에 뿌리가 둘이 있는 것을 합성어라 하는데, 합성어에는 통어적인 것과 비통어적인 것이 있고, 통어적 합성어에는 여러가지 품사가 있으나 비통어적 합성어는, 15세기 옛말에서는, 풀이씨에 국한되어 있음이 특색이다.(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이다.)

4. 합성어와는 달리, 한 낱말을 형성하는 둘 이상의 형태소 중의 하나가 의미의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은 이에 딸려 있는 것이 있는데, 의미의 중심이 되는 형태소를 「뿌리」(root), 또는 「제일류 형태소」라 하고, 뿌리에 딸려있는 형태소 중, 문법적인 관계 개념을 드러내는 것을 「굴곡의 가지」(inflectional affix)라 하고, 새(다른) 낱말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2 : 22)

것서다 : 所웃 이시면 能이 이셔 能所 | 것서 物와 我와 겹오니 ㄷ외면 = 盖有所則有能 能所角立 物我成敵 (법화 5 : 8)

이 「것-」은 「난것, 난것기(競)」의 ‘것’과 같은 형태소일 것으로 믿어진다. 識境이 난것 뒤여 나저든 = 識境競動(월석, 서 : 3)

여들 나랏 王이 난것기로 ㄷ토거늘 (석보 6 : 7)

진디취다 : ☆진디취래 = 拐(자취, 하 : 20)

진너들다 : 글 지수른 風騷에 진너드렛도다 = 文雅涉風騷(두언 7 : 30)

것을 「파생의 가지」(derivational affix)라 한다. 파생의 가지는 「제이류 형태소」라 불리고, 굴곡의 가지는 「제삼류 형태소」라 불리기도 한다.

5. 뿌리에, 굴곡이나 파생의 가지가 붙어서 짜여진 낱말을 「복합어」(複合語)라 하고, 이 중 파생의 가지(제이류 형태소)가 붙어서 된 것을 「파생어」라 한다. 「가-다, 먹-으니, 죽-으면, 오-고」 따위 말은 뿌리에 굴곡의 가지가 붙어서 만들어진 복합어이고, 「울-벼, 덧-신, 먹-이-(다), 짓-밟-(다)」 따위 말들은, 파생의 가지가 붙어서 짜여진 복합어 중의 파생어이다.<sup>(17)</sup> 「먹이다」는 「먹다」에서 파생된 낱말이고, 「울벼」는 「벼」에서 파생된 낱말이란 뜻이다. 그리고 파생의 밑바닥이 되는 말을 「밑말(根底語)」이라 한다.

6.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 즉 뿌리와 가지가 결합되어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방법을 「파생법」이라 한다.

7. 파생의 가지는 뿌리에 대한 그 자리에 따라서, 앞가지(접두사)와 허릿가지(접요사)와 뒷가지(접미사)로 나뉘는데, 국어에는 앞가지보다 뒷가지의 수가 더 많고, 그 용법도 다양하다.

8. 국어에서뿐 아니라, 다른 말에서도 허릿가지의 예는 드문것 같다. 우리말의 「좁쌀」의 「비」를 허릿가지라 하는 일도 있고, 어떤이는 「먹었다」의 「-었-」을 또한 허릿가지라 하는 일도 있는듯 하나, 허릿가지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한 형태소의 안에 끼여들어야 한다. 「좁쌀」의 「비」은 두 뿌리 「조」와 「쌀」의 사이에 끼여 있으며, 이것은 굴곡이나 파생의 가지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허릿가지가 아니라, 두 뿌리의 어느 한쪽에 붙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쌀」의 한 음소로 보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쌀」은 「조」와 합성될 때에는 /-ps'al/이란 형태적 변이형태(morphologically defined allomorph)를 가지는 셈이 된다. 그리고 「먹었다」의 「-었-」은 뿌리 「먹-」의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뒷가지이지, 허릿가지는 아니다.

허릿가지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동남아(東南亞)의 캄보디아말을 들 수 있다.

(17) 허 응 : 언어학 개론 (1963, 정음사) pp.183-4에는, 파생법으로 된 낱말(즉 뿌리에 파생의 가지가 붙어서 된 낱말)을 복합어라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복합어에는 굴곡의 가지가 붙어서 된 낱말도 포함시킬 수 있다.



죽 /de:k/는 한 형태소로 된 움직씨로서 ‘자다’의 뜻인데, 그 사이에 /-ɔmn-/이란 허릿가지를 넣으면, 이름씨로 바뀐다. /dɔmne:k/(잠)<sup>(18)</sup>

9. 가지는, 그 밑말의 품사를 바꾸지 않고, 밑말에 어떠한 뜻만을 더하면서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것과, 밑말의 품사를 바꾸는 것의 두가지가 있다. 앞의 것을 「품사 안바꾸는 가지」라 하고, 뒤의 것을 「품사 바꾸는 가지」라 한다. 현대국어의 「올벼」의 「올-」은 앞것에 속하고, 「다정스럽다」의 「-스럽-」은 뒷것에 속한다.

10. 국어의 앞가지는 뒷가지에 비해 그 수가 적을뿐 아니라, 모두가 품사 안바꾸는 가지인데, 뒷가지는 그 수가 많고, 이에는 품사 바꾸는 것과 품사 안바꾸는 것이 다 나타난다.

## 6. 앞가지(접두) 파생어

앞가지에는 풀이씨에 붙는 것과, 임자씨에 붙는 것이 있다. 뒷가지에 비하면 앞가지의 수는 적어서, 밑말의 품사를 바꾸는 것은 없다. 즉 파생풀이씨의 밑말은 모두 풀이씨이고, 파생 임자씨의 밑말은 모두 임자씨이다.

### 1) 풀이씨(용언)

「가르-」

가르-돈다 : 衆生濁은 無明을 길어 六道에 가르돈녀 = 衆生濁者 長養 無明 支離六道(법화 1:189)

가르-드다 : ☆노퐁 양지 하늘해 가르드드엿느니 = 高標跨蒼穹(두언 중간 9:32)

가르-놀다 : ☆가르느는 鶴의 샷기 = 背飛鶴子(두언 중간 13:45)

(18) R.H. Robins: General Linguistics, An Introductory Survey. (London, 1964) p.210.

이 가지는 움직씨 「가르-」(分)인듯 하나, 그 뜻이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므로 가지에 넣어 둔다.

몹결이 갈아디거늘(천강곡 상, 기 107)

「걸-」

걸-앉다 : 師子床에 걸안조튼 (월석 13:13)

이 앞가지는 「걸다」(掛)에서 온 것 같으나, 그 거리가 꽤 느껴지므로 뿌리로 보지 않았다. (「걸-」을 움직씨의 줄기로 본다면 이 말은 합성어가 된다.)

「것마르-」

것마르-죽다(氣絕) : 남지니 모미 기흐며 헤물어 세 글희드렛거늘 슬 흐며 두리여 싸해 것마르주거 가슴 두드리며 ㅁ장 우러 손소 머리 뜯고 다시곰 것마르주거 두서 나를 호오사 몹ㅁ새 잇다니 (월석 10:24)

「것마르-」에는 ‘假’의 뜻을 가상해 볼 수 있을듯 하다.(假死)

「ㅁ오-」

ㅁ오-누르다 : 어드운더 브터 사르덜 ㅁ오누르던 전츠로 服類 드의 야 = 著幽靈人 故爲服類(능엄 8:121)

「ㅁ오-」가 나타내는 확실한 뜻은 잡아 이르기 곤란하다.

「넙-」

넙-놀다 : 種種 새들히 모다 넙놀며 (월석 2:27)

「넙-」은 ‘넙나들다’의 뜻을 가상할 수 있으므로, 현대말의 ‘넙놀다, 넙노닐다, 넙나들다’의 「넙-」의 옛꼴인듯 하나, 「넙-」은 긴 소리임에 비해서 「넙-」은 평성임이 약간 난점이다. (현대말의 긴 소리는, 대개는 상성에서 유래했다.)

「답-」

답-상다(積) : 답사흐 몹ㅁ식서 = 積水濱(두언 20:29)

「답-」은 ‘한군데 첩첩이’의 뜻을 가진 것으로 가상된다.



「더위-」

더위-잡다(扶) : 더위자바 녀매 몇 격지를 들워 브리가노 = 扶行幾履穿 (두언 20:2)

「더위-」는 손을 높이 올려 당기는 뜻을 나타낸다.

「덧-」

덧-긋다 : 나는 양지 덧긋고 술히 세요이다 (석보 24:35)

강세를 나타낸다.

「데-」

데-뜨다(浮) : 즈막락 뜨락 흐느다 = 沉浮(두언 7:2) / 네 므스미 멀터 이 데떠 = 汝心飄浮(능엄 3:106)

「데-」는 감정적 색채를 부여할 뿐이다.

「마-」

마-므르다(瘠) : 骨髓 | 幸혀 므르디 아니흐엿노라 = 骨髓幸未枯 (두언 6:40) / ☆마므를교 = 曉, —각 = 确, —척 = 瘠(자회, 하:17),

☆마므를 싸히 도로혀 조 가로미 도흐니 = 瘠地翻宜粟(두언 중간 13:40)

「수척」의 뜻을 부여할 수 있는 가지다.

「모-」

모-즈라다(不足) : 尺度 | 즈라도다 = 尺度足(두언 16:56), 어마님 短命흐시나 열들이 즈랄씨 (천강곡 상, 기 31) · 八姝女의 기론 찰므 리 모즈랄씨 (월석 8:92)

「모-」는 「몸」의 변형으로 생각된다.

☆虛空은 몸즈란 싸 업스며 마곤 싸 업스며 (칠대만법 15)

모-뻬 : 아므례나 더 太子를 모뻬 땡마로리라 햏야 (석보 24:49)

▽「모뻬」는 「몸+쓰기」의 준 말이다.

「몬, 븐-」

몬( 븐)-동키다(攀) : 므스물 동키야 = 撮心(능엄 9:72) / 緣을 몬동키야 가져 著햏야 = 攀緣取著(월석, 서:3), 븐동키는 緣을 자바 = 攝

伏攀緣(능엄 3:114)

이 가지는 ‘힘주어 꺾’의 뜻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합성어 「 븐동키다, 븐티동키다」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합성어에 가 붙것)

「박-」

박-츠다(蹴) : 바르래 가는 브른 뭇入 하늘홀 츠쯔다 = 朝海蹴吳天(두언 20:2) / 저비논 낙는 고줄 박차 = 燕蹴飛花(두언 15:33)

‘힘주어 세게’의 뜻이 부여된다.

「브르-」

브르-돌다 : 柳癭은 버드나뭇 브르도든 웅되니 (두언 20:30)

브르-뜨다 : ☆눈을 브르브고 (박통사, 하:48)

‘쫓아 나게’, ‘두드러지게’의 뜻이 부여된다.

「비-」

비-웃다(嘲) : 正法을 비웃디 아니햏야 (석보 9:15)

「비-」에는 ‘덜시하여’의 뜻이 함축된다.

「아시-」

아시-떠다 : ☆아시떨분 = 饋(자회, 하:12)

「처음」의 뜻을 가졌다.

「엇-」

엇-막다(橫防) : 뭇 겨퓷 엇마므시니 (용 44장), 橫防 엇마기 (용 6:40) ‘어긋나게’의 뜻을 가진 가지다.

「에-」

에-굳다 : 剛強은 세여 에구들씨라 (월석 21:9), 내 五濁惡世에 에구든 衆生을 教化햏야 (석보 11:5)

「에-」는 ‘옳지 않으면서 세기만 한’의 뜻을 부여할 수 있다.

「저-」

저-브리다(負) : 뽀 구루미 프른 붉비츨 저브리디 아니햏니 = 浮雲不負靑春色(두언 21:22)



원래 「저-」는 「지-」(負)의 활용형이었을듯 하나, 여기에 있어서는 가지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저-」는 ‘남의 기대에 어긋나게’의 뜻이 있다.

이 말은 바로 「지-」의 또 한가지 활용형 「지여」를 쓴 데가 나타난다.  
 ☆내 문져 죄를 넘스와 조종의 ...신령을 지여드리디 마와 징이다=  
 臣先伏罪 不負祖宗 ...之靈(속삼강행실도, 충신 6)

#### 「쫓-」

주-쫓다(蹲) : 잠간 조오는 나비 주잔자슈를 스치노라 = 暫睡想猿蹲 (두언 11:49), ☆頓坐 주잔자 (박통사, 單字解 4)

‘바로 밀바닥까지’의 뜻.

#### 「즌-」

즌-뵈다(蹴) : 이 길홀 뵈디 말라 (월석 21:119) / ☆즌뵈을채 = 蹴(차회, 하:37)

‘함부로 마구’의 뜻을 부여할 수 있다.

#### 「지-」

지-불이다 : 덩비 두고 往生偈를 브르니 브르미 부러 竹林國으로 지 불여늘 무티 올라(월석 8:101)

‘기대다, 의지하다’의 뜻을 가진 「지다」의 줄기와 관련이 있을듯 보인다. 그리고 이 밀말은 뒷가지 파생어(입음말)이다.

#### 「쫓-」

쫓-들다 : 집기슬겻 고지 들돛다 = 簷花落(두언 15:37) / 그 모뎀 다와 다 그 피를 쫓들게 하며 = 迫蹙其體瀝漉其血(능엄 8:93)

우선 강세의 뜻을 가정해 둔다.

#### 「치-」

치-잡다 : 석슬 치자브시니 (용 58장)

치-혀다 : 두리에 떠딜 띠를 넌즈시 치혀시니 (용 87장)

힘쭈의 뜻을 나타낸다.

#### 「티-」

티-츠다(위로 차다) : 難隨調達은 象을 티츠며 (천강곡 상, 기 39)

티-소다(衝) : 清秀호 氣運이 星斗에 티소엿도다 = 秀氣衝星斗(두언 8:3)

티-디르다(衝) : 머리 갖는 사르물 주머귀로 디르코 (월석 7:8) / 氣運은 별 밧기 티딜엇고 = 氣衝星衆表(두언 21:9)

티-받다<sup>(19)</sup> : 기픈 山峽은 ㄴ장 길오 티바뎃도다 = 深峽轉脩聳(두언 14:4)

「티-」는 ‘위로 올라가게’의 뜻을 가졌다.

#### 「횃-」

횃-돌다(旋) : 澤國에 횃도라 버르러 돈니노라 = 澤國遶回旋(두언 20:12)

횃-도니다(回) : 부테 도녀 諸國을 教化호샤 (석보 9:1) / 여섯 길헤 횃도녀 잠간도 머므디 못호며 = 輪回六道而不暫停(월석, 서:4)

#### 「횃-」

횃-두르다 : 環刀이며 막다히를 두르코 이셔도 (월석 7:6) / 衛護는 횃들어 이셔 護持홀씨라 (월석 21:19)

「횃-」이나 「횃-」이나 돌아가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호-」

호-놀이다(惱殺) : 소리와 글월와 놀요본 = 弄音文(능엄 6:59) / 집마다 서 사르물 호놀이돛다 = 家家惱殺人(두언 15:6)

(19) 이 말은 「티왈-」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분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슬 받는 金莖은 하늬 스시에 티와뎃도다 = 承露金莖霄漢間(두언 6:8)

「받-」 > 「-왈-」은 「받들다」(捧)의 뜻을 가진 말이다.

虛空에 티티고 바드며 (월석 21:43)

의 「티티다」의 뿌리로 생각되는 「티-」는 그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데, 혹은 ‘打’의 뜻의 「티-」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그 뜻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

「티왈-」이나 「티티-」의 첫머리의 「티-」는, 앞의 「티디르-」, 「티소-」, 「티츠-」 따위의 「티-」와 같은 형태소이기는 하나, 그 뿌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티왈-」, 「티티-」는 파생어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



우선, 「ㅎ-」에는 ‘남을 못살게’의 뜻을 가정하여 둔다.

## 2) 임자씨(체언)

파생 임자씨의 밑말도 모두 임자씨인 점, 파생 풀이씨의 경우와 같다.  
즉 앞가지는 품사를 바꾸는 일은 없는듯 하다.

「가(갓)-」

갓나히(가-싸히) : 싸히 香 갓나히 香 (석보 19: 17)

갓-ㅁ슴 : 네 더 나라 업시워 사오나온 갓ㅁ슴물 내더 말라 =汝莫輕  
彼國 生下劣想(법화 7: 11)

「갓나히」의 「가-」는 혹시 「갓」(아내)에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갓ㅁ슴」의 「갓-」과 같은 형태소로 보면, 모두 ‘못생긴’의 뜻  
으로 풀이된다.

「갈-」

갈-웁 : 갈웁호=虎(자회, 상: 18)

▽「갈웁」의 「웁」은 「범」의 ㅂ이 ㄹ과 홀소리 사이에서 /ㄹ/으로 바뀌고, 다  
시 반홀소리 /ㅜ/로 바뀐 변이형태이다.

\*갈범>\*갈범>갈웁

갈-지계(黃鷹) : ☆黃鷹 갈지계 (자회, 상: 15)

▽「\*지계」란 말은 없으나, 앞가지의 「갈-」은 「갈웁」의 「갈-」과 관련이 있  
어 보인다.

갈-외(蟹) : ☆갈외반 =蟹, 갈외모 =蟹 <주> 書作 斑猫(자회, 상: 23)

▽「외」는 「괴」의 변이형태이다.

괴 가히=猫犬(능엄 8: 122)

「갈범」은, 보통의 범을 표범과 구별하기 위하여 앞가지를 붙인 말인  
데, 갈색에 검은 무늬가 있음이 특색의 하나이고, 「갈지계」(>갈지계)  
도 갈색에 어드운 빛의 세로 무늬가 있음이 특색이며, 「갈외」(>가외)도  
훈몽자회에 「斑猫」라고 한것처럼, 몸에 무늬가 있다.

이렇게 보면 「갈-」은 ‘무늬’가 있음을 표현하는 말로 볼 수 있으니,

「갈지계」의 「갈-」을 여기 넣어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곰-」

곰-돌의 : 馬蹄菜 곰돌의 (자회, 상: 9)

▽이 말은 분명히 「돌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小葱 돌리, 小蒜 돌리(자회, 상: 13)

「곰달래」를 ‘熊蔬’라 하는 것으로 보면, 「곰」은 ‘熊’의 뜻의 곰에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되나, 곰달래를 어째서 곰과 인연 맺어주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가불(가운)-」

가불(온)-더 : 깊 가불더 (월석 14: 80), 中은 가운더라 (훈, 언해 9)

매김꼴 같으나 분명하지 않아 앞가지로 보아 둔다. ‘반’, 또는 ‘중  
간’의 뜻을 부여할 수 있다. (「가위」(팔월 한가위)와 비교)

「졸-」

졸-가마괴, 졸-아마괴 : ☆졸가마괴아=鴉(자회, 상: 16), 鴉: ...寒鴉亦

曰環鴉 졸아마괴 (사성통해, 하: 31)

졸-거미 : ☆졸거미쇼=蠨, 졸거미초=蠨, 졸거미희=蠨(자회, 상: 21)

‘졸가마괴’와 ‘졸거미’에 공통된 점은, 배가 희다는 데 있으니, 「졸-」  
은 ‘희다’와 무슨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 그리고 보면 「졸  
머기」(鷗)의 「졸-」도 이와 같은 말미가 아닐까 추측된다.

몹 가운데트 졸머기로다 =水中鷗(두언 7: 3-4)

▽「머기」는 ‘먹’의 뜻인듯 한데, ‘먹’은 문헌에는 「머개」로 나타난다.

如意는 머개에 如意珠 이설씨라(석보 13: 11)

「납-」

납-거미 : ☆납거미 曰 壁蟹字 (자회, 상: 22)

「납-」은 「넙-」(廣)의 변이형으로 보아진다.

(20) 「졸-」이 희다와 관련이 있다면, 「ㅁ루」(가루, 안개)도 이와 같은 말미에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가루’나 ‘안개’는 흰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조고맛 ㅁ루=纖霧(금강삼가 2: 62)

ㅁ루면=麵(자회, 중: 22)



너븐 부텃 世界 (석보 13:31)

「납-」이 줄기로 쓰이는 예는 없으나 다음 예를 참조.

☆鼈兒 민들기를 저기 납죽이 烹고=鼈兒打的匾着些箇(박통사, 하:29)

「니-」

니-쌀: 니바리 밥 지스니 能히 히니=稻米炊能白(두언 7:38)

보통의 쌀은, 찰쌀과 대립될 때는 멍쌀이고, 잡곡과 대립될 때는 입쌀(<니쌀)이다.

「넛-」

넛-딜위: ☆海棠 넛딜위 (자회, 상:11)

▽뿌리인 「딜위」(>절레)는 15세기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이 말은 「디르-」(刺)에서 파생된 이름씨인듯 하다.

넛-무수: 겨숫 무수는 밥과 半이니 =多菁飯之半(두언 16:70) / 興菓는...불휘 넛무수 곤하니라 (월석 21:168), ☆蘿蔔 넛무수 (사성통해, 상:4)

넛-바리: 荊條 넛바리 (자회, 상:10)

▽「\*바리」는 보이지 않는다.

넛-바리: ☆荊條 바리 (사성통해, 하:47) / ☆地蘆 藥草 넛바리(사성통해, 상:38)

넛-가치: ☆넛가치 鶴 =鷺 <주> 即練鵲 俗呼山鵲(자회, 상:17)

넛-두러기: ☆老鷹 넛두러기 (자회, 상:15)

▽뿌리인 「\*두러기」는 보이지 않는다.

「넛-」은, 현대말의 「넛닭」에서 쉽사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고 억센’ 뜻을 나타낸다.

「독-」

독-술: 東門 밖의 독소리 것그니 =東門之外 矮松立析(용 89장)

현대어의 ‘보독술’인데, 「독-」이 불구형태가 되어서 그 뜻을 잡기 어려우나, 우선 ‘작고 어린’ 뜻을 가정해 둔다.

「뒷-」

뒷-포람: 나비 포람 기리 이푸를=猿嘯長吟(영가, 하:106) / 긴 뒷포람 부러서 =長嘯(두언 16:53)

「뒷-」은 다른데 인연 맺어지지 않으며, 그 뜻도 무엇으로 가상하기가 어렵다. 「포람」과 「뒷포람」은 그 뜻의 다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두리-」

두리-매(개): 蘇油는 두리깨기르미라 (월석 10:120), 두리매 니폴=蘇葉(구급간이방 6:54)

「뜨-」

뜨-물(泔): 뜨물과 菜蔬入 니폴 (월석 21:110)

이 가지에 어떤 뜻을 부여하기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나(‘꼭식 가루’? 또는 ‘흰’?) 다른 예가 없어서 결정하기 어렵다.

「들-」

들-기름: ☆蘇油 들기름 (자회, 중:21)

들-매: ☆들매曰蘇子(자회, 상:13), ☆들깨심=荏(자회, 상:13), ☆蘇子 들매 (사성통해, 상:40)

「들-」은 「춤-」의 반대 뜻을 가진 접사로서, 이름씨 ‘들’에서 온 것일 지니, 원래는 ‘야생(野生)’의 뜻이었을 것이다. (21)

「새-」

새-별(太白): :새:벼·리 나지 도드니(용 101장), :새:벼·레 이 이바다를 앓기노라 =明星惜此筵(두언 15:50)

새-매(鷓): ☆:새:매·요=鷓 (자회, 상:16)

새-삼(女蘿): ☆:새·삼·토=菟, ☆:새·삼·스=蕨(자회, 상:8)

「새-」는 ‘희고 밝은’ 뜻을 가진 가지인듯 하나, 셋별이 그렇고, 새매

(21) ‘蘇’는 「두리깨, 두리매」라고도 했다(「두리-」참조). 이것으로 보면 「들-」은 원래 「두리-」에서 온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따라서 여기의 「들-」은 원래는 ‘들(野)’과 관련이 없었을는지 모르나, 일단 「두리-」>「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들-」은 ‘野’의 뜻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두리-」가 「들-」로 바뀐 것은, 그 뜻을 모르게 된 「두리-」를 ‘野’의 「드르」와 인연을 맺어준 민간어원(民間語源)의 탓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는 몸빛이 회색이니, 이것도 흰빛 범주에 들 수 있고, 새삼은 흰 꽃 이  
삭이 가지 끝에 피는 덩굴풀이다. (22)

「소-」

소-밥 : 소발을 아니 먹더니 =不素食(내훈 1:65)

「맨밥, 맨손」의 「맨-」과 같은 뜻.

「쇠-」

쇠-비름(莧) : 뒤햇 비르미 퍼러 나니 =野莧青青(두언 16:65) / 쇠비  
름 曰馬齒 (자회, 상:13)

「쇠-」에는 무슨 뜻을 부여해야 될지?

「씻-」

씻-무수 : ☆씻무수청 =菁(자회, 상:14)

「땃무수」가 크고 억센데 대해서, 「씻무수」(>순무)는 작으며 둥글다.  
그러므로 「씻-」의 뜻도 ‘작고 둥근’으로 가상해 둔다.

「스-」

스-마불(시골) : 스마불 軍馬를 이길씨 (용 35장)

「스마불」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데는 보이지 않으나, 이 말은 「마울」의 옛말  
이므로, 단독으로 쓰였을 것이다.

(22) 이렇게 보면,

새:박환=芑 <주> 俗呼蘿摩(자회, 상:8)

의 「새박」(박주가리)의 「새-」도, 사성점이 달라서 좀 어렵기는 하나, 박  
주가리는 잎의 뒷쪽이 회고 줄기와 잎에서 흰 진이 나오는 것이므로, 역  
시 같은 뜻의 가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蘧廬는:새지·비·라(능엄 1:107)

새지비 도라오돌 得하야=得歸茅屋(두언 21:2)

이 새지브란=此白屋(두언 15:5)

의 「새-」도 역시 같은 가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새」는 ‘떠’나 ‘역새’  
를 의미한다.

:새닐점=苦(자회, 하:18)

草黃 새와히(용 5:47)

草閑 :새한(용 7:25)

그러므로 풀의 「새」는, 그것이 흰 데서 얻어진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中國 西入 녀 마새 蜀이라 흙 마울히 잇느니(월석 2:50) : (중2) 12-12

그리고 다음 땅이름도 「마불」의 존재를 증언한다.

조마불=栗村 (용 2:22) ← 조하+마불

「스-」는 ‘새로 된’의 뜻을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곧 「스  
마불」은 ‘새로 된 고을’의 뜻으로.

그러나 이 말이 「스굴」로 변하고 나면, 「스-」는 앞가지의 구실을 잃  
어버리게 된다.

서울 스굴히 =華野(영가, 하:113)

☆스굴향=鄉(자회, 중:8)

「식-」

식-아비(舅), 식-어미(姑) : 식어미 식아비 =姑嬢(두언 8:67)

「식-」는, 「스-」와 같이, ‘새로 된’의 뜻을 가상할 수 있을 것이다. (23)

「션-」

션-다리(넓적다리) : ☆션다리퇴 =腿(자회, 상:27)

이 한 예만으로, 「션-」에 어떤 뜻을 붙여 주기는 곤란하다.

「아춘-」

아춘-아들 : 劉牢는 아춘아드리게 特出하니라=劉牢出外甥(두언 8:62)

아춘-설 : ☆아춘설 =暮歲(역어유해, 상:4)

「아춘-」에는 ‘작은’의 뜻을 가정할 수 있다.

「이듬-」

이듬-히(翌年) : 이듬히에 도즈기 또 永州를 티며 =明年賊又攻永(두언  
25:39)

「이듬-」은 ‘그 다음’의 뜻이다.

「일-」

(23) 前間恭作은 「스-, 식-」에다 ‘外’의 뜻을 붙여주고 있으나(龍歌古語箋 p.  
81), 양 주동 님은 ‘新’의 뜻을 부여하고 있다(古歌研究 p.45).

그리고 15세기나 16세기 초기의 문헌은 아니나 다음 말들을 참조.

석-집 : 송시...식지비 가 =宋... 歸姑氏(속삼강행실도 열녀 10)

석어버이 : 석어버이를 섬교디 효도하더니=事舅姑孝(같은책 8)



인-히(二年): 또 인히 자히사 서울 드러오니라 (월석 2:66)

‘둘’의 뜻을 부여할 수 있다.

「전-」

전-술: ☆전술발=醖, ☆전술비=醕(자회, 중: 21)

전-국(跋): 전구기 노마니 專入시리 닉고 =跋化蓴絲熟(두언 15:27)

「전-」에는 우선 ‘군것을 섞지 않은’의 뜻을 가정해 둔다.

「천-」

천-국(청국장): ☆천국시=跋<주> 俗呼豆跋(자회, 중: 21)

이 말은 「전국」에서 변한 것이며, 현대말의 ‘清麴’은 「천국」의 변화음인 ‘청국’에 한자를 갖다 붙인 것이다.

「초-」

초-하루(初一日): ☆초하루삭=朔(자회, 상: 2)

한자어의 ‘初’이다.

「츠(출)-」

출-콩: ☆출콩완=豌(자회, 상: 13) <주> 一云 강남콩완.

출-기장: ☆출기장톨=稭(자회, 상: 12)

츠-쌀: ☆츠쌀나=糲(자회, 상: 12)

츠-떡: ☆츠떡즈=糍(자회, 중: 20)

‘쩍쩍 불도록 끈기가 있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메진 것에 대립된다.

「춤-」

춤-기름: 동을 알노니… 춤기름 어디 와 버르라 (월석 2:9)

춤-깨: ☆胡麻 춤깨 (사성통해, 상: 30), ☆춤깨 曰白荳 (자회, 상: 13)

춤-빚: ☆密枇子 춤빚 (사성통해, 상: 16), ☆춤빚비=篋(자회, 중: 14)

「들-」에 반대되는 가지로서, 야생적인 것에 대한, ‘인공을 잘 들인’의 뜻이다.

「표-」

표-범, 표-웁: 수멧는 표범은 隱豹(두언 21:29), ☆표웁표=豹(자회

상: 18)

「-웁」은 「범」의 변형이며, 「표-」는 한자어에서 왔으나, 가지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폴-」

폴-왁(火田): 폴왁 베후매 당당이 나를 虛費하리로소니=斫畚應費日(두언 7:17)

「-왁」은 分明히 「밭」(田)에서 변한 말일지니, 이 말은 \*「폴밭」의 변형이다.

\*폴밭>\*폴밭>폴왁

「폴-」의 말미는 똑똑하지 않으나, 혹은 움직씨 「꼭-」(掘)의 활용형이 나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

한-더: 한더 實흔 조흔 싸 우희 (월석 10:117)

‘방밖, 집밖’의 뜻이 가상된다.

「할-」

할-옷: 저근 할오새=小襦(두언 8:6)

‘두터운, 솜을 넣은’의 뜻을 가상할 수 있다.

「항-」

항-것(上典): 이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항것가 (월석 8:94)

이 가지는 ‘큰’의 뜻인 「한」에서 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4)

## 7. 뒷가지(접미) 파생어

뒷가지에 의한 파생어를 이름인데, 이에는 밑말의 품사를 안바꾸는 것과 바꾸는 것이 있다. 따라서 풀이씨를 파생하는 밑말은 풀이씨인 경

(24) 「한것」은 ‘많은것’의 뜻으로 쓰인다.

한것 金銀珍寶=衆物金銀珍寶(법화 2:219)



우와 그밖의 품사인 경우가 있고, 임자씨를 파생하는 밀말은 임자씨인 경우와 그밖의 품사인 경우가 있다. 그 이외의 경우도 모두 그러하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음직씨와 그림씨는, 그것을 구분할 기준이 확립되지 않는다. 의미 내용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며, 그렇다고 형태 상, 또는 통어 상의 구별도,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그다지 분명한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풀이씨나 임자씨는 더 이상 하위구분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밀말 「붉-」에서 파생된 「붉기다」의 「-이-」는 품사 안바꾸는 가지에 든다.

## 1) 풀이씨

뒷가지로 파생된 풀이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밀말이 풀이씨인 것과 그 밖의 품사인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밀말의 품사에 따라, 임자씨에서 파생된 것과, 그밖의 품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나뉘고, 다시 특별한 파생풀이씨로서 「‘ㅎ다’형 풀이씨」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파생풀이씨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보통 파생풀이씨 { 풀이씨에서  
임자씨에서  
그밖의 품사에서  
「ㅎ다」형 파생풀이씨

### (1) 풀이씨에서

1. 풀이씨에서 파생된 풀이씨는 그 수가 매우 많다.

#### (1-1) 하임말(사역어)

2. 하임(사역)을 나타내는 뒷가지 중의 보편적인 것은 「이」 계와 「오/우」 계인데, 이 두가지는 닿소리가 덧붙지 않고 그대로 쓰이는 경우와 「ㅎ」이나 「ㄱ」이 덧붙여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모두 여섯가지의 뒷가지가 나타난다.

#### (가) 「이」 계

3. 「이」 계에는 「-이-」, 「-히-」, 「-기-」의 세 형태가 있다.

## 「-이-」

4. 닿소리로 끝나는 줄기에 붙는 경우와 홀소리로 끝나는 줄기에 붙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닿소리로 끝나는 줄기는, 기본형태(基本形態)가 한 닿소리로 끝난 것도 있고, 두 닿소리로 끝난 것도 있다. (그러나 끝의 닿소리가 하나나 둘이나 하는 것은 별로 의의가 없다.)

### 5. 한 닿소리로 끝난 줄기:

거슬다 → 거스리다(逆): 天意를 小人이 거스려 = 小人逆天(용 74장) / 벼

를 거스려 해 자봄 곤항야 (월석 7:18)

긋다 → 그치다(絕): 식미 기픈 므른 ㄴᄃᄆᄇ 아니 그출씨 = 源遠之水

旱亦不竭(용 2장) / 한비를 아니 그치샤 = 不止霖雨(용 68장)

그을다 → 그우리다: 그 술위 절로 그우리 (월석 1:26) / 轉輪은 술위

를 그우리씨니 (월석 1:19)

기울다 → 기우리다(傾): 입 시우리... 기우리 아니함며 (석보 19:7) / 기

우린 蓋=傾蓋(두언 7:31)

길다 → 기티다(遺): 목숨 기트리잇가 = 性命奚遺(용 51장) / 보샤물 기

튜미 업스샤 = 所覽無遺(영가, 서:6)

깊다 → 기피다(深): 녀토시고 또 기피시니 (용 20장)

녹다 → 노기다(溶): 두려이 노겨 비취유미 = 圓融照了(능엄 2:18)

누다 → 누기다(弛): 누근 풀=稀糊(구급간이방 1:22) / 우디 마르쇼

셔 마스물 누기쇼셔 (월석 10:18)

늑다 → 니기다(熟): 오라면 工夫 | 니겨 = 久之工夫純熟(몽산 3-4) / 사

를마다 히여 수비 니겨 (훈, 언해)

다술다 → 다스리다(理): 만흔 민이 다스라 便安함며 (상원사 권선문) /

四天下를 다스리시다가 (월석 1:19)

닿다 → 다히다(接): 을흔 무릅 싸해 다혀 = 右膝着地(금강 6)

들다 → 드리다(入): 서되 드뤼 華瓶 (월석 10:119)

### 7. 뒷가지 파생어



먹다 → 머기다(食) : 원 藥을 머겨 (석보 9:36)

버들다 → 버드리다(繞) : 繞는 버들씨라(월석 2:21의 2), 허릿비에 五色光이 나샤 부텃기 닐굽불 버드스바 (월석 7:38) / 外六入은 여스시 疎홀씨 밋기 屬하니 識의 노녀 버드리는 싸힐씨 일후물 入이라 하니라 (월석 2:22의 1)

벌다 → 버리다(羅) : 每日 히도둑 뼈 供養엿 거슬 버리고(월석 10:120)

블다 → 브티다(焚) : 셋 그테서 브리 블더라(월석 23:81) / 브를 브티니 (월석 2:74)

블다 → 브티다(附) : 著은 브틀씨라(월석, 서:3) / 말싸마로 브틸씨 屬이오 (월석 18:13)

속다 → 소기다 : 白衣를 소기며 (월석 21:40)

「속다」의 용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스뫼다 → 스뫼치다(達) : 流通은 흘러 스뫼출씨라(훈, 언해) / 能히 그機를 順하샤 解 스뫼치시느니라 = 能順其機 而導達之(법화 5:36)

젓다 → 저지다(霑) : 能히 썰리 비를 느리와 이 大地를 저지라 (월석 10:101)

정다 → 저히다 : 公州 | 江南을 저하샤 (용 15장) / 부러 저히샤 살아자 받시니 = 故脇以生執(용 115장)

「저히다」는 「저리다」로 쓰인 데도 있다.

가히 저리고 제 즐겨하며 = 怖狗自樂(법화 2:118)

저려 아수며 허리 辱호미 = 劫奪毀辱(영가, 하:122)

이것은 단순한 소리 상통으로 나타난 어형으로 생각된다.

줄다 → 조리다(略) : 縮은 줄씨라(월석 10:122) / 夜叉와 摩睺羅를 버리더 아니호든 조리니라 = 不列夜叉摩睺羅 略之也(법화 1:52)

좃다 → 조치다 : 길흘 조차 들니다가(석보 9:15) / 더 空들흘 조치샤 몬 = 兼彼空等(능엄 3:105)

「좃다」는 현대말 ‘좃다’와 같은 뜻이지만, 「조치다」는 ‘결하다’의 뜻으로, 두 말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나, ‘...을 좃게 하다’ → ‘결하다’와 같은 뜻의 유용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된다.

〈밀말이 통어적 합성어인 것〉

당가들다 → 당가드리다 : 제 아기 아들 당가드리고 (석보 6:22)

물들다 → 물드리다 : 혼번 물드류매 一切 물드느니라 = 一染一切染(금강삼가 3:46)

6. 日 변격의 경우에는, /日/이 다음과 같이 변동한다.

日 → 日 > 노, 우 또는 탈락

(여기에서는 日을 기본으로 삼았으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pp. 450-1)

눅다 → 누이다, 뉘이다(臥) : 누본 남기 (용 84장) / 이 方은 淤膿을 거튼 드르헤 누이며 (월석 18:39), 거튼 드르헤 뉘이며 (법화 6:154)

더럽다 → 더러히다, 더러이다 : 塵은 더러부므로 뜯하니 (월석 2:22의 1) / 어버의 일후물 더러히느다 (월석 8:97), 조흔 막스물 더러이며 = 汙淨心(능엄 2:95)

「더러이-」가 겹소리로서 축약된 꼴도 쓰인다.

淨은 뜯 든그리 더러여 마리오미 드외디 아니호물 니르시니 = 淨言不爲情塵染蔽也(법화 6:57)

어둡다 → 어두이다 : 알피는 어드본 길헤(용 30장) / 어드우미 能히 어두이디 못하느 거슨 = 暗不能昏者(능엄 4:119)

「어둡-」은 「어둡-」으로 변동(수의 변이)되는 일도 있기는 하나, 초기 문헌에는 「어둡-」이 더 많이 쓰인다.

六根이 어둡고 (법화 2:168)

雲霧 | 어드우면 또 어둡고 (능엄 2:28)

그러나 하임말에서는 밀말의 뿌리는 항상 「어둡-」으로 나타나는 점 특이한데, 이것은 아마 \*「어드이-」의 두 음절이 비슷한 소리인 데서 오는 어형 축소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이화작용의 소치로 생각된다. (25)

(25) 이화작용(異化作用)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 참조.

허 용 : 언어학 개론 p.159.

그리고 조금 후기 문헌에서는 「어둡-」형이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하임말 끝에 유추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마 어둡거늘(두언 중간 1:13)

어두우며 서늘호 니피오(두언 중간 20:9)

원간에는 「어드우며」로 되어 있음.



7. 하나의 닿소리로 끝난 줄기는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그 끝 닿소리는 /i/의 첫소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ㄷ」변격과, 「ㄹ」변격 중의 어떠한 말에 있어서는, 「ㄹ」이 윗음절의 끝소리로 남아서, [l] 소리로 바뀐 것을 표시하고 있다.<sup>(26)</sup>

길다→길이다(汲): 旃檀井에 물 길디시니 (월석 8:78) / 물을 길이시니 (월석 8:84)

듣다→들이다(零): 曼陀羅花 | 듣거든 (월석 7:58) / ☆내 눅므를 들곤 뜻덧 소리에 들이노라 =客淚墮清筋(두언 중간 3:25)

듣다→들이다: 安樂國이 바리 逃亡하야 들다가 (월석 8:98) / 들이느 들 두니 =突騎(두언 25:45)

뜯다→뜯이다(零): 籠竹이 너를 섯거시니 이스리 뜯든 가자 로다 =籠竹和烟滴露梢(두언 7:1) / 눅므를 뜯들이노라 =涕泣零(두언 8:31)

듣다→들이다(聞): 네 차려 드르라 (석보 13:46) / 法을 닐어 沙彌를 들이니 (월석 7:21)

8. 「ㄹ」변격은 앞에 나온 「줄다→조리다, 벌다→버리다, 버물다→버프리다, 들다→드리다, 다술다→다스리다, 거술다→거스리다」 따위 모두 정상적으로 줄기 끝 닿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되어 내려가는데, 다음 말들은 「ㄹ」이 받침으로 남아서, /ㄹ/ 음소가 [l] 소리로 실현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긋블다→긋블이다: 긋브러서 請하습노니 =伏請(능엄 3:112) / 方便力으로 그 긋스물 부드럽게 긋블인 後에 사=以方便力 柔伏其心然後(법화 2:252)

놀다→놀이다(遊): 고기 그므레 노트 하야(월석 21:49) / 棚入 그데 꼭도 놀요물 보라 =看取棚頭弄傀儡(금강삼가 2:25)

(26) 「ㄹ」은 초성으로 쓰일 때는 [r] 소리이고, 종성으로 쓰이면 [l] 소리로 바뀌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허웅: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 p.356 이하.

놀다→놀이다(飛): 海東 六龍이 놀르샤 (용 1장) / 굿븐 썩을 모더 놀이시니 (용 88장)

돌다→돌이다: ☆열 사르미 훈숨곰 돌여 치라 =十箇人一宿家輪着喂(초간 박통사, 상:21)

말다→말이다(禁): 이 쁘들 닛디 마르쇼셔 (용 110장) / 하리로 말이 스볼들 (용 26장)

멀다→멀이다(瞽): 瞽는 눈 멀찌라(월석, 서:3) / 迷惑 즐교미 눈 멀유메 着하엿느니 =著樂癡所盲(법화 1:233)

▽「멀다」의 하임말로 「멀우다」가 또 있는데, 그 뜻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p.163)

불다→불이다: 불티며 주라 불이고 가더니 (석보 23:57)

빌다→빌이다(乞, 借): 와 비는 사르물 주리여(석보 9:12) / 여섯 하느래 그디 가들 찌비 블써 이도다 하고 道眼을 빌여늘 須達이 보니 (석보 6:35)

썰다→썰이다: 아비 고마를 아랫옷 썰이디 말며 =諸母不漱裳(내훈 1:4)

살다→살이다(居, 住): 慶興에 사르샤(용 3장) / 城 밧기 닐굽 덜 일어 중 살이시고 城 안해 세 덜 일어 중 살이시니라 (월석 2:77)

울다→울이다(鳴)<sup>(27)</sup>: 보비엿 바오리 울며(석보 13:24) / 興心이...白玉珂를 울요매 잇도다 =興在...白玉珂(두언 21:17)

<밑말이 합성어인 것>

브티들다→브티들이다: ☆옷 브티들며 =牽衣(두언 중간 4:1) / 아히를 브티들여 고기 낚는 돌해 셔쇼라 =兒扶立釣磯(두언 24:50)

9. ㅅ 변격에 있어서는 ㅅ은 △으로 변동하면서 받침으로 남는다.

닛다→닛이다: 브리는 무기 잇거든 쑈 닛여 찌이샤 =有荒蕪棄者亦

(27) 「울-, 살-, 빌-」 따위는 모두 상성인데, 파생어에서는 평성으로 변동한다. 상성 줄기의, 평성으로의 변동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허웅: 중세 국어 연구 (1963, 정음사) p.335 이하, p.341 이하.



俾緝而織之(내훈 2하:51)

웃다→웃이다: 位 업슨 眞人을 웃이리로다 =笑殺無位眞人(금강삼가 2:28)

짓다→짓이다: 므스글 질유려 흥는다 =欲何所作(법화 2:20C)

### 10. 두 닿소리로 끝난 줄기:

잡다→갓기다(剃): 難陀의 머리를 가사라 하야시닐 (월석 7:8) / 부 데 阿難일 시기샤 羅睺羅의 머리 갓기시니 (석보 6:10)

끓다/글히다(沸): 몸과 이비 글히 녹소스며 =身口沸騰(영가, 하:72) / 흥 가마애 빈 므를 글히더니 (월석 7:13)

취다→깃기다(喜): 命世才를 即日에 깃그시니(용 27장) / 耶輸를 깃 교리라 (천강국 상, 기 146)

죃다→죃기다(勞): 詩를 采取하리 跋涉호물 죃가하느니 =采詩倦跋涉 (두언 6:23) / 사르물 죃기며 므를 害하야 =勞人害馬(두언 15:21)

▽「죃다」의 하임말로는 「죃고다」가 쓰이기도 한다. (→p.162)

달다→달히다(煎): ☆ 기르른 불마로써 제 달코 =膏以明自煎(두언 중간 2:69) / 香水를 달혀 가져 =煎取香水(능엄 7:16)

맡다→맡디다(任): 나라를 맡드시릴씨 (용 6장) / 仁政을 맡도리라 (용 83장)

맑다→물기다(淸): 性智 맑고 괴외하며 (월석, 서:1) / 므숨 물겨 =淸心(금강 76)

밝다→블기다(明): 天性은 블마시니(용 71장) / 마초아 블교리라=合 明호리다 (능엄 2:87)

### 11. 홀소리로 끝난 줄기에 「-이-」가 연결되면 두 홀소리가 한 겹홀소리로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인듯 하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전나(너)다→전내(네)다(渡): 프를 불오며 므를 전니매=跋涉(두언 8:58), 度는 生死大海에 전닐씨니 =度者渡生死大海也(금강 18) / 내 眞

實入 므스믄로 아바님 보습고져 흥거든 브르미 부러 더 마새 전내 쇼셔 (월석 8:99) / 너를 전내요미 올흥니라 (육조, 상:33)

나다→내다(出): 새 님 나니이다 (용 84장) / 男女를 내스블니(월석 1:2)

더나다→더내다(過): 半길 노퀸들 년기 더나리잇가 (용 48장) / 굴허 에 므를 더내샤 (용 48장)

셔다→세다(立): 아바님 뒤헤 셔샤 (용 28장) / 中興主를 세시니 (용 11장)

자다→채다(眠): 마룬 마새 자거늘 (용 67장) / 須達이 護彌 지빅 니 거늘 護彌 깃거 나아 迎逢하야 지빅 드려 채더니 (석보 6:15-6)

꼭다→퓌다(掘): 龍 모손 前劫入 지에 퓌엿도다 =龍池塹劫灰(두언 11:38)

흥다→히다(爲): 王이 돌해 刻히샤 (월석 2:49), 사름마다 히여 수히 니겨=使人人易習 (훈, 언해)

▽이 말은 「-아/어」 활용형에 있어서 긴장홀소리(緊張母音)를 취하는 일이 있고, (28) 또 하임의 뒷가지를 겹으로 한 「히오-」가 쓰이기도 한다.

### 12. 이상의 예는 모두 한 음절의 겹홀소리로 줄어진 것들이나, 다음의 말은 두 음절의 홀소리 충돌(히아투스)로 남는다.

빅호다→빅호이다(學): 學은 빅홀씨라 (석보, 서:2) / ☆ 불러 히여 곱 붓 두드류믈 빅호이느다 =召命習鼓鞀(두언 중간 4:11)

▽이 「빅호이다」의 예는 두언 중간에서 뽑은 것인데, 그 원간에는 무엇이 되어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로 여기 실어 둔다.

츠다→츠이다, 킷다(除糞): 똥을 츠더니(월석 13:22) / 너를 똥 킷유려 호론(월석 13:21), 똥을 츠이고 네 갑술 倍히 주리라 (법화 2:241)

니기다→니기이다: 后 | 아래 元世祖入 后의 놀근 활시울 니기시던 이를 드르시고 또 命하야 가져다가 니기이샤 빠 니블 땡마르샤=后 嘗聞元世祖后 煮故弓絃事 亦命取練之 織爲衾褥(내훈 2하:51)

(28) 「○○」에 대해서는 p.57-8 참조.



부비다 → 부비이다 : 거집종을 하야 藥을 부비이더니 = 使婢丸藥 (내훈 1:61)

고티다 → 고티이다 : 겨뒗 사르물 비러 爲하야 冠을 고티이노라 = 倩傍人爲正冠 (두언 11:33)

13. 다음과 같은 말은 일단 「-이-」가 붙어 겹홀소리가 된 데다 다시 「-이-」를 덧붙인 예이다. 이것은 「-이-」의 존재를——따라서 하임의 뜻을——강조하기 위함이다.

빠다 → 빠이다 : 뵈 뵈 사르미 시뵈 다스릴제 브리는 무기 잇거든 쪼 님여 빠이사 = 俾緝而織之 (내훈 2하:51)

츄다 → 치이다 : 누뵈 치이고 = 施擊 (내훈 1:84)

꼭다 → 꺾이다 : 帝 | 무덤을 꺾이니 오직 빈 棺에 흔뵈 갓신이 잇더라 (남명, 상:52)

14. 「르」 (ㄹ) 변격(變格)에 있어서는 끝 홀소리의 /으, 으/가 줄고, ㄹ은 앞 음절의 종성이 되는데, 이것은 /ㄹ/이 [l] 변이음이 된 것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때로는 ‘ㅍ’로 표기되는 일도 있다.)

므르다 → 물리다(退) : 므르디 아니하느 菩薩들히 (석보 13:42) / 모던 도조굴 물리시니이다 (용 35장)

브르다 → 불리다(召) : 病흔 내 녀슬 難히 브르리로다 (두언 21:23) / 서너헛 스시에 큰 나라히 드와어늘 王이 뉘으쳐 불리신대 (월석 2:7)

어르다 → 일이다(嫁) : 룡담하야 남진 어르기를 하며 (월석 1:44) / 父母 | 나를 北方 싸르물 일이시니 (월석 10:23)

오르다 → 올이다(登) : 누미 오르리잇가 (용 48장) / 石壁에 ㅁ를 올이사 (용 48장)

ㄱ「올이다」가 ‘進上’의 뜻으로도 쓰임은 오늘날과 같다.

進은 올일씨라 (월석, 서:13)

흐르다 → 흘리다(流) : 流通은 흘러 스ㅁ출씨라 (훈, 언해) / ㅁ물을 흘

리시고 (월석 8:83)

15. 다음 말들도 끝의 /으/ 음이 줄어진다.

즈ㅁ다 → 줌기다(鎖) : 目連이 耶輸入 宮의 가보니 門을 다 즈ㅁ고 (석보 6:2) / 耶輸 | ...羅睺羅 더브러 노푼 樓 우회 오르시고 門들 흘 다 구디 줌겨 뒗더시니 (석보 6:2)

ㄱ「즈ㅁ다」의 줄기는 홀소리 형태소(홀소리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붙을 때는, 「즈ㅁ-」으로 변동한다. (→p.462)

柴門을 속절업시 다다 술와 땃 서리에 줌겻는고 = 柴門空閉鎖松筠 (두언 7:33)

따라서 「줌기-」는 「즈ㅁ-」의 변이형태인 「즈ㅁ-」과 하임의 뒗가지 「-이-」로 분석된다.

비스다 → 빙(빙)이다 : 고조로 비슨 각시(천강곡 상, 기 51), ㅁ장 빙어 (월석 7:3) / 大王이... (그 딸을) 위두흔 오스로 빙이시고 (석보 11:28), 金剛座 빙이고 獅子座를 세스바 (천강곡 상, 기 65)

「-히-」

16. 당소리 밑에만 붙음.

곧다 → 고티다(改) : 變은 고티 드윳씨니 (석보 11:11)

굽다 → 고평다(曲) : 善宿 | 손 고평 날 헤여 닐웨에 다드라 (월석 9:36 상)

굳다 → 구티다(固) : 모뵈 구터 = 固身 (능엄 10:60)

굽다 → 구피다(曲) : 등 구포미 못하리라 = 不可背曲 (몽산 24)

굽다 → 글키다(擻) : 아히로 흰히 등어리 글키고 = 令兒快擻背 (두언 15:4)

넙다 → 너피다(廣) : 阿彌陀佛入 變化로 法音を 너피실씨 (월석 7:58-9)

늦다 → 느치다(遲) : 問罪江都를 느치리잇가 (용 17장)

돋다 → 도티다(起) : 文身은 모매 文 도틸씨오 (법화 5:14)

맞다 → 마치다 : 亭上牌額을 세사를 마치시니 (용 32장)

ㄱ다음도 이 말의 하임이다.



毒이 마초미 毒의야 (월석 17:20)  
그러나 이말은 다음과 같은 어형도 보인다.

毒이 마초미 毒의야=爲毒所中(법화 5:157)

묻다→무티다(染): 모매 묻지 무티시고 (월석 21:219)

받다(受)→바티다(貢): 海中엿 五百 흥정바지 보배 어더 와 바티스  
블며 (월석 2:45)

앉다→안치다(坐): 比丘란 노피 안치시고 王은 늦가비 안즈샤(월석  
8:90-1)

잡다→자피다(捕): 그 法에 상네 門 자피 두고 ㅎ다가 쫓쳐 오거든  
썰리 門을 열라 ㅎ엿더니 (월석 10:25)

〈밀말이 파생어인 것〉

더위잡다→더위자피다: 神靈을 세여 棟樑을 더위자엿고 =立神扶棟樑  
(두언 6:2)

「더위자피-」는 제일차적으로 「더위-자피-」로 분석할 수도 있겠으나(그렇  
게 되면 앞가지 파생어가 된다), 여기에서는 「더위잡-히-」로 먼저 분석하  
고, 다음으로 「더위-잡-」을 분석해 내는 방법을 취한다.

「-기-」

17. 닿소리 밑에서만 쓰임.

덮다→덮기다(染): 心魂이 이대 아로매 덮머 =心魂染於靈悟(능엄 9:  
58), 白은 덮디 아니호물 니르고 (월석 13:14) / 心魂이 이대 아로  
며 덮규므로 心光이 窮究하야 불가 =心魂이 靈悟의 所染으로 心光이  
研明하야 (능엄 9:57)

빳다→빳기다(脫): 니버 잇더신 鹿皮 오솔 바사 (월석 1:16) / 투구  
아니 빳기시면 (용 52장)

벗다→벗기다: 生老病死를 벗기샤 (석보 13:28)

빚다→빚기다(梳): 솔로 빚기면 (월석 1:27)

숨다→숨기다: 娑婆佛身은 勝을 숨기시고 劣을 나토시니 (월석 18:  
72)

씻다→씻기다: 九龍이 모다 씻기스블니 (월석 2:34)

웁다→웁기다(移): 우리 나랏 말로 웁겨 씨 퍼면=方言騰布(월석, 새  
:23)

18. 이상의 세가지 변이형태 「-이-」, 「-히-」, 「-기-」는 어떤 조건 하  
에 구별 사용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세가지 형태가 줄기의 홀소리에  
의해서 변이된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음성적 조건에 변이의 원인  
을 구한다면, 줄기의 끝소리로 규정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 밑말의 줄기 끝소리의 종류에 따라 이들 하임말을 배열  
해 보기로 한다.

「-이-」-ㄷ(변격): 거스리다, 그우리다, 기우리다, 다스리다, 드리다, 버리다, 바  
드리다, 조리다, 굶붙이다, 놀이다, 놀이다, 말이다, 멀이다, 불이다,  
빌이다, 썰이다, 살이다, 울이다.

-ㄷ(변격): 길이다, 들이다, 뜯들이다, 돌이다.

-ㄹ(변격): 누이다, 더러비다, 어두이다.

-ㄴ(변격): 낯이다, 웃이다, 짚이다.

-ㄴ(ㄹ) (변격): 물리다. 얼이다, 올이다, 흘리다.

-ㅁ: 줄기다.

-ㄱ: 노기다, 누기다, 니기다, 머기다, 소기다.

-ㅈ: 저지다.

-ㅎ: 다히다, 저히다(저리다).

-저센소리: 기티다, 브티다; 기피다; 그치다, 조치다(兼)

-ㄹ: 물기다, 불기다.

-ㄹ: 글히다, 달히다.

-ㅅ: 갓기다, 깃기다, ㄱ기다.

-ㅅ: 맞디다.

-홀소리: 전내(네)다, 내다, 디내다, 세다, 재다, 뛰다, 히다; 빙호이다,  
츠이다, 니기이다, 부비이다; 빼이다, 치이다, 뛰이다.

「-히-」-ㄷ: 고평다, 구피다, 너피다, 더위자피다, 자피다.

-ㄷ: 고평다, 구티다, 무티다, 바티다.

-ㅈ: 느치다, 마치다.

-ㄹ: 글키다.

-ㅅ: 안치다.



『-기-』-ㅅ : 밋기다, 벗기다, 밋기다, 씻기다.

-ㅁ : 숨기다.

-ㅂ : 덮기다, 읊기다.

19. 이로써 보면, 줄기 끝소리에 따라 어느 정도는 제약을 받는것 같으나, 그 수가 적어서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느치다」와 「저지다」, 「물기다」와 「글키다」는 끝 소리가 같은데도 가지가 다르므로, 하임의 가지 「-이-」, 「-히-」, 「-기-」는 형태적 변이형태(형태론적으로 설명되는 변이형태)로 보아 둘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 (나) 「오/우」 계

20. 「오/우」 계에는 「-오/우-」, 「-호/후-」, 「-고-」의 세 변이형태가 있다. (「이」 계와 병행)

「-오/우-」

21. 닿소리 밑에 쓰인 예 :

저다 → 쫓고다 : 디나 둔노매 俗人의 양즈애 쫓가하다니 = 經過倦俗態 (두언 15:4) / 筋骨을 몬져 쫓고샤 (용 114장)

▽이 말의 하임말로 「쫓기다」도 쓰였음은 앞에서 기술한 바이다. (→p. 156)

낫다 → 나소다(進) : 오직 낫고 물롬 업수미 = 唯進無退(능엄 8:18) / 사 룻돌 나소시며 = 進人(영가, 하:138)

넋다 → 녀토다(淺) : 虛空의 녀트며 기꾸미 = 虛空淺深(능엄 3:87) / 바 룻래 비 업거늘 녀토시고 쫓 기피시니 (용 20장)

돌다 → 도도다(昇) : 벼스를 도도시니 (용 85장)

몰다 → 모도다(集) : 方國이 해 모드나(용 11장) / 천량 모도아 두고 (석보 9:12)

▽「모도다」와 같은 뜻으로는 「되호다」가 더 많이 쓰였다.

천량을 만히 되호아 두고 (석보 9:12)

횃돌다 → 횃도로다 : 輪廻는 횃돌씨라(월석, 서:4) / 西江에서 머리를 횃울로 횃도로노라 = 西江首獨回(두언 11:29)

가도다 : 獄은 사름 가도는 싹히라 (석보 9:8)

▽「간다」의 하임말 같은데, 분명하지 않으나, 우선 여기 넣어 둔다.

그뻬 부테 神足 가드시고 (월석 7:54의 1)

거두다 : 法華는 ㅁ을 거두우미오 = 法華秋穫(능엄 1:19)

▽이 말도 「견다」의 하임말 같으나 분명하지 않다.

새 거든 바를 = 新卷簾(두언 7:11)

22. 줄기의 「ㄹ」 끝소리는 중성으로 남는데, 이것은 /ㄹ/이 [l] 변이음으로 발음되었음을 포기하는 방법이었다.

갓꼴다 ← 갓꼴오다(倒) : 毒의 마초미 ㄷ외야 ㅁ스미 갓ㅁ라 (월석 17:20) / 爛慢히 꾹다온 酒樽을 갓꼴오리로다 = 爛慢倒芳樽(두언 21:23-4)

기울다 → 기울우다(傾) : 네 色과 空과로 如來藏애 서르 기울우며 서르 아슬씨 = 汝以色空 相傾相奪如來藏(능엄 4:44)

▽「기울다」의 하임말로 「기우리다」도 쓰였음은 앞에(p.151) 기술한 바이다.

길다 → 길우다 : 種種엿 모딘 罪業을 길워 (석보 9:17)

달다 → 달오다 : 구리 기들 붉게 달와 (월석 21:80)

머물다 → 머물우다(留) : 부들 머물우디 아니하듯다 = 筆不停(두언 6:19)

멀다 → 멀우다(瞽) : 智慧入 누늘 긴 劫에 멀워 = 瞽知眼於永劫(월석, 서:3)

얼다 → 얼우다(凍) : 얼우시고 쫓 노기시니 (용 20장)

어울다 → 어울우다(合) : 습은 어울씨라(훈, 언해) / 千萬가짓 어울운 쥬 (석보 19:17)

열다 → 열우다(結實) : 空엿 果實을 열우려호 하니 = 結爲空果(능엄 4:41)

오을다 → 오을오다(全) : 力量이 오을며 ㅁ자 = 力量全備(몽산 46) / 衆生들히 ㅁ스돌 오을와 혼고대 고즈기 머저 (월석 8:5)

일다 → 일우다(成) : 내히 이러 (용 2장) / 二將之功을 一人이 일우시니 (용 49장)



저물다 → 저물우다(暮) : 又 안해서 저물우리니 = 終朝域內(영가, 하 : 83)

지졸다 → 지졸우다 : 平床을 지졸듯도다 = 欲壓床(두언 16 : 44) / 有情을 지졸우며 빠디여 = 壓溺有情(원각, 상 1-2 : 86)

헐다 → 헐우다(破) : 지비며 다미며 두루 헐더니(월석 7 : 17) / 돌썩른 오솔 걸위여 헐우고 = 石角鉤衣破(두언 15 : 6)

\*가홀다 → 가홀오다 : 굴글 여러 餅을 가홀오매 = 開孔倒餅(능엄 2 : 122)  
「가홀오다」의 밑말인 \*「가홀다」는 없으나, 이 어형과 그 뜻으로 보면 하 입말임이 분명하다.

### 23. 다음은 홀소리 밑에 쓰인 예. (/i, j/에 연결됨)

빠디다 → 빠디우다(沒) : 모든 有學이 혼갓 해 드로매 빠디고 = 諸有學空溺多聞(능엄 2 : 78) / 生死를 간대로 조차 本覺을 빠:디·워 보릴씨라 = 妄隨生死 淪替本覺(능엄 2 : 79)

「빠디다」는 「ㅍ+어+디-」의 합성이며, 「디-」는 제(도움)움직씨인데, 「빠디우다」의 「디-」는, 그 방점법으로 보면 남움직씨이다.(p.173 「디다」 참조) 즉 「빠:디-」는 이미 남움직씨가 되어 있는 말이었을텐데, 여기에 「-우-」가 다시 붙은 셈이다.

마리다 → 마리오다(蔽)<sup>(29)</sup> : 須彌山이 마리면 바미라(월석 1 : 30) / 羅睺羅는... 마리오다 혼 뜨다니 솟바다을 드러 히드를 마리와돈 日月食하느니라 (월석 2 : 2)

찌다 → 찌오다(覺) : 오라거사 찌야(월석 21 : 22) / 춘 트리 能히 찌오든 (월석 13 : 18)

느리다 → 느리오다(降) : 帝命이 느리어시늘 (용 8장) / 天爲拯民하샤 天才를 느리오시니 (용 32장)

(29) 하임말은 「마리ㅅ-」로 표기된 데도 있다.

사근티게론 더러본 서근 내를 마리ㅅ며(월석 18 : 39)

이 어형으로 보면, 「-오/우-」 형태소는 원래 「\*ㅅ-ㅅ/ㅅ-」이었지나 앉았을 까 하는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당소리 밑에도 「-오/우-」가 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오」의 입술 둥글음을 더 강조한 발음을 「ㅅ」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데다 → 데우다(焦) : 브름 거스려 왜 자봄 마득야 노하브리디 아니호면

당다이 제 모미 데오 (월석 7 : 18) / 데운 丸 = 焦丸(능엄 8 : 97)

드리다 → 드리우다(垂) : 우희 드린 구스리 이셔 (월석 10 : 21) / 如來 | 金色 불홀 드리우샤 = 如來垂金色臂(능엄 2 : 12)

마키다 → 마키오다(質, 證) : 곧 眞實入 네 性이어늘 엇데 眞實 아닌가 疑心하야 내게 마키오물 求하느다 = 即眞汝性 何疑不眞 而求質於我也(능엄 2 : 39) / 本來入 일후를 마르쳐 父子의 明白호물 마키오니라 (월석 13 : 31)

메다 → 메우다(駕) : 보빅 꾸문 술위에 象이 메더니 (천장곡 상, 기 119) / 큰 흰 쇠... 양지 고으니로 寶車 메우고 (법화 2 : 140)

뫼다 → 뫼우다(動)<sup>(30)</sup> :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아니 뫼썩(용 2장) / 하 놀히 마스물 뫼우시니 (용 102장)

뫼다 → 뫼우다 : 世子△位 뫼어시늘 (용 101장) / 마스물 뫼워 줌줌하야 = 割心默然(능엄 7 : 69)

비리다 → 비리우다(腥) : 비린 피를 (월석 21 : 124-5) / 되들히 四海를 비리우니 = 羯胡腥四海(두언 23 : 55)

비취다 → 비취우다(照) : 구루미 비취여늘(용 42장) / 燧 비취워 불 내요미 이라 = 照燧生火是也(능엄 4 : 42)

쉬다 → 쉬우다(休) : 점점 쯏븐 히물 쉬우노라 = 稍稍息勞筋(두언 20 : 29-30)

어리다 → 어리우다(愚) : 愚는 어릴씨라 (훈, 언해) / 손지 客塵의 어리워 마료미 드윈 전칠씨 = 尙爲客塵迷障故也(능엄 1 : 104)

여위다 → 여위우다(澗) : 모시 다 여위며(월석 1 : 48) / 부테 煩惱 바

(30) 이 말은 「뫼우-」로 표기되는 일이 있다.

호 일흠 智積은 智 싸흠 이슈물 브틀씨 업디옌매 잇는 識이 드외니 뫼 뫼내야 싸호미 업스면 大通勝智 드외리라(월석 14 : 14)

이것은 하임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j/ 다음의 /u/를 tense 로 발음한 것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ㅅ」의 발음에 대해서는;

히 음 : 국어음운학 <개고신판> p.337 참조.



를 여위우샤미 존하니라 (월석 2:16)  
외다 → 외오다(誤): 聖性에 외다 터시니 (용 107장) / 날므를 외오시  
니 (용 68장)

뛰디 → 뛰우디(騰): ☆ 물 들어 瞿塘入 돌하로 뛰여디게 흘시라 (두언  
중간 3:5) / 현번 뛰운들 늑미 오로리잇가 (용 48장)

뛰다 → 뛰우다(焚): 비늘와 터럭마다 불와 너와 뛰며 (월석 7:35) /  
種種기 香 뛰우고 (석보 9:22)

호리다 → 호리우다(濁): 中國 風俗을 호리우디 아니호리니(월석 2:72)

24. 다음 말들은, 말하자면 겹하임말이라고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히오다(←하): 神을 돌기며 慮를 靜히와 =神清慮靜(영가, 하:27),

魔를 降히와 (능엄 5:59)

▽히다도 하임말로 쓰인다. (p.157)

조히오다(←종다): 毗尼를 식식기 조히와 =嚴淨毗尼(능엄 1:24), 三受  
를 心源에 조히오고 =淨三受於心源(영가, 하:76)

▽이 하임말로 보면, 「종다」의 옛꼴이 혹시 \*「조하-」이었지나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찍우다, 찍오다(←프다): 프레 찍오고(월석 8:99), 프리 能히 찍우디  
몰하야 (월석 18:56)

힘뵈우다(←힘쁘다): 제여곰 힘쁘라 =各勉旃(두언 20:10) / 한 사록물

힘뵈우시니라 =勉衆也(법화 4:136), 燈明이 힘뵈우신 마리시니라  
=燈明...勉勵之辭(법화 1:122)

▽뵈말은 통어적 합성어이다.

26. 그리고 「오/우」계의 한 변형으로 「-외/위-」가 있지나 않았을까  
생각하게 하는 예들이 몇가지 있다.

알외다: 꾸므로 알외시니 (용 13장)

▽이 말은 「알-」(知)의 하임말일지 분명하다.

앗외다: 導師는 法 앓외는 스스로이니 (석보 13:16)

▽이것은 「向」의 뜻인 「앗-」의 하임말일 것이다.

무퇴 올라 將次入 길홀 아사 가느니 =登陸將首途(두언 8:53)

걸위다: 돌 켜른 오솔 걸위여 헐우고 =石角鉤衣破(두언 15:6)

▽「걸위-」도 「걸-」에서 파생된 말로 보아지나, 그 하임의 뜻이 그리 분명  
하지 못하다.

「-호/후-」

27. 달소리 밑에 붙음.

날다 → 나토다(現): 話頭 | 自然히 나드면 =話頭...自然現前(공산 8)

神通力을 나토샤 =現神通力(월석, 서:6)

맞다 → 마초다(適): 合掌은 숭바당 마촐씨라 (월석 2:29)

▽「맞다」의 하임으로는 「마치다」도 나타나나, 두 말의 뜻은 다르다.

긋다 → 마초다(備): 菩薩入 相好 | 다 마즈시며(월석 2:26) / 되 征伐

호물 마초아하듯다 =備征狄(두언 7:25)

▽「마초다」는 '감추다'의 뜻으로 쓰이는 일이 많다.

얼조바 마초수바 (용 27장)

긋다 → 고초다(拱): 고줄공=拱 (자화, 하:26) / 諸天이 손 고초습고  
(월석 7:37)

멧다 → 머추다(停): 兵馬를 머추이시니 (용 54장)

▽「멧다」는 이 때의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

「-고-」

28. 달소리 밑에. (그 예가 매우 드물다.)

숫다 → 숫고다(湧): 法羅는 너븐 엇게니 바룩 므를 숫고느니라 =法

7. 뒷가지 파생어



羅는 云廣肩이니 滄海水者라 (법화 1: 51)

29. 「오/우」 제가 붙는 모습을 총괄해 보면,

「-오/우-」-ㄹ: 머물우다, 따위.

-/j/(뎡이): 켜오다, 따위. (히오다, 조히오다)

-/i/: 느리오다, 따위.

-ㄷ: 모도다, 도도다, 따위.

-ㅌ: 너토다.

-ㅈ: 쫓고다.

-ㅅ(변격): 나소다.

[참고] 앓되다, 알되다, 걸워다(?)

「-호/후-」-ㅈ: 마초다, 고초다, 머추다.

-ㄷ: 나토다.

「-고-」 -ㅅ: 솟고다.

30. 「오/우」 제도 「이」 제와 같이, ㅎ, ㄱ을 취한 변이형태와 그렇지 않은 변이형태 사이에 분명한 음성적 변이 조건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우」 제와 「이」 제 사이에도 그 변이의 음성적 조건이 분명하지 않다. 다만 /i, j/ 밑에서는 반드시 「-오/우-」가 쓰이는 것이 현저한 특색인데, 이것은 이 음소 밑에서는 「-이-」가 잘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1.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하임말의 가지에는 「오/우」 제와 「이」 제가 있고, 각 계열에는 다시 ㅎ, ㄱ 탕소리를 취한 것이 있어서 모두 여섯의 변이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중 「-오/우-」가 /i, j/ 밑에서 다른 변이형태와 배타적으로 쓰임이 특이하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확실한 음성적 변이 조건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볼 때는, 이 변이형태들의 변이 조건은 형태적이라 할 수 있다.

#### (다) 하임의 의미 내용

32. 「하임」이란, 하임의 주체(主體, 시키는 사람)가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켜,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의 하임말에 있어서는, 하임의 주체는 실지 행동은 하지 않고, 실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은 시킴을 받는 사람이다. 즉

아히로 흰히 둥어리 글키고 (두언 15: 4)

에 있어서, 「아히」는 시킴을 받는 사람인데, 이 행동을 사실상 하고 있는 사람은 「아히」이며, 「글키-」의 주체는 시키기만 하고 실지 행동은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의 하임말이다.

33. 그러나, 우리가 하임말이라 불렀던 것은, 이러한 전형적인 예는 오히려 드물고, 하임말의 주체가 실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34. 이제 하임의 주체와 시킴 받는 사람과의, 행동에 관여하는 정도를 살펴 보면,

첫째, 「글키고」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시킴 받는 사람만이 실지 행동을 하고, 하임의 주체는 명령만 할뿐, 실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인데, 이에 속할 예들은 「빅호이다, 켜오다, 머물우다, 모도다」 따위이다. 이에 있어서는 시킴 받는 사람이 하고 싶거나 하기 싫거나를 묻지 않고, 시켜서 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하임의 주체가, 시킴 받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게 된다. 즉 「글키-, 빅호이-, 켜오-, 자피-」 따위 예들은 명령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것을 「명령적(구속적) 하임말」이라 한다.

구속적 하임말은 구속의 주체가 단순히 시키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이 행동을 하는 일도 있다. 이를테면, 「(몸을) 씻기다, (구두를) 벗기다」 따위에 있어서는, 하임의 주체가 명령만 하는 데 그치는 일도 있겠으나, 실지로 남의 몸을 씻기고, 남의 구두를 벗기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하임의 주체가 시킴 받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는 일이 없는 경우인데:



지킴 드러 재더니 (석보 6:16)

따위가 그 예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하임의 주체가 이 행동을 허용한다는 점으로 앞의 구속적 하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 경우에는 대개 시킴 받는 사람 자신이 하고 싶은 의사를 가진 것으로서, 하임의 주체는 그것을 허용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살이다」 따위도 그 예인데 이것을 「허용적 하임말」이라 한다.<sup>(31)</sup>

그러나 이 첫째와 둘째의 구별은 확고하지 않다. 「재다」도 강제성을 띠 수 있는 것이다.

세째, 소위 하임말의 대다수는, 이러한 구속이나 허용의 뜻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種種 7 香 뛰우고 (석보 9:22)

막수물 뵈워 (능엄 7:69)

막수물 뵈우시니 (용 102장)

따위에 있어서는 시킴을 받는 것이 사람이 아니어서 구속이나 허용의 뜻은 없고, 오직 그 밑말인 「뵈-, 뵈-」에 대한 남음직씨로 쓰일 따름이다.

또,

막수물 물겨 (금강 76)

마초아 불교리라 (능엄 2:87)

따위는 그림씨를 남음직씨로 만들었을 따름이며, 여기에는 구속이나 허용의 뜻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가 국문법에서 하임말이라 불렀던 파생어는 사실상 이 세째 유형이 많은 것이다.

35. 그러므로 「하임말」이란, 그림씨나 제음직씨에서 파생된 남음직씨, 또는 남음직씨에서 파생된 겹남음직씨를 가리키는것, 더 줄여 말하면 「하임말」은 밑말에 ‘타동성’(他動性)이 첨가된 말이라 정의하는 것이 더

(31)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최 현배 : <고천판> 우리말본 (1971, 정음사) p.410 이하.

적절한 표현이다.

#### (라) 다른 계열의 하임말

36. 소위 하임말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나면, 여기에 다음 또한가지 하임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7. 「일다」(威)의 하임말에 「일우다」가 있음은 앞에 지적한 바인데, 또 여기에서 파생된 남음직씨로 볼 수 있는 말에 「이르(르)다」가 있다.

覽이며 디새며 홀로 塔을 이르습거나 (석보 13:51)

城 밧기 닐굽 塔 일어 중 살이시고 城 안해 세 덜 일어 승 살이시니라 (월석 2:77)

「일우-」는 ‘이루다’의 뜻을 가졌고, 「이르-」는 ‘만들다’의 뜻으로서 약간의 차이를 가진듯 하다.

「살다」의 하임말에 「살이다」가 있음은 앞에 지적한 바인데, 다시 「살다」에서 파생된 남음직씨에 「사르다」가 나타난다.

오샤샤 사르시릴씨 (용 38장)

부러 저히샤 살아자브시니 (용 115장)

「살이-」와 「사르-」의 뜻의 차이는 명백하다. 즉 「살이-」가 허용의 뜻을 가져 ‘살게 하다’임에 비하여, 「사르-」는 단순한 남음직씨로서 ‘살리다’(‘죽이다’의 반대)의 뜻이다.

이와 비슷한 파생남음직씨로서 또 「기르(르)다」가 있다.

王子 기르던 어마니미 (월석 14:15)

내 이 씨를 나하 길오니 (석보 11:29)

이 말은 현대어의 ‘기르다’와 같은 말이다. 그런데 「길우다」는 ‘길게 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위의 「길오니」는 「길우다」의 활용형 같아 보이나, 이것은 「기르-」+「-오/우-」+「-오니」어형이다. 즉 「기르-」의 제일인칭 활용어형이다. (→p.732 이하)

「돌다」의 하임말에 「돌이다」가 있음은 현대어와 한가지인데, 또 다시 「도르-」가 쓰인다.

흔 프리 곳다운더 비를 도르넛다=回舟—水喬 (두언 15:29-30)

#### 7. 뒷가지 파생어



車匿이 돌아 보내사 (석보 6:4)

「도르-」나 「돌이-」나 현대어로서는 모두 「돌리-」이며 그 예가 적어서 뜻의 차이를 확실히 말하기 어려우나, 「돌이-」는 '번갈아들다'의 뜻으로 쓰인 듯 하다.

「도르-」가 「돌-」의 파생남음직씨임을 생각하면, 「두르-」도, 아마 이미 없어진 뒷말인 \*「돌-」의 파생남음직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圍는 두를씨오 (월석 2:32)

行宮에 도즈기 들어 (용 33장)

또 「휏돌다」의 남음직씨에 「휏도르다」가 있었다.

느즈기 휏도논 춤츠는 스매=低回舞袖(두언 15:2) / 머리를 휏돌아

보니=回首(두언 7:24)

「닐다」(起)의 남음직씨에는 「니르다」가 있다.

激은 몃걸 니를씨라 (능엄 1:113)<sup>(32)</sup>

(32) 「살-, 일-, 돌-, 닐-, 길-」에 고름홀소리(조성모음)의 「ㄹ/으」가 붙으면, 「사르-, 이르-, 도르-, 니르-, 기르-」와 음소로서는 구별이 되지 않으나, 앞말들은 상성이고 뒷말들은 평성으로서 분별된다.

:사르·샤(용 3장), :사·논(월석 1:8)——사르·샤(용 77장), 사르·서·니(용 104장)

:이르시·릴·씨(용 66장), :이·느·니(훈)——이르·습거·나(석보 13:51), 이르·닌(법화 1:219)

:도르·샤(월석 1:25)——도르·눗다(두언 15:30)

:니·르시·니(용 82장), :니르·샤(석보 9:29)——니를·씨·라(능엄 1:113), 니를·씨(법화 6:175)

:기르·신(법화 3:15)——기르·던(월석 14:15), 기르·눗다(두언 8:33)  
씨끝 「-아/어」, 「-오/우-」가 붙으면 앞말의 상성은 평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성조의 구별이 없어지지만, 앞말의 /르/은 [r]소리로 나고, 뒷말의 /리/은 [l]로 나서 분별이 된다. ([l] 소리는 중성으로 표기된다.)

사·로리·라(두언 15:8), 사·라(석보 9:35)——살·오·미(영가, 상:23), 살·아(용 123장)

이·롬(월석 1:41), 이·러(월석 2:6)——일·어(석보 19:43)

도·라(월석 1:28)——돌·아(두언 8:59)

니·리(월석 1:50), ——닐·어(능엄 5:72)

기·러(두언 6:36), 기·루미(두언 20:2)——길·어(월석 21:97), 길·오니(석보 11:29)

38. 파생남음직씨의 마지막 종류로서, 성조의 변동에 의한 파생어를 들 수 있다,

제음직씨로서의 「디-」(落)는, 그 성조가 다음에 이어나는 씨끝의 종류에 따라서 평-거-상으로 변동한다.

벼리 처섬 디·고 (두언 6:5)

雙鵲이 혼 사례 디·니 (용 23장)

나심 저기 히 디·여 가디 (월석 1:9)

히 :둘 존하니 (능엄 2:5)

그러나 남음직씨로서는 상성으로 고정되어 있다.

ㄹ을 뽏헤는 브르미 果實을 디·오 (두언 15:14)

방향고 :디여 디하니 (두언 7:18)

中를 堂에 내 본 :디요·몰 보더라 (두언 25:52)<sup>(33)</sup>

이것으로 보면, 「싸디다, 처디다」도 성조에 의해서 두가지 어형으로 분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음> 니 ·싸디·고져 하니 (두언 25:52), 므레 ·싸·디·여 橫死할씨오

(석보 9:37) / <남음> 치마엿 아기를 ·싸:디·오 소낙로 얻다가 (월석 10:24)

<제음> 싸해 ·처디·디 아니코(월석 7:33) / <남음> 물로 콧굼디 ·처:디

·오 =水滴入鼻孔(구급방, 상:10)

39. 하임말을 타동성이 첨가된 말로 규정하여 파생어로 본다면, 같은 말이 제·남음직씨로 두루 쓰이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긱-: (제) 功이 그즈니이다(용 79장) / (남) 魔 그르를 그즈며(석보 9:16)  
이 경우, 남음직씨를 일종의 파생어로 보고서 무형의 가치를 붙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이것은 그 활용의 방법에 아무런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의 용법상의 다름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다의(多義, polysemy)적 용법을 가진 낱말로 보는 것이 좋다.

(마) 하임말의 의미상의 독립성

(33) 허 응: 중세국어 연구(1963, 정음사) pp.334-5 참조.

7. 뒷가지 파생어



40. 남음직씨 만드는 가지에 의한 남음직씨는, 그 밑말과는 다른 낱말임은 물론인데, 그러므로 그 뜻이 밑말과는 독립적으로 발달되어 가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變은 고터 두일씨니 (석보 19:11)

의 「고터다」는 그 밑말 「곧다」의 뜻에서 상당히 변져 나가고 있다. 즉 이 말은, 그 비유적인 뜻으로 변져 나가서 「곧다」의 파생남음직씨로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정도이다. 「가도다, 길우다, 조치다(兼), 걸위다(?), ㄹ초다」 등등은 모두 그 밑말과의 관계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

## (1-2) 입음말(피동어)

41. 입음의 가지는, 하임의 가지와는 달리, 오직 「이」 제 뿐인데, 여기 ㅎ이나 ㄱ이 덧붙을 수 있는 점은 하임의 가지와 같다.

「-이-」

42. 줄기의 끝소리가 닿소리인 경우.

뽕다 → 두피다: 七寶 | 이러 싸 우희 차 두피고 (월석 8:18)

쫓다 → 조치다(逐): 衆賊이 쫓거늘 (용 35장) / 돌호로 떠든 조치여 두라 머리 가 (석보 19:31)

뽕다 → 뽕기다(東): 오직 모뽕 뽕글 삭르미라 = 但束身(능엄 6:59) / 고분 사름 두려 道 니르디 뽕호론 ㄹ초매 뽕겨 이실씨니라 (법화 3:156)

볶다 → 볏기다(煎): 焦煎은 볶골씨라 (월석, 서:4) / 여덟 受苦애 볶겨 = 焦煎八苦 (월석, 서:4)

붓다 → 부치다(鼓): 煩惱濁을 부출씨 = 鼓煩惱濁(능엄 5:57) / 識浪이 부쳐 니느니 = 識浪騰起(능엄 1:64), 洞庭이 끊겨리 부치고 = 洞庭揚波 (두언 25:44)

있다 → 잇기다(牽): 하늬 神靈이 七寶 술위 잇거 오며 (월석 2:31) /

喧卑호 世俗 이레 잇거 돈니노라 = 喧卑俗事牽(두언 24:53)

「잇다」는 그 활용형이 국한되어 있다.

잇구물(두언 22:54), 잇그며(두언 24:10), 잇그시고(법화 4:160)

그러므로 이 말의 원형은 「잇그다」로 볼 수도 있다.

앓다 → 알히다(痛): 피나고 알히느닐 고토디 = 治 ... 血出疼痛(구급방, 상:7)

43. ㅅ 변격 풀이씨에 있어서는 「ㅅ > ㅆ > ㅈ, 우, 또는 없어짐」의 경로를 밟음은 물론이다. (→p.153)

밟다 → 블이다(踏): 부테 블바 디나시고 (월석 1:16), 안홀 블와 띄

여 버리느다 = 踏裏裂(두언 6:42) / 崐崙과 虞泉과 물 바래 드러

블이나라 = 崐崙虞泉入馬蹄(두언 17:10)

「밟-」의 ㄹ이 [l] 소리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표기법에 반영되어 있다.

44. ㄹ 변격 풀이씨의 입음말은 끝 ㄹ이 [l] 변이음으로 발음되었던 듯 하여, ㄹ이 중성으로 표기된다.

걸다 → 걸이다(掛): 설겅 옷돌히 화에 나아 걸이며 (월석 2:33)

곯다 → 곯이다(磨): 두 산이 어우러 ㄹ라 곯리 두외느니라 (월석 1:29) / 엇메 오래 곯이느노 = 如何久磨礪(두언 23:33)

썰다 → 썰이다(敷): 鹿皮 오술 바사 싸해 ㄹ르시고 (월석 1:16) / 金剛摩尼花 | 一切에 ㄹ르기 썰이느니 (월석 8:36)

들다 → 들이다: 그 남기 虛空애 들이니 (월석 7:10)

몰다 → 몰이다(驅): 돌홀 모라 = 驅石(두언 15:35) / 그 어미 몰여 드러 가며 (월석 15:35)

몰다 → 물이다(脚): 불근 새 그를 므려 (용 7장) / 모딘 중성 몰여 橫死홀씨오 (석보 15:37)

밀다 → 밀이다: 바닷 므리 밀유미 불 히믈 주도다 = 溟漲與筆力(두언 16:20)

불다 → 불이다(吹): 내 본디 블여 돈니노니 = 我生本飄飄(두언 21:39)



술다→술이다(燒) : 현마 스라도 술이디 아니<sup>ㅎ</sup>고(월석 2:28)

열다→열이다(開) : <sup>ㅎ</sup> 부체들 다<sup>ㄷ</sup>니 <sup>ㅎ</sup> 부체 열이곰 흘<sup>ㅅ</sup>씨(월석 7:9)

풀다→풀이다 : 들기 풀여 = 鷄賣(두언 17:14)

헐다→헐이다(破) : 모로매 能히 허로미 울마 헐요미 ㄷ외야 = 須了能破轉爲所破(영가, 하:25)

45. ㄷ 변격도, 하임말의 경우와 같이, /ㄷ/이 /ㄹ/로 변동하면서, 중성으로 남는데, 이것은 [1] 변이음을 표기한 것이다.

듣다→들이다(聞) : 일후미 너비 들여 (석보 13:4)

일컫다→일컫이다(稱) : 名稱은 일흠 일컫유미라 (월석 10:64)

46. ㅅ 변격은 △으로 변동하는데, △은 중성으로 표기된다. (하임말과 한가지다. →p.155)

붓다→붓이다(注) : 구리 노겨 이베 브스며(월석 21:44) / 프리 어느 方을 브터 이에 흘러 붓이노 = 水從何方流注於此(능엄 3:80)

47. 다음 말들은 그 밑말이 다시 쪼개진다.

븐들다→븐들이다(扶) : 다 經文에 븐들인 病이라(월석, 서:23)

▽「븐들-」은 비통어적 합성어이다.

브티들다→브티들이다(牽) : 消渴入 病이 이제 잇는듯 <sup>ㅎ</sup>니 사름 브티들이여쇼물 늘근 노미 붓그리노라 = 消渴今如在 提携愧老夫(두언 23:35)

▽「브티들다」도 비통어적 합성어이다.

물리쫓다→물리조치다 : <sup>ㅎ</sup> 병사 물리조치샤 (용 35장)

▽밑말은 비통어적 합성어이다.

내쫓다→내조치다 : 五溪入 ㅁ<sup>ㅅ</sup> 내조치여 오도다 = 放之五溪濱(두언 8:53)

▽이 밑말도 비통어적 합성어.

답샅다→답사히다 : 甲 니븐 ㅁ<sup>ㅅ</sup>론 구루미 답사헛<sup>느</sup>듯도다 = 鐵馬雲霧積(두언 7:25)

▽이 밑말은 앞가지 파생어이다.

48. 줄기의 끝소리가 홀소리인 경우:

이어다→이어이다(搖) : 가온디 괴외<sup>ㅎ</sup>야 이어디 아니<sup>ㅎ</sup>며 = 中寂不搖(몽산 43) / 乾坤入 이어이는 안히로다 = 乾坤震蕩中(두언 21:31)

빚다→빚이다(包) : 모매 藥 ㅅ 거슬 갖가이 <sup>ㅎ</sup>곡 = 近身藥裹(두언 8:33-4) / 無明入 대가리에 ㅅ일씨 마가 스뭇디 못<sup>ㅎ</sup>며 (월석 14:7)

논호다→논호이다(分) : 반도 제여곰 논호며 (월인 1:45) / 몯출히 豕韋氏에서 논호여 흐르니 = 分源豕韋派(두언 23:34)

가도다/가도이다(監) : <sup>ㅎ</sup>다가 有情이 나랏 法에 자피여 띠여 매 마자 獄애 가도이거나 罪 니블 ㅁ<sup>ㅅ</sup>터어나 (월석 9:25)

▽「가도다」를 하임말로 본다면(→p.163), 「가도이다」는 하임말이 입음말로 바뀐 예가 될 것이다.

이상 몇가지, 홀소리 밑의 「-이-」 형태소의 예로 보면, 모두 겹홀소리로 줄어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음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입음의 뜻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49. 이러한 의도는, 줄기의 끝소리가 /i/나 /j/ 일 경우에도 나타나게 된다.

브리다→브리이다(使) : 불히 소너게 님그미라 能히 한 슌가라<sup>ㅅ</sup> 브리고 나<sup>는</sup> 브리울 배 업스니 (월석 18:43)

더디다→더디이다(擲) : 엇베 샷기 치는 贊의게 더디이노 = 胡爲投乳贊(두언 24:35)

그리다→그리이다(畫) : 黃閣애 麒麟에 그리이요물 일 듣고져 <sup>ㅎ</sup>노라 = 早聞黃閣畫麒麟(두언 23:10)

씻기다→씻기이다(洗) : 불휘 몯미<sup>ㅅ</sup> 씻기여 그쳐디니 = 根斷泉源(두언 6:41)



「깃기여」는 하임말이 다시 입음말로 바뀐 예이다. 이 활용형은 「깃기-」의 활용으로 볼 수도 있을것 같으나, 그 뜻으로 보아, 「깃기이-」의 활용으로 보아야 한다.

엮다 → 엮여다(拘束) : 一切 外道の 엮미 요물 버서나게 호리니 (석보 9:8) / 婆稚는 엮미여 다 혼 마리니 (석보 13:9)

▽입음의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긴장 홀소리(tense vowel)로 낸 일도 있었던듯 하여, 이것이 「에」로 표기되어 있다.

미다 → 미여다(憎) : 太子를 새와 미여 하더라 (월석 21:214) / 趙州의 사름미게 미엔 고들 곳 아라 = 勘破趙州得人憎處(몽산 19)

쥐다 → 쥐여다(把) : 王이 威嚴이 업서 늑미 소내 쥐여 이시며(월석 2:11)

븐동기다 → 븐동기이다(攀) : 捨覺支는 世間入 法에  븐동기이디 아니 하야 브튼디 업스며 마곤디 업슬씨라 (월석 2:37)

▽밑말은 앞가지 파생어인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따로 내세우지 않는다.

50. 끝소리가 「으」인 경우에는 겹홀소리로 표시되기도 하고, 두 음절로 표기되기도 한다.

쁘다 → 띄다(用) : 을마 곽히여 띄여 朝廷을 빗내놋다 = 遷擢潤朝廷(두언 24:5)

스다 → 스이다(書) : 노푼 일후미 竹帛에 드러 스엿느니 = 高名入竹帛(두언 24:1)

51. 입음의 「-이-」는 꽤 강화되어 발음되었던듯 하여, 다음과 같은 겹입음말도 보인다.

내조치이다 : 鄭老 | 모미 지즈로 내조치이니 = 鄭老身仍竄(두언 21:41)

잇기이다 : 水荇 荇이 브르매 잇기이니 = 水荇牽風(두언 11:21)

52. 「르, 르」변격에 있어서는 끝 홀소리가 줄고, 르은 중성으로 나가게 된다.

그르다 → 글이다(解) : 妄이 업스면 글여 涅槃眞淨이 드외리니 = ...解爲涅槃眞淨(능엄 5:8)

뻘르다 → 뻘이다(刺) : 가시에 뻘여 모뎀 버리며 = 觸刺而遺身(능엄 6:78)

누르다 → 눌이다(壓) : 마치 듯히 제 눌이며 제 뻘러디는 전츠로 = 適足自壓自墜故(능엄 8:94)

이 경우에 「르」로 표기된 것도 있다.

ㄹ오누르다 → ㄹ오눌리다 : ㄹ오눌린 사름미 = 覷人(능엄 9:66)

▽「ㄹ오누르다」는 앞가지 파생어이다.

브르다 → 블리다(召) : 濠梁애 흔뻘 블료뎀 보라 = 濠梁同見招(두언 15:7)

53. 줄기 끝 음절이 「스」인 말에 있어서는, 「르, 르」변격과 같은 변동이 일어난다.

그스다 → 긍이다(牽) : 四天王이 술워 그스습고 (월석 2:35) / 내의 여희는 興이 긔여 나미 더으느다 = 添余別興牽(두언 8:46)

「-히-」

54. 닿소리 밑에서만 쓰인다.

긔다 → 곽치다(擗) : 프른 뵈부리는 彫刻흔 집 돌리 긔챌도다 = 靑嶂擗彫梁(두언 16:42)

닫다 → 다티다 : 東門이 도로 다티고 (월석 23:80)

더위잡다 → 더위자피다 : 醉하고 더위자피 도라오뎀 드던히 너기노라 = 酩酊任扶還(두언 15:51)

▽밑말은 앞가지 파생어이다.

막다 → 마키다(防) : 저고맛 마뵈 = 少滯(능엄 5:32)

맞다 → 마치다(迎) : 불러 마치는 恩惠 | 즈조 니르니 = 招要恩屢至(두언 8:9)

먹다 → 머키다(食) : 해 머킬 類 느외느니라 = 多爲食類(능엄 8:120)

\*묻다 / 무티다(蠶) : 히 튼 술워 무뵈도다 = 蠶日軍(두언 6:47), 북뵈

7. 뒷가지 파생어



부는 돌득릿 구름 무틴 그테 하마 드로라 =已入風磴霾雲端(두언 15 : 46)

▽이 말의 밑말인 \*「문다」는 나타나지 않으나, 현대말의 ‘구름문다’와 비교하면, 입음말로 해석된다.

미엿다 → 미얼키다 : 一切 미얼교물 그츠며 =能斷一切繫縛 (불정심경<정양사 영인> 51면)

▽밑말은 비통어적 합성어이다.

밋다 → 밋치다 : 녀스 蜃氣 | 밋첻는 樓에 나붓기눣다 =魂飄結蜃樓 (두언 8 : 45)

박다 → 바키다 : 𦵑바닷 그미 𦵑해 반득기 바키시며 (월석 2 : 57)

엷다 → 얼키다(纏) : 나리 못득록 어려운 이리 모매 얼켜느니라 =終日坎 稟纏其身(두언 16 : 27)

엷다 → 연치다(置) : 즘갯 가재 연즈니 (용 7장) / 더 남기 내 𦵑스매 연쳐세라 하니라 (두언 15 : 3)

잡다 → 자피다(捕) : 나랏 法에 자피여 𦵑여 (석보 9 : 8)

갓고로왈다 → 갓고로와티다 : 그럴썌 니르샤디 다틸어 갓고로왈다 하니 (남명, 상 : 44) / 이 維摩의 갓고로와토폴 더위자바 니르와도미니 (남명, 상 : 44)

#### 「-기-」

55. 역시 닿소리 밑에서만 쓰인다.

담다 → 담기다(貯) : 𦵑르미 아니 닐면 물 담궂 거시 업스릴썌(월석 1 : 39), 다스 株入 양지 가스매... 담겨 세라 =五株態側塞煩宵襟 (두언 15 : 3)

돋다 → 돛기다(沉) : 金精이어나 靑黛어나 𦵑레 𦵑만 𦵑게 하야 (월석 10 : 119) / 𦵑가오닌... 못 우묵흔디 돛기눣다 =下者...沉塘坳(두언 6 : 42)

죇다 → 죇기다(浸) : 天人이 大慈 行하느닌 브리 스디 𦵑하며 𦵑라 죇디 𦵑하며 (월석 10 : 70) / 죇겨 저저 하냐 𦵑마리 업도다 =浸

潤無天旱(두언 7 : 36)

솟다 → 솟기다(烹) : 罪人의 모뎡 솟득며 (월석 21 : 80) / 衆生이 글난 鑊 소배 드려 𦵑리 솟글혀 솟기더니 (월석 23 : 81)

56. 이상 설명한 입음의 가지 「-이-, -히-, -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변동되는가?

여기 나타나는 예는 그다지 많지 못하나, 이로써 보면, 이 세 변이형태는 줄기의 홀소리에 의해서 변동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그 밑말의 끝 음소에 의해 벌여 놓아 보면:

「-이-」 -ㅈ : 조치다, 부치다,

-ㅎ : 답사하다.

-ㅅ : 붓기다.

-ㅂ(변격) : 불이다.

-ㄹ(변격) : 풀이다, 열이다, 슬이다, 불이다, 밀이다, 등

-ㄷ(변격) : 들이다, 일쫓이다.

-ㄴ(변격) : 붓이다.

-홀소리 : 이어이다, 𦵑이다, 눈호이다, 가도이다; 브리이다, 더디이다,

그리이다, 𦵑기이다, 𦵑미여다, 𦵑미여다, 𦵑미여다, 𦵑미여다; 𦵑다, 스이다; (조치이다, 잇기이다)

-홀소리(ㄹ, ㄷ 변격) : 글이다, 𦵑이다, 𦵑이다, 𦵑리다.

(스 변격) : 𦵑이다.

「-히-」 -ㄱ : 마키다, 머키다, 바키다.

-ㄹ : 얼키다.

-ㄷ : 무티다(?), 다티다.

-ㅂ : 자피다, 더위자피다.

-ㅅ : 𦵑치다, 𦵑치다.

-ㅈ : 연치다.

「-기-」 -ㅁ : 담기다, 돛기다, 죇기다.

-ㅂ : 솟기다.

이 예로써 보면, 「ㅁ」 다음에서는 「ㄱ」이 덧나고, 「ㄱ, ㄷ, ㅂ, ㅅ」과 같은, 거센소리의 짝이 있는 여린소리 다음에서는 「ㅎ」이 덧나 거센



소리가 되고(다만 변격의 경우는 다름), 그 밖의 경우에는 「-이-」가 쓰이게 된다.

57. 이렇게 보면, 이 세 변이형태는 음성적인 것으로 보아진다. 다만 문제는, 이와 거의 같은 꼴로 변이되는 하임의 가지인 「이, 히, 기」의 변이 조건은 음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데, 이 입음의 가지는 음성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의 예들이 그리 많지 못한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입음의 가지도 음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가 혹시 나타나지나 않을까 의심스럽다.

### (1-3) ㅂ-계 뒷가지로 파생된 그림씨

58. 움직씨를 그림씨로 전성하는 형태소에 「ㅂ」을 포함한 한동아리의 뒷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ㅂ, 브」이다.

「-ㅂ-, -브-」

끓다 → 끓프다(飢): 끓픈 비도 부르며(월석 8:95)

깃다 → 깃브다(喜): 命世才를 即일에 깃그시니(용 27장), 仁義之兵을 遼左 | 깃스브니 (용 41장) / 喜는 깃블씨니 (석보 9:6)

죸다 → 죸브다(勞): 디나 돈노매 俗人의 양즈애 죸가하다니 = 經過倦俗態(두언 15:4), 天下를 亨로 內에 다 도라오샤디 그 므리 죸디 아니하며 (월석 1:28) / 우리들히 至極 죸브고 또 두리브 (월석 14:76)

늪웃다 → 늪웃브다(悔): 王이 늪으쳐 불리신디 (월석 2:7) / 늪웃븐 므스물 아니호리라 (석보 6:9)

민다 → 민브다: 이 사르미 뒷논 마리 眞實하야 민브리라 = 此人所有言說 眞實可信 (금강 35)

슬다 → 슬프다(悲): 悲는 슬흘씨오 (월석 2:22의 1) / 슬픈 므슴 뉘유미 = 哀感之感(월석, 서:4)

아철다 → 아철브다(厭): ㄹ룬 지브셔 놀릿 버드를 아철고 = 江閣嫌津柳(두언 8:39) / 아철븐 相 = 可惡相(영가, 하:136)

▽「아철브-」는 「아치얼브-」로 표기된 데도 있다.

물깃 아치얼븐 야이 업스며(석보 19:7)

알다 → 알프다(痛): 苦는 몸 알폴씨오 (월석 2:22의 1)

애긋다 → 애긋브다(斷腸): ☆ 閨中엿 도흔 이리 어루 애긋브니 = 閨中勝事可腸斷(두언 중간 13:32), ☆ 애긋븐 소리를 므더니 너기고져 ㅎ간마는 = 欲輕腸斷聲(두언 중간 5:26)

▽덜말은 통어적 합성어이다.

잇다 → 잇브다(勞): 불인 고지 이즈며 게을어 비를 바느니 = 吹花困懶旁舟楫(두언 18:3) / 地獄애 잇부미 업다 ㅎ니(천강곡상, 가 131)

절다 → 저프다(畏): 公州 | 江南을 저하샤 (용 15장) / 네 여러 劫에 저프디 아니호거기 저픈 므스물 내며 (월석 7:48)

「-ㅂ-, -브-」

59. ㅅ 변격 움직씨에 「-ㅂ-, -브-」가 붙을 때는 ㅅ이 ㅂ로 변한다.

웃다 → 웃브다(笑)<sup>(34)</sup>: 諸天의 말 우스샤 (월석 7:26) / 오랴나래 내내 웃브리 (용 16장)

▽「웃브-」는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웃우-」로 표기되어 있다.

오랴나래 내내 웃우리 (5:7)

이로써 보면 「웃오-, 웃우-」도 역시 \*「웃브-」의 변화형일지 분명해지는데,

\*「웃브-」는 움직씨 줄기 「웃-」에 「-ㅂ-」가 붙어 그림씨로 파생된 말이다.

돛다 → 돛오다 (<\*돛브다)(愛): 선비를 ㅅ스실씨 (용 80장) / 愛心은

돛은 ㅅ스미오(월석 2:22의 1), 境界를브터 ㅅ스매 돛오며 아니 돛음

(34) /ㅂ/은 [홀소리, ㄷ]—[홀소리]와 같은 환경에서 유성의 갈이소리인 /ㅂ/으로 변동하는데, 이것은 성(聲)의 동화를 입은 동시에 간극(間隙)의 동화를 입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ㅅ]—[홀소리]와 같은 환경에서 역시 같은 변동을 입게 되어 있으니, 이러한 현상으로 보면, 종성의 ㅅ은 유성인 동시에 간극도 ㅅ도는 아니었으리라 추측된다(ㅅ도의 소리가 옆의 소리의 간극을 크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성의 ㅅ은 유성의 마찰음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히요물 나락와들씨라 (능엄 4:16)

「-ㅅ-」

61. ㅅ-계 뒷가지 중의 가장 단출한 것은, 움직씨 줄기에 바로 붙는 「ㅅ」이다. (그래서 된 그림씨는 모두 ㅅ 변격이다.)

그리다 → 그림다(慕): 내 님금 그리샤(용 50장) / 막스매 그리본 브들  
머거 (월석 17:15)

두리다 → 두립다(恐): 사르미 다 두리여 숨느니라(월석 21:218) / 간  
대엿 禍福을 날어든 두리본 브들 내야 (석보 9:36)

너기다 → 너집다(念): 菩薩이 너기샤디 (월석 2:36) / 네 업던 이를  
得하야 아니 너기온 오늘 문득 希有한 法을 들좁고 (월석 13:6)

놀라다 → 놀랍다(驚): 놀라와 저픈 전츠로 =可驚懼故(능엄 8:93)

믹다 → 뭍다(憎): 太子를 새와 믹여하더라(월석 21:214) / 네 이제도  
느의야 믹본 브들 돌따 (월석 2:64)

뮈다 / 뭍다(猛): 제 宮殿에 光明이 식식이 브스와 뮈의 비취여 (월석  
4: ) / 뮈본 브를 놀여 罪人의게 가게 하며 (월석 21:80)

스랑하다 → 스랑홉다: 可히 스랑홉도다 =可念 (두언 21:40), 茅齋에  
썰리 보내요미 또 可히 스랑하오니라 =急送茅齋也可憐(두언16:60)

怒하다 →怒홉다: 怒하본 일 맛나산 怒티 아니하샤 (월석 17:74)

愛樂하다 →愛樂홉다: 愛樂하온 전츠로 =可愛樂故(능엄 9:14)

感動하다 →感動홉다: 그 소리 感動홉고 깃브니 (법화 3:115)

恭敬하다 →恭敬홉다: 衆生이 恭敬하본 막숨 아니 내리도 있느니(석  
보 11:6)

「-압/엷-」

61. 또 한가지 ㅅ-계의 파생 뒷가지로 들 수 있는 것은 「-압/엷-」인  
데, 이 가지가 붙을 때는 뿌리의 끝소리 /i/가 줄어진다.

답끼다 → 답쌌다(悶): 窮子의 놀라 답쓰미 곤하면 =若窮子之驚愕迷悶

(법화 1:208) / 더본 베티 우희 띄니 슬히 덩고 안히 답쌌거늘 (월  
석 2:51)

프기다 →프겁다(重): 사르미 먼 싸하로서 와 糧食 굶전디 사으리오  
지운거시 百斤두고 더으거든 문득 이웃 사르미 또 죠고맛 거슬 더  
브티면 이 다스로 더욱 프겨 困호 하니이다 (월석 21:106) / 長常  
프겨본 거슬 지여 (석보 9:15)

붓그리다 →붓그렵다(羞): 英主△ 알피 내내 붓그리리 (용 16장) /  
붓그려우물 시서지이다 =雪耻(두언 8:3)

앗기다 →앗잡다(惜): 大王이 앗가본 브디 업더시이다 (월석 8:91)

즐기다 →즐겁다(樂): 利樂은 도쿄 즐거볼씨라 (석보 9:2)

「-엷-」

62. 겹홀소리의 「ㅣ」/j/ 밑에서는 「-엷-」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물  
론 앞의 「-엷-」의 음성적 변이형이다.

므의다 →므의엷다(威): 므의옴 두는 사르문 보스불면 막스미 便安  
하며 (월석 2:59) / 長者는 므의여브며 智慧 기프며 (월석 2:23)

63. 이상의 ㅅ-계 그림씨 뒷가지를 뿌리의 끝소리에 의해서 총괄해  
보면:

「-ㅅ/브-」 -ㄱㅎ: 골꼭다, 알꼭다, 슬프다.

-ㅎ: 저프다.

-ㄷ: 뮈브다, 아철브다.

-ㅈ: 뉘웃브다, 잇브다.

-ㅈ: 깃브다, ㅈ브다.

「-뮈/보-」 -ㅅ(변격): 움보다, \*도브다 > 돏오다(돏오다)

「-ㅅ-」 -이: 그림다, 두립다.

-아: 놀랍다.

-ㅣ: 뭍다.

-하: ~홉다.

「-압/엷-」 -이: 답쌌다, 프겁다, 붓그렵다, 앓잡다, 즐겁다.

「-엷-」 -ㅣ: 므의엷다.



64. 이로써 보면, 이 가지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닿소리 밑에 나타나는 「ㅂ, 브, ㅃ, ㅄ」와, 다른 하나는 홀소리 밑에 나타나는 「ㅅ, 압, 엽, ㅍ」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종류는 음성적 조건으로 규정된다.

65. 첫째 계열의 「-ㅂ/브-」와 「-ㅃ/ㅄ-」는 각각 분명히 홀소리고름의 규정을 받는 것이고, 또 「ㅂ~ㅃ」, 「브~ㅄ」는 뿌리의 끝닿소리의 종류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 이 네 형태도 역시 음성적 조건으로 규정된다.

66. 둘째 계열 중, 「-압/엽-」은 역시 홀소리고름의 규정을 받는 것이고, 「ㅍ」도 그 위의 소리에 의해서 규정된다. (반홀소리의 /j/인 경우) 그러나 「-ㅅ-」과 「-압/엽-」과는 음성적 조건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즉 /i/나 /j/ 밑에서 두 가지가 다 같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67. 그러므로 우리는 「-압/엽-」을 다시, 뜻이 분명하지 않은 가상의 형태소 「-아/어-」와 「-ㅅ-」으로 분석해 두려 한다. 가상의 형태소란 아직 한 형태소로 분석될지 안될지 확립되지 않는 형태소란 뜻이다. (p. 36)

68. 이렇게 보면 ㅅ-계 그림씨 뒷가지는 모두 음성적 조건으로 변이된 것으로 설명된다. 즉 홀소리 밑에서는 「-ㅅ-」, 닿소리 밑에서는 「-ㅅ-」이 그대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그 뒤에 「ㅇ/으」를 붙이게 된다. 이것은 고름홀소리와 그 기원을 같이할 것으로 추측되나, 다만 일반 고름홀소리는 닿소리에 앞서는데 대해서 이 경우에는 닿소리 뒤에 와 있음이 특이하다.

이 「ㅅ」은 유성음 사이에서는 모두 순경음으로 변동한다.

69. 이상은 그 밑말이 뚜렷이 존재하는 말들이나, 밑말이 나타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다. 그러나 그 말꼴로 보면 분명히 ㅅ-계 뒷가지를 붙여서 된 파생어이다.

애발브다, 애왈브다 : 쉼고 애발븐 브디여 (천강곡 상, 기 143), 南녀것

한아비 애왈븐 므스물 비룻 펴도다 = 南翁價始據 (두언 20 : 44)

이 말의 밑말로 추정되는 \*「애왈-」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이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되는 「애와티-」가 나타난다.

穉善信은 애와티 죽고 (월석 2:76), 慨는 애와티씨라 (월석, 서:15)

이하 몇 말은 그 밑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뵈왓브다, 밧브다 : 形勢 | 도로혀 뵈왓브도다 = 形勢反蒼黃 (두언 8 :

68), 여스슨 比丘의 經과 律와를 묻디히 世間엿 밧브디 아니흔  
이를 혼디 니르디 아니홀씨오 (월석 10 : 21)

날브다 : 供養을 날브디 아니케 호리라 (석보 11 : 37)

어엿브다 : 艱難하며 어엿븐 사루물 (석보 6 : 13)

이 말들의 밑말은 각각 움직씨 \*「뵈왓-」, 밧-, \*「날-」, \*「어엿-」이었을 것이나, 이런 말은 찾을 수 없다.

술웃브더 : 돌히마러신더 술웃브더 (악학궤범, 정과정)

이 말의 뿌리인 「술웃」은 움직씨의 줄기로 나타나는 일은 없고, 오직 어찌씨로 쓰인 예가 보인다.

고불님 몬 보수하 술웃 우니다니 (월석 8 : 87)

반갑다 : 아들님 반가비 보샤 (천강곡 상, 기 128)

「반가다」가 있었을 것이나 15세기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서느럽다 : 부려 그르메 서느러워 甘露를 쓰리는듯 혼대 (월석 7 : 36)

이 말도 그 뿌리로 보아지는 \*「서느리-」나 \*「서늘-」이 동사의 줄기로 쓰이지 않으나, 「서늘하다」는 일찍부터 나타난다.

涼은 서늘홀씨라 (월석 10 : 105)

가비압다 : 輕은 가비야불씨라 (훈, 언해)

거엽다, 게엽다 : 가스미며 허리 우히 거여비 獅子 존히시며 (월석 2 :

41), 雄毅는 게엽고 놀날씨라 (능엄 8 : 70)

이 말들도 모두 이 계열의 가지를 가진 말임이 분명하나, 그 뿌리로 분석되는 \*「가비-」, \*「게-」는 모두 가상의 불구 형태소이다.

「-갑-」

70. ㅅ-계 그림씨 뒷가지의 또 한가지로서 「-갑-」을 들 수 있다.



맞다 → 맞잡다(適) : 입시울 축축호미 맞가부시며 (월석 2:58)

넌다 → 년(연)잡다(淺) : 功의 넌가부며 기푸를 조차 (월석 17:44),

연가온 여흐레 = 淺瀬(두언 14:15)

늦잡다 : 노퍽니 늦가부니 업더니 (월석 1:42)

이 말의 밑말은 현대말로 잘 쓰이지마는, 15세기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35)

71. 「-잡-」의 /ㄱ/은 /ㄹ/ 밑에서 탈락된 듯 하다.

조을압다(親) : 親은 조을아불씨오 (석보 13:15), 나라해 도라오샤도

조을아빔 아니호샤 (석보 6:4)

놀압다(賤) : 네 福力을 니버 受生호야 놀아불 사르미 ㄷ외오(월석 21:55)

이 말들의 뿌리가 따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으나, 이 「-압-」은 「-잡-」의 ㄱ 탈락형임이 거의 분명하다.

72. 「-잡-」이나 「-압-」이 붙는 말은, 그 예가 매우 적고, 그것마저 뿌리가 대부분 불구형태소이다. 그리고 불구형태소가 아닌 「맞-, 널-」은 움직씨가 아니라 그림씨인 점이 다른 ㅂ-계 가지의 경우와 다르다.

73. 이 「-잡-」 뒷가지와 앞에 나온 다른 ㅂ-계 가지와의 관계는, 다음의 두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듯 하다.

74. 그 하나는, 「-압/업-」을 「-잡-」의 /ㄱ/ 탈락 변이형태로 보는 것인데, 「-압/업-」의 용례로 보면 모두 /ㄱ/이 탈락할만 한 조건을 갖춘 말들 밑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한 예로써 설명하면);

「즐기-」+「-잡-」→「\*즐기잡-」>「\*즐기업-」>「\*즐겹-」>「즐겹-」

(35) 그리고 다음 말들도 이와 같은 종류의 파생어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슬잡다 : 어리너 슬가오너 = 爲愚아 爲慧아(능엄 4:36)

「슬기」와 비교할 것.

갓잡다 : 近은 갓가불씨라(월석, 서:14)

돈잡다, 돈겹다 (두텁다) : 나랏 政事를 돈가이 호시고 = 敦國政(두언 6:18), 前生入 福이 돈거뵈(월석 21:19), 입시우리 ...두텁디 아니호며(월석 19:7)

이러한 변화 과정은, 전혀 불가능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이것은 꽤 오랜 시일을 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조 초기에 있어서는, /ㄱ/이 탈락된 변이형태는 언제든지 독립된 음절로 유지되며, 앞 닿소리의 연음(連音)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플와」(←\*플과), 「머플오」(←\*머플고)에 있어서는 ㄹ은 연음되지 않으며, 「호리어니」(←\*호리거니)는 「호려니」(←호리+어니)와 구별되며, 「ㄷ외아」(←\*ㄷ외가)지이다는 「ㄷ외야」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즐겹-」 따위 어형에 있어서, /ㄱ/ 탈락(\*즐기잡- > \*즐기업-)과, 겹홀소리로의 축약(\*즐기업- > \*즐겹-)과, 다시 겹홀소리의 홀홀소리되기(\*즐겹- > 즐겹-)가 이조 초기에 일어나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곤란한 일이다. 그리고 「-압/업-」은 움직씨에 붙는데, 「-잡-」은 그림씨에 붙는다는 사실도 「즐겹-」의 「-업-」을 「-잡-」의 한 변이형태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째 기술 방법을 피하려고 한다.

75. 다음 또 한가지 해석 방법은, 「-잡-」을 「-압/업-」과는 다른 형태소로 보는 일이다. 그리하여, 「-압/업-」을 가상적 형태소 「-아/어-」와 가지 「-ㅂ-」으로 분석했듯이, 「-잡-」도 가상적 형태소 「-가-」와 가지 「-ㅂ-」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꽤 무리한 분석 방법인 것 같으나, 씨끝에 「-아/어-」가 있고,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가/거-」가 있음과 비교해 보면, 전혀 허망한 일은 아닐상 싶다.

#### (1-4) 힘줄말

76. 별다른 뜻을 더함이 없이, 뿌리의 뜻을 강조하여 감정적 색채를 더해 주는 몇개의 뒷가지가 있다.

「-왈-」>「-왈-」, 「-월-」

77. /병/이 없어짐에 따라 「-왈-」, 「-월-」으로 변한다.

느리-왈다 : 東녀그로 가는 므를 느리와다 붓그리노라 = 下愧東逝流(두언 6:44)



니르-받(왕)다(起) : 劫은 時節이니 時節에 모딘 이리 만하야 호리워  
罪業을 니르바들씨라 (월석 1:16), 바룩 므를 떠 겨를 니르왕느니라  
(석보 13:9)

세-월다(強) : 蛟龍이 서리어 고기 세워든듯 하도다 = 蛟龍盤擎肉屈強  
(두언 16:16), 玄冥이 蔚然히 세월더라 = 玄冥蔚強梁(두언 25:5-6)

밀-왕다(推) : ☆밀와들제 = 擠(자회, 하:24)  
「밀-」은 주로 홀소리 밑에 쓰였던듯 하여, 「밀-」 밑에 홀소리 /이/가  
덧붙기도 한다.  
두 짝이 서르 미리왕느 전초로 = 二習相排故(능엄 8:92)

78. 다음은 밀말이 파생어이다.

내-왕다(出) : 엄니 밧기 내와드니(월석 21:23), 몹 ㄴ식 내왕느 굶우마  
파라하도다 = 渚秀蘆笋綠(두언 6:51)

벗기-왕다(脫) : 흰 곳가를 ㄴ룩 두들게 벗기와뎛도다 = 白幘岸江臯(두언 7:21)

물리-왕다(退) : 엇네 이우젯 한아비를 물리와드리오 = 如何拒鄰叟(두언 15:43)

거스리-왕다 : 捍은 거스리와들씨라 (법화 5:13)

버으리-왕다 : 나라흘 버으리와다쇼미 머도다 = 去國賒(두언 7:5)  
「버으리-」는 초기 문헌에 잘 보이지 않으나 다음에 그 예가 있다.  
이 眞言 다숫 字는 다 이불 병으려 소리 나가게 하느니(칠대만법 12)

갓고로-왕다 : 文殊 | 老維摩를 다딜어 갓고로와드시니 = 文殊撞倒老  
維摩(남명, 상:43)

79. 다른 경우에서처럼, 이에도 밀말이 불구적인(따로 쓰이지 않는)  
몇가지 파생어가 있다.

베-왕다(排) : ☆베와들비 = 排(자회, 하:24)  
「밀말 [\*베다]가 따로 쓰이는 일이 없으나, 아마 ‘밀치다’란 뜻을 가  
진 말이었을 것이다.

다-왕다(衝) : 地獄엿 한 브리 혼뻬 다와다 잇거든 (월석 8:72), 여덟

苦 | 서르 글허 다왕느니 = 八苦相煎迫(영가, 하:146)

▽이 밀말도 나타나지 않으나, 앞으로 나올 「다-티다(撲), 다-잇다(擊),  
다-둔다(臨)」 따위와 비교해 보면, ‘접근한다’는 뜻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36)

위-왕다(崇) : 各各 위와다 섬겨 = 各各崇事(능엄 10:57), 제 사오나보  
물 붓그려 어디로물 위와들씨 慚이오 (석보 11:43)

「위-」도 줄기로는 쓰이는 일이 없으나, 「위-하다」의 뿌리와 같은 형태  
소일 것이다.

그러나 「위-하다」의 뿌리는 상성인데, 「위-왕다」의 그것은 평성임이 좀  
난점이다.

<참고>

해-왕다 : ☆엇더 내 이 一場愁를 해와드료 = 怎割劃我這一場愁(중간, 박  
통사, 중:17)

「-잇-」

80. 불구적인 뿌리에 흔히 붙는다.

두르-잇다(揮) : 부들 두르이즈니 綺繡 | 펴는듯고 = 揮翰綺繡揚(두언 24  
:25)

휘두루(←휘두르)-잇다(揮) : 네 불금 휘두루이주물 스랑호니 = 念昔揮毫  
端(두언 16:21)

▽파생어의 뿌리가 「두르-」→「두루-」로 변동하는 것은, 「두루-티다」의 경우  
와 같다. (→p.193)

다-잇다(擊) : 擊은 다이즐씨라(월석 2:14), 구루메 다잇느 楚入氣運  
이 어듭고 = 拂雲羅楚氣(두언 20:2)

헤-잇다(排) : 모로매 이 브르물 헤이즐 毛質이 잇느니라 = 會是排風有  
毛質(두언 8:31)

▽뿌리의 「헤-」는 줄기로 쓰이지 않으나, 「헤헤-, 헤티-, 헤왕-」 따위 말  
의 뿌리로 나타난다.

(36) 접근의 방향을 표시하는, 뒷시기 문헌에 나오는 「-다히」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닐다히 消息을 아드려나 아자하느니(송강가사, 속미인곡)



「-티-」

81. 이것으로 파생된 말은 상당히 많다.

열-티다(開) : ㅁ 숲 窓을 열티노라 = 拓秋窓(두언 15 : 53)

들-티다(擧) : ☆기리 혀 나중 들티는 소리엿 字는 上聲이니(자화, 범례 4)

드워-티다 : 열 丈만흔 龍이 몬드시 몹늬누릴 드워터 떠 버리느다 = 十丈蛟 歔翻盤渦坻(두언 7 : 24)

떨-티다(拂) : ㅁ 몬흔 베클미 더 사르미 ㄴ출 떨리니 = 微風拂彼人面 (능엄 3 : 82) / 階砌入 알팻 남조 구루물 떨티돏다 = 階前樹拂雲(두언 15 : 10)

데-티다 : 베클 거스려 왜 자봄 몬하야 노하버리디 아니하면 당다이 제 모미 데오 (월석 7 : 18) / ☆데틸잡=燥, ☆데틸약=爚(자화, 하 13)

니르-티다(起) : 뜨디 權엿 허근 사르물 니르터 내자매 겨시니라=意 在激發權小也(범화 1 : 156)

빼-티다(剖) : 머리를 빼터 닐굽 조가키 밍 ㅁ라 = 頭破作七分(범화 7 : 119)

걸-티다(搭) : ☆걸틸탑 =搭(자화, 하 : 20)

엮(←엮)-티다(覆) : 八方入 바룻 드를 엮터 = 覆八溟(두언 6 : 50)

브스-티다(碎) : 내 모물 엮메 드를 ㅁ티 브스디 몰관디(월석 21 : 219) / 내 寶杵로 그 머리를 브스토티 微塵 ㅁ티 하야 = 我以寶杵 殞碎其首 猶如微塵(능엄 7 : 65)

나ㅁ(←남)-티다(넘어뜨리다) : 바디 宮城 나ㅁ샤 (월석 21 : 196) / 太子 는 호오사 象을 나ㅁ티며 (천강곡 상, 기 39)

▽밀말과는 의미상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현대말의 '넘어지다'를 '넘다'와 연결시키는 일을 생각하면, 「나ㅁ티-」를 「남-」과 관련시키는 일도 무리는 아닐상 싶다. 그리고 「나ㅁ티다」의 밀말을 「남-」으로 잡고 보면, 여기 「ㄹ」이 개재된 셈이 되는데, 이것은 당소리가 이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쓰리(←쓸)-티다(掃) : 니로리라 하다가 時로 불토ㅁ로 쓰리토물 니부라=欲起時被肘(두언 15 : 43)

▽이 말도 흘소리를 개재시킨 것으로 생각되는데, /ㄹ/ 밑에는 일반적으로 「-티-」가 바로 붙는다.

두루(←두르)-티다(揮) : 詩句를 일우니 구스리 불 두루툼에 잇도다 = 詩成珠玉在揮毫(두언 6 : 4)

▽이 말에서는 밀말의 끝 흘소리가 바뀌었으나, 이에서 파생되었음은 확실하다(→p. 191, 「뿔두루잇다」).

82. 밀말이 다시 분석되는 것.

드리-티다 : 罪人을 글는 가마에 드리티느니라 (월석 1 : 29)

내-티다(出) : 王이 네 아드를 내티쇼셔 네 아드리... 허물 업스니 어드리 내티로 (월석 2 : 6)

▽「드리-」와 「내-」는 하임말이다.

83. 밀말이 따로 쓰이지 않는 말들.

다-티다(撲) : 들며 날저기 슌토배 다터 鏗然히 소리 잇도다 = 出入 爪甲鏗有聲(두언 16 : 57)

▽밀말 \*「다-」는 따로 나타나지 않으나, 「다쫓다, 다잇다, 다왈다, 다든다」 따위에 공통된 「다-」는 '접근'의 뜻을 가진 뿌리임을 짐작하게 한다.

베-티다(斫) : 도즈기 環刀 세혀 손바를 베티고(월석 10 : 25), 갈 세혀 싸홀 베티고 = 拔劍斫地(두언 25 : 53)

▽이 말의 밀말로 짐작되는 \*「베-」는 따로 쓰이는 일이 없으나, 그 뜻으로 보면, 「버히-」(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헤-티다(披) : 시혹 깃구터 혹 헤티돏 하며 (월석 18 : 32)

84. \*「다-」나 \*「베-」, \*「헤-」는 뿌리임이 분명하지 않으나, 「-티-」나 「-왈-」 따위를 붙인 다른 파생어들과 대조해 보면, 뿌리로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혀->-혀-」



85. 이것으로 파생된 말은 상당히 많으며, 「해」는 시대적으로 「해」에 앞선다.

배-해(해)다(剖): 判은 배야 논흘씨오 (능엄 1:16) / 배해 다른 읍 사막며 = 判爲異會(능엄 1:22), 다시 鄰虛를 배해면 = 更析鄰虛(능엄 3:68)

드위-해다(飜): 다 히여 그 지블 드위라코저 하나 = 悉令索其家(두언 25:37) / 八邪는 우뤼 八正을 드위해니라 (능엄 7:13)

도르-해(해)다: 廻向은 도르해 向흘씨니 (월석 2:60), 머리를 도르 해 바라노라 = 回首(두언 6:3)

휏도로-해(해)다(廻): ㄹ숯 끊겨른 天地를 휏도로해는듯 ㅎ도다 = 秋濤 天地回(두언 23:30), 모딘 버릭 變怪를 能히 썰리 휏도로해라(월석 10:102)

▽「휏도로-」는 「휏도르-」의 임의적 변이형태다. 그리고 「휏도르-」는 앞가지 파생어이나 여기에서는 이 유형을 따로 내세우지 않는다.

두르-해다: 解脫이 흘루메 두르해 산디라 = 解脫返流(영가, 서:2)

니르(르)-해다(起): 그 겨지비 밥 가져다가 머기고 자바 니르해니(월석 1:44)

▽「니르해-」는 「닐-」(起)에 「-해-」가 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해근 선비를 보시고 御座에 니르시니 (용 82장)

그러나 「-해-」는 조성모음을 취하지 않고, 모두 남음직씨에 붙어 있음을 유의하면, 「니르해-」는 「닐-」의 하임말 「니르-」와 가지「-해-」로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우리-해다(傾): 苦苴의 무리 蕙草이 불휘를 기우리해 앓는 고들 알 와라 = 乃知苦苴輩 傾奪蕙草根(두언 16:68)

▽밀말은 파생된 하임말이며, 아래도 그러하다.

그우리-해다(轉): 難隨調達은 象을 티츠며 그우리해고(천강곡 상, 기 39)

버리-해다(開): 입 버리해고 브스면 = 開口灌下(구급방, 상 3-4)

내-해다(出): 法雲이 世界에 퍼면 도흔 씨 내해느니 (월석 2:76)

드리-해다(入): 六根이 塵을 드리해물 일후미 入이라 = 六根吸塵 名入

(능엄 3:1)

주리-해다(歛): 넷 ㄴ죽하야 주리해던 니피 니르완고 = 舊低收葉舉(두언 18:9)

▽「주리다」는 초기 문헌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다음 용례 참조.

바탕이 너모 기니 네 날을 저기 주려 주고려(중간 박통사, 상:18)<sup>(37)</sup>

가도-해다(收): 쉽사리 病흔 허튀를 가도해노라 = 容易收病脚(두언 14:2)

걸위-해다(鉤引): 그르메는 프른 므리 ㄹ마니 걸위해물 맛났느니 = 影 遭碧水潛勾引(두언 18:3)<sup>(38)</sup>

86. 밀말이 따로 쓰이지 않는 몇가지 예.

폐-해다: 터리 폐해 주시고(천강곡 상, 기 90)

▽밀말인 \*「폐다」가 따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으나, 현대말의 「폐다」는 바로 이 말의 변화형이다.

(37) 「초간 박통사 언해」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네 나를 나소와 더르게하야 다고려(상:18)

(38) 뒷가지 「-해-, -해-」는 원래 음직씨의 줄기 「해-」(引)에서 온 것임이 분명하다.

해爲引(훈, 합자해), 繫은 繫씨라(월석, 서:3)

그러므로 「드리해다」 같은 말은 단순한 「드리다」의 힘줄말이 아니라, 「해-」의 뜻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어서, 합성어로 보아질 수도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더 유의해 둘 일은 「-해-」가, 소위 하임의 뒷가지에 붙어 있다는 점이다.

기우리해다, 그우리해다, 내해다, 드리해다, 가도해다, 등 이것으로 보더라도 하임의 뒷가지는 굴곡의 가지가 될 수 없고, 파생의 가지임을 확인케 된다. 굴곡의 가지가 파생의 가지 앞에 오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갓고로해다(倒): 尺牘호요든 陳遵을 갓고로해리로다 = 尺牘倒陳遵(두언 중간 19:5)

가 보이나, 남음직씨로서의 \*「갓고로-」는 보이지 않으며, 「갓글-」의 하임말은 「갓글오-」이다.

爛熳히 곳다운 酒樽을 갓글오리로다 = 爛熳倒芳樽(두언 21:23-4)

그러므로 두언 중간의 「갓고로해-」는 혹은 \*「갓글오해-」의 변화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싸-혀(혀)다 : 拔은 싸혈 씨니(월석, 서 : 10), 내외 疑心入 불휘를 싸혀  
샤 = 拔我疑根(능엄 2 : 21)

▽이 밑말로 추측되는 \*「싸다」도 보이지 않으나, 「싸나다」(挺), 「싸디다」 따  
위와 비교해 보면, 「싸-」가 뿌리임이 수긍된다.

저머서 나 아로미 싸나샤 = 少挺生知(영가, 서 : 6) <주> 挺은 싸혈씨라  
(영가, 서 : 7)

프레 싸디여 (석보 9 : 37)

헤-혀(혀)다(披) : 生滅根元이 이틀브터 헤혀 나타 = 生滅根元從此披露  
(능엄 10 : 2), 도로혀 雲霧를 흥번 헤혀고져 스랑하더라 = 雲霧一披  
(두언 20 : 50)

▽「헤-」도 줄기로서 쓰이는 일이 없으나, 분명히 뿌리로 보아진다.

「-츠, 츠, 치, 스 ; 웃(웃), 우치, 우(으)취-」

87. 분명히 말미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지는 위의 여러 뒷가지를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용법은 불규칙하다.

브스-츄다(碎) : ㅎ물며 凡常의 브스츄닐 엇메 足히 뼈 니르리오 = 凡  
常之瓊瓊 何足以之云云(영가, 하 : 70), 우리 무른 브스차 밥 비브르 먹  
고져 돈니노니 = 吾輩碌碌飽飯行(두언 25 : 11)

머물-츠다 : 火急히 썰리가 머물츠디 말라 = 火急速去 不得遲滯(육조, 상  
: 10)

거리-츠다 : 方宜로 救하야 거리 = 方宜救濟(법화 2 : 134) / 사르물 거리  
츠샤 (법화 3 : 83)

거리-치다(濟) : 주으린 사르물 거리치며 (월석 2 : 31)

▽「거리치-」는 「거릿-」으로 변동하기도 한다.

목 물름 거릿고져 호터 = 欲濟渴(법화 4 : 91)

거느리-치다(濟) : 時世 거느릴 지조를 = 濟世才(두언 21 : 7) / 世를 거  
느리쥬멘 그디내 맛당하니 = 濟世宜公等(두언 20 : 38)

브스-스다(瑣) : 가지 니픈 브스손 그잇 衆을 가즐비시고 = 枝葉譬瑣末  
之葉(법화 1 : 173)

늘-웃다(飛揚) : 늘우츠며 골의요몬 누를 爲하야서 雄호양 ㅎ는다 = 飛  
揚跋扈爲誰雄(두언 21 : 34)

▽「늘우추물」(두언 중간 24 : 2-3), 「늘우쳐」(두언 24 : 4) 따위 활용형으  
로는, 이 가지가 「-웃-」인지, 「-우츠-」인지 결정되지 않으나, 「늘웃는다」  
(두언 중간 2 : 42)로 보면, 「-웃-」으로 확정된다.

니웃(웃)다 : 聖神이 니스샤도(용 125장) / 匍匐하느 禮를 니수쳐 ㅎ니  
= 聯翩匍匐禮(두언 20 : 39-40), 니스쳐 노곤 일후미...뫼엿도다 = 合沓高  
名動(두언 11 : 6)

늘-우치다 : 旌旆 | 다 늘우치돏다 = 旌旆盡飛揚(두언 6 : 28)

▽이 경우의 뒷가지는 분명히 「-우치-」이다.

니스(수)취다(縣縣) : 니스취며 陰密하야 = 縣縣密密(몽산 27), 니수취  
여 두 셔을흘 收復하니라 = 聯翩收二京(두언 24 : 20)

88. 다음은 불구형태소들이다.

「-괴-」

짓(←지지)-괴다(噪) : 雀噪는 새 짓궐씨오 (월석 18 : 35)

▽「짓괴-」는 \*「지지괴-」의 준 꼴인듯.

「-룻, 릿-」

어긔-룻다(違) : 믅스매 어긔르추미 하니 = 人事多錯迕(두언 7 : 27)

이 파생어는 뿌리가 「어그-」로 변동하기도 하고, 또 가지가 「-릿-」으로  
변동하기도 한다.

어그룻다 : 사르미 이룬 어그르추미 하니 = 人事多錯迕(두언 8 : 68)

어그릿다 : 뭇해 와 이쇼니 믅스매 어그리춘 배 업도다 = 在野無所違(두  
언 15 : 4)

어긔릿다 : 글 스는 소는 興心이 어긔릿디 아니하도다 = 墨客興無違(두  
언 15 : 49)

「-젧-」

묻-젧(젧?)다(問) : 묻져(저?)주물 依憑하야 = 憑問(두언 8 : 60)

7. 뒷가지 파생어



「-적시-」

우르-적시다 : 우르적시는 黃雀이 덕주리느니 = 啾啾黃雀啍(두언 18:18)

▽「우르적시다」는 「울다」에서 파생된 말로 볼 수도 있으나, 그 뜻이나 꼴로 보아서는 「우르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울다」는 현대말 ‘울다’와 같은 뜻이나, 「우르다」는 ‘고함지르다, 부르짖다’의 뜻이다.

「-스(수)위-」

깁-스(수)위다(깊숙하다) : 담모히 또 깁스위도다 = 牆隅亦深邃(두언 6:22), 퍼러하야 天理 또 깁수위도다 = 蒼蒼理又玄(두언 20:19)

▽「-스위-」와 「-수위-」는 수의 변이형태이다.

「-닥히-」

나-닥히다 : 처섬 낱저기 各各 혼뻬 나닥힌 神靈이 잇느니라(석보 9:30)

「-못-」

헐-못다(瘡痕) : 입시우리 ... 헐못디 아니하며(석보 19:7), 天地엿 사르

미 헐므스나 = 天地則瘡痕(두언 22:27)

「-쓰리-」

헐-쓰리다(謗) : ☆헐쓰릴방 = 謗, ☆헐쓰릴웨 又 헐웨 = 毀, ☆헐쓰릴독 = 譏(자화, 하:29)

「-버리(위)리-」

수스(수)-위리다(喧) : 고지 더우니 뽕 짓는 버리 수스놋다 = 花暖蜜

蜂喧(두언 21:6) / 小人이 길헤 마갓느니 양조 하요미 조모 수스위리

놋다 = 小人塞道路 爲態何喧喧(두언 16:68), 수수위려 늘그니를 慰勞하

느다 = 喧鬧慰衰老(두언 22:3)

▽파생어에서 「수스-」~「수수-」의 수의변동이 일어난다.

「숫두버(위)리-」가 보이는데, 여기 「-두-」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불명이다.

外道 三億萬이... 말이 재야 숫두버리더니 (천강곡 상, 기 157), 員의

뽕안한 숫두위려 브로미 업도다 = 太守庭內不喧呼(두언, 중간 9:31)

(1-5) 그밖의 파생풀이씨

89. 풀이씨에서 풀이씨를 만드는, 그 밖의 많은 뒷가지들이 있는데, 대개는 용례가 국한되어 있어서 뜻 잡기가 곤란하다.

「-돋-」

긋(←긋)-돋다(止) : 入聲은 썰리 긋돋는 소리라 (훈, 언해)

티-돋다 : 늘근 피 남기 올오더 혼번 티드라 늘근 지죄 不足홀시(남명, 상:2)

나-돋다(奔) : 암 사스미... 仙人을 보고 나드르니라 (석보 11:25)

맞(←맞)-돋다(會) : 하다가 또 이 스시 맞드로물 因하야 = 若復因此際會(능엄 5:29), 清河公이 즈름길호로 玉冊을 傳호물 맞드라 = 際會清河公 間道傳玉冊(두언 24:13)

솟-돋다(湧) : 내 모미 自然히 솟드라 하늬 光明中에 드러(월석 2:62)

제-돋다(覺) : 조움저기라도 이 부텃 일후므로 들어 제돋기 호리이다 (석보 9:20-1)

낫-돋다(進) : 어마니미 드르시고 안답까샤 낫드라 아나샤 것드록죽 거시놀 (월석 21:217)

넘-돋다 : 히 하늘과 모도매 넘드라 氣盈이 드외오 (능엄 6:17)

다-돋다(臨) : 研은 다드게 알씨라 (월석, 서:18-9)

「낫돋다」, 「나돋다」, 「티돋다」와 「솟돋다」의 네 말은 「돋-」의 움직씨로서의 뜻이 꽤 강하게 남아 있어서 합성어로 보아질 정도이다. 그러나 「제돋다, 긋돋다, 맞돋다」의 「-돋-」에서는 ‘달리다’의 뜻이 없어졌으므로, 이 한 예의 말을 모두 파생어로 보았다.

「-부치-」

드위-부치다 : ☆몹겨리 드위부치니 거문 龍 | 봄놀오 = 濤翻黑蛟躍(두언 중간 1:49)

「-나-」

맞-나다(遭) : 어딘 벼들 맞나아 (석보 9:16), 世尊을 맞나스블며 (월

7. 뒷가지 파생어



석 7:5(6), 기 179)

「-닐-」

맞-닐다(遭): 兵亂을 맞니러 蜀江에 니르러 와 = 遭亂到蜀江(두언 6:36)

「-거스리-」

빛-거스리다(刷): 빛내 羽儀를 빛거스리듯다 = 光芒刷羽儀(두언 8:26)

「-아-」

할-아다(謗): 開國臣을 할어늘 (용 104장) / 거죽 이를 더어 할암과 = 加誣毀謗(영가, 하:140)

새-아다(曙): 날 니소된 밤 새알씨라 (월석, 서:17)

「-쓰-」

거슬-쓰다(逆): 天意를 小人이 거스려(용 74장) / 하늘과 싸왓 스시에 順하며 거슬쁜 이리 잇도다 = 天地有順逆(두언 7:25)

마초-쓰다(證): 버거 相應의 深淺을 마초시니라 = 次驗相應深淺(영가, 하:16) / 詳考는 子細히 마초며 알씨라(석보 9:38), 열히를 墳典을 마초쓰니라 = 十載考墳典(두언 24:32)

「-설-」

쓰-설다(掃): 물 쓰러 끌며 香 뛰우며 (월석 21:194) / 이 經을... 五色 누마채 녀허 조흔 싸 쓰설오 노꾼 座 밍글오 便安히 연즈면 (석보 9:21)

이 뒷가지는 「서렀다」의 \*「설-」에서 온 것임이 분명하다.

사발 덩시 서러즈라 = 收拾椀櫟着(노걸대 언해 상:38)

「-구워, 골외-」

굽-구워다(曲, 枉): 저근 길흔 굽구워여 막술히 스막찰도다 = 小徑曲通村(두언 25:19)

굽-골외다: 고히 ...또 곱골외디 아니함며 = 鼻 ...亦不曲戾(법화 6:13)

「-은ㅎ-」

구블ㅎ다(曲): 筮簞는 모기 구블ㅎ고 (석보 13:53)

「-슬-」

굽-슬다(伏): 벼개에 굴스러서 = 伏枕(두언 7:10), 妄識 더러부메 마니 구빨씨 사오나바 어다디 몰ㅎ느니 (월석 14:7)

「-오왜-」

조보왜다(徧, 隘): 졸던 東山이 어위며 (월석 2:28) / 商山入, 芝草 먹디니도 조보왜니라 = 局促商山芝(두언 9:4)

「-아리-」

헤-아리다(慮): 내 神力으로 즘은 劫에 헤아려도 몰 알리로소이다(월석 21:14)

「-사-」

나-사다(生): 세 커 도로 히미 나사느니 = 骨大却生筋(두언 8:53)

90. 그 밖에, 다음 말들도 모두 뒷가지 파생어인것 같아 보인다.

것(←것-)비치다: 가지 것비쳐 드트리 드외의 붓아디거늘 (석보 6:31)

듬(←듬-)덜다: 覆는 누미 重罪를 들덜들씨오 (능엄 7:54)

혹-덕다: 혹더근 거슨 足히 일흠ㅎ디 몰ㅎ리로다 = 瑣細不足名(두언 22:18)

숫-붓다: 几를 스저 (두언 15:4) / 草衣로 숫붓고 (석보 11:25)

입-주리다(吟): 센 머리에 입주리노라 = 白頭吟(두언 7:19)

덕-주리다: 우르적시는 黃雀이 덕주리느니 = 啾啾黃雀啁(두언 18:18)

닉-숙다: ☆驊騮馬 | 닉숙디 아니함야 = 驊騮不慣(두언 중간 17:27)

업시보다, 업시우(오)다: 三寶를 업시보니(월석 23:64, 기 502), 내 너 희들홀 업시우디 아니함노니 (석보 19:30), 傲는 늬 업시울씨라(능엄 8:115)

▽「없+이보-」로 분석된다.

## (2) 임자씨에서

1. 이에는 꼴 있는 가지는 물론, 꼴 없는 가지도 있다.

7. 뒷가지 파생어



「-롭(롭), 로(로)빔(> 로(로)외)-」

## 2. 임자씨에 붙어 그림씨를 만든다.

\*바지-롭다(巧) : 匠은 바지라 (법화, 서 : 21) / 누니 꼴히나 ㄴ는 字를  
바지로이 하더니라 = 辨眼工小字(두언 16 : 17)

▽「바지」는 ‘장색(匠色)’으로서, 이에 「-롭-」이 붙어 ‘공교하다’의 뜻이  
되는 것은, 장색의 재주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파생어는 「바지로이」 이외에는 쓰이지 않는다.

아스-롭(롭)다(梯) : 아스爲弟(훈, 용자례) / 비록 아스르외오져 혼들  
= 雖欲梯(내훈 3 : 39), ☆아스로일데 = 梯(자회, 하 : 25)

▽「-롭, 롱-」은 「-로(로)빔-」 > 「-로(로)외-」의 변이형태를 가진다. 훈몽  
자회의 「-로일」은 「-로일」의 변형으로 생각된다.

즈비-롭다 : ☆즈비로일즈 = 慈(자회, 하 : 25), ☆慈悲로원 이리나(철대  
만법 20)

네-롭(롭)다(昔) : ☆毛髮이 네르외도다 = 毛髮古(두언 중간 9 : 9), ☆潭  
州入 ㄴ을 안히 甚히 淳朴하며 네로외니 = 潭府邑中甚淳古(두언 중간  
9 : 31)

즈스(←조술)-롭(롭)다(要) : 慧目 열며 覺心 조히을 조스리라 = 乃開  
慧目淨覺心之要(능엄 2 : 95) / 서르 도보미 조스르빔니라 = 相資爲妙  
(몽산 9), 들구를 타 조스르원 늘을 뒤흔도다 = 乘槎動要津(두언 20 :  
39), 狹獮 더러브료물 듣고져 조스로이 너기고 = 要聞除狹獮(두언 20 :  
30)

▽「조술」의 끝 르은, 「-롭-」 위에서 줄어진다.

새-롭(롭)다(新) : 新은 새라 (훈, 언해), 현웃도 새 곤하리니 (월석 8  
: 100) / 소아 자본 사스미 새르외도다 = 射藥新(두언 7 : 18), 藤入 가  
지는 누를 뻗어 새롭도다 = 藤枝刺眼新(두언 15 : 6)

## 3. 그 밖에 :

受苦-롭다 : 受苦로빔 病(석보 9 : 7), 三界 다 受苦로빔니 (월석 2 : 38)

苦-롭다 : 기픈 브디 苦로원들 一定히 아노니 = 定知深意苦 (두언 20 : 18)

智慧-롭다 : 智慧로빔 사르미 또 ㄴ르쳐 (월석 8 : 70)

怪-롭 : 妖怪로빔 스스을 (석보 9 : 36), 妖怪로원 버리 = 妖星(두언  
20 : 41-2)

常例-롭다 : 妖怪는 常例로빔디 아니흔 荒唐흔 이리라 (석보 9 : 24)

神奇-롭다 : 神奇로빔 變化 (석보 13 : 14)

등등 많은 파생어들이 있다.

4. 이 뒷가지는 임자씨가 가진 속성을 나타내는 그림씨를 만드는 일도  
있고(조스롭-즈비롭-), 또는 임자씨가 가진 속성 중의 한가지 성질을 가  
려서 그것을 표시하는 그림씨를 만드는 일도 있다(바지롭-, 아스롭-).<sup>(39)</sup>

그리고 「-르빔-, -르외-」로 바뀌는 점으로 보면, 이 뒷가지는, 뒤에  
나올 「-드빔-, -드외-」의 /ㄷ/이 /ㄹ/로 바뀐 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질게 한다.

「-답-」

5. 원래 이 말은 불구풀이씨인데, 「-롭-」과 거의 같은 뜻을 가진 가지  
로 쓰인다.

꽃(←꽃)-답다(香) : 비 저즌 불근 蓮入 고즌 冉冉히 꽃답도다 = 雨裏  
紅葉冉冉香(두언 7 : 2)

▽「꽃답다」는 꽃이 가진 향기로운 성질을 표시하는 그림씨이다.

아름-답다, 아룻-답다(美) : 제 모물 아를 삼디 아니하며 = 不私其身  
(능엄 6 : 108) / 美는 아름다볼씨니 (석보 13 : 9), 아룻다운 저비 = 嬌  
燕(두언 7 : 33-4), 아룻다운 꽃고리 = 嬌鶯(두언 18 : 8)

▽자기 자신에 소속된 것은 ‘아름답기’ 때문일까? 그러나 이 밀말파 파생  
어는 그 뜻이 꽤 멀어졌으므로, 파생어의 뿌리가 「아름」에서 바뀌어 「아  
룻답-」이 나타나게 된다.<sup>(40)</sup>

(39) 이 뒷가지는 임자씨 이외의 다른 말에 붙어서 그림씨를 만들기도 한다.

예 : 외-롭다.

(40) 그리고 「간-답다」의 「간-」은 이름씨로 쓰이는 예가 없으나, 같은 부류에  
속하는 파생어일 것이다.

몹고 간다볼 道理로 衆生을 濟渡하야(월석 1 : 18)

地獄애 모던 브리 간다볼 ㄴ르미 드외야(월석 8 : 73)



시름-답다: 슬픈 일와 시름다보 이리 다와뎡거든 (석보 9:8)

實-답다: 實다이 아라 =如實知之(법화 3:16)

이 뒷가지의 「ㄷ」은 때로는 「ㅎ」으로 바뀌기도 한다.

實-답다: 實다흔 道를 두샤 (월석 9:9)

6. 「ㅅ슴답-, 뜯답-, 法답-」 따위 말의 「답-」은 불구풀이씨이다. (→p.41)

「-ㄷ뵈-, ㄷ외-」

7. 이 뒷가지는 분명히 움직씨의 줄기에서 온 것이다.

疑心-ㄷ뵈다: 緊那羅는 疑心ㄷ뵈 神靈이라 혼 뜨디니 사름 ㅅ도디

썩리 이실씨 사르민가 아닌가 ㅎ야 疑心ㄷ뵈니 (월석 1:15)

妄量-ㄷ뵈다: 擧動이 妄量ㄷ뵈오 (월석 2:11)

辱-ㄷ뵈다: 忍辱은 辱ㄷ뵈 일 츠물씨오 (월석 2:25)

利益-ㄷ뵈다: 利益ㄷ뵈 일 ㅎ야 (석보 9:40)

언극-ㄷ뵈다: 내 부텃 누느로 六道衆生을 본딘 艱難코 언극ㄷ뵈야 福  
과 智慧와 업서 (석보 13:56)

「언극」은 따로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8. 뒷가지인 「-ㄷ뵈-」는 움직씨에서 온 것이다.

山の草木이 軍馬ㅣ ㄷ뵈니이다 (용 98장)

그러나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는 「뵈」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가지의 「-ㄷ뵈-」는,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뵈」이 유지되어 있으니, 움직씨의 줄기로서는 「ㄷ외-」로 표기되어 있다.

釋迦佛 ㄷ외삼들 普光佛이 니르지니이다 (천강곡 상, 기 5)

王 ㄷ외야 겨샤 (월석 1:5)

남지니 ㄷ외야 (석보 9:7)

이로써 보면, 「뵈」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있어서는, 줄기와 가지는 외형상으로도 분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9. 「뵈」이 없어지고 난 뒤로는 합류된다.

시름-ㄷ(도)외다(憂): 시름ㄷ원 뜨디=愁思(두언 6:23), 시름도원 뜨  
들=愁思(두언 11:7)

아름-ㄷ외다(私): 깃거 ㅎ는 萬物은 제여곰 아름ㄷ외도다 =欣欣物自私  
(두언 14:38)

「-뵈-」

「-뵈-」의 원형으로 생각된다. (41)

疑心-뵈다: 상네 겨샤미 아니신가 疑心뵈거신마른 (법화 5:135)

病-뵈다: 부터도 病ㄷ뵈 너기시니라 (월석 13:27)

「病뵈다」는 달리 활용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

「-젓-」

힘-젓다: 支는 서르 잡드려 피울씨니 모디 서르 업디 몬ㅎ야 힘저슨  
뜨디라 (석보 9:18)

利益-젓다: 세흔... 一切 衆生으로 各各 利益젓게 ㅎ실씨오 (법화 4:  
159-60)

香氣-젓다: 찻 거치 나니... 마시 香氣젓더니 (월석 2:43), 瞻婆는 꽃  
일후미니 비치 노르코 香氣저스니라 (월석 2:44)

「-잡-」

늘-잡다(銳): 늘카보 늘히 갈 곤흔 것들히 (월석 21:23) (42)

「-벼르-」

새움-벼르다(猜): 六師ㅣ 이 말 듣고 새움 ㅅ스물 내야(월석 21:197)

/ 물읏 有情이 貪ㅎ고 새움볼라 제 모물 기리고 ㄴ물 허러(석보  
9:15)

(41) 「-뵈-, -뵈-, -ㄷ뵈-, -ㄷ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ㄷ뵈(ㄷ외) → ㄷ뵈(ㄷ외)  
|                      |  
뵈                      뵈

(42) 「-잡-」은 풀이씨에 붙어, 그림씨를 파생하기도 한다.(맛잡다, 널잡다 따위.  
→p.187)

7. 뒷가지 파생어



「새움」은, 움직씨 「새오다」의 이름끝이 이름씨로 파생된 말이다.

### 「-들-」

애-들다(恨, 慨) : 썰리 京畿에 가돌 애드로니 =恨...俄赴京畿(영가, 서 : 13), 알똥 외요돌 애드니라 =慨前之失也(능엄 1 : 93)

### 「-지-」

마늘-지다(陰) : 마르돌 마늘지게 하는 대를 =陰江竹(두언 6 : 45)

「마늘」은 ㅎ 끝소리를 가진 이름씨인데, ㅎ이 ㅈ을 거센소리 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원래 \*「지-」는 독립된 풀이씨로 쓰이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43)

마늘흔 답사흔 最안해 스막햇고 =陰通積水內(두언 6 : 45)

### 「-우-」

그늘-우다 : 天下엿 치운 사르돌 키 그늘워 =大庇天下寒士(두언 6 : 43)

### 「-씨-」

물-씨다 : 野干은 ... 물씨 든니며 바리 우느니 =野干...群行夜鳴(법화 2 : 111)

테-씨다 : 天地를 테씨샤 =範圍天地(법화 3 : 163)

### 「-ㅎ-」

뽕다(雨) : 法雨를 비호더 =雨法雨(법화 3 : 4), 고줄 비호시니(월석 1 : 13)

「이 움직씨는 분명히 이름씨 「비」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ㅎ-」의 줄인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0. 마지막으로, 임자씨를 풀이씨 만드는 끝없는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임자씨가 그대로 풀이씨의 줄기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마돌 → 마돌다(旱) : 시미 기픈 므른 마드래 아니 그출씨 (용 2장) / 여러히 닛위여 마드니 (월석 2 : 50)

(43) 합성어의 「슬지다」(슬+지다)와 비교해 볼것.

너출 → 너출다(蔓) : 너추렛 여르미 나니(월석 1 : 43) / 넷는 거시 여

못 너추러 가느니 =有生固蔓延(두언 7 : 35)

씨 → 씨다(帶) : 프른 女蘿는 기루미 씨 곤고 =碧蘿長似帶(두언 20 : 2)

/ 寶玉帶 씨샤 (용 112장)

신 → 신다 : 신爲履 (훈, 용자례) / 신 신노니 (두언 6 : 29)

긋 → 긋다(劃) : 伏羲 긋 그식 사름 뵈며 =伏羲畫之以示人(법화 3 : 156)

품 → 품다(懷) : 씨돌 드러 푸메 잇거니와 =納種在懷(영가, 상 : 26)

/ 毒흔 사르미 푸머 이셔 =毒人懷抱(능엄 8 : 88)

「위의 「씨, 신, 품」은 임자씨인 경우와 풀이씨의 줄기인 경우에 그 성조를 달리한다.

솟 → 솟다(並) : 다섯 쏘비 흐리니라 =五疊渾濁(능엄 4 : 81), 이 第一

쏘비니 =是第一重(능엄 4 : 84) / 並書는 쏘바 쓸씨라 (훈, 언해)

「이 말은 무조건 같은 말뭉치로 용인되지 않을는지 모르나, 그 뜻의 관련성은 분명한것 같이 생각된다.

낫(鉤) → 낫다(鈞) : 고기 낫쥔 낫술 밍 마느다 =作鈞鉤(두언 7 : 4)

「이 말은 꼬트머리의 두 당소리가 자리를 바꿀뿐 아니라, 성조의 변동도 일으킨다.

비룻 → 비룻다 : 그 오미 비룻 업슨 전츠로 =其來無始故로 (금강삼가 3 : 59) / 처섬 비룻는 거시 因이오 (석보 13 : 41)

### (3) 그밖의 품사에서

#### 「-롭, 롬-」

1. 임자씨에 붙는 것이 상례이나, 매김씨에 붙을 수도 있다.

외-롭(롬)다 : ☆외팍척 =隻(자회, 하 : 33), 외섬 =孤島(용 5 : 42) / 孤는 외르윳씨오 (능엄 5 : 29), 외로원 城 =孤城(두언 20 : 1)

「외」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앞가지처럼 쓰이게 되나, 「외롭-」에서는 뿌리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외섬」 따위의 「외」는 가지가 아니라 매김씨이다. (→p. 84)



「-ㄷ뵈-」

2. 임자씨를 그림씨로 만드는 것이 상례이나, 매김씨에 붙어 그림씨를 만드는 일도 있다.

상-ㄷ뵈다: 어느제 샬 새를 터 = 何當擊凡鳥(두언 16:46) / 그 머근 後에는 여러가짓 상ㄷ뵈 이리 나니라(월석 1:43)

「-어리-」

3. 상징어에 붙어 움직씨를 만든다.

구물-어리다: 구물어리는 벌에 = 蠱蟻(능엄 4:25)

▽뿌리 「구물-」은 의태어(어찌씨)이다.

구물구물하느 衆生=蠱動含靈(몽산 13, 51)

「-이-」

4. 상징어에 붙는다.

곰즈기다: 누를 즈조 곰즈기며 (월석 2:13)

▽뿌리 「곰즈-」도 의태어이다.

밤낮 닐웨를 곰즈도 아니하야(월석 1:52)

「-죵, 읍-」

5. 불구적이오 가상적인 가지이다.

훈죵-죵(은)다: 話頭 | 훈죵은 훈면 = 話頭純一(몽산 69), ☆軍州의 政 體 훈죵은디 아니하니 = 軍州體不一(두언 중간 1:52)

▽뿌리 「훈죵-」의 「-죵-」은 말말이 똑똑하지 않으나, 「훈」은 ‘하나’의 뜻이다. 그리고 「-은-」은 「-죵-」의 /ㄱ/ 없어진 꼴인데, 「-죵-」은 ‘갈다’의 뜻을 가진 풀이씨의 줄기에서 온 말이다.

「-없-」

6. 그 말말로 보면 풀이씨의 줄기 「없-」(無)에서 온 말일 것임이 분명하나, 뒷가지로서는 ‘없다’의 뜻이 똑똑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하음-없다: 하음업슨 法으로 = 以無爲法(금강 43), 하음업서 꾀외하니

= 無爲寂然(영가, 상:59)

▽뿌리 「하음」은 「하다」의 이름풀임이 분명하니, 이 경우에는 「없다」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말은 임자씨에서 파생된 풀이씨이나, 다른 말과의 관련으로 편의상 여기 넣어둔다.

속절-없다: 속절업슨 비화 아로물 디녀 = 將閑學解(몽산 57)

▽뿌리 \*「속절-」이 단독으로 쓰이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부절-업다: ☆等閑 부절업다 (자희, 하:8, 「閑」 주)

▽이 뿌리도 단독으로 쓰인 예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디-」

ㅁㄹ-디다(橫): ☆프리 찬고 긴 어름 | ㅁㄹ메시니 = 水寒長氷橫(두언 중간 1:17)

▽「ㅁㄹ」는 어찌씨이다.

(4) 「하다」형 풀이씨

1. 뿌리에 「-하다」가 붙어서 풀이씨로 전성되는 말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뿌리의 종류도 꽤 여러가지이므로, 이 종류의 파생어는 일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것 이외에는 한자어에 「-하다」가 붙어서 된 말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4-1) 이름씨 + 하다

2. 이름씨에 「하다」가 붙은 파생풀이씨는 매우 많다.

간난-하다: 천량 업슨 艱難이 아니라(석보 13:56-7) / 艱難하니 가승 머니 = 貧富(금강 5)<sup>(44)</sup>

간슈-하다: 保하야 가지며 두퍼 간슈하야 = 保持覆護(능엄 10:41)

▽뿌리 「간슈」가 이름씨로서 단독으로 쓰인 예는 찾지 못했으나, 이름씨 앞

(44) 「간난」은 곧 「가난」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자어 「艱難」과의 인연이 끊어지고, 불구뿌리가 된다.

사르미 가난하야=人貧(두언 25:40)



은 분명하다. 아마 한어(漢語)일 것이다.

☆네 ㅁ장 용심하여 간슈하라=你好生用心看守着(박통사 중간, 중: 48)

고마-하다(敬): 부테 마조 나아 마즈샤 서르 고마하야 드르샤 說法  
하시니 (석보 6: 12)

「고마」가 이름씨로 쓰인 예는 잘 보이지 않으나, 후기 문헌에 다음과 같은 용법이 있다. (현대말의 「고맙다」는 \*「고마롭다」에서 온 말일 것으로 생각된다.)

☆고마경=敬(유합, 하: 1)

공번-하다(公): 공번하샤 黨 아니실씨 =公而不黨(법화 4: 33)

「공번」이 이름씨로 독립해서 쓰인 예가 보이지 않으나, 이름씨일지 분명한듯.

공스-하다(公事): 더 王이 그 사름드려 무려 지순 罪며 福이며 헤여  
공스하리니 (석보 9: 30)

▽「월석 9: 50」에는 「公事」로 되어 있다.

썩-하다: 鵬鳥 | 썩하야 =鵬圖(두언 20: 40)

구경-하다: 天宮을 구경케 하시니 (월석 7: 11)

구송-하다: 가즐벼 구송하시니라 =喻而讓之(영가, 하 126)

▽위의 「구경」이나 「구송」도 이름씨일지 분명하다.

구실-하다: ☆브즈러니 질삼하야 구실 더답하더니=勤績紉以供租賦(속  
삼강 행실도, 열녀 1) / 나 구실하며 隱處호미 제여곰 天機니라 =出處  
各天機(두언 15: 5)

▽「구실」은 「그위실」「구의실」에서 온 말이다.

그위실-하다, 구의실-하다: 靜이 아리 사오나온 그위실을 因하야=靜  
往因薄宦(영가, 서: 13) / 네 百姓은 그위실하리와... (능엄 3: 88), 내  
의 구의실호디 隱居를 兼호 일후물 어느 알리오 =肯信吾兼吏隱名(두  
언 6: 16)

그슴-하다(期, 限): 未來엿 그슴으로 알췌 塵劫을 가즐비전댄=未來  
之期 比前塵劫(법화 3: 165) / 局促은 그슴하야 저글씨라 (능엄 4: 46)

긔결-하다(令): 아바넝 긔결로 宗親들토 沙門이 드외니 (천강곡 상,

기 129) / 二十里에 혼 亭子을 짓게 하야 사르물 긔결하야 두고 (석  
보 6: 23)

기춤(춤)-하다(歎): 驚歎는 기춤이라 (월석 18: 6) / 一時에 기춤  
시코 (법화 6: 102)

깃-하다: 넷 廟엿 杉과 松엔 鳧鶴이 깃하얏고 =古廟杉松巢水鶴(두언  
6: 32)

ㄹ름-하다(代身): 주근 後에 報 | 이셔 허근 터럭만 하야도 受하느니  
父子至親이 이 길히 各別하며 비록 서르 맛나도 ㄹ름매 受코져 하  
리 업스니(월석 21: 78) / 사르물 ㄹ름하시며 쇼를 전네샤디 =代  
人濟牛(능엄 5: 69)

썩-하다: 다섯 五重=五重(능엄 10: 76) / 하나히 열헤 썩호물브터 열  
히 百애 百疊며 百이 千에 썩하야 千二百이 이니 =自一疊十十疊  
百 百疊千 成千二百(능엄 4: 95)

ㄹ-하다: 無邊은 ㄹ 업슬씨라(월석 8: 39) / 雪嶺은 하늘홀 ㄹ하야 히  
오 =雪嶺界天白(두언 7: 10)

노릇-하다: 노르셋 바오리실씨(용 44장) / 東岳陽애 노릇하던 이를 스  
랑하노라 =憶戲東岳陽(두언 25: 5)

말-하다(語): 角端이 말하야늘 (용 42장)

말뎡-하다(由): 사호물 어느 말뎡로 定하리오 =戰伐何由定(두언 7: 14)  
/ 혼 病은 블르 님금을 말뎡하야니 =一病緣明主(두언 21: 21)

맛당-하다(應): 方便으로 맛당을 조차 니르시느니 =方便隨宜說(법화  
2: 49) / 應은 맛당하씨니 (석보 9: 3)

보람-하다(標): 標는 보라미라 (금강 48) / 表는 物을 보람하야 나들  
씨라 =表標物以表顯也(능엄 1: 70)

벌-하다(朋): 나그네 버리 혼갓 使星을 벌호니 =客星空伴使 (두언  
20: 46)

시름-하다: 나는 이제 시르미 기퍼 (월석 2: 5) / 시름하야 한숨 더난  
소리 (석보 19: 14)



스랑-하다(愛, 思) : 아버지 子息 스랑호몬 아니한 스시어니와(석보 6 : 3)

스시-하다(間) : 도즈키 스실 디나샤 (용 60장) / 니플 스시하엿는 곳고 리는 = 隔葉黃鸝(두언 6 : 33)

실각-하다 : 상네 스승의 마루초물 실각하야 (월석 7 : 45)

▽「실각」이 이름씨로서 단독으로 쓰인 예는, 초기 문헌에서는 찾지 못했으나, 다음 예가 있다

☆실각스=思(유합, 하 : 11)

양지-하다 : 楊枝入물 호려 하시니(천강곡 상, 기 105) / ☆양지홀수 = 漱(자회, 하 : 11)

장석-하다(疫) : 장석 혼하거늘 (월석 7 : 28), ☆장석은 = 瘟(자회, 중 : 34) / 어러본 이리 님 時節에 한 사르미 장석하는 難이어나 (석보 9 : 33)

조심-하다 : 들쳐버 조심 아니하다가(석보 9 : 37) / 精舍는 조심하는 자 비라 (월석 1 : 6)

즈슴-하다 : 便安히 즈슴 업스리라=恬然無間(영가, 하 : 126) / 혼두 듯 너비만 부루菜를 즈슴하야 심고니 = 隔種一兩席許蒿苳(두언 16 : 65)

지조-하다 : 樂은... 놀애 춤트렛 지조라(석보 13 : 9) / 長沙애 지조홀 사르미 머리 갖고 = 長沙才子遠(두언 20 : 14)

풍류-하다 : 樂은 풍류니(석보 13 : 9) / 奏는 풍류홀씨라 (월석 2 : 17)

흔더-하다(同處) : 부테... 굴근 比丘 八千人과 흔더 잇더시니(석보 9 : 1) / 比丘尼... 六千 사람과 흔더하야 = 六千人俱(법화 4 : 186)

#### (4-2) 어찌씨 + 하다

#### 3. 본디 어찌씨에 :

다못-하다(與) : 놀와 다못 議論하리오 = 與誰論(두언 8 : 46) / 놀와 다못하야 넷 이틀 議論하리오 = 共誰論昔事(두언 20 : 8)

마장-하다(盡) : 마장 빚어 도훈양 하고 (월석 2 : 5) / 一時入 強하 아

블 마장하야 = 恣一時之強口(영가, 하 : 71)

그르-하다(誤) : 그르 알면 外道ㅣ오 (월석 1 : 51) / 비록 그르하야 지순 이리 이셔도 (석보 9 : 6)

더디-하다(遲) : 니러나물 더디 아니하도다=歸未遲(두언 6 : 34) / 격지 신고 거로물 더디호라 = 步履遲(두언 25 : 22)

이리-하다(如此) : 이리 受苦하시니라 (월석 1 : 6) / 男兒는 녀돈니는 싸해 이리하곡 = 男兒行處是(두언 20 : 36)

아니-하다(不) : 아니 밋기시면 (용 52장) / 大乘을 비웃디 아니하야 (월석 8 : 50)

엇메-하다(何) : 엇메 가며 오미 이시리오 (월석, 서 : 2) / 如來 恭敬 供養하스보물 엇메하며 (석보 9 : 31)

몰-하다(不能) : 便安히 몰 겨샤 (용 110장) / 이 燈이며 이 보미라 몰하리며 (능엄 2 : 83)

잘-하다(善, 能) : 부텃 智慧에 잘 드르샤 (석보 13 : 4) / 이 菩薩이 說法을 잘하씨 (석보 19 : 21)

#### 4. 파생 어찌씨에 :

골포-하다(疊) : 골포는 골포 싸하씨니 (석보 19 : 11) / 글 닐우물 能히 바물 골포하며 = 說詩能累夜(두언 20 : 46)

▽이 말과 비슷한 말로서 이름씨 「疊」에 「-하다」가 붙어 된 「골포다」가 있는데 「골포」는 「골포다」에서 파생된 어찌씨이다.

도로-하다(反, 還) : 所獲을 다 도로 주샤 (용 41장) / 衆이 세번 도로하샤 = 衆三反(법화 6 : 125)

조초-하다(隨) : 마슴 조초 이를 하되 호리라 (석보 9 : 5) / 호워하며 서의호물 제 혼 조초하야 = 濃淡任他(몽산 16)

마초-하다(備) : 詮은 마초 니를씨라(월석, 서 : 21) / 네 고불 양지며 뒷는 지조를 다 마초하야 뵈야 (월석 7 : 15)

마초-하다(應) : 이 寶樹들히 行列行列히 서르 마초 서며(월석 8 : 12)

#### 7. 뒷가지 파생어



넉름비 時節에 마초하야 (석보 9:34)

구디-하다(固): 바를 구디 뜨게 하야 (월석 21:102) / 안조물 能히

구디호물 내 아노라 =自覺坐能堅(두언 20:10)

새로이-하다(新): 歲時에 새로이 하노다 =歲時新(두언 6:30)

업시-하다(無): 돈 업시 (두언 20:37) /菩薩이... 住흔 곧 업시하야 (금강 22)

거슬뻘-하다(逆): 값간도 거슬뻘 마를디니 =不敢違背(내훈 2상:2) / 내 實로 미혹하야 어딘 사르물 몰라 보아 夫人을 거슬지호이다 (석보 11:33)

미이-하다(厲): 스라 미이 뵈에 하고 =然令猛嚴(능엄 7:16) / 사르미 怒호물 마장하면 반드기 소리 미이하야 =必厲聲(법화 2:253)

고즈기-하다(꽃끗이): 믅스물 오을와 혼 고대 고즈기 머거 西方을 想하랴 (월석 8:5) /모물 고즈기하야쇼론 간곡흔 툃기를 스랑하논듯 고 =攬身思狡兔(두언 16:45)

느즈기-하다(低): 느즈기 횃도논=低回(두언 15:2) / 能히 큰 慈悲 마자 믅스물 느즈기하야 (월석 21:139)

마즈기-하다(齊): 理智 하마 마즈기 불마면 =理智既齊明(영가, 하:33) / 실에틀 바라 書帙을 마즈기하코 =傍架齊書帙(두언 7:6)

물궂물마시-하다: 더 나랏 싸할 물궂물마시 分明히 보아 (월석 8:8) / 낫나치 보물 마장 물궂물마시하야 (월석 8:8)

궂마지-하다(깨끗하게 하다): 궂 讎두베 뜨거본들 아라돈 문득 궂마지하야 =纔覺眼皮重 便着精彩(몽산 2)

「고즈기, 느즈기, 마즈기, 물궂물마시, 궂마지」는 각각 「고죽하다, 느죽하다, 마죽하다, 물궂물궂하다, 궂궂하다」에서 파생된 어찌씨인데, 「궂마지」가 따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드시-하다: 드시하야 머그라 =溫服(구급방, 상:14)

「드시」는 단독으로(어찌씨로) 쓰인 예가 보이지 않으나, 「도다」 또는 「도하다」의 파생어찌씨이다.

다-하다(盡): 滅과 생과 다 다아=滅生俱盡(능엄 4:69) / 物 化하샤미 하마 다하샤 =化物既周(영가, 서:6)

더-하다(加): 부터 나 겨시던 時節이 더 멀면(석보 9:2) / 해 드로물 더하코 =益多聞(능엄 2:78)

「다」와 「더」는 「다으-」, 「더으-」의 활용형 「다아」, 「더어」에서 파생된 어찌씨이다.

다아: 앞에 예가 보임.

더어: 고타 다시 더어=更添(월석, 서:19)

고들파-하다(強): 衰殘흔 나해 이 모물 고들파 돈니노라 =衰年強此身(두언 7:18) / 안젯논 소니게 盤飧을 고들파하노다 =坐客強盤餐(두언 21:33)

「고들파」의 줄기로 생각되는 「\*고들팍-」는 나타나지 않으나, 현대어의 「고달프다」로 미루어 보면, 그 때도 이 말이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차-하다(逐): ☆殷殷히 울에 소리 나미 조차 잇도다 =殷殷兼出雷(두언 중간 12:11) / 工夫를 조차하야 =趁逐工夫(몽산 40)

조쳐-하다(兼): 어분 아기를 조쳐 디오(월석 10:24) / 燭入불 자보물 조쳐하코 =兼秉燭(두언 20:17)

「조차」는 「쫓다」와 뜻의 차이가 꽤 있으나, 「뒤따르다」의 뜻을 가진 「쫓다」가 「점하다」의 뜻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조쳐」는, 그런 뜻으로 쓰인 「쫓다」의 하임말, 아니면 입음말의 활용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 (4-3) 불구뿌리(불구어근)+하다

5. 불구뿌리란 오직 한 형태소와만 결합될 수 있거나, 또는 그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뿌리이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 드는 뿌리는, 「-하다」 이외의 다른 형태소와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일이 거의 없다.

마몬-하다(조용하다): 더 나라해 마몬흔 브르미 行樹羅網을 불면(월석 7:67)

당당-하다(應): ☆조흔 주매 困을 당당하나 마르치리니 =贈粟困應指



(두언 중간 3:31)

구죽(구죽)-하다(聳): 구죽흔 石壁 = 竦壁(두언 6:47), 구죽구죽하야

피좁 내는 물샛기 곤도다 = 偶儻汗血駒(두언 22:45)

쾌죽-하다: 惡服은 쾌죽흔 오시라 (법화 5:14)

브즈런-하다: 브즈런흔 막스물 (월석 21:94)

아득-하다: 아득흔 後世에 (월석 1:3)

서의(여)-하다: 生涯 | 하마 서의여하니 = 生涯已寥落(두언 20:7),

關塞 | 서의하니 = 關塞蕭條(두언 6:15)

아마라-하다: 菩薩이 돈니시며 서 겨시며 안즈시며 누보샤매 夫人이

아마라토 아니하더시니 (월석 2:26)

아마리-하다: 則은 아마리하면 하는 겨체 쓰는 字 | 라 (훈, 언해 12)

잘카냥-하다(驕): 속절업시 해 드로돌 잘카냥하야 = 虛驕多聞(능엄 1:94)

여기 첫 음절의 「잘-」은 아마 어찌씨에서 온 말인듯 하다.

조고마-하다(小): ☆艮岑엿 꼭른 헛 비치 슬피 조고마하더라 = 艮岑青輝慘么麼(두언 중간 9:4)

어찌씨로서는 「조고매」가 쓰이고, 매김씨로서는 「조고맏(맏)」이 쓰이는데, 이 뿌리의 「족-」은 「적-」(少)의 변이형일 것이다.

近年 畝病에 조고매 머구물 여렛노니 = 比年病酒開涓滴(두언 8:42)

하 조고맏 龍巖 爲티 마르쇼셔 (월석 7:49)

더러-하다: 帝業憂勤이 더러하시니 (용 5장)

그러-하다: ☆物理 진실로 本來 그러하니라 (두언 중간 1:18)

이러-하다: 王業艱難이 이러하시니 (용 5장)

남죽-하다(餘): 甘蔗는 프리니... 기리 열자 남죽하니 (월석 1:6)

비늬-하다(腥): 東녜크 비르미 피를 부러 비늬하니 = 東風吹血腥(두언 8:2)

아스라-하다(渺): ㅼ름과 ㄴ예 吳蜀人 스시 아스라하니 = 風煙渺吳蜀(두언 6:47)

어줄-하다(迷): 大衆이 어줄하야 잇논덜 아디 묻도다 = 大衆迷不知所 在(능엄 2:15)

우연-하다(寬): 그뵈 如來 우연하사 百千萬億 光明을 펴시니(월석 21:9)

느죽-하다<sup>(45)</sup>: ㄴ가온 가지엔 ㄷ쵸 ㄹ르미 느죽하코 = 卑枝低結子(두언 15:7)

고죽-하다(꽃꽃하다): 如來人 일후물... 생각하야 고죽흔 ㅅㅅㅅ로 歸依하면 (석보 9:16)

ㅅㅅ-하다(蕭洒): ㅅㅅ 비치 正히 ㅅㅅ하도다 = 秋色正蕭洒(두언 6:1), 淸風은 ㅅㅅ ㅅㅅ하 ㅅㅅ미라 (월석 8:8)

6. 다음 몇가지 말들의 뿌리는 바로 풀이씨의 줄기로 쓰이는 일이 있으나, 그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유형에 넣어 둔다.

그속-하다(隱): 그속흔 感 = 冥感(능엄 9:100) / 그스근 ㅅㅅ트론 = 幽隙之塵(능엄 1:107)

덜덜-하다(常): 空이 性은 덜덜흔 거실씨 = 空性常恒(능엄 3:25) / 네 의 本來 덜덜든 거슬 일흔 전칠씨 = 失汝의 元常홀씨(능엄 1:85)

듯-하다(溫): 溫은 듯하씨라 (월석 2:34) / ☆그디는 드슨 덜 좇는 그 러기틀 보라 = 君看隨陽雁(두언 중간 9:33)

웃곳-하다(香)<sup>(46)</sup>: 香潔은 웃곳하코 조할씨라 (월석 7:65) / 웃고슨 ㅅ = 香稻(두언 6:10)

7. 뿌리의 끝소리와 씨끝의 첫소리가 다 같이 정지음(停止音)일 때는, 「하」가 흔히 줄어진다. (→p.463 이하)

(45) 「느죽하다」 따위 몇 낱말은, 파생어찌씨에 「-하다」가 붙어서 된 「느즈기하다」 따위 말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다만 한편은 그림씨인데, 한편은 움직씨이다.)

ㅅㅅ하다——ㅅㅅ지하다

고죽하다——고즈기하다

느죽하다——느즈기하다

ㅅㅅ하다——ㅅㅅ지하다

덜덜하다——덜덜지하다

(46) 「덜덜하다, 그속하다, 듯하다」 따위의 뿌리는, 바로 풀이씨의 줄기로써 활용하는 일도 있으나, 이 경우의 활용형은 극히 극한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풀이씨의 줄기」+「-하다」와 같은 유형은 따로 내세우지 않았다.



ㅁ득-ㅎ다(滿) : 觀呼之聲이 道에 ㅁ득ㅎ니(용 41장) / 法界에 ㅁ득  
도소니 = 充滿法界 (영가, 하: 105), 虛空蓮花座에 無量化佛이 世界에  
ㅁ득거시닐 (월석 7: 52)  
ㅁ죽-ㅎ다(齊)<sup>(47)</sup> : 一와 異에 ㅁ죽ㅎ며 = 一異齊旨(영가, 하: 48)  
/ 鳧鳥이 다못 ㅁ죽디 아니ㅎ도다 = 鳧鳥共差池(두언 11: 27)

8. 빛깔을 나타내는 말들은 「-ㅎ다」 유형에 드는 것이 상당히 많다.  
거머-ㅎ다(黑) : ㄴ출 마조 보와서 거머호물 슬코 = 會面嗟鰲黑(두언 20: 27)  
벌거-ㅎ다(紅) : ☆고준 춘 곳부리 벌거호미 이기엿도다 = 花禁冷藥紅  
(두언 중간 10: 38)  
누려-ㅎ다(黃) : ☆ㅁ르맷 雲霧 | 누려호도다 = 江霧黃(두언 중간 10: 45)  
노라-ㅎ다 : 노라커든 ㅁ르 밍 ㅁ라 = 黃爲末(구급방, 상: 3)  
파라-ㅎ다(綠) : ㄹ 우미 파라호도다 = 芦笋綠(두언 6: 51)  
퍼려-ㅎ다(靑) : ㄹ 나뭇 그티 퍼려호고 = 葱靑衆木梢(두언 6: 48)  
「퍼려」는 어찌씨로 쓰인다.  
프러누려-ㅎ다(靑黃) : 터리는 프러누려코 = 毛爲綠縹(두언 16: 40)

(47) 이러한 조건 아래 「ㅎ」가 주는 예를 더 들어 보면,  
아래 잇디 아니호 거슬 得과라 하야 (능엄 4: 75)  
我今 快樂과라 (법화 2: 137)  
이 존호물 得디위 (능엄 9: 53)  
減度 得게 마라 (법화 2: 99)  
스못디 ㅁ게 하며 (능엄 6: 56)  
노릇게 호리라 (법화 2: 86)  
다 올티 ㅁ도다 (능엄 3: 41)  
엇메 올티 ㅁ관디 (법화 3: 156)  
得호호이다 (법화 2: 254), 得게 (법화 3: 16), 食호호니(법화 3: 64),  
먹디 ㅁ호호니 (법화 3: 64) 등등  
「ㅁ득도소니」는 「ㅁ득호도소니」의 「-ㅎ-」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꼭 「食호-, 得호-」 따위가 「食호호-, 得호호-」의 변형으로 해석됨과 같다. 즉 「ㅁ득도소니」의 「ㅁ득-」은 「ㅁ득호-」의 한 음성적 변이형태로 보아진다.

불가꼭라-ㅎ다(紅靑) : 紺은 불가꼭라홀씨라 (법화 2: 12)  
꼭라불가-ㅎ다 : 터릿 비치 꼭라불가하야미 孔雀의 모기 ㅁ득시며(월석 2: 58)  
하야-ㅎ다(白) : 物이 하야하야 = 物白(두언 8: 53)  
「하야」는 어찌씨로 쓰인다.  
허여-ㅎ다 : 서리엿 염피 허여호물 甚히 듣노니 = 甚聞霜薤白(두언 7: 40)  
이 말들은 모두 빛깔을 나타내는 「검-, 붉-, 누르-, 꼭르-, 프르-, 희-, 회-」 따위에서 파생되었음이 분명한데, 어떤 경우에는 뿌리가 꽤 심한 변화를 입고 있다. 이것은 빛깔의 미세한 차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홀소리를 바꾼 탓이라 생각된다.<sup>(48)</sup>

9. 아래 보이는, 꽤 많은 말들의 뿌리는, 상징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긴다.

좁죽-ㅎ다 : 눈 좁죽홀 씨앗 비 悅澤 (월석 18: 5)  
「뿌리」 「좁죽-」에 「-이-」가 붙어서 풀이씨가 되기도 한다. (좁죽기다)  
다복다복-ㅎ다 : 다복다복하야 프른 지치 빛나고 = 茅茅爛翠羽(두언 7: 37)  
구물구물-ㅎ다(蠱) : 구물구물하는 衆生이 다 佛性이 잇거시니 = 蠱動含靈 皆有佛性(몽산 13)  
「구물-」에 「-어리-」(←「-거리-」)가 붙어서 풀이씨가 되는 일도 있다. (구물어리다)  
두두룩-ㅎ다(高廣) : 두두룩호 靑州엿 피오 = 坡陁靑州血(두언 24: 31)  
밋밋(밋밋)-ㅎ다 : 밋밋하야 수이 비브르느다 = 滑易飽(두언 7: 38),

(48) 이 유형의 말들의 매김끝에서는 「ㅎ」가 줄어진다. (→p. 465)

누런 고지 = 黃花 (영가, 상: 116)

靑衣는 파란 옷 니븐 각시라 (월석 2: 43)

또 어떤 뿌리는 어찌씨로 쓰이는 것도 있으나 드물다.

하야 : 머리 하야 세니 = 頭皓白 (두언 25: 52)

퍼려 : 락헛 비르미 퍼려 나니 = 野菟靑靑 (두언 16: 65)



갓과 슬래 보드랍고 뒹뒹하사 (월석 2:40)

반득-하다: 方正은 모나미 반득할씨오 (월석 2:41)

번득-하다: 번득흔 낙치 업소니 = 無靦面(두언 25:55)

▽위의 두 말은 그 뜻이 상당히 다르나, 원래는 홀소리 같음에 의한 어감의 차이밖에 없던 말이었을 것이다.

번들원들(반들원들)-하다: 爛爛은 번들원들흔 양지라 (능엄 10:2),

☆술 선 門엔 드문 그르메 반들원들하도다 = 松門耿踈影 (두언 중간 9:14)

번-하다(明): 밤 누니 번하거늘 (석보 6:19), 하냐 光明이 문득 번하거늘 (월석 2:51)

썰론-하다(尖): 蜀入 뵈히 썰론하도다 = 蜀山尖(두언 23:42)

빽빽-하다(密): ☆빽빽흔 대 수혜 = 密竹 (두언 중간 1:14)

잠잠-하다(默): 阿難이 잠잠하야 = 阿難默然(능엄 3:66)

천천-하다(徐): 오술 빙이사디 七寶로 꾸미실씨 고봉서고 천천하더시니 (천강곡 상, 기 120)

촉촉-하다(濕): 촉촉흔 氣韻으로 드외야 나느니라 (석보 13:10)

촉촉-하다: 술히 마마니 촉촉하도다 = 肌膚潛沃若 (두언 14:2) <주> 沃若은 더운 양조를 나르니라.

답답-하다: ㅁ슴미 답답하야 (두언 7:36)

칙칙-하다(密): 니 마스니 ㅁ죽고 칙칙하시며 (월석 2:41), 칙칙하말와매 = 密藻(두언 7:7)

칙칙-하다: ☆저근 비 바미 또 칙칙하니 = 小雨夜復密(두언 중간 12:27)

훤훤-하다(豁然): 넷지블 本來 사몬 훤훤호몰 依籍호니 = 古堂本買籍踈豁(두언 7:19-20)

훤-하다: 싸히 훤하코 도흔 고지 하거늘 (월석 2:6)

호워(호워)-하다(潤澤): 이 그리믈 對하야서 ㅁ슴미 호워하니 = 對此融心神(두언 16:29), 입시웁 비치 ㅁ고 호워호워하야 頻婆羅 | 라 홀여르미 ㅁ득시며 (월석 2:58), 潤澤은 호워호워할씨라 (능엄 2:5)

구분-하다(曲): 筵篠는 모기 구분하코 (석보 13:53)

▽이 말의 「구분-」은 「굽-」에서 파생된 것이겠으나, 다분히 상징적으로 느껴진다.

도련-하다(圓): 環은 도련흔 구스리오 (능엄 2:87)

두련두련-하다: 갓남기... 두련두련하야 양지 술위엿 盖 곤도다 = 有栢童童狀車盖(두언 18:15)

▽「도련-, 두련-」은 모두 풀이씨의 즐기 「돌-」에서 파생된 뿌리임이 분명한데, 상징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기웃-하다(欹): 幽深흔 고존 기웃하야 남기 ㅁ득하얏고 = 幽花欹滿樹(두언 7:20)

쁘렛-하다(靡): 흐른 빗바리 다 西入 녀그로 쁘렛하얏도다 = 散足盡 西靡(두언 16:66)

▽이 뿌리는 「플-」에서 파생된 것임이 분명한데 「엿」을 붙여 상징적이다.

몰궤몰궤-하다: ☆몰궤몰궤흔 별와 둘와는 노피 도댓고 = 磊落星月高(두언 중간 1:15)

날혹조늑-하다(威遲): 날혹조늑흔 흰 鳳이 양지오 = 威遲白鳳態(두언 16:34)

괴외-하다(靜): 寥는 괴외할씨라 (월석, 서:1)

▽「괴외-」는 \*「괴괴-」[kojkoj-]의 변화형일지며, 「괴괴-」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괴외잠잠-하다(寂默): 牟尼는 괴외잠잠할씨니 (월석 1:15)

10. 지금까지 보인 말들의 뿌리는, 거의 불구적이기는 하나, 그 뿌리로서의 성격이 뚜렷한데, 다음 말들은 그렇지 못하여, 줄기를 단순한 한 뿌리로 볼 수도 있다.

흔하다(賤): 네 히를 艱難하코 장석 흔하거늘 (월석 7:28)

빅하다(設): 天地 位를 빅하야 = 天地設位(법화 3:155)

가죽하다(急): 하다가 ㅁ슴 뿌미 가죽하면 = 若用心急(몽산 7)

서늘하다(涼): 涼은 서늘할씨라 (월석 10:105)



아니환하다(惡) : 伊蘭은 내 아니환 남기라 (능엄 3:45)  
 장망하다(準備) : 녀느거스란 마오 그릇쑤 장망하라 (월석 7:42)  
 대도하다(凡) : 龍王은 龍의 中엿 王이니 대도하디 사스물 鹿王이라  
 하며 즈게남쑤 樹王이라 하듯하야 (월석 1:23)  
 만하다 : 讒口 | 만하야 (용 123장)  
 ㄹ이 말은 줄기 끝의 /ㄹ/가 흔히 줄어들기 때문에, 줄기가 「담-」으로서 활  
 용하는 일이 많다.  
 슬하다(싫어하다) : 사르미 受苦를 맛나아 老病死를 슬하야 하거든 (석  
 보 13:17-8)  
 과하다(칭찬하다) : 奇才를 과하스븐니 (용 57장)  
 간곡하다(獮) : 간곡 툃기 = 狡兎(두언 16:45)  
 덕하다(守) : 너를 모다 덕하야 護持하느니 (월석 18:57)  
 더마니하다(더만하다) : 너희 더마니하 이리 잇느니 썰리 나가라(월석  
 2:6), 내 太子를 섬기스보디 하느니 섬기듯 하야 하번도 더만하 일 업  
 수니 (석보 6:4)

## 2) 입자씨

### (1) 입자씨에서

「-가」

(성)-가 : 張三李四는... 張개여 李개여 하보로 다 닐은 마리라(금강  
 삼가 2:33)

「-가비」

버름-가비(바람개비) : ☆ 버름가비일 = 鷁(자회, 상:17)

ㄹ「바람개비」가 「바람」과 어째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는 미상.

「-간」

집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가지.

뒷-간(廁) : ☆ 뒷간 구무 = 廁孔(영가, 상:35)

ㄹ이 말의 뒷말은 「뒤(後)」임이 분명하나, 「뒤」가 ‘대소변’의 뜻으로 쓰인  
 예는 찾을 수 없다.

「-경」

먹-경 : 므슴 먹경으로 食欲을 펴리히고 (석보 24:29)

「-꽃」

낫-꽃(顏色) : 舍利弗이 측흔 낫고지 잇거늘 (석보 6:36), 날 향하야  
 호매 그뵈 眞實入 낫고줄 보노라 = 於我見子眞顏色(두언 16:61)  
 가지의 「-꽃」이 ‘꽃’의 뜻인 「꽃」에서 온 말인지 단정할 자료가 없으나,  
 그럴 가능성은 있을듯 하다.

「-낫」

쌀-낫(粒) : 玉 존흔 쌀나치 = 玉粒(두언 7:31)

삼-낫(麻) : 빗바리 삼낫 존하야 = 雨脚如麻(두언 6:42)

벼-낫(稻) : 𪎭스라기를 더러버리니 벼나치 붉도다 = 除芒子粒紅(두언  
 7:18-9)

조쌀-낫 : 조쌀낫 키 존하닐 (남명, 하:70)

이 가지는 ‘날개’의 뜻을 가진듯 하다.

「-내」

겹셈을 나타내는 가지이다.

그되-내 : 그되넛 말 존디 아니호니 (월석 21:216)

어비물-내 : 즉자히 나랏 어비물내를 모도아 니르샤디 (석보 6:9)

「-님」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님」도 가지이다.

아바(←아비)-님 : 父는 아비오(월석, 서:14) / 아바닐 지하신 일흠(용  
 9장)

어마(←어미)-님 : 母는 어미라(월석, 서:14) / 母는 어마니미라 (월석  
 2:12)

아자바(←아자비)-님 : 白水에 와 아자비를 보니 = 白水見舅氏(두언 7:



24) / 아자바넛 棺 (월석 10:10)

아즈마(←아즈미)-님 : 아즈미를 저하샤 (용 99장), 아바넛기와 아즈마  
넛기와 (석보 6:1)

위의 말들은 뿌리의 끝 「-이」가 「-아」로 바뀌었다.

스승-님 : 法 마르치느닌 스승이오 (월석 1:9) / 스승니를 尊하스오  
미오 (법화 3:108)

「-디, 더」

그-디, 그-디(君) : 그를 곧 因하야 (석보, 서:6) / 그디 子息 업더니 무슨 罪  
오 (월석 1:7)

이 가지는 곳을 나타내는 매인이름씨인 「-디, -더」에서 온듯 하다.

「-말」

머리-말(누울때 머리가 향하는 곳) : 부터와 難隨와는 머리마티 서시고  
(월석 10:10)

「-몬」

어비-몬(豪族) : 어비아드리 사르시리잇가(용 52장) / 軒은 어비몬 두는  
술위오 (법화 1:77)

「어비」는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없고, 합성어나 파생어의 뿌리로만 쓰인  
다.

「-몬」은 ‘형’을 뜻하는 「몬」과 같은 어원일지나 여기에서는 「어비몬」  
을 합성어로 보지않고 파생어로 다루어 두었다. 그것은, 형의 뜻의 「몬」  
은 다른 말과 어우를 적에는 다른 말의 앞에 가는데, 여기에서는 「어비」  
에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아드리 비록 모디라도 (월석 2:5)

몰아드리 (월석, 서:14), 몰누의 (월석 21:162)

「-박」

머릿-박(「머리」의 낮은말) : 내 머릿바기며 늙죽시며 (월석 1:13)

「-발, (-발, -왈)」

빗-발 : 빗바리 삼낫 존하야 = 雨脚如麻(두언 6:42)

햇-발 : ☆햇바리 平地에 느리 섯도다 = 日脚下平地(두언 중간 2:65)

깃-발 : ☆깃발유 = 旂, ☆깃발류 = 旒(자희, 하:15)

「-발」은 원래 다리 끝부분을 가리키는 이름씨인데, 비유적으로 ‘아래  
쪽’의 뜻으로 유용되어 가지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글-발(왈) : 글발로 말이스불들 (용 26장), 文은 글와리라 (훈, 언해)  
의 「-발, -왈」도 원래 「-발」에서 변화한 것이리라 추측된다.

「-복」

빗-복(배꼽) : 一切佛이 빗보로 放光하샤 (월석 2:29)

「-복」은 ‘한가운데’의 뜻인듯. (「복판」과 비교할 것)

「-뷔, 뷔」

번-뷔(뵈)(朋) : ☆이 글 하기로써 번뷔 하니 = 以茲朋故多(두언 중간  
1:49), 번뷔 글위를 해 오게 호니 = 多枉友朋書(두언 19:20)

이것은 ‘따위, 무리’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뒷가지이다.

「-쌀」

눈-쌀(속눈썹) : 눈싸리 쇼 마르시며 (월석 2:41)

이 말은 여래(如來)의 32상(相) 중의 「眼睫如牛王相」을 설명하는 것이  
므로, 여기 「눈쌀」은 ‘속눈썹」을 가리킨다. 현대어의 ‘눈썹」은 두 눈 사  
이의 주름을 가리키는 말이나, 15세기 말에 있어서는 ‘속눈썹」을 가리키  
는 데 쓰였다.

「-씨」

아기-씨 : 아기씨 오시느이다 (월석 23:74)

「-실」

그위-실(奉公, 벼슬) : 도죽 五百이 그위 거슬 일버서 (월석 1:6) /

靜이 아리 사오나온 그위실을 因하야 = 靜往因薄宦(영가, 서:13)

「-실」은 ‘자리, 직위(職位)」의 뜻일까?

「-줍」

말-줍(語) : 句는 말줍 그흔 싸히라 (월석, 서:8)

7. 뒷가지 파생어



▽현대말의 「말씀」은 높임말인데, 15세기 말에 있어서는 높임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고, ‘말씨’ 정도의 뜻을 가졌던 것이다.

#### 「-성귀」

프(←플)-성귀 : 프성귀며 듣그리며 =草芥塵(능엄 3:105)

\*진짜, 좋은것’의 뜻일까?

#### 「-아기」

지소사(指小辭, diminutive suffix)이다.

스(←스)-라기(싸라기) : 제 쌀란 마초고(월석 1:45) / 黎民이 겨와 스라기도 흰히 묻 어더 먹눣다 =黎民糠粃(두언 16:71), ☆바라기 바브로 =糠粃(두언 중간 12:19)

▽두언 중간에 「바라기」가 보일뿐, 그 앞 시기의 문헌에는 모두 「스라기」로 나타나지마는, 이 말은 분명히 「쌀」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뒤에 두 음절이 붙어 어형이 길어지기 때문에, 첫머리의 /ㅅ/이 탈락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앙」

지소사이다.

고랑(𪎐) : 谷은 고리라 (월석 13:45) / ☆고랑견=𪎐 (자회, 상:17)

▽이 두 말의 관계는 얼핏 연상되지 않을는지 모르나, ‘고랑’은 발 가운데 ‘골’이라 생각할 수 있다.

#### 「-야지」

「-아기」와 같은 지소사이다.

ㅁ(←물)-야지 : 머에 아랫 ㅁ야지를 티디 말라 =莫鞭轅下駒 (두언 23:36)

#### 「-어리」

등-어리 : 등어리 글키고 =擻背(두언 15:4)

이 가지는 특별한 뜻이 없이, 단순히 짧은 말을 약간 길게 해 줌에 그치고 있다.

#### 「-옹」

기둥(柱) : 길爲柱 (훈, 합자해), 넋기디 =烟柱(두언 25:12)/ 廟入 기

둥 =廟柱(두언 6:18)

이 가지도 아무런 뜻을 더하지 않고, 오직 말을 길게 해 줌에 그친다.

#### 「-자히, 자, 재 ; -차히, 차, 채」

~-자히 : 두서히자히 (월석 1:6), 온누히자히 (월석 2:2)

~-자 : 네짖 句 (남명, 상:1)

~-재 : 여섯재라, 다섯재... (원각, 상 1-2:179)

~-차히 : 둘차히... 세차히... 네차히... 다섯차히... 여섯차히... (석보 9:36-7)

~-차 : 스물다섯차히 (월석 2:18)

~-채 : 아홉채라 (원각, 상:2-2:154), 둘채 (원각, 하 3-2:83)

차례를 나타내는데, 매김꼴밑에 쓰이는 ‘채로’의 뜻을 가진, 「자히」는 매인이름씨이다. (→p.296)

#### 「-장이」

담-장이(蔭) : ☆담장이벽=蔭, 담장이례=蔭(자회, 상:9)

천한 직업인을 나타내는 가지 「-장이」와, 같은 어원일까?

☆띠장이=帶匠(박통사, 상:18)

▽그러나 박통사 언해의 초간(경북대학교 대학원 영인)에는,

띠와치=帶匠

로 되어 있으니, 15-6세기에 「-장이」란 말이 쓰였던 것인지 아닌지는 좀 의심스럽다. 「-와치」는 「-바치」에서 온 말이다.

#### 「-죽(쪽)」

ㅁ슴-죽(ㅁ슴쪽)(심장) : ㅎ다가 ㅁ슴 뿌미 가죽ㅎ면 ㅁ슴조기 뒤여 =若用心急則動肉團心(몽산 7)

이 말은 「ㅁ슴쪽」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사르미 ㅁ슴쪽 노코 =置於此人心頭上(불정심경, 중권<정양사 영인 본> p.64)

#### 「-지」

가락-지(指環) : ㅎ다가 微妙ㅎ 가락곳 업스면 =若無妙指(법화, 서:23) / ☆指環 가락지 (자회, 중:24, ‘環’자의 주)



「-질」

현대말에서도 흔히 쓰이는, 관습적인 행동, 또는 직업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가지이다.

불무-질 : 큰 불무를 撫定하시니라 = 撫洪鎡(두언 6:24) / 中散이 山

陽에서 불무질하고 = 中散山陽鍛(두언 8:65)

슈-질: ☆슈질슈 = 繡(자회, 하:19)

## 「-측」

발-측 : 발측爲跟 (훈, 용자례)

뒤-축(踵) : ☆뒤축근 = 跟, 뒤축종 = 踵(자희, 상 : 29)

▽이 두 말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 「-히」

겹섬을 나타냄.

너-히 : 너희 디마니혼 이리 잇느니 썰리 나가라 (월석 2:6)

저-희 : 저희 날오더 (월석 2:46)

「-의/의」 (비슷한 가지, 유사접사)

곳과 때를 나타내는 위치법의 토씨인데, 이것이 연결된채 이름씨로 굳어 버리는 일이 있다. (이러한 접사는 특별한 뜻을 더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가지」라 한다. →p. 40)

제(←저기←적+의) : 네 세서린 제 이 河 불 제와 =汝 三歲에 見此河  
時와(능엄 2:8)

▽앞의 「제」는 「저기」의 축약된 위치말이고, 뒤의 「제」는 이름씨로 익어버린 예이다. (여기에서는 「-의」가 가졌던 본래의 뜻은 없어진다.)

𐄂(←𐄂+의) : 세 𐄂 說法하더시다 (월석 2:26-7) / 날마다 세 𐄂로  
十方諸佛이 드러와 (월석 2:26)

「뻘로」에 있어서는 「-의」의 위치자리 표시의 뜻이 없어지고, 「뻘」은 한 입자씩으로 굳어진다. (→p.319)

나죄(←나조히←나죵+이) : 나조히 (월석 1:45), 나죄 먹논 (두언 25:37) / 나죄 밥 (두언 15:7), ☆나죄포=晡(자회, 하:2)

228

2) 임자씨 (1) 이름씨에서

▽‘나죄 먹는’의 「나죄」는 「나조히」와 같은 뜻이나, 「나젓 밥」의 「나죄」는 「나조」와 같은 단순한 이름씨로 바뀐 것이다.

「-의/이」는 뿌리에 아무런 뜻을 더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슷한 가지 (유사접사)인데, 다음의 「-이」도 한가지다.

「-이」 (비슷한 가지)

소리 고루는 이외의 다른 뜻을 가지지 않았다. (→p. 39)

~이 : 두 孔雀일 그리시니이다 (용 46장), 目連이 드려 니룩샤디

(석보 6:1), 瞿曇이 供養하리라 (월석 21:197)

## (2) 풀이씨에서

「-o」

풀이씨를 임자씨로 만드는 가지 중에 가장 생산적인 것은 「-이」이다.

기리(←길-) : 度는 기리 견주는 거시오 (월석 9:7), 기리와 너비 = 縱橫(금강삼가 2:19)

▽「길-」의 파생 이름씨는 「기림」인데(→p.236), 「기림」도 꽤 많이 쓰여 있다.

〈비교〉 기림과 너비=縱橫(금강삼가 2:20)

겹기(←겹-) : 흰 바리 供養이러니 부테 神力 내샤 無量衆을 즈래  
겹그니 (월석 7:25) / 나모 프라 돈 어더 겹기를 應當호닛다 = 賣薪  
 得錢應供給 (두언 25:46)

이바디(←이발-) : 눈 먼 어시를 이발노라 (월석 2:13) / 이바디에 붉  
酒壺] ㅁ득ㅎ닐 引ㅎ고 =宴引春壺滿(두언 20:22)

하리(←할-) : 垂象으로 하스븐니 (용 71장) / 하리로 말이 스븐들 (용 26장)

사리 : 가야뎡 사리 오라고 (천갑곡 상, 기 170)

더뵈(더위)(←뵈-) : 더본 몰애 모매 븐느 苦 (석보 13:8) / 더뵈 치  
뵈로 (석보 9:9), 龍이 더위를 여희오 (월석 7:36)

치위(치위)(←침-) : ㄹ 비 골뎡며 치부를 알면(월석 21:55) / 치위옛  
고기 = 寒魚(두언 7:7)

## 7. 뒷가지 파생어

229



쓰서리(←쓰설-) : 乘興하야 올라 쓰서리 아니하야 = 興移無酒掃 (두언 15:9)

마지(←맞-) : 錦里에서 마지 홀 主人은 잇도다 = 錦里逢迎有主人 (두언 21:3)

<다음 말들은 뿌리가 다시 분석되는 것들이다.>

마짜비(←맞짜비-) : 마짜비에 막스물 놀라니 (용 95장)

▽「맞-」의 객체높임말에 뒷가지가 붙은 말인데,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다.  
놓눗가비, 놓눗가이 : 싸히 놓눗가비 업시 (월석 2:40), 붉 和흔 그  
운은 本來 놓눗가이 업스니 (남명, 상:22)

죽사리(←죽살-) : 죽사리 法은 모뎃다가 모디 여희느니라 (월석 21:202)

▽뿌리 「놓눗잡-, 죽살-」은 비통어적 합성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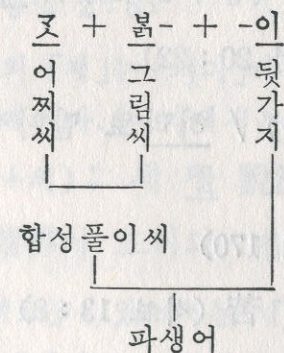
ㄹ불기(平明) : ㄹ불기에 물 타 宮門으로 드눗다 = 平明上馬入宮門 (두언 24:10)

▽「ㄹ」은 어찌씨이다.

菩薩이 ㄹ 나샤 (월석 2:37)

鮮은 ㄹ 주군 중성이라 (월석 21:124)

이 말은 「ㄹ」+「불기」로 분석되지 않는다. 어찌씨는 이름씨를 꾸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ㄹ불기」는 「ㄹ」+「붉-」+「-이」로 분석되는데, 그 직접성분은 :



히도디 : 四月八日 히도디에 (월석 2:35)

▽이 말의 직접성분은 「히-도디」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히돌-이」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아래 예들도 모두 이러한 유형에 든다.

아기나히 : 아기나히를 始作하니라 (월석 1:44)

글지시, 녀름지시 : 지죄 커 이젧 글지시에 위두하코 = 大才今詩伯 (두언 21:31), 녀름지시에 글지슬 興이 논헛느니 = 稼穡分詩興 (두언 16:10)

머리갓기 : 겨지비 머리갓길 부테 슬히 너기실씨 (월석 10:15, 기 267)

밥머기 : 줌과 밥머기와 저구니 = 少寢食 (두언 15:4)

당가드리 : 比丘들히 당가드리를 하며 (석보 23:34)

고키리 : 象兵은 마르쳐 싸호매 브리는 고키리오 (월석 1:27)

▽「(고ㅎ+길-)+-이」로 분석된다.

헛사리, 겨스사리 : ☆ 헛사리부=蜉, ☆ 헛사리유=蠐 (지회, 상:23), ☆ 薦:寄生草 겨스사리 (사성통해, 하:13)

물쑥구으리 : ☆ 물쑥구으리강=蠅, ☆ 물쑥구으리랑=蠛 (자회, 상:22)

뽕사리 : 響은 뽕사리라 (법화 1:26)

▽「(뽕+살-)+-이」로 분석된다. 즉 ‘산에 사는것’이란 뜻이다.

므즈미 : ☆ 今俗語水淹了 물쭙다 (사성통해, 하:84, “淹” 조) / ☆ ㅼ즈밋미=湜, ☆ ㅼ즈미영=泳 (자회, 중:2)

모심기 : 插秧은 모심기라 (두언 7:36)

▽「심기」는 「심-+기」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심기-」+「-이」로 분석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씨끝 「-기」가 붙으면 이 말은 「시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p. 462)

사롬사리 : ☆ 사롬사리아 어느 시러곰 니르리오 = 生理焉得說 (두언 중간 1:7)

▽「살-」의 이름꼴 「사롬」을 의미상의 부림말로 가진 합성어 「사롬살-」에서 파생된 이름씨인데, 아래 「우숨우시, 거름거리」도 같은 유형에 든다.

우숨우시 : 그 머근 後에 우숨우시 나니라 (월석 1:43)

거름거리 : 거름거리 넘디 아니하시며 (월석 2:57)

웃거리 : 웃거리를 혼디 말며 = 不同穉伽 (내훈 1:4)

내노리 : 閔王이 내노리 하샤 = 閔王出遊 (내훈 2하:69)



「-음」

이 가지는 「-오/우-」, 「-아/어-」를 앞세우는 일도 있다.

거름(←걸-) : 步는 거르미라 (월석 2:34)

그림(畫) : 온가짓 그리미 이쇼더 (월석 8:12)

너김(想) : 다민 데쁜 너기미니 = 特浮想耳(능엄 1:65)

뜸(炙) : ☆뜸 쓰물 조조 호라 = 針炙屢(두언 중간 2:57)

어름(氷) : 어름爲氷 (훈, 용자례)

여름(果) : 果는 여르미오 (월석 1:12)

싸흠 : 싸호물 즐겨 (석보 13:9)

ㅁ춤 : 終은 ㅁ춤미라 (훈, 언해)

사름 : 人은 사르미라 (훈, 언해)

▽이 말은 분명히 「살-」에서 파생된 것이다.

나소물림 : 權은... 훈 고대 固轉디 아니하야 나소물림하야 맛기 홀시오 (석보 13:38)

붓그림 : 넘쳐이 붓그림 업거든 = 甞然無愧(내훈 1:68)

츠림 : 躡는 經 쓰들 울오리 츠릴씨오 (능엄 1:16) / 迦葉이 싸해 다여 츠림 몰하엿다가 (석보 23:41)

차림 : 네 차려 드르라 (석보 13:46) / 太子(와) (며)느리왜 차림 몰하엿다가 씨니 (석보 24:52)

▽「츠리-」와 「차리-」는 임의변동형이었던듯 하다.

시름 : 흰 누니 피해 ㅁ독하야슈물 시르며 對하얏노라 = 愁對...白滿山(두언 11:35) / 시름 ㅁ습 업스샤더 (용 102장)

▽「시름」이 어찌씨의 꾸밈을 받는 일이 있는데, 예외적 현상이다.

ㅁ장 시르메 호번 늣므를 솟고 = 窮愁一揮淚(두언 16:4)

브스름(腫) : ☆브슬종 = 腫(자희, 중 : 35) / ☆브스름결 = 癰(자희, 중 : 33), ☆브스름웅 = 癰, ☆브스름저 = 疽(자희, 중 : 34)

▽「브스름」은 분명히 「붓-」에서 파생된 말일지나, 중간 한 음정(을)의 유래를 밝힐 수 없다.

위의 예들은 활용의 이름꼴과 십사리 구별되어서, 파생어임이 분명한 것들인데, 다음의 말들은 「-오/우-」를 앞세워 있기 때문에 풀이씨의 이름꼴과 잘 구별되지 않는다.

춤(←츠-) : 우스며 춤 쳐서 ㅁ습 窓을 열티노라 = 笑舞拓秋窓 (두언 15:53), 춤 츠며 통담하야 (월석 1:44)

우숨(笑) : 말습 우숨하던 이틀 = 談笑(두언 6:23)

우름(鳴) : 아들 우루믈 (용 96장), 그 光이 百寶色鳥 | ㅁ의야 이든 우루믈 우리 (월석 8:14)

아눔(抱) : 마순 아노미오 = 四十圍(두언 18:12, 중간 : 아눔)

조오름(眠) : 잇브면 조울오 = 勞倦則眠 (능엄 3:14) / 조오름과 雜念 ㅁ = 昏沈掉舉(몽산 2)

호음(爲) : 호음 업슨 法 = 無爲法(금강 43), 호음 잇는 法에 다를씨 = 異有爲法故(법화 2:91)

▽이 파생어들은 활용의 이름꼴과 구별되지 않으나, 그 뜻이나 용법(배김꼴의 꾸밈을 받는 점)으로 보아서, 이름씨로 바뀐 것으로 보아진다.

「-아/어-」를 가진 「-ㅁ」 이름씨는, 그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사물에 쓰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무덤(墓) : 이제 호오사 무덤 서리엿 나모 아래 이셔도(월석 7:6<5>)

주검(屍) : 起屍鬼는 주검 니르왈는 꺾거시라 (월석 9:35 상)

구지럼(람)(←구짓-, 구질-) : 如來 나를 구지르샤더 = 如來訶我 (능엄 5:43), 모딘 이브로 구지드며 (월석 17:78) / 이 야호로 상네 구지럼 드로디 (석보 19:30), 구지람과 ㅁ유믈 = 譏嫌(능엄 9:103)

▽이 파생어는 분명히 「구질-」(「구짓-」의 변동형)에서 파생된 이름씨이다. 「구질-」은 ㅁ 변격이 아니나, 이 파생 이름씨에서는 ㅁ이 ㅁ로 바뀐 것으로 설명된다.

\*구지럼 > 구지럼.

「-개/게(-애/에)」

주로 도구를 나타낸다.



벼-개(←베-) : 들흔 濱彌山을 베며 (월석 1:17) / 벼개 노피 벼여  
누우니 = 高枕(두언 15:11)

▽「벼여」에서 바로, 줄기「벼-」를 뽑아낼 것은 아니다. 이 활용형은 「베여」의 변동형이다. 가지「-개」가 붙을 때는 뿌리가 「베→벼-」로 변동하는데, 그 이유는, 두 판이 /j/의 중첩에서 오는 「동음생략」으로 해명된다.

집게 : ☆집게걸 = 鉗(자회, 중:16), ☆箝 : 鐵鑷也今俗呼鐵箝 집게  
(사성통해, 하:81)

늘개, 놀애 : 迦樓羅는 金 늘개라 혼 브디니 (월석 1:14), 매 놀애  
티드시 (월석 10:78)

▽「늘개」의 「-개」는 ㄴ 밑에서 ㄱ이 줄어들기도 한다.

듭개(蓋) : 보비엿 帳이 王宮을 다 두프며 (월석 2:32) / ☆丈夫는  
棺槨 듭개를 다다아 이리 비릇 一定호느니 = 丈夫蓋棺事始定(두언 중간  
19:45-6)

받개(泥托) : ☆받개曰泥托 (자회, 중:16, 「鏝」주)

놀애(歌) : 乾闥婆의 아들 일후미 闍婆摩羅 | 라 호리 七寶琴을 노더니  
(월석 21:206) / 놀애를 부르리 하디 (용 130장)

▽이 말은 \*「놀개」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놀개~놀애」와 대조할 것.

노리개 : 智勝王子 | 보비 노리개엿 거슬 두겨시다가 = 智勝王子有珍  
玩之具(법화 1:101)

▽「노리개」와 「놀애」의 뿌리는 다 같은 「놀-」일지니, 이 두 말은 같은 뿌리  
같은 가지로 된 말이다. 그러면서 두 말이 달라진 이유는, 동음이의어를  
구별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나 않을까 생각해 본다. (49)

「-애/에」

앞의 「-개/게」와 같이, 도구의 이름, 또는 끝없는 이름씨(추상명사)를

(49) 다음 말들도 「-개, 게」 가지로써 파생된 말로 생각된다.

뜯개 : 뜯개담 = 膽(자회, 상:27)

족접개 : 족접개념 = 鑷(자회, 중:14)

「뜯개」의 뿌리는 「뜨-」(苦)일듯 하나,

뜨며 펄론 거시 (석보 19:20)

「족접개」의 뿌리는 어디서 온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드는 가지인데, 「-개/게」의 /ㄱ/ 줄임꼴(「늘애, 놀애」의 「-애」)와는  
다른 형태소이다.

부채(扇, ←붓-) : 道 | 方外에 부츠샤 = 道扇方外 (영가, 서:12) / 놀  
애 부르는 부채를 이어고 = 搖歌扇(두언 15:33)

ㄴ새(剪) : ☆ㄴ새전 = 剪(자회, 중:14)

▽이 말의 뿌리인 「ㄴ-」은 그 「-아/어」 활용형으로만 나타난다.

너희 썰리 바룻 ㄴ새 가아 牛頭栴檀 種種 香木을 ㄴ사 오라 羅漢들하  
彈指嚧 스시에 바루래 가아 香木 ㄴ사 즉자히 도라오나놀(월석 10:13)

(물)자새(轆轤) : ☆물자새길 = 桔, 물자새록 = 轆, 물자새로 = 轤(자회, 중:  
:15)

▽풀이씨의 줄기로 쓰인 \*「жат-」은 그 예를 찾지 못하였으나, 현대말 「жат  
다」로 보면 이 말이 쓰였음이 분명하다.

누에 : 누에爲蠶 (훈, 용자례)

▽이 말은 分明 「눅-」에서 파생된 말인듯 한데, 「뽕」을 가진 문헌에서도  
「뽕」이 없어진 꼴로 나타남을 보면, 이 말의 「뽕」 탈락은 상당히 일찍 일  
어났던 것이다.

(눈)두베(에)(眼皮) : 又 눈두베 뜨거본들 아라돈 = 纔覺眼皮重(몽산  
2), ☆눈두베검 = 臉(자회, 상:25)

▽「두베」의 뿌리는 \*「두뽕-」일텐데 이것이 풀이씨 줄기로 쓰이는 일은 없  
으니, \*「두뽕-」은 「뽕-」의 변이형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러나 「뽕-」에서  
파생된 이름씨인 「듭개」가 있고, 한편으로는 다시 「두베」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

울에(雷) : 雷는 울에오 (월석 10:77)

▽이 말의 뿌리는 「울-」(鳴)로 볼 수도 있겠으나, 「울-」+「-에」는 \*「우테」  
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뜻으로 보아도, 「울에」는 ‘우는것’이 아니라,  
‘소리 크게 지르는 것’이므로, 이 말의 밑말은 「우르다」로 잡는 것이 좋  
을 것이다.

큰 구름과 霹靂 니르와다 우르고 무뤼 비코 (월석 7:35)

둘에(團) : 蓮花마다 둘에 열두 由旬이오 (월석 8:13)

▽이 말의 밑말은 분명히 「두르-」이다.

團는 두를씨오 (월석 2:32)



돌애 : 靑靑히 紺靑히시며 조히 히시며 불근 돌애 섯거 꾸미샤 조하  
샤 分明히샤미 二十九 | 시고 (법화 2:13)

▽이 말은 「도르-」에서 파생된듯 하다. (50)

「-이/의」

끝없는 이름씨를 만드는 뒷가지인데, 「-애/에」와 같은 계열이다. (51)

기리(長): 禁掖入 다땃 대와 다땃 머귀 기리 열 尋이로소니 =掖垣  
竹埤梧十尋(두언 6:13)

기피(深): 툇기와 물와는 기피를 모를찌 (월석 2:19)

노위(高): 半길 노핀들 (용 48장)

키: 모샷 蓮花 | 키 술윗바회만 호더 (월석 7:64), 혼 點을 느리오더  
키 微塵맛감 호고 (월석 14:8)

▽「키」는, 현대어의 ‘키’의 뜻으로만이 아니라, ‘크기’의 뜻으로도 쓰여  
있다. 그리고 「키」는 「크-」+「-이」로도 분석할 수 있으나, 「기리, 기피,  
노위」와 같은 또래이므로 「크-」+「-의」로 분석한다. (「크-」의 /으/는 「-의」  
위에서 줄어졌음)

고리(曲): 曲은 고블씨라 (석보 11:6) / 물곤 ㄹ몹 혼 고빅 ㄹ술홀  
아나 흐르느니 =淸江一曲抱村流(두언 7:3)

구비(曲): 즘게남기 곱거늘 (천강곡 상, 기 107), 뫼시넷 구비에서 녀  
름지시 호고 =爲農山澗曲(두언 21:42)

「-기」

풀이씨 이름꼴 씨끝인 「-기」는 파생이름씨 만드는 가지로 쓰이는 일  
이 있다.

글위쓰기: 萬里엿 글위쓰긴 習俗이 혼가지로다 =萬里鞦韆習俗同(두  
언 11:14-5)

물보기: 차바늘 머거도 自然히 스러 물보기를 아니호며 (월석 1:26)

(50) 그세 : 그세 鴛鴦 남진 드려드려 더러본 이룰 호거늘(월석 1:44)

이 말도 「그스기, 그속하다」 따위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같은 가지를  
가진 것으로 보아진다.

(51) 뒷가지에 「-애/에」와 「-이/의」가 같은 계열의 형태소로 쓰이는 것은, 워  
치말을 나타내는 토씨와 비교해 볼만 하다.

곶오기: 곶오기환 =轉(자회, 상:33)

▽뿌리 「곶오-」는 풀이씨의 줄기 「곶-」의 변이형인듯 하나, 「-기」는 고름  
홀소리를 취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것을 취한 꼴로 변동하고 있으  
니 난점이다.

「-은」

매김꼴 씨끝인데, 이것이 바로 이름씨를 파생하는 일이 있다.

얼운: 얼우니 술위 자취 =長者轍(두언 8:65), 얼우니며 저르니 이 經  
듣고 (석보 19:1)

▽이 말은, 「어르-」에, 「-오/우-」 형태소를 취한 매김꼴 씨끝이 붙어서  
이름씨로 파생된 것인데, 원래 그 뒤에 「사름」과 같은 이름씨가 연결되어  
있었을 터이나, 이 이름씨가 줄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술 아랫 얼운 사르 頭巾과 신쾌 호가지니 =松下丈人巾履同(두언 16  
:32-3)

「-그리」

물그리(무꾸리): ㅅ슴미 正티 물하야 ㄷ쿠주물 물그리하야 (석보 9:36)

「-읍」

딴집(←땃-): ☆流蘇 ㅅ집 同心結也(사성통해, 상:40)

▽「딴집」은 ‘동심결’의 뜻으로 쓰인듯 하나, 비슷한 말의 「딴집」은 ‘마디’  
의 뜻으로 널리 쓰였던듯 하다.

딴집마다 猛火 | ㅅ라=節節猛火燒然(능엄 8:66), ☆紇絡 실딴집 (사  
성통해, 하:76)

「딴집」도 「땃-」에서 파생된듯 하다.

「-어리」

버워리(병어리): 百千萬世에 버워리 아니 드외며 (석보 19:6)

▽이 말의 뿌리는 「버우-」인데, 다음과 같이 풀이씨로 쓰인다.

三寶 허러 비우스릴 맛나든 눈 멀며 귀 머그며 입 버울 報를 니르코  
(월석 21:66), 癡殘하며 입 버우며 귀 머그며 눈 멀며 (월석 21:  
139), 입버우니와 =癡(능엄 7:43)

「-덩이」

먹덩이(龔): 이러호ㅅ로 먹덩이 곤호며 버워리 곤호야 (월석 13:18)



▽이 말의 밑말은 분명히 「(귀) 먹다」이다.

「-암(이)」

드라미(다람쥐) : 鼯는 鼯 드라미오 (능엄 8:119), ☆드라미오=鼯(자회, 상:19)

▽이것은 풀이씨 「돈-」에서 파생된 말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잘 닫는 습성으로 이 이름을 얻었음이리라.

「-우리」

다리우리(鬣) : ☆다리우리울 =鬣(자회, 중:14)

「-아괴」

가마괴(烏) : 다스 가마괴 디고 (용 86장)

▽뿌리는 「검-」(黑)이다.

### (3) 그밖의 품사에서

풀이씨나 임자씨 아닌 다른 품사에서 임자씨가 파생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이」

비두리 : 새 비두리 駕鵞報를 니르고 (월석 21:65)

떡야미 : 五月에 엇브시 춘 떡야미 소릴 듣논듯 하다라(두언 6:40)

▽뿌리 \*「비둘-, 떡암-」은 단독으로 쓰인 예가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소리흥내말이다.

「-엄」

처엄(←처-) : 처 나래 (용 12장), 처 소리 (훈, 언해) / 始는 처식미라 (석보, 서:2)

▽이 말은 단독으로 위치말로 쓰이는 일이 있다.

처엄 와 傲色 잇더니 (용 95장)

初發聲은 처엄 피아나논 소리라 (훈, 언해)

「-기」

난젓기 : 邪호 법이 난젓 니러 =邪法競起(금강 89) / 내 지브 이십제

귀 여릅 나랏 王이 난젓기로 드토거늘 (석보 6:7)

▽「난젓기」는 토씨 「-로」와 더불어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기」를 붙여서 이름씨가 되는 것으로 보면, 「난젓」은 원래 움직씨의 줄기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난젓기-」+「-이」로 분석할 수도 있다.

### 3) 어찌씨

#### (1) 풀이씨에서

「-이」

풀이씨를 어찌씨 만드는 뒷가지 중의 가장 생산적인 것은 「-이」이다.

〈당소리 밑에〉

저기(←적-) : 少光은 光明이 저글씨니 (월석 1:33) / 저기 브들 나르노니 =略言其趣(영가, 하:90)

올히(←올-) : 브들 올히 너기샤 (천강곡 상,기 90), 빗보기...올히 도르시며 (월석 2:57-8)

불기(←불-) : 洙泗正學이 聖性에 불<sub>2</sub>실씨 (용 124장) / 自性을 불기 알면 =明了自性(금강, 서:6)

빗기(←빗-) : 빗근 남꼴 낙라 나마시니 (용 86장) / 나조히 빗기 자바 부는 덧소리 도호니 =晚來橫吹好(두언 15:53-4)

물기(←물-) : 湛은 물<sub>2</sub>꼴씨오 (월석, 서:1) / 물기 상네 寂호야 =湛然常寂(영가, 상:64)

도히(←도호-) : 도호 새 =好鳥(두언 15:4) / 부텃 功夫에 도히 올라가샤 (석보 9:3)

니기(←니-) : 누른 조히 니그니 =黃梁熟(두언 7:39) / 威武를 니기 아스바 (용 59장)

느지(←느-) : 도호 싸해 느지 나게 호리니 (월석 21:105-6)

구지(←구-) : 열다섯 가짓 구지 주구물 受티 아니호리라 =不受十五種惡死也(영험약초 3)



구디(←굴-) : 구짓는 辱을 구디 츠막샤 (석보 19:36)  
 고디(←골-) : 너희 부텃 마를 고디 드르라 (석보 13:47)  
 너비(←넙-) : 聲敎 | 너브실씨 (용 56장) / 八敎를 너비 부르샤 = 廣演 八敎(월석, 서:7)  
 고비(←곱-) : 曲은 고블씨라 (석보 11:6) / 萬物을 고비 일우시는 方 업스시며 = 曲成萬物無方 (법화 3:163)  
 조비(←좁-) : 境體에 조비 브터 (법화 2:41)  
 머리(←멀-) : 머리 느라가디 말라 = 勿遠奮飛(두언 15:5)  
 마느리(←마눌-) : 솟가라기 마눌오 기르시며 (월석 2:40) / 마느리 流霞를 브서 먹노라 = 細細酌流霞(두언 21:28)  
 거츠리(←거츰-) : 너희 부텃 마를 고디 드르라 거츠디 아니흐니라 (석보 13:47) / 거츠리 나며 和合하야 거츠리 죽느니라 = 妄生하며 和合妄死 | 나라(능엄 2:93)  
 갓마리(←갓몰-) : 見이 갓마라 惑이 나물 因하야 = 因見倒惑生(영가, 하:117) / 오직 갓마리 보물 브터 = 特依倒見(능엄 2:12)  
 기리(←길-) : 기리 꾸러셔 = 長跪(두언 15:5)  
 드리(←들-) : 旄頭 | 紫微에 드리 와시니 = 旄頭躔紫微(두언 6:21)  
 드리(←들-) : 한 컷거식 저픈 양을 드리 니르샤 = 舉諸鬼可畏之狀(법화 2:122)  
 득리(←들-) : 王이 金鑊子를 나뭇 두 그테 득리 메시고 (월석 8:97)  
 그우리(←그울-) : 轉은 그울씨오 (월석 1:9) / 그 나뭇 불휘를 세혀 그우리 부러 (석보 6:30)  
 드드리(←드물-) : 希有는 드드리 잇다 혼 뜨디라 (석보 13:15)  
 가스머리(←가슴-) : 싸히 가슴덜오 (월석 21:150) / 여러가짓 천량 가슴머리 두어 = 富有諸財物(법화 4:44)  
 어더리(←어덜-) : 賢은 어덜씨라 (월석 1:40) / 跋陀婆羅는 닐오매 어더리 護持홀씨라 (능엄 5:40)  
 모더리(←모덜-) : 惡은 모덜씨라 (월석 1:16) / 하다가 사르미 모더

리 구지저도 = 若人惡罵(법화 5:70)  
 혼꼴오(マ)티(←호꼴-) : 羽旗 뒤유미 혼꼴오 두니 = 羽旗動若一(두언 24:23) / 世엿 사르미 혼꼴오 티 倍히 더 보아 = 世人 一齊倍加瞻視(능엄 2:13-4)  
 어르누기(←어르늑-) : 어르누근 남곤 = 錦樹(두언 7:14) / 어르누기 셴 머리 = 斑白(두언 24:39)  
 속결업시(←솔결-) : 方攘엿 衛이 속결업 더니 (월석 7:19) / 多駢을 속결업시 崇尚하야 = 虛尙多駢(법화 1:9)  
 부질업시(←부절-) : ☆等閑 부절업다(자화, 하:8, 「閑」 주) / ☆詩詞 用無賴字謂부질업시 (사성통해, 상:46, 「賴」 주)  
 ▽뿌리는 「부절-」~「부질-」로 변동한다.  
 니르리(←니를-) : 致는 니를에 흘씨라 (월석, 서:19) / 처섬 들적브 더 百千劫에 니르리 (월석 21:46)  
 업시(←업-) : 돈 업시 (두언 20:37)  
 ▽「니르리」와 「업시」는, 그 앞에 위치말(百千劫에)과 임자말(돈)을 취한 점으로 보면 단순한 어찌씨가 아니라, 풀이씨의 활용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파생어찌씨로 보았다. (→p. 82-3)  
 日 벗어난 풀이씨에서 파생된 어찌씨의 말끝의 「-비」는, /병/이 없어진 뒤로는 「-이」로 변한다.  
 어려비(←어렵-) : 불 사르미 오히려 讀誦을 어려비 너기거니와 (월석 서:23)  
 어러이(←어렵-) : 네 어러운 客이 잇더니 = 昔年有狂客(두언 16:5) / 마장 술 마시고 어러이 놀애 블로몬 = 痛飲狂歌(두언 21:34)  
 쉬비>쉬이, 수비>수이(←쉽-) : 易는 쉬볼씨라 (훈, 언해) / 옷밥 쉬비 어드니만 몰다 (월석 13:12-3), 쉬이 알와더 브라노니 (능엄 8:44), 사름마다 수비 아라 (훈, 언해), 수이 슬허하노니 = 易悲傷(두언 15:5)  
 ▽「쉬비 (쉬이)」는 같은 소리 줄임(중음생략)으로 인하여 「수비 (수이)」가



되기도 한다.

두터이(←두텁-) : 이 소리는 우리나라 소리에서 두터보니 (훈, 언해)

/ ☆늘을 너무 두터이 말고 (박통사 중간, 상 : 15)

돌거이(←돌겁-) : 豪華한 지비 쁘더 즈모 돌겁도다 = 豪家意頗濃(두언

7 : 33) / 제 모물 돌거이 하느니 = 封己(두언 20 : 48-9)

돌가이(←돌잡-) : 양지 돛잡고 = 態濃(두언 중간 11 : 17, 원간에는 「돛잡

고」) / 넷 法을 돌가이 하나라 = 古制敦(두언 8 : 5-6)

▽「두터이~돌거이」는 임의로 변동된 꼴이고, 「돌가이」는 「돌거이」의 ‘얇잡음말’이다.

두려비> 두려이(←두렵-) : 圓은 두려볼씨오 (월석 2 : 53) / 覺이 두

려비 불가 (월석 7 : 41), 佛眼功이 두려이 나드니 = 佛眼之功圓著(영가, 하 : 12)

놋가이(←놋잡-) : 놋가이 너기더 아니하며 = 不賤(금강 36)

놀라이(←놀랍-) : 소리 나 놀라이 다들씨 爆 | 라 (법화 1 : 58)

거여이(←거엽-) : 가스미며 허리 우히 거여비 獅子 존하시며 (월석

2 : 41) / 거여이 勇猛하샤 = 雄猛(법화 1 : 151)

아름다비(←아름답-) : 經入 德을 아름다비 讚歎하샤 (월석 17 : 93)

즈을아비(←즈을압-) : 親은 즈을아볼씨라 (석보 13 : 15) / 나라해 도

라오샤도 즈을아비 아니하샤 길뵈 사름과 마티 너기시니(석보 6 : 4)

새로이(←새롭-) : 올마 사로미 새로외니 = 遷居新(두언 7 : 13) / 歲時

에 새로이 하듯다 = 歲時新(두언 6 : 30)

외록(로)이(←외롭(롭)-) : 외록이 안자 (남명, 하 : 23), 외로이 느라가

고져컨마른 = 孤飛去(두언 20 : 7)

맛가이(←맛잡-) : 이비... 맛가이 端嚴하샤미 (법화 2 : 16)

어두이(←어둡-) : 어드본 길헤 (용 30장) / 無明 어두이 마료매 = 無明暗蔽(법화 2 : 81)

▽뿌리가 「어두-」로 변동함은 「어두이다」의 경우와 한가지다. (→p. 153)

겨르로비> 겨르로이(←겨르롭-) : 阿蘭若는 겨르롭고 寂靜한 處所 |

라 훈 쁘더니 (월석 7 : 5) / 菩薩이 주이 드외야 하오사 겨르로비

이서 (석보 13 : 20), 괴외히 겨르로이 사라 = 宿然閑居(법화 2 : 143)

가빅야이(←가비압-) : 輕은 가빅야볼씨라 (훈, 언해) / 가빅야이 드느

니 = 輕舉(법화 4 : 19)

놀아이(←놀압-) : 놀아볼 사르미 (월석 21 : 46) / 나를 놀아이 너곤 전

츠로 = 輕賤我故(법화 6 : 88)

더러이(←더럽-) : 더러이 너기느들 알오 (법화 2 : 222)

부드러이(←부드럽-) : 내 부드러이 忍辱을 行하야 = 自行和柔忍辱(금강 35)

딛이(←딛-) : 딛볼 브를 늘여 (월석 21 : 80), 딛은 브르미 = 猛風(영험

약초 13) / 두 숯가라 마로 귀를 딛이 마 마면 = 以兩手指 急塞其耳(능엄 3 : 4)

바지로이(←\*바지롭-) : 새뱃 곳고리는 내 늪물 호르게 호물 바지로이

하고 = 曉鶯工迸淚(두언 20 : 27)

▽밑말인 \*「바지롭-」은 달리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멀터이, 멀테(←멀텁-) : 吐蕃이 憑陰하야 氣運이 즈모 멀터우니 = 吐蕃憑陵氣頗羸(두언 8 : 22), 멀터본 한 때 무든 옷 닙고 (월석 13 : 21)

/ 네 마스미 멀터이 테때 = 汝心龜浮(능엄 3 : 106), 無間地獄을 멀

테 니르겐덴 이 존거니와 너비 닐웁덴 (월석 21 : 47)

▽「멀테」는 \*「멀테(<멀터이>)」의 변형이다.

몰이(←몰-) : 도톨 동여두고 매로 티니 몰볼 소리 굿디 아니하얏거든

(월석 23 : 73), 마장 몰아 너비 濟渡하시리 아니시면 = 自非大哀曠

濟시면(법화, 서 : 16) / ☆ 몰이 너겨 = 哀矜(두언 중간 1 : 52)

▽「몰아」는 「몰와」의 변형인듯.

### <홀소리 밑에>

해(←하-) : 多는 할씨라 (훈, 언해) / 方國이 해 모드나 (용 13장)

즈래(←즈라-) : 尺度 | 즈라도다 = 尺度足(두언 16 : 56) / 윈 바리 供



養이러니 부테 神力 내사 無量衆을 즈래 것그니 (월석 7:25-6)  
 오래(←오라-) : 仙人은 제 몸 구터 오래 사는 사름미라 (월석 1:8)  
 맛내(←맛나-) : 珍羞盛饌을 사 맛내 𪛗시며 (천강곡 상, 기 118)  
 내(←나-) : 그 길히 甚히 머러 五百由旬이 다 나거늘 =經五百由旬  
 (법화 3:192) / 모기며 입시우리 내 물라 (월석 9:50)

「ㄹ, 르」 벗어난 풀이씨에 「-이」가 붙으면, /으, 으/는 줄어들고,  
 「ㄹ」은 앞 음절의 종성이 된다. (이것은 [l] 소리가 된 /ㄹ/을 표기하  
 는 방법이다.)

덜이(←더르-) : 더른 받 이러미 =短畦(두언 6:50) / 기리 살며 덜이  
살며 (월석 13:59)

달이(←다르-) : 正하며 갓 ㄱ로뵈 브터 달이 ㄷ의 ㄴ니라 =由正倒成異  
 (능엄 2:14)

게을이(←게으르-) : 𪛗히 幽僻홀씨 옷 ㄱ의 니부물 게을이 ㅎ노라 =地  
 僻懶衣裳(두언 7:4-5)

썰리(←썰르-) : 入聲은... 썰르니라 (훈, 언해) / 모든 ㅅ스몬 썰리 ㅁ  
 고티리로다 (월석 1:51)

과줄이(←과 ㄱ르-) : ㅅ스미 과 ㄱ르디 아니 ㅎ야 =心不卒暴(영가, 하 :  
 139) / 公이 과줄이 色을 變커늘 =公悖然變色(법화 7:51)

그 밖의 「으, 으」로 끝난 줄기도 끝 홀소리가 줄어진다.

키(←크-) : 수비 키 아로뵈 得 ㅎ야 =易得大悟(몽산 7)

어위키(←어위크-) : 어위키 后土 | 저젓도다 =決葬后土濕(두언 22:51)  
 <주> 決葬은 廣大兒 | 라.

ㄱ「어위크-」는 비통어적 합성어이다.

잇비(←잇브-) : 잇비 비화 =困學(두언 20:10)

깃비(←깃브-) : 時節入 비를 깃비 ㄴ리와 (석보 13:7)

죋비(←죋브-) : 너희 머리셔 죋비 오니 (석보 23:41)

날비(←날브-) : 供養을 날브디 아니케 호리라 (석보 11:37) / 大王

이... 彈指호 스식에도 德 심고뵈 ㅎ나 날비 너기샤 (월석 10:4)

슬피(←슬프-) : 孝道호 아들 우루뵈 슬피 너겨 (용 96장)

밀비(←밀브-) : 불근 新鮮호 고기를 雲霞 혼듯호뵈 밀비호리라 =紅  
 鮮任霞散(두언 7:37)

어엿비(←어엿브-) : 어엿브신 命終에 (월석 1:3) / 내 百姓 어엿비  
 너기샤 (용 50장)

웅비(←웅브-) : 世尊入 말을 웅비 너기니 (월석 7:5, 기 180)

뵈왓비(←뵈왓브-) : 形勢 | 도로혀 뵈왓브도다 =形勢反蒼黃(두언 8:  
 68) / 이 亂世에 뵈왓비 돈니느닐 感傷호노라 =感此亂世忙(두언  
 7:36)

ㄱ「잇비」부터는 「-브/브-」 뒷가지에 의한 파생그림씨이다.

다음 말들의 밀말은 이름씨에 뒷가지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풀이씨이다.

受苦르비(←受苦르브-) : 천라을 만히 뵈호아 두고 受苦르비 덕희여 (석  
 보 9:12)

ㅁ로이(←ㅁ로브-) : ㅁ로이 너기디 말라 (두언 20:50-1)

實다비(이)(←實다브-) : 實다비 잘 불씨라 (월석 7:45), 實다이 보아  
 (법화 3:27)

ㄱ「다비, 다이」는 「다히」로 쓰이기도 한다.

實다히 아디 ㅁ홀씨 (능엄 4:13)

病드비(→\*病드브-) : 부터도 病드비 너기시니라 (월석 13:27)

노릇도이(←\*노릇드외-) : 무된 부들 노릇도이 자바 驢驢를 그리니  
 =戲拈禿筆掃驢驢(두언 16:41)

아름도이(아름드외-) : ㅅ스매 아름도이 고비 마초며 =心私曲會(영  
 가, 하 : 73)

다음은 밀말이 비통어적 합성어이다.

일점그리, 일저프리 : 일점그리 님금 시름호뵈 드로니 (두언 23:33),

일저프리 恭敬호며 (내훈 1:47)

ㄱ「일-」은 「이르-」의 변형이며, 「\*일점글-, \*일저믈-」이 풀이씨로 쓰인 예



는 보이지 않는다.

「ㅎ다」형 풀이씨는 뒷가지 「-이」를 붙여 어찌씨를 만드는데, 이 경우 두가지 다른 방법이 쓰인다. 하나는, 뿌리에 바로 「-이」가 붙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ㅎ-」 줄기에 「-이」를 붙이는 방법인데, 둘째 경우에는 줄기 끝의 /ㅇ/가 줄어진다.

뿌리에 바로 「-이」가 붙는 예 :

ㅁㄷ기(←ㅁㄷㅎ-) : 倉庫 | ㅁㄷ기 넘쳐고 (석보 9:20)

웃고시(←웃끗ㅎ-) : 俗은 웃고시 조흔 거슬 삼느니라 = 俗以爲香潔(법화 2:111)

두려디(←두렷ㅎ-) : 두려디 돌며 모 것거 도로매 = 周旋(내훈 1:49)

고즈기(←고죽ㅎ-) : ㅁ스물 오을와 혼 고대 고즈기 머거 西方을 想하랴 (월석 8:5)

번드기(←번득ㅎ-) : 부테 번드기 니르디 아니하시고 = 佛不顯說(능엄 5:31)

▽이 말의 파생어찌씨는 「번드기」 이외에 「번득히」, 「번드시」도 쓰인다. 쉬닌 時節을 보건댄 번득히 强壯하다스이다 = 觀五十時 宛然强壯(능엄 2:6)

네 번드시 아디 몰하듯다 = 汝宛不知(능엄 3:86)

반드기(←반득ㅎ-) : 正音은... 우리 나랏 마를 正히 반드기 쓰논 그릴씨 (석보, 서:5), 반드기 法律에 맞고 = 必中律(두언 6:19)

▽「반드기」는 현대말의 「반듯이, 반드시」의 두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ㅁㅁ지(←ㅁㅁㅎ-) : ㅁ 눈두베 뜨거본들 아라든 문득 ㅁㅁ지 하야 = 纔覺眼皮重 便着精彩(몽산 2)

ㅁ즈기(←ㅁ죽ㅎ-) : 數업슨 존자리는 ㅁ즈기 오르느리거늘 = 無數蜻蜒齊上下(두언 7:2)

촉추기(←촉추ㅎ-) : 이 利를 꿰덴 雲自在 곤하야 촉추기 두푸미 그지 업숨디니(월석 17:90)

척척기(←척척ㅎ-) : 드믄흔 다숫株入 양지 가스매 척척기 어즈러이

담거세라 = 虛徐五株態 側塞煩宵襟 (두언 15:3)

다복다보기(←다복다복ㅎ-) : 꼭튼 프리 다복다보기 기랫도다 = 碧草萋萋長 (두언 15:1)

믈궤믈ㅁ시(←믈궤믈궤ㅎ-) : 더 나랏 싸흘 믈궤믈ㅁ시 分明히 보아 (월석 8:8)

당다이(←당당ㅎ-) : 天人濟渡호물 쉼비 아니호미 당다이 나 곤하리라 (월석 1:17)

그스기(←그속ㅎ-) : 또 그스기 가조물 날오더 盜 | 니 = 又陰取曰盜(능엄 4:30)

ㅁㅁ(마)니(←ㅁㅁㅎ-) : ㅁㅁ니 逃亡하야 쉼비 내려오리이다(월석 8:98), 이 하늘히 欲心 아니 뉘워 ㅁㅁ니 잇느니라(월석 1:32)

덜더디(←덜덜ㅎ-) : 덜더디 住흔 ㅁ스물 = 常住心地(능엄 2:21)

느즈기(←느죽ㅎ-) : 느즈기 드리웁노라 = 低垂(두언 6:11)

남즈기(←남죽ㅎ-) : 제 지블 즈게 남즈기 두고(월석 23:73)

구즈기(←구죽ㅎ-) : 머리를 구즈기 세오 = 頭腦卓堅(몽산 24)

답다비(←답답ㅎ-) : 버워리 곤하야 답다비 모를씨(월석 13:18)

기우시(←기웃ㅎ-) : ㅁ는 프리 기우시 안조매 마즈니 = 細草稱偏坐(두언 15:48)

브즈러니(←브즈런ㅎ-) : 善果는 브즈러니 勸하야 일우고(월석 21:32)

아득(아득)기(←아득ㅎ-) : 至極흔 精誠이 웃드민 고돌 甚히 아득기 모로듯다 = 甚昧至精主(두언 25:13), 아득아득기 보미 남굴 말오 가듯다 = 漠漠春辭木 (두언 6:52)

▽「아득히」도 쓰인다.

아득히 노니는 神(월석 21:109)

궂즈미(←궂궂ㅎ-) : 궂즈미 得하리니 = 默得(법화 1:148)

▽「궂궂히」도 나타난다.

뱃 업슨 體에 궂궂히 得게 하시며 = 默得乎無外之體(능엄 1:8)

「ㅎ다」형 풀이씨의 파생어찌씨는, 위와 같이, 뿌리에 「-이」를 붙이



는 일도 있으나, 줄기에 「-이」가 바로 붙는 일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ㅎ-」의 「ㅇ」가 들어진다.)

이러한 예를 몇개만 들어 둔다.

휼출히(←휼출ㅎ-) : 휼출히 바르래 비 타 가려노 =浩蕩乘滄溟 (두언 6 : 20)

하야히(←하야ㅎ-) : 하야히 비취엿더라 =白映 (두언 20 : 45)

퍼러히(←퍼러ㅎ-) : 퍼러히 살찌니 머리 보는 쓰더라 (금강 80)

이러히(←이러ㅎ-) : 이러히 二萬 부테 다 혼가짓 字號로... (석보 13 : 29)

괴외히(←괴외ㅎ-) : 괴외히 겨르로이 사라 (법화 2 : 143)

공번히(←공번ㅎ-) : 그 두푸물 공번히 發호물 니르시니 =公發其覆之謂也 (능엄 8 : 94)

괴외좁좁히(←괴외좁좁ㅎ-) : 그 道 | 괴외좁좁히 ㅎ음업스샤 =其道寂默無爲(법화 3 : 162)

만히(←만ㅎ-) : 한 罪를 만히 지스면 (월석 21 : 108)

「만히」는 「만ㅎ-」+「-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변동된 줄기인 「만-」에 바로 「이-」가 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슬히(←슬ㅎ-) : 즐겨 슬히 아니 너겨 (석보 13 : 23)

### 「-오/우」

풀이씨를 어찌씨 만드는 가지 중, 「-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오/우」이다.

〈당소리 밑에〉

비르(루)소(수)(←비르-) : 일로 브터 비르느니 =自此兆矣 (능엄 4 : 15)

/ 法다비 ㅎ야샤 비르소 올ㅎ리라 =如法始得 (몽산 33), 놀애를 비르수 펴니 =歌始放 (두언 25 : 27); 비루수 알와라 =始知 (두언 7 : 23)

갓마(고)로(←갓마-) : 오솔 갓마로 니버 =倒衣 (두언 15 : 11), 굽

흘 三峽 므를 갓고로 흘리리오 =詞源倒流三峽水 (두언 8 : 30)

「갓마로」의 파생어찌씨는 「갓마리, 갓마로」의 두가지가 쓰인다.

기우루(로) (←기울-) : 左녀글 기우루 동키시고 =偏掣其左 (능엄 5 : 24), 定이 잇고 慧 업서 기우로 업미요미 ㄸ외야 =有定無慧爲偏縛 (법화 1 : 26)

너무(←넘-) : 날굽히 너무 오라다 (월석 7 : 2)

마조(←맞-) : 부테 마조 나아 마즈샤 (석보 6 : 12)

아오로(←아올-) : 兼은 아올씨라 (월석, 서 : 18) / 佛菩提樹를 아오로 供養ㅎ야 =并以供養佛菩提樹 (법화 3 : 119)

오오로, 오(오)로 (←오올-, 올-) : 善心이 오올면 (월석 8 : 1), 定力이 오디 못ㅎ야 =定力未全 (능엄 1 : 20) / 이 모미 주근 後에 오오로 滅ㅎ느다 =此身死後全滅 (능엄 2 : 10), 台階에서 翊戴호물 오로 ㅎ ㄸ다 =台階翊戴全 (두언 20 : 5), 楚와 蜀애 戎事總領호물 당다이 오오로 못ㅎ가 =總戎楚蜀應全未 (두언 21 : 11)

「오올-」~「오올-」~「올-」의 변동은 「ㅇ」가 「오」에 동화된 결과이다.

즈조(←죇-) : 賦歛이 즈즈니 =賦歛數 (두언 15 : 5) / 부테 즈조 이 ㄸ ㅁ새 와 說法ㅎ실찌 (월석 7 : 72)

「즈조」는 「즈로」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소리상통(相通)에 의한 임의적 변동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부테 즈로 니르샤도 從ㅎ습디 아니ㅎ더니 (석보 6 : 10)

도로(←돌-) : 所獲을 다 도로 주샤 (용 41장)

두루(←\*돌-) : 두루 들니다가 (석보 9 : 14)

「도르다」와 「두르다」, 「도로」와 「두루」의 어형 대립으로 보아서, 「돌다」에 대한 \*「돌다」가 있거나 않았을까 추측된다.

횃도로(←횃돌-) : 브르미 횃도로 부니 도라울 ㅅ히 업도다 =風回反無處 (두언 8 : 29)

감또로(←감뜰-) : 比丘와 菩薩 摩訶薩衆들히 감또로 圍繞ㅎ스바 이시 며 (월석 10 : 35)

지즈로(←지즐-) : 世間앳 緣故 | 아스라이 서르 지즈러 오ㄸ다 =世



故莽相仍 (두언 20:23), 여희요맏 슬후미 조차 서르 지즈느라 = 離

恨兼相仍 (두언 22:26) / 지즈로 縣尹의 막수물 보리로소니 = 因見

縣尹心 (두언 6:22)

조초(←쫘-) : 구름 氣運이 나는 龍을 조초 잇도다 = 雲氣隨飛龍 (두언 16:31)

▽「조초」는 단순한 어찌씨가 아니라, 앞에 「龍을」과 같은 부림말을 취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풀이씨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또 이름씨나 매김 풀에 연결되는 일도 있다. (→p.83)

곳 니플 잇는 조초 노코 = 隨安所有華葉 (능엄 7:12)

十方에 막숨 조초 變化를 비야 (월석 8:20)

닛우(←님-) : 煩惱入 現行이 막수막로 닛우 브서 흘러 흐투미 굿다 아니홀시 일후미 漏 | 니 = 煩惱現行 令心連注 流散不絕 名之爲漏 (원각, 상 1-2:107)

〈홀소리 밑에〉

「ㄹ, 르」 변격의 경우는, 다른 홀소리 씨끝이나 홀소리 가지가 붙을 경우와 같은 변동을 일으킨다.

골오(←고르-) : 衆生을 골오 어엿비 너기더니 (월석 21:214)

「으」로 끝난, 「ㄹ, 르」 변격 아닌 다른 풀이씨 줄기에 있어서도 「으」는 줄어진다.

꼴포(←궤-) : 疊은 꼴포 싸홀씨니 충이라 하듯 혼 마리라 (석보 19:11)

/i, j / 밑에서는 「오/우」가 「요/유」로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외오(←외-) : 聖性에 외다터시니 (용 107장) / 忠臣을 외오 주겨늘 (용 106장)

세우(←세-) : 善男女들히 듣고 세우 제 닻ㄴ면 (월석 21:109)

미치오(←미치-) : 내 미치오 너겨 信티 아니하노라 (법화 2:28)

「-옥」

「-오/우」에 ㄱ이 붙어서 힘주는 일이 있다. (52)

더욱(←더으-) : 加는 더을씨라 (훈, 언해) / 더욱 스랑호물 너비하사 = 益用覃思 (월석, 서:11)

▽줄기 끝의 「으」가 「우」 위에서 줄어드는 것은 「고르→골오, 골포→꼴포」의 경우와 같은 현상이다.

「-아/어」

풀이씨의 활용의 씨끝 「-아/어」가 파생의 가지로 쓰여서, 어찌씨를 만드는 일이 있다.

다(←다으-) : 盡은 다을씨라 (석, 서:2) / 滅와 생괘 : 다 다·아 = 滅生俱盡 (능엄 4:69)

▽「다·아」는 「다으-」의 활용형, 「:다」는 그것이 한 음절로 축약된 파생 어찌씨.

조차(←쫘-) : 늬도 조차 어딜에 하시니 (석보 13:4)

조쳐(←조치-) : 더 空들홀 조치샤몬 = 兼彼空等 (능엄 3:105) / 亡兒를 조쳐 爲하야 (월석, 서:18)

나마(←남-) : 머리 조사 一千더위 나마 절하고 (월석, 23:82)

구퉁여(←구퉁-) : 모든 父兄들히 구퉁대 = 諸父兄이 强之호대 (내훈 3:47) / 손지 모루샤 구퉁여 뒷더시니 (천감록 상, 기 145)

모다(←몰-) : 衆會는 모다 모들씨라 (월석 10:61)

▽「모도」는 남음직씨인 「모도다」에서 파생된 어찌씨이고, 「모다」는 제음직씨인 「몰다」에서 파생된 어찌씨이다.

비르서(←비르-) : 비르서 어루 무를 여희오 = 始可離群 (영가, 하:112)

▽「비르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가시아, 가시여, 가스야(←가시-) : 솔히 여위신들 金色잇돈 가시시라 여 (천감록 상, 기 62) / 庾信의 文章이 늘거 가시아 이니 = 庾信

(52) 양 주동 박사는, 씨끝 「-아/어」나 「-고」에 붙는 ㄱ을 ‘強勢添尾素’라 한 일이 있는데(古歌研究 p.474), 여기에서는 「-옥」을 두 형태소로 분석하지 않는다.



文章老更成 (두언 16:11), 나조히 피히 가시여 프르도다 = 晚來山更碧 (두언 7:24), 가스야 어위큰 恩惠는 업고 = 更無寬大恩 (두언 25:37)

「가스야」는 /kasA-jja/ → /kasA-ja/로 변동된 어형이다. (53)

마초아(←마초-) : 마초아 흥정바지 舍衛國으로 가리 잇더니 (석보 6:15)

낙(노)외야(←노외-) : 이에 세번 노외올떠니라 = 宜三復于斯 (법화 5:207) / 네 이제도 노외야 늬 피본 브들 둘따 (월석 2:64), 놀애를 노외야 슬픔업시 브르느니 = 歌莫哀 (두언 25:53)

「노외-」는 동화작용으로 된 변동 어형이다.

배(←쁘-) : 可히 배 天子의 받즈왓직 하니 = 可以獻天子 (두언 7:13)

시러(←실-) : 得은 시를씨라 (훈, 언해) / 제 브들 시러 퍼디 묻흠 노미 하니라 (훈, 언해)

「활용형이 극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으뜸꼴이 확정되지 않는다. (54)

## 「-히」

들히(←돌-) : 찌 마시 찰 마티 들오 (월석 1:42) / 냇病에 예 와쇼물 들히 너기노니 = 舊疾甘載來 (두언 6:51)

「돌-」의 파생어찌씨는 \*「드리」가 될듯 한데, 그 사이에 ㅎ을 개재시킨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니르히(←니르-←니를-) : 이제 니르히 鐵鉞 쓰던 싸해 = 到今用鉞地 (두언 6:39)

「니를-」에서 파생된 「니르리」가 있는데, 「니르히」는 「니를-」의 임의변동형인 「니르-」에서 파생된 어찌씨이다.

(53) 허 응 :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1965, 정음사) p.388 참조.

(54) 그리고,

넛위여, 님위여 : 여러히 넛위여 마마니(월석 2:50), 님위여 水族이 버렛 느니 = 逖迦羅水族 (두언 22:18)

즐기로 쓰인 \*「넛위-」는 나타나지 않으나, 이 가상적 즐기는 「넛-」(있다)에서 파생된 말임은 물론이다.

## 「-애」

이대(←일-) : 善男子는 이든 남지니오 善女人은 이든 거지비라 (월석 7:71) / 슬퍼 드러 이대 思念하라 (월석 8:15)

## 「-사리」

쉽사리(←쉽-) : 쉽사리 病흔 허튀를 가도혀노라 = 容易收病脚 (두언 14:2)

## 「-오마, 오매」

저고마, 저고매(←적-) : 少光은 光明이 저글씨라 (월석 1:33) / 부텃 眞實入 智慧를 스랑하야도 저고마도 모르리어며 (석보 13:42), 저고매 흐르는 수를 = 涓涓酒 (두언 7:7-8)

조고마, 조고매 : ☆邊塞入 우희 傳하야 오는 비치 조고매하고 = 塞上傳光小 (두언 중간 5:54), 近年 畝 病에 조고매 머구를 여렛노니 = 比年病酒開涓滴 (두언 8:42)

「뿌리의 「족-」은 분명히 「적-」의 상징적 변이형태이다. (비교. 혁- : 후-)

## 「무형의 가지」

즐기가 바로 어찌씨로 쓰이는 일이 있다. (→pp.37-8)

바른 : 바른 自性을 스뵈 아루샤 = 直了自性 (월석, 서 : 18)

빅브르 : 빅브르 듣과라 = 飽聞 (두언 7:14)

비릇 : 애왕본 므스물 비릇 퍼도다 = 憤始據 (두언 20:44)

「비릇다」의 파생어찌씨는 세 가지로서, 「비르서», 「비르수(소)», 「비릇」이 있으나, 그 뜻에는 별 다름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존 : 如是 ㄴ틀씨라 (훈, 언해), 이 존다 이 존다 = 如是如是(금강 77) / 두 썰이 갈 존 놀잡고 (천강곡 상, 기 162)

「이 말은, 전준말 「갈」을 취하여 풀이말의 성격을 띤다. (→pp.82-3)

하 : 내 모미 한 커 (월석 2:51)

「하다」의 파생어찌씨에는 「해」도 있는데, 두 말은 뜻이 달라서 「해」가



‘많이’의 뜻임에 비해서, 「하」는 ‘하(도)’의 뜻이다.

거의 : 道樹에 앓다 ㅎ샤몬 ㅎ마 道애 거의여 成佛이 머디 아니호말  
니르시니 (월석 17:43) / 거의 알리 드르라 = 庶幾知者聽 (두언 25:35)

더디 : 이거시 더디 뼈러딜시 (두언 18:10)

느의 : 내 말웃 아니 드르시면 느의 즐거본 ㅅ슴미 업스레이다 (월석 2:5)

「느의야」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마치 : 바늘 아니 마치시면 (용 52장) / 보빅엿 樓殿이 마치 天宮 존  
더니 (월석 2:26)

「이 두 말의 방점법으로 보아서는 그 밑말을 「마치다」로 잡는 것은 다소  
의심스러우나, 뜻은 그리 멀지 않다. (풀이씨의 즐거로서는 “평-거”성인  
데, 어찌씨는 “거-거”성이다.)

다음 몇 말은 줄기가 「오/우」로 끝나 있는 것들이다.

마초 : 自在神力은 곧 性에 마초 뵈야 現ㅎ샤미오 (월석 18:11)

「여기 「마초」는 「性」을 위치말로 가지고 있으니, 단순한 어찌씨와는  
그 성격이 약간 달라서, 풀이말의 특색을 띠고 있다. (→pp.82-3)

그리고 「마초다」에서 파생된 「마초아」는 「매마침」의 뜻인데, 이 어찌씨  
는 그 음직씨로서의 뜻이 뚜렷이 남아있어서, 「마초아」와 구별된다.

모도 : 總觀想은 모도 보는 想이라 (월석 8:15)

고초 : ㅎ 발로 고초 드티여 셔샤 (월석 1:52)

ㅁ초 : ㅅ슴 조초 ㅁ초 얻기 호리라 (석보 9:10)

「마초, 고초, ㅁ초」는 각각 「맞-, 꺾-, 좇-」에 가지 「-호」가 붙은 것  
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어찌씨 파생 뒷가지로 다른데에 「-호」가 나타  
나지 않으므로, 남음직씨의 줄기가 바로 어찌씨로 파생된 것으로 보았  
다. 또 「모도」는 「몰-」에 「-오」가 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모도, 마초, 고초, ㅁ초」의 또 다른 설명 방법으로는, 가지 「-오」가  
이 자리에서는 끝없이 (끝없는 변이형태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예

기에서는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 (2) 임자씨에서

### 「-로」

「-로」는 방편을 나타내는 토씨인데, 임자씨에 붙어서 어찌씨로 전생  
시키는 가치가 되는 일이 있다.

진실-로(眞實) : 가난코 病호미 진실로 그 덜덜흔 이리니 = 貧病固其  
常 (두언 6:48)

당시-로(當時) : 우리는 하늘히오 그되는 당시로 사르미니 (월석 7:  
12)

「當時」는 과거를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때’의 뜻이다.

간대-로(제멋대로, 함부로) : 世間엿 邪魔外道엿 妖怪ㄹ뵈 스스을 信  
ㅎ야 간대엿 禍福을 닐어든 곧 두리본 ㅅ들 내야 (석보 9:36) /  
디새와 돌흘 ㄷ토아 자바 간대로 寶]라 ㅎ리니 = 競執瓦石妄謂爲  
寶 (영가, 하:80)

새-로 : 새로 스물여덟 字를 밍 ㄴ노니 = 新制二十八字 (훈, 언해)

날-로 : 날로 더을씨 (용 12장)

본디-로 : ㅅㅁㅁ 버드른 본디로 幽僻호고 = 渚柳元幽僻 (두언 20:51)

本來-로 : ☆本來로 두려운 굵기 너모 난 ㅈㄹ ㅅㅎ니라 = 素於圓鑿方  
(두언 중간 1:52)

### 「-록」

「-로」의 강세형이다.

본디-록 : 西江은 본디록 蜀으로 ㄴ려가ㄴ니 = 西江元下蜀 (두언 11:1)

### 「-내」

ㅅ춤-내(終) : 流] ㅅ춤내 ㅅ를 ㅅㄴ니 = 流終依水 (능엄 2:119)

내종-내 : 乃終 ㅅ 소리 = 終聲 (훈, 언해) / 迺終내 赤心이시니 (용 78  
장), 乃終내 惡道애 뼈러디디 아니ㅎ야 (월석 21:134), 내종내 당

7. 뒷가지 파생어



상 있디 아니커든 =終不常住(능엄 2:24)

이 가지는 현대어의 「봄내, 일년내, 겨우내」의 「-내」와 같은 것으로서, 경과를 표시하는 「나-」의 파생어찌씨(→p.244)가 가지로 변한 것이다. 뜻은 ‘처음에서 끝까지’.

三月 나며 開호... (풀이씨 : 악학체범, 동동)

모기며 입시우리 내 몰라 (어찌씨 : 월석 9:50)

식어미 죽거늘 거상 삼년을 내 우리 디내나라 =姑歿泣血終喪(속삼강 행실도, 열녀 10)

「-더」

아름-더 : 嬌欲을 아름더 行호고 =私行姪欲(능엄 8:65), 愚 | 아름더 疑心호노니 =愚竊疑焉(능엄 1:16)

「-혀(訶)」

전-혀(訶) : 전혀 眞 眞覺 족르미어늘 =全一眞覺而已(능엄 2:20), 道因을 전혀 닷가 =專修道因(능엄 10:65), 괴외호매 전혀 向호야 =一向冥寂(영가, 상:62)

▽「전」은 입자씨로 쓰이지는 않은듯 하나, 한자어임이 분명하므로 여기 넣어 둔다.

형-혀 : 형혀 님긔 귀에 스므차 =幸徹宸聽(상원사 권선문), 모미 형혀 브텃논들 알며 =知身爲儼寄(능엄 6:103)

▽이와 비슷한 말로 「幸히」가 쓰이고 있는데, 「幸히」는 「幸호다」에서 파생된 어찌씨가 아닐까 생각된다.

구름전 피히 마리디 아니호들 幸히 너기노라 =幸不礙雲山(두언 7:38)

獨-혀 : 獨혀 다습 子息의게 아니호면 =獨於假子而不爲(내훈 3:24)

「-으라」

므스므라(←므슴) : 부텃귀 받즈바 므슴 호려 호시느니 (월석 1:10) / 므스므라 바뭇 나오나노 (석보 6:19)

므스그라(←므스) : 내 몸 外예사 므스글 앓기로 (월석 7:28) / 므스그라 그디 머리 녀가느노 =胡爲君遠行(두언 23:51)

▽「므스」는 입자씨로 쓰이는데, 「므슴」은 입자씨로도 쓰이고 있으나, 때

김씨나 어찌씨처럼 쓰이는 일도 있다. (→p.268)

虛空 滅호몬 므슴 양즈고 =滅空何狀(능엄 3:84)

나뭇닐 다시 므슴 퍼리오 =餘更何申(영가, 하:128)

「-라, -려」

새-라 : 烽火 | 드니 새라 호드리 사호노소니 =烽舉新酣戰(두언 8:35)

새-려 : 비록 새려 더 修補호미 업스나 =雖無新增修(두언 6:3)

「-소」

손-소 : 손소 神靈을 섬기샤 (월석 21:213)

「-쎌」

강세의 뜻을 더한다.

어디-쎌 : 설본 人生이 어딴던 이 마득니 이시리잇고 (석보 6:5)

「-마」

멧-마 : 劫火를 멧마 디내야노마론 =幾經劫火(남명, 상:31)

「-이」

반복 합성어찌씨에 「-이」가 붙어 어찌씨로 전성하는 것.

낫나치 : 이 곤호 衆生을 낫나치 救호야 (월석 21:116-7)

▽다만 「낫낫」은 이름씨가 아니라 매김씨로 쓰인다.

낫낫 寶樹 | 노피 五百卅甸이오 (법화 4:121)

글그티 : 같히 글그타 호야디여 =刀段段壞(능엄 6:27)

그릇그르시 : 金으로 그르슬 핑골면 그릇그르시 다 金이오(능엄 6:90)

겹겨비 : 겹겨비 드위혀 牒호몬 =重重翻牒者(법화 2:253)

念念이 : 念念이 生滅호야 (능엄 2:2)

「-애」

원래 토씨이나 반복합성어에 붙어 어찌씨를 파생한다.

골고대 : 골고대 밥 求호며 =處處求食(법화 2:112)

### (3) 그밖의 품사에서

「-내」



임자씨를 어찌씨 만드는 ‘막춤-내, 내춤-내’의 「-내」는 또한 어찌씨에 붙기도 한다.

몰-내 : 無量은 몰내 헬씨라 (석보, 서 : 1)

「-이」

췌췌시 : 다복다복하야 프른 지치 빛나고 췌췌시 銀漢에 넷도다 = 辛爛翠羽 剌剌生銀漢(두언 7 : 37)

췌췌기 : 밤 구불제... 췌 췌딜씨니 (몽산 44) / 그 브리 다 盛하야...

서와 길패 췌췌기 소리 나 震動하야 = 爆聲震(법화 2 : 124)

적저기(稍稍) : 슬픈 브르미 적적 낙낙다 = 悲風稍稍飛(두언 16 : 51) /

적저기 너 읊 ㅁ식 묻고 = 稍稍烟集渚(두언 14 : 15)

뿌리는 모두 상징어인데, 「췌췌시」의 뿌리는 단독으로 쓰인 예가 보이지 않는다.

「-막」

막-막(終) : 모로매 일 막 일우스보물 묻져 흙디니 (월석, 서 : 17)

/ 내 이제 世尊을 막막 보스보니 (월석 10 : 8)

▽「막」과 「막막」은, 뜻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그 파생 관계는 분명하다.

「-에」

원래는 위치를 나타내는 토씨인데, 다음과 같은 불분명한 뿌리에 붙어 어찌씨를 파생한다.

프리프리-에(往往) : 프리프리예 불기 夢寐에 得하느니 = 往往煥然得於夢寐(능엄 9 : 56)

▽두언 중간에는 「프리프리예, 프리프리예」로 나타난다.

☆프리프리예 長吏를 주기느니라 = 往往殺長吏(두언 중간 16 : 19) — 원간에는 「프리프리예」.

☆프리프리예 鮑照謝眺를 凌犯하느니라 = 往往凌鮑謝(두언 중간 3 : 59)

「프리~」, 「프리~」는, 「프리」(節)에 유추된 「프리~」의 변이형이다.

「-로」

이름씨에 붙어서 어찌씨 「진실로, 당시로, 간대로」 따위를 파생할 수

있는, 토씨에서 온 「-로」는 어찌씨 매김씨에 붙기도 한다.

호을-로 : 호을 겨지비 = 寡妻(두언 25 : 45) / 小子는 호을로 닛디 묻

호라 = 小子獨不承(두언 20 : 22)

덜테-로 : 내 덜테로 닛오리이다 (월석 21 : 38)

다음의 말들도 이 가지가 붙었음이 분명하나, 그 뿌리는 따로 쓰이지 않는다.

절로 : 百千寶鈴이 절로 울어늘 (월석 21 : 209)

갓가스로 : 목수미 뜨거븐 거실씨 손소 죽디 몰하야 셤고 애왈븐 브들 머거 갓가스로 사니노니 (석보 6 : 5)

「-마」

풀이씨 줄기에 붙어 어찌씨를 파생하는 「-마」(저고마, 조고마)는, 다시 매김씨에 붙어서 어찌씨를 파생한다.

현-마(幾) : 不解甲이 현 나리신들 알리 (용 112장) / 하늘히 현만 즐 겁고도 福이 다아 衰하면 受苦로워요미 地獄두고 더으니 (월석 1 : 21)

#### 4) 매김씨

파생된 매김씨는 딱 드물다.

「-맛, 맺」

멧-맛(幾) : 어즈러운 고존 能히 멧맛 빼니오 = 繁花能幾時(두언 7 : 14)

현-맛(幾) : 如來 壽命 니르심제 현맛 菩薩와 현맛 衆生이 功德 得하야시노 (월석 17 : 23, 기 312)

저구(고)-맛(少) : 이 저고맛 因緣이 아니시니 (석보 13 : 26), 저구맛 모미 이 밧기 다시 므스글 求하리오 = 微軀此外更何求(두언 7 : 4)

조고맛 : 혼 조고맛 龍췌 爲티 마루쇼셔 (월석 7 : 49)

조고맺 : 네 조고맺 비를 빙ㅁ로라 = 宿昔具扁舟(두언 6 : 44)

이 말은 원래 어찌씨가 사잇소리를 취하여 매김말로 쓰인 것인데, 모두



매김씨로 파생된 것으로 다루었다.

「-인」

層層인 : 層層인 宮殿 (두언 6:2)

重重인 : 重重인 이스른 (두언 11:48)

萬點인 : 萬點인 蜀入 뵈히 (두언 23:42)

疊疊인 : ☆疊疊인 물겨렌 (두언 중간 3:12)

片片인 : ☆片片인 구루미 (두언 중간 3:40)

萬仞인 : ☆萬仞인 뒷부리 (두언 중간 5:26)

## 5) 이음씨

풀이씨의 여러 활용형이 이음씨로 전성하는 예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럴씨 : ...信力 ㅅㄹ미라 ㅎ시니 그럴씨 모로매 信機를 굴허야 (법화 2:160)

그러면 : ...그러면 니르산 아롬 어려우미 佛智의 어려우미 아니라 (법화 3:165)

그러나 : 聲聞이 비록 못 미르나 그러나 信으로 드로물 許ᄃᆞᆫ실씨 (법화 2:159)

매인이름씨 「ㄷ」를 포함한 것 :

이런드로 : ...이런드로 金剛으로 가즐비시고 (금강, 서:5)

그런드로 : 그런드로 仙苑에 告成ᄃᆞ샤 (법화, 서:13)

## 6) 토씨

씨끝 「-아/어」를 붙여 된 파생토씨.

ㄷ려(←ㄷ리-) : 네 사름 ㄷ리샤 (용 58장) / 世尊이 文殊師利ㄷ려 나  
르샤디 (석보 9:11)

브터(←블-) : 著은 브틀씨라 (월석, 서:3) / 阿鼻地獄브터 有頂天에

니르시니 (석보 13:16-7)

▽이 토씨들은, 그 풀이씨로서의 성격이 아직 남아 있어서, 자리토씨가 그 앞에 오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토씨로 전성된 것인지, 풀이씨로 남아있는지, 잘 결정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토씨로 보지 않는다.)

狂生이 듣즈바 同里로브터 오니 (용 97장)

다 구루로브터 虛空에 잇느니 (월석 1:32)

내 潛邸로브터 오매 (台山御牒)

일로브터 天上에 나리도 이시리니 (석보 9:19)

世宗이 날드려 니르샤디 (월석, 서:11)

씨끝 「-고」를 붙여서 된 파생토씨 :

-두고 : 受苦로비요미 地獄두고 더으니 (월석 1:21)

-ᄃ고 : 夫人도 목수미 열들ᄃ고 닐웨 기터 겨샷다 (월석 2:13)

잡음씨에서 파생된 토씨 :

-이나 : 아되나 이 經을 디녀 (석보 9:21)

▽Ⅲ. 2 토씨, p.381 참조.

-이어나 : 이런 有情들ᄃᆞᆫ 이에서 주그면 餓鬼어나 畜生이어나 ㄷ  
외리니 (석보 9:12)

▽Ⅲ. 2. 토씨, p.382 참조.

-이드록 : 밧둥이드록 자디 아니ᄃ시며 (내훈, 2하:38)

▽Ⅲ. 2. 토씨, p.383 참조.

-인들 : 엇테 값간인들 놀라 저ᄃ리오 =何曾驚怖(금강삼가 3:25)

▽Ⅲ. 2. 토씨, p.393 참조.

잡음씨에서 파생된 토씨와 잡음씨의 활용형과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잡음씨는 어디까지나 풀이말로 기능하면서, 임자말을, 겉구조로나 속구조로나, 취할 수 있는데, 토씨가 붙은 말은 그러하지 않다는 데 다름이 있다.

7. 뒷가지 파생어



### Ⅲ. 준굴곡론

#### — 임자씨와 토씨 —

#### 1. 임자씨(체언)

##### 1) 그 됃됨이

1. 임자씨는 하나 또는 두개의 뿌리로 된 것도 있고, 한 뿌리에 파생의 가치가 붙어서 된 것도 있다.

##### 2. <하나의 뿌리로 된 임자씨>

식미 기픈 드른 (←식+이, 물+은; 용 2장)

나라홀 맛드시릴씨 (←나라ㅎ+을; 용 6장)

불근 새 그를 드려 (←글+을; 용 7장)

위의 밑줄 그은 말들에 포함되어 있는 「식, 물, 나라ㅎ, 새, 글」이 모두 임자씨인데, 이 말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로 되어 있다.

##### 3. <두개의 뿌리로 된 임자씨(합성어)>

「밤-낫, 어시-아들, 뫏-골, 뫏-결, 쇠-젓, 하나비(한-아비), 한-비, 늙-중성, 호오샛-말, 훈-두, 두-식」 따위 많은 임자씨들은 모두 두개의 뿌리로 된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p.92 이하; II. 조어론, 4. 합성어.

1) 통어적 합성어, (1) 임자씨 참조)

##### 4. <파생의 가치를 가진 임자씨(파생어)>

「독-술, 쓰-물」 따위는 앞가지를 가진 파생임자씨이고(p.142 이하 참조). 「마지(맞-이), 어름(얼-음)」 따위는 뒷가지를 가진 파생임자씨이다. (→p.222 이하; II. 7. 2) 참조).

##### 5. <뿌리가 둘이면서 파생의 가치를 가진 임자씨>

「죽사리(죽-살-이), 히도디(히-돋-이), 아기나히(아기-낱-이), 글지시(글-짚-이)」 따위는 모두 뿌리가 둘에 가치가 하나 붙어서 된 말들이다. (→p.230 이하)

이에 대해서는 II. 조어론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 2) 임자씨의 다양한 용법

1. 임자씨는 토씨의 의지를 입어 여러가지 월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씨가 붙지 않고도 문맥의 도움을 입어 여러가지 월성분으로 기능한다.

사름 사느 (월석 1:8) — 임자말

사름 모도물 (월석 2:16) — 부림말

사름 ㄱ토다 (월석 1:15) — 전춤말

사름 쓰디리잇가 (용 15장) — 매김말

이러한 예들의 「사름」은 각각 토씨 「-이, -을, -과, -위」가 속뜻으로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통어론 상의 기능이 무엇이든 「사름」은 임자씨(이름씨)에 속한다. 따라서,

쳐섬 와 傲色 잇더니 (용 95장)

오늘 病이 도호라 = 今愈疾 (두언 25:31)

넉실 蕭條히 다 醉했다가 지면 = 明日蕭條盡醉醒 (두언 18:1)

이제 와 또 생각하야 (석보 9:16)

(1) 「속뜻」이란, 주 시경 님이 쓴 용어로서, 생성·변형 문법의 「속구조」(deep structure)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토씨의 생략은 변형 문법의 이론으로는 「생략변형」으로 설명된다.

허 용: 주 시경 선생의 학문(동방학지 12집) 참조. (이 논문은 「우리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1974, 과학사)에 실려 있음.)



賢과 聖과 또 同 卽 나도다 = 賢聖亦同時 (두언 6:34)

부테 ... 崙근 比丘 八千人과 同 卽 잇더시니 (석보 9:1)

언제사 ... 바루래 卼 타 가려노 = 何當 ... 乘滄溟 (두언 6:20)

어더 가 츠즈리오 = 何處尋 (두언 6:33)

따위 말의 「처섬, 오늘, 님실, 이제, 同 卽, 同 卽, 언제, 어더」<sup>(2)</sup> 따위도 모두 그 속뜻으로는 위치말을 나타내는 토씨 「-이/의」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통어론 상 위치말로 기능하고 있으나, 임자씨(이름씨)임에는 틀림없다.

2. 그러나 속뜻으로도 토씨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자씨로서의 성격이 흐려져서 다른 씨로 볼 가능성이 생겨난다.

(7) 이어기 옛더니 (월석 2:27)

그어기 쇠 하아 (월석 1:24)

이에 여희여 더에 날씨라 = 離此生彼 (능엄 4:28)

「이어기, 그어기, 이에, 더에」 따위는 위치말로 기능하고 있으나, 어떤 토씨가 속뜻으로 숨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들은 (위치말을 어찌말 안에 넣어 처리하는 체계로 본다면) 어찌씨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이 말들은,

(2) 「이제, 同 卽, 同 卽」의 「-제, -卽, -더」는 각각 「적, 卽, ㅌ(더)」에 위치말을 나타내는 토씨 「-이/의」가 녹아붙어서 된 말이다.

적+의→저기→제

卽+의→卽

ㅌ(더)+이→더

그러므로 어원적으로 보더라도 이 말들은 임자씨가 위치말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同 卽」가 (同 卽>함께>)[함께]로 변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찌씨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함께」에는 임자씨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한 때에」란 원래의 뜻도 여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ㄴ) 내 이어기도 (남명, 상:14)

더에서 (석보 9:12)

王入 그엔 (월석 7:26)

들 예에 있어서는, 앞에 매김말을 취하기도 하고, 뒤에 토씨가 연결되기도 하는데, 어찌씨도 토씨의 의지는 입을 수 있으나, 앞에 매김말을 통술할 수는 없다. 이런 점으로 보면, (ㄴ)의 「이어기, 더에, 그에」 따위는 임자씨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말들은 (7)의 경우나 (ㄴ)의 경우나 다 같이 임자씨로 보고, (7)은 임자씨가 위치말로 기능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sup>(3)</sup>

3. 이러한 설명은 「네, 묻저」와 같은 말에도 적용된다.

(7) 네 丙寅年에 이서 (월석, 서:10)

네 업던 이리로다 (월석 1:14)

하마 묻저 슬노라 = 已先悲 (두언 15:2)

童女ㅣ... 묻저 갓거늘 (월석 2:28)

위의 용례에 있어서는 위치말로 기능하고는 있으나, 토씨를 속뜻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ㄴ) 네와 다락샤 (용 51장)

뜯은 네라 (월석, 서:10)

묻저를 알리오 (두언 6:37)

先은 문제오 (월석, 서:15)

에 있어서는 분명히 임자씨이므로, (7)의 경우도 임자씨가 위치말로 기능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4.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7)과 (ㄴ)을 다 같이 어찌씨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7)과 (ㄴ)을 각각 다른 씨로 보고 처리

(3) 「이어기, 그어기」 따위는 녹아붙은 한 낱말로서, 직감적으로 분석이 잘 되는 것은 아니나, 굳이(어원적으로) 분석하면, 「이(그)+익(←익(?))+의」와 같이 세 형태소로 쪼갤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임자씨가 위치말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분명히 같은 낱말을 두 씨로 나눠 보는 것은 좋은 처리 방법이 아니다.

5. 「이, 그, 더」는 현대말에서처럼 매김말로 쓰인다.

(ㄱ) 인 곧 더 고대 (8:36장)

인 지비 (용 102장)

그 일후미 (석보 13:1)

그 貢을 (두언 15:3)

더 ㄱ새 (월석 2:25)

더 지비 (용 102장)

한편 이 말들은 이대로(그 뒤에 매인이름씨를 속뜻으로 가지지 않고) 임자씨로 쓰인다.

(ㄴ) 인와 더와 (훈, 언해 1)

네 일 몰라 이실씨 (월석 8:103)

毗舍浮에 니르리 인시고 = 至毗舍浮 是也 (법화 4:15)

그 아니 어리시니 (용 39장)

내 모미 그오 (석보 13:36)

그를 곧 因하야 (석보, 서:6)

데 歡喜心を 發하고 = 令彼發歡喜心 (금강 35)

彼는 데오 (월석, 서:26)

더는 제 아디 못하느니라 = 彼不自知也 (법화 3:28)

이 경우에는, (1) ㄱ과 ㄴ을 다 같이 임자씨로 보든지, (2) 다 같이 매김씨로 보든지, (3) ㄱ은 매김씨로 보고 ㄴ은 임자씨로 보든지, 세 가지 처리 방법이 있는데, 분명히 같은 낱말로 느껴지는 것을 다른 씨에 나눠서 보는 (3)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고, (4) 원래 매김씨는

(4) 현대 말본에서는 이 두가지 말(ㄱ과 ㄴ)을 각각 다른 씨에 나눠 넣는 (3)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필자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매김말로만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의 방법을 취할 수 없으니, 남은 것은 (1)의 방법 뿐이다.

우리말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임자씨가 토씨의 의지를 입지 않고 뒤의 임자씨를 꾸미는 매김말로 쓰이는 일이 많으므로, 이것은 우리 말본의 일반 특색을 깨뜨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또 이 말들이 매김말로 쓰일 때는 토씨 「-의」를 가지든지, 사잇소리를 개입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 말들이 매김씨에 보다 임자씨에 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의 목수물 (석보 9:17)

如來入 像을 인 양자로 供養하습느니라 (석보 23:4)

6. 「몬」은 자립적인 임자씨로서, 토씨와 잡음씨가 붙을 수 있다.

太姒 | 열 아드를 나하시니 몬든 伯邑考 | 오 (내훈 3:12)

내 아드리 비록 몬디라도 (월석 2:5)

長은 몬디오 (월석, 서:14)

☆ 몬형=兄, 몬가=哥, 몬곤=昆 (자희, 상:32)

그러나 이 말은, 바로 뒤에 임자씨가 이어나서, 매김씨처럼 쓰이는 일이 있다.

몬아드리 즐겨 업스니 (월석, 서:14)

이러한 경우에도 앞의 「이, 그, 더」의 예를 좇아, 두가지로 쓰이는 것을 다 임자씨로 처리한다. (5) 이 점, 다음의 말들도 한가지다.

이유는 :

첫째, 현대말에서는, 옛말과는 달리, 매김씨로서의 용법이 정상적이고, 둘째, 임자씨로 쓰였을 경우는, 매인이름씨가 속뜻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 되기 때문이다.

곧 임자씨로 쓰인 현대말의 「이, 그, 저」는 「이(것, 이), 그(것, 이), 저(것, 이)」의 생략변형으로 된 말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나, 옛말에서는 그렇지 않다.

(5) 다만 「몬아들」은 합성어가 되며, 이러한 합성어로는 「몬아기, 몬머느리, 몬오라비, 몬누의, 몬아자비, 몬형, 몬分」 따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Ⅱ. 조어론 참조. 또 다음 편의 「놀고기」도 합성어이다.







셈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 용법에 따라 그 꼴이 바뀌는 말이다. 즉 「하나ㅎ/흔, 둘ㅎ/두, 세ㅎ/세~석~서, 네ㅎ/네~넉~너」와 같은 말은 입자씨처럼 쓰일 때는 앞의 꼴을 취하고, 매김씨처럼 쓰일 때는 뒤의 꼴을 취한다.

하나ㅎ / 흔 : 一은 하나히라 (흔) / 흔 갈해 (용 22장), 흔 사래 (용 23장)

둘ㅎ / 두 : 二는 둘히라 (흔) / 두 글워를 어울워 = 合兩書 (월석, 서 : 12)

세ㅎ / 세~석~서 : 三은 세히오 (월석 1:15) / 세 사틀 (용 32장); 석 둘 (석보 9:18); 서 되 (월석 10:119)

네ㅎ / 네~넉~너 : 네흔 소내 히를 자브며 (월석 1:17) / 네 사름 (용 58장); 흔 들 넉 들(석보 19:24); 너 모 (능엄 2:42)

다섯 / 다섯~닷 : 五는 다스시오 (월석 1:6) / 다섯 가마괴 (용 86장), 다섯 므리 (두언 21:3); 닷 말=五斗 (두언 15:41), 닷 뒷 必를 =五升米 (두언 15:37)

여섯 / 여섯~예~옛 : 여스손 모딘 중싱 물여 橫死홀씨오 (월석 9:58) / 여섯 놀이 디며 (용 86장), 여섯 히 (두언 6:45); 예 잣 모물 =六尺軀 (금강삼가 4:14); 옛량은 =六兩銀子 (초간 방통사, 상:73)

이러한 꼴바뀐의 모습을 고려한다면, 이 두가지 말은 다른 씨로 보는 것이 좋을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앞에서 입자씨로 처리한 「닐굽, 여덟……」이나, 한자어 「일, 이, 삼……」과 어울리지 않게 되어서, 셈씨의 체제가 균형 잡히지 않게 된다. 이 몇개의 낱말 때문에 셈씨의 전 체제에 구멍이 나게 하는 것은 좋은 처리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흔…」을 두가지 씨로 보고, 그에 따라 「닐굽, 여덟…」이나, 「일, 이, 삼…」 따위까지 그 용법(통어론 상의)에 따라, 각각 두가지 씨에 나눠 넣는 것도 좋은 처리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입자씨의 대부분은 토씨를 가지지 않고도 매김말로 쓰이게 되므로, 대

부분의 입자씨도(셈씨에 맞추어) 다시 매김씨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앞의 「닐굽, 여덟…」이나, 「일, 이, 삼…」에 대한 처리 방법을 「하나/흔…」 따위, 얼마 되지 않는 말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태도를 취한다. 즉 「하나/흔…」 따위를 모두 입자씨(셈씨)로 보고, 「흔, 두, 세~석~서, 네~넉~너」 따위 어형은, 각각 「하나ㅎ, 둘ㅎ, 세ㅎ, 네ㅎ」의, 입자씨 앞에 올 때에 취하는 변이형태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ㅎ/흔…」 따위는 형태적 변이형태로 설명된다.

9. 어림수를 나타내는 합성어 「흔두, 두서, 서너, 너덧, 다섯, 여닐굽, 닐(굽)여덟, 열아홉」<sup>(8)</sup> 따위는, 어떤 말은 두가지의 용례가 다 나타나는 것이 있고, 어떤 말은 한가지 용례만이 나타나는 것이 있기는 하나, 모두 셈씨로 처리한다.

그리고 「열ㅎ, 스물ㅎ, 열흔, 마흔, 쉰」에 「나몬」이 붙어서 된 합성어 「여나몬, 스므나몬, 열흔(열호)나몬, 마스나몬, 쉬나몬」(→ p.105)은 매김씨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다음 용례로 미루어보면 입자씨로 쓰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모두 입자씨로 처리한다.

出家 아니흔 道士 | 쉬나몬너러라 (월석 2:77)

나히 마스나몬너러시다 (내훈, 2상:59)

10. 이러한 처리 방법은 「너느, 므속」에까지 유추된다.

너느~넌ㄱ / 너느~넌 : 明의 妄은 너느 아니라 = 明妄非他也 (능엄 4:23), 너느 이틀 브리고 = 舍置餘事 (내훈 1:53)<sup>(9)</sup>; 四海를 넌글 주리여 (용 20장), 넌기 디나리잇가 (용 48장) / 너느 夫人 (월석 2:4), 너느 龍 (석보 13:7); 常不輕比丘 | 넌분이시리잇가 (월석 2:4)

(8) 그 용례는 조어론(p.103 이하)을 참조.

(9) 「너느」가 사잇소리를 가지고 매김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 입자씨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짐을 의미한다.



17:77, 기 317), 넬더 가디 말라 (법화 2:211), 넬디 물 쓰리니 (석보 23:3)

므스/므스 : 므스게 쓰시리 (월석 1:10), 므스클 앓기료 (월석 7:28)  
/ 므스 罪 (월석 1:7), 므스 일 (월석 8:92)

「므스」란 어형이 임자씨나 매김씨처럼 쓰이는 일이 있다.

이 일후미 므스고 = 此名何等고 (능엄 5:18)

얻는 藥이 므스 것고 (월석 21:215)

그러나 이것은 「므스, 므스」의 끝닿소리가 뒤의 /ㄱ/ 때문에 줄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1. 「새」의 용법은 매우 복잡하여, 임자씨나 매김씨 같이 쓰이는 이외에 또 어찌씨 같기도 쓰인다.

임자씨처럼 : 臘은 接힐씨니 새와 네와의 交接이라 (월석 21:5), 善男子 善女人이 부텃 塔寺와 大乘經典을 맛나 새란 布施供養하며...  
늘 마니아나 허니를 맛나든 修補하야 고토디 (월석 21:146), 새와 새와 머므디 아니호매 = 新新不住 (능엄 2:4), 현웃도 새 존하리니 (월석 8:100), 新은 새라 (훈, 언해 3)

매김씨처럼 : 새 님 (용 84장), 새 비 (두언 6:45), 새 조흔 옷 = 新淨衣 (능엄 7:6)

어찌씨처럼 : 새 밍 마논 글워레 = 新編 (월석, 서:19), 새 產生흔 사르미 (월석 21:97), 沙彌는 새 出家흔 사르미니 (석보 6:2)

이 말도 세가지 씨에 나뉘 넣는 방법을 피하려면 임자씨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임자씨는 토씨를 더붙어서 위치말이나 견썸말 따위로 기능하는 일은 있으나, 이 책에서 규정한 뜻의 어찌말로 기능하는 일은 없으니, 매우 난처하게 된다.

12. 「어느(어느)」의 용법도 「새」와 비슷하다.

임자씨처럼 : 어늘 從히시려노 (월석 7:26), 어니 구더 兵不碎하리잇고 (용 47장), 妙道는 어느고 = 妙道者何 (영가, 하:122)

매김씨처럼 : 어느 時節 (두언 15:5), 어느 거시 (능엄 2:52)

어찌씨처럼 : 聖人 神力을 어느 다 술블리 (용 87장), 현 날인들 迷惑 어느 플리 (천강곡 상, 기 74)

13. 「언마(언머)」도 비슷하나, 다만 매김말이 될 때는 사잇소리를 취하는 점이 약간 다르다.

임자씨처럼 : 只숨과 相과 병으로론 언머고 = 心與相과 相去는 多少오 (금강삼가, 3:32), 겨집 종의 비디 언매잇가 (월석 8:81), 그 數 언매잇고 (법화 4:167)

매김씨처럼 : 언맛 福 (월석 17:44)

어찌씨처럼 : 深谷深山애 언마 저프거시노 (천강곡 상, 기 123)

14. 또 「아니」는 임자씨처럼 쓰이기도 하고, 어찌씨처럼 쓰이기도 한다.

임자씨처럼 : 이 둘히 둘 아니를 일후미 空相이라 = 是二不二를 名爲 空相이라 (반야심경 38), 因 아니를 因에 헤요미니 = 非因計因 (능엄 8:91)

어찌씨처럼 : 아니 뵈씨 (용 2장), 아니 오리잇가 (용 53장)

「아니다, 아니하다」는 풀이씨이다.

15. 임자씨가 매김말로 쓰이는 것은, 임자씨의 몇몇한 기능이라 할 수 있으나, 임자씨가 다시 어찌말로 쓰인다고 설명하는 것은 임자씨의 용법을 너무나 다양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아니 뵈씨」의 「아니」까지를 임자씨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새, 어느, 언마, 아니」 따위 말이 어찌말로 쓰인 것은 어찌씨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6. 뒤에서 다시 설명이 될 것이나(→p.282), 「썸」은 매김말을 앞세울 수 있고, 토씨나 「-이다」가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임자씨다운 특색이다. 그런데 이 말은 임자씨에 바로 붙어서 토씨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p.286) 이렇게 쓰인 「썸」은 토씨로 보고 싶으나, (사실 「썸」의 어떤 용법은 토씨로 보는 수 밖에 없는 것도 있다. →p.385) 한 낱말로 생각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둘 이상의 씨에 나눠 넣지 않는 것이 좋다는 관점에서,  
이 말은 매인이름씨로 보게 된다.

「손더, ㅅ름」 따위도 모두 한가지다. (pp.285, 299)

### 3) 매인이름씨 (불완전명사)

1. 임자씨를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의 세가지 씨로 나누고, 이름씨를 다시 홀로이름씨(고유명사)와 두루이름씨(보통명사)로 나누고, 대이름씨는 다시 사람대이름씨, 몬대이름씨, 곳대이름씨 따위로 나누고, 셈씨는 으뜸셈씨, 차례셈씨로 나누는 일도 있으나, 이러한 분류는 국어 말본의 설명에는 그다지 필요한 일이 아니다.

그 보다 오히려 이름씨를 자립이름씨(자립명사)와 매인이름씨(구속명사, 불완전명사)로 나누는 것은 말본 설명에 필요한데, 매인이름씨는 이름씨 같으면서, 그 내용으로나 그 용법으로나 다른 임자씨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2. 매인이름씨의 특색은, 그것이 홀로 서는 (자립하는) 힘이 없고,<sup>(10)</sup> 반드시 그 앞에 매김말의 구실을 하는, 풀이씨의 매김꼴, 매김씨, 임자씨(토씨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가 와야 한다는 점에 있는데, 매인이름씨는, 그것이 이끄는 전체구성에 어떠한 구실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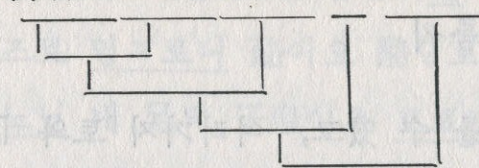
▽「그것이 이끄는 전체구성」이란, 이 말(매인이름씨)이 직접성분의 하나가 되어 있는 전체구성을 말함이다. 즉,

韋曲앳 고줄 依賴홀 줄 업도다 = 韋曲花無賴 (두언 15:6)

을 직접성분으로 분석하면,

(10) 자립하는 힘이 없다 함은, 그것만으로 한 어절을 형성하여 하나의 월성분이 될 수 없고, 환경의 도움을 받더라도 하나의 월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데, 「구속형식」(bound form)을 가리킴이다. 「매인」이란 말은 'bound'를 옮기는 말로는 매우 적당하다. 그러므로, 「안용근」 「불완전」 「형식」 따위 이름을 붙이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매인」을 취한다.

韋曲앳 고줄 依賴홀 줄 업도다



와 같이 되므로, 「줄」이 이끄는 전체구성은 「줄」 앞의 전부를 가리키게 된다.

3. 첫째는, 그것이 이끄는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주6 참조) 여러가지 월성분으로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가 있다.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훈, 언해 2)

▽「배」는 「바+」로 분석되는데, 「-」는 임자자리(주격)를 표시하는 토씨이다. 「바」는 「니르고져 홀 바」를 임자씨처럼 쓰이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전체구성이 「-」를 가지고서 임자말(주어)이 된다.

所는 배라 (훈, 언해 2)

▽「배라」는 「바+」라」로 분석되는데, 이 경우의 「바」는 「-」라」를 가지고서 풀이말이 되어 있다.

4. 둘째는, 그것이 이끄는 전체 구성을 어느 한가지의 월성분으로만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가 있다.

물 톤 자히 건너시니이다 (용 34장)

▽「자히」는 매인이름씨인데, 「물 톤 자히」를 어찌말로 기능하게 한다.

그 사르미 손더 오샤 (월석 8:55)

▽「손더」가 매인이름씨인데, 「그 사르미 손더」 전체를 위치말로 기능하게 한다.

#### (1)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

1.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는, 전형적인 매인이름씨와, 불구적인 매인이름씨와, 수단위 매인이름씨의 세가지로 나뉜다.



### (1-1) 전형적인 매인이름씨

2. 비교적 여러가지 매김말에 따를 수 있고, 여러가지 토와 「-이다」를 비교적 자유로이 가질 수 있어서, 전체구성을 완전히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이다.

바<sup>(11)</sup> : 次第 하여 땡 ㄴ론 바를 브터 =據所次 (석보, 서 : 5)

須求 하는 배 하니 =多所須 (두언 25 : 36)

得흔 바 功德 =所得功德 (금강삼가 3 : 61)

「得흔 바」가 사잇소리를 가지고 매김말로 기능한다.

내 ... 無量衆의 尊홀 배라 =我 ... 無量衆所尊 (법화 1 : 205)

「배라」가 된소리로 된 것은, 씨끝 「-ㅁ」 때문이다. (현대말도 그러함)  
그리고 「배라」는 「바+」라」로 분석된다. (→잡음씨, p. 470)

것 : 魔<sup>1</sup> ㄴ리는 거실씨그므리라 하니라 (석보 9 : 8)

또 阿難이 아를 거시 아니니 =又非阿難이所知者니 (능엄 4 : 104)

佛子의 得홀 꺼술 다 하마 得과이다 = ... 佛子所應得者 (법화 2 : 232)

네 得흔 거슨 滅이 아니니 =汝所得非滅 (법화 3 : 198)

이(사람, 것) : 듯오니 여희는 苦 =愛別離苦, 미우니 맛나는 苦 =冤憎會苦 (법화 2 : 84)

이 내 아드리라 내 나호니니 = ... 我之所生 (법화 2 : 222)

이 사르몬 如來 브류니며 如來 보내요니라 如來人 이틀 行하느니  
니 =是人은 則如來使며 如來所遣이라 行如來事니 (법화 4 : 76)

(11) 이 말은 앞에 매김말을 가지지 않고 자립 이름씨로 쓰이는 일이 있다.

百姓이 王 얻도하며 賈客이 바를 얻도하며 (월석 18 : 51)

☆바소=所 (자회, 중 : 8)

자회의 용례는 글자풀이에 쓰인 것이니, 이것으로써 그 말의 말본 상의 성격을 단정할 수는 없고, 월석의 용례는 홀릉히 자립적으로 쓰인 것이기는 하나, 이런 용법은 잘 찾아볼 수 없는 드문 것이므로, 자립적으로 쓰인 더 많은 용례가 나타나기까지는 우선 매인이름씨로 보아 두기로 한다. 이것은 현대말에서 「수」는 가끔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수가 났다」)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매인이름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과 같은 일이다.

오늘 世尊人 알찌 몬 든줍더닐 든줍고 (법화 2 : 50)

저즈로 땡 ㄴ로니 酪이오 酪오로 땡 ㄴ로니 酥 ㅣ라 (금강삼가 3 : 39)

아노닌 내 兄의 子息이오 브로닌 내 子息이니 =所抱者는 妾兄之子也  
ㅣ오 所棄者는 妾之子也ㅣ니 (내훈 3 : 52)

하는 이룬 오직 호린 수리오 지수닌 오직 새지비니라 =事業只濁膠  
營葺但草屋 (두언 6 : 52)

說法 하시느니 들히 (법화 4 : 117)

위의 예는 「-ㄴ」 매김말에 연결된 것들인데, 「-ㄴ」 매김말에 연결되기도 한다.

나라 니스리를 긋게 하시느니 (석보 6 : 7)

자<sup>ㅅ</sup>브리 업시 (석보 6 : 17)

하다가 아니 오리 잇거든 (석보 6 : 17)

사나을 머구릴 뷔여 오니 (월석 1 : 45)

獅子 ㅣ 위두하야 저호리 업슬씨 (월석 2 : 38)

풀이씨 줄기가 원래 /ㄴ/로 끝나 있는 말의 「-ㄴ」 매김말에 「-이」가 연결될 때는 두 /ㄴ/이 덧나게 된다.

經典을 헐리 이시며 (법화 2 : 163)

한 能히 들릴 어귀여 =違 ... 諸能入者 (원각, 하 3-1 : 13)

能히 다음 알리 업스니 =無能知盡者 (원각, 하 3-1 : 37)

山林木 술릴 맛나든 (월석 21 : 66)

아니 울리 업더라 (월석 10 : 4)

곳 프리도 프며 여름 열리도 염글에 하야 (월석 13 : 47)

그러나 이 경우에 줄기와 씨끝 사이에 「-오/우-」 형태소(p. 627 이하 참조)가 들어가면 /ㄴ/이 겹쳐질 수 없다.

아스미며 버디며 아로리며 (석보 9 : 29)

「아로리」는 「알+오+ㄴ(씨끝)+이(매인이름씨)」로 분석되는 말로서, 「아는 사람」의 뜻.



줄(일, 수, 것) : 당다이 이 싸해 橫死흠 주리 업스며 (석보 9:22)  
 일로 아래는 三世엿 道理 혼가지론 주를 니르시니라 (석보 13:50)  
 다보지 나미 불휘 업순 줄 아니언마론 = 蓬生非無根 (두언 6:53)  
 내 상네 아득를 思念호더 불 주리 업다니 (법화 2:198)  
 千二八百功은 足히 論홀 줄 업스리라 = 千二八百之功은 無足論矣리  
 라 (법화 6:26)

디 / 디 (데)<sup>(12)</sup> : 겨신 덜 무려 (용 62장)

濕生은 축축한 디서 날씨오 (석보 19:2)

갈 디 업서 (두언 15:2)

노퐁 디 올라 = 登臨 (두언 20:1)

身心의 顛倒 잇는 덜 아디 못더니 = 不知身心顛倒所在 (능엄 2:15)

헛다가 貪欲을 滅호면 브터 이술 떤 업스니라 = ...無所依止 (법화 2:69)

먼 덜 胡教 (월석 2:69)

곧 (곳, 것, 줄)<sup>(13)</sup> : 王이 그제사 太子 1 고들 아루시고 (월석 8:101)

(12) 「디/디」는 원래 「ㄷ/드」에 토씨 「-이/의」가 연결된 위치말이었을 것인데, 이것이 한 매인이름씨로 굳어져 버리고, 「ㄷ/드」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만 화석으로 남아있다.

하늘해서 飲食이 自然히 오나든 夫人이 좌시고 아모드라셔 온동 모르 더시니 (월석 2:25)

그되는 어드러셔 오시느니 (석보 23:40)

이 智慧 업슨 比丘 1 어드러셔 오노 (월석 17:84)

네 아드리 孝道호고 허물 업스니 어드리 내티료 (월석 2:6)

이 싸히 어드메잇고 (월석 8:94)

왕이 어드리 가시니잇고 (월석 10:14)

(13) 장소를 나타내는 「곧」(곳)은 자립적으로 쓰이는 예가 있다.

곧마다 프른 마르미 흰 말와들 썩차느니 = 處處青江帶白蘋 (두언 21:3)

곧고대 밥 求호며 = 處處求食 (법화 2:112)

處는 고디라 (석보 13:12)

그러나 「곧곧」은 반복합성어로서 「곧」과는 다른 말이며, 「곧마다」는 「곧」이 자립적으로 쓰인 점으로 보아 파생어에 가까운 성질을 띠고 있으며, 「고디라」는 한자의 뜻풀이에 쓰인 예이다. 그러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내 이제 能히 受호느니 다 如來入 威力이론 고들 아라라(석보 9:28)

이 무른 다 增上慢이론 고들 아룀디니 (석보 13:61)

어느 肘腋애 禍難이 절로 梟鏡 마튼 무레 미출 고들 알리오 = 焉知肘腋禍 自及梟鏡徒 (두언 6:38)

元輔애 울을 고들 每常 알며 = 每覺昇元輔 (두언 20:17)

五百 사르문 五道衆生의 다 甞는 고디라 = 五百人者 五道衆生 所共有也 (법화 2:105)

十方國土애 法華經 니를 ㅁ디 잇거든 (법화 4:113)

다 ㅁ히을 ㅁ대 잇느니라 = 皆在所擇 (법화 2:161)

간 고대 마르미 업느니라 = 所往無礙也 (금강 10)

간 고대 (용 95장)

현 고들 (용 110장)

덜 (사이, 동안) : 밥 머춤 덜만당 長常 이 이를 생각호라 (월석 8:8)

비록 善心을 發호야도 아니한 더데 즉재 모르느니 (월석 21:179)

또 王孫 爲호야 저근 더들 셔슈라 = 且爲王孫立斯須 (두언 8:2)

목수미 저근 덜도 못호야셔 또 無常의 주구미 ㅁ의요물 가줄비시니 = 譬 ...命未須與 又爲無常所殺 (법화 2:129)

地藏菩薩入 像 알피 ...절호야 밥머춤 덜만 호야도 (월석 21:87)

분 : 尊은 노퐁신 부니시니라 (석보, 서:1)

衆生을 잘 濟渡호시는 분내러시니 (석보 13:4)

兩分入의 술병샤디 (월석 8:80, 기 227)

「곧」도 매인이름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것, 줄」의 뜻을 가진 「곧」과 장소를 나타내는 「곧」을 같이 다룬 것은, 이 두가지 용법이 똑똑히 구별되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自性이...모다 노가 分別홀 곧 업스니 = ...無所分別 (금강 28)

이 사름 브더니너겨 不輕이라 일흠 지호니돌히 큰 神通力과 樂說辯力과 大善寂力을 得호엿는 고들 보며 니르논 마를 듣고 다 信伏호야 조츠니라 (석보 19:32)



적: 사름 醉<sup>하</sup>던 저글 스랑코 =憶 ... 人醉時 (두언 15:2)

처섬 들 적브터 (월석 21:46)

神女廟를 여월 저근 ... 杜鵑 소리를 저를 저기니라 =辭神女 ... 杜鵑 (두언 20:12)

처섬 이에서 사던 저그로 오<sup>는</sup> 마장 해면 (석보 6:37)

알피 부터 업슨 적 外에는 (석보 13:62)

이 부터 나심 저기 (월석 1:8)

世尊이 느려오심 제 (월석 21:205)

「저기」는 토씨 「-의」를 가진 위치말이며, 「제」는 「저기」가 축약된 말이다.

그리고 위치말을 나타내던 「제」는 이대로 굳어져서 입자씨로 파생된다.

네 세서린 제 이 河 불제와 =汝 三歲에 見此河時와 (능엄 2:8)

앞의 「제」는 「적」이 위치말로 기능하고 있으나, 뒤의 「제」는 바로 입자씨로 굳어버린 예이다.

양(모양, 척(하다)): 菩薩入 道理 行<sup>하</sup>시는 양도 보며 (석보 13:14)

가시 樣 무르시고 (월석 7:5(6), 기 180)

내 양 分別<sup>하</sup>음도 =分別我容 (능엄 2:25)

琰魔法王이 罪의 양<sup>으로</sup>로 詳考<sup>하</sup>야 (석보 9:38)

제 히메 홀 양<sup>으로</sup>로 恭敬<sup>하</sup>야 (석보 9:31)

제 맞드논 양<sup>으로</sup>로 種種엿 도<sup>하</sup> 오솔 어드며 (석보 9:9)

웃사름두고 더은 양 <sup>하</sup>야 (석보 9:14)

늘우르며 꼴외요<sup>든</sup> 누를 爲<sup>하</sup>야서 雄<sup>하</sup> 양 <sup>하</sup>는다 =飛揚跋扈爲誰雄 (두언 21:34)

「양<sup>으로</sup>」는 「~대로」의 뜻을 가지는 일도 있고, 「-양 하다」는 「척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젓(허사): 乎는 아모그에 <sup>하</sup>는 거체 쓰는 字 1 라 (훈, 언해 1)

乃<sup>는</sup> 사 <sup>하</sup>는 거치라 (월석, 서:13)

嗚呼<sup>는</sup> 한숨 디<sup>듯</sup> 거치라 (월석, 서:23)

「맏젓, 입젓」은 합성어이다.

言은 맏겨체 브느니라 (월석, 서:10)

於是 입겨치라 (월석 10:54)

親히 입겨출 一定<sup>하</sup>시고 =親印口訣 (영가, 하권 발문 2)

「입젓」은 「입젓」으로도 쓰인다.

之<sup>는</sup> 입겨치라 (훈, 언해 1)

앗(바, 까닭): 말슴 바다 뿐 아로<sup>든</sup> 恩을 아<sup>는</sup> 아<sup>치</sup>오 =承言會旨<sup>는</sup> 所以知恩이오 (금강삼가 3:38)

알된 住 업슨 아<sup>출</sup> 불기시고 =前明無住所以 (금강삼가 3:40)

... 이엔 經의 勝<sup>하</sup> 아<sup>출</sup> 나토시니 =此顯經勝之所以 (금강삼가 3:2)

이러<sup>하</sup> 아<sup>출</sup> ... =所以然者 (금강삼가 3:34)

이 相을 여히여 發心호<sup>되</sup> 勸<sup>하</sup>산 아<sup>치</sup>니라 =此 1 所以勸離相發心也 1니라 (금강삼가 3:36)

모로매 供養홀 마<sup>스</sup>미론 아<sup>출</sup> 아라사 올라 =須知所以爲供養具<sup>하</sup>야 아 始得다 (금강삼가 3:52)

부터 이리 니르<sup>산</sup> 아<sup>출</sup> ... 상네 잇는 眞心에 맞게 <sup>하</sup>시니라 =佛之所以言此者는 ... 契乎常住眞心也 1시니라 (금강삼가 4:27)

말슴 相이 寂滅커<sup>늘</sup> 오직 모든 凡夫人이 그런 아<sup>출</sup> 아디 몰<sup>하</sup>야 =言詞相이 寂滅커<sup>늘</sup> 但諸凡夫人이 不解其所以<sup>하</sup>야 (금강삼가 5:18)

닷, 탕(탓): 官妓로 怒<sup>하</sup>샤미 官吏의 다<sup>시</sup>언마론 (용 17장)

사르미 眞實로 能히 시름 버므로<sup>되</sup> 다<sup>술</sup> 알며 =人者苟能悟患累之由 (법화 3:141)

가<sup>하</sup> 苟且<sup>하</sup>야 正을 害<sup>하</sup> 타<sup>시</sup>오 野干은 狐疑<sup>하</sup>야 信티 아니<sup>하</sup> 타<sup>시</sup>니 =狗<sup>는</sup> 由苟且害正이오 野干은 由狐疑不信이니(법화 2:164-5)

「탓」으로 쓰인 예는 다른 데는 보이지 않는다.

전츠<sup>(14)</sup>(까닭): 이런 전츠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흠 배 이셔도(훈, 언해 2)

(14) 「전츠」는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

各各 전츠 잇느니=各有以也 (법화 4:3)



因은 그 이리 전츠로 하듯 혼 쓰디라 (석보, 서: 3)

제 보아 아론 전츠로 (석보 9: 31)

迷惑하며 갖마론 전츠를 正히 根源 거더 니르시니라 = 正原迷倒之由

也하시니라 (능엄 2: 20)

分明히 밧글 보더 마로미 업수믈 根 안해 수뎡논 전치이다 = 分明

屬外호되 無障礙者는 潛根內故니라 (능엄 1: 56-7)

☆아오와 누의왜 올 전치 업도다 = 無由弟妹來 (두언 중간 3: 36)

썩름 (따름): 날로 부메 便安키 하고져 흠 썩르미니라 (훈, 언해 3)

어들 니를 썩르미니 (석보 19: 10)

엇메 들로 化홀 썩르미리잇고 = 何直月化리잇고 (능엄 2: 7)

冥諦를 사물 썩르미 아니라 (능엄 2: 25-6)

넉 (넉): 右는 올흔넉기라 (훈, 언해 13)

원넉 피 달 담고 올흔넉 피 달다마 (월석 1: 7)

「원넉, 올흔넉」은 합성어로 보는 것이 좋겠다.

간 (분수): 제 간을 더리 모틀씨 (천강곡 상, 기 40)

썩 (썩): 혼갓 뭐다 흘 썩 하면 (월석 2: 14)

이 비록 等하샤도 잘 드르십 부니오 妙애 다든디 묻하시니 (월석 2: 62)

어디썩 ... 如來 혼 부텃 일흠 念홀 썩네 이런 功德 도흔 利를 애 드리오 (석보 9: 27)

제 몸 닷골 썩 하고 늙 濟渡 묻홀씨 (석보 13: 36)

마장(때까지)<sup>(15)</sup>: 막숨다보물 닐뿔 마장 기지하야 (월석, 서: 20)

舍弗利이 전츠 업시 우셔늘 (석보 6: 35)

이 病은 전치 잇느니라 (두언 중간 19: 31)

그러나 그 예가 드물기 때문에, 우선은 매인이름씨에 넣어 두기로 했다.

(15) 「마장」은 어찌씨에서 온 말이다.

마장 빗어 도호양 하고 (월석 2: 5)

마장 노퍽니 (두언 15: 1)

그러므로 「-마장」이 이끄는 전체구성은 어찌말의 구실을 가진다. 따라서

열히 득웁 마장 조료물 減이라 하고 (월석 1: 47)

만 (만큼; 정도, 한도): 道애 나사갈 만 하라 (능엄 6: 108)

하늘해 날 만 커니와 = 止於生天커니와 (능엄 8: 73)

이 施主 | 衆生의 그에 一切 즐거본 것 布施홀 만 하야도 功德이 그지 업스니 (석보 19: 4)

3. 이상의 예는 모두 풀이씨의 매김꼴이나, 「-의/의」를 가진 임자씨에 연결된 매인이름씨들인데, 이런 말들 가운데는 매김말 노릇을 하는 임자씨에 바로 붙는 것도 있다.

곧: 혼두 곧 아니시니 (용 114장)

이 곧 더 코대 (용 26장)

분: 세 분이 프서리에서 자시고 (월석 8: 93)

혼 부니 天命이실씨 (용 37장)

열여섯 분이 菩提를 일우샤 ... 몬분일후미 智積이러시니 (월석 14: 3, 기 288)

「천강곡」의 부분에서는 「분」이 한자 「分」으로 표기되어 있다.

적: 이 世界 여러번 고타 득외야사 혼 적곰 고타 득월씨 (월석 1: 38)

네 아모 저기 부터 득외리라 (월석 1: 16)

이 저기 (석보, 서: 4)

그 저기 (석보 13: 5)

어느 제 = 何時 (두언 15: 6)

「그 저기, 이 저기, 더 저기」가 「그제, 이제, 더제」로 줄어지면 합성어가 된다.

그제 衆生이 이 말 듣고 (월석 21: 200-1)

여기에 나타난 예만으로 볼것 같으면 이 말은 「어찌말만을 이끄는 매인이름씨」로 보아야 할것 같지만, 뒤에 나오는, 임자씨에 바로 붙은 「마장」이 이끄는 전체구성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므로(→p. 284) 이 유형에 넣는 것이다.



더젓 四衆=彼時에 四衆 (법화 6:88)

이제 와 또 생각하야 (석보 9:16)

양: 이 야호로 (석보 19:28)

닷: 遂는 브틀씨니 아모 다솔브터 이러타 호는 겨치라 (월석. 서:2)

性이 本來 나미 업거늘 識 다스로 얼구리 나 (월석 2:21의 1)

ㅁ장: 그 나랏 ㅁ자은 ㅁ 나 ㅁ티 붉느니라 (월석 1:26)

이 여섯 하느 ㅁ자이 慾心을 묻 여윈 훈 졸비니 (월석 1:32)

無煩天브터 잇 ㅁ장을 不還天이라 호느니 (월석 1:34)

님금 섬기스보물 ㅁ장 흘씨 忠이라 (월석 2:63)

五欲을 ㅁ속 ㅁ장 편 後에사 出家호져 (월석 7:2)

넉<sup>(16)</sup>: 더 ㄴ ㅁ새 (석보 13:4)

세쫓 句는 達磨ㅣ 아홉 히를 브름 ㄴ 도라 줌줌코 안즈실시라 (남명, 하:29)

나는 굴형 南녀기 살오 그디는 굴형 北녀기로다 =我居巷南子巷北 (두언 25:40)

「南녀, 北녀」 따위는 합성어로 보는 것이 좋을듯 하다. 그리고 '두언, 중간'에는 「녀기」로 표기되어 있으니, 이 때에 /ㄴ/으로 변환 모양이다.

그 陽 녀기, 그 陰 녀기 (두언 6:2)

佛像을 훈 녀그로 값도습고 (석보 9:23)

「훈녀」은 /ㄴ/이 겹쳐져 있으므로 그 중의 한 소리가 줄어진다. (동음생략)<sup>(17)</sup>

邊見은 훈녀 ㅁ술 불씨니 (월석 7:45)

주等은 ㅁ틀씨니 훈녀 ㅁ 公事 아니홀씨라 (월석 1:45)

훈녀기 안즈니라 (월석 21:206)

(16) 「녀」은 자립적으로 쓰인 예가 보인다.

方面은 녀기라 호도호 마리라 (석보 19:22)

그러나 이 용법은 「方面」을 풀이하는 말로 쓰인 것이니, 정상적인 말씨는 아니다.

(17) 동음생략에 대해서는;

허 응: <개고신판> 국어음운학 (1965, 정음사) p. 478 이하 참조.

ㅁ름: 오직 烽火入 ㅁ름미로소니 =但烽火 (두언 6:53)

公孫 훈사름 ㅁ름미니 =公孫一人而已 (두언 16:46-7)

또 잇븐 觸 ㅁ름미라 =亦則勞觸而已 (능엄 3:12)

알피 草木 ㅁ름 니르시고 (법화 3:36)

쓰과 夏에 훈 天下 ㅁ름미라 (법화 3:156)

전츠: 여러 緣 전츠로 (법화 2:235)

ㅁ: 衆生을 프성귀 ㅁ 너기느니 (석보 6:28)

燈마다 술위며 ㅁ 크기 호야 (석보 9:32)

보빅을 어더도 부터 向호스바 훈 거름 나소거름 ㅁ 묻호니라 (석보 6:20)

사름이라도 중성 ㅁ 묻호이다 (천강곡 상, 기 143)

머리 반 ㅁ 세니 =髮半華 (두언 25:45)

훈실터럭 ㅁ도 보디 묻호스오나 =不見一絲毫 (금강삼가 4:33)

머릿터럭 ㅁ나나 社稷을 돕스오련마른 =毫髮裨社稷 (두언 6:53)

人生을 잇비 돈노론 다뭇 언마 ㅁ고 =勞生共幾何 (두언 22:26)

터럭금 ㅁ 相 (원각 1-2:161)

터럭 ㅁ 善事 (월석 21:122)

絲毫 ㅁ 念 (금강삼가 2:15)

술윗 바회 ㅁ 靑蓮花 (월석 2:31)

「ㅁ」은 /ㄴ/이 줄어 「ㅁ」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물」(무리)이 사잇 소리를 취하여 「ㅁ」이 되고, 다시 이 말은 「ㅁ」(물)으로 변환 것과 한 가지다.)<sup>(18)</sup>

녀르멘 자ㅁ ㅁ해도 벌에 이실씨 (월석 21:4)

훈 터럭 ㅁ 거시 =一毫許 (금강삼가 4:42)

寸 ㅁ 프리 나디 아니호느니 =寸草不生 (금강삼가 4:42)

이리하여 「ㅁ」이, 「ㅁ」의 줄임으로가 아니라, 바로 「ㅁ」을 대신하는

(18) 이에 대해서는; 앞에 든 책(주 17) pp.488-9 참조. (→p.314)



일도 있다.

阿那律이 舍利를 여덟 金壘에 녀썅불니맛 하더시니 香泥路를 조차 一切人天大衆이 拘尸城 안해 피스바 드리습고 (석보 23:51)

「녀썅불니맛」은 아마 「넣을것 만큼」의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예로써도 알 수 있다.

이 門을 열오저커시든 부텃기 물즈불니만 하니 업스니이다 (월석 23:83)

「물즈불니만」은 「물논것만」의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말의 됃됨이는 「녀썅불니맛」과 꼭 같다.

그리고 다음 예들의 「만, 맛」도 「만큼, 정도, 한도」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열두히 마내 第一夫人이 太子를 나썅불시니 (월석 21:211)

낮 만 뵈그트로 느려오도다 = 亭午下山麓 (두언 25:2)

낮 맛 스시에 바고니를 소드니 = 放篋亭午際 (두언 16:71)

마, 맛감(「-만」과 같은 뜻; 다만 매김꼴이나 매김씨에는 연결되지 않음):

엇메 도죽 만도 존디 못하리오 = 豈不如賊焉 (두언 25:40)

느외야 터럭 만도 업스리라 = 更無毫髮 (능엄 7:53)

하다가 혼 터럭근 매나 이시면 = 若有一毫末 (몽산 12)

하다가 실터럭 매나 브트면 = 若涉絲毫 (남명, 상:29)

如來入 舍利를 供養호디 ... 萬分에 하나히어나 恒河沙分에 하나히어나 제즈딱 맛가미라도 다 기픈 믋스믋로 供養 ... 讚歎하느나와 (석보 23:5)

흔 點을 느리오디 키 微塵 맛감 하고 (월석 14:8)

이 말은 토씨에 매우 가까우나, 「만」과 분명히 같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매인이름씨로 보아 두기로 한다.

썅: 二軍鞭手 썅 깃그니이다 (용 44장)

武功 썅 아니 爲하샤 (용 80장)

하늘 우과 하늘 아래 나 썅 尊호라 (월석 2:38)

實업시 일흠 썅 求홀씨라 (석보 13:35)

엇메 이에 썅 天子! 업스시노 (월석 7:11)

疊을 엇메 세 썅 닐어노 하란디 (석보 19:13)

오냐 부니 아니라 (월석 7:14)

4. 매인이름씨는 원래 그 뜻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임자씨에 바로 붙게 되면, 토씨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된다. 앞에 들어보인 「觸스를」, 헛<sub>ㅁ</sub>장, 프성귀만, 나썅」 따위 예들이 모두 그러한데, 이것들을 토씨로 보지 않은 이유는, 이 말들이 분명한 매김말 노릇을 하는 말<sup>(19)</sup>에 붙는 예가 많을뿐 아니라, 그 뒤에는 여러가지 토씨나 「-이다」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마, 맛감」은 분명한 매김말 노릇을 하는 말에 붙는 예가 보이지 않으나, 「만」과 꼭 같은 뜻이고, 그 꼴도 여기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으로 추측되므로, 「만」과 같이 매인이름씨로 잡았다.

이들 매인이름씨 중, 토씨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마(만), 썅」<sup>(20)</sup>인데, 다음과 같이 쓰인 「썅」만은 토씨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엇메 오직 사호매썅 주거 울리오 = 豈惟干戈哭 (두언 25:3)

그러나 諸法이 다 그런디라 오직 天과 獄과썅 아니언마론 (원각 1-2:43)

처엄 地에 네 보라 썅 니르시고 = 於初地에 獨言汝觀하시고 (능엄 3:96)

## (1-2) 불구적인 매인이름씨

6. 그것이 이끄는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는 하나, 앞뒤에 연결되는 말의 종류가 극히 국한되어 있는 매인이름씨이다.

(19) '분명한 매김말 노릇을 하는 말'이란, 매김씨나, 「-이/의」를 가진 임자씨나, 풀이씨의 매김꼴을 가리킨다. 임자씨만으로도 매김말 노릇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분명한'이란 매김말을 덧붙인 것이다.

(20) 매인이름씨 「만」이 「썅」의 뜻을 침범하면서, 현대말의 토씨 「-만」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ㄷ (것, 줄, 까닭) : 앞에는 「-은」 매김꼴, 뒤에는 「-을」 토씨가 연결되어 전체구성이 부립말(목적어)이 된 것 :

不解甲이 현 나리신 ㄷ 알리 (용 112장)

念覺支는 一切法의 性이 다 ㄷ ㄷ 불씨오 (월석 2:37)

眼入의 妄이 더 ㄷ ㄷ 불기시니라 = 明眼入之妄同彼也 (능엄 3:1)

이 體는 本來 數 업슨 ㄷ 아롭디니라 (석보 19:10)

諸法이 비론 일후민 ㄷ 아는 衆生 爲하야 (월석 8:29)

가히 ㅅ을 너흘면 입시을 하야디는 ㄷ 모르고 (월석 7:18)

如來 | 그 魂慮 | 變하야 전는 ㄷ 아루시고 = 如來 | 知其魂慮 | 變惱하  
ㄷ 하시고 (능엄 2:53-4)<sup>(21)</sup>

앞에는 「-을」 매김꼴, 뒤에는 「-을」 토씨가 연결되어 전체구성이 부립말이 된 것 :

釋迦佛 ㄷ외삼 ㄷ 普光佛이 나르시니이다 (월석 1:3)

고기 밋글 貪하면 제 몸 주글 ㄷ 모르느니이다 (월석 7:18)

「주글 ㄷ」은 「주글 ㄷ」의 변이음을 표기한 것. 이하 이런 예는 모두 한 가지.

상넷 ㅅ드르 헤아리디 ㅅ홀 ㄷ 眞實로 알리로다 = 信知 ... 非常情之所測也 (영가, 하:89)

모로매 그 次第 브툼 ㄷ ㅅ시니라 = 示 ... 必由其序也 (능엄 5:26)

「-을」 토씨를 가지고서 전체구성을 부립말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ㄷ」의 중심적 용법인데, 때로는 토씨 「-은」을 가지는 일도 있다.

내 이 고줄 나소리니 願하 ㄷ 내 生生애 그딧 가시 ㄷ외아지라 (월석 1:11)

世尊하 願하 ㄷ 나르쇼셔 (석보 13:44)

(21) 다음의 「-은들」은 녹아붙은 씨끝이다.

中土心得다 ㅎ들 賢弟를 매 니즈시리 (용 74장)

오라 ㅎ들 오시리잇가 (용 69장)

念하 ㄷ 너는 네몸 珍寶ㄷ외이 호물 니기하라 = 念子熟自珍 (두언 8:53)

브란 ㄷ 上人이 허 偈入 알피 가 저습게 하라 (육조, 상:23)

擘를 자바 ㅅ어 서르 보논 ㄷ 恭敬하야 有別호물 불기개니라 = 執擘하야 以相見은 敬章別也 | 니라 (내훈 1:77)

「願하 ㄷ, 念하 ㄷ, 브란 ㄷ」은 각각 「원하는 것은(원하전댄), 염하는 것은(염하전댄), 바라는 것은(바라전댄)」의 뜻이고, 「보논 ㄷ」은 「보는 것은」의 뜻.

토씨 「-으로」를 가지게 되면 이유를 나타낸다.

엇던 ㄷ로 法이 다 性이 업스노 = 何故로 法俱無性고 (영가, 상:111)

「그런 ㄷ로, 이런 ㄷ로」는 각각 ‘그런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의 뜻인데, 이 말들은 이음씨(접속사)로 굳어진 것으로 봄이 좋을듯 하다.

그런 ㄷ로 仙苑에 告成하샤 = 所以仙苑에 告成하샤 (법화, 서:13)

이런 ㄷ로 내 닐오터 (법화 5:203)

토씨 「-이」와 잡음씨 「-이라」가 연결될 때에는, 「ㄷ」의 /ㄱ/가 줄어들고 「디(~것이), 디라(~것이라)」로 축약된다. 그리고 매김꼴에는 「-오/우-」 형태소<sup>(22)</sup>를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디(라)」는 대개 「-오/우-」를 가진 매김꼴에 붙는다.

土 | 水와 火와를 브터 나논디 子息이 父母入 氣分을 바돔 ㅅ하네  
= 土 | 由水火所生이론디 若子 | 受父母氣하네 (능엄 4:22)

世間業果衆生이 다 妙心엿 影明이론디 거우룻 가온디 머리 ㅅ하네  
= 世間業果衆生이 皆妙心엿 影明이론디 如鏡中頭하네 (능엄 4:61)

그제로 오신디 손지 오라디 ㅅ물거시든 = 爾來未久 (법화 5:119)

(22) 「-오/우-」 형태소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한 설명이 될 것이나(→p.627 이하), 우선 여기 필요한 어형변화만 보이면 ;

ㄴ+오+ㄷ→논 / 이(잡음씨)+오+ㄷ→이론 /

내+오+ㄷ→내을 / 시(높임)+오+ㄷ, ㄷ→샐, 샐 /

그르+오+ㄷ→글을 / 알+오+ㄷ+아를 /

ㅎ+오+ㄷ→홀 / 닛+우+ㄷ→니줄 /

ㅅ+우+ㄷ→뿔







제 허뜨리 잇거든 겹又 중이 드러내에 흘쭙 닐은 自恣라 =自有恣  
失이어든 恣任僧學홀쭙 曰自恣라 (능엄 1:29)

「ㄷ」의 경우와 같이, 「-이」와 「-이다」가 연결될 때는 /ㄹ/는 줄어들  
진다.

ㄴ장 다올썩 究竟이라 (석보 13:41)

耳識이 꼴히야 알썩 닐은 知오 =耳識이 別了홀썩 曰知오 (능엄 3:40)

心言이 자최 그출썩 니르샤디 妙道라 =心言이 絕蹤홀썩 謂之妙道라  
(영가, 하:35)

님금 섬기스보들 헛ㄴ장 홀썩 忠이라 (월석 2:63)

後入 이슈물 受티 아니홀썩 일후미 最後身이라 =不受後有홀썩  
名이 最後身이라 (법화 2:43)

ㄴ외야 다시 滅티 아니홀썩 이 니르샐 常滅이라 =不復更滅홀썩  
是謂常滅이라 (법화 3:158)

앞에 나온 부림말의 「술」과 여기 임자말의 「시」의 용법을 보면, 이 두가지  
어형이 뒤섞여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흘쭙 닐은 自恣라

… 알썩 닐은 知오

이 두가지 어형의 용법을 보면, 「술」이 부림말도 아니오, 「시」가 임자말이  
된 것도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만 하다.

그러나 이것은 말합이(말하는 사람)의 속뜻(주 1 참조)으로는 역시, 두가지  
말의, 뒷말에 대한 관계(기능)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즉  
앞의 말은;

… 흘쭙 닐은 自恣라

와 같은 속뜻으로 파악되고, 뒤의 말은;

… 알썩 닐은 知오

와 같은 속뜻으로 파악되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투(…하는 것을…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당시 두가지의 속뜻이

다 가능했던듯 하여, 다음 말에서는 같은 자리에 이 두가지 말씨가 혼용되어  
있다.

… 가운데 괴외야 이어디 아니홀썩 坐오 … 法의 根源을 알썩 禪이오  
=中寂야 不搖라 謂之坐오 … 徹法根源을 謂之禪이오 (몽산 64)

命終은 목숨 ㄴ출썩라 (석보 6:3)

大集은 키 모들썩니 (석보 6:46)

善은 도홀썩오 逝는 갈썩오 (석보 9:3)

報身은 부테 … 自得히 便安홀썩라 (월석 2:53)

세흔 … 行을 그쳐 일우실썩오 (법화 2:153)

듣좁고져 호몬 慈悲入 ㄴ르치샤물 渴望야 ㄴ라스올썩라 (금강 13)

『다음의 「-르썩언덜」은 「ㄴ+스+이언덜」으로 분석되는 말로서 ‘할것이기  
만 하면’의 뜻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은 이대로 굳어버린 풀이씨의 씨끝으  
로 보는 것이 좋을듯 하다. 매인이름씨의 뜻은 원래 추상적인 것이기 때  
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을썩」 참조)

오직 아바넝 病이 도홀썩시언덜 모들 百千 디워 ㄴ려도 어렵디 아니홀니  
(월석 21:216)

이런 경향은, 「ㄷ」보다 「스」가 더한것 같은데, 그것은 「스」의 앞뒤의 말  
이 더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바): 「-오/우-」를 가진 「-을」 매김꼴에만 연결되며, 뒤에 따르는  
토씨도 극히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토씨를 가진채로 문법적  
인 뜻을 가진 말(문법소)로 굳어지려는 경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如來 그뻬 衆生의 … 精進하며 게을우물 보아 홀대를 조차 爲야  
法을 닐어 (월석 13:50-1)

은 衆들히 根性이 ㄴ디 아니홀썩 부테 各各 홀대를 조차 教化야  
디 (월석 13:51)

부테 各各 이기올뻬 조차샤 化야 =佛各隨其所堪而化之 (법화 3:19)

一切衆生이 내 法 드르리 히미 바돌뻬 조차 여러가짓 싸해 住호디  
=一切衆生 聞我法者 隨力所受 住於諸地 (법화 3:41)



이 衆生들히 … 諸法中에 히미 能히 漸漸 道에 들리니 (월석 13:51-2)

바블 머굼대로 헤여 머굼과 (월석 7:31)

다(바, 데): 이 말은 앞의 「대」보다 그 쓰이는 자리가 더욱 국한되어 있다.

業感호미 이 곧하야 든다마다 億劫을 디내야 나고져 흠 그지 업스니 (월석 21:44)

쳐딘 프리 쳐딘다마다 어러 =滴水滴凍 (금강삼가 4:42)

잣남꼴 採取한다마다 주메 마득기호눗다 =採栢動盈掬 (두언 8:66)

巴州人 사르미 常네 저기 꼴외면 蜀人 使者 | 된다마다 도라가다 못호눗다 =巴人常小梗 蜀使動無還 (두언 11:50)

부터 說法하신다마다 다 能히 놀애로 브르습느니라 (월석 1:15)

동: 아모드라셔 온동 모르더시니 (월석 2:25)

녁시 어느 趣에 간동 몰라이다 (월석 21:27)

天子들히 아못 因緣으로 이 이리 겨신동 몰라하더니 (월석 21:5-6)

이런 예의 「동」은 모두 뒤에 오는 풀이씨 「모르-」의 부림말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는 어찌말의 기능을 부여한다.

☆昭君宅은 잇는동 업슨동 호도다 =昭君宅有無 (두언 중간 2:7)

### (1-3) 수단위 매인이름씨

7. 수를 나타내는, 매김말 노릇을 하는 임자씨 뒤에 연결되어서 수의 단위를 나타내는 매인이름씨이다. (이들 가운데는 자립적인 것도 있으나, 수의 단위를 나타낼 때는 매인이름씨로 다룬다.)

섬: 술 혼 셔물 =酒一斛 (두언 25:4)

말: 서 말 수를 =三斗 (두언 15:40)

되: 닷 뒷 밧를 =五升米 (두언 15:37)

홉: 쌀 두 호브로 베퍼 =以米數合 (내훈 1:72)

자승: 여섯 자히 步 | 오 (월석 1:15)

치, 츠, 킷: 기리 닐굽 친러니 (월석 1:43), 그 소매 거문 벌에 두

서 춘 하니 잇고(석보 24:50), 두서 췌 혀 =數寸之舌 (법화 6:103)

히: 혼 힌 디나거나 (석보 9:18)

들: 석 들 (석보 9:18)

날: 현 나리신들 알리 (용 112장)

리: 시십 릿 싸히니 =二十里地 (박통사 초간, 상:11)

량: 열두 량 =十二兩 (박통사 초간, 상:14)

돈: 혼 량 여덟 돈 =一兩八錢 (박통사 초간, 상:32)

설: 내 난 세 서린제 =我生三歲 (능엄 2:8)

블 (벌, 겹): 御衣 현 블 =御衣若干襲 (상원사 권선문)

부텃기 닐굽 블 버르러 (월석 7:30)

동(동강이): 삼 동 내 버혀 (월석 8:102)

더위(번): 百千 더위 (월석 21:216)

번: 혼 번 드러도 (석보 9:7)

가지: 온 가지 즈문 가지 (월석 7:60)

「온가지」가 「온갓」으로 줄어들면 합성어가 된다. (매김씨)

봄이 오나든 온갓 고지 프며 (남명, 상:63)

그리고 ‘같은것’의 뜻으로 쓰인 「훈가지」도 합성어이다.

乃終 7 소리도 훈가지라 (훈, 언해 12)

사름: 네 사름 (용 58장)

즈르: 혼 즈르 吹毛 =一柄吹毛 (금강삼가 5:32)

파리(수, 울): 썰리 짓는 그른 즈문 마리오 =敏捷詩千首 (두언 21:42)

혼 마리 실 =一縷絲 (금강삼가 3:46)

날: 銀돈 혼 날 (월석 1:9)

세 날 불 (천강곡 상, 기 40)



## (2) 전체구성을 한가지 월성분으로만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

1. 전체구성을 어떤 한가지의 월성분으로만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는, 어찌말 매인이름씨와 위치말 매인이름씨의 두가지로 나뉜다.

### (2-1) 어찌말 매인이름씨

2. 전체구성을 어찌말로만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이다.

자히(채로): 물 톤 자히 건너시니이다 (용 34장)

世尊이 龍王堀애 안존 자히 겨샤더 (월석 7:52)

제 모미 누분 자히서 보더 (석보 9:30)

▽「자히」가 가지로 쓰인 예에 대해서는 → p. 227.

듯(듯): 대개는 「하더」가 다음에 온다.

잇는듯 호더 잇디 아니하며 다운듯 호더 다운디 아니흔 고더내

=似存不存 似盡不盡 (능엄 9:30)

▽「~듯 하(도)다」에 있어서는 「하」가 줄어드는 일이 있다.

시우를 아는듯도다 =知... 絃 (두언 20:6)

여섯 用이 斷滅하듯다 疑心하야 =六用疑若斷滅 (능엄 4:123)

中士는 道 드르면 잇는듯 업슨듯 하고 =若存若亡 (법화 3:147)

이는 서르 섯근듯 疑心 드외도다 =此疑若相雜也 (능엄 2:98)

났듯 호더 못 나미 =若出未出 (능엄 8:41)

指揮 | 定하듯더니 =指揮若定 (두언 6:32)

▽「듯더니」는 「듯 하더니」의 준말.

드시, 드시, 디시: 새려 시름호매 누니 들을드시 바라노라 =新愁眼欲穿 (두언 20:18)

사르디 時急하 저글 도오더 못 미쳐 하드시 하더라 =購人之急 如將不及 (내훈, 2 하:34)

文章이 싸흘 쓰른드시 업도다 =文章掃地無 (두언 24:58)

네 혼 ... 듣고도 못 드른드시 하며 보고도 못 본드시 흘씨오 (월석 10:20)

주근드시 자다가 =尸寢 (두언 22:1)

양지 두리본 일 잇는드시 하야 (월석 13:22)

제 모맷 고기를 바혀 내논드시 너겨하며 (석보 9:12)

左右를 舉薦하샤더 못 미출드시 하샤 =薦達左右 若恐不及 (내훈, 2 상:43)

보시고사 안드시 하시니 (천강곡 상, 기 43)

종이 오논들 알오 幢幡을 내야 드라 僧齋를 하단디시 하니 (월석 23:65, 기 505)

「드시」와 「디시」는 「드시」의 임의변동형인듯 하며, 그리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니다.

### (2-2) 위치말 매인이름씨

3. 전체구성을 위치말로만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이다.

이어긔<sup>(24)</sup>: 원래 장소를 나타내는 자립적인 임자씨(「여기」의 뜻)인데 본래의 뜻이 희박해져서(장소를 나타내지 않기에 이르러서) 허사에 가까워진다.

佛法이샤 내 이어긔도 조고마치 잇다 하야시늘 어니 和尚人 이어긔佛法이잇고 (남명, 상:14)

▽다음 용례는 「여기」의 뜻을 가진 자립임자씨.

如來 長常 이어긔 겨쇼서 (월석 7:49)

더에: 본래 「더어긔」에서 온 말로서 그 본래의 뜻(저기)이 희박해져서 매인이름씨로 쓰인다.

佛禪力의 더에 通力 빌이샤물 困하니 (월석 18:7)

▽이 말도 「저기」의 뜻을 가진 자립임자씨로도 쓰인다.

(24) 「이어긔, 그어긔, 더어긔」는 각각 「이(그, 더)+익+의」로 분석되는데, 「-익(←역(?))」은 원래 장소를 나타내는 매인이름씨였을 것으로 가상된다.



이해 여희여 더해 날씨라 = 離此生彼 (능엄 4:28)

그해 : 「그어귀」에서 온 말로서 원래 자립적 입자씨(「거기」의 뜻)로 쓰이던 것이, 그 뜻이 희박해져서 매인이름씨로 쓰이게 된다.

나라히 늑뎡 그해 가리이다 (월석 2:6)

내 그해 모달언마른 (용 121장)

龍이 그해 이쇼리라 王이 그해 가리라 (월석 7:26)

說法호들 그해 브터 아니하시며 (월석 2:58)

부터와 중팏 그해 布施하며 (석보 13:22)

부테 本來 至極 寂靜한 그해 住하시 (석보 23:44)

▽다음의 예는 「거기」의 뜻을 가진 자립입자씨.

그해 드리터든 우르느니라 (월석 1:29)

그리고 「그해」는 「그어귀」에서 온 말인데, 「그어귀」가 매인이름씨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앞의 「이어귀」는 「이해」로 변화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해」가 매인이름씨로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4. 위의 세가지 매인이름씨 가운데, 「이어귀」와 「더해」는 그 용례가 아주 드물고, 「그해」의 용례는 많이 나타나는데, 후기에 가서는 「그해」 계통의 말만이 매인이름씨로 남게 된다. (25)

거기 : 더러본 거기 微妙한 이틀 나토오미 (석보 13:33)

네 여러 劫에 저프디 아니한 거기 저픈 믅스물 내며 (월석 7:48)

大衆의 거기 늑 위하시 고티내 니르며 (석보 19:8)

儒術이 내 거기 믅슴 도한 이리 이시리오 = 儒術於我何有哉 (두언 15:38)

그릿 거기 불곤 義를 저브료니 = 於公負明義 (두언 7:27-8)

如來入 거기 머리 갖가 (월석 9:35 중)

색론 물 거기 金이 열것는 석시로다 = 快馬金纏轡 (두언 22:36)

▽입자씨에 바로 붙은 것은 토씨에 가까와진다.

(25) 그리하여, 여기에서 현대말의 토씨 「-에게」가 생겨난다. 뒤에 나오는 「계」 참조.

계 : 더우니로 춘 계 섯거 = 以熱涉冷 (능엄 3:12)

저구를 두르혀 큰 계 向하시야 = 廻小向大 (법화 2:46)

한 계도 쏘 그리하시야 = 衆多에도 亦然하시야 (법화 3:41)

세흘 뵈화 한 계 가게 하시야 = 會三歸一 (법화 2:25)

모딘 중성의 계 갖가비 가게 하시며 (월석 21:24)

내 弟子들힐 네 계 付囑하시노라 (월석 21:204)

이 地藏菩薩摩訶薩은 諸菩薩入 계 誓願이 深重하시니 (월석 21:148)

五百釋女] ... 華色比丘尼 계 出家하시야 (월석 10:23)

물 계 두 썰 나고 = 馬生雙角 (남명, 상:67)

「-이/의+계」는 거의 토씨로 된것 같으나, 「춘 계, 한 계」 따위 예로 보면 아직 완전히 토씨로 굳어버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은 「거기」의 뜻을 가진 자립입자씨로도 쓰인다.

此鐵樹國은 ... 성시기 羶率하시니 계 가 몸 나시리라 (월석 2:11)

이 계통의 말(그해, 거기, 계)은 모두 「그어귀」에서 온 것들이다.

그어귀 { 그해  
거기 - 계

같은 계통으로 「-씩」(←-기)가 있는데, 이 말은 높임의 뜻을 가지며, 풀이씨의 매김풀이나, 「-이/의」 토씨를 가진 매김말에 연결되는 일이 없으므로, 이것만은 토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표기법으로 보면, 매인이름씨로서의 성격이 아직 강하게 느껴진다.)

嫡子入기 無禮호씨 (용 98장)

世尊入기 請하소보디 (월석 7:48-9)

손디 : 풀이씨의 매김말에 연결되는 예는 없는듯 하다. 따라서 토씨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된다.

金色光을 펴샤 그 사르미 손디 오샤 (월석 8:55)

스츠로 두 소닐 티야 와 長者] 손디 일어늘 (월석 8:98)

네 손디 五百 銀도느로 다숫 줄깃 蓮花를 사아 (석보 6:8)

學無學은 ... 無學 손디 비호는 사르미라 (석보 13:3)



5. 이상 설명한 매인이름씨를 총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함.

(1-1) 여러가지 매김말, 여러가지 토씨와의 연결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

바, 것, 이, 줄, 덕/되, 곧, 딸, 분, 적, 양, 젓, 앓, 닳/타, 전초, 썩롬, 녀, 간, 뽀, ㅁ장, 만 (마, 맛감)

(1-2) 앞뒤에 연결되는 말이 극히 국한되는 것.

ㄷ, 디, 스, 대, 다, 동, 더

(1-3) 수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

섬, 말, 되, 흙, 자궁, 치/츠/취, 히, 둘, 날, 리, 땅, 돈, 설, 불, 동, 디워, 번, 가지, 사롬, 즈르, 마리, 날 ... 등.

(2) 전체구성을 어떤 한가지 월성분으로만 기능하게 함.

(2-1) 어찌말로만.

자히, 돛, ㄷ시/드시/디시.

(2-2) 위치말로만.

이어기, 그베, 더베, 거기, 게, 손터

4) 임자씨의 형태음소적 변동

1. 어떠한 형태소이건 그 놓이는 자리(환경)에 따라 그 끝이 바뀌는 일이 있다.

이미 조어론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ㅁ룩+비」가 「ㅁ룩비」로, 「풍류+바지」가 「풍류바지」로 바뀐 것은 한 음소가 앞뒤 소리에 동화되어서 다른 소리로 바뀐 예이고, 「흔+녀」이 「흔녀」으로, 「열+나몬」이 「여나몬」, 「스물+나몬」이 「스므나몬」, 「마순+나몬」이 「마스나몬」으로 바뀐 것이나, 「들+그물」이 「들으물」로 바뀐 따위는 한 소리가 줄어진 예이

다. 또 「여름+아홉」이 「연아홉」으로, 「여섯+닐곱」이 「여닐곱」으로 바뀐 것은 앞 말의 한 음절이 줄어져 버린 예이다.

2. 형태소의 끝바꿈은 조어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한 말 (한 형태소, 또는 여러 형태소의 결합)이 월성분으로 기능할 때, 그것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도 형태소의 끝이 바뀌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조어론의 경우도 포함하여), 형태소의 끝바꿈을 「형태음소적 변동」이라 한다. (→ p.33 이하)

3. 이러한 끝바꿈(변동)은 현대 맞춤법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고, 그 중의 기본형태를 고정시키게 되어 있으나, <sup>(26)</sup> 이러한 맞춤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체로 소리 나는대로 적도록 되어 있는 15세기 문헌에 있어서는, 이러한 끝바꿈이 잘 반영되어 있으므로, <sup>(27)</sup> 여기에서는 조어법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임자씨가 월성분으로 기능할 때에 일어나는 끝바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4. 한 형태소의 형태음소적 변동이 음성적, 형태적 두가지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데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이나(→ p.34), 변동이 일반적인 성격을 띠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으로 나뉜다. 즉 어떠한 변동 양식이 국한된 형태소에 한해서 일어날 때는 「개별적 변동」이 되고, 그것이 같은 조건하에 있는 모든 형태소에 적용될 때는 「보편적 변동」이 된다.

5. 현대국어에 있어서 콧소리 앞의 /ㄱ/이 /ㅇ/으로 바뀌는 것은, 어

(26) 「있」은 「있이」에 있어서는 /ㅍ/ 소리가 그대로 나지마는, 「있파」에 있어서는 /ㅍ/은 /ㅂ/으로 바뀐다. 그러나 현대 맞춤법에 있어서는 /ㅂ/으로의 변동은 반영되지 않는다.

(27) 「밭」의 /ㅌ/이 때에 따라 /ㄷ/으로 변동하는 것은 예나 이제나 한가지인데, 이 경우, 현대 맞춤법에서는 /ㄷ/으로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으나, 옛 글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대로 표기법에 반영된다.

콩바티 (두언 15:5)

붉 받 두들근 (두언 15:5)

그러나 이러한 변동에 대한 표기는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p.69 이하 참조.



떠한 형태소에 있어서도 한가지이므로, 이것은 보편적 변동이고, 입자 지리 토씨의 「-이/가」의 변동은 이 형태소에 국한된 변동 양식이기 때문에 개별적 변동에 속한다. 그러나 개별적 변동은 반드시 한 형태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일반성을 띠지 않으면 모두 개별적 변동에 넣게 된다.

6. 입자씨의 끝바꿈은 대부분 그 끝소리에서 일어나는데<sup>(28)</sup> 첫소리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1) 끝음소 변동

1. 입자씨의 끝에서 일어나는 소리 변동에는,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것과, 소리가 아주 줄어드는 것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 (1-1) 바뀔

2. 15세기 국어에 있어서는, 종성으로서 / ㄱ, ㄷ, ㄱ, ㄴ, ㄷ, ㄴ, ㄷ, ㄴ /의 여덟 닿소리 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입자씨 기본형태의 끝닿소리가 이 여덟 닿소리 중에 들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종성 자리에 놓이게 될 때<sup>(29)</sup>는, 입자씨 기본형태의 끝닿소리는, 이 여덟 종성

(28) 여기에서는 옛문헌 표기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지 않는 닿소리이어바뀔(작음접변)은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것은 지금 말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으리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주27’의 「받」은 「받」의 /ㅍ/이 /ㅍ/으로 변동한 것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으나,

호 받 넘자히 (월석 2:12)

의 「받」은 /ㅍ/이 /ㅍ/ 때문에 변동한 것을 표기에 반영시키지는 않았다.

(29) 여기에서 말하는 종성(終聲)이란, 표기법의 「받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소리로서의 음절의 끝닿소리를 가리킨다. 「사람과, 사람#(＃는 휴식을 표기함)」의 /ㅍ/은 받침인 동시에 종성이지만, 「사람이」의 /ㅍ/은 받침이기는 하나 종성은 아니다. (발음으로는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난다.)

그러므로 ‘입자씨의 끝닿소리가 종성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이 말 뒤에 닿소리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휴식」(pause)이 올 때를 말하는 것이다.

중의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보편적, 음성적)

(가) / ㅈ, ㅊ, ㅌ / → / ㅈ /

3. 'ㅈ, ㅊ, ㅌ'은 같은 잇소리(齒音)인 /ㅈ/으로 바뀐다.

꽃 → ㅈ : ㅈ 꽃 고지 = 秋花 (두언 15:5), ㅈ 고지 = 飛花 (두언 15:33)

/ ㅈ과 (월석 2:27), ㅈ 잇는 (월석 1:9).

「ㅈ 잇는」의 「ㅈ」 다음에는 휴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용가’나 ‘천강곡’에 있어서는 기본형태가 고정적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 p.69 이하)

빛꽃爲梨花 (훈, 종성해)

꽃 도쿄 (용 2장)

다섯 ㅈ 두 고지 (월석 1:4, 기 7)

낮 → ㅈ : 나지 도드니 (용 101장), 밤나줄 (석보 9:32) / 밤 나 닐웨틀 (석보 9:22), 나 ㅈ티 (월석 1:26).

▽천강곡에서는 「ㅈ」이 고정된다.

밤과 나과 (월석 2:24, 기 16)

젓 → ㅈ : 젓는 저지라 (월석 21:2), 췌저즈로 (능엄 3:26) / 젓 머 췌 제어나 (월석 21:162)

이웃 → ㅈ : 이우지 엽도다 = 無隣 (두언 6:31), 이우제 거로니 = 步隣里 (두언 15:5) / 이우 나라 (월석 2:66)

외얏 → ㅈ : 仙間人 외야지 서린 불휘 = 仙李盤根 (두언 6:27) / 외얏 존호더 외얏 아닌 거시라 (남명, 상:26)

웃깃 → ㅈ : 웃은 웃기지오 (법화 1:31), 웃기제 젓는 피 = 靄襟血 (두언 8:28) / 웃기 녀미오 = 歛粧 (두언 8:19-20)

늑 → ㅈ : 늑호니 늑치 (용 40장), 늑근 늑치란 = 衰顏 (두언 21:5) / 늑비치 (석보 19:7)

▽뒤에 홀소리가 오면, 「ㅈ」은 「ㅈ」으로 적히는 일도 있는데, 발음이 /ㅈ/

받침과 종성은, 이 책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데, 표음적인 표기법에 있어서는 양자는 일치한다.



이었던지는 아직 고증을 요한다.

ㄴ 양지 (능엄 2:6)

ㄴ 양주는 (능엄 2:5)

빛 → 빗 : 븨비초로 (석보 9:4), 븨비체 (두언 15:17) / 빗과 (월석 2:15)

갓 → 갓 : 鹿皮는 사스미 가치라(월석 1:16), 거믄 가초로 밍 ㄱ론 几 = 烏皮几 (두언 15:4) / 剥皮는 갓 밧길씨라 (월석 21:77), 갓과 솔 패 = 皮肉 (두언 25:26)

낫 → 낫 : 還丹 혼 나치 = 還丹一粒 (금강삼가 4:56), 즘은 나출 = 千竿 (두언 6:45) / 다숫 낫 복성남기 = 五株桃樹 (두언 15:22), 숨튼 거 시 혼 낫도 업서 (월석 1:48)

ㄴ뫼 → ㄴ뫼 : 藥入 ㄴ뫼출 = 藥囊 (두언 7:6), 五色 ㄴ뫼채 (석보 9:21) / ㄴ뫼 소매 = 囊中 (능엄 9:108), ㄴ뫼 밍 ㄱ라 (월석 9:39)

빳 → 빳 : ㄴ는 비출 = 飛楫 (두언 20:11), 우는 비치 = 鳴橈 (두언 8:60) / 비와 빳과 = 舟楫 (영가, 하:22), 비 빳 업듯하니 (월석 17:42)

숫 → 숫 : 그흔 스치 = 間斷 (남명, 상:13) / 그츄 숫 업스니 (월석 7:58), 그츄 숫 업시 흠디니 = 無間斷 (능엄 7:23)

ㅈ → ㅈ : 西水入 ㅈ시 (용 6장), 眞 ㅈ새 (용 58장), 白帝入 ㅈ시로다 = 白帝邊 (두언 20:1) / 邪見하릴 맛나돈 ㅈ 싸해 受生報를 닐어 (월석 21:67), 眞ㅈ 나모 = 汀樹 (두언 6:29), 無邊은 ㅈ 업슬씨라 (월석 8:39)

ㅈㅈ 업-」은 「ㅈ」 다음에 휴식이 있었을 터이니, 그로 말미암아 /ㅈ/이 음절 끝소리가 되어 /ㅈ/으로 변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말은 거의 합성어로서 「ㅈ」과 「ㅈ-」 사이에 휴식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리라 추측되는데, 그러므로 /ㅈ/은 홀소리 사이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虛空이 ㅈ업서 (금강 27)

功德이 ㅈ업스리이다 (월석 7:60, 기 210)

卜年이 ㅈ업스지니 (용 125장)

그리고 ‘천강곡’과 ‘용가’의 표기는 기본형태를 고수하려는 의도도 작용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다음 예는 전적으로 그런 이유에 기인한다.

ㅈ ㄹ ㅈ 아니 말이샤 (용 68장)

중 → 좇 : 그 즈시 一萬 가지라 (월석 21:24), 鶴이 즈세 = 鶴態 (금강삼가 3:35) / ☆좇모 = 貌 (자회, 상:24)

ㅈ ‘천강곡’에서는 「ㅈ」을 받침으로 한 표기가 보이나, 이것은 표의적 표기법으로 향하려는 의도에서 온 것이며, 그 발음은 역시 다음 음절의 초성이었다.

글업슨 좇을 지샤 (월석 7:22, 기 189)

梵志 좇을 보샤 (천강곡 상, 기 129)

4. 위의 세가지의 변동 중, /ㅈ, ㅈ/ 쪽을 기본형태로 보고, 그것이 /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나, /ㅈ/ 쪽을 기본형태로 삼은 데는 아마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기의 모든 예(다음의 /ㅈ, ㅈ/ 따위를 포함해서)들은 끝닿소리가 홀소리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따라서,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되어 있을 때)에 실현되는 것을 기본형태로 삼고 있으므로, /ㅈ/의 경우도 이에 발맞추어 /ㅈ/ 쪽을 기본형태로 보는 것이 좋다.

둘째, 「ㅈ→ㅈ」의 변동은 보편적이거나, 「ㅈ→ㅈ」의 변동은 개별적이다. 즉, 입자씨 끝의 「ㅈ」쪽을 기본형태로 잡으면, 이 변동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제히 일어나는 보편적인 변동으로 설명되나, 「ㅈ」쪽을 기본형태로 잡으면, 이 변동은 개별적이 된다. (모든 ㅈ받침은 홀소리 사이에서 죄다 ㅈ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그런데 설명의 편의로 보면 보편적인 편을 취하는 것이 좋다. (설명이 간단하게 된다.)

(나) /ㅈ/→/ㅈ/

5. /ㅈ/은 같은 혀끝소리(舌音)인 /ㅈ/으로 바뀐다.

밭 → 밭 : 바톨 눈홀씨 (석보 9:19) / 바밭 두들근 = 春畦(두언 15:6).



훈 받 님자히 (월석 2:12) (주 28 참조)  
 글 → 근: 末은 그티라 (월석 2:21의 1), 수풀 그테 = 林梢(두언 6:42)  
 / 本末은 민과 글괘니 (석보 13:41)  
 밀 → 민: 山 미트 (용 58장), 몹 미트로 (월석 2:19) / 밀퍼기 = 本  
 叢(두언 6:53), 민나라해 도라와 (월석 7:65)  
 결 → 결: 물 겨티 (용 44장) / 얹과 결과를 보고 (석보 19:10)  
 솥 → 솥: 소티 녀허 = 入鼎(두언 16:64) / ☆솥 덩 = 鼎(자화, 중:10)  
 별 → 별: 더본 벼티 (월석 2:51) / ☆별 양 = 陽(자화, 상:1)  
 물 → 물: 무티 올라 (월석 8:101) / 물와 물과로 = 水陸(두언 25:4)  
 돌 → 돌: 두 도티 (용 43장) / 몹돌 類 = 雞狹類(능엄 8:122)  
 살 → 산: 녀름 사티 = 夏簾(두언 20:22) / ☆산덤 = 簾(자화, 중:11)  
 날 → 날: 大箭 훈 나태 (용 47장) / 銀돈 훈 날곰 (월석 1:9)

▽‘천강곡’에서는 「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 날 불(천강곡 상, 기 40)

훈 날 머리 터러글(천강곡 상, 기 91)

(다) /(<ㄹ>ㅍ) /→(<ㄹ>ㅂ)/

6. /ㅍ/은 같은 입술소리(唇音)인 /ㅂ/ 으로 바뀐다. 따라서 /ㅍ/은 /ㅂ/으로 바뀐다.

닐 → 님: 머꺄 니페 = 桐葉(두언 15:12) / 가지와 닐괘 (석보 13:47)

▽‘용가’에는 「포」를 그대로 유지한 예가 나타난다.

새 닐 나니이다(용 84장)

딜 → 딘: ☆디플 = 草(박동사 초간, 상:22) / 禾는 딜 조춘 穀食이라(법  
 화 1:13)

▽‘천강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성어에 「포」를 그대로 유지한 예가 나타  
 난다.

딜동을 트샤(월석 8:85, 기 239)

<비교> 딜동(월석 8:99)

무릍 → 무릅: 무루피며 바리며 (월석 9:36상) / 올훈 무릅 꾸러 (석  
 보 9:29)

븍 → 북: 하<sup>ㅅ</sup> 부피 절로 울며 (월석 7:37), 鼓는 부피라 (석보 13:  
 21) / 불 곧거든 (월석 8:6), 불 티니(두언 20:15-6)

잎 → 입: 寢室 이페 (용 7장), 北<sup>ㅅ</sup> 이플 여노라 = 北戶開(두언 8:40)  
 / 입과 窓 = 戶牖(능엄 2:28)

얹 → 얹: 英主△ 알핀 (용 16장), 알뿔 塵 (월석 2:21의 2) / 얹境  
 (월석 2:22의 1), 얹과 결 (석보 19:10)

「ㅍ」을 고정시킨 표기 예(합성어에서):

얹뿔 (천강곡 상, 기 70), 부<sup>ㅅ</sup> 얹셔시니(월석 10:3, 기 266)

<비교> 부<sup>ㅅ</sup> 얹셔 길자바(월석 10:13)

그리고 /ㅍ/, /ㄷ/, /ㅌ/과 같은 겹종성은 한소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7. /ㅌ, ㅌ, ㅍ/을 각각 /ㅌ, ㅌ, ㅂ/과 /ㅎ/과의 두 음소의 결합으  
 로 보면, 이러한 변동은 한 소리가 줄어진 것으로 설명되겠으나, 여기  
 에서는 그런 설명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ㅌ, ㅌ, ㅍ/을 단순  
 한 한 음소로 보기 때문이다.<sup>(30)</sup>

## (1-2) 줄임

8. 이 경우에는, (가) 끝닿소리가 주는 것, (나) 끝홀소리가 주는 것,  
 (다) 끝홀소리가 줄면서 /ㄱ/이 덧나는 것, (라) 썸씨가 매김말로 쓰일  
 때에 그 끝소리가 주는 것의 네가지가 있다.

### (가) 끝닿소리 줄임

#### (가-1) /ㅌ, ㅌ, ㅍ/의 끝소리 줄임

9. 기본형태의 끝닿소리가 /ㅌ/, /ㅌ/, /ㅍ/과 같은, /ㅌ/을 포함한  
 겹소리로 되어 있는 말에 있어서는, 이 뒤에 휴식이 오거나 닿소리로 시  
 작되는 토씨가 오면, 겹닿소리 중 뒤의 것이 줄어진다. 이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 두 닿소리가 다 총성으로 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말에서는 이

(30) 이에 대해서는;

허 용: <개고신판> 국어음운학 (1965, 정음사) pp. 167-9.



러한 겹닿소리는 중성으로 겹쳐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음성적)

밖 → 밧 : 城 밧기 (용 69장), 내 옷 밧근 = 衣裳外(두언 15:3) / 城

밧 甘蔗園 (월석 1:6), ☆ 밧표 = 表(자회, 상:35)

안팠 → 안팠 : 안팠기 비취니 (월석 7:20), 안팠기 잇는 피(석보 19:

13) / 안팠 動作 = 內外動作(금강 1)

돛 → 돛 : 돛은 돛기라 (능엄 1:29), 돛줄 여러서 = 開筵(두언 15:38)

/ 혼 돛 마리 아니시니 = 非一席說(법화 3:142), ☆ 돛연 = 筵, 돛색

= 席(자회, 중:11)

빛돛 → 빛돛 : 빛돛줄 더여 = 落帆(두언 20:12), 가는 빛돛긴 = 去帆

(두언 20:48) / 어즈러운 빛돛 亂帆秋(두언 7:20), ☆

빛돛범 = 帆(자회, 중:25)

숯 → 숯 : 炭은 숯기라 (월석 23:92), 수끼 ㄷ외오 = 爲 …炭(능엄 8:

97) / 숯爲炭 (훈, 용자해), 나모 스라 숯 ㄷ외요미 큰고 (월석 14

:67)

붓 → \*붓 : 釋種은 어딘 붓기라 ㅎ는 마리라 (월석 2:7)

▽「붓」의 용례는 보이지 않으나, 이렇게 변동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섧 → 섧 : 섧슬 치자브시니 (용 58장), 물섧슬 ㄴ즈기ㅎ며 = 齊轡(두언

20:17) / 물섧 잡고 = 韁馬(두언 8:27), ☆ 섧비 = 轡(자회, 중:27)

▽다음의 「섧」도 역시 한가지였으리라 추측된다.

훈 남진 훈 겨지븐 庶人之 ㅅ시라 = 一夫一婦庶人之職也(내훈 1:79-80)

낫 → 낫 : 고기 낫줄 낫술 밍 ㄴ다 = 作鈎鈎(두언 7:4), 낫술 놀라

= 驚鈎(영가, 하:77) / 낫爲鈎 (훈, 합자해), ☆ 낫구 = 鈎(자회, 중:15)

▽「조세」의 뜻으로 쓰인 「낫」도 한가지다.

그제사 낫 바도물 ㅎ니(월석 1:46)

넛 → 넛 : 精靈은 넛시라 (몽산 11) / ☆ 넛혼 = 魂, 넛빅 = 魄(자회, 중

:35), 넛 일허 = 褊魄(능엄 10:74)

값 → 갑 : 그 罪業의 갑스로 (월석 2:63) / 내 값과 내 일홈과 (월석

98:4), 賈는…값 기드리느니니 (법화 2:187), 값업슨 쯔 (월석 17:

30), 값업슨 寶珠 = 無價寶珠(법화 4:38)

10. 위의 「ㄱ」이나 「ㄴ」과 같이, 「ㅅ」이 겹닿소리의 뒤에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ㅅ/이 없어졌으리라 추측되는 자리에서도 표기상 /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예(낫, 넛, 값)가 많은데, 앞의 「섧」의 경우를 미루어 보면, 이 말들도 역시 「낙, 녀, 갑」으로 변동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낫주를」(두언 6:31, 20:27), 「낫바를」(두언 16:19), 「낫밥」(자회, 중:20), 「낫대」(금강삼가 4:2, 두언 21:17, 두언 22:12)와 같은 합성어에서도 「ㄱ」 받침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ㅅ」은 혹시 [s]로 발음되었던 것이나 아닐까, 회의를 남겨 둘만도 하다.

#### (가-2) /ㅎ/ 줄임

11. 15세기 옛말에 있어서는 /ㅎ/으로 끝나는 입자씨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sup>(31)</sup> 끝 /ㅎ/은, 뒤에 홀소리로 시작되는 토씨가 오거나, /ㅎ/과 합해져서 거센소리로 될 수 있는 여린소리 /ㄱ, ㄷ/으로 시작되는 토씨가 올 때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줄어진다. (보편적, 음성적)

갈ㅎ(갈) : 갈히 (용 36장), 갈해 (용 22장), 갈홀 (두언 6:25) / 불와

갈과 (월석 9:43) / 갈爲刀 (훈, 합자해), 갈 쓰기 (두언 7:15)

▽이 말은 일찍부터 /ㅎ/이 없어진 어형도 보인다.

갈와 도쇠(남명, 상:40)

갈와 鎖 = 枷鎖(능엄 6:28)

고ㅎ(코) : 鼻는 고히라 (석보 19:9), 고히 (월석 1:32), 고히 (두언

(31) 현대말에 있어서는 /ㅎ/ 끝소리를 가진 입자씨는 「히읇」 하나뿐인데, 이것도 최근에 와서 새로 만든 말이다. 그러므로 이 끝 /ㅎ/ 소리는 대개는 내지 않고, ㅅ과 같이 내는 것이 보통이다.

히읇이, 히읇을 → 히으지, 히으슬

히읇과, 히읇도 → 히읇과, 히읇도

그리고 이러한 입자씨를 표기함에 있어서는 「갈ㅎ, 내ㅎ」와 같이 ㅎ을 받침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ㅎ이 중성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도 새 활자 만드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다.



16:20) / 고과 허 (석보 13:38) / ☆고비 =鼻(자희, 상:26)  
 길ㅎ: 여섯 길해 =六道(월석, 서:4), 길히 (용 19장), 길홀 (두언 15:7) / 工曹아 몇달 길코 =工曹幾月程(두언 23:40), 빈 뒷 길과  
 섭나모 門 =空山道柴門(두언 8:46) / 길 ㅅ새 (용 58장), 길 버 서  
 (용 36장), 길 우희 (용 30장)

▽이 말도 /ㅎ/이 없어진 꼴이 일찍부터 나타난다.  
 이 길로(남명, 상:28), 길로(두언 22:30)  
 나조ㅎ(저녁): 오늘 나조홀 =今夕(두언 11:39), 나조히 (월석 1:45),  
나조홀 (능엄 2:5) / 엇던 나조코 =何夕(두언 11:39)

▽「나조히」는 일찍부터 「나죄」로 축약된다.  
 孔聖이 나죄 주구를 들히 너기니(월석 18:32)  
나죄 먹논 거시=暮食(두언 25:37)  
 그리하여 이 위치말의 어형은 이대로 임자씨로 굳어버린다.  
나죄 밥 먹고=晩飯(두언 15:7)  
나죄 이스른=夕露(두언 15:4)  
 ☆나조식=夕(자희, 상:2), ☆나죄포=晡(자희, 하:2)

내ㅎ: 내히 이리 =爲川(용 2장), 내홀 (두언 6:36), 내해서(두언 7:16-7) / 내과 두들과 =川原(두언 6:18), 기픈뎡 내토 =幽澗 (영가, 하:77) / ☆내천 =川(자희, 상:4), 넷 물 (두언 15:40)

싸ㅎ(땅): 싸히 (월석 1:16), 싸홀 (월석 1:8), 싸호로 (월석 1:23)  
 / 하늘과 싸과 =乾坤(두언 20:14) / 싸爲地 (훈, 합자해), 도홀 싸  
 머즌 싸해 (석보 19:23)

돌ㅎ(돌): 돌호로 (석보 19:31), 돌히 (두언 6:51), 돌홀, 돌해서  
 (월석 1:27) / 홀과 돌과 (월석 2:28) / 돌爲石 (훈, 합자해), 磨  
 礱은 돌 ㅅ다드물씨라 (월석, 서:21)

뒤ㅎ(뒤, 북): 뒤해 (용 28장), 뒤홀 (석보 19:10) / 뒷 뒤과 (두언 7:16) / 뒷 수프리 =北林(두언 6:50), ☆뒤후 =後(자희, 하:34),  
뒤북 =北(자희, 중:4)

뒷ㅎ(산): 뒷히며 (석보 7:17), 뒷해 (두언 15:6), 뒷호로 (두언 15:4)

/ 뒷과 (두언 15:3), 뒷과 돌과 (월석 7:38) / 뒷爲山 (훈, 용자해)  
 하늘ㅎ(하늘): 하늘히 (용 8장), 하늘해 (월석 1:14), 하늘해도 (월석 1:25) / 하늘과 (월석 1:14) / 하늘 ㅅ들 (용 86장), 하늘 우희  
 (용 83장), 하늘 제우니 (용 90장)

▽/ㅎ/이 없어진 어형이 많이 나타난다.

하늘로써(월석 1:26), 하늘래(월석 1:31), 하늘롤(석보 9:25), 하  
늘리라(월석 1:19, 능엄 2:33), 하늘리(몽산 40)

12. 그밖에 「ㅎ」을 줄인 꼴로 보임);  
 갈(형구의 갈), 겨술(겨울), 그르(그루), 곧고(곧코?), 긴(끈), ㅅ늘(그  
 늘), ㅅ술(가을), ㅅ울(고을), 나(나이), 나라, 네(넷), 노, 니마(이마),  
 님자(임자), ㄴ물(나물), ㄴ(칼날; ‘씨날’의 날), 더(악기의 저), 돌(정점다  
 리, 발담), ㄷ, 드르(들), ㅼ(뜰), ㅼ(근원), 마(먹는 마), 말(말뚝), 모, 모  
 야(모양), 밀(곡식의 밀), ㅼ술(마을), ㅼ(들), 바다, 보(들보), 보(보자기),  
 ㅼ(팔), ㅼ술(배알), 세(셋), 셔울, 쇼(속인), 소(거푸집), 소(물 고인 소),  
 수(암수의 수), 수(숲), ㅼ(들), 스쿨(시골), 스물, 시내, 술(살), 쇼  
 (요), 안, 안뜰(안뜰), 알, 암(암수의 암), 언(언덕, 독), 여러, 열(수의  
 열), 열(삼), 울(금년), 우(위), 울(울타리), 움(움집), 위안(동산), 자,  
 조, 즈름길, 출(근원), 터, ㅎ나, [-들(-들)]

들이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데,<sup>(32)</sup> 이러한 예로 보면, /ㅎ/ 앞의 소리는 대부분 홀소리이거나 /ㄹ/이다.

13. 여기에서는 이 /ㅎ/을, 그 앞 임자씨의 끝소리로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다.

하나, /ㅎ/을 뒤에 오는 토씨의 한 부분으로 보고서 「ㅎ 토씨」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즉 「-이, -을, -은, -과, -도」와 같은 토씨는 특별한 임자씨(위에 들어 보인 것) 밑에서는 각각 「-히, -홀, -흔, -과,

(32) 허 용: <주해> 용비어천가(정음사, 1955) p. 27 이하 참조.



-토]로 바뀐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러한 입자씨를 「ㅎ 토」를 취하는 특별한 입자씨'라 불러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ㅎ/을 앞뒤 어느 형태소에도 붙이지 않고 따로 떼어진 한 소리로 보는 방법이다.

14.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설명방법을 취하지 않고, /ㅎ/을 앞 입자씨의 한 부분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ㅎ/을 따로 분리하는 방법은 취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한 형태소로 보아야 할 터인데, 이 /ㅎ/은 한 형태소로 분리될만 한 뜻의 뒷받침을 가지지 못했다.

둘째, 그러므로 이 /ㅎ/은 앞 형태소의 한 부분으로 보든지, 뒤 형태소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데, 뒤 형태소(토씨)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언어의 공시적 기술을 복잡하게 한다. 즉 토씨를 두 가지로 나누어, 어떤 입자씨에는 한 종류의 토씨가 붙고, 어떤 입자씨에는 다른 종류의 토씨가 붙는다는 식으로, 말본의 규칙이 두 갈래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본 기술은 되도록이면 단순한 것이 낫다는 간결의 원리에 어긋난다. (/ㅎ/을 입자씨의 끝소리로 볼 때는, 토씨에서 이러한 두갈래 설명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 풀이씨의 「도ㅎ니, 도하, 도쿄, 도티」(「낳다, 념다, 놓다」 따위도 모두 한가지)도 꼭 입자씨의 경우와 비슷한데, 우리는 이것을 분석할 때, /ㅎ/을 아무 형태소에도 붙지 않으면서 그 자체로서 한 형태소가 되지도 못하는 '떠있는 소리'로 보지도 않고, 「ㅎ 씨끝」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씨끝을 두 갈래로 보아, 말본 설명을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자씨의 경우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말본의 공시적 입장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ㄷㅁㅎ-ㅏ, ㄷㅁㅎ-ㅓ, ㄷㅁㅎ-ㅕ, ㄷㅁㅎ-ㅗ  
로 분석하듯이,

ㅏㅣㄷㅎ-, ㅓㅣㄷㅎ-ㅓ, ㅕㅣㄷㅎ-ㅕ, ㅗㅣㄷㅎ-ㅗ

로 분석해야 말본의 설명이 간결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다.

네째, 합성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풀이씨와 입자씨는 비슷한 데가 있다. 즉 「동-」와 「긋-」이 합성되면 「도긋-」이 된다는 것은 조어법에서 설명한 바인데, 이와 꼭 같은 현상이, 「안」과 「빳」, 「수」와 「디새」, 「암」과 「툼」 사이에도 나타나서, 이 말들은 각각 「안빳」, 「수디새」, 「암툼」이 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도 입자씨에 나타나는 /ㅎ/은, 풀이씨의 경우와 같이, 뒷말의 끝소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키아, 암키아; 수캐, 암캐; 수탐, 암탐; 살코기, 안틀다」 따위 현대말의 합성어의 소리 변동은 모두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써 해명되는 것이다. (33)

### (가-3) 사잇소리 앞 닿소리 줄임

15. 입자씨가 사잇소리를 가지고 매김말로 기능할 때에, 그 사잇소리로 말미암아 입자씨의 끝닿소리가 줄어드는 일이 있다. 이 현상은 공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나, 적이 역사성(통시성)을 띠기도 한다. 즉 끝닿소리 준 풀이 약간 뒤 시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일이 많다. (34) (개별적, 음성적) 이 현상은 필연적인 변동규칙으로 성립되지는 않고,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바름 → 바룻 : 바름 물 (월석 1:11), 바름 구름 ㄱㅅ = 海雲邊(두언 21:42) / 바룻 가운데 = 海中(능엄 2:84), 바룻 물 (두언 20:15), 바룻 ㄱㅅ = 海畔(두언 8:37)

섣 → 섯 (35) : 섣 날 (두언 20:17) / 섯 巴江入 구비예 = 臘月巴江曲

(33) 이에 대해서는;

허 용: 언어학 개론(1963, 정음사) p. 40. 참조.

(34)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국어 음운학」 pp. 488-9에서는 이 현상을 통시적인 것으로 다루었으나, 완전히 공시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두 어형이 나타나는 문헌의 시대적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시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35) 「섯」은 현대말에서는 「섣」의 /ㄷ/이 /ㄷ/으로 바뀐 것



(두언 18:5)

물 → 뭇<sup>(35)</sup>: 물 小人 = 群小(두언 6:37-8), ☆물 盜賊 = 群盜(두언 중  
간 4:36) / ☆뭇 뒤편리 = 群峰(두언 중간 13:4)

물 → 뭇: 물 마시로다 = 水邊(두언 21:27), 물결<sup>(36)</sup> (석보 13:9) /  
☆뭇결과 = 波(자희, 상:4)

꺾 → 꺾: \*꺾별(예 못찾음) / 꺾별<sup>(36)</sup> (두언 18:4)

버들 → 버들: 버들고줄 (두언 11:21), 버들님 (월석 23:91) / 버들  
고지 (두언 11:18), 버들니피 (금강삼가 4:42)

맛 → 맛(매인 이름씨): →p.285.

16. /ㄹ/과 /ㄴ/이 사잇소리 앞에서 주는 것은 음성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즉 사잇소리 표기는 대체로 「ㄴ」으로 통일되어 가려는 경향을 일  
찍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 사잇소리를, 혀끝을 윗잇몸에 접  
근시키면서 무성의 휴식으로 내었던 탓이 아닐까 추측되는데, 그러기 위  
해서는 앞의 /ㄹ/, /ㄴ/의 ‘성’(울림)을 빨리 끊어야 하며, /ㄹ/, /ㄴ/이  
‘성’을 잃게 되면 사잇소리와 거의 같은 소리가 되어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37)</sup>

17. 그러나 다음 예는 그렇지 않다.

짚 → 짚: 일홈난 짚 子孫 = 名家孫(두언 16:2), 사르미 짚 너 = 人煙  
(두언 8:34) / 그 짚 씨리 (석보 6:14), 내 짚 寶藏 (남명, 상:37).

이웃짚 브른 = 鄰火(두언 7:6)

이것은 앞의 /ㄹ/, /ㄴ/의 경우와 같이 음성적으로 잘 해명이 되지 않

으로 해석하고 「설」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ㄹ/이 줄고 사잇소리만이 남게 된 것이다.  
「술가락」도 한가지.

(36) 「물결(뭇결), 꺾별」 따위는 합성어로 굳어진 예이며, 「물들 → 뭇들, 꺾바  
당 → 뭇바당, 꺾둥 → 뭇둥」 따위도 모두 매김말이 합성어의 한 성분으로  
굳어버린 예다. (→pp. 95-6, 「국어 음운학」 pp. 488-9).

(37) 「국어 음운학」 p. 488.

으나, /ㄹ/이 줄어진 것은 역시 사잇소리의 ‘무성의 휴식’<sup>(38)</sup> 때문이 아  
닐까 생각된다.

#### (나) 끝(반)홀소리 줄임

18. 주는 끝홀소리가 성절음인 경우와, 반홀소리(반모음) /j/인 경우  
가 있는데, 앞의 경우에는 입자씨의 한 음절이 줄어지고, 뒤의 경우에  
는 음절의 수에 변동이 생겨나지 않는다.

##### (나-1) /ㄹ, 으/ 줄임

19. 「-ㄹ/르」로 끝난 입자씨에 홀소리토씨<sup>(39)</sup>나 「-이다」가 연결될 때  
는, 입자씨 끝의 「ㄹ/으」가 줄고, 「ㄹ」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표기된다.  
이것은 /ㄹ/이 혀옆소리 [l]로 바뀐 것을 표기하기 위함인데,<sup>(40)</sup> 그 때도  
홀소리 사이의 [l]은 겹쳐지는 경향이 있었던 듯 하여(현대말에서는, 홀

(38) 사잇소리를 무성의 휴식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국어 음운학」 pp. 392-4  
참조.

무성의 휴식인 사잇소리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명백하게, 매김말  
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로서 인식되었던 듯 하다. 그것은 「짚」과 같이  
지금으로서는 사잇소리를 인식한 수 없는 자리에도 사잇소리를 표기한 예  
가 많이 보이며,

하늬 뜨들(용 86장), 神通入 이톨(법화 3:146), 부텃말(법화 3:156),  
經家入 퍼두니오(법화 4:6)……(특히) 畝畔(훈, 합자해), 세 畝 甚히  
기쁜 詰難(원각, 상 1-2:70), 畝 則 = 前文(원각, 상 2-1:4).

이두 표기에 있어서는, 이것을 한자 한 글자(叱)를 부여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짐작되는 일이다.

그리고 「국어음운학」 p. 465에서는 이 변동을, 내파음의 /ㄹ/이 외파  
음의 /ㄷ/에 동화되어 /ㄴ/으로 바뀐 것으로 설명했는데, 두가지 설명 중  
어느것이 더 나을지, 더 고증해 보아야겠다.

(39) 홀소리토씨란 홀소리로 시작되는 토씨란 뜻인데, 고름홀소리(조성모음)인  
「ㄹ/으」를 취하는 토씨는, 그것을 가진 것을 기본형태로 삼기 때문에, 모  
두 홀소리토씨에 든다.

「ㄹ/으」가진 편을 기본으로 삼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설명이 간  
결해지기 때문이다. 즉 가지지 않은 편을 기본으로 하면, 어떠한 토씨가  
붙을 때 「ㄹ/으」를 넣게 될지, 하나하나 기술해야 하나, 가진 편을 기본  
으로 하면, 토씨 첫머리의 「ㄹ/으」는 홀소리 밑에서는 일률적으로 준다고  
한번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40) 이에 대해서는, 「국어 음운학」 pp. 356-8 참조.

#### 1. 입자씨



소리 사이의 [l]은 반드시 겹쳐진다), 다음 음절의 초성에 「ㄹ」을 덧붙이는 일도 있다.(보편적, 음성적)

20. 이 때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일은; 고름홀소리를 가진 토씨가 연결될 때는, 두 가지의 소리 줄이는 규칙이 겹쳐지는데, 입자씨 끝소리 줄이는 규칙이 고름홀소리 줄이는 규칙에 앞선다는 것이다. 즉,

「ㄹ」+「-으로」  
에 있어서는 「-으로」의 /으/가 줄어드는 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ㄹ」의 끝소리 /으/가 줄어드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둘째 규칙의 적용을 막아서 「ㄹ으로」란 어형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ㄹ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ㄹ(가루) → ㄹ : ㄹ 香 (월석 10:44), ☆ㄹ면 = 麵(자회, 중:22)  
/ ㄹ으로 (가루로; 월석 2:29), ㄹ이라 (가루라; 월석 10:54), ㄹ리 (가루가; 월석 1:29)

ㄴ(나루) → ㄴ : 導師는 ㄴ로 ㄹ치는 사르미니 = 導師指津之人 (법화 3:173), ☆ㄴ진 = 津(자회, 상:5) / ㄴ이(나루에; 월석 8:25), ㄴ을 (나루를; 두언 16:7), ㄴ이로다 (나루이로다; 두언 24:25)

ㄹ(마루) → ㄹ : ㄹ 사마 重히 너기더니 = 皆共宗重(법화 2:235), ☆ㄹ중 = 宗(자회, 상:32), ㄹ동 = 棟(자회, 중:6) / 집 ㄹ리 (집용마루에; 두언 6:27), 正宗은 正統 ㄹ리니 (맨꼭대기이니; 석보 19:8), ㄹ을 (으뜸을; 월석 9:22)

ㅎ(하루) → ㅎ : ㅎ 內에 (하루 안에; 월석, 서:16), ㅎ음 (하루씩; 월석 1:37) / ㅎ은 (하루는; 월석 2:51), ㅎ리어나 (하루이거나; 월석 7:60)

노(노루) → ㄴ : ☆노장 = 獐(자회, 상:18) / ㄴ이 (노루가; 용43장), ㄴ을(노루를; 용 65장)

▽‘훈, 용자례’에는 「노로爲獐」으로 되어 있다.

21. 「ㄹ리, ㄹ리, ㄹ리, ㄹ리」 따위는 일단 입자씨 끝의 /으/가 줄어드는 「ㄹ이, ㄹ이, ㄹ을, ㄹ은」이 되고, 다음으로 홀소리 사이의 [l] 소리가 겹쳐지는 경향으로 「ㄹ리, ㄹ리…」가 된 것이다. 첫째 규칙은 필연적이나, 둘째 규칙은 그렇지 않다.

22. 그 밖에 「ㄹ로(ㄹ마루), ㄹ(주머니의 ㄹ), ㄹ(손잡이의 ㄹ), 시르(시루)」 따위도 모두 한가지다.

또 「드르」가 있으나 이것은 끝에 /ㅎ/이 있어서, 이와는 다른 유형에 속하며, 「미르(용)」는 변동하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23. 이와 아주 비슷하게 변동하는 것은 「아스(아우), 여스(여우)」와 같이 「스, 스」로 끝나는 말이다. 이 말도 앞에서 말한 홀소리토씨와 「-이다」가 연결될 때는, 입자씨 끝의 /으, 으/가 줄고(이 규칙은 고름소리가 줄어드는 규칙에 앞선다), 「△」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붙게 된다.<sup>(41)</sup> (개별적, 음성적)

아스 → 앓 : 아스爲弟(훈, 용자례), 부텃 아스 難施 (월석 7:11) / 앓은 (아우는; 용 24장, 두언 8:27), 앓이 (아우가; 용103장), 앓이로니 (아우이니; 능엄 1:76), 앓의 (아우의; 두언 8:28), 앓을 (아우를; 두언 8:28), 앓이 (두언 8:29)

▽이 /△/은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날 수도 있었던 듯 하여, 다음과 같은 표기도 보인다.

두 아스 = 兩弟(두언 8:37-8)

(41) 이것은 「△」이 앞 음절의 종성으로 발음되었음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대말에서는 중성 사이의 한 닿소리는 반드시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 것이나(『국어 음운학』 p. 208), 그 당시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던 듯 하여, 「△」이 중성 사이에서 반드시 받침으로만 쓰이는 말이 있다. (『넋위여』 따위: →『국어 음운학』 p. 327).

또 중성 사이의 두 닿소리는, 현대말에 있어서는, 첫 닿소리는 앞 음절의 종성으로, 둘째 닿소리는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 경우에도 음절 경계에 동요가 있었던 듯 하다. 즉 「업서」는 「어빠」로도 표기되는데, 이것은 VC-CV, V-CCV 두 가지로 발음했음을 말해 준다. (→『국어 음운학』 p. 322, p. 326)



내 아술 보니=吾見弟(두언 8:39)

아시 勸야든=弟勸(두언 8:42)

여스(스)→열: ㅅㅅ 여스 (천강곡 상, 기 70), 여스와 슷 =狐狸(두언 8:12), ☆여스호 =狐(자회, 상:19) / 열의갓 爲狐皮 (훈, 중성해), 흰 열은 (여우는; 두언 25:28), 열의 (여우의; 능엄 8:120, 두언 25:43), 열이니 (여우이니; 능엄 2:3, 금강삼가 3:61).

이 중성의 /△/은 /ㅅ/으로 동요한다.

앗이라 (아우이라; 석보13:2), 옻이 (여우가; 월석 2:76)

24. 「수」로 끝나는 입자씨라도 이러한 변동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 주수(자위, 씨): 주수 잇느니라(능엄 8:7), 주시오(씨시오; 원자, 상:1-2:180)

눈주수(검은자위, 눈동자): 눈주수눈(두언 16:40), 눈주수톨(능엄 2:109), 눈주수와(월석 21:215), 눈주식(눈자위가; 월석 2:41), 눈주수위(눈자위의; 능엄 3:1), 눈주식며(눈자위이며; 월석 1:13)

또 /수/로 끝나는 말에, 「수수(술), 연좌수(연자위), 보수(보시기), 사수(주사위)」 따위가 보이는데, 그 용례가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이 변동규칙에 따르지 않았으리라 추측된다.(이 말들은 모두 한자어임을 유의할 것.)

25. 「뽀(때)」와 매인이름씨의 「ㄷ», 「스」는, 토씨 「-이」(입자자리)와 잡음씨 「-이다」가 연결 될 때는, 끝홀소리가 준다.(개별적, 음성적)

뽀: 밤낮 여섯 뽀로 (월석 7:65), 그 뽀 乘하야서 =乘時(몽산 41) / 값간도 브릴 뽀 업스니라 =無時暫捨(금강 83), 또 뽀 하도다 =亦多時(두언 6:6), 二六時는 열둘 뽀라 (몽산 15), 不進膳이 현 뽀신들 알리 (용 113장), 밥 뽀어나 (능 7:16)

ㄷ, 스: (매인이름씨에 보라. p. 289, p.292)

「그」는 비슷한 어형이나, 이 변동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26. 「뽀」의 위치말은 「뽀」인데, 이것은 「뽀」에 토씨 「-」가 연결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토씨 「-의」가 올 때는 「뽀」의 끝홀소리가 준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왜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앞의 「아스, 흐르」

따위와 한 규칙으로 설명이 되어 말본의 설명이 간결해지기 때문이다.

네 상네 두 뽀 衆中에 바리 가져 =汝常二時 衆中持鉢(능엄 3:26)

다른 뽀 네 막스물 보리라 =他時見汝心(두언 11:10)

話頭를 擧호매 干涉흔 뽀 =擧話頭時엔(몽산 8)

「뽀」는 이대로 단순한 입자씨로 굳어져 쓰이기도 한다.(→p.228)

날마다 세 뽀로 十方諸佛이 드리와(월석 2:26)

다른 뽀는 錦도 온디 몰하리라 =他時錦不如(두언 15:16)

넷 뽀브디(두언 23:14)<sup>(42)</sup>

27. 그리고 「ㄷ, 스」에 위치말의 토씨 「-이」가 붙을 때도 역시 「티, 시」가 될 것이나, 이 어형은 일찍 그 앞의 매김꼴 씨끝과 같이 한 씨끝으로 녹아붙어 버렸다.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뽀썬 곧 도코 여름 하느니(용 2장)

서르 본던 오으로 넷 양지 아니로다 =相見흔던 全非舊日顔이로다(남명, 상:74-5)

28. 「뽀」를, 「아스, 흐르」와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면, 「뽀, ㄷ, 스」의 다른 어형들도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뽀, 뽀로; 들, 돈; 술」 따위를 모두,

뽀+을 →뽀+을 →뽀

뽀+으로 →뽀+으로 →뽀로

ㄷ+을 →ㄷ+을 →들

스+을 →스+을 →술

과 같이 만들어진(생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면, 「아스...」, 「흐르...」, 「뽀, ㄷ, 스」가 모두 한가지 규칙으로 처리되어, 말본의 설명

(42) 줌줌흔 뽀 닐오든 =默時說(남명, 하:18)

에 있어서는 「뽀」가 위치말로 쓰여 있는데, 이런 예는 드물다.

그리고,

이 뽀 부텃 나히 ... (석보 13:1)

의 「뽀」도 위치말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것은 「이 때가...」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매우 간편해진다.

끝음절이 「ㄹ/르, ㅅ/스」 이외의 소리로 된 말로서 이 변동규칙에 따르는 것은 「쁘, ㄷ, ㅅ」뿐인듯 하다. 즉 「손즈, 양즈, 유즈, 주전즈, 덩즈, 데즈; 당스, 인스, 도스, 도스」 등등의 말은 이 변동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이 말들은 모두 한자어임에 유의할 것.)

#### (나-2) /이/ 줄임

29. /i/로 끝나는 임자씨에 매김말을 나타내는 「-이/의」가 붙으면, 임자씨의 끝소리나는 줄어진다. (개별적, 형태적)

아기 → 아ㄱ : 아ㄱ 비디 (월석 8:81)

아버시 → 아버ㅅ : 아버의 일후물 (월석 8:97)

어미 → 어ㅅ : 어미 胎 (능엄 5:50), 어미 恩慈 (두언 8:47)

아비 → 아ㅅ : 아비 本貫 (육조, 상:3)

한아비 → 한아ㅅ : 늙은 한아비 이틀 = 老翁 (두언 25:49)

할미 → 할ㅅ : 할미 ㅅ스물 (남명, 상:8)

고기 → 고ㅅ : 고기 中에 (월석 1:4)

툇기 → 툇ㅅ : 툇기 ㄷ = 兎角 (능엄 3:95), 툇기 ㅅ리 (금강삼가 4:37)

울히 → 울ㅎ : 울히 그르메 = 龜影 (두언 6:20)

수리 → 수ㅅ : 수리 머리山 = 鷲頭山 (법화 1:20)

가히 → 가ㅎ : 가히 性 (법화 2:113), 가히 모미 (월석 23:91)

곳고리 → 곳고ㅅ : 곳고리 놀애 = 鶯歌 (두언 8:46)

머구리 → 머구ㅅ : ☆머구리 ㅅ포 = 藻 (자회, 상:9)

그러기 → 그러ㅅ : 그러기 ㅅ (법화 2:40), 그러기 ㅅ디 (두언 6:51)

이 말은 ‘훈, 용자레’에 「그력爲雁」으로 나타나나, 다른 문헌에는 모두 「그러기」로 나타난다.

그러기 울히 (두언 7:9), 울히와 그러기왜 (두언 8:9)

30. 매인이름씨 「이」를 가진 임자씨도 이같이 변동한다.

다르니 : 變하야 다르니 이 冷과 이 熱와 = 變異의 是冷是熱와 (능엄 5:37)

늘그니 : 늘그니 허틸 안고 (월석 8:101)

저므니 : 上句는 보되 노로미 저므니 이리오 늘그니게 맞디 아니타 호미나라 (두언 11:21)

어디니 : ㅅ장 어디니 後子孫 = 大賢之後 (두언 8:16)

~하니 : 變易 得하니 이리라 = 得變易者之事 (능엄 9:116), 病하니 녀시 (석보 9:31)

~하리 : 行하리 便宜 = 行者之便宜 (영가, 하:31)

31. 이상의 예에 보이는 「~이/의」는 모두 그 뒷 말에 대한 단순한 매김말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매김말은 때로는 그 뒤에 오는, 속뜻에 있어서의 풀이말에 대한 의미상의 임자말의 노릇을 하는 일 이 있다.

徐公의 온가짓 이틀 시름 아니하요물 내 아노니 = 吾知徐公百不憂 (두언 8:24)

나라히 乾坤의 쿠물 두겨시니 = 國有乾坤大 (두언 8:10)

「아니하요물, 쿨」은 겉으로는 임자씨의 구실을 하고 있으나, 그 속뜻으로 는 각각 「徐公의, 乾坤의」를 의미상의 임자말로 가지는 풀이말이 되어 있다. 또

父母의 나흔 모몬 (능엄 3:108)

波斯匿王의 사논 城 (금강 4)

에 있어서, 매김말인 「父母의, ~王의」는, 「몸, 城」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앞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는, 역시 속뜻으로 풀이말로 기능하고 있는 「나흔, 사논」에 대한, 의미 상의(속뜻으로의) 임자말로 볼 수 있다.

32. 이와 같이 「~이/의」가 속뜻으로 임자말로 기능하고 있을 때도 앞의 변동규칙을 따르는 일이 있으나,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諸子 | 아비 주구물 듣고 = 諸子 | 聞父의 背喪하코 (법화 5:158)



아비 住흔 城 (법화 2: 237)

艱難하느니 즐기논 法 (법화 2: 207)

어의 간 싸 (월석 21: 21)

어의 나흔 현 비적삼 (남명, 상: 31)

줄머리 녀든노론 = 鷗行(두언 14: 29)

이상은 이 변동규칙에 따른 것이나, 다음은 그렇지 않다.

艱難하느니의 낙미 보비 혜음 존다 = 如貧의 數他寶... (원각, 하 3-1: 62)

이 艱難하느니의 福과 知와 어러이 뵈흔 존호물 가줄비시니라 = 猶此 貧窮의 難集福智하시니라 (원각, 하 3-1: 43)

螺는 혼 소리의 스므초물 쓰고 = 螺는 以一音의 亘徹이오 (법화 1: 90)

几를 비겨서 고기의 줄규물 보고 = 憑几看魚樂(두언 25: 16)

가히 性은...한 가히의 주검 드와 자보매 다르디 아니하니라 = 狗性은 ...無異群狗의 競搏死屍也하니라 (법화 2: 113)

諸子 | 아비의 便安히 안존들 알오 = 諸子 | 知父의 安坐하코 (화법2· 138)

이러한 속뜻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매김말에 있어서는, 이 변동규칙에 따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약간 뒤 시기의 문헌에는 그러한 예가 보이기 시작한다.

魚白兒 고기의 이루(사성통해, 하: 59)

33. 이상의 예로써 보면, 이 변동규칙에 따르는 말들은 모두 사람이 나 다른 동물을 가리키는 이름씨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삿기(새끼), 쇠로기(솔개), 운바미(올빼미), 저비(제비), 존자리(잠자리), 하야로비(해오라기), 비두리(비둘기), 막야지(망아지), 빗을히(비오리), 어시(아버이, 어머니)

따위는, 그 용례가 국한되어서 변동례를 찾지 못했으나, 이 변동규칙을 따랐으리라 추측되지는,

허리, 서리, 줄기, 가지, 스시, 소리, 터리, 주머니, 피리, 자리, 다리, 미나리, 바고니, 바지, 비지, 보리, 명디, 쏘리, 므즈미, 마치, 미시, 보시, 피, 뻬  
떠워, 무생물을 가리키는 말들은 이 변동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우리」와 같은 대이름씨도 이 규칙에서 제외된다.

#### (나-3) 딴이 /j/ 줄임

34. 끝 반모음 /j/가 줄어지는 예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의 여러 예들과는 달리, 음절의 수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개별적, 음성적)

꽤 → 화(헛대): ☆ 꽤항 = 統, 꽤이 = 桅(자회, 중: 14) / 설겅 옷들히  
화예 나아 걸이며 (월석 2: 33)

이 변동은, 첫째

꽤+애/에 → 꽤+예

가 되고, 다음으로 이 말은,

hwaj+jəj

와 같이, 반모음 둘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j/가 줄어진 것이다. (43)

hwa(화)+jəj(예)

이렇게 보면, 이러한 변동은 충분히 일반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설지로는 그렇지 않고, 입자씨에서는 극히 국한된 현상으로 나타날뿐인데, (44) 이 '경향'은 입자씨의 강한 자립성 때문에 저항을 입어 보편화하지 못

(43) /j/가 줄어지는 데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허 용: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 pp. 346-7, 특히 '각주 55'를 볼 것.

(44) 조금 뒤 시기의 문헌에는 이런 예가 좀 더 많이 보인다.

막대: 막대 덩고 (두언 6: 29) / 막다예 (두언 중간 2: 6)

벼개: 벼개예 (두언 22: 40) / 벼가예 (두언 중간 22: 40)

빼: 𪛗𪛗爲酉時 (훈, 합자해) / 빠예 (박통사 중간, 상: 32)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 끝소리 줄고 /ㄱ/이 덧남

35. 「나모, 구무, 불무, 녀느」는, 앞에서 말한 홀소리토씨가 이어 나게 되면, 끝소리가 줄어지면서, 동시에 /ㄱ/이 덧나게 된다. (개별적, 음성적)

나모 → 남ㄱ: 閻浮는 나뭇 일후미오 (월석 1:24), 이 이운 나모 스로물 = 蘇此枯木(능엄 3:25), 나모 바곤 = 木瓢(두언 15:1), 이본 나모와 (용 89장) / 이 남기 잇고 (월석 1:24), 남기서 (나무에서; 능엄 3:25), 남기(나무에; 용 84장), 남꼴(나무를; 용 86장), 남곤(나무는, 용 2장)

구무 → 굶ㄱ: 터럭 구무들해 (월석 8:26), 구무마다 (월석 21:5), 나뭇 구뭇 안홀 = 穴內(두언 18:15) / 굶글 (구멍을; 월석, 서:21), 굶기라 (구멍이라; 월석, 서:21), 굶기 (구멍에; 석보 13:10), 굶가 (구멍이; 두언 6:36), 굶긔 光 (구멍의 光; 월석 8:38)

불무 → 불ㄱ: ☆불무야 = 治(자회, 하:16), 불무질 (두언 8:65) / 불기라 (불무이라; 금강삼가 2:28), 불기 (불무에; 두언 24:59), 불글 (불무를; 남명, 하:71)

녀느 → 녀ㄱ: 녀느 아니라 (능엄 4:23), 녀느 夫人 (월석 2:4), 녀느 이틀 (내훈 1:53) / 녀글 (다른 사람을; 용 20장, 천강곡 상, 기 126) 녀기 (다른 사람이; 용 48장, 석보 6:22)

36. 예외:

나모느(두언 6:41), 불무느(두언 6:24), 불무느(원각, 상 1-2:17), 불무느(원각, 상 1-2:17)

그리고, 「나모와」(용 89장)는 홀소리토씨가 연결된 것 같이 보이나, 「-와」는 「-과」의 변이형태이기 때문에, 당소리토씨에 들게 된다.

37. 이상의 설명은, 「나모, 구무……」 쪽을 기본형태로 보고서 변동

규칙을 세워본 것이나, 반대로 「남ㄱ……」 쪽을 기본형태로 정하더라도 그 변동규칙의 성질은 비슷해진다. 즉 그 경우에는, 홀소리토씨가 이어 나지 않을 때는 /ㄱ/이 줄고 /ㄴ/가 덧나게 된다는 규칙이 세워진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이유에 의해서 「나모」 쪽을 기본형태로 정한다.

첫째, 뒤의 변동규칙을 취하면, 어떤 말(남ㄱ-)에는 /ㄴ/가 덧나고, 어떤 말(굶ㄱ-)에는 /ㄷ/가 덧나고, 어떤 말(녀ㄱ-)에는 /ㄹ/가 덧난다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색한 규칙이다.

둘째,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남ㄱ-」 쪽이 아니고 「나모」 쪽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나모」 쪽을 기본으로 정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에는 또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8. 그것은, 끝소리와 /ㄱ/이 다 유지된 것을 기본형태로 가정해 보는 일이다.

\*나목, \*구목, \*불목, \*녀늑

그렇게 되면,

\*나목  $\begin{cases} \text{나모} \\ \text{남ㄱ-} \end{cases}$

등의 변동은, 홀소리토씨가 붙을 때는 끝음절의 홀소리가 줄어지고, 그 밖의 경우에는 끝당소리가 줄어진다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규칙은 소리의 줄임으로 일관해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앞 규칙보다 간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가정한 기본형태를, 「가상적 기본형태」라 부른다.<sup>(45)</sup> 가상적 기본형태는 실지로 쓰이는 일이 없다.

39. 앞에서 설명한 「ㄱ」의 변동규칙은 어색한 점이 없지 않다. /ㄱ/가 줄어진다는 설명은 좋으나, /ㄹ/이 앞음절의 받침으로 붙는다는 것, 그리하여 [l] 변이음을 취했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점은 매우 어색하다. 음소의 줄임에다가 변이음에 대한 조항까지 곁들여 있기 때문이다.

(45) 국어 음운학 p. 391 참조.



이것을 다소나마 간결하게, 등질적인 조항만으로 설명하려면, 그 기본형태를 「\*ㅎ록」으로 가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차적으로는, 「\*나목」에서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

\*ㅎ록  $\begin{cases} \text{ㅎ르} \\ \text{*홀ㄱ-} \end{cases}$

이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다음으로는 「\*홀기, \*홀궂, \*홀근…」은, /ㄹ/ 밑에서 /ㄱ/이 줄어들어서, 「홀이, 홀을, 홀은…」이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하면 된다.

이 설명방법은, 「ㅎ르」와 「나목」을 한가지 변동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 (라) 썸씨의 경우

40. 썸씨가 매김말로 쓰일 때는, 그 끝소리를 줄이는 일이 있다. (개별적, 형태적)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p.271), 매김말로 쓰이는 「훈; 두; 세, 서, 석; 네, 너, 녀; 닷; 예」 따위는, 매김씨로 보지 않고, 썸씨가 매김말 노릇을 할 때에 취하는 변이형태(이 경우에는 형태적 변이형태)로 보았다. 따라서 이 소리줄임은 썸씨가 매김말로 기능할 때에 일어나는 소리의 변동으로 설명된다.

「하나→훈, 둘→두, 세→세(서), 네→네(너), 다섯→닷」은 모두 끝닿소리나 끝홀소리(또는 닿소리와 홀소리)가 줄어진 것이나, 「석, 녀, 예」는 줄임과 동시에 한 소리가 덧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다시 세분하지는 않는다.

## (2) 첫음소 변동

1. 입자씨의 첫소리가 여린소리인 경우에는, 이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일이 있다. (개별적, 형태적)

2. 풀이씨의 「-ㄹ」 매김꼴은 반드시 「-ㄷ」로 표기되는데, 때로는 「ㄱ」을 빼고서 다음 입자씨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표기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무성의 휴식(ㄱ)이 다음 여린소리를 된소리로 바꾼 것을 표기함이다.

적→적 : ㅎ실 찌긱 (석보 9:3), 여훔 찌긱 (월석 21:119)

것→것 : 莊嚴홀 것 (석보 19:41), 몸홀 꺼시니 (석보 11:36)

바→빠 : 恭敬홀 빠라 (법화 4:30)

기름→끼름 : ㅼ를 끼름 (법화 2:242)

스ㅅ→ㅅㅅ : 실 ㅅㅅ (월석 1:29)

3. 입자씨와 그 앞말과의 사이에서 사잇소리가 날 때는, 사잇소리 대신에 입자씨의 첫소리를 바꾸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앞의 경우와 한가지다. (개별적, 형태적)

소리→쏘리 : 우룸 쏘리 (석보 11:25), 엄쏘리, 니쏘리, 혀쏘리(훈, 언해)

스ㅅ→ㅅㅅ : 두 鐵圍山 ㅅㅅ (월석 1:28)

## (3) 운소 변동

1. 어상은 모두 음소(홀소리, 반홀소리, 닿소리)의 변동인데, 입자씨의 운소(그 당시로서는 「평」, 「상」, 「저」의 삼성)도 변동되는 일이 있다. (46)

2. 「갈ㅎ(칼), 고ㅎ(코), 귀, 몸」 따위는 원래 「거성」인데, 다음과 같은 말에 있어서는 「평성」으로 변동한다.

갈·해(용 22장), 고·해(월석 1:32), 귀·예 (월석 1:1), 길·해(용 10장), 나·적(용 101장), 누·네(석보 13:38), 싸·해(석보 19:23), 모·매 (용 104장)

(46) 허 용 : 중세 국어 연구 (1963, 정음사) p.302 이하 참조.

1. 입자씨



3. 「사름(사람), 말쑼(말씀)」은 「상-평」과 「상-거」로 변동한다.

사름— :사름·물 (석보, 서:1), :사름·미(석보, 서:3) / :사·름미·라(석보, 서:1), :사·름·로 (금강 9)

말쑼— :말쑼·닐 (용 13장), :말쑼·미(용 39장) / :말·쑼미·라(훈, 언해), :말·쑼·로 (석보 13:48)

4. 「구름, 가지」 따위는 「거-평」 성과 「거-거」 성으로 변동한다.

구름— ·구루·미 (용 42장), ·구루·물 (월석 1:32) / ·구·루미·라 (월석, 서:18)

가지— ·가지·와 (석보 13:47), ·가지·예(두언 15:4) / ·가·지·로·다 (두언 7:1)

5. 「득리(다리), 누의(누이), 막더(마디); 부터(부처), 몬저(먼저)」 따위는 원래 「평-평」 성인데, 토씨 「-이」나 잡음씨 「-이다」의 /i/가 축약되면 「평-상」 성으로 변동한다.

득:리 (다리가; 두언 25:7), 득:리라 (월석 21:77); 누:의라 (월석 21:95); 막:더 (마디가; 월석 2:56), 막:더니·라(몽산 42); 부:테 (부처가; 석보 9:1), 부:테시·니·라 (석보, 서:1); 몬:제시·니 (용 7장), 몬:제로·다 (두언 20:6)

6. 「나, 너, 누, 저, 쇼(소)」는 불규칙하게 변동한다.

나— 나·와 (석보 9:4), 나·도 (석보 13:55) / 내·모·물 (용 105장), 내·의 (두언 6:16) / ·내 (내가; 용 58장), ·내·라(월석, 서:4) / :날(용 115장)

너— 너·를 (두언 7:20) / 네·말 (석보 9:22) / :네 (네가; 용 94장), :네·라 (월석, 서:10)

누— 누·고 (월석 21:195) / :누·를 (두언 7:15), :닐 (용 99장) / :누·지비서 (두언 16:50) / ·누 (누구가; 용 15장)

저— 저·도 (석보 13:43) / 제·몸 (월석 1:8) / :제 (제가; 금강, 서:6), :제·라 (훈, 언해)

쇼— 쇼·를 (용 87장) / ·쇠 (소가; 월석 1:24), ·쇠어·나(석보 9:16)

:쇠 머·리 (월석 1:27)

#### (4) 요약

이상 설명한, 입자씨의 끝변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끝음소 변동

###### (1-1) 바뀜

(가) 꽃, 빛, 𐄀

(나) 발

(다) 닢, 앞

###### (1-2) 줄임(동시에 덧붙이는 일도).

(가) 끝닿소리 줄임.

(가-1) 밧기; 석기; 갑기

(가-2) 갈ㅎ

(가-3) 바를; 만; 집

(나) 끝(반)홀소리 줄임.

(나-1) ㅁㄴ; 아스; ㅼ

(나-2) 어미

(나-3) ㅼ

(다) 끝홀소리 줄고 /ㄱ/이 덧붙임. 나모, 구무, (ㅎㄴ)

(라) 셈씨가 매김말로 쓰일 때.

ㅎ나→훈, ㄷ→두

##### (2) 첫음소 변동

(i) 「-ㅈ」 매김꼴 다음에서

(ii) 사잇소리 다음에서

##### (3) 운소 변동



## 2. 토씨

### 1) 토씨의 분류

1. 토씨는 주로 임자씨에 붙는 구속형식의 낱말로서, 월성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어 주거나, 또는 어떠한 뜻을 덧붙여 주거나 하는 말이다.

2. 월성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어 주는 토씨는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월에 있어서의 일정한 기능(일정한 월성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말을 연결해 주기만 하는 것이다.

#### 3. 내히 이러 (용 2장)

의 「-이」는 「내히」에 붙어, 이 말이 다음에 오는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임을 표시해 주며,

#### 가칠 드러 (용 7장)

의 「-ㄷ」은 「가치」에 붙어, 이 말이 「드러」의 부림말이 됨을 표시해 준다.

이러한 토씨는 기능만을 표시해 줄뿐, 그 밖의 다른 개념은 나타내지 않는다. 토씨의 이러한 용법을 「자리법」이라 한다. 임자씨의, 그 월에 있어서의 일정한 자리(지위, 격)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 4. 줌과 밭머기와 저구니 (두언 15:4)

#### 사름과 소너 性 (두언 8:47)

의 「-과/와」는 두 말을 이어 주는 점에서는 앞의 「자리법 토씨」와 한가지이나, 이것은 단순히 두 말을 이어 줄 뿐, 이 말들의 그 월에 있어서의

일정한 자리(격)를 나타내어 주지는 않는다. 즉 앞의 「줌과 밭머기와」는 임자말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뒤의 「사름과 소너」는 매김 말의 노릇을 하고 있다. 「-과」로써는 그 어절이 어떠한 월성분이 될 것인지, 표시되지 않는다. 이것이 자리법 토씨와 다른 점인데, 이러한 용법을 「연결법」이라 하고, 이러한 토씨를 「연결법 토씨」라 한다.

「자리법 토씨」는 「자리토씨」, 「연결법 토씨」는 「연결토씨」라 부르기도 한다.

5. 뜻을 덧붙여 주는 것에도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음의 뜻을 나타내면서 월을 끝맺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가지 다른 뜻을 덧붙여면서 월을 끝맺지 않는 것이다.

#### 6. 이 엇던 光明고 (월석 10:7)

의 「-고」는 월을 끝맺으면서 동시에 의문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용법을 「물음법」이라 하고, 「-고」를 「물음법 토씨」 또는 「물음토씨」라 한다.

7. 물음토씨는, 앞의 예에서 볼 수 있음과 같이, ‘풀이말’을 표시해 주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이것도 자리토씨로 볼 수 있을것 같으나, 「-고」의 두드러진 특색은 의문의 뜻을 표시해 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리토씨에 넣지 않는다.

#### 8. 어미도 아득를 모르며 아들도 어미를 모르리니 (석보 6:3)

의 「-도」는 ‘이것과 저것이 한가지임’을 나타낼뿐, 일정한 월성분을 표시해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용법을 「도움법」이라 하고(말의 뜻을 도와 준다는 뜻), 이러한 토씨를 「도움법 토씨」 또는 「도움토씨」라 한다.

|    |   |               |   |                   |
|----|---|---------------|---|-------------------|
| 토씨 | { | 말 사이의 관계를 나타냄 | { | 일정한 기능을 표시함……자리토씨 |
|    |   |               | { | 기능과 관계 없음……연결토씨   |
|    | { | 뜻을 덧붙여 줌      | { | 월을 끝맺음 ……물음토씨     |
|    |   |               | { | 월을 끝맺지 않음……도움토씨   |



## 2) 자리토씨(격조사)

1. 월의 중심 되는 성분은 풀이말이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임자씨를 풀이말 되게 해 주는 토씨는 없다. 그러므로 풀이토씨(풀이말을 표시해 주는 토씨)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 말한 물음토씨는 풀이말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자리토씨의 한가지인 것 같으나, 이미 설명한 이유로, 자리토씨로 보지 않는다.

2. 풀이말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월성분들이 이에 종속되어 월을 꾸며내게 되는데, 다른 월성분들의 풀이말에 대한 관계(기능)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의 두가지가 있다.

### 3. 世尊이……가샤(석보 6:1)

(임자말) (풀이말)  
↑  
天下를 맛드시릴씨(용 6장)  
(부림말) (풀)  
↑

山에 오샤(법화 4:167)  
(위치말) (풀)  
↑

微塵과 존하야(능엄 5:68)  
(전춤말) (풀)  
↑

꼴으로 브르코(석보 6:38)  
(방편말) (풀)  
↑

그르 알면(월석 1:51)  
(어찌말) (풀)  
↑

이 相을 아노라 하시고  
(인용말) (풀)  
↑

여기 그림풀이토씨 보인 바와 같이, 임자말 부림말 위치말 전춤말 방편말 어찌말 인용말들의, 풀이말에 대한 관계는 직접적인데, 이러한 관계를 「제일차 기능」이라 한다. 그런데 옛말에서는, 어찌말과 인용말을 표시해 주는 토씨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제일차 기능을 표시해 주는 토씨는 다섯가지가 있게 된다.

### 4. 徐卿의……아드리(두언 8:24)

(매김말) <임자씨>(임자말)  
↑  
→(풀이말)

위의 매김말은 임자씨 「아들」에 종속되어 있는데, 이 전체구성은 임자말이 되어 풀이말과 관련을 맺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매김말의, 풀이말에 대한 관계는 앞의 경우보다 간접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관계는 「제이차 기능」이라 부른다.

우리 종이니이다(월석 8:94)  
(매김말) (풀이말)  
↑

에 있어서는 매김말이 바로 풀이말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이 말은 위와 같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이니이다  
↑  
(풀이말)

과 같이 짜여져 있는 것이므로, 역시 매김말 「우리」의, 풀이말에 대한 관계는 간접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매김말은 풀이말 속의 한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 풀이말과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 5. 彌勒아 아라라(석보 13:29)

(홀로말): (풀)



홀로말의 그 다음 말에 대한 관계는 한층 더 간접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를 「제삼차 기능」이라 한다.

일핏 보기에는, 이 홀로말은 임자말로서, 풀이말과 바로 관련을 맺고 있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임자말은 그것만 따로 떨어져서는 제대로 말이 되지 않는데(앞의 「世尊이」 참조), 홀로말은 따로 떨어져서도 훌륭한 하나의 말이 될 수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홀로말은 월 안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힘이 강한 것이다.

6. 제일차 기능을 나타내는 방법을 「첫째 자리법」이라 하고, 제이차 기능, 제삼차 기능을 나타내는 방법을, 각각 「둘째 자리법」, 「세째 자리법」이라 한다. 또 첫째 자리법을 나타내는 토씨를 「첫째자리 토씨」라 하고, 둘째 자리법, 세째 자리법을 나타내는 토씨를 각각 「둘째자리 토씨」, 「세째자리 토씨」라 한다.

### (1) 첫째자리 토씨

1. 제일차 기능을 표시해 주는 첫째자리 토씨에는, (1) 임자말을 표시해 주는 임자자리 토씨(주격 조사), (2) 부림말을 표시해 주는 부림자리 토씨(목적격 조사), (3) 위치말을 표시해 주는 위치자리 토씨(위치격 조사), (4) 견춤말을 표시해 주는 견춤자리 토씨(대비격 조사), (5) 방편말을 표시해 주는 방편자리 토씨(방편격 조사)의 다섯 가지가 있다.

2. 이러한 자리토씨들에 대한 설명은, 주로 그 자체의 형태와 앞의 말과의 연결 방식에 그치게 되며, 이러한 자리토씨가 가지는 통어론적 용법에 대해서는 통어론에서 다룰 예정이다.

### (1-1) 임자자리 토씨(주격 조사)

3. 임자말을 표시해 주는 문법적 방법을 「임자법」이라 하고, 임자법의 토씨를 「임자자리 토씨」라 한다.

「-이」<sup>(47)</sup>

4. 임자씨(나 임자씨 노릇하는 말)의 끝이 닿소리일 경우에는 「-이」는 성절음으로 나게 되나, 그것이 홀소리일 때는, 두 홀소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약간의 형태변동이 일어난다.

5. <임자씨 끝이 닿소리인 경우>

신미 기픈 드른 (용 2장)

내히 이러 (용 2장)

世尊이 象頭山에 가샤 (석보 6:1)

6. <임자씨 끝이 홀소리인 경우>

끝이 「이」 /i/, 탄이 /j/ 이외의 다른 홀소리일 때는, 토씨의 「-이」는 그와 한 음절로 축약되어, 반홀소리의 탄이 /j/로 바뀐다.

나+이 → 내 : 나도 이 존하야 (석보 13:55) / 내 가리이다 (용 94장)

바+이 → 배 : 밍ᄃ론 바를 브터(석보, 서:5) /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훈, 언해)

너+이 → 네 : 너 위하야 (석보 13:47) / 네 가샤 하리라 (용 94)

부터(부처)+이 → 부테 : 부텃 일흠 (석보 9:1) / 부테 도녀(석보 9:1)

「부터」는 평평성인데, 「부테」는 평상성이다.

벼+이 → 베 : 벼爲稻 (훈, 용자례) / 프른 베 하니=靑稻多(두언 7:36)

거문고(거문고)+이 → 거문괴 : 조흔 거문고를 퍼라=淨琴張(두언 15:55) / 單父의 거문괴 빗노햇도다 =橫單父琴(두언 21:35)

쇼(소)+이 → 쇠 : 쇼로 천 사마 (월석 1:24) / 쇠 하아 (월석 1:24)

(47) 여기에 제시한 예들은 ;

허 용 : <주해> 용비어천가 (1955년, 정음사) pp. 9-12에 의함.



염교(부추)+이 → 염피 : ☆염교구 = 萑(자희, 상:13) / 염피 허여호  
돌 = 萑白(두언 7:40)

거우루(거울)+이 → 거우뤼 : 돌곤 거우루 존하야 (월석 7:55) / 거우  
뤼 臨하고져 하듯다 = 鏡欲臨(두언 21:35)

누(누구)+이 → 뉘 : 누 미르시리(용 99장) / 뉘 마ᄃ리히가(용 15장)

어느+이 → 어니 : 어늘 從하시려뇨 (월석 7:26) / 어니 이 브리며  
어니 지비며 (법화 2:64)

그+이 → 기 : 그를 곧 因하야 (석보, 서:6) / 기 아니 어리시니(용  
39장)

▽「그」는 평성인데, 「기」는 상성이다.

눈즈스(눈자위)+이 → 눈즈식 : 두 눈즈스를 위여내니라 (월석 21:218)  
/ 눈즈식 감꼭르며 (월석 2:41)

양즈(모습)+이 → 양지 : 엇던 양즈로 느려가료 (월석 2:19) / 양지  
성가시더니 (월석 1:42)

전츠(까닭)+이 → 전치 : 이런 전츠로 (훈, 언해) / 전치 잇느니  
=各有以也(법화 4:3)

7. 임자씨가 한자로 표기되었을 때는, 한자 다음에 「ㅣ」(만이)를 붙  
여, 「-이」가 앞 음절과 축약되어 반홀소리가 되었음을 표시한다.

聖化ㅣ 기프샤 (용 9장)

變化ㅣ 無窮하실씨 (용 60장)

創業規模ㅣ 머르시니이다 (용 81장)

聲教ㅣ 너브실씨 (용 56장)

우리 始祖ㅣ 慶興에 사르샤 (용 3장)

一夫ㅣ 流毒하실씨 (용 10장)

聖子ㅣ 三讓이시나 (용 14장)

十八子ㅣ 救하시려니 (용 69장)

8. 「아수, 여스; ㅅ, ㅌ, ㅊ; ㅁ, ㄴ, ㄷ, ㄹ; 나모, 구무」 따위 말에 이 토  
씨가 붙으면, 임자씨의 끝 홀소리가 줄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  
음. (→ p. 315 이하)

9. 임자씨의 끝이 「이」/i/인 경우에는, 같은 두 소리가 겹쳐지기 때  
문에, 임자자리 토씨의 「-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얼니 히오 (월석 2:41)

和修吉은 머리 하다 하논 마리오 (석보 13:7)

넛 가히 내 도라오물 깃거 = 舊犬喜我歸(두언 6:39)

이 각시 당다이 轉輪聖王을 나하시리로다 (월석 2:23)

受苦르 헛 소리 업고 (석보 9:10)

10. 「ㅣ」/j/로 끝나 있을 때도 한가지다. (「애, 에, 외」 따위의 옛  
발음은 겹홀소리였다.)

밧긋 그르메 瑠璃 존더시니 (월석 2:17)

빅 업거늘 (용 20장)

췌 하진마룬 (용 90장)

불휘 기픈 남곤 (용 2장)

11. 이 경우, 임자씨의 끝음절(홀홀소리나 겹홀소리)이 평성일 때는  
그것이 상성으로 바뀐다. (48) (→ p. 328)

드리(평평성; 다리, 징검다리, 사닥다리, 섬돌): 개해 드:리 업도다=  
川無梁(두언 25:7)

빅(평성; 먹는 배: 물에 타는 배와 사람의 배는 거성으로서 이에 해당되  
지 않음): 비치 도하니 :빅 사르믹 싸미라와 더으고 = 色好梨勝類  
(두언 20:9)

ㅁ디(평평성; 마디): 흰 ㅁ:디 서르 비취엿도다 = 素節相照燭(두언 25  
:2)

(48) 허 웅: 중세 국어 연구 p.273.

2. 토씨

337



고래(평평성) : 고:래 물겨레 뛰니=鯨魚跋浪(두언 25:53)

너희(평평성) : 너:희 사람 護持하며(월석 21:68)

누의, 누위(평평성; 누이) : 그 누:위 病커든 (내훈 3:46)

그디, 그디(평평성) : 그:디 子息 업더니(월석 1:7), 불곤 그:디 ㅎ  
오사 저문 나히로다=明公獨妙年(두언 21:7)

12. 입자씨의 끝이 「이」 /i/나 「ㅣ」 /j/일 경우에도 토씨 「-이」가 줄  
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입자자리(주격)의 표시가 모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9)

是 | 物이라 (능엄 2:34)

(49) 여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입자자리 토씨가 있었으면 하는 욕망이 생겨난  
다. 즉 입자씨의 끝이 /i/나 /j/일 때는, 입자자리 토씨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분명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토씨의 필요를 느  
끼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가」가 생겨났으리라 추측되나, 이것이 언제,  
어떠한 경로를 밟아 쓰이기에 이르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一切가 信하는 배라 (법화 1:120)

네가 더 나라홀 업시워 (월석 18:71)

의 「가」는 입자자리 토씨로 오인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법화」의  
한문 본문은 「一切所歸信」으로 되어 있으니, 「가」는 「歸」의 번역임이 분  
명하고, 「월석」의 기술은 ‘법화경 7:11-12’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는;

네 가 더 나라 업시워…… 下劣想을 내디 말라=汝 | 往야 莫輕彼國하  
야… 生下劣想하라

로 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이 두 예의 「가」는 다 입자자리 토씨가 아님  
이 분명한 것이다. 또,

彌勒菩薩은 조개 爲호 님스미 하실씨 (월석 1:52)

에 있어서는 「-ㅣ」가 부림자리 토씨로 쓰인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조개  
+이」로 분석되는 말이 아니라, 「조개」가 이대로 입자씨로 굳어버린 형태  
이다.

조개도 모루샤 (월석 21:210, 석보 11:17)

조갯 性 (능엄 2:57)

조갯 님스미 (법화 2:160)

그리고 다음 예도 「-ㅣ」가 부림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으나, 이것도  
역시 입자자리로 볼 수 있다.

마쑤 菜蔬 | 서리와 이슬왜 뽕헛느니 (두언 16:73)

王과 夫人과 臣下와 百姓과 無量大衆이 앞뒤에 圍繞했더니 (월석  
21:219)

理 | 衆生의 님스미니 (능엄 2:23)

理 | 鬍고 (육조, 서:6)

優婆夷 | 이 사람 늙아이 너겨 (법화 6:84)

<비교> 優婆夷 이 사람 업시워 (월석 17:87)

利 | 無窮호물 (금강 47)

機 | 저글씨 (법화 2:94)

如來 | 상네 이셔 (법화 5:146)

<비교> 如來 상네 이셔 (월석 17:14)

如來 | 方便으로 (법화 5:147)

<비교> 如來 方便으로 (월석 17:14)

13. 「-이」와 「-ㅣ」는 음성적으로 설명되는 변이형태이다. 그리고 /i/  
나 /j/ 다음에서 토씨 「-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무형의 변  
이형태」(zero allomorph)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앞 소리에 축약되어 존재  
하는, 유형의 변이형태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i/, /j/ 다음에서도 토씨 「-ㅣ」가 표기되어 나타나는 일이 있  
고,

둘째, 평성 음절에 이 토씨가 붙으면, 그것을 상성으로 바꾸기 때문이  
다.

## (1-2) 부림자리 토씨(목적격 조사)

14. 부림말을 표시해 주는 문법적 방법을 「부림법」이라 하고, 부림법  
의 토씨를 「부림자리 토씨」라 하는데, 이에선 홀소리 다음에 쓰이는  
「-리, -를, -를」과, 당소리 다음에 쓰이는 「-을, -을」이 있다. 그리고  
「-를」과 「-를」, 「-을」과 「-을」은 모음조화에 의해 선택되나, 「-를/를」  
과 「-리」과의 선택 조건은 분명하지 않고, 임의로 변동되었던듯 하



다. (50)

「-르」

- 가칠 므러 (용 7장)  
 獨夫受르 섬기시니 (용 11장)  
 세 셀 쓰시니 (용 57장)  
 두 孔雀일 그리시니이다 (용 46장)  
 직줄 것구면 (월석 2:71)  
 어늘 從히시려노 (월석 7:26)  
그르멜 비취샤 (월석 7:27)  
 소릴 내야 (월석 2:75)  
 늘 위<sup>하</sup>야 (월석 2:13)  
 죽사릴 여희샤 (월석 1:21)  
 님금位르 브리샤 (월석 1:2)  
 날 거<sup>숨</sup> 도즈<sup>쥔</sup> (용 115장)  
 말자<sup>칠</sup> 바다 (월석 1:2)  
 샷길 나히니 (두언 8:18-9)

「-를」

- 여<sup>섯</sup> 히를 苦行<sup>하</sup>샤 (석보 6:4)  
 한아<sup>비</sup>를 주<sup>느</sup>다 (두언 21:15)  
 無量事를 利益<sup>하</sup>느니라 (월석 21:172)  
 無上佛果를 주<sup>리</sup>라 (월석 9:22)  
 나<sup>를</sup> ...얼이<sup>시</sup>니 (월석 10:23)

(50) 「-를/를」은, 역사적으로는, 「-르」와 「-를/을」이 겹쳐진 것으로 추측된다. 즉 홀소리 아래 「-르」만 붙여서는, 한 음절이 늘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부림말의 표시가 분명히 되지 않을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시 토씨를 겹쳐서 그 표시를 분명히 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 + 르 → 날

날 + 을 → 나를

聲聞地에 住<sup>하</sup>니를 내 상네 阿<sup>耨</sup>...菩<sup>提</sup>를 教化<sup>하</sup>노니(법화 3:163-4)

- 奇異<sup>하</sup> 터리를 시<sup>혹</sup> 매<sup>를</sup> 주<sup>시</sup>느<sup>다</sup> (두언 8:8)  
 기<sup>동</sup>에 굽스렛<sup>느</sup>니를 周<sup>史</sup>를 듣<sup>노</sup>니 (두언 20:27)  
 天下를 맛<sup>드</sup>시<sup>릴</sup>쎌 (용 6장)  
 太子를 ...꼴<sup>히</sup>샤 (용 8장)  
늘애<sup>를</sup> 브<sup>르</sup>리 (용 13장)  
 帝<sup>祐</sup>를 뵈<sup>스</sup>븐<sup>니</sup> (용 7장)

「-를」

- 我<sup>后</sup>를 기<sup>드</sup>리<sup>스</sup>바, 義<sup>旗</sup>를 기<sup>드</sup>리<sup>스</sup>바 (용 10장)  
 聖<sup>武</sup>를 뵈<sup>요</sup>리<sup>라</sup> (용 46장)  
 설<sup>흔</sup> 여<sup>섯</sup> 디위를 오<sup>르</sup>느<sup>리</sup>시<sup>니</sup> (월석 1:20)  
 長<sup>壽</sup>를 求<sup>하</sup>면 (석보 9:23)  
너를 金 주<sup>료</sup> (남명, 상:44-5)

「-를」과 「-를」의 모음조화에 의한 선택 규칙은 반드시 엄격하지 못하여, 서로 섞여쓰인 예가 많이 나타난다.

너를 뵈<sup>노</sup>니(내훈 2하:52)

전나귀<sup>를</sup>... 빌이<sup>건</sup>마<sup>른</sup>(두언 25:41) 등등

「-을」

- 나<sup>라</sup>를 맛<sup>드</sup>시<sup>릴</sup>쎌 (용 6장)  
 聖<sup>孫</sup>을 내<sup>시</sup>니<sup>이다</sup> (용 8장)  
 말<sup>쌔</sup>를 술<sup>병</sup>리 (용 13장)  
므스<sup>를</sup> ...달<sup>애</sup>시<sup>니</sup> (용 18장)  
 아<sup>츠</sup>를 앓<sup>기</sup>노<sup>라</sup> (두언 20:30)  
 바<sup>를</sup> 꼴<sup>포</sup>하<sup>며</sup> ...아<sup>츠</sup>를 니<sup>서</sup>하<sup>노</sup>라 (두언 20:46)  
 사<sup>를</sup> ...머<sup>기</sup>리<sup>니</sup> (두언 15:22)  
 앞<sup>을</sup> 절<sup>하</sup>느<sup>다</sup> (두언 8:28)



苦스물 브터 (월석 9:22) 阿難을 뵈야 (능엄 2:12)  
衆生을 뵈여 (석보 13:49) 須達의 아들을 쫓을 열유려터니 (천강곡 상, 기 149)  
 「-을」  
天命을 모르실씨 (용 13장) 그를 드러 (용 7장)  
五年을 改過 못하야 (용 12장)  
세 버늘 請하거니 (석보 13:46) 닐굽 거르플 거르샤 (석보 6:17)  
知見을 여러 清淨을 (得게 호려) 하샤 (석보 13:48)  
人天을 ...利益하느니라 (월석 21:172)  
帝釋을 하야 (월석 21:123) 구루플 브터 (월석 1:32)  
겨지플 절하코 (두언 8:28)

15. 「-를, -를; -을, -을」은 음성적인 조건으로 그 선택이 규정되므로, 한 형태소의 음성적 변이형태이며, 「-르」와 「-를/를」은 임의적 변이 형태이다.

| 앞소리 \ 후소리 | 후소리(개음절) |      | 당소리<br>(폐음절) |
|-----------|----------|------|--------------|
|           | <단순>     | <겹침> |              |
| 앞홀소리      |          |      |              |
| 밝음(양성)    | -르       | -를   | -을           |
| 어두움(음성)   |          | -를   | -을           |

16. 「나모, 구무; 하르, 마르; 아수, 여스」 따위 말이 이 토씨 위에서 변동하는 데 대해서는 p.315 이하 참조.

### (1-3) 위치자리 토씨(위치격 조사)

17. 위치말을 표시해 주는 문법적 방법을 「위치법」이라 하고, 위치법을 나타내는 토씨를 「위치자리 토씨」라 한다.

#### 「-애/에」

18. 대표적인 위치자리 토씨인데, 모음조화의 규칙에 따라 선택된다.

바르래 가느니 (용 2장)  
브르매 아니 뵈씨 (용 2장)  
象頭山애 가샤 (석보 6:1)  
山애 오샤 虛空애 住하시니 (법화 4:167)  
고해 내 마툼 (석보 13:38)  
座애 니디 아니하시니 (석보 13:33)  
하늘해 이셔 (월석 2:14)  
幽谷애 사르샤 (용 3장)  
청나래 讒訴를 드리 (용 12장)  
알뵈 二教애 다르고 (법화 3:44)  
慶興애 사르샤 (용 3장)  
길해 브라스느니 (용 10장)  
밤 後애 쑤메 부텃 모뎡 보스느니 (월석 21:54)  
누네 뵈 븜 (석보 13:38)  
므스게 쓰시리 (월석 1:10)  
中國애 달아 (훈, 언해)  
光音天애 이셔 (월석 1:41)  
願애 어글 報 (월석 21:95)  
陣圖는 몰앓 北嶺 두들겻고 市暨는 瀼西入 뵈그티로다 = 陣圖涉北岸  
 市暨瀼西巔(두언 20:9)



▽여기의 「두들겿고」는 「두들게 잇고」가 줄어진 꼴이니, 「-게」는 /kaj/이기 때문에 뒤의 「잇-」의 /i/가 줄어진 것이다.

#### 「-에」

19. 앞의 소리가 /i/(이)나 /j/(ㅣ)일 때에는 「-에」는 「-예」로 변하는데, 이것은 앞의 /i/, /j/와 「-에」의 /ə/ 사이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과도음이 강화되어 한 음소(반홀소리)로 발달한 것이니, 홀소리충돌을 피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서리에 가샤 (용 4장)

웃넛머리에 다나니라 (훈, 언해)

드리에 뼈딜 므를 (용 87장)

이 둘 아나에 이숯딘댄 (능엄 3:103)

箏入 소리에 늘구를 슬노니 (두언 20:3)

닐웁 스시에 五欲을 므몹 ㅁ장 펴고 (월석 7:2)

놀애에 일흠 미드며 (용 16장)

智力이 상네에 다르실씨 (법화 5:97)

저근 비에 올오리라 (두언 7:2)

月食홀 므더에 ...나니라 (월석 2:2)

그르메에 ...쓰리어늘 (월석 7:23)

#### 20. <붙임>

(i) 「가지」(나뭇가지)의 위치말은 「가지에」이나, 드물게 「가재」가 되는 일이 있다.

가지에(두언 15:4)

즘겿 가재 연즈니(용 7장)

「가재」는 「가지」의 원어형이 「\*갓」이었을 때의 화석이 아닐까 생각된다.

(ii) 「해+에→해+예→화예」와 같은 입자씨의 변동에 대해서는 p.323 참조.

(iii) 때로는, 「惡趣에」(월석 21:120)를 「惡趣에」(월석 21:117)로 표기한 게 보이며, 또 그 반대로 「-에」를 쓸 곳이 아닌데도 「-예」를 쓴 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홀소리충돌을 막기 위함인 듯 하다.

치마에(월석 10:24)

씨예(두언 7:22)

(iv) 「-에」가 그 음성적 환경에 의해서 「-예」로 변동되었다면, 「-애」는 「\*-애」로 변동될 것 같은데, 이러한 변이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21. 「-애」, 「-에」, 「-예」의 쓰임은 음성적 환경으로 설명되므로, 한 형태소의 음성적 변이형태이다.

#### 「-이/의」

22. 원래 매김자리 토씨인데, 일정한 입자씨에 붙어서 위치자리 토씨로 쓰인다. 그리고 이 두 형태는 모음조화에 의해 선택된다.

나지 도드니 (용 101장)

ㅁ술히 霜露ㅣ 와 (월석, 서:16)

바면 비취니 (용 10장)

나조히 녀고 (월석 1:45)

아츠미 說法하시고 (월석 2:26)

알피논 어드본 길헤 (용 30장)

이본 남지 새 뇨 나니이다 (용 84장)

受苦入 놀의 훈가지로 나 (월석 8:25)

밧지 屬하니 (월석 2:22의 1)

뎡 우희 니서 티시나 (용 44장)

員의 지브 가샤 (용 28장)

무티 ...靑蓮花ㅣ 나며 (월석 2:31)

山 미티 軍馬 두시고 (용 58장)

네 아모 저지 부터 드외리라 (월석 1:16)

굼지 드러 이서 (석보 13:10)

東녀지 와 (법화 2:123)

겨티 셔셔 (법화 2:191)

쳐서미 흥번 브리니 (두언 15:3)

두 췌 衆中에 바리 가져 (능엄 3:26)



24. 한자어에도 이 형태가 붙는 일이 있다.

七層燈의 불 혀고 (석보 9:30)

太微宮의 빼오 (월석 2:48)

훈 瓶의 7독거든 (월석 7:9)

師子床이 걸았고 (월석 13:11)

師子床에 걸안자 (법화 2 : 194)

王城에 드르시니 (월석 7:26-7, 천강곡 상, 기 198)

26. 「-」가 위치 자리 토씨처럼 쓰인 예가 있다.

네 荊州 | 오막로 브터 = 自汝到荊府 (두언 8:43)

通州 1로 가느닐 보내노라=送 …赴通州(두언 8: 68-9)

훈 히를 梓州 | 사로라=一年居梓州(두언 중간 2:1)

그의 오히려 荊州 | 와 나그네 客의 앞느니 = 子尚客荊州 (두언 중간 19:30)

그런데, 「」는 모두 「州」에 붙어 있고, 또 「州」 밑에서는 위치말이 아닌 경우에도 「」가 쓰인 예도 보인다.

夔州 | 幽僻한 터서 그르메와 弔問하고=弔影夔州僻(두언 20:4)

이런 점으로 보면 이 「ㅣ」는 자리토씨가 아니라, 단순히 「州」의 발음 일부를 표시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즉 「州」의 ‘자회’ 음은 「쥬」(중 : 8)인데, ‘송강가

그러나 위치자리 토씨 「-애/에, -이/의, -예」에 공통된 요소는 「ㅣ」이니, 기본적으로는 「ㅣ」가 위치자리 토씨였으리란 추측은 가능하다.

27. 원래 「그어귀」에서 나온 말이다. 「그어귀」에서 나온 다른 말들은 아직 임자씨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매인이름씨로 처리되지만, 이것만은 토씨로 보는 수 밖에 없다. (→p.299) 높임의 뜻을 가진 접미 앞의 위치 자리 토씨와 다르다.

부터의 禮數<sup>ᄃᆞᆫ</sup>와 (능엄 2:1)

世尊의 請하스오디 (월석 7: 48-9)

六師의 弟子들토 다 舍利弗의 와 出家하니라 (석보 6 : 35)

부테 文殊師利의 니룩샤디 (석보 9:2)

28. 다음과 같이, 「ㅅ」을 사잇소리처럼 표기한 것은, 「ㄱ」을 아직 어느 정도 독립된 입자처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嫡子入宮 無禮할씨 (용 98장)

定社之聖人귀 (용 99장)

죽갓끼, 아득넋끼 (용 25장)

世尊入의 슬바 (천강곡 상, 기 174)

▽이러한 표기는, ‘용가’나 ‘천강곡’과 같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문헌에 흔히 나타나는 것도 유의할만 하다.

「-라셔」

29. 「-라서」는 원래 출발을 나타내는 위치자리 토씨인데, 끝의 두 예에서는 임자자리 토씨처럼 전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을 표시하는 뜻은 아직 잊혀지지 않았으므로 위치자리 토씨로 보았다. 그리고 이 토씨는 원래 「-라」와 「-서」 두 형태소로 된 말이었을 것이나, 이미 분



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늘해서 飲食이 自然히 오나든 夫人이 좌시고 아모드라셔 온동 모  
르더시니 (월석 2:25)

跋提라셔 阿那律이 득려 날오디 (월석 7:1)

有蘇氏라셔 姐己로 紂의게 드려놀 (내훈, 서:3)

30. 「-라셔」와 같은 뜻을 가진 말에 「-러셔」가 있다.

이 智慧 업슨 比丘ㅣ 어드러셔 오노(월석 17:84)

어드러셔 드스 일로 오시니잇고(월석 8:92)

그디는 어드러셔 오시느니(석보 23:40)

그러나 이것은 「어드-」에만 붙어서 쓰이기 때문에, 한 토씨로서 독립시킬 수  
는 없고, 「어드러셔」를 전체로써 한 낱말로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이 생각된  
다. 그러나 「어드러」가 있으므로 끝의 「-셔」만은 토씨로서 분리된다.

王이 어드러 가시니잇고 (월석 10:14)

네 어드러 가느니오=子何之(두언 8:6)

罪人이 어드러로 들료(월석 23:84)

「-드려」

31. 「드리다」의 활용형에서 파생된 토씨이다. (→p.260)

世尊이 또 文殊師利드려 니르샤디 (석보 9:11)

부테 地藏菩薩드려 니르샤디 (월석 21:48)

놈드려 붙어 날어 (석보 9:21)

彭州牧드려 爲하야 묻노니 =爲間彭州牧(두언 21:19)

「-히」

32. 다음의 「우리히도」는 ‘우리에게도’의 뜻이므로, 「-히」는 위치자  
리 토씨로 보아지나, 오직 한 용례밖에 찾지 못했다. 우선 토씨로 보아  
두고 뒷날의 고증을 기다리기로 한다.

부테 이에 와 滅度하실쥔당 우리히도 스승니미실씨 (석보 23:52)

#### (1-4) 견줄자리 토씨(대비경 조사)

33. 견줄말(대비어)을 표시하는 문법적 방법을 「견줄법」이라 하고, 견  
줄법을 나타내어 주는 토씨를 「견줄자리 토씨」라 한다.

「-과/와」

34. 홀소리와 /ㄹ/ 밑에서는 기본형태의 /ㄱ/이 줄어진다.

길 넵 사람과 마티 너기시니 (석보 6:5)

壞劫 空劫 스시 成劫 住劫과 흥가지라 (월석 1:49)

微塵과 존하야(능엄 5:68)

西方極樂世界와 존하야 (석보 9:11)

一切有情이 나와 다르디 아니케 호리라 (월석 9:14)

一切種智와 존하시니라 (원각, 1-2:54)

닐음과 서르 존하니라 =與說와 相類하니라(능엄 2:117)

농양즈는 아히 時節와 엇더노 (능엄 2:5)

35. 「누」(누구)에 이 토씨가 붙을 때는 「\*누와」가 되지 않고, 「닐와」  
가 된다.

닐와 보리오=誰看(두언 6:15)

닐와 다못하야=共誰(두언 20:8)

닐와 하야 이 믇숨 니르료=同誰하야 話此心고(남명, 상:66)

世間엿 이룬 닐와 다못 議論하노노=世事與誰論(두언 21:23)

이 어형의 /ㄹ/은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했으니, 뒤  
에 나오는(→p.363) 「날와」도 이와 한가지다.

「-과로/와로」

36. 위의 토씨에 「-로」가 붙어서 견줄말을 나타내게 되는 일이 있는  
데, 이 경우의 「-로」는 뒤에 나오는 방편자리 토씨와 그 성질이 다르다.

사람과로 흥뻬 살며 또 흥뻬 주그리라 =與人同生亦同死(두언 16:42)

몸과 므슴과로 다르도다 =與身心과로 異矣로다(능엄 2:46)

「몸과」의 「-과」는 연결토씨이다. (→p.361)

너희들히 …내이 드리운 손과로 흥가지라 (능 2:19)



身은 觸과로 혼가지라 (능엄 6:57)

늑숫는 늑고 큰 三萬匹이 다 이 圖엿 筋骨와로 존더라 = 騰驤磊落三萬匹 皆與此圖筋骨同(두언 16:39)

文字와로 서르 스뫓디 아니 흘씨 = 與文字不相流通(훈, 언해)

곳다오른 歲時와로 다오 窈다 = 香與歲時闌(두언 16:74)

能히 物와로 골와 = 能與物로 爲等하야(금강 3:26-7)

「-두고」

37. 이 토씨는 풀이씨 「두다」에서 파생된 것이다. (p.261 참조)

受苦르 地獄두고 더으니 (월석 1:21)

光明이 地獄두고 더으니 (월석 1:26)

히미 常例入 一百象두고 더 세며 (월석 1:28)

웃사름두고 더은양 하야 (석보 9:14)

業力이 甚히 커... 바를두고 기프며 (월석 21:78)

지운 거시 百斤두고 더으거든 (월석 21:106)

히요미 珂雪두고 더으샤미 (법화 2:13)

「-으라와」

38. 홀소리와 /르/ 밑에서 고름소리는 줄어진다.

健壯하 男兒 | 서근 선비라와 느도다 = 健兒勝腐儒(두언 6:40)

貪欲엿 브리 이 블라와 더으니라 (월석 10:14)

불비츠로 莊嚴호미 日月라와 느러 (석보 9:4)

그 뫓히 구름 존하야 브르므라와 썰리 古仙山애 가니라 (월석 7:32)

흔 아드리어나 ...흔 겨집종이어나 브러 부텃기 出家하야도 ...浮圖

寶塔 세요므라와 더어 (월석 23:76)

「-이라와」

39. 고름소리 대신 /이/를 가지는 일이 있는데, /이/는 홀소리 밑에 서도 줄어들지 않는다.

빠러듀미 蒲柳 | 라와 문제로다 = 凋喪先蒲柳(두언 18:18)

흰 盃入 비치 서리와 누나라와 더으니 = 白盃勝霜雪(두언 16:60)

다른 ㅁ을히 넷 ㅁ을히라와 도토다 = 他鄉勝故鄉(두언 8:35)

빅 사르미 싸미라와 더으고 = 梨勝頰(두언 20:9)

버들개야지 소오미라와 히요물 = 柳絮白於縣(두언 23:23)

40. 「-으라와」와 「-이라와」는 완전히 동시에 쓰였던 것이 아니라, 앞의 인용 문헌으로 보면, 시대적인 차이가 약간 있었던 것이 아닐까 보아진다.

「-으라와」 > 「-이라와」

그러나 이 정도의 시대적 차이는, 공시적 동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임의적인 변동형으로 보기로 한다.

41. 「눌와」와 같이, 「이(이것)」, 「너」 따위 말에 있어서도 /르/이 덧나는 일이 있었던듯 하다.

☆넬라와 시름 한 나도(악장가사, 청산별곡)

☆사르미 일라와 甚호미 잇느니 = 人有甚於斯(두언 중간 2:70)

「-으론」

42. ‘보다’의 뜻을 가졌다.

스물힌 時節에 열힌제론 衰하며 = 二十之時에 衰於十歲하며(능엄 2:8)

各別히 勞力호므론 더으니라 = 由勝別勞心(금강삼가 4:30)

묻노라 즈조 朝謁호므론 便安히 나지 즈오름과 엇더하니오 = 借問頻朝謁 何如穩晝眠(두언 20:10)

43. 다음과 같은 예들의 「-론」은 「-로」(방편자리 토씨)와 「-ㄴ」(도움토씨)의 연결이다. (→p.402)

안하론 想을 조차 이어고 = 內則隨想搖(능엄 2:20)

「-이」

44. 「존-, 혼가지-」 위에서 견줄을 나타낸다.

드리 즘은 ㅁ르매 비취요미 존하니라 (월석 1:1)



비치 히오 불구미 몃 頭腦] 마득니라 (월석 1:23)  
 出家한 사르문 쇼히 곤디 아니하니(석보 6:22)  
 執杖釋의 쏘이 金像이 곤하샤 (천강곡 상, 기 37)  
 仁은 우희 仁者]라 호미 훈가지니 (석보 13:25)  
 훈 늙 病한 사르미 더 훈 나라히 훈가지며 =一病目人이 同彼一國하며  
 (능엄 2:92)

### (1-5) 방편자리 토씨(방편격 조사)

45. 방편말을 표시하는 문법적 방법을 「방편법」이라 하고, 방편법을 표시해 주는 토씨를 「방편자리 토씨」라 한다.

#### 「-으로」

46. 방편자리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토씨이다.

衆生이 거죽 일로 沙門이 두외야 (월석 21:40)  
 싸히 열 여덟 相으로 뉘며 (월석 2:13)  
 右脇으로 드르시니 (월석 2:17)  
 化身은 變化로 나신 모미라 (월석 2:54)  
 七寶로 꾸미고 (월석 2:27)  
 香水로 싸해 쓰료문 (월석 13:14)  
 度量升斗로 物을 量度하야 (월석 9:7)  
 히로 變하며... 들로 化하며 (능엄 2:7)  
 栴檀香기 줄으로 보르고 (석보 6:38)

47. 「나」에 있어서는 /ㄴ/이 덧붙는다.

엇메 날로 이에 니를어노 =何...使我至此(법화 2:240)

날로 히여 마마니 녀슬 뉘우느다 =使我潛動魄(두언 8:19)

「나, 너, 누, 이」 따위에, 주로 /ㄴ/을 첫소리 삼은 토씨가 붙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 「-으록」

48. 앞의 토씨에 강세의 /ㄱ/이 덧붙은 꼴이다.

어딘 工匠이 네록 저그니 =良工古昔少(두언 18:19)

어딘 버든 네록 서르 사피노라 =良友昔相於(두언 20:44)

호미 메여 아히록 몬져 가 =荷鋤先童稚(두언 18:9)

오늘록 後에 (월석 21:119)

49. 이 토씨도 「나, 이」 밑에서는 /ㄴ/이 겹쳐진다.

文章은 다 날록 몬져로다 =文章並我先(두언 20:6)

일록 몬져 四品將軍이러니 =先是四品將軍(육조, 상:35)

50. 위에 풀이한 첫째자리 토씨는 모두 풀이말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표시해 주는 것이므로 대부분은 다음에 풀이말이 연결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그 모든 용법이 죄다 그러한 것은 아니어서,

오늘록 後에 (월석 21:119)

일록 몬져 (육조, 상:35)

와 같은 예에서는 예외적인 용법도 나타나는 일이 있다.

× × ×

51. 이상에서 보인 첫째자리 토씨의 용법들은, 그 전형적인 것을 들어보인 것인데, 자리토씨의 용법은 이렇게 간단명료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용법이 매우 다양적이며, 때로는 그 쓰이는 범위가 서로 겹쳐지는 일도 있어,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일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통어론에서 논의 될 것이다.

### (2) 둘째자리 토씨

—매김자리 토씨—

1. 제이차 기능을 표시하는 문법적 방법을 「둘째 자리법」이라 하고,

2. 토씨



둘째 자리법을 표시해 주는 토씨를 「둘째자리 토씨」라 하는데, 이에는 매김말을 표시해 주는 「매김자리 토씨」(관형격 조사)가 있을 뿐이다.

# 「-이/의」

## 2.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 선택된다.

종이 서리에 (두언 25:7)

밧긔 사르미 嫌猜를 두디 말라 =勿受外嫌猜(두언 8:33)

須達의 아들(천강곡 상, 기 149)

그 사르미 손디 오샤 (월석 8:55)

佛道 | 값간도 사르미 게 머디 아니하며(법화 3:180)

느미 게 다르니 =尤異(두언 8:19)

徐卿의 두 아드리 (두언 8:24)

麒麟의 샷기로다 (두언 8:24)

부디 양즈 =筆勢(두언 8:25)

大衆의 거긔 늬 위하야 고희내 니르며(석보 19:8)

公候의 거긔 奇異한 사르미 나느니라=公候出異人(두언 21:20)

## 3. 입자씨의 끝소리가 /이/인 경우에는 /이/ 끝소리는 줄어진다. (→p. 320 이하)

# 「-」

## 4. 입자씨의 끝이 홀소리인 경우에만 쓰인다.

長者 | 지비 (월석 8:81)

臣下 | 말 (용 98장)

長者 | 아드리 (월석 21:18)

公州 | 江南(용 15장)

相如 | 뜰 (두언 15:35)

長者 | 쫄 (천강곡 상, 기 63)

쇠 머리 (월석 1:27)

쇠 저즈로 (능엄 3:26)

쇠 일후미오 (월석 10:117)

쇠 게셔 나니 저지오 (금강삼가 3:39)

아미 짓 門 =誰家(두언 8:32)

내 모미 長者 | 怒를 맞나라 (월석 8:98)

내 님금, 내 百姓 (용 50장)

네 말 마드니라 (석보 9:22)

네 지븐 =爾家(두언 21:21-2)

제 님금 (용 105장)

제 뜨들 (훈, 언해)

제 모물 =其身(두언 7:24)

넌 지비셔 =誰家(두언 16:50)

넌 弟子 | 다 (법화 7:135)

5. 「-」가 홀소리 밑에서만 쓰이는 것을 보면, 앞의 「-이/의」와 상보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여쭙 생각된다. 그러나 「公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두가지 토씨를 아주 다른 형태소로 보기도 어렵다. 뜻이 꼭 같을뿐 아니라, 어원적으로는 「」 앞의 「으/으」는 고름홀소리(조성모음)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이/의」와 「-」를 음성적인 변이형태로 보지 않고, 형태적인 변이형태로 가정해 두기로 한다. 「-」가 붙는 낱말의 종류가 국한된 범위의 입자씨인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6. 「나, 너」의 매김말은 「내, 네」인데, 때로는 두가지 토씨 「-」와 「-이/의」가 겹쳐지는 일이 있다. (이것은 아마 매김말임을 강조하려는 심리작용에 기인함인듯 하다.)

네 이제 내의 母陀羅手를 보라 =汝 | 今에 見我的 母陀羅手하라 (능엄



2:13)

내의 드리운 손 = 我의 垂手(능엄 2:19)

내의 眞性, 네의 眞性(능엄 2:35)

네의 스승 = 汝師(두언 16:13), 내의 브든 = 客意(두언 8:37)

7. 「-의/의」를 가진 매김말이 다음에 오는 풀이말에 대해서 속뜻으로 의(속구조에 있어서의) 임자말이 되는 일이 있는 데 대해서는 앞에서(→ p. 321) 설명한 바인데, 이런 경우에 「내, 네」를 쓴 예는 보이지 않고, 모두 「내의, 네의」 형이 쓰이고 있다.

네 이제... 내의 地藏菩薩入 不思議利益 이틀 펴니르거든 듣고져 하느니 (월석 21:158)

十方諸佛이 慈悲로 나를 어엿비 너기샤 내의 어미 爲하야 發혼 廣大誓願을 드르쇼셔 (월석 21:57)

네 내의 ... 罪苦衆生을 度脫하거든 보느니 (월석 21:34)

네의 어미 그려호미 상넛 브넛 衆生에서 倍홀찌 (월석 21:22)

내의 衰老호든 = 我衰(두언 22:27)

네 내의 ... 度脫하논 이틀 보느니 (석보 11:7-8)

내의 蹉跎호 ㅁ슴들 시러곰 慰勞하듯다 = 得慰蹉跎(두언 21:23)

이 말에 있어서는, 「내의」를, 「蹉跎호」에 대한 속구조의 임자말로 보는 것보다, 「蹉跎호 ㅁ슴」에 대한 매김말(속구조에 있어서나, 풀구조에 있어서나 다 같이)로 보는 것이 좋다.

### (3) 세째 자리 토씨

— 부름자리 토씨 —

1. 제삼차 기능을 표시하는 문법적 방법을 「세째 자리법」이라 하고, 세째 자리법을 표시해 주는 토씨를 「세째자리 토씨」라 하는데, 이에는 홀로말을 표시해 주는 「부름자리 토씨」(호격 조사)가 있을 뿐이다.

「-아」

2. 홀소리나 닿소리 아래 두루 쓰인다.

彈勒아 아라라 (석보 13:29)

大王아 네 일즉 업디 아니하야셔 (능엄 2:4)

阿難아 이 諸佛入 甚히 기픈 헝더기라 (석보 9:28)

大德아 아피나 病호 사르미 (석보 9:32)

舍利弗아 ... (석보 13:39), 常精進아 ... (석보 19:14)

光目아 네 大慈愍하야 (월석 21:58)

善男子들하 ... = 善男子아(능엄 2:15)

「-돌하」의 「-하」는 뒤에 나오는 높임의 「-하」가 아니라, 「-돌하」의 끝 /ㅎ/이 초성으로 내려붙은 것이다.

善男子아 네... (월석 8:57)

富樓那아 네 닐음 존하야 (능엄 4:9)

佛子 文殊아 모든 疑心을 決하고라 (석보 13:25)

阿逸多아 그... 功德을 내 닐오리니 (석보 19:2)

文殊아 아라라 (석보 13:29)

比丘아 알라 (월석 17:14)

내 이제 늘거 才力이 사오나오니 潮아 潮아 네게 엇데 하료 = 我今衰老才力薄 潮乎潮乎奈汝何(두언 16:16)

「아기」의 부름말은 「아가」이다.

아가... 받드기 마조 보리어다 (월석 8:101)

아가 아가... (월석 23:87)

「-야」

3. 위의 「-아」는 홀소리나 닿소리 밑에 두루 쓰이는데, 「-야」는 홀소리 밑에서만 쓰이고 있다.

長者야 네 이제... (월석 21:107)

堅牢야 네 큰 神力을... (월석 21:151)



阿逸多야... (월석 17:24), 得大勢야... (월석 17:79)

橋曼彌야... (법화 4:187), 宿王華야... (월석 18:44)

善哉 善哉라 須菩提야 (금강삼가 2:6)

한문토로서 닿소리 밑에 「-야」가 쓰인 예가 보이는데, 이것은 잘못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是故諸人야 我今快樂과라=이런도로 사롭<sup>들</sup>하 내 이제 흰히 즐겁과라 (법화 2:137)

4. 「-아」는 홀-닿소리 밑에 두루 쓰이고, 「-야」는 홀소리 밑에만 쓰이는 것으로 보면, 「-야」는 홀소리 밑의 「-아」가 홀소리충돌을 피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변화한 어형이라 보아지는데, 이 경우에 「-아」와 「-야」가 임의로 변동되었던 것인지, 혹은 어떠한 함축된 뜻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 뒤의 역사적 변화에 있어서는 홀소리 아래서는 「-야」가 결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홀소리 밑 — 「-아」 > { 「-아」 } > 「-야」

닿소리 밑 — 「-아」 > 「-아」 > 「-야」

「-이여」

5. 앞의 「-아」와는 약간의 뜻의 차이가 있었던 듯 하여, 이 토씨는 애무를 표시하거나, 감탄을 나타낼 때에 쓰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는 홀소리 밑에서는 줄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도타 文殊師利야 네 大悲로 니르고라 (월석 9:9)

究羅帝야 네 命終한다 (월석 9:36상)

得大勢야... (석보 19:26)

어딜써 觀世音이여 (능엄 6:65)

도호시며 도호실써 大雄世尊이여 =善哉善哉실써 大雄世尊이여 (법화 5:94)

峽 안해 와 머므는 나그내여 시냇 ㅁ새 너덧 지비로다 =峽內淹留客 溪邊四五家(두언 15:28)

6. 위의 끝 몇가지 예는 감정이 고조된 것들인데, 이렇게 되면 무생물을 나타내는 말 밑에도 쓰이게 되며, 또 이 경우에는 홀소리 밑에서 「이」가 반모음으로 남는 일도 있다.

鄭公의 四代엿 孫子ㅣ여 (두언 22:41)

便安히 잇는가 高詹事ㅣ여 (두언 21:12)

우는 聖女ㅣ여 슬허 말라 (월석 21:21)

窮子ㅣ 놀라 怨讐ㅣ여 호야 (월석 13:16)

닥대여 막대여 네의 나미 甚히 正直호니 =杖兮杖兮 爾之生也甚正直 (두언 16:57)

쉽고 애받븐 쁘디여 누를 가줄밧가 (천강곡 상, 기 143)

7. 이렇게 되면 부름의 뜻보다는 감탄의 뜻만이 남게 된다.

快타 이 무루미여 =快哉라 此間이여 (능엄 8:67)

크실셔 君王入 德이여 =大哉라 君王之德이여 (내훈 2상:30)

一時에 오놋 나췌 會集이여 =一時今夕會(두언 15:52)

울호시다 부터 니르산 배여 =誠哉라 佛所說이여 (금강삼가 2:63)

통담 議論도 오히려 어즈럽곤 호물며 親近호미여 =戲論도 尙亂호곤 況親近乎ㅣ여(법화 5:13)

도홀써 도홀써 오놋낫 果報ㅣ여 (월석 23:82)

... 何況有人이 盡能受持讀誦호미여 (금강삼가 3:1)

法尙應捨ㅣ어니 何況非法이여 =法도 오히려 받들기 벅할터어니 호물며 非法이췌녀 (금강 39)

8. 「-야」는 보통 부름이고, 「-이여」는 애정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두 토씨의 용법을 혼동한 것 같이 보이는 용례도 나타난다.

또 버거 須菩提야 =須菩提야(금강 22)

▽한문 본문에는 「-야」가 쓰였고, 번역문에서는 「-여」가 쓰여 있는데, 이



러한 것은, 한문토를 단 사람과 번역을 한 사람이 달라서, 두 사람의 이  
말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다른 데서 온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두가지 토씨의 용법 사이에 엄격한 간막이가 없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보물 늑살도 못보거니 호미여 = 視不親睫거니 況渺冥  
乎 | 야(법화 4: 53)

이 예도, 앞의 예와 같은 방법으로 해명될 수 있다. 그리고 「-야」는 「|」  
를 취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여」에 유추되어서 「|」를 취하고, 따라서  
감탄의 뜻을 아울러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9. 그리고 또 「-이여」가 말 끝에 나타나는 경우는 월을 끝맺는 토씨  
로 볼 수 있으나, 부름토씨는 원래 월을 끝맺는 데에 봉사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월을 끝맺는 토씨의 한가지로 보지 않는다.

「-하」

10. 아주높임의 뜻을 가진 부름토씨로서, 홀-닿소리 밑에 두루 쓰인다.

넴금하 아루쇼셔 (용 125장)

세尊하 날 爲하야 니루쇼셔 (월석 1: 17)

大王하 아루쇼셔 (월석 7: 18)

울하시이다 세尊하 = 唯然 세尊하 (능엄 4: 9)

아니이다 세尊하 = 不也 세尊하 (능엄 2: 10)

大德하... 오쇼셔 (석보 6: 29)

南無佛陀하 나를... 드려가쇼셔 (월석 7: 14)

부터하 救하쇼셔 (월석 7: 24)

聖母하 願하든 드르쇼셔 (월석 21: 38)

父母하 出家하 利益을 이제 하마 得하과이다 (석보 11: 37)

### 3) 연결토씨

말과 말의 관계를 맺어 주기는 하나, 그 말의, 월성분으로서의 일장  
한 자리(격)를 표시해 주는 일이 없이, 단순히 같은 기능을 가진 두

말을 연결해 주기만 하는 문법적 방법을 「연결법」이라 하고, 연결법을  
나타내어 주는 토씨를 「연결토씨」라 한다.

연결토씨에는, 낱말과 낱말을 연결해 주는 「낱말연결 토씨」와, 월이  
나 마디를 서로 연결해 주는 「마디연결 토씨」가 있다.

### (1) 낱말연결 토씨

「-과/와」.....「-과/와」

1. 홀소리와 /ㄹ/ 밑에서는 /ㄱ/이 줄어진다. 연결되는 말에 되풀이  
해서 다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끝의 말에는 붙이지 않는 일도 있다. 그  
리고 이 토씨로 연결된 말은 통어론 상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되나, 그것  
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게 될지를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 (이 특색은 모  
든 연결토씨에 공통적이다.) 이것이 전준자리 토씨의 「-과/와」와 다른  
점이다. (→p.349)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도하며 (석보 19: 7)——입자말

구름 울음과 새 늑롬과 브름 뒤움과 드름 니름과 나모와 피와 내과  
프성귀와 사름과 중성패 다 物이라 너 아니니라 (능엄 2: 34)——입  
자말

威嚴과 德과 自在하야 (석보 9: 19)——입자말

果實와 물와 좌시고 (월석 1: 5)——부림말

아드려 ㅅ슴과 힘과 기로든 = 褒子心力(법화 2: 213)——부림말

저와 늑과를 어즈려 (석보 9: 16)——부림말

二儀는... 하늘과 싸과를 니르니라 (석보 19: 13)——부림말

冤讎와 아슴과애 ㅅ슴미 平等하야 (월석 10: 31)——위치말

피와 ㅅ룩매 사호매 吹角人 소리 슬프도다 = 山河戰角悲(두언 8: 47)  
——위치말

물와 물과애 다 나사가리라 = 水陸에 並進也하리라(몽산 38)——위치말

몸과 ㅅ슴과로 다르도다 = 與身心과로 異矣로다(능엄 2: 46)——전준말



▽「몸과」의 「-과」만이 연결토씨이고, 「마음과로」의 「-과로」는 전준자리 토씨이다. 앞의 「-과」는 「몸」과 「마음」을 연결해 주고, 뒤의 「-과로」는 이 연결된 말을 전준말로 기능하게 해 준다. (→p.349)

師 | 悅師와 祖師와로 날 爲하야... 더를 다시 지소려 호물 드로니 (상원사 권선문)——전준말

▽앞의 경우와 그 뒤됨이가 같다. 그리고 이 말이 전준말이 되는 것은 ‘함께 함’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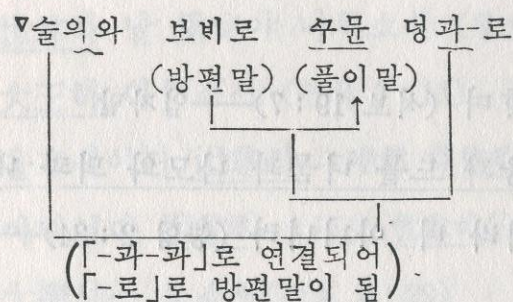
집과 소음과로 褥 밉골오 (법화 2:140)——방편말

▽이 말의 됴됨이는 앞의 두 예와 다르다. 이것은, 「-과...-과」가 연결토씨가 되어 이 두 말을 연결한 뒤에, 「-로」(방편자리 토씨)로써 방편말이 된 것이다.

구리어나 ... 옷과 뵈와로 佛像을 꾸미스바도 (석보 13:52)——방편말

▽위의 예와 같이, 「-과 ...-과」는 연결토씨, 「-로」는 방편자리 토씨이다.

술위와 보비로 꾸문 덩과로 즐겨 布施하야 (석보 13:19)——방편말



사람과 소년 性을 무려 알며 =問知人客姓(두언 8:47)——매김말

臘은... 새와 네와의 交接이라 (월석 21:5)——매김말

선비와 호반과의 衣冠이 넷 時節와 다르도다 =文武衣冠異昔時(두언 6:8)——매김말

하늘과 싸왓 스시에 (두언 8:47)——매김말

智와 定갓 히미 (법화 2:153)——매김말

眞語와 實語와여 呵呵呵 喏喏喏 | 로다 =眞語者實語者여 呵呵呵喏喏喏 | 로다(금강삼가 3:38)——홀로말(부름말)

諸根은... 눈과 귀와 고과 혀와 몸과 膊과라 (석보 6:28)——풀이말

▽「-과 -과 -과」로 연결된 말에 「-이라」가 붙어서 풀이말을 만들고 있다.

三寶는 佛와 法과 僧과라 (석보, 서:6)——풀이말

骨肉은 뼈와 살과라 (월석 21:66)——풀이말

2. 「누」+「-과」에 있어서 /ㄴ/이 덧나서 「날와」가 되듯이(→p. 349), 「나」+「-과」에 있어서도 /ㄴ/이 덧나서 「날와」가 되는 일이 있다.

四衆이 올워러 仁과 날와 보느니 (석보 13:25)

世尊이 날와 俱絺羅를 마르치샤=世尊이 教我及俱絺羅하샤(능엄 5:56)

날와 多寶如來와 또 諸化佛 본디 드외니라 (법화 4:140)

그러나 「나와」를 쓴 데도 있다.

나와... 化佛을 보미 드외니라 (법화 4:140)

이러한 예는 부림자리 토씨의 「-ㄴ」과 「-과」가 겹쳐진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으나, 연결토씨 「-과」와 부림자리 토씨가 겹쳐질 때는, 연결토씨가 앞서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p. 396), 여기에 나타나는 「날와」는 앞에 보인 「날와」와 같은 어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너, 누, 이, 그」 따위 말은 흔히 /ㄴ/을 붙이는 버릇이 있는데(→p. 351), 그 이유는 잘 해명되지 않는다.

「-하고」

3. ‘그 위에 또’란 뜻을 나타내며, 두 말을 한 성분으로 묶어 준다.

夫人도 목수미 열들하고 닐웨 기터 겨샷다(월석 2:13)——임자말

하늬 둘에 三百六十五度하고 또 度를 네헤 눈호아 하나히니 (능엄 6:16-7)——풀이말

▽365도에 輪도를 더했다는 뜻이니, ‘度를 네헤 눈호아’는 괄호 안에 넣어 서 생각하면 된다.

「-이며」……「-이며」

4. 벌여놓는 뜻을 나타내면서, 두 말을 한 성분으로 묶어 주며, /이/는 임자자리 토씨와 같은 형태 변동을 일으킨다. 마지막 말에서는 「-이며」를 붙이지 않는 일이 많으나, 붙이는 일도 있다.

眷屬은 가시며 子息이며 종이며 집안 사르물 다 眷屬이라 하느니라 (석보 6:5)——부림말



나라히며 가지며 子息이며 내 몸 니르리 布施하야도 (석보 6:8)——  
위치말

모든 사르미 막다히며 디새며 돌호로 떠든 (석보 19:31)——방편말

草木이며 벌에며 불바 주길까 호는 브디라 (석보 11:1)——부림말

조이며 臣下이며 百姓이 만호며 (월석 13:7-8)——임자말

圓光이며 化佛이며 寶蓮花는 우희 니르듯 하니다 (월석 8:45)——  
임자말

天人師는 하늘히며 사르미 스스이시다 호는 마리라 (석보 9:3)——  
매김말

이 妙境은 네며 이제며 속절업시 제 分明홀시라(남명, 하:34)——  
위치말

네며 이제 마디 아니호느니 =古今不息(법화 2:244)——위치말  
「-이여」……………-이여」

5. 벌여놓는 뜻을 나타내며, 연결되는 말마다 반복해서 「-이여」를 붙인다.

닐곱 히 도드면 뵈히여 돌히여 다 노가디여 (월석 1:48)——임자말

나랏 사르미 굴그니여 허그니여 우디 아니호리 업더라 (월석 10:12)  
——임자말

王이… 네가짓 兵馬를 얻고져 하샤 一千이여 一萬이여 無數히 얻고  
져 하샤도 (월석 1:27)——부림말

善容이… 沙門이 득외야 나지여 바미여 修行하야 (석보 24:30)——  
위치말

나지여 바미여 기리 스랑하야 =夙夜永懷(내훈, 2하:17)

6. 이것은 「-여」로 축약되는 일이 있다. (/ijə/→/-jə/)

내이제 나저 바며 시름호노니 =我今日夜憂(두언 8:29)——위치말

나저 밤여 겨를 업시하야 =晝夜弗遑(내훈 3:6)——위치말

## (2) 마디연결 토씨

1. 하나의 완결된 월에 붙어서, 두 월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별다른 뜻 없이 마디를 연결해 주는 토씨를 「마디연결 토씨」라 한다.

「-마른」

2. 완결된 월에 붙어서, 뒤집는 뜻을 나타내면서 월을 연결해 준다.

果와 因과 어듭디 아니호도다마른 能히 四句偈를 펴면 =果因이  
不昧로다마른 能宣四句之偈하면(금강삼가 2:72)

그디내 췌비사 오도다마른 舍利사 몸 어드리라 (석보 23:53)

몇 더위를 江風이 여러 날 닐어노마른 고기 낚는 비 돛는다 듣디 못  
호라 =幾度江風이 連日起오마른 未聞沉却釣魚船호라(남명, 상:40)

노니는 아드론 몇마 췌이 고해 붙어든 듣거노마른 년즈시 本來心  
스물 일허브리듯다 =遊子는 幾聞香撲鼻오마른 等閑히失却本來心이로다  
(남명, 하:34)

導師 | 慈悲로 濟渡하샤 몇마 苦로외며 브즈런커시노마른 愛河에 잠  
간 낫다가 도로 잠는다 =導師 | 悲濟는 幾辛苦고마른 愛河에 暫出하야  
還沉沒호느다(남명, 하:31)

劫火를 몇마 디내야노마른 사만 이 곧호도다 =幾經劫火하야노마른 長  
如此호도다(남명, 상:31)

몇마 눈과 서리의 萬木을 뼈러디게 호물 보아노마른 虛空에 서리며  
軒檻에 소사나 가지야 퍼러호도다 =幾見雪霜이 凋萬木고마른 盤空聳檻  
하야 更青青호도다(남명, 하:72)

도라을 期約은 엇데 오라리오마른 여희는 브든 막츠매 感激호노라  
=歸期豈爛熳 別意終感激(두언 8:20)

엇데 모미 니췌 주리 업스리오마른 世間엇 艱難호며… 큰 劫에 켜  
디여 잇다가도 기티디 아니호론 누 記를 주노 (월석 13:59)

엇데 正位 아니리오마른 … 殊勝境界 엇데 업스리오 (월석 13:59)

엇디 教 니피샤미 時를 득디 아니호시료마른 노폰 會에 足히 覈實  
호미 업스시니 =豈非教被乘時시료마른 無足覈其高會시니(법화, 서:13)

3. 「-마른」의 /ㄹ/은 ‘내훈’에서부터 /ㄴ/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프스글 求하야 못 得호며 프스글 호고져 하야 못 일우리오마른 後主 되



서 닐오더=何求不得이며 何欲不遂 | 리오마는 乃與後主로 言호되 (내훈 3: 55-57)

妾은 엇데 王의 得寵호요물 호오사코져 아니호리앗고마는 妾은 드로나 =妾은 豈不欲擅王之寵愛哉리잇고마는 妾은 聞(내훈 2상: 20)

4. 앞의 월은 뒤집음의 뜻을 가진 물음꼴(물음꼴이기는 하나,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뜻을 강조하는 활용형)로 끝난 것이 많은데, 그것은, 「-마론」이 뒤집음의 뜻을 가졌기 때문이다.

「-컨마론」

5. 주로 마디 사이에 들어가서, 별다른 뜻을 더함이 없이, 그 연결에 여유를 주게 한다.

悲로 舍生을 教化호샤미 곧 업디 아니호시나컨마론 能과 所왜 반독 호거니와 =悲化舍生이即不無 | 나 爭乃能所 | 歷然커니와(금강삼가 2: 13)

기퍼 測量호미 어려우나컨마론 頭頭에 상네 現露호니라 =深難測이나 爭奈頭頭에 常現露호니라(금강삼가 3: 27-8)

비록 陽和의 힘을 비디 아니호나컨마론 桃花 | 혼 양조로 불그니라 =雖然不備陽和力호나 爭奈桃花一樣紅이니라(금강삼가 4: 3)

定이라 니르고져 호나컨마론 비취요미 어즐티 아니호고 慧라 니르고져 호나컨마론 괴외호야 뭐디 아니호니 (남명, 상: 45)

호다가 一定호야 잇다 닐을던컨마론 이솜 아니오 =若定說有 | 덴 爭奈非有 | 오(금강삼가 2: 41)

호다가 닐오더 이 用을 即다 홀딘던컨마론 相 긋고 일흠 여희며 =若道即此用인덴 爭奈絕相離名이며(금강삼가 3: 32)

아츠미 못드록 넷 길헤 사르물 불러 녀라커늘컨마론 모록는 무리 荒草를 스랑호느다 =終朝古路에 喚人行커늘 爭奈迷徒 | 戀荒草호느다(남명, 하: 39)

어르미 오오로 이 프리어늘컨마론 모든 사르미 能히 먹디 아니홀사 (남명, 하: 58)

6. 이상은 마디 사이에 들어간 예이나, 마디를 이루지 못한 말 다음에 쓰이는 일도 있다.

비록 그러나컨마론 눈 알피어니 엇데 호료 =雖然恁麼 | 나 爭奈目前이여니 何오(금강삼가 2: 62-3)

色聲이컨마론 目前이여니 엇데 호료 =色聲이 爭奈目前이여니 何오(금강삼가 2: 63)

象과 물와 툃기와 세히컨마론 다르니 =象馬兔三이 爭奈異호니(금강삼가 5: 19)

#### 4) 물음토씨

1. 의문의 뜻을 나타내면서 월을 끝맺는 문법적 방법을 「물음법」이라 하고, 물음법을 나타내는 토씨를 「물음토씨」라 한다.

물음토씨는 풀이말로 기능하는 말에 붙게 되나, 그 제일차적인 의의는 ‘의문’을 나타내는 데 있으므로 이것은 자리토씨에 넣지 않는다.

2. 물음법에는 두가지의 하위범주가 있다. 하나는, 분명히 의문임을 나타내는 말(물음말)을 포함한 월에 쓰이는 것과, 다른 하나는, 물음말을 포함하지 않은 월에 쓰이는 것이다.

##### (1) 고-물음 토씨

1. 물음말을 포함한 물음법을 「고-물음법」이라 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토씨를 「고-물음 토씨」라 한다.

「-고/오」

2. 홀소리와 /ㄹ/ 밑에서, 원칙적으로 /ㄱ/이 탈락한다.

얻는 藥이 므스 것고 (월석 21: 215)

이 엇던 光明고 (월석 10: 7)

이 엇던 사름고 (법화 2: 28)

엇던 因緣으로 일후미 常不輕고 (월석 17: 82)

엇데 本來入 因고 =云何本因고(능엄 2: 29)

어느 이 볼고 =何者 | 是見고(능엄 2: 48)



물 우희 넌 짓 넋 힐 郎고 = 馬上誰家白面郎(두언 25:18)

그 엇던 싸코 = 其何土耶오(법화 5:165)

어른어른 너는 깊 스시에 넌 이 나홀 기리 살 사를고 = 冉冉征途間  
誰是長年者(두언 6:1)

人生을 잇비 돈노론 다못 언만고 = 勞生共幾何(두언 22:26)

「-만」은 매인이름씨. (→p. 286)

그디 子息 업더니 므쑤 罪오 (월석 1:7)

넌 이 靑雲 서리엿 器具오 = 誰是靑雲器(두언 16:18)

물 일흠과 라귀 일흠과 멧 온가지오 = 馬字驢名이 幾百般고 (금강삼가 4:40)

사호매 서르 맛나몬 쑤 언느 날오 = 戎馬相逢更何日(두언 21:16)

大凡今디 이제 넌 이 무레 特出호 雄傑오 = 凡今誰是出群雄(두언 16:12)

섯근 거시 므습 얼굴오 = 雜호거시 何形像고(능엄 2:97)

3. 물음의 어찌씨에 붙어 물음을 나타내면서 일을 끝맺는 일도 있다.

日輪에 도라가느니 엇메오 = 還日輪호느니 何以故오(능엄 2:29)

純과 雜과 저기 다르니 엇메오 (월석 14:65)

조조 바미 어드록고 묻노라 = 數問夜如何(두언 6:14)

「\*어드록」이 단독으로 쓰인 예가 보이지 않으나, 이 말도 분명히 어찌씨  
이다.

4. /ㄱ/ 탈락 규칙은 여기에서는 그리 엄격하지 않아서, 홀소리 밑에  
서도 「-고」를 사용한 예가 보이는데, 이것은 홀소리충돌(hiatus)에서 오  
는 어형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리라 추측된다.

種智 낸 사르미 누고 (월석 17:34)

부테 누고 (월석 21:195)

이 므스고 = 是甚麼오(금강삼가 2:41)

虛空 滅호몬 므습 양조고 = 滅空은 何狀고(능엄 3:84)

妙道는 어느고 = 妙道는 何오(영가, 하:122)

므습과 相과 서르 병으로몬 언머고 = 心與相과相去는 多少오(금강삼가

3:32)

5. 「아니-」가 바로 토씨를 연결하여, 임자씨로 쓰이는 일이 있음은 앞  
에서 설명한 바인데(→p. 273), 토씨 「-오」를 연결하여 물음을 나타내는  
일도 있다.

엇메 我 아니오 = 云何非我오(원각, 하 3-1:31)

이 모든 物入 中에 어니 覓 아니오 = 此諸物中에 何者 | 非見고(능엄 2:51)

죽사리는 므쑤 일로 갈아 혼가지 아니오 = 死生은 何事로 不同歧오  
(남명, 하:42)

「이」경우의 「-오」는 씨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를 임자씨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씨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구」

6. 아주 드물게 「-고」와 수의변이된다.

느론 누구 = 他는 是阿誰오(몽산 20)

## (2) 가-물음 토씨

1. 물음말을 포함하지 않은 물음법을 「가-물음법」이라 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토씨를 「가-물음 토씨」라 한다. (따라서 양자택일의 물음도  
이에 포함된다.)

「-가/아」

2. 홀소리와 /ㄴ/ 밑에서는, 원칙적으로 /ㄱ/이 탈락한다. 그러나  
「-고/오」의 경우에서와 같이, 어형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ㄱ/  
이 유지되는 일도 있다.

이 썩리 너희 종가 (월석 8:94)

이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항것가 (월석 8:94)

이 方器 中에 보는 方호 空이 또 一定호 方가 一定티 아니호 方가  
= 此方器中에 所見方空이 爲復定方가 爲不定方가(능엄 2:42)

그디 엇던 사르민다 呪術 힐가 龍鬼神가 (월석 10:29)



이는 賞가 罰아 =是賞耶아 罰耶아(몽산 53)

現前엿 六根은 ㅎ나카 여섯가=現前六根은 爲一아 爲六가(능엄 4:104)

이는 法身가 報身가 =是는 法身耶아 報身耶아(금강삼가 3:23)

네의 뭇 더레 브텃다 호물 듣노니 杭州아 一定하야 越州아 =聞汝依山寺 杭州定越州(두언 8:45)

生가 滅가 同가 異아 生滅이 아니가 同異 아니가 =爲生가 爲滅아 爲同가 爲異아 爲非生滅아 爲非同異아(능엄 3:98)

「滅가」는 어형 파괴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데, 이것은 앞뒤의 「-가」에 유추된 것으로 보아진다.

ㅎ 體아 ㅎ 體 아니아 =爲同一體아 爲非一體아(능엄 3:93)

아니 이 行者 아니아 =莫是行者否아(육조, 상:41-2)

이 說法가 이 說法 아니아 =是說法가 不是說法가(금강삼가 4:37)

이제 소리아 아니아 =今에 聲가 不아(능엄 4:126)

師의 功이 아니아 =非師之功耶(상원사 권선문)

아로미 아니가 =非知아(능엄 3:33)

先生은 病 아니가 (남명, 상:30)

境과 智와 ㅎ가지가 다르니여 (월석 8:31)

妄흔 혜음 아니가 =非妄計耶아(능엄 10:78)

먼더 가몬 디내야 뿌미 아니가 =適遠非歷試(두언 22:35)

다섯가짓 비치 너희 물 아니가 =五色非爾曹(두언 8:56)

天子人 ㅁ리 千里를 돈느니라 내 듣다니 이젧 그리미 아니 이가 =吾聞天子之馬走千里 今之畫無乃是(두언 16:40)

## 5) 도움토씨 (보조조사)

1. 토씨가,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해 주지 않고, 말의 뜻을 정밀히 표현해 주는 문법적 방법을 「도움법」이라 하고, 도움법을 나타내는 토씨를 「도움토씨」라 한다. 도움토씨는 뜻을 정밀히 해줌이 특색이므로, 임

자씨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어찌씨나 풀이씨 따위에도 붙을 수 있는 것이 특이하다

2. 도움토씨는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말의 종류에 따라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임자씨에 붙을 수 있을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말, 이를테면 어찌씨나 풀이씨나 월에도 붙을 수 있는 것.

둘째, 임자씨에만 붙을 수 있는 것.

세째, 임자씨에 붙지 않는 것.

3. 이하 각 토씨의 소속 유형은, 필자의 수집한 자료를 귀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더 나타나게 되면, 그 소속 유형이 달라질 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리 큰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 (1) 임자씨에뿐 아니라 다른 말에도

붙을 수 있는 도움토씨

「-ㄴ/는/는/은/은」

1. 현대말의 「-는/은」과 같이, 설명의 대상으로 앞에 내세우기 위하여, 또는 대조(다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데, 대조를 나타낼 때는 그와 대조되는 다른 말이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속뜻으로 그것을 가지게 된다.

2. 이 다섯 형태의 쓰이는 자리는 다음과 같다. (부림자리 토씨의 「-를/를/을/을/리」와 같음. →p.342)

| 앞소리     | 홀소리(개음절) |      | 닿소리<br>(폐음절) |
|---------|----------|------|--------------|
|         | 〈단순〉     | 〈겹철〉 |              |
| 앞홀소리    |          |      |              |
| ㅍ음(양성)  | -ㄴ       | -는   | -은           |
| 어두음(음성) |          | -는   | -은           |

「-ㄴ/는/는」과 「-은/은」은 바로 앞 소리의 종류에 따라 변동되며,



「-느/은」과 「-는/은」은 앞 음절의 홀소리에 따라 조화되므로, 이 네 형태는 음성적 변이형태인데, 「-ㄴ」과 「-느/는」은 수의로 변이된 듯 하다.

3. 그리고 이 토씨는 통어론 상의 일정한 기능을 표시해 주는 자리토씨와 달라서, 속뜻(속구조)으로는 여러가지 월성분에 쓰이게 된다.

「-ㄴ」: 우린 드로니 (월석 2:69)——임자말

長生인 不肖홀씨 (월석 1:41)——임자말

法 ㄴ루치느닌 스승이오 빅호느닌 弟子 | 라 (월석 1:9)——임자말

넌 聖賢이 道 得호니 하디 이젠 드르니 업스니 (법화 2:41)——위치말

둘차힌... 네차힌... (석보 9:37)——임자말

「-느」: 나는 아버지 여희오 (석보 6:5)——임자말

解느 알씨니 (석보 9:3)——임자말

「-는」: 星宿는 버리라 (석보 9:33)——임자말

調御는 이대 다스릴씨오 丈夫는... 남지니니 (석보 9:3)

妄語는 거짓마리라 (월석 21:60)

「-은」: 아랫 세 하느른 煩惱 | 만호고 (석보 6:35)——임자말

느른 뜰 다르거늘... 얏은 뜰 다르거늘 (용 24장)——임자말

▽「얏은」과 같은, 임자씨의 변동에 관해서는 →p. 317.

量은 量度홀씨니 (월석 9:8)——임자말

「-은」: 命終은 목숨 ㄴ출씨라 (석보 6:3)——임자말

正호 여르른 德 인 사르물 가즐비시니라 (석보 13:47)——임자말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아니될씨... 시미 기픈 드른 ㄴ드래 아니

그출씨 (용 2장)——임자말

4. 이 토씨는 설명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임자말에 붙는 일이 많으나, 그러나 설명의 대상으로 내세워진 말이나, 대조를 나타내는 말은 반드시 임자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토씨는 자리토씨와 겹쳐져서, 임자말 이외의 다른 문장성분이 되기도 하고 (→pp. 400-2), 또 어찌씨나 풀이씨에 붙어서 뜻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데

봉사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ㄴ/느」만이 나타난다.)

〈어찌씨에〉

處處貪着애 니르린 三周說法을 모도아 讚歎호스오미오 = 處處貪着히느 惣歎三周說法也 | 오 (법화 4:6)

하다가 머린 곧 알뤘 몸과 = 若遠히 即前身 (원각, 상 2-2:46)

이브터 ㄴ츠매 니르리느 일후미 無色界라 = 從此逮終히느 名無色界라 (능엄 9:32)

〈풀이씨에〉

머리 이선 보습고 가짜비 완 몸 보습블리러라 (월석 7:55)

드틀 보안 스랑호고 스랑호물 일힌 니조미 드의느니 = 覽塵호안 斯憶이오 失憶호안 爲忘이니 (능엄 3:14)

나히 즈라매 니르린 血氣 ㄴ독호더니 = 年至長成호안 血氣充滿호더니 (능엄 2:5)

ㄴ출 當호안 ㄴ스물 보내요더 ㄴ출 도라느 웃느다 = 當面輸心背面笑 (두언 25:25)

王이 스랑호샤미 드의야느 도르혀 나를 브리느다 (석보 11:29-30)

이러호 뻔 니르러느 키 아로미 갓가블리니 = 到如是時호안 大悟 | 近矣리니 (몽산 27-8)

聲聞求홀 싸툼 위호산 四諦法 니르샤 ... 辟支佛 求홀 싸툼 위호산 열두 因緣法을 니르시고 (석보 13:28)

이에 니르르산 塵劫因緣을 드러 니르시니 (법화 3:87)

실 혀른 모로매 길에 호고 모로매 하야켄 아니홀디로다 = 繰絲須長不須白 (두언 25:50)

5. 「-느」를 포함한 말에 「-느커니와」가 있다. 이것은 한 토씨로 녹아 붙은 것 같이 보이나, 그 속뜻으로는 뚜렷한 한 마디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五百釋女 | 王園比丘尼 精舍애 가 華色比丘尼게 出家호야 슬보디 우리돌히 지비 이삼 저기 受苦 | 하더이다 華色比丘尼 닐오더 너희느커니와 내 지비 이삼 저기 受苦 | 만타라 (월석 10:23)



「너희는커니와」는 단순한 한 어절로 된 말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하거니와——그러한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만」의 뜻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디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편적인(축소된) 마디」이다.

# 「-도」

6. 이것과 저것과 한가지임을 나타내는 것이 중심된 용법인데, 주변적 용법으로는, ‘양보’, ‘강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法도 또 緣이라 = 此法도 亦緣이라(능엄 2:22)——임자말

하마 色도 空도 아니라 = 既非色空이라(능엄 2:25)

「色도 空도」는 「아니라」를 풀이말로 하는 임자말이다.

어미도 아득을 모르며 아들도 어미를 모르리니 (석보 6:3)

흐변도 아니 도라늘 (천강곡 상, 기 151)——부림말

7. 이상은 ‘한가지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음은 ‘양보’(-이든지, -이라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아못것도 至極한 거시 精이라 (월석, 서:18)

8. 이 토씨도 여러가지 자리토씨와 결합해서, 여러가지 월성분에 붙을 수 있을뿐 아니라(pp.400-2), 어찌씨나 풀이씨에도 붙는다.

<어찌씨에>

저고마도 모르리어며(석보 13:42)

값간도 값지디 아니하니 (능엄 2:10)

닐웨를 좁죽도 아니하야 (월석 1:52)

<풀이씨에>

世尊이... 柳山에 겨샤도 說法하시며 (석보 6:41)

四衆을 머리셔 보고도 또 부러 가 절하고 (석보 19:30)

물읷 有情이 비록 如來의 道理 비호다가도 尸羅를 헐며 (석보 9:13)

죽사릿 法은 모맏다가도 모(디) 여희느니이다 (석보 11:12)

9. 다음과 같은, 인용을 나타내는 말에 붙은 「-도」는 그 본래의 뜻(이

것과 저것과 한가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토씨의 성격이 뚜렷하다.

八分齋를 八支齋라도 하느니 (석보 9:18)

(迦毗羅國을) 그르 닐어 迦毘羅衛라도 하며 또 迦維衛라도 하며 迦夷라도 하느니라 (월석 2:1)

이 부테 나심 저기 몹 光이 燈 光이 燃燈佛이시다도 하느니... 또 錠光佛이시다도 하느니 (월석 1:8)

魍魎은 나모와 들괘 變하야 妖怪 드윈 거시니 또 닐오디 水神이라도 하느니라 (금강삼가 2:28)

10. 「-도」가 풀이씨에 붙을 때는, 줄기와 씨끝으로 활용한 완전한 낱말에 붙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줄기에 바로 붙는 일도 있다.

이 法이 되도 못하며 니르도 못하리니 (석보 13:41)

보도 못하며 듣도 못거니 (석보 24:28)

키 적도 크도 아니하고 솔히 지도 여위도 아니하니라 (월석 1:26)

소리 놓도 놓잡도 아니하샤 (월석 2:58)

나도 아니하며 滅도 아니하야 (남명, 상:43)

11. 이것은, 씨끝 「-디」가 속구조로 있는데, 밖으로는 생략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그래야 토씨 용법의 일반적인 규칙을 깨뜨리지 않게 되고, 또 「-\*디도」는 /ㄷ/이 둘이 잇달아 나는 사이에 /i/와 같은, 간극이 작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생략되어 「\*-ㄷ도」가 되고, 이것은 곧 「-도」로 축약되었다고 음성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도」→「-\*ㄷ도」→「-도」

菩薩이... 안즈시며 누브샤매 夫人이 아므라토 아니하더시니 (월석 2:26)

여기의 「아므라토」도 역시 「\*-디도」의 축약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속구조의 「아므라하디도」는 「아므라하도」로 생략변형되고, 다시 「하」의 /ㄹ/가 줄어 「아므라토」로 축약변형된 것으로 설명된다.



아미라히도 → 아미라히도 → 아미라토

이 설명 방법은,

아미라히도 → 아미라티도 → 아미라토

와 같은 방법보다 낫다. 이것은 「-티도」가 「-토」로 변했다는 설명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설명 방법의 차이는, 두가지 변형규칙——/ㄹ/의 생략과 「-디」의 생략——의 적용 상의 순위가 다른 데 있다.)

12. 앞의 「-는」(대조)과 여기의 「-도」(같음)는 그 뜻이 대조적이다. 「-는」은 다른것과 다름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설명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데 비해서, 「-도」는 이것과 저것이 같음을 나타내고 있다.

### 「-서」

13. ‘자리’, ‘출발점’, ‘비교’를 나타내는 위치말에 붙어 그 뜻을 강조하고, 풀이씨나 어찌씨(말)에 붙어 ‘상태의 유지’를 나타낸다.

東嶽 ㄹ을서 時로 보르매 글 스고 = 東郡時題壁(두언 20:7)

서울서 당당이 보면 비치 업스리니 = 京華應見無顏色(두언 15:21)

이거시 고아 長常 먼 더서 날시니라 = 此物娟娟長遠生(두언 15:21)

그에서 사니 (월석 2:7)

그 곱 | 이에서 倍히며 (월석 21:26)

늘구메 ㄹ을들 아래서 그를 입고 = 老吟秋月下(두언 16:7)

耆婆는 예서 날오맨 長壽天神이니 (능엄 2:9)

이에서 주그면 (석보 9:12)

더러본 거더서 微妙한 法을 나토며 (석보 13:33)

濕生은 축축한 더서 날씨오 (석보 13:2)

그 罪 | 또 悔서 너드리라 = 其罪復過彼(법화 4:83)

14. 이상의 예만으로 보면, 「-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자리토씨로 보고 싶으나, 이것은 자리토씨와 어울려서, 다른 성분의 말에 붙기도 하고(→pp.400-2), 또 다음과 같이, 어찌씨(말)나 풀이씨에도 붙기 때문에,

자리토씨는 되지 못한다.

〈어찌씨(말)에〉

舍利弗이... 金剛杵로 머리서 견지니 (석보 6:31)

머리서 제 아비 보몬 (법화 2:196)

머리서 보니 뵈히 비치 잇고 갓가이서 드르니 므리 소리 업도다 = 遠觀山有色 近聽水無聲(금강삼가 3:18)

퍼뻏는 구루미 노피서 나가디 아니하느니 = 洩雲高不去(두언 15:17)

哆啞는 ㄹ난 아히 마리니 ㄹ르치리 업시서 哆啞啞하느니라 (금강삼가 4:54)

ㄹ르맷 나븐 당당이 호오사서 이프리로다 = 江猿應獨吟(두언 15:17)

辟支는 예서 날오맨 호오사서 아다 호미라 = 辟支此云獨覺(능엄 1:29)

이 智慧 업슨 比丘 | 어드러서 오노 (석보 19:30)

제 모미 누븐 자히서 보더 (석보 9:30)

「자히」는 어찌말을 이끄는 매인이름씨이다. (→p.296)

〈풀이씨에〉

네 일즉 업디 아니하야서 엇테 업수물 아는다 = 未曾滅하야서 云何知滅하는다(능엄 2:4)

굿브러서 願하스오디 = 伏願(능엄 2:77)

眞을 브더서 妄을 니르와든 거시라 = 依眞하야서 起妄者 | 라(능엄 2:94)

孤는 져머서 어머시 업슨 사르미오 (석보 6:13)

眷屬 드외스바서 설본 일도 이러홀씨 (석보 6:5)

婢 한 아드를 나하니 사을 못 차서 말하며 (월석 21:55)

「하야서」와 같은 어형은, 으뜸풀이씨에 도움풀이씨 「있다」(→p.421)가 붙은 말의 끝바꿈꼴로 볼 수도 있다. 즉 「하야 이서」>「하애서」>「하야서」로 축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렇게 보지 않고, 「-서」를 토씨로 본 것은, ‘월석’ 시기에는 아직 「하애서」>「하야서」의 변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득한 사르미 이에 나물 아디 물고서 佛道애 허물 날위여 = 昧者 |



不知此出<sub>고</sub>고서 而致答佛道<sub>하</sub>야(법화 3:180)

本元由處를 得<sub>고</sub>고서 그 本性이 恒常<sub>하</sub>씨 (능엄 10:14)

우러 封<sub>고</sub>고서 端午에 進賀<sub>하</sub>는<sub>다</sub> =拜跪題封賀端午(두언 25:48)

가줄비전댄 비 득길 아더 물<sub>하</sub>며서 그 물 구부를 怨望<sub>하</sub>려 호미로

다 =譬夫未解乘舟<sub>하</sub>며서 而欲怨其水曲者哉로다(영가, 하:126)

種種業을 지스<sub>며</sub>서 다 佛法이라 니르고 =造種種業<sub>하</sub>며서 皆言佛法이라  
고(능엄 6:102)

말<sub>하</sub>며 우습<sub>우</sub>으며서 주구를 行<sub>하</sub>니 =談笑行殺戮(두언 6:39)

사름미... 나히 스물 다스<sub>시</sub>라서 百歲<sub>엿</sub> 사름물 마르쳐 닐오디 =有  
人이 ...年이 二十五<sub>1</sub>라<sub>서</sub> 指百歲人<sub>하</sub>야 言호디(법화 5:115)

저믄 壯<sub>하</sub>는 사름미 나히 처섬 二十五<sub>1</sub>라<sub>서</sub> 百歲<sub>엿</sub> 아드리 머리 세오  
느치 살찌닐 느미게 뵈오디 =少壯人이 年始二十五<sub>1</sub>라<sub>서</sub> 示人百歲子<sub>1</sub>.  
髮白而面皺호디(법화 5:120)

#### 「-아」

15. ‘국한’하는 뜻을 나타내며, 따라서 그것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게 된다.

이<sub>아</sub> 眞實入 精進이며 (월석 18:30)——임자말

우리<sub>아</sub> 부터들 좃츠바 듣좁고=我等<sub>이</sub>아 從佛聞<sub>하</sub>습고(법화 5:121)

「我等<sub>이</sub>아」의 「-이<sub>아</sub>」는 토씨 둘이 겹쳐진 것이다.(→p.399)

이 각<sub>시</sub>아 내 얻니는 막스매 맛도다 (석보 6:14)

想이 다<sub>으</sub>니<sub>아</sub> 能히 아는 전츠로 (능엄 9:85)

이<sub>아</sub> 能히 信受<sub>하</sub>리니 =是則能信受(법화 5:193)——부림말

우리들히 이러듯<sub>하</sub>는 妄量<sub>엿</sub> 授<sub>記</sub>아 쓰더 아니호리라 (석보 19:30)

오늘<sub>아</sub> 스시 일과라 (월석 7:9)——위치말

來<sub>日</sub>아 보내요리라 (월석 7:16)

그제<sub>아</sub> 히드리 처섬 나니라 (월석 1:42)

忉利四天王도 이제<sub>아</sub> 나니라 (월석 1:41)

어디<sub>아</sub> 도흔 삭리 양즈 마즈니 잇거노 (석보 6:13)

비록 盧王으로 히여 翰墨을 자피리 漢魏入 사름미 風騷에 갓가온디

산 劣<sub>하</sub>나 =縱使盧王操翰墨 劣於漢魏近風騷(두언 16:12)

다시 火災 여덟번짜히<sub>아</sub> 또 水災<sub>하</sub>리니 (월석 1:49)

16. 이 토씨도 여러 자리토씨와 어울리며(→p.408 표 참조), 어찌씨, 풀이씨에도 붙는다.

〈어찌씨에〉

諸佛이 出世호미 難히<sub>아</sub> 맛나느니 =諸佛出世難可值遇(법화 5:148)

祝雞翁이 이를 難히<sub>아</sub> 니르리로다 =難說祝雞翁(두언 21:2)

그되내 조비<sub>아</sub> 오도다마론 (석보 23:53)

〈풀이씨에〉

늬 쌀을 굴히<sub>아</sub>며 놀이 드외야 오리야 (천강곡 상, 기 36)

두 글을 빅화<sub>아</sub> 알씨 (천강곡 상, 기 35)

東方 千國土 디나<sub>아</sub> 혼 點을 느리오디 (법화 3:86)

네 가<sub>아</sub> 하리라 (용 94장)

물읷 字<sub>1</sub> 모로매 어우러<sub>아</sub> 소리 이느니 (훈, 언해)

貴戚과 權門과 筆跡을 어데<sub>아</sub> 屏風障子에 비치 나물 비르수 아느니  
라 =貴戚權門得筆跡 始覺屏障生光輝(두언 16:38)

「어데<sub>아</sub>」는 「어더<sub>아</sub>」의 변이형인듯 하나, 그렇게 된 이유는 해명되지 않는다.

부텃 德이 至極<sub>하</sub>샤 이 사름미 보빅를 더리도록 아니 앓기<sub>는</sub>다  
(석보 6:25-6)

우리들히 父王入 棺을 메스바<sub>아</sub> 하리이다 (월석 10:12)

瓶의 므를 기러 두고<sub>아</sub> 가리라 (월석 7:9)

그 迷人이 문득 이 말 듣고<sub>아</sub> 險道를 아라 (월석 21:118)

이런 變化를 뵈오<sub>아</sub> 神足을 가다 도로 本座에 드리 안즈니라(석보 6:34)

아래 네 어미 나를 여희여 시름으로 사니거늘<sub>아</sub> 오늘 네 어미 너를



여희여 늙물로 사니느니라 (월석 8:86)

아로미 이러커늘사 아들을 여희리잇가 (천강곡 상, 기 143)

밀트리 사으리로더 나거사 죽느니라 (용 67장)

춘를 썩려 오라거사 썩시니라 (월석 21:217)

京師 | 늦거사 朝會하듯다 =京師今晏朝(두언 20:52)

아득리 브디 하마 크거사 아비 아습 피화... 家業을 오로 맞디니라 (월석 13:30)

한비 사으리로더 뷔어사 죽느니라 (용 67장)

「-거」 활용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사」를 붙이지 않고 쓰인다. (→p. 623)

아비 보라 니거 지라 (월석 8:101)

淨土에 니거 지이다 (월석 8:1)

父母 겨심젧 일후문 羅卜이라니 父母 업거시사 부텃기 가승바 出家 호니 (월석 23:85)

「업거시사」와 같은 어형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인데, 이것은 「업거사」의 주체높임 꼴이다. 「-시-」는 「-거-」 뒤에 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어형이 만들어졌다.

「-사」는 (일반적으로 토씨는) 자립형식에 붙는 것인데, 이 용법은 예외적이지, 「-사」가 씨끝의 한 부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데서 이러한 어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현대말의 「-어야」 따위는 녹아 붙은 한 씨끝이다.)

그리고 ‘악장가사’의 「-거시아(-어시아)」 형은 이에서 변한 것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有德하신 님을 여희와 지이다(정석가)

그 고지 三同에 뛰거시아 有德하신 님 여희와 지이다(정석가)

그 오시 다 혈어시아 有德하신 님 여희와 지이다(정석가)

(다만, 이 「-시-」는 주체높임이 아니다.)

下根은 모로매 세히라사 하리오 (월석 14:31)

相이 곧 相 아니라사 眞이 드의느니라 =相即非相이라사 乃爲眞이니라 (금강삼가 3:11-2)

「-곳/웃」

17. 어딘것(일)을 꼭 지적하여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며, 홀소리와 /르/ 밑에서는 /ㄱ/이 탈락한다.

生곳 이시면 老死苦惱 | 죽느니 (월석 2:22의 1)——임자말

오직 魔王곳 제 座에 便安히 못 안자 (월석 2:42)

괴외흔 驪山入 길헤 달곤 草木곳 누르렛도다 =寂寞驪山道 清秋草木黃(두언 6:13)

威神곳 아니면 모로매 業力으로사 가리니 (월석 21:25)

넛 이룰 스랑하논 뜯곳 속절업시 잇도다 =懷古意空存(두언 8:64-5)

아들웃 나거든 (월석 8:83)

쫄웃 나거든 (월석 8:96)

부터웃 드외시면 (석보 9:3)

우리웃 계우면 (월석 2:72)

나웃 이 相을 알오 (석보 13:42)

이 보빅웃 가져 이시면 (월석 8:11)——부림말

이 일웃 니르면 (월석 13:44)

ㅎ다가 三昧웃 得하면 (월석 8:8)

18. 자리토씨와 연결되는 일도 있고(→p. 408 표), 어찌씨와 풀이씨에 붙는 일도 있다.

〈어찌씨에〉

그리웃 아니하면 (월석 8:62)

아니웃 머그면 네 머리를 버효리라 (월석 10:25)

아니웃 주시면 (석보 23:55)

〈풀이씨에〉

내 難을 救티웃 아니하면 (월석 21:56)

다음의 「-디웃」은 분석되지 않는 한 씨끝이다(→p. 615).

이 하눌돌히 놀디웃 목수미 오라느니 (월석 1:37)

「-이나」



19. 아무것이나 상관 없이, 임의로 선택함을 나타내거나, 또 많거나 적거나(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어떠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이/는 임자자리 토씨와 같이 변동한다. (→p. 335 이하)

흔 衆生이나 成佛 묻하야 이시면 (월석 9:22)——임자말

아되나 이 經을 디녀 (석보 9:21)

이 比丘 | 比丘 | 나 比丘尼나 優婆塞나 優婆夷나 보나마다 다 절하

고 (석보 19:29)——부림말

財物... 衣服애 흔 거시나 아니 주거든 가지면 (월석 21:40)

王人 ㅅ스매 아모디나 가고져 하시면 (월석 1:26)——위치말

흔 彈指 ㅅ시나 地藏菩薩을 歸依케 하면 (월석 21:60)

아니한 더디나 드로매 니르러도 (법화 5:12)

흔 ㅼ나 禮拜供養호매 니를면 (법화 7:68)

「ㅼ」에 /이/가 붙으면, 끝소리 소리가 줄어진다. (→p. 318)

길흔 下牢 | 千里나 하도다 = 道里下牢千 (두언 20:6)

「ㅼ千里나」는 뒤의 풀이말 「하도다」의 임자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하도다」를 도움풀이씨로 보고 「千里나 하도다」를 함께 풀이말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아랫 굴형은 萬尋이나 흔 두들기로소니 = 下塹萬尋岸 (두언 6:48)

서르 머드로미 어루 ㅅ히나 하도다 = 相留可判年 (두언 15:13)

20. 자리토씨를 가진 말에 붙을 수 있을 뿐 아니라 (→p. 408 표), 또 어찌씨에도 붙는다.

하다가 ㅼ간이나 디닐 ㅼ르미면 (법화 4:147)

흔 念에 니르리나 조흔 信을 내는들 반드기 아를디니라 (금강 33)

21. 이 토씨와 잡음씨의 활용형과의 구별에 대해서는 p. 565 참조.

#### 「-이어나」

22. 앞의 「-이나」의 강세형이다. 어원적으로는, 잡음씨의 활용형인 「-이나」(앞의 토씨의 「-이나」는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다)에 강세를 나

타내는 안맺음씨끝 「-거-」(→p. 932)가 연결된 꼴이다. 그러므로 이 토씨는 토씨 「-이나」의 강세형이 되는 것이다.

(이런 有情들흔 이에서 주그면 餓鬼어나 畜生이어나 ㅼ외리니 (석보 9:12)——임자말

人間애 나고도 ㅼ어나 ㅼ리어나 ㅼ대어나 ㅼ귀어나 ㅼ외야(석보 9:15)

아되어나 와 내 머릿바기며 ... 子息이며 도라 하야도 (월석 1:13)

이 功德이 ㅼ조물 ㅼ리어나 ㅼ웨에 니를어나 하면 (월석 8:47)——위치말

23. 자리토씨와 어울리기도 하고 (→p. 408 표), 어찌씨에 붙기도 한다.

諸佛와 聲聞과 佛子菩薩等の ㅼ오새어나 한게 이서 說法호미 다 現하리니 = 諸佛及聲聞과 佛子菩薩等の 若獨若在衆하야서 說法이 悉皆現하리니 (법화 6:61)

#### 「-이도록(이도록)」

24. 미치는 데를 나타낸다.

엇데 이제도록 손지 度脫호물 묻 그쳐 (월석 21:63)——위치말

ㅼ들이도록 자디 아니하시며 (내훈, 2하:38)

午時도록 니러안자쇼물 하늘히 불쿨 적브터 호라 = 午時起坐自天明 (두언 21:22)

25. 이상은 모두 위치말에 붙어 있으나, 어찌씨에도 붙는다.

이 아기 엇디니완디 늘그니 허틸 안고 이리도록 우눈다 (월석 8:101)

어미넙 양지 엇디 그리도록 여위시니잇고 (월석 23:87)

涅槃애 드로려 하시니 이리도록 설불쎌 (월석 21:201)

부텃 德이 至極하샤사 이 사르미 보빅를 더리도록 아니 앓기놋다 (석보 6:25-6)

26. 이 토씨는 원래 잡음씨의 활용형이나(p. 601 참조), 여기에 제시한 예들은 속뜻으로도 임자말을 생각할 수 없어서 풀이말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풀이되지 않으므로 토씨로 보았다.



「-브터」

27. 시작하는 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자리토씨에 가까운 성질을 띠고 있으나, 풀이씨에 붙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도움토씨에 넣어 둔다.)

無始브터 오매 = 無始來에 (능엄 2:1)

이브터... 靈山會라 (석보 13:1)

阿鼻地獄브터 有頂天에 니르시니 (석보 13:16-7)

無煩天브터 잇 7장을 (월석 1:34)

오늘브터 後로 (월석 21:57)

내 아래브터... 문 듣즈불며 (석보 13:44)

28. 다른 토씨와 어울리기도 하며(→p.408 표), 풀이씨에도 붙는다.

如來 브리고브터 能히 그 言論辯을 다하리 업스니라 = 自捨如來코 無能盡其言論之辯하니라(법화 4:8)

나다가며브터 嗔心 아니하는 사르미 눈즈스 (월석 21:215)

29. 다음과 같이 쓰이는 「브터」도 토씨에 가깝다.

狂生이 듣즈하 同里로 브터 오니(용 97장)

모로매 너비 무루물 브터 = 必資博問(월석, 서:20)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브터」는 다음과 같은 용례에 나타나는 「불-」의 뜻을 아직 강하게 가지고 있다.

定 서든 動 背叛호들 불고 = 定立由乎動背(영가, 하:3)

오직 妄量엿 므수미 문득 내려나들 브트면 = 只緣妄心瞥起(월석, 서:3)

그리고 앞의 「너비 무루물 브터」의 한문 「資博問」의 「資」를 풀이하여,

資는 브틀씨라 (월석, 서:20)

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을」 다음의 「브터」는 풀이씨로 보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토씨로 내세운 예들은 아무래도 풀이씨로 설명되기 어렵다.

「-다가」

30. 어떠한 위치나 상태를 꼭 유지하고서 붙들어 두는 뜻을 나타내는 데, 입자씨에 바로 붙는 예는 보이지 않으나, 자리토씨와 어울리기도 하

고(→p.408 표), 풀이씨와 어씨씨에 붙을 수 있다.

〈어씨씨에〉

네 바리를 어디 가 어든다 도로다가 두어라 (월석 7:8)

〈풀이씨에〉

부테 또 難陀 드려다가 地獄을 뵈시니 (월석 7:13)

그 겨지비 밤 가져다가 머기고 (월석 1:44)

爲頭 도즈기 나를 자바다가 겨집 사마 사더니 (월석 10:25)

雜草木 것거다가 누출 겨우스불들 (천강곡 상, 기 62)

仙人이 그 썩니물... 뵈스바다가 果實 따 머겨 (석보 11:25-6)

(如來의) 舍利 얻즈바다가 塔 일어 供養하스보려 하야 머리셔 오소 이다 (석보 23:53)

「-써」

31. 이것은 매인이름씨로 처리했으나(→p.282), 다음과 같은 용법은 아무래도 토씨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입자씨에 바로 붙는 것은 매인이름씨로 보았기 때문에, 토씨로서는 입자씨에 바로 붙는 예가 없으나, 자리토씨와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p.408), 이 유형에 넣어 둔다. 그리고 이 토씨는 월에 연결됨이 특색이다.

즉 자리토씨와 어울리고 월에 붙는 「-써」은 아무래도 매인이름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용법만을 토씨로 보게 되는 것이니, 토씨로서의 「-써」은 이 두가지 용법에 국한된다.

처심 地에 네 보라써 니르시고 = 於初地에 獨言汝觀하시고(능엄 3:96)

「-이써」

32. 강세를 나타낸다.

누출 겨우스불들 므숴잇돈 뉘우시리여 (천강곡 상, 기 62)

술히 여위신들 金色잇돈 가시시리여 (천강곡 상, 기 62)

33. 「-이써」이 전형적인 토씨로 쓰인 예는 이조 초기 문헌에는 흔하지 않으나,



고려가요에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구스리 바회에 더신들 …긴히든 그즈리잇가 …즈문 허를 외오곰 너신들…  
빘잇든 그즈리잇가(악장가사; 서경별곡, 정석가)

34. 이 토씨는 말의 끝 풀이말에 붙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다른 토씨와 다른 특색이다.

하다가 아로미 업술딘댄 마츠매 草木 존거니쥔 =若無知者 ㄱ댄 終如草木거니쥔(능엄 3:41)

바를 다려든 머리는 아로미 잇고 바를 받들기 아로미 업스리어늘  
이제 네 그러티 아니커니쥔 =觸其足하야든 頭有所覺하고 足應無知하리  
어늘 今汝不然하거닛든(능엄 1:68)

하다가 虛空에 낳딘댄 虛空이 제 맛보논디라 너의 이비 아로미 아니  
어니쥔 또 空이 제 알아니 엇테 네 入에 브트리오 =若虛空에 出인댄  
虛空이 自味라 非汝의口知어니쥔 又空이 自知어니 何關汝入하리오(능엄 3:  
10)

하마 空을브터 오란디 도로 空을브터 드룸디니 하다가 나며 드로미  
이시면 곧 虛空이 아니어니쥔 =既從空來하란디 還從空入홀디니 若有  
出入하면 既非虛空이어니쥔(능엄 2:110)

空 불 時節에 하마 色相이 업스면 色의 性이 받들기 슬리어니쥔 =  
見空之時에 既無色相하면 則色性이 應銷 ㄱ어니쥔(능엄 3:19)

하다가 내의 니르논 法音 分別하요마로 네 마슴 사물딘댄 이 마슴  
미 제 받들기 소리 分別하논것 여희오 分別하논 性이 이셔사 하리  
어니쥔 =若以分別我의 說法音하요마로 爲汝心者 ㄱ댄 此心이 應離分別音  
하고 有分別性하야사 하리어닛든(능엄 2:24)

精見이 업고 一切物을 여희여사 各別히 제 性이 이숯딘댄 네 마르  
킵논 이 物中에 이 보미 업스려니쥔 =無有精見하고 離一切物하야사 別  
有自性인댄 則汝所指하논 是物中에 無是見者 ㄱ어니쥔(능엄 2:50)

空으로 아로물 사물딘댄 空이 제 아디위 고기는 받들기 아디 몰하  
려니쥔 =以空으로 爲知 ㄱ댄 空이 則自知하디위 肉은 應非覺이어니쥔(능엄  
3:44)

35. 「-이쥔」이 임자씨나 임자씨 노릇하는 말에 붙고, 다시 그 뒤에  
잡음씨를 연결하는 일이 있다.

이 施主 ㄱ 衆生의그에 一切 즐거본것 布施홀만 하야도 功德이 그지  
업스니 하물며 阿羅漢果를 得기 호미썩니잇가 (석보 19:4)

하마 命終홀 사르물 善惡 묻디 말오 내 이 사르물 惡道에 빠러디디  
아니케코저 하노니 하물며 제 善根 닷가 내 힘 더으리썩니잇가 (월  
석 21:125)

「-이라」

36. 감탄, 강세를 나타낸다.

嗚呼 ㄱ 라 梵軸이 崇積이어든… (월석, 서:23)

엇테라 옷과 밥과애 窮困하야 늦비치 마슴매 맞게 인 이리 저그니오  
=胡爲困衣食 顏色少稱遂(두언 16:19)

엇테라 田舍엿 한아비는 이 厚히 주는 브들 바드리오 =奈何田舍翁  
受此厚貲情(두언 22:20)

大矣哉라 萬法資始也여 =큰서 萬法이 브터 비르수미여(원각, 서:31)

이 토씨는 그 붙는 말의 범위가 극히 국한되어 있으나, 더 널리 쓰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

× × ×

37. 이상에 설명한 도움토씨는 그 붙는 말이 매우 다양하므로, 붙을  
수 있는 말의 종류에 따라 일람표를 만든다.(물론 앞으로 자료가 더 검  
토되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토씨에 여러 변이형태  
가 있는 것은, 그 중의 하나만을 표시한다.)



| 도움토씨 | 앞말 | 임 자 씨 |       | 어찌말 | 풀 이 말 |   |   |   |   |    |             |          |   |      |    | 인용말 |
|------|----|-------|-------|-----|-------|---|---|---|---|----|-------------|----------|---|------|----|-----|
|      |    | 바로    | 자리토씨와 |     | 어     | 거 | 나 | 고 | 게 | 다가 | 다<br>가<br>며 | 디<br>(디) | 며 | (거)늘 | 이라 |     |
| -는   | ○  | ○     | ○     | ○   |       |   |   | ○ |   |    |             |          |   |      |    |     |
|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셔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곳   | ○  | ○     | ○     |     |       |   |   |   |   | ○  |             |          |   |      |    |     |
| -이나  | ○  | ○     | ○     |     |       |   |   |   |   |    |             |          |   |      |    |     |
| -이어나 | ○  | ○     | ○     |     |       |   |   |   |   |    |             |          |   |      |    |     |
| -이도록 | ○  |       | ○     |     |       |   |   |   |   |    |             |          |   |      |    |     |
| -부터  | ○  |       |       |     |       | ○ |   | ○ |   |    |             |          |   |      |    |     |
| -다가  |    | ○     | ○     | ○   |       |   |   |   |   |    |             |          |   |      |    |     |
| -뿐   |    | ○     |       |     |       |   |   |   |   |    |             |          |   |      |    | ○   |
| -이뿐  | ○  |       |       |     |       |   |   |   |   |    |             |          |   |      | ○  |     |
| -이라  | ○  |       | ○     |     |       |   |   |   |   |    |             |          |   |      |    |     |

## (2) 임자씨에만 붙을 수 있는 도움토씨

### 「-으란/으라는/을란」

1. 「-는/는」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노」는 「-란」의 **늘어난** (확대된) 형태이다. 즉 「-ㄴ」이 「-는/는」으로 늘어나듯이, 「-란」은 「-라노」으로 늘어나서, 그 뜻을 더욱 명료하게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임자씨 끝이 /ㄹ/인 경우에는, 홀소리인 경우처럼, 고름소리를 취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대이름씨 밑에서는 「-ㄹ란」을 쓰게 된다.

즈깻 오스란 밧고 (월석 1:5)——부림말

도훈 고즈란 꼭디 말오 (월석 1:9)

느므란 분별 아니코 제 몸썸 도히 추미라 (석보 13:36)

므숨으란 아니 닷고 (천강곡 상, 기 121)

天子 | 우리 道理란 버리시고 (월석 2:69)

훈 아기란 업고 새 나흐니란 치마예 다마 (월석 10:24)

詳은 조스르빈 말란 子細히 다 쓸씨라 (석보, 서:4)

바브란 雲子 | 히니를 마리스고 외라는 水精이 춘듯 히니를 시부라  
=飯抄雲子白 瓜嚼水精寒(두언 15:54)

글란 스랑티 아니코 (월석 7:17)

이제 저문 저그란 안죽 므숨ㅅ장 노다가 (석보 6:11)——위치말

臣下란 忠貞을 勸히시고 子息으란 孝道를 勸히시고 나라흐란 太平을 勸히시고 (월석 8:29)

날 혀여 보느니란 이 經을 니르디 말며 =計我見者란 莫說此經히며(법화 2:161)

종으란 흰 바블 주고 물란 프른 𪎐를 호리라 =與奴白飯馬青𪎐(두언 8:23)

넛 되흐란 白閣을 迷失히고 ㅁ畵 물라는 皇陂를 思憶히노라 =故山迷白閣 秋水憶皇陂(두언 16:11)

「넛 되흐란」은 ‘옛 산에서는’ (옛 산을 보고는)의 뜻이오, 「ㅁ畵 물라는」은 ‘가을 물에는’ (가을 물을 보고는)의 뜻이므로, 다 위치말로 볼 수 있다.

쌀 주므란 아름다운 소닐 어즈리고 글 되흐므란 저근 吏胥를 듣노라  
=乞米煩佳客 鈔詩聽小胥(두언 20:45)

「쌀 주므란」은 ‘쌀을 줌에는’ (쌀 주는데는), 「글 되흐므란」은 ‘글을 모음에는(모으는 데는)’의 뜻이므로 다 위치말이다.

2. 「-는/는」과 「-란」은 다 같이, 설명의 대상으로 앞에 내세우거나, 대조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나, 단독으로 임자씨에 붙을 때는, 「-는/는」은 임자말에 붙는 것이 대부분이고, 「-란」은 부림말에 붙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느/는」은 다른 자리토씨와 결합되어 임자말 아닌 다른 성분에도 붙을 수 있을뿐 아니라, 어찌씨에도 붙고(→p.373), 또 「-란」은 앞에 보인 바와 같이, 위치말에도 붙기 때문에, 모두 자리토씨가 되지는 못한다.

### 「-런」

3. 「-란」과 같은 토씨에 「-런」이 있다.

글런 막숨 슬턴 싸흘 사랑호노니 = 詩憶傷心處(두언 21:13)

4. 이 예는 다른데 보이지 않고, 또 그 다음 장인 ‘두언 21:14’에는 「브노라」가 「브노려」로 잘못 된 데도 보이므로, 「-런」은 「-란」의 잘못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악장가사’에 「날러는」이 있는 것으로 보면, 「-런」도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가시리)

### 「-마다」

5. ‘각자’의 뜻을 나타낸다.

사름마다 수비 아라 = 人人易曉(석보, 서:6)——임자말

五百 도즈기 저마다 혼 살음 마자 (월석 10:29)

羊이屠肆애 드러 거름마다 주글 싸해 감 곤호니라 (능엄 2:4)——방편말

6. 「-이다」를 연결하여 풀이말이 되는 일도 있고,

人人은 사름마대라 (석보, 서:6)

在在는 잇는 곧마대라 (법화 3:191)

또 사잇소리를 가지고서 매김말이 되는 일도 있다.

사름마닷 妙性이니 = 人人妙性(법화 2:162)

法마닷 本體 = 法法本體(법화 5:85)

### 「-곰/음」

7. ‘각자~ 씩’의 뜻을 나타내며, 홀소리와 /ㄹ/ 밑에서는 /ㄱ/이

줄어진다.

훈 나라해 훈 須彌山곰 이쇼더(월석 1:22)——임자말

가온디 훈 天이오 四方애 여들곰 버러 잇거든 (월석 1:31)

四方이 各各 變호야 十方곰 ㄷ외면 四十方이 일오 (석보 19:12)

三世 各各 流호야 十世음 ㄷ외면 三十世 일오 (석보 19:12)

銀돈 훈날곰 받즈블니라 (월석 1:9)——부림말

쇼와 羊괘 五色 샷기틀 五百곰 나호며 (월석 2:45)

四方애 닐굽 거름곰 거르시니 (월석 2:37)

各各 닷 龍곰 즈르 드디여 (월석 7:47)

두 즈믃길마다 亭舍를 세곰 지스니 (천강곡 상, 기 153)

二禪으랴 우흔 이 世界 여러번 고태 ㄷ외야사 훈적곰 고태 ㄷ월썸 (월석 1:38)

八千里象은 호르 八千里음 녀는 象이라 (월석 7:52)

우물 므를 호르 五百디위음 길이더시니 (월석 8:91)

이 네 弟子들히 五百 比丘음 ㄷ려 (월석 7:21)

두가지음 가진 葡萄 (월석 1:43)

그딤내 各各 훈 아들을 내야 (석보 6:9)

훈 太子를 훈 夫人곰 맞디샤 젓 머겨 (석보 11:33)——위치말

四天王 목수미 人間엿 신 히를 호르음 헤여 五百 히니 (월석 1:37-8)——방편말

열 사르매 오히려 열아홉곰 나모 저 오느니 = 十猶八九負薪歸(두언 25:46)

### 「-나마」

8. ‘그 위에 얼마 더 있음’을 나타낸다.

門人이 一千나마 잇느니 = 門人一千有餘(육조, 상:5)——임자말

머리 조사 一千디위나마 절호고 (월석 23:82)——부림말



「-못/못, 못」

9. 그것을 다져, 국한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

쏟<sub>못</sub> 아니면 어느 길헤 다시 보스<sub>못</sub>리 (월석 8:82)——임자말

이 마<sub>못</sub> 福利<sub>못</sub> 不思議라 (월석 21:143)

마<sub>못</sub> 장 마<sub>못</sub>는 그림제<sub>못</sub> 後人 無明을 하야<sub>못</sub>려 (월석 2:62)

오늘 여희스<sub>못</sub> 後에 쏟<sub>못</sub> 아니면 서르 보스<sub>못</sub> 길히 업건마<sub>못</sub> (월석 8:95)

한 劫人 넷 因<sub>못</sub> 아니면 =非多劫之宿因(상원사 권선문)

王<sub>못</sub> 너를 스랑티 아니<sub>못</sub>시린덴커니와 (석보 11:30)

하마 내 눈<sub>못</sub> 업스면 내 보미 이더 못<sub>못</sub>리니 =既無我眼<sub>못</sub>면 不成我見<sub>못</sub>리니(능엄 1:99)

하다가 므스<sub>못</sub> 朋<sub>못</sub> 아니면 =若非志朋(영가, 하:128)

10. 이 세가지 형태는 꼭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임의로 교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임의로 변동된 변이형태이다.

11. 그리고 여기에서는 임자말로 쓰인 예만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이 토씨는 단순히 임자말을 표시해 주는 기능만을 가진 임자자리 토씨와는 그 성격이 아주 달라서, 특별한 뜻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토씨가 된다.

「-만딩」

12. ‘~이라도’의 뜻을 나타낸다.

누를 뜨거나 곱거나 하야도 일틀 마라 밥 머<sub>못</sub> 𣎵<sub>만딩</sub> 長常 이 이<sub>만딩</sub>를 생각<sub>만딩</sub>라 (월석 8:8)——위치말

13. 이 토씨는 매인이름씨 「-만」(→p.285)의 뜻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두 형태소로 분석하지 않고, 녹아버린 한 토씨로 본다. 만일 이것을 매인이름씨와 토씨 「-딩」으로 분석하게 되면 「-을썸딩」(→p.582)의 「-딩」도 같은 토씨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씨끝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며, 따라서 「-만딩」도 분석하지 않고, 한 토씨로 보

는 것이 좋을듯 하다.

14. 그리고 「-란디만딩」이란 어형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만딩」의 뜻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대로 한 씨끝으로 다루기로 한다.(→p.579)

「-이라」

15. ‘지적’하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라도, -이라사」와 같이 다른 도움토씨와 연결되어서만 쓰이며(→p.405), 「이」는 임자자리 토씨처럼 변동한다.

엇메 구티여 三千 무리라<sub>사</sub> 비르수 戎馬의 氣運을 鎮壓<sub>하리오</sub> (두언 6:22)——임자말

훈 字<sub>사</sub>라도 사매 가난<sub>하</sub>얌직 하도다 (두언 16:22)——부림말

16. 이 「-이라」는 잡음씨에서 온 것이므로, 잡음씨와 구별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잡음씨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p. 561 참조.

「-인들」

17. 양보의 뜻을 나타낸다.

塞外北狄<sub>인들</sub> 아니 오리잇가 (용 53장)——임자말

마<sub>는</sub> 빈<sub>들</sub> 엇메 白帝城을 저브리리오 =細雨何孤白帝城(두언 21:22)

半길 노<sub>핀</sub>들 년기 디나리잇가 (용 48장)——부림말

제 뽀도 오히려 아니<sub>하</sub>거니 <sub>하</sub>물며 어<sub>버</sub>신<sub>들</sub> 내야 주며 가시며 子<sub>息</sub>이며 <sub>조</sub>인<sub>들</sub> 주며 (석보 9:12)——위치말

현<sub>날</sub>인<sub>들</sub> 迷惑 어느 플리 (천강곡 상, 기 74)

엇메 <sub>쟈</sub>간<sub>인</sub>들 놀라 저<sub>하</sub>리오 =何曾驚怖(금강삼가 3:25)

18. 이 토씨는 잡음씨의 활용형에서 파생된 것인데(p.577 참조), 잡음씨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속뜻으로도 임자말을 생각할 수 없어서 풀이 말로 기능하지 못한다.

(3) 임자씨에는 붙지 않는 도움토씨



## 「-곰」

1. 어찌씨나 풀이씨에 붙어서, 말에 ‘여운’을 주는데, 임자씨에 붙지 않는 특별한 토씨이다.

### 〈어찌씨에〉

이리곰 火災호물 여덟번 흐면 (월석 1:49)

그뻘 目連이 種種 方便으로 다시곰 슬바도 (석보 6:6)

에 사라셔 足히 𢶏곰 내 늘근 양즈를 보내리로소니 =足以送老姿(두언 18:14)

시러곰 어드운더 ㄴ초아 두리아 =得暗藏(두언 8:70)

### 〈풀이씨에〉

늘 보리라 우리곰 온다 (월석 8:87)

能히 𢶏여곰 녀름 나를 서늘케 ㅎ낫다 =能令朱夏寒(두언 6:45)

「𢶏여」도 「뻘, 시러」와 같이, 어찌씨로 볼 수 있겠으나, 「히다」의 뜻에 뚜렷하므로 풀이씨로 보았다.

아드리 아비 나해서 𢶏기곰 사라 (월석 1:47)

「𢶏다」는 ‘배하다(두배로 하다)’의 뜻을 가진 풀이씨이다.

배는 𢶏블씨라(월석 1:48)

2. 「-곰」을 파생의 가지로 보고서, 「이리곰, 시러곰…」을 한 파생어로 보는 수도 있겠으나, 「우리곰, 𢶏기곰」은 아무래도 그렇게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모든 「-곰」을 다 토씨로 보았다.

×

×

×

### [토씨 일람표]

#### 2) 자리토씨 (대표형태만 보임)

##### (1) 첫째자리 토씨

(1-1) 임자자리 토씨 : -이

(1-2) 부림자리 토씨 : -을

(1-3) 위치자리 토씨 : -에, -의, -씩, -라셔, -드려, -히

(1-4) 견줄자리 토씨 : -과, -과로, -두고, -으라와(이라와), -으론, -이

(1-5) 방편자리 토씨 : -으로, -으록

(2) 둘째자리 토씨 (매김자리 토씨) : -의, -1

(3) 세째자리 토씨 (부름자리 토씨) : -아, -야, -이여, -하

#### 3) 연결토씨

(1) 낱말연결 토씨 : -과, -하고, -이며, -이여 (여)

(2) 마디연결 토씨 : -마론, -컨마론

#### 4) 물음토씨

(1) 고-물음 토씨 : -고(구)

(2) 가-물음 토씨 : -가

#### 5) 도움토씨

(1) 임자씨 이외에도 붙는 도움토씨 : -는, -도, -셔, -사, -곳, -이나, -이어나, -이드록, -브터, -다가, -췌, -이췌, -이라

(2) 임자씨에만 붙는 도움토씨 : -으란, (-런), -마다, -곰, -나마, -못 (뵈, 뵈), -만당, -이라, -인돌

(3) 임자씨에는 붙지 않는 도움토씨 : -곰

### 6) 토씨의 겹침

토씨는 둘 또는 셋이 겹쳐지는 일이 흔히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연결토씨-자리토씨-도움토씨의 순서로 이어나게 되며, 자리토씨와 자리토씨가 겹쳐지는 일은 없다.(이것은 한 성분이 두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 (1) 연결토씨와 다른 토씨와의 겹침

1. 연결토씨 「-과/와」로 연결된 이은말은 여러가지 자리토씨를 가지

2. 토씨



고서 여러가지 월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도움토씨를 가지고서 뜻을 정밀하게 표현한다.

### (1-1) 연결토씨 + 자리토씨

「-과」+「-이」

2. 이은말이 입자말로 기능한다.

威嚴과 德과 自在하야 (석보 9:19)

구름 울음과 새 낙음과... 나모와 뵈과 내과 프성귀와 사름과 중성  
과 다 物이라 너 아니니라 (능엄 2:34)

엇메 뵈과 내과 間隔할 쑤니리오 = 豈伊山川間(두언 8:59)

어제와 오늘왜 다 하늬 바람 부넛다 = 昨日今日皆天風(두언 16:60)

3. 「-과」로 연결된 이은말은 끝에 다시 「-과」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끝의 「-과」는 생략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토씨는 겹쳐지지 않는다.

가지와 님과 꽃과 果實이 次第로 莊嚴하코 (법화 4:121)

「-과」+「-를」

4. 이은말이 부림말로 기능한다.

하늘과 싸과를 範圍하며 = 範圍天地하며(능엄 2:20)

저와 늠과를 어즈러 (석보 9:16)

六塵과 六根과 六識과를 모도아 十八界라 하느니 (석보 13:39)

아드러 只습과 힘팔 기료몬 = 褻子心力(법화 2:213)

5. 앞의 입자말의 경우처럼, 끝의 「-과」는 생략되는 일이 있다.

阿難과 모든 大衆을 어엿비 너기샤 (능엄 2:15)

「-과」+「-에」

6. 이은말이 위치말로 기능한다.

冤讎와 아습과애 只습미 平等하야 (월석 10:31)

손발와 가슴과애... 德相이 겨샤 (법화 2:19)

물와 물과애 다 나사가리라 = 水陸에 並進也하리라(몽산 38)

엇메라 옷과 밥과애 窮困하야 = 胡爲困衣食(두언 16:19)

7. 끝의 「-과」는 줄이는 일이 있다.

뵈과 只습매 사호매 吹角人 소리 슬프도다 = 山河戰角悲(두언 8:47)

「-과」+「-의」

8. 이은말이 매김말로 기능한다.

臘은... 새와 네와의 交接이라 (월석 21:5)

여러 緣은 곧 根과 識과의 緣하논 여러가짓 法이라 = 諸緣은 即根識의 所緣諸法也라(능엄 2:17)

비르수 蕃과 漢과의 달오물 드르리로다 = 始聞蕃漢殊(두언 6:38)

9. 끝의 「-과」는 줄이는 일이 있다.

사름과 소너 姓을 무러 알며 = 問知人客姓(두언 8:47)

「-과」+「-로」

10. 이은말이 방편말로 기능한다.

슬위와 보빅로 攄문 덩과로 즐겨 布施하야 (석보 13:19)

구리어나... 옷과 뵈와로 佛像을 꾸미스바도 (석보 13:52)

몸과 只습과로 몸 아로몬 (월석 9:23)

깁과 소음과로 褥 甞꼴오 (법화 2:140)

告호디 直과 信과로 뻬 하느니 = 告之以直信(내훈 1:77)

▽끝의 예의 「-로 뻬」는 붙여서 한 토씨로 볼 수도 있겠으나, 「뻬」에는 「쁘-」의 뜻이 아직 뚜렷이 남아 있으므로, 이 시기에 있어서는 아직 「-로 뻬」가 한 토씨로 녹아붙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

11. 「-과로」는 이대로(분석되지 않은채) 견줄자리 토씨로 쓰이는 일이 있으니 구별해야 한다. (p.349)

「-과」+「-이여」

12. 이은말이 부름말로 기능한다.

하늘과 싸과여 머리 隔하리라 = 天地懸隔하리라(금강삼가 2:43)



眞語와 實語와어 阿呵呵喏喏喏 | 로다 =眞語者實語者어 阿呵呵喏喏喏 |  
로다(금강삼가 3:38)

## (1-2) 연결토씨 + 도움토씨

「-과」+「-는」

13. 이은말이 내세우거나 대조하는 뜻을 나타낸다.

伽耶迦葉과 那提迦葉과는 優樓頻羅迦葉의 앓이라 (석보 13:2)

가지와 님과는 사오나보 사르물 가즐비시고 (석보 13:47)

南齊와 唐과는 나랏 일후미라 (월석, 서:11)

悟刹과 我身관 다 長애 업고 (원각, 하 3-1:75)

「-과」+「-도」

14. 이와 저와 한가지임을 나타낸다.

仁과 智와도 사르미게 또 그리호야 =仁智도 於人애 亦如然호야(금강삼가 3:50)

「-과」+「-뿐」

15. 국한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諸法이 다 그런디라 오직 天과 獄과뿐 아니언마른(원각, 하 1-2:43)

「-과」+「-란」

16. 내세우거나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점, 「-과는」와 같다.

• 와 一와... 卍와란 첫소리에 브터 쓰고 (훈, 언해)

부텃 舍利와 經과 佛像과란 값 西入녀기 노습고 (월석 2:73)

## (1-3) 연결 + 자리 + 도움

「-과」+「-이」+「-아」

17. 이은말이 임자말로 기능하면서, 그 뜻이 강조된다.

오직 부터와 부터와사 能히... 다 아느니라 =唯佛與佛이아... (법화 1:145)

報와 化와사 비르서 말 겨시니=報化]아 方有說호시니(금강삼가 4:36)

「-과」+「-로」+「-서」

18. 이은말이 방편말로 기능하면서, 다져가지는 뜻을 나타낸다.

覺知호는 根이 지며 자막로써 오디 아니며 生과 滅와로써 이손디 아니며 =非生滅로써 有]며 (능엄 3:17)

## (1-4) 연결 + 도움 + 도움

「-과」+「-이라」+「-도」

19. 이은말을 지적하면서, 양보의 뜻을 나타낸다.

비록 하늘해 ㅁ득호 教海와 짜해 ㅁ득호 葛와 藤과라도 불근 火爐入  
우희 호 點入 殘雪이 곤호니 =雖彌天教海와 滿地葛藤이라도 如紅爐上  
一點殘雪호니(금강삼가 5:30)

## (2) 자리토씨와 다른 토씨와의 겹침

1. 자리토씨는 주로 도움토씨와 겹쳐지는데, 자리토씨 끼리 예외적으로 둘이 겹쳐지는 일도 있고, 또 자리토씨가 연결토씨 앞에 오는 일도 있다.(정상적인 순서로는, 연결토씨가 자리토씨 앞에 온다. →p.395)

### (2-1) 자리 + 도움(+도움)

#### (가) 임자자리 토씨와의 겹침

「-이」+「-서」

殘廢호 ㅁ을한 여스술기서 말호고 빈 ㅁ술힌 버미서 ㅁ토돗다 =  
邑狐狸語 空村虎豹爭(두언 23:4)

「-이」+「-아」

오직 보빋 고디사 眞實이 ㅁ외며 =唯實所]아 爲眞이며(법화 3:177)



羅睺羅 密行을 오직 내사 能히 아노니 = 羅睺羅密行을 唯我 | 사 能知之  
하노니(법화 4:62)

오직 부테사 能히 아라시니 (법화 4:63)

法엿 오시사 眞實사 오시니 (천강곡 상, 기 121)

여섯 하느리 어니사 못 도하니잇가 (석보 6:35)

#### (나) 부림자리 토씨와의 겹침

「-를」+「-사」

이 들홀사 더브르시니 (천강곡 상, 기 52)

玠羞盛饌을사 맛내 좌시며 (천강곡 상, 기 118)

엇데 淸明호 虛空을사 일후를 淸明호 누니라 하느뇨 = 云何淸空을사  
號淸明眼고(능엄 2:111)

먼 서미 의로오물사 貪하야 보노라 = 貪看絶島孤(두언 16:43)

#### (다) 위치자리 토씨와의 겹침

「-에」, 「-의」+「-는」

오직 一切 補處菩薩 外에는... 다 眞實로 信하야 아로물 못하느니  
(석보 9:28)

모미 겨스렌 덩고 녀르멘 츅고 (월석 1:26)

아츠미는 虛空에 나아 노다가 나조힐 므레 가 자느니 (석보 13:10)

므리 윈 년권 덩고 울흔 녀권 츅더라 (월석 2:39)

「-에」, 「-의」+「-도」

절본 있 中에도 離別 마득니 업스니 (석보 6:6)

녀르멘 자맛 싸해도 벌에 이실찌 (월석 21:4)

바미도 세 빨 說法하더시다 (월석 2:27)

大乘은 世界 밋기도 오히려 法性色이 잇거니 (월석 1:37)

「-에」, 「-의」+「-셔」

座에서 니르샤 (석보 9:29)

金剛은 쇠에서 난 못 구든 거지니 (월석 2:28)

畜生은 사르미 지브셔 치는 중시이라 (석월 1:46)

히는 읊 東녜 므레셔 돌고 구루믈 집 北녜 흘치셔 나눗다 = 日出籬東  
水 雲生舍北泥(두언 25:18)

「-에」+「-셔」+「-는」

中國애선 中國을 하늬 가운데라 하고... 부텃 나라해선 부텃 나라홀  
하늬 가운데라 하고 (월석 1:30)

「-에」, 「-의」+「-사」

내 몸 外에사 므스글 앓기로 (월석 7:28)

이 날애사 머리 좇스븐니 (천강곡 상, 기 109)

닐굽 山 밋기사 鹹水 바다히 잇거든 (월석 1:23)

어젯 바미사 드래 흘디 녀라 = 昨夜月同行(두언 23:6)

「-의」+「-곳」

오직 舍利弗 알핀웃 브리 업슬찌 (석보 6:33)

「-에」+「-이나」

이 뻬 衆中에 혼 사람도 모매나 므스매나 게을음 내리 업더라 (법화  
1:106)

「-에」, 「-의」+「-다가」

엇데 시러곰 나를 보내야 네 마새다가 두려뇨 = 安得送我置汝傍(두언  
25:27)

達磨大師 | 이대 계시다가 주그시거늘 熊耳山의다가 묻조오니 (남명  
상:52)

그뒷 나라홀 드러 八萬里 밋기다가 더더 (석보 23:57)

「-에」+「-썬」

엇데 오직 사호매썬 주거 울리오 = 豈唯干戈哭(두언 25:3)

「-에」+「-란」

利와 爵祿애란 저허 避하야 = 於利與祿則畏避(내훈 1:35)

「-씨」+「-셔」



부텃괴서 十二部經이 나고 (월석 14: 64)

부텃괴서 十二部經이 나시고 (법화 5: 155)

「-히」+「-도」

「-히」는 「-도」와 겹친꼴로만 나타나고, 그 예도 오직 하나뿐이다.

부테 이에 와 滅度하실쎌당 우리히도 스승니미실씨 (석보 23: 52)

#### (라) 방편자리 토씨와의 겹침

「-으로」+「-는」

안하론 想을 조차 이어고 밧마론 境을 조차 든느니 = 內則隨想搖蕩하  
고 外則逐境奔逸하느니 (능엄 2: 20)

耶輸 | 보시고 하녀마론 분별하시고 하녀마론 깃거 (석보 6: 3)

고름소리의 /오/는 /오/로 바뀌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로」에 동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녀고론 깃그시고 하녀고론 두리여 하더시다 (월석 2: 43-4)

하녀고론 陛下入 쁘디 便安하시고 들차힌... (월석 2: 71)

「-으론」이 바로 견줄자리 토씨로 쓰이는데, 이와 구별해야 한다. (p. 351)

「-으로」+「-도」

有心으로도 스몏디 못하며 無心으로도 스몏디 못하리라 (몽산 12)

那律이 能히 보마로도 수이 보디 못하리로다 = 那律能觀으로도 不易  
觀이로다 (남명, 상: 25)

「-으로」+「-셔」

迹은 처섬으로서 마춤 니르리 하산 물윗 이리라 (석보, 서: 5)

南녀그로서 虛空에 느라 디나가더니 (석보 11: 41)

고름소리가 /오/로 바뀌기도 한다.

밧고로서 이어도 뭐디 아니하며 (몽산 64)

相이 밧고로서 오논디 아니라 = 相非外來 (금강삼가 3: 32)

「-으로」+「-아」

모로매 이 각시로사 하릴씨 (월석 7: 15)

威神곳 아니면 모로매 業力으로사 가리니 (월석 21: 25)

「-으로」+「-이어나」

고름소리가 /오/로 동화된 예만 나타난다.

부디어나 손토보되어나 佛像을 그리습더니도 (석보 13: 52)

#### (2-2) 자리 + 연결

2. 자리티씨와 연결토씨가 겹쳐질 때에는, 연결토씨가 앞서는 것인데  
(→p. 395), 「-씨」와 「-과」가 겹쳐질 때에는 자리티씨가 앞선다.

「-씨」+「-과」

네 迦毗羅國에 가아 아바넝괴와 아즈마넝괴와 아자바님내씨 다 安  
否하습고 (석보 6: 1)

우리들히 大極大道元始天尊씨와 衆仙百靈씨 연줍노니 (월석 2: 74)

이러한, 겹침 순서의 규칙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원적으로  
「-씨」가 매인이름씨였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 (2-3) 자리티씨 끼리 겹침

3. 「-씨」가 매인이름씨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불규칙적 현  
상으로는, 자리티씨 끼리 겹쳐지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원래 자  
리티씨는 일정한 월성분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다른 종류의 자  
리티씨가 겹쳐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매인이름씨에서 온 「-씨」를  
토씨로 본 결과, 이러한 파격적인 현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씨」+「-으로」(+「-는」)

길흘 츠자 부텃괴로 가는 저괴 (석보 6: 19)

一千化佛이... 摩耶씨로 向하야 솔뵈샤더 (석보 23: 29)

부테 火化入 法 밍마룩샤몬 즈갓괴론 三昧力을 나토샤... 舍利 소사



나시고 사름끼게론 더러본 서근 내를 마리븄며 (월석 18:39)

▽「-게」는 매인이름씨이다. 이 두 어형의 대조에서, 「-씩」가 원래 매인이름씨였음이 확인된다.

4. 이 두가지 자리토씨가 겹쳐지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씩」는 위치를 나타내고, 「-으로」도 그 주변적 용법으로 그와 비슷한 뜻, 즉 ‘방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 (3) 물음+연결

물음토씨는 일을 끝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마디연결 토씨가 겹쳐질 수 있다.

「-고」+「-마론」

幾見雪霜이 凋萬木고마론 盤空聳檻호야 更青青호도다 (남명, 하:72)

幾度江風이 連日起오마론 未聞沉却釣魚船호라 (남명, 상:40)

▽이 예는 한문 토에만 보인다.

### (4) 도움토씨와의 겹침

#### (4-1) 도움+도움

「-셔」+「-는」

定力이 이디 몰호야선 能히 魔를 뉘우디 몰다가 =定力이 未成호야선 不能動魔호다가(능엄 9:64)

마스래 사라선 브들 行호매 잇느니라 =居官志在行(두언 8:63)

「-셔」+「-사」

須菩提 바싹 소매 便安히 안자셔사 도르혀 내 法身을 보느니라 (월석 21:206)

「-마다」+「-셔」

韋曲엿 고줄 依賴홀줄 업도다 집마다셔 사름물 호놀이놋다 =韋曲花無賴 家家惱殺人(두언 15:6)

「-이라」+「-도」

앞 토씨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p.393)

훈 字 |라도 사매 가난호암직 호도다 =一字買堪貧(두언 16:22)

머리며 누니며 손바리며 모맷 고기라도 비는 사름물 주리어니 (석보 9:13)

「-이라」+「-사」

엇메 구티여 三千 무리라사 비르수 戎馬의 氣運을 鎮壓호리오 =何必三千徒 始壓戎馬氣(두언 6:22)

엇메 行호미라사 能히 이 經을 닐오디 시러 諸難이 업스리잇고 =云何所行이라사 乃能說是經호디 得無諸難호리잇고(법화 5:4)

▽「行호미라사」의 「사」는 「사」의 잘못새김 인듯 하다.

「-브터」+「-셔」

舍利 供養브터셔 잇 마장은 人天行을 니르시니라 (석보 13:54)

#### (4-2) 도움+자리

「-이쥌」+「-이여」

「-이쥌」 다음에, 감탄을 나타내는 부름자리 토씨 「-이여」가 연결되어 「-이쥌녀」로 일을 끝맺는 일이 있다.

色과 空과 밋기 이숄디 아니어늘사 호물며 空이 쯔 밋기 잇디 아니 쥌니쥌녀 =何不應存於色空之外어늘사 況空이 又非有外也 | 쥌녀 (능엄 3:34)

번드기 法華 | 아니어늘사 호물며 道記와 果記와 달오미 잇거니쥌녀 =灼非法華 | 어늘사 況有道記와 果記之異쥌녀 (능엄 1:11,17)

막츨매 銜繫 시르미 업스니 聖聰이 호물며 仁心이 하시거니쥌녀 =竟無銜繫虞 聖聰矧多仁(두언 24:24)

匿王의 代 브료미 어루 아츨 나죄 쥌르미어니쥌녀 =匿王代謝 | 可唯 且暮 | 어니쥌녀 (능엄 1:10, 16)

「-이쥌녀」는 임자씨나 임자씨 노릇하는 말에 붙어 일을 끝맺는 일



이 있다.

네 鼓聲 드로매 그 귀 ㅎ마 鼓 티는 고대 가면 鍾聲 ㅎ뻬 나매 반  
드기 다 든디 못ㅎ리니 ㅎ뎨며 그 中에 象과 馬와 소와 羊과 種種  
엿 소리ㅅ녀 (능엄 3:22)

衆生의 ㅎ며 말며 念 뉘우미... 罪 아니니 업스니 ㅎ뎨며 제 뜯ㅁ장  
산것 주기며... 거죽말ㅎ며 百千罪狀이ㅅ녀 (월석 21:98)

이런 菩薩은 일후를 드러도 그지업슨 福을 어드리어니 ㅎ뎨며 스의  
보미ㅅ녀 (월석 8:37)

이 善女人이... 百千萬劫에 女人 잇는 世界에 다시 나디 아니ㅎ리니  
ㅎ뎨며 또 女身 受호미ㅅ녀 (월석 21:86)

地獄 罪報等엿 이틀 너비 닐옴텐 一獄中에 또 百千가짓 苦楚ㅣ 잇  
느니 ㅎ뎨며 한 獄이ㅅ녀 (월석 21:81)

莊子도 오히려 그러콘 ㅎ뎨며 道人이ㅅ녀 =莊子도 尙爾은 況道人乎여  
(영가, 하:122)

ㅎ마 심히 치운 ㄷ리 갓잡거늘사 ㅎ뎨며 기리 여희엿는 ㅁ스물 ㄷ내  
요미ㅅ녀 =已近苦寒月 況經長別心(두언 25:17)

#### (4-3) 도움+연결

「-브터」+「-이며」

연결토씨와 도움토씨가 연결될 때는 연결토씨가 앞서는 것이나,  
그 순서가 달라지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브터」가 아직 풀이씨의 성  
격을 띠고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衣服飲食브터며 일 잡주옵브터 호뎨 父母ㅣ 사랑ㅎ시는 바를 값간  
도 쥘와 마라 =由衣服飲食과 由執事를 母敢視父母所受하야(내훈 1:55)

×

×

×

#### [토씨 겹침 일람표]

##### (1) 연결토씨와 다른 토씨

(1-1) 연결+자리 : -괘, -괘를, -괘에, -괘의, -괘로, 괘여

(1-2) 연결+도움 : -괘는, -괘도, -괘뿐, -괘란

(1-3) 연결+자리+도움 : -괘사, -괘로써

(1-4) 연결+도움+도움 : -괘라도

##### (2) 자리토씨와 다른 토씨

(2-1) 자리+도움(+도움)

(가) -이서, 이사

(나) -를사

(다) -에(의)는, -에(의)도, -에(의)서(는), -에(의)사, -의곳, -에나,  
-에(의)다가, -에뿐, -에란; -최서; -최도

(라) -으로는, -으로도, -으로써, -으로사, -으되어나

(2-2) 자리+연결 : -최와

(2-3) 자리+자리(+도움) : -최로, -최론

##### (3) 물음토씨와 연결토씨 : -고마로

##### (4) 도움토씨와의 겹침

(4-1) 도움+도움 : -셔는, -셔사; -마다셔; -이라도, -이라사; -브터셔

(4-2) 도움+자리 : -이ㅅ녀

(4-3) 도움+연결 : -브터며



〈두 토씨 겹침〉

|    |     | 뒤     | 연결 |        | 자리     |        |          |   | 도움 |        |   |   |   |   |   |   |        |   |   |   |   |   |
|----|-----|-------|----|--------|--------|--------|----------|---|----|--------|---|---|---|---|---|---|--------|---|---|---|---|---|
|    |     |       | 과  | 이<br>며 | 마<br>른 | 이<br>를 | 에<br>(의) | 의 | 로  | 이<br>여 | 는 | 도 | 서 | 아 | 곳 | 나 | 이<br>여 | 다 | 나 | 가 | 뿐 | 란 |
| 앞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리 | 임자  | -이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림  | -를    |    |        |        |        |          |   |    |        |   |   |   | ○ |   |   |        |   |   |   |   |   |
|    | 위치  | -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씩    | ○  |        |        |        |          |   |    | ○      |   |   |   |   | ○ |   |        |   |   |   |   |   |
|    |     | -히    |    |        |        |        |          |   |    |        |   |   |   | ○ |   |   |        |   |   |   |   |   |
| 방편 | -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음 |     | -고    |    |        | ○      |        |          |   |    |        |   |   |   |   |   |   |        |   |   |   |   |   |
| 도움 |     |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랴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쥔   |    |        |        |        |          |   |    |        |   | ○ |   |   |   |   |        |   |   |   |   |   |

〈세 토씨 겹침〉

- 패사, -과로서, -패라도
- 애선
- 씩론

## IV. 굴곡론

### —풀이씨와 그 활용—

#### 1. 풀이씨(용언)의 특색과 그 갈래

##### 1) 풀이씨의 특색

1. 풀이씨는 월성분으로서의 풀이말로 기능하는 말 중에서 가장 으뜸 되는 것으로서, <sup>(1)</sup> 줄기와 씨끝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줄기에는 각각 여러가지의 씨끝이 붙어서 여러가지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끝바꿈」(활용, 굴곡) <sup>(2)</sup>이라 한다.

아들들히 아비 죽다 듣코(월석 17:21)

1 풀이씨만이 풀이말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 업시 (두언 20:37)

한낱 버리 눈 쫓 매니이다 (용 50장)

위의 「업시」는 어찌씨로서 「돈」을 임자말로 하는 풀이말로 기능하고 있으며, 「쫓」은 역시 어찌씨로서 「눈」을 견준말로 하는 풀이말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풀이말은 예외적인 것이고, 풀이말은 대부분 풀이씨로 된다.

(2) 「활용」은 굴곡 중의 하나다. 즉 곡용(declension)과 활용을 아울러 굴곡이라 한다. 곡용이란 임자씨(인구어의 경우에는 여기 「형용사」도 포함된다)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취하는 어형변화(흔소리 바꿈, 가지(접사)붙임 따위)를 이르고, 활용은 풀이씨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끝바꿈하는 현상을 말함인데, 우리말에서는 임자씨에 붙는 토씨는 독립된 낱말로 인정되기 때문에 「곡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자씨에 토씨가 붙는 모습은 곡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준굴곡법」이라 한 것이다.)

##### 1. 풀이씨의 특색과 그 갈래



術法이 놓다 흔들 (천강곡 상, 기 99)

如來를 念하야 一日一夜를 디내니 忽然히 보니 제 모미 흔 바롬 ㄹ

새 다드르니 그 트리 솟글코 (월석 21:23)

네 반드기 子細히 드르라 (능엄 2:27)

그 數를 알려 몰하려 (월석 14:8)

어누 나라해 가샤 나시리잇고 (월석 2:11)

내... 부려의 歸依하스보라 하더라 (월석 2:64)

위의 예에서 밑줄 그은 말은 모두 풀이말로 기능하는 풀이씨인데, 이것들은 각각 줄기와 씨끝으로 되어 있다.

죽다←죽+다, 듣고←듣+고, 놓다←놓+다, 흔들←흔+ㄴ들, 念하야←念하+야, 디내니←디내+니, 보니←보+니, 다드르니←다드르+으니, 솟글코←솟글하+고, 드르라←드르+으라, 알려←알+려, 몰하려←몰하+려, 나시리잇고←나+시리잇고<sup>(3)</sup>, 歸依하스보라←歸依하+스보라<sup>(3)</sup>, 하더라←하+더라<sup>(3)</sup>.

2. 또 한 줄기에 여러가지 씨끝이 붙을 수 있다.

曲은 고블 씨라 (석보 11:6)

藤入 너추른 고바 (두언 15:8)

니 ...곰디 아니 하며 (월석 17:52)

위의 「곰-」은 「고블, 고바, 곰디」와 같이 풀이 바뀌고 있으며,

아기 나홀 時節 (석보 9:25)

아드를 나하며 (월석 2:33)

父母 나하산 누니 (석보 19:10)

太子를 나쓰븄시니 (월석 21:211)

내 아기 날노라 하야 (월석 10:25)

(3) 「나시리잇고, 歸依하스보라, 하더라」의 「-시-, -리-, -이-; -스보-; -더-」는 모두 도움줄기(보조어간)라 하여, 줄기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여기에서는 이것을 씨끝의 한 부분으로 본다.

위의 「낱-」은 「나홀, 나하며, 나하산, 나쓰븄시니, 날노라」와 같이 그 풀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끝바뀔 현상이 끝바꿈(활용)이다.

## 2) 풀이씨의 갈래

### (1) 잡음씨(지정사)와 다른 풀이씨

1. 현대 말본에서는 풀이씨(용언)를, 움직씨(동사) 그림씨(형용사) 잡음씨(지정사)의 세가지로 나누는데, 이들은 그 뜻으로도 대강은 구별이 되지만, 으뜸되는 분류 원칙은 그 끝바꿈(활용)에 의한다. 즉,

| 씨끝<br>줄기 | -는다<br>(당소리 밑)<br>-ㄴ다<br>(홀소리 밑) | -는<br>(매김) | -자<br>(피임) | -아라/어라<br>(시킴) | -로다<br>(느낌) | -라도<br>(양보) |
|----------|----------------------------------|------------|------------|----------------|-------------|-------------|
| 먹-       | ○                                | ○          | ○          | ○              | ×           | ×           |
| 보-       | ○                                | ○          | ○          | ○              | ×           | ×           |
| 놓-       | ×                                | ×          | ×          | ×              | ×           | ×           |
| 깨끗하-     | ×                                | ×          | ×          | ×              | ×           | ×           |
| 아니-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표는 연결이 가능한 것, ×표는 연결이 불가능한 것.)

위의 표에 의하면 풀이씨의 줄기는 씨끝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세가지로 나뉘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풀이씨를 세가지로 나누기 위해서는 모든 풀이씨의 모든 끝바꿈꼴(활용형)을 다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현대말에 있어서는, 우리는 말본에 맞는 어형을 죄다 생성해(만

1. 풀이씨의 특색과 그 갈래



들어) 낼 수 있는 「언어능력」<sup>(4)</sup>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풀이씨의 모든 끝바꿈꼴의 완전한 일람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의 일람표는 그 극히 국한된 일부분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떠한 풀이씨라도, 그것이 움직씨에 들 것인지, 그림씨에 들 것인지, 잡음씨에 들 것인지, 죄다 단정해 낼 수 있는 것이다.

3. 그런데, 옛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든 끝바꿈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가지지 않았다. 옛말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직 귀납적인 방법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헌을 분석하여, 여기에서 말본 규칙을 귀납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문헌을 죄다 검토해 보았다고 했자, 그에 쓰인 말은, 무한한 「언어수행」<sup>(5)</sup>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문헌에는 모든 풀이씨가 죄다 나타날 것임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각 풀이씨의 끝바꿈꼴이 죄다 나타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풀이씨의 어떠한 끝바꿈꼴이 문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꼴이 없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문헌은 긍정적인 자료는 제공해 줄지언정, 부정적인 자료는 제공해 주지 않는다.

4. 뜻에 의지해서 움직씨와 그림씨를 구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로 보면, 현대말로써는 움직씨로 표현해야 할 자리에, 옛말에서는 그림씨처럼 보이는 말을 쓴 일도 있어, 이 방법도 의지할만 한 것이 되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病흔 사르미 잇거든 夫人이 머리를 돈지시면 病이 다 도터라 (월석 2:30)

(4) 「언어능력」이란 변형·생성문법의 용어로서, 'linguistic competence'의 번역이다. 즉 기억되어 있는 한정된 수의 언어요소로써, 말본에 맞는 말을 맞추어내는, 우리 인간의 창조적 정신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5) 「언어수행」이란, 역시 변형·생성문법의 용어로서, 'linguistic performance'의 번역이다. 언어능력으로 만들어진,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 즉 소쉬르(Saussure)의 parole(parole)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한한 다양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훔볼트(Humboldt)는 언어란, 유한한 수단을 무한하게 부려 쓰는 것이라 했다.

위의 「도터라」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 현대 말의 그림씨에 해당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또

便安을 즐겁거든 (원자, 하 3-1:102)

에 있어서는 분명한 그림씨가 부림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풀이씨를 다시 하위분류하기란, 옛말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5. 그러나 잡음씨(지정사)만은 그 수효가 극히 국한되어 있는 데다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씨끝은 잡음씨에서는, 다른 풀이씨의 경우와 다른 변이형태를 취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다른 풀이씨(움직씨, 그림씨)와 구별할 수 있고, 또 구별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6. 씨끝의 첫소리 /ㄷ/은 잡음씨에서는 /ㄹ/로 변동하는 일이 있다.

「-다」 / 「-라」

<움직씨·그림씨>

닐굽히 너무 올라다 (월석 7:2)

느덜 의다 하야 (석보 9:14)

너도 또 이 곧 하다 =汝亦如是하다 (능엄 2:23)

一切相을 여희다 하시니라 =離一切相이라 하시니라 (능엄 2:69)

아들들히 아비 죽다 듣고 (월석 17:21)

법이 떠디여 갈씨 그우리다 하느니 (석보 6:18)

<잡음씨>

幻은 꼭되라 (능엄 2:7)

일후미 涅槃이라 하더니 =名爲涅槃이라 하더니 (능엄 2:3)

너와 나왜 同氣라 (능엄 1:41)

스흠 아노미 아니라 (월석 1:36)

내 智分 아니라 (법화 2:239)

「-더-」 / 「-러-」

<움직씨·그림씨>

아리 잇디 아니턴 이를 득과라 하더라 =得未曾有하더라(능엄 2:10)

1. 풀이씨의 특색과 그 갈래



五百 도즈기 ...도<sup>죽</sup>하더니 (월석 10:27)

네는 조히 업서 대를 엇거 그를 쓰더니라 (월석 8:96)

世尊하 손지 世間에 거시더니잇가 (월석 18:36)

<잡음씨>

나랏 일후몬 大成이러라 (석보 19:27)

本來 브라오미 아니러라 = 非本所望이러라 (법화 2:77)

長者 | 닐굽 아드러러니 (석보 6:13)

災難이 하나 아니러니 = 衆難非一 (법화 2:131)

이 아드러 아던 거시러니라 = 是子所知러니라 (법화 2:222)

훈갓 卿相이 尊하니뿐 아니러니라 = 不獨卿相尊 (두언 16:3)

姓이 프스기러니잇고 (월석 21:27-8)

「-다-」 / 「-라-」

<움·그>

우리 나히 하마 늘거... 훈 念도 즐기논 막스물 아니 내다니 월석 13:5-6)

<잡>

우리도 沙羅樹大王入 夫人들히라니 (월석 8:100)

「-도-」 / 「-로-」

<움·그>

이 각시사 내 얻니논 막스매 맞도다 (석보 6:14)

잘 오도다 羅卜아 (월석 23:76)

이 보미 업도소이다 = 無是見者 | 로소이다 (능엄 2:50)

<잡>

네 업던 이리로다 (월석 1:14)

親호미 쉽디 아니홈 아니로다 (남명, 하:14)

이 일후미 먹요미로소이다 = 此名爲結이로소이다 (능엄 5:18)

法이 아니로소이다 (능엄 6:77)

「-다가」 / 「-라가」

<움·그>

두 히 돌다가 세 히 도드면 (월석 1:48)

<잡>

네 得흔 거슨 聲聞의 慧眼이러가 이제 니르러사 (금강 73)

眞實로 日月威光의 能히 비취요미 아니러가 (법화 3:104)

7. 움직씨·그림씨에 있어서도, 이러한 씨끝들이 줄기에 바로 붙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다른 형태소(씨끝)가 들어가게 되면, /르/로 변동하는 일이 있다.

「-다-」→「-라-」

힘 뿌미 저그리<sup>으</sup>라 (몽산 4)

菩提入 果를 어드리<sup>으</sup>라 (능엄 2:78)

하오사 내 尊호<sup>으</sup>라 (←「하+오+라」, 월석 2:34)

내 노포<sup>으</sup>라 (←「노+오+라」, 월석 21:67)

「-더-」→「-러-」

그 數 | 몰내 헤리<sup>으</sup>라 (월석 8:90)

罪 하마 일리<sup>으</sup>니 (용 123장)

「-도-」→「-로-」

가즐비디 몰하<sup>으</sup>리로다 (능엄 2:5)

그 法이 이헤 나오<sup>으</sup>리로소이다 (월석 2:49)

「-다가」→「-라가」

알핀 다 我相이 이서 功을 펴디 몰하<sup>으</sup>리라가 (원각, 하 3-1:76)

그러므로 이러한 씨끝의 변이형태가 잡음씨를 구별해 주는 것은, 이것들에 줄기에 바로 붙을 경우에 있어서다.

8. 또 씨끝 「-오/우-」는 잡음씨에서는 「-로-」로 변동한다.

<움·그>

法 닷고<sup>으</sup>몰 몰하야 (←「닷+오+ㅁ+울」, 석보 9:14)

信하야 아로<sup>으</sup>몰 몰하<sup>으</sup>니 (←「알+오+ㅁ+울」, 석보 9:28)

제 울호<sup>으</sup>라 하고 (←「울+오+라」, 석보 9:14)

成佛호매 니르<sup>으</sup>로니 (←「니를+오+니」, 월석 21:210)



<잡>

工夫 | 훈가지로물 니르니라 (←「훈가지(이)+로+ㅁ+을」, 몽산 19)

畵 그림제 眞實入 돌 아니로미 존하니라 (←「아니+로+ㅁ+이」, 월석 2:55)

五百 弟子 | 各各 第一이로라 일롸느니 (←「-이+로+라」, 월석 21:199)

이제 나는 가난호미라 病 아니로라 (←「아니+로+라」, 남명, 상:30)

내 크로니 이에 살아지라(←「크+이+로+니」, 월석 7:12)

客이 아니로니 (←「아니+로+니」, 두언 15:35)

잡음씨에 「-오/우-」가 쓰인 예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스춤 아노미 아니라 (←「아니+오+ㅁ+이」, 월석 1:36)

9.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움직씨와 그림씨는 구별하지 않기로 하나, 그것과 잡음씨는 구별하여 기술해 나가기로 한다.

10. 그러나 잡음씨 이외에 풀이씨의 다른 하위품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끝바꿈꼴에 의한, 다른 하위 구분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文殊 | 라 호니 잇느너 文殊이 업스너 (능엄 2:58)

難陀는 깃브다 하논 마리오 跋은 어디다 하논 마리오...어딘 德이 있다 하논 마리오...德义迦는 毒을 내느다 하논 마리오 (석보 13:7)

이러한 용법으로 보면, 「있다」와 「없다」가 다른 부류에 속하고, 「깃브다, 어딜다, 있다」는 「내다」와 다른 부류에 속할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있다」가 한편으로는 움직씨적인 부류에 들어 있고, 한편으로는 그림씨적인 부류에 들어 있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움직씨와 그림씨는 구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 (2) 매인(도움)풀이씨

1. 풀이씨는 그 움직임이나 모양이나 바뀌말함(환언)의 뜻을 뚜렷하

게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아득을 나하며 (월석 2:33)

바룩ᄃᆞᆫ새 다드르니 (월석 21:23)

의 「나하며, 다드르니」는 ‘움직임’의 뜻이 분명하고,

術法이 놓다 혼들 (천강곡 상, 기 99)

畵 비치 곰도다 (두언 20:8)

의 「놓다, 곰도다」는 ‘모양’을 그리는 뜻이 뚜렷하고,

幻은 꼭되라 (능엄 2:7)

이 일후미 믹요미로소이다 (능엄 5:18)

의 「꼭되라, 믹요미로소이다」는 ‘바뀌말함’의 뜻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2. 그런데, 어떤 말은 그 끝바꿈의 모습이 이러한 풀이씨와 같으면서, 풀이씨가 가진 이러한 뜻을 가지지 않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 것이 있으니, 이러한 풀이씨를 「도움풀이씨」(보조용언), 또는 「매인풀이씨」라 한다.<sup>(6)</sup> 이에 대해서 앞에 말한 바와 같은, 움직임, 모양, 바뀌말함의 뜻이 뚜렷해서, 단독으로 풀이말이 될 수 있는 풀이씨를 「으뜸풀이씨」라 한다.

3. ① 고히 길오 놓고 고드며 (석보 19:7)

이 말에는 풀이씨가 셋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세 율이 변형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고히 길다.

③ 고히 놓다.

(6) 「도움」이라 하는 것은, 앞에 오는 말의 뜻을 어느 정도 돕는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고, 「매인」은 반드시 앞의 말에 매여서 쓰이며,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이것은, 매인이름씨가, 형식상으로는 이름씨이나, 반드시 다른 말에 의지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매인풀이씨」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것 같다.



④ 고히 곧다.

따라서 이러한 세 풀이씨는 모두 으뜸풀이씨이다.

⑤ 耶輸 | …을며 여희시니라 (석보 6:9)

이 말도 풀이씨가 둘이 연결되어 있으나, 이것도

⑥ 耶輸 | …을다.

⑦ 耶輸 | …여희다.

의 두 월이 변형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풀이씨는 다 같이 으뜸풀이씨가 된다.

4. 그러나,

⑧ 目連이 耶輸入 宮의 가 보니 (석보 6:2) 는,

⑨ 目連이…가다.

⑩\*目連이 (…을) 보다.

의 두 월이 변형으로 연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⑨는 분명히 ⑧의 뜻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⑩은 ⑧의 뜻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①은 ②, ③, ④의 뜻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으며, ⑤는 ⑥, ⑦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과 비교) ⑨는 ⑧의 뜻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는 으뜸풀이씨가 되나, 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는 메인풀이씨가 된다.

5. 메인풀이씨는 반드시 으뜸풀이씨에 의지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연결되는 으뜸풀이씨의 활용형에 따라 벌여 보면 다음과 같다.

## (2-1) 「-아/어」 활용형에 접속되는 메인풀이씨

「보다」

6. 으뜸풀이씨 「보다」에서 전성된 것으로서, 현대말의 경우와 같이, ‘해보기’의 뜻을 나타낸다.

目連이 耶輸入 宮의 가 보니 (석보 6:2)

일로 헤여 보건덴 (석보 6:6)

무려 보라 (석보 6:26)

「버리다」

7. 으뜸풀이씨 「버리다」에서 전성된 것으로서, 현대말의 「버리다」와 같이, ‘완결, 끝장남’의 뜻을 나타낸다.

恩惠를 니저 버리샤 (석보 6:4)

뜻은 브들 못 브러 버리느니 (석보 6:6)

地獄을 밋아 버려 (월석 21:181)

부터는 煩惱를 버려 버리실씨 (월석 1:12)

흔 발로 玄妙寨를 드위혀 버리도다 = 一脚趄翻玄妙寨 (금강삼가 3:46)

빈혀를 바사 브료리라 = 脫…簪 (두언 15:4)

8.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어」 끝에 붙어 있기는 하나, 그 으뜸풀이씨로서의 뜻이 뚜렷한 으뜸풀이씨다.

이 무른 …또 춘 이스를 니버 버리이리라 = 亦蒙寒露委 (두언 16:66)

「넙다」와 「버리다」 두 가지 움직임의 뜻은 뚜렷이 독립적이다. 즉 이 말은,

이 무른…이스를 넙다.

이 무른…버리이다.

의 두 월이 변형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 경우의 「-어」는 제약법 씨끝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은 한 낱말로 익어버린 것이다.

破는 하야브릴씨라 (월석, 서:6-7)

이 말은 두 월의 연결로 볼 수 없다.

① (…을) 하야…

② (…을) 버리다.

①, ② 둘 다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앞의 「가 보니」와 비교할 것.)

「디다」

9. 으뜸풀이씨 「디다」(떨어지다)에서 전성된 것으로서, ‘(절로) 어떤 경지에 도달함’의 뜻을 나타낸다.

되히여 돌히여 다 노가디여 (월석 1:48)

1. 풀이씨의 특색과 그 갈래



글워를 上臺에서 느려디도다 = 文章落上台 (두언 23:27)

니 ...이저디며 (석보 19:7)

우리 道의 닐며 몰어듀미 (월석 2:74)

大地 위여 빠디며 = 大地振圻 (능엄 9:47)

結使 | 스려디거늘 (월석 21:7)

10. 이상의 으뜸폴이씨 「늑다, 느리다, 이즈다, 모르다, 켜다, 슬다」는 모두 제음직씨이다.

瑠璃는 ...늑디 아니 느니라 (월석 1:22)

帝命이 느리어시늘 (용 8장)

득리 이즈며 = 月缺 (금강삼가 2:6)

이 말의 줄기는 「이즈-」인지, 「잇-」인지 결정되지 않으나, 우선 「이즈-」를 취해 둔다.

므르디 아니 흠 (월석 7:69)

손바리 어리 쁘고 = 手脚凍斃 (두언 25:26)

色陰이 슬으 = 色陰銷 (능엄 9:70)

11.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함’의 뜻을 나타내는데, 남음직씨에 붙을 때는, 부림말을 임자말로 바꾸는 「제음직임 변형」을 일으키게 한다.

그 나뭇 불휘를 세혀 ...드트리 득의 벗아디거늘 (석보 6:30-1)

돌히 벗아디니라 (능엄 7:88)

으뜸폴이씨 「벗스다」는 남음직씨다.

내 모물 엇테 ...벗스디 몬관디 (월석 21:219)

그러므로 「벗아디거늘」은 ‘(남폴) 벗스다’ (\* (남기) 디다’는 성립되지 않음)의 변형으로 풀이된다.

온 즘성이 듣고 딛고리 다 빠려디느니 = 百獸聞之皆腦裂 (남명, 상:74) 「빠리다」도 남음직씨다.

흙무저글 빠리니 = 破塊 (두언 16:66)

따라서 이 말은, ‘딛고를 빠리다’ (⇒딛고리 빠려디다)의 변형이다.

12. 다음과 같은 말은 합성어로 보아진다.

부텃 塔廟 | 어나 시혹 經像에 니르리 허려 빠려디엿거든 (월석 21:141) 「텔다」도 남음직씨다.

匣을 빠러 = 拂匣 (두언 20:50)

따라서 이 말도, ‘塔廟(經像)를 텔다’ (⇒塔廟 | 빠려디다)의 변형으로 설명될 수 있을것 같다. 그러나 으뜸폴과 변형된 월의 뜻이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변형과정은 무조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빠려디다」는 파생된 한 낱말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ㄹ 숲 벗르미 스라디 부느니 = 秋風落 (두언 23:29) 「설다」도 남음직씨이다.

鹿皮 오슬 ...스르시고 (월석 1:16)

따라서 이 말도 변형으로 설명하고 싶어지나, ‘벗르설 설다’가 말이 될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도 파생된 한 낱말로 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

비와 구름과 스라디여 업슬씨오 (월석 10:85)

이 경우에도 ‘비와 구름을 슬다’가 말이 되지 않을것 같으므로, 「스라디다」는 파생된 한 낱말로 보아진다.

空애 빠디며 = 沈空 (몽산 37)

꺼던 모를 (용 37장)

득리에 빠딜 모를 (용 87장)

의 「빠디다, 꺼디다, 빠디다」도 원래는 「쁘다, 켜다」와 「디다」가 연결된 것이었겠으나, 이것들은 완전히 파생어가 되어 버렸다.

「하야디다, 젓바디다」는 으뜸폴이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잇다」

13. ‘어떠한 상태나 동작이 완료된채 그대로 지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으뜸폴이씨 「잇다」에서 온 말이다.

赤眞珠 | 득의야 잇느니라 (월석 1:23)

이 말의 뜻은 ‘赤眞珠가 되어서 그 상태를 그대로 지속한다’는 것이지, ‘赤眞珠가 되어’ ‘赤眞珠가 (...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원래의 뜻은 그랬을 것이나). 다음의 예들도 모두 한가지다.



帝釋이 가운데 위두하야 잇느니라 (월석 1:31)

(11) 大愛道 | 드르시고 흔 말도 몰하야 잇더시니 (석보 6:7)

네 이제 ...부터를 맞나 잇느니 (석보 6:11)

내 ...하늘해 나아 門神이 드외야 잇노니 (석보 6:20)

(12) 迷人이 險道에 그르 드러 잇다가 (월석 21:120)

14. 「잇-」은 홀소리씨끝(고름소리를 취하는 것도 이에 포함)이 올 때는 「이시-」를 취한다.

그저귀 世尊의 四衆이 圍繞<sub>하</sub>스바 이서 供養<sub>하</sub>스<sub>며</sub> (석보 13:11)

妻眷 드외안디 三年이 몰차 이서 世間 버리시고 (석보 6:4)

王이 威嚴이 업서 느릿 소내 쥐여 이시며 (월석 2:11)

遊子 | 오래 밧기 가 이쇼니 = 遊子久在外 (두언 6:43)

15. 으뜸폴이씨의 사이에 토씨가 끼여들 수도 있다.

梵志들히 仙人入 道理 닷노라 하야 옷 바사도 이시며 나뭇닙도 머그  
며 (석보 24:25-6)

16. 으뜸폴이씨의 씨끝 「-아/어」와 「잇-」의 /이/는 홀소리 끼리 충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두 말 사이에는 휴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두 홀소리는 한 음절로 축약되어 겹홀소리가 된다.

八萬四千 童女 | ...몬져 갯거늘 (월석 2:28)

「갯-」은 「가+아+잇」의 축약이다.

須達이 病<sub>하</sub>엿<sub>거늘</sub> (석보 6:44)

갈기에 구스리 빼엿거든 (월석 1:27)

幽深<sub>하</sub> 고존 기웃<sub>하</sub>야 남기 ㄹ독<sub>하</sub>엿<sub>고</sub> = 幽花歛滿樹 (두언 7:20)

들리 소리 서르 들어 흔 ㄹ새 니엿고 (월석 1:46)

내 이제 ...오술 드리웁노니 네 내 오술 보라=我 | 흔에 ...垂衣<sub>하</sub>엿<sub>노니</sub>  
汝 | 看我衣<sub>하</sub>라 (능엄 3:83)

「드리웁-」은 「드리우+어+잇」의 축약이다.

내 오늘 起屍餓鬼中에 넛노라 (월석 9:36중)

득스물 몰치자바 得道를 몰하엿<sub>노</sub>이다 (석보 24:26)

森 가운데 자뻐는 님 보듯<sub>하</sub>며=如觀手中所持藥物 (능엄 3:108)

이 가마는 엿데 뵈엿노 (월석 7:13)

蓬萊宮闕이 南山을 相對<sub>하</sub>엿<sub>느니</sub> = 蓬萊宮闕對南山 (두언 6:8)

여러가짓 비젯 고지 들어 莊嚴<sub>하</sub>엿<sub>느니라</sub> (석보 19:18)

어미는 어디 넛느니잇고 (월석 23:89)

「넛-」은 「나+아+잇」의 축약이다.

殄心은 ㄹ스매 毒을 머갯는 사르미라 (능엄 7:47)

地에 몰 울엿는 菩薩 (석보 9:28)

「울엿-」은 「오르+아+잇」의 축약이다.

몇 싸히 석식기 니엿는<sub>고</sub> = 幾地肅芊芊 (두언 20:13)

고지 누늘 엿는<sub>듯</sub> 하니 = 花戴雪 (두언 18:10)

「엿-」은 「이+어+잇」의 축약이다.

속절업시 안갯다 니르디 말라 = 莫言空打坐 (금강삼가 4:30)

님그미 나갯더시니 (용 49장)

「나갯-」은 「나가+아+잇」의 축약이다.

가도엿던 사름 노코 (석보 9:33)

수메서 드르시고 (용 108장)

마조 안재시니 이 商山엿 늘그니 존도다 = 偶坐似是商山翁 (두언 16:33)

輦과 四兵이 다 ㄹ자 왜시며 (월석 2:28)

17. 으뜸폴이씨 「두다」에 접속될 때는, 「-아/어」 씨끝은 줄어진다.

내 흔 法을 뒛노니 (월석 10:69)

「뒛-」은 「두+(어)+잇」의 축약.

내 色을 뒛노라 하며 (능엄 10:29)

내 뒛는 천량이 다 이 아드리 뒛는 거시라 (월석 13:31)

그윽 지비 ㄹ숲 반되를 容納<sub>하</sub>야 뒛다 = 廊宇容秋螢 (두언 6:20)



네 이 숲을 뒷던다 아니 뒷던다 (월석 9:35하)

내 훈 匹入 도훈 東녜 기블 뒤쇼디 앓교물 錦繡段애 디우 아니 녀  
기노라 = 我有一匹好東絹 重之不減綿繡段 (두언 16:34)

「뒤쇼디」는 「두+(어)+이시+오+디」로 분석된다.

18. 이러한 축약된 어형은, 축약되지 않은 어형과 같은 시기(15세기 중기)에 공존하고 있었는데, 15세기 말기에 가까워지면, /애, 예, 얘, 예/ 따위 접효소리의 끝 /l/(j)소리가 줄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北녀그로 劍閣入 모홀 버헛거늘 = 北斷劍閣隅 (두언 6:38)

野老 | 이 곤훈 田地를 어뎃거니 엇테 시르미리오 (남명, 하:57)

그디 나라 다스릴 지조를 젓건마른 = 子負經濟才 (두언 22:47-8)

빅는 고기 낚는 그르시 드외얏고 = 船爲釣魚之具 (금강삼가 3:60)

將次入 衰老호매 大乘애 棲止호얏고저 호노라 = 將衰棲大乘 (두언 22:26)

구티여 히여 넷 두들글 브딧기 호리아 = 敢使依舊丘 (두언 18:9)

檀木이 세히예 쿠물 비브르 드릿노니 = 飽聞檀木三年大 (두언 18:22)

局促히 一世에 늘것노라 = 局促老一世 (두언 22:34)

호마 得 호얏노이다 (남명, 상:53)

브딧논 모든 有 = 所依諸有 (능엄 6:53)

고지 니에 마득호얏느니 = 花滿烟 (두언 18:7)

三乘十二分教는 法華애 사겏느니라 (금강삼가 2:41)

遼天鵬은 하늘해 머리 뻗는 매라 (금강삼가 2:55)

고기 잡는 사르미 굽곳 마새 웃고 섯다 = 漁人이 笑立蘆花岸 호얏다 (남명, 상:46)

드드며 티티며 느랏다가 떠러디며 = 沒溺騰擲飛墜 (능엄 8:87)

여러 히를 지즈루 머리 여히여쇼니 = 積年仍遠別 (두언 8:42-3)

내 호오사 지야쇼라 = 我獨醒 (두언 8:31)

사라쇼물 니저 = 忘生 (능엄 2:112)

長常 저근 도치를 가져슈라 = 常持小斧柯 (두언 18:23)

구름 氣運이 브티술 싸히 업도다 = 雲氣無處所 (두언 25:12)

비록 싸힐 어더시나 아스라히 외로외오 노파 = 雖得地冥冥孤高 (두언 18:12)

龐公이 주구메 니르도록 수머시니라 = 龐公至死藏 (두언 20:37)

念훈돈 그디논... 넷 가지들 堅守호야시라 = 念子...守舊柯 (두언 22:48)

당상 두 허튀를 펴 누어시리라 = 長伸兩脚臥 (육조, 상:81)

가지에 깃호야 프른 머귀를 자바시리로다 = 棲枝把翠梧 (두언 23:36)

엇테 能히 더러운 흘기 빠더시리오 = 安能陷糞土 (두언 8:58)

조개 비예 물곤 구스리 수머시며 = 蚌腹隱明珠 (금강삼가 2:56)

사라신 제 오히려 痛渴호며 (능엄 8:81)

네 어미 사라실 제 엇던 行業을 호더노 (월석 21:53)

意 | 五根을 외화실씨 = 意 | 惣五根홀시 (능엄 3:16)

大德아 如來 니르시는 아홉 橫死를 매 못 들즈바실다 (월석 9:56)

19. 이상의 어형은 모두 /l/가 줄어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 경우의 「(이)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시-」와 구별이 어렵게 되는 일이 있다.

뫼 나조히 뜬 구루미 모다시니 도라갈 뻗 길홀 迷失호가 진노라 = 山晚浮雲合 歸時恐路迷 (두언 8:51)

故園애 사호매 마리 어드워시니 아수물 追尋호물 일후라 = 故園暗戎馬 骨肉失追尋 (두언 25:5)

이 말은 각각 「모다+(이)시니, 어드워+(이)시니」의 생략형인데, 이와 꼭 같은 꼴을 가진 다음 말은 이렇게 분석되지 않는다.

하늘히 일워시니 赤脚仙人 아닌들 天下倉生을 니즈시리잇가 (용 21장)

才勇을 앓기샤 金刃을 브려시니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용 54장)

이런 말은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각각 「일워니+시, 브려니+시」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첫째, 이 말의 임자말은 모두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둘째, 「일워니, 브려니」형이 쓰이고 있고, 세째, 그에 따라 그 뒤에 오는 말이 모두 뒤집음말(니즈시리잇가, 아니 오리잇가)로 되어 있기(「일워니」형은 뒤에 뒤집음말을 요구한다) 때문이다. (「모다시니, 어드워시니」의 경우와 비교할 것.)



「하야니」형의 다음에는 뒤집음말이 요구되는데(→p. 524), 그 예를 보이면 :  
四海를 平定하샤 길 우희 糧食 니저니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용  
53장)

識이 하마 드로물 니버니 닌 識 드로물 알리오 = 識이 已被聞하야니 誰知聞  
識하리오 (능엄 3: 41)

20. 「두다」에 있어서는 「-아/어」 씨끝이 줄어들어서 「뒷-, 뒤시-」가  
되는데(p. 423 참조), 다시 /l/가 줄어들면, 「뒷-, 두시-」가 된다.

取하며 捨호물 믋스매 뒷거니 엇메 값간인들 니즈리오 = 取捨를 居懷  
커니 肯暫忘이리오 (남명, 하: 48)

先生의 뒷논 道理는 羲皇스 우희 나고 先生의 뒷논 지조는 屈原 宋  
玉의게 넘도다 = 先生有道出羲皇 先生有才過屈宋 (두언 15: 37)

衆生과 부터왜 흔가지로 두쇼던 = 生과 佛왜 等有호던 (능엄 1: 97)

하다가 한 無明을 衆生이 本來 두술딘덴 엇던 因緣스 전츠로 如來  
| 또 本來 成佛이라 니르시니잇고 = 若諸無明을 衆生이 本有 ㄹ덴 何因  
緣故로 如來 | 復說本來成佛이시니잇고 (원각, 상 2-3: 3)

21. 「하야셔」형도 「하야+(이)셔」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의 「-셔」  
는 토씨로 처리한다.(→p. 377)

22. 현대말의 때매김의 안맺음씨끝 「-았/었-」은 「-아/어-」+「잇-」의 줄어든  
형태인데, 이 어형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하다」를 대표로서 설명한다.)

하야+있다 > 하엿다 > 하얏다 > 하었다.

이 중, 「하얏다」 형은 분명히 두 낱말의 연결로서 「있다」는 도움풀이씨이  
며, 「하엿다」 형도 「하야있다」 형의 단순한 음성적 축약형에 지나지 않을뿐 아나  
라(/i/ > /j/의 변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 어형은 같은 시기에 공존하고 있  
었으므로 「하엿다」는 역시 두 낱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얏다」 형은 /i/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이미 두 낱말의 형태를 잃어버  
리게 되었고, 또 이 어형은 대체로 「하엿다」 형보다 뒤시기의 문헌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았-」만은, 현대말의 「-았/었-」과 같이, 한 안맺음씨끝  
(보조어간)으로 보고 싶으나, 「하엿-」의 모든 활용형이 가진 의미내용은 바로  
「하얏-」의 모든 활용형이 가진 의미내용과 꼭 같으므로, 「하얏다」 형도 역시 두  
낱말로 분석하여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하얏다 ← 하야+(이)이다  
하야시니 ← 하야+(이)시니

「겨시다」

23. 「잇다」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높임말이다. 으뜸풀이씨에서 온  
말.

부터 나 겨시던 時節 (석보 9: 2)

이 말의 뜻은 :

부테 나다.

부테 겨시다.

두 월의 연결로 된 것(뜻으로는 : 부처가 이 세상에 나서, 이 세상에 계시다)  
에보다, ‘부처가 이 세상에 나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시절’이란  
뜻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겨시다」는 도움풀이씨로 보는 것이 좋을 것  
이며, 다음도 다 그러하다.

釋迦如來 부터 묻드외야 겨실 져 (월석 2: 8)

미친 사람 마티 뒷고래 수머 겨샤 (석보 6: 4)

이제 부테 나야 겨시니라 하야놀 (석보 6: 12)

님그미 太白山애 巡守하야 겨시니 = 天王守太白 (두언 6: 3)

世尊이 ...니버 겨신 僧伽梨衣를 아스시고 (석보 23: 8)

現하야 겨신 十方엿 ...諸佛世尊 (석보 13: 54)

24. 「두다」에 이 도움풀이씨가 연결될 때는 「두다」의 「-아/어」 씨끝은  
줄어진다. (「잇다」의 경우와 한가지다.)

더 부테 無量無邊 聲聞 弟子를 두 겨시니 (월석 7: 69)

〇 乃終스 부테 ...出家 아니하야 겨실 저기 여들 王子를 두 겨샤디  
(석보 13: 29)

두 겨신 功德 (월석 21: 156)

두 겨샤물 讚歎하습고 = 讚所蘊也 (법화 3: 110)

「가다」



25. 현대말의 경우와 같이, '진행의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며, 으뜸 풀이씨의 「가다」에서 온 것임은 물론이다.

殘花는 하마 업서 가는 고지라 (남명, 상:5)  
'업서 가는 꽃'은, '고지 업서 가다'의 한정변형으로 된 말인데, '고지 업다'는 성립되지마는 '\*고지 가다'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가다」는 도움풀이씨이다.

法이 떠디여 가미 물 흘러 녀미 마틀씨 (석보 9:21)  
'法이 떠디다'는 말이 되지마는, '\*法이 가다'는 말이 되지 않으므로 「가다」는 도움풀이씨이다.

「흘러 녀미」도 이와 비슷하나, '므리 흐르다'와 '므리 녀다'는 다 같이 말이 되므로, 「녀다」는 도움풀이씨로 볼 수 없다.

26. 다음 예에서도 「가다」의 원래의 뜻은 찾아볼 수 없다.

주거 가는 거식 일을 못 보신들 매 모르시리 (천강곡 상, 기 43)

녀미 떠아 가미 (석보 13:4)

히 디여 가던 (월석 1:9)

「두다」

27. 어떠한 행동이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뜻을 나타낸다.

돕가히를 ...도히 쳐 술찌거 하야 두고 (월석 23:73)

원녀 피 달담고 올흔녀 피 달다마 두고 날오더 (월석 1:7)

典은 尊하야 여저 들씨니 經을 尊하야 여저 뒷는 거실씨 經典이라  
하느니라 (석보 13:17)

느는 비출 땡마라 뒸노니 =具飛楫 (두언 20:11)

블근 구스른 시러곰 어드운디 마초와 두리아 =珠明得暗藏 (두언 8:70)

28. '달다마 두고, 여저 들, 여저 뒷는, 땡마라 뒸노니, 마초와 두리아'의 「두다」는 으뜸풀이씨로 볼 수도 있다. 즉 '피를 달담다'와 '피를 두다', '經을 엮다'와 '經을 두다', '비출 땡졸다'와 '비출 두다', '구스를 마초다'와 '구스를 두다'가 각각 다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문에 쓰인, 메인풀이씨로 본 「두다」는, '피를 두다, 經을 두다, 비출 두다, 구스를 두다'란 뜻으로 해석되기보다, 앞의 풀이씨의 내용을 유지하는 뜻을 나타내는 편으로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메인풀이씨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다」

29. '어떤 상태에서 탈피함'의 뜻을 나타낸다.

다른 나라히 와 보차거나 도즈기 꼴외어나 하야도 더 如來를 念하야 恭敬하스면 다 버서 나리라 (석보 9:24-5)

「내다」

30. '끝까지 완수함'의 뜻을 나타낸다.

性靈을 땡마라 내요물 므스거슬 두어서 하리오 =陶冶性靈存底物 (두언 16:14)

이 말에는 '性靈을 땡졸다'의 뜻은 포함되어 있으나, '性靈을 내다'의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勞度差 | 또 혼 쇼를 지서 내니 (석보 6:32)

'쇼를 짓다'는 성립되나, '\*쇼를 내다'는 성립되지 않는다.

(2-2) 「-게」에 접속되는 메인풀이씨

「드외다」

31. '어떠한 상태에 이름'을 나타낸다.

우리 어시아드리 외롭고 입게 드외야 (석보 6:5)

마린 거시 업게 드외니 ...모딘 잠개 나사드디 묻게 드외니 (천강곡 상, 기 69)

고했 수미 히에 드외어늘 =鼻息이 咸白거늘 (능엄 5:56)

「-에」는 「-게」의 변이형태.

32. 이 말은 「하임말」(사역어)로 쓰이는 일이 있다.

1. 풀이씨의 특색과 그 갈래



教化는 ㄹㄱ처 어딜에 ㄷ외올씨라 (월석 1:19)

“\*어시아ㄷ리 …ㄷ외다”, “\*가린거지 …ㄷ외다” “\*잠개 …ㄷ외다”, “\*수미 …ㄷ외다”, “\*(…를) …ㄷ외오다”는 성립되지 않는다.

### (2-3) 「-아/어」와 「-거(어)」, 「-가(아)」에

두루 접속되는 매편폴이씨

「지라」

33. ‘바람(원망)’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으뜸폴이씨에서 온 것이 아니다.

東山 구경 ㅎ야지이다 (월석 2:27)

能仁을 信奉ㅎ스와지이다 (영가, 하:141)

소내 香花 자바 상네 供養ㅎ스바지이다 (월석 8:96)

合掌ㅎ야 머거지이다 請ㅎ야 (월석 21:168)

善慧 精誠이 至極ㅎ실씨 고지 소사나거늘 조차 불리 사아지라 ㅎ신대 (월석 1:10)

내 獄애 드러 어피 갑새 罪를 니버지라 (월석 23:87)

아비 보라 니거지라 (월석 8:101)

淨土애 니거지이다 (월석 8:1, 기 212)

내 니거지이다 가샤 (용 58장)

모든 놀람과 저흠 업거지이다 = 無諸驚懼ㅎ야지이다 (영가, 하:140)

흔디 神通大光藏애 들어지이다 = 同入神通大光藏ㅎ야지이다 (월각, 하 3-2:102-3)

오직 닐오디 困苦홀씨 종 ㄷ외어지라 ㅎ느다 = 但道困苦乞爲奴 (두언 8:1)

「-어」는 「-거」의 변이형태이다. 즉 \*들거→들어, \*ㄷ외거→ㄷ외어.

이것은 「-아/어」 씨끝과 같아 보이지만, 「들-, ㄷ외-」에 「-아/어」 씨끝이

붙으면, 각각 「드러, ㄷ외야」가 된다.

앞의 예들 중, ‘영가, 하:140’, ‘월각, 하 3-2:102-3’에 있어서, 번역문과 원문의 토를 비교해 보면, 으뜸폴이씨의 씨끝(「-거」와 「-아/어」)에 따라 뜻의 다름이 생겨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거」와 「-아/어」는 으뜸폴이씨의 종류에 따라 선택된듯도 하나, 다음 예로 보면 그렇게 속단하기도 어렵게 된다. (「니거지라」와 비교)

넉시라도 님은 호디 넉저라(악장가사, 정석가)

韋提希夫人이 阿彌陀佛國에 나가지이다 ㅎ야늘 (월석 8:5)

願ㅎ노니 가 나가지이다 (월석 8:96)

내 後에 부테 ㄷ외야 …이젿 世尊 곧가지이다 (월석 2:9)

五百 사르미 弟子ㅣ ㄷ외아지이다 ㅎ야 (월석 1:9)

願ㅎ돈 내 生生애 그딧 가시 ㄷ외아지라 (월석 1:11)

이 地獄애 아니 들어지이다 (월석 7:14)

阿難이 …結集ㅎ논 門 밧기 와 들어지라 ㅎ야늘 (석보 24:3)

닐웻 스시를 살아지라 ㅎ야늘 (석보 24:15)

내 기로니 이에 살아지라 (월석 7:12)

「ㄷ외아, 들어, 살아」는 각각 「\*ㄷ외가, \*들가, \*살가」의 변이형태이며, 「-아/어」 씨끝을 붙인 것은 아니다.(ㄷ외+아→ㄷ외야, 들+어→드러, 살+아→사라)와 비교)

### (2-4) 「-디, -게, -아/어」에 접속되는 매편폴이씨

「말다」

34. ‘금지’를 나타내며, 동음의 으뜸폴이씨에서 온 말이다.

너희 브즈러니 지시 게으르디 말라 (법화 2:209)

다시 니르디 마라사 ㅎ리니 (석보 13:44)

산것 주기디 마를 (석보 6:10)

그 ㅼ 부테 舍利弗드려 니르샤디 말라 말라 다시 니르디 마라사

1. 폴이씨의 특색과 그 갈래



호리니 (석보 13:44)

「말라 말라」는 으뜸풀이씨이다.

고기 사모를 삼가 만 후에야=愼勿...爲魚然後 (능엄 1:10)

이 뜨들 닛디 마루쇼셔 (용 110~124장)

다 모더 더를 가져디 마로리라 =都不要管他 (몽산 26)

서리와 이슬로 히여 사르미 오슬 저지게 마를디니라 =無使霜露霑人衣 (두언 15:44)

사르미 호오사 滅度 得게 마라=不令有人이 獨得滅度케 하야 (법화 2:99)

너희 두리여 말며 플러 도라가디 말라 (월석 14:77)

그르 혼 이틀 좃드디여 말며 =母循枉 (내훈 1:9)

## (2-5) 여러가지 말에 붙을 수 있는 매편풀이씨

35. 「하다, 아니하다, 못하다」는 모두 동음의 으뜸풀이씨에서 온 말로서, 여러가지 말에 붙을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하다」

36. 여러가지 말(풀이씨, 임자씨, 어찌씨)에 연결되어 형식적인 풀이말 노릇을 하며, 그 앞에 오는 토씨, 씨끝, 매편이름씨에 의해서 섬세한 뜻이 표현된다. 그리고 「하」는, 터짐소리(정지음) 사이에 끼일 때는 줄어드는 일이 있다. (→p.464)

〈임자씨+토씨+하다〉

노푼 두들근 쪼 萬尋이나 하도다 =峻岸復萬尋 (두언 15:3)

고른 흰 가히 드외야 썸 사호미 億須彌나 하곤 엇테 하물며...(남명상:56)

〈풀이씨+(토씨)+하다〉

더욱 迷惑하야 답씨 하노니 =重增迷悶하노니 (능엄 2:77)

내 諸佛 니르삼 마티 좃즈바 호리라 (석보 13:59)

善男子 善女人이 더 부텃 世界에 나고져 發願하야사 호리라 (석보 9:11)

眞實로 眼力이 이 존흔들 알면 아랫 五根은 子細히 아니 닐어도 호리라 (월석 17:59)

性靈을 빙마라 내요물 므숫거슬 두어서 호리오 =陶冶性靈存底物 (두언 16:14)

一切外道의 업미요물 버서나게 호리니 (석보 9:8)

梵音이 깊고 微妙하야 사르미 즐겨 듣줍게 호시며 (석보 13:17)

追薦은... 도흔 싸해 가 나시게 홀씨라 (석보, 서:3)

十六觀經을 듣줍기 호시니 (월석 8:1)

▽씨끝 「-기」는 「-게」의 수의변이 형태이다. (→p.602)

사름마다 수비 알에 하야 =俾人人이 易曉케 하야 (월석, 서:12)

智와 悲와 호가지에 홀씨 이 일후미 廻向이며 (월석 2:61)

無上菩提를 證호매 니를의 호리라 (석보 9:7)

▽씨끝 「-에, 의」는 「-게, 기」의 변이형태이다. (→p.602)

돕가히를...술찌거 하야 두고 (월석 23:73)

▽「-거」는 「-게」의 변이형태일듯. (→p.602)

妙法을 닐오려 호시는가 授記를 호려 호시는가 (석보 13:25)

너희 이 供養 빙마라 國王을 請하스보려 하노다 王子를 請하스보려 하노다 大臣을 請하다 (월석 21:194)

장츠 퍼 뵈시려 하샤 (법화 5:104)

願호디... 大乘에 棲止하얏고져 하노라 (두언 22:26)

늬 아니 좃줍고져 호리 (용 78장)

病흔 사르미 病을 여히오져 호거든 (석보 9:32)



▽씨끝 「-오저」는 「-고저」의 변이형태이다. (→p. 593)

七年을 물리쳐 하야 (월석 7:1)

오늘 朝集을 因<sup>○</sup>하야 緣<sup>○</sup>잡쳐 하코 (월석 2:69)

내 보아쳐 하느다 술바쳐 (석보 6:14)

외니 올<sup>○</sup>하니 하야 是非에 빠러디면 (남명, 상:39)

하늘과 싸패 爲<sup>○</sup>하야 오래 낮갑거니 높거니 하니라 =天地爲之久低昂 (두언 16:47)

다른 나라히 와 보차거나 도즈기 와 졸외어나 하야도 (석보 9:24)

사르미 外<sup>○</sup>락 벌에 중성이 드외락 하야 長常 주그락 살락 하야 受苦호물 輪廻라 하느니라 (월석 1:12)

舍利弗이 虛空에 올라 거르며 서며 안즈며 누보며 하코 (석보 6:33)

싸 꼭고 體 오로 무릎저기 츄담직 하녀 (월석 18:40)

우섬직<sup>○</sup>다 =可笑<sup>○</sup>로다 (남명, 하:50)

▽「우섬직다」는 「우섬직 하다」의 생략형이다.

등어리 뵈요물 可<sup>○</sup>히 뼈 天子의 받즈암직 하니 =炙背可以獻天子 (두언 7:13)

소리와 빛나미 眞實로 可<sup>○</sup>히 드러만 하도다 =聲華眞可聽 (두언 6:19)

依然은 이섯다 하듯 하 마리라 (월석, 서:15)

圓光이며 化佛이며 寶蓮花는 우희 니르듯 하니라 (월석 8:45)

사르미 大海에 드러 沐浴<sup>○</sup>듯 하야 하마 여러 河水를 쁘<sup>○</sup>듯<sup>○</sup>다 하시니 (월석 14:71)

▽「沐浴<sup>○</sup>듯」은 「沐浴<sup>○</sup>하듯」의 생략이며, 그와 같이, 「쁘<sup>○</sup>듯다」는 「쁘<sup>○</sup>듯 하다」의 생략이다.

더 ...如來入 功德을 내 일롰<sup>○</sup>줍<sup>○</sup>듯 하야 (석보 9:26)

金鑛이 精金에 섰<sup>○</sup>것<sup>○</sup>듯 하니 =如金鑛이 雜於精金<sup>○</sup>듯 하니 (능엄 4:37)

麒麟閣<sup>○</sup>엿 그룬 양즈는 그려기 버러<sup>○</sup>듯 하니 =麒麟閣畫鴻雁行 (두언 25

: 48)

普賢으로 長子 사<sup>○</sup>디시<sup>○</sup>듯 하니 =以普賢으로 爲長子<sup>○</sup>하<sup>○</sup>디시<sup>○</sup>듯 하니 (법화 4:60-1)

이러<sup>○</sup>듯 하 굴근 菩薩 (월석 7:62)

濁<sup>○</sup>하제 췌<sup>○</sup> 물 먹<sup>○</sup>듯 하야 (월석 7:18)

너희<sup>○</sup>돌<sup>○</sup>흔 吉<sup>○</sup>하 사르미 드외<sup>○</sup>듯 하녀 凶<sup>○</sup>하 사르미 드외<sup>○</sup>듯 하녀 =汝等은 欲爲吉人乎아 欲爲凶人乎아 (내훈 1:25)

迷惑<sup>○</sup>하 고대 나사가 알<sup>○</sup>엿고 하시니라 =欲其即迷處而悟也<sup>○</sup>시니라 (능엄 1:113)

涅槃<sup>○</sup>애 어셔 드사 하리로다 (석보 13:58)

〈매인이름씨+하다〉

樓<sup>○</sup>노파 시름<sup>○</sup>홀<sup>○</sup>듯 하니 =樓高欲愁思 (두언 15:52)

안해 寶月 드론<sup>○</sup>듯 하야 =內懸寶月<sup>○</sup>듯 하야 (능엄 8:9)

잇<sup>○</sup>느<sup>○</sup>듯 하더 잇<sup>○</sup>디 아니호미 스초미 아니오 (월석 1:36)

五月에 엇브시 춘미야미 소릴 든<sup>○</sup>논<sup>○</sup>듯 하다라 =五月髣髴聞寒蟬 (두언 6:40)

禪定<sup>○</sup>에 드르신<sup>○</sup>듯 하샤 (법화 4:114)

九重<sup>○</sup>엿 붉 비즌 仙桃<sup>○</sup>醉<sup>○</sup>하엿<sup>○</sup>느<sup>○</sup>듯 하도다 =九重春色醉仙桃 (두언 6:4)

龍의 비늘와 犀牛의 甲이 서르 섰<sup>○</sup>것<sup>○</sup>느<sup>○</sup>듯 하니 =龍麟犀甲相錯落 (두언 18:20)

左右로 舉薦<sup>○</sup>하사디 몬 미출<sup>○</sup>드<sup>○</sup>시 하샤 =薦達左右 若恐不及 (내훈, 2상:43)

사르미 時急<sup>○</sup>하 저글 도오<sup>○</sup>디 몬 미쳐<sup>○</sup>홀<sup>○</sup>드<sup>○</sup>시 하더라 (내훈, 2하:34)

네<sup>○</sup>훈 ...듣고도 몬 드론<sup>○</sup>드<sup>○</sup>시 하며 보고도 몬 본<sup>○</sup>드<sup>○</sup>시 하씨오 (월석 10:20)

▽「듯, 듯...」 따위는 줄기에 바로 붙으면 씨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



인이름씨가 된다.

장 조바 떠가는 들구를 容納할만 하도다 = 最窄容浮查 (두언 6:47)

다된 부엌 像을 想할만 하야도 (월석 8:45)

그럴씨 허샤미 이만 하지니라 = 故援引止此 (법화 1:113)

阿那律이 舍利를 여덟 金壇에 녀쓰불니맛 하더시니 (석보 23:51)

훈 點을 느리오디 키 微塵맛감 하코 (월석 14:8)

웃사름두고 더은양 하야 (석보 9:14)

하다가 오직 能히 외와 니를뿐 하코 막스매 브터 行티 아니하면 = 如或但能誦說 心不依行 (금강, 서:9)

<파생어찌씨+하>

子息이며 내 몸 니르리 布施<sup>하</sup>야도 그딛 혼 초초 하야 (석보 6:8)

프렛 드리 이시며 업소<sup>하</sup>란 하온 초초 하코 = 從教水月の有無<sup>하</sup>코 (금강삼가 2:25)

37. 「하다, 양<sup>하</sup>다」 따위는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매인풀이씨로 보는 일이 있으나(최 현배: 우리말본), 여기에서는 이러한 설명.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같은 한 형태소는, 가능하다면, 같은 자격으로 처리하려는 의도에서다.

「아니(하)다」

38. 여러가지 끝바꿈꼴에 연결되어(토씨를 가지는 일도 있음),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하」가 줄어들고, 「아니다」로 쓰이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잡음씨의 「아니다」와는 다르다. (p.466 참조)

得<sup>하</sup>디 아니하리 업느니 (원각, 하 2-2:43)

이저디디 아니하 警戒 (석보 9:6)

黃老 | 四句入 가온디 안잣디 아니하시니라 = 黃老不坐四句中 (금강삼가 2:42)

일와 理왜 다 어기니 根애 수멋디 아니토다 (능엄 1:58)

重陽애 땀직디 아니하도다 (두언 18:1)

「땀직디」는 「땀+암직+(하)+디」로 분석되는 말인데, 매인풀이씨가 겹쳐져 있다.

뵈디 아니며 있디 아니타 니르시니 = 說不空不有 (금강삼가 5:35)

即디 아니며 여희디 아니하야 (남명, 서:1)

法相 나디 아닌 時節 (금강삼가 5:27)

제 모매 求흠 곤디 아니니라 = 不如求自己 (금강삼가 4:42)

福을 니퍼 내 難을 求티웃 아니하면 (월석 21:56)

키 적도 크도 아니하코 술히 지도 여위도 아니하니라 (월석 1:26)

寂滅은 사도 아니하며 죽도 아니하씨니 (월석 2:16)

▽줄기에 바로 붙은 「-도」는 그 앞에 씨끝 「-디」가 줄어진 것이다. (→p.375)

이 比丘 | 經典 닐거 외오물 專主<sup>하</sup>야 아니하코 (석보 19:30)

貌虎 곤흔 士卒은 鳳凰城에 ㅈ독게 아니하느니라 = 貌虎士不滿鳳凰城 (두언 25:25)

地獄과 鬼와 畜와는 어드운디 뵈야<sup>하</sup>로 ㅈ마 得道<sup>하</sup>얹<sup>하</sup>치 아니하씨 (법화 7:79)

法 들들 아니하리라 (월석 2:36)

놈 더브러 ㅈ토들 아니하노이다 (석보 11:34)

오솔 주거시든 비록 님곳디 아니하나 = 加之衣服이어든 雖不欲이나 (내훈 1:51)

39. 다음 「아니라」는 단순히 「하」의 줄임꼴로는 설명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

賢智를 비디 아니라 물읏 사르미 能히 하느니 = 非假賢智라 凡人이 能之니 (법화 6:31)



이것은 「아니하」에서 변동된 말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라」 씨끝이 제약법으로 쓰일 때는 잠음씨에만 붙기 때문이다. p.559 참조) 그리고 이 경우의 「아니라」는 잠음씨로 볼 수도 없다. (「-디」에 접속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이 어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

즉 「아니하-」가 때로는 「아니-」로 줄어져서, 잠음씨의 「아니-」와 같은 꼴이 된 결과, 「아니하-」에서 온 「아니-」도 잠음씨의 활용형을 취하게 되어, 「아니라」가 「아니하-」의 한 활용형으로 쓰이기에 이르렀다.

### 「몰하다」

40. 여러가지 끝바꿈꼴에 연결되어(토씨를 가지는 일도 있음), ‘불능’의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하」는 터짐소리 사이에서 줄어드는 일이 있다.

아디 몰하며 (석보 9:13)

구티여 긴 말스므로 交錯하길 헤 臨하얏디 몰하릴씨 =不敢長語臨交衢(두언 8:2)

보도 몰하며 듣도 몰거니 (석보 24:28)

「보도, 듣도」는 「보디도, 듣디도」의 변형. (→p.375)

「몰거니」는 두 터짐소리 /ㄷ/과 /ㄱ/ 사이에서 「하」가 줄어진 것이다.

三惡趣 | 보야하로 得產하얏치 몰하야도 (법화 7:93)

妄量엿 헤물 그치들 몰하야 (월석 7:45)

목수플 머글우들 몰하시니 (월석 10:15)

치마엿 아기를 싸디오 소낙로 언다가 언드란 몰고 어분 아기를 조쳐 디오 (월석 10:24)

「몰고」는, 「몰하고」의 「하」가 두 터짐소리 사이에서 줄어진 꼴이다.

×

×

×

### [매인(도움)풀이씨 일람표]

(2-1) 「-아/어」에 연결됨 : 보다, 버리다, 디다, 잇다, 겨시다, 가다, 두다, 내다, 나다.

(2-2) 「-게」에 연결됨 : 드외다.

(2-3) 「-아/어」, 「-거」, 「-가」에 연결됨 : 지라.

(2-4) 「-아/어」, 「-게」, 「-디」에 연결됨 : 말다.

(2-5) 여러가지 말에 접속됨 : 하다, 아니하다, 몰하다.

□ 「지라」 이외의 모든 매인풀이씨는 모두 같은 꼴의 으뜸풀이씨가 공존하고 있다.

### (2-6) 매인풀이씨의 겹침

41. 매인풀이씨는 겹쳐질 수 있다.

諸佛世尊이 衆生을 부텃 知見을 여러 淸淨을 得게 호려 하샤 世間에 나시며... 衆生이 부텃 知見을 알에 호려 하샤 世間에 나시며 衆生이 부텃 知見道에 들에 호려 하샤 世間에 나시느니 (석보 13:48-9)

顛倒의 根源을 ...窮究하샤 도록해 알에 코져 커시늘 大衆이 어줄 하야 (능엄 2:15)

正호 보물 내에 코져 하실씨 (능엄 4:2)

스밋디 몰게 하며 (능엄 6:56)

一切有情이 나와 다르디 아니케 호리라 (월석 9:14)

다시 니르디 마라사 하리니 (석보 13:44)

슬위로 히여 더디에 하야 늘근 넷 버디 슬케 하디 말라 = 無令軒車遲衰疾悲宿昔 (두언 8:21)

膠漆入 짜하로 히여 萬古에 雷陳을 重히 너기게 하디 말라 = 莫令膠漆地 萬古重雷陳 (두언 20:30-1)

마린거시 업게 드외니 ...모딘 잠개 나사드디 몰게 드외니 (천강곡



(3) 불구풀이씨

1. 풀이씨의 줄기는 원칙적으로 모든 씨끝과 다 연결될 수 있어서 완전한 끝바꿈표가 만들어진다. 즉 A. B. C...로 줄기를, a. b. c...로 씨끝을 표시하면,

Aa, Ab, Ac, Ad, Ae, Af.....

Ba, Bb, Bc, Bd, Be, Bf.....

Ca, Cb, Cc, Cd, Ce, Cf.....

⋮ ⋮ ⋮ ⋮ ⋮ ⋮

와 같은 균형 잡힌 끝바꿈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런데 어떠한 풀이씨는 극히 국한된 씨끝(때로는 오직 하나의 씨끝)만을 취할 수 있어서, 이러한 끝바꿈표에 많은 빈칸을 남기는 일이 있으니, 이러한 풀이씨를 「불구풀이씨」라 하고, 이에 비해서, 모든(거의 모든) 씨끝을 취할 수 있는 풀이씨를 「갓은풀이씨」라 한다.

「줄-」

3. ‘말하다’의 뜻을 가진 풀이씨로서, 인용을 나타내는 씨끝 「-(샤)디」만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일홈 지허 마로디 =名之曰 (석보, 서:4)

子 | 마르샤디 (소학언해 1:1)

「발-」

4. ‘걸에 두고 있다’의 뜻을 가진 말로서, 다음 두가지 끝바꿈꼴만이 나타난다.

불인 고지 이즈며 게을어 비를 바느니 =吹花困懶旁舟楫 (두언 18:3)

덥비춘 九霄에 바라 하도다 =月傍九霄多 (두언 6:14)

구루를 바라 淸切흔 놀앳 소리 오르돏다 =緣雲淸切歌聲上 (두언 15:2)

헛비춘 阡陌에 바랫도다 =日色傍阡陌 (두언 7:26)

시내히 뷔니 구루미 고지 바랏도다 =溪虛雲傍花 (두언 25:19)

「바랫도다, 바랏도다」는 「바라+잇도다」의 줄어진 어형이다. (→p.422)

「조-」

5. 「베다」의 뜻을 가진 말인데, 한가지 끝바꿈꼴만이 보인다.

너희 셤리 바롬 마새 가아 牛頭栴檀 種種 香木을 마샤 오라 羅漢들  
히 彈指흔 스시에 바르래 가아 香木 마샤 즉자히 도라오나닐 (월석 10:13)

「돌음-」

6. 「마르-」와 「조-」의 합성어로서(→p.118), 역시 한가지 끝바꿈꼴만 보인다.

雲霧를 돌음샤 화 님꺄 오솔 덩 마라 =裁縫雲霧成御衣 (두언 25:48)

翠駝을 뉘 돌음샤 덩글리오 =翠駝誰剪剔 (두언 16:2)

「다뵈-, 다호-」

7. ‘같다’의 뜻을 나타내며, 「다뵈, 다호, 다와」 따위 몇가지 활용형으로만 쓰인다. 가지에 가까우나, 그 실사로서의 뜻이 뚜렷한 것은 불구풀이씨로 잡지 않을 수 없다.

마슴 다뵈물 닐뵈마장 기지하야 (월석, 서:20)

體相性分大小 다와 저주미 혼가지로디 =如其體相性分大小하야 所潤이  
是-이로디 (법화 3:37)

8. 이에서 파생된 어저씨는 「다뵈(>다이), 다히」이다. (→p.245)

계 마슴 다뵈 물하는 사롬들 (월석 21:96)

太子入를 다뵈 호리이다 (월석 21:216)

眞如는 眞性 다뵈 변티 아니호씨라 (월석 8:29)

太子入 를 다히 호리이다 (석보 11:20)

알되 니르던양 다히... 如來를 供養하수면 (석보 9:33)

그딧 말 다히 호리니 (월석 1:13)

우업슨 法王이 이 眞實入 마리며 所如 다히 닐오미라 =無上法王이 是眞實語



이며 如所如히 說이라 (능엄 2: 54)

法 다이 쓰디 아니함여=不如法用 (영가, 상: 24)

말다이 修行하야=如說修行 (법화 3: 24)

네 句를 次第다이 마초전댄=四句를 如次配전댄 (법화 1: 73)

9. 이 말은 가지에 매우 가까우나, 그 실사로서의 뜻(...과 같다)이 뚜렷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매김꼴에 연결된 「다비」는 파생의 가지는 처리되지 않는다. (p. 654 참조)

世尊 勅하산 다비 (월석 18: 19)

드룬 다비 ...불어닐어도 (월석 17: 45)

10. 그러나 실사로서의 뜻, 즉 ‘...과 같다’는 뜻이 전혀 없어진 ‘實다<sub>이</sub>, 實다<sub>하</sub>, 시름다<sub>보</sub>, 곳답다<sub>다</sub>, 아롭다<sub>온</sub>’과 같은 말의 「다<sub>보</sub>-, 다<sub>하</sub>-」는 가지로 볼 수 밖에 없다. (p. 203 참조)

「노의-」

11. 오직 한가지 활용형만이 나타난다.

이에 세번 노의올머니라 =宜三復于斯 (법화 5: 207)

12. 「노의야」는 풀이말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파생어찌꺼기이다. (p. 252 참조)

「구퇴-」

13. 이것도 한가지 활용형만이 나타난다.

袞이 호오사 이셔 나가디 아니하더니 모든 父兄들히 구퇴대 날오대  
=諸父兄이 強之호대 乃曰호되 (내훈 3: 47)

14. 「구퇴여」도, 「노의야」와 같은 이유로, 파생어찌꺼기가 된다. (p. 251 참조)

「실-」

15. 오직 한가지 활용형 뿐이다.

得은 실씨라 (훈, 언해)

16. 「시려」도, 앞의 말들과 같은 이유로, 파생어찌꺼기에 넣는다. (p. 252 참조)

「마바-」

17. 「-습더니», 「-아」 활용형만 보인다.

죽 자삼제 風流 | 마바습더니 (천강곡 상, 기 118)

흔머리 자거늘 흔머리 마바 이사 ...두머리 마바 이셔 흔 머릴 자라  
하야 (천강곡 상, 기 135)

18. 「마바-」의 뜻은 뚜렷하지 않으며 첫 용례와 둘째 용례의 「마바-」가 같은 뜻인지 아닌지도 명백하지 않으나, 불구풀이씨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도-, 달-」

19. 한가지 활용형 뿐이다.

아피어나 와 내 머릿바기며 ...子息이며 도라 하야도 (월석 1: 13)

내 모뎡 도라 하니 즉자히 스러디고 男子 | 도외야 (월석 2: 64)

수를 달라 하야 먹는다 =索酒嘗 (두언 25: 18)

밥 달라 하야 =索飯 (두언 25: 52)

「아-」

20. 한가지 활용형 뿐이다.

무퇴 올라 將次入 길흘 아사가<sub>노</sub>니 =登陸將首途 (두언 8: 53)

▽「아사가다」는 합성어이다. (→p. 106)

「딜-」

21. 한가지 활용형 뿐이다.

내흘 디러셔 =臨川 (두언 6: 44)

노곤 石壁을 디러슈라 =俯峭壁 (두언 7: 23)

주글썸 디러 =臨欲終時 (법화 2: 222)

기론 못 디러 보듯 하며 =如臨深淵 (영가, 하: 112)

22. 이러한 말들은 불구적이기는 하나, 그 풀이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다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씨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3. 이와 비슷하게 끝바꿈꼴이 극도로 국한된 말로서 불구풀이씨에 넣지 못할 것도 있다.



「겨시다, 좌시다」의 「겨-, 좌-」도 분명히 풀이씨의 줄기인데, 이것은 「-시-」와만 결합될 수 있다. 이 점으로 보면, 불구풀이씨와 비슷하나, 「겨-, 좌-」는 「잇-, 먹-」과 꼭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잇다, 먹다」의 끝바꿈표에 편입시킬 수 있으므로(이것이 「보충법」<sup>(7)</sup>이다.) 이 말들은 불구풀이씨가 되지 않는다. (「겨시-, 좌시-」를 녹아붙은 하나의 줄기로 볼 수도 있다.)

## 2. 풀이씨의 줄기

### 1) 그 됴됨이

1. 풀이씨(용언)는 줄기(어간)와 씨끝(어미)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각 줄기에는 여러가지 씨끝이 붙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끝바꿈(활용)의 균형 잡힌 틀이 만들어져 있다.

2. 줄기는 한 뿌리(어근)로 된 것도 있고, 두 뿌리로 된 것도 있고, 또 뿌리와 파생의 가지로 된 것도 있다.

3. 한 뿌리로 된 줄기:

罪를 니저 (←닛+어; 용 121장)

王宮을 다 두프며 (←뉘+으며; 월석 2:32)

無는 업슬씨라 (←업+을; 훈, 언해)

功이 그츠리잇가 (←긋+으리잇가; 용 79장)

위의 밑줄 그은 부분이 풀이씨인데, 이 말들의 줄기 「닛-, 뉘-, 업-, 긋-」은 모두 하나의 뿌리로 되어 있다.

4. 두 개의 뿌리로 된 줄기:

줄기에 두개의 뿌리를 가진 풀이씨는 합성 풀이씨(합성 용언)인데, 이

(7) 보충법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 참조.

허 용: 언어학 개론 (1963. 정음사) p. 189.

허 용: 중세국어 연구 (1963. 정음사) p. 12.

에는 통어적 합성어와 비통어적 합성어의 두가지가 있다.

「나사-가다, 도라-오다, 나다-나다」 따위는 통어적 합성어이고(→pp. 106-9), 「감-꼭르다, 겁-보타다, 죽-살다」 따위는 비통어적 합성어이다. (→pp.116-133)

5. 파생의 가지를 가진 줄기:

줄기에 파생의 가지를 가진 풀이씨는 파생 풀이씨(파생 용언)인데, 이에는 앞가지(접두) 파생어와 뒷가지(접미) 파생어가 있다.

「가르-든니다, 결-앓다, 것먹르-죽다」 따위는 앞가지 파생어이고(→pp. 136-141), 「거스리다(←거슬+이), 기피다(←긋+이)」 따위는 뒷가지 파생어이다. (→pp.150-200).

6. 그 밖에: 「횃도-니다, 들이-니다」와 같이, 파생법과 합성법이 겹쳐져 된 것도 있고(→p.130), 「더위-자피다(잡-히다)」처럼, 파생법이 겹쳐져 된 것도 있다. (→p.179)

7. 이러한 일은 조어론에서 설명됐기에, 더 자세히 풀이하지 않는다.

### 2) 형태음소적 변동

1. 줄기가 두개 이상의 형태소를 가졌을 때에는, 그 사이에서도 형태음소적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조어론」에서 언급이 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줄기에 씨끝이 연결될 경우에 일어나는 줄기의 형태음소적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2. 「전느니(←견-, 두언 20:36)», 「븐느니(←블-, 두언 20:45)», 「전노라(←견-, 두언 20:37)», 「든노니(←든-, 두언 15:39)», 「문노라(←문-, 두언 16:39)», 「딘노호물(←당-, 두언 15:39)», 「전노라(←견-, 두언 16:13)」 따위 표기법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당소리이어바뀔(자음접변)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그 당시 표기법에 그리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줄이기로 한다. (만약 설명을 한다면, 현대말의 경우에 맞추어서 하는 도리 밖에 없을 것이므로, 별로 의미가 없다.)



# (1) 끝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뀔

## (1-1) 끝닿소리의 바뀔

1. 이에는 두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본형태의 끝닿소리가 여덟 종성 이외의 닿소리인 경우에 일어나는 보편적이고 음성적인 변동,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 (가) 여덟 종성이 아닌 경우

2. 기본형태의 끝닿소리가 「여덟 종성」(/ㄱ, ㄷ, ㄱ, ㄴ, ㄷ, ㄴ, ㄷ, ㄴ/)이 아닌 경우에는, 이 닿소리가 종성 자리에 놓이게 될 때는, 이 여덟 소리 중의, 그와 가장 가까운 소리로 바뀐다. (p.302 참조)

#### (가-1) /ㅈ, ㅊ, ㅌ/ → /ㄱ/

3. /ㅈ, ㅊ, ㅌ/은 같은 잇소리(치음)인 /ㄱ/으로 바뀐다.

맞→맛- : 사를 마자 (용 109장), 매 마자 (석보 9:8) / 모미 맛거늘 (용 40장), 채를 맛더라 (두언 20:16)

낫→넛- : 罪를 니저 (용 121장), 飲食을 니저 (월석, 서:17) / 넛디 마루쇼셔 (용 110장), 可히 넛디 못하리로소니 =不可忘 (두언 6:34)

늦→넛- : 엇메 느즈니오 =何晚 (두언 20:22), 歲의 느저가물 =歲晚 (두언 6:9) / 넛거든 進膳하야 (두언 20:11), 넛도 아니하야 =不緩 (몽산 7)

못→넛- : 菩薩入 相好 | 다 ㅈ즈시며 (월석 2:26), 定과 慧와 ㅈ자 (석보 13:21) / 三聚戒를 ㅈ게 호리라 (석보 9:6), 忠과 義와 ㅈ도다 =忠義俱 (두언 8:21)

젓→젓- : 싸히 아니 저즈니 (월석 7:21), 저즌 시우를 =濕絃 (두언 20:6) / 비는 ...젓고 (석보 13:26), 오시 젓게 =霑衣 (두언 8:16)

그 밖에 : 좇-(잡다), 좇-(잡다), 몇-(악하다), 뵈-(젓다), 좇-(젓다), 좇-(젓다).

긋→긋- : 功이 그츠리잇가 (용 79장) / 그므를 그츠며 (석보 9:16) / 벼룩미 긋고 =風定 (두언 6:42), 빗바리 긋거든 =輟雨足 (두언 15:4)

좇→좇- : 行陣을 조츠샤 (용 112장), 길흘 조차 든니다가 (석보 9:15) / 應響 될 좇다 =隨其所應 (능엄 4:28), ㅈ 숲 벼룩물 좇듯다 =逐秋風 (두언 8:38)

▽밑에 /ㄴ/이 올 때는 「ㄷ」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놀며 두모를 조느니 =逐其飛沉 (능엄 4:26)

이 경우의 발음이 과연 [z] 소리였는지, 아니면 현대말의 경우처럼 「ㄴ」이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습-」의 변이형태인 「-줍-」이 붙게 되면 「ㅈ」이 「ㄷ」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밑의 「ㅈ」이 「ㅈ」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부터를 조츠하 (석보 13:45)

世尊을 ... 조츠하 오니 (월석 7:6)

다음 표기는 표의적 표기다.

衆賊이 조거늘, 三賊이 조츠거늘 (용 35장)

뉘 아니 조츠고져 하리 (용 78장)

못→넛- : 목숨 ㅈ츠리잇가 (용 51장), 性命을 ㅈ츠시니 (월석 1:2) / 술 머금 넛고 =飲罷 (두언 15:2), 願을 넛디 못하야 (월석 21:64)

스몯→스몯- : 流通은 흘러 스몯출씨라 (훈, 언해 1), 이 理를 스몯츠면 =達斯理 (영가, 하:52) / 文字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할씨 (훈, 언해:1), 우히 브리 아래 스몯고 아랫 브리 우히 스몯고 (월석 21:42)

그 밖에 : 뉘웃-(후회하다), 그룻-(그르치다), 미좇-(뒤좇아가다), 뵈-(미치다), 뵈-(부치다), 어그릿(룻)-(어긋나다), 뵈-(스치다).

4. 「ㅈㅈ」 받침은 「ㅈㅈ」으로 변동한다.

큰 거시 웁치 =縮大 (능엄 2:40), 퍼며 웁추미 =舒縮 (능엄 2:41)

/ 입시우리 ...웁디 아니하며(석보 19:7), 보리 體 퍼며 웁노가 疑心하니 =疑見體舒縮 (능엄 2:40)



낫→넛- : 聖神이 넛샤도 (용 125장), 子孫이 넛시니 (월석 1:8)

/ 넛게 하야 = 相續계 하야 (몽산 9), 넛디 몰호라 = 不承 (두언 20:22)

낫→넛- : 比丘人 알피 넛 나사 니거늘 (월석 8:90), 부텃 알피 넛사

드르샤 (월석 21:210) / 오직 넛고 물롬 업수미 = 唯進이오 無退호미

(능엄 8:18), 더 넛는 利 = 增進之利 (법화 3:47)

짚→짚- : 表 짚서 (월석 2:69), 藥을 짚수려 하노니 (월석 21:217)

/ 짚디 아니호미 (금강 85), 모딘 罪業을 짚디 아니하리니 (석보 9:31)

비웃→비웃- : 正法을 비우서 (석보 9:14), 허러 비우스릴 맛나돈

(월석 21:65) / 正法을 비웃디 아니하야 (석보 9:15), 大乘 허러

비웃느니라 (월석 21:66)

붓→붓- : 灌은 붓슬씨오 (월석 2:64), 구리 노겨 이베 붓스며 (월

석 21:44) / 大水 붓느니라 (월석 10:92), 붓습고 (천강곡 상,기 34)

▽/ㄴ/ 위에서는 「ㄴ」으로 표기된 데도 있는데, 그 발음이 과연 [z] 소리  
로 났던 것인지는 의문이다.

므리 붓느니라 = 水注 (능엄 4:22)

江河 | 상네 붓느니라 = 江河常注 (능엄 4:18)

또 「-습-」이 이어날 때는 「브습-」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香油를 마드기 브습고 (석보 23:23)

앗→앗- : 精氣를 앗사 (석보 9:37), 東郡 앗소물 = 收東郡 (두언 7:3)

/ 兵馬를 앗고 (두언 6:38), 꺾거시 精氣 앗디 아니하리라 (석보 9:26)

그 밖에 : ㄴ-(긋다), ㄱ-(긋다), ㄴ-(낫다), 녀름집-(농사짓다), ㄷ-

(사랑하다), ㅁ-(매고 여미다), ㅅ-(엿보다), ㅅ-(웃다), 일범-(흠치

다), ㅈ-(젓다), ㅈ-(조아리다), ㅈ-(젓다), ㅈ-(젓다), ㅈ-(자자

하다), ㅎ-(헐다).

5. 이러한 말들은, /ㄴ/이 /ㄷ/으로 바뀐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  
적인 방법이나, 여기에서는 /ㄷ/이 /ㄴ/으로 바뀐 것으로(즉 /ㄷ/ 쪽을

기본형태로)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줄기의 끝닿소리가 홀소리 사이에  
놓인 경우를 기본형태로 삼았으므로, 이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  
연하다.

둘째, /ㄴ/이 /ㄷ/으로 바뀐 것으로 설명하게 되면, 줄기의 끝닿소리  
/ㄴ/이 죄다 /ㄷ/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벗-, 빗-, 솟-」은 /ㄷ/  
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이 변동 규칙은 개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ㄷ/이 /ㄴ/으로 변동한 것으로 보면, 이 경우에는 모든 /ㄷ/은  
죄다 /ㄴ/으로 바뀌므로, 이 변동은 보편적 규칙으로 처리되어서 설명  
이 간편해진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적 규칙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이 규  
칙에 따르는 모든 낱말을 열거해 놓아야 하나, 일반적 규칙으로 처리될  
때는 한 규칙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가-2) /ㄷ/→/ㄴ/

6. /ㄷ/은 같은 혀끝소리(설음)인 /ㄴ/으로 바뀐다.

말→말- : 내 말툼 (석보 13:38), 고흔 수미 나며 드로매 말고 스

시를 말며 (석보 19:10) / 고흔로 말는 거슬 (석보 13:39)

블→블- : 모매 블튼 일 (용 104장), 너비 무루물 블터 = 資博間 (월

석, 서:20) / 動 背叛호물 블고 = 由乎動背 (영가, 하:3), 迦葉을

블노니 = 依迦葉 (두언 20:13)

▽「블노니」는 다시 동화작용으로 「븐노니」로 변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러한 변동은 여기에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p.445)

날→날- : ㅅ는 날튼 相이오 = 苦者現相 (영가, 하:39), 날텐느 우므

렌 = 露井 (두언 6:28) / 날디 아니호매 = 未形 (영가, 하:36), 見性

이 알피 날느니라 = 見性現前 (능엄 2:68)

넬→넬- : ㅅ트며 기루미 = 淺深 (능엄 3:87), 智 ㅅ터 = 智淺 (영가

하:61) / 슬후미 넬디 아니하니 = 恨不淺 (두언 6:29)

그 밖에 : ㅈ-(남다), ㅈ-(빨다, 거르다), 부를-, 부를-, 부를-(부르



다), 비탈-, 비알-(트하다), 헐-(흐트러지다), 흘-(흘다) 따위.

(가-3) /ㅍ, ㅂ/→/ㅅ/

7. /ㅍ, ㅂ/은 같은 입술소리(순음)인 /ㅅ/으로 바뀐다.

툇→툇- : 훈 平床을 두루니 = 盖一床 (두언 6:47), 구름 두뒹는  
레 = 雲覆端 (두언 25:20) / 眞珠 그믐을 우희 두쑤고 (월석 7:37)

뒹→뒹- : 디쁜 막대 (두언 7:12), 錫杖 디퍼 (월석 8:92) / 막대  
뒹고 = 杖 (두언 6:29)

갓→갓- : 報는 가플씨니 (월석, 서:3) / 義分을 갓곡 (두언 7:8)

그밖에 : 깊-(깊다), 잎-(잎다).

궂→궂- : 고궂 것 (월석 1:31), 太子 | 性 고궂샤 (월석 21:211) /  
궂비치 궂도다 = 月媚媚 (두언 20:8)

가궂얏→가궂얏- : 가궂야궂 소리 (훈, 언해) / 비록 그 病이 가궂얏  
궂도 (석보 9:35-6)

눅→눅- : 누본 남기 (용 84장), 안즈시며 누보샤매 (월석 2:26) /  
눅디 묻히니라 (두언 6:34)

둑→둑- : 하늘히 도궂실썩 (용 34장), 너를 도바 (월석 21:36) /  
님그믐 둑스바 (석보 9:34)

어둑→어둑- : 어드본 길혜 (용 30장), 어드본 짜해 (월석 1:28) / 어  
둑게 하며 (월석, 서:4)

븍→븍- : 븍바 디나시고 (월석 1:16) / 이 길홀 븍디 말라 (월석  
21:119)

열→열- : 열본 어르믈 (용 30장) / 열디 아니하며 (석보 19:7)

그밖에 : 간달-(간동하다), 갓갈-(가잡다), 거열-(거하다), 고달-(고맙  
다), 궂달-(궂답다), 깊-(집다), 년갈-(열다), 낫갈-(낫다), 더럽-  
(더럽다), 땀-(땀다), 좇-(나란히하다), 솟-(사뢰다) 등등.

8.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은 모두 /ㅅ/ 쪽을 기본형태로 보고서 「ㅅ」 변

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ㅂ/ 쪽을 기본형태로 처리하였는  
데, 그 이유는 /ㅅ/ 끝소리의 경우와 꼭 같다. 즉 다른 모든 경우와 같  
이, 줄기의 끝닿소리가 홀소리 씨끝 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기본으로 삼  
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변동규칙이 보편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sup>(8)</sup> (/ㅅ/ 쪽을 기본형태로 삼으면, 모든 줄기의 /ㅅ/ 끝  
소리가 홀소리 씨끝 앞에서 /ㅂ/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  
이 변동규칙은 개별성을 띠게 된다.)

9. 이런 말들은 /ㅂ/이 없어짐에 따라 반홀소리인 /ㅇ, 우/(w)로 변  
한다. 다만 /ㅇ, 우/와 겹홀소리를 이루지 못하는 홀소리가 뒤에 이어  
날 때에는, 뒤의 홀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거나(/ㅇ, 우/+/ㅇ, 으/→  
/ㅇ, 우/), /ㅇ, 우/가 줄어지거나 한다.(겹홀소리를 이룰 수 있는 경우  
에도 /ㅇ, 우/가 줄어지는 일이 있다.)

궂→고오- : 열구리 궂오몬 (<고보; 법화 2:74), 열구리 궂오며 (<  
고보; 법화 2:73), 마스론 궂오트니라 (<고트; 두언 20:10)

가궂얏→가궂야오- : 가궂야오 옷 (<가궂야궂; 두언 15:4)

눅> 누우- : 누워서 (<누뵈; 두언 6:9), 누어서 (<누뵈; 두언 6:49), 안  
즈며 누으며 (<누보; 금강삼가 2:23)

둑→도오- : 도와 奉戴하야 (<도바; 두언 6:34), 도아 나토니라 = 助  
顯 (법화 5:181), 律을 도오시고 = 扶律(<도뵈; 능엄 1:18)

어둑> 어드우- : 어드워 (<어드뵈; 두언 15:3), 어드운 靜(<어드본;  
금강 55)

(8) /ㅅ/ 끝소리인 경우나 /ㅂ/ 끝소리인 경우나, /ㅅ/, /ㅂ/ 쪽을 기본으로  
삼는 것은 국어 말본 설명의 한 관례처럼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필자도 앞  
에서는 이러한 관례를 좇아 설명한 일이 있다. (국어 음운학 p. 384, 옛  
말본 p.90. 그리고 이 책 조어론에서도.)

그러나 필자는, 일찍 이론적으로는 /ㅅ/, /ㅂ/ 쪽을 기본으로 해야 옳다  
는 견해를 밝힌 일이 있다. (중세국어 연구 pp.31-2, <개고 신판> 국어 음  
운학 p.384, 각주 6 참조)



불-> 불노- : 불노들 (<불노; 능엄 2:115), 안홀 불와 (<불와; 두언 6:42)

열-> 열우- : 열운 帳 (<열본; 두언 6:33), 열운 어름 (영가, 하:112)

10. 이 경우(/ㅅ/이 없어지고 난 뒤)에 있어서도, 이 변동규칙의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 우/ 쪽을 기본형태로 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에는 이 변동규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즉 줄기의 「~노, 우」는 홀소리씨끝이 연결될 때에 선택되는 기본형태인데, 씨끝의 홀소리가 /노, 우/와 접홀소리를 이루지 못하는 /오, 으/인 경우에는 이것을 입술등근 소리로 바꾸고(/오, 우/), /오, 우/인 경우에는 그 흔적이 없어진다. (씨끝의 홀소리가 /오, 으; 아, 어/인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노, 우/가 줄어지는 일이 있다.) 그리고 닿소리씨끝이 연결될 때는 /노, 우/는 보편적·필연적으로 /ㄷ/으로 변동한다.

11. 「노, 우」는 말만드는 가지 「-이」가 연결될 때는 줄어지는데(→p. 241), 이것은 그 당시의 /위/는 /uj/와 같은 접홀소리(중모음), 즉 모음점이 /u/에 있는 하강적 접홀소리였기 때문에, /노, 우/+이/는 /위/로 바뀌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노, 우/+이/→/위/(uj)로 바뀔려면 비성절음인 /노, 우/가 성절음이 되고, 성절음인 /이/가 비성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큰 변란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 (가-4) /ㅎ/의 경우

12. /ㅎ/은, 씨끝의 첫 닿소리가 거센소리 될 수 있는 여린소리인 경우에는 그와 거센소리로 축약되고, /ㅅ/인 때는 이것을 된소리로 바꾸고, 콧소리인 때는 /ㅎ/이 일단 /ㄷ/으로 바뀐다. (그리하여 다시 닿소리이어바뀔이 일어난다.)

닿- : 다하고 (두언 20:10) / 다티 아니호미 (능엄 2:103) / 옷닛머리에 다나니라 (←달나니라←닿나니라; 훈, 언해)

똥- : 도호며 구주ㅁ로 (월석, 서:3) / 꾹 도코(용 2) / 病이 곧 돈놏다 (←돈놏다←똥놏다; 두언 20:9)

놓- : 노호샤 (용 41장) / 수를 노코 (두언 20:29) / 노참고 (←놓참고; 석보 9:22) / 논논디라 (←놓논-; 금강삼가 5:25)

냥- : 아득를 나호며 (월석 2:33) / 太子를 나쑈블니 (냥스-; 월석 21:211) / 아기 날노라 호야 (←냥노라; 월석 10:25)

그 밖에 : 냇- (냇다), 땡- (땡다), 쟁- (두려워하다)

「숯-, 앓-, 잃-, 굶-, 닳-」 따위도 모두 그러한데, 이 경우는 /ㄴ/이 연결되면, /ㅎ/이 줄어진다.

알노니 (←앓노니; 월석 2:9)

슬노라 (←숯노라; 두언 15:2)

#### (나) 여덟 종성인 경우

13. 기본 형태의 끝닿소리가 여덟 종성 중의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소리로 바뀌는 일이 있다.

14. 줄기의 끝소리 /ㄷ/은 홀소리씨끝 앞에서는 /ㄹ/로 바뀌는 일이 있다. (음성적·개별적)

길→길- : 길다가 몰호야 (월석 7:9), 물 길더시니 (월석 8:78) /  
므를 기러 두고사 가리라 (월석 7:9), 므를 저기 기르라 (두언 8:32)

듣→들- : 듣좁고 (용 59장) / 네 차려 드르라 (석보 13:46)

물→물- : 물더신 사르문 (월석, 서:20) / 겨신될 무러 (용 62장)

아철- →아철- : 사르미 ...老病死를 아철거든 (법화 1:71) / 아쳐러 게으른 뜰들 머거 (월석 17:14)

그 밖에 : 견-(견다), 결-(결다), 쪼든-(깨닫다), 나든-(내닫다), 낫든-(내돋다), 내돋-(내돋다), 다든-(다닫다), 뜰들-(뜰다), 뜰-(뜰다), 맛들-(맛닥뜨리다), 일콘-(일컫다), 엽들-(엿드리다), 좃들-(떨어지다), 티들-(치닫다), 혼-(홀어지다) 등.

15. 이 변동은 음성적이며, 모든 줄기의 /ㄷ/이 죄다 /ㄹ/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이다.



16. 다른 경우처럼, 홀소리씨끝 앞에 나타나는 /ㄹ/을 기본으로 해도, 모든 줄기의 /ㄹ/ 끝소리가 다 닿소리 앞에서 /ㄷ/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개별적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관습적인 방법을 좇아 /ㄷ/ 쪽을 기본으로 한다.

17. 이것을 규칙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면, /ㄷ-ㄹ/의 형태음소를 따로 만들어 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방법은 취하지 않는다.

## (1-2) 끝홀소리의 바뀔

18. 홀소리로 끝난 줄기에 홀소리씨끝이 연결될 때, 줄기의 끝홀소리가 반홀소리로 바뀌는 일이 있다. (앞의 홀소리가 뒤의 소리보다 간극이 작고, 이 두 소리가 한 음절로 축약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ㄹㄹ치+어→ㄹㄹ쳐 (석보 9:18)

사기+어→사겨 (석보 19:9)

디니+어→디녀 (석보 19:9)

고티+어→고터 (석보 19:11)

구티+어→구터 (월석 1:8)

구피+어→구펴 (석보 9:29)

어울우+어→어울워 (훈, 언해)

일우+어→일워시니 (용 21장)

ㄴ리오+아→ㄴ리와 (월석 2:39)

외오+아→외와 (석보 19:8)

빅호+아→빅화 (두언 20:10)

호+아→화 (두언 25:48)

밧고+아→밧과 (두언 15:9)

소+아→화시니 (두언 20:5)

19. 이 변동은 임의적이었던 듯 하여 축약되지 않는 일도 있다.

이+어→이여 (천강곡 상, 기 34)

디+어→디여 (용 3장)

떠리디+어→떠리디여 (석보 9:27)

두리+어→두리여 (월석 7:36)

지+어→지여 (석보 9:15)

주+어→주어 (두언 7:23)

보+아→보아 (석보 19:7)

소+아→소아 (두언 7:18)

모도+아→모도아 (석보 13:51)

눈호+아→눈호아 (석보 19:6)

득토+아→득토아 (월석 2:6)

싸호+아→싸호아 (용 69장)

20. 다음과 같은 축약은 줄기 형태소에 변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하+이→해 (월석 21:4)

오라+이→오래 (월석 1:8)

즈라+이→즈래 (월석 7:25)

「-이」는 씨끝이 아니기도 하지만, 줄기의 홀소리는 성절음으로서 아무런 변이를 입지 않았으며, 다만 가지의 「-이」가 반홀소리(/j/)로 바뀌었을 뿐이다.

## (2) 끝소리 줄임

### (2-1) 끝닿소리 줄임

(가) /ㅃ, ㅅ, ㅈ/→/ㅅ, ㅅ, ㅅ/

21. 줄기의 기본형태가 /ㅃ, ㅅ, ㅈ/과 같은 닿소리떼로 끝나 있을 경우에, 닿소리씨끝이 이어나면 줄기의 끝닿소리는 줄어진다.

없→엎- : 겨를 엎스샤던 (용 80장) / 엎거늘(용 20장), 엎던 번게 (용 30장)

갸→갓- : 머리 가까 (석보 13:20) / 머리 갓는 사르물 (월석 7:8)

2. 풀이씨의 줄기



「갓는」의 실지 발음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갓- → 갓- : 命世才를 ...갓그시니 (용 27장) / 遼左 | 갓스빈니 (용 41장)

갓- → 갓- : 갓가하다니 (두언 15:4) / 그 막리 갓디 아니하며 (월석 1:28)

갓- → 갓- : 고기 낫으며 (두언 25:44) / 고기 낫는 낫주를 (두언 6:31)

이 말의 표기는 약간 혼란되어 나타나나, 소리가 그렇게 변동되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錦鱗을 낫을 時節 (금강삼가 3:60)

고기 낫는 비 (두언 25:24)

갓- → 갓- : 갓근 것 (월석 8:24) / 갓디 아니하느니라 (두언 6:12)

그 밖에 : 갓-(꺾다), 갓-(꺾다), 갓-(꺾다), 갓-(꺾다), 갓-(꺾다), 갓-(꺾다), 갓-(꺾다).

갓- → 갓- : 나라를 갓드시릴새 (용 6장) / 부텃 이를 갓느니 (능엄 8:28)

#### (나) /ㄹ/ 줄임

22. 줄기의 끝 /ㄹ/은 /ㄷ, ㄴ, ㄹ/ 앞에서는 보편적으로 줄어진다. 다만, 「-으시-」와 「-으쇼셔」를 제외하고는 씨끝의 고름홀소리는 먼저 줄어진다. (이 경우의 /ㄹ/ 끝소리는 홀소리와 같이 취급된다.)

알- → 아- : 아로미 어려보니 (석보 9:26), 알리오 (두언 6:16), 알에 호리라 (석보 13:27) / 아디 묻하다니 (두언 15:7), 아노니 (석보 13:27), 아느니라 (두언 20:53), 아습고, 아습보디 (용 51장) / 아루시니 (용 45장), 아루쇼셔 (용 125장)

「아습-」은 「알+습」→「아+습」→「아습」으로 변동한것.

길- → 기- : 기렛도다 (두언 15:1) / 기디 아니하며 (석보 19:7), 기도다 (두언 6:26), 기니 (두언 6:3) / 기르신 헤라 (석보 9:38)

떨- → 머- : 머리 (용 47장), 떨면 (석보 9:2), 떨리잇가 (월석 8:1) / 먼 싸히 (두언 15:3), 머니 (두언 6:31) / 머르시니이다 (용 81장)

놀- → 노- : 놀리니 (법화 3:22), 노로물 (두언 6:39), 노라 (두언 20:7) / 노는 시레 = 遊絲 (두언 6:13), 고기 그르레 노듯 향야 (월석 21:49), 七寶琴을 노더니이다 (월석 21:190)

갈- → 가- : 쇼로 갈며 (월석 21:79), 붉 가로물 = 春耕 (두언 7:12-3) / 받 가다가 (두언 6:34), 받 가느 아버지 (두언 7:18)

23. 「기니, 머니, 먼」 따위는 「길+으니, 떨+으니, 떨+은」에서 먼저 「으」가 줄어들어서, 「길+니, 떨+니, 떨+ㄴ」이 되고, 다음으로 /ㄹ/이 /ㄴ/ 위에서 줄어진 것이다.

24. 매김꼴의 「-(으/으)ㄷ」이 붙을 때는 「으/으」가 먼저 줄어들기 때문에, /ㄹ/이 겹쳐져서 한 /ㄹ/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

耕은 받 갈씨라 (←갈+(으/으)ㄷ; 월석 21:67)

알씨 (←알+(으/으)ㄷ; 용 35장)

다만 매인이름씨 「이」 위에서는 두 /ㄹ/이 다 나게 된다(→p.277).

알리 (←알+(으/으)ㄷ+이; 석보, 서:2)

25. /ㅈ/ 위에서도 /ㄹ/이 줄어지는데, 그 예는 매우 드물다.

서르 브리디 마저 = 不相棄 (두언 16:18)

물곤 이바디를 마저 = 淸宴罷 (두언 7:25)

사저 죽저 향야 = 生死 (두언 23:49)

그 밖에 : ㄴ놀-(가늘다), ㄴ물-(갈다), 내밀-, ㄴ일-(일어나다), ㄴ날(다), 드물-(드물다), ㄴ물-(물다), ㄴ불-, ㄴ썰-(빨다) 따위 줄기 끝이 /ㄹ/인 모든 풀이씨.

26. 「니를-」도 이 유형에 드는 말로서 :

니를에 (←니를+게; 월석, 서:19), 니를오 (←니를+고; 석보 13:13)

2. 풀이씨의 줄기



니르려 (두언 6:5), 니르르시고 (월석 18:4), 니를며(니를+으며; 능엄 2:48)

와 같이 끝바꿈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줄기가「니르-」인 것처럼 불규칙적으로 끝바꿈하는 일도 있다.

니르게 (석보 19:38), 니르며 (능엄 2:48), 니르시니 (석보 13:17),

니르거든 (능엄 8:4)

「누를-, 프를-」은, 끝 ㄹ이 줄어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누르렛도다 (두언 6:13), 누르렛느니라 (두언 7:10), 누르루미 (금

강삼가 4:43); 프르렛도다 (두언 7:32), 프르렛느고 (두언 24:62)

/ 누르며 (석보 19:6-7); 프르코 (월석 2:31)

이리하여 현대말에서는「-아/어」씨끝을 제외한 모든 씨끝이 올 때는 이 불규칙형(「니르게, 니르며, 누르며, 프르코」)이 고정되어서, 「이르-, 푸르-, 누르-」가 줄기의 기본형태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가슴덜-」에도 다음과 같은 /ㄹ/ 줄어진 꼴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가슴며고 (월석 1:46)

「가슴며사느(석보 9:1), 가슴며 奢侈하야사 (원각. 하 3-2:89)」는 합성어로서 뒤의 /ㅅ/으로 말미암아 /ㄹ/이 줄어진 것이다.

(다) /ㄴㅈ/→/ㅈ/

27. 「앗-, 였-」의 /ㄴ/은 임의적으로 줄어지는 일이 있다.(개별적)

앗- →앗-: 精舍에 안잣더시니 (월석 1:2), 훈녀귀 안즈니라 (월석

21:206) / 帝釋 앗느 싸히어나 梵王 앗느 싸히어나 (석보 19:6),

아자서 누웃부미 나뉘 보느니라 =坐見悔吝生 (두언 22:20)

였- →였-: 즘갓 가재 연즈니 (용 7장), 西人樓 우희 였고 (월석

2:73) / 典은 尊하야 여저 들씨니 經을 尊하야 여저 뒷는 거실씨

經典이라 ㅎ느니라 (석보 13:17)

## (2-2) 끝홀소리(또는 끝음절) 줄임

(가) /으, 으/ 줄임

28. 줄기의 끝홀소리 /으, 으/는 홀소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오/우-」, 「-아/어」 위에서 줄어진다.

(가-1) 「ㅍ→파」형

29. /으, 으/ 앞에 닿소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뒤의 음절의 초성이 된다.

ㅍ-: 홀쭉 ㅍ디 아니호 前엔 =未鑿土前 (능엄 3:88) / 홀쭉 파 가  
저 (월석 1:7) / 포물 因하야 =因鑿 (능엄 3:87)

다으-: 盡은 다을씨라 (석보, 서:2) / 福이 다아 衰하면 (월석 1:21) / 뜰 마시 다오미 업슬씨 (월석 8:25)

ㅅ-: 뵈 ㅅ는 功 =織作功 (두언 11:24) / 貝錦 ㅅ 내요물 (두언 20:19) / 鬣花로 췌 뵈 (법화 2:140)

츠-: 弓劍 츠습고 (용 55장) / 黃金印을 츠도다 (두언 25:48) / 將軍의 츠 같=將軍佩 (두언 25:8)

득-: 구루물 득샤 (월석, 서:18) / 벉를 타 (두언 6:10) / 뭇 톤 자  
히 (용 34장), 뭇 토미 벉 툼 곤하니 =騎馬似乘船 (두언 15:40)

깃브-: 喜는 깃블씨니 (석보 9:6) / 歎樂은 깃버 즐거블씨라 (석보 9:34) / 깃부물 뵈야 (석보 19:3)

더으-: 加는 더을씨라 (훈, 언해) / 고터 다시 더어 (월석, 서:19) /  
들흔 善果 | 날로 더우미오 (월석 21:184)

프-: 이운 남기 고지 프며 (월석 2:31) / 니피 프여름 뒷조미 (남  
명, 하:24) / 蓮入 고지 푸더 (월석 7:57)

크-: 큰 功 (용 57장) / 量이 크샤 (금강 61) / 그 지미 넘고 쿠단  
(법화 2:55)

ㅼ-: 누를 ㅼ거나 곱거나 하야도 (월석 8:8) / 누를 바른 ㅼ =目瞪



(능엄 3:2) / 눈 ㄴㅅ며 뿌디 (월석 8:6)

그 밖에 : 골꼭-(고프다), 𪎐-(까다), ㄱㅅ-(가쁘다), 𪎐-(따다), ㅅㅅ-(바쁘다), ㅅㅅ-(튀기다); 슬프-(슬프다), 어엿브-(가련하다), 잇브-(괴롭다), 저프-(두렵다) 등등.

### (가-2) 「다르→달아」형

30. /으, 으/ 앞의 닿소리가 앞음절의 종성으로 가붙는 경우. — 끝음절이 「ㄹ, ㄴ」인 경우에는 「ㄹ」이 종성으로 가붙게 되는데, 이것은 /ㄹ/이 [l] 음으로 변이되었음을 표기한 것이다. (이 경우에 [l]이 겹쳐져서 「ㄹ」로 표기되기도 한다.)

「스, 스」의 경우에도 「△」이 앞음절에 가붙게 된다.

다르- : ㄴㅅ ㅅ ㄴ 다르거늘 (용 24장) / 中國에 달아 (훈, 언해) / 隱居하니와 달오라 = 異隱淪 (두언 20:26)

모르- : 天命을 모르실찌 (용 13장) / 方面을 몰라 보시고 (용 85장) / 辟支佛의 물릐 거시라 (석보 13:37)

브르- : 香 브르고 (월석 7:3) / 馥 불라 (두언 25:1-2) / 香으로 블로매 = 香塗 (영가, 하:18)

고르- : 방앗곳 소리 고르니 = 調·杵 (두언 21:28) / 情想이 곁아 온흐면 = 情想均等 (능엄 8:74) / 다 곁오물 藉賴호노라 = 俱勻 (두언 7:38)

니르(르)- : 後聖이 니르시니 (용 5장), 聖經을 니르시니 (용 97장) / 불어 닐어든 (석보 19:2) / 내 닐오리니 (석보 19:2)

오르- : ㄴㅅ미 오로리잇가 (용 48장) / 獅子座에 올라 (월석 8:103) / 저근 벅에 올오리라 = 上小舟 (두언 7:2)

그르- : ㄴㅅ요물 그르느 사르물 = 解結之人 (능엄 4:92) / 스매를 클어 = 解袂 (두언 20:47) / 엇테 글오물 알리오 = 何知解 (능엄 5:2)

기르- : 아버지 날 기를저기 = 父母養我時 (두언 8:67) / 이 아드리어나 썩리어나 ...수비 길어 (월석 21:97) / 내 이 썩를 나하 길

오니 (석보 11:29)

누르- : ㅅㅅ가라ㅅ로 ㅅㅅ할 누르시니 (석보 6:39) / 상네르외디 아니

흔 거슬 놀렛도다 = 鎮非常 (두언 6:26) / 흔 소노로 놀로라 (몽산 32)

더르- : 더르며 기롬 = 短長 (영가, 하:60) / 劫을 조차 덜어 조라 = 隨劫短減 (법화 1:190) / 길며 덜우물 = 長短 (법화 5:34)

호르- : 호르는 십 (석보 13:23) / 時節이 ...흘러 가면 (석보 19:11) / ㅅㅅ르미 흘루미 = 江流 (두언 7:12)

그 밖에 : 도르-(돌리다), 막조르-(막지르다), ㅅㅅ르다-(마르다), 게으르-, 니르-(일으키다), 두르-(돌리다), 브르-(부르다), 이르-(이르다, 이루다) 등등.

31. 「△」이 앞음절의 종성으로 가붙을 때는 「ㅅ」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과 /ㅅ/이 수의변이되었던 것이다.)

브스- : 내 모뎨 엇테 드틀 ㅅㅅ티 브스디 ㅅㅅ관디 (월석 21:219) / 國土 조쳐 붓아 (능엄 1:5), 地獄을 붓아 브려 (월석 21:181) / ㅅㅅ리 붓온 栴檀 沈水香 (월석 17:29), ㅅㅅ리 붓온 ...栴檀 (법화 6:138) 「브사」로 표기된 것이 보인다. (예외적)

다 브사 드틀 명ㅅ라 (월석 14:8-9)

그스- : 四天王이 술위 그스슬고 (월석 2:35) / ㄱㅅ ㄱㅅ어 = 強牽 (법화 2:200) / 옷기슬 ㄱㅅ우물 앓기니라 = 惜曳裾 (두언 20:34)

비스- : 고조로 비스 각시 (천강곡 상, 기 51) / ㅅㅅ장 빚어 (월석 2:5), 香 브르고 빚어 (월석 10:21) / 오스로 빚오물 (천강곡 상, 기 121) 빚난 빚우물 = 榮飾 (영가, 하:137)

수스- : 버리 수스돗다 = 蜂喧 (두언 21:6) / ㅅㅅ어 어즈러오미 ㄱㅅ도다 = 絕喧煩 (금강삼가 5:11) / 人天入 ㅅㅅ 소배 ㅅㅅ우미 浩浩호도다 = 人天耳裏鬧浩浩 (금강삼가 3:8)

「브스-」도 같은 말인데, 이것은 합성어로만 나타난다.

되해 돌히 붓어디도다 = 山石碎 (두언 25:7)



星河入 비치 불어디엿거늘 = 星河光破碎 (두언 15:44)

(가-3) 「시므→심거」형

32. 「시므-, 즈믄-」에 있어서는, /으, 으/가 줄면서 /ㄱ/이 덧난다.

시므- : 시므는 (월석 21:39), 시므고 (석보 19:33) / 심거 (월석, 서 : 24) / 심군 (월석 21:147), 심고몬 (월석 10:4)

즈믄- : 즈믄고 (석보 6:2) / 즈믄눈고 (두언 7:33) / 즈믄미 (남명, 하:1)

33. 이 경우에 「시므-, 즈믄-」를 기본으로 삼고 「심ㄱ-, 즈ㄱ-」을 변동형태로 보았으나, 이것은 임자씨 「나모...」의 경우와 흡사하므로, 앞에서(→p.324)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써 「\*시므-, \*즈믄-」을 기본으로 가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끝음절의 /으, 으/는 「-오/우-」, 「-아/어」 앞에서 줄어지고, 닿소리씨끝 앞에서는 끝닿소리 /ㄱ/이 줄어진다는 변동규칙을 세우면 된다.

34. 이렇게 가상 기본형태를 잡았을 때, 「나모...」와 「시므...」의 변동규칙은 약간 서로 달라지는 점, 주의를 요한다. 그것은 「시므-」의 경우에는 고름소리를 가진 씨끝은 홀소리씨끝으로 보아지지 않고, 닿소리씨끝에 들게 된다는 점이다. 즉, 「\*나목+으로」→「남ㄱ로」가 되나,

\*시므 { +은→\*심군  
+으샤→\*심그샤  
+으리라→\*심그리라

로는 되지 않는다.

아리 심 上根 (금강, 서:6)

根源을 시므샤 (석보 13:4)

因緣을 시므리라 (법화 4:54)

35. 그리고 앞에서 「하르...」의 변동을 「나모...」의 변동과 같은 규칙으로 다룰 수 있음을 설명했는데(p.325), 그와 같이 「다르...」의 변동을 「시므-」의 그것과 같은 규칙으로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즉

\*다룩+오 →\*달고 →달오-

\*다룩+아 →\*달가 →달아-

(나) 「하다」형 풀이씨

(나-1) 「-오/우-」앞에서

36. 「~하-」에 「-오/우-」가 연결될 때에는, /으/가 주는 것과 줄지 않는 것이 수의로 변동된다. (줄지 않을 때는 두 홀소리 사이에 /j/를 넣는다.)

念호디(월석, 서:19), 出入호디(월석, 서:19) / 막스맷 行호옴과  
막스맷 行動호옴과 (석보 19:24), 내...스랑호요디 (석보 13:57)

37. 「으/으」로 끝나는 다른 풀이씨와는 달리, 「-아/어」 위에서는 /으/가 줄지 않는다. (이 경우에 두 홀소리 사이에 /j/가 들어간다.)

異乎中國하야 (훈, 언해)

(나-2) /ㄱ, ㄷ/ 앞에서

38. /ㄱ, ㄷ/으로 시작되는 씨끝 위에서는 /으/가 줄고 /ㅎ/은 /ㄱ, ㄷ/과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있다.

외다 터시니 (용 107장)

두쇼셔 커늘 (용 107장)

聲聞이 能히 코 = 聲聞이 能之오 (법화 4:183)

ㅁ죽게 코져 하나 (금강삼가 5:1)

한문의 토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使知 功行이 已深호들 케하샤 (법화 3:164)

此는 令觀察 籌量所得이 非眞인들 케하시니라 (법화 3:198)

使天下로 知貴者 | 不在國爵也 | 들 케하시니라 (법화 4:156)

(나-3) /ㄱ, ㄷ/ 사이에서

39. 뿌리가 /ㄱ, ㄷ, (ㅅ)/으로 끝나 있는 「하다」풀이씨에 /ㄱ, ㄷ/ 씨끝이 붙으면, 「하」음절 전체가 줄어지는 일이 있다.

ㅁ득하→ㅁ득- : ㅁ득하니 (용 41장) / ㅁ득도소니 (영가, 하:105),

ㅁ득다 (월석 2:53), ㅁ득거시늘 (월석 7:52),



ㅁ죽ㅎ- →ㅁ죽- : ㅁ죽ㅎ며 (영가, 하:48) / ㅁ죽디 (금강삼가 5:1),

ㅁ죽게 ( " )

▽변동하지 않는 경우.

ㅁ죽ㅎ도다 (두언 8:27)

덜덜ㅎ- →덜덜- : 덜덜ㅎ 이리니 (두언 6:48) / 덜덜디 아니ㅎ니

(두언 15:46), 덜덜다 ㅎ니 (능엄 10:13)

▽변동하지 않는 경우.

덜덜ㅎ도다 (남명, 하:9)

이 말은 기본형태가 「덜덜-」인 것처럼 활용하는 일도 있다.

덜덜든 거슬 (능엄 1:85)

몰ㅎ- →몰- : 改過 몰ㅎ야 (용 12장) / 올티 몰도다 (능엄 3:41), 아

디 몰거니와 (능엄 5:57), 나사드디 몰게 드외니 (천강곡 상, 기 69)

▽변동하지 않는 경우.

제 아디 몰ㅎ도다 (남명, 상:80)

존ㅎ(ㅁ득)- →존- : 존ㅎ니라 (월석 1:1), ㅁ득니라 (훈, 언해) / 존

디 아니ㅎ니 (두언 15:5), 존도소이다 (월석 7:12), 존가지이다

(월석 2:9), 이 존다 (금강 77)

▽변동하지 않는 경우.

이 존하다 (능엄 2:23)

이 존ㅎ도소니 (영가, 하:106)

「-느」이 붙을 때도 이렇게 변동하는 일이 있다.

所欲이 ㅁ슴 존느 전치라 =所欲如心故 (원각, 상 2-2:115)

그 밖에도 :

구루미 특특디 아니ㅎ면 (법화 3:10), 아득도다 (금강삼가 4:34),

잇는듯도다 (두언 7:24), 重陽애 뺨적디 아니ㅎ도다 (두언 18:1)

40. 또, 한자어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동이 일어난다.

得게 마라 (법화 2:99), 著들 아니ㅎ샤미라 (능엄 5:83) 固執디 아

니ㅎ야 (석보 13:38), 自得디 몰ㅎ리니 (석보 9:16), 沐浴디시니

(천강곡 상, 기 124), 得듯 호이다 (법화 2:254), 覺디 몰ㅎ며 (법화

4:44), 一無利益거니와 (금강 45) 등등

▽이 경우에도 변동하지 않는 일이 있다.

錯ㅎ고 (금강삼가 4:62), 得ㅎ디 아니ㅎ리 업느니 (원각, 하 2-2:

43), 干涉ㅎ도다 (금강삼가 4:19),

(나-4) 「퍼러ㅎ-」 따위

41. 「퍼러ㅎ-, 파라ㅎ-, 허여ㅎ-, 하야ㅎ-, 누러ㅎ-, 이러ㅎ-, 그러ㅎ-, 엇더ㅎ-」의 「ㅎ」는 고름소리 씨글 위에서 흔히 줄어드는 일이 있다.

퍼러ㅎ- →퍼러- : 남지 기운은 …蒼然히 퍼러ㅎ느니 =木之氣…蒼然

其青 (금강삼가 2:29), 이시 퍼러ㅎ도다 =蒼靑 (두언 6:17) / 퍼런

(←퍼러ㅎ+은) 대=翠竹 (금강삼가 4:16)

▽줄지 않는 경우

퍼러ㅎ듯 ㅎ도다 (두언 18:21)

파라ㅎ- →파라- : 畚 우미 파라ㅎ도다 =芦笋綠 (두언 6:51), 芳草

파라호물 ㅎ가지로 보고 =同見芳草綠 (금강삼가 4:21) / 파란 옷

(월석 2:43)

허여ㅎ- →허여- : 염피 허여호물 =薤白 (두언 7:40) / 雪山이 허연

디 =雪山白 (두언 18:12)

하야ㅎ- →하야- : 物이 하야ㅎ야 =物白 (두언 8:53), 세 하야ㅎ도

다 =骸骨白 (두언 16:72) / 하얀 옷드미 =素質 (두언 25:50)

누러ㅎ- →누러- : ㅁ룩맷 雲霧 | 누러ㅎ도다 =江霧黃 (두언 10:45)

/ 누런 고지 =黃花 (영가, 상:116)

이러ㅎ- →이러- : 王業艱難이 이러ㅎ시니 (용 5장) / 이런 마를 (석

보 13:44), ㅁ스글 爲ㅎ야 이러노 =爲甚如此오 (금강삼가 3:29)

▽줄지 않는 경우.

이러ㅎ 妙法 (석보 13:47)

그러ㅎ- →그러- : 엇던 전츠로 그러노 (금강삼가 5:18), 그러나 (석보

9:10), 그럴씨 (석보 9:14), 聞業도 또 그러니라 (원각, 상 2-2:99),

그러면 (법화 3:165)



▽줄지 않는 경우.

用과 等이 또 그러하니라 (금강삼가 2:30)

엇더하- →엇더- : 엇더하시니 (용 65장) / 네 쓰데 엇더노 (법화 2:77), 엇더니잇고 (월석 23:91), 엇던 因緣 (석보 13:14), 엇더시니  
잇고 (월석 23:84)

▽줄지 않는 경우.

모미 엇더하노 (두언 20:34)

42. 이 말들은 뿌리가 모두 /ㅈ/, ㅊ/로 끝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변동은, 이 홀소리와 「하」의 /ㄹ/ 사이에서 /ㅎ/이 유성화하여 줄어들고, 다시 /ㄹ/ 소리마저 앞의 간극이 큰 홀소리에 흡수되어(완전동화되어) 버린 결과로 생각되는데, 어형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기본형태를 의식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려는 반작용도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43. 뿌리가 /이/로 끝난 말도 이런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와 비슷하다.

아니하- →아니- : 아니하리 (원각, 하 2-2:43), 아니하시니라 (금강삼가 2:42) / 뷔디 아니며 (금강삼가 5:35), 卽디 아니며 (남명, 서:1), 나디 아닌 時節 (금강삼가, 5:27), 존디 아니니라 (금강삼가 4:42)

<비교> 아니하면 (월석 21:56), 아니하며 (월석 2:16), 아니하니라 (월석 1:26)

「아닌느니라」 형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아니하느니라」→「아닐느니라」→「아닌느니라」로 변동된 것이다.

하야디디 아닌느니라 (능엄 6:42)

#### (나-5) 「만하-」

44. 「만하-」는 「만-」으로 변동한다.

만하- →만- : 讒口 | 만하야 (용 123장), 煩惱 | 만하코 (석보 6:35)

/ 모딘 이리 만코 (월석 21:121), 두리본 이리 만커든 (월석 21:170)

#### (다) 「녀-」→「니-」

45. 「녀-」(가다)는 씨끝 「-거-」 앞에서는 「니-」로 바뀐다.(형태적, 개별적 변이)

길 불 사르미어나 (월석 21:119), 同行은 훈디 녀실씨라 (월석 2:26), 콩바티 녀 보니 =行豆田 (두언 15:5) / 東의 니거시든 西夷  
브라승불니 (용 38장), 내 니거지이다 가샤 (용 58장), 彌尼授國으로  
니거늘 (월석 7:3), 어셔 도라 니거라 (월석 8:101), 아래 가신  
八姦女도 니거시니 므스기 썰보리잇고 (월석 8:93)

▽「녀-」가 「네-」로 변한 예가 가끔 보인다.

수를 네며 글 지수물 =行酒賦詩 (두언 23:19)

나젧 비를 네논가 문득 疑心하다니 =忽疑行暮雨 (두언 18:5-6)

그리고 합성어를 만들 때는 「니-」를 취하는데(하니-, 돈니-, 걸니- 등등) 이에 대해서는 →p.130.

#### (라) 「이시-」→「잇-」

46. 「이시-」(있다)는 당소리씨끝 위에서는 「잇-」으로 변동한다.

가리라 하리 이시나 (용 45장), 이시며 (월석 21:138), 山行 가 이셔  
(←이시+어; 용 125장), 덕해 와 이쇼니 =在野 (←이시+오니; 두언  
15:4) / 賊臣이 잇고 (용 37장), 잇더니 (용 95장), 잇거시닐 (월  
석 7:1), 곳 잇는 싸흘 (월석 1:9)

47. 고름홀소리 「ㄹ/으」를 취하는 씨끝은 홀소리씨끝에 든다. 따라서  
「이시+으나, 이시+으며」에 있어서는 「잇-」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이시+으나 →이시+나 →이시나

이시+으며 →이시+며 →이시며

#### (마) 「뉘여-」→「무여-」형

48. 줄기의 끝소리가 /ㅣ/(j)인 때는, 씨끝 「-아/어」, 「-오/우-」는



각각 「-야/여」, 「-요/유-」로 변동한다.

「위-」+「-아/어」→위+어→위여

「줄히-」+「-오/우-」→줄히+오→줄히요-

이렇게 되면 탄이의 /l/와 「야, 여, 요, 유」의 /j/가 겹쳐지므로, 앞의 반홀소리가 줄어드는 일이 있다.

위→무- : 브르매 아니 뵈싹 (용 2장) / 무유미 (←위유미 ; 능 4:15),  
무여 (←위여 ; 두언 20:20).

▽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엿고 (두언 6:52), 위여 (석보 13:28, 월석 7:59), 위유미 (월석 2:21의 1)

줄히-→줄히- : 太子를 하늘히 줄히샤 (용 8장), 줄히시니라 (능엄 3:83) / 줄히야 (←줄히야 ; 석보 13:46), 줄히요디 (←줄히요디 ; 석보 19:16)

▽변동하지 않는 경우.

줄히야 (용 16장), 줄히요미 (석보 9:11, 훈 언해), 줄히요들 (영가, 하:5)

뷔-→부- : 뷔 집 (두언 6:17) / 부여 (←뷔여 ; 남명, 상:12), 부엿느니 (←뷔엿느니 ; 두언 25:52), 부엿고 (←뷔엿고 ; 두언 6:10)

▽변동하지 않는 경우.

뷔유메 (석보 13:10), 뷔여 (월석 1:18), 뷔엿도다 (두언 6:32)

개-→가- : 개마 아츠릭 개도다 = 已朝晴 (두언 7:7) / 가여 (←개여 ; 능엄 4:40), 가야 (능엄 2:29), 가얏도다 (두언 14:19), 가요매 (←개요매 ; 능엄 2:29)

▽변동하지 않는 경우.

새 개요들 = 新晴 (두언 6:16)

혜-→허- : 社稷功을 혜샤 (용 104장) / 허여 (←혜여 ; 법화 2:161)

▽변동하지 않는 경우.

날 혜요들 = 計我 (법화 2:161)

디나건 일로 혜야 (월석 1:21)

새-→사- : 바미 셨리 새느니 (두언 15:46) / 사여 (←새여 ; 두언 15

:49), 사야도 (←새야도 ; 금강삼가 4:52)

▽변동하지 않는 경우

새배 새야 오들 알오 = 曉知曙 (두언 6:17)

브스왜-→브스와- : 關中이 네 브스왜 제 = 關中昔喪敗 (두언 8:65)

/ 브스와요매 (←브스왜요매 ; 두언 24:58)

▽변동하지 않는 경우.

브스왜요미 = 敗亡 (두언 20:26)

브스왜야 = 凋喪 (두언 24:35)

메-→머- : 姦女 | 金鑪子 메샤 (월석 8:78) / 호되 머요매 = 荷鋤 (←메요매 ; 두언 16:66), 菩提를 머유미 = 荷擔菩提 (←메유미 ; 금강삼가 3:47)

▽변동하지 않는 경우.

環刀를 메여 (월석 8:102)

호되 메유리라 = 荷鋤 (두언 8:48)

업테-→업더- : 摩耶 | ㅅ해 업테샤 (석보 11:3) / ㅅ해 업더엿거늘 (업테엿거늘 ; 월석 1:44)

▽변동하지 않는 경우.

ㅅ해 업테여 (월석 8:102)

### (3) 잡음씨의 「-이-」

49. 잡음씨의 줄기 「-이-」는 다음과 같이 변동한다.<sup>(9)</sup>

위의 모든 경우는, 씨끝을 붙일 때의 변동인데, 이 경우는 앞에 오는 말에 의한 변동인 점이 다르다.

#### (3-1) 당소리에 붙음

50. 앞의 소리가 당소리인 경우에는 「-이-」는 성절음이 된다.

마리오 (월석, 서:9), 마리니 (월석 1:22), 耨는 노미라 (훈, 언해),

(9) 이 변동은 임자말을 표시해 주는 토씨 「-이」의 경우와 같으므로 서로 대조할 것. (→p.335)



情은 쁘디라 (훈, 언해)

### (3-2) /i, j/ 이외의 홀소리에 붙음

51. 앞의 소리가 /i, j/ 이외의 홀소리인 경우에는, 「-이-」는 앞의 홀소리와 한 음절로 축약되어 반홀소리의 탄이(j)가 된다.

所는 배라 (←바+이라; 훈, 언해)

貝는 골와래니 (←골와라+이니; 석보 13: 53)

새지븐 연아홉낫 세로다 = 茅齋八九椽 (두언 20: 9)

濟渡 | 라 (월석 1: 11)

怨讎 | 러라 (월석 1: 6)

▽「渡」, 「讎」는 「되, 쉬」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樂은 풍뤼라 (←풍류+이라; 월석 2: 17)

形은 양지라 (←양즈+이라; 월석 8: 21)

故는 전치라 (←전츠+이라; 훈, 언해)

▽앞말의 끝음절이 평성일 때는, 축약된 음절은 상성으로 변동한다. <sup>(10)</sup>

:기·오 (←그+이오; 석보 13: 36)

부:베시·니·라 (←부터+이시니라; 석보, 서: 1)

몬:계로·다 (←몬저+이로다; 두언 20: 6)

52. 「아수, 여스, 흐르, 느르, 나모, 구무, 뽀, 득, 스」와 같은 입자씨에 연결되면, 「-이-」는 성절음으로 나게 되나, 그 앞의 홀소리가 줄어진다.

(→pp. 315-320)

### (3-3) /i, j/에 붙음

53. 끝홀소리가 /i, j/인 말에 연결되면 잡음씨 줄기의 「-이-」는 드러

(10) 허 응: 중세국어 연구 (1963, 정음사) p. 273.

나지 않는다. <sup>(11)</sup> (그러나 두형의 변이형태로 보지는 않는다. →p. 339)

頭는 머리라 (←머리+이라; 훈, 언해)

狗는 가히라 (←가히+이라; 월석 21: 42)

影은 그르메라 (←그르메+이라; 석보 19: 37)

根은 불휘라 (←불휘+이라; 월석, 서: 21)

▽앞말의 끝음절이 평성일 때는 그것이 상성으로 변동한다. <sup>(12)</sup>

득:리·라 (←득리+이라; 월석 21: 77)

누:의라 (←누의+이라; 월석 21: 96)

득:디니·라 (←득디+이니라; 몽산 42)

### (4) 운소 변동

1. 이상은 모두 음소의 변동인데, 운소도 변동하는 일이 있다. <sup>(13)</sup>

#### (4-1) 한 음절

##### (가) 평~거~상

2. 다음 말들은 그 줄기의 성조가, 씨끝의 종류에 따라 평~거~상성으로 변동함.

「가-」 가·면 (석보 19: 11) / ·가·늑·니 (용 2장) / :가·디 (월석 1: 9)

「자-」 자·고 (월석 8: 51) / ·자·거·늘 (용 67장) / :자·려 흐시니 (용 102장)

「오-」 오·니 (용 16장) / ·오·나·늘 (용 109장) / :옴(능엄 52: 10)

(11) 「무형의 변이형태」에 대해서는:

허 응: 언어학 개론 (1963, 정음사) p. 178 참조.

(12) 중세국어 연구(1963, 정음사) p. 273.

(13) 앞의 책, p. 326 이하

여기에서는 줄기가 한·두 음절로 된 것만 보인다.

2. 풀이씨의 줄기



「보-」 보·고 (석보 19:10) / ·보·아 (석보 19:7) / :보·물 (월석, 서 : 13)

「주-」 주·며 (석보 9:12) / ·주·스·오시·고 (월석, 서 : 13) / :주·더 (석보 19:3)

그 밖에 ; 사-, 두-, 혀-(불켜다), 펴-, 셔-(서다).

#### (나) 상~평

3. 홀소리로 시작되는 씨끝이 오면 상성이 평성으로 변동함.

「울-」 :울·어시·늘 (←울거-, 용 33장), :울·며(석보 13:24) / 우·러 (월석 8:14), 우·루·물 (용 96장)

「열-」 :열·며 (석보 19:10), :여·니 (두언 15:1) / 여·러 (석보 9:21), 여·로·물 (두언 6:14)

「알-」 :알·씨 (용 35장), :아·습·고 (용 51장) / 아·라·라 (석보 9:28), 아·로·미 (석보 9:26)

그 밖에 : 살-, 딸-, 묻-.

#### (4-2) 두 음절

##### (가) 평~거~상

4. 씨끝에 따라 줄기의 둘째 음절이 평~거~상성으로 변동함.

「맛나-」 맛나·며 (석보 19:34) / 맛·나·아 (능엄 9:16) / 맛·나·문 (두언 21:16)

같은 형 : 맛보-(마주보다), 뻐혀-(깨뜨리다)

「나가-」 ·나가·려노 (두언 15:4) / ·나·가·시·니라 (두언 20:5)

/ ·나·가·리·라 (두언 20:20)

「빛나-」 ·빛나·고 (월석, 서 : 1) / ·빛·나·시·니이·다 (용 80장)

/ ·빛·나·미 (두언 6:19)

같은 형 : 뻐디-(꺼지다), 나오-, 처디-(처지다)

「건나-」 건나·고 (두언 7:6) / :건·나·아 (석보 19:27) / :건·나·더 (월석 2:19)

같은 형 : 건너-, 내혀- ('내다'의 강세형)

#### (나) 상~평

5. 홀소리로 시작되는 씨끝이 붙으면 둘째 음절의 상성이 평성으로 변동함.

「갓갑-」 갓·갑·더·시·니 (월석 8:79), 갓·갑·거·나 (석보 19:17) / 갓·가·보·매 (월석, 서 : 14), 갓·가·와 (능엄 2:87)

「눗갑-」 눗·갑·고 (훈), 눗·갑·도·다 (두언 6:28) / 눗·가·불 (훈), 눗·가·불·니 (월석 1:42)

같은 형 : 두텁-, 둔겁-, 술갑-(충명하다), 맛닐-(만나다), 들에-(들레다)

「깃깃-」 ·깃·깃·던 (두언 6:10) / ·깃·기·서 (두언 6:16)

같은 형 : 뜯뜯-(떨어지다)

#### (다) 평~거

6. 둘째 음절이 평-거성으로 임의변동함.

「즐겁-」 ·즐·거·본 (석보 19:4) / ·즐·거·본 (석보 13:39)

같은 형 : 바라-(바라다)

「더럽-」 :더·러·부·물 (월석 1:35) / :더·러·부·므·로 (월석 2:22-1)

같은 형 : 겨시-

#### (라) 평거~상

7. 평거성 두 음절이 상성의 한 음절로 준다.

「모르-」 모·르·샤 (용 19장) / :몰·라 (용 60장)

「누르-」 누·르·논 (몽산 32) / :눌·렛·도·다 (두언 6:26)



[음소 운소 변동 일람표]

(1) 끝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뀔

(1-1) 끝닿소리의 바뀔

(가) 여덟 종성이 아닌 경우.

(가-1) 맛-, 쿛-, 님-

(가-2) 말-

(가-3) 뉘-, 골-

(가-4) 당-

(나) 여덟 종성인 경우.

길-

(1-2) 끝홀소리의 바뀔

ㅁㄷ치-, 일우-, 외오-

(2) 끝소리 줄임

(2-1) 끝닿소리 줄임

(가) 닿소리떼인 경우

없-, 갓-, 맛-, 등등.

(나) 끝 /ㄹ/ 줄임

알-, 놀-

(다) 끝 /ㅈ/ 줄임

얏-, 었-

(2-2) 끝홀소리 (또는 끝음절) 줄임

(가) /ㅇ, 으/ 줄임

(가-1) 「ㅍ→파」형

ㅍ-, 다으-

(가-2) 「다르→달아」형

다르-, 밍수-

(가-3) 「시므→심거」형

시므-, 즈믄-

(나) 「하다」형 풀이썬

(나-1) 「-오/우-」앞에서

(나-2) /ㄱ, ㄷ/ 앞에서

(나-3) /ㄱ, ㄷ/ 사이에서

(나-4) 「퍼러ㅎ-」따위

(나-5) 「만ㅎ-」

(다) 「녀-」

(라) 「이시-」

(마) 「뉘여」→「무여」형

폴히-, 뉘-

(3) 잡음씨의 「-이-」

(3-1) 닿소리에 붙음

(3-2) /i, j/ 이외의 홀소리에 붙음

(3-3) /i, j/에 붙음

(4) 운소 변동

(4-1) 한 음절

(가) 평~거~상

(나) 상~평

(4-2) 두 음절 (둘째 음절의 변동)

(가) 평~거~상

(나) 상~평

(다) 평~거

(라) 평거~상

### 3. 씨끝의 분석

1. 풀이썬는 줄기와 씨끝으로 되는데, 한 줄기에 여러가지 씨끝이 붙

3. 씨끝의 분석



어서 어형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씨끝바꿈(활용)이라 한다.

2. 줄기가 여러 형태소로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앞에서(p.444) 이미 설명하였는데, 씨끝도 이와같이 여러 형태소로 될 수도 있다.

## 1) 맺음씨끝

### 1. 고히 길오 눕고 코드며 (석보 19:7)

그 이리 이러히니 (월석 21:210)

너도 또 이 코히다 (능엄 2:23)

두 히 돌다가 세 히 도드면 (월석 1:48)

王이 네 아득를 내티쇼셔 (월석 2:6)

위의 말들에서 밑줄 친 풀이씨는 각각, 「길-오(←길+고), 눕-고(←눕+고), 곧-으며, 이러-히니, 코-히다, 돌-다가, 도-드면, 내티-쇼셔」와 같이 줄기-씨끝으로 분석되는데, 이 씨끝들은 모두 한 형태소로 되어 있다. 이러한 씨끝은 한 어절을 끝맺을 수 있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맺음씨끝」이라 한다.<sup>(14)</sup>

### 2. 맺음씨끝 다음에는 다시 토씨가 연결되는 일이 있다.

들고-도 못 드른디시 보고-도 못 본디시 흘씨오 (월석 10:20)

내 難을 救티-옷 아니히면 (월석 21:56)

늑출 當히안 (←하야+ㄴ) 막스물 보내요디 늑출 도라-는 웃는다=當面輸心背面笑 (두언 25:52)

물읏 字 | 모로매 어우러-사 소리 이느니 (훈, 언해)

(14) 「맺음씨끝」이란 말은 필자의 「옛말본」(1969, 과학사)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 마침법의 씨끝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위의 예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씨끝이든 한 어절을 끝맺을 수 있으면 모두 맺음씨끝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일반적으로 말하는 씨끝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단순히 「씨끝」이라 부르지 않고, 굳이 「맺음씨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이 책에서는 도움줄기(보조어간)도 씨끝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다.

눌 보리라 우러-곰 온다 (월석 8:87)

3. 그러나 이러한 말에 있어서는 토씨를 빼더라도 (이 경우에는 물론 뜻에 영향을 미친다.) 한 어절이 완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씨끝은 여전히 맺음씨끝이다.

## (1) 기능에 의한 맺음씨끝의 분류

1. 맺음씨끝은 그 기능으로 보아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2. 도훈 法 닳고물 몰히야 (석보 9:14)

「도훈」은, 겉으로는, 이름씨 「法」을 한정하는 매김말의 구실을 하고 있으나, 그 속뜻으로는 「法」을 임자말로 하는 풀이말의 구실을 하고 있다. 즉,

法이 돌다 ⇒ 도훈 法  
(임자말) (풀이말) (매김말)

과 같은 변형(매김변형)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다. 그러므로 「도훈」은 한편으로는(속뜻으로는) 풀이말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겉구조로는) 매김말로 기능하고 있다. 즉 그 기능은 이중적이다.<sup>(15)</sup>

3. 「닳고물」도 겉구조로는 부림자리 토씨를 가지고서 부림말로 기능하고 있으나, 속뜻으로는 「도훈 法」을 부림말로 통솔하는 풀이말로 기능하고 있다.

도훈 法 닳다 ⇒ 도훈 法 닳고물  
(부림말) (풀이말) (부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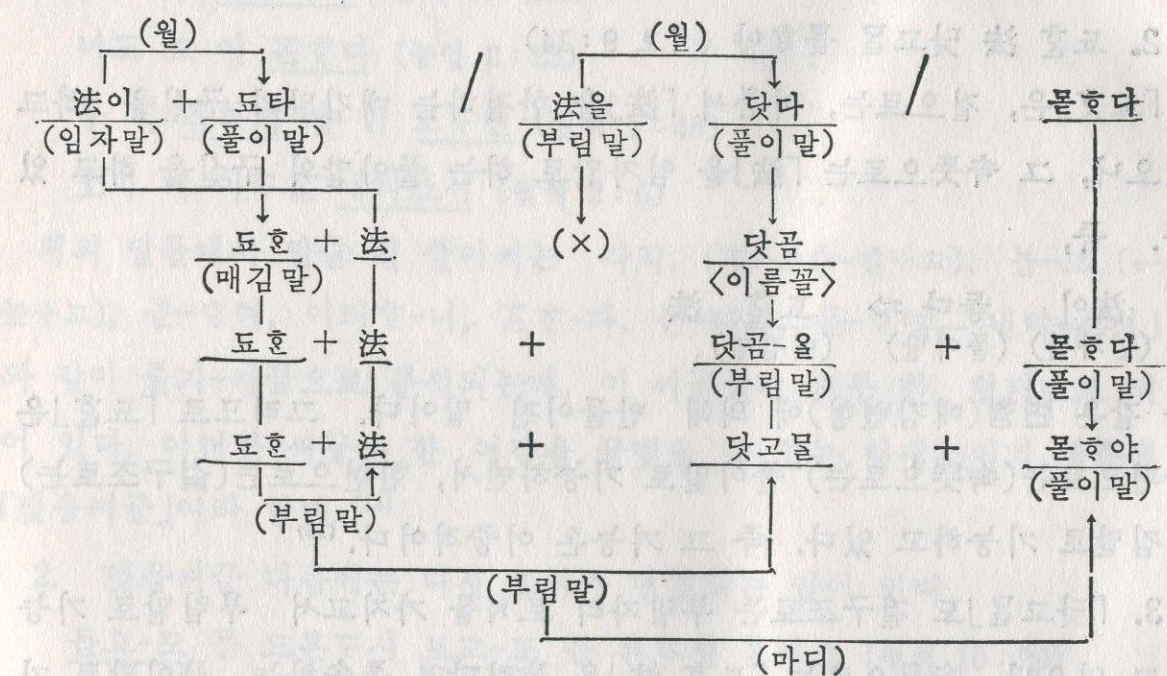
과 같이, 「닳다」는 「닳」으로 활용하여 임자씨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다시 「-을」 토씨에 의해 부림말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즉 「닳」은 차

(15) 최 현배 : 「우리말본」의 체계에서는 이러한 끝바꿈을 꺾목법(자격법)이라 하는데, 이것은 풀이씨가 매김씨의 자격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풀이씨의 자격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매김씨의 자격을 가지는지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그 이중적인 자격을 인정하나, 그것이 차원을 달리한 두 구조(속구조와 겉구조)에서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원을 달리하는 두 구조에서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4. 한편 「몰ᄃ야」는 「몰ᄃ다」의 활용형으로서, 「…몰ᄃ다」란 월을 마디(절)로 변형시키고 있으나, 이 변형된 마디 「…몰ᄃ야」는 이 전체가 특별한 자격을 가진 말(임자씨나 꾸밈씨와 같은)로 바뀌지는 않는다. 즉 「몰ᄃ다」⇒「몰ᄃ야」에 있어서는 두 쪽이 다 풀이말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16)



5. 「도훈」의 「-온」, 「닷곰」의 「-口」, 「몰ᄃ야」의 「-야」는 모두 맺음씨끝인데, 앞의 두 활용형은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법범주를 「두기능법」이라 하고, 끝의 한 활용형은 한가지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는 「한기능법」이라 한다. 두기능법은 속구조의 풀이말을 겹구조에서는 다른 성분으로 기능하게 하는 문법적 방법이고, 한기능법은 속구조의 풀이말을 겹구조에서도 그 기능을 바꾸지 않는 방법이다.

(16) 「몰후야」를 어찌꼴로 보게 되면, 이것도 또한 두가지로 기능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하겠으나, 여기에서는 어찌꼴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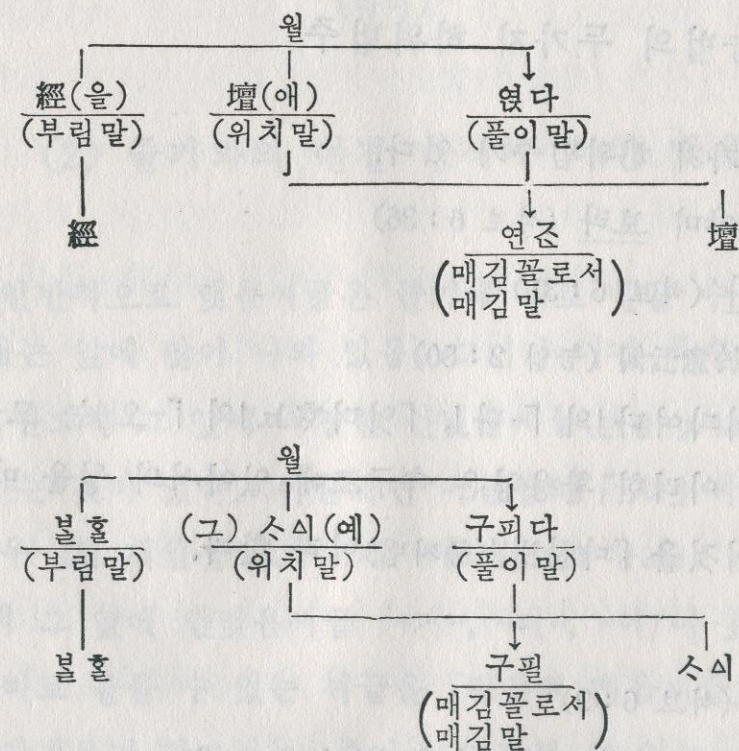
### (1-1) 두기능법의 두가지 하위범주

6. 두기능법에는 두가지의 하위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도훈」과 같이 절구조에서 매김말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닷곰」과 같이 절구조에서 임자씨처럼 여러가지 문장성분으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앞의 방법을 「매김법」(관형법), 뒤의 방법을 「이름법」(명사법)이라 한다.

## 7. 經 연 존 壇 (월석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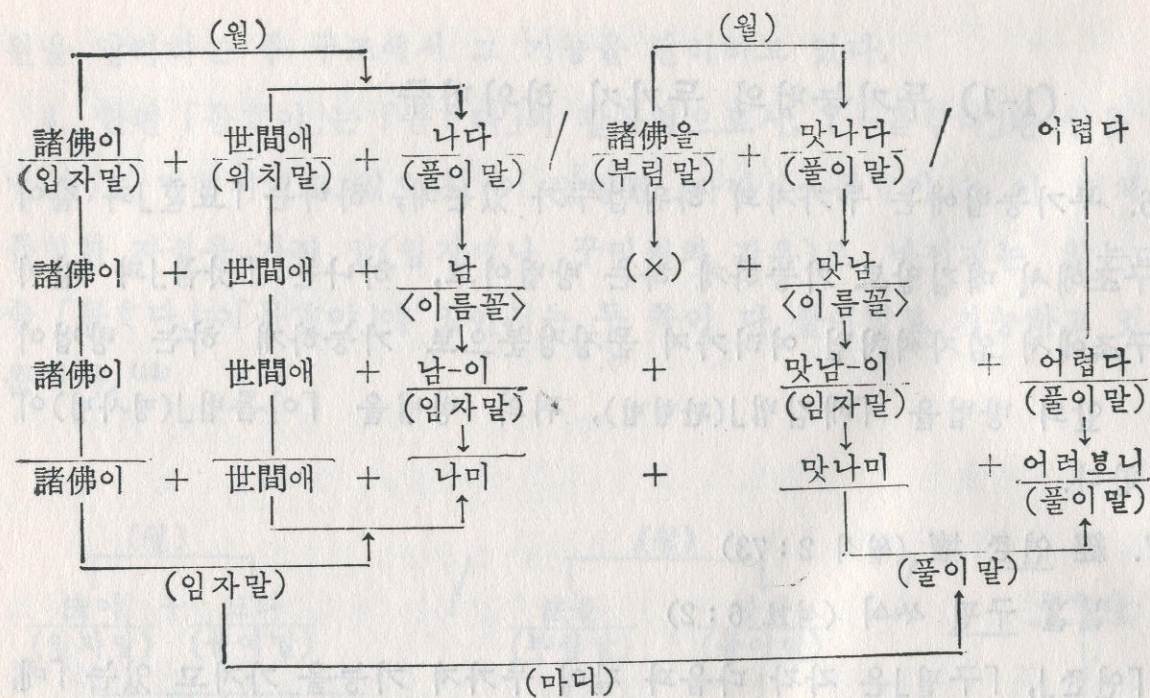
본을 구할 새△ (석보 6:2)

의 「연준」, 「구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매김법」의 활용형이다.



8. 諸佛이 世間에 나미 맞나미 어려브니 (월석 17:14)  
이 말의 「남」, 「맞남」은 두기능법의 이름법의 활용형인데, 그 두가지로  
기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2) 한기능법의 두가지 하위범주

9. 한기능법에도 두가지 하위범주가 있다.

10. 그티 이 굶것 개야미 보라 (석보 6:36)

舍利弗이 이기여다 (석보 6:31)

쁘덴 엇더호노 = 於意云何 (능엄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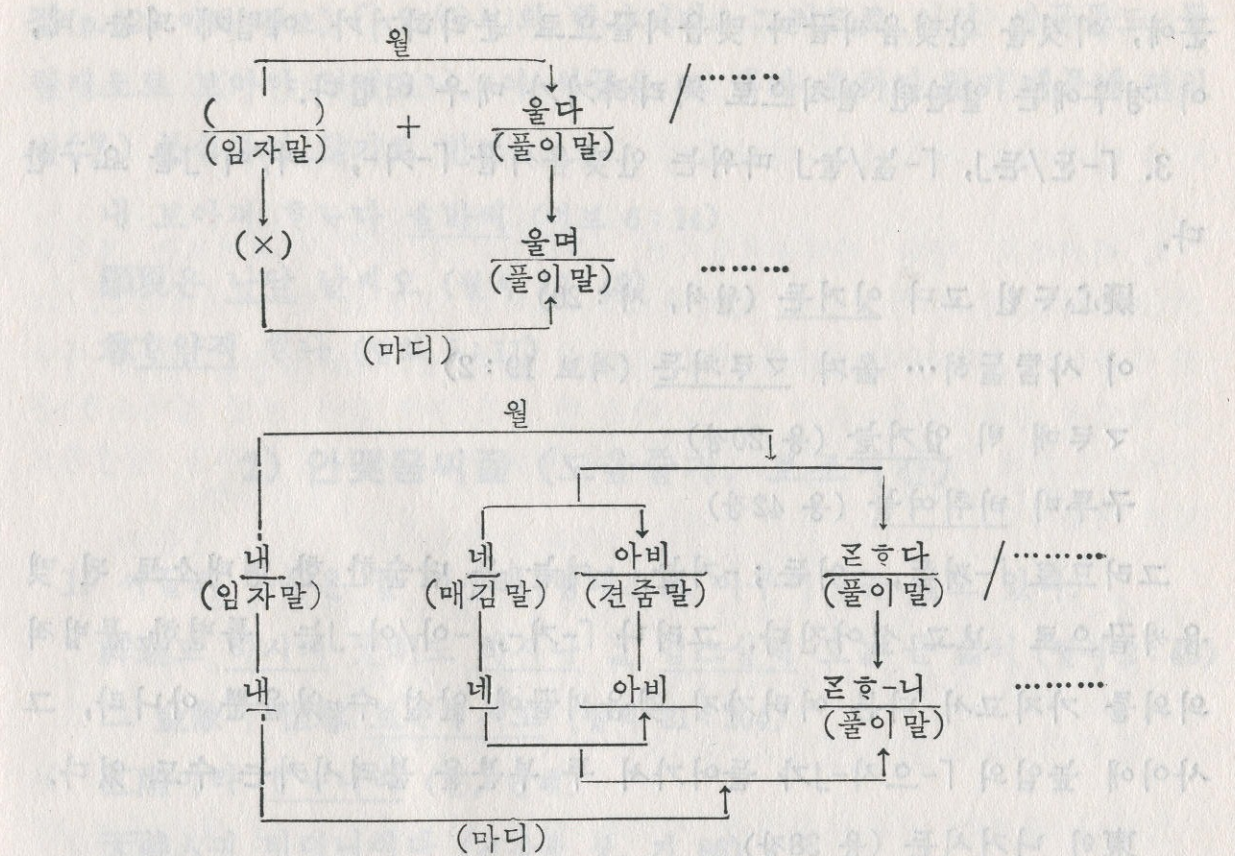
「보라」의 「-라」, 「이기여다」의 「-다」, 「엇더호노」의 「-오」는 모두 한기능법의 씨끝들인데, 이러한 활용형은 속구조에 있어서의 월을 마디로 변형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마침법」(종지법)이라 한다.

11. 그던데,

울며 여희시니라 (석보 6:9)

내 네 아비 존하니 노외야 시름 말라 (월석 13:23)

따위 말의 「울며」의 「-며」, 「존하니」의 「-니」도 모두 한기능법의 씨끝들이나, 이러한 활용형은 속구조의 월을 겹구조의 마디로 변형시켜 주는 구실을 한다. 이것을 「이음법」(접속법)이라 한다.



## (2) 줄기와의 연결 방식에 의한 맺음씨끝의 분류

1. 일반적으로 맺음씨끝은 줄기에 바로 붙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 예는 앞에 많이 나와 있음) 그러나 어떤 특수한 씨끝은 그렇지 못하여, 반드시 그 앞에 특정한 안맺음씨끝(다음 p.483 이하 참조)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이름법의 「-口」 씨끝은 반드시 그 앞에 「-오/우-」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고(p.627 참조), 제약법의 「-든/든」은 반드시 그 앞에 안맺음씨끝 「-거-, -더-, -아/어-」를 요구하게 된다. 줄기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씨끝을 「정상적 맺음씨끝」이라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줄기에 연결될 수 없는 것을 「불구적 맺음씨끝」이라 한다.

2. 불구적 맺음씨끝은 그 앞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안맺음씨끝과 융합되어, 분석되지 않는 한 맺음씨끝으로 녹아붙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이것을 안맺음씨끝과 맺음씨끝으로 분리하기가 어렵게 되는 데, 이 경우에는 일관된 원칙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3. 「-든/든」, 「-늘/늘」 따위는 안맺음씨끝 「-거-, -아/어-」를 요구한다.

疑心<sup>...</sup>든 고디 잇거든 (월석, 서: 20)

이 사람들히... 읍겨 ㄹ쳐든 (석보 19: 2)

ㄹ매 비 업거늘 (용 20장)

구루미 비취여늘 (용 42장)

그러므로 「-거든, -어든; -거늘, -여늘」을 단순한 한 형태소로 된 맺음씨끝으로 보고 싶어진다. 그러나 「-거-, -아/어-」는 특별한 문법적 의의를 가지고서 다른 여러가지 맺음씨끝에 앞설 수 있을뿐 아니라, 그 사이에 높임의 「-으시-」가 들어가서 두 부분을 분리시키는 수도 있다.

東의 니거시든 (용 38장)

弟子...하나홀 주어시든 (석보 6: 22)

王이...갓가비 하거시늘 (월석 2: 5)

淨飯王이 무려시늘 (월석 2: 17, 기 15)

그러므로 「-든/든」, 「-늘/늘」 따위는 앞의 안맺음씨끝과 분리시킴이 좋다. (「-니와」, 「-니마른」도 한가지다.)

4. 이보다 더 분리하기 어려운 것은 맺음씨끝 「-口」, 「-더」와 그 앞의 「-오/우-」이다. (→ pp. 612, 627) 「-口」, 「-더」는 「-오/우-」만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며, 그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여들어가는 일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오/우-」는 여러가지 일반적 맺음씨끝에 앞설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뚜렷한 문법적 의의를 가지고 분명히 독립된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불구적 맺음씨끝에 앞서는 경우에도 따로 떨어진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5. 이와 같은 씨끝에 「-아씨/어씨, -암/엄, -암직/엄직」이 있다. 「-아/어-」는 문법적 의의를 가지고서, 일반적 맺음씨끝에 앞설 수 있는

점(p. 923 이하 참조) 「-오/우-」와 한가지다. 그러므로 이런 씨끝들도 두 형태소로 보아야 하겠으나, 이 씨끝은 그 예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내 보아져 하나다 솔바씨 (석보 6: 14)

顯現은 나달 날씨오 (월석 10: 49)

尊<sup>...</sup>하암직 하나 (법화 5: 11)

## 2) 안맺음씨끝 (도움줄기, 보조어간)

1. 씨끝의 부분은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

祥瑞도 하시며 光明도 하시나 즈 업스실씨 오늘 문 읍되 (월석 2: 45)

그 金像이 世尊 보스븍시고 (월석 21: 204)

江南이라 하느니라 (훈, 언해)

天神스기 비더니이다 (천강곡 상, 기 86)

상네 말 업더시니이다 (석보 24: 39)

2. 「하시며, 하시나, 업스실씨」는 각각 「하-시-며, 하-시-나, 없-으시-르씨」의 세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 없-」은 줄기이고, 그 에 두 형태소로 된 씨끝 「-시-며, -시-나, -으시-르씨」가 붙어 있다.

3. 「보스븍시고, 하느니라」는 각각 「보-스븍-으시-고, 하-느-니-라」로 분석되는데, 씨끝의 부분은 세 형태소로 되어 있다.

4. 「비더니이다」는 「비-더-니-이-다」로 분석되며, 씨끝의 부분은 네 형태소로 되어 있고, 「업-더-시-니-이-다」의 씨끝 부분은 다섯 형태소로 되어 있다.

5. 이 씨끝 형태소들 중, 끝의 「-며, -나, -르씨, -고, -라, -다」는 앞에서 설명한 맺음씨끝인데, 그 앞의 「-시-, -스븍-, -느-, -니-, -더-, -이-」 따위는 이것만으로는 풀이씨를 끝맺지 못한다. 즉 「하시-, 업스시-, 보스븍시-, 보스븍-, 하느니-, 하느-, 비더니이-, 비더니-, 비더-, 업더시-」 따위로써는 한 풀이씨가 끝맺어지지 않는다. (다만 「-니」는 특



별한 경우에 끝맺는 일도 있다.)

6. 이러한 씨끝 형태소를 「안맺음씨끝」이라 하는데, 한 풀이씨의 줄기와 맺음씨끝 사이에는 여러개의 안맺음씨끝이 들어갈 수 있다.

7. 여기에서 말한 안맺음씨끝이란, 우리말본(최 현배)의 체계로는 도움줄기(보조어간)의 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움줄기는 여기에서는, 그 한 부분(하입, 입음)은 파생의 가지로 보아 줄기의 한 부분으로 넣고(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하였음→p.77 이하), 다른 한 부분(앞에 들어 보인 형태소들)은 씨끝으로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형태소는 문법적인 범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8. 「-으리-」는 일반적으로는 안맺음씨끝으로 쓰인다.

일로브터 天上에 나리도 이시-리-니 (석보 9:19)

블ㄴ며 보미 업스리며 (←없-으리-며; 능엄 3:94)

그러나 때로는 맺음씨끝처럼 쓰이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뒤에 맺음씨끝이 묵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느 다 솔보-리 (월석 1:1)

현 날인들 迷惑 어느 플-리 (천강곡 상, 기 74)

오랴나래 내내 울보-리 (용 16장)

이 말들은 끝에 「-잇고, -잇고, -이다」와 같은 씨끝이 생략된 것으로 (즉 속뜻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9. 이런 점으로는 「-으니」도 「-으리」와 한가지다.

앞에 들어 보인 예들에 나오는 「하느니라, 비더니이다, 업더시니아다」의 「-니-」는 안맺음씨끝으로 쓰이고 있으나,

大千世界 ㄴ장 블ㄴ니 (월석 2:35)

阿那律 말이 괴 아니 올흐니 (천강곡 상, 기 176)

古聖이 同符하시니 (용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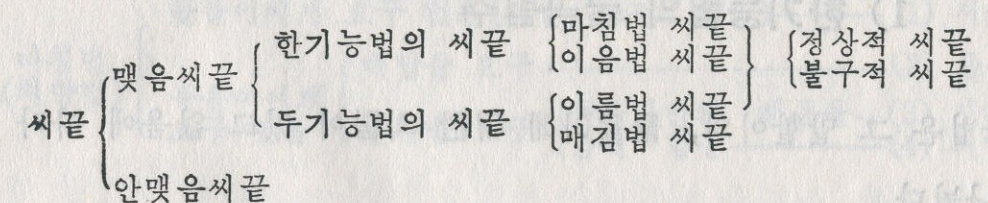
부텃기 받즈바 므슴 호려 하시느니 (월석 1:10)

따위에서는 풀이씨를 끝맺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의

「-으리-」에서와 같이, 뒤에 있는 맺음씨끝 「-이다, -잇고, -이다, -잇고」가 각각 생략된(속뜻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 씨끝의 굴곡범주

1.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면, 씨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 이러한 씨끝 형태소가 나타내는 문법적 의의를 「굴곡범주」라 하는데,

맺음씨끝의 굴곡범주에는;

- 1) 한기능법 { (1) 마침법  
(2) 이음법
- 2) 두기능법 { (1) 이름법  
(2) 매김법

이 있고,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에는;

- 1) 높임법
- 2) 인칭법
- 3) 주체-대상법
- 4) 때매김법
- 5) 강조-영탄법

이 있다.

3. 맺음씨끝의 문법범주가 안맺음씨끝으로 표시되는 일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일은 매우 드물다.



##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맺음씨끝의 굴곡범주에는 한기능법과 두기능법이 있다.

### 1) 한기능법의 굴곡범주

한기능법은 그 말할이의, 들을이에 대한 의향이 있고 없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말할이의, 들을이에 대한 여러가지 의향을 나타내면서 월을 끝맺는 「마침법」(의향법)이오, 하나는 그러한 의향을 나타내지 않으며, 월을 끝맺지 않고, 앞뒤 말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이음법」이다.

#### (1) 마침법(종지법)

—의향법—

1. 마침법은 한기능법의 한가지로서, 월을 끝맺는 풀이씨 활용법의 한가지이다. 마침법은 월을 끝맺는 맺음씨끝으로써 표시되는데, 이러한 씨끝들은 말할이의, 들을이에 대한 여러가지 의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마침법은 「의향법」이라 할 수도 있다.

2. 마침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들을이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는 일이 없이, 들을이에게 자기의 할말을 해버리거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또는 들을이에게 약속을 하면서 월을 끝맺는 방법인데, 이것을 「서술법」이라 한다.

3. 다른 하나는, 들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월을 끝맺는 방법인데, 이것은 다시 대답을 요구하는가, 행동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두가지로 나뉜다.

대답을 요구하는 방법을 「물음법」이라 한다.

4. 행동을 요구하는 방법은 또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맞은편의 행동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맞은편에게 말할이 자신과 같이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앞의 방법을 「시킴법」, 뒤의 방법을 「피임법」이라 한다.

|              |                  |                              |         |
|--------------|------------------|------------------------------|---------|
| 마침법<br>(의향법) | { 들을이에게<br>요구 있음 | 들을이에게 요구 없음(서술, 느낌, 약속)----- | (1) 서술법 |
|              |                  | { 대답을 요구-----                | (2) 물음법 |
|              |                  | { 행동을 요구 { 들을이만의 행동을-----    | (3) 시킴법 |
|              |                  | { 함께 함을-----                 | (4) 피임법 |

#### (1-1) 서술법

5.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자기의 말을 해버리는 데 그치거나, 약속을 하거나, 또는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적 방법을 서술법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서술법의 씨끝으로 표시된다.

「-다/라」

6. 단순한 서술을 하는 것이 그 기본적 용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일도 있다.

너도 또 이 곧 하다 =汝亦如是하다 (능엄 2:23)

닐굽 히 너무 오라다 (월석 7:2)

7. 이 활용형은 인용마디(한 말, 들은 말, 생각한 일 따위를 인용하는 말마디)를 끝맺는 데 많이 쓰인다.

내 부려와 하야 母子 ㄷ원 後로 즐거부미 오늘 곧 하니 엿다 하시고 (석보 11:2)

ㅅ스미 自在를 得다 하니 (법화 1:26)

미혹다 니르니 (금강삼가 4:28)

沙彌는 ...慈悲入 형더글 하다 하는 뜨디니 (석보 6:2)



느를 의다 하야 (석보 9:14)

사라쇼물 니조돈 圓覺에 니르산 든득 내 몸 닛다 하샤미 곤하니 =  
忘生은 如圓覺所謂忽忘我身이니 (능엄 2:113)

法이 떠디여 갈찌 그우리다 하느니 (석보 6:18)

이 뼈 아들들히 아비 죽다 듣고 (월석 17:21)

術法이 놓다 혼들 (천강곡 상, 기 99)

옷 디호물 조브다 엇메 말리오 =寧辭擣衣倦 (두언 25:17)

▽끝의 예는 인용마디로 보기 어려운것 같이 생각될는지 모르나, 누군가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끌어온 말이므로 역시 인용마디다.

8. 「-도-」 따위, 느낌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p.944)에 연결될 때는,  
물론 느낌을 나타내게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가 줄기에 바로  
붙어서 느낌을 나타내는 일도 있다.

크다 萬古옛 法이니라 =大哉萬古程 (두언 22:19)

9. 줄기와 「-다」 사이에는 「-으시-」, 「-느-」, 「-도-」, 「-거(어)-」,  
「-닷(랏)-」, 「-으이-」 따위 안맺음씨끝과 그 연결체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씨끝에 앞설 수 있는 안맺음씨끝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대감만  
보인다.)

「-으시다」: 舍利弗을 須達이 조차 가라 하시다 (←하+시+다; 석보  
6:22)

菩提를 得하시다 드르시고 (석보 13:30)

「-느다」: 法華經을 듣고져 하느다 (월석 18:75)

不能은 못하느다 하논 쓰디라 (석보, 서:1-2)

「-도다」: 잘 오도다 羅卜아 (월석 23:76)

이스리 닻르디 아니하엿도다 =露未乾 (두언 6:5)

「-거다」: 安樂國이는 아비를 보라 가니 어미 묻 보아 시름 길거다  
(월석 8:87, 기 245)

설불씨 世界 뵈어다 (석보 23:18)

「-닷다」: 허브리 實로 내게 잇닷다 =咎實在我 | 랏다 (법화 2:6)

「-으이다」: 소리 업스이다 =無聲히이다 (능엄 4:126)

10. 「-으이-」에는 다시 안맺음씨끝 「-으리-」, 「-으시-」, 「-오/우-」,  
「-느-」, 「-습-」 등등, 및 그 연결체가 앞설 수 있다.(그 일부분만 보인  
다.)

「-으리이다」: 서르 닻토아 싸호면 나라히 느티그에 가리이다 (월석  
2:6)

「-으시이다」: 울하시이다 世尊하 (능엄 4:9)

「-우이다」: 우리 어시아드리 ...중생마도 몰호이다 (석보 6:5)

▽「-호-」는 「하-」와 「오-」로 분석된다.

「-느이다」: 혼 중과 혼 쇼쾌 고불 겨지불 드러 왜서 못느이다 (월석  
8:94)

「-스보이다」: 찻물 기를 姦女를 비스바 오라 하실씨 오스보이다 (월  
석 8:91)

▽「-스보-」는 「수병(습)+오」로 분석된다.

「-으시리이다」: 도흔 藥을 못 어들씨 命이 아니 오라시리이다 (월석  
21:215)

「-습느이다」: ㄹ존 道를 듣좁고져 하습느이다 =欲聞具足道하습느이다  
(법화 1:165)

「-노이다」: 衆生 救호리라 밥 비러 먹노이다 (천강곡 상, 기 122)

▽「먹노이다」의 「-노-」는 「-느-」와 「-오-」 두 안맺음씨끝의 축약형이다.

「-으시리라스이다」: 부테 날 爲하야 大乘法을 니르시리라스이다 (법  
화 2:231)

▽이것은 다섯 안맺음씨끝의 연결이다.

11. 이 씨끝은 다음과 같은 형태소 밑에서는 「-라」로 변동한다. 따라  
서 「-다」와 「-라」 두 형태는 형태적 변이형태이다.

7. 잠음씨 줄기에 바로 붙을 때:

幻은 꼭되라 (능엄 2:7)

光目女는 地藏菩薩이 그라 (월석 21:59)



스춤 아노미 아니라 (월석 1:36)

내 智分 아니라 (법화 2:239)

일후미 涅槃이라 하더니 (능엄 2:3)

나디라 혼 거슨 =穀者 (두언 7:34)

ㄴ. 일인칭의 안맺음씨끝 「-오/우-」 밑에서:

호오사 내 尊호라 (←호+오+라; 월석 2:34)

내 난 後로 嗔心호적 업소라 (←없+오+라; 월석 21:216)

내 노포라 (←늬+오+라) 하릴 맛나든 (월석 21:67)

제 울호라 (←움+오+라) 하고 누물 외다 하야 (석보 9:14)

ㄷ. 미정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으리-」 밑에서:

몸과 只숨패 便安하리라 (몽산 7)

菩提入 果를 어드리라 (능엄 2:78)

목수미 몸헐 劫이리라 (월석 21:59)

내 반두기 너 爲하야 ...닐오리라 (←니+오+리+라; 법화 1:171)

이 法은 오직 諸佛이사 아로시리라 (석보 13:48)

내 ...舍利를 供養하느보리라 (월석 18:40)

ㄹ. 기정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으니-」, 「-과/와-」 밑에서:

물읷 想이 이 존하니라 (능엄 2:116)

辟支佛이 아니니라 (석보 13:61)

이 寶塔아 ...소사넛느니라 (월석 21:221)

七寶塔 세여 供養하더시니라 (월석 21:220)

사르미 뜨들 문득 보과라 (두언 25:33)

生死受苦애 세해내와라 (월석 7:19)

ㄺ. 과거회상의 안맺음씨끝 「-더/터-」, 「-다/라-」 밑에서:

佛土 | 존더라 (석보 13:32)

나랏 일후문 大成이리라 (석보 19:27)

바를 받줍더라 (월석 2:37)

그 數 | 묻내 헤리러라 (월석 8:90)

네도 이리하다라 (월석 7:14)

瑤琴과 짝하야 뒷다라 (두언 15:3)

다른 뻗 渭北엿 아히라라 =他時渭北童(두언 11:9)

ㄴ. 느낌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소-」 밑에서:

便安히 사디 몰호소라 (두언 8:43)

우리도 이 偈를 좇즈바 외오노소라 (월석 8:100)

월히 長安에서 醉하다소라 (두언 16:18)

ㄷ. 느낌, 강세를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애/에-」, 「-게-」 밑에서:

센 머리에 비치 업세라 =白首缺輝光 (두언 8:70)

目連이 닐오디 몰라 보애라 (월석 23:86)

먼 ㅁ새 窮호 시르미 월하애라 =絕塞豁窮愁 (두언 23:16)

▽두언 중간에는 「-아라/어라」로 나타난다.

덜기 이끈니 ㅁㅁ미 월하야라 =朗詠劃昭蘇 (두언 중간 2:9)

너는 길히 나날 거즈러라 =行路日荒蕪 (두언 중간 2:92)

드뭇흔 다숫 株ㅁ 양지 가스매 칙칙기 어즈러이 담겨세라 =虛徐五株態 側塞煩宵襟 (두언 15:3)

▽「담겨세라」는 「담겨+이시+에+라」로 분석된다.

봄 興에 아디 묻게라 물읷 몇마릿 그를 지스니오 =春興不知凡幾首 (두언 22:16)

12. 이 씨끝에는 토씨 「-마론」, 「-도」가 따를 수 있다.  
[각 토씨에 가보라.]

그디내 ㅁ비사 오도다마론 舍利사 묻 어드리라 (석보 23:53)

五蘊을 五陰이라도 하느니 (월석 1:35)

이 부테 나삼저기 ㅁㅁ새 光이 燈ㅁㅁ실씨 燃燈佛이시다도 하느니 (월석 1:8)

13. 사잇소리를 가지면 한 월 전체가 매김달(마디)로 바뀐다.

廣熾는 너비 光明이 비취닷 뜨디오 (월석 2:9)



卽은 가져서 흐닷 마리라 (남명, 서:1)

衆生濟度 호노랏 므스미 이시면 (금강삼가 2:13)

14. 다음 용례에 나타나는 「-라」는 이음법 씨끝이다. (→p.559)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볼씨 (월석 1:13)

徧淨은 다 조홀씨니 몸뿐 아니라 世界 다 조홀씨라 (월석 1:33)

### 「-은더」

15. 「-다/라」는 문맥에 따라 (또는 안맺음씨끝에 의해서) 느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씨끝은 느낌을 나타내는 데에만 쓰인다.

義는 그 큰더 = 夫義는 其大矣哉 느더 (내훈 3:54)

이제 이 經은 頓入 類 느더 = 今此經者는 頓之類歟 느더 (원각, 서:50)

말씀과 가줄보므로 밋디 몸홀 꺼시 그 眞實入 智 느더 (금강 87)

16. 「-으시-」, 「-느-」, 「-오/우-」, 「-습-」, 「-아/어-」, 「-으리-」, 「-과-」 따위 안맺음씨끝, 밋 그 연결체가 앞설 수 있다.

「-으신더」: 武王周公은 그 스마춘 孝道 신더 = 武王周公은 其達孝乎 신더 (내훈 1:41)

般若 기쁜 브디 이를 니르신더 = 般若玄旨 欺之謂歟 신더 (반야심경 8)

「-는더」: 六祖入 큰 오온 브들 보디 몰호는더 = 不見六祖의 大舍之旨 느더 (육조, 서:7)

「-논더」: 슬프다 넷 사르디 마를 아디 몰호논더 = 悲哉不悟昔人言 호논더 (남명, 하:30)

「-스받더」: 獄卒이 ...닐오더 도홀씨 오놉날 果報 여 釋迦牟尼佛入 弟子入 느출 보스받더 호고 무로더 (월석 23:82)

「-으린더」: 말스물 安定히 호면 百姓을 便安케 호린더 = 安定辭호면 安民哉 느더 (내훈 1:7)

「-관더」: 아가 아가 긴 劫에 몰볼까 호다니 오놉날 地獄門 알피서 아기와 서르 보관더 (월석 23:87)

### 「-을씨(서)」

17. 느낌을 아울러 나타낸다.

도홀씨 오놉날 果報 여 (월석 23:82)

輪廻도 이러홀씨 受苦도 이러홀씨 (월석 8:4)

涅槃에 드로려 호시니 이리도록 설볼씨 (월석 21:201)

畚中에 즐거볼씨 소리호거늘 (월석 7:5)

王이 호샤디 내 아드리 어딜씨 호시니 (월석 2:7)

클서 萬法이 브터 비르수미여 = 大矣哉라 萬法資始也여 (원각, 서:31)

荒淫홀씨 隋入 님그미여 = 荒哉隋家帝 (두언 6:2)

18. 안맺음씨끝 「-으시-」, 「-습-」을 앞세울 수 있다.

「-으실씨」: 도호실씨 엇테 ...부테 世에 나샤물 期約호리오 (육조, 상:83)

莊嚴이 더러호실씨 快樂이 더러호실씨 (월석 8:4)

「-스받실씨」: 도호실씨 摩耶 나쓰받실씨 如來를 (월석 21:222)

19. 잡음씨에 연결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 「-마」

20. 약속을 나타내며, 안맺음씨끝 「-오/우-」를 앞세운다. (불구적 맺음씨끝)

그리호마 혼 이리 分明히 아니호면 = 已諾이 不分이면 (내훈 3:21)

논화 : 주마 호미 일 期約이 잇느니라 = 分張素有望 (두언 7:39)

「주-」 밑에서는 「-오/우-」 형태소가 드러나지 않으나, 그 대신 줄기의 「주-」가 상성으로 바뀐다. 즉 「:주-」는 그 성조로써 다음에 「-오/우-」의 무형(제로)의 변이형태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변이형태의 이웃돕기」라 불러 둔다. (17)

### 「-으리」

21. 미정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인데, 맺음씨끝이 줄어들면

(17) 허 응: <개고신판> 국어음운학 p.390



이것으로써 일을 끝맺는 일이 있다.

오늬나래 내내 웅보리 (용 16장)

하나를 바드면 네 마음이 고르디 몰하리 (천강곡 상, 기 89)

耆婆鳥의 도흔 일 술보리 (천강곡 상, 기 133)

聖子 | 나샤 正覺 일우시리 (월석 2: 17-8, 기 15)

어마넉고 드러가 이 돈을 供養<sub>하</sub>스보리 (월석 23: 65, 기 504)

22. 이것은 「-이다」의 생략으로 볼 수 있는데, 노래의 문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위의 인용례는 모두 노래이다.)

### 「-으니」

23. 기정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인데, 맺음씨끝이 줄어지면 이것으로써 일을 끝맺는 일이 있다.

五百 前世 怨離 | …精舍를 더나아 가니 (월석 1: 2, 기 3)

大千世界 마장 불마니 (월석 2: 35, 기 21)

普光佛이 또 授記<sub>하</sub>시니 (월석 1: 4, 기 7)

右脇誕生이 四月 八日이시니 (월석 2: 34, 기 19)

大耳相을 詔使 | 일론조부니 (용 29장)

七寶 바리에 供養을 담으샤미 四天王의 請이스부니 (천강곡 상, 기 87)

둘희 히미 달오미 업더니 (천강곡 상, 기 39)

꽃 도쿄 여름 하느니 (용 2장)

(如來) 娑婆世界에 妙法을 펴시느니 (월석 14: 6, 기 293)

世尊入 몸이 이 녀시러시니 (천강곡 상, 기 136)

24. 이것도 앞의 「-으리」의 경우와 같이, 모두 노래이며, 「-이다」의 생략으로 보는 것이 좋다.

### 「-되」

25. 「-노-」는 현실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느-」와 일인칭의 안맺음씨끝 「-오-」와의 축약이다.

祥瑞도 하시며 光明도 하시나 𑖀업스실씨 오늘 몰습되 (월석 2: 45, 기 26)

天龍도 해 모드며 人鬼도 하나 數업슬씨 오늘 몰습되 (같은)

26. 이것도 앞의 「-으리」, 「-으니」의 경우와 같이, 「-이다」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이-」의 /i/ 때문에, 그 앞 음절의 /노/가 /되/로 바뀌었을 뿐이다.

-노이다→ -되이다→ -되

### (1-2) 물음법(의문법)

27.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대답을 요구하거나, 자기 마음속에 의문을 품어 보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적 방법을 「물음법」이라 한다.

말할이가 자기 머리 속에서 의문을 품어 보는 말도 물음법인데, 이것은 말할이가 자신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28. 물음법의 씨끝은 「-다」; 「-가」, 「-고」인데, 이 세 씨끝은 반드시 씨끝 「-은」, 「-을」을 앞세우며, 이들 중 「-가」, 「-고」 두 씨끝은, 잡음씨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으니-」, 「-으리-」도 앞세운다. 그러므로 물음법은 때때감을 동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은, -을, -으리-, -으니-」는 모두 때때감을 나타낸다.)

29. 「-은」, 「-을」을 앞세운 세 씨끝은 임자말의 인칭에 따라 선택되는데, 임자말이 2-인칭일 때는 「-다」가 쓰이고, 임자말이 1·3-인칭일 때는 「-가」, 「-고」가 쓰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으니-」, 「-으리-」를 앞세운 활용형에는 없는, 이 활용형만이 가진 특색이기 때문에, 이 물음법을 「인칭물음법」이라 하기로 한다.

30. 인칭물음법의 「-가」와 「-고」도 그 쓰임이 다르다.

물음에는 물음말(의문사; 어느, 누구, 무엇 …)을 포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물음말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고」가 쓰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가 쓰이게 된다. 앞의 방법을 「고-물음법」, 뒤의 방법을 「가-물음법」이라 부르기로 한다. 인칭물음법에는 상대높임(들을이를 높이는 일)이 표시되는 일이 없다.

31. 「-으니-」, 「-으리-」를 앞세운 「-가」와 「-고」, 그리고 잡음씨의 특별한 예에 있어서는 임자말의 인칭에 의한 구별이 없는 것이 특색이므로, 이 물음법을 「비인칭물음법」이라 부르기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높임이 동반되기도 하고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음이, 앞의 인칭물음법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가」와 「-고」의 다름은 앞의 경우와 한가지다.

### 32. 물음법 씨끝 일람표

|        |                 |                                    |
|--------|-----------------|------------------------------------|
| 인칭물음법  | 2-인칭 물음법 (—다)   |                                    |
|        | {은/을}           | {고-물음법 (—고)<br>가-물음법 (—가)} [-상대높임] |
| 비인칭물음법 | {니/리} —         |                                    |
|        | {잡음씨 줄기에 바로 붙음} | {고-물음법 (—고)<br>가-물음법 (—가)} [±상대높임] |

### (가) 인칭물음법

33. 인칭물음법은 임자말의 인칭에 따라 두가지 하위 문법범주로 나뉘는데, 하나는 들을이가 임자말로 등장되는 「2-인칭 물음법」이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임자말로 등장되는 「1·3-인칭 물음법」이다.

34. 「-다」, 「-으니」 활용형에 있어서는 안맺음씨끝 「-오/우-」로써 말할이가 임자말로 등장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문법적으로 표시하게 되는데(p.730 이하 참조), 인칭물음법에 있어서는 들을이가 임자말로 등장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씨끝이 달리 쓰이게 되어 있으니, 매우 흥미 있는 현상이다.

### (가-1) 2-인칭 물음법

35. 말할이가 들을이를 높이지 않으면서, 들을이를 월의 임자말로 등

장시켜, 들을이에게 묻는 문법적 방법인데, 씨끝 「-(은)다」, 「-(을)다」로 표시되며, 물음말(의문사) 유무에 좌우되지 않는다.

네 엇던 헤마로 나를 뵈케 홀다 (월석 21:56)

네 바리톨 어디 가 어든다 월석 7:8)

엇네 업수물 아는다 (능엄 2:4)

위의 예는 물음말이 있는 물음법이고,

너희 이 供養 밍마라 國王을 請하수보려 하는다 王子를 請하수보려

하는다 大臣을 請홀다 婆羅門居士를 請홀다 아수물 모뎡다 (월석 21:195)

究羅帝여 네 命終하다 (월석 9:36 상)

위의 예는 물음말이 없는 물음법인데, 두 경우에 「-(은)다」, 「-(을)다」가 구별 없이 쓰이고 있다.

「- {은/을} 다」

36. 물음의 씨끝 「-다」는 매김팔 씨끝 「-은, -을」을 반드시 앞세우는데, 「-은, -을」은 때를 나타내어 줄 뿐, 매김말의 구실을 부여해 주지는 않는다.

### 「-은다」

大王아 네 나히 며친씨 恒河入 므를 본다 =汝年이 幾時에 見恒河水하단 (능엄 2:8)

究羅帝여 네 命終하다 (월석 9:36 상)

네 어디 이서 趙州 본다 =徐在甚處하야서 見趙州하다 (몽산 53)

네 엇네 안다 (월석 23:74)

37. 다음 말들은 임자말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두 들을이가 임자말로 숨어 있다.

이 男子아 (네) 엇던 이를 爲하야 이 길헤 든다 (월석 21:118)

(네) 엇던 行業을 지서 惡道애 떠러딘다 (월석 21:56)

아라녀리 그촌 이런 이본 길헤 (네) 늘 보리라 하야 우러곰 온다 (월석 8:101)



받 님자히 무로디 (네) 늘 爲하야 가져간다 (월석 2:13)

38. 잡음씨에 연결된 「-은다」도 한가지다.

그디 엇던 사르딘다 (월석 10:29)

너희 스스이 뉘며 (네) 뉘 弟子ㄴ다 =汝等師 | 爲是誰 | 며 誰之弟子  
ㄴ다 (법화 7:134-5)

39. 고려가요의 다음 예들도 모두 같은 용법이다.

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비 내여 노흔다 샤공아 (서경별곡)

네 가시 림난디 몰라서 ...널 비에 연즌다 샤공아 (서경별곡)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청산별곡)

여홀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온다 (만전춘)

모두 임자말 「네」가 숨어 있다.

40. 안맺음씨끝 「-더-」, 「-아/어-」, 「-스-」, 「-느-」를 앞세울 수 있다.

「-던다」: 네 겨집 그려 가던다 (월석 7:10)

네 모루던다 (월석 21:195)

네 이만 큰 시절에 能히 이 이를 하던다 몰하던다 =汝 | 如是大時에  
能爲此事아 否아 (내훈 3:32)

네 이 숲을 뒷던다 아니 뒷던다 (월석 9:35 하)

「-언다」: 모디 杜撰을 마롭디니 아란다=切忌杜撰이니 會麼아 (몽산 20)

묻노니 그디는 이에 記知하얀다 몰하얀다 =問君於斯記取否 (금강삼가  
4:54)

닐웻 스시에 네 快樂을 전쑤 하얀다 (석보 24:28)

惟正上座는 能히 아란다 몰란다=惟正上座는 能悟徹也아 未아 (몽산 21)

「惟正上座」는 들을이이다.

「-슨다」: 므스기 圓通이며 므슴 方便을 브터 三摩地에 드슨다 =誰  
爲圓通이며 從何方便하야 入三摩地하슨다 (능엄 5:31)

「-느슨다」: 爲頭 도즈기 무로디 너희들히 므스글 보느슨다 (월석  
10:28)

「-는다」: 므스글 얻는다 (월석 1:36)

네 信하는다 아니 信하는다 (석보 9:26)

네 브덴 엇테 너기는다 (석보 19:35)

堂 앞뎡 東으로 가는 끊겨를 보디 아니하는다 =不見堂前東逝波 (두  
언 25:18)

너희 그리 뒷고래 이서 ...得道를 못 하엿는다 (석보 24:26)

如來 니르시논 아홉 橫死를 못 들즈뵈는다 (석보 9:35)

41. 「-는다」로 표기된 예가 보인다.

네 엇던 아히완디 허튀를 안아 우는다 (월석 8:85, 기 241)

「-을다」

42. 줄기에 바로 붙은 예 :

네 내 마를 다 드를따 하야늘 (석보 6:8)

이 男子아... 엇던 다룬 術을 뒷관디 한 毒을 이끓다 (월석 21:118)

어느제 太夫人入 堂 우희 아슴들홀 뵈홀다 =何時太夫人 堂上會親戚  
(두언 8:20)

스랑하노니 그디는 어느저기 도라올다 =念子何當歸 (두언 22:30)

네 엇던 해마로 나를 뵈케 홀다 (월석 21:56)

네 엇테 보물 느리혀 헛마새 마즈기 홀다 =汝 | 豈挽見하야 齊於日面  
홀다 (능엄 2:43)

浣花엿 늘근 한아비를 와 불다 말다 =肯訪浣花老翁無 (두언 8:23)

大德아 如來 니르시논 아홉 橫死를 매 못 들즈바싹다 (월석 9:56)

43. 안맺음씨끝 「-습-」을 앞세운 예 :

城 안헛 사르미 다 와도 못 드스불리어니 너희 어느 드스불따 (석  
보 23:23)



(가-2) 1·3-인칭 물음법

45. 「-(은)다」, 「-(을)다」 활용형이 2-인칭 물음법에만 쓰이는 데 대해서, 「-고」와 「가」는 임자말이 1·3-인칭인 경우에 쓰이게 된다.

46. 그런데 이 물음법에는, 2-인칭 물음법에는 없던 새로운 하위범주가 있으니, 물음말을 포함한 일에서는 「-고」가 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가 쓰이게 된다. (토씨와 비교할 것. → p. 367 이하)

(i) 고-물음법

47. 말할이가 들을이를 높이지 않는 1·3-인칭 물음월에 물음말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그 물음씨끝은 「-고」가 쓰이게 되므로, 이러한 물음법을 「고-물음법」이라 한다.

「- {은} 고」

48. 매김꼴의 씨끝 「-은, -을」의 개입은 필연적인데, 이 때에 매김꼴의 씨끝은 다만 때매김을 나타낼뿐, 매김말의 기능을 부여해 주는 문법적 의미는 상실한다.

「-은고」

49. 설본 畵 中에 離別이 甚히니 어시아들 離別이 엇던고 (천강곡 상, 기 144)

이 이룬 엇던 因緣으로 이런 相이 現호고 (법화 3:112)

故園은 이제 엇더호고 = 故園今若何 (두언 25:24)

어드메 이 서울호고 = 何處是京華 (두언 15:50)

넌 圓通 아닌고 = 誰不圓通인고 (능엄 4:100)

50. 안맺음씨끝 「-으시-」, 「-더-」 「-느-」 및 그 연결체를 앞세운다.

「-으신고」: 부더 滅度하샤미 엇데 섣룩신고 하더니 = 佛滅이 一何速이 신고 하더니 (법화 1:122)

이런 일이 慈悲 어너신고 (천강곡 상, 기 144)

「-던고」: 어느 사룩미 少微星이 있다 니르던고 = 何人道有少微星 (두언 22:7)

「-더신고」: 데 엇던 功德을 뒷더신고 (석보 24:37)

「-논고」: 내... 엇데 자보달 보논고 = 何爲見捉고 (법화 2:200)

雲臺엔 넌 다시 議論호논고 = 雲臺誰再論 (두언 24:2)

엇것논 簡冊은 누를 爲하야 프르렛논고 = 編簡爲誰靑 (두언 24:62)

王孫은 어느 ㅁ식 갓논고 = 王孫若箇邊 (두언 24:47)

「-으시논고」: 이 엇던 神靈入 德이시판더 내 시르물 누기시논고 (월석 21:21)

부테 엇던 전초로 이리 니르시논고 (법화 1:163)

「-을고」

51. 어느 法으로 어느 法을 得호고 (월석 13:54)

넌 能히... 妙法華經을 너비 니틀꼬 (법화 4:134)

어느 저기 알월 글워리 이실고 = 何時有報章 (두언 22:15)

荊蠻애 가몬 어느 힐고 = 荊蠻去幾年 (두언 7:4)

52. 안맺음씨끝 「-으시-」를 앞세우는 일이 있다.

어느 저기 꽃부리틀 와 보실고 = 何當看花藥 (두언 22:9)

(ii) 가-물음법

53. 말할이가 들을이를 높이지 않는 1·3-인칭 물음월에 물음말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물음씨끝으로 「가」가 쓰이게 되므로, 이러한 물음법을 「가-물음법」이라 한다.

「- {은} 가」

54. 매김꼴 씨끝 「-은, -을」의 개입은 필연적이거나, 이 때에 매김꼴의 씨끝은 다만 때매김을 나타낼뿐, 매김말의 기능을 부여해 주는 문법적 의미는 상실한다. (「-고」의 경우와 같음)

「-은가」

55. 西京은 편안호가 몰호가 = 西京安穩未 (두언 18:5)



이 었던 光明고 諸天人 光明인가 히든 光明인가 (월석 10:7)

▽「엇던」은 뒤의 월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 아니 내 鹿母夫人의 나흔 코진가 (석보 11:32)

56. 안땃음씨끝 「-(더)시-」, 「-(으시)느-」를 앞세운다.

「-으신가」: 부테 世間에 나샤미신가 =爲佛이 出世間이신가 (법화 3:106)

「-더신가」: 遮陽入 세 쥐 네도 잇더신가 (용 88장)

「-는가」: 便安히 잇는가 高詹事 | 여 =安穩高詹事 (두언 21:12)

「-으시는가」: 부테 道場에 안즈샤 得하산 妙法을 닐오려 하시는가  
授記를 호려 하시는가 (석보 13:25)

57. 이상은 들을이에게 바로 묻는 말이지만, 다음과 같은 말은 들을이  
에게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의문을 품어 보는 것을 표현  
한 것이다.

「-은가」: 因緣과 自然이 존는가 疑心홀씨 =疑同因緣自然홀씨 (능엄  
2:96)

너희 이 브를 보고 더본가 너기전마른 (월석 10:14)

바비 貧乏하가 전노라 =食恐貧 (두언 22:28)

엇테 네 眞性이 네게 性 드외는 거슬 眞實 아닌가 하야 네 疑心하  
고 나를 가져서 眞實을 求하는다 =云何自疑汝之眞性이 性汝하는거슬  
不眞이라하고 取我하야 求實하는다 (능엄 2:38)

▽여기에서는 「아닌가」가 「엇테」와 한 월 안에 있어 보이나, “眞實 아닌  
가”가 의문을 품은 한 월이 되고, 「엇테」는 「疑心하고」와 「求하는다」에  
걸리는 어찌말이므로 「아닌가」에서는 가-물음법을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緊那羅는 …사름 마토더 썩리 이실씨 사르민가 사름 아닌가 하야  
疑心드뵈니 (월석 1:15)

「-운가」: 부터 니르시는 解脫을 우리도 得하야 涅槃에 다드론가 하  
다소니 (석보 13:43)

「-으신가」: 들흔 他方佛이 오신가 疑心이오 (원각, 상 1-2:23)

太子 | 아바넛 勅書 | 신가 너겨 (석보 24:51)

「-는가」: 보미 體 펴며 윽는가 疑心하니 =疑見體舒縮하니 (능엄 2:40)

오직 疑心호디 淳朴하 썩히 스스로 혼 山川이 잇는가 하노라 =只  
疑淳朴處 自有一山川 (두언 15:9)

「-으시는가」: 하나흔 부테 다시 니러 說法하시는가 疑心이오 (원각,  
상 1-2:23)

「-는가」: 感激하야 거리치디 몰는가 스랑하더라 =感激懷未濟 (두언  
24:28)

世尊入 일 솔보리니 萬里外入 일이시나 눈에 보는가 너기스불쇼셔  
(월석 1:1, 기 2)

#### 58. 예외:

누비웃 너브샤 붓그료미 엇테 업스신가 (천강곡 상, 기 120)

비론 바블 엇테 좌시는가 (천강곡 상, 기 122)

므슴 물로 떠 시스시는가 (천강곡 상, 기 124)

이 세 월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규칙에 맞지 않는 점이 두가지가 있어 보인다.

첫째, 물음말이 있는데도 「-가」가 쓰였다는 점.

둘째, 이 말은 정반왕(淨飯王)이 그 아들인 세존(世尊)에게 한 말처럼 보이  
는데, 그렇다면 2-인칭 물음법인데도 「-(은, 을)다」를 쓰지 않았다는 점.

첫째 점에 대한 해명의 방법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점으로 이 글  
은 예외로 처리해 두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둘째 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가능하다.

이 말들의 말할이를 정반왕, 들을이를 세존(태자), 임자말을 역시 세존(들을  
이)으로 잡고 보면, 다음과 같은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즉 「-으시-」는 임자말  
로 표시된 「세존」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데, 이 말은 들을이를 높이고  
있지 않으니, 들을이인 세존은 높이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의 들을이를 세존으로 잡아서는 안된다. 천강곡의 이 말들은  
모두, 세존의 사자 우타야(優陀耶)가 정반왕에게 세존의 소식을 전하고, 정반  
왕이 이에 대해 묻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말들의 임  
자말은 세존이지만 들을이는 우타야이므로 2-인칭월이 되지 못한다.



「-을가」

59. 거문 蓋 가지닌 能히 미헛 梅花 것구물 니즐가 = 豈蓋能忘折野梅 (두언 22:8)

두 사르문 시러곰 님곶 겨티 둘가 몰홀가 = 二人得置君側否 (두언 25:10)

天縱之才를 그러사 아스불까 (용 43장)

王이 날오디 어더 보스발까 (석보 24:43)

60. 마음 속에 품은 의심을 표현하는 말:

비들 만히 니르면 몰 살가 하야 (석보 6:24)

목수미 몰 이실까 너겨 (월석 21:217)

이 도훈 藥을 이제 예 뒀노니 너희 먹고 몰 도훈가 시름 말라 (월석 17:20)

幽深한 길헤 해 길 널가 전노라 = 幽徑恐多蹊 (두언 25:16)

佛道 | 길오 머러 ...受苦<sup>후</sup>홀까 分別호물 가즐비니라 (월석 13:15)

나가실가 저하샤 (천강곡 상, 기 46)

獄主 | 더 설본 싸해 울기실가 하야 맛죵디 몰하다이다 (월석 23:85)

61. 예외:

췌고 애받븐 쓰디여 누를 가즐밧가 (천강곡 상, 기 143)

어느 劫에 功德이 저ळ가 (천강곡 상, 기 169)

천강곡에 이런 예외가 나타나는 것은 (p.503도 아울러 참조) 시가 문체의 한 특이한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다음 예는 예외가 아니다.

엇데 脩行이 이시리오 홀가 저하샤 = 何有脩行이리오 홀가 하샤 (원각, 상 2-1:10)

「엇데」는 「이시리오」에 걸려서 이것만이 고-물음법으로 되어 있다.

62. 그리고 사잇소리를 가지면 이 말은 매김말로 쓰일 수 있다.

디나진 無量劫에 修行이 니그실씨 몰 일우울갓 疑心이 업스시나 (천강곡 상, 기 53)

#### (나) 비인칭물음법

63. 「-은」, 「-을」을 앞세우지 않는 「-가」, 「-고」는 임자말의 인칭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 물음법은 「비인칭물음법」이라 한다. 비인칭물음법은, 인칭물음법과는 달리, 들을이에 대한 높임(상대높임)이 표시될 수 있다.

64.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안맺음씨끝 「-으니-」나 「-으리-」가 앞서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잡음씨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나-1) 「니, 리」 개입

「- { 으니 } + { 고 }」

65. 「-으니-」나 「-으리-」를 앞세우는 물음법은 고-물음법과 가-물음법의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 경우에는 들을이에 대한 높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으이-」의 개입으로 들을이를 높일 수도 있다.

#### (i) 고-물음법

〈들음이 안높임〉

66. 「-으니-」와 「-으리-」 다음에서 「-고」는 「-오」로 변동한다.

「- { 으니 } + 「오」 → 「- { 으노 (으류) }」

「-으니오」: 아디 묻게라 물읏 몇마릿 그를 지스니오 = 不知凡幾首 (두언 22:16)

되히 흰하니 어느제 그츠니오 = 山豁何時斷 (두언 15:31)

몇버늘 漢庭엿 符竹을 느화니오 = 幾分漢庭竹 (두언 24:29)

다시 묻노라 네 어드러 가느니오 = 重問子何之 (두언 8:6)



문노라 도치를 가졌는 한아빈 멧히를 長沙엿 나그네 드외엿느니오  
=借問持斧翁 幾年長沙客 (두언 7:26)

멧더위를 …胡床에 앉가니오 =幾廻…坐胡床 (두언 18:23)

나그네는 어느 ㅁ울로 조차 와 오래 서서 怪異히 너겨 吁嘆호물 오  
래 헝가니오 =客從何鄉來 好立久吁怪 (두언 18:16)

이 말에서 볼 수 있음과 같이, 물음말이 물음법의 풀이말과 한 마디 안에  
있지 않고, 상당히 먼 자리에 있더라도, 한 월 안에만 있으면, 고-물음법  
이 쓰인다.

엇메 搖落호물 相對<sup>하</sup>엿가니오 =如何對搖落 (두언 6:31)

「-으리오」: 尊奉<sup>하</sup>스보물 엇메 누기리오 =崇奉을 曷弛리오 (월석, 서  
:13)

엇메 겨르리 업스리오 =豈無閑暇 | 리오 (월석, 서:17)

되는 엇메 센 비편이리오 =胡羯豈强敵 (두언 7:25)

나그네로 밥 머구른 엇메 지조와 일흠괘리오 =旅食豈才名 (두언 7:12)

바드라운 웃드른 엇메 제 가져시리오 =弱質豈自負 (두언 18:21)

엇메 國土를 쓰시리오 =何須國土 | 시리오 (원각, 상 2-2:160)

불휘 끊미티 잇기여 그쳐디니 엇메 하늬 쁘디시리오 =根斷泉源豈天意  
(두언 6:41)

엇메 구티여 靈山에 世尊의 묻주오리오 =何必靈山問世尊<sup>하</sup>리오 (금강  
삼가 4:59)

엇메 이 恩을 갑스오리오 =如何報此恩 (남명, 상:41)

67. 「-으니오」와 「으리오」는 각각 「-으노」, 「-으료」로 축약된다.

「-으노」: 쁘덴 엇더호노 =於意云何오 (능엄 2:80)

이 智慧 업슨 比丘 | 어드리셔 오노 (석보 19:30)

닌 記를 주노 =其誰 | 與記耶오 (법화 3:56)

엇던 전초로 그러노 (금강삼가 5:18)

엇메 아드리 藥을 머거노 (월석 21:219)

여윈 못 가운데 몸 커 거우닐 龍을 현맛 벌에 비늘을 선라노 (월석  
2:47, 기 28)

엇던 전초로 이에 오나노 =何故至此 | 어노 (법화 2:239)

어드사 도흔 ㅅ리 양즈 ㅁ즈니 잇거노 (석보 6:13)

白楊 오늬나래 멧 사르미 슬허커노 =白楊今日幾人悲 (두언 24:63)

현맛 比丘 | 火光三昧<sup>어</sup>노 (월석 7:25)

엇메어노 헝란디 (월석 2:19)

엇메 이에썬 天子 | 업스시노 (월석 7:11)

如來 乃終에 므슬 마를 헝더시노 (석보 23:31)

四祖 | 便安히 몸 겨샤 현 고들 올마시노 (용 110장)

地獄 罪報 | 그 이리 엇더터노 (월석 21:56)

네 여희요몬 이 어드러노 =昔別是何處 (두언 21:30)

導師 | 엇던 전초로 …네 업던 이를 얼즈보노 (석보 13:16)

그 體 어드 잇느노 =其體 | 何在오 (능엄 2:36)

므스글 因<sup>하</sup>야 아르시느노 =因甚得知之也오 (금강삼가 4:26)

또 니르라 ㅁ즈매 엇더호도소노 =且道<sup>하</sup>라 畢竟에 如何<sup>토</sup>소노 (몽산 52)

菩薩이 어느 나라해 느리시게 헝려노 (월석 2:10)

이 두 말을 어늘 從<sup>하</sup>시려노 (월석 7:26, 기 197)

「-으료」: 므스그로 저를 사모료 =以何로 爲自오 (능엄 2:66)

그에 精舍 | 업거니 어드리 가료 (석보 6:22)

아바넛 病이 기프시니 엇메호료 (석보 11:18)

엇메 오직 甲兵을 기우리헝 썩니료 =豈惟偃甲兵 (두언 25:34)

無上正道 일우시니 아니시면 어드리 이를 헝시료 (월석 14:54)

舍利를 피셔 하늘 우희 가면 ㅅ햇 사르미 어드리 가 供養<sup>하</sup>스보료  
(석보 23:47)

이 道를 便安히 行<sup>하</sup>시면 닌 ㅅ사 恭敬 아니<sup>하</sup>스오료 =安行是道<sup>하</sup>시  
면 孰不愛敬<sup>하</sup>스오료 (법화 5:50)

68. 다음 예는 예의 같아 보인다.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아히 울어든 父母 | ...닐오더 우디 마라 내 너를 金 :주.로 하야  
돈 (남명, 상 : 44-5)  
그러나 이 예는, “금을 줄까? 또는 무엇을 줄까?” 하는 뜻이 내포  
되어 있어서 이러한 고-물음법이 쓰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으류」

69. 「-으로」는 「-으류」로 수의변동되는데,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너 아녀 닐류 =非汝而誰 | 리오 (능엄 2:30)

70. 다음 예는 예외 같아 보인다.

네 무려 닐오더 地水火風이 本性이 圓融하야 法界에 周徧홍딘엔 水  
火性이 서르 侵勞하야 滅티 아니하류 疑心하며 =...疑水火性이 不相  
陵滅오 하며 (능엄 4:39)

그러나 이 예는 「엇메」가 속뜻으로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들음이 높임〉

71. 들음을 높이는 씨끝은 「-으이-」인데, 「-으이-」 밑에서는 「-고」  
는 「-꼬」로 변동한다.

「- { 으니 } +잇고」

「-으니잇고」: 나라 니스리틀 굿게 하시느니 엇더니잇고 (←엇더하니  
잇고; 석보 6:7)

스승뵈 어마니미 이에 잇다 하야 니 니르더니잇고 (월석 23:84)

菩薩入 어마니미 姓이 프스기러니잇고 (월석 21:27-8)

黃梅付囑은 엇메 ㄹㄹ쳐 맛디시더니잇고 =黃梅付囑은 如何指授 | 잇고  
(육조, 상:42)

프스글 道 | 라 하느니잇고 (월석 9:24)

어미... 어느 길헤 넛느니잇고 (월석 23:90)

엇던 因緣으로 ...더 부텃 國界 莊嚴을 다 보습느니잇고 (법화1:  
66-7)

世尊하 地藏菩薩이 여러 劫브터 오매 各各 엇던 願을 發하시관디

이제 世尊入 브즈러니 讚歎하샤물 넛습느니잇고 (월석 21:50)

▽물음말이 앞의 마디에 있더라도 한 월 안에만 있으면 고-물음법으로 끝  
맺게 된다.

世尊하 엇던 전츠로 나를 어리다 하샤 釋子 | 로라 호물 몬하리라  
하시느니잇고 (월석 9:35 하)

菩薩이 엇던 緣으로 예 오시니잇고 (월석 21:24)

摩耶夫人이 ...엇던 因緣으로 如來를 나췌븍시니잇고 (석보 11:24)

「-으리잇고」: 幡과 燈과를 엇메 땡꼴리잇고 (석보 9:32)

엇메 하마 다온 목수미 어누 더으리잇고 (석보 9:35)

어누 나라해 가샤 나시리잇고 (월석 2:11)

부텃 法이 精微하야 저문 아히 어느 들즈보리잇고 (석보 6:11)

#### (ii) 가-물음법

#### 〈들음이 안높임〉

72. 「-으니-」와 「-으리-」 뒤에서 「-가」는 「-아」로 변동한다.

「- { 으니 } +아」→ 「- { 으니아(으니여) }」→ 「- { 으녀 }」

「-으니아」: 슬후미 이어귀 잇디 아니하니아 =哀傷不在玆 (두언 7:14)

넛소갯 불근 여르문 時로 떠러뎡직 하니아 =葉心朱實堪時落 (두언  
6:16)

글지수메 氣象을 눈화주니 도흔 글句는 죃디 아니하니아 =賦詩分氣  
象 佳句莫頻頻 (두언 15:25)

시러곰 아니 玄圃山이 피여더 왔느니아 아니 瀟湘이 드위텃느니아  
=得非玄圃裂 無乃瀟湘飄 (두언 16:29)

「-으리아」: 家門入 소리틀 싸해 디요물 즐기리아 =家聲肯墜地 (두언  
8:57)

세 술위에 글 시루물 肯許하리아 =三車肯載書 (두언 22:14)

土木의 빋나물 구퉁여 췌하리아 =敢謀土木麗 (두언 6:36)

하물며 그디 하마 位 | 노꼭니 ㄹ울하요물 시러곰 구디 마라리아



=況子已高位 爲郡得固辭 (두언 22:23)

竹枝入 놀애 도티 아니호니 그룬 비 두고 머뜨러리아 =竹枝歌未好 畫  
軀且遲回 (두언 21:19)

구티여 넷 수프렛 님자히로라 호야리아 百姓도 오히려 便安티 몰호  
니라 =敢爲故林主 黎庶猶未康 (두언 18:14)

73. 「-으니아」, 「-으리아」는 두 홀소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두 홀  
소리 사이에 반홀소리 /j/를 넣는 일이 있다.

「-으니야」: 이는 百丈入 히물 得호니야 馬祖入 히물 得호니야 =是는  
得百丈力耶아 得馬祖力耶아 (몽산 31)

조스르뵤요미 이 無호字에서 너므니 잇느니야 업스니야 =有要妙  
過此無者아 否아 (몽산 62)

아래 이 無호字도 사기도소니야 =會切着者箇無호字아 否아 (몽산 60)

「-으리야」: 뉘 꼴을 꼴히야사 며늘이 드의야 오리야(천강곡 상, 기 36)

이 예는 「가-물음법」에 대한 예외이다.

74. 위의 「-으니야」, 「-으리야」는 잘 쓰이지 않으며, 그 대신 「-으냐  
여」, 「-으리여」가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으니여」: 境과 智와 호가지가 다르니여 (월석 8:31)

이것은 「다룬+이+여」로 분석할 수도 있다.

네 겨지비 고봉니여 (월석 7:10)

眞實로 그러호니여 (석보 11:32)

부터 미쳐 보스불 사르미 잇느니여 (석보 24:18)

迦葉比丘 | 앓느니여 (석보 23:39)

부테 涅槃호시니여 (석보 23:20)

天龍鬼神을 네 數를 알리로소니여 모르리로소니여 (석보 11:4)

「-으리여」: 四海를 년글 주리여 (용 20장)

호마 주글 내어니 子孫을 議論호리여 (월석 1:7)

더 나라해 惡道入 일홈도 업거니 호물며 眞實入새 이시리여 (월  
석 7:67)

더 사르미 ...琉璃를 보리여 몰호리여 (능엄 1:58)

妙光菩薩은 다른 사르미리여 내 모미 귀오 (석보 13:36)

느출 겨우스불들 막숨잇둔 뉘우시리여 (천강곡 상, 기 62)

75. 이상에 보인 「-아」, 「-야」, 「-여」는 모두 「-가」에서 나온 변이형  
태로 보았다.

「-가」→「-아」→「-야」→「-여」

그러나 끝의 「-여」는 「-야」 보다 오히려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므  
로, 이것만은 다른 계통에 기원을 두고 있거나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마는 이에 대한 확실한 논증이 서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가」와  
한 형태소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해 두기로 한다.

그리고 「-으리아, -으리야, -으리여」 형은 대부분 「뒤집음말」로 쓰여  
고 있음이 주목된다.

76. 「-으니여」, 「-으리여」는 「-으녀」, 「-으려」로 축약되는데, 이렇게  
되면 분석되기 어려운 하나의 씨끝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다.

「-으녀」: 大施主의 功德이 하녀 저그녀 (석보 19:4)

네 ...手를 보라 正호녀 갓마녀 =爲正가 爲倒아 (능엄 2:12)

體에 ㄹ독호녀 體에 ㄹ독디 아니호녀 =徧體아 爲不徧體아(능엄 1:66)

如來 | 네 然燈佛所애 이셔 法에 得흔 고디 잇느녀 아니녀 =如來 |  
昔在然燈佛所호야 於法에 有所得가 不아 (금강 56-7)

이 좁은 또 旃檀木애 나느녀 네 고해 나느녀 虛空애 나느녀 (능엄  
3:24)

아로미 드외느녀 아로미 아니가 =爲知아 非知아 (능엄 3:33)

沙羅樹王이 八姝女 보낼 나래 앓가불 뜨디 업더녀 (월석 8:91)

내 니르던 究羅帝 眞實로 그러터녀 아니터녀 (월석 9:36 중)

가난코 病호물 사르미 모로매 브리는 주를 因호야 아노니 能히 韋  
郎으로 히여 자취를 또 疎히케 호거녀 =因知貧病人須棄 能使韋郎迹也  
疎 (두언 21:25)



네 數를 알리로소녀 (월석 21:14)

「-으려」: 迷惑을 내려 아니하려 (능엄 4:35)

아모 사르미나 이 良醫의 虛妄한 罪를 能히 니르려 못 니르려 (월석 17:22)

앙의 겨지비 欺弄이 업스려 (두언 22:42)

이 사르미 得흔 福德이 하려 못 하려 =是人所得福德이 寧多아 不아 (금강 45)

四生을 거려 濟渡하신 功德을 어루 이기여 기리스브려 (월석, 서:9)

부텃고 信티 아니하스브려 (월석 23:89)

일흔 性을 거리시려 =拯... 失性하시려 (법화, 서:16)

律 도으신 後에 또 律을 도으시려 =扶律之後에 而又扶律아 (능엄 1:19-20)

王이 닐오디 머리를 빌오져 하노니 得하야려 (남명, 상:53)

〈들음이 높임〉

77. 「-고」의 경우처럼, 「-으이-」 밑에서 「-가」는 「-까」로 변동한다.

「- {으니} +잇가」

「-으니잇가」: 부터 得하리 잇느니잇가 업스니잇가 (법화 4:170)

善心이니잇가 아니잇가 =善心이니잇가 不|잇가 (법화 7:20-1)

瞿曇安否| 便安하시니잇가 하더니 (석보 6:20)

世尊하 손지 世間애 겨시더니잇가 (월석 18:36)

世尊이 ...安樂하시느니잇가 아니잇가 (법화 5:91)

어마니물 아라 보리로소니잇가 (월석 23:86)

78. 높임의 등분이 약간 낮아지는 경우에는, 「-으잇가」의 「-으이-」가 줄어드는 일이 있다. 「-니잇가」→「-\*닝까」→「-닛가」

婆羅門이... 그 잘드려 무로디 그릿 아바니미 잇느닛가 (석보 6:14)

그되는 아니 들즈뵈더시닛가 (석보 6:17)

이러한 말씨가 높임말임에 대해서는 높임말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해명될 것이다. (→p. 666)

「-으리잇가」: 사로미 이러커늘사 아들을 여희리잇가(천강곡 상, 기143)

衆生이 ...信을 내리 이시리잇가 못하리잇가 (금강 32)

九變之局이 사름 쓰더리잇가 (용 15장)

常不輕比丘| 넌분이시리잇가 오닐날애 世尊이시니 (월석 17:77, 기 317)

현마 七寶로 꾸며도 도타 호리잇가 (천강곡 상, 기 121)

79. 여기에는 꽤 많은 예외가 나타난다.

七代之王을 닐 마리잇가 (용 15장)

여섯 하느리 어느사 못 도하니잇가 (석보 6:35)

언디 가지느니잇가 (남명, 상:52)

엇메 부테라 하느닛가 (석보 6:16)

主人이 므슬 차바닐 손소 들녀 땡노닛가 (석보 6:16)

(iii) 맺음씨끝 「-고」, 「-가」의 줄임

80. 비인칭물음법은 「-으니-」, 「-으리-」를 포함하여 매매김을 나타냄이 원칙인데, 때로는 그 뒤의 씨끝을 아주 줄여 버리는 일이 있어서, 「-으니-」, 「-으리-」가 맺음씨끝처럼 쓰이는 일이 있다.

「-으니」

81. 기정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인데, 다음과 같은 용법은 그 뒤에 오는 「-잇가, -잇고」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p.494)

하늬 風流| 엇더하시니 (천강곡 상, 기 51)

師子尊者의 ...國王이 ...문즈와 닐오디 師는 蘊이 부요물 得하야 겨시니 對答호디 ... (남명, 상:53)

네 더드려 어미 아니 나하신젠 므스글 닐더시니 하야 엇메 아니 무



튼다 (남명, 상 : 31)

그티내 쓰디 아니 술利를 되셔다가 供養<sub>하</sub>스보려 하시느니 (석보 23 : 46)

부텃기 받즈바 므슴호려 하시느니 (월석 1 : 10)

「-으리」

82. 추정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p.493)

하늬 쓰들 뒤 모르스불리 (용 86장)

王子스 므스물 뒤 달애스불리 (용 85장)

外道 ㄱ들 아니 조짜불리 (천강곡 상, 기 99)

俱夷 묻즈부샤디 므스게 쓰시리 (월석 1 : 10)

주거 가는 거식 일을 묻 보신들 매 모르시리 (천강곡 상, 기 43)

#### (나-2) 잡음씨의 경우

83. 「-고」, 「-가」는 「-은」, 「-을」이나, 또는 「-으니-」, 「-으리-」를 앞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점 잡음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잡음씨의 경우에 「-은, -을, -으니-, -으리-」를 앞세운 예들은 앞에 나와 있다.)

그러나 잡음씨에는 이러한 형태소 없이도 「-고」, 「-가」가 쓰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들음이 높임만이 나타난다. 즉 「-으이-」가 이 활용형에 반드시 개재된다.

#### (i) 고-물음법

84. 「-으이-」를 동반한 「-교(←고)」는 잡음씨 줄기에 바로 붙는 일이 흔히 있다.

내 이젓 몸과 므슴과는 쯔 이 엇던 物이잇고 = 我今身心은 復是何物인 잇고 (능엄 2 : 45)

아홉 橫死는 므스기잇고 (석보 9 : 35)

엇네 일후미 無間地獄이잇고 (월석 21 : 41)

어니 施一切樂施羅尼句 | 잇고 (월석 10 : 72)

이 싸히 어드메잇고 (월석 8 : 94)

이 이리 엇메잇고 (월석 21 : 138)

그 數 | 언매잇고 = 其數 | 幾何 | 잇고 (법화 4 : 166-7)

뉘 혼 거시잇고 (석보 11 : 27)

#### (ii) 가-물음법

85. 「-으이-」를 동반한 「-까(←가)」는 잡음씨 줄기에 바로 붙는 일이 흔히 있다.

모든 緣塵과 므스미 念慮와 和合 아니잇가 = 與諸緣塵과 及心念慮와 非和合耶 | 잇가 (능엄 2 : 101)

이 究竟法이잇가 이 行<sub>하</sub>시던 道 | 잇가 = 爲是究竟法이잇가 爲是所行道 | 잇가 (법화 1 : 164)

和尚 니르샤미 達磨大師스 宗旨 아니잇가 (육조, 상 : 85)

善心이니잇가 아니잇가 (법화 7 : 20-1)

86. 여기에는 꽤 많은 예외가 나타난다.

이 엇던 싸히잇가 (월석 21 : 24)

겨집종의 비디 언매잇가 (월석 8 : 81, 기 229)

엇네 하물며 ...大車를 주미잇가 = 何況... 與大車 | 잇가 (법화 2 : 80)

世尊하 ...何況其沙 | 잇가 (금강 62)

87. 이 씨끝의 「-고, -가」는 토씨의 그것과 기원을 같이할 것임은 물론인데, 하나는 풀이씨에, 하나는 임자씨에 붙음으로 씨끝과 토씨로 구별될 뿐이다.

88. 그러나 「아니-」에 바로 붙은 「-고(오), -가(아)」는 토씨로 볼 것인지 씨끝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우나, 앞에서 이것을 토씨로 보았는데(→p.370), 그것은 씨끝의 「-고, -가」는 풀이씨의 줄기에 바로 붙는 일이 없이, 반드시 씨끝 「-은, -을, -으리-, -으니-」 또는 「-으이-」를 앞세우게 되기 때문이다. 즉 「아니-」에 바로 붙은 「-고, -가」를 씨끝으로 보면, 씨끝 「-고, -가」의 일반적 용



법에 예외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니-」를 입자씨로 보고, 그에 붙는 「-고, -가」는 토씨로 보게 된 것이다.

### (1-3) 시킴법(명령법)

89.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해주기)를 요구(청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적 방법을 시킴법이라 하는데, 시킴법의 맺음씨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으라」

90. 가장 보편적인 시킴법의 씨끝이다.

너희들히 ...부텨 마를 바다 디니라 (석보 13:62)

그디 이 굼깃 개야미 보라 (석보 6:36)

너희 디마니혼 이리 잇느니 썰리 나가라 (월석 2:6)

舍利弗아 알라 (월석 7:77)

늬웃디 말라 (석보 6:19)

91. 안맺음씨끝 「-습-」, 「-아/어-」, 「-스-」, 「-거(나)-」, 「-가-」 따위를 앞세운다.

「-스불라」: 너희 반득기 一心으로 觀世音菩薩入 일후를 일존조오라  
=汝等이 應當一心으로 稱觀世音菩薩入 名號호수오라 (법화 7:57-8)

네 ...無量壽佛을 일존조불라 (월석 8:75)

흔 믈스믈로 더 부터를 보수불라 (월석 8:22)

「-어라」: 네 바리를 어디 가 어든다 도로다가 두어라 (월석 7:8)

文殊아 아라라 (석보 13:26)

네 願다히 호야라 (석보 24:14)

「두어라, 아라라, 호야라」의 「-어-, -아-, -야-」는 '강조'를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이다. (→p.923 이하) 그리고,  
너희들히 ...게으른 뜯 먹디 마아라 (석보 23:13)

의 「마아라」는 「마라라」의 변형인듯 하다.

「-어스라」: 너희들히 아라스라 (월석 10:26)

너희들히 ...늬외야 믈스 게을이 먹디 마라스라 (석보 23:12)

너희들이 힘뻬스라 (석보 23:13)

「아라스라, 마라스라, 힘뻬스라」의 「-아-, -어-」는 앞에 말한 강조의 안맺음씨끝이고, 「-스-」는 느낌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이다. (→p.955)

「-거라」: 어셔 도라 니거라 (월석 8:101)

「-나라」: 내 니마해 불론(론) 좇이 몬 물랫거든 도로 오나라 (월석 7:7)

「-가라」: 岩頭 | 德山을 보아늘 혼번 喝흔대 곧 절하니 이는 恩을 알아라 호니아 恩을 값가라 호니아=是는 知恩耶아 報恩耶아(몽산 31)  
흔 벼스레 띠여쇼몬 眞實로 모물 값가라 호논디라 =一官羈絆實藏身 (두언 21:29)

「니거라, 오나라, 값가라, 알아라, 값가라」의 「-거-, -나-, -가(아)-」도, 앞의 「-아/어-」와 같은 강조법의 안맺음씨끝이다. (→p.932 이하)

「값가라 호논디라」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로 해석하면, 「값가라」는 시킴의 뜻이 될 수 없을것 같이 보이나, 이것은 '한 벼슬에 매여있음은 진실로 몸을 감추라고 하는 것이다'와 같은 뜻이므로 역시 시킴법의 法 이해될 수 있다.

攄와 冕을 드던히 너규메 關係호미 아니라 오직 이 風塵을 避카래 니라 =不關輕紱冕 但是避風塵 (두언 20:26)

이는 「-이라」를 연결한 꼴로서, 작자가 자기자신에게 명령하는 형식으로 이해된다.

「-고라/오라」

92. 「고」와 「라」로 분석될것 같으나, 「고」에 아무런 뜻을 부여할 수 없다. /ㄹ/과 ㅌ이 /ㄹ/ 밑에서는 /ㄱ/이 줄어진다.

「-고라」: (고졸) 부텨미 받즈바 生生애 내 願을 일티 아니케 호고라 (월석 1:13)

佛子 文殊아 모든 疑心을 決호고라 (석보 13:25)



付囑은 말씀 브려 아므레 호고라 請홀씨라 (석보 6:46)

願호든 미햇 드를 부러 金잔애 더으고라 = 願吹野水添金杯(두언 15:39)

보란돈 別駕 | 爲호야 스고라 = 望別駕爲書호라 (육조, 상:25)

「-오라」: 祭 ㅁ차늘 使者 브려 보내오라 호야늘 (월석 7:15)

아가 아가 하 설비호노니 아므레나 救호야 내오라 (월석 23:87)

모로매 願이 이디 말오라 호더니 (석보 11:30)

「-고려」

93. 「-고라」보다 약간 공손한 뜻이 포함된듯 하나, 그 용례가 너무 드물다.

내 아기 위호야 (도호 씨를) 어더 보고려 (석보 6:13)

「-아씨/어씨」

94. 공손한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음의 「-으쇼셔」 보다는 덜하다.

내 보아져 호느다 술바씨 (석보 6:14)

엇테 부테라 호느릿가 그 브들 닐어씨 (석보 6:16-7)

이 씨끝에 포함된 「-아/어-」도 강조법의 안맺음씨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우선 편의상 분석하지 않는다. (→p.482)

「-으쇼셔」

95. 아주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청원함을 나타낸다. (근변격 풀이씨의 「ㄹ」 밑에는 고름소리(조성모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 씨끝의 경우에는 고름소리가 들어간다.)

力士 | 내 몸 호야브리디 아니케 호쇼셔 (월석 7:37)

世尊의 내 브들 퍼아 술보쇼셔 (석보 6:6)

王이 네 아득틀 내티쇼셔 (월석 2:6)

이 브들 닛디 마루쇼셔 (용 110~124장)

纓中에 드르쇼셔 (월석 7:37)

호다가 이기면 거죽 이를 더르쇼셔 (월석 2:72)

96. 「좌시-」, 「겨시-」에 이 씨끝이 붙을 때는, 줄기는 「좌-」, 「겨-」로 변동한다.

飯 좌쇼셔 請커늘 (천강곡 상, 기 100)

느리디 마르시고 오래 겨쇼셔 (월석 2:15)

97. 안맺음씨끝 「-습-」을 앞세운다.

世尊入 일 술보리니 눈에 보논가 너기습보쇼셔 (월석 1:1)

王이 부터를 請호습보쇼셔 (석보 6:38)

내 일흠 조쳐 聖人入기 받즈보쇼셔 (월석 8:80)

(1-4) 피임법

98. 들을이와 서로 함께 하기를 재촉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적 방법이다.

「-저」

99. 현대말의 「-자」와 같은 뜻이다.

나를 楊馬入 스시에 보아 머리 세도록 서르 브리디 마저 호더라  
= 視我楊馬間 白首不相棄(두언 16:18)

물곤 이바디를 마저 니르고저컨마론 = 欲告清宴罷(두언 7:25)

네 發願을 호디 世世에 妻眷이 드외저 호거늘 (석보 6:8)

七年을 물리저 호야 出家를 거스니 (월석 7:1)

우리 이제 안죽 出家 말오 지의 닐굽 히를 이서 五欲을 ㅁ숯ㅁ장 편  
後에사 出家호저 (월석 7:1-2)

또 닐오디 여섯 히를 호저 (월석 7:2)

사르미 늑드려 닐오디 經이 이쇼디 일후미 法華 | 니 호디 가 들저  
호야돈 (석보 19:6)

四禪天이 ... 自中에 닐오디 ... 이 劫 일후므란 賢法이라 호저 (월석 1:40)



사저 죽저 하야 사괴요물 議論호는 싸해 =生死論交地(두언 23:49)

사잇소리를 가지고 월 전체가 매김말이 되는 일도 있다.

아소 님하 호터 너졌 期約이이다(악장가사, 이상곡)

100. 안맺음씨끝을 앞세우는 경우:

내 보아저 호느다 솔바썌 (석보 6:14)

이 예는 함께함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단순히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나, 서로 보는 것은 같이하는 행동이므로 역시 함께 같이하기를 촉구하는 말로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의 들을이는 「보거」는 상대가 아니나, 이 말을 그 상대에게 바로 전하라는 뜻이니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간접적인 들을이가 되어 있다.

「-아-」는 강조를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이다. (→p. 923)

天子 | 우리 道理란 브리시고 먼딛 胡教를 求호시느니 오늘 朝集을 因하야 열좁저 호고 (월석 2:69)

「-저라」

101. 그 용례가 극히 드물다.

世尊이... 니르샤더 父王이 病하야 겨시니 우리 미쳐 가 보스바 ㅁㅁ 스물 흰히 너기시게 호저라 호시고 (월석 10:6)

「-저」와 「-라」가 분석될듯도 하나 「-라」의 의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는다.

102. 위에 보인 바와 같이 피임법은 주로 맺음씨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안맺음씨끝이 사용되기도 한다.

「-사-」

103. 함께 하기를 촉구하는 뜻이 맺음씨끝의 경우보다 더 분명한데, 이것은 반드시 「-이다」와 결합되어서, 들을이를 높이는 데에만 쓰인다.

「-사이다」: 子息의 일홈을 아비 이시며 어미 이샤 一定호사이다 (월석 8:83)

아버시 ㅁㅁ 이신 저귀 일후를 一定호사이다 (월석 8:96)

淨土애 호터 가 나사이다 (월석 8:100)

104. 마침법 다음에는 마디연결 토씨 「-마튼」이 붙어서 다시 말을 이어갈 수 있다. (→pp. 365-6)

[마침법(의향법) 씨끝 일람표]

<1> 씨끝 앞 괄호 안의 형태소는 꼭 앞서야 할 씨끝.

<2> 되도록이면 대표형태(기본형태) 하나만을 보이기로 한다.

(1) 서술법: -다, -은더, -을썌, -(오/우)마, (-으리), (-으니), (-되)

(2) 물음법

(가) 인칭물음법

(가-1) 2-인칭: (-은, -을)다

(가-2) 1·3-인칭: { (i) (-은, -을)고  
                          (ii) (-은, -을)가

(나) 비인칭물음법

(나-1) { (나) } { -고  
          (리) } { -가

(나-2) [잘음썌] + (으이) + { -고  
                                          -가

(3) 시킴법: -으라, -고라/오라, -고려, -아썌/어썌, -으쇼썌

(4) 피임법: -저, -저라, (-사-)

(2) 이음법(접속법)

1. 이음법은 한기능법의 한가지로서, 월을 끝맺지 않고 뒤에 다시 다른 말을 이어가는 활용형의 한가지이다.

2. 이음법은 이음법의 맺음씨끝으로써 표시된다. 마침법은 들을이에 대한 말할이의 의향을 나타내는데, 이음법은 주로 앞뒤 말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 씨끝들은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고, 한 씨끝의 용법은 다의적이어서, 이것을 몇가지의 한정된 범주로 제한하기는 매우 곤란하지마는, 여기에서는 그 중심적 의의에 따라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형을 세워 보기로 하나, 여러 활용법들 사이의 구별은 그리 엄격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용법이 서로 겹쳐지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이음법의 하위 유형은 아직 가설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 |              |           |
|--------------|-----------|
| (1) 제약법(구속법) | (9) 동시법   |
| (2) 불구법      | (10) 설명법  |
| (3) 나열법      | (11) 비례법  |
| (4) 가림법      | (12) 흡사법  |
| (5) 의도법      | (13) 힘줄법  |
| (6) 미침법      | (14) 가치법  |
| (7) 전환법      | (15) 되풀이법 |
| (8) 비교법      | (16) 연결법  |

## (2-1) 제약법(구속법)

3. 원인, 조건, 가정, 반응 등, 원칙적으로 다음에 오는 말의 내용을 제약하는 뜻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제약법」 또는 「구속법」이라 한다.

「-으니」

4. 원인, 이유, 조건, 상황, 설명의 제속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여러가지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舍利弗이 호 獅子 | 를 지시내니 그 쇼를 자바 머그니 모다 날오디 (석보 6:32)

如來를 念호야 一日一夜를 디내니 忽然히 보니 제 모미 호 바를 호 새 다드르니 그 프리 숫글코 (월석 21:23)

婢 호 아득을 나호니 사을 몬 차서 말호며 (월석 21:55)

네 아득리... 허를 업스니 어드리 내티료 (월석 2:6)

狐는 엿이니 그 性이 疑心 하니라 (능엄 2:3)

5. 이 씨끝은, 안맺음씨끝 「-오/우-」, 「-느-」, 「-으시-」, 「-습-」, 「-더-」, 「-다-」, 「-도소-」, 「-거-」, 「-가-」, 「-아/어-」 등, 및 그 연결체를 앞세울 수있다.

「-우니」: 눈즈를 스주니 옷기제 져는 피오 =拭淚霑襟血(두언 8:28)

나는 드로니 겨집도 精進호면 (월석 10:16)

내... 프서리에 아득을 나호니 큰 毒蛇 | 핏대 말고 (월석 10:24)

「스주-」, 「드로-」, 「나호-」는 각각 「스+우, 듣+오, 낭+오」로 분석된다.

「-느니」: 大德하 사르미 다 모다 잇느니 오쇼셔 (석보 6:29)

衆生이 내 쁘들 몰라 生死에 다 便安티 몰게 호느니 엇메어노 호란 디 (월석 21:123)

「-으시느니」: 民瘼을 모르시면 하늘히 브리시느니 이 쁘들 닛디 마르 쇼셔 (용 116장)

오랫나래 世尊이 神奇로 變化入 相을 뵈시느니 엇던 因緣으로 이 런 祥瑞 잇거시노 (석보 13:14-5)

「-습느니」: 赤島 안행 움홀 至今에 보습느니 王業艱難이 이러호시니 (용 5장)

大王이... 百姓을 어엿비 너기실찌 十方엿 사르미 다 아습느니 오랫 나래 엇더(?) 시르를 호시느니잇고 (월석 10:4)

「-노니」: 내 이제 너를 논노니 쁘들 조차 가라 (월석 13:19)

「-노-」는 「-느-」와 「-오-」의 축약형이다.

내 상네 阿彌... 菩提를 教化호노니 이 사름들히... 佛道에 들리라(월석 14:55)

「-더니」: 子息들히... 싸해 그우더니 이 뻘 그 아비 지비 도라오니(월석 17:17)

長者 | 닐굽 아드리러니 여섯 아들란 호마 갓 얼이고 (석보 6:13)

「-러-」는 「-더-」의 변이형태이다.



「-으시니」: 善慧 다스 고졸 비호시니 다 空中에 머므러 (월석 1:13-4)

道理로 몸 사마시니 이 분테시니 이 經 닐굼 사르문 ...숄가락 자브

며 筌 두미 ㄴ장 슬흐니라 (월석, 서: 22)

「-스받시니」: 우리 世尊이... 七萬五千佛을 맛나스받시니 아 첫 阿僧  
祇劫이오 (월석 2: 9)

「-더시니」: 淨飯王이 病이 되더시니... 한 臣下들히 모다 솔보더(월석  
10: 3)

龍鬼 위하야 說法하샤미 부텃 나히 설흔 돌히러시니 穆王 여섯차히  
乙酉 | 라 (석보 6: 1)

「-도소니」: 모딘 중성이 𑖦의업도소니 𑖦스므라 바미 나오나노 (석보  
6: 19)

世界 다 受苦르비아 즐거본 거시 업도소니 父母 | 이제 우리를 出  
家하게 하쇼셔 (석보 11: 37)

6. 강조를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거/어-, -가/(아)-」와 「-아/어-」  
에 연결되면, 그 뒤에는 대부분 뒤집음말이 오게 된다. 뒤집음말은 물  
음의 형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앞  
의 강조의 안맺음씨끝과 합세하여 강조의 뜻을 한층 효과적으로 나타낸  
다.

그리고 「-거, 가-」의 /ㄱ/은; /l/(ㄹ), /j/(ㅈ), 「-으리-」(안맺음씨  
끝)와 잡음씨 다음에서는 줄어진다.

「-거니」: 功德을 國人도 𑖦거니 漢人 𑖦스미 엇더하리잇고 (용 72장)

하마 나며 업수미 𑖦거니 엇데 가며 오미 이시리오 = 既無生滅커니  
焉有去來리오(월석, 서: 2)

더 나라해 惡道人 일홈도 𑖦거니 하물며 眞實人 새 이시리여 (월석  
7: 67)

맛과 對애 𑖦거니 𑖦스글 브터 界 서리오 = 無味與對커니 從何立界하리  
오(능엄 3: 50)

하마 當時옛 法을 𑖦거니 𑖦 이 𑖦들 디녀셔 베프리오 = 已用當時法

誰將此義陳(두언 16: 7)

83 존흠 길해 잇거니 어느 구슬 ㄴ득리오 = 泥塗豈珠玉(두언 8: 62)

하마 이 本來 𑖦거니 엇데 모로매 밋골 向하야 돈너 求하리오 = 既是  
本有 | 어니 何須向外馳求 | 리오(금강삼가 4: 42)

王事를 爲커시니... 不解甲이 현나리신들 알리 (용 112장)

아래 가신 八姝女도 𑖦거시니 𑖦스기 쉼보리잇고 (월석 8: 93)

84 𑖦이 제 알아니 엇데 네 入에 브트리오 = 𑖦이 自知이니 何關汝入하리오  
(능엄 3: 10)

아더 몰하야 念佛求生하면 길히 𑖦어니 엇데 𑖦초물 得하리오  
= 不悟하야 念佛求生하면 路遙커니 如何得達이리오(육조, 상: 94)

85 하다가 虛空이 이 보민댄 하마 보미 𑖦외어니 어니 이 虛空이며 =  
若空이 是見인댄 既已成見이어니 何者 | 是見이며(능엄 2: 48)

이런 菩薩은 일후를 드리도 그지업슨 福을 𑖦드리어니 하물며 𑖦의  
보미썩녀 (월석 8: 37)

머리며 누니며 손바리며 모맷 고기라도 비는 사르물 𑖦리어니 하물  
며 𑖦나몬 천라이썩녀 (석보 9: 13)

86 𑖦름 堯舜에 𑖦르위리어니 엇데 서그리오 = 致君堯舜焉肯朽(두언  
25: 11)

87 多助之至실썩 野人도 一誠이어니 國人 𑖦들 어느 다 𑖦르리(용 118장)  
하마 주글 𑖦어니 子孫을 議論하리여 (월석 1: 7)

88 滿虛空 金剛神이 各各 金剛杵 | 어니 모딘들 아니 저썩르리 (월석  
7: 23, 기 191)

89 노푼 두듭도 오히려 고리 𑖦외는 𑖦지어니 엇데 𑖦 기둥의 기우로  
물 슬흐리오 = 高岸尙爲谷 何傷浮柱欹(두언 6: 43)

90 自然히 物이 아니어니 엇데 𑖦 아니리오 = 自然非物이어니 云何非汝 |  
리오(능엄 2: 37)

91 佛法이 하마 佛法이 아니어니... 엇데 實이 이시리오 = 佛法이 既非佛  
法이어니... 何有實이리오(금강삼가 2: 53)

92 𑖦르리 현버늘 𑖦들 三十年 天子 | 어시니 모딘 썩를 일우리잇가 (용



31장)

滿虛空 世尊이 各各 放光이<sub>어</sub>시니 모딘들 아니 깃스불리 (월석 7: 23  
기 191)

目連이... 나흔 어미 하나 아니<sub>어</sub>시니 엇메 더 靑提畚 救<sub>하</sub>노 (월석  
23: 93)

▽위의 「알<sub>어</sub>니, 멀<sub>어</sub>니, 드<sub>어</sub>니, 어드<sub>리</sub>어니, 주<sub>리</sub>어니, 니르<sub>위</sub>리<sub>어</sub>  
니, 一誠<sub>어</sub>어니, 내<sub>어</sub>니, 金剛杵<sub>어</sub>니, 거<sub>지</sub>어니, 아<sub>니</sub>어니, 天子<sub>어</sub>시  
니, 放光<sub>어</sub>이<sub>어</sub>시니, 아<sub>니</sub>어<sub>어</sub>시니」의 「-어-」는 모두 「-거-」의 /ㄱ/ 탈락 변이  
형태이다.

「-가니」: 내 녀 이거슬 怪異히 너기<sub>가</sub>니 어느 구티여 나로 =我行怪  
此安敢出(두언 25: 29)

나는 내 어미 나흔 ㄹ외를 뒷가<sub>니</sub> 이 하야 뜨슴<sub>하</sub>료 (남명, 상: 31)

내 親히 저습고 췌 뽕우습가<sub>니</sub> 부텃기 信티 아<sub>니</sub>하<sub>스</sub>불려 (월석 23  
: 88-9)

「-어니」: 四海를 平定<sub>하</sub>샤 길 우희 糧食 니저<sub>니</sub> 塞外北狄인들 아<sub>니</sub>  
오리<sub>하</sub>가 (용 53장)

識이 하마 드로<sub>물</sub> 니버<sub>니</sub> 뉘 識 드로<sub>물</sub> 알리오 =識이 已被聞<sub>하</sub>야<sub>니</sub>  
誰知聞<sub>하</sub>리오(능엄 3: 41)

戎馬를 나리라 너기디 몰하<sub>야</sub>니 어느 숲잔을 다뭇홀 고들 알리오 =  
不謂生戎馬 何知共酒盃<주>네 祿山이 亂<sub>하</sub>고들 몰라<sub>니</sub> 오늘 서르 불주<sub>물</sub> 엇  
디 알리오(두언 15: 47)

大箭 하 나태 突厥이 놀라<sub>스</sub>바<sub>니</sub> 어디 머러 威不及<sub>하</sub>리<sub>하</sub>고 (용 47장)  
하늘히 일워<sub>시</sub>니 赤脚仙人 아<sub>니</sub>들 天下蒼生을 니즈<sub>시</sub>리<sub>하</sub>가 (용 21장)  
禮義를 앓기샤 兵馬를 머추<sub>어</sub>시<sub>니</sub> 徼外南蠻인들 아<sub>니</sub>오리<sub>하</sub>가 (용  
54장)

▽위의 「니저-, 니버-, 하야-, 몰라-, 놀라<sub>스</sub>바-, 일워-, 머추어-」는 모두  
줄기에 안맺음씨끝 「-아/어/야-」가 연결된 어형이다.

드르헤 龍이 싸호아 四七將이 일우려<sub>니</sub> 오라 하들 오<sub>시</sub>리<sub>하</sub>가 (용  
69장)

조차 불로<sub>물</sub> 오히려 츄디 몰하<sub>려</sub>니 하물며 티리아 =追呼尙不忍 況乃

鞭撲之(두언 25: 37)

城 밧기 브리 비취여 十八子<sub>어</sub> 救<sub>하</sub>시려<sub>니</sub> 가라 하들 가<sub>시</sub>리<sub>하</sub>가  
(용 69장)

▽「-려-」는 「-리-」와 「-어-」의 두 안맺음씨끝의 축약형이다.

7.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강조의 안맺음씨끝 「-거-」, 「-아/어-」  
에 「-니」가 결합되면, 뒷말은 뒤집음말이 되어 뜻을 한결 강조하게 되  
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는 예외가 약간 나타난다.

네 하마 (釋迦를) 만나<sub>스</sub>바<sub>니</sub> 前生<sub>어</sub> 罪業을 어루 버스<sub>리</sub>라 (월석 2:  
62)

比丘들히 제 기르려<sub>니</sub> 지비 두고 가<sub>리</sub>라 (월석 7: 9)

주의 오시 일허도 어루 물려<sub>니</sub> 안죽 더디고 가<sub>리</sub>라 (월석 7: 9)

8. 다음과 같은 말은 예외 같으나 예외가 아니다.

故園에 사호<sub>매</sub> 마<sub>리</sub> 어드<sub>위</sub>시<sub>니</sub> 아수<sub>물</sub> 追尋<sub>하</sub>로<sub>물</sub> 일후<sub>라</sub> =故園暗戎馬 骨肉  
失追尋(두언 25: 5)

시내 히든 디 낫 氣運이 덥고 길히 올마<sub>시</sub>니 피헛 바<sub>티</sub> 너도<sub>다</sub> =溪廻日氣暖  
逕轉山田熟(두언 7: 30)

「어드<sub>위</sub>시<sub>니</sub>, 올<sub>마</sub>시<sub>니</sub>」는 각각 「어<sub>들</sub>+어+(이)<sub>시</sub>+니, 올+아+(이)<sub>시</sub>+니」  
로 분석되는 말이므로, 안맺음씨끝 「-아/어-」를 앞세운 것이 아니다. 「이<sub>시</sub>-」는  
도움풀이씨로서, 여기에 바로 「-니」가 붙은 꼴이다. 이 점 앞의 「일<sub>워</sub>시<sub>니</sub>, 머<sub>추</sub>  
어<sub>시</sub>니」와 그 구조를 달리한다.

9. 「-거니, -려니」에 토씨 「-이<sub>쑤</sub>(이<sub>여</sub>)」(p.386 참조)가 연결되어 월을  
끝맺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제약법의 예외적인 용법으로 보아 두기로  
한다.

하다가 아로미 업<sub>쑤</sub>딘<sub>댄</sub> ㄹ츠<sub>매</sub> 草木 곤거<sub>니</sub>쑤 =若無知者<sub>어</sub> ㄹ<sub>댄</sub> 終如草  
木<sub>거</sub>니<sub>쑤</sub>(능엄 3: 41)

하다가 쑤애서 낯딘<sub>댄</sub> 드로미 이<sub>시</sub>면 性이 이<sub>러</sub> 곧 虛空이 아니<sub>어</sub>  
니쑤 =若虛空에서 出인<sub>댄</sub> 有聞<sub>하</sub>면 成性이라 即非虛空이<sub>어</sub>니<sub>쑤</sub>(능엄 3: 6)

하다가 虛空에서 낯딘<sub>댄</sub> 알<sub>피</sub> 塵象을 불<sub>씨</sub> 도<sub>라</sub>와 반<sub>드</sub>기 根을 보



리어니쑤 = 若於空에서 出인댄 前屬塵象호쑤 歸當見根이리어니쑤(능엄 3:3)

하다가 불고매 도라가면 밝디 아니호 時節에 다시 어드옴 보미 업

스려니쑤 = 若還於明호면 則不明時에 無復見暗호려니쑤(능엄 2:30)

번드기 法華 | 아니어늘사 호물며 道記와 果記와 달오미 잇거니쑤녀  
(능엄 1:17)

▽이 어형은 '그런데 어찌'의 뜻을 나타낸다.

「-으면」

10. 가정을 나타내는 씨끝으로서,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여러가  
지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모딘 길헤 떠러디면 恩愛를 머리 여히여 (석보 6:3)

호마 體 업수물 알면 엇데 써 막스매 너기로 = 既了無體호면 何用擬心  
이리오(능엄 2:84)

眞實로 내 나흔 悉達多 | 면 이 저지 그 이베 가리라 (월석 21:6)

목수미 열 세히면 다시 惡道에 떠러두리니 (월석 21:55)

威神곳 아니면 모로매 業力으로사 가리니 (월석 21:25)

11. 이 씨끝은 안맺음씨끝 「-으시-」, 「-습-」과 그 연결체를 앞세울  
수 있다.

「-으시면」: 부려웃 드외시면 다 호 야호로 이 열가짓 號를 읊느니라  
(석보 9:3)

出家호시면 正覺을 일우시리로소이다 (월석 2:23)

太子 | 그런 사르미시면 이 이리 또 어렵도소이다 (월석 21:216)

如來入 大慈力곳 아니시면 이런 變化를 能히 짓디 못호리이다 (월석  
21:48)

▽사르미 冤讐를 머거시면 殺氣 느라 動호 호니 (능엄 8:85)

위의 「머거시면」은 '먹+어+(이)시+면'으로 분석되는 말로서, 이 「시」  
는 높임의 안맺음씨끝이 아니다.

「-스븐면」: 네 부려를 가 보스븐면 도호 이리 그지업스리라 (석보  
6:20)

하다가 男子 女人이 이 부렷 일후를 들즈븐면 기리 惡道에 떠러디  
디 아니호야 (월석 21:133)

부려를 전혀 念티 아니호스오면 비록 맛나도 맛나미 아니며 (능엄  
5:88)

「-스븐면」: 神力品에 니르러사 소사난 衆이 처섬 流通을 請호스  
오시면 神力品前은 손지 正宗에 屬호미 불마니라 = 至神力品호야사  
涌出之衆이 方請流通호시면 則神力品前은 猶屬正宗이 明矣라 (법화 4:135-6)

12. 「-을디면, -은디면」은 녹아 붙은 한 씨끝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디-」는 매인이름씨 「ㄷ」와 잡음씨 줄기 「-이-」의 축약된 것으로 풀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p. 290)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골바쓰라 (훈, 언해)

羅卜이 뿔디면 내 빛소배서 난 아기로소이다 (월석 23:86)

내 祖宗이 보살디면 골오 이 子孫이라 = 吾祖宗이 視之 則均是子孫아  
라 (내훈 3:50-1)

나웃 無數호 劫에 父母 孝道호고 沙門과 婆羅門과를 恭敬호디면 내  
처섬 모든디 드러 니거든 한 사르미 날 위호야 禮數호리라 호더라  
(석보 6:29)

이 道士 | 精誠이 至極호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드외  
에 호시리라 (월석 1:7)

어마니미 善事를 호시단디면 내 이 도늘 가져 가 어마니를 供養호습  
고 하다가 모딘 業을 지스시단디면 내 이 도늘로 어마님 爲호야 布  
施호리이다 (월석 23:73)

「-을씨」

13. 뒷 말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이음법 씨끝으로서,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아니 뿔씨 곳 도쿄 여름 하느니 (용 2장)

시미 기픈 드른 마드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리 바르래 가느니 (용 2장)



싸 아랫 獄일씨 地獄이라 하느니라 (월석 1:28)

羅睺羅 | 나히 하마 아호빌씨 出家하여 聖人入 道理 비화사 하리니 (석보 6:3)

이 菩薩入 昏 터럭 굴깃 光을 보면 十方無量諸佛入 조코 微妙昏 光明을 보논딜씨 이 菩薩入 일후를 無邊光이라 하고 (월석 8:38)

「보논딜씨」의 「-디-」는 매인이름씨 「-도」에 잡음씨의 「-이-」가 연결된 것이다. (‘보는 것이므로’란 뜻.)

14. 이 씨끝은, 안맺음씨끝 「-으시-」, 「-습-」, 「-으리-」와 그 연결체를 앞세울 수 있다.

「-으실씨」: 耶輸 | 잠깐도 듣디 아니하실씨 目連이 淨飯王의 도라가 이 辭緣을 슬보대 (석보 6:6)

子息 업스실씨 몸엿 필 피화 그르세 담아 男女를 내스받니 (월석 1:2, 기 4)

奉天討罪실씨 四方 諸侯 | 묻더니 (용 9장)

父王이 淸淨昏 사록미실씨 淨居天으로 가시니라 (월석 10:15)

다음의 「시」는 높임의 안맺음씨끝 「-으시-」가 아니다.

根은 몸 안해 수머실씨 이런도로 니룩샤터=根은 潛身中 홀씨 故로云(능엄 3:16)

밧마로 一切染淨入 有爲를 가져실씨 일후미 法界오 안호로 一切入 恒沙性德을 머구머실씨 일후미 藏이라(원각, 상 1-2:47-8)

可히 스랑홀도다 이 공은 고든 道를 푸머실씨 새 나라해서 가빔야온 刑罰뿌를 또 님도다=可念此公懷直道 也需新國用輕刑(두언 21:40)

「수머시-」, 「가져시-」, 「머구머시-」, 「푸머시-」는 각각 「습+어+(이)시-」, 「가지+어+(이)시-」, 「머굽+어+(이)시-」, 「품+어+(이)시-」로 분석되는 말이다.

「-스볼씨」: 天上이며 人間이며 모다 尊히 너기스볼씨 世尊이시다 하니라 (월석 9:13)

世尊하 내 佛如來 威神力을 받즈볼씨... 一切 業報 衆生을 救하야 싸혀노니 (월석 21:47)

世尊은... 一切 다 恭敬하스을씨 世尊이시니라 (금강 7-8)

「-으릴씨」: 하나히 어디러 즘은 사록물 당하릴씨 千子 | 라 하느니라 (월석 1:28)

法幢法會를 세사 天人이 모드릴씨 諸天이 다 깃스받니 (월석 2:8, 기 13)

반득기 비체 훈가지릴씨 반득기 空을 아디 못하리로다 =當一於色일씨 應不識空하리로다(능엄 3:37)

하다가 막스매 即흥던댄 法이 드트리 아니릴씨 막스미 緣흥디 아니어니 엇베 고디 일리오 =若即心者 | 댐 法이 則非塵이릴씨 非心の 所緣이어니 云何成處하리오(능엄 3:32)

「-스받실씨」: 性土를브터 듣즈받실씨 八百萬億等偈 잇느니 (월석 18:35)

彌勒이... 燈明入 마르치사물 닙스오실씨 한 부터를 맛나스와 =彌勒이... 蒙燈明教故로 得值多佛하스와(법화 1:114)

「-스받릴씨」: 부텃 뜰 아디 몰하스오릴씨 이릴씨 聖人入 뜨들 사거 =不悟佛意하스오릴씨 是故로 解釋聖意하야(금강, 서:6)

「-으시릴씨」: 商德이 衰하거든 天下를 맞드시릴씨 西水入 마시 저재 곤하니 (용 6장)

부테 겨지블 調御하시느다 하면 尊重티 아니하시릴씨 丈夫를 調御하시느다 하니라 (석보 9:3)

15. 「-을씨」에 잡음씨 「-이다」가 연결되면, ‘~하기 때문이다’의 뜻을 가지게 된다.

二千果號 | 다 곤호몬 因이 곤홀씨라 (법화 4:64)

寂과 靜이 달오몬... 寂은 이 涅槃일씨라 (원각, 하 2-2:15)

이 三乘法이 聖人入 일라 讚歎하샤몬 諸佛이 모다 尊히 너기실씨 란 (법화 2:91)

스승 사마산 부테 또 일후미 觀音이라 하샤몬 因果 | 서르 마즈시며 古今이 혼 道 | 실씨라 (능엄 6:2)



그럴씨 六根을 낚오더 賊媒라 하니 제 제 집 보비를 도죽홀씨니라  
(월석 2:21의 2)

더 보더 아니흔논 相은 보되 미출 고더 아닐씨니라 = 蓋彼不見相은  
非見이 所及일지니라(능엄 2:37)

世尊하 내 혼 일후미 더 모든 한 일흠과 달음 업수믄 내 닷가 니겨  
眞實入 圓通을 得흔 다실씨니이다 (능엄 6:35)

一切衆生이... 生死ㅣ 서르 니수미... 妄想을 쓰는 다실씨니 (능엄  
1:43)

大乘에 시혹 드러 許하샤몬 大乘엿 사르몬 法行이 ㄴ조씨며 妄量엿  
지수미 아닐씨니라 (법화 6:145)

16. 다음과 같은 말은 이음씨(접속사)로 익어 버렸다.

...그럴씨 니르샤터(법화 2:129)

기푸를 니르시니 그럴씨 이를 信하니라(법화 2:157)

「-아/어」

17. 원칙적으로 홀소리조화에 의해 변동되며(이에 따르지 않는 일도  
있으나), /i/, /j/, 「하-」 밑에서는 「-야/여」로, 또 /아, 어/ 밑에서는 주  
는 일이 있다. 원인, 조건, 수단, 상황, 설명의 계속 따위를 나타낸다.

座를 座호아 늠 勸하면 (월석 17:51)

어리여 아디 몸하닐 爲하야 (금강, 서:8)

東으로 이에서 버으로미 十恒河沙等佛土 디나가 世界 이쇼디 (월석  
9:9)

有情이 나랏 法에 자피여 미여 매마자 獄애 가도이거나 (월석 9:25)

耶輸陁羅를 달애야 恩愛를 그쳐 羅睺羅를 노하 보내야 상재 ㄷ외에  
하라 (석보 6:1)

舍利弗이 虛空애 올라 거르며... 누브며 하고 (석보 6:33)

引導는 해아 길 알월씨라 (석보 9:8)

煩惱障이 ㄴ스물 ㄴ려 ㄴ스미 解脫 ㄴ하야 業을 지시 生을 受하야 다  
스 길헤 輪廻하며 (월석 9:6-7)

ㅁ술히 업서 ㅁ라물 머리 하리로다 = 無村眺望餘(두언 7:7)

蛟龍은 샷기를 현 디나가고 蓮과 말와몬 고줄 조차 ㄴ죽하엿도다  
= 蛟龍引子過 荷菱逐花低(두언 7:8)

너 아녀 ㄴ류 = 非汝而誰ㅣ리오(능엄 2:30)

▽잡음씨에 붙는 예는 드물고, 그 뜻도 약간 다른 경우와 차이가 있는것  
같으나, 널리 설명의 계속으로 볼 수 있다.

四海入 ㅁ 이여 오나닐 (천강곡 상, 기 34)

畦丁이 籠을 지여 오나닐 = 畦丁負籠至(두언 16:69)

내 釋種애 가 나아 (월석 1:16)

아들을 소겨 ㄴ아 (월석 23:65, 기 505)

世尊하 ㅁ아 니르쇼셔 (석보 13:44)

거부비 그리믄 지여 나니라 (능엄 3:76)

눈두워 보라 = 著眼看하라(남명, 상:32)

모도와 ㅁ기시니 = 揔明(법화 2:123)

ㄷ토와 지시 (법화 2:57)

ㄷ토와 나니라 (법화 2:69)

ㅁ고와 니르샤몬 (남명, 상:36)

이 阿修羅는 ㅁ야 나느니라 (석보 13:10)

이 阿修羅는 ㄷ외야 나느니라 (석보 13:10)

天趣에 브트니는 世界를 자바 가져 히미 스ㅁ차 저픈 거시 업서  
(석보 13:10)

아츠미는 虛空애 ㄴ아 노다가 (월석 13:10)

18. 다음의 말들은 합성어로 볼만 한 것들인데, 합성어와, 두 낱말의  
제약법에 의한 연결체와는 구별할만 한 객관적인 기준이 잘 서지 않는다.

精舍를 디나아가니 (월석 1:2, 기 3)

道理 ㅁ호라 나아가샤 (월석 1:5)

佛土 디나가 世界 이쇼디 (월석 9:9)

▽「디나가」는 「디나아 가아」의 축약형인데, 「디나아」, 「가아」는 다 제약



법이다.

羅睺羅를 노하보내야 (석보 6:1)

夜叉ㅣ 두리며 물러드로려 하다가 四面에 브리 너러설찌 갈때 업서  
(석보 6:33)

19. 천강곡에서는 「-아」를 쓴 예가 많다.

중생을 사아 주가 (월석 23:64, 기 502)

아들을 소겨 닐아 (월석 23:65, 기 505)

어미 뜨들 깃가 (월석 23:66, 기 506)

羅ㅣ이 니라 (월석 23:66, 기 508)

니르혀아 (월석 23:66, 기 507)

20. 안맺음씨끝 「-으시-」, 「-습-」, 및 그 연결체를 앞세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시-」는 「-샤-」로 변동하고 그 밑의 「-아」 씨끝은 줄어진다.

「-으시-」의 변동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p.674.

「-으샤」: 海東 六龍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용 1장)

이 뼈... 法王子ㅣ 모든 四衆을 어엿비 너기샤 大衆中에 겨샤 곧 座  
로써 니르샤 부텃 바를 頂禮<sub>하</sub>습고 合掌<sub>하</sub>야 恭敬<sub>하</sub>샤 부터의 술  
오샤디 (능엄 2:55)

(太子ㅣ) 世間 슬히 너기샤 出家<sub>하</sub>샤 道理 닷<sub>마</sub>샤 六年 苦行<sub>하</sub>샤  
正覺을 일우샤 魔王入 兵馬 十八億萬을 降服<sub>하</sub>오샤 光明이 世界  
를 스몓 비취샤 三世엿 이를 아루실찌 (석보 6:17-8)

「-스바」: 追薦은 爲<sub>하</sub>스바 佛事<sub>하</sub>스바 도헌 짜해 가 나시게 흘씨라  
(석보, 서:3)

뼈를 金函에 담스바 塔 세여 供養<sub>하</sub>습더라 (월석 10:14)

金像을 象에 실즈바 가 마쥌더니 (월석 21:203)

「-스샤」: 妙光이 네 燈明을 돕스오샤 然燈入 스스이 드외시코(법화  
1:112)

그 뼈... 다 부텃 알피 一心合掌<sub>하</sub>샤 尊顏을 올위러 보스오샤 부텃  
게 술오샤디 (법화 6:98)

21. 이 씨끝 다음에는 도움토씨 「-샤」, 「-은」, 「-다가」, 「-셔」, 「-도」  
및 그 연결체가 붙을 수 있다. (→p.388 표).

「-어샤」: 天縱之才를 그러샤 아스불까 (용 43장)

一切物을 여희여샤 各別히 제 性이 이숯딘댄 = 離一切物<sub>하</sub>야샤 別有自  
性인댄 (능엄 2:50)

諸佛도 出家<sub>하</sub>샤샤 道理를 닷<sub>마</sub>시느니 (석보 6:12)

萬德이 두러이 마즈샤샤 十號ㅣ 마즈신 부테 드외시느니 (법화 2:33)

메운 돛귀를 비스바샤 뜨들 일우니 (천강곡 상, 기 106)

우리들히... 地藏菩薩摩訶薩入 力을 받즈바샤 이 忉利大會에 오스불  
며 (월석 21:114)

「-샤」가 붙을 때에, 「-아/어」가 「-에」로 변동된 예가 하나 보인다.

貴戚과 權門과 筆迹을 어테샤 屏風障子에 비치 나물 비르수 아느니  
라 = 貴戚權門得筆迹 始覺屏障生光輝(두언 16:38)

그리고 「-아/어」에 「-샤」가 붙을 때 그 제약법으로서의 뜻이 더욱 분  
명해진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도움풀이씨가 오는 경우도  
제약법으로 처리된다.

네 가샤 히리라 (용 94장)

聖人入 道理 빅화샤 히리니 (석보 6:3)

이 經을 바다 디니더... 쓰며 하야샤 히리라 (석보 19:36)

如來의 어셔 가스바샤 히리로다 (석보 23:40)

더 如來入 名號를 일존즈바샤 히리라 (월석 10:75)

如來入 일후를 디녀... 供養<sub>하</sub>스바샤 히리로소이다 (석보 9:31)

모로매... 方便으로 여러 빅샤샤 히릴찌 (석보 13:63)

「-언/어는」: 祇陀林에 이선 내 업듯<sub>하</sub>야 = 如 ...在祇陀林<sub>하</sub>얀 則無有  
我<sub>하</sub>야(능엄 3:21)

秘書를 보디 몰<sub>하</sub>얀 므스매 일흔듯 하더니 秘書 보매 미친 므스맷  
病을 일호라 = 不見秘書心若失 及見秘書心失疾(두언 7:29)



及入<sup>ㅎ</sup>샤는... 以進歸道<sup>ㅎ</sup>시니라 (내훈 3:11)

「-어다가」: 日月을 자바다가 귀엣구슬 호리라 (석보 13:10)

내 가져다가 ...아슴들홀 뵈오 (석보 23:41)

舍利를 비스바다가 塔 일어 供養<sup>ㅎ</sup>스바지이다 (석보 23:52)

「-어서」: 衛護는 들어 더브러서 護持홀씨라 (석보 9:40)

조치여 드라 머리 가 셔아서 손지 高聲으로 날오디 (석보 19:31)

眷屬 드의스바셔 설본 일도 이러홀씨 (석보 6:5)

스스을 좃즈와셔 親히 심기실씨 = 從師<sup>ㅎ</sup>스와셔 親授<sup>ㅎ</sup>실씨 (법화 6:5)

「-어도」: 世尊이... 柳山에 겨샤도 說法<sup>ㅎ</sup>시며 (석보 6:41)

「겨샤도」는 「겨샤」와 토씨 「-도」로 분석된다. 그것은 「겨샤」나 「겨샤도」나 다 같이 제약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꼭 같은 어형일지라도, 이렇게 분석되지 않는 일이 있다. (→p. 566)

나라해 도라오샤도 조올아비 아니<sup>ㅎ</sup>샤(석보 6:4)

이 경우의 「오샤도」는 「오샤」와는 달리, 불구법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형에 있어서는 「-도」를 토씨로 분석하지 않고, 씨끝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두 어형 사이의 구별은 꼭 분명한 것은 아니다.

22. 토씨 「-셔」 다음에는 다시 토씨 「-샤」, 「-은」이 붙을 수 있다.

須菩提 바빻 소배 便安히 안자셔샤 도르혀 내 法身을 보느니라 (월석 21:206)

마스래 사라션 브들 行호매 잇느니라 (두언 8:63)

23. 이 씨끝에는 사잇소리가 붙어, 앞에 딸린 말과 같이 매김말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이다」가 붙으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와 같은 뜻을 나타낸다.

窮<sup>ㅎ</sup> 길헤 늘것 브디오 = 窮途衰謝意(두언 14:15)

即欲死는 너모 스랑<sup>ㅎ</sup>앗 마리라 (두언 18:8)

相과 非相과를 의다 <sup>ㅎ</sup>샤론 더의 斷常애 딜가 저혜시니 = 詞相與非相은 恐伊의 落斷常이시니(금강삼가 5:1)

「저혜시니」는 「두려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의 뜻이니, 이 어형은 다음의 어형과 구별해야 한다.

西入<sup>ㄴ</sup>덕 마르매 使臣의 비 왜시니 = 西江使船至(두언 15:28)

「왜시니」는 의형상으로는 앞의 「저혜시니」와 같으나, 속뜻으로는 그와 달라 이 말은 「와+이시니」의 축약이다.

雲臺에 形像을 그루믈 다 妖氛 브러브료믈 爲<sup>ㅎ</sup>애니라 = 雲臺畫形像 皆爲掃氛妖(두언 20:53)

뵈 뵈오 사롤디 占卜호론 다 이 남꼴 爲<sup>ㅎ</sup>애니 = 誅茅卜居惣爲此(두언 6:40)

이 가몬 지비 가난호믈 너제로다 = 此去苦家貧(두언 23:40-1)

24. 「-아/어-」는 안맺음씨끝으로 되기도 하는데, 맺음씨끝의 「-아/어」와는 두 가지 점으로 구별된다.

첫째, 맺음씨끝은 한 어절을 끝맺는데 비해서, 안맺음씨끝은 그렇지 않다.

둘째, 맺음씨끝은 「원인, 조건, 수단, 상황, 설명의 계속」을 나타내는데, 안맺음씨끝은 「강조」(다소 불분명하나마)를 나타낸다. (→p. 923)

또 연결법의 맺음씨끝 「-아/어」와도 구별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p. 621 참조.

「-거/어」

25. 단독으로는 제약법 씨끝으로 쓰이는 일이 없고(연결법 참조), 도움토씨 「-샤」를 연결하여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의 뜻을 나타낸다.

열두 大劫이 츠거샤 蓮花 | 프거든 (월석 8:75)

나는 一切衆生이 다 부터 드의야 衆生이 얼거샤 菩提心을 發호리라 (석보 6:46)

내 것<sup>ㄴ</sup>주거 썩해 디엿다가 오라거샤 지요니 (월석 21:24)

지은 사르미 브들 늦거샤 보니 = 晚看作者意(두언 16:3)

世尊이 甚히 希有<sup>ㅎ</sup>샤 오라거샤 흥번 現<sup>ㅎ</sup>시느니 = 世尊이 甚希有<sup>ㅎ</sup>샤 久遠에샤 乃一現<sup>ㅎ</sup>시느니 (법화 3:114)

明府는 엇메 츠거샤 말리오 = 明府豈辭滿(두언 7:21)

마장 不得已<sup>ㄴ</sup>커샤 비르서 구지주믈 더울디니라 = 甚不得已<sup>ㄴ</sup>어샤 始加詞詰이니라(내훈, 2상:16)



26. 「-거사」에 「-으시-」가 겹쳐지면 「-거시사」가 된다. (→p.380)

父母 겨삼젧 일후문 羅卜이라니 父母 업거시사 부텃기 가스바 出家 호니 (월석 23:85)

27. 「-거」는, 잡음씨 「-이-」와, 만이, /ㄹ/ 밑에서 /ㄱ/이 줄어진다.

이러호 妙法은 諸佛如來時節이어사 니르시느니 優曇鉢華 | 時節이어사 흔번 비요미 존하니라 (석보 13:47)

더에 난 千年이어사 東으로 震旦에 傳컨디 三百 나몬 히니 =出彼千齡이어사 東傳震旦컨디 三百餘載니(법화, 서:7)

諸佛이 時 | 어사 니르거시든 衆生도 時 | 어사 시러 들줍느니라 (금강삼가 4:50)

한비 사오리로더 뵈어사 즈막니이다 (용 67장)

28. 안맷음씨끝으로 쓰이는 「-거-」가 있는데, 이와 저와는 그 용법과 뜻으로 구별된다. 즉,

용법으로는 : 하나는 어절을 끝맺는데, 하나는 그렇지 않다.

뜻으로는 : 맷음씨끝은 「-사」를 가지고 ‘원인, 조건’ 따위 뜻으로 쓰이는데, 안맷음씨끝은 ‘강조’를 나타낸다. (→p.932)

또 연결법의 「-거」와의 구별에 대해서는 →p.621. 623.

29. 「-어사/아사」(→p.535)와 여기의 「-거사」 사이에는 별다른 뜻의 차이가 없었던듯 하여, 한문의 토와 그 번역 사이에 양형이 혼용되는 일도 있다.

子志既大어사 父 | 乃聚族하야=아드리 뜨디 하마 커사 아비 아습 피화 (법화 2:223)

「-어사」는 「-이어사」(←\*이거사)의 줄임인데, 번역의 「-커사」는 「\*크어사」의 줄임이다.

## 「-악/억」

30. 앞의 「-아/어」의 강세형이다.

어드웁 空이 드외야 =晦昧하악 爲空하야(능엄 2:18)

네 子細히 스랑하악 哀慕를 忝히 말라 =汝 | 諦思惟하악 無忝哀慕하랴 (능엄 2:54)

工夫를 하악 막스물 빼 話頭를 擧티 아니하야도 =做到不用心提話頭 하야도(몽산 4)

小乘法으로 니르와도물 마락 데 제 瘡 업스니 허리디 말라 하시니 =無得發起以小乘法 彼自無瘡 勿傷之也(원각, 하 2-2:46)

너와 다뭇하야 山林에 사로물 서르 일티 마락 모매 藥 ㅼ 거슬 갖가 이 하곡 =與汝林居未相失 近身藥裹…(두언 8:33-4)

곧 巾几를 옮겨오물 지석 ㅼ 숲 빗뭇골 내 힌 지브로서 나가라 =直作移巾几 秋帆發弊廬(두언 20:52-3)

幸히 爲하악 어딘 府主의 내 글워를 通達하랴 =幸爲達書賢府主(두언 25:56)

31. 「-ㄱ」은 강세를 나타내는 뒷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악/억」은 두 형태소로 된 하나의 맷음씨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분석하지 않는다.

## 「-은대」

32.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다음에 오게 하는 것으로서,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맷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衆生이 보고 더러볼쎄 엇메 이런 더러본 일 하거노 흔대 그 남지니 뉘으쳐 (월석 1:44)

目連이 淨飯王의 도라가 이 辭緣을 솔뵈대 王이 大愛道를 불러 니르샤디 (석보 6:6)

舍利弗이 전츠 업시 우시늘 須達이 무론대 對答호디 (석보 6:35)

말 님자히 怒하야 그들로 자본대 鸚鵡 | 닐오디 (월석 2:12-3)

親흔 버디... 먹은 구스를 뵈대 艱難흔 사르미 구슬 보고 막스매 ㅼ 장 歡喜하야 (법화 4:44)

ㅼ 룬 가운데 淘河 | ㄴ는 저비를 뵈흔대 ㅼ렛던 흘골 도로 디오 빗 난 지비 가서 붓그리눅다 =江中淘河漱飛燕 脚泥却落羞華屋(두언 25:54)

33. 이 씨끝은 안맷음씨끝 「-으시-」, 「-습-」 및 그 연결체를 앞세울 수 있다.



「-으신대」: 고지 소사나거늘 조차 불려 사아지라 하신대 俱夷 니르  
샤디 (월석 1:10)

王이 盟誓하야 드로리라 하신대 夫人이 솔보디 (월석 2:5)

耶輸 | 드르신대 물 곱고 蓮이 프니 (천강곡 상, 기 60)

「-스불대」: 부려의 가아 禮數하스불대 부테 阿難일 시기샤 (석보 6:10)

大臣이 이 藥 甁<sub>7</sub>라 大王의 받즈불대 大王이 좌시고 病이 도하샤  
무르샤디 (월석 21:218)

그뻘 天帝釋이... 王의 身肉을 비스온대 王이 곧 버혀 주샤 (금강 80)

雲이 도라와 이 이를 연즈온대 帝 | 무덤을 띄이니 (남명, 상:52)

「-스불신대」: 아바님 救호리라 變化를 비스불신대 無上道理에 發心  
하시니 (천강곡 상, 기 128)

#### 「-은디」

34. 앞의 씨끝과 그 용법이 거의 같으나, 그 용례가 아주 드물다.

生死 | 長遠하디 眞實入 知見 업서 =生死 | 長遠에 無眞知見하야(법화  
3:172)

#### 「-은덴」

35. 조건, 가정을 나타내는 씨끝으로서,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여  
러가지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낫 보미 하다가 인덴 이 불기 아논 只습과 眼根과 虛空에 이시리어  
니 엇테 안해 이쇼미 일리오 =見面이 若成인덴 此了知心과 及與眼根이  
乃在虛空하리어니 何成在內하리오(능엄 1:61)

날와 글 議論호물 시후 붓그리디 아니호덴 다시 柴扉 두드료물 肯  
許할가 =論文或不愧 重肯欸柴扉(두언 22:10)

하다가 보미 이 物인덴 네 또 어루 내 보물 보리라 =若見이 是物인덴  
則汝 | 亦可見吾之見하리라(능엄 2:35)

하다가 이 눈 우윳 눈섭터린덴 날제 덜더디 잇느니 =若是眼上眉毛ㄴ

덴 生而固有 | 니(금강삼가 3:61)

하다가 보미 아닌덴 엇테 불고물 보며 =若非見者ㄴ덴 云何見明이며(능  
엄 2:97)

壽量秘說을 기피 信解하니 아닌덴 이에 參預 못하리라 =非深信解壽

量秘說인덴 莫預於此하리라(법화 5:198-9)

▽‘월인석보’에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으니 비교할 것.

壽量秘說을 기피 信解하니 아니면 이에 붙디 못하리라(월석 17:36)

하다가 업스닌덴... 엇테 祖師 | 업스리오 =若無ㄴ덴... 豈無祖師하리오  
(몽산 62)

하다가 잇느닌덴 엇테... 論量하며 =若有ㄴ덴 何... (몽산 62)

▽「업스닌덴, 잇느닌덴」은 각각 「없+은+이(대인이름씨)+ㄴ덴, 잇+는  
+이+ㄴ덴」으로 분석된다.

36. 다음과 같은 말의 「디-」는 대인이름씨 「ㄷ」와 잡음씨의 줄기「-이-」  
가 축약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다.

하다가 이라 호니 이숯딘덴 두 文殊 | 로소이다 =若有是者ㄴ덴 則二文  
殊 | 로소이다(능엄 2:59)

하마 내 어미룻딘덴 根源入 罪를 알리니 (월석 21:56)

王이 너를 禮로 待接하살딘덴 모로매 願이 이디 말오라 (석보 11:30)

하다가 果然 아론딘덴 엇테 가빅야이 이 무루물 發하야 오니오 =若  
果知得인덴 如何輕發此間來오(금강삼가 2:5)

내 아들 悉達이 오논딘덴 몬져 光明 비요미 이 상네 祥瑞라 (월석  
10:7)

도훈 일 하시단딘덴 어마넝기 드러가 이 돈을 供養하스보리 / 모딘  
일 하시단딘덴 어마님 爲하스바 이 돈을 布施하요리 (월석 23:65, 기  
504)

37. 위의 예에 나오는 「-르딘덴, -ㄴ딘덴」은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녹아 붙은  
씨끝으로 보는 것이 좋을듯이 생각이 되나, 그렇게 되면, 「-르디면, -르디니,  
르디로다, 르디니라」 등등 많은 어형이 모두 한가지로(녹아 붙은 씨끝으로)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서는 씨끝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처리에 곤란  
할 것이므로 「디-」를 두 형태소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씨끝의 설명을



간결하게 하도록 한다. (그러나 월성분의 분석에 있어서는 「이숯딘덴, 어미롭단덴, 待接호샅딘덴, 아론딘덴, 오논딘덴, 호시단딘덴」을 하나의 월성분(풀이말)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현대말의 「—할 것이다, —할 것이니…」 따위를 한 풀이말로 보는 것과 한가지다.

38. 안맺음씨끝 「-오/우-」, 「-으시-」, 「-습-」, 「-으리-」, 「-더-」, 「-거-」 및 그 연결체를 앞세울 수 있다.

「-운덴」: 헝다가 干戈 | 뭐더 어니헝는 고들 기피 思量헝덴 바르 天魔와 外道와를 자바 가도다=深思不動干戈處헝덴 直攝天魔外道歸로다 (금강삼가 3:3)

▽「혼대」←ㅎ+오+ㄴ대

「-으신댄」: ㅎ다가 如來 | 곧 五陰이신댄 五陰이 ㅎ마 無常홀시 如來도 또 無常이시리며 (원각, 상 1-1: 63)

「-스불덴」: 다시곰 聖人入 말스물 推尋<sup>하스온덴</sup> 기피 發<sup>하산</sup> 고디  
 겨 샷다=覆尋聖言<sup>하스온덴</sup> 盖深有所發也 | 샷다 (능엄 4:106)

ㄱ[ㅎ수온댄]은 「ㅎ수불댄」의 변화형인지, 「ㅎ수본댄」의 변화형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후자의 경우라면 「-습-」과 「-오/우-」의 두 안팎음쌍끝이 겹쳐진 것이다.

「으린댄」: 내 말옷 거칠린댄 닐웨를 몬 디나아 阿鼻地獄애 떠러디  
리라 (월석 23: 66, 기 507)

「던넨」: 헝다가 우리 큰 法 즐기는 믹스미 잇던넨 부테 우리 爲<sub>하</sub>  
야 大乘法을 니르시리라스이다 (월석 13:36)

ㅎ다가 우리 ... 菩提를 일우리런덴 받드기 大乘으로 度脫을 得ㅎ  
 리어늘=若我等이... 成就... 菩提者 |런덴 必以大乘으로 而得度脫이어늘  
 (법화 2:6)

『일우리런댄』은 미정의 안맺음씨끝 「-리-」를 가지고 있는것 같이 보이나, 그 한문 본문으로 보면, 「일우+리+이(매인이름씨)+러(←더)+ㄴ댄」과 같이 분석되는 말이다.

「-견댄」: 天女를 보견댄 내 격지비사 눈 먼 獼猴 곤도소이다 (월석 7:12)

이 衆生의 지은 惡業을 果感호되 혜언대 당다이 惡趣에 빠리디리  
어늘 (월석 21:104)

▽「-언댄」은 「-건댄」의 변이형이다.

「-습건단」: 如來入 주머귀에 견주습건단 事義 서르 곤도소이다=例  
如來拳건단 事義 相類토소이다 (능엄 1: 99)

「으시린댄」: 허다가 허암직디 몬다 너르시린댄 간대로 山中을 向  
 허야 두식 히를 사르미 禮拜를 바도니 다시 엇던 道를 닷ㄹ료=若  
 道不堪인댄 枉向山中허야 數年을 受人禮拜호니 更修何道 |리오 (육조,  
 상: 15)

王보 너를 사랑티 아니하시린댄 커니와 王이 너를 禮로 待接하싹딘  
댄 모로매 願이 이디 말오라 (석보 11:30)

『아니 하시린댄커니와』의 「-ㄴ댄커니와」는 하나의 늑아 붙은 씨끝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커니와」(←하거니와)는 꽤 뚜렷한 마디로서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王이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실것같으면 괜찮거니와——괜찮지만...’)

그러므로 이 「커니와」는, 「…논커니와」의 경우에서와 같이 (→ p. 373), 「단편적인(축소된) 마디」로 보기로 한다.

39. 「-건댄」은 분석할 수 없는 한 씨끝으로 보고 싶으나, 앞에 들어보인 「-던댄(←더+ㄴ댄), -린댄(←리+ㄴ댄), -수은댄(←스오+ㄴ댄), -신댄(←시+ㄴ댄), -운댄(←우+ㄴ댄)」 따위 예로 미루어 보면 「-건댄」도 역시 「-거-」와 「-ㄴ댄」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은덴」

40. 조건, 가정을 나타내는 점, 앞의 「-은댄」과 같으나, 이것은 안맺음씨끝 「-거-」, 「-더-」를 반드시 앞세우는 불구적인 맺음씨끝이다.

「-던덴」: 軍容이 네와 다르샤 아습고 플러가니 나사오던덴 목숨 가  
트리잇가 / 置陣이 늬과 다르샤 아습보디 나사오니 플러가던덴 목  
숨 므츠리잇가 (용 51장)

「-전덴」: 일로 헤여 보전덴 므슴 慈悲 겨시거노 (석보 6:6)

41. 이 씨끝은 「-거-」, 「-더-」를 앞세운 것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고름홀소리를 가지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없으나, 그러나 그 본질 상으로  
는 고름소리를 가지는 씨끝이므로 「-은덴」으로 기본을 삼는다.

### 「-은덴(든)」

42. 조건, 반응, 가정을 나타내는 불구적인 씨끝으로서, 안맺음씨끝  
「-오/우-」나, 두 안맺음씨끝의 연결체인 「-스보-」, 「-습더-」, 「-시더-」  
를 앞세운다.

「-운덴」: 서르 :본덴 오으로 넷 양지 아니로다=相見<sub>흔</sub>덴 全非舊日顏  
이로다 (남명, 상: 74-5)

ㄱ:보-」는 「보-」에 「-오/우-」가 연결될 때에 나타나는 변이형태이며,  
이 경우 「-오/우-」는 줄어진다. (→p. 630)<sup>(18)</sup>

내 그스기 을모물 :본·덴 비록 이리 殂落<sub>하</sub>나=我 見密移<sub>흔</sub>덴 雖  
此殂落<sub>하</sub>나 (능엄 2: 7)

슬허 브라운덴 오직 烽火入 峇<sub>르</sub>미로소니=悵望但烽火 (두언 6: 53)

「-스본덴」: 오<sub>느</sub>날 이 祥瑞를 보<sub>스</sub>본덴 아래와 다르디 아니<sub>하</sub>시니  
(석보 13: 36)

ㄱ:스보-」는 「-습-」과 「-오-」로 분석된다.

「-습덴덴」: 하다가 能히 므스매 서르 體信<sub>하</sub>습덴덴 이에 어루 맛나  
得<sub>하</sub>야 淸간도 어려우미 업스리어늘=儻能心相體信<sub>하</sub>습덴덴 斯可遇會  
得之<sub>하</sub>야 曾無難者 兒<sub>하</sub> (법화 2: 224, 6)

「-으시덴덴」: 하다가...달애디 아니<sub>하</sub>시덴덴 내종애... 四生五道애 窮  
困<sub>하</sub>리러니=設非...善誘 兒<sub>하</sub>시덴덴 終則...窮困於四生五道<sub>하</sub>리러니 (법화 2:  
224, 6)

43. 「-은덴」과 같은 뜻으로 「-은든」이 쓰이는데, 그 예가 매우 드물기  
에, 우선 그 변이형태로 보아 두기로 한다.

「-던든」: 岩頭<sub>하</sub> 아니<sub>하</sub>던든 德山入 喝을 못 알리랴다 (몽산 32)

ㄱ:던든」의 「-려-」는, 「아니-」 밑에서 일어나는, 「-더-」의 변이형태  
이다.

(18) 허 용: 중세국어 연구 pp. 129-130.

### 「-턴」

44. 가정을 나타내는 이음범 씨끝으로서, 반드시 안맺음씨끝 「-오/  
우-」를 앞세우는데, 이 경우의 안맺음씨끝은 아무런 문법적 의의를 가  
지지 않는다.

이럴씨 道 비<sub>하</sub>턴 힘씨 識情을 아<sub>하</sub>숯디니라=所以學道<sub>하</sub>턴 務去識情也  
라 (능엄 5: 8)

ㄱ:비<sub>하</sub>턴」에 「-오/우-」가 들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그 한문 본  
문의 토와 비교하면, 「비<sub>하</sub>+오+턴」이 「비<sub>하</sub>턴」으로 줄어졌음이 확증  
된다.

이 界入 衆生이 ...우업슨 道를 求<sub>하</sub>턴 어느 方便門으로 수이 일우  
를 得<sub>하</sub>료=此界衆生이 ...求無上道<sub>하</sub>턴 何方便門으로 得易成就<sub>하</sub>리오 (능  
엄 6: 50)

다물 마려서 音響 드<sub>하</sub>턴 멀며 갓가오물 다 드르리니=隔垣<sub>하</sub>야서 聽  
音響<sub>하</sub>턴 遐邇를 俱可聞이니 (능엄 6: 68)

사르미 먼 길 :가<sub>하</sub>턴 모로매 목숨 도을 糧食 이슈미 곤<sub>하</sub>니라(법화  
2: 205)

ㄱ:가-」는 「-오/우-」가 연결될 때에 취하는 「가-」의 변이형태이다. (이  
경우 「-오/우-」는 줄어진다.)

參<sub>하</sub>턴 모로매 實히 參<sub>하</sub>며 見<sub>하</sub>턴 모로매 實히 見<sub>하</sub>라 하야=參<sub>하</sub>턴  
須實參<sub>하</sub>며 見<sub>하</sub>턴 須實見이라 하야 (능엄 9: 112)

하다가 夏首를 디내야 三月安居<sub>하</sub>턴 반드기 淸淨<sub>하</sub> 菩薩이 止住를  
땡 마라=若經夏首<sub>하</sub>야 三月安居<sub>하</sub>턴 當爲淸淨菩薩止住<sub>하</sub>야 (원각, 하 3-2:  
29)

### 「-으란더」

45. 조건, 가정을 나타내는 이음범 씨끝으로서,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象의 양지 第一이니 엇메어노 하란디...象은 몫 미트로 거러갈씨  
菩薩의 三界 스몫 아로미 곤<sub>하</sub>니라 (월석 2: 19)



하마 色을브터 나란디 반득기 虛空의 잇는 덜 아디 몬하리로다=既從色하야 生하란디 應不識知虛空所在하리로다 (능엄 3: 37)

하마 갓근 想을 스러 法身을 다 어드란디 하마 果를 得하가 疑心  
드의어늘=既消倒想하야 頓獲法身하란디 疑已得果 | 어늘 (능엄 3: 115)

하마 空을브터 오란디 도로 空을브터 드룸디니=既從空來하란디 還從空入홀디니 (능엄 2: 110)

두 사르미 어우러 精舍 지스란디 일후를 ...孤獨園이라 하라 (석보 6: 40)

내 하마 證하란디 너도 證하야사 하리라 (월석 14: 31)

이제로브터 後에 사르미 브들 알란디 하룻날 모로매 오디 一百디위  
옴 하라=自今已後知人意 一日須來一百廻 (두언 25: 22)

匡山入 글넉던 싸해 머리 세란디 도히 도라올디나라=匡山讀書處 頭白好歸來 (두언 21: 42)

내 衆生의 아비 드의야시란디 그 苦難을 싸혀 ...노녀 노릇게 호  
리라 =我爲衆生之父 | 란디 應拔其苦難하야... 令其遊戲케호리라 (법화 7: 86)

「드의야시-」는 「드와야 이시-」의 생략형이다.

46. 안맺음씨끝 「-습-」을 앞세운다.

(어마니물) 天宮에 몬 보스브란디 地獄애 겨심가 하니 (월석 23: 81)  
如來入 正法을 네 맞즈브란디 브즈러니 護持하야 닐그며 외오라  
(석보 23: 36)

47. 「-시-」를 앞세운 예는 찾지 못했으나, 고려가요에 그 예가 있다.

괴시란디 우리곰 좇니노이다 (악장가사, 서경별곡)

「-관디(곤디)/완디」

48. 원인, 조건을 나타내는 이음범 씨끝으로서, 이 풀이말 앞에는 반드시 물음말이 오는 것이 특색이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그리고 /ㄱ/은 /ㄹ/, /ㅣ/(딴이), 잡음씨 「-이-」, 안맺음씨끝 「-으리-」 밑에서 들어진다.

이 菩薩이 ...엇던 功德을 닷관디 能히 이 大神通力이 이시며=是菩

薩이... 修何功德관디 而能有是大神通力하며 (법화 7: 15)

엇메 이 곤흔 기픈 法을 듣줍디 몬하관디 엇메 釋迦牟尼佛所애 비  
르서 듣조오몰 술오노=豈得不聞如是深法이완디 豈於釋迦牟尼佛所애 始  
言聞也오 (금강 72-3)

엇메 네게 분관디 맛 아노다 일홈하리오=何預於汝관디 名味之知리오  
(능엄 3: 27)

내 모뎨 엇메 드를 마티 보스디 몬관디 내 아드리 목수물 일케 하  
야노 (월석 21: 219)

이 男子아 ...엇던 다른 術을 뒷관디 能히 한 毒을 이끓다 (월석 21: 118)

地藏菩薩摩訶薩이... 엇던 願을 세완디 不思議엿 이를 能히 일우니  
잇고 (월석 21: 15)

네 엇던 아히완디 허투를 안아 우는다 (월석 8: 85, 기 241)

스승니미 엇던 사르미완디 우리 獄門 알피 와 겨시니잇가 (월석 23: 82)

49. 안맺음씨끝 「-으시-」, 「-으리-」를 앞세운다.

「-으시관디」: 엇던 行願을 지스시관디 이 相을 得하시니잇고 (월석 21: 18)

이 菩薩이 엇던 三昧에 住하시관디 能히... 衆生을 度脫하시느니  
잇고 =是菩薩이 住何三昧하시관디 而能... 度脫衆生하시느니잇고 (법화 7: 32)

스승니미 엇던 사르미시관디 주버느로 이 門을 여르시느니잇고 (월석 23: 84)

이 엇던 神靈入 德이시관디 내 시르물 누기시느고 (월석 21: 21)

「-으리완디」: 엇메 어로 著하리완디 著디 아니타 니르료=云何可著  
이완디 而說不著고 (능엄 1: 74)

누 修行하리완디 엇메 幻 곤호물 다시 니르시니잇고=誰爲修行이완디  
云何復說修行如幻이니잇고 (월각, 상 2-1: 8)

50. 「-관디」와 같은 뜻으로 「-곤대」가 쓰인 예가 하나 발견되는데,



아마 이 두 씨끝은 수의로 변동될 수 있었던듯 하다.

世尊하 摩耶夫人이 었던 業을 지스시곤대 畜生中에 나시니잇고 (석보 11:40)

「-을덴(던)」

51. 가정, 조건을 나타내는 이음법 씨끝으로서, 반드시 안맺음씨끝 「-오/우-」를 앞세우며, 다시 「-으시-」를 앞세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풍홀소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씨끝이므로 「으」를 앞에 두어 기본형을 삼는다.)

물룸뎨 었데 또 일후믈 一切知見이로라 하려노 (월석 21:210)

너비 사겨 닐옴뎨 劫이 다아도 몰다 니르리이다 (월석 21:81)

막숨 닷글뎨 모로매 觀애 드로리니=修心홀뎨 必須入觀이니 (영가, 하:22)

바편를 건넨뎨 모로매 비예 올올떠니=渡海홀뎨 應須上船이니 (영가, 하:22)

▽「건너-」 다음에서는 「-오/우-」는 줄어진다. <sup>(19)</sup> (→p.628)

하다가... 사르미 일로 갓마로물 사뎨뎨 곧... 므스글 가져 正을 사마료=若... 人이 以此로 爲倒니덴 即... 將何爲正고 (능엄 2:13)

하다가 이 싸해 英俊호 지죄 업다 닐옴뎨 었데 시러곰 피헤 屈原의 지비 이시리오=若道士無英俊才 何得山有屈原宅 (두언 25:47)

하다가 어드웁과로 하나홀뎨 불마면 보미 업스리며=若與暗과로 一인덴 明호면 則見이 亡호리며 (능엄 3:94)

▽「하나홀뎨」은 「하나호+이(잡음씨)+오+르뎨」으로 분석된다. (하나아라뎨)

52. 「-시-」에 「-오/우-」가 연결될 때는, 「-샤-」로 변동되면서 「-오/우-」는 줄어진다.

「-살뎨」: 이런드로 安樂行을 닷마살뎨 實다이 보샤미 貴호니라=是

(19) 중세국어 연구 p.129 참조.

故로 修安樂行인덴 貴如實觀호니라 (법화 5:21)

法利 傳持호야 퍼살뎨 모로매 사름 어두매 겨시니라=傳布法利호살뎨 期在得人也 | 시니라 (법화 4:135)

모로매 이 經을 니르살뎨 威音王入 큰 無畏 得호삼 존호시며=要使 說是經호살뎨 則如威音王入 得大無畏호시며 (법화 6:86)

53. 「뎨」의 중성은 세점홀소리 (삼중모음) /jəj/이기 때문에, 끝의 반홀소리가 줄어들어서 「더」로 나는 예가 있다.

作法홀뎨 네 이리 마자사 호리니 (육조, 서:12)

「-든/뎨」

54. 조건, 반응, 상황, 가정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는 일은 없고 반드시 안맺음씨끝 「-거-」, 「-아/어-」, 「-더-」를 앞세운다.

55. 「-거(어, 나)-」를 앞세우는 경우:

商德이 衰호거든 天下를 맛드시릴씨 西水入 마시 저재 존호니 (용 6장)

易隙之情을 브터 姦人이 離間커든 이 브들 닛디 마르쇼셔(용 119장)  
넙굽 山 밧괴사 鹹水 바다히 잇거든 娑竭羅龍王이 위두호야 잇느니 (월석 1:23)

아피나 와 가지리 잇거든 주노라 (월석 7:3)

큰 法을 니르거든 沙彌 듣더니 더나라해 가니라 (월석 7:33)

내 眞實入 막숨마로 아바님 보습고져 호거든 브르미 부러 더 마애 전내쇼셔 (월석 8:99)

내 니마해 불론(론) 쯤이 몬 물랫거든 도로 오나라 (월석 7:7)

술 醉호얏거든 브름 부러 盡흠만 마르니 업스니=不如醉裏風吹盡 (두언 25:22)

네 내이... 罪苦衆生을 度脫호거든 보느니 (월석 21:34)

하다가 如來 상네 이서 滅티 아니커든 보면 (월석 17:14)

▽끝의 두 예는 조건이나 상황으로 굳이 설명하려면 안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들의 감각으로는 다분히 입자씨 같은 용법으로 느껴진다. (즉 「보다」의 부립말로) 그러므로 끝의 예는, 같은 사실을 기술한 법화경의 번역에 서는 이름꼴로 바꾸고 있다.

하다가 如來 | 상네 이서 滅티 아니호물 보면 = 若見如來 | 常在不滅  
호면 (법화 5:146)

56. 「-거-」의 /ㄱ/은, 잡음씨, 안맺음씨끝의 「-으리-」, 그리고 만이 (반홀소리의 /j/)와 /ㄹ/ 밑에서는 줄어진다.

東西南北과 네 모과 아라우히 다 큰 브리어든 罪人을 그에 드리티  
느니라 (월석 1:29)

禮 아니어든 무디 아니홀시 = 非禮어든 不動홀시 (내훈 3:69)

나홀 헤여 반드기 주그리어든 그 形이 化티 아니하야셔 = 計年應死 |  
어든 其形이 不化하야셔 (능엄 9:110)

ㅁ술히 菰 | 거든 바리 드외어든 精히 디허 힌 바래 어울우리라 =  
秋菰成黑米 精鑿傳白粲 (두언 7:37)

어시 다 눈 멀어든 菓實 따 머기더니 (월석 2:12)

ㅁ술히 霜露 | 와 草木이 이울어든 슬픈 ㅁ슴미 나느니 時節이 줄어  
든 어버시를 일흔듯 하니라 (월석, 서:16)

57. 줄기 「오-」(來) 밑에서는 「-거-」는 「-나-」로 변동한다.

하늘해서 飲食이 自然히 오나돈 夫人이 좌시고 (월석 2:25)

도훈 法이 오나돈 드리코 구즌 法이 오나돈 드리디 아니호미 (월석  
7:47)

大王 모뎡 請하스바 오나돈 찻물 기를 維那를 삼스보리라 (월석  
8:92)

58. 다시 안맺음씨끝 「-습-」과 「-으시-」가 이 씨끝에 앞설 수 있는데,  
「-습-」은 「-거(어, 나)-」에 앞서고 「-시-」는 「-거-」에 뒤따른다.

「-습거든」: 沸星이 느려와 侍衛하습거든 녀느 버리 圍繞하야 조차  
오며 (월석 2:32)

裔戎邪說이 罪福을 저히습거든 이 브들 닛디 마루쇼셔 (용 124장)

「-거시든」: 佞臣이 善諛하야 驕心이 나거시든 이 브들 닛디 마루쇼

셔 (용 117장)

王이 보빅를 얻고져 하거시든 그 臣下 | 소느로 싸홀 ㅁ르치면 싸  
해서 七寶 | 나고 (월석 1:27)

侍病은 病하엿거시든 피스바 이실씨라 (월석 10:15)

「-나시든」: 西에 오나시든 東鄙 바라스봉니 (용 38장)

阿彌陀佛이... 行者이 알피 오나시든 行者 | 드로디 (월석 8:57)

「-습거시든」: 帝 ㅈ조 后의 물습거시든 后 | 고티지버 理에 맞게  
하샤 (내훈 2상:47)

59. 「-으시-」는 「-거-」에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일찍부터 「-거-」에  
앞선 꼴이 나타난다. (이리하여 「-거든」의 융합이 촉진된다.)

「-으시거든」: 諸菩薩들과로 소늘 심겨 迎接하시거든 觀世音大勢至  
無數菩薩와로 行者를 讚嘆하야 (월석 8:48)

菩薩이... 衆 爲하야 說法하시거든 보습더니 (법화 4:118)

60. 「-아/어-」를 앞세우는 경우:

羅睺羅는... ㅁ리오다 혼 브디니 솟바다을 드러 히드를 ㅁ리와든  
日月食하느니라 (월석 2:2)

잠깐 도로 보내여든 祭하고 도로 보내요리라 (월석 7:15)

粳米를 아춤 뵈여든 또 나 나조히 닛고 (월석 1:45)

그에 드리터든 우르느니라 (월석 1:29)

너추렛 여르미 나니 버혀든 뽕 ㅁ튼 지니 흐르더라 (월석 1:43)

須達이... 王舍城으로 가며 길헤 難艱한 사를 보아든 다 布施하더라  
(석보 6:15)

61. 「-거-」의 경우와 같이, 「-습-」은 「-아/어-」에 앞서고, 「-으시-」  
는 이에 뒤따른다.

「-스바든」: 一切 도훈 거스로 如來의 布施하스바든 어디 두리잇고  
(석보 23:3)



「-어시든」: 疑心 머그리 이셔도 즉재 가 부텃기 물츠와든 부테 즉재 맛당호물 조차 爲하야 닐어시든 마초 아디 아니하리 업서니와 =雖有 …懷疑者하야도 即往問佛하스와든 佛이 即隨宜爲說하야시든 無不契悟하야니와 (금강 75-6)

「닐어시든」은 「니ㄷ(르)+아/어+시+든」으로 분석된다. 「-어-」는 「-거-」의 변이형태가 아니다.

사르물 보아시든 문져 말하시며 (월석 2:58)

弟子 하나홀 주어시든 말 드리 (精舍를) 이르스바지이다 (석보 6:22)  
스랑흔딘 네 門下省에서 주어시든 羈恩하야 朝會를 플러 大明宮으로  
로셔 바다 나오다라=憶昨賜罷門下省 退朝攀出大明宮 (두언 15:23)

62. 「-더-」를 앞세우는 경우: 잡음씨에서는 「-러-」로 변동한다.

하다가… 그 어려우물 니르디 아니하더든 말스미 시러 圓티 묻하리러니=若… 不言其難하더든 話不得圓이러니 (금강삼가 3:20)  
내 더뻐 하다가 我相이 있더든 당다이 瞋恨을 내리러니라 하시니  
=我 於彼時에 若有我相이러든 應生瞋恨이라 하시니 (금강삼가 3:29)  
그딴 나그내를 스랑티 아니하더든 그몸나래 쯔 시르플 더으리랏다=非君愛人客 晦日更添愁 (두언 15:31)

萬一에 히여곰 나라히 배디 아니더든 엇베 큰 唐의 두미 드외리오  
=向使國不亡 焉爲巨唐有 (두언 6:2)

하다가 두 사르미 我를 뒷더든 하나흔 靑山에 잇고 하나흔 길헤 이시리라=若使二人이 如有我 一러든 一在靑山코 一在途하리라 (금강삼가 4:17)

63. 「-으시-」는 「-더-」에 뒤따른다.

「-더시든」: 하다가 부테 相을 묻더시든 쯔 能히 相으로 對答하스오리라=若使佛問相이러시든 亦能答以相하리라 (금강삼가 3:12)

64. 「-든/든」은 반드시 안맺음씨끝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든, -아든」 따위를 분석하지 않고서, 한 단순한 씨끝으로 보는 것이 나을것 같기도 하나. 다음 이유로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더든」의 「-더-」는, 「-거-」나 「-아/어-」에 비해서, 분명히 안맺음씨끝으로 분석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꼴인 「-거든」, 「-아든/어든」도 두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이 좋다.

둘째, 「-으시-」가 들어갈 때는, 「-거-」, 「-아/어-」, 「-더-」와 「-든/든」을 분리시켜 주기 때문에, 「-거든」 따위를 한 단순한 씨끝으로 보기는 어렵게 된다.

「-늘/늘」

65. 조건, 상황, 반응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는 일은 없고, 반드시 안맺음씨끝 「-거(어,나)-」, 「-아/어-」를 앞세운다.

66. 「-거(어,나)-」를 앞세우는 경우:

「-거늘」: 雪山 北에 가니 싸히 흰하코 도흔 고지 하거늘 그에서 사니 (월석 2:6)

無憂樹人 가지 곱거늘 어마님 자브샤 (월석 2:33)

ㄴ르매 비 업거늘 얼우시고 쯔 노기시니 (용 20장)

兄이 디여 뵈니 衆敵이 좇거늘 재 느려 티샤 두 갈히 짓그니(용 36장)

쫓솔히 업거늘 쫓기르미 나니 (월석 1:43)

아니한 디 몰다 ㅅ랫거늘 須達이 잔죽고 스랑하더니 (석보 6:25)

그 남지니 뉘으쳐 싸해 업더엿거늘 그 겨지비 밥 가져다가 머기고 (월석 1:44)

츄곳가리 기우렷거늘 비를 도르디 아니하눗다=葛巾欹側未廻船 (두언 23:54)

一切大衆둘히 올워려 과하스뻬거늘 世尊이 즉자히… 光明을 펴샤 (석보 23:9)

大衆이 (부터를) 恭敬圍遶하스뻬거늘 爲하야 說法하시더니=爲…大衆이 恭敬圍遶하샤 而爲說法하시더니 (법화 7:5)

「ㅅ랫거늘」 이하는 모두 도움풀이씨 「잇다」에 연결된 말들이다. (→ p. 421 이하)

「恭敬圍遶하스뻬거늘」은 다음의 「爲하야」의 부림말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이것도 역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처리된다.



저품 업슨 고대 다들거늘 보고=見... 到無畏處 (법화 2:97)

元帥를 도조기 소노로 티거늘 보니라=元帥見手格 (두언 24:12)

▽ 이것도, 「다들거늘, 티거늘」을 바로 「보-」의 부림말로 보지 않고, 그 사이에 「그것을」과 같은 말이 속뜻으로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여 설명한다.

「-어늘」: 西征에 功이 일어늘 所獲을 다 도로 주샤 (용 41장)

다섯 곳 두 고지 空中에 머들어늘 天龍八部 | 讚嘆하스븐니 (월석 1:4)

狄人이 폴외어늘 岐山 을막삼도 하늬 브디시니 (용 4장)

이 암흔 모다 뒷논 거시어늘 엇메 하오사 더브러 잇는다 (월석 7:16)

四衆의 헝더기 혼가지 아니어늘 不輕이... 다 절하야 (월석 17:83)

夫人이 나하심 들 거의어늘 王의 술복샤디 (월석 2:27)

▽ 「거의어늘」은 어찌써 「거의」에 잡음씨가 연결된 꼴(거의+이+어늘)로 보이나, 「거의-」는 풀이씨이다.

道樹에 앓다 하샤몬 하마 道에 거의여 成佛이 머디 아니호들 니르시니 (월석 17:43)

大事因緣이 또 그추매 거의리라=大事因緣이 亦幾乎息矣리라(법화 7:159)

호 偈에 어루 成佛호매 거의디 아니하너=不幾乎一偈에 可以成佛也아 (법화 1:203)

67. 다음의 「디-」는, 매인이름씨 「ㄷ」와 잡음씨 「-이-」가 융합된 형태이다. (→p.289)

시후 하마 나하돈 산것 주기디 마름디어늘 여러가짓 鮮味로 產母를 이바드며 (월석 21:124)

밤나재 供養<sup>홀디어늘</sup> 브리고 深山에 드러가니 (월석 21:198)

李也는 前疑後丞入 벼슬 홀디어늘 앞뒤히 뷔엿도다=李也疑丞曠前後 (두언 25:11)

부텃 神通力을 보스올디어늘 닐오디 相으로뻬 보디 몬하리라 하네=見佛神通力이<sup>어늘</sup> 而云不以相觀이라 하니 (금강삼가 4:59)

68. 「오-」 밑에서는 「-거-」는 「-나-」로 변동한다.

「-나늘」: 四海入 물 이어 오나늘 마리에 붓습고 (천강곡 상, 기 34)

寶冠이 오나늘 아바님 보시고 (천강곡 상, 기 57)

마리 사를 마자 馬厰에 드러오나늘 聖宗을 띄셔 九泉에 가려 하시니 (용 109장)

「오-」 밑에 「-거늘」을 쓴 예도 흔히 보인다.

아비 오거늘 보고 (월석 17:19)

지브로 오거늘... (월석 23:73)

69. 잡음씨의 이 활용형은, 의도를 나타내는 「-려」에 붙는 일도 있다.

네 三昧 닷고몬 本來 塵勞에 나려어늘 姪心을 더디 아니하면 塵에 나디 몬하리니=汝 | 修三昧는 本出塵勞 | 어늘 姪心을 不除하면 塵에 不可出이니 (능엄 6:86)

▽ 「나려어늘」←「나+려+이+어늘」

70. 이 씨끝에는 강세를 나타내는 도움토씨 「-샤」가 붙어서 뜻을 강조하는 일이 있다.

주그며 사로몰 아디 몬거늘샤 하물며 길히 기루메 엇메하리오=不知死與生 何況道路長 (두언 8:29)

色과 空팍 밋기 이숯디 아니어늘샤 하물며 空이 또 밋기 잇디 아니커니썸녀=不應存於色空外어늘샤 況空이 又非有外也 | 썸녀 (능엄 3:34)

71. 「-거(어, 나)-」 위에 다시 안맺음씨끝의 「-으시-」, 「-습-」, 「-으리-」가 겹쳐지는 일이 있는데, 「-으시-」는 「-거-」에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거시(시거)늘」: 太子△位 다르거시늘 새벼리 나지 도드니 (용 101장)

그저디 夫人이 나모 아래 잇거시늘 네 우므리 나니 (월석 2:42)

羅雲이 나거시늘 곧 꼭고 블 뵈우니 (천강곡 상, 기 60)

내 忉利에 와 如來 地藏菩薩 威神力 不可思議를 讚嘆커시늘 듣조보니 (월석 21:183)

▽ 이 경우에도 「~커시늘」을 바로 「듣조보니」의 부림말로 보지 않고, 그



사이에 「그것을」과 같은 말이 속뜻으로 묵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pp. 553-4)

네 父母는 불씨 西方에 가샤 부테 드외엿거시늘 네 일 몰라 이실씨 (월석 8:103)

兄기쁘디 일어시늘 聖孫을 내시니이다 (용 8장)

羅雲이 곶외어시늘 다시 說法하시니 (천강곡 상, 기 146)

나히 열네히어시늘 그 아비 스랑하야 (석보 11:26)

行을 니르와도맏 브투물 사막살디어시늘 알피 이쇼물 爲하신 전치며 = 以爲起行所依어시늘 爲前有故이며 (원각, 하 2-2:7)

分身地藏이 다 모다 오나시늘 世尊이 머리 막니시니 (월석 21:3, 기 416)

이속고 부테 드러오나시늘 王이 바라시고 (월석 10:8)

「-으시-」가 「-거-」에 앞서는 예외도 일찍부터 나타나는데, 이리하여 「-거늘」이 단순한 한 씨끝으로 녹아붙는 길을 터주게 된다.

그 때 大會 부테 壽命劫數 長遠이 이 존흔들 니르시거늘 들좁고 (월석 17:23)

그 金像이 世尊 보스분시고 合掌하야 禮數하시거늘 世尊도 무르샤 合掌하시니 (월석 21:204)

「-습거늘」: 房을 아니 받즈바 法으로 막습거늘 龍堂을 빌이라 하시니 (천강곡 상, 기 100)

말이습거늘 가샤 (용 58장)

「말이습거늘」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석하면, 다음에 나오는 「불구법」에 들게 된다), 여기에서는 ‘말리는데’(상황, 반응)의 뜻으로 해석한다.

막를 채 터 뵈시니 三賊이 쫓좁거늘 길버서 쓰샤 세 사래 다 디니 (용 36장)

「-으리어늘」: 王也는 道理를 議論하리어늘 江湖에 병으러 잇고 = 王也論道阻江湖 (두언 25:11)

「-으리어늘사」: 우리... 能히 다시 낫디 몰하리어늘사 앓길히 손지

벌씨 이제 물러 도로 가고져 하노이다 = 我等이... 不能復進이어늘사 前途] 猶遠홀씨 今欲退還하노이다 (법화 3:174)

72. 「-으리-」에는 다시 「-으시-」, 「-습-」, 「-오/우-」가 앞설 수 있다.

「-으시리어늘」: 그 부테... 菩提를 하마 得하시리어늘 諸佛法이 現하야 알피 잇디 아니터니 (법화 3:91)

「-스분리어늘」: 세 聖人入記는 니르디 아니하샤도 어루 아스오리어늘 目連들히 막스매 제 便安디 몰호론 (법화 3:64)

「-우리어늘」: 그디 이제 날 하야... 주기라 하야도 그디를 거스디 아니호리어늘 이제 엇데 怨讎를 니즈시느니 (석보 11:34)

「-호-」는 「-하-」와 「-오-」로 분석된다.

73. 「-가늘」 형이 한군데 보이는데, 「-가-」는 「-거-」의 1-인칭 대응형으로 추측된다. (→p. 800)

담 우호로 흐린 수를 남가늘 듯 펴고 긴 흐르는 므를 구버 안조라 = 牆頭過濁膠 展席俯長流 (두언 22:4)

74. 「-아/어-」를 앞세우는 경우:

西幸이 하마 오라샤 角端이 말하야늘 衛士를 從하시니 (용 42장)

녀느 사르미 供養 막차늘 善慧 다웃 고졸 비호시니 (월석 1:13)

迦尸王이 보내야늘 祭 막차늘 使者 브러 보내오라 하야늘 對答호디 來日 보내요리라 (월석 7:15)

겨지비 하라늘 尼樓] 나가시니 (월석 1:40, 기 10)

淨居天 澡餅이 주근 벌에 드외야늘 보시고사 안디시 하시니 (천강곡 상, 기 43)

盜賊이 드토아 아사늘 거리가매 니르니 = 爭奪至徒步 (두언 8:56)

75. 안맺음씨끝 「-으시-」, 「-습-」, 「-으리-」를 다시 앞세우는 일이 있는데, 「-으시-」는 「-아/어-」에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습-」, 「-으리-」는 그에 앞선다.

「-어시늘(샤늘)」: 옷과 마리를 路中에 펴아시늘 普光佛이 또 授記



하시니 (월석 1:4, 기 7)

百步애 물채 쓰샤 群豪를 외여시늘 陰謀를 니즈니이다 (용 63장)

粥을 좌시고 바리틀 더더시늘 天帝釋이 塔애 ㄹ초승 ㄹ니 (천강곡 상, 기 64)

王의 그 꾸물 술바시늘 王이 占하는 사록물 불러 무르시니 (월석 2:23)

「-으시-」가 「-아/어-」에 앞서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어-」와 「-늘/늘」은 녹아붙는 경향이 강해진다.

菩薩이 諸天드려 무르샤디 엇던 양조로 느려가료 하샤늘 선비 양조도 니르며 (월석 2:19)

앞 品에 자철 나토샤늘 걸이시니 本을 모루실씨 =前品에 顯迹하야 시늘 而滯者 迷本하실씨 (법화 5:126)

▽본문의 토와 번역문을 비교할 것.

「-스바늘」: 일후를 저쓰바늘 하샤 뒤해 나샤 百艘賊 자버시니 (용 61장)

▽「저쓰바늘」은 「정+스+ㄹ+아+늘」로 분석된다.

제 님금 背叛하야 내 모돌 救하스바늘 不賞私勞하샤 後世에 ㄹ르치시니 (용 105장)

부텃 본중을 彈王이 물조바늘 堅牢地神이 솟나아 니르니 (천강곡 상, 기 82)

「-려늘」: 아비웃 이시면 우리를 어엿비 너겨 能히 救護하려늘 이제 날 버리고 다룬 (나라해 머리) 가 주그니 (월석 17:21)

▽「나라해 머리」는 글자가 보이지 않으나, ‘법화 5:158’에 의해 보충함.

76. 「-습-」과 「-으시-」가 겹쳐지면, 「습+아+시」의 순서를 취하게 되고, 「-으시-」와 「-으리-」가 겹쳐지면 「으시+리+어」의 순서를 취하게 된다.

「-스바시늘」: 林淨寺애 가샤 聖人 외스바시늘 ㄹ장 깃거 물을 길아 시니 (월석 8:84, 기 236)

上士 ㄹ...爲하야 물조와시늘 能仁이 應感하샤 =上士 ㄹ...爲諮問

하야시늘 能仁이 應感하샤 (원각, 하 3-2:100,101)

▽「물조와시늘」<「물조하시늘」←「물+조+ㄹ+아+시+늘」

「-으시려늘」: 世尊이 곧 須菩提 ㄹ 이 阿蘭那行을 즐기느니라 니르 더 아니하시려늘 須菩提 實로 行흔곤 업슬씨=世尊이 卽不說須菩提 是樂阿蘭那行者 ㄹ라 하시려늘 以須菩提 實無所行하슬씨 (금강 55-6)

77. 이 씨끝도, 앞의 씨끝 「-든/든」과 같이, 반드시 안맺음씨끝 「-아/어-」, 「-거-」를 앞세우는 것이므로, 두 형태소가 녹아붙어 가는 경향이 농후하나, 「-으시-」가 그 사이에 끼여들어, 그러한 경향을 막고 있다. 그러므로 「-늘/늘」만을 분리하여 맺음씨끝으로 보게 된 것이다.

「-라」

78. 원래는 서술법의 씨끝 「-다」에서 온 것이나, 월을 끝맺지 않고, 이유를 나타낸다. 잡음씨에만 붙는다.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볼씨 (월석 1:13)

우리는 罪 지슨 모미라 하늘해 몸 가노니 (월석 21:201)

내 如來...佛世尊이라 度 몸하니를 度하며 (월석 13:48-9)

엽본 쁘디라 혼 남꼴 내니 (천강곡 상, 기 158)

내...佛子 ㄹ라 부텃 이블 좃조와 나며 (법화 2:8)

79. 매인이름씨 「ㄹ」에 연결되면, 「-디라」가 된다. (p.289 참조)

父母 ㅅ든 天性에 根源하디라 슬픈 ㅅ슴 뒤유미 엇테 오라며 갓가보 매 다르리오 (월석, 서:14)

和하면 ㅅ것군디라 圓滿티 아니하도다=和하면 則間雜이라 非圓滿矣로다 (능엄 2:98)

하다가 虛空애 낳딘댄 虛空이 제 맛보논디라 너의 이비 아로미 아니 어니쑤=若虛空애 出인댄 虛空이 自味라 非汝의 口知어니쑤 (능엄 3:10)

이 다 緣을 對하야 ㅅ퍼산디라 究竟이 아니니=此 ㄹ 皆對緣施設이라 非爲究竟이니 (금강삼가 5:35)



80. 「-다」가 마침법으로 쓰이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의 「-라」는 서술법의 「-다」의 변이형태이다.

舍利弗아 이러호미 諸佛이 혼 큰 잃 因緣으로 世間에 나시논디라 (석보 13: 49)

五位行相을 世諦에 나사가 불기산디라 = 五位行相을 卽世諦以彰明이라 (능엄 7: 10)

이 經典 受持讀誦하느닌... 無量千萬億劫에 이 供養혼디라 (월석 17: 38)

끝의 사실은 '법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이 供養혼디 드외니라 (법화 5: 201)

81. 「아니-」에 붙으면, 제약법으로서의 뜻이 분명하지 않게 되나, 이것도 설명의 체속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 넣는다.

천량 업슨 艱難이 아니라 福이 업슬씨 艱難타 하니라 (석보 13: 56-7)

徧淨은 다 조홀씨니 몸썬 아니라 世界 다 조홀씨라 (월석 1: 33)

82. 도움토씨 「-사」가 붙으면, 그 제약법으로서의 뜻이 분명해진다. (→p. 380)

下根은 모로매 세히라사 하리오 (월석 14: 31)

相이 곧 相 아니라사 眞이 드외느니라 (금강삼가 3: 11-2)

佛과 法과 둘히 아니라사 道ㅣ 비르서 알피 現하리라(금강삼가 4: 11)

83. 도움토씨 「-셔」가 붙은 「-이라셔」는 그 제약법으로서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나, 이것도 설명의 체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속하는 것으로 본다. (→p. 378)

사르미... 나히 스물 다스시라셔 百歲엿 사르물 ㄴ르쳐 닐오디 (법화 5: 115)

저믄 壯혼 사르미 나히 처섬 二十五ㅣ라셔 百歲엿 아드리 머리 세 오 느치 살찌닐 느리게 뵈요디 (법화 5: 120)

84. <「-라」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

(1) 「-(이)라」는 서술법의 씨끝이 되기도 하고, 제약법의 씨끝이 되기도 하니, 구별해야 한다.

(2) 「-(이)라」에 「-도」가 붙은 「-(이)라도」는 한 씨끝으로 녹아붙어 불구법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이라도도」의 뜻을 가질 때는 그렇지 않다. → p. 375)

(3) 「-이라」는 단순한 토씨로 되어버린 것도 있는데 (→p. 393), 잡음씨는 풀이말로써 임자말을 가져야 하며(비록 밖으로 나뉘나지 않더라도, 그 속 뜻으로는 있어야 한다), 다음에 오는 풀이말에 종속되는 월성분으로 기능하지 않는데, 토씨의 「-이라」는 그렇지 않다.

下根은 모로매 세히라사 하리오 (월석 14: 31)

(임자말) (풀이말)

이 경우의 「-이라사」는 풀이말로써 임자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잡음씨 이나,

호字ㅣ라도 사매  
(부림말) (풀이말)

엇데...三千 무리라사...鎮壓하리오  
(임자말) (풀이말)

이 경우에는 「字」라도, 무리라사」가 풀이말이 되지 못하고, 각각 부림말, 임자말로 기능하여 뒤에 오는 풀이말에 종속된다. (잡음씨에 도움토씨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각각 그 토씨의 용법에서 설명하였고, 토씨 「-이라」에 다른 도움토씨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p. 393 참조)

「-을시(씨)언덩/을선덩」

85. 가정, 조건을 나타내며, 즐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 「-으시-」를 앞세우기도 한다.

86. 어원적으로는, 이 씨끝은 「-을」(씨끝)+「스」(대인이름씨)+「-이-」(잡음씨)+「-거-」(안맺음씨끝)+「-ㄴ덩」(불구법의 씨끝)으로 분석된다.

「-을디언덩」은 「-을」+「드」+「-이-」+「-거-」+「-ㄴ덩」으로 분석하여 처리되고, 「-을썬니언덩」, 「-을썬르미언덩」도 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 처리되는 것이므로 (→p. 581), 「-을시언덩」도 이렇게 분석해서 처리해야 마땅할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을시언등」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은등」은 불구법의 씨끝이며, 「-을디언등, -을썩니언등, -을썩르미언등」도 모두 불구법으로 쓰이고 있으나, 「-을시언등」은 조건을 나타내는 제약법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을시언등」을 분석하게 되면, 「-은등」은 불구법과 제약법에 다 들게 될테니, 이러한 설명방법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을디언등, 「-을썩니언등, 「-을썩르미언등」의 「-디어-, 「-니어-, 「-미어-」는 「-더-, -너-, -며-」로 축약되지 않는데, 「-을시언등」에 있어서는 「을선등」으로 축약되는 일이 있으니, 이것도 이 어형이 다른 어형과 같은 것이 아니란 증거이다.

내 病을 도케 을시언등 닐웨 王 ㄷ의요미 므슴흐료 (석보 24:50-1)

▽이 말은; 부인이 왕에게, 왕의 병을 고쳐 줄테니 이제만 왕의 자리에 앉게 해 달라 한 데 대한, 왕의 대답이다.

오직 아바넝 病이 도흐실시언등 모물 百千디위 브려도 어렵디 아니  
하니 (월석 21:216)

오직 芝蘭으로 히여 도케 을선등 엇메 구티여 지블 이웃하야 살라  
하리오 = 但使芝蘭秀 何須棟宇隣 (주) 言與侍御로 心如芝蘭之秀 | 언등 不  
必同里而居 | 나라 (두언 20:29)

오직 閭閻으로 히여 도로 捐讓을선등 구티여 술와 대왜 오래 거츠  
리슈물 議論하리아 = 但使閭閻還揖讓 敢論松竹久荒蕪 (두언 21:3)

☆城中에서 훈말 팔로 니브를 밧고느니 서르 그리차 을선등 어느  
두것 비디 서르 마조물 議論하리오 = 城中과米換衾裯 相許寧論兩相直  
(두언 중간 12:15)

### 「-사」

87. 극히 드문 예로서 도움풀이씨 「하다」를 접속하여 ‘당위’를 나타  
낸다.

출히 說法 마오 涅槃애 어서 드사 하리로다 하다가 (석보 13:58)

▽참고로, 같은 사실을 기술한 법화경의 글을 보인다.

내 출히 說法 말오 涅槃애 셤리 드로리라타가 = 我寧不說法하고 疾入  
於涅槃호리라타가 (법화 1:235)

이것은 한 씨끝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나. 우선 여기 실어 두고 뒷날을 기다  
리기로 한다.

### (2-2) 불구법(양보법)

88. 불구(不拘), 양보, 앞의 사실을 긍정하기는 하나 뒤에 부정적인  
사실을 함축하는, 제약법과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불구법」  
또는 「양보법」이라 한다.

#### 「-으나」

89. ‘불구’(사실임을 인정하나 그러나)의 뜻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  
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人鬼도 하나 數업슬씨 오늘 몬 솟되 (월석 2:45, 기 26)

비록 三惡道報를 오래 아나 브라노니 仁者 | 니르샤 (월석 21:79)

내...모미 비록 일즉 업디 아니하나 내 보니 = 此...身이 雖未曾滅하나  
我 | 觀... (능엄 2:4)

구루멧 히 불 존하나 더운 하늘히 서늘하도다 = 雲日如火炎天涼 (두언  
6:35)

흔 願을 일우면 저그나 기튼 즐거부미 이시려니와 (월석 2:5)

▽이 예의 「저그나」도 ‘그것이 적기는 하지만’의 뜻으로 해석하여 한 마디  
로 볼 수 있으나, 파생된 어찌씨로 볼 수도 있을것 같다.

비 비록 흔 마시나 가지 달오미 이실씨 = 雨雖一味나 而種有差別故로  
(법화 3:3)

衡山이 비록 조고맛 마울히나 爲頭하야 불러 큰 義를 너피도다 = 衡  
山雖小邑 首唱恢大義 (두언 6:22)

비록 내 뜰 아니나...어루 聖教 ㄷ의리니 = 雖非我意나...堪爲聖教 | 니  
(법화 3:157)

90. 「-을디나」는 거의 녹아붙은 한 씨끝으로 볼 수 있겠으나, 「-디-」  
는 매인이름씨 「ㄷ」와 잡음씨 「-이-」의 축약으로 보는 것이 편리할듯  
하다. (만일 이러한 것을 죄다 녹아붙은 씨끝으로 보게 되면, 이와 비슷



한 다른 것들—이런것은 매우 많다—도 모두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씨끝의 수효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말스미 어루 베푸미 잇다 어루 닐을디나… 理 | 本來 말슴 업손다  
라=可謂… 有言可宜… 理本亡言 (금강삼가 3:9)

막대 디퍼 時로 能히 나갈디나 님굼 門에 네 노름과 다르도다=策  
杖時能出 王門異昔遊(두언 8:13)

91. 안맺음씨끝 「-오/우-」, 「-으시-」, 「-습-」, 「-으리-」를 앞세운다.

「-우나」: 내 비록 戒律을 마초호나 三摩地에 믅스미 상네 호터 뭐  
여=我 | … 雖具戒律호나 於三摩地에 心常散動호야 (능엄 5:56)

내 호마… 브디 欲을 조초나 그러나 이 衆生이… =我 | 已… 隨意所欲  
호나 然이나 此衆生이 (법화 6:7-8)

「-으시나」: 祥瑞도 하시며 光明도 하시나 罔업스실씨 오늘 몬 솟되  
(월석 2:45, 기 26)

一切法에 方便으로 니르시나 다 智地에 다득르시니=於一切法에 以方  
便으로 說호시나 而皆到智地호시니 (법화 3:6)

비록 흔 사르미 마리시나 마른 한 사르미 브디라 (원각, 상 1-2:96-7)

다음 어형은 안맺음씨끝 「-으시-」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

晉山에 비록 스식로 브리여시나 魏闕에 오히려 브들 머깃노라=晉山雖自  
棄 魏闕尙含情 (두언 8:16)

두 서웁 설흔 사르미 비록 사라시나 목수미 실 혼호라=兩京三十口 雖在  
命如絲 (두언 8:36)

「브리여시나, 사라시나」는 각각 「브리여+이시나, 사라+이시나」에서 변한  
어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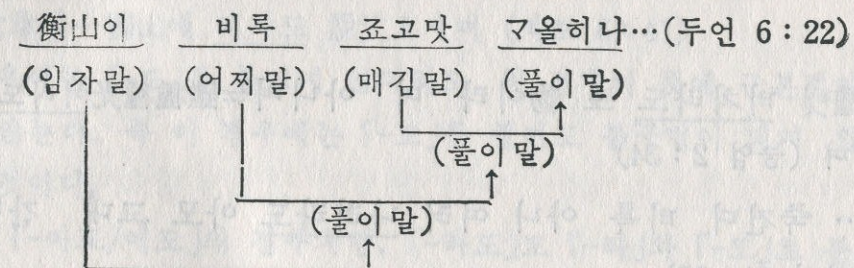
「-스븐나」: 忍辱仙人이실씨 손발을 바히스븐나 歌利를 救호려 호시  
니 (천강곡 상, 기 93)

威化振旅호시노로 興望이 다 몰즈븐나 至忠이실씨 中興主를 세시니  
(용 1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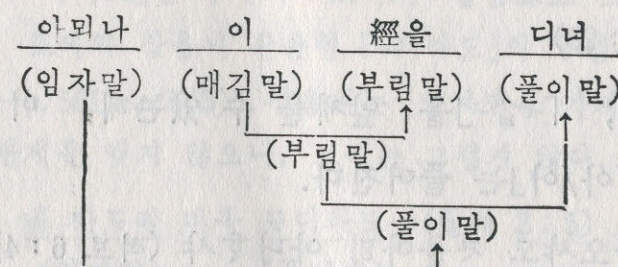
「-으리나」: 비록 얼굴 量의 크며 저고물 닐오미 몰호리나 證호삼과  
브트산 身을브터 (원각, 상 1-2:61)

英雄의 버혀 브터슈미사 비록 말리나 文彩와 風流는 이제 오히려  
잇도다=英雄割據雖已矣 文彩風流今尙存 (두언 16:25)

92. 「-이나」는 토씨로 파생되는 일도 있는데, 토씨와 잡음씨의 활용형과 다른  
점은, 잡음씨는 풀이말로 기능하기 때문에, 입자말이 있어야 하며(비록 밖으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속뜻으로 있어야 한다), 또 뒤에 오는 다른 풀이말에 종  
속되는 월성분으로 기능하지 않으나, 토씨는 이 두가지 점에서 이와 다르다.



이 경우의 「마울히나」의 「-이나」는 잡음씨의 활용이나,



의 「-이나」는 토씨이다. (→p. 382)

「-아도/어도/라도/나도」

93. 양보의 뜻을 나타내며, 「-아도/어도」의 「아/어」는 제약법의 그것  
과 같이 변동하고, 잡음씨에서는 「-라도」, 움직씨 「오-」에서는 「-나도」  
로 변동한다.

「-어도」: 屏風과 帳과 마리여도 곧 能히 밋디 몬호느니라 =屏帷之  
隔에도 即不能及也호느니라 (능엄 2:33)

이제 나히 여웁 들헤 니르러도 또 달음 업스이다=乃至於今年六十二에  
도 亦無有異호이다 (능엄 2:8-9)

「니르러도」의 줄기는 「니를-」이다.

비록 三乘을 닐어도 다몬 菩薩 마르초미라 호시더라 (석보 13:59)

비록 至極히 貴호매 이셔도 믅츠매 變호야 업수물 조츠리어늘=雖居



至貴<sup>하</sup>야도 終從變滅<sup>하</sup>리어 놀 (능엄 2:3)

하다가 愚癡 하도 상네 觀世音菩薩을 念<sup>하</sup>야 恭敬<sup>하</sup>면 곧 癡 여히요  
덜 得<sup>하</sup>리니 = 若多愚癡<sup>하</sup>야도 常念恭敬觀世音菩薩<sup>하</sup>면 便得離癡<sup>하</sup>리니  
(법화 7:62)

밥 머그라 물러와셔도 大庭入저글 입주리니 = 退食吟大庭(두언 24:41)  
「-라도」: 내 아드리 비록 므디라도 사오나불씨 나라홀 앓이리니(월석 2:5)

비록 種種<sup>앗</sup> 비치라도 또 物이라 너 아니며 = 雖種種<sup>光</sup>이라도 亦物이라 非汝<sup>1</sup>며 (능엄 2:34)

내 어미... 죽건디 비록 아니 여러 나리라도 아모 고대 간디 모르  
노이다 (월석 21:27)

「-나도」: 소니 오나도 미요물 드던히 너기고 나 迎逢 아니<sup>하</sup>노라  
= 客至從噴不出迎 (두언 25:23)

94. 안맺음씨끝 「-으시-」, 「-습-」을 앞세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시」는 「샤」로 변동하고, 「아/어」는 줄어진다.

「-으샤도」: 나라해 도라오샤도 즈을아비 아니<sup>하</sup>샤 (석보 6:4)

므를 걸나샤도 므리 뭐디 아니<sup>하</sup>고 (월석 1:28)

「-스바도」: 未來<sup>엇</sup> 衆生들<sup>흔</sup> 비록 如來入 誠實<sup>흔</sup> 마를 듣즈바도 당  
다이 疑惑<sup>하</sup>리니 (월석 21:15)

오직 <sup>흔</sup> 부텃 일후를 念<sup>하</sup>스바도 功德이 그지 업스리니 (월석 21:136)

비록 頂受<sup>하</sup>스바도 비우수물 뵈티 못<sup>하</sup>리니 (월석 21:15)

#### 95. <이 씨끝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

(1) 이 씨끝은 「-아/어」와 도움토씨의 「-도」로 분석될것 같이 보인다. (20)  
그러나 「-아/어」는 제약법 씨끝인데 「-아도/어도」는 그와 대립되는 불구법

(20) 필자의 아래 논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역시 이  
경우에는 도움토씨 「-도」를 분석해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15세기 국어의 토씨 연구」(한글 150호, 1972.9.)

씨끝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도움토씨는  
폴이씨의 활용형에 붙었을 때는 그 폴이씨 활용형의 문법범주를 바꾸지 않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도/어도」는 분석하지 않고서 단순한 불구법의 씨  
끝으로 보는 것이 좋다.

(2) 그러나 「-아/어」에 「-도」가 붙어도 불구법이 되지 않고, 제약법을 그  
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용법에 있어서만은 「-아/어」와 「-도」가  
분석된다. (→p. 536)

世尊이...柳山에 겨샤도 說<sup>하</sup>시며 (석보 6:41)

이 경우에는 「-도」를 붙이지 않더라도 월 전체의 뜻에 근본적인 변동을 가져  
오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는 「-도」를 붙여도 불구법이 되지 않고 제약법이  
되는 것이다.

(3) 「-아도/어도」의 경우처럼, 「-라도」도 「-라」와 「-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아도/어도」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분석하지 않는다.

(4) 「-이라도」는 두개의 토씨의 겹침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p.  
405), 토씨와 잡음씨 활용형 「-이라도」의 구별은, 앞의 「-나」, 「-라」의 경우  
처럼(→p. 561, p. 565), 잡음씨는 임자말을 가지고, 뒤의 성분에 대해서 종속  
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나, 토씨는 그렇지 않다.

내 아드리 비록 므디라도...(월석 2:5)

(임자말) (폴이말)  
↑ ↑

의 「-이라도」는 잡음씨이나,

호 字<sup>1</sup>라도 사매...(두언 16:22)

(부림말) (폴이말)  
↑ ↑

의 「-」라도」는 두 토씨의 겹침이다.

(5) 「-나도」에서도 「-도」를 분석해 낼 수 있을것 같으나, 「-아도/어도」나  
「-라도」에서와 같은 이유로 분석하지 않는다.(어원적으로는 그렇게 분석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96. 「-아도/어도」 뒤에 마디가 오지 않고 도움폴이씨 「하다」가 오는  
일이 있다.

阿逸多야 이 善男子 善女人이 구티여 날 爲<sup>하</sup>야 塔寺 세며... 衆僧  
供養 아니<sup>하</sup>야도 하리니 (월석 17:37)



眞實로 眼力이 이 곤흔들 알면 아랫 五根은 子細히 아니 닐어도 호  
리라 (월석 17:59)

이것은 연결법(→p.621 이하)에 매우 가까우나, 그 불구법적인 뜻이  
뚜렷하므로 연결법으로 보지 않는다.

#### 「-고도/오도」

97. 불구의 뜻을 나타내며, /ㄱ/은 /ㄴ/과 ㅁ이 밑에서 줄어진다. (잡  
음씨와 「-으리-」 밑에서도 줄어질 것이나, 그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늘히 현마 즐겁고도 福이 다아 衰하면 受苦로 卑요미 地獄두고 다투  
으니 (월석 1:21)

비록 그 病이 가비얍고도 醫와 藥과 病 간슈호리 업거나 (석보 9:36)

비록 사르미 무레 사니고도 중싱마도 悶호이다 (석보 6:5)

더에서 주거 人間애 나고도 쇠어나... 라귀어나 ㄷ외야 (석보 9:15)

비록 圓코도 精티 悶호며 (월석 17:75)

비록 尊호야 기픈 지비 이서 五欲을 전싯고도 저믄 고불 양즈를  
오래 밋디 悶홀꺼시니 (석보 11:36)

듣고도 悶 드른드시 호며 보고도 悶 본드시 흘씨오 (월석 10:20)

남기 높고도 불휘를 바히면 여름을 다 ㅁ아 먹느니 (천강곡 상, 기 99)

피 곤흔 눈이 므의엿고도... ㄱ 길히 이불씨... 사르쇼셔 호니 (천강  
곡 상, 기 164)

보미 가고도 고지 오히려 잇고=春去호고도 花猶在호고 (금강삼가 3:18)

앙이 모딜오도 無相猶矣실씨 二百年 基業을 여르시니이다 (용 103장)

몸이 어울오도 머리 제여고밀씨 (천강곡 상, 기 134)

旃檀香은 모매 브르면 브레 들오도 브리 悶 술며 (월석 1:26)

시혹 사르미 ㄷ외오도 ㄴ가불 ㄴ미 죠이 ㄷ외야 (석보 9:16)

98. 「-고도」는 나열을 나타내는 씨끝 「-고」에 도움토씨 「-도」가 연결된 것  
이다. (→p.586) 그러므로 「-고도」를 분석해야 할지, 분석하지 않고 불구법의

단순한 씨끝으로 보아야 할지는 문제이다.<sup>(21)</sup>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석하지 않는  
방법을 취했는데, 그 이유는, 분석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 보인 모든 예들을 모두  
「-고」와 같이, 「나열법」에 넣어야 하겠는데(「-도」는 앞 말의 문법범주를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들을 죄다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  
문이다.(이 예들은 ‘나열’보다 ‘불구’의 뜻이 현저히 강하다.)

그러나, 다음 예와 같이, 「-고도」가 ‘나열’의 뜻을 강하게 가질 때는 두 형태  
소를 분석하여, 나열법에 넣는다.

四衆을 머리서 보고도 ㅅ 부러 가 절호고 (석보 19:30)

#### 「-으니와」

99.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측을 뒤집는 뜻을 함축하며, 반드시  
안맺음씨끝 「-거/나-」, 「-가-」, 「-아/어-」를 앞세운다.

100. 안맺음씨끝 「-거-」, 「-가-」나 「-아/어-」는 한 형태소로서의 독자적인 뜻이  
다소 박약하며, 「-니와」는 반드시 이러한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한 한 씨끝으로 다루는 것이 편리할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거-」, 「-가-」, 「-아/어-」는 분명한 안맺음씨끝 「-더-」와 병행적으로 쓰이는 일이  
있고(→p.553), 또 안맺음씨끝 「-으시-」는 원칙적으로 그에 뒤따르기 때문에,  
「-거-」, 「-가-」, 「-아/어-」와 「-니와」를 분석하지 않으면, 안맺음씨끝과 맺음씨  
끝의 놓이는 차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안맺음씨끝은 맺음씨끝에 앞선다)을 깨  
뜨리는 결과가 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예는 이 밖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분석하  
지 않고 처리하면, 맺음씨끝의 수효가 많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이 점  
으로 보더라도 분석하지 않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 101. 「-거/나-」를 앞세우는 경우:

「-거-」, 「-가-」의 /ㄱ/은, /ㄴ/과 ㅁ이와 「-으리-」 다음에서, 그리  
고 잡음씨에서는 줄어진다. 또 「-오-」에서는 「-나-」로 변동한다.

「-거니와」: 衆生은...그지업시 受苦호거니와 부려는 죽사리 업스실씨  
寂滅이 즐겁다 호시니라 (월석 2:16)

前塵은 크며 적거니와 보몬 켜며 움추미 업스니라 =前塵은 大小]어

(21) 주 20에서 말한 논문에 있어서는,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 일이 있다.



니와 見은 無舒縮하니라 (능엄 2: 41)

幻妄은 相을 니르거니와 그 性은 眞實入 妙覺 불조 體니=幻妄은 稱  
相이어니와 其性은 眞爲妙覺明體니 (능엄 2: 105)

湘妃의 거문고 노던 저근 보디 물거니와 이제 니르리 어르누근 대는

마르물 디러 사랏도다=不見湘妃鼓瑟時 至今斑竹臨江活 (두언 16: 30)

世尊入 神奇하신 이리사 經에 다 닐엇거니와 내 나히 열힌저기 부  
테 오샤 (석보 24: 19)

病은 새는 오직 곱넙 아래 깃기섯거니와 늘난 매는 쫓 드로매 하늘  
할 마리더 늑니라=病鳥는 只栖蘆葉下커니와 俊鷹은 才學에 搏天飛하  
느니라 (남명, 하: 16)

「-어니와」: 브리 盛하야 나면 혼 뒤를 술어니와 모딘 이비 盛하야  
나면 無數혼 뒤를 술며 (석보 11: 42)

삶지느닌 變이 두의어니와 삶지디 아니하느닌 變이 아니라=皺者는  
爲變이어니와 不皺는 不變이라 (능엄 2: 10)

아버시 子息 스랑호든 아니한 스시어니와 하룻 아츰 命終하야 (석  
보 6: 3)

물읏 어루 돌아보낼 거슨 自然히 네 아니어니와 네 돌아보내디 묻  
흠 거슨 너 아녀 뒤류=諸可還者는 自然非汝어니와 不汝還者는 非汝而  
誰리오 (능엄 2: 30)

「-나니와」: 凡에 건내뛰여 聖에 드로미 처섬브터 마초뻬 證하야 가  
져오나니와 천마론 주근 드레 즈모미니 =超凡入聖호미 從頭하야 勸證  
將來어니와 爭奈 死水에 沉潛이니 (금강삼가 2: 57)

102. 다음과 같은 말들은 「더」, 「쥔」이 씨끝 속에 녹아 들어간것 같  
이 보이나, 매인이름씨로 보는 것이 설명에 편리하다.

福과 德과 難量호미 어려우믄란 아직 들디어니와 어니 이 住 업슨  
道理오=福德難量으란 且置어니와 怎生是無住底道理오 (금강삼가 2: 20)

나라해서 모로매 사호물 行홀디어니와 사르문 戈鋌을 그치시과더

스랑하듯다=國須行戰伐 人憶止戈鋌 (두언 20: 4)

보빅로 布施는 오직 慳貪을 度할쥬어니와 般若는 바르 無明을 度

하논디라 =實施는 只度慳貪이어니와 般若는 直度無明이라 (금강삼가  
4: 49)

103. 「-거-」에 다시 안맺음씨끝 「-으시-」와 「-으리-」가 연결되는 수  
가 있는데, 「-으시-」는 원칙적으로 「-거-」에 뒤따르고, 「-으리-」는 그  
에 앞선다.

「-거시니와」: 王과 중님과는 남편 氣韻이실찌 길흘 쫓디 아니커시니와

나는 宮中에 이십제 두셔 거르메서 너무 아니 건다니 (월석 8: 93)

그런드로 이 女ㅣ 아니한데 成佛을 信티 물거시니와 오직 深遠하

실찌 大智 다 비취샤 十方이 훨하야 生佛이 존하며 罪福이 둘 아

니니=故로 不信此女ㅣ 須與成佛이어시니와 唯其深遠하실찌 則大智ㅣ 遍照

하샤 十方이 廓然하야 生佛이 等同하며 罪福이 不二하니 (법화 4: 174-5)

濁世에 行을 現하시는 法이어시니와 七寶樹下 金剛體中에 이 이리

이시려=濁世現行之法이어시니와 七寶樹下 金剛體中에 有是事哉아 (능엄  
6: 98-9)

예외적으로 「-으시-」가 「-거-」에 앞서는 일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와 「-니와」가 녹아붙는 경향이 강해진다.

「-으시거니와」: 如來와 聖王과 그 相으론 곧 毫釐마도 어긋요미

업스시거니와 그 證으론 天地 므스기 멀리오=如來與聖王이 以其相

則毫釐無差어니와 以其證則何遠이리오 (금강삼가 4: 63)

「-으리어니와」: 더 부텃 나라헛 功德壯嚴을 내 혼 劫이며 혼 劫이

남도록 닐어도 몰다 니르리어니와 그러나 더 부텃 싸히 雜말 업시

淸淨하고 겨지비 업스며 (석보 9: 10)

色은 오히려 어루 빠혀리어니와 空을 엇테 어을오리오=色은 猶可析  
이어니와 空을 云何습하리오 (능엄 3: 70)

足히 흰 머리 드렛는 나흘 마츰리어니와 구퉁여 노픈 士의 무레 居

하야리아=足了垂白年 敢居高士差 (두언 6: 48)

104. 「-가(아)-」를 앞세우는 경우:

「-가니와」: 내 命 그추미사 드더니 너기가니와... 이 네흘 못 보아 하



노라 (월석 10:4)

듣좁고 깃거하<sup>ㄴ</sup>가니와 그러나<sup>ㄴ</sup>디 흔녀고로 헤여<sup>ㄴ</sup>흔딘 (월석 8:93)

「-아니와」: 내 眞實로 宮中에 사름 잇는 주를 알아니와 오직 婦人의 남편 섬교몬 삼가디 아니호미 몬<sup>ㄴ</sup>리며 (내훈, 2하:48-9)

105. 「-아/어-」를 앞세우는 경우:

한 宗親人 알피 蓮人 고지 안자 비실씨 國人人 疑心이 하마 업서니와 한 부텃 서리에 아비님 아라 보실씨 國人人 疑心이 더욱 업스니이다 (천강곡 상, 기 137)

八諦는 곧 우홀 어울워 닐어니와 또 無量四諦 잇느니 (법월 14:38)

▽닐어←니르+어

저기 므스미 보물 불긴 전츠로 이븐 하마 줄줄하야니와 손지 나몬 疑心이 잇는 전츠로 므스미 여러 아디 몬도다=稍明心見故로 口已默然<sup>ㄴ</sup>하야니와 尙有餘疑故로 心未開悟<sup>ㄴ</sup>도다 (능엄 1:102-3)

그 스시에 고터 득외요물 또 열히음 그슴하야니와 또 날로 微細히 스랑<sup>ㄴ</sup>면=其間流易을 且限十年<sup>ㄴ</sup>하야니와 若復令我로 微細思惟<sup>ㄴ</sup>면 (능엄 2:6-7)

106. 이 어형에는 다시 안맺음씨끝 「-으시-」, 「-습-」, 「-으리-」, 「-오/우-」 및 그 연결체가 연결되는데, 「-으시-」는 「-아/어-」에 뒤따르고, 「-습-」, 「-으리-」는 이에 앞선다.

「-어시니와」: 이 妙音菩薩이 善根을 기피 심거시니와 世尊하 이 菩薩이 엇던 三昧에 住<sup>ㄴ</sup>시관디... 衆生을 度脫<sup>ㄴ</sup>시느니잇고 =是妙音菩薩이 深種善根<sup>ㄴ</sup>하야시니와 世尊하 是菩薩이 住何三昧<sup>ㄴ</sup>시관디... 度脫衆生<sup>ㄴ</sup>시느니잇고 (법화 7:32)

오직 悉達太子 | 一生애 成佛<sup>ㄴ</sup>하야시니와 나<sup>ㄴ</sup>닌 다 分 업고 (원각, 상 2-2:166)=唯悉達太子 | 一生애 成佛<sup>ㄴ</sup>하야시니와 餘皆無分<sup>ㄴ</sup>고 (원각, 상 2-2:162)

「-스바니와」: 나는 부텃 히<sup>ㄴ</sup>마로...두 菩薩을 보스바니와 未來엿 衆生이 엇베<sup>ㄴ</sup>하야사... 두 菩薩을 보스<sup>ㄴ</sup>바려노 (월석 8:17)

부텃 慈悲人 마르치샤물 님스와... 큰 饒益을 언즈와니와 世尊하...

엇베 일후미 等覺菩薩이니잇고=蒙佛慈誨<sup>ㄴ</sup>하와... 獲大饒益<sup>ㄴ</sup>하와니와 世尊하... 云何名爲等覺菩薩이니잇고 (능엄 7:67)

「-으려니와」: 劫은 셨리 다으려니와 더 부텃... 工巧<sup>ㄴ</sup>하신 方便은 다 오미 업스리라 (석보 9:29)

흔 願을 일우면 저그나 기튼 즐거부미 이시려니와 내 말웃 아니 드르시면 느의 즐거본 므스미 업스레이다 (월석 2:5)

▽「-으리-」+「-아/어-」→「-으려-」, 「-으리-」+「-거-」→「-으리어-」

로서 두 어형의 차이가 유지된다. 그러나 이 두 어형의 의미상의 차이는 별로 없었던듯 하여, 다음과 같은 용례가 보인다.

劣想이 나려니와 (법화 7:13)

와 같은 사실을 기술한 ‘월석’에서는,

劣想을 내리어니와 (월석 18:72)

로 되어 있다.

「-우려니와」: 내 나는 느물 그츄몬 므츄내 고터디 아니호려니와 술 勸호맨 님을 마리 업도다 =絕華終不改 勸酒欲無詞(두언 23:54)

「-으시려니와」: 모를젠 스승이 (나를) 전네시려니와 아란 내 건너리 이다 =迷時엔 師度 | 어시니와 悟了<sup>ㄴ</sup>하얀 自度 | 리이다(육조, 상:33)

▽「-으시-」는 「-으리-」에 앞선다.

「-스<sup>ㄴ</sup>려니와」: 智慧 이시면 信<sup>ㄴ</sup>스으려니와 智慧 업스면 疑心<sup>ㄴ</sup>하야 큰 利를 기리 일호릴씨 =蓋有智則信<sup>ㄴ</sup>스으려니와 無智則疑<sup>ㄴ</sup>하야 而永失大利<sup>ㄴ</sup>릴씨(법화 3:33)

「-은마르」

107.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측을 뒤집는 뜻을 함축하며, 반드시 안맺음씨끝 「-거/나-」, 「-가-」, 「-어/아-」를 앞세운다.

안맺음씨끝과 「-은마르」를 분리하는 이유는, 앞의 「-니와」의 경우와 같다.

108. 「-거/나-」를 앞세우는 경우:

「-거,가-」의 /ㄱ/은 앞에서 설명한 조건 하에서 탈락하며, 「오-」 밑



에서는 「-나-」로 변동한다.

「-건마론」: 물 깊고 비 업건마론 하늘히 命<sup>하</sup>실씨 물 툇자히 건너  
시니이다 (용 34장)

두 兄弟 씨 하건마론 藥이 하늘 계우니 아비님 지<sup>하</sup>신 일흠 엇더<sup>하</sup>  
시니 (용 90장)

不可思議 神通入 이리 거시건마론 衆生들히… 또 惡道에 빠러디<sup>하</sup>  
니 (월석 21:116)

如來 智慧도… 衆生의 몸 안해 ㅁ젯건마론 오직 한 凡愚 |… 利益  
을 得디 못<sup>하</sup>느니라 (원각, 상 1-2:101)

篋中엿 글위리 諷諫할 말스미 답사하건마론 宮闕에 奔走호미 限隔  
호도다 =篋中積諷諫 宮闕限奔走 (두언 8:4)

「-언마론」: 내그에 모딜언마론… 罪를 니저 다시 브려시니 (용 121장)  
들히 다 의언마론 그러나 그 中에 空을 觀호미 오히려 더으니라 =  
二俱差過 |언마론 然於中에 觀空이 猶勝호니라(금강삼가 4:31)

宮女로 놀라샤미 宮監의 다시언마론 問罪江都를 느치리잇가(용 17장)  
다보지 나미 불휘 업순줄 아니언마론 漂蕩호야 노푼 버르물 좇느니  
=蓬生非無根 漂蕩隨高風(두언 6:53)

‘내훈’에 때로는 「-나마논」을 쓴 예도 보인다.

알푼디 아니흔 주리 아니언마논=非不痛也 |언마논(내훈 2하:1)

「-난마론」: 그디내 머리셔 ㅁ비 오난마론 如來入 舍利는 못 나소려  
어다 (석보 23:54)

109. 「-을디언마론」은 한 씨끝으로 녹아붙은것 같이 보이기도 하나,  
이 「-디-」도 매인이름씨의 「ㄷ」와 잡음씨 「-이-」의 축약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히 모로매 觀名을 牒<sup>홀</sup>디언마론 이제 그리 할까 저허 =—須  
牒觀名이언마론 今恐文繁호야(원각, 하 2-2:15)

110. 안맺음씨끝 「-으시-」, 「-으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데, 「-으  
시-」는 그에 뒤따르고, 「-으리-」는 그에 앞선다. (이 경우에 /ㄱ/이 탈

락한다.)

「-거신마론」: 님그미 賢커신마론 太子를 못 어드실씨 누븐 남기 내  
러셔니이다 (용 84장)

님그미 시름호야 盜賊을 급히 너기거신마론 軍師 | 늘거 京都 | 거  
츠렛도다 =主憂急盜賊 師老荒京都(두언 22:46)

第一寂滅을 알어신마론 方便力으로 니르시느다 =知第一寂滅커신마론  
以方便力으로 說也 |시니락(법화 1:227)

亦不言不得이<sup>어</sup>신마론 但爲衆生의 所見不同호샤 =得 아니호샤를 나  
르디 아니커신마론 오직 衆生의 보미 존디 아니호물 爲호샤(금강 41)

이 그 數量을 헤음 아니어신마론 機를 혀샤 無邊호 境에 나사가게  
코져 爲호실씨 =不是算其數量이<sup>어</sup>신마론 爲欲引機호샤 造無邊境故로(원  
각, 상 2-2:155)

「-으리언마론」: 이 經이 도호 藥 존호야 머구매 萬病이 스러디여  
견내뿌여 金仙이 ㄷ으리언마론 오직 이 이베 숨쇼물 즐기디 아니할  
시니라 =此經이 如良藥호야 服來에 萬病이 消호야 超然作金仙이<sup>언</sup>마론  
只是不肯下口 |니라(금강삼가 3:62)

여희요미 ㅁ즈매 오라디 아니호리언마론 아스물 츠마 서르 브리래  
아 =別離終不久 宗族忍相遺(두언 8:60)

그 사랑호며 어엿비 너교미 어루 至極다 니르리언마론 그러나…  
(내훈 3:32-3)

111. 「-가(아)-」를 앞세우는 경우:

「-간마론」: 소너 珍重호 ㅁ들 받고져 칸마론 내 모물 도라보니 公卿  
이 아니로다 =領客珍重意 顧我非公卿(두언 22:19)

나도 또 僧榮과 慧可를 스승호간마론 모미 오히려 禪寂에 띠엿노라  
=余亦師榮可 身猶縛禪寂(두언 16:1)

「-안마론」: 이제 문득 본바다 이 解를 땡꼴안마론 그러나 ㅁ든 잇  
고 지죄 업서 =今輒效爲斯解안마론 然이나 有意志호고 無其才호야(법화  
1:9)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575



112. 「-아/어-」를 앞세우는 경우:

두 버디 빅 배안마룬 브르미 하늘 제우니 어마님 드르신 말 엇더호 시니 (용 90장)

能히 두르혀 솔편마룬 그러나 又 向호고 다든디 몰호물 가줄비니라 (월석 13:7)

解脫을 得호안마룬 그러나 이는... 足히 念흠거시 아니라(월석 13:5)  
넛마래... 닐오디 學과 無學이라 호안마룬 그러나 無學은 곧 羅漢이라 =舊說에...謂學與無學이라 호안마룬 然이나 無學은 即羅漢이라 (법화 4:46)

113. 안맺음씨끝 「-으시-」, 「-습-」, 「-으리-」 및 그 연결체가 다시 연결되는 일이 있는데, 「-으시-」는 「-아/어-」에 뒤따르고, 다른것은 이에 앞선다.

「-어신마룬」: 부테 大王을 니르샤디... 八萬四千塔을 세리라 호야신마룬 大王이 이제... 사르물 하 주기시느니 (석보 24:17)

妙를 從호야 圓호샤 호마 마초 德 일워신마룬 그러나 守衛호미 업스면 =從妙而圓호샤 既備成德호야신마룬 然이나 無以守衛호면 (법화 7:106)

「-스발마룬」: 아래 즈조 듣즈발마룬 즉자히 도로 니저 (석보 6:11)

「-으련마룬」: 即時에 正覺을 일우련마룬 ㄴ미 疑心호디 (월석 2:36)  
마르치샤물 듣조오면 제 어로 ㅅ스물 보련마룬 ㅅ가라곤 여희여샤 能히 ㅅ를 알리라 (능엄 2:23)

「-으시련마룬」: (悉達太子) 金輪王이 ㅅ외샤 四天下를 마슴아르시련마룬 ㄴ그니 病호니 주근 사름 보시고 世間 슬히너기샤 (석보 6:17)

ㄱ「-으시-」, 「-으리-」, 「-아/어-」가 연결될 때는 이 순서로 연결된다. (이 경우에는 「-으시-」가 「-아/어-」에 뒤따르지 않는다.)

「-스발련마룬」: 朝廷에 나사가면 머릿터럭마니나 社稷을 ㄴ스오련마룬 ㄴ구리 이제 이 ㅅ호니... 길 녀 돈노매 브리과라 =趨朝廷毫髮裨社稷 形骸今若是... 委行色(두언 6:53)

「-은들」

114. 양보의 뜻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현번 ㅼ운들 ㄴ미 오르리잇가 (용 48장)

오라 ㅎ들 오시리잇가 / 가라 ㅎ들 가시리잇가 (용 69장)

中土心得다 ㅎ들 賢弟를 매 니즈시리 (용 74장)

ㅎ다가 이를 브터 닛디 아니호면 머리 갓가 지비 ㄴ들 道애 ㅅ슴 利益이리오 =若不依此修호면 剃髮出家호들 於道애 何益이리오 (육조, 상:100)

赤脚仙人 아닌들 天下蒼生을 니즈시리잇가 (용 21장)

누비중 아닌들 海東黎民을 니즈시리잇가 (용 21장)

115. 안맺음씨끝 「-으시-」, 「-습-」을 앞세울 수 있다.

「-으신들」: 楊子江南을 ㅅ리샤 使者를 보내신들 七代之王을 ㅼ 마ㄴ리잇가 (용 15장)

주거가는 거식 일을 ㅅ 보신들 매 모르시리 (천장곡 상, 기 43)

「-스불들」: 東都애 보내어시닐 하리로 말이스불들 이곤 더고대 後△날 다르리잇가 (용 26장)

雜草木 ㅅ거다가 ㄴ출 거우스불들 ㅅ슴잇돈 ㅼ우시리여 (천장곡 상, 기 62)

116. <이 씨끝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1) 잠음씨 「-이다」에 이 씨끝이 붙은 「-인들」은 모두 토씨로 전성되어 버린 듯 하여, 정작 잠음씨 「-이다」의 활용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토씨 「-인들」에 관해서는 →p.393)

(2) 같은 꼴이 「은+ㅅ+ㄴ」로 분석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인이름씨 「ㅅ」에 토씨가 연결된 꼴이다. (→p.288)

「-디비(디위, 디외, 디웨)」

117. ‘앞 긍정(강조), 뒤 부정’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



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그리고 /병/이 없어짐에 따라 「비」 음절은 「위, 외, 웨」로 변한다.

「-디비」: 이 존흔 大士 | 慈悲願으로 大鬼王 모뎨 現<sub>하디비</sub> 實엔 鬼 아니라 (월석 21:129)

여들가짓 恭敬<sub>하</sub>는 法은 하나흔 比丘 | 큰 戒를 디녀 잇거든 比丘尼가 正法을 비호디비 업시우를 말씨오 들흔 比丘 | 큰 戒를 디뉴미 半들만 <sub>하</sub>야도 比丘尼 절<sub>하</sub>야 섬기디비 새 비호는 브들 어즈리디 말씨오... 여스흔 比丘의 經과 律와를 문디비 世間엔 밧브디 아니흔 이를 훈디 니르디 아니힐씨오 (월석 10:20-1)

受苦호몬 갓곤 거츠로뎨 브터 니디비 엇뎨 道애 브트리오 (월석 14:79)

이에 든 사르곤 죽디비 나디 몬<sub>하</sub>느니라 (석보 24:14)

三昧는 이엿 말론 正定이니 圓覺애 닐오디 三昧正受 | 라 호몬 正定中에 受用<sub>하</sub>는 法을 닐어 邪受에 폴히디비 梵語三昧 이엿 마래 正受 | 라 호미 아니라 (월석 18:68)

부터는 本來 變化 | 디비 사르미 몬홀 이리라 (월석 2:36)

처섬 佛家애 나다 혼 生<sub>이디비</sub> 生死애 나며 드느다 혼 生이 아니라 (월석 17:27)

衆生의 機感을 조차 盛<sub>하</sub>며 衰홀 썩르미디비 佛身法性은 本來 그 스시에 더으며 듀미 업스니라 (월석 13:61-2)

「-디위」: 空으로 아로뎨 사뎨던뎨 空이 제 아디위 고기는 반드기 아디 몬<sub>하</sub>려니썩 =以空으로 爲知<sub>1</sub>뎨 空이 則自知<sub>하디위</sub> 肉은 應非覺이어 니썩(능엄 3:44)

長遠勤苦는 갓곤 妄을 브터 니디위 엇뎨 道애 브트리오 =長遠勤苦는 由倒妄起<sub>디위</sub> 何關於道哉리오(법화 3:179-180)

소리를 因<sub>하</sub>야 分別 이쇼몬 緣心<sub>이디위</sub> 眞이 아니라 =因聲而有分別者는 緣心<sub>디위</sub> 非心之眞也 | 라(능엄 2:22)

八萬 四千은 곧 法을 表<sub>하</sub>썩<sub>니디위</sub> 혼 모매 어디 두료 =八萬四千은

特表法<sub>디위</sub> 一身에 何所施乎 | 리오(능엄 6:40-1)

놀난 매는 바르 虛空엔 大鵬을 티디위 엇뎨 울 미뎨 툃기를 도라보 리오 (남명, 상 :11)

「-디외」: (이 형태는 아주 드물다) 내 모로매 阮舍애 와 놀오져 하디외 이 湖灘을 저허 예 오미 아니니라 =自須遊阮舍 不是怕湖灘 (두언 8:50)

「-디웨」: 오직 노푼 놀애여 鬼神 잇는듯 호뎨 아디웨 그스므라 주려 주거 굴허에 몇귀을 이틀 알리오 =但覺高歌有鬼神 焉知餓死填溝壑 (두언 15:37)

여희엿다가 다시 서르 맛보니 偶然히 그리하디웨 어느 足히 期約<sub>하</sub> 리오 =離別重相逢 偶然豈足期(두언 22:22)

오직 梅花 | 켜느니라 니르디웨 어느 버드리 쯔 새로의요뎨 알리오 =只道梅花發 那知柳亦新(두언 18:20)

막츠매 君臣이 相合호뎨 取<sub>하</sub>리라 하디웨 엇디 品命의 달으뎨 議論<sub>하</sub>료 =會取君臣合 寧詮品命殊(두언 24:59)

118. 안맺음씨끝 「-으시-」, 「-습-」을 앞세울 수 있다.

「-으시디비」: 如來 다몬 혼 佛乘으로 衆生 위<sub>하</sub>야 說法<sub>하</sub>시디비 녀 나몬 乘이 들히며 세히 업스니라 (석보 13:49)

「-으시디위」: 武帝 | 眞理를 아디 몬<sub>하</sub>시디위 우리 祖師 | 허물 겨 산디 아니시니라 =武帝 | 不識眞理<sub>디위</sub> 非我祖師 | 有過 | 시니라(육조, 상:88)

「-습디비」: 世尊이 우리 나라해 오샤 滅度<sub>하</sub>시니 우리 나라해서 供養<sub>하</sub>습디비 그디내사 舍利를 몬 어드리라 (석보 23:52)

「-란디만뎨」

119. ‘알 긍정(강조), 뒤 부정’하는 뜻을 가진 접, 앞의 「-디비」와 비슷하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으시-」를 앞세우기도 한다.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제약법 씨끝의 「-란디」와 토씨 「-만딩」의 연결이나, 「-란디만딩」이 결합되면 불구법 씨끝으로 쓰이게 되므로, 전체를 녹아붙은 하나의 씨끝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다.

스식으로 이 물 남기 어즈러이 紛紛<sub>한</sub>란디만딩 海棕은 어느 모미 무레 特出호물 알리오 =自是衆木亂紛紛 海棕焉知身出群 <주> 言衆木이 自不與棕으로 並也 | 라(두언 18:20)

고기 잡는 비 놀요물 보노라 하야 서늘히 陰山엿 누니 느리고져 하느니 가디 물<sub>한</sub>란디만딩 漢人 마스랫 쉼이 업디 아니<sub>한</sub>니라 =儻然欲下陰山雪 不去非無漢署香(두언 14:16)

☆도토랏막대 디퍼 돈노미 물득기에 妨害<sub>한</sub>란디만딩 이 부러 무를 여희유미 아니니라 =杖藜妨躍馬 不是故離群 <주> 言老病하야 버데 가디 못<sub>한</sub>디웨 非故意離群也 | 라(두언 중간 13:49)

▽「-란디만딩」이 「-디비」와 비슷한 뜻을 가졌음은 이 끝의 예로써도 짐작이 된다.

「-으시란디만딩」: 白日이 올마가드록 하<sub>한</sub>시란디만딩 늘근 녀름짓는 노론 므숫거시 이셔 서르 즐교물 다<sub>한</sub>리오 =看弄漁舟移白日 老農何有罄交權(두언 22:7)

## 「-은딩」

120. ‘앞 긍정(강조) 뒤 부정’하는 뜻을 가진 접, 앞의 씨끝들과 비슷하나, 반드시 안맺음씨끝 「-거(어)-」를 앞세운다.

「-건딩」을 분석하지 않고 한 녹아붙은 씨끝으로 보는 것이 편리할것 같기도 하나, 앞에서 이와 비슷한 것들을 모두 분석했기에 여기에서도 분석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어신딩」이 쓰이고 있는 사실도 분석하는 편으로 기울여지게 한다.

넛 聖人넛 보라물 보미 맛당컨딩 모디 杜撰을 마를디니 아란다 =宜觀先聖標格이언딩 切忌杜撰이니 會麼아(몽산 20)

各各 緣의 길며 셤름과 根의 너브며 조보물 조츠시는(논) 전츠로 니르샤미 만<sub>한</sub>며 저그샤미 겨시<sub>한</sub>전딩 그 實은 性에 마즌 法이 내종

애 다오미 업스니 =蓋各隨其緣之賒促과 根之廣狹故로 說有豐約이어<sub>한</sub>신딩 其實은 稱性之法이 無所終窮<sub>한</sub>니(법화 3:188-9)

能所를 假說<sub>한</sub>호미언딩 實은 달오미 업스니라 =假設能所|언딩 而實은 無差<sub>한</sub>니라(영가, 하:83)

디햇 새 보리 우루미 브룬 氣分의 퍼브로미언딩 값간도 뜯 업<sub>한</sub>호니 =野禽이 鳴春호미 風氣宜使|언딩 曾無意謂<sub>한</sub>호니(법화 4:147-8)

121. 「-을디언딩」, 「-을쑤니언딩」, 「-을썩르미언딩」은 모두 매인이름새와 잡음씨의 활용으로 분석된다.

識體는 기프니 받득기 微細히 기피 스랑<sub>한</sub>홍디언딩 멀터이 데뿌미 묻<sub>한</sub>리니 =識體는 深潛<sub>한</sub>니 當微細沉思|언딩 不可龜浮|니(능엄 3:106)

모모로 端正히 <sub>한</sub>홍디언딩 등 구표미 묻<sub>한</sub>리라 =身體로 端正이언딩 不可背曲이니라(몽산 24)

오직 알핏 法을 體하야 미러 行할 쑤니언딩 다시 各別<sub>한</sub> 法이 업스니(월석 28:13)

알핏 드트리 제 어드울 쑤니언딩 보미사 엇테 덜리오 =前塵이 自暗이언딩 見이사 何虧損<sub>한</sub>리오(능엄 1:100)

슴과 分괘 사르미게 브틀 썩르미언딩 어느 理 닐오매 다르리오 =슴과 分괘 自於人耳언딩 何理| 異於言哉리오(영가, 하:58)

名利를 진실로 可히 어들 거시면 모미 주글 쑤니언딩 權要를 븐느니라 =名利苟可取 殺身傍權要(두언 25:15)

▽여기의 「주글쑤니언딩」은 ‘죽는 일이 있더라도’의 뜻으로서, ‘앞 긍정 뒤 부정’의 뜻이 아니라, 양보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122. 「-으시-」가 연결될 때는, 원칙적으로 「-거-」에 뒤따른다.

「-거신딩」: 伽耶入化는 特別히 機를 爲하샤 受하산 命이어<sub>한</sub>신딩 性에 마즌 그지 업스신들 알에 하실씨 =使知...伽耶之化는 特爲機하샤 所受之命이어<sub>한</sub>신딩 稱性은 無量이신들 케하실씨(법화 5:125-6)

오직 病을 對하야 藥 땡<sub>한</sub>르샤물 브트샤 맛당호물 조츠샤 니르실 쑤니어<sub>한</sub>신딩 엇테 一定<sub>한</sub> 法이 겨시리오 =祇緣對病設藥하샤 隨宜爲說이어<sub>한</sub>신딩 何有定法乎|리오(금강 40-1)



123. 일찍부터 「-으시-」와 「-거-」가 자리바꿈(전위)한 꼴이 나타나는 데, 이렇게 되면 「-건등」이 하나의 씨끝으로 녹아붙는 경향이 촉진된다.

「-으시건등」: 그럴씨 聖人이 機를 對<sub>하</sub>샤 延<sub>促</sub>을 毘<sub>시</sub>건등 本來 延<sub>促</sub>

업스니라 =故로 聖人이 對<sub>機</sub>샤 示<sub>現</sub>延<sub>促</sub>이<sub>어</sub>신등 而本無延<sub>促</sub>하<sub>니</sub>라(법화 5:88)

#### 「-을썌등」

124. 하나만을 강조하고 다른것은 무관함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이것은 매인이름씨 「썌」과 토씨 「\*-등」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토씨 「-만등」(→p.392)도 「-만」과 「-등」으로 분석해야 할 것인데, 그래놓고 보면 「\*-등」은 「썌」과 「만」에만 붙을 수 있는 극히 분포가 제약된 예외적인 토씨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토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만등」은 하나의 토씨로, 「-을썌등」은 하나의 씨끝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을썌니언등」은 분석하더라도 아무런 무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色蘊이 업<sub>을</sub>썌등 受想行識은 있<sub>느</sub>니라 (월석 1:37)

諸天을 아니 다 니<sub>를</sub>썌등 實엔 다 왜<sub>썌</sub>니라 (석보 13:7)

이 經을 조차 順<sub>을</sub>썌등 제 智分이 아니라 =隨順此經이<sub>언</sub>등 非己智分 이니라(법화 2:158)

소리 더 이 이<sub>실</sub>썌등 피사린 生滅 업서 =聲有彼此 이<sub>언</sub>등 響無生滅하<sub>야</sub> (법화 5:162)

출히 내 머리 우희 오<sub>를</sub>썌등 法師애 어즈리디 말며 =寧上我頭上이<sub>언</sub>등 莫惱於法師하<sub>며</sub> (법화 7:118)

125. 안맺음씨끝 「-으시-」, 「-습-」을 앞세울 수 있다.

「-으실썌등」: 衆生 위<sub>하</sub>야 비록 三乘을 니<sub>를</sub>실썌등 實은 一乘<sub>을</sub>니라 (석보 13:59)

如來 그딛 나라해 와 滅<sub>度</sub>하<sub>실</sub>썌등 實엔 우리들토 울위습<sub>는</sub> 전츠로 (석보 23:53)

「-스불썌등」: 衆生이 처섬 乃終을 보<sub>스</sub>불썌등 法身은 나며 드르샤미

업스시니라 (석보 23:44)

#### (2-3) 나열법

126. 나열, 첨가를 나타내는 이음법을 「나열법」이라 한다.

#### 「-고(구)/오」

127. 그 위에 다시 첨가하여 나열하는 뜻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첫소리 /ㄱ/은, /ㄷ/, 만이, 안맺음씨끝 「-으리-」, 잡음씨의 「-이-」 밑에서 줄어진다. 또 드물기는 하나 「-구」로 변동(임의변동)하는 일도 있다.

利樂은 도<sub>코</sub> 즐거불씨라 (월석 9:8)

고히 길<sub>오</sub> 놓<sub>고</sub> 고<sub>드</sub>며 (석보 19:7)

뵈<sub>오</sub> 괴<sub>외</sub>코 물가 (월석 9:21)

眷屬을 여<sub>희</sub>오 어딘 사<sub>르</sub>물 갖가비<sub>하</sub>야 (석보 13:22)

조흔 짜<sub>할</sub> 쓰<sub>설</sub>오 노<sub>픈</sub> 座 땡<sub>골</sub>오 便安히 연<sub>즈</sub>면 (석보 9:21)

善은 도<sub>흘</sub>씨오 逝<sub>는</sub> 갈<sub>씨</sub>오 解<sub>는</sub> 알<sub>씨</sub>니 (석보 9:3)

子<sub>는</sub> 아<sub>드</sub>리<sub>오</sub> 孫은 孫子<sub>니</sub> (월석 1:7)

色이 아<sub>니</sub>오... 空이 아<sub>니</sub>니 =非色이<sub>오</sub>... 非空이<sub>니</sub> (능엄 2:25)

/ㄷ/ 밑에서 /ㄱ/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때로는 줄기의 끝 /ㄷ/마저 주는 일이 있고,

꼭디 말<sub>오</sub>(월석 1:9), 說法 말<sub>오</sub>(법화 1:235) / 출히 說法 마<sub>오</sub> 涅槃 애 어셔 드사 하<sub>리</sub>로다(석보 13:58), 하<sub>닐</sub>도 마<sub>오</sub>(월석 7:14), 疑心 마<sub>오</sub>(월석 2:13)

또 줄기의 끝 /ㄷ/이 /ㄱ/ 탈락 이전에 줄어지고, /ㄱ/은 탈락하지 않는 일이 있다.

가<sub>스</sub>며<sub>고</sub>(월석 1:46)

나그내 시르<sub>는</sub> 깃<sub>들</sub>와<sub>며</sub> 소리<sub>에</sub> 니<sub>셋</sub>고 亭子<sub>는</sub> 놀<sub>가</sub> ㄹ<sub>을</sub> 썌<sub>차</sub>도다



=客愁連蟋蟀 亭古帶蒹葭(두언 21:28)

方丈山이 다 드레 니셋고 天台山이 다 구루메 비취엿도다 =方丈渾連水 天台總映雲(두언 16:44)

기슬 주숨쳐 누른 새 곶와 안갯고 말와매 두위이저 흰 고기 뛰놋다 =隔巢黃鳥並 翻藻白魚跳(두언 25:18-9)

五陵엿 豪貴하더닌 도르혀 갓맛고 갓숯햇 아히들히사 영이 흰 갓 오솔 니벳도다 =五陵豪貴反顛倒 鄉里小兒狐白裘(두언 25:42)

▽니셋고←니서잇고, 안갯고←안갯고←안자잇고, 갓맛고←갓맛고←갓맛잇고. (→p.421 이하)

128. 다음과 같은 어형은 모두 잡음씨 「-이다」의 활용이다.

더는 어루... 도즈쥬 뿔다 닐을디오 이논... 할미 나흘 절하다 닐을 디로다 (금강삼가 3:12)

▽「-디오」←「ㄷ(매인이름씨)+이오」.

當體는 悲心과 智心과 願心괘오 所依體는... (월석 9:21)

큰 悲心 發호몬 一切衆生을 너비 救호려 흘씨오 큰 慈心 發호몬 一切世間을 훈가지로 도보려 흘씨니라 (월석 9:22)

怨 하몬 衆魔 | 降伏 아니호씨오 信흠 어려우몬 群機 | 淳티 몬홀 씨라 (법화 5:64)

온 고든 아스물 爲호애오 또 飲食을 爲호미 아니니라 =所來爲宗族 亦不爲盤飧(두언 8:33)

나그내 病하야 머므러슈몬 藥을 因호애오 보미 김거늘 사몬 고줄 爲 호애니라 =客病留因藥 春深買爲花(두언 15:14)

129. 안맺음씨끝 「-으리-」, 「-으시-」, 「-습-」 및 「-습+시-」를 앞세울 수 있는데, 「-으리-」 밑에서는 /ㄱ/이 줄어진다.

「-으리오」: 그 數 | 算으로 몬내 알리오 오직 無量無邊阿僧祇로 날 움디니 (월석 7:70)

事 아니면 俗애 버므디 몬호리오 理 아니면 眞애 맞디 몬호리니 (법화 5:7)

셜로몬 千里에 갈 물와 곤호리오 氣運은 萬人엿 將帥와 곶오라 =疾禁千里馬 氣敵萬人將(두언 16:36)

「-으시고」: 耶輸 | 그 괴별 드르시고 羅睺羅 더브러 노푼 樓 우희 오르시고 門들홀 다 구디 즈겨 뒗디시니 (석보 6:2)

부테 겨샤디 일후미 釋迦牟尼시고 어마님 일후몬 摩耶 | 시고 아바님 일후몬 淨飯이시고... (월석 2:9)

뻬 아니시고... 幻 아니시니라 (원각, 상 2-2:42)

곧 阿舍과 方等과 般若왜시고... (능엄 1:18)

「-습고」: 그뻬 王이 노푼 床 노쥬고... 眞珠 그므를 우희 들습고 부터를 請호스바 (월석 7:37)

二隊玄甲을 보습고 저하니 (용 59장)

諸子 | ... 아바니미... 菩提를 일우시다 들쥬고 다 보리 브리고... (법화 3:96)

「-스브시고」: 그 金像이 世尊 보스브시고 合掌하야 (월석 21:204)

처섬 브라스바 涅槃을 들즈브시고 煩惱를 여희시니 (월석 21:2, 기 414)

우홀 돕스오시고 아렐 利하야미 =佑上利下(법화 7:156)

130. 이 활용형 다음에는 도움토씨 「-샤」, 「-셔」, 「-도」, 「-브터」가 붙을 수 있다.

「-고샤」: 지조 겻구고샤 須達이와 舍利弗와 精舍를 짓더니 (석보 6:35)

罪苦 六道衆生 爲하야 너비 方便을 펴 다 解脫케 호고샤 내 모미 佛道를 일워지이다 (월석 21:18)

이 劫 디내오샤 畜生애 나 또 千劫 디내오샤 사르디 모물 得호리니 (월석 21:90)

알오샤 다시 안 後人 일들홀 무르라 =悟了코샤 更問悟後事件하라(몽산 10)

보시고샤 안디시 하시니 (천강곡 상, 기 43)



記 주샤를 하마 막츠시고사 이에 特別히 迦葉上首를 심기시니 =興

記를 已竟이시고사 於此에 特授迦葉上首하시니(법화 3:63-4)

梵天의 비출 들좁고사 實을 아스븐니(천강곡 상, 기 106)

내 王 말삼 들좁고사 내 막스미 지돈과이다(석보 24:29)

「-고서」: 제 한 過를 짓고서 또 梵行 아닌 일 닐어 =自造諸過고고서  
復說非梵行事하야(원각, 하 3-1:85)

우러 封고고서 端午에 進賀하듯다 =拜跪題封賀端午(두언 25:48)

「-고도」: 四衆을 머리서 보고도 또 부러 가 절하고(석보 19:30)

네 衆生이 부터씨 닐굽 도늘 布施하습고도 몸 버려 오히려 轉輪王位  
를 어드니 =昔有衆生이 施佛七錢하습고도 捨身하야 猶獲轉輪王位하니(능  
엄 10:90)

▽「-고도」는 분석되지 않는 단순한 불구법의 씨끝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p.568), 이 양자의 구별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難陀] 머리를 갖고도 상네 지비 가고져 하거늘(월석 7:9)

의 「갖고도」는 ‘잡았지만’의 뜻으로 해석하면 불구법에 들 것이고, ‘잡  
고 (그래도)’로 해석하면 나열법에 가깝게 느껴진다.

또 앞의 「布施하습고도」는 ‘布施했지만’으로 해석하면 불구법에 들 것  
이나, ‘布施하고 또’의 뜻으로 해석하면(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했음), 나  
열법에 들게 된다.

「-고브터」: 如來 브리고브터 能히 그 言論辯을 다하리 업스니라 =  
自捨如來코 無能盡其言論之辯하니라(법화 4:8)

▽이 경우의 「-브터」를 토씨로 보는 데 대해서는 →p.384.

131.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하나 「-구」로 임의변동하는 예가 있다.

王獻之] 盜賊 더브러 닐오디 靑氈은 我家舊物이니 두구 가라 하네  
라(두언 15:28, 주)

#### 「-곡/옥」

132. 「-고」의 강제형으로서,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고」와 같은 조건 밑에서 /ㄱ/이 줄어진다.

그 사름미 하다가 病하면 뿐 마시 잇곡 病 업슨 사름론 저기 든 觸

이 이시리니 =其人이 若病하면 則有苦味하고 無病之人은 微有甜觸하리니  
(능엄 3:9)

죽곡 주그며 나곡 나 =死死生生하야(능엄 4:30)

너희 出家하거든 날 브리곡 머리 가디 말라(석보 11:37)

또 善커든 通곡 惡커든 마가사 어려부미 업스리라(월석 14:76)

모매 藥 鬘 거슬 갖가이하곡 수를 당상 가쥬리라 =近身藥裏酒長携  
(두언 8:33-4)

불근 칠흔 門으란 올하니라 하야 자랑하곡 이 새지브란 외다 하야  
더러이 너기디 말라 =勿矜朱門是 陋此白屋非(두언 15:5)

빅 도록곡 술머금 못곡 몰타 도라갈디니라 =廻船罷酒上馬歸(두언  
15:44)

남지는 안작곡 겨지브로 셔든녀 =坐男使女立(두언 25:45)

네 불곰과 어드움과 虛空을 여희옥 見元을 눈호아 빼혀라 =汝] 離  
明暗과 乃與虛空하곡 分析見元하라(능엄 3:95)

이 적곡 저호매 逼迫하야라 =迫此懼將恐(두언 14:4)

▽「적곡」은 「저곡」(←정곡)의 다른 표기.

새를 여러내옥 놀ᄃ닐 뫼화 어디 두느니오 =開新合故置何許(두언  
25:50)

나못가지에 흘려 프른 여르물 헤옥 프른 몫ᄃ시 가 히즈려서 쉬요  
리라 =條流數翠實 偃息歸碧潯(두언 15:4)

모더 아로물 求티 말옥 오직 話頭를 擧하야 보리라 =不要求解會하곡  
但提話頭하야 看호리라(몽산 28)

사름 저근디란 삼가 가디 말옥 범 한디는 眞實로 더나갈배니라 =少  
人愼莫投 多虎信所過(두언 22:47)

133. 안맺음씨끝 「-으시-」, 「-으리-」를 앞세울 수 있는데, 「-으리-」  
밑에서는 /ㄱ/이 줄어진다.

「-으시곡」: 다섯 輪指를 구피샤 구피시곡 또 펴시며 펴시곡 또 구  
피시고 阿難 드려 니르샤디 =屈五輪指하샤 屈已復開하시며 開已又屈



「하시고 謂阿難言하사더(능엄 1:108)

「-으리옥」: 하다가 또 안해서 날던댄 도로 몸쏘볼 보리옥 하다가  
밧꼴 브더 올딘댄 몬져 당다이 느출 보려니쨌 = 若復內出인댄 還見身  
中하리옥 若從外來-댄 先合見面이어니쨌 (능엄 1:64)

134. 다음과 같이, 뒤에 다른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작  
의 첨가, 반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씨끝이 쓰이는 일이 있다.

날마다 一萬디워 죽고 一萬디워 살옥 하더라 (월석 23:78)

「-으며」

135. 나열, 첨가, 되풀이를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  
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올며 여희시니라 (석보 6:9)

鐵蛇鐵狗 | 블 타며 돌며 (월석 21:42)

動으로 몸 사며 動으로 境 삼느니라 = 以動으로 爲身하며 以動으로  
爲境이라(능엄 2:2)

내며 드리며 부르며 利호미 = 出入息利(법화 2:186)

이 존히 올며 올마 (법화 2:163)

一萬 玉女는 香水 담고 虛空에 왜시며 一萬 玉女는 幢盖 자바 되수  
바 이시며 또 玉女들히... 풍류하며 굴근 江이 몹고 흐르디 아니  
하며... (월석 2:32)

「왜시며」←「와+이시며」

兩都에 幕府를 여러시며 萬寓에 軍麾 | 고갯도다 = 兩都開幕府 萬寓  
挿軍麾(두언 16:10)

「여러시며」←「여레시며」←「여러+이시며」

소리 드로미 이 證증할 時節이며 色 보미 이 證증할 時節이라 = 聞聲이  
是證時며 見色이 是證時라(금강삼가 4:47)

그 中에 各各 또 여러 허근 地獄이 이쇼디 시후 하나히며 시후 들  
히며 시후 세히며... (월석 21:78)

法이 뷔여 내 아니며 道 | 現티 아니하니 (금강삼가 5:27)

다음 말들도 잡음씨의 활용이다.

이 金과 銅과며 시후 土와 木과며... (능엄 9:77)

내 부텃... 法音 아스음도 現히 緣心을 베며 眞實로 보아 올위스음  
도 혼갓 이 득스덜 어데니 = 我 | 悟佛入... 法音도 現以緣心이며 允所  
瞻仰도 徒獲此心이니(능엄 2:21)

「베며」는 ‘써서 하는 것이며’의 뜻.

說法은 받드기 情想을 니줄며며 말쑼 브툼은 받드기 嫌疑를 避홀며  
니 (법화 5:16)

받드기 알라 이 사르몬 釋迦牟尼佛을 供養하디며... 받드기 알라 이  
사르몬 부테 讚歎호디 善哉라 하디며... 받드기 알라 이 사르몬  
釋迦牟尼佛 오시 두푸미 느의니라 (법화 7:179-80)

비록 쿠미 須彌 곧다 닐어도 블서 더를 에워 限하논디며 量이 大  
虛 곧다 하야도 또 더를 에워 限하논디니라 = 設道大同須彌라 하야도  
早已局限他了也 | 며 量同大虛 | 라 하야도 亦局限他了也 | 니라 (금강삼가  
4:13)

136. 안맺음씨끝 「-으리-», 「-으시-», 「-습-」 및 두 안맺음씨끝의 연  
결인 「-으리어-», 「-으시리-», 「-스봉시-」를 앞세울 수 있다.

「-으리며」: 늘 더브러 무려사 하리며 뉘사 能히 對答하려노 (석보  
13:15)

넛 비도 시후 어루 파내리며 새 비도 또 수이 어드리언만튼 = 故者  
或可掘 新者亦易求(두언 6:45)

더는 實로 내오 이는 내 아나리며 보미... 모매 잇디 아니홀딘댄  
= 彼는 實我 | 오 而此는 非我 | 리며 見이... 而不在身인댄(능엄 2:46-7)

「-으시며」: 菩薩이 돌니시며 셔겨시며 안즈시며 누보샤매(월석 2:26)  
이러히 二萬 부테 다 하갓 字號로 日月燈明이시며 또 하갓 姓  
이샤 (석보 13:29)

「-스봉며」: 虛空中에... 曼陀羅華를... 諸佛의 비스봉며... 또 一切 諸



大菩薩와 四部衆에게 비호며 (월석 17:29)

부터 念하느니라 法 念하며 중 念하며 (월석 8:47)

내 아래부터 부터고 이런 마를 못 듣느니라 四衆들토 다 疑心하느니라 (석보 13:44)

「-으며」에는 「-오/우-」가 앞서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다음과 같은 어형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阿那律陀 | 天眼이 第一이로되 十方三千大千世界를 다 보다가 못 보느니라 (월석 21:191)

「-으리어며」: 衆生이 發心이 니거 淸淨한 法을 어루 비호리어며 迦毗羅國이 閻浮提入 가운데 (월석 2:12)

므의여본 이리 이셔도... 더 부터를... 恭敬하느니라 다 버서나리어며 ...도즈기 꼴외어나 하야도 더 如來를... 恭敬하느니라 다 버서나라 (석보 9:24-5)

「-으시리며」: 五陰이 곧 如來 | 신덴... 如來도 또 無常이시리며 하다가 五陰이 곧 如來 | 신덴... (원각, 상 1-1:63)

「-스르시며」: 弗沙佛이... 큰 光明 펴고 겨시거늘 釋迦菩薩이 ...흔 므스르로 밤낮 닐웨를 곶죽도 아니하야 보느니라 偈로 讚歎하느니라 (월석 1:52)

우 돕스오시며 아래 利하샤 = 佑上利下(법화 7:157)

137. 이 씨끝에는 토씨 「-셔」를 연결할 수 있다. (→p.378)

말하며 우습우스며셔 주구를 行하니 (두언 6:39)

138.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동작을 나열할 경우에는 끝에 「하다」를 이는다.

舍利弗이 虛空에 올라 거르며 셔며 안즈며 누트며 하고 (석보 6:33)

큰 法을... 닐그며 외오며 사겨 니르며 쓰며 하야 (석보 19:37)

엇데 드르며 쁘며 호몰 헤리오 = 豈料沉與浮(두언 22:38)

「-으니... -으니」

139. 이런 일 저런 일을 벌여놓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씨끝을 되풀이함이 특색이며(상징적 수법),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그리고 대개는 도움풀이씨 「하다」가 접속된다.

느미것 서르 일버수를 흘씨 외니 울하니 決斷 사르미 업서 (월석 1:45)

그 後에사 외니 울하니 이키니 계우니 홀 이리 나니라 (월석 1:42)  
외니 울하니 하야 是非에 빠리디면 (남명, 상:39)

140. 안맺음씨끝 「-(습)거-」가 앞설 수 있다.

「-거니」: 잇거니 죽거니 하야 다시 보디 못호니 = 存亡不重見(두언 24:58)

브르거니 對답거니 하야 威와 福과를 짓느니 = 唱和作威福(두언 6:38)

하늘과 싸패 爲하야 오래 느잡거니 늘거니 하니라 = 天地爲之久低昂(두언 16:47)

「-습거니」: 一切天과... 人非人等이 다 모다 길잡습거니 미조잡거니 하야 느려 오시더라 (월석 21:203)

## (2-4) 가림법(선택법)

141. 여러가지 중에서 아무것이나 상관없이 가림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가림법」(선택법)이라 한다.

「-으나」

142. 여러가지 중에서 아무것이나 상관없이 가림을 나타내는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나, 대개는 안맺음씨끝 「-거(어)-」를 앞세운다. 그리고 여러가지 행동이나 상태 중에서 가리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대개는 「-으나...-으나」가 두번 이상 되풀이된다(상징적 수법). 또 뒤에 마디를 연결하지 않고 도움풀이씨 「하다」를 붙이는 일이 많다.



오나 가나 다 새지비 兼<sub>하</sub>엿도소니 =來往兼茅屋(두언 7:16)

위나 ㅁ마니 잇거나 호매 =於動靜中에(몽산 18)

아되나 사르미 이 經 위<sub>하</sub>야 주의 坊의 가 안<sub>하</sub>거나 셔거나 아니한 스  
시를 드러도 (석보 19:5)

아되나 이 經을 디녀 닐거 외오며 늑드려 불어 닐어 여러 뵈어나  
제 쓰거나 늑 히여 쓰거나 호고 (석보 9:21)

아되나 불써 發願<sub>하</sub>거나 이제 發願<sub>하</sub>거나 장츠 發願<sub>하</sub>거나 호야 阿彌陀佛  
國에 나고져 흠 사르본 더 나라해 불써 나거나 이제 나거나 장츠  
나거나 흐리라 (월석 7:76)

하다가 衆生이 常住를 侵勞<sub>하</sub>야 損<sub>하</sub>거나 僧尼를 더러비거나 시혹 伽  
藍內에 전갓 淫欲을 行<sub>하</sub>거나 시혹 주기거나 시혹 害<sub>하</sub>거나 이런 무리  
반드기 無間地獄에 빠러디여 (월석 21:39)

나아가거나 물러오거나 호물 길 녀 돈노매 브리과라 =進退委行色(두  
언 6:53)

적거나 어둔 거시 이시면 =若少有所得(법화 4:38)

「적거나」는 거의 어찌씨로 파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적거나  
만거나」의 준 말로 풀이할 수 있다.

도흔 몸 드외어나 구즌 몸 드외어나 호미 (월석 1:12)

不孝를 호거나... 君臣法을 헐어나 信戒를 헐어나 호면 (석보 9:38)

하다가 衆生이 佛身血을 내어나 三寶를 허러 나<sub>하</sub>라거나 尊經을 아  
니호면 (월석 21:39)

143. 「-거-」에 다시 「-으시-」나 「-습-」이 겹쳐질 수도 있는데, 「-습-」  
은 「-거-」에 앞서고, 「-으시-」는 원칙적으로 그에 뒤따른다.

「-거시나」(-으시거나): 시혹 내 허므를 보<sub>하</sub>거나 내 罪를 들<sub>하</sub>거나  
시혹 내 犯을 疑心<sub>하</sub>거나 어엿비 너겨 ㅁ장 니르쇼셔(월석 23:94)

阿闍世王이 오시거나 彌勒이 下生<sub>하</sub>거나 호면 이 피히 열리라 (석보  
24:6)

「오시거나」는 「-으시-」와 「-거-」의 차례가 바뀐 꼴이다.

一切 如來 니르거시나 菩薩이 니르거나 聲聞이 니르거나... (월석 18:  
:49)

「-습거나」: 아되나 사르미... 훈낫 고즈로 그룬 像을 供養<sub>하</sub>습거나  
저습거나 合掌<sub>하</sub>습거나 훈 소닐 드습거나 값간 머리를 수기습거나  
호야 像을 供養<sub>하</sub>습분며 (석보 13:53)

七寶로 일우습거나 구리어나... 뵈와로 佛像을 꾸미스바도 (석보 13:52)

## (2-5) 의도법

144. 희망,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의도법」이라 한다. 이  
세가지는 공통성이 크므로 한데 뭉쳐 보았다.

### 「-고져/오져」

145. 희망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을 수도 있고, 안맺음씨끝을 앞  
세울 수도 있다. 뒤에는 ‘원<sub>하</sub>다, 스랑<sub>하</sub>다, 브라다, 너기다’ 따위 희  
망을 나타내는 말이 오는 일이 많으며, 또는 도움풀이씨 「하<sub>다</sub>」가 오는  
일도 있다.

그리고 /ㄱ/의 탈락 조건은 「-거-」의 경우와 한가지다.

善男子 善女人이 더 부텃 世界에 나고져 發願<sub>하</sub>야사 흐리라 (석보  
9:11)

萬法の 기픈 根源을 스몏게코져 브라노니 (월석, 서:21)

惡趣를 들고져 願<sub>하</sub>노이다 (석보 21:37)

諸佛 讚嘆<sub>하</sub>시는 乘을 得고져 願<sub>하</sub>리도 이시며 (석보 13:19)

「得고져」는 「得<sub>하</sub>고져」의 「하」가 줄어진 것이다. (→p.463)

모미 늑고 時節이 바드라운 저기 ㅁ출 맞보고져 스랑<sub>하</sub>노니 =身老  
時危思會面(두언 21:7)

목숨 주소셔 願<sub>하</sub>호른 橫邪에 天關티 말오져 브랄씨라 (월석 17:18)

「말오져」는 「마오져」(법화 5:155, 5:194)로 바뀌기도 한다.



내 의로윈 무더플 가 울오져 스랑칸마룬 = 吾思哭孤冢(두언 24:17)

먼더 마켜 쉬오져 願호는 사르물 = 阻脩願息之人(법화 3:83)

146. 도움풀이씨 「하다」가 연결되는 경우:

겨지비 모물 브리고져 하거든 (석보 9:7)

어서 成佛코져 하더니는 (월석 21:52)

未來世에 男子 女人이 오래 病<sub>하</sub>야 이서 살오져 하며 죽고져 호더  
물<sub>하</sub>야 (월석 21:91)

이 光明入 因緣을 알오져 하더니 (석보 13:32)

네... 性은... 어디 돌아보내오져 하는다=汝 | ... 性은... 欲誰還<sub>하</sub>는다  
(능엄 2:29)

이러호미 諸佛들히... 衆生을 보오져 하시며... 알외오져 하시며 衆  
生을 부텃 知見에 드리고져 하시는 전치론 고더라 (석보 13:55)

147. 안맺음씨끝 「-습-」이 앞설 수 있다.

조고맛 精誠으로 피 마튼 목수물 돌습고져 하습다소니 (상원사 권선문)

世尊하 우리 이 부텃 모물 보습고져 願호습노이다 (법화 4:116)

大衆 모든 有漏<sub>하</sub>니도 다 들습고져 願호<sub>하</sub>노이다 (능엄 2:3)

世尊하 願호든 들습고져 하노이다 (석보 13:47)

148. 잡음씨 「-이다」가 이 활용형에 붙어, ‘~하고져 하는 것이다’의  
뜻을 나타낸다.(이 경우에는 뒷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 말쓰물 퍼 다시 觀體 標호든 宗과 旨와는 달음 업수더 言과 觀  
은 方을 조차 을몸 이쇼물 블기고제니 =... 欲明宗旨無異 言觀有逐方  
移(남명, 하:31)

達磨 | 西로셔 오샤몬 오직 옷 傳<sub>하</sub>시며 法 브티고제시니 (남명,  
하:24)

이 句 블러내샤몬 사르미 알에코제시니 (남명, 상:2)

如來 | 아니 오라 탄드기 涅槃애 드로리니 부테 이 妙法華經으로 付  
囑홀터 잇게 코제니라 = 然來 | 不久<sub>하</sub>야 當入涅槃호리니 佛이 欲以此  
妙法華經으로 付囑이 有在니라 (법화 4:134)

149. 사잇소리를 가지게 되면, 앞의 말을 매김말로 만든다.

너희 다 반드기 슬<sub>하</sub>야 여희오져 ㅁ스물 썰리 내라 = 汝等이 咸應當疾  
生厭離心이라(법화 6:17)

조고맛 비 등고져 ㅁ들 닛디 물<sub>하</sub>리로다 = 扁舟意不忘(두언 15:55)

「-과더(과더여)」

150. 희망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 「-으  
시-」를 앞세울 수도 있다. 그리고 「-거-」의 경우와 같은 조건 아래서  
/ㄱ/이 탈락한다.

뒤에는 ‘브라다, 願하다, 스랑하다’ 따위 희망을 나타내는 말이 오며,  
또 「하다」가 연결되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뒤 말의 관계를 나  
타내지 않고 그저 희망을 나타낼 따름이다.

福力으로 苦惱를 救<sub>하</sub>야 싸혀과더 브람 싸히 업서 (월석 21:95)

一切衆生이 다 解脫을 得과더 願호노이다 (월석 21:8)

▽得과더←得<sub>하</sub>과더. (→p.463)

親友 | 드외와더 願호시니라 = 願成親友(영가, 하:142)

닷가 나사가리 번드기 쉬이 알와더 브라노니 = 庶修進者 | 煥然易悟耳  
니(능엄 8:44)

魔說을 아라 제 뼈디디 마와더 브라노라 = 冀悟魔說<sub>하</sub>야 無自陷溺也<sub>하</sub>  
노라(능엄 9:112-3)

▽마와더←말와더←\*말과더

나랏일 시름<sub>하</sub>야 히 가슴덜와더 願호<sub>하</sub>다 = 憂國願年豐(두언 8:52)

151. 「하다」가 연결되는 경우:

厄이 스러디과더 하노니 (월석, 서:25)

오직 願호디 衆生들히... 큰 利益을 얼과더 하노이다 (월석 21:128)

비호미 등을 건너뵈디 아니과더 하신 전치라 (법화 3:143)

諸佛 證<sub>하</sub>산 고대 존과더 하시<sub>하</sub>니라 = 同諸佛所證也<sub>하</sub>시<sub>하</sub>니라(금강 18)

다 썰리 일와더 하시는 전치라 = 皆欲速成故也(법화 5:169)



152. 「-으시-」를 앞세우는 경우 :

부테 싸혀시과더 願하니라 =願佛이 與拔之하니라(능엄 2:22)

사르문 戈鋌을 그치시과더 스랑하눗다 =人憶止戈鋌(두언 20:4)

地藏菩薩이... 나를 기리 擁護하시과더 하면 (월석 21:166)

153. 잡음씨 「-이다」가 연결되면 ‘~하고자 하는 것이다’의 뜻을 나타낸다.

邪正을 둘홀 닛과메라 =兩忘邪正也 | 라(능엄 7:15)

後入 行境 毘沙門 解 毘차 行에 가과메시니 =後示行境은 欲其解終趣行이시니(법화 6:117-8)

쁘든... 다 佛道에 들와메시니 =意欲... 俱入佛道(영가, 하:71)

154. 「-과디여」는 「-과더」의 임의변동형이다.

一切衆生이 다 버서나과디여 願하노이다 (석보 11:3)

다시 이 吹嘘하과디여 스랑하노라 =重此憶吹嘘(두언 20:34)

저희 願하논 바는 님금 官人을 보아 惠慈로써 撫養과디여 하거늘  
=所願見王官 撫養以惠慈(두언 25:37)

나는 너희 무리... 이베 어루 시러 니르디 몬과디여 하노라 =吾欲汝曹...口不可得言也(내훈 1:37)

☆건너고져하야 프리 썩와디여 하야 願하노라 =欲濟願水縮(두언 중간 13:9)

님금 軍師를 마르시과디여 願하노라 =且願休王師(두언 22:28-9)

「-겻고(엣고)/긔고/괏고」

155. 역시 희망을 나타내며, 첫소리 /ㄱ/은 앞에서 말한, 「-거-」의 경우와 같은 조건 아래 탈락됐을 것이나, 그 예가 다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 뒤에 오는 말도, 앞의 경우와 같이, 희망을 나타내는 말이나 도움풀이씨 「하다」이다.

迷惑한 고대 나사가 알엣고 하시니라 =欲其即迷處而悟也 | 시니라(능엄 1:113)

이 늘그니 이 마른 사르미 劫外를 向하야 알엣고 하니 =此老此說 只要教人 向劫外承當(금강삼가 2:1)

「-겻고」의 예는 찾지 못했으나, 「-엣고」는 분명히 「-겻고」의 /ㄱ/ 탈락형이다.

「-긔고」는 「-겻고」의 임의변동형이다.

三寶에 나아가긔고 브라노라 =庶幾... 歸依三寶焉(석보, 서:6)

庶幾는 그러하긔고 브라노라 하논 브디라 (석보, 서:6)

원래 이 씨끝은 매우 드문데, 「-괏고」는 더욱 드물다.

長史는 이리 혼집 마르니 달이 너기디 아니괏고 브라노라 =長史는 事同一家하니 望不爲異하노라(내훈 1:67)

「-웃」

156. 희망을 나타내는 점, 앞의 경우와 같으나, 그 예가 오직 하나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긔」의 변이형태일 것이나 그 예가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흔 吉흔 사르미 드외웃 하녀 凶흔 사르미 드외웃 하녀 =汝等은 欲爲吉人乎아 欲爲凶人乎아(내훈 1:25)

「-려」

157. 의도를 나타내며, 「-오/우-」를 앞세움이 원칙이다.

울모려 님금 오시며 (용 16장)

世亂을 救호려 나샤 (용 29장)

그디 精舍 지수려 터홀 又 始作하야 되어늘 (석보 6:35)

本來 넷 디뉴려 願턴 因을 아니라 =識本昔願持之因也(법화 4:59)

다시 虛空엣 方흔 相 잇논딜 더루려 닐오미 몬하리라 =不應說言更除 虛空엣 方相所在니라(능엄 2:43)

내종내 물러듀미 업수려 제 盟誓하니 =自誓... 畢無退墮하니 (능엄 3:117)

158. 뒤에 도움풀이씨 「하다」가 오면 뒷 사실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



기보다 단순히 의도를 나타낼 뿐이다.

迷人이… 險道에 나아가려 키늘(월석 21:118)

夫人이 올흔 소<sup>느</sup>로 가질 자<sup>브</sup>샤 곳 것고려 헝신대 (월석 2:36)

地藏이… 後世 衆生을 救호려 헝시니 (월석 21:3, 기 417)

므<sup>스</sup> 이<sup>를</sup> 것고오려 헝노고 (석보 6:27)

沙彌 사모려 헝나다 (석보 6:2)

世尊이… 修行入 길을 敷演호려 헝샤 = 欲敷演… 修行路호리라 헝야(능엄 2:78)

身心の 生滅 아니<sup>헝</sup>는 싸<sup>할</sup> 불교려 헝샤디 = 欲明身心の 不生滅地<sup>헝</sup>샤디(능엄 2:3)

뉘<sup>으</sup>쳐 도로 :오려 헝더니 (석보 6:19)

이제 또 내 아<sup>드</sup>를 드려:가려 헝시느니 (석보 6:5)

十方世界에 法을 :펴려 헝시니 (월석 2:7, 기 12)

▽「오려, 드려가려, 펴려」에는 「-오/우-」의 흔적이 없으나, 「오-, 가-, 펴-」가 상성(두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오/우-」 형태소가 무형의 변이형태로서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p.471 참조).

159. 안맺음씨끝 「-습-」을 다시 앞세울 수 있다.

袞職 돕스보려 面折延爭<sup>키든</sup> (용 121장)

朝集은 님금 뵈스보려 모<sup>들</sup>씨라 (월석 2:69)

一切衆生이… 如來入 秘密章句를 듣조오려 기드<sup>리</sup>습<sup>더니</sup> (능엄 7:27)

太子를 請<sup>헝</sup>스바 이<sup>받</sup>조<sup>보려</sup> 헝노닛가 (석보 6:16)

부<sup>텃</sup> 믈<sup>스</sup>매 마<sup>초</sup>헝야 우<sup>호</sup>로 갑스오려 헝니라 = 稱佛心而上報也(능엄 3:113)

魔王 세 <sup>씨</sup>리 부<sup>터</sup>를 亂<sup>헝</sup>스오려 타<sup>가</sup> 곧 늘<sup>근</sup> 할<sup>미</sup> 드<sup>외니</sup> (남명, 하:14)

▽듣조오려<듣조보려, 갑스오려<갑스보려, 헝스오려<헝스보려.

160. 「-으시-」를 앞세우는 예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오/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장<sup>츠</sup> 퍼 뵈시려 헝샤 = 將欲宣示<sup>헝</sup>샤(법화 5:104)

「-으시-」에 「-오/우-」가 연결되면, 「-으시-」는 「-으샤-」로 변동하고, 「-오/우-」는 무형의 변이형태로 바뀐다. 그러므로 「-으시+오/우+려」는 「\*-으샤려」가 될 것인데, 이런 어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려」는 어원적으로는 「-으리-」에 씨끝 「-어」가 연결된 끝인데, 「-으리-」 앞에서는 「-오/우-」와 「-으시-」는 서로 배타적인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p.760 참조)

161. 「-려」에는 사잇소리가 연결되어 매김말의 구실을 하는 일도 있고, 잡음씨 「-이다」가 연결되어 ‘~하려고 하는 것이다’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

正히 이 無上佛道를 일<sup>우</sup>렷 贅願이니 (원각, 하 1-1:5)

네 三昧 닷고<sup>몬</sup> 본<sup>來</sup> 塵勞애 나<sup>레</sup>어<sup>늘</sup> 姪<sup>心</sup>을 더<sup>디</sup> 아니<sup>헝</sup>면 = 汝<sup>1</sup> 修三昧는 本出塵勞<sup>1</sup> 어<sup>늘</sup>…(능엄 6:86)

네 三昧 닷고<sup>몬</sup> 본<sup>來</sup> 塵勞애 나<sup>레</sup>어<sup>늘</sup> 殺<sup>心</sup>을 더<sup>디</sup> 아니<sup>헝</sup>면 (능엄 6:92)

孟子<sup>1</sup> 닐<sup>오</sup>더 너<sup>비</sup> 비<sup>화</sup> 仔細히 닐<sup>오</sup>몬 장<sup>츠</sup> 두<sup>르</sup>혀 조<sup>스</sup>르외<sup>요</sup>물 닐<sup>오</sup>레<sup>니</sup>라 (법화 1:122-3)

…술<sup>오</sup>더 업<sup>스</sup>이다 헝니 장<sup>츠</sup> <sup>뻬</sup> 다시 나<sup>소</sup>레<sup>니</sup>라 = …將以復進也<sup>1</sup> 라(내훈 1:43)

「-으라」

162. 목적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그리고 「-으라」 활용형에는 「가다, 오다」 및 그 합성어가 뒤따른다.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월석 1:5)

우리 出家<sup>헝</sup>라 오니 (월석 7:3)

故人이 시름<sup>헝</sup>야 보<sup>라</sup> 오니 = 故人憂見及(두언 23:47)

果園坊入 안<sup>해</sup> 爲<sup>헝</sup>야 어<sup>드</sup>라 오니 = 果園坊裏爲求來(두언 15:19)

밥 머그라 물러을 저<sup>기</sup> = 退食(두언 6:6)



▽중간에서는 「머그려」로 되어 있다.

藥 키라 가 보스불시고 (월석 1:52)

어마님이 毗藍園을 보라 가시니 (월석 2:27, 기 17)

金輪王 아드리 出家하라 가느니 (석보 6:9)

南녀그로 더운 바를 郊甸에 놀라 가느니 =南遊災海甸(두언 22:42)

道理 비호라 나아가샤 (월석 1:5)

敗獵하라 나가시니라 =出于敗(두언 20:5)

163. 뒤에 「가다, 오다」 이외의 다른 말이 오는것 같이 보이는 예가 나타난다.

아바님 그리샤... 優旃耶를 슬브라 브리시니(천강곡 상, 기 113)  
그러나 「슬브라」는 시킴(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優旃耶를 “(네가 개서) 사퇴어라” 하고 부리시니」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64. 「-습-」을 앞세울 수 있다.

大王을 보스불라 오히다 (월석 8:90)

목수미 묻 이실까 너겨 여희스불라 오니 (월석 21:217)

阿闍世王이 처심 舍利 얼즈불라 읊 저귀(석보 23:57)

### 「-가」

165. 의도를 나타낸다.(뒤에 잡음씨가 접속되는 예만 나타난다.)

攀를 자바 써 서르 보논돈 恭敬하야 有別호물 블기개니라 =執攀하

야 以相見은 敬章別也 | 니라(내훈 1:77)

이 예는 오직 하나뿐이어서 그 뜻을 꼭 알 수 없으나, 우선 그 전체의 뜻을 '기러기를 잡아 서로 보는 것은 공경하여 유별함을 밝히려는 것이니라'로 잡고, 「-가」를 의도법의 씨끝으로 보아 두기로 한다.

### 「-곳디」

166. 아주 드문 예이기는 하나, 부정의 도움풀이씨 「아니하다」를 접속하게 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씨끝으로 쓰인다.

도술 주거시든 비록 넙곳디 아니하나 모로매 니버 기드리며 =加之衣服이어시든 雖不欲이나 必服而待하며(내훈 1:51)

▽이것은 「(넙)고심디」가 줄어든 꼴인듯 하다.

### (2-6) 미침법

167. 어떠한 상황(경지)에 미침(이름)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미침법」이라 한다.

#### 「-도록(애)/도록」

168. 어떠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음 일을 계속함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는다.

내 이제 未來劫 못도록 못 니르헿 劫에... (월석 21:18)

흔 劫이 날도록 날어도 못다 니르리어니와 (석보 9:10)

죽도록 衛護케 하며 (월석 21:164)

아피나 淨信흔 善男子 善女人들히 죽도록 녀나몬 하느를 섬기디 아니코 (석보 9:25)

그 쯔니미 묻 보도록 가더 (석보 11:29)

목숨 못도록 受苦를 아니 더내리라 (월석 9:56)

내 받드기 終身<sub>도록</sub> 供給하야 (법화 4:154)

나리 적르도록 밥 못 머거슈를 놀라노니 =日曛驚未飧(두언 25:7)

이웃집 브른 바미 깁도록 불갯도다 =鄰火夜深明(두언 7:6)

히를 브터 劫을 尺차 數 | 那由他 | 도록 苦楚 | 서르 니서 (월석 21:45)

169. 「-이도록」이 토씨로 전성된 것이 있는데(p.383 참조), 토씨가 「那由他」<sub>도록</sub>의 「-이도록」과 다른 점은, 이 경우에는 그 임자말 「數」가 뚜렷이 밖으로 나타나 있으나, 토씨의 「-이도록」은 그 임자말이 밖으로 나타나 있지 않을뿐 아니라 속뜻으로도 그것을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하다. 이를테면,

엇데 이제도록 손지 度脫호물 못 그쳐(월석 21:63)  
의 「이제도록」의 임자말을 캐묻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 같다. 그리고 토씨의



「-이도록」은 어찌찌에도 붙는 것이 특색이다.

170. 「-도록」에 「-애」가 붙은 「-도록애」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애」에는 특별한 뜻이 없으며, 따라서 이 「-도록애」는 「-도록」의 확대형으로 해석된다.

百姓들히 죽도록애 조차 들녀 供養하며 (석보 19: 21-2)

☆ ㅁ을히 눈호도록애 나그네 오히려 이쇼니 = 秋分客尙在 (두언 중간 12: 36)

앞의 ‘석보 19’와 같은 사실을 기술한 ‘월석 17’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음을 참고로 들어 둔다.

人民이 목숨 못도록 조차 피서 供養하며 (월석 17: 69)

171. 「-도록」은 「-도록」의 임의 변이형태이다.

아침미 못도록 서늘호미 버프러니 = 終朝紆飈沓 (두언 16: 66)

흔뻔 계도록 길다가 몰하야 (월석 7: 9)

「-게(에)/-기(의)/-기(의)/-거」

172. 앞의 「-도록」과 비슷한 뜻을 가졌으며,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이 씨끝은 으뜸풀이씨보다 도움풀이씨가 많이 뒤에 오는 것이 특색이다.

「-게~기~기」는 임의로 변동될 수 있었던 듯 하며(「-기」와 「-기」는 모음조화로 변동되었던 것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지금의 자료로써는 그렇게 단정되지 않는다. — 어원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거」는 「-게」가 우발적으로 단모음화한 어형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예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첫소리 /ㄱ/ 탈락조건은 앞에서 설명한 씨끝들의 /ㄱ/ 탈락조건과 같다.

이 네개의 변이형태 중, 「-게」와 「-기」가 많이 나타나고, 다른것은 드물게 쓰인다.

「-게」: 그디 가아 아라들게 니르라 (석보 6: 6)

研은 다들게 알씨라 (월석, 서: 18)

오시 짓게 우리 = 霜衣 (두언 8: 16)

向公이 피나게 우리 = 向公泣血 (두언 25: 47)

父母人 顏色을 바다 손바를 부른게 돈니고 = 承顏眠手足 (두언 21: 33)

어러운 벼락미 키 업들게 부נות다 = 狂風大放顛 (두언 25: 21)

三乘을 크게 여르시며 = 大啓三乘 (월석, 서: 7)

旌旗에 히 덥게 썩니 = 旌旗日暖 (두언 6: 4)

「-기」: 變은 長常 固執디 아니하야 맛기 고틸씨라 (석보 13: 38)

「-기」: 王이 그제사 太子인 고들 아라시고... 오시 주막기 우르시고 (월석 8: 101)

「-에」: 그 색리 듣고 싸해 모미 다 혈에 디여 (월석 21: 22)

梵天宮殿에 光明이 벅스와 락에 비취여 (월석 14: 18)

「락」은 풀이씨이다.

엇던 因緣으로 우리 宮殿에 이 光明이 벅스와 락어노 (월석 14: 25)

잇는 宮殿에 光明이 석식기 벅스와 락야 네 업던 이릴씨 (월석 14: 28)

췌梨라 홀 노미 사로더 사롬 보니마다 락야 티고 (석보 24: 13)

몹가치... 빗나치고 조하사 벅스와 락야미 (법화 2: 12)

牛糞汁으로 龍王을 혼 모미오 세 머리에 그리고 (월석 10: 118)

「세 머리에」는 ‘세 머리에게’ (세 머리가 되게)의 변동된 말.

새 소남글 즘은 자히에 눕디 몰호들 츠기너기노니 = 新松恨不高千尺 (두언 21: 5)

「-의」: 제 宮殿에 光明이 벅스와 락의 비취여 (월석 14: 25)

「-의」: 가지 것비쳐 드트리 드의의 뵈아디거늘 (석보 6: 30-1)

173. 이 씨끝에는 도움풀이씨 「하다」, 「몰하다」, 「아니하다」, 「말다」, 「드외다」가 이어나는 일이 많다.

「-하다」: 이 표현은 ‘~에 미치도록 하다’의 뜻이 되므로 하임(사역)을 나타내게 된다.



慈悲는 衆生을 便安케 하시는 거시어늘 (석보 6:5)  
 一切有情이 나와 다름디 아니케 호리라 (석보 9:4)  
 兩舌은 두가짓 해니 다투스시에 싸호게 흘씨라 (월석 21:60)  
 致는 니를에 흘씨라 (월석, 서:19)  
 날로 疑惑을 덜에 하시나 =令我除惑(능엄 4:3)  
 이제 도록혀 다투 어시아득를 여희에 하시느니 (석보 6:5-6)  
 四面에 各各 靑幡 날갑곰 드로더 기릭 혼 丈이에 호고 (월석 10:119)  
 智와 悲와 둘히 아년에 흘씨 이 일후미 廻向이니 (능엄 8:34)  
 如來... 모든 므스물 즐기 하느니 (석보 13:40)  
 하다가 有情이... 내 일후를 드르면... 一切受苦를 버서나기 호리라 (석보 9:9)  
 化人은 世尊入 神力으로 드외의 하산 사르미라 (석보 6:7)  
 내... 涅槃樂애 니를의 하노니 (석보 11:8)  
 돕가히를... 도히 처 술찌거 하야 두고 (월석 23:73)  
 「ㄱ-거」는 이 예 하나 밖에 찾지를 못했는데, 아마 우발적인 오용이거나 인쇄의 잘못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나히 몬 드외게 하며 (능엄 10:3)  
 「<비교> 羅猴羅를 달애야 상재 드외에 하라 (석보 6:1)  
 흐리에 하며 (능엄 4:15)  
 「드외게」는 기본형태로의 복귀요, 「흐리에」는 안맺음씨끝 「-으리-」 밑에 서 /ㄱ/이 탈락하기 때문에, 이에 (잘못)유추된 것으로 생각된다.)  
 「몬하다」: 디새 불아디듯게 몬호물 恨하느니 (남명, 하:32)  
 能히 모매 即하야 곧 므스미에 몬홀씨 =不能即身即心故로(능엄 10:18)  
 「아니하다」: 貔虎 곤흔 士卒은 鳳凰城에 ㄴ득게 아니하느니라 =貔虎士不滿鳳凰城(두언 25:25)  
 「말다」: 사르미 호오사 滅度 得게 마라 =不令有人이 獨得滅度케 하야 (법화 2:99)  
 서리와 이슬로 히여 사르미 오술 저지게 마를디니라 =無使霜露霑人

衣(두언 15:44)

「드외다, 드외오다」: 「드외오다」는 「드외다」의 하임말이다.

涅槃은... 사디 아니하시며 죽디 아니하샤 便安케 드외실씨라 (월석 1:18)

모미 크기 드외야... 또 적기 드외며 (석보 6:34)

教化는 ㄴ르쳐 어덜에 드외울씨라 (월석 1:19)

174. 이 씨끝은 안맺음씨끝 「-으시-」, 「-습-」을 앞세울 수 있다.

「-으시(기)」: 大臣이 모디라 (太子) 德을 새오스바 업스시(기) 씨를 하더니 (월석 21:211, 기 226)

菩薩이 어느 나라해 느리시게 하려노 (월석 2:10)

이 藥곳 아바넝 病을 도하(기)시게 흠딘댄 (월석 21:216)

「-습(기)」: 부테 나를 어엿비 너기샤 나를 보습게 하쇼셔 (석보 6:40)

수품 神靈이... 世尊을 아습게 하니이다 (천강곡 상, 기 86)

願하든 世尊이... 未來世 衆生이 부텃 바를 머리로 받습게 하쇼셔 (월석 21:84)

善男子 善女人들히 이... 如來入 일후를 들습(기) 하며 (석보 9:20)

175. 이 씨끝에는 토씨 「-ㄴ」, 「-곰」이 뒤따를 수 있다.

「-겐」: 실혀든 모로매 길에 호고 모로매 하야(겐) 아니홀디로다 =縑絲須長不須白(두언 25:50)

「-기곰」: 아드리 아비 나해서 곱기곰 사라 (월석 1:47)

## (2-7) 전환법

176. 한 동작·상태에서 다른 동작·상태로 전환함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전환법」이라 한다.

「-다가/라가」

177. 잡음씨와 안맺음씨끝 「-으리-」 밑에서는 /ㄷ/이 /ㄹ/로 바뀐다.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하늘 祭<sup>하</sup>던 싸<sup>하</sup>를 보고 절<sup>하</sup>다가 忽然히 부터 向<sup>하</sup>한 尺<sup>하</sup>수물 니즈나  
(석보 6:19)

두 히 돌다가 세 히 도<sup>하</sup>면 (월석 1:48)

버미 쫓차오거늘 브르노라 하다가 치마엿 아기를 싸디오 소<sup>하</sup>노로 얼  
다가 언드란 물고 (월석 10:24)

鬼神과 혼디 노녀 날들히 기퍼 더욱 시드러 조오다가 울어 설비 즐  
기디 묻흙 사르문 (월석 21:91)

이제 저른 저그란 안죽 尺<sup>하</sup>수<sup>하</sup>장 노다가 주라면 어루 法<sup>하</sup>을 비호<sup>하</sup>수  
보리이다 (석보 6:11)

머리 잇는 거시 엎다가... 미친 고줄 보며 = 迴無所有<sup>하</sup>다가... 見狂華<sup>하</sup>며(능엄 2:109)

죽사릿 法<sup>하</sup>은 모뎃다가 모더 여희느니이다 (월석 21:202)

福을 닷가 하늘해 나엿다가 福이 다오면 도로 느리느니라 (월석  
1:42)

青瑣門에 갯다가 밥 머그라 물러올 저기 = 歸青瑣退食(두언 6:6)

여희엿다가 다시 서르 맞보니 = 離別重相逢(두언 22:22)

愛河에 값간 낫다가 도로 줌느다 = 愛河에 暫出<sup>하</sup>야 還沉沒<sup>하</sup>느다(남명  
하:31)

▽모뎃다가 ← 물+아+잇+다가, 나엿다가 ← 나+아+잇+다가, 갯다가  
← 가+(아)+잇+다가; 여희엿다가 ← 여희엿다가 ← 여희+여+잇+다가,  
낫다가 ← 냇다가 ← 나+(아)+잇+다가.

네 得<sup>하</sup>흔 거슨 聲聞의 慧眼<sup>하</sup>이라가 이제 니르러사 비르서 부텃 브들  
아스울씨 = 於往昔所得은 乃聲聞慧眼<sup>하</sup>이라가 至今<sup>하</sup>야사 方悟佛意<sup>하</sup>스울씨.  
(금강 73)

眞實로 日月威光의 能히 비취요미 아니라가 勝智 여러 불고매 미쳐  
△ = 誠로 日月威光의 所得照燭<sup>하</sup>이라가 及乎勝智開明<sup>하</sup>야사(법화 3:104)

178. 안뎃음씨끝 「-으시-」, 「-습-」 「-으리-」를 앞세울 수 있다.

「-으시다가」: 혼 菩薩이 ...坐禪<sup>하</sup>시다가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네  
(월석 1:5)

치식된 오로 讀誦 아니<sup>하</sup>시다가 내종엔 能히 한 偈를 듣즈와 디나  
샤 = 始則不專讀誦<sup>하</sup>시다가 而終能聞持多偈<sup>하</sup>샤(법화 6:82-3)

「-습다가」: 羅<sup>하</sup>이... 糞부터를 땡<sup>하</sup>라 두고 三年을 供養<sup>하</sup>습다가  
居喪 <sup>하</sup>마 尺<sup>하</sup>수저기 (월석 32:76)

經과 袈裟와 바리와를 내 다 가져다가 이 塔에 녀히 뒹습다가 彌勒  
이 나거시든 내야 받즈보리이다 (석보 24:31)

▽「가져다가」의 「-다가」는 토씨이다. (p.384 참조).

「-으리라가」: 알핀 다 我相이 이셔 功을 퍼디 몰<sup>하</sup>리라가 이젠 <sup>하</sup>  
마 障이 더러 = 前엔 皆有我相<sup>하</sup>야 未可施功<sup>하</sup>이라가 今엔 既障除<sup>하</sup>야(원각,  
하 3-1:76)

179. 이 씨끝에는 토씨 「-도」가 연결될 수 있다. (p.374 참조)

큰 劫에 썬디여 잇다가도 기티디 아니호문 (월석 13:59)

죽사릿 法<sup>하</sup>은 모뎃다가도 모(더) 여희느니이다 (석보 11:12)

180. 「-다가」는 「최 현배: 우리말본」 체계에 있어서는 ‘그침꼴’(중단형)로 생  
명이 되어 있으나, <sup>(22)</sup> ‘중단’보다는 ‘전환’이 더 적절한것 같다.

「-으라」

181. 앞의 씨끝과 같이 전환을 나타내는데, 그 쓰인 예가 그리 흔하  
지 않다.

世尊이... <sup>하</sup>오사 불 구피라 펄 쓰시에 忉利天에 가샤 (월석 21:4)

값간 안즈라 느는 가마피는 두서 샷기를 더브렛고 = 暫止飛鳥將數子  
(두언 7:1)

「-으락」

182. 이 씨끝은 「-으라」의 강세형이었던듯 한데, 「-으라」보다 흔하  
쓰인다.

壯士의 불 구피라 펄 쓰시 곧<sup>하</sup>야 = 壯士屈伸臂頃(정양사 영인, 불정삼  
경 p. 58)

(22) 최 현배: 우리말본 (1971 네번째 고침, 정음사) p. 320

4. 뎃음씨끝의 굴곡범주



亂離흔 저기 또 모드락 혼노니 =亂離又聚散(두언 8:57)

심소리를 드르락 또 굿느니 =泉聲聞復息(두언 7:23)

빛난 구루미 어드우락 도로 히느니 =綵雲陰復白(두언 7:14)

183. 이 씨끝은 다른 동작·상태로의 전환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말을 겹치는 일이 많은데(상징적 수법), 이 경우에는 끝에 도움풀이씨「하다」를 연결한다.

그 金像이 象 우희 오르락 아래 느리락 하야 (석보 11:13)

호룻 內에 八萬 四千 디위를 주그락 살락 하느니라 (월석 1:29)

須彌山도 소스락 즈므락 수기락 울월락 하더니 (월석 21:207)

누비에 ㄴ畚 구루물 거더 가락 또 오락 하느니 =納捲秋雲去復來(금강삼가 5:6)

바윗 ㄴ畝 모든 고지 제 프락 디락 하듯다 =岩畔群花自開落(남명, 상:3)

人生애 世間애 이셔 모드락 호르락 호미 또 아니한 빠로다 =人生在世間聚散亦暫時(두언 22:22)

健壯호미 누른 쇠야지 드르락 도로 오락 흠 존다라 =健如黃犢走復來(두언 25:51)

흔 모미 크락 저그락 하야 (월석 1:14)

184. 「-락」은 한 동작·상태에서 다른 동작·상태로의 전환을 나타내는데, 「-락...-락」은 그것을 되풀이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말본 체계에 있어서는 ‘되풀이풀(반복형)’로 처리되어 있다.<sup>(23)</sup> 그러나 「-락...-락」은 「-락」의 겹침에 지나지 않으며, 또 「-락」은 분명히 「-라」에서 온 씨끝인데, 「-라」나 「-락」이나 다 ‘반복’보다는 ‘전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전환법’으로 처리한다.

## (2-8) 비교법(전준법)

185. 「~하는것보다」의 뜻을 나타내거나, 앞을 사실로 다짐하고 그와

(23) 같은 책, p.323.

비교해서 뒤의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임을 강조하는 이음법을 「비교법」이라 한다.

## 「-곤/온」

186.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하는데, /ㄱ/은 다른 「ㄱ 씨끝」의 경우와 같은 조건 밑에서 없어진다. 그리고 이 씨끝 다음에는 어찌씨「하물며」가 오는 것이 보통이며, 뒤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토씨「-쑈」(p.387 참조)을 끝에 붙이기도 한다.

느미 供養을 譏弄하야 허려도 오히려 이 報를 얻곤 하물며 各別히 모딘 보물 내야 허루미<sup>쑈</sup> (월석 21:90)

흔 사름 勸하야 가法 듣게 혼 功德도 이러하곤 하물며... 말다히 修行호미<sup>쑈</sup> (월석 17:53-4)

‘석보상절’에서는 바로 위의 ‘월석’의 내용과 같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흔 사름들 勸하야 가法을 듣기 하야도 功德이 이러커니 하물며... (석보 19:8)

이것으로 보면, 「-곤」도 제약법의 한 씨끝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씨끝은 앞에 틀림없는 사실을 내세우고서, 그보다 더 자명적인 사실을 그와 비교해서 강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비교법을 따로 내세운다. 그러나 그 제약법적인 성격은 역시 강한 것이어서 고려가요에서는 제약법으로(비교의 뜻이 없이) 사용된다.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하을로 널서 (악학체법, 동동)

니물 되셔 너곤 오늘날 嘉俳<sup>쑈</sup> (〃)

그리고 한문 본문의 토와 번역문에서 「-곤」과 「-니」가 서로 대응되어 쓰인 예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이 ㄴ티 第五十人에 울며 올마 法華經 듣고 隨喜功德도 오히려 無量無邊 阿僧祇<sup>온</sup> 하물며 못 처섬에 會中에 듣고 隨喜<sup>하</sup>니<sup>쑈</sup> (법화 6:10) =...阿僧祇<sup>어니</sup> 하물며... (월석 17:50)

메 貪瞋癡 ㄴ조디 神力이 오히려 이 존하곤 하물며 法界慧自在力이 ㄴ즈니<sup>쑈</sup> (월석 18:5)

隨喜功도 그러하곤 圓持功을 아람디로다 (월석 17:54)



▽이 용례도 제약법의 성격이 농후하나, 그 속으로는 비교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莊子도 오히려 그러곤 ㅎ물며 道人이 ㅅㄱ녀 = 莊子도 尙爾은 況道人乎여 (영가, 하: 122)

내 이거스로 ㅎ 나라할 다 주어도 오히려 엎디 아니곤 ㅎ물며 諸子] ㅅㄱ녀 = 以我此物로 周給一國하야도 猶尙不匱은 何況諸子] ㅅㄱ녀 (법화 2: 77)

이 經은 如來] 現在하야도 오히려 怨嫉이 하곤 ㅎ물며 滅度後] ㅅㄱ녀 = 此經者는 如來] 現在하야도 猶多怨嫉곤 況滅度後] ㅅㄱ녀 (법화 4: 86)

俗이 齋戒도 (五辛을) 먹디 아니곤 ㅎ물며 眞實入 닻느니 ㅅㄱ녀 = 俗齋에도 不茹하곤 況眞修者] ㅅㄱ녀 (능엄 8: 4-5)

룡담 議論도 오히려 어즈럽곤 ㅎ물며 親近호미여 = 戲論도 尙亂하곤 況親近乎] 여 (법화 5: 13)

如來] 現在하사도 오히려 그러곤 ㅎ물며 滅後惡世에 機를 矚히디 아니호미 울하려 = 如來] 現在하사도 尙尠은 況滅後惡世에 可不擇機아 (법화 4: 87)

값간 들좁고 ㅎ마 善호 利를 得곤 ㅎ물며 브즈러니 行호미여 = 暫聞하습고 已得善利곤 況勤而行之여 (원각, 하 2-1: 4)

이 곤호 네 이를 하다가 일티 아니호면 ㅅㅅ미 오히려 色香味觸에 緣티 아니곤 一切 魔事] 엇메 나로 = 如是四事를 若不遺失호면 心尙不緣色香味觸이온 一切魔事] 云何發生하리오 (능엄 7: 1)

너 舍利弗도 오히려 이 經에 信으로 시러 들은 ㅎ물며 녀나몬 聲聞이 ㅅㄱ녀 = 汝舍利弗도 尙於此經에 以信得入하곤 況餘聲聞이 ㅅㄱ녀 (법화 2: 158)

既得過已하얀 尙不應住] 온 何況生天等法을 而得樂著가 = ㅎ마 디나물 得하얀 오히려 住호미 맛당티 아니하곤 ㅎ물며 生天들헛 法을 즐겨 著하리여 (금강 40)

모미 내 이솜 아니온 ㅎ물며 머리 ㅅㄱ녀 (남명, 상: 53)

187. 「-을디온」은, 앞에 나타난, 이와 비슷한 형식과 같이, 「-오-」+

「-르」+「ㄷ」(매인이름씨)+「-이-」(잡음씨)+「-온」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다.

法 爲호매 니르러도 오히려 親厚히 마를디온 ㅎ물며 또 녀나몬 이리 ㅅㄱ녀 = 乃至爲法하야도 猶不親厚] 온 況復餘事] ㅅㄱ녀 (법화 5: 18)

ㅎ다가 내 親호 子息이 비록 나를 스랑티 아니하야도 오히려 그 禍를 저허 그 害를 업게 홀디온 獨허 다습 子息의게 아니호면 엇메 상넛 어미게서 다르리오 = 如妾親子] 雖不愛妾이라도 猶懼其禍而除其害은 獨於假子而不爲호면 何以異於凡母] 리오 (내훈 3: 24)

188. 안맺음씨끝 「-으시-」, 「-으리-」를 앞세울 수 있는데, 「-으리-」밑에서는 /ㄱ/이 없어진다.

「-으시곤」: 부려도 오히려 사오나오시곤 二乘은 어루 알리로다 = 佛尙爲劣이시곤 二乘은 可知로다 (영가, 하: 69)

갈 디픈 文殊도 오히려 보디 몰호시곤 엇메 生死] 더 ㅁ새 다드로미 이시리오 = 仗劍文殊도 猶不見이온 豈容生死] 到伊邊이리오 (남명, 상: 13)

「-으리온」: 반드기 菩提 일우리온 ㅎ물며... 그 사르미 더욱 尊하야 부려 ㄷ의요미 一定토다 = 當成菩提은 況其人이 愈尊하야 其作佛이 必矣로다 (법화 4: 75)

들글 엷다 ㅎ닐 衣鉢 傳호물 許티 몰호리온 그르메 놀이린 수이 보디 몰호물 모로매 아로리라 = 無塵을 未許傳衣鉢이온 弄影은 須知不易觀호리라 (남명, 하: 29)

「-노니」

189. 「~하는것보다」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 예가 매우 드물다.

겨지비 보고 어버의게 請호디 ㄴㅅ미 겨집 ㄷ의노니 출히 더 고마 ㄷ외아지라 ㅎ리 열히로디 (법화 2: 28)



## (2-9) 동시법

190. 앞의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뒤의 일이 잇달아 일어남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동시법」이라 한다.

### 「-다가며」

191.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나다가며 本來 잇느니 뉘 호오사 업스리오 (월석 13:32)

내成佛호야 衆生들히 내 나라해 又 나다가며 다 막스미 조코 便安코 즐거부미 羅漢 곤호물 得디 못호면 正覺 일우디 아니호리이다 (월석 8:65)

아들 나호몬 싸해 디다가며 둥어리엿 히미 조스르외니 = 生男墮地要膂力(두언 25:43)

192. 안맺음씨끝 「-으시-」를 앞세울 수 있다.

나시다가며 東西로 닐굽 거름 녀시니 = 生下東西七步行(금강삼가 4:54)

193. 또 토씨 「-브터」가 연결되는 일도 있다.

나다가며브터 眞心 아니호는 사르미 늙즈스 (월석 21:215)

## (2-10) 설명법

194. 앞의 말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나가거나, 인용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설명법」이라 한다.

### 「-더」

195. 줄기에 바로 붙지는 않고, 반드시 「-오/우-」를 앞세우는데, 이 경우의 「-오/우-」는 아무런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쓰일 뿐이다.

十二部 修多羅애 出入호디 곧 기튼 히미 업스며 혼두 句를 더으며 더러브리며 뿌디 막습다보물 닐뵐 ㅁ장 기지호야 (월석, 서:19)

또 :보·디 夜叉 | 제 양지 各各 달아 (월석 21:23)

▽「보디」에 「-오/우-」의 흔적이 없어 보이나, 「보-」에 「-오/우-」가 연결되면, 줄기가 상성으로 변동하고, 「-오/우-」는 무형으로 바뀐다.

그 나랏 法에 붙 터 사르물 모도오디 통부플 티면 十二億 사르미 물고... 金부플 티면 十八億 사르미 다 몰더니라 (석보 6:28)

寂寂體를 솔보디 구티여 法身이라 일롰즈블니라 (월석, 서:5)

山이 이소디 일후미 鐵圍니 (월석 21:74)

世尊하 내 :보·디 이 閻浮衆生이 발 들며 念 뉘우매 罪 아니니 업스니 (월석 21:102)

法雨를 비호디 게을우미 업소니 (법화 3:41)

葡萄 업거늘 粳米 :나·디 한 도흔 마시 다 ㅁ터니 (월석 1:43)

▽「나디」의 경우에 있어서도 「-오/우-」는 무형의 변이형태를 취하며, 줄기가 상성으로 변동한다.

싸홀 불보디 물 끓듯 호고 므를 불보디 싸 끓듯 호더니 (석보 6:34)

말싸물 솔블리 :하·디 天命을 疑心호실씨 ㅁ으로 뵈아시니 (용 13장)

▽「하디」도 「나디」의 경우와 같다.

나는... 늑디그에 브터 사로디 우리 어시아드리 외롭고 입게 드외야 (석보 6:5)

나심저기 히 디·여:가·디 그 지븐 光明이 비칠씨 (월석 1:9)

▽「가디」도 「나디, 하디」의 경우와 같다.

阿修羅는... 福과 힘과는 하늘과 ㅁ토디 하늬 형더기 업스니 (월석 1:14)

무로디 寂寂호미 일후미 ㅁ거늘 엇메 法身이라 일흠 지호노 對蒼호디 法身이 實로 일흠 업건마룬... (월석, 서:5)

目連이 솔보디 太子 羅睺羅 | ... 부터 ㅁ득시디 호리이다 (석보 6:3-4)

表 지시 열즈블니 그 表애 ㅁ로디... 말싸물 열즈노이다 우리는 드로니... (월석 2:69)



값소리 六合에 두퍼쇼디 녀가는 비치 즈모 殘微호도다 =家聲盖六合  
行色何其微(두언 22:41)

書信이 이리슈디 디나갈 그려기 업고 =書成無過鴈(두언 20:26)

▽두퍼쇼디 ← 두페쇼디 ← 두퍼이쇼디

이리슈디 ← 이레슈디 ← 이레이슈디

196. 잡음씨 밑에서는 「-오/우-」는 「-로-」로 변동한다.

밀드리 사으리로디 나거사 즈므니이다 (용 7장)

入聲은 點 더우문 홀가지로디 색르니라 (훈, 언해)

大目捷連이 神力이 第一이로디 神力을 다 써 (월석 21:191)

有 | 아니로디 無 | 아니 두외시며 (월석 9:13)

모든 想이 하나히 아니로디 다 能히 輕淸호며 늘썩 =諸想이 不一호  
디 皆能淸淸飛舉홀시(능엄 8:71)

▽「-오/우-」의 변이형태의 자세한 설명은 p.627 이하 참조.

197. 「-오/우-」 앞에 안맺음씨끝 「-습-」을 앞세울 수 있다.

홀가지로 一音 教澤을 넙스보디 各各이로물 니르시니라 (월석 13:47)

置陣이 늑과 다르샤 아스보디 나사오니 (용 51장)

大瞿曇이... 물즈보디 그디 子息 업더니 므스 罪오 (월석 1:7)

「-습-」 다음에 「-오/우-」를 넣지 않은 예외가 하나 보인다.

帝釋이 世尊의 請호스보디...(월석 21:1, 기 412)

198. 「-오/우-」 앞에 안맺음씨끝 「-(습)시-」를 앞세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으시-」는 「-으샤-」로 변동하고, 「-오/우-」는 무형의 변이형  
태를 취한다. (→p.674)

「-으샤디」: 지블 빋이샤디 七寶로 꾸미시며 (천강곡 상, 기 117)

世尊이 또 文殊師利드려 니르샤디 文殊師利여... (석보 9:11)

六年에 도라오샤디 恩惠를 니즈샤 (천강곡 상, 기 141)

討賊이 겨를 업스샤디 선비를 득스실썩 (용 80장)

世尊이... 諸佛와로 다른 이비샤디 혼 소리로 地藏菩薩을 讚歎커시놀

(월석 21:156)

萬物의 호는 이리 홀가지샤디 호디 아니호는 짜해 겨시며 (월석 9:13)

「-샤-」 앞에 「-오/우-」를 다시 앞세운 형태가 보이는데, 이것은 오용으로 생  
각된다.

耶輸 ]...大愛道の 솔보샤디...(석보 6:7)

「겨시-」의 「-시-」는 어원적으로는 안맺음씨끝이었기 때문에, 「-오/우-」  
가 연결되면 「겨샤-」로 변동한다.

그에 부테 겨샤디 일후미 釋迦牟尼시니 (석보 19:40)

「-스보샤디」: 文殊 | 摩耶의 請호스보샤디 歡喜園에 가 아들님 보  
쇼셔 (월석 21:1, 기 412)

俱夷 물즈보샤디 므스게 쓰시리 (월석 1:10)

199. 「-오/우-」에 다시 「-으리-」를 앞세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우-」는 「-로-」로 변동한다.

世間에 드르며 디니리 헤디 물호리로디 果然 能히... 種智 낸 사르  
미 누고 (월석 17:34)

## (2-11) 비례법

200. 앞 일의 되어가는 정도에 비례해서 뒷 일도 되어가는 뜻을 나타  
내는 이음법을 「비례법」이라 한다.

「-더웃」

201. 줄기에 바로 붙는다.

이 하늘들히 놀더웃 목수미 오라느니 (월석 1:37)

顏淵이 孔子를 기류디 울워더웃 더 노꼭시고 비비더웃 더 구드시다  
호니라 (법화 2:173)

더니논 行이 더 질더웃 功 어두미 더 勝호들 불기시니라 =明持行이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益深<sub>디</sub>웃 獲功이 益勝也<sub>히</sub>시니라(법화 7:109)

하마 들 업수믈 아<sub>디</sub>웃 더욱 거긔 빠두미 顯<sub>하</sub>야 = 既悟無二<sub>히</sub>디웃 益顯妄淪<sub>하</sub>야(능엄 4:56)

金銀은 一百번 불이<sub>디</sub>웃 더욱 精<sub>하</sub>야 變티 아니<sub>하</sub>며 = 金銀은 百鍊愈精而不變<sub>하</sub>며(능엄 7:12-3)

道 | 큰 바<sub>리</sub> 곤<sub>하</sub>야 더욱 드<sub>디</sub>웃 더욱 기프리라 = 道 | 如大海<sub>하</sub>야 轉入<sub>하</sub>디웃 轉深<sub>하</sub>리라(몽산 49)

구짓는 소리 좃<sub>디</sub>웃 고리 더욱 들에<sub>느</sub>니 = 詞聲唯頻谷中轉關(원각, 하 1-2:50)

아논 뜨디 오직 하<sub>디</sub>웃 我見이 오직 길시 = 解義 | 唯多<sub>하</sub>디웃 我見이 唯長故로(원각, 하 3-1:66)

202. 다음의 「-디웃」은 씨끝 「-디」와 토씨 「-웃(←긔)」으로 분석된다. (p.381 참조)

福을 니퍼 내 難을 救<sub>디</sub>웃 아니<sub>하</sub>면(월석 21:56)

「-을스룩」

203. 줄기에 바로 붙는다.

사귀는 뜨든 늘글스룩 또 親<sub>하</sub>도다 = 交情老更親(두언 21:15)

## (2-12) 흡사법

204. 흡사함, 따라서 때로는 비유를 나타내는 이음법을 「흡사법」이라 한다.

「-돏/돏/돏/돏시/드시/더시」

「-돏」

205.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한다. 그리고 뒤에는 대부분 도움풀이씨 「하」가 연결된다.

百姓이 저재 가<sub>돏</sub> 모다 가(월석 2:7)

法이 ...너비 펴아가미 술위떠 그우<sub>돏</sub> 흘찌(석보 13:4)

病<sub>하</sub>너 녀시 도로 썰저긔 꾸므로서 켜<sub>돏</sub> 하야(석보 9:31)

圓光이며 化佛이며 寶蓮花는 우희 니르<sub>돏</sub> 하니라(월석 8:45)

精氣는 녀시라 하<sub>돏</sub> 훈 뜨디라(석보 9:22)

辭는 하디이라 하<sub>돏</sub> 훈 마리라(석보 6:22)

마<sub>마</sub>니 잇는 그르세 달<sub>돏</sub> 하니 = 貯於靜器<sub>하</sub>하니(능엄 4:88-9)

새와 새왜 머뜨디 아니호미 브리 지 드<sub>의</sub>돏 하야 = 新新不住호미 如火

| 成灰<sub>하</sub>하야(능엄 2:4)

가즐비전댄...亭主 | 라 하<sub>돏</sub> 하니 = 譬如...名爲亭主 | 라 하<sub>돏</sub>하니(능엄 2:24)

金鑛이 精金에 섯<sub>겻</sub>돏 하니 = 如金鑛이 雜於精金<sub>하</sub>하니(능엄 4:37)

▽섯<sub>겻</sub>돏←섯거잇돏

기운 蓋 펴<sub>돏</sub> 호물 기들오노라 = 聊待偃蓋張(두언 18:14)

▽펴<sub>돏</sub>←펼<sub>돏</sub>←펴잇돏

206. 「-돏 하다」는 「돏다」로 줄어지는 일이 있다. (p.296 참조)

하마 여러 河水를 쓰<sub>돏</sub>다 하시니(월석 14:71)

그럴찌 니르사더...더 大雲이 一切에 비 오<sub>돏</sub>다 하시니라(법화 3:22)

들넉긔 구름 몰<sub>돏</sub>더시니(천강곡 상,기 83)

207. 안맺음씨끝 「-으시-」와 「-습-」을 앞세울 수 있다.

「-으시돏」: 普賢으로 長子 사<sub>마</sub>시<sub>돏</sub> 하니 = 以普賢으로 爲長子<sub>하</sub>시<sub>돏</sub>하니(법화 4:60-1)

「-습돏」: 더...如來入 功德을 내 일<sub>곤</sub>습<sub>돏</sub> 하야(석보 9:26)

내 太子를 섬기스보더 하날 섬<sub>기</sub>습<sub>돏</sub> 하야(석보 6:4)

「-돏」

208. 「-돏」의 변이형태였던듯 한데, 그 용례는 매우 국한되어 있다.

地藏菩薩이 이<sub>러</sub>돏 훈 ...利益<sub>하</sub> 이<sub>러</sub> 잇느니(월석 21:99)

이<sub>러</sub>돏 훈 굴근 菩薩(월석 7:62)



「-덧」

渴<sup>1</sup>은제 <sup>2</sup>뿐 <sup>3</sup>물 먹<sup>4</sup>덧 <sup>5</sup>하야 (월석 7:18)

210. 「-듯 하다」, 「-듯 하다」에서 파생된 어찌씨가 「-드시」, 「-드시」인데, 이것은 녹아 붙은 한 씨끝으로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씨끝은 「~하다」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음에 「하다」가 접속되는 일은 없다.

요주숨 누넛 가시 아사 브리드시 그 샤웅을 뵙으리와의니 =近者扶  
眼去其夫 (두언 25 : 9)

「-드시」: 새집과 살빠기 門이 별 흔드시 사느니 = 草閣柴扉星散居(두  
언 25:23)

이 예의 「이러트시」는 파생 어찌씨로 보는 수 밖에 없을듯 하다.

거우루에 닷 보디시 훔디니 (월석 8:20)

211. 힘줄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힘줄법」이라 하는데, 강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풀이씨를 되풀이한다.

「-4」

618

## (2-14) 가치 법

212. 그렇게 할만한 가치, 또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이음  
법을 「가치법」이라 한다.

「-암직/엄직」

213.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기도 하는데, 뒤에는 도움풀이씨 「ㅎ다」가 오는 것이 보통이나, 「아니ㅎ다」, 「묻ㅎ다」가 접속되는 일도 있다. 그리고 「암/엄」의 변동조건은 제약법 씨끝의 「아/어」의 경우와 같다. (→p. 532)

人天 ㄸ의압직 흥니란 爲흥야 十善을 니르시고 (월석 13: 51)

애와터 앓점직 흥두다 = 爲可歎惜矣로다 (능엄 3: 116)

비록 外護ㅣ尊하얌직 하나 =雖外護可尊 (법화 5: 11)

너희 무른 한번 우섬직 하도다 = 爾輩堪一笑 (두언 25:15)

두 지븐 어루 머므림직 호도다 = 二宅可淹留 (두언 22:1)

나스며 물로미 보웜직 흥며 =進退可觀 (금강삼가 2:17)

▽「보암직」은, 「보암-」의 두 홀소리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ㅊ~ㅈ」 사이의 파도음 [w]를 한 음소로 강조한 형태이다.

地獄과 鬼와 畜와는 어드운디 毘야호로 祇마 得度하얌직 아니홀썬  
(법화 7:79)

三惡趣 | 보야호로 得度호암직 몰호야도 (법화 7:93)

「~직 하다」의 「ㅎ」는 줄어드는 일이 있다. (→p. 463)

遺囑을 이대 맞담직다 호몬 = 妙堪遺囑者 (능엄 1: 26)

####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우섬직다 =可笑이라 (남명, 하: 50)

214. 안맺음씨끝 「-습-」을 앞세울 수 있다.

등어리 띄요물 可히 뼈 天子의 받즈왓직 하니 =炙背可以獻天子(두언 7: 13)

215. 엄밀히 분석한다면, 이 씨끝의 첫홀소리 「-아/어-」는 한 형태소로서 분석이 될 수 있을것도 같으나, 여기에서는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아만/어만」

216. 극히 드물게 보이는 예이며, 도움풀이씨 「하다」가 접속된다.

소리와 빛나미 眞實로 可히 드리만 하도다 =聲華眞可聽(두언 6: 19, -중간도 같음)

(2-15) 되풀이법

217. 되풀이되는 일, 겹쳐지는 일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되풀이법」이라 한다.

「-곰」

218. 뒤에는 매인풀이씨 「하다」가 접속된다.

흔 瓶의 ㄴ득거든 흔 瓶이 뼈곰 하야 (월석 7: 9)

흔 부체를 다드니 흔 부체 열이곰 흘씨 (월석 7: 9)

猶는 중성의 일후디니 性이 疑心 하니 山中에 이서 아모 소리나 드르면 미리 남기 올라 오래 사름 업슨 後에사 느려 아니한 더데 또 오록곰 흘씨 疑心하야 決티 묻하는 사름물 猶豫이라 하느니 豫는 미리 흘씨라 (법화 1: 163-4)

이 아기를 아나다가 브레 브리곰 호미 두번이러니 (<정양사 영인> 불정심경 p.70)

「-암/엄」

219. 「아/어」의 변동조건은 제약법 씨끝의 「-아/어」의 경우와 한가지

다. (p. 532 참조)

《五百 원승이가 우물에 비친 달을 보고 잡으려고 하는 광경》흔 나미 나못가지 자바늘 다르니 쏘리 자발 서르 니스니 뜨거워 나못가지 것 거디여 (남명, 상: 27)

顯現은 나달 날씨오 (월석 10: 49)

五十五位에 더 나삼 드러 =增進五十五位 (능엄 1: 21)

善을 積하야 니설 公候를 난돗다 =積善衮衮生公候 (두언 8: 24)

諸公은 니설 臺省에 오록거늘 =諸公衮衮登臺省 (두언 15: 36)

☆다옴업슨 긴 ㄴ룩론 니얼 니어 오돗다 =不盡長江衮衮來 (두언 중간 10: 35)

☆니얼 니어 牛頭에 올오라 =衮衮上牛頭 (두언 중간 9: 35)

ㄴ룩 ㄴ릿 흔 남기 드리얼 프느니 =江邊一樹垂垂發 (두언 18: 4)

히를 겨집과 子息과 묻느니 곳 쩔 歲月이 올마가돗다 =筋力妻孥問 菁華歲月遷 (두언 20: 1)

올만 비겨서 王室을 보고 =徙倚瞻王室 (두언 23: 16)

(2-16) 연결법

220. 씨끝 자체가 일정한 의미 내용을 가지지 않고, 다만 다음에 매인풀이씨를 접속하게 하는 이음법을 「연결법」이라 한다.

221. 앞의 다른 이음법들은 일정한 의미 내용을 가지고서 다음에 다른 말을 접속하게 하는 것이며, 설혹 다음에 매인풀이씨가 접속되는 경우일지라도 그 씨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내용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인데(앞에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음), 여기의 연결법은 다음에 반드시 매인풀이씨가 접속되며, 그 씨끝은 단순히(일정한 내용 없이) 으뜸풀이씨와 매인풀이씨를 연결해 주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아/어」

222. 변동조건은 제약법의 「아/어」의 경우와 같으며, 여러가지 매인



풀이씨를 접속하게 한다. (→p. 532)

일로 혜여 보견덴 (석보 6:6)

恩惠를 니저 브리샤 (석보 6:4)

黨이 하마 이러 잇느니 (월석 2:6)

▽「하야+있다」형이 「하엿다」 형으로 변하고, 다시 「하얏다」 형으로 변한 데 대해서는 p. 421 이하 참조.

못 乃終入 부테 出家 아니하야 겨살저기 여들 王子를 두 겨샤던 (석보 13:29)

▽「두-」 다음에는 「-아/어」가 들어진다.

히 디여 가던 (월석 1:9)

달 다마 두코 (월석 1:7)

뎡마라 내요물 (두언 16:14)

五百 銀도노로 다솟 줄기를 사아 지라 (월석 1:10)

世尊入 말을 듣좁고 도라보아 호니 제 몸이 고려 드외니 (월석 2:48, 기 29)

제 모뎡 고기를 바혀내논드시 너겨 호며 (석보 9:12)

내 혜여 호니 이제 世尊이... (석보 13:26)

오직 魔王곳 ... 시름하야 호더라 (월석 2:42-3)

내 命 그추미사 드더니 너기가니와 ... 이 네홀 몰보아 호노라 (월석 10:4)

이 比丘 | 經典 닐거 외오물 專主 하야 아니호코 (석보 19:30)

너희 두리여 말며 (월석 14:77)

223. 이 씨끝은 안뎡음씨끝 「-습-」을 알세울 수 있다.

이 東山을 사아 ... 精舍를 이르스바 지이다 (석보 6:24)

▽「사아」는 제약법이다.

能仁을 信奉 호스와 지이다 (영가, 하:141)

法要 들즈와 지이다 (육조, 상:2)

그저기 世尊의 四衆이 圍繞 호스바 이셔 供養 호스 받며 (석보 13:11)

文殊師利는 ... 無量諸佛의 ... 供養 호스바 이실씨 당다이 이런 希有 호 相을 보스바 잇느니 (석보 13:15)

224. 이 씨끝에는 토씨 「-도」, 「-셔」가 연결될 수도 있다.

梵志들히 仙人入 道理 닛노라 하야 옷 바사도 이시며 나뭇닙도 머그며 (석보 24:25-6)

性靈을 뎡마라 내요물 드스거슬 두어셔 호리오 = 陶冶性靈存底物 (두언 16:14)

225. 「-아도/어도」 형은 세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 불구법의 씨끝으로 쓰이는 경우이니, 이 때에는 분석되지 않는 한 씨끝으로 보아진다. (p. 565 참조)

다음으로는, 제약법 씨끝 「-아/어」와 토씨 「-도」로 분석되는 경우이고 (p. 536 참조), 다음은 여기의 용법처럼, 연결법 씨끝에 토씨 「-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이다. 이 세가지는 그 뜻이 각각 다르니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아서/어서」형도 제약법으로 쓰이는 경우 (p. 536 참조)와 연결법으로 쓰이는 일이 있는데, 역시 구별해야 한다. 제약법은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오는 말의 내용을 제약하는 힘을 가졌거나, 일정한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연결법은 특별한 의미내용을 가지지 않고, 오직 다음에 오는 도움풀이씨와 접속해 줄 뿐이다.

「-거(어), -가(아)」

226. 뒤에 희망을 나타내는 매인풀이씨 「지라, 지이다」(→p. 430)가 접속되며, /ㄹ/, ㅁ이 /j/ 밑에서 /ㄱ/이 탈락한다. (그리고 「-거」와 「-가」의 구별에 대해서는 p. 805-6 참조)

「-거(어)」: 아비 보라 니거지라 (월석 8:101)

내 니거지이다 가샤 (용 58장)

모든 놀람과 저흠 업거지이다 = 無諸驚懼 하야지이다 (영가, 하:140)

▽이 예문의 본문의 토(하야)와 번역문의 「업거」를 비교해 보면, 연결법의 「-거」와 「-아/어」는 용법에 별다른 점이 없었던듯 하다.

중 드외어지라 (두언 8:1)

흔디 神通大光藏애 들어지이다 = 同入神通大光藏 하야지이다 (원각, 하



3-2: 102-3)

「들어」는 「\*들거」의 변이형태인데, 토의 「하야」와 대조해 보면 양자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던 듯 하다.

「-가」: 願하노니 가 나가지이다 (월석 8: 96)

내 後에 ...世尊 온가지이다 (월석 2: 9)

내 기로니 이에 살아지라 (월석 7: 12)

願하든 내 生生에 그딧 가시 드외아지라 (←\*드외가; 월석 1: 11)

227. 「-거」에 토씨 「-아」가 붙게 되면, 뒤에 다른 여러가지 말들이 접속될 수 있고, 그 내용도 다음 말의 뜻을 제약하는 힘이 강하므로, 이 경우에는 제약법이 된다. (p. 537 참조)

諸佛이 神力 나토삼 時節이 百千히 츠거사 도로 舌相을 가드시고 (석보 19: 39)

무수미 서르 體信호매 밋거사 實相을 비샤=及...心相體信커사 乃示實相하사 (법화 1: 4)

「-디」

228. 부정을 나타내는 매인풀이씨 「아니(하)다, 못하(디)다, 말다」를 접속하게 한다.

正하 보물 허디 아니하며 (석보 9: 15)

固執디 아니하야 (석보 13: 38)

석디 아니하려 =不朽아 (능엄 2: 4)

賢智를 비디 아니라 물읏 사르미 能히 하느니 =非假賢智라 凡人이 能之니 (법화 6: 31)

沙彌들히 부테 禪에 나디 아니신들 아스와 (법화 3: 190)

眞空이 본디 하야디디 아닌들 흰히 알면 =豁悟眞空元不壞 (금강삼가 2: 73)

「아니하-」가 「아니-」로 줄어지는 데 대해서는 p. 436 참조.

죽디 몰하야 (석보 6: 5)

쉽디 몰하 (석보 13: 40)

自得디 몰하리니 (석보 9: 16)

菩提入 길헤 게으르디 말라 (능엄 2: 75)

다 모디 더를 가겠디 마로리라 =都不要管他 (몽산 26)

229. 안맏음씨끝 「-습-」을 앞세울 수 있다.

부테 즈로 니르샤도 從하습디 아니하더니 (석보 6: 10)

한 사름들히... 如來를 울워러 보스와 누늘 값간도 브리습디 아니 터니 (월석 21: 31)

如來를 시러 보습디 몰하리니 (금강 29)

해 얼줍디 몰하리니 =不可多得 (능엄 3: 111)

四句를 向하야 黃老를 얼줍디 말라 =莫向四句覓黃老 (금강삼가 2: 42)

「겨시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으시-」를 앞세울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나, 그 예를 미처 찾지 못했다.

서르 겨시디 아니하시니라 (원각, 상 1-1: 63)

230. 토씨 「-긔(웃)」이 뒤따를 수 있다. (p. 381 참조)

내 難을 救티웃 아니하면 (월석 21: 56)

「-디웃」은 이대로 비례법의 씨끝으로 쓰인다. (p. 615 참조)

231. 또 토씨 「-도」가 연결되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디」가 줄어들린다. (p. 375 참조)

이 法이 되도 몰하며 니르도 몰하리니 (석보 13: 41)

232. 이름법의 「-디」에 대해서는, →p. 637.

「-들/들/드란」

233. 부정을 나타내는 매인풀이씨 「아니하(디)다, 못하(디)다」를 접속하게 하며, 「-들」과 「-드란」은 「-들」의 변이형태인 듯 한데, 그 용례가 매우 드물다.

「-들」: 내 너희들홀... 업시우들 아니하노니 (석보 19: 29)

놈 더브러 드토들 아니하노이다 (석보 11: 34)



河陽엿 軍卒이 혼들 아니하니 = 未散河陽卒 (두언 24:16)  
 이 ㅁ을 사르미 足히 重히 너지들 아니하느니 = 邦人不足重(두언15:3)  
 凡과 聖과를 通틀 아니하시니 = 不通凡聖(금강삼가 2:3)  
 ㅁ스매 오히려 블기들 몬하야 = 心猶未明하야 (능엄 2:67)  
 舜을 닛들 몬하야 = 不忘舜 (두언 7:9)  
 愛見을 닛들 몬하씨 = 愛見을 未忘하실씨 (법화 6:157)

위의 '법화 6:157'의 예문과 같은 사실을 기술한 '월석'에서는 「닛디」(월석18:42)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디」와 「-들」은 별로 다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들」은 이름법 씨끝으로도 쓰인다. (→p.637)

「-들」: 목수들 머물우들 몬하시니 (월석 10:15)  
 「-드란」: 치마엿 아기를 싸디오 쇼느로 언다가 얼드란 물고 어분 아기를 조쳐 디오 (월석 10:24)

× × ×

#### [이음법 씨끝 일람표]

- (1) 씨끝 앞, 괄호 안의 형태소는 꼭 앞서야 할 씨끝.
- (2) 되도록이면 대표형태 하나만을 보이기로 한다.

- (1) 제약법: -으니, -으면, -을씨, -어, -거, -억, -은대, -은디, -은덴, -(거,더)ㄴ텐, -(우,더)ㄴ덜(든), -(우)덜, -으란디, -관디(곤대), -(우)ㄴ덴(던), -(거, 어, 더)든, -(거, 어)늘, -라, -을시언덩(을션덩), -사
- (2) 불구법: -으나, -어도(라도, 나도), -고도, -(거,어)니와, -(거,어)ㄴ마론, -은돌, -디비, -란디만덩, -(거)ㄴ덩, -을쥔덩
- (3) 나열법: -고, -꼭, -으며, -으니... -으니
- (4) 가림법: -으나
- (5) 의도법: -고져, -과더(과더여), -겻고(겻고, 껏고), -웃, -(우)려, -으라, -가, -곳디
- (6) 미침법: -도록, -게

- (7) 전환법: -다가, -으라, -으락.
- (8) 비교법: -곤, -노니
- (9) 동시법: -다가며
- (10) 설명법: -(우)더
- (11) 비례법: -더욱, -을수록
- (12) 흡사법: -듯(듯, 듯, 드시, 드시, 디시),
- (13) 힘줄법: -나, -도
- (14) 가치법: -엄직, -어만
- (15) 되풀이법: -곰, -엄
- (16) 연결법: -어, -거, -디, -돌(들, 드란)

× × ×

## 2) 두기능법의 굴곡범주

풀이씨가 한편으로는 풀이말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씨처럼 기능하는 두기능법에는 「이름법」과 「매김법」이 있다. (→p.479 참조)

### (1) 이름법(명사법)

「-ㅁ」

1. 이 씨끝은 반드시 「-오/우-」를 앞세우는데, 이 경우의 「-오/우-」는 아무런 문법적 의의를 가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끼여들 뿐이며, 여러가지 변이형태를 가진다.

〈「-오/우-」의 변이형태〉

「-오/우-」

2. 「-오-」와 「-우-」는 원칙적으로 홀소리조화 규칙에 의해 규정되며, 줄기의 끝소리가 닿소리인 경우에는 「-오-」 「-우-」는 아무런 변동을 일



으키지 않는다.

甚히 기쁜 형더기라 아로미 어려보니 (석보 9:26)

안쥬 건노매 어마님 모르시니 (월석 9:24)

도흔 法 닷고물 못하야 (석보 9:14)

흔논 일 업수미 비록 뷔나 (월석 8:31)

내... 두리부미 업소니 (월석 7:6)

3. 줄기의 끝소리가 /으/, /으/인 때는 /으/, /으/는 줄지만(→p.459)

「-오/우-」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天人 濟渡호물(←호) 절비 아니호미 당다이 나 존하리라(월석 1:17)

빅 골품(←골품)과 목 물름(←목름)과 (월석 2:42)

工巧하신 方便은 다오미(←다으) 업스리라 (석보 9:24)

부테 授記하샤미 글 쭈미(←쭈) 존고 (월석 8:96)

웃기습 굶우물(←구스) 앓기니라 =惜曳裾 (두언 20:34)

玉을 굶우문 =拖玉 (두언 15:25)

빋난 빗우물(←비스) 願티 아니하고 =不願榮飾 (영가, 하:137)

4. 줄기의 끝소리가 /ㅏ, ㅑ, ㅓ, ㅕ/인 말에 있어서는, 「-오/우-」가 주는 일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줄지 않는다.

브라오미 그츠니 =目斷 (두언 6:29)

이어오미 일썩 =成搖 (능엄 4:18)

虛空이 이어음 내요물 因하야=因空이 生搖하야 (능엄 4:18)

나랏 有情이 正覺 일우오물 一定티 못하면 (월석 8:61)

生死涅槃이 다 업수미 두넉 ㅗ 눈호오미 업슨 止니 (월석 8:67)

이 經이... 微妙흔 이를 나토오미 蓮고지 ...조호미 존고(석보 13:33)

5. 다음은 「-오/우-」를 줄인 예 :

거츠리 이엄과물 因하야=因妄搖(능엄 4:21)

막술히 업서 브라물 머리 하리로다=無村眺望餘(두언 7:7)

하물며 風塵이 오라미 썩너=況乃久風塵(두언 6:31)

6. 줄기의 끝 소리가 /이/인 경우에는, 이것이 반홀소리로 변하여 「-오/우-」와 한 음절로 축약되나, 「-오/우-」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안쥬 건노매(←건니) (월석 2:24)

利養은... 제 몸썩 도히 쉼미라(←치) (석보 13:36)

모로매 能히 허루미 을마 혈요미(←혈이) 드외야 =須了能破轉爲所破 (영가, 하:25)

히 :뉘(←디) 존하니 =如日顔 (능엄 2:5)

ㅗ술히 :뉘·를 =秋落 (영가, 하:44)

7. 「잇다」에 「-오/우-」가 연결될 때는, 「잇-」은 「이시-」로 변동하여, 위의 경우와 같은 어형을 취한다.

이슈메 (월석 8:30)

이쇼문 (석보 19:28)

陰陽入 氣分이 사후 히를 뒤도라슈미 지여숨 존하며 =陰陽之氣 或背日호미 如負하미 (능엄 2:87)

所親이 머므러 브터쇼물 묻느니 =所親問淹泊 (두언 8:4)

도라숨←도라+(이)숨

지여숨←지여+(이)숨

브터숨←브터+(이)숨

「-요/유-」

8. 줄기의 끝소리가 /ㅑ/(ㅓ)인 경우에는, 반홀소리 /ㅑ/를 첨가한다.

드리 즘든 ㅗ락매 비취요미 존하니라 (월석 1:1)

흔 念 처섬 뉘유미 일후미 行이니 (월석 2:21의 1)

優曇鉢華 時節이어사 흥번 뵈요미 존하니라 (석보 13:47)

을하며 외요미 다 업스니 (월석 8:29)

사락미 몸 드외요미 어렵고 (석보 9:28)

브려오미 드외요물 즈모 아노라 =頗覺寄來遲 (두언 7:39)

새 개요물 알외디 아니하리로다 =不...報新晴 (두언 6:16)

9. 「하-」의 경우에는 /으/가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줄지 않고,

4. 맺음새끝의 굴곡범주



「-오-」가 「-요-」로 변동하는 일이 있다.

ㅁ스맷 行<sub>ㅎ</sub>옴과 ㅁ스맷 動作<sub>ㅎ</sub>옴과 (석보 19:24)

行<sub>ㅎ</sub>옴은 상넷 이틀 조차 ㅎ는 ㅁ스미오 (석보 19:25)

法音 分別<sub>ㅎ</sub>옴으로 네 ㅁ스 사뭇딘댄 =以分別...法音<sub>ㅎ</sub>옴으로 爲汝心者]댄 (능엄 2:24)

<참고> 저문젯 들트옴을 사랑<sub>ㅎ</sub>야 (두언 중간 3:51)

10. 앞에서 보인 「디-」의 이름꼴 「뉘」은 제음직씨의 경우인데, 「디-」는 남음직씨로도 쓰일 수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이름꼴이 「디옴」이 된다.  
集賢殿 學士] ...中書堂애 분 :디옴·뉘 보더라 =觀我落筆中書堂 (두언 25:52)

家門入 소리를 싸해 :디옴·뉘 즐기리아 =家聲肯墜地 (두언 8:57)  
그 밖에도 이러한 변동형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

느의야 흐리옴 업듯 ㅎ야사 =無復汨濁 (능엄 4:90)

「무형」

11. 「가-, 나-, 자-, 하-; 녀-; 오-, 보-; 두-, 주-」나, 이 말과의 합성어 「맛나-, 빛나-」에 있어서는 「-오/우-」가 줄면서 줄기 끝음절의 성조가 상성으로 변한다. (24)

:감·과 :옴·과 =去來 (능엄 2:105)

늬과 달 :나·뉘 즐겨 (석보 9:16)

지머 :자·매 날씨 =生於寤寐 (능엄 3:13)

不可思議는 ...ㅁ장 :하·뉘 니르니라 (월석 7:72)

無始부터 :오·매 =無始來에 (능엄 2:1)

머즌 :보·매 뼈디엿거든 ... 正호 :보·매 두어 (석보 9:8)

笙 :두미 ㅁ장 슬<sub>ㅎ</sub>니라 (월석, 서:22)

즐거본 일 :주·미 그지업슬씨오 (석보 13:39)

부터 맛:나·미 어려브며 (석보 6:11)

(24) 허 웅: 중세국어 연구 pp.329-333, 342-4.

소리와 빛:나·미 眞實로 可히 드러만 ㅎ도다 =聲華眞可聽(두언 6:19)

## 12. 잡음씨의 경우:

「-로-」

잡음씨 밑에서는 원칙적으로 /ㄹ/을 덧붙인다.

工夫] ㅎ가지로뉘 니르니라 (몽산 19)

세히 業이 ㅎ가지로뉘 因<sub>ㅎ</sub>씨 =因...三者業同 (능엄 4:25)

能히 色이로미 거우루의 불곰 곤<sub>ㅎ</sub>시라 =能色호미 如鏡之明<sub>ㅎ</sub>시라(원각, 상 1-1:59)

뉘 그림제 眞實入 들 아니로미 곤<sub>ㅎ</sub>니라 (월석 2:55)

智 들 아니로뉘 ㅎ 智慧로디... (월석 8:31)

잡음씨 밑에 「-오-」를 붙이는 일도 있고,

同業은 妄을 感호미 ㅎ가조뉘 니르시니 =同業은 言感妄所同이니 (능엄 2:79)

業 ㅎ가조뉘 ... (원각, 하 1-1:16)

스춤 아노미 아니라 (월석 1:36)

이 萬象中에 ... 見 아노미 업도소이다 =是萬象中에 ... 無非見者]로 소이다 (능엄 2:52)

뉘 아노미 잇다 닐오미 못<sub>ㅎ</sub>리니 =不應言...有...非見(능엄 2:83)

數와 數 아노매 디여이쇼뉘 니르시고 (남명, 하:13)

아주 드물기는 하나 「-오/우-」를 줄이는 일도 있다.

滔滔는 프리 두루 퍼딘 양지니 사르미 다 ㅎ가지뉘 가즐비니라 (내훈 2상:15)

## 13. <붙임>

이름꼴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은 없으나, 안맺음씨끝 「-으리-」 다음에 서 「-오/우-」는 「-로-」로 변동한다. (→p.615)

못<sub>ㅎ</sub>리로디 (월석 17:34)

14. 이 씨끝 「-ㄱ」은 「-오/우-」 이외에 다시 그 앞에 「-습-」과 「-으



시-]와 그 연결체 「-습시-」를 앞세울 수 있는데, 「-으시-」에 「-오/우-」가 연결될 때는 「-으시-」는 「-으샤-」로 변동하고, 「-오/우-」는 무형의 변이형태를 취한다.

「-스롭」: 昭憲王后 | 榮養을 쉼리 버려시늘 쉼리 슬쑈보매 이셔 (월석, 서: 10)

▽슬쑈보매 ← 슬 + 스롭 + 오 + ㅁ + 애 (토씨)

菩薩이 부텃 法 프르스보미 아득리 아빅 천량 물러가주미 존홀썸 菩薩을 부텃 아득리라 하느니라 (석보 13: 18)

우리 부텃 如來 ... 일후미 天人師 | 시며 일존조보미 一切智샤 (월석, 서: 6)

이 일후미 부텃 恩을 갑스오미이다 = 是則名爲報佛恩이다 (능엄 3: 112)

▽갑스오미이다 < 갑스보미이다

젓스오며 스랑하스오물 兼하야 (능엄 7: 28)

▽~하스오물 < ~하스보물

大悲로 일존조오미라 = 以大悲로 稱也 | 시니라 (능엄 6: 41)

▽일존조오미라 < 일존조보미라

「-으샤」: 正覺 일우샤물 비샤 = 示成正覺 (월석, 서: 6)

이리<sup>하</sup>샤<sup>ㅁ</sup>로 아홉 큰 劫을 건내뛰여 (월석 1: 52)

先知先覺이샤물 니르시고 = 記先知先覺也 (법화 3: 17)

東南門 노니샤매 늘그니 病하니를 보시고 (천강곡 상, 기 44)

「겨시-」의 「-시-」도 어원적으로는 안맺음씨끝이었기 때문에, 「-ㅁ」앞에서는 「-샤-」로 변동한다.

간샬 겨샤매 오늘 다르리잇가 (용 26장)

「-스롭샬」: 풍류에 十萬가짓 伎樂 받조<sup>ㅁ</sup>샤<sup>ㅁ</sup> 妙法 너비 펴고져 호물 비시고 (월석 18: 83)

네 디나진 諸佛法身菩薩이 ... 法王 돕스오샤미 한 버리 들 圍遶<sup>ㅁ</sup> 하샤 (법화 1: 26)

▽돕스오샤미 < 돕스보샤미

能히 한 부텃<sup>ㅁ</sup>를 보스오샤미라 (법화 6: 177)

▽보스오샤미라 < 보스보샤미라

×

×

×

15. 이상의 모든 예들에 있어서 이름꼴(이름법의 활용형)들은, 한편으로는 (겉구조로는) 임자씨처럼 다음에 오는 풀이말에 대하여 여러가지 월성분으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속구조로는) 다른 월성분을 통솔하는 풀이말로 기능하여 한 월의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있다.

하논 일 업수미 비록 뷔나.....

를 예로 들어 보면; 「업수미」는, 겉으로는 풀이말인 「비록 뷔나」에 대한 임자말로 기능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하논일」을 임자말로 하는 풀이말로 기능하고 있다.

天人 濟渡호물 쉼비 아니호미 ... 나 존하리라  
에 있어서도 「濟渡호물」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 임자말을 속으로 생각하고, 「天人」을 부림말로 하는 풀이말이 되어 한 월을 이루고, 겉으로는 「쉼비 아니하-」에 대한 부림말로 기능하고 있다. 또 「아니호미」도,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 임자말을 속으로 가지고, 「天人濟渡호물」을 부림말로 하는 풀이말이 되어 한 월을 이루고, 겉으로는 「나 존하리라」에 대한 임자말로 기능하고 있다.

하논 일 없다

↓

하논 일 업습+이 비록 뷔나.....

(임자말) 天人 濟渡하

↓

天人 濟渡호+을 쉼비 아니하

↓

天人 濟渡호물 쉼비 아니<sup>ㅁ</sup>호+이...나 존하리라

그리고

안줄 걸노매 어마님 모르시니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임자말) 앉다 / (임자말) 걸니다

↓  
안즘

↓  
건 놈 + 애 ...

그리고 또

네 즐거움 ... (두언 6:39)

이 兎이 ... 붓다.

네(임자말) 즐기다.

只今땀 行々음과...

에 있어서도 속구조로는,

막스매(위치말) 行하다

와 같은 월이 있고, 이것이 겹구조로는, 「行하다」가 이름꼴을 취하면서 위치말이 매김말로 변형을 하게 된 것이다.

## 16. 그러나

빗난 빗우물...

에 있어서와 같이 매김꼴 「빋난」으로 꾸며지는 이름꼴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중적인 기능이 그리 쉽사리 해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빋움」을 이름씨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싶어지나, 그렇게 되면,

眞實入自然體이셔 갖 거즈로물 머리 여히면 = 有眞自然體하야  
遠離倒妄하던 (능엄 2: 65)

賈至 부든 의로원 애의투물 議論하느니 = 賈筆論孤憤 (두언 20:18)

本鄉에 갈 바라오미 기더니 =故園延歸望 (두언 6:23)

正 훈 보 매 두어 (석보 9:8)

따위의 이름꼴도 모두 파생된 이름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름꼴의 이러한(매김꼴의 꾸밈을 받는) 용법이 소수의 이름꼴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러한(파생어로 보는) 방법도 무난할것 같으나, 앞의 예들로 보면, 대부분의 이름꼴이 이렇게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다소 무리한 방법이기도 하나, 이러한 용례도 모두 이름꼴로 보는 것이——다만 특별한 용법으로——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용례에 있어서의 이름꼴을 속구조의 풀이말로 해설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 하나의 가설을 제시한다면 ;

‘갓근 거츠름’은 ‘갓골에 거츠다(거츰다)’의 변형으로, ‘외로윈 애와름’은 ‘외로이 애와다’의 변형으로, ‘正호 봄’은 ‘正히 보다’의 변형으로, 그리고 ‘갈  
벼라움’은 ‘가기를 벼라다’의 변형으로 보는 방법이다.

17. 「-오/우-」를 앞세우지 않는 「-ㅁ」이 예외적으로 나타난다. (p. 631의 잡을씨 참조)

勇猛코 게여브미 큰 力士 마투니도 이시며 (석보 9:20)

크믄론 밧업시 쁘리고 =大包無外 (몽산 67)

오스로 갓브레 더딤 곧고져 願<sup>하</sup>노라 = 願投膠 (두언 14:9-10)

「-ㅁ」이 「-오/우-」를 앞세우지 않은 것은 대개 파생의 가지로서 이름씨를 파생한다. (p.232 참조)

나소물림 (척보 13 : 38)

步는 거르미라 (월석 2:34)

한편 「-오/우-」를 가진 「-口」도 파생법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 (p.233 참조)

「-7」

18. 「-口」과는 달리 안맺음씨끝을 앞세우는 일 없이 줄기에 바로 붙는다.

부터 供養하기 外에 (석보 23:3)

남진 어르기를 하며 (월석 1:44)

有德<sup>은</sup> 사<sup>를</sup>물 세<sup>어</sup> 받<sup>는</sup> 눈<sup>호</sup>기<sup>를</sup> 決<sup>케</sup> 하<sup>니</sup> (석보 9:19)



花鬘環珞 빚이기 마름과 (석보 6:10)

말라 겨집 出家하기를 즐기디 말라 (월석 10:18)

물 求하기 물롬 존하나라 =如 ... 不知須水也 (법화 4:91)

가야되 사리 오라고 몸 닷기 모른들 舍利弗이 슬피 너기니 (천장  
곡 상, 기 170)

그림 그리기에 늘구미 將次 오돌 아디 못하느니 =丹青不知老將至(두  
언 16:25)

布施하기를 즐겨 (석보 6:13)

일하기에 마린 거시 적도다 =於事少滯礙 (두언 25:7)

磨滅호매 글하기웃 나맏느니 =磨滅餘篇翰 (두언 15:24)

활 소기 비흙 (원각, 상 1-1:112)

벽 두길 아디 못하며서 =未解乘舟 (영가, 하:126)

術法이며 藥材하기 니르리 다 못하논 일 업스니 (월석 2:71)

오직 절하기를 하야 (석보 19:30)

돌보기를 아니하며 (월석 1:26)

平公은 이젯 글하기에 爲頭 | 니 =平公今詩伯 (두언 16:53)

글지시와 글스기로 =詞翰 (두언 25:49)

範은 쇠터기엿 소히오 (능엄 2:20)

19. 이 씨끝은 앞의 「-口」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첫째, 「-口」은 그 용례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서, 활용의 씨끝임이  
분명하나, 「-기」는 그 용례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口」은 대부분의 경우 속구조의 풀이말로 쉽사리 이해되는데,  
「-기」는 그러한 예가 오히려 적어서, 앞에 든 예로 보면, 뒤로 갈수록  
속구조의 풀이말로 이해하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상당히 무리한  
천착이 필요하다. (「-기」에 있어서는 임자말이 밖으로 나타나는 일이  
드문데, 이 사실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세째, 「-口」은 「-오/우-」 이외에 「-습-」, 「-으시-」와 같은 안맺음씨

끝을 앞세울 수 있으나, 「-기」는 그렇지 않다.

20. 이러한 사실로 보면, 「-口」은 분명한 활용의 씨끝임에 비해, 「-기」  
는 파생의 가지에 오히려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도 우선 활용의 씨끝으로 보아 놓고 뒷날의 연구를 기다리기로 한  
다.

첫째, 지금 우리가 가진 문헌은 국한된 수량이므로 이것이 그 당시의  
말씨의 모든 사실을 바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 제시한 용례만으로는 그 당시 언어의 실상을 파악했다고 할 수 없  
다.

둘째, 현대말에 있어서는 「-기」는 「-口」보다 오히려 생산적인 씨끝  
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기」는 파생의 가지에서 그 생산성을 획득하여, 활용의 씨  
끝으로 변화해왔을 가능성이 짙다.

#### 「-디」와 「-들」

21. 「-디」 다음에 매횄풀이씨가 와서 으뜸풀이씨와 매횄풀이씨를 연  
결해 주는 데에만 봉사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의 씨끝이 되나(p.624), 그  
렇지 않고, 뒤에 다시 으뜸풀이씨가 와서 「-디」 활용형이 그 임자말로  
풀이될 경우에는, 「-디」는 이름법의 씨끝으로 처리된다.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볼씨 (월석 1:13)

化티 어려본 剛強호 罪苦衆生 (월석 21:34)

一切 世間엿 信티 어려본 法을 다 듣즈바 (석보 13:27)

쉽디 못하 아디 어려본 法 (석보 13:40)

只솔히 멀면 乞食하디 어렵고 (석보 6:23)

하느 뜨든 노파 물디 어렵거니와 =天意高難問 (두언 23:9)

22. 「어렵다」의 임자말은 「-口」 이름풀이 되는 일이 있으니, 이것으로 보더  
라도, 「-디」가 이름풀에 매우 가까운 성질을 띠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길에 들면 나미 어려보며 (월석 21:119)

☆가지 노퍽니 들지 ㄹ장 새롭도다 = 枝高聽轉新 (두언 중간 17:18)

☆甚히 고기의 비류를 먹디 아철노라 = 苦厭食魚腥 (두언 중간 19:35-6)

23. 연결법의 씨끝 「-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뜻이 없이 단순히 다음에 오는 매편이씨와 연결해 줄 뿐인데(→p.625), 때로는 「-들」 활용형 다음에 으뜸이씨가 와서, 앞의 이씨를 뒤의 이씨의 부림말로 기능하게 해 주는 일이 있다.

그러나 藥을 주어늘 먹들 슬히너기니 (월석 17:20)

24. 앞의 두 어형을 비교해 보면, 「-디」 형은 임자말로 쓰이고, 「-들」 형은 부림말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디」는 「-ㄷ-」와 「-이」로,

「-들」은 「-ㄷ-」와 「-ㄹ(←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매편이씨 「ㄷ」와 비교)

이 경우에는 「-ㄷ-」만을 씨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ㄷ-」는 어절을 끝맺는 매편이씨 될 수 없을 것이니, 이러한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와 「-들」을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한 씨끝으로 보는 것이다.

25. 연결법의 「-디, -들, -들, -드란」(→p.624-6)과 이름법의 「-디, -들」은 구별되는 것이니; 연결법은, 뒤에 매편이씨가 와서, 아무런 의미내용 없이 앞의 이씨를 연결해 주는 것이나, 이름법은 그 자체가 임자씨처럼 바뀌어서, 다음에 오는 말에 대한 자리(격)의 관계가 맺어진다. 즉 이름법의 「-디」 형은 다음의 이씨에 대한 임자말이 되고, 「-들」 형은 부림말이 된다.

26. 어원적으로는 연결법의 「-디, -들, -들, -드란」과 이름법의 「-디, -들」은 모두 관련이 있어서 한 말의 변화형으로 풀이된다. 즉 이름법씨끝 「\*-ㄷ/드-」에 토씨 「-이, -을, -란」이 붙어서 각각 「-디, -들, -들, -드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은;

첫째, 이름법의 씨끝 「\*-ㄷ/드-」가 매편이씨 될 수 없고,

둘째, 연결법에 있어서는 「-디」가 반드시 임자말이 되지 않고,

셋째, 연결법의 둘째 이씨는 도움이씨로서, 앞에 임자씨 노릇을 하는 말을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 나아가서는, 「\*ㄷ/드」는 매편이씨 「ㄷ」와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매김말 다음에 오는 「ㄷ」는 이름씨로 보고, 이씨의 줄기에 바로 붙는 「\*ㄷ/드+토씨」는 모두 씨끝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매편이씨 「ㄷ」(→p.296)과 씨끝 「ㄷ」(→p.616)을 구별해 처리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 (2) 매김법(관형법)

1. 속구조로는 앞의 월성분을 통솔하여 이씨말로 기능하면서, 겉구조로는 다음 말에 대한 매김말의 구실을 하는 문법적 방법을 「매김법」이라 하는데, 시제를 아울러 나타내는 것이 그 또다른 특색이다.

「-을」

2.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일, 방금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 또는 추측하는 일을 나타내는 매김법 씨끝인데, 특정한 시간 관념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도 이 씨끝을 사용한다. (그리고 끝의 「ㅎ」 대신에 다음 소리를 된소리로 표기 하는 일이 있다.)

네 ... 하늘해 가날 福을 다스라 (월석 7:14)

無學은 다 아라 빈홀 이리 업슬씨니 (석보 13:3)

헝마 命終 ㅅㅅ물 (월석 21:125)

그 부텃 목수몬 몬 劫이라 (월석 21:129)

블 구피라 펼 ㅅㅅ에 (월석 21:4)

王舍城으로서 舍衛國에 을 ㅅㅅ 길헤 (석보 6:23)

길 넉 ㅅㅅ (석보 6:4-5)



像法이 轉<sup>ㅎ</sup> 時節 (석보 9:2)

차반 밍글 쏘리 (석보 6:16)

닐거 의<sup>ㅎ</sup> 性이 업스니 (월석 21:167)

가다가 도<sup>ㅎ</sup> 軍士 (용 25장)

避仇<sup>ㅎ</sup> 소니 마리 (용 28장)

相 불 사르미 (월석 2:23)

지드<sup>ㅎ</sup> 時節 (몽산 10)

바래 브<sup>ㅎ</sup> 끼름 (법화 2:242)

버서<sup>ㅎ</sup> 날 나리 업스니 (월석 21:110)

위와다 섬<sup>ㅎ</sup> 紗를 사르문 (월석 21:61)

孝順<sup>ㅎ</sup> 子息 (월석 21:28)

서되 드<sup>ㅎ</sup> 華瓶 (월석 10:119)

ㄱ<sup>ㅎ</sup> 대신 ㄴ<sup>ㅎ</sup> 을 쓰고 있다.

주<sup>ㅎ</sup> 相이 一定<sup>ㅎ</sup> 야 (월석 9:50)

찾<sup>ㅎ</sup> 木 기를 姦女 (월석 8:90)

블<sup>ㅎ</sup> 구<sup>ㅎ</sup> 썩시예 (석보 6:2)

높 중<sup>ㅎ</sup> 성 (월석 21:113)

### 3. 매인이름씨를 꾸밈 :

모<sup>ㅎ</sup> 木 木 木 거지니 (석보 6:11)

精舍 지<sup>ㅎ</sup> 畵 저기 (석보 6:40)

菩薩入 어마니미 地獄 버<sup>ㅎ</sup> 슬 뿌니 아니라 (월석 21:28)

밥 머<sup>ㅎ</sup> 齋 던 (월석 21:87)

사르미 八萬 四千 터<sup>ㅎ</sup> 력 굶기 존<sup>ㅎ</sup> 홀 썩<sup>ㅎ</sup> 르미라 (능엄 6:42)

調御는 이대 다<sup>ㅎ</sup> 스릴 씨오 (석보 9:3)

ㄱ<sup>ㅎ</sup>-씨-는 매인이름씨 ㄴ<sup>ㅎ</sup>에 잡음씨가 연결된 꼴이다. (p.292 참조)

殺生<sup>ㅎ</sup> 好릴 맛나돈 ... 도<sup>ㅎ</sup> 죽<sup>ㅎ</sup> 好릴 맛나돈 (월석 21:64)

나라 니<sup>ㅎ</sup> 스리 (석보 6:7)

자<sup>ㅎ</sup> 브리 업시 (석보 6:17)

ㄱ<sup>ㅎ</sup> 好리, 니스리, 자<sup>ㅎ</sup> 브리의 끝의 ㄱ<sup>ㅎ</sup>는 매인이름씨이다.

일<sup>ㅎ</sup> 홈 알리 이시면 (법화 7:151)

山林木 술<sup>ㅎ</sup> 릴 맛나돈 (월석 21:66)

아니 울<sup>ㅎ</sup> 리 업더라 (월석 10:4)

經典을 힐<sup>ㅎ</sup> 리 이시면 (법화 2:163)

ㄱ<sup>ㅎ</sup> 好리」 따위는 「알+ㄹ(울)+이」로 분석되는데, /ㄹ/로 끝난 줄기 밑에 서는 고름소리의 「으」는 줄어진다. (이 줄기 끝의 /ㄹ/은 홀소리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4. 이 씨끝에는, 안맺음씨 끝 「-오/우-」, 「-아/어-」, 「-으시-」, 「-습-」이 앞설 수 있다.

「-울」: 聖은 通達<sup>ㅎ</sup> 야 물<sup>ㅎ</sup> 木 이리 업슬씨라 (월석 1:19)

衆生이 니<sup>ㅎ</sup> 블 오시 (월석 8:65)

이제 홀 이<sup>ㅎ</sup> 른 오직 부<sup>ㅎ</sup> 텃 智<sup>ㅎ</sup> 慧니 = 今所應作 唯佛智慧 (법화 2:149)

하<sup>ㅎ</sup> 畵 童子들<sup>ㅎ</sup> 好로 브<sup>ㅎ</sup> 를 싸<sup>ㅎ</sup> 름 사<sup>ㅎ</sup> 르며 = 天諸童子로 以爲給使<sup>ㅎ</sup> 며 (법화 5:70)

긴 녀<sup>ㅎ</sup> 르메 好<sup>ㅎ</sup> 을 이리 업스니 = 長夏無所爲 (두언 25:2)

世間애 뽈 거<sup>ㅎ</sup> 시 ㄴ<sup>ㅎ</sup> 즈며 (월석 9:18)

算數譬喩로 木 안<sup>ㅎ</sup> 률 배라 (석보 19:5)

바<sup>ㅎ</sup> 블 머<sup>ㅎ</sup> 齋대로 헤<sup>ㅎ</sup> 여 머<sup>ㅎ</sup> 齋 (월석 7:31)

龍이 ... 수<sup>ㅎ</sup> 木머 업서 (월석 7:35-6)

사<sup>ㅎ</sup> 나을 머<sup>ㅎ</sup> 구<sup>ㅎ</sup> 릴 뷔<sup>ㅎ</sup> 여 오니 (월석 1:45)

ㄱ<sup>ㅎ</sup> 好리」는 「먹+우+ㄹ+이(매인이름씨)」로 분석된다.

舍衛國에 好 大臣 須達이라 호<sup>ㅎ</sup> 리 잇<sup>ㅎ</sup> 느니 (석보 6:14)

ㄱ<sup>ㅎ</sup> 好리」는 「호+오+ㄹ+이」로 분석된다.

「-얼」: 四空處 業界色 업수<sup>ㅎ</sup> 木 아<sup>ㅎ</sup> 률디로다 (월석 1:36)

뽈<sup>ㅎ</sup> 움과 조<sup>ㅎ</sup> 춤과 眞實을 어<sup>ㅎ</sup> 즈리디 木<sup>ㅎ</sup> 好니 마<sup>ㅎ</sup> 르것 업<sup>ㅎ</sup> 슨 智<sup>ㅎ</sup> 慧라 木<sup>ㅎ</sup> 얼대 로다 (월석 8:16)



「아랴», 「닐옴」은 각각 「알+아+르」, 「니르+어+르」로 분석되며, 「-디로다」는 「ㄷ」과 「-이로다」의 결합이다.

「-으실」: 느려으실 부터 (월석 21:188)

夫人이 나으실 들 거의어늘 (월석 2:27)

부터 아니 으실 낄호로 가더니 (월석 7:10)

孝道으실 막숨 (천강곡 상, 기 46)

부테 이 法 나으실 時節에 (석보 11:39)

이 말 나으실 제 (월석 21:49)

뵈야 나으실 쑤니시니 (법화 3:92)

뭇 첫 方便이 이 존으실 썩르미라 (능엄 1:28)

一千 世尊이 나으실 들 아니 (월석 1:21)

正果를 取으실 씨 나르산 無漏를 나사 닛고미오 (능엄 6:8)

報身은 부테 ... 自得히 便安으실 씨라 (월석 2:53)

「ㄲ-씨」 「-씨라」는 매인이름씨 「스」에 토씨, 잡음씨가 연결된 형태이다.

(p. 292 참조)

「-스불」: 보스불 사르미 슬뵈 뉘 모르며 (월석 2:59)

들스불 사르미 業障이 스러디여 (석보 9:2)

부터 道理 비스불 리 =學道者 (석보, 서:2)

아바님 이받스불 제 (용 91장)

몹 우아래 圓滿스 샤 ... 威嚴이 畚스 오리 업스샤미 四十六이시고 (법화 2:17)

「畚스오리」 <畚스불리

부터 ㄴ르치샤물 만히 들스불 씨 聞이오 (석보 11:43)

내 오늘사 ... 菩提記 시러 受스 을 딸 아스오니 (법화 4:42)

「受스을」 <受스불

諸佛法이 ... 내종애 기피 感動스 을 썩르미라 (법화 2:260)

모로매 神力을 비스 옹디니 (능엄 7:3)

「ㄲ-디니」는 「ㄷ」(매인이름씨)와 「-이니」(잡음씨)의 결합이다.

5. 또 이들의 결합체인, 「-습+오-」, 「-으샤-」 (「-으시-」와 「-오/우-」의 결합), 「-습+으시-」가 앞설 수 있다.

「-스불」: 너희들히 ... 如來入 恩德 갑스불 이를 念스 거든 (석보 9:41, 월석 9:62)

그지업서 몰내 혜스불 功과 德 (석보, 서:1-2)

無比身은 ... 부터 모미 여러가짓 相이 ㄴ르샤 가즐비스불 며 업스실 씨라 (석보 6:41)

墓所는 묻스불 씨히라 (월석 10:13)

「ㄲ/병/이」 없어지고 난 뒤로는 「병/와」 「보/가」 모두 「오/로」 바뀌기 때문에 「스불」과 「스불」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

「-으살」: 모르살 法 업스샤미 (법화 1:37)

좌살것 스랑스 시니 (천강곡 상, 기 63)

實相애 두려이 맞게 스 샤샤 妙行 일우살 ㄲ디라 (법화 5:19)

구티여 다시 나르살 며 아니며 =不須復說 (법화 1:145)

「ㄲ-떠」는 「ㄷ」(매인이름씨)와 「-이」(토씨)의 결합이다.

圓證을 表코져 스 살뎌든 반드기 全身을 現스 살뎌니 =欲表圓證이신댄 當現全身이시니 (법화 4:116)

「ㄲ-뎌든, -떠니」는 「ㄷ」와 「-인댄」, 「ㄷ」와 「-이니」의 결합이다.

「-스불실」: 追는 ... 先王기 ㅍ들 미조츠샤 孝道스 불실 씨라 (월석, 서:16)

「ㄲ-씨라」는 「스」(매인이름씨)와 「-이라」(잡음씨)의 결합이다.

6. 위의 용례들의 「-음」 활용형은 모두, 속뜻으로는 앞의 말을 통술하여 풀이말로 기능하면서, 밖으로는 그 다음에 오는 임자씨에 대한 매김말의 구실을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활용형에는 뒤에 임자씨를 가지지 않는 두가지의 예외적인 용법이 있다.

7. 첫째, 앞에서 설명한 물음법의 씨끝 「-가, -고, -다」에 결합되어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있는 「-을」은 다만 때때감을 나타낼뿐, 뒤에 임자씨를 가지지 않는다.  
(pp.497, 500, 501 참조)

二乘은 定果를 일흔까 저흔씨 (법화 2:202)

마승을 어느 고대 가질빌고 = 司存何所比 (두언 24:9)

그디 沙門 弟子더러 어루 젓글따 무려 보라 (석보 6:26)

「-을가, -을고, -을다」를 두 형태소로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p. 652 참조)

8. 둘째, 뒤에 임자씨를 가지지 않고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뒤에 임자씨가 숨어 있는 것으로(속구조로 임자씨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한가지 풀이 방법이다.

시혹 時에 싸해 버으를 혼자 두자하야 = 或時離地홀 一尺二尺하야 (법화 2:118)

엇데 見愛 오히려 이서 二乘에 버으를 甚히 머로돌 알리오 = 寧知見愛 尙存하야 去二乘흔 而甚遠이리오 (영가, 하:71)

놀애를 노외야 슬플 업시 브르느니 = 歌莫哀 (두언 25:53)

너퍼 돕스오미 다옴 업서 = 弘贊莫窮 (법화, 서:18)

내 천량엇거시 다옴 업스니 = 我財物無極 (법화 2:75)

流落하야 돈노매 브디 다옴 업소라 = 流落意無窮 (두언 21:25)

緣을 조긱며 感애 브트샤미 두루 아니홀 아니하시나 = 隨緣赴感靡不周 (금강삼가 5:10)

막스매 서늘히 너기디 아니홀 아니하노라 (내훈, 서:6)

말스물 두터이 아니홀 업시하야 = 辭無不腆 (내훈 1:77)

여러 劫入 因이 아닐 아니며 = 莫非累劫之因 (육조, 상:47)

9. 이렇게 쓰이는 「-을」 활용형은 이름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것 같으나<sup>(25)</sup> 모든 「-을」 활용형이 적다 이렇게 쓰일 수 있다면 몰라도 이 몇가지 용례만으

(25) 필자는 「옛말본」(1969, 과학사)에서 이 활용형을 이름법으로 설명한 일이 있다.

로 하나의 활용형을 인정한다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김법의 한 특별한 용법으로 처리한다.

「-은」

10. 이미 결정된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시제를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에 연결되면, 「-은」은 그 시제적 의미를 상실한다. (→p. 906)

어미 주근 後에 (월석 21:21)

내 어미 일흔 後에 (월석 21:21)

젓 일흔 아히 = 失乳兒 (능엄 2:1)

지슨 사르미 注解 = 作者注解 (법화 1:10)

부텃 이베서 난 아드리 = 佛口所生子 (법화 1:164)

出家흔 사르몬 (석보 6:22)

백 무든 옷 (석보 6:26)

브린 사르미 썰리 드라가 = 使者疾走 (법화 2:200)

옮겨 ㄴ르친 衆 = 轉教之衆 (법화 2:248)

네 몸 드른 法 = 昔所未聞法 (법화 5:106)

굴근 比丘 (석보 9:1)

그지업슨 苦 (월석 21:27)

블근 힘더기 (석보 9:3)

기픈 根源 (월석, 서:21)

이 國王等이 못 艱難흔 ㄴ가볼 사름과 ㄴ디 몰흔 사르미게 ㄴ 慈悲心を 發홀씨 (월석 21:140)

이런 도흔 緣으로 (월석 21:126)

險코 어려본 구즌 길헤 뷔여 그흔 사름 업슨 두리본 싸해 (월석 14:74)

도터 몰흔 業을 ㄴ초 지서 이 ㄴ흔 어린 사르미 구즌 길헤 ㅁ디여 한 劫에 그지업슨 受苦를 ㅎ리어늘 (월석 8:74)



노푼 뒷그테 올라 (석보 11:29)

獨은 늘구더 子息 업서 ㅎ웃 모민 사르미라 (석보 6:13)

一切法이 ㅎ가진 佛性이니 (월석 2:53)

咫尺인 넷 위 안해 =咫尺故園(남명, 하:46)

석자힌 썰화리 =三尺角弓(두언 25:45)

네 고온 사르민 公孫氏 잇더니 =昔有佳人公孫氏(두언 16:47)

小王은 ... 轉輪王 아닌 王이라 (월석 1:20-1)

時節 아닌 곳도 프며 (월석 21:6)

11. 매인이름씨를 꾸미는 경우:

威儀 이즌 더 업서 (석보 13:22)

ㅁ장 빚어 도흔 양 ㅎ고 (월석 2:5)

아르샤미 至極하샤 기튼 배 업스시며 (월석 2:56)

菩薩을 올위러 절흔 다스로 (월석 21:88)

산 것 주기며 (월석 21:98)

더더 몰흔 전츠로 (월석 21:167)

世間이 無常하야 구든 주리 업스니 (월석 10:14)

적몬 저그란 (석보 6:11)

저근 덜 (법화 4:165)

오직 信力 구드니샤 能히 알리라 (법화 2:160)

주근 드시 자다가 =尸寢(두언 22:1)

여섯 大臣이 ㅎ더기 윈 들 제 아라 (월석 21:214)

나는 뉘 正흔 더 뉘 갓근 더 아디 몰ㅎ노이다 =我는 不知誰正誰倒하노  
이다 (능엄 2:12)

덕시 어느 趣에 간 동 몰라이다 (월석 21:27)

지죄 적고 나히 늘근 거기 오히려 빈 일후미 잇느니 =才微歲老尙虛名  
(두언 22:16)

善흔 게는 절ㅎ시고 (월석 17:74)

소니 또 구리 토벤 거시 (월석 21:43)

萬法이 오직 識인 전츠로 (능엄 1:88)

아리 드렛던 險道]들 아디 몰ㅎ야 (월석 21:120)

諸法이 空 아닌니 업스니라 (금강삼가 5:36)

色 아닌 게 色 나토미 =非色現色 (원각, 상 2-3:13)

不滅은 眞證 아닌 들 니르시니라 (법화 2:150)

12. 이 씨끝은, 안땃음씨끝 「-오/우-」, 「-습-」, 「-으시-」, 「-아/어-」,  
「-거/나-」, 「-가-」를 앞세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뒤에 꾸밈을 받는  
말의 범위가 한정되는 일이 있다.

「-운」: 各各 모매 니분 웃오술 바사 (법화 2:45)

땃ㅁ론 城 =化城 (법화 3:83)

이 고기는 다 내 神力으로 化하야 내운 거시라 (능엄 6:93)

證흔 밋 法이 (남명, 하:66)

理 나토몬 마를 因흔디라 =理顯은 因言이라 (영가, 하:30)

다 如來入 威力이론 고들 아라라 (석보 9:28)

이 法도 다 ㅎ 佛乘이론 전츠로 (석보 13:50)

「-로-」는 「-오/우-」의 변이형태이다. (p.631 참조)

「-스불」: 우희 教化 님스불 因을 불기시고 (월석 14:57)

이 이틀 보스불 사르몬 十方一切 諸佛을 보스불더니 (월석 8:28)

「-디니」는 「ㄷ」와 「-이니」(잡음씨)의 연결이다.

男子女人이 이 부텃 일흠 들즈불 사르몬 (월석 21:135)

受記 得하스온 사르미 (법화 4:185)

會에 이셔 (부텃 마를) 들즈온 衆 (능엄 10:93)

「-스온, -즈온」은 각각 「-스불, -즈불」의 변화형이다.

보라스온돈 和尚이 慈悲로 弟子의 조고맛 智慧 잇논들 보시느니  
잇가 아니잇가 (육조, 상:19)

「-든」은 「ㄷ」와 토씨 「-은」의 결합 (p.288-9 참조)



「-으신」: 娑婆世界에 오래 住하신 菩薩 (월석 18:3)

使者는 브리신 사르미라 (석보 6:2)

어엿브신 命終에 (월석 1:3, 기 5)

부터 업스신 後에 (월석 21:204)

西天은 부터 나신 나라히니 (월석 1:30)

道理로 몸 사미시니 이 부테시니 (월석, 서:18)

▽「사미시니」는 「삼+으시+ㄴ+이(대인이름씨)」로 분석된다.

世尊이 ... 앓금 업스신들 처섬 아스보니 (월석 13:36)

不解甲이 현 나리신들 알리 (용 112장)

「-건」: 디나건 無數劫에 부테 겨샤디 (월석 8:59)

過去는 디나건 뉘오 (월석 2:21의 1)

그 中에 하 長者는 우리 父母人 오라건 아로리러니 (월석 10:24)

미튼 오라건 成佛이시니라 =本久成佛 (법화 5:139)

니건 히 =去年 (두언 25:31)

니건 時節 =往時 (두언 6:11)

니건 晷 =往者 (두언 20:32)

죽다가 살언 百姓이 (용 25장)

▽「-언」은 「-건」의 변이형태.

내 어미 죽건디 아니 오라니 (월석 21:27)

뵈들녀 辛苦건디 쉬나몬 히라 (월석 13:31)

아드리 宰相 드외언디 三年이로디 (내훈 3:26)

▽「-언」은 「-아/어-」 형태소의 한 변이형태와 혼동되기 쉬우나, 「드외-」

환경에서의 「-아/어-」 형태소의 변이형태는 「-야-」이다.

13. 「-간」, 「-난」, 「-안/언」 다음에 꾸밈을 받는 말은 대인이름씨 「드」에 국한된다.

「-간」: 하다가 正心으로 날거 디니면 功이 쏘 우희셔 더을씨 니르

샤디 如來를 頂戴하간디라 하시니라 (월석 17:36)

너희들히 能히 이리하면 하마 諸佛恩을 갑간디니라 (월석 18:18)

마을홀 마숨아로미 마츠매 조고맛 이리오 治中은 진실로 브리간디  
니라 =典郡終微眇 治中實棄捐 (두언 20:19)

하다가 네 ... 了知하는 性을 자바 앓겨 반드기 막스물 사물딘댄 ...  
各別히 온 性이 이슈미 맞당하간디어니쑤 =若汝 | 執撻... 所了知性하야  
必爲心者 | 댄 即應... 別有全性하간디어니쑤 (능엄 1:89)

▽「-디라, -디니라, -디어니쑤」의 「-디-」는, 대인이름씨 「드」와 잡음씨 줄  
기 「-이-」의 연결형이다.

「-난」: 秦時節에 翻譯하야 오난디 거의 八百 히니 =秦譯已還이 垂八  
百載니(법화, 서:21)

아들 봄브터 오난디 하마 스물 히니 =自見子來컨디 已二十年이니(법  
화 2:245)

「-언」: 妻眷 드외언디 三年이 몬 차 이셔 (석보 6:4)

아들과 여희언디 쉬나몬 히어다 (월석 13:9)

어미 地獄애 이션디 오랄씨 (월석 23:90)

14. 또 이들 안맺음씨끝의 둘 또는 셋의 연결체가 이 씨끝에 앞설 수  
도 있다.

「-스본」: 無量諸佛을 보스본 전츠로 (월석 8:33)

부텃 法 들즈본 德으로 하늘해 나아 (석보 6:19-20)

▽「-스본」은 「-습-」+「-오-」+「-ㄴ-」 세 형태소의 결합이다.

「-으샐」: 忍辱太子의 일우샐 藥이이다 (월석 21:218)

이 뜯 가샐 될 아디 몰하스오리로다 =不知是義所趣 (법화 1:160)

부테 부테샐 고디 오직 이 사르미신들 알씨 =知佛之所以爲佛者 | 特  
此而已실시 (능엄 3:111)

諸佛이 衆生 利케 하샤 權 잘하샤미 다 이 존하샐들 불기시니라  
(월석 17:15)



드로물 니르산디 아니라 =非謂…入(능엄 5:38)

알핀 三觀을 블기산디라 =前明三觀(영가, 하:23)

ㄱ[-산]은 「-으시-」와 「-오/우-」와 「-은」 세 형태소의 결합이며, 「-디」는 「ㄷ」와 「-이」(토씨), 「-디라」는 「ㄷ」와 「-이라」의 결합이다.

「-스불산」: 正히 묻조오산 條目을 마르치니라 (원각, 상 2-3:5)

ㄱ[-조오산] < 「-조불산」 ←「-줍-」+「-으시-」+「-오/우-」+「-은」

「-스불신」: 처섬 經 듣조오신 後에 (법화 6:149)

ㄱ[-조오신] < 「-조불신」←「-줍-」+「-으시-」+「-은」

「-거신」: 디나거신 無量諸佛의 ㅎ마 親近히 供養ㅎ스바 이실씨 (석보 13:15)

阿彌陀佛이 成佛거신디 이제 열 劫이라 (월석 7:69)

「-스환」: 그뿐 人間애 이서 부터 묻 보스환디 오라더니 (월석21:191)

15. 「-은」은 결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시제적 의의를 아울러 가졌는데, 시제를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느-」, 「-더-」, 「-으리-」가 앞서게 되면, 「-은」의 시제적 의의는 무효가 되고, 안맺음씨끝의 시제만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매김법」(→p.877 이하)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몇가지 예만을 들어 둔다.)

16. 「-느-」를 앞세울 경우:

「-느-」와 「-은」이 결합하면 「-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된 사실, 방금 실현되고 있는 사실, 또는 방금 실현될 사실을 나타낸다. (이것이 「-느-」의 시제이다. →p.906)

모던 일 니기논 衆生 (월석 21:103)

神通 잇논 사르미사 가느니라 (석보 6:43)

제 모습다비 물ㅎ논 사람들 (월석 21:96)

오논 누 (월석 21:204)

귀논 衆生 (월석 21:113)

仙人 잇논 디 (석보 11:27)

「-논」은 「-느-」와 「-은」으로 분석하지 말고 하나의 씨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두 형태소로 분석한 이유는,

첫째, 「-느-」가 다른 씨끝과 결합될 수 있고(-느다, -느니, -느순다),

둘째, 「-느-」와 「-은」 사이에 「-오-」가 들어가서 「-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7. 「-더(다)-」를 앞세우는 경우:

「-더-」와 「-은」의 결합인 「-던(단)」은, 현실을 떠난 지난 일을 나타낸다. (이것이 「-더-」의 시제이다. → p.911 이하).

부터 나겨시던 時節 (석보 9:2)

하늘 祭ㅎ던 싸흘 보고 (석보 6:19)

네 업던 이를 얻즈바 (석보 13:13)

石壁에 수멧던 네넛 글 아니라도 (용 86장)

여희엿던 느출 비릇 흥번 퍼니라=別顏始一伸 (두언 12:27)

종이 오논들 알오 幢幡을 내야 드라 僧齋를 ㅎ단디시 ㅎ니 (월석 23:65, 기 505)

18. 「-으리-」를 앞세우는 경우:

「-으리-」와 「-은」의 결합인 「-으린」은 미정적인 사실을 나타낸다. (이것이 「-으리-」의 시제이다. →p.911 이하)

有情과 無情과 體와 性과 섯거 꼴히디 물ㅎ린 전츠로=有情과 無情과 體性이 錯雜하야 不可分辯故로 (능엄 2:38)

아직 마르초디 마르치디 물ㅎ린 後에사 怒ㅎ고 怒를 물ㅎ린 後에사 툄디니=姑教之호디 若不可教然後에사 怒之오 若不可怒然後에사 答之니 (내훈 3:5)

19. 위의 「-은」 활용형들은 모두 속뜻으로는 앞의 말을 통술하여 풀이말로 기능하면서, 밖으로는 그 다음에 오는 임자씨에 대한 매김말의 구실을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활용형에도, 앞의 「-음」의 경우와 같이, 뒤에 임자씨를 가지지 않는, 두가지의 예외적 용법이 있다.



20. 첫째, 물음법의 씨끝 「-가, -고, -다」에 결합되어 있는 「-은-」은 다만 매김을 나타낼뿐, 뒤에 임자씨를 가지지 않는다. (p.500 이하)

일후미 드원가 일터 아니호미 드원가 코져 호며=爲失爲不失인가 호며 (법화 2: 21)

도라갈뻔 길을 迷失호가 전노라=歸時恐路迷 (두언 8: 51)

내 音信을 무로디 이제 엇더호고 호더라=道甫問訊何如(두언 22: 52-3)

故園은 이제 엇더호고=故園今若何(두언 25: 24)

놀 보리라 우리곰 온다 (월석 8: 87, 기 244)

네 엇메 안다 (월석 23: 74)

主守 | 疎闊<sup>호</sup>야 미숨 뿌를 잘몬 호는가 오히려 저<sup>호</sup>=尙恐主守疎 用心未甚臧 (두언 7: 35)

사호멧 미른 이제 어느 싸해 잇는고=戎馬今何地 (두언 15: 51)

네 디나건 네넛 時節에 發顯<sup>호</sup> 이틀 혜는다 모르는다 (석보 6: 8)

21. 「-은고, -은가, -은다」나, 앞에(p.644) 설명한 「-을고, -을가, -을다」는 분석하지 않고 물음법의 한 씨끝으로 보는 것이 편리할 것도 같으나, 그렇게 보지 않고 두 형태소로 분석한 이유는; 첫째, 「-은, -을」을 앞세우지 않은 「-고, -가」가 물음법의 씨끝으로 쓰일 수 있고(p.505 이하), 둘째, 「-은, -을」은 매김법의 전형적인 씨끝과 꼭 같은 시제를 나타내므로 이것은 매김법의 전형적인 씨끝과 같은 형태소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2. 둘째, 뒤에 임자씨를 가지지 않고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을」의 경우처럼(→p.644), 그 뒤에 임자씨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한가지 풀이 방법이다. (26)

虞芮質成<sup>호</sup>는로 方國이 해 모든나 (용 11장)

「~호는로」는 「~호+은로(토씨)」로 분석되므로, 「~호」은 임자씨처럼 쓰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호」다음에 임자씨——이를테면 「것」과 같은 매임이름씨——가 속뜻으로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26) 「옛말본」에서는 이 활용형도 이름법으로 설명한 일이 있으나, p.64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역시 매김법의 한 특수한 용법으로 보기로 한다.

自枉詩<sup>호</sup>는로 已十餘年이오=그를 보내오<sup>호</sup>므로부터 호마 여라몬 호오 (두언 11: 5)

▽이것도 위의 예와 꼭 같은 어형인데, 그 번역문에는 이름꼴을 쓰고 있으니, 「호」의 이름법적인 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自有我人相<sup>호</sup>는로 高下執情이 生<sup>호</sup>도다=我人相 이쇼돌 브트<sup>호</sup>로 노 꼭며 노가온 잠논 브디 나도다 (금강삼가 5: 5)

▽앞의 예와 꼭 같다.

威化振旅<sup>호</sup>시는로 輿望이 다 못즈븐나 (용 11장)

自佛이 屬迦葉<sup>호</sup>시는로 展轉于今<sup>호</sup>야 (원각, 상 1-1: 106-7)=부테 迦葉의 付屬<sup>호</sup>샤<sup>호</sup>로부터 이제 올며 올마 (원각, 상 1-1: 109)

▽여기에서도 번역문은 이름꼴을 사용하고 있다.

한문토에 「-는로」 형식이 쓰이고, 번역문에는 이름꼴을 쓴 예가 많은 것으로 보면, 이러한 말씨는 예스런 말투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3. 이상의 예는 모두 토씨 「-으로」를 연결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용법도 임자씨가 묵해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그러나 내라 호 아래는 …實로 두 相 업수물 불기시도다=然我下는 明…實無二相이로다 (능엄 2: 59)

▽「호」이 바로 「아래」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호」 다음에 「것, 데」와 같은 임자씨가 속뜻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서, “내라 한 데부터 아래는”과 같이 새기는 것이 더 좋은 풀이 방법 일것 같다.

子息이며 내 몸 니르리 布施<sup>호</sup>야도 그딴 호 조초하야 늑은 미스 돌 아니호리라 (석보 6: 8)

므렛 미리 이시며 업소<sup>미</sup>란 호은 조초<sup>호</sup>고=從教水月の 有無<sup>호</sup>고 (금강삼가 2: 25)

웃도 미숨 난 조초 미라 넙고 (석보 24: 26)

물 가운데 곳니플 잇는 조초 노코=水中에 隨安所有華葉<sup>호</sup>고 (능엄 7: 12)

▽「조초」를 「쫓-」에서 파생된 매임이름씨로 보고 풀이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흔, ㅎ은, 난, 잇느」를, 모두 앞의 예를 좇아, 임자씨가 묵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초」는 「쫓-」에서 파생된 파생어씨가 풀이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p.83)

드룬다비 …불어 닐어도 (월석 17:45)

네흔 닐온다히 修行호미니=四如說修行 (영가, 상:25)

世尊 勅하산다비 다 奉行하승보리니 (월석 18:19)

사람들히 듣좁고 ㄹ르치산다비 修行하야 (월석 14:61)

願호디 우릴 세가짓 보비술월 주사더 알피 許하산다히 하쇼셔 =如前所許하쇼셔 (법화 2:138)

「다비(다이)」를 연결한 위의 예들도 풀이하기 힘든 것인데, 여기에서는, 역시 「것, 바」와 같은 매인이름씨가 묵해된 것으로 보고, 「다비(다이)」는 불구풀이씨로 잡아서(p.441 참조), “들은 것(바)과 같이, ~하신 바와 같이, 가르치신 바와 같이”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앞의 「월석 18:19」의 「勅하산다비」를, 같은 사실을 기술한 「법화경」에서는 「勅하삼 마티」(법화 6:125)로 번역하였음을 보아도 이렇게 해석함이 옳음을 알 수 있다.

24. 「조초」가 연결되었을 경우에는, 「-오/우-」가 앞선 「흔, ㅎ은」 형과, 그렇지 않은 「난, 잇느」 형의 대립이 있는데, 「ㅎ-」는 남움직씨로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임자씨가 「ㅎ-」에 대해 의미상의 부립말이 되기 때문이고, 「나-, 잇-」은 제움직씨로서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비」가 연결된 「드룬, 닐온, 勅하산, ㄹ르치산, 許하산」은 모두 남움직씨로서, 다음에 묵해된 「것, 바」는 이 움직씨의 의미상의 부립말이 되므로 모두 「-오/우-」를 가지게 되어 있다. (「-은」 활용형은, 그 꾸밈을 받는 말이 이 풀이씨의 의미상의 부립말이 될 경우에는 안맺음씨끝 「-오/우-」를 앞세우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p.810 이하.)

이러한 사실로 보면, 이렇게 쓰인 「-은」 활용형은, 그 뒤에 임자씨가 (속뜻으로)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마땅하다.

## 25. <붙임>

德이여 福이라 호닐 나으라 오소이다 (악학계법, 동동)

의 「호닐」도 같은 방법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 1) 높임법<sup>(27)</sup>

1. 높임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 말할이가 들을이에 대해서 자기자신을 낮추면서 들을이를 높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말에 등장된 사람(또는 그 사람에 관한 일이나 물건)을 높이는 경우이다.

2.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등장된 사람(또는 사물)이 말의 어떠한 문장성분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말의 「주체」(주로 임자말로 등장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높임이고, 다른 하나는 말의 「객체」(주로 부립말, 위치말 따위로 등장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높임이다.

3. 들을이에 대한 높임을 「상대높임」 또는 「들을이높임」이라 하고, 주체와 객체에 대한 높임은 각각 「주체높임」, 「객체높임」이라 한다.

말할이나 들을이나, 그 밖의 제삼의 인물이나 사물도, 다 주체나 객체로서 말에 등장될 수 있다.

4. 주체·객체높임에 있어서는, 속뜻으로는 항상 어떠한 사람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한 일이나 물건이 주체나 객체로 등장될 때에도 표면 상으로는 그 일이나 물건을 높여 표현하

(27) 높임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으나, 여기의 기술은 전적으로 아래 논문에 의한다.

허 용 : 「중세국어 연구」(1963, 정음사) 중의 「I. 존대법」



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높임법을 「간접높임법」이라 하고,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바로 높이는 방법을 「직접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

|   |                                                |      |   |       |
|---|------------------------------------------------|------|---|-------|
| { | 들을이름 높임 .....                                  | 상대높임 | { | 직접높임} |
|   | 말에 등장된 사람을 높임 {주체를 높임...주체높임<br>{객체를 높임...객체높임 |      |   |       |

### (1) 상대높임법(들으니높임)

1. 상대높임법은 크게 두가지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들을이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들을이를 높이지 않는 것이다.

상대높임법 {높임  
안높임

2. 그리고 상대높임법은 마침법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이음법이나 두기능법인 이름법 매김법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주체·객체높임법과 다른 상대높임법의 말본 상의 특색이다.

씨끝으로 표시되는 모든 문법범주 가운데 **말함이의 의향**과 관계가 있는 것은 **마침법**이다. 상대높임법이 마침법에만 나타나는 것은 여기 그 이유가 있는것 같다. (들음이에 대한 말함이의 의향)

### (1-1) 놀임

3. 서술법, 물음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나타내는 맺음씨끝에 안맺음씨끝 「-으이-」를 앞세워서 나타내고, 피임법의 경우에는, 피임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사-」와 「-으이-」의 결합으로 나타내고, 시킴법(이 경우에는 시킴보다 탄원이 된다)의 경우에는, 맺음씨끝 「-쇼셔」, 「-아썸/어썸」로 나타낸다.

### (가) 서술법

4. 서술을 나타내는 맺음씨끝 「-다」에 「-으이-」를 앞세우면, 서술법의 높임이 된다.

「-으이다」: 世尊하 …이런 고대 업스이다=無有是處<sup>하</sup>이다 (능엄 1:50)

文殊師利하 ...하<sup>ㄴ</sup> 樹王이 고지 프듯 하이다=如天樹王이 其華 | 開  
敷<sup>ㄴ</sup> 하이다 (법화 1: 85)

甚히 하이다 世尊하=甚多<sup>하</sup>하이다 世尊하 (법화 7:68)

甚히 크이다 世尊하=甚大하이다 世尊하 (금강 61)

아자비 쇼를 소아 주기이다 = 叔이 射殺牛히다 (내 훈 3 : 49)

比丘ㅣ 닐오더 이 짜히 竹林國이라 혼 나라히이다 (월석 8:94)

大臣이 슬보디 忍辱太子의 일우산 藥이이다 (월석 21 : 218)

▽들을이는 왕이다.

仙人이 슬보디 ...이 썩은 畜生의 나흔 거시이다 (석보 11:28)

▽뜰을이는 왕이다.

아니이다 世尊하 ...모로매 次第로 글옵디이다 = 不也世尊하...當須次第로 而解니이다 (눅 5:26)

▽말할이는 阿難이다.

世尊하 ...더 發心하야 禪 닷곰 즐기릴 더~~를~~디이다=世尊하...除彼發心하야 樂修禪者ㅣ니이다 (능엄 7: 65)

世尊하 …由我ㅣ 修習하야 得眞圓通일시이다 (능엄 6 : 35)

▽「-일 시 이 다」는 「일 시 + 이 이 다」.

地藏이 對答하시디...地獄罪報 一等은 아니이다 (월석 21:37-8)

▽들을이는 마야부인(부처 어머니).

文殊師利 法王子 | ...부텃기 對答하시디 ...類 한가지 아니이다 =...  
不同倫하시이다 (능엄 6 : 54)

5. 「-이-」의 /이/ 음은 앞 음절의 홀소리를 겹홀소리로 만드는<sup>(23)</sup> 일이 있다.

(28) 이것은 일종의 우물라우트 현상으로 보아지나, 우물라우트와 다른 점은, 뒤 음절의 /이/ 흡소리가 앞 음절의 흡소리를 앞흡소리로 동화시키지 않고, /ㅣ/ 반흡소리를 가진 하강적 겹흡소리로 바꾼 데 있다. 즉 「-늑이-」, 「-헛이-」가 「-늑이-」, 「-헛이-」로 변한 것은, /으/ 음절을 하강적 겹흡소리인 /이/ (Δj)로 바꾼 것이다.

우물라우트 현상에 대해서는 ;

허 응 : 국어 음운학 pp. 252-7. 참조.



無聲히이다=소리 업스이다 (능엄 4:126)

有聲히이다=소리 잇느이다 (능엄 4:126)

〈비교〉 無有異히이다=달음 업스이다 (능엄 2:9)

阿難大衆이 俱言호되 有聲히이다 (능엄 4:126)

6. 「-으이-」에는 「-오/우-」, 「-느-」, 「-으리-」, 「-으니-」, 「-더(다)-」, 「-으시-」, 「-습-」, 「-거-」, 「-과-」, 「-아/어-」, 「-소, 스, 도-」 따위 안맺음씨끝, 및 그들의 연결체가 앞설 수 있다. (「-으이-」는 안맺음씨끝의 결합에 있어서는 그 순위가 가장 끝이다. 따라서 「-이-」 다음에는 반드시 맺음씨끝이 뒤따른다.)

다음의 예들도 하나 예외 없이 말합이가 들을이를 높이는 말들이다.

「-우이다」: 사름이라도 중성만 묻호이다 (천강곡 상, 기 143)

내 요스시에 …藥을 얻다가 묻호이다 (석보 11:19)

나는 양지 덧곳고 슬히 세요이다 (석보 24:35)

「-느이다」: 世尊하 이 모든 大衆이…쁘들 아디 묻호느이다=世尊하 此諸大衆이 不悟…義호느이다 (능엄 2:55)

님 아래마다 하낵 童男이 잇느이다 (석보 11:32)

「-으리이다」: 太子ㅣ出家호시면 子孫이 그츠리이다 (천강곡 상, 기 36)

四天王이…天衆 드리고 다 그 고대 가 供養호며 디키리이다 (석보 9:21)

「-으니이다」: 二軍鞠手췌 깃그니이다 (용 44장)

이 文殊ㅣ 업스니이다=無是文殊호니이다 (능엄 2:58)

「-더이다」: 眞實로 世尊 말 존더이다 (월석 9:36 중)

그뵈 썩틀 맛고져 호더이다 (석보 6:15)

「-다이다」: 世間 여힌 樂을 念호고 그리타이다 (월석 7:6)

우리는 眞實人 佛子ㅣ들 모르다이다 (월석 13:35)

「-으시이다」: 올호시이다 世尊하=如是호이다 世尊하 (능엄 2:58)

法身을 얻게 호시이다=獲法身케 호시이다 (능엄 3:112)

「-거이다」: 내 이제 世尊을 막즈막 보스보니 측흔 막스미 업거이다 (월석 10:8)

이 터리도 足거이다 호고 (석보 23:58)

「-과이다」: 父母하 出家호 利益을 이제 호마 得호과이다(석보 11:37)

내 王 말썽 듣좁고사 내 막스미 지들과이다 (석보 24:29)

「-어이다」: 설버이다 救호쇼셔 (월석 2:52)

어피 간 싸흘 무려 아롤디 업저이다 (월석 21:21)

「-소이다」: 우리들토 …머리셔 오스이다 (석보 23:53)

7. 「-과-」, 「-느-」, 「-소-」의 홀소리도 뒤의 「-이-」의 영향으로 겹홀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無量珍寶를 不求自得패이다=그지 업슨 보비를 求티 아니호야 제 得과이다 (법화 2:181)

今日에사 乃知 …終不能飽호 혼들 패이다=오늬나래사…내종내 能히 베프르디 몰도 혼들 알와이다 (능엄 1:93)

阿難大衆이 다 솔오디 소리 잇느이다=阿難大衆이 俱言호되 有聲히이다 (능엄 4:126)

이젼 陛下人 말스미 곧 넷 사르미 막스미로쇠이다 (내훈, 2하:44) = 今陛下之言이 即古人之心이로소이다 (내훈, 2하:24)

8. 여러 안맺음씨끝의 결합체가 「-이-」에 앞서는 경우:

「스보이다」: 光有聖人이 쯔 나를 브리샤 大王 모뎨 請호스바 오나 든 찻물 기를 維那를 삼스보리라 호실씨 다시 오스보이다 (←습+오+이; 월석 8:92)

「-노이다」: 어사아들이 입게 사노이다 (←느+오+이; 천강곡 상, 기 142)

「-습노이다」: 唯然世尊하 듣좁고져 願樂호습노이다 (←습+느+오+이; 금강 13)

「-습느이다」: 一切衆이 깃스와 未曾有를 讚嘆호습느이다 =一切衆이 喜嘆未曾有호습느이다 (←습+느+이; 법화 3:124-5)

「-으시느이다」: 世尊이…虛空으로 호마 오시느이다 (←시+느+이; 월



「-노소이다」: 도즈기 太子로브터 나노소이다 (내훈, 서:5)  
 「-으시노소이다」: 부테...오늘 또 우업슨 뭇 큰 法輪을 옮기시노소이  
다 =佛이...今乃復轉無上最大法輪하시노이다 (법화 2:46-7)  
 「-습노소이다」: 一切 善根이 마자 無上心을 돕습노소이다 =一切具善  
 根하야 以助無上心이로소이다 (법화 5:185-6)  
 「-도소이다」: 世尊하...이제 이 微妙한 性이 번드기 내 알피 잇도소이  
다 =今此妙性이 現在我前하도소이다 (능엄 2:45)  
 「-으리로소이다」: 西方에 聖人이 나시노소니 이 後로 千年이면 그  
 法이 이에 나오리로소이다 (월석 2:49)  
 「-으시도소이다」: 皇帝入 病이 하마 도하시도소이다 (내훈, 2하:14)  
 「-으시리로소이다」: 出家하시면 正覺을 일우시리로소이다 (월석 2:  
 23)  
 「-스블리로소이다」: 地獄애도 몬 보스블리로소이다 (월석 23:81)  
 「-다스이다」: 내 하던 이리 甚히 외다스이다 (석보 24:18)  
 「-으시리라스이다」: 하다가 우리 큰 法 즐기느 므스미 잇던댄 부테  
 우리 爲하야 大乘法을 너르시리라스이다 (월석 13:36)  
 「-으시다스이다」: 그러면 부테 實로 大乘으로 教化하시다스이다 (월  
 석 13:36)  
 「-으샤스이다」: 입시웁 비치...頻婆果 | 몬하샤시이다 =唇色如頻婆果  
 하샤스이다 (법화 7:148)  
 「-샤시이-」는 「-샤스이-」의 변동이다. (p.657-8 참조)

9. 「-이-」의 /이/가 줄어지고 /ㅇ/만으로 높임을 나타내는 일이 있는  
 데, 이 말씨는 「-이-」 보다 약간 낮추는 데 쓰였던듯 하다.  
 「-이다」→「-ㅇ다」:  
 그리 아녕다 (석보 6:18)  
 后 | 묻즈와 너르샤터 大學生이 언제나 하너잇고 帝 너르샤터 數千  
영다 (내훈 2하:61)  
 「-다이다」→「-대이다」→「-댕다」:

「-우리이다」: 너르산 양으로 호리이다 (←오+리+이; 석보 6:24)  
 「-스보리이다」: 우리들히...諸佛을 좇즈바 빅호스보리이다 (←습+오  
 +리+이; 월석 10:31)  
 「-으시리이다」: 기픈 므스미 念호물 부테 아르시리이다(←시+리+하  
 ; 월석 14:42)  
 「-으시니이다」: 聖孫을 내시니이다 (시+니+이; 용 8장)  
 「-스블시니이다」: 처섬 大愛道 | 善한 브디 하시며 부테 나저시늘  
 손소 기르스블시니이다 (←습+으시+니+이; 월석 10:19)  
 「-더시니이다」: 상네 말 엮더시니이다(←더+시+니+이; 석보 24:39)  
 「-느니이다」: 모딘 길헤 뼈더여 그지업시 그우느니이다(←느+니+  
 이; 석보 9:27)  
 「-으시느니이다」: 如來 상네 우리를 아드리라 너르시느니이다 (월석  
 13:33)  
 「-습느니이다」: 世尊이...世間을 어엿비 너기실씨 十方諸衆生이 너비  
 다 饒益을 닐습느니이다 (법화 3:109)  
 「-더니이다」: 흥정바지들히 길힐 몬 녀아 天神入의 비더니이다 (천  
 강곡 상, 기 86)  
 「-스블니이다」: 本來 불로 光明에 諸佛도 비취시며 明月珠도 드스  
블니이다 (월석 2:30, 기 18)  
 「-으시뉘더이다」: 어마니미 ...날마다 五百僧齋하시뉘더이다 (월석 23:  
 74)  
 「-으시더이다」: 故로 有拳相하시더이다 (능엄 1:98)  
 「-습다이다」: 我等이 平常애 未蒙如來入 微細開示하습다이다 (능엄  
 10:75)  
 「더시이다」: 如來...六波羅蜜을 너르더시이다 (월석 7:53)  
 「-습과이다」: 우리...오늘 시러 世尊을 맞나습과이다 =我等이...今得值  
 世尊하습과이다(법화 3:114-5)  
 「-스바이다」: 賀禮는 깃스바이다 하야 禮數흘씨라 (석보 11:30)



阿育王이 (龍王에게) 날오더 내 그런 프들 몰라하댕다 하야늘 (석보 24: 31-2)

「-느니이다」→「-느닝다」:

三世엿 이를 아루실씨 부테시다 하느닝다 (석보 6: 18)

이 사름들히 다 神足이 自在하야 衆生의 福田이 드일씨 주이라 하느닝다 (석보 6: 18)

「-으리로소이다」→「\*-으리로쇠이다」→「-으리로칭다」:

어제 그딛 마를 드로니 막스매 來往하야 닛디 몰하리로칭다=昨聞爾言호니 往來方寸間하야 不能忘이로다 (내훈, 2하: 37)

10. 때로는 「-이다」가 생략된채 상대높임의 서술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

용비어천가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린 글이오,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돌아가신 왕후에게 올린 글이다. 그러므로 이 문체는 상대높임을 써야 할 것인데, 그렇게 장마다 「-이다」를 붙여서는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다」는 생략하고, 가끔 「-이다」를 두어 이 노래 전체의 단조를 깨뜨리는 동시에 상대높임임을 나타내고 있다. (→pp. 493-5)

海東 六龍이 느룩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용 1장)

불휘 기픈 남조 브르매 아니 뭇씨 곳 도쿄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드른 ㅁㅁ매 아니 그출씨 ...바르래 가느니 (용 2장)

太子를 하늘히 고평샤 兄그 프더 일어시닐 聖孫을 내시니이다

世子를 하늘히 고평샤 帝命이 느리어시닐 聖子를 내시니이다 (용 8장)

阿僧祇 前世劫에 님금 位르 브리샤 精舍에 안잣더시니 五百前世

怨讎ㅣ 나랏천 일버샤 精舍를 다나아가니 (천강곡 상, 기 3)

어엿브신 命終에 甘蔗氏 니스샤물 大瞿曇이 일우니이다

아득호 後世에 釋迦佛 드외심들 普光佛이 니르지니이다 (기 5)

11. 때로는 「-이-」의 /이/가 앞 음절의 홀소리를 겹홀소리화한 흔적을 남기고 「-이다」가 생략되는 일도 있다.

祥瑞도 하시며 光明도 하시나 𡇗업스실씨 오늘 몬 습뇌

天龍도 해 모드며 人鬼도 하나 數업슬씨 오늘 몬 습뇌 (천강곡 상, 기 26)

「습뇌」는, 「습노이다」의 「-노-」가 뒤 음절의 /이/의 영향으로 겹홀소리 「뇌」/noj/로 바뀌고 난 뒤에 「-이다」가 생략된 어형이다.

습노이다→\*습뇌이다→습뇌

#### (나) 물음법

12. 물음법에는 고-물음법과, 가-물음법이 있다.

##### (나-1) 고-물음법

13. 「-으잇고」 형은 「고-물음법」의 상대높임이 된다.

摩耶夫人이 地藏菩薩의 다시 슬브샤더 엇테 일후미 無間地獄이잇고 (월석 21: 41)

내 이젇 몸과 막슴과는 쏘 이 엇던 物이잇고 =我今身心은 復是何物이잇고 (능엄 2: 45)

누 혼 거시잇고 (석보 11: 27)

이 이리 엇테잇고 (월석 21: 138)

그 數ㅣ 언매잇고=其數ㅣ 幾何ㅣ잇고 (법화 4: 166-7)

14. 앞에 다른 안맺음씨끝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잇고」는 잡음씨에 붙은 예만 볼 수 있고, 그 밖의 풀이씨에 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15. 「-으이-」 앞에는 안맺음씨끝 「-으리-」, 「-으니-」가 앞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풀이씨에 연결될 수 있다.)

「-으리잇고」: 엇테 ...證하야 알리잇고 (능엄 2: 3)

世尊하 ...이 法華經 듣고 隨喜호 사르문 福을 언매나 得하리잇고 (석보 19: 1)

내 이제 엇테하야샤 地獄 잇는 싸해 가리잇고 (월석 21: 25)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我見性은 尙無有靜커니 誰爲無住 | 리잇고 (능엄 1:108)

「-으니잇고」: 本來入 歎승문 엇테 도라가미 업스니잇고 =元心은 云  
何無還하니잇고 (능엄 2:26)

그 이리 엇더니잇고 (월석 21:37)

이 프리 엇던 因緣으로 𪛗글흐며 罪人들과 모던 중성이 하니잇고  
(월석 21:25)

以何因緣으로 ...悉見彼佛國界莊嚴이니잇고 (법화 1:66)

16. 「-으리-」 앞에는 다시 안맺음씨끝 「-습-」, 「-으시-」, 「-오/우-」  
「-습+오-」가 앞설 수 있다.

「-스블리잇고」: 부터 涅槃하신 後에 므슴 法을부터 如來를 스스블  
리잇고 (석보 23:6)

「-으시리잇고」: 엇테 ...諸佛이 功德을 니르샤도 오히려 다 몰하시  
리잇고 (월석 21:157)

「-우리잇고」: 世尊하 우리 무리 ...어느 므슴 어느 헤미 부터 天倫에  
參預호리잇고=世尊하 我輩 | ...何心何慮 | 預佛天倫호리잇고(능엄 5:29)

「-스보리잇고」: 부터 法이 精微하야 저문 아히 어느 들즈보리잇고  
(석보 6:11)

17. 「-으니-」 앞에는 다시 안맺음씨끝 「-느-」, 「-으시+느-」, 「-습+  
느-」, 「-더-」, 「-으시+더-」, 「-으시-」, 「-습+으시-」 따위가 앞설 수  
있다.

「-느니잇고」: 世尊하 ... 엇테 衆生이 善道에 브터 기리 버서나다  
아니하느니잇고 (월석 21:116)

「-으시느니잇고」: 世尊하 엇던 因緣으로 ...아디 어려본 法을 브즈래  
니 讚嘆하시느니잇고 (석보 13:44)

「습느니잇고」: 엇던 因緣으로 ...보습느니잇고 (법화 1:66-7)

「-더니잇고」: 菩薩入 어마니미 사라이셔 엇던 行業을 니기더니잇고  
(월석 21:27)

「-으시더니잇고」: 엇테 𪛗르쳐 맞디시더니잇고 (육조, 상:42)

「-으시니잇고」: 菩薩이 엇던 緣으로 예 오시니잇고 (월석 21:24)

「-스블시니잇고」: 摩耶夫人이 ...엇던 因緣으로 如來를 나스블시니  
잇고 (석보 11:24)

## (나-2) 가-물음법

18. 「-으잇가」 형은 「가-물음법」의 상대높임이 된다.

爲復此見이 縮大爲小 | 잇가 (능엄 2:40)

이 엇던 𪛗히잇가 (월석 21:24)

「가」의 용법은 예외적이다. (→p.515)

모든 緣塵과 므슴미 念慮와 和合 아니잇가 =與諸緣塵과 及心念慮와  
非和合耶 | 잇가 (능엄 2:101)

世尊이...安樂行하시느니잇가 아니잇가 =世尊이...安樂行하시느니잇가  
不 | 잇가 (법화 5:91)

19. 앞에 다른 안맺음씨끝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잇가」는 잡음씨에  
붙은 예만 나타나고, 다른 풀이씨에 붙은 예는 보이지 않는다. (→p.515)

20. 이 앞에는 다시 안맺음씨끝 「-으리-」, 「-으니-」가 앞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풀이씨에 다 연결될 수 있다.)

「-으리잇가」: 大士하 이 南閻浮提 衆生이...여러 善因 지소매 니를  
면 이 命終호 사르미 큰 利益과 解脫을 得호리잇가 몰호리잇가  
(월석 21:107)

반두기 善根佛性を 그츠리잇가 아니호리잇가 =當斷善根佛性否 | 잇가  
(육조, 상:44)

호 太子를 호 夫人곰 맞디샤 젓 머겨 기르라 하시면 아드리 아니리  
잇가 (석보 11:33)

「-으니잇가」: 이 보미 큰 거시 움쳐 저기 드외니잇가 (능엄 2:40)

높을 디니 그 아니 어리니잇가 (천장곡 상, 기 103)

善心이니잇가 아니잇가 =善心이니잇가 不 | 잇가 (법화 7:20-1)



21. 「-으리-」 앞에는 다시 「-으시-」, 「-아/어-」, 「-오/우-」가 앞설 수 있다.

「-으시리잇가」: 부테...반드기 授記<sup>후</sup>시리잇가 (법화 1: 88)

「-어리잇가」: 天龍이 조짜블며 花香이 느리니 그날 莊嚴을 다 술바  
리잇가 枯樹에 여름 열며 竭川에 십이 나니 그날 祥瑞를 다 술바  
리잇가 (천강곡 상, 기 127)

「-우리잇가」: 현마 七寶로 꾸며도 도타 호리잇가(천강곡 상, 기 121)

22. 「-으니-」 앞에는 다시 「-느-」, 「-으시+느-」, 「-더-」, 「-으리+로소-」, 「-으시-」가 앞설 수 있다.

「-느니잇가」: 가히는 佛性이 잇느니잇가 업스니잇가 =狗子는 還有佛  
性也 | 잇가 無 | 잇가 (몽산 11)

「-으시느니잇가」: 淨華宿王 智佛이 世尊의 問訊<sup>후</sup>샤디 ...安樂行<sup>후</sup>시  
느니잇가 ...世間人 이를 어루 츠므시느니잇가 (월석 18: 79)

「-더니잇가」: 世尊하 손지 世間에 겨시더니잇가 (월석 18: 36)

「-으리로소니잇가」: 어마니물 아라 보리로소니잇가 (월석 23: 86)

「-으시니잇가」: 子息들히... 아비를 바라코... 問訊<sup>후</sup>샤디 이대 便安히  
오시니잇가 (월석 17: 17)

23. 서술법에 있어서는 「-이-」의 /l/가 줄어들서 /ɔ/ 만으로 높임을 나타내는 일이 있었는데(p.661 참조), 「-스가」가 연결된 물음법의 높임 「-잇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ɔ/마저 줄어진다. 이것은 세 닿소리의 연결 /ɔ+ㅅ+ㄱ/이 어색하기 때문이었으리라 추측된다.(이 말씨도 「-잇가」 형보다 약간 낮추는 경우에 쓰였던듯 하다.)

「-으니잇가」→「\*-으녕까」→「-으닛가」:

婆羅門이...그 쫄드려 무로디 그딛 아바니미 잇느닛가 (석보 6: 14)

엇테 부테라 호느닛가 (석보 6: 16)

須達이 護彌드려 무로디 主人이 므슴 차바닐 손소 들녀 땡노닛가

太子를 請<sup>후</sup>스바 이받즈보려 호노닛가 大臣을 請<sup>후</sup>야 이바도려

호노닛가 (석보 6: 16)

그딛는 아니 들즈뵈디시닛가 (석보 6: 17)

24. 서술법의 경우처럼, 「-잇고, -잇가」가 줄어진채 물음법의 높임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pp.513-4 참조)

無量劫 부테시니 주거가는 거식 일을 몬 보신들 매 모른시리 (천강  
곡 상, 기 43)

三界 救호려 하샤 肉身 일우신들 世間人 드틀을 므슴만 너기시리  
(천강곡 상, 기 125)

定社之聖人이 뉘 아니 오스블리 (용 99장)

어느 길헤 다시 보스블리 (월석 8: 82, 기 232)

그딛는 어드러셔 오시느니 (석보 23: 40)

師子尊자의 ...國王이 ...믄즈와 닐오디 師는 蘊이 부요물 得<sup>후</sup>야  
겨시니 對答호디 하마 得<sup>후</sup>얏노이다 王이 닐오디 하마 蘊이 뷔면  
生死를 여희시니 對答호디 하마 여희요이다 (남명, 상: 53)

이 예로 보면, 이 생략형은 생략되지 않은 어형과 꼭 같은 정도의 높임을 나타내기도 하나(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의 경우), 때로는 그보다 약간 낮추는 경우(그러나 여전히 높임의 뜻이 있는)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석보 23: 40」의 「오시느니」도 한가지다.

#### (다) 피임법

25. 피임법의 높임은 안맺음씨끝 「-사-」와 「-이-」의 연결로 나타내는 데, 「-사-」는 「-이-」와 연결될 수 있을 뿐이다.(p.520 참조)

淨土애 훈디 가 나사이다 (월석 8: 100)

일후물 一定<sup>후</sup>사이다 (월석 8: 98)

藥 든 가슴을 마초읍사이다 (악장가사, 만전춘)

의 「사이다」는 물론 「사이다」의 변화형이다.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라) 시킴법

26. 시킴법의 상대높임은, 글자 그대로의 시킴이 되지 않고, ‘탄원’이 되는데, 아주 높일 경우에는 맺음씨끝 「-으쇼셔」(p.518 참조)를 쓰고, 예사높임에는 「-아씨/어씨」(p.518 참조)를 써서 나타낸다.

「-으쇼셔」: 願<sup>하</sup>흔 世尊이 …分別 마<sup>르</sup>쇼셔 (월석 21:36)

聖母하 願<sup>하</sup>흔 드<sup>르</sup>쇼셔 (월석 21:38)

願<sup>하</sup>흔 世尊이 어<sup>들</sup> 니<sup>르</sup>쇼셔 (월석 21:50)

님금하 아<sup>르</sup>쇼셔 (용 125장)

釋迦牟尼佛이 이 座에 나<sup>스</sup>쇼셔 = 釋迦牟尼佛이 可就此座<sup>하</sup>쇼셔 (법화 4:132)

國王은 오<sup>쇼</sup>셔 龍王은 거<sup>쇼</sup>셔 이 두 말을 어<sup>늘</sup> 從<sup>하</sup>시려뇨 (월석 7:26, 기 197)

▽「거쇼셔」에 대해서는 p.519 참조.

王이 부<sup>터</sup>를 請<sup>하</sup>스<sup>르</sup>쇼셔 (석보 6:38)

「-어씨」: 婆羅門이 …그 쏘<sup>드</sup>려 무<sup>로</sup>디 그<sup>딧</sup> 아바니미 잇<sup>느</sup>닛가 對答<sup>호</sup>디 잇<sup>느</sup>니이다 婆羅門이 닐<sup>오</sup>디 내 보아져 하<sup>느</sup>다 술<sup>바</sup>씨 (석보 6:14)

須<sup>達</sup>이 …다시 무<sup>로</sup>디 엇<sup>테</sup> 부<sup>테</sup>라 하<sup>느</sup>닛가 그 쁘<sup>들</sup> 닐<sup>어</sup>씨 (석보 6:16-7)

27. 長者인 須<sup>達</sup>이와 護<sup>彌</sup>의 대화를 보면(석보 6:16-8):

須: 主人이 프<sup>슴</sup> 차<sup>바</sup>닐 손<sup>소</sup> 돈<sup>너</sup> 뎡<sup>ㄹ</sup>노<sup>넛</sup>가 …大臣을 請<sup>하</sup>야 이<sup>바</sup>도려 하<sup>노</sup>넛가

護: 그리 아<sup>닝</sup>다

須: 婚姻 위<sup>하</sup>야 아<sup>수</sup>미 오<sup>나</sup>든 이<sup>바</sup>도려 하<sup>노</sup>넛가

護: 그리 아<sup>니</sup>라 부<sup>터</sup>와 중<sup>과</sup>를 請<sup>하</sup>스<sup>르</sup>보려 하<sup>느</sup>다

須: 엇<sup>테</sup> 부<sup>테</sup>라 하<sup>느</sup>닛가 그 쁘<sup>들</sup> 닐<sup>어</sup>씨

護: 그<sup>딧</sup>는 아<sup>니</sup> 듣<sup>즈</sup>뵈<sup>터</sup>시<sup>넛</sup>가…三世엿 이<sup>를</sup> 아<sup>르</sup>실<sup>씨</sup> 부<sup>테</sup>시<sup>다</sup> 하<sup>느</sup>닝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일은:

첫째, 須<sup>達</sup>의 護<sup>彌</sup>에 대한 말 가운데 “하<sup>노</sup>넛가, 하<sup>느</sup>닛가”(물음법)가 쓰임과 동시에 “닐<sup>어</sup>씨”(시킴법)가 쓰였음으로 보아, 이 두가지 어형의 높임법 상

의 등분은 같고,

둘째, 호미의 말에서는 “아<sup>닝</sup>다, 하<sup>느</sup>다, 하<sup>느</sup>닝다”(서술법)가 쓰임과 동시에 “듣<sup>즈</sup>뵈<sup>터</sup>시<sup>넛</sup>가”(물음법)가 쓰이고 있음으로 보아, 이 두 어형의 높임법 상의 등분도 역시 같다.

그러므로

하<sup>느</sup>닝다(서술)——하<sup>느</sup>닛가(물음)——하<sup>야</sup>씨(시킴)

는 그 높임의 등분이 같고,

하<sup>느</sup>니이다——하<sup>느</sup>니잇가——하<sup>쇼</sup>셔

는 같은 등분의 높임임을 알 수 있는데, 후자는 전자보다 더 높임이 된다.

(1-2) 안높임

28. 앞에 설명한 높임의 방법을 쓰지 않은 어형은 모두 안높임이다.

(가) 서술법

29. 「-이다, -다」 및 그 생략형(-으니, -으리, -네) 이외의 서술법의 활용형은 모두 안높임이다.

보미 네 알<sup>피</sup> 잇<sup>다</sup> 호미 이 뜨<sup>디</sup> 實<sup>티</sup> 아<sup>니</sup>타 (능엄 2:47)

내 중<sup>시</sup>을 본<sup>딘</sup> 사<sup>슴</sup>도 샅<sup>기</sup> 비<sup>골</sup>하 하<sup>거</sup>든 믅<sup>스</sup>매 닛<sup>디</sup> 몰<sup>하</sup>느<sup>다</sup> (석보 11:41)

사<sup>름</sup>과 사<sup>름</sup> 아<sup>닌</sup>것<sup>과</sup> …상<sup>네</sup> 供<sup>養</sup>하<sup>습</sup>느<sup>다</sup> 야<sup>이</sup> 다 뵈<sup>느</sup>다 (석보 13:24)

네 이제 …도<sup>즈</sup>굴 다 것<sup>거</sup> 滅<sup>하</sup>도<sup>다</sup> (월석 18:56)

이 각<sup>시</sup>사 내 언<sup>니</sup>느 믅<sup>스</sup>매 맞<sup>도</sup>다 (석보 6:14)

내 천<sup>량</sup> 庫<sup>藏</sup>을 이제 맞<sup>뵈</sup>디 잇<sup>거</sup>다 (월석 13:15)

너와 나<sup>와</sup> 同<sup>氣</sup>라 (능엄 1:41)

내 하<sup>마</sup> 命<sup>終</sup>호<sup>라</sup> (월석 9:36 상)

내 반<sup>드</sup>기 너 爲<sup>하</sup>야 …닐<sup>오</sup>리라 = 吾當爲汝<sup>하</sup>야…解<sup>說</sup>호<sup>리</sup>라 (법화 1:171)

世<sup>間</sup>은 …구<sup>드</sup>니 업<sup>스</sup>니라 = 世…無<sup>牢</sup>強<sup>者</sup>하<sup>니</sup>라 (능엄 2:4)

30. 「-으시-」와 「-습-」은 높임법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이기는 하나,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이들은 상대높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형태소들만으로는 상대높임이 되지 못한다.

王이 돌해 刻히샤 南郊애 무더 두라 히시다 (월석 2:49)

이제 世尊이 ...큰 法義를 펴려 히시는다 (석보 13:26)

往生<sub>을</sub> 자셔샤 의오더시다 (월석 8:97)

곧 如來와 즌잡느니라 = 即同如來<sub>히</sub>느니라 (능엄 2:45)

根이 조흘씨 能히 한 부터를 보스블리라 (월석 18:55)

衆이 세번 도로히샤 恭敬을 보스오시니라 = 衆이 三反<sub>히</sub>샤 以示敬<sub>히</sub>시니라 (법화 6:125)

31. 그 밖의 서술법 씨끝, 「-은더」(p.492), 「-을씨」(p.493), 「-마」(p.493)는 모두 상대를 높이지 않는 데에 쓰인다.

#### (나) 물음법

32. 「-잇가, -잇고」와 /이/ 생략형(「히노넛가」 따위), 그리고 「-잇가, 잇고」 생략형(「히리, 히니」 따위) 이외의 물음법의 활용형은 모두 안높임이다.

#### (나-1) 고-물음법

33. 「-은고, -을고, -으리오, -으니오」형은 「고-물음법」의 상대 안높임으로 쓰인다.

「-은고」: 엇던 因緣으로 得히고 疑心<sub>히</sub>시니라 (법화 4:56)

어느 이를 念히느고 히삼들흔... (월석 13:55)

「-을고」: ㅁㄹㅁㅅ 구루믄 어느 바미 ㅁ마니 이실고 蜀人 비는 어느

ㅁ ㅁ틀고 = 江雲何夜靜 蜀雨幾時乾 (두언 21:26)

「-으리오」: 엇데 ...다르리오 = 何異...이리오 (능엄 2:20)

종과 물와를 현맨들 알리오 (천강곡 상, 기 52)

「-으니오」: 須菩提 므슴 道理를 보고 곧 希有타 니르니오 (= 須菩提

見介甚麼道理<sub>히고</sub> 便道希有<sub>히니오</sub> (금강삼가 2:1)

온번 사호매 이제 뉘 잇느니오 = 百戰今誰在 (두언 8:34)

「-으료」: 네 아드리 孝道<sub>히고</sub> 허물 업스니 어드리 내티료 (월석 2:6)

엇던 양즈로 느려가료 (월석 2:19)

「-으노」: 네 브데 엇더노 (석보 19:4)

如來 어디 겨시노 (월석 21:193)

34. 「-으시-」와 「-습-」은 상대높임과는 관련이 없다.

부터 滅度<sub>히</sub>샤미 엇데 선크신고 (법화 1:122)

어느저기 곳부리틀 와 보실고 (두언 22:9)

엇데 오시리오 (천강곡 상, 기 132)

無上正道 일우시니 아니시면 엇데 이에 미츠시료 (법화 3:163)

엇던 전츠로 ...네 업던 이를 얼즈보노 (석보 13:16)

#### (나-2) 가-물음법

35. 「-은가, -을가, -으니아, -으리아」 따위 어형은 가-물음법의 상대 안높임으로 쓰인다.

「-은가」: 다 便安<sub>히</sub>가 몰히가 히고 (법화 4:129)

衆生이 므득 난가 疑心<sub>히</sub>니라 (월석 14:17)

便安히 잇는가 (두언 21:12)

「-을가」: 다시 柴扉 두드료믄 肯許<sub>히</sub>가 = 重肯歎柴扉 (두언 22:10)

「-으리아」: 볼 나를 구퇴여 더디다 히야 말리아 = 見日敢辭遲 (두언 8:47)

블근 구스른 시러곰 어드운디 ㅁ초아 두리아 = 珠明得暗藏 (두언 8:70)

「-으니아」: 넷 病에 예 와쇼믄 들히너기노니 衰老<sub>히</sub> 나해 시러곰 足디 아니히니아 = 舊疾甘載來 衰年得無足 (두언 6:5)

「-으니여」: 太子 | 무로더 앓가볼 브디 잇느니여 (석보 6:25)

「-으리여」: 이 四天이 혼갓 다 뵈리여 (월석 1:37)

「-으려」: 算師 | 어나 算師 弟子 | ...그 數를 알려 몰히려 (월석 14:8)



네 이 肉身이 ...석디 아니하러 또 變하야 하야디러 =汝此肉身이...  
不朽아 爲復變壞아 (능엄 2:4)

「-으녀」: 表흠 고디 잇느녀 表흠 고디 업스녀 (능엄 1:70)  
또 淸新호물 어드녀 묻호녀 =更得淸新否 (두언 20:38)

36. 「-으시-」, 「-습-」은 상대높임과 관련이 없다.

安否는 便安하신가 아니하신가 하논 마리라 (석보 11:4)

그 빈골하실가 저코 =唯恐其餒 (내훈 1:48)

天縱之才를 그려사 아스불까 (용 43장)

### (나-3) 물음말과 관계 없는 물음법

37. 「-은다」, 「-을다」(→p.497-9) 따위 활용형은 「-이-」를 앞세우는 일이 없다. 따라서 이 활용형은 모두 상대를 높이지 않는 데 쓰인다.

「-은다」: 鹿母夫人이 나흔 고졸 어디 브린다 (석보 11:32)

네 어디 이셔 趙州 본다 =你在甚處하셔 見趙州하다 (몽산 53)

늬 좇 브디 이실씨 가져가니 엇테 잡는다 (월석 2:13)

네 이 一切 諸佛菩薩와 天龍鬼神을 보는다 (월석 21:13)

「-을다」: 네 엇테 보물 느리혀 헛마새 마즈기 훑다 =汝 豈挽見하야 齊於日面하다 (능엄 2:43)

拾遺는 能히 머물다 말다 =拾遺能住否 (두언 15:42)

### (다) 피임법

38. 「-사이-」가 들어가지 않는 피임법의 활용형 「-저, -저라」는 상대 안높임이다. (pp.519-20 참조. 용례는 앞에 거의 다 보였기, 여기에는 더 들지 않는다.)

### (라) 시킴법

39. 「-으쇼셔」, 「-아썬/어썬」 이외의 시킴법의 활용형 「-고라, -고

려, -으라」(→pp.516-8)는 모두 상대 안높임이다.

나몬 다스솔 이틀 전주라 =餘五를 例此하라 (능엄 3:4)

네 받드기 子細히 드르라 =汝 應諦聽하라 (능엄 2:27)

靑衣를 브려 괴별 아라 오라 하시니 (석보 6:2)

羅刹石堀을 날 주라 (월석 7:51)

다 如來入 威力이론 고들 아라라 (석보 9:28)

阿難아 내 혼 말 드르라 (월석 10:21)

獄中에 가 어미 이바다라 (월석 23:89)

너희 ...釋迦牟尼佛의 저스바 供養하스브라 (석보 19:41)

너희 받드기 一心으로 念하스오라 =汝等이 當一心으로 念하스오라 (법화 6:155-6)

「-습-」은 상대높임과는 관계가 없다.

佛子 이제 對答하야 疑心을 決하야 기쁘고 하코라 (석보 13:25)

世尊이 니르샤디 도타 文殊師利여 네 大悲로 니르코라 請하느니 (월석 9:9)

## (2) 주체높임법

1. 말의 주체를 높이는 문법적 방법을 주체높임법이라 하는데, 주체란 임자말로 지시되는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이다.

2. 그리고 높임이란 원래 말할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공경하는 뜻을 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인데, 때로는 그 사람에게 관계된 일이나 물건을 표현 상 높이는 일도 있으니, 앞의 경우를 「직접높임」이라 하고, 뒤의 경우를 「간접높임」이라 한다.

3. 또 경우에 따라서는 표면 상 임자말로 등장되지 않은 인물일지라도 그 속뜻으로 보아 주체가 될 경우에는 역시 주체높임법이 사용된다.

4. 주체높임은 안맺음씨끝 「-으시-」로써 표시되는데, 다른 씨끝에 있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어서는 줄기의 끝 /ㄹ/ 다음에서 /으/가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의 /으/는 /ㄹ/ 밑에서 줄지 않는다. (p. 518 「-으쇼셔」 참조.) 그리고 뒤에 「-아/어」, 「-오/우-」가 올 때는 「-으시-」는 「-으샤-」로 변동하면서 뒤의 씨끝은 없어진다. 즉 무형의 변이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으샤(-)」 변이형태 다음에는 반드시 「-아/어」나 「-오/우-」가 숨어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늘+으시+아/어→느르샤; 가+으시+오/우+ㅁ→가삼

5. 「느르샤」의 「-샤」는 「으시+아」의 축약으로 볼 수도 있으나, 15세기에 있어서는 /이/ 다음에서는 「-아/어」는 「-어」 변이형태를 취함이 일반적이다. 즉 「주거-」, 「너거-」, 「머거-」, 「다허-」, 「말이-」 따위 말의 「-아/어」 활용형은 각각 「주거, 너거, 머거, 다허, 말이」이다. 그러므로 「느르샤」의 「-샤」는 「으시+아」의 축약으로 보지 않고, 바로 「-으시-」의 한 형태적 변이형태로 보는 것이 좋다.

6. 그리고 「-으시-」 앞에 안맺음씨끝 「-오/우-」가 오는 일이 없는데, 다음의 한 예는 특이하다.

耶輸 | ...大愛道의 슬로샤디 (석보 6:7)

### (2-1) 주체가 임자말로 표현된 경우

7. 「-으시-」에는 마침법, 이음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맺음씨끝이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한 월 안의 모든 풀이씨는 모두 임자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으이-」와 다른 점이다.)

「-으시다」: 王이 ...그 蓮花를 브리라 하시다 (석보 11:31)

諸子 | ...아바니미 ...菩提를 일우시다 듣고 (월석 14:14)

우리 스승님이 ...쁘들 읊기디 아니하시다 =我師 | ...志不移하시다(남명, 상:54)

摩訶薩은 굴근 菩薩이시다 하느 마리라 (석보 9:1)

이 부테 나심저기 몃새 光이 燈 마득실씨 燃燈佛이시다도 하느니 (월석 1:8)

三世엿 이를 아르실씨 부테시다 하느닝 다 (석보 6:18)

「부테시다」의 임자말은 「釋迦」이다.

世尊은 世界에 못 尊하시닷 브디라 (석보, 서:5)

「-으신더」: 般若 기픈 브디 이를 니르신더 (반야심경 8)

▽표면으로는 「브디」가 임자말이 되어 있으나, 이 ‘뜯’은 불경의 뜻이므로 역시 높임법이 쓰인다. 이것이 간접높임이다.

「-으실씨」: 도하실씨 菩薩이 엇던 緣으로 예 오시니잇고 (월석 21:24)

▽「도하실씨」의 임자말은 ‘보살이 여기 오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간접높임이다.

크실서 君王入 德이여 =大哉라 君王之德이여 (내훈, 2상:30)

▽이것도 간접높임이다. (임자말은 「君王入 德」이다.)

「-으신고」: 부터 滅度하시미 엇테 썬르신고 하더니 =佛滅이 一何速

이신고 하더니 (법화 1:122)

스승넋 어마니미 ...일후몬 므스기신고 (월석 23:82)

▽두 예가 다 간접높임이다.

「-으실고」: 어느 저기 곳부리틀 와 보실고 =何當看花藥 (두언 22:9)

「-으신가」: 누비웃 니브샤 붓그료미 엇테 업스신가 (천강곡 상, 기 120)

▽임자말은 「태자」이다.

「-으실가」: 나가실가 저하시 (천강곡 상, 기 46)

▽임자말은 「태자」이다.

시킴법의 「-코라/오라」의 「-으시-」 연결형은 「-코시라/오시라」인데, 이 말은 고려가요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어느이다 노코시라 (악학궤범, 정음사)

紅실로 紅글위 미요이다 허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하 (악학궤범 (악장가사), 한림별곡)

돌하 노피곰 도드샤... 머리곰 비취오시라 (정음사)

情든 오늬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악장가사, 만전춘)

「-으시니」: 第一夫人이 아득를 나하시니 端正하고 性이 도하 (월석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부텃 일후몬... 佛世尊이시니 (석보 9:3)

「-으시면」: 聖子 | 나샤 ... 出家하시면 正覺을 일우시리로소이다 (월석 2:23)

大菩薩 아니시면 能히 證知 못하실 전치라 (법화 4:70)

「으실썌」: 님굼 이리 만하실썌 하룻 丙에 一萬 조가기시다 하느니라 (월석, 서:16)

唱義班師 | 실썌 千里人民이 몬더니 (용 9장)

▽임자말은 「李太祖」.

「-으샤」: 알피 모든 物에 나사가샤 마르쳐 니르샤디 = 前에 即諸物 하샤 而指曰하샤디 (능엄 2:46)

敬天勤民하샤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용 125장)

▽위의 두 문장의 임자말은 각각 속뜻에 있는 부처와 임금이다.

「-으신대」: 昭王이 群臣드려 무르신대 太史 蘇由 | 솔보디 (월석 2:49)

「-으신덴」: 하다가 如來 | 곧 五陰이신덴... 如來도 또 無常이시라며 (원각, 1-1:63)

「-으시관디」: 世尊하 地藏菩薩이... 엇던 願을 發하시관디 이제 世尊入 브즈러니 讚歎하샤물 님습느니잇고 (월석 21:49)

스승니미 엇던 사르미시관디 주벼느로 이 門을 여르시느니잇고 (월석 23:84)

世尊하 摩耶夫人이 엇던 業을 지스시곤대 畜生中에 나시니잇고 (석보 11:40)

「-으실시언딩」: 오직 아바넝 病이 도하실시언딩 모물 百千디위 브려도 어렵디 아니하니 (월석 21:216)

「-으시나」: 佛世尊이 ... 펴니르시나 막스미 오히려 여디 몰거늘 (능엄 2:77)

世尊入 일 솔보리니 萬里 外入 일이시나 눈에 보논가 녀기스불쇼셔 (월석 1:1, 기 2)

「-으샤도」: 엇메 過去現在未來 諸佛이 功德을 니르샤도 오히려 다 못하시리잇고 (월석 21:157)

「-으신들」: 아바님 슬하신들 淨居天은 뜯 달아 (천강곡 상, 기 56)

「-으시디위」: 世尊이 實한 道를 니르시디위 波旬은 이 이리 업도소이다 = 世尊이 說實道하시디위 波旬은 無此事 | 로소이다 (법화 2:25-6)

「-으실썌딩」: 부테 이에 와 滅度하실썌딩 우리히도 스승니미실썌 (석보 23:52)

「-으시고」: 부테 곧 불홀 세시고 阿難드려 니르샤디 (능엄 2:13)

부려도 이 존하샤 ... 그 막스물 질드려 굿블이시고샤 큰 智를 마르치시니 = ... 調伏其心하고샤 乃教大智하시니 (법화 2:252)

「-으시곡」: 如來 | ... 다웃 輪指를 구피샤 구피시곡 또 펴시며 펴시곡 또 구피시고 (능엄 1:108)

「-으시며」: 이제 世尊이 큰 法雨를 비호시며 큰 法螺를 부르시며 큰 法鼓를 타시며 (석보 13:26)

「-으시과더」: 大衆이 ... 念호디 ... 如來 | 神通力으로 우리 무를 다 虛空에 잇게 하시과더 하더니 = 大衆이 ... 作是念호디 如來 | 以神通力으로 今我等輩를 俱處虛空케 하시과더 하더니 (법화 4:133-4)

「-으시귀」: 羅睺羅 | ... 涅槃 得호물 부려 마득시귀 하리이다 (석보 6:4)

「-으시다가」: 善慧 ... 곳 잇는 싸홀 곧가 가시다가 俱夷를 만나시니 (월석 1:9)

「-으시곤」: 藏佛도 오히려 사오나오시곤 弟子는 어루 알리로다 = 藏佛도 猶劣하시곤 弟子는 可知로다 (영가, 하:69)

「-으시다가며」: 나시다가며 東西로 닐굽 거름 녀시니 = 生下東西七步行 (금강삼가 4:54)

▽임자말 「釋迦」가 속뜻으로 숨어있다.

8. 매김법에 있어서도 「-으시-」를 가진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이 이 풀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이말 앞에 바로 나타나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음. p.684 참조)

「-으신」: 喜見이... 몸 스르신 後에 (월석 18:61)

부테 滅度후신 後에 (석보 13:35)

즈개 住후신 三摩地 (능엄 2:57)

그 부터 住후신 싸히 일후미 常寂光이라 (월석, 서:5)

후번 쏘신 살 (천강곡 상, 기 40)

▽임자말은 「悉達太子」이다.

不進膳이 현빠신들 알리 (용 113장)

▽「不進膳」은 임금의 행동이니, 간접높임이다.

「-으실」: (亭舍) 부테 舍衛國으로 오실 길헤 머므르실 지비라 (석보 6:23)

地藏이 救후실들 世尊이 닐어 들이시니 (월석 21:2, 기 415)

9. 「-으시-」 다음에는,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여러가지 맺음씨끝이 다 붙을 수 있고, 또 안맺음씨끝 「-오/우-」, 「-느-」, 「-으니-」, 「-으리-」, 「-더/다-」, 「-으히-」, 「-아/어-」, 「-거-」, 느낌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및 이들의 결합체가 뒤따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씨끝 형태소와 어울릴 때에도 「-으시-」의 용법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으샤-」: 諸佛 니르샬 마티 (석보 13:59)

▽「-으시-」에 「-오/우-」가 연결될 때는 「-으시-」는 「-으샤-」로 변동하면서 「-오/우-」는 무형의 변이형태를 취하게 된다. (p.674)

부테 教化후샤미 (월석 1:1)

그빠 文殊師利 世尊의 솔부샤더 (석보 9:1)

法王子 | ...부터의 솔오샤더 (능엄 55)

후다가 如來入 中에 五陰 이쇼미 그릇 中에 物 이솜 곤후샬덴 如來 | 곧 크시고 五陰이 곧 저그며 (원각, 상 1-1:63)

부터 내샬 마리 =佛所出言 (법화 5:118)

부터 教化후산 衆 =佛所化衆 (법화 6:98)

過劫에 苦行후샤 이제사 일우산들 優陀耶 | 솔부니이다 (천강곡 상, 기 115)

▽「일우산」의 임자말은 「釋迦」이다.

이 經은 이 一卷入 그를 마르치산디 아니라 (금강 47)

▽「마르치산」의 임자말은 부처이다.

천량이 맛둘때 이쇼몬 法 십기샬때 이슈를 가즐비고 (법화 2:199)

▽임자말은 역시 부처이다.

「-으샤리-」: 장초 精持를 나토샤리라 묻져 이를 드러 니르샤몬 (월석 17:78)

▽「나토샤리라」의 임자말도 부처이다.

「-으샤스히-」: 大智德이 ...諸衆生을 너비 引導후샤 菩提를 쉼리 일우게 후샤시히다 =大智德이 ...廣導諸衆生후샤 令速成菩提케 후샤스히다 (법화 4:169)

「-으시느-」: 부테 겨지블 調御후시느다 후면 尊重티 아니후시릴췌 丈夫를 調御후시느다 후니라 (석보 9:3)

이제 부테...이런 祥瑞를 보시느니라 (석보 13:27)

「-으시느히-」: 世尊이 ...우리로 ...큰 饑益을 得게 후시느히다 (능엄 8:63)

「-으시느니히-」: 如來 | 상네 우릴 니르샤더 아드리라 후시느니히다 (법화 2:227)

世尊하 地藏菩薩이 ...엇메 이제도록 ...넙고 큰 誓願을 發후시느니 잇고 (월석 21:63)

부테 ...得후산 妙法을 이를 니르고져 후시느니잇가 =佛所得...妙法을 爲欲說此 | 시니잇가 (법화 1:88)

「-으시느니-」: 그되느 어드러셔 오시느니 (석보 23:40)

世尊이 었던 전초로 이런 光明을 펴시느노 (석보 13:25)

「-으시느-」: 首楞三昧는 千聖이 다 녀시느 전초로 니르샤더 門



이라 = 首楞三昧는 千聖이 共由故로 曰一門이라 (능엄 1:50)

「-으시노-」: 聖人이 비록 權으로 應하시논 자최 거시나 = 蓋聖人雖有 權應之跡 (법화 5:162)

行을 廢하시논디 아니라 (월석 17:42)

▽임자말은 부처이다.

「-으시니-」: 耶輸] ... 羅睺羅의 소를 자바 ... 울며 여희시니라 (석보 6:9)

普光佛이 또 授記하시니 (월석 1:4, 기 7)

부테 涅槃하시니여 (석보 23:20)

「-으시니이-」: 肇基朔方을 覓하시니이다 (용 17장)

▽임자말은 숨어있는 「하늘」이다.

王이 어드러 가시니잇고 (월석 10:15)

「-으시리-」: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도외에 하시리라 (월석 1:7-8)

발을 바사 매 아니 알꼭시리 (천강곡 상, 기 119)

오랫날 如來 당다이 大乘經을 니르시리니 일후미 妙法蓮華] 니 (석보 13:36)

帝胄] 中興하시릴찌 (용 29장)

「-으시리러-」: 菩薩摩訶薩이 아니 오라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得하시리러라 (월석 21:222)

「-으시리이-」: 如來 ... 도라오시리이다 (월석 21:194)

「-으시리어-」: 부테 本來 장차 니르시리어늘 (법화 2:7)

「-으시려니-」: 이 두고대 어디 가시려노 (월석 7:26, 기 197)

▽임자말은 「부처」이다.

「-으시리로-」: 이 각시 당다이 轉輪聖王을 나하시리로다 (월석 2:23)

「-으시리로소이-」: 父王이 오늘... 菩提心을 어루 發하시리로소이다 (법화 7:135-6)

「-으시리샤스이-」: 如來도 後에 반드기 煩惱하시리샤스이다 (원각)

상 1-1:10)

「-으시더-」: 十方佛이 다 現하야 니르샤더 ... 다몬 菩薩 마르초미라 하시더라 (석보 13:59)

世尊이 ... 더 境界 아니라 하시더니 (능엄 2:64)

如來 아래 니르시던 五種雨障 (월석 10:85)

「-으시더이-」: 故로 有拳相하시더이다 (능엄 1:98)

「-으시다스이-」: 이제 부텃 音聲 듣조오니 ... 한 사르므로 道場에 니를에 하시다스이다 (법화 2:22)

「-으시이-」: 太子스 모미 傷하야 命이 머디 아니하시이다 (월석 21:218)

을하시이다 世尊하 (석보 13:47)

「-으샤-」: 이런드로 菩薩이 퍼 請하샤늘 如來] 즉재 神力 내샤 (법화 6:97)

「-으시거-」: 부테 ... 法을 불어 니르시거든 衆生이 類를 조차 (법화 3:44)

德 일우산 行이 하마 妙코 圓하시거니 어딿던 魔事] 이시리오 = 成德之行이 既妙而圓하시거니 烏有魔事也] 리오 (법화 7:105-6)

여러 如來] 妙蓮華를 破시거늘 듣조오라 하시니 (능엄 1:17)

「-으시도-」: 實로 두 相 업수물 불기시도다 = 明... 實無二相이로다 (능엄 2:59)

「-으시노소이-」: 그럴찌 부테 實로 大乘으로 教化하시노소이다 = 然佛이 實以大乘으로 教化하시노소이다 (법화 2:232)

「-으시돏-」: 釋迦牟尼佛이 ... 剛强衆生을 질드리샤 苦樂法을 알에 하시돏다 (월석 21:9)

「-으샏-」: 世尊이 世間에 나샤 甚히 奇特하샏다 (월석 7:14)

10. 「-으시-」는 또 「-습-」, 「-더-」, 「-거-」를 앞세울 수 있다. (「-더-」, 「-거-」는 「-으시-」에 뒤따르기도 하고 앞서기도 한다.)



「-스받시-」: 摩耶 | 如來를 나쁘받시니 (월석 21:222)

우리 父母 | 太子의 드리스받시니 (석보 6:7)

흔 國王이 부엌 說法 듣스받시고 (월석 8:59)

「-더시-」: 善慧 듣좁고 깃거하더시다 (월석 1:18)

開國하더신 나리 괴외하도소니 =寂寥開國日 (두언 6:25)

「-습더시-」: 王이 ...林淨寺에 가신대 光有聖人이 보시고 ...찾을 길 이습더시니 (월석 8:97)

「-거시-」: 京都에 도즈기 드리 님그미 避커시늘 先登獻捷하샤 님금 도라오시니 (용 33장)

이 一切衆生 喜菩薩은 ...이제 불힐 스르샤 모미 쯔디 묻거시다 (월석 18:42)

東의 니거시든 西夷 브라스받니 (용 38장)

▽임자말은 「임금」이다.

「-습거시-」: 帝 즈조 后의 묻좁거시든 後 | 고티지며 (내훈, 2상:47)

11. 위에 말한 안맺음씨끝들을 앞뒤에 연결하는 경우:

「-스받시니-」: 우리 世尊이 ...迦葉波佛을 맛나 셤기스받시니라 (월석 2:10)

「-스받시니이-」: 摩耶夫人이 ...엇던 因緣으로 如來를 나쁘받시니잇고 (석보 11:24)

「-스받시더-」: 一切諸佛와 ...摩訶薩이 ...世尊의 安否 묻스받시더니 (월석 21:9)

「-더시니이-」: 宮中에 겨심제 옷 허름도 모르시며 비골품도 업더시 니이다 (월석 8:82, 기 233)

「-더시이-」: 大王이 앓가볼 브디 곧 업더시이다 (월석 8:91)

12. 「-으시-」만으로 부족을 느낄 때는 「-습시-」를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으시-」 앞에 고름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주는 내 하습시논 브디시니라 (훈, 언해)

(2-2) 주체가 바로 임자말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13. 이상에 들어보인 예들에 있어서는 풀이의 주체가 임자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나, 높여야 할 주체가 임자말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도 속 뜻으로 보아 (의미상의) 임자말인 경우에는 「-으시-」가 쓰인다

14. 속구조의 임자말이 겉구조의 매김말로 되어 있는 경우:

王이 그 이를 츠즈샤 鹿母夫人의 나하신들 아루시고 (석보 11:32)  
이 相은 欲愛의 나산디 아니시니 =此相은 非是欲愛所生이시니 (능엄 1:42)

神力의 化하산 거슨 =神力所化는 (법화 6:144)

이는 妙法智力的 化하산 자취를 나토시니라 =此는 顯妙法智力的 所化之迹也하시니라 (법화 5:78)

이 光의 爲하산 因緣을 아습고져 하더라 =欲知此光 所爲因緣 (법화 1:104)

公의 닐그시논 거슨 엇던 마리잇고 (원각, 서:68)

매김말로 나타나 있는 「鹿母夫人의, 欲愛의, 神力의, 妙法智力的, 光의, 公의」는 각각 그 다음에 오는 「나하신, 나산, 化하산, 化하산, 爲하산, 닐그시논」에 대한 의미상의 (속구조의) 임자말이다.

如來入 成佛하산 眞體시니 (능엄 8:64)

釋迦入 本來 세산 誓願 (법화 1:225)

이 諸佛入 得하산 거실씨 =是諸佛之所得 (원각, 서:3)

轉輪聖王入 드리산 衆中에 =轉輪聖王入 所將衆中에 (법화 3:145)

空王佛은 釋迦入 三僧祇劫中間에 맛나산 부테시니라 =空王佛은 乃釋迦入 三僧祇劫中間에 所逢之佛이시니라 (법화 4:57)

이 山海慧自在通王佛이 十方無量千萬億恒河沙等諸佛如來入 모다 讚歎하샤 그 功德 일컫르살 빠리라 =是 山海 ...佛이 爲十方...如來入



所共讚歎<sub>하</sub>샤 稱其功德이라 (법화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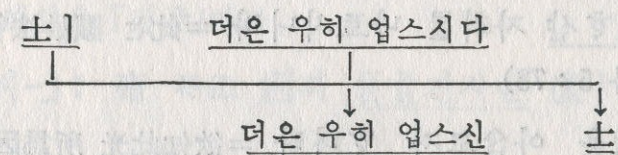
사잇소리를 가진 매김말 「如來入, 釋迦入, 諸佛入, 轉輪聖王入, 釋迦入, 如來入」은 각각 「成佛<sub>하</sub>산, 세산, 得<sub>하</sub>산, ㄷ리산, 맛나산, (讚歎<sub>하</sub>샤), 일<sub>ㄹ</sub>루살」의 속뜻으로의 입자말이다.

15. 이상의 예로써 보면, (풀이써) 매김풀의 속뜻의 입자말은 겹구조로는 매김말로 나타나는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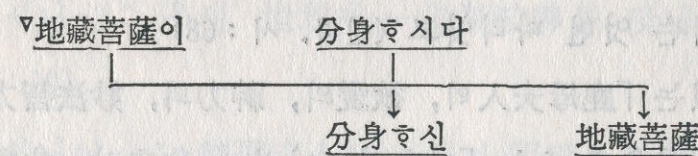
16. 의미상의(속구조의) 입자말이 꾸밈을 받는 말로 되어 있는 일도 있다.

無上士는 尊<sub>하</sub>샤 더은 우히 업스신 士라 (석보 9:3)

▽「더은 우히 업스신」의 의미상의 입자말은 그 뒤에 있는 「士」이다. 즉 이 말은 「士(無上士)」 더은 우히 업스시다」의 변형으로 된 것이다.



世界에 있는 地獄에 分身<sub>하</sub>신 地藏菩薩 (월석 21:30)



王 中엿 尊<sub>하</sub>신 王 (월석 10:9) ← 王이 (王中에) 尊<sub>하</sub>시다

다른 國土에서 오신 菩薩들 (월석 18:3) ← 菩薩들히 다른 國土에서 오시다

瑞相 ㅅ이<sub>는</sub> 如來 (월석 2:48, 기 28) ← 如來 ㅅ 瑞相 ㅅ이다

부텃 道理로 衆生 濟渡<sub>하</sub>시는 사<sub>ㄹ</sub>물 菩薩이시다 ㅎ<sub>ㄴ</sub>니라 (월석 1:5) ← 사<sub>ㄹ</sub>미 ...濟渡<sub>하</sub>시다

노존 大人이신 丘 ㅎ 모미샷다(금강삼가 4:11)

▽「노존 大人이신 丘」←「丘(孔子)」 노존 大人이시다

느려오실 부터 (월석 21:188) ← 「부터 느려오시다」

大導師는 크신 길 앓외시는 스승이라 혼 마리라 (월석 9:12)

▽「크신 길 앓외시는 스승」은 「스승이 크시다; 스승이 길 앓외시다」의 변형이다.

道理로 몸 사<sub>ㄹ</sub>시니 이 부테시니 (월석, 서:22)

▽「道理로 몸 사<sub>ㄹ</sub>시니」의 「이」는 매인이름씨로서 「사람」의 뜻인데, 이 말은 「(사람이) 道理로 몸 사<sub>ㄹ</sub>시다」의 변형이다.

說法<sub>하</sub>시느니들히 (법화 4:117)

▽이것도, 앞의 경우와 같이, 「이」는 사람, 「(그) 사람이 說法<sub>하</sub>시다」를 속뜻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菩薩行을 닷<sub>ㄹ</sub>시느니시니 (법화 3:45)

▽「닷<sub>ㄹ</sub>시느니」의 끝 「이」는 역시 사람, 「(그) 사람이 菩薩行을 닷<sub>ㄹ</sub>시다」를 속뜻으로 가지고 있다.

菩薩摩訶薩 八萬 사<sub>ㄹ</sub>미 다...世界에 無數<sub>하</sub> 百千 衆生을 잘 濟渡<sub>하</sub>시는 분내러시니 (석보 13:4)

▽「분내」는 즉 「...八萬 사<sub>ㄹ</sub>미」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濟渡<sub>하</sub>시는」의 입자말은 「八萬 사<sub>ㄹ</sub>미」(겹구조)와 「분내」(속구조)이다.

17.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용례도 설명을 요한다.

淨飯王 아<sub>ㄴ</sub>님 悉達이라 ㅎ샤리 나실 나래 (석보 6:17)

ㅎ 菩薩 摩訶薩 일후미 救脫이라 ㅎ샤리 座에서 니르샤 (석보 9:29)

「...이라 ㅎ샤리」는 속뜻으로, 「(사람이) ...이라 ㅎ다」를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으나(그것만으로는 「-으시-」가 들어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환언구조로 이해할 수도 있다.<sup>(29)</sup> 즉 「...아<sub>ㄴ</sub>님 悉達이라 ㅎ샤리」는 속뜻으로는, 「...아<sub>ㄴ</sub>님(이) 悉達이시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으시-」가 연결된 것이고, 「일후미 救脫이라 ㅎ샤리」도 역시 「일후미 救脫이시다」를 속뜻으로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世界에 있는거슬 내 다 보디 一切 부터 ㅅ<sub>ㄹ</sub>시니 업스샷다(월석 1:52)  
「부터 ㅅ<sub>ㄹ</sub>시니」의 「-이」는 「부터(및 그 또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사람이) 부터와 ㅅ<sub>ㄹ</sub>시다」를 속뜻으로 가진 표현법이다.

(29) 현대말의 「저는 ...이라 합니다」는 「저는 ...입니다」와 같은 표현법이다.



摩耶] ...天人世間에 쏘렷리 업스샷다 (월석 21:222)  
「업스샷다」의 직접적인 입자말은 「쏘렷리」이나, 「쏘렷리 업스샷다」의 큰 입자말은 「摩耶」이다.

香水에 沐浴더시니, 草木 서리에 겨샤 므슴 플로며 시스시논가 (천강곡 상, 기 124)  
이것은 정반왕이 한 말인데, 「시스시-」의 입자말은 태자이다. 이로써 보면 왕은 태자에게 높임말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논가」는 상대높임이 아니므로 (p.671 참조), 이 말은 왕이 바로 태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使者)인 우타야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천강곡 기 117에서 기 124까지는 모두 이러한 간접적인 대화이다.)

이 엇던 神靈入 德이시관더 내 시르플 누기시논고 (월석 21:21)  
부테 엇던 전츠로 이리 니르시논고 (법화 1:163)  
따위와 같은 형식의 말도 모두 앞의 「시스시논가」와 같이 이해되는 것이나,

그저기 혼 大臣 優婆言이 諸王의 닐오더 ...엇메 兵馬 니르바다 서르 싸흠호려 헝시논고 헝야놀 (석보 23:54)  
의 「헝시논고」의 용법은 이해하기 어렵다.  
즉 「헝시논고」의 입자말인 「諸王」에 대해서 높임말을 썼는데, 그 들을이인 (같은) 「諸王」에 대해서는 높임말 형식을 쓰고 있지 않으니 이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대신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글쓰는 사람이 그 말을 간접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용문에 있어서 직접·간접화법이 혼동되는 것은 우리말의 특색이다. (또는 이러한 「반말」 비슷한 높임 형식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 (2-3) 주체높임이 아닌 「-으시-」

18. 「-으시-」가 높임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제 내 헝마 阿羅漢道를 得<sub>헝</sub>야 오래 病緣을 여희엇가<sub>시</sub>니 엇메  
오늘 므슴 므슴 알포미 나거노 =今我 | 已得阿羅漢道<sub>헝</sub>야 久離病緣<sub>카</sub>  
시니 云何今日에 忽生心痛커노 (능엄 5:72)

네 입 안해 이셔 오직 혼 헤 잇거시니 =在汝口中<sub>헝</sub>야 祇有一舌커시니  
(능엄 3:27)

이 보미 곧 모든 어드움과 습디 아니커시니 엇메 어드우물 보리오  
=此見이 即不與諸暗과 습이어시니 云何見暗이리오 (능엄 2:99)

구물구물<sub>헝</sub>는 衆生이 다 佛性이 잇거시니 趙州는 어딴 因<sub>헝</sub>야 업  
다 니르노=蠢動含靈이 皆有佛性<sub>헝</sub>거시니 趙州는 因甚<sub>헝</sub>야 道無<sub>헝</sub>노(몽산 13)

네... 如來入 三十二相을 브토라 커시니... (능엄 1:45)

나는 므슴미 직마티 득외요물 들히 너기거시니 아슴와 아춘아드를  
므슴 슬허 늑므를 비마티 흘리가니오 =吾人甘作心似灰 弟姪何傷淚如  
雨 (두언 25:14)

故園엇 버드리 이제 이어 뼈러디거시니 엇메 시러곰 시름 가운데 도  
로 다 나느니오 =故國楊柳今搖落 何得愁中却盡生 (두언 16:51)

보물 여희오 各別히 잇는 거시면 반드기 누네 뵈디 아니헝리어시니  
엇메 곽흔 사르미사 누네 두려운 그리메를 보느노 =離見<sub>헝</sub>고 別有<sub>헝</sub>  
거시면 應非眼矚이어시니 云何管人이아 目에 見圓影<sub>헝</sub>노 (능엄 2:82)

그뻬 六師 | 너교더 쯔 엇던 因緣으로 이 寶塔이 잇거노 헝다가 무  
르리 이시면 내 모르려시니 물룸텐 엇메 쯔 일후물 一切智見이로  
라 헝려노 (월석 21:210)

헝마 色과 空과 엇스면 어루 分別호미 엇스려시니 비록 네 識이 이  
신들 장츠 므스게 브리오 =既無色空<sub>헝</sub>면 無可分別이어시니 縱有汝識<sub>헝</sub>  
들 欲將何用고 (능엄 3:35)

▽높임의 「-으시-」는 「-으리-」에 앞서는 점, 이 경우와 다르다.

十八子 | 救<sub>헝</sub>시려니... (용 69장)

19. 이상의 「-시-」는 높임의 뜻이 없는 예들이니, 높임의 「-으시-」



와는 다른 형태소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30) 그리고 이러한 「-시-」는 모두 맺음씨끝 「-으니」에 앞서 있는데, 그 이유도 알 수 없다.

20. 이러한 「-시-」는 높임의 뜻이 없기 때문에, 정작 주체높임을 나타내려면 「-으시-」가 다시 겹쳐진다.

부텃體 眞實하시거시니 엇테 또 地獄... 人天等道 | 잇느니잇고 = 佛體 | 眞實하시거시니 云何... (능엄 8:64)

釋迦彌勤이 이 부테시거시니 엇던들 因하야 오히려 느티 종이어노 = 釋迦彌勤이 是佛이시거시니 因甚하야 猶是他奴 | 어노 (몽산 22)

#### (2-4) 「-으시-」와 「이시-」

21. 「-으시-」는 「이시-」의 「시」와 구별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으니」 활용형의 경우)

才勇을 앗기샤 金刀을 보려시니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용 54장)

道上애 僵尸를 보샤 寢食을 그쳐시니 旣天之心애 기 아니 뜯다시리 (용 116장)

이 예의 「보려시니, 그쳐시니」는 모두 안맺음씨끝 「-어-」를 가진 어형으로서 분명히 주체높임이나,

旄頭 | 紫微에 드리<sup>ㅅ</sup>와<sup>ㅅ</sup>시니 또 俎豆入 이리 업스니라 = 旄頭慧紫微 無復俎豆事 (두언 6:21)

시내 휏돈디 낫 氣運이 덥고 길히 올마시니 되헛 바티 너도다 = 溪廻日氣暖 逕轉山田熟 (두언 7:30)

의 「와시니, 올마시니」의 「-아」는 안맺음씨끝이 아니라, 맺음씨끝으로서 (p.421, p.621), 「소아+이시니→쇄시니, 올마+이시니→올매시니」의

(30) 양 주동 님은, 이러한 높임 아닌 「-시-」가 있는 것은, 원래 이것이 「이시-」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요, 또 「-시-」에 대한 옛사람의 관념은 근대와 같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였다.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p.651.

변형이다. 다음 예 참조.

黃牛峽엔 平히 몯거리 마르딜에시니 鷗 그룬 비 올라가미 虛空을 凌犯하느듯도다 = 黃牛平駕浪 畫鷗上凌虛 (두언 20:51)

뿔비에 酒樽이 仍하야 잇고 몰애 무테시니 坐榻이 읊기디 아니하엿도다 = 山雨樽仍在 沙沉榻未移 (두언 15:12)

이러한 예는 「마르딜어+이시니, 무터+이시니」의 축약형이다.

22. 이와 외형은 같으나 속뜻이 다른 예도 있다.

相과 非相과를 외다 하샤면 더의 斷常애 딜가 저혜시니 하다가 부테 無相하시다 너기면 = 訶相與非相은 恐伊의 落斷常이시니 若謂佛無相이면 (금강삼가 5:1)

이 「저혜시니」도 「저허+이시니」로 분석은 되나, 앞의 「이시니」는 「있다」의 활용형인 데 비해서, 여기 「-이시니」는 잡음씨 「-이다」의 활용이다.

23. 또 다음과 같은, 「-아/어-」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맺음씨끝의 활용형은 문맥에 의해서 해석하는 수 밖에 없다.

부테 默然하신대 外道 | 讚歎하야 닐오디 世尊이 大慈大悲로 내 迷雲을 여르샤 나를 시러 들에 하야시이다 (남명, 하:4)

몇마 歌王을 爲하야 슬흐샤물 아니하야시노 = 幾爲歌王하야 悲不已하야시노 (남명, 상:55)

의 「하야시이다, 하야시노」의 「-이다, -노」도, 「-으니」와 같이, 앞에 안맺음씨끝 「-아/어-」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하야」의 「-야」는 맺음씨끝으로 볼 수도 있고, 안맺음씨끝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맺음씨끝으로 보면 「시」는 「이시-」의 생략형이 되고, 안맺음씨끝으로 보면 「시」는 높임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문맥과 상황에 의해서 그 어느 편인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24. 그러나, 「-마르-, -놀-, -돈-, -니와」와 같은, 반드시 안맺음씨끝 「-아/어-」를 취해야 하는 불구적 맺음씨끝의 활용형에 있어서는 그 앞의



「시」는 반드시 높임이 된다.

諸菩薩等이 부처와 묻조으며 對答하샤 毘舍 本來入 祇園 圓覺을 나  
토려 하야신마론 오직 毘舍 毘舍에 過患이 다오디 毘舍며 = 諸菩薩等  
이 與佛問答發揚本意는 欲顯圓覺이어신마론 但緣節節에 過患이 未盡하며(원  
각, 상 1-2: 74)

그때 善慧라 仙人이 五百外道의 그르 아논 이를 毘舍쳐 고려시늘  
그 五百 사르미 弟子 毘舍외아지이다 하야 (월석 1: 9)

이 부텃 일흠 듣조보 사르미 恒河沙佛을 만나스바 毘舍 爲하야 說  
法하야시든 반드기 菩提를 일우리이다 (월석 21: 135)

執을 對하야 일흠 得호물 表하야시니와 이제 摩尼珠는 本來 조하며  
本來 불가 = 表... 對執하야 得名하야시니와 今摩尼珠는 本淨本明하야 (원  
각, 상 2-2: 45, 47)

25. 이상의 「하야신마론, 고려시늘, 하야시든, 하야시니와」의 맺음씨  
끝 「-니마론, -늘, -든, -니와」는 모두 안맺음씨끝 「-아/어-」를 꼭 요  
구하는 것이므로, 「하야-」의 「-야-」, 「고려-」의 「-어-」는 모두 안맺음  
씨끝으로 분석되는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시」도 높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6. 이와는 반대로,

비록 나섯는 毘舍 毘舍 對호물 相對하야시나 먼 셔미 毘舍오물사 食하야  
보노라 = 雖對連山好 食看絶島孤 (두언 16: 43)

괴외흔 光明 眞實入 모른 상네 돌가시며 = 寂光眞身은 常湛湛하며 (금  
강삼가 2: 25)

만일 劉顯 毘舍이 짜헛 毘舍히 毘舍외디 아니하야시면... = 向非劉顯爲地  
主 (두언 15: 45)

의 맺음씨끝 「-으나, -으며, -으면」은 안맺음씨끝 「-아/어-」를 취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하야, 불가, 아니하야」의 「-야, -아」는  
모두 맺음씨끝으로 보는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시」도 「이시-」의 생략  
형으로 보아야 한다.

27. 이상을 요약하면 :

(ㄱ) 「하야+이시-」→「하야시-」형에 있어서는, 「시」는 높임의 「-으  
시-」와 혼동되지 않는다.

(ㄴ) 「하야시-」형에, 안맺음씨끝 「-아/어-」를 꼭 취하는 불구적 맺음  
씨끝이 붙을 때는 「시」는 높임의 안맺음씨끝이다.

(ㄷ) 「하야시-」형에, 안맺음씨끝 「-아/어-」를 취하는 일이 없는 맺음  
씨끝이 붙을 때는 「하야시-」는 「하야+이시-」의 변화이다.

(ㄹ) 「하야시-」형에, 안맺음씨끝 「-아/어-」를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맺음씨끝이 붙을 때는 혼동이 일어나는데, 이 경  
우에는 문맥으로 판단하는 도리 밖에 없다.

(ㅁ) 「하야시-」> 「하야시-」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문헌에 있어서  
의 「하야시-」형의 「시」는 높임의 안맺음씨끝이다.

### (3) 객체높임법

1. 「객체」란 주로 부림말, 위치말로 지시되는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  
을 가리키는 말인데, 객체를 높이는 안맺음씨끝은 「-습-」이다.

#### (3-1) 「-습-」의 변이형태

| 앞소리 \ 뒷소리      | 닿 소리 | 홀 소리 |
|----------------|------|------|
| ㄱ, ㄷ, ㄴ        | 습    | 스뵤   |
| ㄷ              | 줍    | 즈뵤   |
| 홀소리, ㄴ, ㄹ, (ㄷ) | 습    | 수뵤   |

2. 「-습-」은 그 놓이는 음성적 환경에 따라 여섯가지의 변이형태를 가  
진다. 즉 「ㅅ」앞에 유성음이 오면 「ㅅ」은 「ㅅ」으로 바뀌고, 「ㄷ」이 오  
면 「ㅅ」으로 바뀌고, 그렇지 않을 때는 「ㅅ」이 그대로 유지되며, 「ㄷ」



다음에 홀소리가 오게 되면 「ㄷ」은 「ㄷ」으로 바뀐다.

▽앞음절의 종성 여덟 중, 「ㄷ」은 이 자리에 나타나는 일이 없고, 「ㄷ」은 「ㄷ」을 「ㄷ」으로 바꾸고 탈락한다. (또는 「ㄷ」이 「ㄷ」 앞에서 탈락되고 난 뒤에 「ㄷ」이 「ㄷ」으로 변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습-」: 막습거늘 (천강곡 상, 기 100), 님습고 (월석 2:72), 업습던 (천강곡 상, 기 75), 좃습고 (월석 2:51)

▽표음적으로 「ㅅ」을 쓴 예도 있다.

너ㅅ고 (←넛+습 ←녕+습; 월석 1:7),

노ㅅ고 (←넛+습 ←농+습; 석보 9:22)

「-줍-」: 든줍게 (석보 13:17), 받줍더라 (월석 2:37), 굳줍네 (용 66장).

▽앞 형태소의 기본형태가 「ㅅ, ㅅ」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이 변이형태가 쓰이며, 또 때로는 표음적으로 「ㅅ」을 쓰는 일도 있다.

마ㅅ더니 (←ㅅ+줍; 월석 21:203), 조ㅅ더니 (←ㅅ+줍; 천강곡 상,

기 123), 좃줍고저 (용 78장), 좃줍디 (←ㅅ+줍; 법화 3:125)

앞의 「좃습고」와 여기 「좃줍디」를 비교하면, 다 같은 소리 밑에서 「ㄷ」과 「ㅅ」이 혼용된 것 같이 보이나, 「좃습고」의 줄기의 기본형태는 「ㅅ-」인 때 대해서 「좃줍디」의 줄기의 기본형태는 「ㅅ-」인 데 그 이유가 있다.

「-습-」: 말이습거늘 (용 58장), 보습건댄 (월석 18:21), 아습게 (←알-; 월석 10:85), 드습거나 (←들-; 석보 13:53).

「-스ㅅ-」: 돕스바 (석보 9:34), 깃스바 (석보 6:21), 좃스바노 (월석 2:48), 님스보디 (월석 14:56), 돕스보려 (용 121장), 먹스ㅅ니 (월석 7:26), 깃스ㅅ며 (월석 1:52), 저ㅅ바 (←경+스ㅅ; 용 75장), 조ㅅ바 (←ㅅ+스ㅅ; 월석 21:203).

「-즈ㅅ-」: 얻즈바 (용 27장), 든즈바도 (월석 21:15), 든즈보니 (월석 2:64), 이받즈보려 (석보 6:16), 묻즈ㅅ나 (용 11장), 일궈즈ㅅ나라 (월석, 서:5), 받즈ㅅ쇼셔 (월석 8:80), 무ㅅㅅ대 (←문-; 월석 10:18).

▽「-줍-」의 경우에서와 같이, 앞 형태소의 기본형태가 「ㅅ, ㅅ」으로 끝나 있을 때는 「-즈ㅅ-」을 취한다.

좃즈ㅅ니(용 55장), 좃즈바 (←ㅅ-; 월석 2:18), 조ㅅ바(←ㅅ-; 월석 2:28), 맛즈바 (←맛-; 월석 1:13), 맛즈ㅅ란디(석보 23:36), 마ㅅㅅ (←ㅅ+줍; 용 95장)

기본형태의 「ㅅ」이 종성으로 놓일 때는 「ㄷ」을 쓰지 않고, 「ㄷ」을 쓴 예도 있다.

좃즈바(←ㅅ-; 석보 13:45), 미좃즈바(←미ㅅ-; 월석 8:49)

그리고 기본형태의 끝닿소리가 「ㄷ」인 경우에도 「-즈ㅅ-」이 쓰인다.

연ㅅㅅ면(천강곡, 기 255; 한글 115(113)호 부록)

안ㅅㅅ시니(천강곡 상, 기 46)

「-스ㅅ-」: ㅅ초스바 (용 27장), 보스바니와 (월석 8:17), 올웁스ㅅ뎌니 (←올웁-; 천강곡 상, 기 110), 안스바 (월석 2:43), 보스보니 (석보 13:27), 삼스보려 (월석 8:79), 먹스ㅅ나 (천강곡 상, 기 49), 하스ㅅ니 (←할-; 용 71장), 보스ㅅ라 (월석 8:22).

「-습-, -줍-, -습-」의 「ㄷ」은 콧소리 위에서 「ㄷ」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표기 상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님습느니잇고(월석 21:50), 열줍노이다(월석 2:69), 우습느니(용 56장)

3. 이상이 /ㅅ/ 음소의 소실전까지 나타나는 여섯 변이형태인데, (31) 그 중의 어느것을 기본형태로 삼을 것인가?

기본형태를 정하는 기준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에로의 변이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첫소리의 /ㅅ, ㅅ, ㅅ/, 끝소리의 /ㅅ, ㅅ/ 중, 어느 편에서 다른 편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간편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4. 첫소리의 경우: /ㅅ/을 출발점으로 할 수는 없다. /ㅅ/이 /ㅅ, ㅅ, ㅅ/ 다음에서 /ㅅ/으로 바뀔 이유도 없고, 유성음 다음에서(엄격하게는 유성음 사이에서) /ㅅ/으로 바뀔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ㅅ/을 출발점으로 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ㅅ/은 유성음 사이에서 /ㅅ/으로 바뀌는 일이 있고, /ㅅ/ 다음에서는 그 영향

(31) /ㅅ/이 소실되지 않은 문헌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표기가 보인다. 주수오시고 (<주수ㅅ시고; 월석, 서:13), 받조오샤랸(<받조ㅅ샤랸; 월석 18:62)



으로 /ㅈ/으로 바뀔만 한 음성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sup>(32)</sup>

/t/+s/ → /t/+ts/ (ㅈ)

/Δ/을 출발점으로 하더라도 변이의 설명은 쉽게 된다. /Δ/은 무성음 /ㄱ, ㄷ, ㄴ/과 접촉하면 무성음인 /ㅈ/으로 바뀌고, /ㄷ/과 접촉하면, 무성음으로 바뀐 다음 /ㄷ/의 영향으로 /ㅈ/으로 바뀐다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z/ → /t/+s/ → /t/+ts/

그러면 /ㅈ/과 /Δ/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가? 이 한 형태소에만 시야를 국한시키면 이 두 음의 어느 편을 기본으로 하나 설명은 한가지다. 그러나 국어 음운조직의 일반적인 관점을 취하게 되면, /Δ/을 출발점(기본)으로 하는 것이 낫다. 왜그러냐 하면, 모든 /ㅈ/은 유성음 사이에서 죄다 /Δ/으로 바뀌지 않으나, /Δ/은 /ㄱ, ㄷ, ㄴ, ㄷ/ 따위 닿소리 다음에서는 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ㅈ/을 출발점으로 하면 어떠한 /ㅈ/이 유성음 사이에서 /Δ/으로 바뀌고, 어떤것은 그렇지 않다는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Δ/을 출발점으로 하면 그러한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 없게 되고, 보편적인 설명만으로 족하게 된다.

5. 끝소리의 경우: /ㄷ/을 출발점으로 하면, /ㄷ/이 홀소리 사이에서 /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이 되고, /ㅈ/을 출발점으로 하면, /ㅈ/이 닿소리와 접촉되면 /ㄷ/으로 바뀐다고 설명이 된다.

그러면 이 두가지 설명 중, 어느것이 더 나은가? /ㅈ/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낫다. 모든 /ㄷ/은 홀소리 사이에서 /ㅈ/으로 바뀌지 않으나 /ㅈ/은 닿소리 앞에서 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ㅈㅅ-」을 기본형태로 하고,<sup>(33)</sup> 다음과 같이 그 변이의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32)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허웅: 국어 음운학 (1965, 정음사) p. 354

(33) 서기 15세기 언어의 공시적 기술을 위해서는 「-ㅈㅅ-」을 기본형태로 삼는 것이 좋다는 필자의 견해는 이미 오래 전에 표명되어 있다.

허웅: 중세국어 연구(1963, 정음사) pp. 30-32 참조.

ㄱ) /Δ/은, 홀소리와 /ㄴ, ㄹ, ㄷ, ㄹ/ 이외의 소리(ㄱ, ㄷ(ㄷ, ㅈ, ㅈ), ㄷ, ㅈ(ㅎ)) 다음에서는 일단 /ㅈ/으로 동화(무성화)된다. (일반적인 변이 규칙)

ㄴ) /ㄷ(ㄷ, ㅈ, ㅈ)/ 다음에서는 /ㅈ/은 다시 /ㅈ/으로 동화된다.

ㄷ) /ㅈ/은 닿소리 앞에서는 /ㄷ/으로 바뀐다. (일반적인 변이 규칙)

7. 그러나 지금까지 이 형태소를 표기할 경우에 「-ㅈㅅ-」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 형태소가 「-ㅈㅅ-」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8. /ㅈ/은 1460년까지에는 완전히 반홀소리의 /ㅈ/로 바뀐다.<sup>(34)</sup> 따라서 이 후에는, 「-ㅈㅅ-, -ㅈㅅ-, -ㅈㅅ-」은 그대로 유지되나, /ㅈ/을 가진 「-ㅈㅅ-, -ㅈㅅ-, -ㅈㅅ-」은 각각 「-ㅈㅅ-, -ㅈㅅ-, -ㅈㅅ-」로 변한다.

/ㅈ/ 뒤에 오는 홀소리 씨끝은 「-아, -오-」와 고름홀소리(조성모음)의 「ㄹ」인데, 「-오-」와 「ㄹ」은 /ㅈ/과 겹쳐지게 되면 다 같이 /ㅈ/로 바뀌고 만다.

ㅈ(ㅈ, ㅈ)ㅈ+아 → ㅈ(ㅈ, ㅈ)와

ㅈ(ㅈ, ㅈ)ㅈ+오 } → ㅈ(ㅈ, ㅈ)오

ㅈ(ㅈ, ㅈ)ㅈ+ㄹ } → ㅈ(ㅈ, ㅈ)오

「-ㅈㅅ-」: 빗ㅈㅅ더니 (법화 4: 132), 님ㅈㅅ더 (법화 3: 125), 깃ㅈㅅ노이다(법화 2: 48).

「-ㅈㅅ-」: 뜰ㅈㅅ고 (능엄 2: 10), 뜰ㅈㅅ고져 (금강 13), 묻ㅈㅅ노니 (능엄 4: 56), 일꾼ㅈㅅ논 (금강삼가 4: 11).

「-ㅈㅅ-」: 견주ㅈㅅ전댄 (능엄 1: 99), 禮數ㅈㅅㅅ고 (능엄 2: 11), 請ㅈㅅㅅ거늘 (법화 3: 107), 가즐비ㅈㅅ전댄 (법화 4: 121), 아ㅈㅅ노라 (법화 1: 127).

「-ㅈㅅ-」: 돛ㅈㅅ와 (능엄 6: 25), 좃ㅈㅅ와 (←좃-; 능엄 5: 6), 빗ㅈㅅ와 (법화 4: 129), 님ㅈㅅ오니 (< 님ㅈㅅ노니; 육조, 상: 38), 님ㅈㅅ오더 (< 님ㅈㅅ노더; 법화 3: 165), 님ㅈㅅ오라 (< 님ㅈㅅ노라; 두언 11: 22-3), 빗ㅈㅅ

(34) 허웅: 국어음운학 pp. 450-1.



오니 (< 빛스븐니; 법화 3:108), 誦스오니라 (< 誦스븐니라; 법화 7:190),

「-조노-」: 믿조와 (능엄 5:82), 묻조왓는 (두언 8:62), 믿조오리 (금강 8), 묻조은대 (능엄 1:3), 듣조은 (능엄 1:86).

「-스노-」: 信奉스노와지이다 (영가, 하: 141), 我聞스노니 (금강 1), 對答스노더 (능엄 1:50), 맞나스노나 (능엄 2:3).

그리고 「스(조)」의 「으」가 「오」로 변동한 「-습-, -소노-, -조노-」 형태가 드물게나마 쓰이는데, 이것은 각각 「-스노-, -조노-」의 임의적인 변동형이다.

듣습놋다(두언 21:8), 노습놋다(←놓-; 두언 21:11)

듣소와(법화 2:175), 집소오들(두언 20:42)

받조을 거시(두언 23:50-1)

### (3-2) 그 용법

9. 「객체」란 행동(상태)이 미치는 (지향하는) 대상, 상대를 가리킴인데, 월성분으로는 주로 부립말이나 위치말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그 밖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객체를 높이는 「-습-」(-스븐-)은 주로 남음직씨에 연결되는 예가 많지마는, 제음직씨, 그림씨, 때로는 잡음씨에 연결되어서 그 객체를 높이는 일도 있다.

「-습-」은, 「-으시-」와 같이, 마침법 이음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맺음씨 끝을 두루 취할 수 있다(이것이 「-으히-」와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이하의 설명에서는 맺음씨끝의 종류를 고려에 넣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높임의 대상은 물론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관한 일이나 물건이 객체로 등장될 때에도 문법적으로 높임법을 쓰는데(간접높임), 이러한 현상도 주체높임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유형을 내세우지 않는다.

#### (가) 객체 ⇨ 부립말

10. 객체는 부립말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菩薩은) 棺에 녀좁고 (월석 1:7)

그씨 王이... 부터를 請스바 (월석 7:37)

부텃 舍利와 經과 佛像과란 誼 西入녀기 노습고 (월석 2:73)

「노습고」는 「놓+습-」의 소리대로의 표기인데, 대개는 「노쑹-」으로 표기된다.

그리고 이 인용문 앞의 글을 보면 「-습-」의 용법이 명백해진다.

道士六百 아흔 사름미 各各 靈寶眞文・太上玉訣과 三元符等 五百 아홉 卷을 자바 西入녀 壇 우희 엮고 茅成子와 許成子와 老子等 三百 열다섯 卷으란 가운뎃 壇 우희 엮고... (월석 2:72-3)

「엮고」는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객체(이 경우에는 부립말)로 등장되어 있기 때문에 「-습-」을 연결하지 않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舍利, 經, 佛像」을 객체로 취하는 「놓-」에는 「-습-」이 연결되어 있다.

願흔든 世尊이... 未來世 衆生이 부텃 마를 머리로 받좁게 하쇼셔 (월석 21:84)

諸天이 (부터를) 조좁고 (월석 2:17)

모든 大衆이 부텃 뵈야 ㄴ르치샤물 듣좁고 = 諸大衆이 聞佛示誨스습고 (능엄 2:1)

梵天의 비출 듣좁고사 實을 아스븐니 (천강곡 상, 기 106)

正法을 듣좁고져 發願호더 (월석 9:36 하)

더... 如來入 功德을 내 일론좁듯 하야 (석보 9:26)

勝鬘이 부텃 功德을 듣좁고 깃거 偈를 지시 부터를 기리습고 願호더 부테 나를 어엿비 너기샤 나를 보습게 하쇼셔 (석보 6:40)

「보습게」의 부립말이 「나를」로 되어 있어, 자기자신을 높이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것 같으나, 「보-」의 부립말은 밖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부터」이고, 「나를」은 「보게 하다」의 부립말이다.

우호로 父母仙駕를 爲스습고 亡兒를 조쳐 爲하야 = 上爲父母仙駕스습고 兼爲亡兒하야 (월석, 서 17-8)

「亡兒를... 爲하야」에는 객체높임이 되어 있지 않는 점, 그 앞의 「爲스습고」와 대조할것.

須達이 世尊 뵈습고져 너겨 (석보 6:45)

겨집들힐 부텃 陰藏相 보습고 호미오 (석보 24:2)



▽「보습거」의 부림말은 「부텃 陰藏相」이며, 「거집들홀」은 아니다.

教化 넙스불 사르물 (월석 14:58)

도즈기... (太祖의) 일후를 저쓰불니 (←정-; 용 62장)

어마님 여희신 (太宗의) 넙므를 左右 | 슬쓰바 (←숨-; 용 91장)

벼슬 노꾼 臣下 | 넙그를 돕스바 (석보 9:34)

부터 돕스와 (능엄 5:58)

부텃 恩惠 갑스오물 (법화 2:251)

須菩提들히... 釋迦入 ㄹ르치샤물 넙스울씨 (법화 1:114)

하다가 부텃 授記를 넙스오면 (법화 3:65)

내 慈命을 받즈바 (월석, 서:11)

大德아 如來 니르시논 아홉 橫死를 몬 들즈뵈는다 (석보 9:35)

▽「橫死」는 如來의 말씀이기에 높임법이 쓰인다.

하다가 ...如來入 일후를 들즈뵈단디면 (석보 9:16)

阿闍世王이 처심 舍利 얼즈블라 옴저기 (석보 23:57)

如來入 正法을 네 맞즈블란디 브즈러니 護持하야 닐그며 외오다 (석보 23:36)

▽「맞-」은 「맞-」의 변이형태이므로 「-즈블-」이 쓰인다.

부텃 마를 들즈블면 (석보 13:45)

世尊하 내 佛如來 威神力을 받즈블씨 (월석 21:47)

내... 如來入 佛頂神呪를 넙스와 그 히를 그스기 얼즈오나=雖蒙如來

入 佛頂神呪하스와 冥獲其力하스오나 (능엄 7:27)

부테 덩바기 몬지샤물 받즈와 (능엄 7:23)

獅子座 세스바 八萬 부테 안자 (천강곡 상, 기 65)

▽「獅子座」는 부처의 앉을 자리이다.

我后를 기드리스바 玄黃筐籠로 길헤 브라스블니 (용 10장)

四天王이 (太子를) 하늬 기브로 안스바 (월석 2:39)

姝女 | ... 太子를 쁘려 안스바 (월석 2:43)

우리 ... 世世에 하마 부터를 존즈바 教化를 受흐스바 잇느니 (석보 13:45)

이 東山을 사아 如來 위흐스바 精舍를 이르스바지이다 (석보 6:24)

내 아바넉 棺을 메스바지이다 (월석 10:10)

... 人非人등이... 諸四衆이 釋迦牟尼佛을 恭敬圍繞하스뵈거늘 보습 코 (월석 18:7)

▽「보-」의 대상은 「諸四衆이 부처를 恭敬圍繞하고 있는 事實」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부처의 행동이 아닌데 높이고 있다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의 대상은 역시 「釋迦牟尼佛」로 보아야 할 것이다.

四衆들히 釋迦牟尼佛의 恭敬하야 圍繞하스뵈는 양도 보코 (석보 19:40)

이 말과 앞의 말은 같은 사실을 기술한 것인데, 뒤의 「보코」는 '그리한 일'을 보고 있음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객체높임이 쓰이지 않았다.

阿闍世王이 부텃 터리를 주실씨 이 塔을 이르스뵈느니 내 앓습디 아니 호리이다 (석보 24:31)

기 부터를 아래 보스뵈더라 (석보 24:19)

(어마니들) 天宮에 몬 보스블란디 地獄애 겨심가 하니 (월석 23:81)

부터 念흐스블며 法 念하며 중 念하며 (월석 8:47)

▽부림말이 「부터」인 경우에는 「念하-」에 객체높임이 쓰이고, 「法, 중」인 경우에는 객체높임이 쓰이지 않음을 비교할 것.

부터옷 보스블면 당다이 得道를 썰리하리니 (석보 6:40)

부텃 거름 보스블들 本來入 性이 모더라... (천강곡 상, 기 126)

城 안헛 사르미 다 와도 (부텃 棺을) 몬 드스블리어니 너희 어느 드스블따 (석보 23:23)

아바님 命엿 질을 天神이 말이스블씨 (천강곡 상, 기 32)

▽「질」은 「아바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니, 이 객체높임은 「아바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디 任所애 文殊普賢을 가 되스오라 (남명, 하:8)

▽「되-」는 이대로 객체높임으로 쓰이는 일도 있으나, 대개는 여기에 다



시 「-습-」을 연결한다.

기론 드른 夷陵으로 되라 가는듯도다 = 深水謁夷陵 (두언 20:20)

네 아드리 各各 어마님내 되습고 (월석 2:6)

▽「되-」는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되습-」, 「되시-」로만 쓰이는데, 이 두 어형은 같은 뜻이다.

聖宗을 되서 (용 109장)

▽「되시-」의 「-시-」는 주체높임의 안맺음씨끝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되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되습-」의 「되-」는 「-습-」을 연결할 때에 취하는 「되시-」의 변이형태 (형태적 변이형태)로 풀이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님그를 섬기스오면 (두언 7:15)

그뻘 天帝釋이... 王의 身肉을 비스온대 王이 곧 버혀 주샤 (금강 80)  
부터를 念스오면 부터를 보스올씨 이런드르... = 念佛則見佛스올씨 故로 (능엄 5:88)

님금 爲스오 = 爲君 (두언 16:36)

지조 업슨 모드로 袞職 집소오물 혼가지로 호니 = 不才同補袞 (두언 20:42)

法化 돕소와 퍼물 爲홀씨 = 爲助揚法化故로 (법화 2:175)

望雲亭에서 술 머구물 돕습돏다 = 佑酒望雲亭 (두언 21:8)

▽「술 머굽」은 천자의 행동이다.

(나) 객체 ⇨ 위치말

11. 객체가 위치말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虛空中에... 曼陀羅華를... 諸佛의 비스븐며 (←방-: 월석 17:29)

阿難羅云이 부텃기 갓갑스와 (법화 4:49)

須菩提들히... 法王에 갓갑스와 (법화 1:114)

無色諸天이 世尊의 저습다 혼 말도 이시며 (월석 1:36)

▽「저습다」(>저쑤다)의 「저-」는 이름씨 「절」에서 온 풀이씨 줄기인데, 이것이 풀이씨로서 단독으로 쓰이는 일은 없고, 「-습-」을 가지고서만 쓰인다.

그뻘... 無量鬼王이... 忉利에 와 부텃기 다들즈븐니 (월석 21:112)

世尊하 내... 如來의 물즈븐며 (월석 21:100)

내 아래브터 부텃기 이런 마를 물 들즈븐며 (석보 13:44)

내 일흠조쳐 聖人스기 받즈븐쇼서 (월석 8:80, 기 228)

大王이 이 藥 甁 마라 大王의 받즈븐대 (월석 21:218)

이 마티 山海自在通王如來의 니르스와사 비르수 몸 업수물 得하야

= 如是至於山海自在通王如來스와사 方得亡身하야 (능엄 5:72)

世尊의 四衆이 圍繞스습고 (석보 6:38)

道德經을 이젓 님굵기 브티스웁도다 = 道德付今王 (두언 6:27)

고즈로 부터의 빗스오른 스승니물 尊스오미오 (법화 3:108)

큰 罪를 (님굵씨) 님습고 (월석 2:72)

大愛道 | 세번 (부터씨) 請스습다가 물하야 (월석 10:17)

一切大衆이... (부터씨) 머리 조쑤바 부터를 마쑤디니 (월석 21:203)

表 지시 (天子씨) 열즈븐니 그 表에 마로디 (월석 2:69)

▽「열-」은 「열-」의 변이형태인데, 이 말은 단독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

(다음 한 예밖에 찾지 못했음.)

열들제 = 램 (자회, 상:35)

阿難이 (大愛道에게) 무쑤븐대 對答호디 (월석 10:18)

브라스온돈 和尚이 慈悲로 弟子의 조고맛 智慧 잇는들 보시느니잇

가 아니잇가 (육조, 상:19)

▽和尚의 「브라-」는 것이다.

오직 願스스온돈 陛下 | ... 警戒스쇼서 (내훈, 2하:48)

▽陛下의 「願-」는 것이다.

大迦葉이... 紫光金으로 부텃 形像에 브르스오며 (법화 3:58)

行者 | ... 金剛臺 타 부텃 뒤헤 미즌즈바 (월석 8:48-9)

梵王은 白拂 자바 (부터) 두녀기 셔스븐며 (월석 2:39)

天下 英雄이 (天子) 度量애 다 드스불씨, (님금) 範圍에 몬 나스불

씨 (용 64장)



末利 花鬘을 (太子) 몸애 되스븐나 (천강곡 상, 기 49)

威化振旅하시느로 興望이 다 (李太祖에) 물조븐나 (용 11장)

그제 世尊이... 그 寶階로 내려오더시니 梵天이 盖 자바 四天王과  
(世尊이) 두녀의 셔습고 (월석 21:202)

12. 다음과 같은, 행동이나 상태의 「상대」도 역시 위치말의 범위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습-」이 연결될 수가 있다.

國王이 恭敬하스바 白氎眞珠網 퍼습고 부터하 드르쇼셔 하니 (월석  
7:24)

▽‘부처에게 대해서’ 그물을 편 것이다.

龍王이 두리스바 七寶平床座 노습고 부터하 救하쇼셔 하니 (월석 7:  
24)

▽이것도 위의 예와 같다.

世尊入 일 솔보리니... 눈에 보논가 너기스븐쇼셔 (월석 1:1)

▽‘세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라는 뜻이다.

저의 늘구를 우스븐나 (천강곡 상, 기 30)

▽이것은 ‘부처의 탄생에 대해서’ 운 것이다. (자기는 늙어서 부처의 교화  
를 입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優曇鉢羅 | 부터 나샤물 나토아 金고지 퍼디스븐나 (월석 2:44)

▽이것도 ‘부처의 탄생에 대해서’ 있는 일이다.

乳汁이 이베 드르샤 世界 드러치니 고지 프고 여름 여스븐나 (월석  
21:1-2)

本來 블곤 光明에 諸佛도 비취시며 明月珠도 득스븐나이다 (월석 2:  
30)

▽위의 여러 예에 나타난 사실들(열음이 열고, 明月珠를 달고 한 사실들)  
도 모두 ‘부처의 탄생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아피나 사르미... 혼낫 고즈로 그룬 像을 供養하습거나... 혼 소늘  
드습거나 畚간 머리를 수기습거나 하야 (석보 13:53)

▽모두 ‘부처 像에 대해서’ 취한 행동이다.

追薦은 爲하스바 佛事하스바 도흔 따해 가 나시게 흘씨라 (석보, 사

:3)

▽「佛事」는 돌아가신 ‘昭憲王后에 대해서(위해서)’ 한 것이다.

金瓶엿 므를 붓스븐나 브리 뼈디거늘 (석보 23:47)

▽‘如來의 棺에 붙은 불에 대해서(향해서)’ 물을 부은 것.

阿難은 상네 피스오니 드외스와 法藏을 護持하코 (법화 4:48)

▽「피스오니」가 된것은 ‘法藏에 대해서’이기 때문이다.

妻眷이 드외스바 (천강곡 상, 기 140)

우리도 眷屬 드외스바 (월석 2:23)

이를 傳하야사 弟子 | 드외스오며 = 傳此하야사 乃爲弟子 | 며 (법화 1:  
191)

부텃 젓어미 드외스와 = 爲佛乳母하스와 (능엄 7:4)

▽「妻眷, 眷屬」이 되고, 「弟子」가 되고 「젓어미」가 된 것은, 모두 ‘부처에  
대해서’이다.

相師 | 모다 萬歲하쇼셔 브르스븐며 (월석 2:46)

▽‘부처에 대해서’ 불렀던 것.

世尊 그르메에 甘露를 쓰리어늘 毒龍이 사라나스븐나 (월석 7:23)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런 일 때문에) 살아 났다는 것이다.

13. 「-습-」은 대부분, 부림말과 위치말을 가지는 움직씨에 붙는 것이  
나, 상태의 「상대」를 높이는 경우에는 그림씨나 「-이다」에도 연결되는  
일이 있다.

大慈悲 世尊入의 버릇 업습던 일을 魔王이 뉘으르니이다 (천강곡 상,  
기 75)

人心이 (李太祖에 대해서) 굳스븐나 (용 66장)

피만흔 恩이 므거우시고 터럭만흔 히든 적스오니 (상원사 권선문)

▽임금의 큰 은혜에 대해서 (그에 보답하기에는) 힘이 적다는 것이다.

七寶 바리에 供養을 담으샤미 四天王의 請이스븐나 (천강곡 상, 기 87)

▽이 「請」은 ‘부처에 대한’ 청이다.

내 부텃 몰아드리스오니 = 我爲佛長者 | 수오니 (법화 1:169)



羅睺羅는 이 부텃 아득리수오니 = 羅睺羅는 是佛之子 ] 수오니 (법화 4: 48)

(다) 객체 ⇨ 견증말

14. 「객체」는 행동과 상태의 대상 상대이므로, 부림말과 위치말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때로는 견증말(대비어)로 나타나는 일도 있다.

곧 如來와 존증느니라 (능엄 2: 45)

如來 존증오리라 (능엄 1: 37)

車匿이 蹉特이는 한날에 나스불씨 (천강국 상, 기 52)

▽「太子」와 한날에 났다는 것이다.

반드기 부터 마르치삼 마티 호스와 이 法을 너비 펴리라 (법화 4: 192)

▽「마르치삼」은 직접 「호-」의 견증말은 아니나, 「마티 호-」가 거의 합성어 처럼 여겨졌기에 이러한 용법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妾이 陛下와 가난애 혼디 사습다가 이제 富貴에 니르니 (내훈, 2 하: 46)

우린 다 佛子 ] 존증오니 (법화 2: 227)

(라) 속구조에 있는 객체

15. 풀이씨의 매김꼴의 경우에도, 높임의 대상이 객체로서, 그것이 풀이씨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위의 여러가지 활용형의 경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諸佛入 일흠 들증불 사르문 (월석 7: 75)

이 法 들증불 사르미 (석보 13: 54)

부터 위호스바 여러 像을 땡마스블니도 다 호마 佛道를 일우며 (석보 13: 51)

無量壽佛 보스블 사르문 十方無量諸佛을 보스블디니 (월석 8: 33)

호다가 法 들증오니 이시면 (법화 4: 46)

외다 호샤물 들증온 전츠로 (능엄 1: 86)

王子 기르스온 어미 = 王子所養之母 (법화 3: 97)

아바닐 이받증불제 (용 91 3)

부텃 마르치샤물 만히 들증불씨 聞이오 (석보 11: 43)

부텃 道理 비호스블리 (석보, 서: 2)

法 들증오리 다 證호미 잇느니라 (법화 1: 3)

法 들증을 짜르마로 (법화 3: 131)

이 法이 甚히 기퍼 能히 (이 法을) 信호스오리 적도소이다 (법화 2: 47)

蒼梧엿 님글 묻증옌는 사히 아스라호니 = 縹緲蒼梧帝 (두언 8: 62)

다스줄깃 蓮花를 사아 錠光佛의 받증불씨기 (석보 6: 8)

느므채 혼것도 尊親의 받증을 거시 업도다 = 囊無一物獻尊親 (두언 23: 50-1)

獻은 받증을씨니 (법화 3: 110)

▽바치는 데는 높은(높임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曹氏豆大는 御前에 翻記 넘스오니라 (능엄, 跋 4)

이 門을 열오져커시든 부텃의 묻증블니만 호니 업스니이다 (월석 23: 83)

16. 풀이씨 매김꼴의 꾸밈을 받는 말이 의미상(속뜻)으로 그 풀이씨의 객체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객체가 높임의 대상으로 여겨질 때는 매김꼴에 「-습-」이 연결된다.

閻浮提入 內에 땡마스블 부텃 像 (월석 21: 137)

優填王이 땡마스블 金像을 象에 싣즈바 (월석 21: 137)

들흔 塔留호샤 다시 들증불 法을 깃스블니라 (월석 18: 20)

長史 들증블 마리, 麾下 들증블 마리 (용 65장)

▽위의 말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속뜻(속구조)을 가지고 있다.

부텃 像을 땡글-

金像을 땡글-

法을 들-



말을 듣-

끝의 「말」은 각각 「唐太宗」과 「李太祖」의 말을 가리키고 있다.

17. 이와 같이 「-습-」의 용법은 그 속뜻(속구조)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용례도 나타날 수 있다.

諸子 | ... 아바니미... 菩提를 일우시다 듣습고 (법화 3: 96)

▽이 말은, 「아바니미... 일우샤물 듣습고」를 그 속뜻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世尊이... 壽命이 헤디 몰흐스오리시니 (법화 5: 182)

▽이 말은, 「壽命이 (그 壽命을) 헤디 몰흐-」가 속뜻으로 숨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3-3) 풀이씨 둘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가) 으뜸풀이씨와 도움풀이씨

18. 으뜸풀이씨와, 도움풀이씨 「몰흐다, 아니흐다」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습-」을 두 말에 다 붙이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몰흐다」

우리 平常애 如來入 微細히 여러 죄샤물 닐습디 몰흐스웻다이다 (능엄 10: 76)

우리... 이 존흔 深妙흔 上法을 아리 듣습디 몰흐스웻다니 (법화 2: 48)

내... 일쪽 이 존흔 經을 시러 듣습디 몰흐스웻다니 (금강 72)

내... 비록 如來入 佛頂神呪를... 손지 親히 듣습디 몰흐스웻노니 (능엄 7: 27)

부텃 일후를 듣습디 몰흐스오며 (법화 1: 211)

「아니흐다」

비록 佛法을 맛나스와의 그 化를 좃습디 아니흐습고 (법화 2: 65)

尊顏을 올워러보스와 누늘 값간도 브리습디 아니흐스와 (법화 3: 63)

尊顏을 올워러보스와 누늘 값간도 브리습디 아니흐습더니 (법화 4:

186)

19. 위의 예들은 두 말에 다 「-습-」을 연결한 것이나, 그러나 이 경우에는 으뜸풀이씨에만 「-습-」이 연결되는 일도 있고,

「몰흐다」

教化 닐습디 몰흐 사르물 (월석 14: 58)

世尊入 愿은... 一切供養으로 다 能히 갑습디 몰흐리며 (법화 2: 257)

해 얼습디 몰흐리니 =不可多得 (능엄 3: 111)

「아니흐다」

부테 즈로 니르샤도 從흐습디 아니흐더니 (석보 6: 10)

阿闍世王이... 이 塔을 이르스뻬스니 내 앗습디 아니호이다 (석보 24: 30)

부터 보습고져 아니흐며 (법화 3: 179)

20. 때로는 도움풀이씨에만 붙는 일도 있다.

「몰흐다」

부텃 브테 當티 몰흐스오면 (법화 3: 156-7)

天人이 헤아리디 몰흐스올씨 이를 니르샐 秘密神力이시니라 (법화 5: 129)

如來入 기픈 뜯 아디 몰흐스와 (금강 43)

「아니하다」

부터를 전혀 念티 아니흐스오면 (능엄 5: 88)

21. 다른 도움풀이씨의 경우에는 으뜸풀이씨에만 「-습-」을 연결함이 원칙이다.

「흐다」

未來世 衆生이 부텃 마를 머리로 받습게 흐쇼서 (월석 21: 84)

如來入 일후를 듣습디 흐며 (석보 9: 20)

如來의 어셔 가스바사 흐리로드 (석보 23: 40)

우리들히 父王入 棺을 메스바사 흐리이다 (월석 10: 12)



뉘 아니 좇좁고저 호리 (용 78장)

唯然 世尊하 願<sup>호</sup>든 들좁고저 호노이다 (월석 21:159)  
등어리 띄요물 可히 써 天子의 받좁음직 호니 = 炙背可以獻天子 (두연, 7:13)

「지라」

弟子 호나홀 주어시든 말 드리(精舍를) 이르<sup>호</sup>스바지이다 (석보 6:22)  
大王하 내 이제 이 부텃기 도로 가 供養<sup>호</sup>스바지이다 (월석 18:34)  
내 네 우희 올라 부터의 布施<sup>호</sup>스바지라 호야놀 (석보 24:8)

「있다」

그 저기 世尊의 四衆이 圍繞<sup>호</sup>스바 이셔 供養<sup>호</sup>스바며 (석보 13:11)  
文殊師利는... 디나거신 無量諸佛의 호마 親近히 供養<sup>호</sup>스바 이실씨  
당다이 이런 希有<sup>호</sup> 相을 보<sup>호</sup>스바 잇느니 내 이제 무로리라 (석보 13:15)

「말다」

四句를 向<sup>호</sup>야 黃老를 얻좁디 말라 = 莫向四句覓黃老 (금강삼가 2:42)

22. 그러나 「-고저」 다음의 「호다」에는 「-습-」이 되풀이되기도 한다.  
조고맛 精誠으로 되 마튼 목수물 돌습고저 호습다소니 (상원사 권선문)

轉輪聖王이 와... 마존 道를 들좁고저 호습노이다 (법화 1:165)

23. 「아니<sup>호</sup>다」, 「못<sup>호</sup>다」에 있어서는 「-습-」을 두편에 다 붙이거나 또는 어느 한편에만 붙이는데, 다른 도움풀이씨(「호다, 있다, 지라, 말다」 따위)에 있어서는 으뜸풀이씨에만 붙는다는 것은, 「아니<sup>호</sup>다, 못<sup>호</sup>다」는 으뜸풀이씨와의 분립성이 강하게 느껴지고, 다른 도움풀이씨는 종속성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나) 으뜸풀이씨와 으뜸풀이씨

24. 독립된 두 풀이씨가 같은 객체를 공동으로 하고 있을 때도 원칙적으로 두 풀이씨에 다 「-습-」을 연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느

한편을 생략하는 일도 있다.

우리 부터 좇좁와 비<sup>호</sup>스바지이다 = 我等이 隨佛學<sup>호</sup>스바지이다 (법화 7:136)

菩薩이... 能히 諸佛의 묻좁바 들좁면 (석보 13:21)

큰 화리 常例 아니샤 (화를) 얻좁바 마초스바 濟世才를 後人이 보스  
블니 (용 27장)

弗沙佛이... 雪山寶窟에 드르샤 光明 펴고 겨시거늘 釋迦菩薩이 藥키  
라 가 보스블시고 깃스블며 (월석 1:52)

이 寶華로 부텃기 빛스와 供養<sup>호</sup>습고 (법화 4:129)

부터를 맞좁바 저습고 (월석 1:13)

萬萬 衆生들히 머리 좇습고 기쓰바 (월석 2:51-2)

부터 조짜와 出家<sup>호</sup>스바 (능엄 5:39)

世尊이... 四諦法을 니르시니 들좁고 깃스바 須陁洹을 일우니라 (석보 6:21)

唯然 世尊하 들좁고저 願樂<sup>호</sup>습노이다 (금강 13)

▽「世尊의 말씀」 듣고자, 「世尊께」 원한다는 뜻이다.

25. 이상의 예는 두 풀이씨에 다 「-습-」을 연결한 것이나, 다음은 어느 한편을 생략한 예들이다. (어느 한쪽에 뜻의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二隊玄甲을 보습고 저<sup>호</sup>니 (용 59장)

大王을 보스블라 오<sup>호</sup>이다 (월석 8:90)

목수미 못 이실까 너져 여희스블라 오<sup>호</sup>니 (월석 21:217)

大王하 내 이제 이 부텃기 도로 가 供養<sup>호</sup>스바지이다 (월석 18:34)  
天縱之才를 그러샤 아스불까 (용 43장)

如來의 나사가 어우스와 = 進合如來<sup>호</sup>스바 (능엄 8:19)

부터의 가아 禮數<sup>호</sup>스불대 (석보 6:10)

世尊入 道 일으샐 이리 양조를 그러 일우습고 (석보, 서:5)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阿難이 부터 보습고 머리 조사 禮數<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 슬허 우러 (능엄 1:39)

羅卜이... 翫부터를 땡<sub>ᄃᆞᄫᆞᆯ</sub>라 두고 三年을 供養<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다가 (월석 23:76)

더 부터 像을 땡<sub>ᄃᆞᄫᆞᆯ</sub>라 조흔 座에 便安히 노쑈고 (석보 9:22)

尊顏을 올위러 보습와 (금강 7)

▽마지막 예는 한 합성어로 볼 수도 있다.

### (3-4) 다른 안맺음씨끝들과의 결합

26. 「-습-」은 안맺음씨끝 중에서는 가장 앞서는 형태소이므로, 이 뒤에는 안맺음씨끝 「-오/우-」, 「-아/어-」, 「-거,가-」, 「-느-」, 「-으니/과-」, 「-으리-」, 「-더,다-」, 「-으시-」, 「-으이-」, 「-도, 돛, 도소, 다소-」 및 이들의 결합체가 뒤따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습-」의 용법은 앞에서 설명한대로이다.

#### 27. 「-오/우-」가 바로 뒤따를 경우:

「-스보디」: 오란 劫에 教化 聃스보디 이제 오히려 漸漸 드로몬 (월석 14:56)

부터의 請<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 (월석 21:2)

그 때 阿難이 救脫菩薩의 묻즈보디 (석보 9:31)

「-스(스,즈)보-」는 /병/이 없어지면서 「-스(스,즈)오-」로 변하는데, 「-스보-」도 「-스오-」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우-」 형태소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으나, 「-디」는 「-오/우-」를 꼭 필요로 하는 불구적인 씨끝이므로 다음 예들은 모두 「-오/우-」를 가진 것이다.

ᄃᆞᄫᆞᆯ 오란 劫을 教化 聃스오디(<聃스보디) 오늘 손지 漸漸 드로몬  
=既曠劫을 蒙教<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 오디 今猶漸入者<sub>ᄃᆞᄫᆞᆯ</sub> (법화 3:165)

ᄃᆞᄫᆞᆯ 부터를 시러 맞나스오디 그 緣이 다오디 묻ᄃᆞᄫᆞᆯ야 (법화 3:153)

다음 한 예는 예외이다. (「-오/우-」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자리에 그것을 연결하지 않았다.)

帝釋이 世尊의 請<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 (월석, 21:1, 기 412)

「-스봄」: 昭憲王后 | 榮養을 셤리 ㅅ려시닐 셤비 ㅅ쑈보매 이셔 (월석, 서:10)

▽왕후의 돌아가셨음을 슬퍼한 것.

더... 如來 恭敬 供養<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보물 엇테ᄃᆞᄫᆞᆯ며 (석보 9:31)

藥師瑠璃光 如來入 일출 시러 들즈보미 또 더 어려보니 (석보 9:28)

다음 예에서도 「-오/우-」의 연결은 확실하다. (「-口」은 반드시 이 형태소를 앞세우기 때문.)

左右로 (如來寶光을) 보스오매 머리 제 搖動<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이다 (능엄 1:110)

「-스보려」: 袞職 聃스보려 面折廷爭커든 (용 121장)

부테...父王入 棺을 손소 메스보려 ᄃᆞᄫᆞᆯ시돛다 (월석 10:12)

太子를 請<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바 이받즈보려 ᄃᆞᄫᆞᆯ노닛가 (석보 6:16)

다음 예에서도 「-오/우-」의 연결은 확실하다. (의도를 나타내는 「-려」는 반드시 「-오/우-」를 앞세우기 때문.)

내 分身 無量諸佛 恒沙 존ᄃᆞᄫᆞᆯ니들히...滅度<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신 多寶如來 보스오려 ᄃᆞᄫᆞᆯ야 (법화 4:137)

내 이제...法華經을 供養<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ᄃᆞᄫᆞᆯ려코 (법화 6:138)

「-스보라」: 내 ...부터의 歸依<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보라 ᄃᆞᄫᆞᆯ더라 (월석 2:64)

如是我聞은 如ᄃᆞᄫᆞᆯ며 是ᄃᆞᄫᆞᆯ 法을 내 부터의 들즈보라 ᄃᆞᄫᆞᆯ논 마리라 (석보 24:4)

서술의 「-라(←다)」는 반드시 「-오/우-」를 취하므로, 다음 예에서도 「-오/우-」는 확인된다.

端午에 恩榮을 聃스오라 =端午被恩榮 (두언 11:22-3)

(부터의) 덩바기를 보디 ㅅᄃᆞᄫᆞᆯᄃᆞᄫᆞᆯ오라 ᄃᆞᄫᆞᆯ니 (능엄 7:4)

「-스보니」: 내 世尊 위ᄃᆞᄫᆞᆯᄃᆞᄫᆞᆯ바 精舍를 ᄃᆞᄫᆞᆯ마 ㅅᄃᆞᄫᆞᆯ보니 王이 부터를 請<sub>ᄃᆞᄫᆞᆯ</sub>ᄃᆞᄫᆞᆯᄃᆞᄫᆞᆯ쇼셔 (석보 6:38)

내 디나진 諸佛의 이런 祥瑞를 보스보니 이런 光明을 ㅅᄃᆞᄫᆞᆯ시면 (석보



우리...如來入 일후를 들즈보니 (석보 9 : 39)

씨끝 「-으니」는 「-오/우-」를 취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에, /병/이 없어지고 난 뒤로는 「-스(스,즈)보니」와 「-스(스,즈)보니」는 모두 「-스(스,즈)오니」로 변하여, 외형상으로는 「-오/우-」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나, 「-으니」는 「-오/우-」를 취하면 1-인칭 활용으로 사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2·3-인칭 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p. 732 참조), 그러한 문법적 고려에 의해서 「-오/우-」 유무를 판정하는 수 밖에 없다. 즉

내 네 보스오니 (능엄 1 : 73)

내 그 時節에...부터를 기드리스오니 = 我 | 爾時에...待佛호니 (능엄 5 : 68)

는 1-인칭일이기 때문에, 「보스오니, 기드리스오니」는 각각 「보스보니, 기드리스보니」의 변화형이고,

諸梵天王이...하느 고즈로 부텃 우희 빗스오니 (법화 3 : 108)

의 「빗스오니」는 3-인칭 활용형이기 때문에 「빗스보니」의 변화형이다.

「-스본」: 無量諸佛을 보스본 전츠로 (월석 8 : 33)

부텃 法 들즈본 德으로 (석보 6 : 19-20)

「-스볼」: 너희들히...如來入 恩德 갑스볼 이를 念호거든 (석보 9 : 41)

그지업서 몰내 혜스볼 功과 德 (석보, 서 : 1-2)

「몰내 혜스볼 功과 德」은 「功과 德을 몰내 혜-」의 변형이다. (속뜻으로 가지고 있다.)

「-스본딘」: 오궤날 이 祥瑞를 보스본딘 아래와 다르더 아니호시니(석보 13 : 36)

「-으며」는 「-오/우-」를 취하는 일이 없는데,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阿那律隨 ]...(부터를) 몬 보스보며 (월석 21 : 191)

28. 「-오/우-」에는 다시 「-으이-」, 「-으리-」 및 「-으리이-」, 「-으려

니-」, 「-으리로-」가 뒤따를 수 있다.

「-스보이-」: 내 부터의 말쌈을 솔보디...내야 받즈보리이다 호스보이 단 (석보 24 : 31)

버거 부텃 고들 집스오이다 = 次補佛處호이다 (능엄 5 : 82)

「집스오이다」도 그 한문의 토로 판단하면(그리고 문법적으로 판단하면), 「집스보이다」의 변화형이다.

「-스보리-」: 王入 病을 내 어루 고티스보리니 나를 닐웨만 病이 疋의에 호쇼셔 (석보 24 : 50)

우리도 眷屬 疋외스바 法 빅호스보리다 호고 (월석 2 : 23-4)

「-스(스,즈)오리니(~라)」도 「-스보리-」와 「-스보리-」 두 형이 한데로 모여 변한 꼴인데, 이 경우에도 문법적으로 어느 편인지를 판단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 (p. 712 참조)

「-스보리이-」: 내 어루 (精舍를) 이르스보리이다 (석보 6 : 22)

내 이제 疑心이 이서 如來至眞等正覺의 묻좁고져 호노니 부터웃 許호시면 물즈보리이다 (월석 10 : 67)

어마넝그 드러가 이 돈을 供養호스보리 (월석 23 : 65, 기 504)

「~호스보리」는 「~호스보리이다」의 생략형이다.

부텃 法이 精微호야 저문 아히 어느 들즈보리잇고 (석보 6 : 11)

「속뜻으로는 「(부텃 法을) 듣-」는다는 것이다.

「-스보려니-」: 언제 새어든 부터를 가 보스보려노 호더니 (석보 6 : 19)

「-스보리로-」: 모미 못도록 님궂 쁘들 님스오리로다 = 終身荷聖情 (두언 11 : 23)

「이 활용형은 「님스보리로다」의 변형인지, 「님스보리토다」의 변형인지, 외형상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으나, 문법적으로 판단하면, 이 말의 입자 말은 杜甫 자신이기 때문에, 후자의 변화형으로 보아진다.

29. 「-아/어-」가 바로 뒤따를 경우 :

「-스바니」: 片箭 흔나태 島夷 놀라스바니 어니 구더 兵不碎호리잇고 (용 47장)



「-스바늘」: 제 님금 아니 니저 내 命을 거스스바늘 不忘公義호샤 嗣王을 알외시니 (용 105장)

▽「내 命」의 「나」는 말할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가리킨다.

「-스바돈」: 一切 도흔 거스로 如來의 布施호스바돈 어디 두리잇고 (석보 23:3)

「-스바마룬」: 아래 (부텃 法을) 조조 들즈바마룬 즉자히 도로 니저 (석보 6:11)

「-스바니와」: 나는 부텃 히마로...두 菩薩을 보스바니와 未來엿 衆生이 엇메호야사...두 菩薩을 보스바려노 (월석 8:17)

「-스발가」: 王이 닐오디 (賓頭盧를) 어더 보스발까 (석보 24:43)

「-스반」: 그뻬 人間애 이셔 부텃 몸 보스반디 오라더니 (월석 21:191)

「-스반더」: 釋迦牟尼佛入 弟子入 누출 보스반더 (월석 23:82)

30. 「-아/어-」에는 다시 「-으시-」, 「-으이-」, 「-으니-」가 뒤따를 수 있다.

「-스바시-」: 林淨寺애 가샤 聖人 뵈스바시늘 마장 깃거 물을 길이시니 (월석 8:84, 기 236)

「-스바히-」: 大王하 나도 如來 겨신더를 모루스바히다 (월석 21:192)

「-스바니-」: 五色 雲入 가온디 瑞相 뵈시는 如來스기 현맛 衆生이 마리 좃스바노 (월석 2:48, 기 28)

31. 「-거, 가-」가 바로 뒤따를 경우:

「-습거니」: 一切天과 人非人等이 다 모다 (世尊의) 길잡습거니 미조잡 거니 호야 느려오시더라 (월석 21:203)

「-습가니」: 도호실씨 도호실씨 내 親히 저습고 좃 뛰우습가니 부텃 기 信티 아니호스보려 (월석 23:88-9)

「-습거늘」: 忉利天四衆이 모다 (부텃기) 오습거늘 부텃 우회 곳비 오더니 (월석 21:189, 기 420)

「-습거든」: 裔戎邪說이 罪福을 저히습거든 이 브들 닛디 마루쇼셔 (용 124장)

▽임금께 「저히-」는 것이다.

「-습전댄」: 이 經을 보습전댄 智로 體를 세시고 (월석 18:21)

「-습거나」: 디새며 흘마로 塔을 이르습거나 아히노릇호야 몰애 모도 아 塔을 땡마라도 (석보 13:51)

▽「땡마라도」에도 응당 객체높임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같은 대상에 대한 높임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한편 높임을 생략한 것이다. (p.709 참조)

32. 「-거-」에는 다시 「-으시-」가 뒤따를 수 있다.

「-습거시-」: 帝 조조 后의 묻줍거시든 后ㅣ 골히지버 (내훈 2상:47)

33. 「-느-」가 바로 뒤따르는 경우:

「-습느다」: 華嚴에 十地菩薩이 ...能히 多百佛이며 多百千億那由他佛에 니르리 보습느다 호샤미 (월석 18:55)

▽형식상으로는 「~니르리」는 어찌말로서 「보-」를 꾸미고 있으나, 속뜻으로는 ‘이러한 부처를’ 모두 본다는 것이다.

「-습느니」: 부테 日中으로 바블 바드실씨 이런드로 每常 日中에 받줍느니 (능엄 7:17)

▽‘부처님께’ 밥을 올린다는 뜻.

「-습느」: 無量壽佛을 보습느 사록몬 (월석 8:32)

부텃 상네 조잡느 衆이 千二百五十人씩미어늘 (법화 1:24)

▽절구조로는, 「부텃」은 「상네 조잡느 衆」을 꾸미는 매김말이 되어 있으나, 이 매김말은 속구조로는 「좃-」의 부림말이다. 즉 이 말은 ‘衆이 부텃을 상네 좃다’의 변형이다.

34. 「-느-」에는 다시 「-으이-」, 「-오/우(+히)-」, 「-으니(+히)-」, 「-노소+히-」가 뒤따를 수 있다.

「-습느히-」: 轉輪聖王이 와...마준 道를 듣줍고져 호습느히다 =轉輪聖王이 至호야...欲聞具足道호습느히다(법화 1:165)

「-습노-」: 내...이젇 부테 法華經 니르고져 호샤몰 아습노라 (법화 1:127)



내 如來 니르산 經에 疑心을 아니하습노니 (석보 9:26)

供養하습는 거시 上品엿 마시시며 (월석 2:41)

「-습노이-」: 極樂世界를 브라습노이다 (월석 8:4, 기 219)

주춧 罪로 말싸물 (天子씨) 열잡노이다 (월석 2:69)

「-습노니-」: 부터 說法하신다마다 能히 놀애로 브르습노니라 (월석 1:15)

▽‘부처가 설법한 데 대해서’ 노래 불렀다는 것이 속뜻으로 내포되어 있다. (→p.702)

곧 如來와 존잡노니라 (능엄 2:45)

▽객체가 전준말(대비어)로 나타나 있는 경우.

「-습노니이-」: 世尊이...世間을 어엿비 너기실찌 十方諸衆生이 너비다 饒益을 님습노니이다 (법화 3:109)

오랴나래 至德을 우습노니 (용 56장)

寶床袈裟를 天龍이 받잡노니 (천강곡 상, 기 117)

▽이 예들은 「-이다」의 생략으로 볼 수 있다.

「-습노소이-」: 一切善根이 ㄴ자 無上心을 돕습노소이다 (법화 5:185-6)

35. 「-으니-」가 바로 뒤따르는 경우:

이 때에는 그 뒤에 다시 「-으이-」가 뒤따르는 일이 있다.

「-스븐니-」: 둘흔 塔留하샤 다시 들즈불 法을 깃스븐니라 (월석 18:20)

寂寂體를 솔보디 구티여 法身이라 일롰즈븐니라 (월석, 서:5)

▽직접적으로는(겉 구조로는) ‘寂寂體’가 「일롰-」의 부림말이 아니나, ‘寂寂體를 法身이라 일롰다’가 속뜻으로 이해되어 있다.

부테 불기 꼴히샤물 브라스오니라 = 糞佛이 甄別也하스오니라 (능엄 2:63)

▽「-스오니라」는 「-스븐니라」의 변화형.

「-스븐니이-」: 이제 바룩ㄴ새 잇는 羯隨라 흙 새 우루미 부터 목소리 저기 췌죽하스븐니이다 (석보 24:20)

▽객체가 전준말로 나타난 경우.

長者ㅣ ㅅ리 如來의 젓粥 쭈어 받즈븐니이다 (석보 24:36)

大耳兒를 臥龍이 돕스븐니 (용 29장)

十方大衆이 大會에 오스븐니 (월석 21:190, 기 423)

▽이것은 「-이다」의 생략으로 보아진다.

36. 「-과-」가 뒤따를 경우:

이에는 다시 「-으이-」가 뒤따를 수 있다.

「-습과-」: 智德의 健히 化하산 이틀 하마 보습과라 (법화 4:169)

「-습과이-」: 네 몸 보습던 그지업스신 智慧者ㅣ 優曇鉢華ㅣ 존하시니  
오늘사 맞나습과이다 = 昔所未曾見엿 無量智慧者ㅣ 如優曇鉢華하시니  
今日에사 乃值遇하습과이다 (법화 3:119-20)

▽「맞나-」의 객체는 「智慧者」이다.

37. 「-으리-」가 바로 뒤따를 경우:

이에는 다시 「-으이-」, 「-더(터)-」, 「-거(어)-」, 「-아/어-」, 「-로(소+이)-」가 뒤따를 수 있다.

「-스븐리-」: 너희들히 大衆과 諸天入 히물 請하야사 (부텃 棺을) 城의 드리스븐리라 (석보 23:23-4)

나는 승의 모밀찌 당다이 大僧 後에 부터를 보스븐리니 (월석 21:205)  
智力 神用이 如來와 존즈오리니 그럴찌 닐오디 (법화 5:126)

▽객체가 전준말로 나타난 예.

엇데 구티여 靈山에 世尊의 묻즈오리오 (금강삼가 4:59)

舍利를 되셔 하늘 우희 가면 싸했 사르미 어드리 가 供養하스븐료 (석보 23:47)

부텃의 信티 아니하스븐려 (월석 23:89)

眞實로 能히 불기 알면 ...如來入의 존즈오릴찌 功이 그지업스리라 (법화 5:195)

▽「존-」의 객체가 위치말로 나타나는 일도 있는 점, 앞의 ‘如來와 존-’의



예와 비교할 것.

같은 사실을 서술한 '월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증말이 쓰여 있다.

如來와 존하릴씨 (월석 17:33)

「-스불리이-」: 衆生이 能히 이 法을 恭敬하스와 信하스오리이다 (법화 1:169)

▽이 어형은 「하스불리이다」의 변화형이다. 그러나 다음 예는 같은 꼴이지만 「비호스오리이다」의 변화형인데, 그 이유는 인칭의 다름에 있다. (p.712 참조)

世尊이 받드기 우릴 爲하사 ...法을 니르쇼셔 우리 듣조오면 다 닷가 비호스오리이다(법화 3:144)

世尊이 아래 드슴 功德을 하시관디 이러한 塔을 世尊 위하스바 이 르스불리잇고 (석보 24:9-10)

滿虛空 金剛神이 各各 金剛杵 | 어니 모딘들 아니 저쓰불리 (월석 7:23, 기 191)

舍那身이 뵈샤 보비옷 니브샤 頓敎를 뉘 아라 듣조불리 (천강곡 상, 기 97)

▽끝의 두 예는 「-잇고」의 생략으로 보아진다.

「-스불리러-」: 머리 이션 보습고 가짜비 완 몬 보스불리러라 (월석 7:55)

光明이 하 盛하야 몰다 보스불리러니 百千閻浮檀金入 비치 몬 가즐 비스불리러라 (월석 8:17)

「-스불리어-」: 城 안헛 사르미 다 와도 (부텃棺을) 몬 드스불리어니 너희 어느 드스불파 (석보 23:23)

세 聖人入 記는 니르디 아니하샤도 어루 아스오리어늘 (법화 3:64)

▽「-어-」는 「-거-」의 변이형태. 「-오리-」 밑에서는 「-거-」는 「-어-」로 규칙적으로 변동한다.

「-스불려-」: 世尊하 나눈...부텃 말쑤 듣좁고 즉재 信受하스불려니와 (월석 21:14-5)

「-스불리로-」: 오늬날 이 프들 몬 아스불리로다 (석보 13:43)

「-스불리로소이-」: (어마니를) 地獄에도 몬 보스불리로소이다 (월석 23:81)

38. 「-더-」가 바로 뒤따르는 경우:

이에 는 다시 「-으시-」, 「-으니-」, 「-으시+니-」가 뒤따를 수 있다.

「-습더-」: 一切 증갓 神靈이 다 (夫人을) 侍衛하습더라 (월석 2:33)

姦女 | 기배 안습바 어마넉디 오습더니 大神들히 뵈시스불니 (월석 2:43, 기 23)

하다가 能히 막스매 서르 體信하습던된 이에 어루 맛나 得하야 값 간도 어려우미 업스리어늘 (법화 2:226)

세 賦를 蓬萊宮에 받좁던 저글 스랑호니 =憶獻三賦蓬萊宮 (두언 25:52)

「-습더시-」: 모든 諸菩薩이 ...諸佛을 讚歎하습더시니 그뵈 彌勒菩薩이 座로써 니르샤 (법화 5:180-1)

「-습더(시)니-」: 劫 일후몬 喜見이러니 <...劫 일후몬 우흘브터 세느니...時節入 한 사르미 갓거 보습더니라> (월석 18:82-3)

증 자심제 風流 | 그바습더니 (천강곡 상, 기 118)

鴛鴦夫人이 王 말로 나샤 齋米를 받좁더시니 (월석 8:78, 기 221)

▽끝의 두 예는 「-이다」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진다.

39. 「-다-」가 뒤따르는 경우:

이에 는 다시 「-으이-」, 「-조-」가 뒤따를 수 있다.

「-습다-」: 妻眷이 드외스바 (太子를) 하날 존 설기습다니 三年이 몬 차 世間 브리시니 (천강곡 상, 기 140)

「-습다이-」: 我等이 平常애 未蒙如來入 微細開示하습다이다 (능엄 10:75)

「-습다소-」: 이 더를 다시 지서 福 비스을 짜힐 삼고져 하습다소니 兩殿이 듣조오시고 (상원사 권선문)



40. 「-도-」, 「-듯-」이 바로 뒤따르는 경우:

「-습도-」: 오직 그 자취를 보습도다 = 但見其跡이로다 (법화 5: 130)

「-습듯-」: 萬國人 衣冠하닌 冕旒를 절하습듯다 = 萬國衣冠拜冕旒 (두언 6: 5)

41. 「-으시-」가 바로 뒤따르는 경우:

이에는 다시 「-오/우-」, 「-느(+오/우)-」, 「-더-」, 「-으니(+이)-」가 뒤따를 수 있다.

「-으시-」에 「-오/우-」, 「-아/어-」가 붙으면, 「-으시-」는 「-으샤-」로 바뀌면서 「-오/우-」, 「-아/어-」는 무형의 변이형태를 취하는 점 유의할 것. (p.674 참조)

「-스받시-」: 도하실씨 摩耶 | 如來를 나스받실씨 (월석 21: 222)

文殊師利 法王子는 ...받드기 이 希有한 相을 보스오시니 (법화 1: 66)

文殊師利 法王子는 ...無量諸佛을 親近供養하스오실씨 (법화 1: 66)

아바님 救호리라 變化를 보스받신대 無上道理에 發心하시니 (천강곡 상, 기 128)

微塵佛을 供養하스와 그 法을 받조오샤 (능엄 6: 32)

十方同行菩薩이 다 드러와 安否하시고 法 들조받시며 (월석 2: 26)

소사난 衆이 처심 流通을 請하스오시면 (법화 4: 135-6)

如來를 받조와 順하샤 法門을 받조오신 히므로 더으시면 = 承順如來하샤 受領法門之力으로 加之하시면 (법화 7: 67)

追는 ...先王 쁘들 미조츠샤 孝道 하스받실씨라 (월석, 서: 16)

「-스받샤-」: 雲雷音王佛入계... 바리 받조오샤를 보습전댄 (월석 18: 62)

「받-」에 객체높임을 쓴 것은, 그 객체가 「雲雷音王佛」이기 때문이요, 「보-」에 역시 객체높임을 쓴 것은 그 부립말이 「받조오삼」으로서 이 행위의 주체는 높임의 대상이 되기(그렇기 때문에 「-으시-」가 연결됐음) 때문이다.

文殊 | 維摩詰의 묻조오샤던 어니 不二法門이잇고 (남명, 상: 25)

剛藏入 묻조오샐 條目이 正히 이 존하시니라 (원각, 상 2-3: 29)

「-스받시느-」: 이제 처심 나사 묻조오시논 威儀라 = 今初進問威儀 (원각, 상 1-2: 82)

「-스받시노-」: 請하야 묻조오시논 마리 = 請問之辭 (법화 7: 16)

「-스받시더-」: 모든 菩薩이 ...두 世尊을 즐겨 올위러 보스오시더니 (법화 5: 87)

「-스받시니-」: 우리 世尊이 ...迦葉波佛을 맛나 셜기스받시니라 (월석 2: 10)

妙音이 能히 釋迦를 보스오시고 多寶를 몬 보스오시니라 (법화 7: 22)

「-스받시니이-」: 大愛道 | ...부테 처심 나거시닐 손소 기르스받시니 이다 (월석 10: 19)

아바님 病 重하샤 藥을 몬 하습거늘 목숨 버려 救하스받시니 (월석 21: 212, 기 427)

少時事 닐어시닐...아들님이 또 들조받시니 (천강곡 상, 기 116)

이 예들은 「-이다」의 생략형이다.

42. 느낌을 나타낼 때에는 「-으시-」는 「-으샤-」으로 변한다.

몬저 니트산 經을 어루 다 들조오샤다 = 先所說經을 可以具聞이샤다 (법화 6: 82-3)

그리고 「-습시-」는 두 형태소의 접침이 아니다. (p.682-3 참조. 두 형태소의 접침은 「-스(조, 수)받시-」 > 「-스(조, 수)오시-」가 된다.)

(3-5) 말할이의 주관에 좌우되는 「-습-」의 용법

43. 높임법의 사용은 위에서 설명한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용이 생략되는 일도 있고(p.709 참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땅히 객체높임법이 쓰이어야 할 자리인데도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 일도 있다. 이것은, 객체높임법——일반적으로 높임법——의 사용이란, 물샐 틈 없이 짜여진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할이의 주관적인 판단, 그때 그때의 마음가짐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다.



많기 때문이다. 즉 높임법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객관적 성격(지위)보다는, 말할이의 이 대상에 대한 높임의 의향이 더 중요한, 제일차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 사스미 혼 겨지불 나쓰분니라 ...암사스미 혼 쏘니물 나하 두고  
할타가 ...그췌 仙人이 ...뵈스바다가 果實 빠머겨 기르스분니.....

그 아비 그 쏘니물 구짓고 北노 堀애 브리스바 불 가져오라 하야늘  
(석보 11:25-6)

여기의 「겨집」과 「쏘님」은 같은 사람인데, 어떤 자리에서는 객체높임이 사용되고(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되지 않았다.(=)

44. 그러므로 같은 사실을 기술한 글에 있어서도, 높임법의 사용은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니다.

王이... 林淨寺애 가신대 光有聖人이 보시고... 찻물 길이습더시니 王  
이 물 기르며 듣니실찌고 (월석 8:97)

林淨寺애 가샤 聖人 뵈스바시늘 ㅁ장 깃거 물을 길이시니 (월석 8:  
84, 기 236)

이 두 문장은 같은 사실을 기술한 글이다. 「길이습더시니」와 「길이시니」의 주체와 객체는 동일한데도, 객체높임법의 사용은 일정하지 않다.

몬져 니르산 經을 어루 다 들조오샷다 =先所說經을 可以具聞이샷다  
(법화 6:82-3)

몬져 니르산 經을 어루 다 드르시니라 (월석 17:87)

이 두 문장도 같은 사실을 서술한 것으로서, 「듣-」의 주체와 객체는 동일하다.

모든 諸菩薩이... 諸佛을 讚歎하습더시니 (법화 5:180-1)

같은 사실을 서술한 '월석 17:30'에서는 '讚歎하시더니'로 되어 있다.

眞實로 能히 볼기 알면... 如來入기 존조오릴췌 (법화 5:195)

...如來와 존하릴췌 (월석 17:33)

이 두 문장도 같은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아바님 分別하샤 고분 (각시들과 風流入 소리로 善心을 마ㅁ시니 /  
(8) 淨居天의 神力에 더러분 각시들과 風流入 소리로 欲心을 막스분  
니 (천강곡 상, 기 47)

이 「善心」과 「欲心」도 모두 싯달태자에 관한 것인데도 「-습-」의 사용은 일정하지 않다.

45. 이것은 높임법의 쓰임은 말할이의 그때 그때의 마음가짐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3-6) 객체높임의 낱말들

46. 특별한 낱말에 있어서는 「-습-」을 붙이지 않고서도 객체높임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

「습다」: 말썬물 (武王의) 술분리 하디 (용 13장)

子孫之慶을 神物이 (度祖의) 술분니 (용 22장)

王의 그 꾸물 술바시늘 (월석 2:23)

道士는 道理 비호는 사르미니 菩薩을 술분니라 (월석 1:7)

「-습-」은 이 말의 줄기에서 변한 것이니, 「습->-습-」의 변화는, 실사가 허사로 변한 한 예이다.

「뵈다」: 無上尊을 뵈라 =觀無上尊하라 (법화 3:39)

두 奇異한 중이 나사 뵈오 師入 아비드려 닐오디 =有二異僧造謁 謂  
師之父曰 (육조, 서:10)

雪峯이 중을 뵈야 니르샤디 (남명, 하:70)

그러나 이 말은 그 객체높임의 뜻이 그리 현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더욱 높임의 의향이 있을 때는 여기에 다시 「-습-」을 연결한다.

朝는 아츠미 님금 뵈수분췌오 (월석 2:69)

이 짜해 寶塔 세야 太子 供養이실췌 世尊의 소사 뵈수분니 (월석 21:  
213)

님금 뵈수와 =朝觀 (두언 21:13)

어마니물 어더 뵈수분면 (월석 23:86)



「되시다(모시다)」: 聖宗을 되셔 (용 109장)

姦女 | …太子를 띄려 안수바 夫人의 (太子를) 되셔 오니(월석 2: 43)

比丘와 王과 夫人을 되샤 (월석 8: 94)

子賢長者 | 듣고 세分을 되셔 드라 (월석 8: 81, 기 229)

王과 比丘와 …子賢長者 | 지비 모셔다가 (월석 8: 100)

「되시-」의 「-시-」는 주체높임의 안맺음씨끝이 아니다. 그것은 「-아/어」 연결형이 「되셔」가 되기 때문이다. (주체높임의 「-시-」의 경우에는 이 활용형은 규칙적으로 「-샤」가 된다.)

이 말은 이대로라도 그 객체높임의 뜻이 뚜렷한데, 다시 「-습-」을 붙이는 일도 있다.

大神들히 되시습네 (월석 2: 43)

이 경우에는 「-시-」가 생략되는 것이 보통이다.

네 아드리 各各 어마님내 되습고 (월석 2: 6)

두 大士 | 두너기 되수하 서시며 (월석 8: 16)

아츨마다 부테 먹 무터 넘그를 되습노라 = 朝朝染翰侍君王 (두언 6: 3)

「되시-」, 「되시습-」, 「되습-」 세 어형은 모두 같은 뜻을 가진 것인데, 이 세 말의 생성적 과정은 위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하자 않고, 「되-」를 본래의 줄기로 보면, 이것이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과, 또 「되시-」의 「-시-」가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에 난점이 있다.

### (3-7) 「-습-」에 대한 다른 견해들

47. 「-습-」의 용법에 대해서는 몇가지 다른 의견이 있다.

48. 첫째는, 현대국어에 이러한 문법범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습-」의 현대국어에 「남은꼴」이 「상대높임」(겸양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15세기 국어의 「-습-」도 이와 비슷한 용법을 가진 것이라고 막연히 설명하는 일이 있는데,<sup>(35)</sup> 이것은 그리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곧 그 잘못이 드러난다.

(ㄱ) 「상대높임」은 15세기에서는 「-으이-」로써 표시된다.

(ㄴ) 따라서 「-습-」이 들어가더라도 상대높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열

(35) 허 용 : 중세국어 연구 pp. 76-9 참조.

마든지 있다.

그 사슴미…흔 겨지블 나쓰블니라 (석보 11: 25)

그 王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블니라 (월석 1: 7)

蓮花 | 나아 바를 받습더라 (월석 2: 37)

이것들은 단순한 서술의 문장으로서, 말할이가 들을이를 높이는 것은 아니며, 또

흔 믅스믅로 부터를 보습블라 (월석 8: 22)

너희…釋迦牟尼佛의 저습바 供養하습블라 (석보 19: 41)

네…無量壽佛을 일존즈블라 (월석 8: 75)

이 예들은 명령하는 말투인데도, 「-습-」이 들어 있고,

부테 目連이드려 니르샤더 “네 迦毗羅國에 가아 아바넝기와 아즈마넝기와 아자바님내의 다 安否하습고 또…羅睺羅를 노하 보내야 상재 드외에 하라” (석보 6: 1)

이 예의 인용부호 사이의 말은 부처가 그 제자에게 명령하는 것인데, 「-습-」이 들어 있다. 뿐만아니라,

須達이 이 말 듣고 부텃기 發心을 니르와다 “언제 새어든 부터를 가 보습블려뇨” 하더니 (석보 6: 19)

인용부호 안의 말은 자기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표현한 것인데도 (들을이가 자기자신인데도) 「-습-」이 들어가 있다.

(ㄷ) 이와같이, 「-습-」이 들어 있더라도 상대높임(겸양법)이 되지 않는 말이 얼마든지 있는 반면, 이것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높임이 되는 말이 또한 얼마든지 있다.

世尊하… 이런 고더 업스히다 (능엄 1: 50)

이 예는 더할나위 없이 들을이를 높이고 있는데도 「-습-」은 들어가지 않았고,

王이 뉘으쳐 불리신대 “디마니호히다” 하코 다 아니 오니라 (월석 2: 7)

의 인용부호 안의 말도 역시 그리한데, 「-습-」은 붙지 않았다. (「상대높



입법」참조.)

한 형태소는, 그것이 들어 있을 때에 나타나는 문법적 의의가, 그것이 들어 있지 않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그 형태소와 그 문법범주를 맞붙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습-」과 겸양법과의 관계는 전혀 이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은, 「-습-」이 겸양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증명해 준다.

49. 둘째는, 「-습-」의 용법을 ‘주체겸양’이라고 설명하는 일이 있다.<sup>(36)</sup> 말의 주체가 어떠한 대상(이것은 여기에서 설명한 ‘객체’로 해된다)에 대해 자기를 낮추는 경우에 「-습-」이 사용된다는 뜻이다.

諸天이 (世尊을) 조쥌더니 (월석 21:203)

一切大衆이... 부터를 만쥌더니 (월석 21:203)

이런 예에 있어서는, 주체인 ‘諸天’, ‘一切大衆’은 그 상대자(우리가 말하는 ‘객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주체겸양’이란 말이 적합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第一夫人이 太子를 나췌븍시니 (월석 21:211)

太子를 세스븍시니 (천강곡 상, 기 34)

大愛道ㅣ善흔 브디 하시며 부테 처섬 나거시닐 손소 기르스븍시니 이다 (월석 10:19)

이러한 예에 있어서는, 주체가 그 객체에 대해서 겸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왕이 태자를 세우고, 양어머니가 그 양아들을 기르고 하는데, 겸양의 뜻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菩薩을 자바 남기 모뎨 뻬스뎨 뒸더니 (월석 1:6)

그 王이 (菩薩을) 사를 브러 쏘아 주기스븍니라 (월석 1:7)

에 있어서는 주체는 객체를 확대하고 있고,

怨讎ㅣ라 햏야 부터를 疑心햏스븍니 (월석 13:32)

에 있어서는, 주체는 그 객체를 원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

(36) 앞의 책 pp.95-9. 참조.

(釋譜詳節을 世宗계) 進上햏스븍보니 보뎨 주스오시고 (월석, 서:13)

여기에는 「-습-」을 포함한 두 말이 있는데, 「進上햏-」의 주체는 世祖, 그 객체는 世宗이니, 이는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겸양할만 하다. 그러나 「주-」의 주체는 세종이오, 그 객체는 「보뎨」인데, 이것은 세종의 행동이다. 이런 경우에 주체 세종은 무엇에 대해서 「겸양」하고 있다는 것인가?

上이 꾸메 世宗이 上의 金剛經 四菩薩 八金剛 名字 브들 묻조오시며 (번역 금강경 사실)

세종이 그 아들 세조(上)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주체겸양」이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명칭(문법범주의 명칭)이다.

50. 세째는, 주체와 객체의 높낮이 관계가 「-습-」을 쓰는 요건이 된다고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현대말에서,

‘형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갔다’

는 말이 되지만,

‘\*아버님이 형님을 모시고……’

는 말이 되지 않는 데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당장 앞에 나온 「주스오시고」나 「묻조오시며」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세종이 세조에게 물었는데, 세조가 세종보다 높다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세종이 봄을) 주스오시」는데, 주체 ‘세종’보다 객체 ‘(세종이) 보는것’이 높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객체높임과 주체높임의 겹침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p.728)

## 51. <붙임>

원칙적으로는 파생의 가치는 굴곡의 가치에 앞서는 것인데,

濟世英主ㅣ실췌 마췌뵈에 뎡스뎨 놀라니 (용 95장)

의 「마췌뵈」는 한 특례이다.

즉 이 말에 있어서는 굴곡의 가치인 「-습-」이 파생의 가치인 「-이」에 앞서 있는 것이다.



#### (4) 높임법의 겹침

1. 이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높임법은 상대높임, 주체높임, 객체높임의 세가지 하위범주가 있는데, 이러한 높임법은 두가지 이상이 겹쳐질 수 있다. (그 겹쳐진 예들은 앞에 많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몇가지 예만 들어 됨에 그치기로 한다.)

##### (4-1) 주체-객체높임의 겹침

2. 월의 주체와 객체가 다 같이 높임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습-」과 「-으시-」가 겹쳐진다.

文殊 | 摩耶의 請<sub>습</sub>하<sub>시</sub>샤디 (월석 21:1)

그 金像이 世尊 보<sub>습</sub>하<sub>시</sub>고 (월석 21:204)

우리 父母 | 太子의 드<sub>습</sub>하<sub>시</sub>니 (석보 6:7)

우리 聖上이 키 天命을 받<sub>습</sub>하<sub>시</sub>오샤 (상원사 권선문)

3. 여기에서 「-습-」의 용법을 굳이 「주체겸양」이니, 주체와 객체의 준비관계이니로 따지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음이 드러난다,

우리 世尊이... 七萬五千佛을 맞<sub>습</sub>하<sub>시</sub>니 (월석 2:9)

우리 世尊이... 迦葉波佛을 맞<sub>습</sub>하<sub>시</sub>니라 (월석 21:9)

에 있어서는 주체는 「세존」, 객체는 다른 부처인데,

一切諸佛와... 摩訶薩이... 世尊의 安否 묻<sub>습</sub>하<sub>시</sub>디니 (월석 21:9)

諸佛이... 釋迦牟尼佛께 묻<sub>습</sub>하<sub>시</sub>오샤디 (법화 4:129)

佛이 問訊世尊하<sub>습</sub>하<sub>시</sub>오샤디 (법화 7:20)

에 있어서는 주체-객체가 반대인데도 「-스<sub>습</sub>하<sub>시</sub>-」는 다같이 쓰이고 있다.

##### (4-2) 주체-상대높임의 겹침

4. 들을이가 말의 주체로 등장될 수 있는데, 이 때에 들을이를 높여

려면 주체높임과 상대높임이 겹쳐진다.

尊者 | 어엿비 너기샤 엿메 救<sub>습</sub>하<sub>시</sub>리잇고 (월석 21:54)

흔 하늘 幢英이 菩薩의 묻<sub>습</sub>하<sub>시</sub>보디 어누 나라해 가샤 나<sub>습</sub>하<sub>시</sub>리잇고 (월석 2:11)

을<sub>습</sub>하<sub>시</sub>이다 世尊하 (능엄 4:9)

5. 「-쇼셔」는 들을이를 높이면서, 그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들을이는 항상 주체로 등장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으시-」가 연결되는 일 없이도 상대와 주체는 동시에 높여진다.

님금하 아<sub>습</sub>하<sub>시</sub>쇼셔 (용 125장)

王이 네 아<sub>습</sub>하<sub>시</sub>를 내<sub>습</sub>하<sub>시</sub>쇼셔 (월석 2:6)

願<sub>습</sub>하<sub>시</sub>든 世尊이... 分別 마<sub>습</sub>하<sub>시</sub>쇼셔 (월석 21:36)

6. 주체와 상대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양자를 다 높일 경우에는 두가지 높임이 겹쳐짐은 물론이다.

世尊이 흐르 몇<sub>습</sub>하<sub>시</sub>를 녀<sub>습</sub>하<sub>시</sub>느니잇고 (석보 6:23)

世尊하 摩耶夫人이 엿던 業을 지스시곤대 畜生中에 나<sub>습</sub>하<sub>시</sub>니잇고 (석보 11:40)

世尊하... 諸佛 니르시는 마른 乃終내 달<sub>습</sub>하<sub>시</sub>주리 업<sub>습</sub>하<sub>시</sub>시니이다 (석보 9:27)

##### (4-3) 객체-상대높임의 겹침

7. 앞의 경우에서처럼, 들을이가 말의 객체로 등장될 수 있는데, 이 때에 들을이를 높이려면 (또는 객체를 높이려면) 객체-상대높임이 겹쳐진다.

차<sub>습</sub>를 기<sub>습</sub>를 姦女를 비<sub>습</sub>하<sub>시</sub>바 오라 흐<sub>습</sub>하<sub>시</sub>실씨 오<sub>습</sub>하<sub>시</sub>보이다 (월석 8:91)

「오-」의 주체는 말할이 자신, 객체와 들을이는 다 같은 「왕」이다.

唯然 世尊하 들<sub>습</sub>하<sub>시</sub>좁고져 願<sub>습</sub>하<sub>시</sub>樂<sub>습</sub>하<sub>시</sub>노이다 (금강 13)

8. 들을이와 객체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양자를 다 높여야 할 때는 객체-상대높임이 겹쳐진다.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大王하 나도 如來 겨신더를 모릅스바이다 (월석 21:192)

極樂世界를 브라습노이다 (월석 8:4)

#### (4-4) 주체-객체-상대높임의 겹침

9. 세가지 높임법이 다 겹쳐지는 일도 있다.

摩耶夫人이...엇던 因緣으로 如來를 나쓰릅스니잇고 (석보 11:24)

大愛道ㅣ 善흔 브디 하시며 부테 처엄 나거시닐 손소 기르릅스니네  
이다 (월석 10:19)

10. 「-습-」과 「-으쇼셔」가 결합된 것도, 역시 세가지 높임의 겹침이 되는 셈인데, 이 경우 주체는 항상 들을이다.

王이 부터를 請하릅스쇼셔 (석보 6:38)

▽주체와 들을이는 왕, 객체는 「부터」

내 일흠조쳐 聖人스기 받즈릅스쇼셔 (월석 8:80, 기 228)

▽말할이는 원앙부인, 주체와 들을이는 다 같이 왕과 비구(比丘), 객체는 성인.

## 2) 인칭법<sup>(37)</sup>

### (1) 안맺음씨끝 「-오/우-」와 맺음씨끝과의 관계

1. 「-오/우-」와의 결합관계에 따라 맺음씨끝은 다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한 낱말 안에 반드시 「-오/우-」를 요구하는 불구적 맺음씨끝  
——「-ㅁ(p.627), -디(p.612), -마(p.493), -딘(p.545), -근덴(p.548), -근  
던(p.548)」 따위가 이에 속한다.

둘째, 「-오/우-」와 한 낱말 안에서 결합되는 일이 없는 맺음씨끝——

(37) 이 문제에 대한 기술은 전적으로 필자의 「중세국어 연구」 pp.124-252에 의한다.

「-을씨(p.493), -다(물음, p.497), -으쇼셔(p.518), -라(시킴: p.516, 목적  
: p.599), -저(p.519), -을씨(p.529), -으며(p.588), -으면(p.528), -란디  
(p.545), -든/든(p.549), -닐/닐(p.553), -고(p.583), -니와(p.569), -디비  
(p.577), -고저(p.593), -게(p.602), -드록(p.601), -다가(p.605), -기(p.635)」  
등등이 이에 속한다.

▽「-으며」는 「-오/우-」를 취하지 않음이 보통인데,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오/우-」를 취하고 있으니, 이것은 예외로 돌려둔다.

다 보다가 몸 보수보며 (월석 21:191)

그리고 다음 예도 예외적인 것으로 돌려 두는 수 밖에 없다.

耶輸ㅣ...大愛道씨 슬보샤디 (석보 6:7)

이 어형은 「-오/우-」가 둘이 연결되어 있다.

세째, 「-오/우-」와 한 낱말 안에서 결합하는 일도 있고, 결합하지 않  
는 일도 있는 맺음씨끝——「-다(p.487), -으니(p.522), -으려(p.597), -은  
(p.645), -을(p.639), -으나(p.563), -가, -고(p.500 이하), -ㄴ더(p.492),  
-ㄴ덴(p.540), ㄴ딘(p.544)」 따위가 이에 속한다.

2. 그러므로 「-오/우-」의 문법적 의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와, 세째의 「-오/우-」를 가진 일부에 공통된 문법적 의의와, 둘째와,  
세째의 다른 일부에 공통된 문법적 의의와의 대립을 파악해야 할 것인  
데, 이러한 대립의 차이는 아직 잘 파악되지 않는다.

3. 다음 방법으로는, 범위를 좁혀서, 세째 경우에 있어서의 두 어형  
(같은 맺음씨끝이, 한 낱말 안에, 「-오/우-」를 취하고 취하지 않는 두  
어형)의 문법적 뜻의 대립을 파악하면, 일정한 범위 안에 나타나는 「-오  
/우-」의 뜻은 알 수 있게 되겠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으  
로 여기에서는 둘째 방법에 의해서 「-오/우-」의 뜻을 설명하기로 한다.

4. 따라서 다음에 시도된 「-오/우-」의 용법 설명은 아직 더 연구되어야 할 여  
지를 남겨 놓고 있다.(우리는 어디까지나 첫째 방법에 의한 해명이 이루어질 때  
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안맺음씨끝 「-오/우-」에 의한 인칭법

(2-1) 「-다, -으니」 활용형 (1)

—「-으리-」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가) 1-인칭법

—「-오/우-」를 가진 「-다, -으니」 활용형—

(가-1) 전형적인 1-인칭 활용

1. 맺음씨끝 「-다」와 「-으니」 활용형에는 안맺음씨끝 「-오/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안맺음씨끝 「-습-」, 「-느-」, 「-습느-」가 이에 앞설 수 있고, 또 안맺음씨끝 「-으이-」가 이에 뒤따를 수 있다. (「-으이-」가 있을 경우에는 「-다」만이 이에 연결될 수 있다. 즉 「-으니」는 「-으이-」에 연결될 수 없다.)

(-습-)+(-느-)+「-오/우-」+ { 「-다」(→라)  
「-으니」

(-습-)+(-느-)+「-오/우-」+「-으이-」+「-다」

2. 이러한 활용형들은,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이 말할이 자신임을 나타낸다. 즉 이 월(마디)의 임자말은 (대이름씨인 경우에는) 「나」나 「우리」를 요구하게 되므로, 이러한 활용형을 「1-인칭 활용형」이라 하고, 이러한 문법적 방법을 「1-인칭 활용법」이라 한다.

「-오/우-」+「-다」→「-오/우라」

호오사 내 尊호라 (월석 2:34, 기 20)

내 오늘 實로 無情호라 (월석 21:219)

내... 이런 衆生을 위하야 大慈悲心을 니르와도라 (석보 13:57)

하늘 우파 하늘 아래 나쁜 尊호라 (월석 2:38)

내... 道理를 得호라 (월석 10:26)

내 호마 命終호라 (월석 9:36 상)

나는 어마님 어드라 :오·라 (월석 23:82)

「:오-」는 「-오/우-」 위에서 일어나는 「오-」의 변이형태인데, 이 경우에 「-오/우-」는 무형이 된다.

내 게으르디 아니호마로 正覺을 일우오라 (석보 23:13)

내 그뿐... 흔 소느로 놀로라 =我]... 一手로 擲호라 (몽산 32)

내 이 經 드로물 爲흔 전츠로 이에 :오·라 =我爲聽是經故로 而來至此 호라 (법화 4:131)

머릴 드러 八荒을 브라오라 =矯首望八荒 (두언 25:5)

▽임자말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브라-」의 주체는 이 시의 작자 자신이다.

마조아 내 ㄹ몹 ㄹ쉬 病하야쇼라 =會我病江濱 (두언 22:27)

아스라히 荊州衡山에 누어쇼라 =渺渺臥荊衡 (두언 23:34)

▽주체는 두보 자신이다.

나는 弟子 大目犍連이로라 (월석 23:82)

江湖 | ㄹ독흔 ㅅ하해 흔 고기잡는 놀그니로라 =江湖滿地一漁翁 (두언 6:10)

먼 又 三冬人 나조히 ㅸ 人生애 흔 病흔 모미로라 =絕域三冬暮 浮生一病身 (두언 8:62)

▽앞 두 예는, 그 임자말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모두 이 시의 작자가 주체로 묵해되어 있다.

이제 나는 가난호미라 病 아니로라 (남명, 상:30)

「-오/우-」+「-으니」→「-오/우니」

내 혜여호니 이제 世尊이 큰 法을 니르시며 (석보 13:26)

내...方便力으로 다숫 比丘 위하야 說法호니 이를 轉法輪이라 하느니 (석보 13:59)

내 호마 衆生이그에 즐거본거슬 布施호디 제 ㅸ데 맛드논 야을 조 차호니 이 衆生이 다 늘거 주그리니 (석보 19:3)



내 어저귀 다숫가지 꾸물 꾸우니... 다스손 소내 드를 자보니 世尊하  
날 위하야 니르쇼셔 (월석 1:17)

聖女 | 무로더 내 드로니 鐵圍入 안해 地獄이 가온더 있다 하느니  
(월석 21:24)

내 過去 ...世尊의 이 陀羅尼를 親히 받즈바 受持 호니 能히 一切白  
法을 增長케 하며 (월석 21:69)

내 ...子母를 擁護하야 安樂하야 利益을 得게호니 이런 사르미 安  
樂을 보란디 (월석 21:125)

내 地藏 威神力을 :보·니... 닐우미 어렵도다 (월석 21:172)

나는 드로니 겨집도 精進하면 (월석 10:16)

내... 프서리에 아득를 나호니 큰 毒蛇 | 핏내 말고 (월석 10:24)

내 그제 브암 오느다 하야 브르다가 몰호니 그 브아미 쪼 쇼와 딸  
와를 쏘아늘 (월석 10:24)

내 것드르주거 싸해 디엣다가 오라거사 ぢ요니 五百 도즈기 무리  
와 벌들홀 티고 (월석 10:24)

이 모드로 아바님 爲하야 病엿 藥을 지수려 하노니 목수미 몬 이살  
까 너겨 여희승불라 :오·니 願하든 어마니미 그려 마르쇼셔 (월석  
21:217)

도즈기...날드려 닐오더 네 도로 머그라 아니웃 머그면 네 머리를  
버호리라 홀씨 두리어 머구니 怒를 잔치니라 (월석 10:25)

▽끝의 두 예는 임자말이 밖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주체는 말할이 자신  
이다. 그리고 「지수려 하노니」도 「-느-」를 가진 「-오니」 활용형으로서 그  
주체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나」이다.

우린 드로니 못쳐서미 形體 업스며 (월석 2:69)

우리들히... 毒藥을 그르 머구니 願하든 救療하샤 (월석 17:17)

우리 出家하랴 :오·니 (월석 7:3)

우리는 다 부텃 아들 존호니 (월석 13:32)

우리 沙彌 드외야 이십저귀... 衆生을 教化호니 (월석 14:55)

雲安縣에 와 브터쇼니 消渴入病이 안호로 서르 모디도다 = 栖泊雲安  
縣 消中內相毒 (두언 6:51)

눈물 솟고 큰 江를 디러슈니 노푼 하늘해 쓰디 슬프도다 = 揮淚臨  
大江 高天意悽惻 (두언 22:49)

내 그로니 이에 살라지라 (월석 7:12)

내 네 어미로니 (월석 21:55)

내... 如來로니 (월석 21:22)

나는 이 如來入 못저든 알이로니 = 我는 是如來入 最小之弟로니 (능엄  
1:76)

내 實로 제 아비로니 (월석 13:30)

내 이 ...道 니르른 사르미로니 너희 ...다 이에 오라 (월석 13:49-  
50)

내 ...威大將軍이로니 (능엄 7:62)

내 世尊이라 能히 미즈리 업스니로니 衆生 便安케 호려 하야 (법화  
3:39)

▽「내 世尊이라」의 「-이라」가 「-이로라」로 되지 않은 것은 예외가 아니라,  
이 씨끝은 서술의 「-다」가 아니고, 제약법의 씨끝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에는 「-오/우-」를 취하는 일이 없다. (p.559 참조)

내 갑디 못하릴씨 ...大衆에 너비 니를 쏘르미로니 그 나민닌... (원  
각, 서:14)

나를 도라본딘 늘거 기동애 스는 客이 아니로니 = 顧我老非題柱客 (두  
언 15:35)

「-습-」+「-오/우-」+ {「-다」  
「-으니」} → {「-스보라」  
「-스보니」}

...부터의 歸依하스보라 하더라 (월석 2:64)

如是我聞은 如하며 是호 法을 내 부터의 들즈보라 하논 마리라 (석  
보 24:4)

내 ...精舍를 하마 짓스보니 王이 부터를 請하스보쇼셔 (석보 6:38)



내 이제 世尊을 막스락 보스보니 축훈 막수미 업거이다 (월석 10:8)

내 至極한 말썽물 듣스보니 막수미 물가 (월석 2:64)

부테 훈 光明 펴사매 내며 한 모든 사르미... 네 업던 이를 얻즈보  
니 佛子 文殊아 모든 疑心을 決호고라 (석보 13:25)

▽주체는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다.

「-느-」+「-오/우-」+ {「-다」} → {「-노라」}

내 거지비론 전츠로 出家 몸하야 슬허호노라 (월석 10:18)

내 와 迎接호노라 (월석 8:51)

이럴씨 내 닐오디 ...衆僧供養 아니하야도 흐리라 호노라 (월석 17:40)

내 이제 너드려 니르노라 (월석 14:49)

우리들히 ...이제 도라가고져 호노라 (월석 14:76)

알피 내 物을 두려이 내노라 헤오 이에 데 나를 두려이 내니라 헬씨  
=前에 計我 | 圓生物이라 호고 此에 計彼 | 圓生我 | 라 홀시 (능엄 10:54)

▽“내... 내노라”, “데... 내니라”를 대조해 볼것.

내 이제 너드려 묻노라 =吾 | 今에 問汝호노라 (능엄 2:32)

내 너를 도바 깃노라 (월석 21:36)

내 이제 大衆과 여희노라 (월석 21:217)

이럴씨 내 이제 有情을 勸하야 ...厄을 버서나기 호노라 (석보 9:38)

부터 請호스보려 호노라 (월석 21:195)

사름마다 수비 아라 三寶에 나사가깃고 브라노라 (석보, 서:6)

헐므슨 모드로 蜀都에서 늙노라 =瘡痍老蜀都 (두언 24:60)

오늬 滅度 몸 존노라 =如見滅度호노라 (법화 3:89)

▽위의 몇가지 월에서는 「나」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임자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이다.

내 설버호노니 어디사 시름 업슨디 잇노노 (월석 10:25)

내 이제... 地獄罪報엿 이를 어들 니르노니 願호든 仁者 | 이 마를  
값간 드르쇼셔 (월석 21:79)

내 이 사르물 惡道에 빠러디디 아니케 코져 호노니 호물며 제 善根  
닷가 내 힘 더으리썩니잇가 (월석 21:125)

내 이제... 功德 輕重 헤아료들 니르노니 네 슬퍼 드르라 (월석 21:138)

이런 다스로 내... 根性を 조차 度脫호노니 地藏아 내 오늘 브즈라  
니 天人衆으로 네게 付囑호노니 (월석 21:180)

내 오늘... 魍魎에게 求호물 값간도 말라 호노니 엇메어노 흐란디  
(월석 21:105)

내 이 이를 疑心호노니 願호든 듣좁고져 호노이다 (월석 21:139)

내 ...諸法을 너퍼 니르노니 이 法은 오직 諸佛이사 아르시리라 (석  
보 13:48)

우리도 다 ...方便으로 三乘을 고평하야 니르노니... (석보 13:59)

우리는 罪 지슨 모미라 하늘해 몸 가노니 願호든 仁者 | ... (월석 21:201)

이 모드로... 藥을 지수려 호노니 목수미 몸 이실까 너겨 여희스랴  
라 :오·니 願호든... (월석 21:217)

▽임자말은 물론 「나」이다.

「-습-」+「-느-」+「-오/우-」+ {「-다」} → {「-습노라」}

내... 이젯 부테 法華經 니르고져 하샤물 아습노라 =我... 知今佛이 欲  
說法華經호습노라 (법화 1:127)

부터 니르시는 여덟가짓 恭敬을 나도 깃스바 머리로 받좁노라 (월  
석 10:22)

婆羅門들히... 닐오디 釋迦牟尼佛入 法中에... 설본 일들히 업스시다  
듣좁노라 하야늘 (월석 10:26)

▽임자말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이다.



오늘 世尊 알피 여러 허므를 내 懺悔<sub>호</sub>습노니... (법화 4: 42-3)

世尊하 내... 如來의 묻즈뵈며 唯然頂受<sub>호</sub>습노니 世尊하 이 經을 드스기라 일흠 지호며 (월석 21: 101)

내 이제 죠고맛 疑心 이리 이서 世尊의 묻줍노니 願<sub>호</sub>든 世尊이... 날 爲<sub>호</sub>야 펴 니르쇼셔 (월석 21: 115)

우리들히... 衆仙百靈의 열줍노니 이제 되 中國을 어즈리거늘 (월석 2: 74)

우리들히 부텃 恩德을 念<sub>호</sub>스바 또 道理入 막스물 發<sub>호</sub>습노니... (월석 10: 33)

「-오/우-」+「-으이-」+「다」→「-오/우이다」

世尊하 내... 妙德을 이대 어두니... 能히 神呪를 니르노니... 큰 自在를 得<sub>호</sub>이다 (능엄 6: 36-9)

나는... 世와 出世間애 種種 變化를 한번 보매 通<sub>호</sub>야 ㄹ름 업수물 어두이다=我는... 世와 出世間애 種種變化를 一見에 即通<sub>호</sub>야 獲無障礙<sub>호</sub>이다 (능엄 5: 52)

나는 양지 덧곳고 슬히 세요이다 (석보 24: 35)

▽간접임자말(나)과 직접임자말(슬히)이 다르나, 간접임자말에 응한 활용형이다.

내 부텃 弟子]로니... 죽사릿 저푸물 이제 다 버·서:나이·다 (석보 24: 16)

▽「:나-」는 「-오/우-」가 연결될 때에 취하는 「나-」의 변이형인데, 이 경우 「-오/우-」는 무형의 변이형태가 된다. (p. 630 참조)

나는 齋米를 求<sub>호</sub>야 온디 아니라 大王을 보스뵈라 :오이·다 (월석 8: 90)

▽「:오-」도 「:나-」의 경우와 같다.

내 요스시에 여신 小國에 가 藥을 얻다가 問<sub>호</sub>이다 (월석 21: 215)

내 ...夫人을 거습지<sub>호</sub>이다 (석보 11: 33)

阿難이 부텃의 솔오디... 내...부텃 조짜와 머릴 갓고이다 (능엄 1: 42)

우리들흔... 오히려 疑悔에 벌그로이다 =尙紆疑悔<sub>호</sub>이다 (능엄 4: 4)

우리들히 今日에 身心이 불가 흰히 ㄹ름 업수물 得<sub>호</sub>이다 =我等이 今日에 身心이 皎然<sub>호</sub>야 快得無礙<sub>호</sub>이다 (능엄 5: 29)

우리 무리... 젓 일흔 아히 문득 慈母 맛남 ㄹ호이다 =如失乳兒 | 忽遇慈母<sub>호</sub> ㄹ호이다 (능엄 5: 29)

내 이 弟子]로이다 =我是弟子]로이다 (법화 7: 135)

「-습-」+「-오/우-」+「-으이-」+「-다」→「-스보이다」

(比丘] 對答<sub>호</sub>디... 光有聖人 弟子]로니 光有聖人이... 찻물 기를 嫪女를 비스바 오라 亨실썩 오스보이다 (월석 8: 91)

光有聖人이 또 나를 브리샤 大王 모뎀 請<sub>호</sub>스바 오나든 찻물 기를 維那를 삼스보리라 亨실썩 다시 오스보이다 (월석 8: 92)

▽주체는 밖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모두 「말할이 자신」이다.

「-ㄴ-」+「-오/우-」+「-으이-」+「-다」→「-노이다」

내 이제 부텃을 보스바 뒷논 三業善을 衆生들 爲<sub>호</sub>야 無上道애 드 ㄹ혀 向<sub>호</sub>노이다 (월석 10: 33)

나는 ...놈 더브러 ㄴ토들 아<sub>호</sub>노이다 (석보 11: 34)

世尊하 ...이런드로 내 堂의 이서 머리 보노이다 (능엄 1: 49)

내 스랑호디 어누 藏入 金이사 마치 썩이려노 亨노이다 (석보 6: 25)

우리 ...이 病人 爲<sub>호</sub>야 ...이것들홀 브리노이다 (월석 21: 92)

우리들히... 未曾有를 得<sub>호</sub>노이다 =我等이... 得未曾有<sub>호</sub>노이다 (법화 1: 88)

「-습-」+「-ㄴ-」+「-오/우-」+「-으이-」+「-다」→「-습노이다」

世尊이 이 法을 니르시니 우리 다 좃조와 ㄹ습노이다 =...我等이 皆 隨喜<sub>호</sub>습노이다 (법화 2: 48)

阿難이 솔오디 如來]... 펴락 쥐락 亨샤물 내 보습노이다 (능엄 1: 108)



우리 오늘 부터 좇즈와 …受決을 듣좁고 身心에 다 歡喜호습노이다

=…身心에 遍歡喜호습노이다 (법화 4:45)

울호시이다 世尊하 내 상네 부터의 이 브들 퍼 니르시거늘 듣좁노이

다 =唯然世尊하 我常聞佛의 宣說斯義호습노이다 (능엄 4:9)

내 귀를 써 듣좁노이다 =我 | 用耳하야 聞호습노이다 (능엄 4:104)

### (가-2) 인용말에 나타나는 1-인칭 활용

3. 남의 말(또는 생각)을 바로 인용했을 경우에도 그 임차말이 말할 이 자신일 때는 「-오/우-」는 개입된다. (「-다」 활용형에만 나타난다.)

湏陀洹이 能히 이 念을 호디 내 湏陀洹果를 得호라 호느녀 아닌느  
녀 (금강 49)

내 노포라 호릴 맛나든 (월석 21:67)

내 쿠라 하야 (육조, 상:88)

제 닐오디 내 우업슨 第一義諦를 得호라 호리니 =自言호디 我得無上  
第一義諦호라 호리니 (능엄 9:73)

또 닐오디 내 無上涅槃을 得호라 호고 =亦言自得無上涅槃호라 호고 (능  
엄 9:91)

王이 7장 붓그려 니르샤디 내 그르호라 (내훈, 2하:70)

이런드로 니르샤디 나는 호마 宿齋호라 호시니 (능엄 1:54)

열여섯자히는 나 釋迦 | 로라 호샤미라 (월석 13:31)

世尊하 내 이 念을 호디 내 이 欲 여윈 阿羅漢이로라 아니 호노이다  
=世尊하 我 | 不作是念호디 我 | 是離欲阿羅漢이로라 호노이다 (금강 54)

4.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말이 생략되는 일이 있으나 풀이말의 형식은 변하지 않는다.

婢子 | 對答호디 산것 주기며 허러 구짓는 두 業으로 報를 受호라  
(월석 21:56)

제 닐오디 一切種智를 得호라 호진마른 (월석 21:198)

저희 닐오디 梵天의 이복로서 :나·라 호고 (월석 2:46)

「:나-」 변동에 대해서는 p.630 참조.

더 모든 魔王도 또 무리 이서 各各 제 닐오디 우업슨 道를 일우라  
호느니라 (능엄 6:86)

「일우라」는 「-오/우-」의 흔적이 없으나, 무형의 「-오/우-」가 여기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오/우-」가 없으면 이 말은 「일우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우-」+「-다」 → 일우다.

「일우-」+「-오/우-」+「-다」 → 일우라.

제 닐오디 호마 7름업슨 解脫을 得호라 호리니 =自謂已得無礙解脫호  
란 호리니 (능엄 9:75)

호다가 내 弟子 | 제 너교디 阿羅漢辟支佛이로라 호야 (석보 13:61)

순지 제 너교디 客으로 와 일호는 賤人이로라 호더니 (월석 13:25)

제 닐오디 이 부테로라 호고 =自言 是佛이로라 호고 (능엄 9:109)

제 念호디 늘구라 흠 들흔… (월석 13:10)

5. 이상의 예는, 인용말의 앞과 뒤에 그 인용말임을 나타내는 말이 있  
어서, 그 안에 있는 말이 인용말임이 분명한 예들인데, 이 경우 앞의  
「닐오디, 너교디」 따위가 생략되더라도 월의 짜임새는 바뀌지 않는다.

호다가 내 能히 衆生을 度호노라 호며 내 이 發心호 사르미로라 호  
야 니르린덴 (금강삼가 4:3)

悔는 뒤으출씨니 아랫 이를 외오호라 흘씨라 (석보 6:9)

소느로 짓는 賤人이로라 제 너길씨 =自謂客作賤人이로라 흘씨 (법화 2  
:214)

犯흔 일 업시 자퓨라 호몬 (월석 13:17)

상네 예 있노라 니르시며 또 녀나몬 고대 있노라 호시니 =言常在此  
호시며 又在餘處호시니 (법화 5:134)

罪 업시 가티노라 호니라 (월석 13:17)

6. 위의 예들은 인용된 부분이 분명하여, 임차말이 밖으로 나타나지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않은 경우라도 그 임자말의 존재가 뚜렷이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나, 때로는 오직 풀이말 하나만이 인용되는 일이 있어서, 인용말인지 아닌지 판정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다.

문 得흔 法을 得호라 하며 (석보 9:13)

▽이 문장은, 뒤의 「하며」로 보아, 분명히 인용말이 포함된 것인데, 인용말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듯 느껴진다. 그러나 이 문장의 속뜻은 다음과 같다.

(××이) 문 得흔 法을 “(내) 得호라” 하며...

「문 得흔 法을」은 인용말 안에 넣을 수 없다. 왜그러냐 하면 “내 문 得흔 法을 得호라”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무리 罪 집고 增上慢하야 문 得흔 이를 得호라 너기며 문 證흔

이를 證호라 너겨 (석보 13:46)

▽이 예도 위의 경우와 같이, “(내) 得호라”, “(내) 證호라”만이 인용말이다.

처섬 어두라 니르샤론 (능엄 6:38)

▽「처섬」은 「니르-」에 대한 위치말이고, “(내) 어두라”만이 인용말이다.

제 므스매 하마 이 盧舍那로라 疑心하야 =自心에 已疑是盧舍那로라 하야 (능엄 9:73)

▽“(내) 이 盧舍那로라”가 인용말이다.

므스매 상네 사름을 가비야이 너겨 내로라 호물 굿디 못하면 (육조, 상:88)

我慢은 내로라 자바 제 노푼양 흘씨라 (법화 1:195)

7. 이러한 경우에, 인용말 앞에 다른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이 나타나 있을 때는 그 속뜻을 잘못 잡기 쉽게 된다.

艱難흔 사르미 간대로 帝王이로라 일흠하다가 (능엄 6:112)

▽「사르미」는 「일흠하-」에 대한 임자말이다.

←...사르미 ...“(내) 帝王이로라” 일흠하다가...

瞿曇의 무리 尊卑 업서 五百弟子 | 各各 第一이로라 일존느니 (월석 21:199)

▽←五百弟子 | 各各 “(내) 第一이로라” 일존느니

平人이 妄量으로 帝王이로라 일존다가 (법화 7:159)

▽앞의 예와 같은 짜임이다.

8. 다른 풀이씨에 대한 임자말이 인용말의 풀이말 바로 앞에 나타나 있을 때는 그 속뜻을 더욱 잡기 어렵게 된다.

내 弟子 | 제 阿羅漢辟支佛이로라 너기리 (법화 1:190)

▽「제」는 「...이로라」의 임자말이 아니라, 다음에 오는 「너기-」에 대한 임자말이다.

←제 “(내)...이로라” 너기리

네 브디 어린 사르미 엇테 네 釋子로라 하느다 (월석 9:35중)

▽「네」는 「하느다」에 대한 임자말이다.

←네 “(내) 釋子로라” 하느다.

제 울호라 하고 느물 외다 하야 (석보 9:14)

▽이 말은 더욱 그 속뜻을 잡는 데 주의해야 한다. 「제」는 「울호라」 다음에 있는 「하고」에 대한 임자말이다.

←제 “(내) 울호라” 하고

太子 | 道理 일우샤 조개 慈悲호라 하시느니 (석보 6:5)

▽이것도 앞의 예들에서와 같이 「조개」는 「하시느니」에 대한 임자말이다.

←조개 “(내) 慈悲호라” 하시느니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조개」를 바로 「慈悲호라」에 대한 임자말로 보게 되면, 「慈悲호라」에 주체높임이 쓰이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하시느니」에는 주체높임이 쓰여 있는 점에 유의할 것)

9. 인용말이란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직접으로 끌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한 말을 말할이(글쓴이)의 입장에서 간접적인 표현으로 다시 다음에서 나타내는 일도 있다.

네 문제 나를 對答호디 光明 주머귀를 보노라 하더니 =汝 | 先에 答我호디 見光明拳하노라 하더니 (능엄 1:98)

▽이 말은 부처가 아난(阿難)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아난이 한 말로는,

光明주머귀를 보노이다.



로 되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부처가 자기의 입장에서 다시 다듬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들은, 남의 생각을 말할이(글쓴이)가 그 사람(또는, 때로는 동물에까지)의 입장으로 심리전환을 일으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예들도 앞의 경우와 비슷한 형식들이다.

庶幾는 그러하겿고 브라노라 흔는 쁘디라 (석보, 서: 6)

그 後로 夫妻 | 라 흔 일후미 나니 그세 땡ㄴ노라 집지시를 쳐섬 흔니 (월석 1: 44)

각시 썩노라 늦 고삐 빚여 드라 (천강곡 상, 기 49)

多蹊는 甘子를 일버서 쁘노라 길홀 해 불을시라 (두언 25: 16)

가마오디 西入녁 히 비취엿는디 늘개 똥의노라 고기 잡는 돌해 ㄴ 독 하얏도다 = 鷓鴣西日照 曬翅滿漁梁 (두언 7: 5)

衆生濟度 하노라 ㄴ 스미 이시면 (금강삼가 2: 13)

이상의 예들은 그 인용말로서의 특색이 그리 뚜렷하지 않으나, 이 말들은 모두 글쓴이가, 등장된 인물의 입장으로 심리전환을 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세 땡ㄴ노라, 썩노라, 쁘노라, 똥의노라, 濟度하노라」는 모두 글쓴이가 작중인물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내) 그세 땡ㄴ노라(고 하여), 각시 (내) 썩노라(고), (내) 쁘노라(하여), 새가 (내—의인법) 똥의노라(고), (내) 濟度하노라(고 하는)」과 같은 속뜻을 가지고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 (가-3) 임자말의 표현 형식

11. 「-다, -으니」에 결합된 「-오/우-」는 임자말이 「나(우리)」임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말할이가 자기자신을 화제의 주체로 등장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말할이가 자신을 화제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을 경우에는, 그 주체의 표현은 반드시 「나(우리)」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 활용형이 쓰이게 된다.

功曹는 또 漢人 蕭何 | 아니로라 = 功曹非復漢蕭何 (두언 21: 17)

▽〈주〉에 “甫 | 時에 除京兆功曹故로 自謙而言하다”라 하였으니, 이 「功曹」는 杜甫가 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제 날오디 인 부테로라 하고 = 自言是佛이로라 하고 (능엄 9: 109)

▽「이」는 바로 자기를 가리킨 대이름씨라기보다 그 앞에 「나노」이 생략되어 있고, 그것을 「이」로 다시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네 한아빈 게을오미 오라오니 = 阿翁懶墮久 (두언 8: 32)

▽〈주〉에 “阿翁은 甫 | 自謂오”라 하였으니, 「네 한아비」는 이 시의 작자 두보가 자기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나그내 벼리 흔갓 使星을 벌호니 = 客星空伴使 (두언 20: 46)

▽〈주〉에 “甫 | 客星으로 自比하교”라 하였다.

愚는 信解品을 그스기 : 보·니 = 愚는 竊觀信解品호니 (법화 1: 4)

▽〈주〉에 “愚는… 어린 내라 하는 마리라”라 하였으니, 말할이 「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王이… 섬교물 즈문히 디내오니 法爲흔 전츠로… 업슨것 업게 호라 (법화 4: 155)

王이 仙人 말 듣고… 成佛 得호를 닐위오니 오늘 그럴씨 너 爲하야 니르노라 (법화 4: 156-7)

▽이 두 문장의 임자말인 「王」은 말할이 자신이니, 그 앞에,

吾… 於多劫中에 常作國王하야 (법화 4: 152)

란 말이 있고, 또

佛告諸比丘 爾時王者 則我身是 (법화 4: 157)

란 말이 바로 뒤에 있다.

제 날오디 臣은 이 酒中에 仙人이로라 하니라 = 自稱臣是酒中仙 (두언 15: 41)

▽天子가 李白을 불렀는데, 이백이 취해서 한 말이다.

弟子는 이 理를 아디 묻호니 願흔든 和尚이 爲하야 니르쇼셔 (육조, 상: 85:6)

▽「弟子」는, 스승에 대해 말할이가 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菩薩이… 이 因緣으로 成佛호매 니르로니 (월석 21: 220)



「菩薩」은 이 말을 하고 있는 忍辱太子 자신이다.

妾은 드로니 =妾은 聞 (내훈, 2상: 26, 31)

넋 나그네는 빈 머므러이쇼라 =舊客舟凝滯 (두언 24: 31)

▽<주>에 “下句는 甫 | 自嘆流寓而不得歸也 | 라”라 하였으니, 간접임자말인 「넋 나그네」는 말할이 자신이므로 직접임자말 「빈」가 삼인칭인데도 「-오/우-」가 연결되었다.

東郭엿 늘근 사르미 프른 두들게 머므러쇼라 =東郭老人住靑丘 (두언 25: 42)

▽<주>에 “老人은 甫 | 라”라 하였다.

누른 새는 저기 노로물 任意로 호노라 =黃雀任翱翔 (두언 20: 10)

▽<주>에 “黃雀은 甫 | 自言 如小雀之翱翔也 | 라”라 하였으니, 「누른새」는 이 시의 작자인 두보 자신이 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지비 다 마식 와 잇노라 =盡室在邊疆 (두언 20: 37)

▽「지비」는 이 시의 작자인 두보 자신의 가족을 가리킨 말이다.

이런드로 如來 너와 發明호디 ...이 妄想이라 호노라 =是故로 如來 | 與汝로 發明호디... 是妄想이라 호노라 (능엄 10: 78)

▽이 말은 부처가 그 제자에게 설법하고 난 뒤에 한 것인데, 여기 「如來」는 부처가 자기 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이런드로 부테 불오디... 住호느다 호노라 =是故로 佛說호디... 住 | 라 호노라 (능엄 8: 3)

▽앞의 예와 같은 경우이다.

如來 이呪를 퍼 뵈야 ...害호미 업게 호노니 너와 衆中에 모든 修行호리 내 壇場을브터 法다이 持戒호디 =如來 | 宣示此呪호야... 無... 害케 호노니 汝及衆中에... 諸修行者 | 依我壇場호야 如法持戒호디 (능엄 7: 60)

▽「如來」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부처 자신이다. 「내 壇場」에서는 대이름씨로 받고 있다.

世尊이... 告호야 니르샤디 如來 상네 닐오디... 體 | 이느니라 호노니 (능엄 1: 87)

▽부처가 자신을 「如來」라 일컫고 있음은 앞의 경우와 한가지이다.

比丘들하 如來 또 이 곧호야 이제 너희 爲호야 큰 導師 | 두외야 이셔... 度호얍직 호니를 아노니 (월석 14: 78)

▽위의 경우와 한가지다.

愚 | 아롬더 疑心호노니 (능엄 1: 16)

▽<주>에 ‘愚는 어릴씨니 어린 내라 호미라’라 하였으니, 의심할 여지없이 말할이 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能이 늘오디 能은 字를 아디 몰호노니 請호든 上人이 爲호야 닐그라 (육조, 상: 23-4)

▽「能」은 말할이 자신의 이름이다.

12. 임자말이 「내 일홈」, 「내 닻숨」인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키거나 자기자신에 관한 말을 하게 되므로 「-오/우-」를 요구한다.

내 일후몬 아모 甲이로니 =我名은 某甲이로니 (법화 2: 222)

제 本來人 일후몬 아피오 내 일후몬 아모 甲이로니 (월석 13: 29)

내 닻숨미 이 곧호니 받드기 이 브들 體호라 =我心이 如是호니 當體此意호라 (법화 2: 216-7)

太子 | 닐오디 그뒗넷 말 곧디 아니호니 (월석 21: 216)

▽「그뒗넷 말 곧디 아니호니」의 임자말은 「내 닻숨」이다.

13. 다음 예들도 모두 같은 것들이나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제 세 브들 모도아 자바 스뭇 골히야 니르노니 호나호니... (월석 13: 40)

▽이것은 주석에 나타나는 말인데, 「니르노니」의 주체는 이 주석을 붙인 사람 자신이다.

이런드로 이제 略히 호고 바르 자취 드되여 서르 돕는 브들 取호야 사기노니 닷가 나사加里 번드기 쉬이 알와디 브라노니 (능엄 8: 44)

▽이것도 주석의 말로서, 「사기노니, 브라노니」의 주체는 주석을 붙인 사람 자신이다.

善男子아 一切衆生이 皆證圓覺호노니 =善男子아 一切衆生이 다 圓



覺인들 證호노니 (원각, 하 1-1: 54)

▽이것은 자칫하면 잘못 해석하기 쉬운 말이다. 한문에서는 「皆證圓覺호노니」의 입자말은 「一切衆生」으로 되어 있는것 같아서, 「-노니」의 용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뒤엎는것 같이 생각되기 쉬우나, 그 번역을 보면, 「一切衆生」은 「圓覺인들」의 입자말이고, 「證호노니」의 입자말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주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譯經이 訛也 一니 應云證諸衆生이 有皆圓覺이니라=經翻譯이 의니 반득기  
닐오디 한 衆生이 다 圓覺 두쇼물 證호노라 홀디니라 (같은 자리)

즉, 경 번역에 「一切衆生이 皆證圓覺」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번역의 잘못이고, 마땅히 「衆生」이 「圓覺 있음」을 「내(부처)」가 證한다고 해야 한다고 주석한 사람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로 다시 번역한 사람은, 한문 주석자의 말을 좇아 ‘내(부처)가 一切衆生이 다 圓覺 가졌음을 證호노라’란 뜻으로 새기면서, 이 생각을 잘못된 한문 번역문인 「一切衆生 皆證圓覺」에까지 미치게 한 것이다.

(가-4) 입자말이 둘인 경우

14. 간접입자말과 직접입자말의 두가지가 있는 월에 있어서는, 간접입자말이 「나(우리)」일 때는 직접입자말은 제삼인칭일지라도 「-오/우-」를 취함이 원칙인데, 그것은 직접입자말을 포함한 마디에 대한 주체는 말할이 자신이기 때문이다.

내 지의 이실찌리 受苦호미 이러호니 이런 因緣으로 道理를 得호라 (월석 10: 26)

▽「나」는 「受苦호미 이러호니」에 대한 입자말이고, 「受苦호미」는 「이러호니」에 대한 입자말이다.

내... 受苦호미 이러호니

그러므로 「이러호니」를 중심으로 본다면 「受苦호미」는 그 직접적인 입자말이고, 「내」는 그 간접적인 입자말이다.

「受苦호미 이러호니」는 말할이 자신에 대한 서술이다.

우리 브즈러니 精進호야... 得흔거시 만호라 호다니 (월석 13: 34)

우리... 호마 涅槃을 得호야 맞들 이리 업소라 호고 (월석 13: 4)

내 난 後로 瞋心호적 업소라 (월석 21: 216)

북극매 불이는 구미뿔 터리 세유라 = 颯颯鬢毛蒼 (두언 24: 10)

▽이 문장의 입자말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그 <주>에 「此는 甫」言... 吾年已老也」라」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간접입자말은 「나」이다.

내... 두리부미 업소니 (월석 7: 5)

내... 흥번도 더만흔 일 업수니 (석보 6: 4)

내 念호디... 오직 子息이 업수니 (법화 2: 189)

▽간접입자말은 역시 「나」이다.

내 기싸바... 八解脫이 ㄴ조니... 내... 受苦호미 이러호니 이런 因緣으로 (월석 10: 26)

그제 化人이 偈로 對答호샤디 (나는) 베타도 모더로미 업고 쏘아도 怒」 업소니 이 壯을 眈혀리 업스니 (월석 10: 30)

▽끝의 「업스니」의 입자말은 「眈혀리」이므로 「-오/우-」가 연결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시르미 기퍼 넘난 ㅁ수미 업수니 願을 일우면 (월석 2: 5)

▽이와 비슷한 짜임새의 월은 앞에도 나와 있는데, 앞의 「나는」은 「시르미 기퍼」에 대한 직접입자말이고, 「넘난 ㅁ수미 업수니」에 대한 간접입자말 「나」는 생략되어 있다.

아비... 제 念호디 ...子息이 업수니 호랏 아츰 주그면 천라을 일하 맞들 싸히 업스리로다 호야 (월석 13: 10)

▽끝의 「호야」에 대한 입자말은 「아비」이고, 「子息이 업수니」에 대한 간접입자말은 밖에 나타나지 않은 「나」이다.

15. 입자말이 대이름씨와, 그와 동격인 설명하는 이름씨로 되어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

우리 어시아드리... 중성마도 ㅁ호이다 (석보 6: 5)

우리 어시아드리... 주구를 기드리노니 목수미 ㅁ거본 거실썩 (석보 6: 5)

16. 「나(우리)」와 다른 사람이 서로 같은 행동을 할 때에도 주체는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나」를 포함한 「우리」이므로 「-오/우-」가 연결된다.

문드시 서르 맛:보니 = 忽漫相逢 (두언 23:23)

洞庭에 서르 맛:보니 열두히로다 = 洞庭相逢十二秋 (두언 23:46)

우리와 天人이... 다 머리 좇스와 無上尊의 歸命<sup>호</sup>습노이다 = 我等及天人이... 咸稽首<sup>호</sup>수와 歸命無上尊<sup>호</sup>습노이다 (법화 3:100)

그저기 모뎃는 大衆들히... 흔뻬 닐오디 一切衆生들히 다 버서나과 더여 願호노이다 (석보 11:3)

그저기 모뎃는 大衆이 닐오디 一切衆生이 다 解脫을 得과더 願호노이다 (월석 21:8)

鬼王이 부뎃기 솔보디... 내... 오직 願호디 衆生들히... 큰 利益을 얻과더 호노이다 (월석 21:128)

이 세 예문은 모두 비슷한 문맥으로 된 것인데, 이들 임자말인 「一切衆生들, 一切衆生, 衆生」에는 모두 말할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나) 2·3-인칭법

—「-오/우-」 없는 「-다, -으니」 활용형—

17. 앞의 여러 활용형(→p.732)에서 「-오/우-」를 빼낸 활용형은, 그 임자말이 말할이 자신이 아닐 때에 쓰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2·3-인칭법」이라 한다.

18. 물음법에 있어서는 2-인칭과 1·3-인칭이 대립되어 문법적으로 다른 범주로 표현되는 일이 있는데(→p.495 이하), 여기에서는 1-인칭과 2·3-인칭이 대립되어 다른 문법범주로 표현되는 점이 매우 흥미 깊은 일이다. 이것은, 물을 때는 그 물음이 들을이에 관한 일이나, 아니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인데, 풀이의 경우에는 그것이 말할이 자신에 관한 일이나, 아니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 「-다」

이 뻬 아들들히 아비 죽다 듣고 (월석 17:21)

닐곱히 너무 오라다 (월석 7:2)

보미 퍼며 울추미 잇다 호미 울티 아니<sup>호</sup>니라 (능엄 2:41)

無色界엿 눅뜨리 마르비 마티 느리다 혼 말도 아시며 無色이 머래 좃다 혼 말도 이시며 (월석 1:36-7)

너도 또 이 곤다 (능엄 2:23)

보미 네 알피 잇다 호미 이 쁘디 實티 아니타 (능엄 2:47)

부뎃 니르샤더 올타 올타 네 말 마르니라 (석보 9:22)

「올타」의 임자말은 「너」 또는 「네 말」이다.

느물 외다 하야 (석보 9:14)

「외다」의 임자말은 밖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속뜻으로는 「놈」이 주체로 되어 있다.

耶輸 | 부뎃 使者 왓다 드르시고 (석보 6:2)

幻은 꼭되라 (능엄 2:7)

光目女는 地藏菩薩이 크라 (월석 21:59)

人人은 사름마대라 (석보, 서:6)

스춤 아노미 아니라 (월석 1:36)

내 智分 아니라 (법화 2:239)

#### 「-으니」

舍利佛이 흔 獅子 | 를 지서내니 그 쇼를 자바 머그니 (석보 6:32)

「머그니」의 임자말은 속뜻에 있는 「그獅子」이다.

그 이리 이러히니 이 因緣으로 (월석 21:210)

婢 흔 아득를 나히니 사을 몬 차셔 말하며 (월석 21:55)

瞿曇이... 請을 바드니 一切智 아닌들 알라 (월석 21:198)

난 닐웨에 어미 命終히니 薄相엿 사르미며 (월석 21:198)

네 아득리 ...허플 업스니 어드리 내티료 (월석 2:6)

「업스니」의 직접임자말은 「허플」이고, 「허플 업스니」의 임자말은 「아들」이다.



이 閻浮衆生이... 罪 아니니 업스니 (월석 21:102)

이 문장의 짜임새도 앞의 경우와 비슷하다.

地獄罪報] 그 이리 이러하니 (월석 21:79)

이것도 앞과 같은 짜임새다.

羅漢이 ... 光目の 어미를 보·니 (월석 21:53)

目連이 耶輸入宮의 .가 보·니 (석보 6:2)

「보·니」는 「-오/우-」를 취하지 않은 어형이다. (「보-」에 「-오/우-」가 연결되면 「:보-」로 성조 변동을 일으키면서 「-오/우-」는 무형으로 바뀐다.

결본 3 中에도 離別 마득니 업스니 (석보 6:6)

法 드로미 어려보니 (석보 6:11)

狐는 열이니 그 性이 疑心 하니라 (능엄 2:3)

이 마장 도흔 藥이니 (월석 17:18)

沙彌는 새 出家한 사르미니 (석보 6:2)

이 因緣 업수미 아니니 이 相을 求호미 올토다 (법화 3:118)

진딧 업수미 아니니 (월석 1:36)

「-습-」+ {「-다」  
「-으니」} → {「-습다」  
「-습느니」}

妙音이 ... 多寶란 몬 보습다 하니 (월석 18:81)

天食을 먹스느니 念佛三昧에 드라 (월석 7:26, 기 196)

湏達이 ... 世尊을 念하느느니 누니 도로 붉거늘 (석보 6:20)

그뿐 ... 無量鬼王이 ... 부텃고 다드조느니 (월석 21:112)

「-느-」+ {「-다」  
「-으니」} → {「-느다」  
「-느느니」}

나는 드로니 겨집도 ... 沙門入 四道를 得하느다 흘씨 (월석 10:16)

光明이 四天下를 비취느다 하느니 (몽산 53)

이웃 막술히 사름들히 羅卜이 오느다 듣고 (월석 23:74)

미혹한 사르몬 오히려 菩薩의 무루물 기드리느다=癡心은 猶待問菩薩

하느다 (금강삼가 2:50)

미했 새 놀애 브르느다=野鳥] 歌하느다 (금강삼가 3:14)

妙音菩薩摩訶薩이 ... 法華經을 듣고져 하느다 (월석 18:75)

네 오히려 아디 못하야 ... 自然을 살느다=汝] 猶未悟하야 ... 爲自然하느다 (능엄 2:66)

衆生이 내 뜨들 몰라 生死애 다 便安티 못게 하느니 엇테어노 하란 덕 (월석 21:123)

百千惡道鬼神이 ... 惡道애 떠러디게 하느니 하물며 本來 모딘 일 짓다 니작니잇가 (월석 21:126)

이 무렛 사르몬 ... 뜨거본 돌 지듯하야 ... 漸漸 뜨거비 자곡마다 갚느니 하다가 善知識을 만나 (월석 21:102)

地藏菩薩이 ... 利益한 이리 잇느니 閻浮衆生이 이 大士애 큰 因緣이 잇느니 (월석 21:99)

이 經이 세 일후미 잇느니 한 일후몬... (월석 21:101)

舍衛國에 한 大臣 湏達이라 호리 잇느니 아르시느니잇가 (석보 6:14)

네... 諸衆生을 擁護하느니 하다가 未來世中에... (월석 21:127)

네... 如來入거의 이러듯한 이를 能히 묻느니 子細히 드러 이대 思念하라 (월석 10:69)

너희 디마니흔 이리 잇느니 썰리 나가라 (월석 2:6)

네 내의... 度脫하논 이를 보느니... (석보 11:7-8)

네 이제... 祇陀林을 보느니... (능엄 1:48)

네 이제... 부터를 만나 잇느니 (석보 6:11)

너희와 閻浮天子] 能히 이 마티 善男子 善女人을 擁護하느니... (월석 21:123)

「-습-」+「-느-」+ {「-다」  
「-으니」} → {「-습느다」  
「-습느느니」}

華嚴에 十地菩薩이 ... 能히 多百佛이며 多百千億那由他佛에 니르래



보습는다 하사미 (월석 18:55)

難히 보습는다 니르샤문=言難值遇 (법화 5:148)

그 大菩薩衆이... 諸如來를 歌詠하습느니 이 존흔 種種 이리 네 未曾有ㅣ니 (법화 5:184-6)

大王이 ... 百姓을 어엿비 너기실찌 十方엿 사르미 다 아습느니 오  
늑나래 엿더 시르플 하시느니잇고 (월석 10:4)

부테 日中으로 바블 바드실찌 이런드로 每常 日中에 받습느니 中夜  
논...(능엄 7:17)

「-으이-」+「-다」→「-으이다」

달음 업스이다 = 無有異하이다 (능엄 2:9)

文殊師利하... 하늑 樹王이 고지 프듯 하이다 = 如天樹王이 其華ㅣ開  
數듯 하이다 (법화 1:85)

▽간접, 직접임자말이 다 3-인칭이다.

소리 업스이다 = 無聲하이다 (능엄 4:126)

▽「하이다」는 「하이다」의 변형이다.

「하이다」와 같은 어형에 있어서, 「이」의 「ㅣ」가 줄고 「ㅇ」만이 남아 앞 음  
절의 종성이 되는 일도 있다.

帝 깃그샤 도형다 하시다 (내훈, 2하:45)

▽도하이다→도히이다→도형다.

帝 니르샤디 올형다 내 하마 親王과 駙馬와 大學生과로 다 講論하며 넘  
게 형다 (내훈, 2하:50-1)

▽올하이다→올히이다→올형다

호이다→\*회이다→형다

2·3-인칭과 1-인칭 활용의 다름은 「형다:형다」로 나타나 있다.

「-습-」+「-느-」+「-으이-」+「-다」→「-(습)느이다」

六師ㅣ 王의 솔보디 瞿曇의 弟子ㅣ 두리어 몬 오느이다 (석보6:29)

釋迦牟尼佛이 多寶佛의 솔보샤디 이 妙音菩薩이 보습고져 하느이다

(월석 18:81)

이제 祇陁林은 實로 堂 밖기 있느이다 = 今祇陁林은 實在堂外하이다  
(능엄 1:48)

阿難大衆이 다 솔오디 소리 있느이다 = 阿難大衆이 俱言호디 有聲하  
이다 (능엄 4:126)

▽「-느이다」는 「-느이다」의 변동형이다.

轉輪聖王이 와 ... 마 존 道를 들굽고져 하습느이다 = 轉輪聖王이 至하야  
... 欲聞具足道하습느이다 (법화 1:165)

一切衆이 깃스와 未曾有를 讚歎하습느이다 = 一切衆이 喜嘆未曾有하습  
느이다 (법화 3:124-5)

#### (다) 예외

19. 이상에서 설명한 규칙에 맞지 않는 예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예  
외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 (다-1) 이유 없는 예외

20. 「-오/우-」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예외가  
있다.

내 네 아비 존하느니 느외야 시름 말라 (월석 13:23)

▽다음 예와 비교.

우리논 다 부텃 아들 존하느니 (월석 13:32)

내 모물 도라하느니 즉자히 스러디고 (월석 2:64)

(내) 뽕가온디 드러 묻아기를 보느니 (월석 10:24)

▽「보-」에 「-오/우-」가 연결되면 「:보-」로 변동한다.

내 이 識이라 헤며 내 色과 달오라 헤며 (법화 1:189)

▽뒷귀절의 「달오라」로 보면, 「識이라」도 「識이로라」가 되어야 할 것이  
다.

二乘이 能히 아디 몬홀찌 오직 내 이 相을 아노라 하시고 = 二乘이  
不能測故로 唯我ㅣ知是相이라 하시고 (법화 1:157)



「我」… 相이로라」로 되어야 할 말이다. 다음의 예 참조.

後世를 기리 주노라 = 永貽諸後云爾로라 (법화, 서: 18)

내 … 鼻中엿 氣分을 보·니 = 我… 見鼻中氣호니 (능엄 5: 56)

▽한문의 토와 비교하면 마땅히 「:보·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그 방점에 오각(誤刻)이 있는 것이나 아닐까 추측된다.)

눈뜨를 스주니 옷기제 젖는 피오 머리를 비스니 낙치 ㄹ독흔 시라  
로다 = 拭淚霑襟血 梳頭滿面絲 (두언 8: 28)

▽「스주니」로 보면 「빗-」는 주체도 말할이 (이 시의 작가) 자신일 것임에 틀림 없으므로, 「비스니」는 「비수니」의 잘못이다.

21. 이상은 「-오/우-」가 들어가야 할 데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예들이나, 그 반대의 현상(「-오/우-」가 없어야 할 곳에 들어간 예)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드물다.)

술 스랑호몬 晉入 山簡이오 詩 잘호몬 何水曹 | 로라 = 愛酒晉山簡 能詩何水曹 (두언 7: 21)

▽중간에는 「何水曹」로다」로 바로 되어 있다.

네 드로니 黃金이 하면 아자서 뉘웃부미 나물 보느니라 호니 = 昔聞黃金多 坐見悔吝生 (두언 22: 20)

쫘은 드로니… 君臣이 서르 保全호몬 어렵다 호니 (내훈, 2하: 41)

아래 드로니… 子孫이 封侵호리 있다 호니 (내훈 2하: 9)

쫘은 드로니 賞罰이 公反호야사 足히 사르물 降伏호느다 호니 (내훈, 2하: 53)

▽위의 몇가지 예는 모두 “(나는) 드로니… 호니”와 같은 말투로 되어 있는데, 이 끝의 「호니」의 용법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데에는 「호니」 형이 쓰인다.)

22. 들어가야 할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예외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 사실은, 다음 시기로의 변화의 방향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다-2) 이유 있는 예외

23. 이상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예외이나, 다음과 같은 것은 그 나타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4. 임자말이 들인 경우, 간접임자말이 「나(우리)」일 때는 「-오/우-」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p. 748 참조),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그 직접임자말에 끌려서 「-오/우-」 없는 활용형을 쓰는 일도 있다.

우리 出家호라 :오·니 우리는 憍慢흔 ㅁ슴 하·니 (월석 7: 3-4)

▽「하니」는 그 방점으로 보면 「-오/우-」를 연결하지 않은 어형이다.

내 이제 衰老호야 주ळ時 호마 다드르니 (법화 5: 157)

25. 말할이가 자신을 대이름씨의 「나(우리)」 아닌 다른 이름씨로 부를 때에도 「-오/우-」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p. 744 참조), 이러한 경우에 그 제삼인칭적인 표현에 끌려 「-오/우-」가 들어가지 않는 일도 있다. (대이름씨와 동격의 이름씨가 겹쳐질 때도 한가지다.)

우리 鬼王들히… 시혹 사르물 利益호며 시혹 사르물 損害호야 各各 존디 아니호니 (월석 21: 121)

우리 혼가짓 百千萬億 사르미… 教化를 受호스바 잇느니 (석보 13: 45)

우리 諸山엿 道士들히… ㅁ호논 일 업스니 (월석 2: 71)

▽앞의 예는 「우리」가 있는데도 그 다음에 「鬼王, 사름」이 동격의 임자말로 쓰였기 때문에 이에 끌린 것이오, 뒤의 예는 그러한 이유에, 다시 직접임자말 「일」에 두점으로 끌린 것이다.

내 ㅁ슴미 이러호니 (월석 13: 27)

▽내 ㅁ슴」이 「-오/우-」를 요구한 예는 앞에 나와 있다(p. 747).

이제 나와 너애 곧 다르디 아니호니 (월석 13: 28)

▽이것도 임자말에 「나」를 포함하고 있으나, 「아니호니」에 더 가까운 「너」 때문에 「-오/우-」가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아바ㄴ 病이 도호실시언덩 모물 百千디위 브려도 어렵디 아니호니 호물며… (월석 21: 216)

▽「모물… 어렵디 아니호니」의 임자말은 「나는」으로 생각하여 예외로 볼 수도 있으나, 「어렵디 아니호니」의 임자말을 속뜻으로 「몸을 百千번 버리는 것」으로 잡으면 「아니호니」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



(다-3) 잘못된 표기

그의 ㅁ수매 연저슈물 붓그리노라 = 愧服膺 (두언 20:25)

▽이것은 「붓그리노라」의 잘못된 것으로 보아진다.

(라) 남은 말

26. 인칭활용에 관한 일로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제들이 몇가지 있다.

첫째, 일반적인 진리.

둘째, /빙/ 없어지고 난 뒤의 「-습-」을 포함한 어형.

셋째, 두가지 어형이 한 월 안에서 사용된 경우.

넷째, 인칭활용형과 혼동되기 쉬운 예.

(라-1) 일반적인 진리의 표현

27. 일반적인 진리를 서술할 경우에는 그 임자말은 누구가 되든지 상관 없는 것이므로 임자말을 「나(우리)」로 상정할 수도 있다.

千百億은 百億곰 호니 一千이라 혼 마리니 (월석 2:54)

28. 그러나 이 경우에는 행동(상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꼭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2·3-인칭 활용형을 쓰기도 하는데, 이 편이 더 보편적이다. (이것도 다음 시기로의 변화의 경향을 암시한 일로 해석된다.)

法이 펴디여 갈씨 그우리다 호느니 (석보 6:18)

能히 妄念에 性 빈들 스몏 비취면 大道를 아다 호리라 (월석 9:23)

婆稚는... 엷디여다 혼 마리니 (석보 13:9)

沙彌는... 慈悲入 힘더글 하다 호는 브디니 (석보 6:2)

▽누가 「엷디여」거나, 누가 「慈悲入 힘더글 하」거나 상관 없는 것이다.

不能은 몰호느다 호는 브디라 (석보, 서:1)

止는 마느다 호는 브디라 (석보, 서:3)

乾達婆는 香내 말느다 혼 브디니 (월석 1:14)

拘躡陀羅는 ㅁ장 노느다 호는 마리니 (석보 19:18)

(라-2) /빙/ 소실 후의 어형 혼란

29. /빙/이 없어짐에 따라 「-스(스,즈)보라」는 「-스(스,즈)오라」로 변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킴법의 「-스(스,즈)보라」에서 변한 것과 외형 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르미... 혼 ㅁ수ㅁ로 기드리스오라 (<-스보라; 법화 1:129)

이존흔 法을 내 부터를 조짜와 들즈오라 하니 (<-즈보라; 능엄 1:23)

30. 2·3-인칭 활용형 「-스(스,즈)보니」와 1-인칭 활용형 「-스(스,즈)보니」는 다 같이 「-스(스,즈)오니」로 변하여 구별이 없게 된다.

沙彌들히... 法化를 펴 돕스오니 (<-스보니; 법화 3:190)

迦葉이... 能히 受<sub>호</sub>스오니 이 希有호미라 (<-스보니; 법화 3:30)

羅睺羅는 이 부텃 아드리스오니 = 羅睺羅는 是佛子<sub>스</sub>오니 (<-스보니; 법화 4:48)

(내) 이제 ㅁ르쳐 뵈샤물 넙스오니 = 今蒙指示<sub>호</sub>스오니 (<-스(스)보니; 육조, 상:38)

내 쯔 부테... 成道호샤물 보스오니 (<-스보니; 능엄 5:34)

이 존호물 내 들즈오니 = 如是를 我聞<sub>호</sub>스오니 (<-즈(스)보니; 금강 1)

내 부텃 몬아드리스오니 = 我爲佛長者<sub>스</sub>오니 (<-스보니; 법화 1:169)

31. 그러나 그 문맥에 의해서 어느 편 활용형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다음도 한가지다.

버거 부텃 고들 깁스오이다 = 次補佛處<sub>호</sub>이다 (능엄 5:82)

▽「깁스오이다」는 한문토의 「호이다」로 판단하면 「깁스보이다」의 변화형이다. 따라서 주체는 말할이 자신이다.

(라-3) 두가지 어형이 한 월 안에 나타나는 일

32. 「-노니」와 「-느니」가 같은 월 안에 섞여있는 문장이 많은데, 이

5. 안팎음씨끝의 굴곡범주



것은 두 어형의 차이를 한층 더 분명히 해준다.

夫人이 슬보디 (내) 나랏 이를 분별하야 숯노니 내 아드리 어디랴  
百姓의 므스물 모도야 黨이 하마 이러 잇노니 서르 드토아 싸호면  
나라히 느티그에 가리이다 (월석 2:6)

내 이제 成佛하야 大愛道의게 또한 恩惠 잇노니 大愛道 | 내 德으  
로 ...五戒를 受하야 더니노니...(월석 10:19)

▽「잇노니」의 직접임자말은 「恩惠」이나, 간접임자말은 「내」이다. (p.748 참  
조)

내 너희들홀... 업시우디 아니하노니 엇테어노 하란디 너희들히 다  
菩薩道를 行하노니 다다이 부테 드외리라 (월석 17:83)

이 무를 내 시름하야 念하노니 내 하마 디나진 願을 므차 ...罪 무를  
너비 度脫하노니 내 또 므슴 시름하리오 (월석 21:49)

——獄中에 또 百千가짓 苦楚 | 잇노니 하물며 한 獄이썸네 내 이  
제 부렛 威神과 仁者人 무루를 바다 어들 너르노니 너비 사겨 닐을  
덴 (월석 21:81)

#### (라-4) 인칭활용형과 혼동되기 쉬운 예

33. 다음과 같은 예는 「-노니」 활용형이 아니니 주의를 요한다.

切利는 第二天이니 혼디 잇노니 오직 天人이오 兜率은 곧 第四天이  
니 혼디 잇노니 菩薩이시니 (법화 7:177)

▽이것은 「잇+느+오+니+이(매인이름씨)」로 분석된다. 즉 「있는 것이」의  
뜻이다.

#### (마) 「-오/우-」와 배타적인 안맺음씨끝과의 결합

34. 맺음씨끝 「-다」, 「-으니」에 앞서는 「-오/우-」는 그 주체가 말할  
이 자신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용형에 있어서는 주체높임의  
「-으시-」는 결합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는 말할이가 자기자신을 높  
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도 약간의 예외가 나타난다.

#### 35. 「-으시노라」 형:

一切 하논 일 잇논 法이 便安티 몸흔주를 如來 보시노라 하시며 人  
天들히 色身에 즐겨 貪著흔 사름 위하샤 無常을 보시노라 하샤  
涅槃을 하시니 (석보 23:18)

「보시노라」는 일종의 인용말인데, 그 직접적인 말은 “보노라”이다.  
즉 「如來 보시노라 하시며」는 그 속뜻은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如來 “(내) 보노라” 하시며...

원래 「如來」는 「하시며」의 임자말이고, 「보노라」의 임자말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내」인데, 「내」가 생략되고 「如來」가 「보노라」의 바로  
앞에 오게 되자, 말할이의 의식으로는 그 인용말임이 똑똑하게 인식이  
되지 않아서, 밖으로 바로 앞에 나타나 있는 「如來」를 「보노라」의 직접  
적인 임자말로 생각하여 「보시노라」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한계가 그리 똑똑하지 않음이 우리말의 한 특  
색인데, 이러한 어형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앞에 p.743  
에 나온 「光明 주머귀를 보노라」(능엄 1:98)의 경우와 비슷한 예이다.)

▽다음 예에 나오는 「-노-」는 강조-영탄법의 안맺음씨끝이다. (p.948)

부테... 오늘 또 우업슨 못 큰 法輪을 옮기시노소이다 (법화 2:46-7)

36. 「-오/우-」가 없을 경우에는 「-으시-」와 「-느-」는 자유로이 결합  
될 수 있다. (그리하여 2·3-인칭 임자말에 응한다.)

釋迦牟尼佛이... 에구든 모딘 衆生을 降伏하<sub>느</sub>시<sub>느</sub>다 (석보 11:4)

舍利弗아 엇테 諸佛世尊이 다몬 혼 큰 있 因緣으로 世間에 나시<sub>느</sub>  
다 하거노 (석보 13:48)

文은 늬 어여제 너기시노다 혼 뜨디라 (월석 2:52)

▽이 말은 임자말의 인칭이 중화된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이다.

부테 니르샤디 이러흔 妙法은 諸佛如來 時節이어샤 니르시노니 優  
曇鉢華 | 時節이어샤 혼번 보요미 존하<sub>느</sub>니라 (석보 13:47)



오느나래 世尊이 神奇로된 變化入相을 보시느니 엇던 因緣으로 야  
런 祥瑞 잇거시뇨 (석보 13:14-5)

諸佛이 口수물 브터 解脫을 得히시느니 口수미 淸淨하야 (월석 9:23)

諸佛도 出家하야사 道理를 닷마시느니 (석보 6:12)

### 37. 「-으샤리라」 형 :

이 어형은 「-으시-」+「-오/우-」+「-으리-」+「-라(←다)」로 분석되는  
데, 「-오/우-」 앞에서 「-으시-」는 「-으샤-」로 변동하고 「-오/우-」는 무  
형의 변이형태를 취하게 된다.

장차 精持를 나토샤리라 몬져 이틀 드리 니르샤몬 (월석 17:78)

이 말의 뜻은 ‘(부처님께서) 장차 정지를 나타내시리라(고 하여) 먼저  
이것을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인데, “精持를 나토샤리라”는 부처의 생  
각을 인용해 온 말이다. 그런데 부처가 생각한 바는 이대로가 아니라,  
「-으시-」가 없는 형태인 “(내) 精持를 나토오리라”(내가 정지를 나타내리  
라)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속뜻을 생각하면서 그 임자말인 「내」를 생략  
하고 표현하다 보니, 「나토리라」의 임자말을 「부터」인양 혼란을 일으켜  
이 서술말에 「-으시-」를 연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 38. 「-오/우+니라」 형 :

「-라(←다)」 앞에서는, 안맺음씨끝 「-으니-」는 2·3-인칭에 응하고,  
그에 대한 1-인칭 형태는 「-과(와)-」이다. (p.796 참조) 그러므로 이 활용  
형에서는 「-오/우-」와 「-으니-」는 서로 배타적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  
은 활용형은 그 나타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내 毗奈耶애 몬져 願 마르초미 이쇼니라=我 毗奈耶애 先有願敎호  
니라 (능엄 7:23)

39. 밖의 형식은 이와 꼭 같으나, 그 속구조가 다른 것이 있으니, 구별해야  
한다.

十方虛空이 다 그 내요니라 하야 =十方虛空이 威其生起리 하야 (능엄 10  
:52)

末邊은 枝葉을 닐오니라 (몽산 37)

阿難이 부터희 슬오디 世尊하 이마디 愛樂하수오몬 내이 口슴과 누눌 뿌니이  
다=...用我的 心目이이니이다 (능엄 1:45)

이러한 말들은 모두 「-오/우+으니-」의 형식과 밖으로는 구별되지 않으나, 이  
것들은 「-오/우+은(매김법 씨끝)+이(매인이름씨)-」로 분석된다. 즉 「내요니라」  
는 ‘낸것이라’, 「닐오니라」는 ‘이른것이라’, 「뿌니이다」는 ‘쓴것입니다」로 해석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요니라, 닐오니라, 뿌니이다」는 모두 1-인칭활용으로 보  
아야 할터인데, 이 말들은 1-인칭월이 아닐뿐 아니라, 그 한문의 토 「生起라, 心  
目이이니이다」를 보면 1-인칭활용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은 1-인칭  
활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매김씨끝과 매인이름씨의 결  
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2) 「-다, -으니」 활용형 (2)

—「-으리-」가 연결된 경우—

40. 인칭활용형 「-우라, -우니」에 안맺음씨끝 「-습-」, 「-느-」, 「-으  
이-」가 개입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라, -우니」 활용형의 성  
격을 바꾸는 일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안맺음씨끝 「-으리-」가 개입되면, 「-오/우-」와 「-으  
리-」의 접촉에서 새로운 문법적 현상이 일어난다.

41. 「-오/우-」와 「-으리-」가 한 풀이씨 안에 공존하는 활용형은 다음  
과 같다.

① -오/우+리+라(←다)

② -오/우+리+이+다

③ -스보+리+라(←다)

④ -스보+리+이+다

⑤ -오/우+리+니

⑥ -스보+리+니



(가) 1-인칭 의도법

(가-1) 전형적인 예

42. 「-오/우+리-」를 포함한 이상의 활용형들은 단순히 말할이 자신 (또는 말할이를 포함한 사람들)이 주체로 등장되었을 때 응하는 활용형 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말할이의 의도를 아울러 나타내고 있음이 특색 이다.

{ 「-오/우+리+라」, 「-스(스,즈)보+리+라」 }  
{ 「-오/우+리+이+다」, 「-스(스,즈)보+리+이+다」 }

「-우리라」: 내 받들기 너 爲하야...닐오리라=吾當爲汝하야...解說호리라  
(법화 1:171)

나도 또 조차 順하야 行호리라=我亦隨順行호리라(법화 1:237)

내 너 爲하야 ...一千五百히를 이쇼리라 (월석 7:55)

슬퍼 드리 이대 思念하라 내 너 爲하야 고티야 닐오리라 (월석 21:50)

내 이제 무로리라 (석보 13:15)

내 이제 너를 生滅 아니하느 性を 뵈요리라=我ㅣ 今에 示汝不生滅性 호리라 (능엄 2:8)

내 이제... 마초아 불교리라=吾ㅣ 今에... 舍明호리라 (능엄 2:87)

내 正히 그 하느래 :나리·라 (석보 6:36)

부테 니르샤디 내 이제 分明히 닐오리라 (석보 19:4)

「-스보리라」: 내 이제 다시 舍利를 供養하스보리라 (월석 18:40)

「-우리이다」: 내 :가·리이·다 (용 94장)

文殊師利 부텃기 슬브샤디 내 盟誓를 호노니... 善男子 善女人들히...  
즈웁저기라도 이 부텃 일후므로 들여 씨든기 호리이다 (석보 9:20-1)

▽「善男子 善女人들히」를 「호리이다」의 임자말로 잡기 쉬우나, 이 말은 「씨든-」의 임자말이고 「호리이다」의 임자말은 「나」이다.

聖母하 願하든 드르쇼셔 내 멀테로 닐오리이다 (월석 21:38)

우리도 이런 眞實入 조흔 큰 法을 得고져 하야 바다디녀 닐그며...

쓰며 하야 供養호리이다 (석보 19:37-8)

世尊하 ...내 상네 ...이 사르물 衛護하야 ...一切 모딘 이를 다 消滅  
케 호리이다 (월석 21:151)

내 부텃기 슬바 :보·리이·다 (월석 10:18)

오샤사 내 :나·리이·다...아니 오시면 내 이쇼리라 (천강곡 상, 기132)

우리 오늘... 이 브들 불교리이다 (월석 13:6)

내... 이제 받들기 저기 솔오리이다=我ㅣ... 今當略說호리이다(법화 1:73-4)

「-스보리이다」: 내 어루 (精舍를) 이룩스보리이다 (석보 6:22)

우리들히... 諸佛을 좇즈바 뵈호스보리이다 (월석 10:31)

우리 듣좁고 다 닷가 뵈호스보리이다 (월석 14:42)

내 이제 疑心이 이셔 如來至眞等正覺씨 문좁고져 호노니 부터웃  
許하시면 문즈보리이다 (월석 10:67)

43. 임자말 「나」가 생략되는 일도 있으며,

너를 도라갈 샤 업수물 뵈요리라=示汝無所還地호리라 (능엄 2:27)

金으로 싸해 々로물 뽈 업게 하면 이 東山을 프로리라 (석보 6:24)

네 이대 드르라 너 위하야 닐오리라 (석보 13:47)

善慧 對答하샤디 부텃기 (고졸) 받즈보리라 (월석 1:10)

둘히 어우러 精舍 땡라 부텃기 받즈보리라 (석보 6:26)

經과 袈裟와 바리와를... 내야 받즈보리이다 (석보 24:31)

즈라면 어루 法을 뵈호스보리이다 (석보 6:11)

44. 또 임자말은 반드시 대이름씨의 「나, 우리」일 필요도 없다.

如來ㅣ... 涅槃애 드로리라 (법화 1:107)

▽「如來」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부처 자신이다.

이 會엿 無數百千萬億 阿僧祇 衆生이... 부텃 마를 듣즈브면 어루  
恭敬하야 信하스보리이다 (석보 13:45)



▽이「衆生」안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舍利弗)도 포함되어 있다.

45. 그리고 대이름씨와 동격의 이름씨가 함께 표현되는 일도 있다.

世尊하 願호든 分別 마르쇼셔 우리 千萬億 菩薩摩訶薩들히 받든가  
能히 부뎡 威神을 받즈바 이 經을 너비 불어 閻浮提에 衆生을 利益  
호리이다 (월석 21:62)

46. 「-이다」가 생략된 「-리」의 경우(p.493-4 참조)에도 「-오/우-」의  
용법은 한가지다.

耆婆鳥의 도흔 일 술보리, 耆婆鳥의 모딘 일 술보리 (천강곡 상, 기  
133)  
어마님 爲호스바 이 돈을 布施호요리, 어마님기 드러가 이 돈을 供  
養호스보리 (월석 23:65, 기 504)

47. 의문의 「-잇가(고)」가 생략된 「-리?」 형도 있으나, 이 활용형에는 「-오  
/우-」가 개입되는 일이 없다.

어느 다 술보리 (월석 1:1, 기 1)  
滿虛空 世尊이 各各 放光이어서니 모딘들 아니 깃스보리 (월석 7:23,  
기 191)  
外道들 아니 조썸보리 (천강곡 상, 기 99)  
뉘 아니 스랑호스보리 (용 78장)  
므스게 쓰시리 (월석 1:10)

{「-오/우+리+니」}  
{「-스보+리+니」}

「-우리니」: 내 來世에 ...물읏 有情을 ...一切外道の 壼미요돌 버서나  
게 호리니 (석보 9:8)

阿逸多아 그 싣차히 善男子 善女人의 隨喜功德을 내 닐오리니 네 이  
대 드르라 (석보 19:2)

내 이제 ...六道衆生에 나르리 解脫케 호리니 唯然 世尊하 願호든  
分別 마르쇼셔 (월석 12:48)

내 이제 ...罪報惡報엿 이룰 어들 닐오리니 仁者하 (월석 21:74)

내 이 얼굴 못도록 ...閻浮衆生을 擁護하야 ...다 安樂을 得게 호리  
니 오직 願호디 (월석 21:128)

「-스보리니」: 王入 病을 내 어루 고티스보리니 나를 닐웨만 病이  
드외에 호쇼셔 (석보 24:50)

48. 주체의 표현이 밖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대이름씨 이  
외의 다른 말로 표현될 수도 있음은 앞에서도 여러번 설명한 바와 같다.

世尊入 일 술보리니... 눈에 보논가 너기스보쇼셔 (월석 1:1, 기 2)  
善慧 니르샤디 그러면 네 願을 從호리니 나는 布施를 즐겨... (월석  
1:12)

舍衛國에 도라가 精舍 이르스보리니 弟子 하나를 주어시든... (석보  
6:22)

世尊 勅호산다비 다 奉行호스보리니 唯然 世尊하 願호든 分別 마르  
쇼셔 (월석 18:19)

▽이상의 예는 모두 주체가 밖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의심할 여지  
없이 주체는 말할이 자신이다.

부뎡 阿難드려 니르샤디 如來ㅣ 오닛나래 眞實호 말로 너드려 닐오  
리니... (능엄 1:99)

▽「如來」는 곧 부처 자신이다.

#### (가-2) 인용말의 예

49. 말이나 또는 생각을 인용한 경우에도 물론 이러한 형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王이 盟誓하야 드로리라 호신대 (월석 2:5)

菩薩이 니르샤디... 그 나라해 가 :나리·라 (월석 2:11-2)

내... 이제 實로 滅度 아니호디 곧 닐오디 滅度호리라 호노니 (월석  
17:3)

龍이그엔 이쇼리라 王入그엔 :가리·라 이 두 고대 어디 겨시려노 (월  
석 7:26, 기 197)



▽「이쇼리라, :가리·라」는 모두 인용말로써 “(내) 이쇼리라, (내) :가리·라」이다.

그저귀 兜率隨諸天들히 날오디 우리도 眷屬 ㄷ외스바 法 비호스보리라 호고 (월석 2:23-4)

(太子) 車匿이 돌아보내샤 盟誓호샤디 道理 일위샤 도·라:오리·라 호시고 (석보 6:4)

50. 이상은 말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 인용말로서의 특색이 분명한 것이나, 생각한 것을 인용해 온 것은, 때로는 그 인용말로서의 특색이 분명하지 않아서, 글쓴이의 뜻을 잘못 잡기가 쉽다.

淨飯王이 耶輸의 ㅼ들 누규리라 호샤 (석보 6:9)

▽「淨飯王」이 바로 「누규리라」의 입자말이 되어 있는것 같으나, 이 속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淨飯王」은 「호샤」의 입자말이고, 「누규리라」는 왕의 생각을 바로 인용해 온 것이다. 즉 이 말의 속뜻은 「淨飯王이 “...(내) 누규리라” 호샤...」이다. 만일 「누규리라」의 입자말을 바로 淨飯王으로 잡으면 여기에 주체높임이 쓰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에 모두 공통적이다. (「淨飯王」을 입자말로 하는 「호샤」에는 주체높임이 쓰였음에 유의할것.)

:보리·라 기드리시니 (용 19장)

▽“「(내) :보리·라” (호샤) 기드리시니」를 속뜻으로 생각해야 한다.

「보-」와 「기드리-」의 주체높임이 다른 것은, 이 두 말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諸佛世尊이... 衆生이그에 부텨 知見을 ㅼ요리라 호샤 世間애 나시며 (석보 13:48-9)

▽속뜻은, 「世尊이... “(내) ㅼ요리라” 호샤...」이다

이논... 眞實入 一乘을 나토오리라 호시논 ㅼ디라 (석보 13:60)

▽속뜻 : 「이논... “(내) 나토오리라” 호시논...」

그뻘 世尊이 忉利天에 ㅼ샤 한 사름 爲호야 너비 說法호샤 ㄹ장 利益게 호시고 석득리 다오거늘 장초 도로 ㄴ려:오리·라 호샤 (월석 21:200)

▽「世尊」을 입자말로 하는 말에는 모두 주체높임이 쓰이는데, 「:오리·라」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은, 이 말의 주체는 세존이 아님을 증명한다. (물론 세존을 주체로 한 「爲호야」에도 주체높임이 쓰이지 않았으나, 이것은 「爲호야... 說法호샤」를 한 도막의 말로 생각한 데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이제 부테... 衆生으로 一切 世間애 信타 어려본 法을 다 듣즈바 알에 호리라 호샤 (석보 13:27)

三界 便安키 호리라 發願이 기프실쵸 (월석 2:35, 기 21)

正覺을 일우시릴쵸 魔宮에 放光호샤 波旬이를 降히요리라 (천강곡상, 기 67)

世尊이 너기샤디... ㅼ개 손소 (父王의 棺을) 메스보리라 호더시니 (월석 10:10)

▽「ㅼ개」가 바로 「메스보리라」의 입자말인 것으로 오인되기 쉬우나, 「ㅼ개」의 풀이말은 「호더시니」이고, 「메-」의 입자말은 생략된 「나」이다.

아기 逃亡호샤 아바님 보스보리라 林淨寺를 向호더시니 (월석 8:85, 기 239)

아들님 成佛호샤 아바님 보스보리라 羅漢優施耶를 돌아보내시니 (천강곡상, 기 113)

▽이러한 예들도 모두, 「아들」이 생각한 바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維那를 삼수보리라 王을 請호습노이다 (월석 8:79, 기 225)

▽이 말은 꽤 복잡한 속뜻을 가졌다.

「光有聖人」의 제자가 「沙羅樹大王」에게 한 말인데, “維那를 삼수보리라”는 광유성인의 말이고, “王을 請호습노이다”는 제자 자신의 말이다. 이것은 석보상절의 부분을 보면 분명해지는 사실이다.

聖人이 ㅼ 나를 브리샤 大王 모뎀 請호습바 오나든 ㅼ믈 기를 維那를 삼수보리라 호실쵸 다시 오수보이다 (월석 8:92)

그러나 “삼수보리라”는 광유성인의 말 그대로는 아니다. 그 앞에 광유성인이 제자에게 한 말은;

聖人이 니르샤디 그러커든 다시 가 大王入 모뎀 請호야 오라 ㅼ믈 기를 維那를 사모리라 호야시논 (월석 8:9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습-」이 개입되지 않은 “사모리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모리라”라 한 성인의 말이 어째서 “삼수보리라”로 변형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이 제자의 대왕에 대한 태도에서 설명된다. 제자는 대왕에 대해서 높임말을 쓰고 있다. (「請<sub>하</sub>습노이다」는 바로 대왕에게 한 말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말을 바로 옮기노라 하면서도 역시 자기 자신의 대왕에 대한 마음가짐에서,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객체높임(이것은 대왕을 높이기 위함이다. —「삼-」의 객체는 대왕이기 때문)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말할이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인용말을 다시 조정한 예이다. pp.743,761 참조)

51. 위의 예들은 인용말을 제외한 다른 풀이말에 주체높임이 쓰여서 그 인용말임이 객관적으로 잘 설명이 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예들은 그러한 특색이 없어서 그 인용말임이 한층 흐려진다. 그러나 위의 예들과 대조해 보면, 이것들도 모두 인용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훈 받 님자히 뵈 비흠저기 願<sub>하</sub>디 중심과 어우러 머구리라 하야놀 (월석 2:12)

▽속으로 원한 마음을 그대로 옮겨 표현했음이 분명한 예이다.

願<sub>하</sub>디 “(내)… 머구리라” 하야놀

그뵈 長者ㅣ 장초 제 아드를 달애야 해:오리·라 하야 (월석 13:20)

▽여기의 인용말은 “(내) 해오리라”만인데, 이것도 글쓴이는 장자의 생각을 장자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다.

아라녀리 그즌 이련 이본 길헤 늘 :보리·라 우리곰 온다 (월석 8:86-7, 기 244)

▽이 말은, “네가 누구를 보리라 하여”의 뜻이므로 「:보리·라」의 입자말은 바로 「너」인것처럼 오인되기 쉬우나, 앞의 다른 예들처럼 역시 「:보리·라」는 들을이의 입장에서 표현한 말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네 이제 衆生들홀 爲<sub>하</sub>야 利益을 지수리라 하야 (월석 10:69)

▽이것도 들을이 「너」의 생각을, 들을이의 입장에서 표현한 형식이다.

네 가 조족조족기 窮子드려 닐오디 이어기 일 흠 싸히 잇느니 네 갑술 倍히 :주리·라 하라… 하다가 (窮子ㅣ) 무로디 므스 일 시교려

하는다 커든 닐오디 똥 치유리니 우리 둘토 훈디 호리라 하라 (월석 13:20)

▽여기 세 인용말이 있는데, 하나는 ① “이어기… 주리라”이고, 하나는 ② “므스… 하는다”이며, 나머지 하나는 ③ “똥… 호리라”인데, ①과 ③은 부탁하고 있는 사람이 부탁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탁 받는 사람이 할 말을 미리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입자말은 모두 「나」이다.

52. 이와 같은 인용말은 반드시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인법적으로 다른 동물의 생각을 인용하는 것처럼 가창하는 경우에 쓰이는 일도 있다.

그 새 겨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우루리라 하거늘 (석보 24:20)

#### (나) 2·3-인칭 무의도법

53. 이상에서 설명한, 「-오/우-」를 가진 활용형과는 달리, 「-오/우-」를 가지지 않은 활용형인 「-으리라」, 「-스보리라」, 「-으리이다」 따위는 2·3-인칭의 입자말에 응한다. (그리고 의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으리라」: 너희 無量億劫에 닐어도 못다 니르리라 (월석 13:43)

世尊이… 너희들히 如來入 知見 寶藏애 分을 당다이 두·리·라 하야 풀히야 니르디 아니하시고 (월석 13:34)

네… 無間地獄애 떠러디리라 (능엄 9:93)

내 難을 救티웃 아니하면… 버서나디 몬하리라 (월석 21:56)

▽주체는 들을이이다.

俱夷 니르샤디 내 願을 아니 從하면 고줄 못 어드리라 (월석 1:12)

▽역시 주체는 들을이이다.

如來 오느 毘<sub>중</sub>에 無餘涅槃애 들리라 (석보 13:34)

한 사르미 날 위하야 禮數하리라 (보석 6:29)

몸과 口<sub>수</sub>과 便安하리라 (몽산 7)

이런 時節에 키 아로미 갓가보리라 (몽산 4)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오라면 工夫 | 니거 반득기 能히 힘뿌미 저그리라 (몽산 4)

꽃이슬 저즈리라 白麤며 무드리라 兩分이 갈아 안즈시니 (천강곡 상, 기 42)

「-스불리라」: 너희들히 大衆과 諸天人 히물 請하야사 (부터 棺을) 城의 드리스불리라 (석보 23: 23-4)

「-으리이다」: 四天王이... 天衆 드리고 다 그 고대 가 供養하며 디키리이다 (석보 9: 21)

긴 바미 便安하야 도흔 이리 하·리이·다 (석보 13: 46)

서르 두토아 싸호면 나라히 늑미그에 가·리이·다 (석보 2: 6)

魔鬼神들히 다 물러 호터 가·리이·다 (월석 21: 126)

그 사르미 福 어두미 無量無邊하리이다 (월석 21: 131)

太子 | 出家하시면 子孫이 그츠리이다 (천강곡 상, 기 36)

54. 「-이다」가 생략된 「-리」 형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다. (p. 766 「-오/우+리」와 대조.)

이 사르문... 阿耨... 菩提를 일우리 =此人은... 成就阿耨... 菩提하리 (법화 4: 74)

英主人 알피 내내 붓그리리 (용 16장)

오늬나래 내내 웅브리 (용 16장)

聖子 | 나샤 正覺 일우시리 (월석 2: 17-8, 기 15)

「-오/우+리」 형에는 연결되지 않는 「-으시-」가 이 어형에는 연결되는 현상도 다른 경우와 한가지다.

55. 단순한 「-으리니」 형도, 의도없는 2·3-인칭의 임자말에 응한다.

네 오는 뒤예 佛事를 2장하리니 (석보 11: 14)

일로브터 天上애 나리도 이시리니 (석보 9: 19)

이 존흔 여러가짓 業엿 衆生이 반득기 惡趣에 빠러디리니 하다가... (월석 21: 60)

이 善女人이... 女人 잇는 世界에 다시 나디 아니하리니 하물며 쯔

女身 受호미썩녀 (월석 21: 86)

56. 특정한 임자말을 꼭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는, 2·3-인칭 활용형이 쓰임이 보통이다. (p. 758 참조)

佛은 理를 다하며 性을 다하신 大覺을 슬브니... 일구를 像으로 아디 몰하스불리니 萬物의 하논 이리 혼가지샤디 (월석 9: 13)

#### (다) 예외적 용례

57. 맺음씨끝 「-다」와 「-으니」 앞에 「-오/우-」와 「-으리-」가 동시에 결합된 활용형은, 그 주체가 말할이 자신임을 표시함과 동시에, 주체인 말할이의 의도를 표시함이 원칙이다. 이 활용형이 가진, 인칭과 의도의 2원적인 용법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여러가지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즉 이 두가지 범주가 서로 동시에 나타날 때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들이 서로 어긋날 때, 바꾸어 말하면, 1-인칭월이로되 말할이의 의도가 없는 경우나, 말할이의 의도는 있으나 1-인칭월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활용형이 쓰일까 문제가 된다.

#### (다-1) 말할이의 의도 없는 1-인칭월

58. 1-인칭월로서 말할이(=주체)의 의도가 없을 경우에도 「-오/우-」를 가진 활용형이 쓰인다.

나웃 ...五百齋 아니 하단디면 ...地獄애 드로리라 (월석 23: 75)

▽아마 자신이 지옥에 들어갈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 네 어미로니... 목수미 열세히면 다시 惡道애 빠러듀리니 네 엇던 헤미로 나를 뵈케 훑다 (월석 21: 55)

▽악도에 떨어짐도 자신의 의사로써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내 餘國에 부테 드외야 다시 다른 일후미 이쇼리니...=我 | 於餘國에 作佛하야 更有異名호리니 (법화 3: 166-7)

▽이름이 있으리란 것은 의도적인 사실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내가 그런 이름을 가지겠다), 의도 없이 되는 일로 해석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쇼리니」의 입자말은 둘인데, 이 활용형은 그 간접입자말에 응한 형식이다.

59. 그러나 이 경우에는 1-인칭 활용형이 쓰이지 않은 예가 많이 나타난다.

내 녀나온 나라해 부테 드의야 쯔 다룬 일후미 이시리니 (월석 14:57)

▽이것은 바로 앞의 ‘법화 3:166-7’과 같은 사실을 기술한 말인데, 한편은 「이쇼리니」가 되었고, 한편은 「이시리니」가 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인칭과 의도가 어긋났을 때에는 말할이(글쓴이)는 어느 활용형을 취할지 망설이게 되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

내 말웃 거출린댄 닐웨를 몬 디나아 阿鼻地獄애 뼈러디리라 (월석 23:66, 기 507)

▽이것은 앞에 인용한 「나웃... 드로리라」(월석 23:75)에 대한 월인천강지곡의 부분으로서, 두 인용문이 다 같은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활용형을 쓰고 있음은, 역시 이 경우에 말할이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나는 승의 모밀췌 당다이 大僧後에 부터를 보스블리니 神力을 써... (월석 21:205)

▽부터를 보게 될 것이란 단순한 추측으로 해석된다.

그 數를 알려 몰하려 몰하리이다 世尊하 (월석 14:8)

▽이것도 주체는 말할이 자신이나, 전혀 의도 없는 사실이다.

大子를 더러브리디 아니하면 우리 乃終내 便安티 몰하리라 훈 大臣이 닐오디 내 方便으로 더로리라 하고 (석보 11:19)

▽「몰하리라」는 의도 없는 말, 「더로리라」는 강한 의도를 가진 말이다.

여러가짓 受苦入 이틀 一劫中에 몰다 니르리이다 (월석 21:47)

옷밥 수비 어드리라 (월석 13:15)

▽주체는 「나」이나, 의도 없는 사실이다.

#### (다-2) 말할이의 의도 있는 2·3-인칭월

60. 2·3-인칭월로서 말할이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는, 바꾸어 말하면, 말할이가 들을이 또는 제삼자에게 당연히 해야함을 명령, 강요할 경

우에 「-오/우+리-」 활용형이 쓰인 예가 꽤 많이 나타난다. 「몽산법어」에는 이런 예가 많이 나온다.

다시 모디 안조디 端正히 호리라=更要坐得端正호리라 (2)

반드기 趙州 | 엇던 面目인들 아로리라=當識趙州是何面目호리라 (13)

無○字를 자바 隱密히 心光을 두르혀 제 :보리·라=提筒無○字하야 密密히 廻光自看호리라 (15)

正히 모디 안 後에 사를 이룰 求호리라=正要求悟後生涯호리라 (19)

키 아로모로 門에 드로몰 사모리라=以大悟로 爲入門호리라 (21-2)

모디 더를 가갇디 마로리라 =不要管他 | 니라 (26)

모디 아로몰 求티 말옥 오직 話頭를 擧하야 :보리·라=不要求解會 하곡 但提話頭하야 看호리라 (28)

즈오로미 오나든 반드기 이 엇던 境界오 하야 아로리니=睡魔來커든 當知是何境界호리니 (2)

모디 工夫를 그춤 업게 호리니=要工夫를 無間斷호리니 (5)

本來 아로미 붉디 몰하거든 다 疑心을 :두리·니=本覺이 未明커든 一一有疑호리니 (13)

쯔 모로매 定力을 便安히 護持호리니=亦要保護定力호리니 (18)

▽이 말들은모두 설법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투로 해석이 된다.

61. 다른 문헌에도 이런 예는 더러 보인다.

長者야... 녀나온 飲食에 니르리 佛僧의 받줍디 몰하야서 몬져 먹디 마로리니 하다가 그르 먹거나... (월석 21:111)

하다가 末世엿 사름이 道場을 세오져 願흥덴 몬져 雪山엿 큰 힘 센 白牛 | 그 山中엿 솔진 香草 머그니를 取호리니... 그 쯔을 取하야 旃檀애 和合하야 그 싸해 블로리라=若末世人이 願立道場인댄 先取 雪山엿 大力白牛 | 食其山中엿 肥膩香草하니를 호리니... 可取其糞 하야 和合旃檀하야 以泥其地호리라 (능엄 7:9)



阿難아 네... 받들기 문져... 生滅 아니호는 두려운 물근 性을보태  
일오리니=阿難아 汝ㅣ... 應當先 ...依不生滅호는 圓湛性호야 成호  
리니 (능엄 4: 88)

▽「일오-」로써는 「-오/우-」의 개재 여부를 알 수 없으나, 한문 본문의 토  
로써 보면 분명히 「-오/우-」가 개재된 어형이다.

妄을 두르혀 眞에 맞게코져 흠딘댄 문져...功을 일우리니=夫欲反  
妄契眞인댄 先當... 以成其功호리니 (능엄 4: 89-90)

▽앞의 예와 같다.

마솔히 드러 乞食홀째 혼 比丘를 두료리니 하다가 比丘ㅣ 업거든  
一心으로 念佛홀떠니 (법화 5: 28)

各各 열여스슬 ...大菩薩의 받조오리니=各各十六을... 以奉... 大菩  
薩호리니 (능엄 7: 15)

▽한문 토로 보면, 「받조오리니」는 「받조보리니」의 변화형이다. 그리고  
이 말은 앞의 '능엄 7: 9'의 계속이다.

眞을 求티 마로리니 眞 求호면 곧 疎와 親과 이시리라=不求眞호리  
니 求真호면 便是有疎親호리라 (남명, 상: 71)

鈍根 일우디 문호느닌 상네 받들기 無始一切罪를 브즈러니 므스매  
餓호리니=鈍根未成者는 常當勤心餓無始一切罪호리니 (원각, 하 3-2  
: 64)

하다가 ...이 輪을 브트면 받들기 梵行을 디녀 ...소늘 조차 자바 取  
호리니=...隨手結取호리니 (원각, 하 2-2: 41)

性 본 사르든 言下에 모로매 :보리·니=見性之人은 言下에 須見호  
리니 (육조, 상: 10-11)

佛告須菩提호샤디 若善男子 善女人이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는  
當生如是心호리니 (금강삼가 4: 1)

(시부모의) 衣裳이綻裂이어든 紉箴호야 請補綴호리니=옷과 치마와

짜디거든 바늘애 실소아 깎누부물 請홀디니 (내훈 1: 50)

62. 이러한 예들은, 1-인칭월이 아닐지라도 말할이가 그의 의도를 강  
하게 반영시키려는 경우에는 「-오/우+리-」 어형을 쓰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63. 이러한 어형은 「-오/우+리-」로 분석하지 않고, 「-오/우+리+이  
(매인 이름씨)」로 분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이 예들은, 「(해야) 할 것이라, 할 것이니」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나으리란 이유는:

(ㄱ) '내훈 1: 50'의 예에서는 한문토의 「호리니」를 「홀디니」로 번역  
하고 있는데, 「홀디니」는 바로 「-오/우+리+디(매인이름씨)+이니」로  
분석되는 어형으로서 「(해야) 할 것이니」의 뜻이다.

(ㄴ) 말할이의 강한 의사가 반영된 명령조의 말인 「호야사 호-」와 같  
은 표현법에는 「-오/우+(리)-」 개입 없이도 명령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니, 「-오/우+리-」가 명령조를 나타낸다는 설명의 타당성이 상실된  
다.

네 가사 호리라 (용 94장)

聖人入 道理 비화사 호리니 (석보 6: 3)

善男子 善女人이 더 부텃 世界에 나고져 發願호야사 호리라 (석보  
9: 11)

이 經을 바다디니며... 쓰며 호야사 호리라 (석보 19: 36)

微妙히 아로몬 모디 므스맷 길히 그추메 다드라사 호리니=妙悟는  
要窮心路ㅣ 絶이니(몽산 10)

이렇게 해석하면 (다-2)의 예들은 예외가 되지 않는다.

(다-3) 그 밖의 예외

64. 이러한 이유 이외의 다른 여러가지 이유에 말미암은 예외는 그리  
흔하지 않다.

우리 來世에 부텃 付囑을 護持호리이다=我等이 於來世에 護持佛所囑



호리이다 (법화 4:198)

▽한문토는 「호리이다」인데, 번역에 「호리이다」로 된 것은 일시적인 잘못으로 설명된다.

내 ...正覺 일우디 아니호리이다 (월석 8:65)

▽이것도 단순한 글자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 그 앞뒤에 같은 말이 여러번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 「아니호리이다」로 바로 되어 있다.

世尊入 고들 求하야 내 반드기 부테 드외리라 하야 精進定行하느닌 이는 上藥草 라=...我當作佛이라 하야...(법화 3:43)

▽이 예외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드외-」의 입자말을 「부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기 「내」는 말할이 자신이 아니라, 「精進定行하는 사람」을 가리킴인데, 글쓴이의 심리가 아직 이런 제삼자적 상태에서, 부처 되리라 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日月燈明佛이 여썬 小劫을 이 經 니르시고 즉자히 모든 中에 니르샤디 如來 오느 衆中에 無餘涅槃에 들리라 (석보 13:34)

▽이 「如來」는 이 말을 하고 있는 日月燈明佛 자신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같은 사실을 기록한 곳에는 다음과 같이 「-오/우-」를 개입시켜 놓았다.

日月燈明佛이 이 經 니르시고... 衆中에 이 마를 니르샤디 如來 오느 衆中에 반드기 나몬것 업슨 涅槃에 드로리라 =日月燈明佛이... 如來 ]... 當入無餘涅槃호리라 (법화 1:107)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들리라」로 된 까닭은 아마 「如來」라는 제삼자적 표현에 끌린 탓이 아닐까 생각된다.

비록 부텃 音聲이 우리 부터 드외리라 니르샤들 듣조오나 =雖聞佛音이 言我等作佛하소나 (법화 3:65)

▽이 예외에 대한 이유는 세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부처 되리라 것은 부처의 예언으로서 말할이 자신의 의도가 여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앞의 첫째 유형에 들게 된다, p. 773)

둘째, 「드외리라」의 입자말을 「우리」로 잡지 않고, 앞의 「법화 3:43」

의 예에서처럼, 「부터」로 잡았기 때문. 그리하여 이 구문을,

우리                  부터                  드외리라  
입자말                  입자말                  풀이말

과 같이 해석했기 때문이라 보는 방법.

세째, 「우리」를 입자말로 잡지 않고 부림말로 잡아서 ‘우리(를) 부처가 되리라(고) 말씀하심을 들으나’로 속으로 해석했기 때문.

65. 「하게 호리라」형:

부테 目連이드려 니르샤디... 羅睺羅 ] 得道하야 도라가사 어미를 濟渡하야 涅槃 得호물 나 존게 호리라 (석보 6:1)

이 말을 하임(사역)으로 보아 ‘羅睺羅를 나와 함께 하리라’로 해석하면 「존게호리라」의 주체는 말할이(부처) 자신이 되기 때문에 「호리라」는 규칙에 맞지 않게 된다. 이러한 하임의 구조에서 사역의 주체가 말할이 자신일 때는 「호리라」가 쓰이기 때문이다.

내 이제 四衆을 法에 渴望하야 울월에 호리라 (월석 21:4)

一切有情이 나와 다르디 아니케 호리라 (석보 9:4, 월석 9:14)

一切外道의 업미요물 버셔나게 호리니 (석보 9:8)

내... 노릇게 호리라 (법화 2:86)

그러므로 앞의 「석보 6:1」의 「존게 호리라」는 하임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호리라」를 도움풀이씨(p.432 참조)로 보지 말고, 「得하-」의 되풀이를 피하기 위해서 쓰인 으뜸풀이씨로 보아야 한다. 즉

涅槃 得호물 나 존게 得호리라

의 변형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목련이가 부처의 말씀을 전달하는 다음의 말도 역시 그렇게 보아야 한다.

目連이 솔보디... 羅睺羅 ] 道理를 得하야사 ...네가짓 受苦를 여히여 涅槃 得호물 부터 마르시디 호리이다 (석보 6:3-4)



「ㄹㅅㅅㅅ」에 「-으시-」가 들어간 것은 이 말의 주체가 「나후라」이기 때문인데, 만일 「ㄹㅅㅅㅅ ㅎ-」를 하임으로 잡고, 그 사역의 주체를 부처로 잡으면, 「ㅎ-」에 주체높임이 쓰이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도 앞의 경우처럼 해석하여, 「ㅎ리이다」를 으뜸높이씨로 보아야 할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더라도, 「ㅎ-」의 주체는 「나후라」이기 때문에 「-으시-」가 들어가야 할 것 같으나, 앞의 「ㄹㅅㅅㅅ」와 그 주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이 줄어진 것으로 설명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존게 ㅎ리라」(석보 6:1), 「ㄹㅅㅅㅅ ㅎ리이다」(석보 6:4)는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 (라) /빙/ 소실 후의 어형 혼란

66. /빙/이 없어지고 난 뒤로는 「-스보-」와 「-스브-」는 다 같이 「-스오-」로 변하기 때문에 「-오/우-」가 있는지 없는지 외형으로는 분간되지 않으나, 말말이(글쓴이)의 속뜻으로는 역시 분별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습-」을 가지지 않은 다른 활용형에서는, /빙/이 없어진 15세기 후반기에 있어서도 두 어형의 대립이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오/우-」를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간해서 설명해야 한다.

내... 舍利를 供養<sub>ㅎ</sub>스오리라=我ㅣ... 供養舍利<sub>ㅎ</sub>스오리라 (법화 6:155-6)

▽같은 사실을 기술한 다음을 참조.

...供養<sub>ㅎ</sub>스보리라 (월석 18:40)

내 이제 받든기 묻즈오리라 ㅎ시더니=我今當問<sub>ㅎ</sub>리라 ㅎ시더니 (법화 1:66)

世尊이 받든기 우릴 爲<sub>ㅎ</sub>샤... 法을 니르쇼셔 우리 듣즈오면 다 닷가 ㅅ<sub>ㅎ</sub>스오리이다=...我等이 聞已<sub>ㅎ</sub>스오면 皆共修學<sub>ㅎ</sub>스오리이다(법화 3:144)

世尊하 오직 願<sub>ㅎ</sub>스오더 니르쇼셔 우리 받든기 부텃 마를 信受<sub>ㅎ</sub>스오

리이다=...我等이 當信受佛語<sub>ㅎ</sub>스오리이다 (법화 5:128)

내 이제 받든기 觀世音菩薩을 供養<sub>ㅎ</sub>스오리이다=我今에 當供養觀世音菩薩<sub>ㅎ</sub>스오리이다 (법화 7:81-2)

須菩提ㅣ... 솔오더 아니이다 世尊하 身相으로 如來를 시러 보습디 ㅅ<sub>ㅎ</sub>스오리이다 ㅎ니라 (금강 30)

世尊 勅<sub>ㅎ</sub>삼 ㄹㅅㅅ ㅎ스하 받든기 다 奉行<sub>ㅎ</sub>스오리니 唯然 世尊하 願<sub>ㅎ</sub>스오더 분별 마르쇼셔 (법화 6:125)

▽같은 사실을 기술한 다음 참조.

世尊 勅<sub>ㅎ</sub>삼다비 다 奉行<sub>ㅎ</sub>스보리니... (월석 18:19)

67. 이상은 모두 「-스(스,즈)보-」의 변화형으로서 1-인칭 활용이나, 다음은 「-스(스,즈)브-」의 변화형으로서 2·3-인칭 활용이다.

부테 이제 對答<sub>ㅎ</sub>시리니 너희 받든기 이를 因<sub>ㅎ</sub>야 시러 듣즈오리라=佛今答之<sub>ㅎ</sub>시리니 汝等이 自當因是<sub>ㅎ</sub>야 得聞<sub>ㅎ</sub>스오리라 (법화 5:101-2)

衆生이... 부터 니르샤를 듣즈오면 能히 恭敬<sub>ㅎ</sub>스하와 信<sub>ㅎ</sub>스오리이다=...聞佛所說<sub>ㅎ</sub>스오면 則能敬信<sub>ㅎ</sub>스오리이다 (법화 1:166)

菩薩들과 이 聲聞衆이 듣즈오면 다 歡喜<sub>ㅎ</sub>스오리이다=菩薩와 及此聲聞衆이 聞皆歡喜<sub>ㅎ</sub>스오리이다 (법화 6:132)

願心이 이 존흔 後에사 聖果를 어루 期約<sub>ㅎ</sub>며 부텃 恩을 어루 ㅅ<sub>ㅎ</sub>스오리라=願心이 如此<sub>ㅎ</sub> 然後에사 聖果를 可期<sub>ㅎ</sub>며 佛恩을 可報也ㅣ니라 (능엄 3:117)

#### (2-3) 「-다」, 「-으니」 이외의 활용형

68. 이상에 설명한 인칭법은, 모두 「-다」, 「-으니」 활용형에서, 「-오/우-」의 개재 여부로 표시되는 것인데, 인칭법의 표시는 이 두 활용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분명하지는 않으나, 다른 방법, 즉 「-다」, 「-으니」 이외의 활용형에서도 표시되었던 듯 한 흔적이 있다.



(가) 인칭 표시가 분명한 활용형

69. 「-으나」(불구법, p.563 참조) 활용형에 있어서도 「-오/우-」의 개재 유무에 의하여 인칭이 표시된다.

「-우나」

내… 비록 戒律을 三摩地에 入스미 상네 호터 뒤여 =我] …雖具戒律호나 於三摩地에 心常散動하야 …(능엄 5:56)

내 호마… 브디 欲을 조초나 그러나 이 衆生이…=我] 已…隨意所欲호나 然이나 此衆生이 …(법화 6:7-8)

내 비록 度티 못호나…=我] 雖未度호나 (능엄 6:82)

「-으나」

了義를 轉호며 일우미 비록 호마 하·나=轉成了義호미 雖多호나 (월석, 서·15)

구루멧 히 불 쵸호나 더운 하늘히 서늘호도다=雲日如火炎天涼 (두언 6:35)

70. 「-은덴」(제약법, p.540 참조) 활용형의 경우:

「-은덴」

내 이제 이를 :본·덴 覺性이 自然하야=我] 今에 觀此은덴 覺性이 自然하야 (능엄 2:64)

호다가 干戈] 뒤디 아니호는 고돌 기피思量은덴 바르 天魔와 外道와를 자바 가도다=深思不動干戈處은덴 直攝天魔外道歸로다 (금강삼가 3:3)

「-은덴」

날와 글 議論호물 시후 붓그리디 아니은덴 다시 柴扉 두드료물 肯許호가 =論文或不愧 重肯疑柴扉 (두언 22:10)

호다가 보미 이 物인덴 네 또 어루 내 보물 보리라=若見이 是物인덴 則汝] 亦可見吾之見하리라 (능엄 2:35)

71. 「-은딘」(제약법, p.544 참조) 활용형:

「-은딘」

내… 菩薩이… 부텃 道理 求호는 야을 :본·딘… (석보 13:19)

내 부텃 누느로 六道衆生을 :본·딘… 福과 智慧와 업서 (석보 13:56)

내 그스기 올모물 :본·딘 비록 이리 殂落호나=我] 見密移은딘 雖此 殂落호나 (능엄 2:7)

듣좁고 깃거호가니와 그러나호디 호녀고로 헤여은딘 내 四百夫人아 (월석 8:93)

슬허 브라운딘 오직 烽火入 썩르미로소니 =悵望但烽火 (두언 6:53)

오숫날 이 祥瑞를 보소본딘 아래와 다르디 아니호시니 (석보 13:36)

「-은딘」

「-은딘」은 줄기에 바로 붙는 일은 없고, 다른 안맺음씨끝을 앞세운다.

호다가 …달애디 아니호시딘딘 내종애 …四生五道애 窮困하리라 니 =設非… 善誘] 시딘딘 終則… 窮因於四生五道하리라 (법화 2:224, 226)

72. 이상의 「-으나」, 「-은덴」, 「-은딘」 활용형은, 「-다」, 「-으니」 활용형의 경우처럼, 그 인칭의 표시가 분명하나, 그 용례가 적으므로 우선 「-다」, 「-으니」와 별도로 설명한다.

(나) 인칭 표시가 똑똑하지 않은 활용형

73. 다음의 활용형에서도 이러한 대립이 보이는데, 그 용례가 적고, 또 그 용법도 그리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천착을 피하고, 우선 여기 예를 들어 두어, 뒷날의 연구를 기다리기로 한다.

「-논더」: 「-논더」

「-논더」: 슬프다 넷사르미 마를 아디 못호논더=悲哉不悟昔人言하논더 (남명, 하:30)



「-논더」: 壇經이 後人의 節略이 너무 하 六祖入 큰 오온 브들 보다  
물<sub>ㅎ</sub>논<sub>더</sub>=...不見六祖의 大舍之旨<sub>논</sub>더 (육조, 서:7)

「-오/우+ㄴ가」:「-은가」

「-오/우+ㄹ가」:「-을가」

「-논가」:「-는가」

「-노닛가」:「-느닛가」

「-오/우+리잇가」:「-으리잇가」

「-은가」: 부터 니르시논 解說을 우리도 得<sub>ㅎ</sub>야 涅槃에 다드<sub>론</sub>가 <sub>ㅎ</sub>  
다소니 (석보 13:43)

제 몸 어디<sub>론</sub>가 밀디 말오=母倚已賢 (내훈 1:48)

「-은가」: 너희 이 브를 보고 더<sub>본</sub>가 너기전마론 (월석 10:14)

부터 보스보들 즐기디 아니<sub>ㅎ</sub>며 어즈<sub>러</sub>본가 썩러 道理 먼가 시름<sub>ㅎ</sub>  
썩 (월석 14:79)

문득 난가 疑心<sub>ㅎ</sub>니라 =疑忽生也 (법화 3:104)

机를 보고 도<sub>조</sub>긴가 너겨(기)며 (석보 11:34)

「-을가」: 디나전 無量劫에 修行이 니그실썩 몸 일우<sub>울</sub>갓 疑心이 업  
스시나 (천강곡 상, 기 53)

「-을가」: 오래 勤苦 受<sub>ㅎ</sub>까 분별호들 가즐비니라 (법화 2:197)

難施 | 두리어 자바 녀<sub>ㅎ</sub>까 <sub>ㅎ</sub>야 닐오디 (월석 7:13)

「-논가」: 世尊入 말 솔보리니 ...귀에 들<sub>논</sub>가 너기스<sub>봉</sub>쇼셔 (월석1:1,  
기 2)

도르혀 疑心호디 施樓入 미티셔 나짚밥 먹고 越入中에서 녀<sub>논</sub>가 <sub>ㅎ</sub>  
노라 =疑施樓底 晚飯越中行 (두언 15:7)

感激<sub>ㅎ</sub>야 거리치디 물<sub>ㅎ</sub>논<sub>가</sub> 스랑<sub>ㅎ</sub>더라 =感激懷未濟 (두언 24:28)

「-논가」: 네 막스매 내 네 일홈 닐어 阿耨...菩提 심기디 아니<sub>ㅎ</sub>논<sub>가</sub>  
너교미 장츠 업스녀 (법화 4:187)

오직 疑心호디 淳朴<sub>ㅎ</sub> 썩히 스스로 <sub>ㅎ</sub> 山川이 잇<sub>논</sub>가 <sub>ㅎ</sub>노라 =只  
疑淳朴處 自有一山川 (두언 15:9)

부테 道場에 안즈샤 得<sub>ㅎ</sub>산 妙法을 닐오려 <sub>ㅎ</sub>시<sub>논</sub>가 授記를 호려  
<sub>ㅎ</sub>시<sub>논</sub>가 (석보 13:25)

「-시논가」 형은 보이니 「-시논가」 형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논가」가  
일인칭 씨끝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인칭 씨끝에는 주체높임법은  
쓰일 수 없음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노닛가」: 須達이 護彌<sub>드</sub>려 무로디 主人이 뜨슴 차바늘 손소 돌녀 땡  
마<sub>노</sub>닛가 太子를 請<sub>ㅎ</sub>스바 이받즈보려 <sub>ㅎ</sub>노<sub>닛</sub>가 大臣을 請<sub>ㅎ</sub>야 이  
바도려 <sub>ㅎ</sub>노<sub>닛</sub>가 (석보 6:16)

「-느닛가」: 婆羅門이... 그 쫄드려 무로디 그릿 아바니미 잇<sub>느</sub>닛<sub>가</sub> (석  
보 6:14)

엇메 부테라 <sub>ㅎ</sub>느<sub>닛</sub>가 (석보 6:16)

「-우리잇가」: 현마 七寶로 꾸며도 도타 호<sub>리</sub>잇<sub>가</sub> (천강곡 상, 기 121)

「-으리잇가」: 七代六王을 뉘 마<sub>리</sub>잇<sub>가</sub>(용 15장)

問罪江都를 느<sub>치</sub>리잇<sub>가</sub> (용 17장)

「-오/우+료」:「-으료」

「-우료」: 아히 울어든 父母 | ...닐오디 우디 마라 내 너를 金 :주.료  
<sub>ㅎ</sub>야든(남명, 상:44-5)

「-으료」: 므스글 가져 正을 사<sub>리</sub>료 (능엄 2:13)

네 브즈러니 세버늘 請<sub>ㅎ</sub>거니 어드리 아니 니르<sub>료</sub> (석보 13:46)

「-오/우+려노」:「-으려노」

「-우려노」: 언제 새어든 부터를 가 보<sub>스</sub>보려<sub>노</sub> (석보 6:19)

「-으려노」: (이 활용형은 1·3-인칭월에 두루 쓰인다.)



엇던 德으로 降伏히려노 (석보 6:28)

天龍鬼神들토 다 너교디 이 부텃 神通하신 相을 이제 늘 더브러 무  
르려노 하더니 (석보 13:15)

어느저기 兵馬] 그추물 보·려노 =何時見息兵 (두언 23:45)

어느 藏入 金이사 마치 몰이려노 하노이다 (석보 6:25)

늘 더브러 무려사 하리며 能히 對答하려노 (석보 13:15)

어느저기 甲兵을 말려노 =何當甲兵休 (두언 22:2)

未來엿 衆生이 엿메하야사 ...두 菩薩을 보승보려노 (월석 8:17)

「-오/우+려니와」:「-으려니와」

「-우려니와」: 내 나느 누물 그추몬 只춤내 고티디 아니호려니와 술  
勸호맨 닐을 마리 업도다 =絕筆終不改 勸酒欲無詞 (두언 23:54)

「-으려니와」: 須彌山도 어루 기울의 하려니와 諸佛 니르시논 마른...  
(석보 9:27)

智慧 잇느니 하다가 드르면 能히 信하야 알려니와 智慧 업스닌...  
(법화 3:33)

「-오/우+리어늘」:「-으리어늘」

「-우리어늘」: 그디 이제 날 하야... 주기라 하야도 그디를 거스디  
아니호리어늘 이제 엿메 怨讎를 니즈시느니 (석보 11:34)

「-으리어늘」: 功德이 그지<sup>1)</sup>업스리어늘 하물며... (월석 17:49)

좁도 받득기 상네 이시리어늘 엿메... (능엄 3:25)

「-오/우+려다」:「-으려다」

이 활용형은 「-다」 씨끝을 가지고 있으나, 단순한 「-다」 활용 어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둔다.

「-우려다」: 내 조흔 힘더글 닷가 일 업슨 道理를 求하노니 죽사릿 因  
緣은 듣디 몰호려다 (월석 1:11)

「-으려다」: (如來) 涅槃애 드로려 하시니 이리도록 설볼써 世間엿  
누니 업스려다 (월석 21:201, 석보 11:11)

하마 비 오·려·다 흠저기 (월석 10:85)

(다) 불구적 맺음씨끝

74. 이상은 「-오/우-」의 유무의 대립이 나타나는 활용형인데, 「-오/  
우-」를 꼭 앞세우는 불구적 맺음씨끝 중에도 그것이 인칭이나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

「-오/우+마」

약속을 나타내는 서술법은, 그 주체는 말할이이며, 그리고 말할이의  
의도를 동시에 나타낸다. (p.493 참조)

「-오/우+려」

「-려」는 어원적으로 「-으리-」에 맺음씨끝 「-어」가 연결되어서 의도를  
나타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오/우-」를 앞세우게 되는데,  
인칭에는 상관없이 의도를 나타낸다. (p.597 참조)

「-오/우+리어다」

고봉니 못 보아 술웃 우니다니 님하 오랴나래 녀시라 마로리어다  
(월석 8:102)

▽금지의 말에 「-오/우+리-」가 쓰인 예는 p.775 참조.

大慈悲鴛鴦鳥와 ...내 몸이 正覺 나래 마조 :보·리어·다 (월석 8:  
87, 기 244)

아가 大慈悲 우니는 鴛鴦鳥와 功德 修行하느 이버(내) 몸과 成等正  
覺 나래사 받득기 마조 :보리어다 (월석 8:101)

그디내 머리셔 3비 오난마른 如來入 舍利는 못 다소리어다 (석보  
23:54)

75. 그 밖에, 맺음씨끝 「-口」, 「-디」, 「-르멘」 따위 앞에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오/우-」는 인칭이나 의도의 표시와는 관계가 있는것 같지 않다.



### (3) 「-오/우-」 이외의 다른 안맺음씨끝에

#### 의한 인칭법

1. 인칭법은 「-오/우-」의 유무에 의해서만 표시되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안맺음씨끝의 대립으로써도 표시되었으니 :

(1) 「-다-」:「-더-」

(2) 「-과-」:「-으니-」

(3) 「-가-」:「-거-」

가 그것이다.

2. 이 안맺음씨끝들은 주로 「-다, -으니」 활용형에서, 전자가 1-인칭, 후자가 2·3-인칭의 임자말에 응하고 있다.

#### (3-1) 「-다-」:「-더-」

3. 인칭법은 안맺음씨끝 「-다-」와 「-더-」의 대립에 의해서도 표시된다. 이 씨끝은 원래 때매김(시제)을 나타내는 것인데, 양 어형의 대립으로 인칭을 아울러 표시하게 된다.

#### (가) 1-인칭법

「-다/라-」

4. 잡음씨 밑에서는 「-라-」로 변동하며, 「-으니, -다/라」 앞에서는 1-인칭을, 시제와 아울러 표시한다.

「-다라」: 내 룡담하다라 (석보 6:24)

내 지비 이서 날마다 五百僧齋하다라 (월석 23:74)

내... 妙法華經을 펴니르다라 =我... 宣說妙法華經하다라(법화 4:169)

내... 正히 꿈울 時節에 이 디홀 소리를 惑하야 불소리라 하다라 =我正夢時에 惑此春音하야 將爲鼓響하다라 (능엄 4:130)

그되는 버듕두듬에 너거든 나는 渡頭入 물애에 자다라 =君行楊柳

岸하거든 我宿渡頭沙하다라 (금강삼가 4:5)

오늬부니 아니라 네도 이리하다라 (월석 7:14)

▽임자말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나」이다.

내 지비 이십저귀 受苦 | 만타라 (월석 10:23)

▽임자말은 둘인데, 여기에서는 간접임자말에 응한 것이다.

어마님 어마님 사라져십저귀 날마다 五百僧齋하야 香花飲食을 法다  
비 하다라 하시더니 (월석 23:86)

▽“날마다... 하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인용한 인용말이며, 그 임자말은 「나」이다.

우리 네브더 오매 이곤호 大菩薩摩訶薩이 ...如來入게 묻조오물  
보디 묻하며 듣디 묻하엿다라 =我等이 從昔已來에 不見不聞 如是호 大  
菩薩摩訶薩이... 問訊如來하엿다라 (법화 5:95)

나그내로 사로매 값간 심거 낫바물 瑤琴과 짝하야 뒷다라 =客居暫  
封殖 日夜偶瑤琴 (두언 15:3)

다른엿 渭北엿 아히라라 =他時渭北童 (두언 11:9)

▽임자말은 「나」이다.

「-다히다」: 우리... 菩提를 노외야 求티 아니타히다 (월석 13:4)

우리는 眞實入 佛子들 모르다히다 (월석 13:35)

이럴씨 우리 날오디 本來 求하논 모습 업다히다 하노니 (월석 13:37)

▽「하노니」의 임자말은 앞에 나타나 있는 「우리」이고, 「업다히다」의 간접 임자말은 나타나지 않은 「우리」이다.

實엔 그리하야 가다히다 (월석 7:10)

▽주체는 「나」이다.

甚히 내 感傷호디 如來入 無量知見을 일호라 하다히다 =甚自感傷  
호디 失於如來入 無量知見호라 하다히다 (법화 2:4)

▽「일호라」, 「하다히다」의 주체는 모두 「나」이다.

「-댕다」: 내 그런 뜨들 몰라 하댕다 (석보 24:31-2)



▽하다이다→\*하대이다→하맹다.

「-습다이다」: 我等이 平常에 未蒙如來入 微細開示 하습다이다 (능엄 10: 75)

「-다소라」: 特進의 빗나물 들히 너기디 아니하다소라 = 未甘特進麗 (두언 24: 30)

떡해 수플 아래 馬鞍을 밧기다소라 = 野稅林下鞍 (두언 24: 39)

▽두언의 두 예는 다 그 주체가 두보 자신이다.

「-다니」: 내 本來 釋子들홀 브터사다니 나를 브리고 出家하느니 나도 出家호리라 (월석 7: 3)

내 네 어미로니 오래 어드본디 있다니 너 여희여 간 後로 큰 地獄에 빠러디여 있다니 네 福力을 니버 受生하야 (월석 21: 55)

내 아래... 邛池入 龍이 드외야 기픈 물 아래 있다니 여러히 닛위여 마르니 (월석 2: 50)

내... 族性에 즐겨 노니다니 = ...我好遊族性하다니 (능엄 5: 81)

내 츠마 몸 주겨 하다니 爲頭 도즈기 環刀 세혀 (월석 10: 25)

내 스시에 나 츠림 못하야 간대로 돌다니 길넬 한 사르물 보고 (월석 10: 25)

나는 宮中에 이심제 두식 거르며서 너무 아니 걸다니 (월석 8: 94)

우리... 衆生 일우오매 마스물 즐기디 아니타니 (월석 13: 4)

내 상네 네를 생각하노니 久遠한 劫前에 性이 貪欲이 하다니 부테 世에 나시니 = 我 | 常先憶하노니 久遠劫前에 性多貪欲하다니... (능엄 5: 65)

▽「하다니」의 간접임자말은 「나」이다.

내... 집안해 便安히 禪定하다니... 내 스랑호디... 장츠 아니 물러 일 흥가 하다니... 그뻬... = 我 | ... 室中에 安禪하다니... 我自思惟호디... 將無退失아 하다니 (능엄 5: 72)

나는 이에 뜰 願이 업다니 엇메어노 (법화 2: 231)

▽간접임자말은 「나」이다.

내 心肝이 뼈야디여... 물 전나가 것마르주거 디엿다니 이속고 큰 버디 오니 (월석 10: 24)

내... 모든 梵志의 스스이 드외엿다니 世尊이 내 마스물 아루샤 (법화 2: 22)

우리... 이존흔 深妙흔 上法을 아리 듣줍디 못하스엿다니 世尊이 이法을 니르시니 = 我等이... 未曾聞如是深妙之上法하스엿다니 世尊이 說是法하시니 (법화 2: 48)

고분님 몸 보스바 술웃 우니다니 오늬날애 녀시라 모로렛다 (월석 8: 87, 기 246)

설버 슬싸보매 이셔 흥을바를 아디 못하다니 = 痛言在疚하야 罔知所措하다니 (월석, 서: 9-10)

길헤 마르미 있더니... 전나디 못하야 마새서 자다니 (월석 10: 24)

▽「있더니」의 임자말은 「마름」이고, 「자다니」의 주체는 말할이 자신이다.

마숨으란 아니 닳고 오스로 빗오물 이룰사 붓그리다니 (천강곡 상, 기 121)

百千劫을 디나디 이 相을 아리 보디 못하엿다니 大德天이 나민가 부테 世間에 나샤미신가 = 過於百千劫호디 未曾見是相이라니 爲大德天이 生인가 爲佛이 出世間이신가 (법화 3: 117-8)

우리도 沙羅樹大王入 夫人들히라니 (월석 8: 100)

내 아랫 네 버디라니... 하늘해 나아 (석보 6: 19-20)

내 ...舍衛國 사르미라니 父母 | 나를 北方 짜르물 일으키니 (월석 10: 23)

弟子는 嶺南新州入 百姓이라니 ...녀느것 求티 아니하노이다 = 弟子는 是嶺南新州百姓이라니 ...不求餘物하노이다 (육조, 상: 5-6)

▽「弟子」는 말할이가 자기 스승에 대해서 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父母 거실젯 일후몬 羅<sub>1</sub>이라니 父母 업거시사 부텃기 가승바 出家  
호니 (월석 23: 85)

「-습다니」: 妻眷이 드의승바 하눌 존 셴기습다니 三年이 몬차 世間  
벗리시니 (천강국 상, 기 140)

「-다소니」: 부터 니르시는 解脫을 우리도 得<sub>호</sub>야 涅槃에 다득론가 호  
다소니 오<sub>호</sub>날 이 브들 몬 아승<sub>호</sub>리로다 (석보 13: 43)

世尊하 우리 상네 이 念을 호야 내 너교<sub>호</sub>던 호마 究竟滅度를 得<sub>호</sub>라  
호다소니 오늘사 아로니 =世尊하 我等이 常作是念<sub>호</sub>야 自謂已得究竟滅  
度<sub>호</sub>라 호다소니 今乃知之<sub>호</sub>니 (법화 4: 35-6)

如來 거실저기 ... 우리들히 甚히 어려<sub>호</sub> 호다소니 이제 涅槃<sub>호</sub>시니  
(석보 23: 42)

「-습다소니」: 조고맛 精誠으로 피<sub>호</sub>든 목수를 돕습고져 호습다소니  
(상원사 권선문)

이 더를 다시 지시 福 비스을 싸흘 삼고져 호습다소니 兩殿이 들조  
오시고 (상원사 권선문)

5. 안맺음씨끝 「-스-」 앞에 나타나는 「-다-」(「-다스이다」의 「-다-」)도 1-인칭활  
용인 것처럼 보인다.

내 호던 이리 甚히 외다스이다 (석보 24: 18)

▽자기자신에 관한 서술이다.

世尊하 우리... 호마 究竟滅度를 得<sub>호</sub>라 호다소니 오늘사 아로니 智慧 업스  
니 호다스이다 = ...今乃知之<sub>호</sub>니 如無智者<sub>호</sub>다스이다 (법화 4: 36)

내 本來入 門수들 일<sub>호</sub>니 비록 모미 出家<sub>호</sub>나 門수미 道에 드디 몬호미  
가줄비전댄 艱難<sub>호</sub> 子息이 아비 버리고 逃亡<sub>호</sub>야 감 호다스이다 =失我本心  
호니 雖身出家<sub>호</sub>나 心不入道<sub>호</sub>미 譬如窮子 | 捨父逃逝<sub>호</sub> 호다스이다 (능  
엄 1: 92-3)

6. 그러나 이 어형에는 「-으시-」가 결합되어 일인칭이 되지 않는다.

부테 實로 大乘으로 敎化<sub>호</sub>시다스이다 (월석 13: 36)

이는 우리 허브리라 世尊入다시 아니시다스이다 =是는 我等咎 | 라 非世尊

也 | 시다스이다 (법화 2: 5)

이제 부텃 音聲 듣조오니... 한 사<sub>호</sub>로 道場에 니를에 호시다스이다 =今  
聞佛音聲<sub>호</sub>조오니... 令衆至道場이시다스이다 (법화 2: 22)

부터... 우리... 聲聞弟子 | 라 호시다스이다 =佛... 而說我等이... 聲聞弟子  
| 라 호시다스이다 (법화 2: 246)

주거 化樂天宮에 나시리어늘 天宮에 몬 보<sub>호</sub>보니 도<sub>호</sub>해 地獄에 호시  
다스이다 (월석 23: 86)

▽이 말은 目連이 지옥에 있는 그 어미에게 한 것이다.

7. 그러므로 「-스-」에 앞서는 「-다-」는 1-인칭 씨끝으로 보기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다-」는 힘줄(강세)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는 수 밖에  
없다. (p. 950 참조)

8. 이와 비슷한 어형인 「-다소라」(→ p. 790), 「-다소니」(→ p. 792)의 「-다-」는 1-  
인칭 씨끝으로 보면서, 「-다스이다」의 「-다-」는 힘줄의 씨끝으로 보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듯 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이렇게 분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첫째, 「-다소라」, 「-다소니」에는 「-으시-」가 결합될 수 없고, 그것들이 모두  
1-인칭 입자말에 응하고 있으며,

둘째, 뒤따르는 형태소가 한편은 「-소-」, 한편은 「-스-」로서 구별이 있기 때문  
이다.

9. 「-다」 활용형에서는 「-오/우-」와 안맺음씨끝 「-으니-」는 배타적인데 (p. 760  
참조), 시제-인칭의 「-다-」는 「-으니-」와 배타적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내... 權으로 이 城을 망<sub>호</sub>맏다니라 =我... 權化作此城<sub>호</sub>맏다니라 (법화  
3: 196-7)

부테 方便力으로 三乘敎를 비요몬 衆生이 곤고대 着<sub>호</sub>호씨 호다니  
라 =佛이 以方便力으로 示以三乘敎는 衆生이 處處着<sub>호</sub>호씨 引之<sub>호</sub>야 令得  
이러니라 (법화 1: 158)

▽「부터」는 말할이 자신을 가리킨 것이므로 「호다니라」로 응하고 있다.

한편 한문의 토(-이러니라)는 2·3-인칭형으로 응해 있는데, 이것은 「佛」  
이란 표현에 끌린 탓으로 생각된다.

## (나) 2·3-인칭법

「-더/러-」

10. 1-인칭의 「-다-」에 대한 3-인칭 형태소는 「-더/러-」이다. (2-인칭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월에 쓰인 예는 보이지 않음.)

「-더라」: 迦葉이…布施도 만히 하더니 제 겨집도…世間애 情欲이 업  
더라 (석보 6:12)

高聲으로 날오디… 너희들히 당다이 부테 드외리라 하더라 (석보 19:31)

그때 燈照王이 …부터를 맞즈바 저습고 일흠난 고졸 비더라 (월석 1:13)

病흔 사르미 잇거든 夫人이 머리를 문지시면 病이 다 도더라 (월석 2:30)

一切天人이 네 업던 이를 得과라 하더라 (월석 18:44)

朱崖 | 머리터리 브딧는듯고 碧海 | 내 옷<sub>2</sub>외를 부더라 = 朱崖著毫髮 碧海吹衣裳 (두언 25:5)

「-더이다」: 그딛 썩를 맞고져 하더이다 (석보 6:15)

六師 | 겹구오려 하거든 제 흘양으로 하라 하더이다 (석보 6:27)

주머겻 相이 겨시더이다 (능엄 1:98)

즈믄디위 블러도 맛골뭇 사르미 업더이다 (월석 23:83)

「-습더라」: 佛如來入 우업슨 여러되샤물 기드리습더라 = 佇佛如來入 無上開示<sub>하</sub>습더라 (능엄 5:3)

蓮花 | 나아 바를 받습더라 (월석 2:37)

「-더니」: 目連이…淨飯王의 安否 숯더니 耶輸 | 부텃 使者 왓다 드  
르시고 (석보 6:2)

그때 衆中에 열두 夜叉大將이 모든 座애 잇더니 (석보 9:39)

爲頭 도즈기 나를 자바다가 겨집 사마 사더니 제 法에 상네 門 자  
며 두고 하다가 쫓쳐 오거든 썰리 門을 열라 하엿더니 (월석 10:25)

구스리며 壯嚴엿 거시 다 光明을 내더니 하오사 嶮흔 길헤 드르샤  
(월석 10:27)

흔 龍王이 … 龍王中에 못 爲頭<sub>하</sub>더니 …本願力 전츠로 이 龍이 모

물 受<sub>하</sub>엿더니 如來의… 禮拜<sub>하</sub>습바 (월석 10:67)

子息들히 …싸해 그우더니 (월석 17:17)

「-습더니」: 須達이 그리습더니 世尊入의 술바 (천강곡 상, 기 174)

大義를 불기실씨 侯國이 오습더니 (용 66장)

大勳이 이룩시릴씨 人心이 몰습더니 禮士溫言<sub>하</sub>샤 人心이 굳즈불니  
(용 66장)

11. 「-다」, 「-으니」 활용형에 쓰인 안맺음씨끝 「-다-」는 1-인칭 임자  
말에 응하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 활용형에서는 「-다-」와 「-으시-」는  
배타적이다. (이것은 이 활용형에서는 「-오/우-」와 「-으시-」가 배타적임  
과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더-」와 「-으시-」는 자유로이 결합될 수 있  
는데, 그 순위는 임의적이다.

世尊이… 龍과 鬼神과 위<sub>하</sub>야 說法<sub>하</sub>더시다 (석보 6:1)

王이… 하녀고론 깃그시고 하녀고론 두리여 하더시다 (월석 2:43-4)

부테… 굴근 比丘 八千人과 하디 잇더시니 (석보 9:1)

菩薩이 비에 드리겨삼제 夫人이 六度를 修行<sub>하</sub>더시니 (월석 2:25)

느려가아 부터 드외요리라 하시더라 (월석 2:10)

金像이… 放光<sub>하</sub>시더라 (월석 21:204)

如來 | … 다 四大 和合을 因<sub>하</sub>야 發見이라 하시더니 = 如來 | … 皆

因四大 | 和合<sub>하</sub>야 發見이라 하시더니 (능엄 3:64)

如來… 崛山으로 가시더니 五百群賊이 브락습고 (월석 10:28)

#### (다) 예외

12. 이 규칙에도 약간의 예외가 나타나나,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우리들히 지비 이삼저의 受苦 | 하더이다 (월석 10:23)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는 그 간접임자말에 따라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  
에서는 그 직접임자말에 응한 활용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간접임자말에 따라 활용한 예는 바로 같은 자리에 나타난다.

내 지비 이삼저기 受苦 | 만타라 (월석 10:23)

내 後에 定에 나 모미 처엄 존더이다 = 我 | 後出定하야 身質이如初  
하더이다 (능엄 5:72)

▽이것도 위와 한가지다.

내 지비 이셔 環刀 | 며 막다히를 두르고 이셔도 두립더니 (월석 7:5)

▽「나」를 「두립-」의 주체로 잡으면 이것은 완전한 예외가 될 것이나, 혹은 글쓴이의 속뜻으로는, 「두립-」의 주체를 이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으로 생각했을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는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

### (3-2) 「-과-」: 「-으니-」

#### (가) 1-인칭법

「-과/와-」

13. /ㄹ/과 ㅁ이의 /ㅣ/와 잡음씨 「-이-」 밑에서 /ㄱ/이 탈락하며, 「-다(→라)」 활용형에서만 쓰인다. (「-으시-」와는 배타적이다.)

내 이제 흰히 즐겁과라 = 我今快樂과라 (법화 2:137)

우리 오늘 이 구즌 길흘免하야 흰히 便安호물 得과라 (월석 14:77)

내 오늘 큰 利를 얻과라 홀디니라 (법화 4:84)

내 前生애 여러가짓 罪 이실씨 아드리 이런 受苦를 하게 化과라 (월석 21:219)

▽「아드리 受苦를 하다」를, 「나」를 임자말로 하여 하임(사역)으로 변형한 말이니, 「하게 하-」의 주체는 말할이 자신이다.

오늘사 스시 얻과라 (월석 7:9)

▽임자말은 나타나지 않은 「나」이다.

호려 漳水에 病을 버드러 蒿里에 餞送호물 기리 저버리과라 = 尙  
纏漳水疾 永負蒿里餞 (두언 24:36)

春陵에 지운 그를 보고 俊哲호 사르미 ㅼ들 ㅼ든 보과라 = 觀乎春陵

作 歎見俊哲情 (두언 25:33)

巫山과 楚水入 보물 두번 보과라 = 兩見巫山楚水春 (두언 7:13)

▽두언의 예에 있어서는, 그 주체는 모두 글쓴이인 두보 자신이다.

窮子 | 깃거 네 업던 이를 得과라 하야 (월석 13:19)

이 모든 大衆이 아리 잇디 아니호거슬 得과라 하습더라 (능엄 5:4)

다 ㅁ장 깃거 네 업던 이를 얻과라 하더니 (석보 19:40)

내 너교디 滅度애 시러 니를와라 타니 = 自謂호디 得至於滅度호라 타니  
(법화 2:23)

賢호 主人이 이를 주어 시르물 보내애 호물 비루수 알와라 = 始知賢  
主人 贈此遣愁寂 (두언 7:23)

南塘入 길흘 아디 몰하다니 이제 第五橋를 알와라 = 不識南塘路 今知  
第五橋 (두언 15:7)

▽두언의 예들은 모두 두보 자신에 관한 서술이다.

내 그제(저)기도 존호 中애 難隨를 ㄷ해내오 이제 와 또 生死受苦  
애 ㄷ해내와라 (월석 7:19)

우리... 부텃 恩惠 갑스오물 하마 得호미 ㄷ의와라 하다이다 = 我等  
이... 則爲已得報佛之恩호라 타이다 (법화 2:251)

朕이 知之矣와라 (내훈, 2하:25)

吾已知之와라 (내훈, 2하:33)

14. 이상이 모두 1-인칭일인데, 「-과라/와라」가 1-인칭 임자말에 응하는 활용형임은, ‘법화 2:23’의 「니를와라」에 대한 한문토가 「호라」로 되어 있고, ‘법화 2:251’의 「ㄷ의와라」의 한문토가 역시 「호라」로 되어 있음을 보아 더욱 명백해진다.

15. 「-과/와-」는 「-습-」을 앞세울 수 있고, 「-으이-」, 「-소-」가 이에 뒤따를 수 있는 점, 앞의 「-다/라-」와 한가지다.

「-습과라」: 智德의 健히 化호샐 이를 하마 보습과라 니르시니 = 謂已

見智德健化之事호시니 (법화 4:169)

5. 안팎음씨끝의 굴곡범주



「-과이다」: 내 듣좁고 疑心入 그므를 긋과이다 = 我聞<sup>하</sup>좁고 疑網을 斷<sup>과</sup>이다 (법화 2:24)

내... 큰 善利를 어두니 그지업슨 보비를 求<sup>티</sup> 아니<sup>하</sup>야 제 得<sup>과</sup>이다 = ... 無量珍寶를 不求自得<sup>과</sup>이다 (법화 2:181)

▽한문토의 「-과이다」는 「-과이다」의 /i/ 동화 변동형이다.

阿難이... 부텃고 술오디... 내 ㅅ스미 實로 몸 밧고 이쇼물 알와이다 = ... 悟知我心이 實居身外<sup>과</sup>이다 (능엄 1:52-3)

내... ㅅ스매 큰 깃부플 머거 疑心入 그므를 다 하마 덜와이다 = 我... 心懷大歡喜<sup>하</sup>야 疑網을 皆已除<sup>과</sup>이다 (법화 2:8)

「-습과이다」: 오늘 이 모든 大會와 쯔 내 다 하마 보습과이다 = 今此 諸大會와 及我 皆已見<sup>과</sup>이다 (법화 4:169)

우리 오늘 부텃 알피... 希有<sup>하</sup> 法을 듣좁고... 그지업슨 보비를 아 니 求<sup>하</sup>야서 얼좁과이다 (월석 13:6)

「-과소라」: 서르 도라본딘 아들 업소물 免<sup>과</sup>소라 = 相顧免無兒 (두언 21:31)

▽〈주〉에 ‘言甫 | 與曜로 皆有傳業之子也 | 라’라 하였으니, 이 말의 주 체는 두보 자신이다.

16. 「-과-」를 포함한 활용형은,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과라, -습과라, -과이다, -습과이다, -과소라」들로서 이것은 모두 1-인칭 임자말에 응하는 「-다」 활용형이다. 그런데 「-너더」 활용형에 결합된 「-관더」 활용형이 보인다.

아가 아가 긴 劫에 못 볼까 하다니 오<sup>하</sup>날 地獄門 앞피서 아기와 새 르 보관더 (월석 23:87)

#### (나) 2·3-인칭법

「-으니-」

17. 「-과-」에 대립되는 3-인칭 활용 (2-인칭월에 쓰인 예는 보이지 않

음)의 안맺음씨끝은 「-으니-」인데, 「-으니-」는 「-과-」와는 달리, 주체높임의 「-으시-」와 자유로이 결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쓰이는 자리가 「-과-」에 비하면 아주 자유롭다. p.882 이하 참조)

「-으니라」: 녀느 쉰 아히도 다 出家<sup>하</sup>니라 (석보 6:10)

羅雲의 ㅅ스미 여러 아니라 (석보 6:11)

이 龍이 靑蓮 모새 이실씨 일흠 지호니라 (석보 13:8)

이런... 사르문 물러가도 도호니라 (석보 13:47)

人間도 欲界에 드니라 (월석 1:32)

그제 龍王들히 次第로 안조니라 (월석 10:66)

「-으니이다」: 하<sup>하</sup>고지 드르니이다 (월석 2:7, 기 14)

沸星 별도 느리니이다 (월석 2:30, 기 18)

無間엿 그날 罪人이 다 樂을 受<sup>하</sup>야 훈디 나니이다 (월석 21:29)

無間 罪報 | 그 이리 이러<sup>하</sup>니이다 (월석 21:44)

天下에 앓가볼 거시 몸 곤<sup>하</sup>니 업스니이다 (월석 21:216)

「-느니라」: 神通 잇는 사르미사 가느니라 (석보 6:43)

「-느니이다」: 子母 | 다 損<sup>하</sup>느니이다 (월석 21:125)

「-더니라」: 네는 조히 업서 대를 엇거 그를 쓰더니라 (월석 8:99)

「-더니이다」: 乾闥婆의 아들이 놀애를 블라 七寶琴을 노더니이다 (월석 21:190, 기 422)

「-스불니라」: 그 王이 사름 브려 주기스불니라 (월석 1:7)

「-스불니이다」: 明月珠도 득스불니이다 (월석 2:30, 기 18)

「-으시니라」: 王이 깃그샤 無憂樹 미티 가시니라 (월석 2:29)

「-으시니이다」: 沸星 도둑제 白象 득지고 히 光明을 득시니이다 (월석 2:17, 기 14)

「-으시느니라」: 나웃 이 相을 알오 十方佛도 아르시느니라 (석보 13:43)

「-으시느니이다」: 如來 상네 우리를 아드리라 니르시느니이다 (월석 13:33)



「-더시니라」: 彌勒薩菩은 ...조갯 무슨미 넉더시니라 (월석 1: 52)

「-더시니이다」: 宮中에 겨심제... 비 골품도 업더시니이다 (월석 8: 82, 기 233)

### (3-3) 「-가-」: 「-거-」

18. 안맺음씨끝 「-가-」와 「-거-」는 여러 활용형에서 대립되면서 전자가 1-인칭에, 후자가 2·3-인칭에 응한다.

「-가니오」: 「-거니오」

「-가니오」: 어딿 늘근 한아비 와서 그를 깃가니오 = 何處老翁來賦詩 (두언 14: 17)

엇메라하야 늘근 나해 世事를 시름하야 心力을 보드라이 헉가니오 = 胡爲將暮年 憂世心力弱 (두언 14: 2)

나그내는 어느 마을로 조차 와 오래 서서 怪異히 너겨 吁嘆호물 오래 헉가니오 = 客從何鄉來 竚立久吁怪 (두언 18: 16) <주> 客은 甫 | 自謂라.

나그내로 사로매 自出을 맞:보니 여희유메 몇버늘 슬카니오 = 客居逢自出 爲別幾悽然 (두언 23: 53)

흔번 蒼江에 누워서 歲의 느저가물 놀라노니 몇디위를 青瑣門에 朝班을 헉아리가니오 = 一臥蒼江驚歲晚 幾回青瑣點朝班 (두언 6: 9)

엇메 搖落호물 相對헉얏가니오 헉물며 風塵이 오라미썩녀 = 如何對搖落 況乃久風塵 (두언 6: 31)

巫峽엿 춘 마을로 엿메 누네 對헉얏가니오 = 巫峽寒江那對眼 (두언 11: 2)

感動하야 몇버늘 시르물 슬아니오 = 感動幾消憂 (두언 14: 22)

시드러운 늘그니는 무슨매 엿던 사르미아니오 = 疲薺竟何人 (두언 24: 18) <주> 薺은... 甫 | 自稱也 | 라.

오직 다른 마을히 와 잇노니 어딿 사르미아니오 = 只在他鄉何處人 (두언 8: 14)

▽이상의 '두언'의 귀절들은 모두 지은이 두보 자신에 관한 말이다.

「-거니오」: 셨 머리에 기튼 슬푸미 잇느니 프른 대에 몇 사르미 울맛거니오 = 白頭遺恨在 青竹幾人登 (두언 20: 23)

몇 히를 니근 바블 맞나거니오 萬里에 清明이 逼近호도다 = 幾年逢熟食 萬里逼清明 (두언 11: 10)

▽'두언 11: 10'의 예는 예외이다. (이것은 자신에 관한 말이다.)

「-가노」: 「-거노」

「-가노」: 더위자바 녀매 몇 격지를 들워 보리가노 = 扶行幾屐穿 (두언 20: 2)

어느 두리로 네 方便으로 나를 외오 혀다가 빠줄 삼게 헉가노 = 何階子方便 謬引爲匹敵 (두언 16: 37)

내 이제 브들 엿메 슬허 도라보고 건너서 헉울로 답답하야 카노 = 吾今意何傷 顧步獨紆鬱 (두언 16: 1)

病이 하디 오히려 이 나그내 드외요니 썩 踈拙호니 쯔 엿던 사르미아노 = 病多猶是客 謀拙更何人 (두언 11: 1)

▽모두 지은이 두보(杜甫) 자신에 관한 말이다. 그리고 '두언'의 중간에도 다음 예들이 보인다.

넛 사름은 垂堂호도 警戒하야놀 이젠 내 엿디라 누미 命命에 든니가노 = 昔人戒垂堂 今則奚奔命 (두언 중간 1: 49)

엇메라 오래 예 와 머물아노 = 胡爲淹此留 (두언 중간 12: 27)

「-거노」: 더 싸할 엿던 전츠로 일후를 極樂이라 헉거노 (월석 7: 63)

衆生이 보고 더러볼썩 엿메 이런 더러본 일 헉거노 흔대 (월석 1: 44)

엇메 喪亂入 後를 因하야 곧 주그며 사로미 눈호미 잇거노 = 那因喪亂後 便有生死分 (두언 21: 41)

엇메 옷바블 뼈 날로 이에 니를어노 커늘 = 何用衣食하야 使我至此 | 어노 커늘 (법화 2: 240)

「-가니」: 「-거니」

「-가니」: 내 仁義禮智信을 아라 行헉가니 너를 恭敬호미 맞당티 아니



하니라 = 我 解行仁義禮智信 하기니 不合敬爾라 (금강 20-1)

내 녀 이거슬 怪異히 너기가니 어느 구티여 나로 = 我行怪此安敢出 (두언 25:29)

나는 내 어미 나흔 ㅁ외를 뒷가니 이 하야 므슴하료 (남명, 상:31)  
閻羅大王이 讚歎하야 닐오디 도하실씨 도하실씨 내 親히 저습고 쉼  
뽕우습가니 부텃고 信티 아니하스블려 하고 (월석 23:88-9)

「-거니」: 大乘은 世界 밋기도 오히려 法性色이 잇거니 이 四天이 혼  
갓 뷔리여 (월석 1:37)

하마 그 體 업거니 엇테 그 名이 이시리오 = 既無其體어니 豈有其名  
이리오 (영가, 하:95)

空空이 제 알어니 엇테 네 入에 브트리오 = 空空이 自知어니 何關汝入하  
리오 (능엄 3:10)

「-가니와」: 「-거니와」

「-가니와」: 듣좁고 깃거하기니와 그러나흔디 (월석 8:93)

내 命 그추미사 드더니 너기가니와 ...이 네흘 몸보아 하노라 (월석  
10:4)

그디 貴한저고 내 늘구물 츠기너기디 아니카니와 슬허 브락오른 이  
제 여희오 서르 思憶호물 爲하노라 = 不恨我衰子貴時 恨望且爲今相憶  
(두언 16:61)

스승 ㅁ외요미란 通達티 몸호물 謙讓카니와 鄉黨 사르디 恭敬호른  
누를 묻저 하리오 = 師資謙未達 鄉黨敬何先 (두언 20:18)

오직 몸 이길가 저카니와 값간도 命을 닛디 아니호리이다 = 惟恐弗  
堪이어니와 不敢忘命호리이다 (내훈 1:83)

▽한문토는 「-거니와」 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이다.

내 眞實로 宮中에 사름 잇는주를 알아니와... = 吾 固知宮中에 有人  
이어니와 (내훈, 2하:26, 48-9)

▽한문토가 「-거니와」형을 취하고 있는 점, 앞의 예와 같다.

「-거니와」: 그 ㄴ은 ... 아히 나힌체서 싫지거니와 (恒河 봄은) 저으며  
늘구미 잇는녀 = 其面은... 鑑於童年커니와 ... (능엄 2:9-10)

이 經을 닐거 뿐 알리 쉽디 몰거니와... (석보 13:62)

湘妃의 거문고 노던저근 보디 몰거니와... = 不見湘妃鼓瑟時 (두언 16  
:30)

▽이것은 규칙에 맞지 않은 용법이다.

이 사르른 阿難... 菩提에 버으로미 손지 떨어니와... (법화 4:94)

「-간마른」: 「-견마른」

「-간마른」: 내 丹砂 잇는디 나사가고져 간(칸)마른 프를 빌오며 프를  
견나매 모디 ㅁ보물 아노라 = 我欲就丹砂 跋涉覺身勞 (두언 8:58)

내 외로윈 무더플 가 울오져 스랑칸마른 南녀기서 도라갈 舟楫이 병  
으레라 = 吾思哭孤冢 南紀阻歸楫 (두언 24:17)

나도 쯔 僧榮과 慧可를 스승한간마른 모미 오히려 禪寂에 락엇노라  
= 余亦師榮可 身猶縛禪寂 (두언 16:1)

靑眼으로 보간마른 오직 길히 窮迫하야라 = 靑眼只道窮 (두언 8:61)

▽주체는 글지은이 자신이다. 다음 '두언'의 예도 모두 그러하다.

소녀 珍重한 브들 받고져 칸마른 내 모물 도·라·보니 公卿이 아니  
로다 = 領客珍重意 顧我非公卿 (두언 22:19)

그디를 앓겨 오직 심히 주글쑤니언딩 머물오져 칸마른 富貴호물 풀  
그텃 이슬와 엇더하니오 너기눗다 = 惜君只欲苦死留 富貴何如草頭露 (두  
언 22:52)

곧 劉表를 븐고져 칸마른 도르혀 禰衡을 아철가 疑心하노라 = 徑欲依  
劉表 還疑厭禰衡 (두언 23:4)

얼우니 술윳 자취를 도로 스랑한간마른 듯그로 밍ㅁ론 門을 避할가  
전노라 = 還思長者轍 恐避席爲門 (두언 21:6)

길히 머러 가다가 泥滯할가 저허 스랑칸마른 興이 기퍼 ㅁ츠매 고  
티디 몰하노라 = 路遠思恐泥 興深終不渝 (두언 16:64)



내 득수며 重히 너기간마른 너희 무리 본바도물 願티 아니호노라=  
 吾 愛之重之간마른 不順汝曹이 效也호노라 (내훈 1:36, 38)

이제 문득 본바다 이 解를 甞안마른 그러나 쓰든 잇고 지죄 업서  
 =今甞效斯解안마른 然이나 有其志호고 無其才호야 (법화 1:9)

「-건마른」: 城 높고 득리 업건마른 (용 34장)

활쏘리 하건마른 (용 45장)

나라히 오라건마른 (용 84장)

바리 빠리는 쇠 거출언마른 慈悲心으로 구지돔 모르시니 (천강곡 상,  
 기 77)

또 本鄉엿 즐거우미사 알언마른 敢히 네 곤호물 스랑티 몰호돏다=  
 亦知故鄉樂 未敢思宿昔 (두언 7:26)

▽「알언마른」의 주체는 글지은이(두보) 자신이 아니고, 「吳侍御」이다.

## 19. 예외

每常 외로이 ㄴ라가고져 컨마른 혼갓 온 혜요리 잇구미 ㄴ외엿노라  
 =每欲孤飛去 徒爲百慮牽 (두언 20:7)

▽〈주〉에 “此下로 至黃雀任翩翩은 甫 自叙 1라”라 하였으니, 「ㄴ라가고  
 져 컨마른」의 주체는 두보 자신인데, 「-칸마른」이 되지 않은 것은 규칙을  
 벗어난 용례이다.

可히 슬프도다 불서 가지와 너출왜 다르디 아니칸마른 이거시 고  
 아 長常 먼디서 날시니라 =可憐先不異枝蔓 此物娟娟長遠生 (두언 15:21)

▽〈주〉에 “此物은 指荔枝호니 言荔枝與他菓木으로 不異언마른 以生於遠  
 地故로 以爲貴也 1라”라 했으니, 「다르디 아니칸마른」의 주체는 「荔枝」  
 임을 알 수 있으며, 〈주〉에는 「-언마른」으로 응해있으니, 「-칸마른」은 잘  
 못임을 알 수 있다.

川上座 1 今日에 不免向猛虎口中호야 奪食호며 獐龍領下애 穿珠이  
 안마른... =川上座 1 오랏나래 띤온 버의 이블 向호야 밥 아수며 모  
 딴 龍의 턱아래 구슬 빼유물 甞티 몰호리언마른 (금강삼가 5:31)

▽번역의 글은 바로 쓰였으나, 한문토는 잘못 되었다.

내 알언마른 =自知 (두언 11:21-2)

20. 「-가, 거-」는 움직씨 「오-」 밑에서는 「-나-」로 변동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2·3-인칭에 다같이 「-나노, -나니와, -난마른」이 될 수  
 밖에 없다.

제 너교디... 모딘 중성이 ㄴ의엿도소니 ㄴ스므라 바미 나오나노 호  
 야 (석보 6:9)

十方 諸天이 이 기별 닐어늘 현맛 供養이 모다 오나노 (월석 18:2,  
 기 320)

처섬브터 마초뻬 證호야 가져 오나니와 (금강삼가 2:57)

그딤내 머리셔 ㄴ비 오난마른 如來入 舍利는 ㄴ 나소리어라 (석보  
 23:54)

이상의 예들 중 첫째만이 1-인칭이오, 나머지는 3-인칭인데, 「오-」  
 밑에서는 「-나-」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칭 활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 21. [붙임]

이상의 활용형들은 모두 「-가-」와 「-거-」의 대립으로 인칭의 구별  
 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대립이 인칭의 구별을 나타내지  
 않는 일도 있으니, 다음에 이를 들어 두고서 뒷날의 연구를 기다리기로  
 한다.

「-가(지라, 지이다)」: 「-거(지라, 지이다)」

「-가」: 韋提希夫人이 阿彌陀佛國에 나가지이다 호야닐 (월석 8:5)

願호노니 가나가지이다 (월석 8:96)

내 後에 부테 ㄴ외야 ...이젧 世尊 곤가지이다 (월석 2:9)

五百 사르미 弟子 1 ㄴ외<sup>아</sup>지이다 호야 (월석 1:9)

이 地獄애 아니 들아지이다 (월석 7:4)

阿難이... 結集호는 門 밧기 와 들아지라 호야닐 (석보 24:3)



닐웁 스시를 살아지라 하야늘 (석보 24:15)

「-거」: 淨土에 니거지이다 (월석 8:1, 기 212)

내 니거지이다 가샤 (용 58장)

모든 놀람과 저함(흠) 업거지이다 = 無諸警懼 하야지이다 (영가, 하: 140)

흔디 神通大光藏에 들어지이다 = 同入神通大光藏 하야지이다 (원각, 하 3-2: 102, 103)

아비 보라 니거지라 (월석 8:101)

오직 닐오더 困苦홀시 종 드외어지라 하느다 = 但道因苦乞爲奴 (두언 8:1)

「지라, 지이다」는 바람을 나타내는 도움풀이씨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은 모두 말할이 자신의 바람(소망)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가」와 「-거」 두가지가 쓰여있다.

「-가라」: 「-거라」

「-가라」: 훈 버스레 락여쇼몬 眞實로 모뎡 값가라 하논디라 = 一官覇 絆實藏身 (두언 21:29)

岩頭 | 德山을 보아늘 흥번 喝흥대 곧 절하니 이는 恩을 알아라 하  
니야 恩을 값가라 하니야 (몽상 31)

絃와 冕을 드던히 너규메 關係호미 아니라 오직 이 風塵을 避가래  
니라 = 不關經絃冕 但是避風塵 (두언 20:26)

「-거라」: 어셔 도라 니거라 (월석 8:101)

「-가시니」: 「-거시니」 (높임 아님, p.686-7 참조)

「-가시니」: 이제 내 하마 阿羅漢道를 得하야 오래 病緣을 여희엿가시  
니 = 今我 | 已得阿羅漢道하야 久離病緣 거시니 (능엄 5:72)

「-가시니」가 1-인칭 임자말에 응하고 있는듯 하나, 그 예가 적고, 또 한문토에서는 「-거시니」 형으로 응해 있으므로 우선 예를 들어 둠에 그친다. 그리고 다음 예도 참고로 들어 둔다.

내 모뎡 도라본던 7장 意趣 | 업가시니 네 사괴는 뜨든 엇데 오히  
려 새로이 하느노 = 自願轉無趣 交情何尙新 (두언 중간 9:23)

「-거시니」: 네... 如來入 三十二相을 브토라 커시니 (능엄 1:45)

하다가 虛空에서 옴딘댄 하마 솟바당을 觸거시니 엇데 모뎡 觸디 아  
닌느노 = 若空來者 | 댄 既能觸掌하거시니 何不觸身고 (능엄 2:114)

「-거시니」는 높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높임을 나타내지 않는 것만을 예로 든 것은, 「-가시니」로 높임을 나타내는 예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칭법 마무리〕

「-다」와 「-으니」 활용형에 있어서의 안맺음씨끝 「-오/우-」, 「-과-」, 「-다-」는 그 풀이말에 대한 주체가 말할이 자신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으리-」가 여기 아울러 결합되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주체인 말할이의 의도를 아울러 나타낸다.

그러나 인칭의 표시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다, -으니」 이외의 다른 맺음씨끝의 활용형에서도 「-오/우-」가 인칭을 표시하는 일이 있고, 또 「-오/우-」가 그것을 표시한듯이 보이는 예도 있으며, 안맺음씨끝 「-가-」도 1-인칭에 응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면, 본래 인칭법은 상당히 널리 표시되었던 것인데, 15세기 후반기는 그것이 쇠퇴해 가는 과도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3) 주체-대상법

#### (1) 매김법 활용과 「-오/우-」

1. 매김법의 맺음씨끝 「-은」과 「-을」은 그 앞에 안맺음씨끝 「-오/우-」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 설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명한 「-다」, 「-으니」 활용형과는 달리, 인칭의 구별을 나타내지 않는다.  
첫째, 「-오/우-」를 가진 매김법 활용형은 인칭에는 관계없이 쓰인다.

내 뒷논 一切財物(법화 2:222)

이들히 내 나호니라 (법화 5:120)

「나호니라」는 「나흔+이(매인이름씨)+(이)라」로 분석되며, 「나흔」, 「뒷논」의 임자말은 「내」이다.

너희들히 生死 버술 이를 힘써 求하야사 ㅎ리라(월석 10:14)

「求하야사 ㅎ리라」의 임자말이나, 「버술」의 속뜻의 임자말은 다 같이 「너희들」이다.

難施 1 出家하온 因緣으로(월석 7:11-2)

이 무리 몬 得흔 이를(석보 13:46)

舍利弗이 須達의 甞座에 올라 앉거늘(석보 6:30)

須達의 止舍 亭舍(석보 6:38)

이상의 예는 모두 3-인칭 임자말이다.

둘째, 「-다, -으니」 활용형에서는 「-오/우-」와 「-으시-」는 배타적이었다.(p.760) 그것은 이 활용형에서는 「-오/우-」와 「-으시-」가 동시에 연결되면, 그것은 말할이가 자기자신을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데, 「-은, -을」 활용형에서는 「-으시-」와 「-오/우-」는 자유로이 결합된다. (「-으시-」와 「-오/우-」가 결합될 때는 「-으시-」는 「-으샤-」로 변동하면서, 동시에 「-오/우-」는 무형의 변이형태를 취한다.)

부더 教化하샐 衆(월석 18:3)

神力으로 甞르샐 거시(월석 18:31)

衆生 濟渡하샐 일(법화 3:39)

衆生 濟渡하샐 願(법화 3:98)

2. 통어론적으로 보면, 풀이씨의 매김꼴(-은, -을)은 한정변형에 의한, 마침법의 바뀔꼴이다. 즉,

① 붉은 꽃 ⇨ 꽃이 붉다

② 먹은 밥 ⇨ 밥을 먹었다.

③ (네가) 준 돈 ⇨ (네가) 돈을 주었다.

④ (돈을) 준 너 ⇨ 네가 (돈을) 주었다.

①「붉은 꽃」과 ②「먹은 밥」은 그 겹구조(표면구조)는 같아서, 다 같이 「매김말+(임자씨)」이나, 그 속구조(심층구조)는 달라서, ①은 「꽃이 붉다」의 변형이오, ②는 「밥을 먹었다」의 변형이다. 즉 매김말과 그 한정을 받는 임자씨와의 관계는, ①은 임자말과 풀이말의 관계인데 비해, ②는 부림말과 풀이말의 관계이다.

그리고 ③, ④의 예로 보면, 풀이말에 종속되는 성분이 둘 이상일 때는, 같은 기본월에서 두가지 이상의 변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기본월에 있어서의 통어론적 차이는, 현대국어의 매김꼴에서는 전혀 구별이 없게 되어 있으나, 서기 15세기 국어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우-」의 있고 없음으로써 표시된다. 즉,

「임자말+풀이말」의 한정변형으로 된 말(앞의 ①, ④)에 있어서는 매김꼴이 「-오/우-」를 가지지 않는다.

「부림말+풀이말」의 한정변형으로 된 말(앞의 ②, ③)에 있어서는 매김꼴이 「-오/우-」를 가지게 된다.

## (2) ㄴ 매김꼴

1. 「-은」 앞에는 「-오/우-」 이외에 안맺음씨꼴 「-습-」, 「-으시-」, 「-느-」가, 이 순위로, 수의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다음과 같은 활용형(매김꼴)의 대립이 나타난다.

① 「-은」: 「-오/우+ㄴ」

5. 안맺음씨꼴의 굴곡범주



② 「-스(스,즈)본」: 「-스(스,즈)본」

③ 「-(습)+으신」: 「-(습)+으산」

④ 「-(습)+(으시)+논」: 「-(습)+(으시)+논」

2. 「-습-」, 「-으시-」, 「-느-」 가운데 끝의 「-느-」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른 것을 수의적으로 가진 어형이 ④이고,

「-느-」를 가지지 않고, 그 앞의 「-으시-」를 필수적으로, 「-습-」을 수의적으로 가진 것이 ③이고,

「-느-」, 「-으시-」를 가지지 않고, 「-습-」만을 가진 것이 ②.

그리고 세 가지 안맺음씨끝을 다 가지지 않은 것이 ①이다.

## (2-1) 주체법과 대상법

(가) 완전한 임자씨를 한정하는 경우

(가-1) 「-은」: 「-오/우+ㄴ」

3. 「-은」은, 그 한정을 받는 임자씨가 속뜻으로는 이 풀이씨의 임자말이 됨을 나타내고(주체법), 「-오/우+ㄴ」은, 그 한정을 받는 임자씨가 속뜻으로는 이 풀이씨의 부림말이 됨을 나타낸다.(대상법)

「-은」

4. 주체법 활용형이다.

出家<sup>호</sup> 사르<sup>문</sup> (석보 6: 22) <사르<sup>미</sup> 出家<sup>하</sup>다

邪曲<sup>호</sup> 道理(석보 6: 21) <道理<sup>리</sup> 邪曲<sup>하</sup>다.

깃<sup>븐</sup> 막<sup>수</sup>물(석보 6: 42) <막<sup>수</sup>미 깃<sup>브</sup>다.

한 모<sup>딘</sup> 이<sup>를</sup>(월석 21: 51) <(그) 이<sup>리</sup> 하<sup>다</sup>, (그) 이<sup>리</sup> 모<sup>딜</sup>다.

춘 어<sup>르</sup>미며(월석 21: 80) <어<sup>르</sup>미 츠<sup>다</sup>.

블<sup>즌</sup> 형<sup>더</sup>기(석보 9: 3) <형<sup>더</sup>기 불<sup>다</sup>.

그<sup>지</sup>업<sup>슨</sup> 곱(월석 21: 27) <곱<sup>리</sup> 그<sup>지</sup>업<sup>다</sup>.

誠實<sup>호</sup> 마<sup>를</sup>(월석 21: 15) <마<sup>리</sup> 誠實<sup>하</sup>다.

놀<sup>카</sup>본 놀<sup>히</sup>(월석 21: 23) <놀<sup>히</sup> 놀<sup>잡</sup>다.

化<sup>티</sup> 어<sup>려</sup>본 剛強<sup>호</sup> 罪苦衆生(월석 21: 34) <罪苦衆生<sup>이</sup> 化<sup>티</sup> 어<sup>려</sup>다.

罪苦衆生<sup>이</sup> 剛強<sup>하</sup>다.

業道<sup>로</sup>서 난 사<sup>름</sup>들<sup>과</sup>(월석 21: 30) <사<sup>름</sup>들<sup>히</sup> 業道<sup>로</sup>서 나<sup>다</sup>.

5. 이 다음으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속구조를 보이는 일을 생략한다.

젓 일<sup>흔</sup> 아<sup>히</sup>=失乳兒(능엄 2: 1)

허<sup>근</sup> 地獄(월석 1: 29)

기<sup>본</sup> 根源(월석, 서: 21)

主藏臣寶<sup>는</sup> 藏 가<sup>슴</sup>안 臣下<sup>니</sup>(월석 1: 27)

므<sup>레</sup> 비<sup>친</sup> 들(월석 2: 55)

이<sup>런</sup> 도<sup>흔</sup> 緣(월석 21: 126) <緣<sup>이</sup> 이<sup>러</sup>하<sup>다</sup>, 緣<sup>이</sup> 동<sup>다</sup>.

이 國王等<sup>이</sup> 못 艱難<sup>호</sup> 늦<sup>가</sup>본 사<sup>름</sup>과(<사<sup>르</sup>미 艱難<sup>하</sup>다, ~늦<sup>잡</sup>다)

조<sup>디</sup> 몰<sup>흔</sup> 사<sup>르</sup>미게 큰 慈悲心을 發<sup>홀</sup>씨(월석 21: 140)

부<sup>테</sup>... 보<sup>드</sup>라<sup>볼</sup> 이<sup>든</sup> 말<sup>도</sup> 하<sup>시</sup>며(월석 9: 11)

이<sup>런</sup> 어<sup>린</sup> 사<sup>르</sup>문(월석 9: 31) <사<sup>르</sup>미 이<sup>러</sup>하<sup>다</sup>, ~어<sup>리</sup>다.

아<sup>니</sup>한 스<sup>시</sup>(석보 6: 3) <스<sup>시</sup> 아<sup>니</sup>하<sup>다</sup>.

도<sup>티</sup> 몰<sup>흔</sup> 業을 ㄹ초 지<sup>시</sup> 이 ㄹ흔 어<sup>린</sup> 사<sup>르</sup>미 구<sup>즌</sup> 길<sup>헤</sup> 떠<sup>디</sup>여

한 劫에 그<sup>지</sup>업<sup>슨</sup> 受<sup>苦</sup>를 하<sup>리</sup>어<sup>늘</sup>(월석 8: 74)

險<sup>코</sup> 어<sup>려</sup>본 구<sup>즌</sup> 길<sup>헤</sup> 뷔<sup>여</sup> 그<sup>즌</sup> 사<sup>름</sup> 업<sup>슨</sup> 두<sup>리</sup>본 ㅅ<sup>해</sup>(월석 14: 74)

ㅍ어<sup>려</sup>본, 구<sup>즌</sup>은 「길」을 속구조의 임자말로 하고 있고, 「그<sup>즌</sup>, (사<sup>름</sup>)

업<sup>슨</sup>, 두<sup>리</sup>본」은 모두 「ㅅ」를 속구조의 임자말로 삼고 있다.

지<sup>슨</sup> 사<sup>르</sup>미 注解=作者注解(법화 1: 10) <사<sup>르</sup>미 注解를 ㅅ<sup>다</sup>.

즌 ㅎ 불<sup>봉</sup>며 프<sup>거</sup>본 둘 지<sup>듯</sup>하<sup>야</sup>(월석 21: 102)

뜯 ㄹ<sup>디</sup> 아<sup>니</sup>흔 이<sup>리</sup>(월석 21: 122) <이<sup>리</sup> 뜯 ㄹ<sup>디</sup> 아<sup>니</sup>하<sup>다</sup>.

아<sup>기</sup> 나<sup>흔</sup> 겨<sup>집</sup>들<sup>힐</sup> 보<sup>고</sup>(월석 21: 143) <겨<sup>집</sup>들<sup>히</sup> (아<sup>기</sup>를) ㄴ<sup>다</sup>.



이 觀 지순 사르문(월석 8:32)

아기 빈 사르미(법화 6:47)

氏는 性 ㄴ튼 마리라(월석 1:8)

▽ 「탈」은 「氏」와 동격이다. 따라서 「탈」은 「性 ㄴ다」의 임자말이다.

「-오/우+ㄴ」

6. 「-오/우+ㄴ」은 그 한정을 받는 말이 이 풀이씨(매김꼴)의 의미상의 (속구조에 있어서의) 부림말이 됨을 표시하는 활용형식이기 때문에 이 문법범주를 「대상법」이라 부르기로 한다.

대상법의 활용형은 그 풀이씨가 부림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움직씨에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은」 활용형은 제움직씨나 그림씨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제움직씨와 그림씨에는 대상법의 활용형이 있을 수 없다.

제 지순 罪(석보 9:30)

지순 城=化作一城(법화 3:195)

沙門은 ㄴ미 지순 너르물 먹느니이다(석보 24:22)

官吏 晝노라 지순 두마리=示官吏作二首(두언 25:32)

지순 그리 잇느니=有作(두언 21:21)

須達의 지순 亭舍(석보 6:38)

▽ 이상의 「지순(지순)」은, 그 한정을 받는 말이 모두 「짓-」의 부림말이니, 이들과 앞의 「-은」 활용형에 나온 「법화 1:10」의 「지순 사름」과를 비교해 보면, 이 두가지 활용형의 용법의 차이가 명백해진다.

사르미 짓다⇒ 지순 사름

罪를 짓다⇒ 지순 罪

(호) 城을 짓다⇒ 지순 (호)城. 등등

나흔 아들=所生子(법화 2:213)

나흔 子息(석보 9:26)

내 나흔 悉達多(월석 21:6)

父母 나흔 누느르(월석 17:57)

父母 나흔 清淨肉眼으로(월석 17:57)

鹿母夫人의 나흔 고졸 어디 브린다(석보 11:32)

이 父母 나흔 모매=此父母所生之身(능엄 7:60)

「나흔」의 예들은 모두 그 한정을 받는 말이 의미상의(속뜻의) 부림말이다. 이것들과 앞의 「-은」 활용형에 나온 「월석 21:143」의 「(아기) 나흔 겨집들」을 비교해 보면 그 다름이 분명해진다.

빅은 아기 비디(월석 8:81, 기 230)

내 빅은 아기 빈도(월석 8:95)

「빅은」의 한정을 받는 「아기」는 「빅-」의 부림말이다. 이와, 앞의 「-은」에 나온 「빈 사름」(법화 6:47)을 비교할 것.

사르미 (아기)를 비다⇒(아기) 빈 사름

(내) 아기를 비다⇒(내) 빅은 아기

八姪女의 기론 찻트리 모자탈씨(월석 8:92) ⇐ 찻트를 낀다.

須達의 덩 ㄴ론 座(석보 6:30) ⇐ 座를 덩는다.

優填王이 덩 ㄴ론 金像(석보 11:13)

덩 ㄴ론 城(월석 14:74, 법화 3:83)

거른 가츠로 덩 ㄴ론 几=烏皮几(두언 21:5)

어든 功德福利(월석 21:160) ⇐ 功德福利을 얻다.

이 國王等の 어든 福利(월석 21:140)

내 得흔 智慧(석보 13:57)

내 이제 得흔 道理(석보 13:58)

아 사르미 得흔 功德(월석 18:46)

그 教化흔 사르미=其所化人(능엄 1:4) ⇐ 사르미를 教化한다.

教化흔 ... 衆生=所化...衆生(법화 3:166)

傳흔은 幻呪=所傳幻呪(능엄 1:36)

내 犯흔 일 업거늘(월석 13:16) ⇐ 이를 犯한다



하<sup>느</sup> 고<sup>로</sup> 부<sup>터</sup> 우<sup>희</sup> 비<sup>호</sup>니 비<sup>호</sup>니 고<sup>지</sup>…(월석 14:20, 24, 26) ← 고<sup>를</sup> 밋다.

그 비<sup>호</sup>니 고<sup>지</sup> 須彌山 곧 더니 = 其所散華 如須彌山(법화 3:108)

十六菩薩의 날은 經法(월석 14:47) ← 經法을 니<sup>르</sup>다.

趙州 | 날은 無 = 趙州 道<sup>호</sup> 無(몽산 54)

내 날은 여러 經 = 我所說諸經(법화 4:84)

우리 무<sup>리</sup> 닷<sup>곤</sup> 功業 = 我等輩의 所修功業(능엄 7:65) ← 功業을 닷다.

블<sup>론</sup> 惡報 = 所招惡報(능엄 8:95) ← 惡報을 브<sup>르</sup>다.

能<sup>히</sup> 스<sup>론</sup> 金石이 두<sup>외</sup>오 = 能爲然金石(능엄 8:104) ← 金石을 슬<sup>다</sup>.

이<sup>는</sup> 오<sup>직</sup> 小乘의 證<sup>호</sup> 空이라 = 此唯小乘所證之空(능엄 5:51) ← 空을 證<sup>하</sup>다.

7.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그 속구조를 보이지 않기로 한다.

各各 모<sup>매</sup> 니<sup>분</sup> 옷<sup>오</sup>솔 바<sup>사</sup> = 各各 脫身所著上衣(법화 2:45)

니<sup>분</sup> 甲 = 帶甲(두언 7:25)

니<sup>분</sup> 누<sup>비</sup> 더<sup>르</sup>며 좁<sup>고</sup> = 被褐短窄(두언 15:37)

天女 니<sup>분</sup> 오<sup>새</sup> = 天女所著衣(법화 6:48)

흐<sup>튼</sup> 天衣 = 所散天衣(법화 2:46)

두<sup>툼</sup> 놀<sup>애</sup> 어<sup>즈</sup>러이 뜯<sup>드</sup>르며 = 覆苫亂墜(법화 2:104)

그<sup>때</sup> 化<sup>호</sup> 衆 = 爾時所化之衆(법화 2:225)

머<sup>군</sup> 只<sup>스</sup>물 = 所懷(법화 2:253)

그 구<sup>름</sup> 내<sup>온</sup> 한<sup>마</sup>셋 프<sup>레</sup> = 其雲所出一味之水(법화 3:37)

七寶로 꾸<sup>문</sup> 五百億 金臺(월석 7:39)

보<sup>비</sup>로 꾸<sup>문</sup> 덩(석보 13:19)

꾸<sup>문</sup> 말<sup>하</sup>며(월석 8:74)

姝女는 꾸<sup>문</sup> 각<sup>시</sup>라(월석 2:28)

이 무<sup>리</sup> … 몬 得<sup>호</sup>니 이<sup>를</sup> 得<sup>호</sup>라 너<sup>기</sup>며 몬 證<sup>호</sup>니 이<sup>를</sup> 證<sup>호</sup>라 너<sup>겨</sup>  
(석보 13:46)

우<sup>희</sup> 날<sup>은</sup> 요<sup>스</sup>시에 호<sup>온</sup> 功德으로(월석, 서:26)

마<sup>준</sup> 相<sup>오</sup>로 莊嚴<sup>호</sup>니 모<sup>미</sup>며 = 具相莊嚴身(법화 4:27)

百福 莊嚴<sup>호</sup>니 블<sup>홀</sup>(월석 18:41)

七寶 莊嚴<sup>호</sup>니 … 蓮花(월석 7:39)

七寶로 莊嚴<sup>호</sup>니 보<sup>비</sup>엿 싸<sup>과</sup>(월석 8:22)

優樓頻螺<sup>들</sup>호<sup>니</sup> 곧 序<sup>분</sup>에 버<sup>룬</sup> 羅漢 옷<sup>머</sup>리니 = 優樓頻螺等은 即序分所

列<sup>호</sup> 羅漢上首 | 니(법화 4:31)

믹<sup>온</sup> 구<sup>스</sup>를 빈<sup>대</sup> = 示以所繫珠(법화 4:44)

서<sup>브</sup>로 믹<sup>온</sup> 門(두언 20:9)

諸菩薩의 두<sup>론</sup> 諸眷屬 = 諸菩薩의 所將諸眷屬(법화 5:98)

두<sup>론</sup> 人衆 = 所將人衆(법화 3:174)

마<sup>느</sup>리 붓<sup>은</sup> 旃檀沉水香(월석 17:29)

天香<sup>오</sup>로 和<sup>합</sup>하야 내<sup>온</sup> 香(월석 17:65)

다<sup>돈</sup> 이<sup>피</sup> 열<sup>어</sup>늘(월석 7:6)

두<sup>론</sup> 불<sup>(월석 8:6)</sup>

髻<sup>온</sup> 쏘<sup>니</sup> 머리니(월석 8:33) ← 머<sup>리</sup>를 삐<sup>다</sup>.

三聚戒<sup>는</sup> 세<sup>헤</sup> 뵈<sup>호</sup>온 戒<sup>니</sup>(월석 9:16) ← 戒<sup>를</sup> 뵈<sup>호</sup>다.

매<sup>운</sup> 돛<sup>기</sup>(천강곡 상, 기 106)

비<sup>론</sup> 바<sup>블</sup> 엇<sup>데</sup> 좌<sup>시</sup>는가(천강곡 상, 기 122)

비<sup>론</sup> 花香(석보 23:42)

: 본 知<sup>識</sup> = 所見知<sup>識</sup>(능엄 9:64)

너의 블<sup>론</sup> 귀와 소<sup>리</sup> = 汝所明<sup>호</sup>니 耳와 聲(능엄 3:39)

새 믹<sup>론</sup> 니<sup>른</sup> = 新卷葉(능엄 4:110)

알<sup>팠</sup> 塵의 니<sup>르</sup>와<sup>돈</sup> 知<sup>見</sup> = 前塵의 所起<sup>호</sup>니 知<sup>見</sup>(능엄 4:115)

뭇<sup>군</sup> 서<sup>비</sup> 한<sup>마</sup> 떠<sup>러</sup>디니 = 束薪已零落(두언 16:73)

뭇<sup>군</sup> 마<sup>리</sup>… = 束芦이(능엄 5:8)

靈山의 브<sup>룬</sup> 城 = 靈山所附之城(법화 1:20)



受生 혼 모미(월석 21: 87)  
 受 혼 果報(월석 21: 93)  
 鮮은 조 주곤 중성이라(월석 21: 124)  
 善男子 善女人이 佛法中에 심곤 善根(월석 21: 147)  
 譜는 平生엿 처심 乃終入 이를 다 쓴 글와리라(석보, 서: 4)  
 黃麻 조히에 순 그리 六經 존도다=黃麻似六經(두언 21: 8)  
 제 머곤 쁘드로(월석 1: 32)  
 喜覺支는 닷곤 法 깃글씨오(월석 2: 37)  
 어분 아기(월석 10: 24)  
 여희 오 뻬 하마 업스면=所離之垢既無(원각, 상 2-2: 50)  
 다시 브즈러니 호은 쁘를 좇디 마를디어다=更莫區區尋縫罅(남명, 상 : 37)  
 斬衰는 기습 아니 호은 오시라(내훈 1: 61)  
 엇네 將軍의 촌 갈홀 빌리오=何假將軍佩(두언 25: 8) ← 갈홀 츠다  
 불론 角弓詩, 기론 嘉樹(두언 21: 43)  
그론 이플=繡戶, 새곤 집돌리=雕梁(두언 6: 27)  
그론 빅 득고=畫舸(두언 21: 19)  
 銀으로 하은 床=銀床(두언 6: 28) ← 床을 銀으로 하다  
 서브로 혼 門=柴門(두언 7: 4)  
 銀으로 땡 ㄴ 론 爪甲=銀甲(두언 15: 9)  
 불근 지츠로 혼 旗=赤羽旗(두언 6: 6)  
 불근 실로 혼 시우리(두언 20: 19)  
 구슬로 혼 발=珠簾(두언 6: 9)  
 섯론 오술 니브시고(내훈, 2하: 52)  
 소아 자본 사스미=射麋(두언 7: 18)  
 뻬 니을 지브로=茅棟(두언 6: 47)  
 嘉州大像은 디을 觀音像이라(남명, 상: 36)

여러가짓 香草로 찰개 훈디 드마 짓거든 뿐 기르미 일후미 薰油 }  
 라(법화 5: 210) ← 기르를 쁘다.  
 더 자본 갈막대=彼所執刀杖(법화 7: 53)  
 어푼 손=伏手(금강삼가 3: 14)  
 디푼 막다히=柱杖(금강삼가 3: 52)  
 意句는 詰亂홀젼 가존 뜰과 물논 言句왜라(남명, 상: 22)  
 사곤 그를, 브툰 巾=所依巾, 幻혼 막리오=所幻馬(원각, 상 2-1: 8)  
 繡혼 니브를(두언 20: 17)  
 大藏教 | 瘡腫 스저 브론 조히라(몽산 61)

8. 이상의 「-오/우+ㄴ」 활용형은, 한정을 받는 말이 앞의 매김꼴에 대해서 속뜻으로 부립말이 되어 있음이 분명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예들이나, 다음과 같은 것은 그 속구조가 그리 분명하지 않아서 다소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 後로 夫妻라 혼 일후미 나니(월석 1: 44)

▽ 「혼」과 「일후」과의 속구조에 있어서의 통어적 관계는 앞에 든 예들처럼 그리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두차례의 변형과정으로 된 것이다.

(그) 일후미 ‘夫妻’라 ⇒ (그) 일후물 夫妻라 하다 ⇒ 夫妻라 혼 일후  
 이렇게 보면 「하다」가 「혼」 매김꼴을 취하게 된 이유가 이해된다.

처심 道場에 안즈시니 부테라 혼 일후미 겨시고(석보 13: 59)

▽ 위와 같음

多陀阿伽度는 如來라 혼 마리라(석보 13: 34)

▽ (그) 마리(多陀阿伽度) 如來라 ⇒ (그) 만 如來라 하다 ⇒ 如來라 혼 말  
 閼梨는 法이라 혼 마리니(석보 6: 10)

栴陀羅는 주기는 사르미라 혼 마리며 嚴巖라 혼 마리니(월석 21: 217)  
 佛은 知者 | 라 혼 마리니 知者는 아는 사르미라 혼 쁘디라(월석 9: 12)



▽「흔 쁘디라」도 「흔 마리라」와 비슷한 구조이니, 이것도 다음과 같은 변형과정으로 그 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쁘디(知者) ‘아는 사람’이라 ⇒ (그) 쁘들 ‘아는 사람’이라 하다 ⇒ 아는 사<sup>ㅅ</sup>라<sup>ㅅ</sup>미라 흔 뜰.

이 싸히 竹林國이라 흔 나라히이다(월석 8:94)

▽이것은 위의 예보다 그 속구조가 더욱 명백하다

(이) 나라히 竹林國이라 ⇒ (이) 나라흔 竹林國이라 하다 ⇒ 竹林國이라 흔 나라.

9. 이에 비하면 다음과 같은 예는 그 속구조가 더욱 분명하지 않아서, 그 「흔」 활용형을 쓴 이유가 한층 더 분명하지 않은것 같으나, 위의 예들에 유추된 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처<sup>ㅅ</sup>섬 佛家애 나다 흔 生이디<sup>ㅅ</sup> 生死애 나며 드<sup>ㅅ</sup>다 흔 生이 아니라(월석 17:27-8)

▽(이) 生을 ‘佛家애 나다’ 하다 ⇒ ‘佛家애 나다’ 흔 生.

ㄹ<sup>ㅅ</sup>롬 엷다 흔 엷수미 滅하야=無礙라 흔 無ㅣ 滅하야(능엄 9:26)

▽(이) 엷수를 ‘ㄹ<sup>ㅅ</sup>롬 엷다’ 하다 ⇒ ‘ㄹ<sup>ㅅ</sup>롬 엷다’ 흔 엷수

이 잇다 엷다 흔 無도 아니며 眞實로 엷다 흔 無도 아니라 ㅎ니=不是有無之無ㅣ며 不是眞無之無ㅣ라 ㅎ니(몽산 55-6)

10. 그리고 ‘소위, 이르기를’의 뜻을 가진 「닐은」도 설명하기 어렵지 않다.

이<sup>ㅅ</sup>를 닐은 그스기 심기샤미라=是謂冥授(능엄 5:31)

이<sup>ㅅ</sup>를 닐은 顛倒ㅣ라=是謂顛倒(능엄 3:14)

닐은 고든 ㅅ스미 菩提니라=所謂直心菩提者也(상원사 권선문)

耳識이 ㅅ히야 알씨 닐은 知오=耳識이 別了히시 曰知오(능엄 3:40)

이 예들은 앞에 보인, ‘닐은 經法’들과는 약간 그 구조가 다른것 같이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한가지다.

이<sup>ㅅ</sup>는 그스기 심기샤미라 닐다 ⇒ 이<sup>ㅅ</sup>를 닐은 ... 심기샤미라

이<sup>ㅅ</sup>는 顛倒를 닐다 ⇒ 이<sup>ㅅ</sup>를 닐은 顛倒ㅣ라.

菩提는 고든 ㅅ스미 닐다 ⇒ 닐은 고든 ㅅ스미 菩提니라

...知를 닐다 ⇒ 닐은 知오

(가-2) 「-스(스, ㅅ)본」: 「-스(스, ㅅ)본」

11. 이 활용형은 그 예가 그리 많지 않은데, 예외의 비율이 높다. (p. 861 참조)

「-스본」

이 이<sup>ㅅ</sup>를 보스본 사르문(월석 8:28) ← 사르미 (이 이<sup>ㅅ</sup>를) 보습(으니)라.

諸佛入 일흠 들즈본 사르문(월석 7:75)

이 法 들즈본 사르미(석보 13:54)

男子女人이 이 부텃 일흠 들즈본 사르문(월석 21:135)

「-스본」

阿難이 出家<sup>흔</sup> 後로 스므나몬 히를 부터 졸즈하 이셔 들즈본 이리 못 하디(석보 24:2) ← 이<sup>ㅅ</sup>를 듣좁다.

「-스온」

12. 「-스(스, ㅅ)본」과 「-스(스, ㅅ)본」은 /ㅅ/이 없어지고 난 뒤로는 다 같이 「-스(스, ㅅ)온」으로 한데 모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스(스, ㅅ)온」은 어느 어형의 변화형인지 외형 상으로는 분간되지 않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王子 기르스온 어미=王子所養之母(법화 3:97)

受記 들스온 사르미(법화 4:185)

들즈온 사르미=聞者(법화 4:163)

은 「-스(ㅅ)본」의 변화형으로, 그리고

받즈온 宮殿=所獻宮殿(법화 3:108)

施스온 珠璣=所施珠璣(법화 7:142)

은 「-스(ㅅ)본」의 변화형으로 판단된다.

(가-3) 「-(습)으신」: 「-(습)으산」

13. 「-으산」 활용형은 남움직씨의 대상법 활용으로서, 그 한정 받는 말을 의미상의 부림말로 하는 데 대해, 「-으신」 활용형은 모두 한정 받는



말을 의미상의 입자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으신」 활용형에 있어서는 한정 받는 말로 표시된 사람을 높이는데, 「-으산」 활용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서, 높임의 대상(주체)은 그 앞에서 찾아야 한다.

# 「-(습)으신」

「-으신」: 娑婆世界에 오래 住하신 菩薩(월석 18:3) ← 菩薩이 ...住하시다.

다른 國土에서 오신 菩薩들<sup>과</sup>(월석 18:23)

부텃 神奇하신 變化(월석 7:40) ← (부텃) 變化 | 神奇하시다.

性을 다하신 大覺(월석 9:13)

無上士는 尊하샤 더은 우히 업스하신 士 | 라(석보 9:3) ← 士 | 尊하샤 더은 우히 업스하시다.

世界에 있는 地獄에 分身하신 地藏菩薩(월석 21:30) ← 地藏菩薩이 ...分身하시다.

王中엿 尊하신 王(월석 10:9) ← 王이 (王中에) 尊하시다.

어엿브신 命終(월석 1:3, 기 5)

마장 도하신 功德(석보 9:2)

本來 하신 吉慶(월석 2:30, 기 18)

싸해서 소사나신 千世界 ... 摩訶薩(석보 19:37)

十方一切에서 오신 ... 一切諸佛(월석 21:187)

더 싸해 거신 諸佛(석보 13:13)

虛空에 거신 百千化佛(월석 21:204)

「거시-」의 「-시-」도 원래는 주체높임의 「-으시-」이다.

「-스받신」: 처엄 經 듣조오신 後에(법화 6:149)

法門을 받조받신 히르로(법화 7:67)

\*이 예는 의미상의 입자말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p. 840 이하)

# 「-(습)으산」

「-으산」: 大寶殿에 되하산 相師(천강곡 상, 기 30) ← 相師를 ...되하시다.

그 브리산 사르미(석보 11:32) ← 사르를 브리하시다.

得하산 法(월석 13:8) ← 法을 得하시다.

부테... 得하산 妙法(석보 13:25)

如來 니르산 經(석보 9:26) ← 經을 니르하시다.

습과 습 아니와 理 다 니르산 쁜 드를 幻想이니=습과 非습와 理 | 皆所謂 浮塵幻想이니(능엄 2:107)

니르산 흐르며 그추미 덜덜흙 업수미라=所謂流息이 無常也 | 라(능엄 3:78)

大師 하산 일(석보 11:27) ← 일을 하하시다.

藥王 轉하산 法輪(능엄 1:4) ← 法輪을 轉하시다.

스승 사단하산 부테(능엄 6:2) ← 부테를 스승 사단하시다.

聖人 펴산 圓通法門(능엄 6:49)

教化하산 衆(월석 14:48)

이 壇場엿 쓰산 法(능엄 7:10)

더 ... 如來 ... 發하산 큰 願(석보 9:10)

父母 나하산 淸淨한 肉眼(석보 19:13)

轉輪聖王入 드리산 衆(법화 3:145)

化하산 衆=所化之衆(법화 3:153)

닷마하산 因과 證하산 果(법화 3:189)

맛나하산 부테시니라(법화 4:57)

내산 音聲=所出音聲(법화 4:112)

釋迦牟尼 分하산 몸=釋迦牟尼 所分之身(법화 4:127)

受하산 命=所受之命(법화 5:126)

기티하산 教=遺教(법화 5:157)



「기티-」는 남음직씨이기 때문에 「敎」가 그 부립말이 되어 대상활용형이 될 수 있다.

敎를 기티다.

그러나 「길-」은 제음직씨이므로 대상활용형을 취할 수 없다.

기튼 敎(월석 17:21) ← 敎] 길다.

주산 말쑤미=所有言說(금강 43)

放<sub>ㅎ</sub>산 光과 니르와<sub>ㅎ</sub>산 通=所放光及所起通(원각, 상 1-2:48)

부텃 付屬<sub>ㅎ</sub>산 法(법화 4:200)

結<sub>ㅎ</sub>산 그렛 本<sub>ㄷ</sub>字=結文本字(능엄 10:9)

如來 소<sub>ㄴ</sub>로 帛<sub>ㅅ</sub>산 巾을 자<sub>ㅅ</sub>샤=如來以手將所結巾(능엄 5:24)

이 光이 爲<sub>ㅎ</sub>산 因緣=此光이 所爲因緣(법화 1:104) ← 因緣을 爲<sub>ㅎ</sub>시다

行<sub>ㅎ</sub>산 道=所行道(법화 1:162)

釋迦入 本來 세<sub>ㅅ</sub>산 誓願(법화 1:225)

一切種智 證<sub>ㅎ</sub>산 法=一切種智 所證之法(법화 3:30)

化<sub>ㅎ</sub>산 衆生=所化衆生(법화 4:167)

忍辱太子의 일우<sub>ㅅ</sub>산 藥(월석 21:218)

이 諸佛 證<sub>ㅎ</sub>산 沒<sub>ㅅ</sub>노<sub>ㅅ</sub> 微妙道理오(월석 9:20)

▽微妙道理를 證<sub>ㅎ</sub>시다⇒證<sub>ㅎ</sub>산 ...道理  
微妙道理] 沒<sub>ㅅ</sub>노<sub>ㅅ</sub>다⇒沒<sub>ㅅ</sub>노<sub>ㅅ</sub> ...道理 } ⇒證<sub>ㅎ</sub>산 沒<sub>ㅅ</sub>노<sub>ㅅ</sub> ...道理.

世尊이 지스<sub>ㅅ</sub>산 功德(월석 10:7)

標<sub>ㅎ</sub>야 마<sub>ㄹ</sub>치<sub>ㅅ</sub>산 無明 난 말<sub>ㅅ</sub>미=標指生無明之言(원각, 상 2-1:52)

둘흔 드위혀 나토<sub>ㅅ</sub>산 請이오=二反顯請(원각, 상 2-2:6)

「-스<sub>ㅅ</sub>산」: 正히 묻<sub>ㅅ</sub>오<sub>ㅅ</sub>산 條目을 마<sub>ㄹ</sub>치니라(원각, 상 2-3:5)

剛藏入 묻<sub>ㅅ</sub>오<sub>ㅅ</sub>산 條目이 正히 이 존<sub>ㅎ</sub>시니라=剛藏問目 正似此也(원각, 상 2-3:29)

(가-4) 「-(습)(으시)는」: 「-(습)(으시)는」

15. 「-노-」는 「-느-」와 「-오-」의 축약형이니 「-느-」와 「-논-」의 대립

은 결국 「-은」과 「-오/우+ㄴ」의 대립과 꼭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즉 「-느」은 그 한정을 받는 말이 의미상의 딴자말이 되고(주체법), 「-논」은 그 한정을 받는 말이 의미상의 부립말이 됨을 나타낸다(대상법). 그리고 「-느-」 앞에는 「-습-」과 「-으시-」가 수의로 연결될 수 있다.

「-(습)(으시)는」

「-느」: 𑖙는 중생(월석 21:113) ← 衆生이 𑖙는다.

罪苦 잇는 衆生(월석 21:29) ← 衆生이 罪苦 잇는다.

이 지<sub>ㅅ</sub> 사<sub>ㅅ</sub>는 일우<sub>ㅅ</sub>며 아히<sub>ㅅ</sub>며(월석 21:99) ← ... 아히 ... 사<sub>ㅅ</sub>다

모딘 일 니기<sub>ㅅ</sub>는 衆生(월석 21:103) ← 衆生이 모딘 일 니기<sub>ㅅ</sub>다.

고기<sub>ㅅ</sub>며 모미라도 비<sub>ㅅ</sub>는 사<sub>ㅅ</sub>르<sub>ㅅ</sub>물 주리<sub>ㅅ</sub>어니(월석 9:30) ← 사<sub>ㅅ</sub>르<sub>ㅅ</sub>미 비<sub>ㅅ</sub>다

神通 잇는 사<sub>ㅅ</sub>르<sub>ㅅ</sub>미사 가<sub>ㅅ</sub>니라(석보 6:43) ← 사<sub>ㅅ</sub>르<sub>ㅅ</sub>미神通 잇는다.

므르<sub>ㅅ</sub>디 아<sub>ㅅ</sub>니<sub>ㅅ</sub>는 菩<sub>ㅅ</sub>薩<sub>ㅅ</sub>들(석보 13:42) ← 菩<sub>ㅅ</sub>薩<sub>ㅅ</sub>들히 므르<sub>ㅅ</sub>디 아<sub>ㅅ</sub>니<sub>ㅅ</sub>다.

聲聞 求<sub>ㅎ</sub>는 衆(월석 18:41)

羣動은 한 움즈기<sub>ㅅ</sub>는 衆生이라(월석 18:82)

▽衆生이 하<sub>ㅅ</sub>다⇒한 衆生

衆生이 움즈기<sub>ㅅ</sub>다⇒움즈기<sub>ㅅ</sub>는 衆生 } ⇒한 움즈기<sub>ㅅ</sub>는 衆生

머리 갓는 사<sub>ㅅ</sub>르<sub>ㅅ</sub>물(월석 7:8) ← 사<sub>ㅅ</sub>르<sub>ㅅ</sub>미 머리 갓<sub>ㅅ</sub>다.

더는 히(월석 8:6)

오<sub>ㅅ</sub>는 𑖙(석보 23:10)

발 잇는 燈(월석 1:8)

梵王 돌<sub>ㅅ</sub>는 臣下(월석 1:32)

더어가<sub>ㅅ</sub>는 煩惱(월석 9:6)

道理 잇는 사<sub>ㅅ</sub>름(석보 9:2)

우<sub>ㅅ</sub>는 聖女(월석 21:21)

와 비<sub>ㅅ</sub>는 사<sub>ㅅ</sub>르<sub>ㅅ</sub>물 주리<sub>ㅅ</sub>여(월석 9:29) ← 사<sub>ㅅ</sub>르<sub>ㅅ</sub>미 와 비<sub>ㅅ</sub>다.

不孝<sub>ㅎ</sub>는 衆生(월석 10:10)



地에 묻 올엿는 菩薩(석보 9:28) ← 菩薩이 地에 묻 올엿는다.

하마 냇는 구준 法(월석 7:43)

▽ 法이 냇는다 ⇒ 냇는 法 } ⇒ 냇는 구준 法  
法이 긋다 ⇒ 구준 法 }

내 지의 엿는 沙門(천강국 상, 기 156) ← 沙門이 내 지의 엿는다.

未來는 아니 엿는 劫이오 現在는 現하야 잇는 劫이라(석보 13:50)

主守하엿는 家臣(두언 7:37)

오늘 모엿는 사르미(석보 6:28)

▽ 사르미 모엿는다 ⇒ 모엿는 사름 } ⇒ 모엿는 한 사름  
사르미 하다 ⇒ 한 사름 }

信心 되는 善男子 善女人(석보 9:11)

잠맷는 고기 = 潛鱗(두언 25:4) ⇒ 고기 잠맷는다 (<잠맷-)

하늘해 머리 뺏는 매(금강삼가 2:55) ← 매 ... 뺏는다 (<뺏-)

內豎는 되스왔는 허근 臣下라(내훈 1:39)

서리 붉는 발 가진 千里 가는 駿馬(두언 8:8)

「-는」 대신에 「-는」이 쓰이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의 「-는-」는 안맺음씨끝이다.

「-는」: 흐르는 심(석보 13:23, 월석 7:30)

흐르는 물(월석 8:23)

<비교> 흐르는 심(법화 1:83)

흐르는 브리라(월석 2:62)

梵志는... 늙 업시우는 사르미라(월석 2:46)

八千里象은 하르 八千里을 녀는 象이라(월석 7:52)

「-습는」: 無量壽佛을 보습는 사르미(월석 8:32) ← 사르미 無量壽佛을 보습는다.

渡盡稱念衆生은 일곤즈바 念하습는 衆生을 다 濟渡하실씨라(월석 8:99)

부터 빅호습는 사르미 = 學佛者(법화 5:43)

부터 상네 조잡는 衆(법화 1:24)

:물·줍·는 사르미(원각 2-3:43)

「-으시는」: 接引衆生하시는 諸大菩薩들히(월석 8:88, 기 248) ← 諸大菩薩들히 接引衆生하십니다.

法界를 다 두프시는 體(능엄 1:9)

부터 道理로 衆生 濟渡하시는 사르미 菩薩이시다 하느니라(월석 1:5)

瑞相 되시는 如來(월석 2:48, 기 28)

大導師는 크신 길 앓외시는 스스이라 혼 마리라(월석 9:12)

王이 조히 戒行하시는 사르미샤(월석 10:9) ← 사르미 조히 戒行하십니다.

「-스별지는」: 이제 이 疑心하샤 묻조오시는 글들호 = 今此疑問等文은(법화 1:123)

이제 처엄 나사 묻조오시는 威儀라 = 今初進問威儀(원각, 상 1-2:82)

▽ 「글」이나 「威儀」는 다 「문-」의 입자말이 되지 못한다. (p.846 이하 참조) 따라서 이 어형은 여기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습)(으시)는」

「-는」: 願하는 이룰(석보 9:40) ← 이룰 願하느다.

願하는 일와 求하는 이리(월석 21:166)

맏긋치는 마를(석보 19:7) ← 마를 맏긋치느다.

얻는 藥(월석 21:215) ← 藥을 얻느다.

내 네 禮數하논 ... 如來로니(월석 21:22)

모디 디내논 짜히(월석 21:7) ← 짜홀 디내느다.

衆生이... 受하논 報應(월석 21:37)

제 먹논 브드로(월석 1:32)

막스매 먹논 일(월석 1:34)



分別하는 그리멧 이틀 = 分別影事 (능엄 2:1)

하는 일 (월석 1:35)

몰하는 일 (월석 2:71)

제 아는 法 (월석 2:25)

智의 아는 境 = 智所知之境 (능엄 4:98)

기르는 太子 (석보 11:35)

疑心하는 公案 = 所疑公案 (몽산 8)

닷는 行果 (월석 13:47)

닷는 福德 (능엄 9:15)

나사닷는 이틀 (능엄 1:19)

니르는 法 (월석 13:43)

네 니르는 覺과 明 = 汝稱覺明 (능엄 4:10)

行하는 道 (법화 3:102)

行하는 이틀 아라 (월석 13:44)

아는 일 업슨 黃口小兒 (월석 21:197)

네 아는 여섯 受用하는 根 = 汝了知하는 六受用根 (능엄 4:107)

√根을 아는다 ⇒ 아는 根  
 根을 受用하는다 ⇒ 受用하는 根 } ⇒ 아는...受用하는 根

化하는 衆生 = 所化衆生 (법화 2:149)

念하는 小法과 行하는 小道와 欲하는 小果와 된 業을 아라  
 실씨 = 知其所念小法 所行小道 所欲小果 所繫濁業 (법화 1:199)

「된 業」은 다음 두 기본일의 변형이다.  
 業을 되다 ⇒ 된 業  
 業이 흐리다 ⇒ 흐린 業 } ⇒ 된 業

상네 쓰는 보며 듣는 法 (법화 2:225)

√法을 쓰는다 ⇒ 쓰는 法  
 法을 보며 듣는다 ⇒ 보며 듣는 法 } ⇒ 쓰는...듣는 法

艱難하니 즐기는 法으로 = 以貧所樂法 (법화 2:258)

修習하는 이리로더 (능엄 8:49)

듯는 문것 習 = 所愛先習 (능엄 10:69)

간대로 짓는 凶 (월석 18:33)

짓는 佛事 (법화 5:143)

教化하는 衆生 (월석 8:24)

菩薩이 듣고져 하는 法 (월석 8:68)

너희 브르는 偈 (월석 8:100)

이제 보는 되히 곧 이 되히며 보는 프리 곧 이 프리니 (금강삼가 2:24)

물잇 보는 열구리 꾸멧 얼굴 곧하며 듣는 소리 되사리 곧하야 (월석 2:53)

새 밍는 글워레 (월석, 서:19)

正히 붙는 妄情 = 正攀緣妄情 (능엄 1:73)

일 마흔 누비중이 對하엿는 知音 (남명, 상:58)

제 뒤는 천량 (월석 2:25)

衆生마다 뒤는 제 性 (월석 2:53)

뒤는 지조 (월석 7:15)

先生의 듯는 道理 = 先生有道 (두언 15:37)

숨가온디 자밧는 簞 = 手中所持葉物 (능엄 3:108)

탓는 性 = 受性 (두언 6:52)

머구머 다맞는 理 = 舍容之理 (능엄 2:45)

「-습는」: 받습는 宮殿 (월석 14:21, 24, 27)

「-으시는」: 諸佛入 내시는 소리 (월석 8:42)

되시는 形體 (월석 8:45)

諸佛 니르시는 마른 (석보 9:27)

如來 니르시는 아홉 橫死 (석보 9:35)

즈개 다스리시는 짜홀 (월석 1:25)

諸佛 讚嘆하시는 乘 (석보 13:19)



물읜 흐시논 이리 상네 흔 이리라 (석보 13:49)

本來 섬기시논 부터는 證호산 果를 表호시니 (월석 18:66)

디나시논 나라 (월석 18:77)

디나시논 諸國 (법화 7:34)

나는 부터 스랑호시논 앗이라 (능엄 1:86)

상네 니르시논 마를 (능엄 1:88)

호시논 이리 (법화 4:6)

行호시논 行 = 所行之行, 섬기시논 부터 = 所事佛 (법화 7:5)

化호시논 衆生 = 所化生 (원각, 상 1-2:16)

「-스님시논」: 十方佛 보스오시논 이를 다시 諷호야 = 重諷 十方佛之事호사 (법화 5:75)

請호야 묻조오시논 마리 (법화 7:16)

▽이것은 여기 요구되는 예는 아니다. (→p.840 이하)

16. 「-습시논」과 같이 「-습-」과 「-으시-」 사이에 「으」를 넣지 않은 어형은 「-으시-」보다 한층 더 주체를 높이는 말이다. (→p.682-3, 그리고 p.840 이하)

주는 내 호습시논 브디시니라(훈, 언해)

17. 어떤 말은 그 속뜻이 복잡하여 대상법을 쓴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p.817 이하 참조)

나다 호논 마른 사라나다 호논 마리 아니라...올마가다 호논 브디라 (석보 6:36)

▽(그) 마를 '나다' 호논다 ⇒ 나다 호논 말.

'뜯'도 이와 비슷하게 이해된다.

이하 모두 한가지다.

和尚은 갓가비 이서 외오다 호논 마리니 (석보 6:10)

慈悲入 힝더글 호다 호논 브디니 (석보 6:2)

刹帝利는田地 님자히라 호논 마리니 (석보 9:19)

波羅羅는 내 도흔 고지라 호논 마리라 (석보 19:17)

우리나랏 마를 호 반득기 쓰논 그릴씨 일후를 호니라 (석보, 서:5)

▽「글을 쓰논다」의 변형으로 생각된다.

(가-5) 한 월 안에서 대조적으로 쓰인 두 활용형

18. 이상에서 「-은」:「-오/우+ㄴ」 두 활용형의 용법의 차이를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한 월 안에 이 두가지 활용형이 구별 사용된 예가 있으니, 이는 이 두가지 활용형의 차이를 한층 두드러지게 해 준다.

「-은」:「-오/우+ㄴ」

近間애 風流로원 지손 그리 잇느니 = 近有風流作 (두언 20:22)

▽그리 風流로다 ⇒ 風流로원 글 } ⇒ 風流로원 지손 글  
그를 짓다 ⇒ 지손 글

得흔 한 果 (원각, 상 2-2:93)

▽果를 得호다 ⇒ 得흔 果 } ⇒ 得흔 한 果  
果 하다 ⇒ 한 果

「한」은 평성이니 「-오/우-」가 연결되지 않은 어형이다.

佛法中에 호은 도흔 이리 (월석 21:36)

▽이를 호다 ⇒ 호은 일 } ⇒ 호은 도흔 일  
이리 둥다 ⇒ 도흔 일

오란 劫브터 發흔 큰 誓願 (월석 21:36)

▽劫이 오라다 ⇒ 오란 劫  
誓願을 發호다 ⇒ 發흔 誓願 } ⇒ 發흔 큰 誓願  
誓願이 크다 ⇒ 큰 誓願

넛 : 헐 한 마른 = 舊引多說 (능엄 1:17)

▽마를 헐다 ⇒ 헐 말 } ⇒ 헐 한 말  
마리 하다 ⇒ 한 말  
「:헐」은 「헐+(오/우)」의 변이형이다.

마느리 보은 굳고 거은 栴檀 = 細抹堅黑栴檀 (법화 6:138)



▽梅檀을 보수다 ⇒ 보은 梅檀  
梅檀이 거다 ⇒ 거은 梅檀 } ⇒ 보은...거은 梅檀

다음 말도 같은 사실을 기술한 것.

마느리 末혼 굳고 거은 梅檀香 (월석 18:28)

文彩에 디디 아니하 땡마디 아니하 하은 막대 (남명, 하:23)

▽막대 文彩에 디디 아니하다 ⇒ 디디 아니하 막대  
막대를 땡마디 아니하다 ⇒ 땡마디 아니하 막대 } ⇒ 아니하...아니하 막대

이상은 한 임자씨를 한정하는 두 매김꼴이 두가지 활용형을 취한 예로서, 이러한 것들은 두 활용형의 용법의 다름을 아주 분명히 해 주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예들에 있어서는 두가지 어형이 한 임자씨를 꾸미고 있지는 않으나, 역시 한 월 안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꽃다운 힐 칠혼 마수론 = 馨香粉署 (두언 20:10)

▽칠이 히다 ⇒ 힐 칠

마수리 꽃답다 ⇒ 꽃다운 마술

마수론 (힐) 칠하다 ⇒ 칠혼 마술

「꽃다운」은 「꽃다보」, 「꽃다본」 두 어형의 「한테 모인 변화형」이므로 「-오/우-」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나, 앞의 설명(p.812)과 같이, 그림씨는 「-오/우+ㄴ」형을 취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 「꽃다운」은 「꽃다보」의 변화형이다.

블근 실로 혼 시우리 그출저기 잇느니라 = 朱絲有斷絃 (두언 20:19)

▽시리 블다 ⇒ 블근 실.

시우를 (블근 실로) 하다 ⇒ ... 혼 시울.

隱括은 구븐 남마로 땡마론 그릇 고틸시라 (내훈 1:16)

▽남기 굽다 ⇒ 구븐 나모

그르슬 땡폴다 ⇒ 땡마론 그릇

碑碣에 넛 지손 그리 잇도다 ... 지손 사르미 뜨들 늦거사 보니 = 碑碣舊製存...晚看作者意 (두언 16:3)

▽그를 짓다 ⇒ 지손 글, 사르미 짓다 ⇒ 지손 사름.

「-논」:「-오/우+ㄴ」

위의 예들은 모두 「-은」과 「-오/우+ㄴ」 형이 한 월 안에 있는 것들인데, 다음의 예들에 있어서는 「-오/우+ㄴ」과 「-논」 형이 한 월 안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논」은 「-ㄴ+ㄴ」으로서 「-오/우-」 없는 매김꼴이다. (p.823 이하 참조)

노니는 子의 니분 菱荷오시 = 遊子菱荷衣 (두언 21:6)

▽子 노니는다 ⇒ 노니는 子

오슬 넙으니라 ⇒ 니분 옷

諸法이 비론 일후민들 아는 衆生 爲하야 (월석 8:29)

▽일후를 비니라 ⇒ 비론 일혼

衆生이 아는다 ⇒ 아는 衆生

覺은 이 能히 아는 智오 마수미 처섬 니로론 이 아론 業相이니 = 覺是能覺之智 心初起 是所覺之業相 (원자, 하 1-2:36)

▽이것도 다음과 같은 말의 변형으로 생각된다.

智 아는다 ⇒ 아는 智

業相을 아니라 ⇒ 아론 業相

알론 變혼 萬境을 자바 能히 變혼는 八識에 가고 이제 조 現혼 八識을 자바 能히 現혼는 一心에 가니 = 前則攝所變之萬境 歸於能變之八識 今又攝所現之八識 歸於能變之一心 (원자, 1-1:97)

▽이것들도 모두 다음과 같이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萬境을 變혼니라 ⇒ 變혼 萬境

八識을 現혼니라 ⇒ 現혼 八識

八識이 變혼는다 ⇒ 變혼는 八識

一心이 現혼는다 ⇒ 現혼는 一心

이 끝 두 예의 변형과정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 말의 뜻을 분명히 모르겠기,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앞의 예들로 보아 틀림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오/우+ㄴ」 형에 대한 한문 본문은 여기 모두 「所」로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온 예들이 모두 이러한 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이 판단이 그릇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은」:「-논」

姦는 모든 큰 數 니 곧 니로는 那由他 라 = 姦爲惣大之數 即所謂那



由他也 (법화 3:186)

數를 모도니라 ⇒ 모돈 (모도온) 數 } ⇒모돈 큰 數  
數] 크니라 ⇒ 큰 數  
那由他를 니르느다 ⇒ 니르논 那由他

大極大道元始는 道家에서 니르논 天尊入 일후미라 (월석 2:74)

天尊을 니르느다 ⇒ 니르논 天尊 } ⇒니르논 天尊  
天尊이 天尊을 위두하다 ⇒ 天尊을 위두하 天尊

眞知로 그스기 化하시논 平等하신 慈 = 眞知로 冥化하시논 平等之慈 (법화 3:5)

慈를 化하시다 ⇒ 化하시논 慈 } ⇒化하시논 平等하신 慈  
慈] 平等하시다 ⇒ 平等하신 慈

이 諸菩薩의 最上教誨는 了義大乘이니 = 是諸菩薩의 最上教誨는 了義大乘이니 (원각, 상 2-3:13)

大乘을 못느다 ⇒ 못느다 大乘 } ⇒못느다 大乘  
大乘을 못느다 ⇒ 못느다 大乘

### 「-으신」:「-으산」

이시서 여러내산 諄諄하신 慈 = 陶汰啓迪하신 諄諄之慈 (능엄 1:3)

이 두가지 매김끝은 모두 「慈」를 한정하고 있는데, 다음 두가지 기본일의 변형이다.

慈를 여러내시다 ⇒ 여러내산 慈 } ⇒여러내산 諄諄하신 慈.  
慈] 諄諄하시다 ⇒ 諄諄하신 慈

「諄諄하신」의 입자말은 바로 「慈」이지만 「여러내산」의 입자말은 다른데서 구해야 한다.

### 「-논」:「-논」

하나한 實相이니 觀하논 眞性を 니르고 들흔 觀照]니 能히 觀하논 微妙한 慧를 니르고 = 一은 實相이니 謂所觀眞性이오 二는 觀照]니 謂能 觀妙慧오 (반야심경 14)

首는 여섯 用의 惣이시고 臂는 자바 對接하시논 悲를 表하시고 目

은 비취여 아하시논 智를 表하시니 = 首는 爲六用之惣이시고 臂는 表 提接之悲하시고 目은 表照了之智하시니 (능엄 6:40-1)

나못은 닛는 幻妄을 가즐비시고 나모는 能히 닛는 幻智를 가즐 비시고 = 木段은 喻所修幻妄하시고 木燧는 喻能修幻智하시고 (원각, 상 2-1:48)

貪하논 五欲을 對하사 能히 貪하논 愛 이 輪廻入 本인들 標하야 마 르치시니 = 對所貪五欲하사 標能貪之愛...(원각, 하 1-1:16)

貪하논 境이 할시 能히 貪하논 愛 하나 아니니 = 所貪之境이 衆多故로 能貪之愛] 不一하니 (원각, 하 1-1:18)

### (가-6) 잡음씨의 두 활용형

19. 잡음씨 「-이다」, 「아니다」에 이 두가지 활용형의 대립이 나타난다.

「-인, 아닌」:「-이론, 아니론」

咫尺인 넷 위안해 = 咫尺故園(남명, 하:46)

석자한 뿔화리 = 三尺角弓(두언 25:45)

네 고은 사르민 公孫氏 있더니 = 昔有佳人公孫氏(두언 16:47)

一切法이 法가진 佛性(월석 2:53)

小王은 허근 王이니 轉輪王 아닌 王이라(월석 1:20-1)

時節 아닌 곳(월석 21:6)

이 경우에는 그 한정을 받는 입자씨가 의미상의 입자말이 되지만, 「-이론, 아니론」의 경우에는 한정 받는 말이 의미상의 부립말이 되는 일이 없다.

내 겨지비론 전츠로(월석 10:18)

道理 法가지론 고돌 니르시니라(석보 13:50)

眞實 아닌론 전치라(금강삼가 2:27)

能히 이기여 맞돌배 아닌론 전치니라(금강삼가 3:50)

이러한 말에 있어서는 「전츠」나 「곤」 따위가 「아니-」의 부립말이 될 수 없는데도 「-오/우+」 활용형을 쓰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p.848 이하 참조.

### 「-이신」:「-이산」

聖王은 聖人이신 王이시니(월석 1:19)

노론 大人이신 丘(금강삼가 4:11)

이 경우에는 한정 받는 말이 의미상의 입자말이지만, 「-이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부립말이 될 수 없다.



부테 부테산 고디(능엄 3:111)

걸이디 아니하시며 들이디 아니하시미 妙行이산 고디시니라(법화 7:2)

「곧」은 「-이다」의 부립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용형은 따로 설명될 것이다 (p.848 참조)

#### (나) 매인이름씨를 한정하는 경우

20. 매인이름씨는 구속형식으로서 그 실질적인 뜻이 없고 다만 형식 상으로 임자씨의 구실을 할뿐이다. 그러므로 매인이름씨와 그것을 한정하는 매김꼴의 구조는 완전한 이름씨의 경우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기본월로 환원시켜 볼 수 없다. 즉 「먹는 밥」은 「밥을 먹는다」로 환원할 수 있으나, 「먹는 것」은 「\*것을 먹는다」로 바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21. 그러나 매인이름씨는 그 쓰인 경우에 따라 그 실질적인 뜻이 결정된다. 「먹는 것」의 「것」은 경우에 따라서 「밥」이 될 수도 있고, 「죽」이나 「물」이나 또는 어떠한 다른 것이라도 될 수 있다.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이, 그 쓰인 경우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인이름씨도 완전한 이름씨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먹는 것」의 「것」은,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물이 되든, 그것은 속뜻으로는 「먹-」의 부립말이 되고, 「움직이는 것」의 「것」은, 그것이 사람이 되든, 다른 동물이 되든, 천체가 되든, 물이 되든, 속뜻으로는 「움직이-」의 임자말이 된다.

22. 그러므로 15세기 국어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대상법」과 「주체법」의 구별사용은 완전한 이름씨의 경우와 한가지다.

「것」

〈주체법〉 하다가 누니 能히 보논 거신덴 (능엄 1:66)

▽「것」은 「눈」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보-」의 임자말이다.

얼굴 뵈논 거시 光明 만나야 (석보 23:9) ← (그) 거시 얼굴 뵈는다.

흔 싸해 난 거시며 = 一地所生(법화 3:13) ← (그) 「거시」 흔 싸해 나니라.

싸홀 從하야 잇논 거시(월석 21:152) ← (그) 「거시」 싸홀 從하야 잇는다.

〈대상법〉 네 得흔 거슨 滅이 아니니 (법화 3:198)

▽(그) 「것」은 「得하-」의 부립말이다.

비흔 것들히 = 所散諸物(법화 6:106)

樹는 이 祇陀太子人 施흔 거실찌 (금강 2)

色身은 …父母人 나흔 거시라 (금강 29)

▽「비흔 것」이 무엇이든 이 「것」은 「방-」의 부립말이오, 「施흔 것」, 「나흔 것」은 각각 「樹」, 「色身」으로서, 모두 「施하-」, 「낭-」의 부립말이다.

香泥는 香으로 존흔 마티 땡마론 거시라 (석보 23:50)

그저기 大衆들히… 가쥔 거스로 供養하습더니 (석보 23:51)

순 거슬 보아 = 看題(두언 7:6)

▽모두 쉽사리 대상법을 쓴 이유가 이해되는 예들이다.

이 東山은 須達이 :산 거시오 (석보 6:40)

「:사-」는 「사-」의 「-오/우-」 연결형이다.

大師 하산 일 아니면 뉘 혼 거시잇고 (석보 11:27)

지운 거시 百斤두고 더으거든(월석 22:106)

供養하논 거시 (월석 21:198)

아춤 먹논 거시 이 나뭇 불휘오 나죄 먹논 거시 나뭇 거프리로다 = 朝餐是木根 暮食乃木皮(두언 25:37)

내 뵈논 천라이 다 이 아드리 뵈논 거시라 (월석 13:31)

菩薩 니르산 거시라, 닷마산 거슬 (월석 13:16)

神力으로 땡마르산 거시 (월석 18:31)

이 月印釋譜는 先考 지스산 거시니 (월석, 서:16)

諸法이라 혼 거슨 (석보 13:40) ← (그)것을 諸法이라 한다.

「이」

〈주〉存은 잇느니오 亡은 업스니라 (월석 21:54)

▽「이」(사람)는 모두 「잇-」, 「없-」의 주체이다.

善 아니 行하느니와 모딘 일 行하느니와 (월석 21:59-60)



「이」도 「行-」의 주체이다.

사렛느니 목수미 더으고 (월석 21:150) ⇒ 인(=사르미) 사렛느다.

切利天에 모뎃느니 (월석 21:14) ⇒ 인(=사르미) ...모뎃느다.

내 이 一切 아느니며 一切 보느니며 =我是一切智者이며 一切見者이며 (법화 3:16)

「이」는 「알-, 보-」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받아 그 주체가 된다.  
無上正道 일우시니 아니시면 (월석 14:54)

各各 되스븐니 보내샤 (월석 21:9)

늘그니 저르니며 貴하니 놀아보느니며 (월석 21:46)

三界 버스닐 =脫三界者(법화 2:99)

「이」는 사람, 이 사람이 三界를 벗은 것.

오직 信力 구드니샤 能히 알리라 (법화 2:160)

「이」 사람이 信力이 굳은 것이다.

病하니 (석보 9:30), 노꼭니 늦가보느니 (월석 1:42)

「이」 사람이 病하고, 늙고, 늦잡다.

諸法이 空 아니니 업스니라 (금강 5:36)

「아니니」의 끝 「이」는 「諸法」을 가리킨다.

艱難하니 즐기논 法 (법화 2:205)

「하니」의 축약. (→p. 320)

<대> 내 아드리라 내 나호니니 (법화 2:222)

「이」는 「아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낳-」의 부림말이 된다.

다 이 내 化하야 大道心을 發케 호니라 (법화 5:110)

「이」 「사람을」 大道心을 發케 하다.

아노닌 내 兄의 子息이오 브료닌 내 子息이니 (내훈 3:52)

「첫 「이」는 「형의 자식」으로서 「안-」의 부림말이오, 둘째 「이」는 「내 자식」으로서 「브리-」의 부림말이다.

하논 이룬 오직 호린 수리오 지수닌 오직 새지비로다 =事業只濁醪  
營葺但草屋 (두언 6:52)

「이」는 「새집」으로서 「짓-」의 부림말이다.

大地와 山河와 다 내 지소니라 =大地山河皆我造 (남명, 상:68)

하다가 이 介中엿 사르문 理를 다으디 아니호니 업스며 이를 스뵈  
디 아니호니 업서 =若是介中人은 無理不窮하며 無事不通하야 (금강삼  
가 3:48)

「여기 「이」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理」,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다으디 아니하-, 스뵈디 아니하-」의 부림말이 된다.

阿難羅云이 ...하마 한 사르미 보며 아노니로디 (법화 4:49)

「이」는 「阿難羅云」이며, 이 사람은 「알-」의 부림말이다.

如來 보내샤니 아니면 能히 몬하리라 (법화 4:83)

「보내신 사람」의 뜻. (=사르미 보내시다)

彌勒이 釋迦牟尼佛入 授記하샤니라 (법화 5:102)

내 이 世尊入 브리샤니라 (법화 4:200)

병이 없어지고난 뒤로는 「-스(수,조)불」과 「-스(수,조)본」의 구별이 없어지는데,  
이 경우 어느 어형에 속할 것인지는 그 뜻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수 밖에 없다.

하다가 法 듣조오니 이시면 =若有聞法者 (법화 4:46)

아리 敎化 넘스오닐 니르지고 =謂曾蒙化者 (법화 3:167)

은 모두 「-스(조)불」의 변화형이다.

「바」

<주> 주체법의 매김표의 한정을 받는 예는 찾지 못했음.

<대> 밍ㄴ론 바를 브터 (석보, 서:14)

스랑하논 배 (두언 20:54)

「무엇을 만들고 사랑하든지, 하여간 그것은 「밍꼴-」, 「스랑하-」의 부림말  
이 된다.

네 世間 누니 드외야 一切 가 信하논 배라 =汝爲世間眼하야 一切  
所歸信이라(법화 1:120)

菩薩 ㄴ르치논 法이며 부터 護念하논 배라 (법화 2:31)

軍國에 湏求하논 배 하니 =軍國多所須(두언 25:36)

저희 願하논 바는 (두언 25:37)



이 乘은 ...부텃 깃논 배니 (법화 2: 146)

부테 아루시논 바를 다 通達ᄃᆞᆫ와 (법화 5: 118)

말 닐오미 ... 부텃 經中에 니르산 배라 (월석 17: 74)

▽같은 사실을 기술한 다음 말 참조.

닐은 마리 ... 부텃 經中에 니르산 마리라 (법화 6: 65)

부터 니르산 밋 法 (금강삼가 3: 61)

▽「바」는 「말씀」으로 바뀌볼 수도 있다.

得ᄃᆞᆫ 밋 功德 (금강삼가 3: 61)

證ᄃᆞᆫ 밋 法 (남명, 하: 66)

이 八王子 | 妙光의 여러 教化ᄃᆞᆫ 배라 = 是諸八王子 | 妙光所開化 | 라 (법화 1: 125)

「더」

<주> 뵈 더 (석보 13: 20)

아니한 더 (석보 6: 25)

맞당한 더 (석보 6: 23)

어드본 더 (월석 21: 55)

<대> 대상법 매김꼴의 한정을 받는 일도 있으나, 그 경우에는 부림말이 되지 않는다. (p. 844-5 참조)

23. 다음과 같은 예는 이 두가지 활용형의 용법 상의 차이를 한층 분명히 해준다.

이 사ᄃᆞᆫ 如來 브류니며 如來 보내요니라 如來入 이를 行ᄃᆞᆫ니니  
= 是人은 則如來使 | 며 如來所遣이라 行如來事 | 니 (법화 4: 76)

▽여기의 「이」는 모두 「이 사람」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브리-」, 「보내-」에 대해서는 부림말이요, 「行ᄃᆞᆫ-」에 대해서는 임자말이다.

酥는 저즈로 땡ᄃᆞᆫ 거시니 쇠게서 나·니 저지오 저즈로 땡ᄃᆞᆫ로니  
酪이오 酪으로 땡ᄃᆞᆫ로니 酥 | 라 (금강삼가 3: 39)

▽「것」은 「酥」를 받는 말로서 「酥」는 「(저즈로) 땡ᄃᆞᆫ-」의 부림말. 「나·니」의 「이」는 「것」을 받고 있는데, 「것」은 「(쇠게서) 나-」의 임자말. 그러므로

「나·니」는 주체활용. 끝의 두 「땡ᄃᆞᆫ로니」의 「이」는 각각 「酪」, 「酥」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다 「땡ᄃᆞᆫ-」의 부림말이다.

지순 거시 眞實로 잇는 거시 아닐썬 (월석 14: 78)

땡ᄃᆞᆫ 거시 眞實入 잇는 것 아닐썬 (법화 3: 177)

▽두 예가 비슷한데, 첫 「것」은 각각 「것-」, 「땡ᄃᆞᆫ-」의 부림말, 둘째 「것」은 「잇-」의 임자말이다.

識은 能히 듣는 거시오 소리는 듣ᄃᆞᆫ 거시니 = 識은 爲能聞이오 聲은 爲所聞이니 (능엄 3: 42)

▽첫 「것」은 「識」을 받아 있으니, 이 「것」은 「듣-」의 임자말이요, 둘째 「것」은 「소리」를 받아 있으니, 이 「것」은 「듣-」의 부림말이다.

識이 소리 존ᄃᆞᆫ야 ᄃᆞᆫ 듣ᄃᆞᆫ 거시 得외어니 뉘 能히 듣는 거시 得외리오 = 識이 同聲ᄃᆞᆫ야 已爲所聞이어니 誰爲能聞이리오 (능엄 3: 42)

▽「識」이 「소리」와 같이 「듣ᄃᆞᆫ」 대상이 되니, 어찌 「듣ᄃᆞᆫ」 주체가 되겠는가? 하는 뜻이다.

(地獄) 크다 ᄃᆞᆫ노니 열여들비오 버그니 五百이 이쇼디 (월석 21: 26)

▽「ᄃᆞᆫ노니, 버그니」의 「이」는 다 지옥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크다 ᄃᆞᆫ-」의 부림말, 「버-」의 임자말이 된다.

佛佛이 손 싣기시논 조스ᄃᆞᆫ 뵈 거시 (월석 18: 13)

▽「손 싣기시-」의 객체는 「조스ᄃᆞᆫ 뵈」 이고, 「것」은 「조스ᄃᆞᆫ-」의 주체다. 같은 사실을, 법화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佛佛이 손 싣기시논 要 = 佛佛授手之要 (법화 6: 118)

하·닐 덜오 數를 記錄ᄃᆞᆫ니 오히려 一百이 이쇼디 = 削繁錄數 猶有一百(원각, 상 1-1: 33)

▽「하·닐」의 「이」는 「하-」의 임자말, 「記錄ᄃᆞᆫ니」의 「이」는 「一百이나 있는 것」인데, 이것은 「記錄ᄃᆞᆫ-」의 부림말이다.

두겨신 法은 곧 道場에 得ᄃᆞᆫ사니오 自在神力은 곧 性에 마초 示現ᄃᆞᆫ니오 = 所有之法 即道場所得者 自在神力 即稱性示現者 (법화 6: 109)

▽「得ᄃᆞᆫ사니」의 「이」는 「法」을 가리키며 이것은 「得ᄃᆞᆫ시-」의 부림말. 그리고 「示現ᄃᆞᆫ니」의 「이」는 「自在神力」을 가리킴인데, 이것은 「示現ᄃᆞᆫ-」의 임자말이다.



(가) 임자말 부림말 이외의 성분인 경우



(가-1) 위치말 (공간과 시간 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월성분)

28. 위치말은 「-은」 매김꼴로 한정된 예만이 나타나는 경우와, 「-오/우+ㄴ」 꼴로 한정된 예만 보이는 경우와, 두가지 매김꼴이 불규칙하게 섞여쓰인 경우의 세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나, 이것은 그 사용례가 더 많이 수집되면 모두 제삼의 유형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보인 것들은 한정된 일부 예에 지나지 않는다.)

(i) 주체법 활용을 사용한 예

「옷」: 뵈 무든 옷 (석보 6:26)

「날」: 내 어미 업슨 나래 (월석 6:53)

「적」: 부텃기로 가느 저기 (석보 6:19)

저문 저기 (석보 6:11)

부터 이실 저기 (석보 23:3)

又 그리 ఉ하느 저기 (석보 6:40)

「막더」: (밥) 머구려 하느 막더에 (석보 11:41)

봄 티느 막더 (석보 13:9)

「나라」: 菩薩 從하야 오신 나라 (월석 18:66)

부터 나신 나라 (월석 1:30)

「三摩地」: 冬개 住하신 三摩地 =自住三摩地(능엄 2:57)

「靈山會」: 이브터 法華經 나르시느 靈山會라 (석보 13:1)

「마울」: 城府는 之晉의 와느 마울히라 (두언 24:53)

「막술」: 外道 사느 막술 (월석 9:36 상)

「하늘」: 臣下 사느 하늘 (월석 1:32)

「못」: 毒龍池는 모딘 龍 잇느 모시라 (월석 7:27)

「구무」: 바룩 물 신느 굼기 (석보 13:10)

(ii) 대상법 활용을 사용한 예.

「자리」: 王이... 누분 자리에 겨샤 (월석 10:9)

「高欄」: 나모 느룬 高欄 (월석 10:51)

「玄關」: 쇠 거론 玄關 (남명, 하:74)

「술위」: 봄 시론 술위 =鼓車(두언 25:25)

소곰 시론 술위 =鹽車(두언 7:34)

五通 메운 술위 (천강곡 상, 기 119)

「벽름」: 그림 그룬 벽름 =畵壁(두언 6:34)

「椀」: 冰漿 다몬 椀 (두언 15:46)

「螺鈿」: 곳 바곤 螺鈿 (두언 20:9)

「말하」: 無○字는 이 나귀 딛은 말히라 하느니 (몽산 57-8)

「境」: 一切菩薩入 智의 住하 境에 住하야 (능엄 1:25)

「寶車」: 네달 메운 寶車 (석보 13:19)

「宮殿」: 잇느 宮殿 (월석 14:28, 법화 3:122)

「世界」: 노니느 世界 (능엄 6:43)

「國土」: 잇느 國土 (월석 18:11)

「나하」: 嫡夫人入 나혼 나히 못 하니 (월각, 서:75)

(iii) 두가지 활용형이 섞여쓰인 예:

「집」: <주> 庫는 천량... 뒷느 지비라 (석보 9:20)

쇠봄 든 지비사 (석보 6:38)

精舍는 조심하느 지비라 (월석 1:6)

<대> 사느 지비 (능엄 7:56)

「싸하」: <주> 이 呪 잇느 싸하 (능엄 7:58)

부텃 오래 教化하느 싸 (월석 17:18)

님금 물조왓느 싸히 (두언 8:62)

사름 가도느 싸 (석보 9:8)

들니느 싸 (월석 17:43)

果報로 나느 싸 (월석 17:58)



비 아니 오는 짜 (월석 10:84)  
 菓實 시므는 짜 (월석 21:39)  
 <대> 부터 가시는 짜히 (월석 1:16)  
 큰 軍이 갓는 짜 (두언 16:25)  
 잇는 짜 (월석 13:55)  
 들니는 짜해 (월석 10:70)  
 노니는 짜 (석보 6:24)  
 브튼 짜 (월석 18:55)  
 受生 혼 짜 (월석 21:93)  
 :간 짜 (월석 21:21)  
 :난 짜 (석보 6:8)  
 「더」: <주> 막숨 잇는 더 (능엄 1:71)  
 사는 더 (월석 1:34)  
 刹이 現티 아니흐 더 (능엄 6:13)  
 마른 더 (월석 9:10)  
 잇는 덜 (법화 6:49)  
 如來 겨신 더 (월석 21:192)  
 <대> 잇는 더 (능엄 1:69)  
 잇는 덜 (법화 6:50)  
 中 자불 더 (능엄 1:71)  
 :들 덜 일허 (능엄 1:86)  
 四大 브툼 더 업서 (능엄 5:79)  
 브터 :온 더 (금강 85)  
 눈 :간 더 (월석 17:35)  
 體... 이순 더 (능엄 1:65)  
 안존 덜 (금강 6)  
 菩薩 사르시는 더 (법화 7:177)

뜯 가산 덜 (법화 1:160)  
 住 혼 더 (법화 3:139)  
 「곧」: <주> 브튼 고디 (능엄 5:76)  
 잇는 고대 (법화 2:158)  
 잇는 고돈 (금강 65)  
 고지 나눈 고들 (원각, 상 1-2:152)  
 막숨 가눈 고디 (내훈, 2하:36)  
 섯는 고디 (남명, 하:26)  
 住 혼 고대 (월석 21:151)  
 滅 혼 고들 (원각, 상 1-2:152)  
 <대> 브튼 고디 (능엄 7:73)  
 니르륵 고디 (능엄 5:76)  
 :간 곧 (남명, 하:62)  
 住 혼 곧 (금강 22)  
 섯는 고디 (남명, 상:78)  
 잇는 고대 (금강 65)  
 뉘여나눈 고디라 (석보 13:28)  
 안존 고대서 (월석 8:1)  
 生 혼 곧 (원각, 상 1-2:152)  
 「時節」: <주> 내 來世에... 得 혼 時節에 (석보 9:4)  
 <대> 世動 혼 時節 (능엄 5:76)  
 「城」: <주> 아비 잇는 城 (월석 13:9)  
 <대> 아비 住 혼 城 (법화 2:237)  
 제 아비 잇는 城 (법화 2:188)  
 「것」: <주> 臥具는 늘는 거시라 (월석 10:20)  
 尼師壇은 앞는 거시라 (석보 6:30)  
 典은 尊 하야 여저 들씨니 經을 尊 하야 여저 뒷는 거질찌 經典이라



하느니라 (석보 13:17)

<대> 안줄 것 = 數具(원각, 상 2-2:25)

「方面」: <주> 잇는 方面 (법화 6:54, 석보 19:22)

<대> 잇는 方面 (월석 17:69)

▽‘법화 6:54’와 ‘월석 17:69’는 같은 사실을 서술한 글이다.

### (가-2) 방편말

29. 위치말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가지 유형이 있다.

(i) 주체법 활용이 쓰인 예:

「禮數」: 부터 되습는 禮數 (석보 6:20)

「神力」: 智照하시는 神力 = 智照之神力(법화 6:100)

辯說하시는 神力 (월석 18:4)

「慈悲」: 衆生 濟渡하시는 큰 慈悲 = 度生之大悲(상월사 권선문)

「조개」: 鈿螺는 그르세 꾸미는 빛난 조개라 (월석 2:51)

「것」: 度는 기리 견주는 거시오 (월석 9:7)

慈悲는 衆生을 便安케 하시는 거시어늘 (석보 6:5)

(ii) 대상법 활용이 쓰인 예:

「道」: 成佛하시는 道 = 成佛之道(법화 6:113)

나 여희옵 道 = 出離之道(월석, 서:14)

「藥」: 다스리시는 藥 (월석 17:19)

「慈愛」: 父母의 길어내온 慈愛入恩惠 (월석 23:98)

「물」: 옷 색론 므를 먹고 (석보 11:25)

「門」: 이 圓頓애 드논 門일찌 = 是入圓頓之門故로(법화 2:219)

(iii) 두가지 활용형이 섞여쓰인 예:

「法」: <주> 相法은 相 보논 法이라 (월석 7:29)

도죽 罪 주는 法 (월석 10:25)

사름 罪 주는 法 (석보 9:30)

恭敬하습는 法 (석보 6:21)

教法은 衆生 教化하시는 法이라 (월석 2:52)

<대> 菩薩 마르치시는 法 (법화 4:111)

體 세시는 法 = 立體之法(법화 6:118)

說法하시는 法 (법화 1:229)

자 보논 法 (월석 8:9)

「方便」: <주> 行을 니르왈는 方便 = 起行方便(원각, 상 2-2:9)

<대> 닷가 니골 方便 = 修習方便(원각, 상 2-2:8)

닷골 方便 (원각, 상 2-1:10)

衆生을 度脫하논 方便入 이를 닐오리라 (월석 21:63)

「德」: <주> 사르미 시르믈 시름하시는 調御入 德 (월석 17:19)

<대> 聖人入... 調御하시는 德 (법화 5:155)

「말」: <주> 請問하시는 마리 (월석 18:76)

우흔 다 宿王의 읍겨 물즈보시는 마리라 (월석 18:80)

誠實흔 마른 阿彌陀佛 기리습는 마리라 (월석 7:74)

우흔 다 諸佛入 머리셔 讚歎하시는 마리시니라 (법화 6:179)

<대> 上大人이라 닐오몬 世에서 孔聖을 일코즌 마리니 (금강삼가 4:11)

請하야 물즈오시는 마리 (법화 7:16)

우흔 다 宿王入 읍겨 물즈오시는 마리시니라 (법화 7:22)

우흔 다 諸佛이 머리셔 讚歎하시는 마리라 (월석 18:57)

命은 시기논 마리라 (월석, 서:11)

「숫가락」: <주> 둘 마르치논 숫가락으로 (원각, 하 1-2:34)

<대> 둘 마르치논 숫가락 (원각, 하 1-2:33)

修多羅教 | 둘 마르춘 숫가락 존하니 (남명, 하:50)



「글」: <주> 疑心하야 묻조오시는 글들 = 疑問等文(법화 1:123)

<대> 對答하산 그리 (원각, 상 2-1:43)

더니라 勸하산 그리 = 勸持文(법화 6:95)

妄을 허는 文 = 破妄之文(능엄 1:62)

### (가-3) 견줄말

30. 견줄말의 예는 다음 한가지 밖에 구하지 못했다.

忉利는 第二天이니 후더 잇노니 오직 天人이오 兜率은 곧 第四天이니 후더 잇노니 菩薩이시니 = 忉利는 乃第二天이니 所共이 惟天人이오 兜率은 即第四天이니 所共이 乃菩薩이시니(법화 7:177)

「잇노니」는 둘 다 「잇+논+이(매인이름씨)」로 분석되는데, 「이」는 각각 「天人」, 「菩薩」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忉利는... 후더 잇노니 天人이오」의 속뜻은 「忉利는 天人과 후더 잇는다」이고, 「兜率은... 후더 잇노니 菩薩이시니」의 속뜻은 「兜率은...菩薩와 후더 잇는다」로 생각된다.

### (나) 속구조로 돌이킬 수 없는 매김꼴

31. 이상에서 설명한 「매김꼴+임자씨」의 구조는 모두 속구조로 돌이킬 수 있는 말들이었다. 즉, 한정을 받는 이름씨를, 앞의 풀이씨의 임자말이나 부림말이나 위치말이나 방편말이나 견줄말로 돌이킬 수 있는 말들에 있어서, 그 매김꼴이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이다.

32. 그러나 「매김꼴+임자씨」의 구조는 반드시 이러한, 속구조로 돌이킬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네가 어제 거기에 간 일은 잘한 것이다.

에 있어서 「간+일」의 구조는 앞에 말한 ①②③④⑤의 어느 속구조로도 돌이킬 수 없으며,

잘난척 한다, 한듯 하다.

따위에 있어서의 「잘난+척」, 「한+듯」의 구조는 더구나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15세기 국어의 매김꼴은, 앞의 ③④⑤의 경우에 서와 같이, 주체법 대상법이 불규칙하게 쓰인다.

33. 다음은 이러한 구조를 가진 말들 중의 몇가지 예들이다.

「일」: <주> 내 오랴날... 地藏菩薩이 人天中에 利益하논 일들과... 聖因에 진내뵈 일와 十地 證하논 일와... 菩提에 이르디 아니하논 이틀... (월석 21:155)

몸 술며 불 스르신 일 아로마로 (월석 18:61)

<대> 十方佛 보스오시는 이틀 (법화 5:75)

다 餘國에 化 보내샤 護持하야 도으시는 이리시니라 (법화 4:105)

놈 利하시는 이틀 가즐비시니라 (월석 13:8)

몸 술며 불 스르시는 이틀 아루시며 (법화 6:183)

堪忍에 사루시는 이틀 묻조부시니라 (월석 18:80)

바르래 누븐 이룬... 須彌山 베운 이룬... 두들 자본 이룬... (월석 1:17-8)

「막숨」: <주> 싸호논 막숨 (능엄 9:19)

큰 法 즐기논 막숨미 잇던덴 (월석 13:36)

覺了能知하논 막숨미 (능엄 1:55)

法 爲하논 막숨미 (법화 6:12)

뒤웃븐 막숨물 (석보 6:8)

<대> 本來 求하논 막숨 업다이다 (월석 13:37)

이 불기 아논 막숨미 (능엄 1:56)

내의 覺了能知하논 막숨미 (능엄 1:57)

네 아논 막숨미 (능엄 1:64)

緣하논 막숨미 自在하야 (능엄 6:45)

法 爲하논 막숨미 (월석 17:51)

「뜰」: <주> 앓가불 뜰디 잇느니여 (석보 6:25)

모도아 니르와돈 뜰 (원각, 상 2-1:26)

<대> 이 親近 供養하스오시는 뜰디라 (원각, 하 3-1:118)

부텃 出現하샤 說法하시는 뜰들 아스와 (법화 2:156)



부데 一乘 니르시논 브들 (법화 1:226)  
 說法 호시논 뜰 아로미 어려보니 (석보 13:48)  
그리호논 브든... 주길까 호논 브디라 (석보 11:1)  
 「힘」: <주> 法門을 받조오신 히므로 (법화 7:67)  
 <대> 三寶 호논 히므로 (월석 10:95)  
 法 護持 호논 히므로 神通을 일워 (석보 13:10)  
 三塗入 受苦 여희논 그 히미 (능엄 5:87)  
 香 들논 힝 전츠로 (법화 6:47)  
 이는 다 正憶 호논 히미라 (법화 7:182)  
 「소리」: <주> 咄은 우리티시논 소리라 (월석 10:93)  
우는 소리 (석보 19:14)  
 시름하야 한숨 디난 소리 (석보 19:14)  
 <대> 든득 화 호논 혼 소리에 (몽산 18)  
 지벽으로 대수 톤 소리에 알며 (몽산 10)  
 「전츠」: <주> 아로미 업슨 전츠로 (능엄 1:69)  
 이제 서르 아논 전치며 (능엄 1:69)  
 清淨의 나신 전츠로 = 清淨所生故 (능엄 1:98)  
 佛如來와 慈力이 호가진 전츠로 (능엄 6:7)  
 修習인 전츠로 (능엄 8:50)  
 十方如來 | 다 호 道 | 전츠로 (능엄 1:44)  
 千聖이 다 너시논 전츠로 (능엄 1:50)  
 <대> 이를 브론 전츠로 (능엄 1:82)  
 物 이슈미 드외논 전츠로 (능엄 1:75)  
 벌고물 나토려 호시논 전츠로 (능엄 1:79)  
 일로 브터 가논 전츠로 (능엄 1:50)  
 막스매 부터를 스랑호습논 전츠로 (능엄 1:86)  
 性에 잇디 아니호물 불기시논 전츠로 (능엄 1:111)

解脫을 得호산 전츠로 (능엄 8:26)  
 첫 地位론 전츠로 (월석 2:60)  
 「막스맨 眞實 아니론 전치라 (금강삼가 2:27)  
 「닷」: <주> 緣影이 다 업스신 다스로 (법화 6:83)  
호호신 다시라 (월석 18:72)  
 여러가짓 相見을 여희신 다스로 (월석 18:35)  
 부텃 일흠 稱念 호스불 다스로 (월석 21:137)  
니슨 다스로 (법화 4:21)  
 <대> 發 호논 다시니 (능엄 8:80)  
 穢조미 잇논 다스로 (월석 14:36)  
 法身을 證得호산 다스로 (월석 18:35)  
 辟支佛 供養 호산 다스로 (석보 11:42)  
 正道에 서게 혼 다스로 (법화 4:17)  
 「줄」: <주> 々외야 惡趣를 저픈 주리 업스니 (석보 9:39)  
 世間이 無常하야 구든 주리 업스니 (월석 10:14)  
 주 (크리) 몰곤 주를 보아 (월석 8:6)  
 髣 거시 다 날븐 줄 업기 호리라 (월석 9:15)  
 <대> 쉰 머리에 고지 디논 주를 슬코 (두언 21:14)  
 ... 受苦 여희논 주를 讚嘆호시리니 (월석 8:55)  
 數 | ... 八百 드외논 주론 (석보 19:9)  
 이 病 업스산 주리라 (석보 23:44)  
 須達의 버릇 업슨 주를 보고 (석보 6:21)  
 眞如法이 호나히론 주를... 아디 몬홀찌 (능엄 4:13)  
 「양」: <주> 사름과 사름 아닌것과... 供養 호습논 양이 다 되느다  
 (석보 13:24)  
 四衆들히... 圍繞 호스뻬논 양도 보고 (석보 19:40)  
 10 | 웃사름두고 더은 양 하야 (월석 9:31)



죽갓 나라해서 거슬픈 양 흔는 難 (석보 9:33)

<대> 菩薩入 道理 行<sub>하</sub>시는 양도 보며 (석보 13:14)

아는 양 마티 불어 니르리니 = 如所知히 演說<sub>하</sub>리니 (법화 6:66-7)

안자 겨산 양도... (석보 19:40)

부텃 道理 求<sub>하</sub>는 야을 본딘 (석보 13:18)

貪<sub>하</sub>야 求<sub>하</sub>는 그 양이 (법화 2:113)

34. 앞에 들어보인 매인이름씨 「것, 이, 바, 줄, 디」는 추상적이기는 하나 그 임자씨로서의 성격은 뚜렷하다. 이에 비하면 「디, ㄷ, 게, ㄷ, 다」 따위 매인이름씨는 씨끝과 녹아붙어 가는 경향이 강해서 그 임자씨로서의 성격이 뚜렷하지 못한다, 이러한 매인이름씨를 풀이씨의 매김꼴로 한정하는 말에 있어서는 그 속구조로의 환원이 되지 않는 점, 앞의 경우와 한가지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매김꼴의 두가지 형식의 사용은 규칙화하기 곤란하다.

「ㄷ」: (p.288 참조)

<주> 니근들(월석 2:50), 업슨들(석보 19:10), 빈들(월석 2:37), 주근들(월석 21:198), 어민들(월석 21:56), 一切智 아닌들 알라(월석 21:198), 나<sub>하</sub>신들 아루시고(석보 11:32), 업스신들(월석 13:36), 니르논들(능엄 2:12), 뭇논들 몰라(월석 21:207), 滅 아니 하시논들... 알어신마룬(월석 18:39), 說法 듣줍논들 보고(남명, 하:17), 사름마다 다 뒛논들... 아루실씨(법화 5:194), 히 도닷논들 아디 못<sub>하</sub>도다(남명, 하:13), 願<sub>하</sub>든 니르쇼셔(석보 13:44)

<대> ㄴ존들(능엄 6:40), 다든디 물흔들(월석 14:22), 無相흔들 아롤디로다(금강삼가 3:29), 속절업시 돌논들 아로니(남명, 하:45), 世間 이 나<sub>ㄴ</sub>내론들 아라(능엄 6:103), 굿디 아니<sub>하</sub>논들 보리니(몽산 41), 잇논들 알와이다(능엄 1:56), 브<sub>ㅅ</sub>뵈논들 알며(능엄 6:103), 이 존<sub>하</sub>산들 불기시니라(월석 17:15), 이제사 일우산들 優陔耶 | 술<sub>ㅅ</sub>비니이

다(천장국 상, 기 115), 서르 보논들...有別호물 불기개니라(내훈 1:77).

幸히 브라스온들 머물워 두쇼셔(유조, 서:17)

「ㄷ+이」→「디」: (p.289 참조: 이 경우에는 대상법이 우세하다.)

<주> 오<sub>하</sub>신디... 오라디 못거시든 (법화 5:119)

더 부터 滅<sub>하</sub>거신디... 오라고 (월석 14:7)

道 得<sub>하</sub>거신디... 갓가오샤디 (법화 5:120)

妻眷 ㄷ외안디 三年이 못 차이셔 (석보 6:4)

邪曲<sub>하</sub> 道理 ㄷ환디 오라아 (석보 6:28)

부터 못 보스<sub>하</sub>디 오라디니 (월석 21:191)

無量壽佛 보스<sub>하</sub>불 사르문 十方無量諸佛을 보스<sub>하</sub>디니 (월석 8:33)

이 이<sub>를</sub> 보스<sub>하</sub>불 사르문 十方一切諸佛을 보스<sub>하</sub>디니 (월석 8:28)

<대> 이<sub>하</sub>손디 아니며 (능엄 3:17)

아니 和흔디 아니로다 (능엄 2:102)

和合으로 니디 아니<sub>하</sub>흔디 ㄷ도다 (능엄 2:100)

衆生이... 눈 머론디 긴 바미 잇<sub>하</sub>니 (법화 1:170)

便安호미 뭇유메 웃드미론디 理 | 진실로 그러<sub>하</sub>니 = 安危動主理信然 (두언 7:29)

見이 物 아니론디... 불기리로다 (능엄 2:38)

드로물 니르산디 아니라 = 非謂...入(능엄 5:38)

하마 涅槃<sub>하</sub>산디 닐웨 디나샤 (석보 23:40)

一相一味산디 一雲一雨 | 존<sub>하</sub>샤물 니르시니라 (법화 3:24)

고줄 노<sub>하</sub>라 하논디 아니라 (월석 7:54의 1)

行을 廢<sub>하</sub>시논디 아니라 (월석 17:42)

父母 ㅅ든 天性에 根源<sub>하</sub>디라 (월석, 서:14)

衆生이 本來 부<sub>ㅅ</sub>테론디라 (금강삼가 4:53)

이 經 디닐 ㅅ아르문... 歡喜를 得게 하디니라 (법화 6:113)

이 經典 受持讀誦<sub>하</sub>는 닐... 衆僧 供養<sub>하</sub>디며 (월석 17:37)



나웃... 恭敬흔디면... 한 사르미 禮數헝리라 (석보 6:29)  
 이 經 난 고들 아론딘댄... 쇠비를 메을디니라 (금강삼가 2:49)  
 스로물브터 나논디라 쵸애서 나디 아니헝니라 (능엄 3:25)  
 佛子 | 이 싸해 住헝면... 坐臥헝논디리라 (법화 5:212)  
 또 너와... 諸菩薩 아오로 보논디니라 (법화 2:157)  
 헝다가... 이 經을 헝면 一切世間佛種을 굿논디니 (법화 2:161)  
 이 菩薩入 헝터럭 굽깃 光을 보면 微妙헝 光明을 보논딜씨 (월석 8:38)  
 기픈 므스므로 信解헝면 부테... 說法호물 보논디며 (월석 17:35)  
 내 아들 悉達이 오논딘댄 (월석 10:7)  
 오직 헝 이를 爲헝시논디라 너나몬 乘이 업스시니 (법화 1:14)  
 다헝산디라 더으디 몰헝시리라 (능엄 1:18)

「그에, 거기, 게」: (p. 298-9 참조. 이 경우에는 주체법이 우세한것 같다.)

<주> 부테 本來 至極寂靜헝그에 住헝샤 (석보 23:44)  
 지죄 적고 나히 늘근거기 오히려 빈 일후미 잇느니 =才微歲老尙虛名 (두언 22:16)  
 추론 籠헝거슬 化헝야 ㄴ는거기 드릴씨라 (월석 17:19)  
 굳디 아니헝게 구든 브들 머그샤 (월석 10:9)  
 나사 빅호물 가비야이 너기며 슬희여헝게 드워혀니라 (월자, 상 1-1:90)  
 鬼神女와 道 아닌게 니르리 (월자, 상 2-2:15)  
 <대> 기르논 太子를 나혼게서 달이 아니터라 (석보 11:35)  
 ▽「나혼」은 「나혼」과 같이 보이기도 하나, 「혼」임이 분명하다.  
 姪女는 새 뜯게 버므렸고 =姪女縈新裏(두언 20:25)

「듯, 드시, 디시」: (p. 296-7 참조.)

<주> 서르 섯근듯 疑心드의도다 (능엄 2:98)  
 허늬 樹王이 고지 픈듯 헝니 (석보 13:25)

이 마리 人情에 브터 니르신듯 홀시 (남명, 하:39)  
 芴은 恍芴헝야 누네 잇는듯 업슨듯 홀씨니 (월석 14:18)  
 玉 잇는 府에 양지 노피 비취엿는듯고 =玉府標孤嘆(두언 23:8)  
 朱崖 | 머리터리 브텃는듯고 =朱崖著毫髮(두언 25:5)  
 主근드시 자다가 =尸寢(두언 22:1)  
 가스를 몰다 서러잇는 드시 헝엿더니 (월석 23:74)  
 絢 기베 漠漠히 브르맷 몰애 여렛는 드시 그렛도다 =縞素漠漠開風沙 (두언 16:39)  
 보시고사 안디시 헝시니 (천강곡 상, 기 43)  
 <대> 眞珠 헝튼듯 헝니라 (금강삼가 2:12)  
 님긔 綱紀는 오히려 旗入발 드론듯헝도다 =王綱尙旒綴(두언 22:32-3)  
 피릿소릴 든는듯 헝더니라 (두언 6:41)  
 헝번 밥 머근디는 자취 곧 쓰론드시 업소라 =一飯迹便掃(두언 22:3)  
 文章이 싸할 쓰론드시 업도다 (두언 24:58)  
 제 모맷 고기를 바쳐 내논드시 너겨헝며 (석보 9:12)

35. 그밖에 「디」(→p. 290), 「동」(→p. 294) 따위 매인이름씨 앞에는 「-은」 활용형이 연결된 예만이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

## (2-3) 총괄

36. 이상에서 설명한 ‘ㄴ’ 활용형의 용법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ㄱ) 「-ㄴ」+임자씨’는 그 속구조와의 관계로 보아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첫째는, 속구조에 있어서, 그 임자씨를 그 앞의 풀이말(매김꼴)에 종속되는 월성분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ㄴ) 첫째 경우는 그 임자씨가 속구조에 있어서 어떠한 월성분으로 돌이켜지느냐에 따라 다섯가지로 나뉘는데, ① 임자말로, ② 부림말로,

5. 안맺음씨꼴의 굴곡범주



③ 위치말로, ④ 방편말로, ⑤ 견준말로 돌이켜지는 것이 그것이다.

(ㄷ) ①의, 임자말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 매김꼴이 「-은」 형을 취하게 되고, ②의, 부림말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우+ㄴ」 형을 취하게 된다.

(ㄹ) 그 밖의 경우, 즉 ③ 위치말로, ④ 방편말로, ⑤ 견준말로 돌이킬 수 있는 것과, 전혀 속구조로 돌이켜 볼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김꼴의 「-오/우-」 연결은 불규칙적인데, 이것은 속구조는 여러가지 이질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표시해야 하는 매김꼴의 형식은 두가지 뿐이기 때문이다.

### 37. <「-ㄴ」+임자씨>의 구조>

|                                   |                  |        |
|-----------------------------------|------------------|--------|
| (1) 임자씨를 풀이말에 종속된 월성분으로 돌이킬 수 있는것 | ① 임자말로——「-은」     | } 불규칙적 |
|                                   | ② 부림말로——「-오/우+ㄴ」 |        |
|                                   | ③ 위치말로           |        |
|                                   | ④ 방편말로           |        |
|                                   | ⑤ 견준말로           |        |
| (2) 그렇지 못한것                       |                  |        |

### (2-4) 예외

38. 원래 불규칙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란 있을 수 없으므로, 예외가 나타나는 데는 앞의 ①과 ②의 경우이다. 즉 임자말로 돌이킬 수 있는 말에 「-오/우+ㄴ」이 쓰인다든지, 그 반대로 부림말로 돌이킬 수 있는 말에 「-은」이 쓰인 것들은 예외에 속한다.

#### (가) 임자말로 돌이킬 수 있는 말에 대상활용이 쓰인 예외

目連이 錠光佛入時節브터 나혼 어미 하나 아니어시니 (월석 23:93)

弟子의 나혼 어미는 (월석 23:96)

慈孝行흠 사르미 다 몬져 나혼 現在父母와 過去 七代 父母 爲하야 (월석 23:97)

상네 孝慈로 나혼 父母 생각하야 (월석 23:98)

▽이러한 예는 '월석 23'에 유독 많이 나타나는데,

이몸 나혼 어미 (월석 23:93)

는 바로 되어 있다.

「나혼」이 의미상의 부림말을 한정하는 정상적인 예는 앞에 들어보인 예들(p.812-3 참조) 이외에도 많이 나온다.

父母의 나혼 모몬=父母所生之身(능엄 3:108)

父母 나혼 누느로(월석 17:57)

父母 나혼 귀=父母所生耳(법화 6:35)

父母入 나혼 모달=父母所生之身(법화 6:59)

어미 나혼 현비 적삼(남명, 상:31)

父母이 나혼 本分엿 오시(남명, 상:31)

내 어미 나혼 ㄱ외(남명, 상:31)

林淨寺로 가스본 내로니 (월석 8:92)

求하논 이리 어긔여 이논 이리 업거든 (월석 21:176)

▽「일다」는 제음직씨이므로 「일」은 이에 대한 속뜻의 임자말이 된다.

나며 드논 수미 化하야 (능엄 5:56)

▽속구조는 「수미 나며 들다」이니, 「나며 드논 수미」라야 한다.

잇논 香 (월석 17:64)

▽이것도 그 속구조는 「香이 있다」이므로 「잇논 香」이 규칙적이다.

잇논 香(석보 19:17)

山川 險혼 골 기론디 난 卉木藥草 =山川險谷 幽邃所生혼 卉木藥草(법화 3:35-6)

바리 :난 아기 =夜來生兒(육조, 서:10)

▽속구조는 「아기(임자말) 나다」, 「卉木藥草」 나다」이므로 「난 卉木」은 규칙에 맞으나, 「…혼 卉木」, 「:난 아기」는 벗어난 용례이다.

#### (나) 부림말로 돌이킬 수 있는 말에 주체활용이 쓰인 예외

그뻘 教化혼… 衆生 (월석 14:57)

▽바로 같은 책에 바로 된 예가 보인다.

菩薩마다 教化혼… 衆生이(월석 14:48)



▽같은 장에 바로 된 예가 보임.

어미 나훈 누를 (금강삼가 3:59)

▽이러한 경우에 「나혼」이 쓰인 예는 앞면에 많이 보였음.

<sup>▽</sup>바로 쓰인 예 (앞에도 있음).

婆羅門 슬본 말 (천강곡 상, 기 32)

▽〈비교〉 富樓那 | 行<sub>하</sub>는 道=富樓那所行道(법화 4:25)

조차 짓는 惡業 = 循造惡業(능엄 8:78)

간대로 짓는 凶 = 妄作之凶 (법화 6 : 145)

▽다음은 같은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바로 된 것.

간대로 짓는 ㄷ(월석 18:33)

네 몬 드른 法 = 昔所未聞法(법화 5: 106)

象兵은 마력쳐 싸호매 브리는 고키리오 (월석 1:27)

如來 니르는 世界 = 如來說世界(금강 68)

如來 니르나니 微塵 아니라 = 如來說이 非微塵이라 (금강 68)

▽이것은 「말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말한것, 말하는것, 말할것」의 뜻이니 매인이름써 「이」는 부립말이다.

사랑하는 아기아들리 (석보 6:15)

찾는 갈홀 바사 = 脫劍佩(두언 25:53)

▽이 말은 '월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로 되어 있다.

如來 一切 뒷논 法(월석 18 : 11)

니벳는 옷마의 (불정심경 &lt;정양사 영인&gt; p.64)

畜生은 사육미 지비셔 치는 중시이라 (월석 1:46)

버리는 香 (월석 10:44)

諸天 휘우는 香 (석보 19 : 19)

물읷 어루 니르느 거슨 = 凡可說者(법화 5:23)

符節은 내 가졌는 거시니 = 符節我所持(두언 25 : 37)

모미 니븐 것 이신 後에△ (법화 4:99)

稻粱은 鴻雁의 먹는 거시라 (두언 16:6)

求하야 언디 못하는 거시 =求不得者(원각, 상 1-2 : 151)

病人의 스랑하는 거시어나 (월석 21:92)

보는 거시 비르서 實홀시 = 所見方實(원각, 상 2-1: 47)

旒蘇는 五色 빛난 거스로 어울워 드리우는 거시라 (월석 10:44)

籠은 호곤 대를 엮어 부는 거시라 (석보 13 : 53)

마곤 더 (월석 21 : 166)

새 나훔니란 치마예 다마 (월석 10 : 24)

▽「나훤니」의 「이」는 아기인데, 이것은 「낱-」의 의미상의 부림말이다.

閻浮提入 內예 땡마스불 부터 像 (월석 21 : 193)

優填王이 밍 마스본 金像을 象해 싣즈바 (월석 21 : 203)

長史 듣조분 마리, 魔下 듣조분 마리 (용 65장)

佛影은 그窟에 스듯 보습는 부텃 그르메라 (월석 7:55)



받잡는 宮殿 (월석 14:30)

▽같은 책에 바로 된 예가 많다. (01:0 10:10) 10:10 10:10 10:10

받잡는 宮殿 (월석 14:21, 24, 27)

다시 들잡는 法 (법화 6:127)

다시 들잡는 法 (월석 18:20)

過去에 부테 거샤다... 天人神龍의 모다 供養호습느니라시니 =...天人神龍의 所共供養이라시니 (법화 6:92)

▽대인이름써 「이」는 「부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供養호-」의 의미 상의 부림말이다.

龍의 빛과 버미 등어리 곤흔 님금 두시는 거시니 =龍文虎背 皆君馭 (두언 16:12)

두신 象 (월석 10:27)

▽이 말들은 그 속구조를 '象애(따래) 트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외가 되지 않는다.

八方如來와 혼뻬 내신 소리 들좁고 (월석 18:1)

두겨신 功德 (월석 21:156, 능엄 7:51)

두겨신 法 (월석 18:11, 법화 6:109)

▽〈비교〉 如來 一切 뒷는 法 (월석 18:11)

혼뻬 쓰신 살 (천장국 상, 기 40)

▽같은 자리에 「:쓰 살」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상법으로 바로 된 말이다. (「:쓰-」는 「쓰-」의 「-오/우-」 연결 변이형이다.)

使者는 브리신 사르미라 (석보 6:2)

만나신 부테 (능엄 5:87)

드러 니르신 十號 =所舉十號 (법화 3:69)

如來 니르시느 三十二相 (금강 70)

如來 니르시느 我人畝 相 (금강 85)

나몬 니르디 아니호신 一切無漏功德等이라 (원각, 상 2:2:119)

(다) 예외에 대한 풀이

39. 인칭활용법의 예외(→p.773 이하)에 비하면 대상법의 예외가 더 많은 듯 한데, 그 이유로 다음 몇가지 사실을 들 수 있다.

첫째, 「-은」과 「-오/우+ㄴ」 형은 그 혼용의 예가 많으므로, 이에 끌려 규칙적인 것마저 혼란이 일어난다.

둘째, 인칭활용에 있어서 「-오/우-」의 개입을 결정하는 입자말은 풀이말의 앞에 놓이는 데 대해서, 대상법에 있어서는 「-오/우-」 개입을 결정하는 말은 그 뒤에 온다. 이것은 뒤의 말을 미리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불규칙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대상법은 그 속구조가 이를 규정하는데, 속구조는 겉구조에 비하면 잠재적이지고 간접적이다.

네째, 「-습-」과 「-으시-」의 경우에 상당한 예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경우에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 고려되어야 바른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습-」은 그 앞의 객체를, 「-으시-」는 그 앞뒤의 주체를, 그리고 「-오/우-」는 그 뒤의 매김을 받는 말을 고려해야 함), 정신적인 부담이 다른 경우보다 더 크다.

40. (가)의 예외와 (나)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5세기에 있어서 이미 대상법은 혼란되기 시작하여, 「-오/우+ㄴ」 형이 차츰 후퇴하고, 「-은」이 여기 대치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인칭활용의 경우와 비교할것. p.755-6)

## (2-5) 「-단」, 「-간」과 「-던」, 「-견」

41. 인칭활용에 있어서는 「-더-」와 「-다-」는 분명한 대립을 나타내고 있었고, 「-거-」와 「-가-」도 그랬으리라고 추측할만 한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더-」+「-오/우-」→「-다-」, 「-거-」+「-오/우-」→「-가-」로 풀이할 수 있다.

42. 그러면,

5. 안팎음씨끝의 굴곡범주



「-던」:「-단」=「-은」:「-오/우+ㄴ」

「-건」:「-간」=「-은」:「-오/우+ㄴ」

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단」과 「-간」은 대상활용으로 쓰였을것 같이 생각되나, 15세기 문헌에서는 두가지 어형이 다 쓰이면서도 주체법과 대상법의 차이를 지니고 있었던것 같지 않다.

(가) 「-단」:「-던」

43. 주체활용이 쓰일 자리에 「-던」이 쓰일 예.

菩薩行<sub>던</sub> 衆生 (석보 13:51)

좁<sub>던</sub> 東山이 어위며 (월석 2:28)

모<sub>던</sub> 일 짓<sub>던</sub> 중성 (월석 21:25)

이 閻浮提入 善行<sub>던</sub> 사르미 (월석 21:125)

네 업<sub>던</sub> 모술... 일워내니 (천강곡 상, 기 105)

싸해 무<sub>던</sub> 보비 (월석 2:45)

舍利 供養<sub>던</sub> 사르미 (석보 13:51)

佛像을 그리<sub>던</sub> (석보 13:52)

「그리<sub>던</sub> 사람」의 뜻.

44. 객체활용이 쓰일 자리에 역시 「-던」이 쓰인 예.

威嚴王佛이 아래 니르<sub>던</sub> 法華經 (석보 19:31)

行<sub>던</sub> 業 (법화 3:102)

護持<sub>던</sub>야 戒<sub>던</sub> 因 (법화 4:11)

가도<sub>던</sub> 사람 (석보 9:33)

피<sub>던</sub> 불<sub>던</sub> 구<sub>던</sub> 씨<sub>던</sub> (석보 6:2)

듣<sub>던</sub> 묻<sub>던</sub> 이<sub>던</sub> =所未聞 (법화 2:4)

내 <sub>던</sub> 이<sub>던</sub> (석보 24:18)

醉<sub>던</sub> 後에 브르<sub>던</sub> 놀<sub>던</sub> (두언 15:11)

여<sub>던</sub> 놀<sub>던</sub> (두언 22:27)

프<sub>던</sub> 홀<sub>던</sub> (두언 25:54)

이 아<sub>던</sub> 거<sub>던</sub> =是子所知 (법화 2:222)

묻<sub>던</sub> 거<sub>던</sub> (몽산 18)

講堂은 네 아니 지<sub>던</sub> 거<sub>던</sub> =講堂非曩構 (두언 6:22)

부<sub>던</sub> 니르<sub>던</sub> 希有法은 네 듣<sub>던</sub> 묻<sub>던</sub> (법화 5:181)

「이」는 「希有法」을 가리키는 것이니, 「듣<sub>던</sub> 묻<sub>던</sub>」의 부<sub>던</sub>말이다. 이것과 앞의 「그리<sub>던</sub>」를 비교.

이상의 예들은 모두 「-오/우+ㄴ」이 쓰일 자리인데도, 「-단」이 쓰이지 않고 「-던」이 쓰일뿐이다.

45. 이와같이 주체법이나 객체법이나 구별 없이 「-던」이 쓰이게 되는데, 「-은」과 「-오/우+ㄴ」이 규칙없이 쓰이는 다음과 같은 자리에서는 「-단」과 「-던」이 같이 나타난다. (p.840 이하 참조)

「-던」: 世尊入<sub>던</sub> 버<sub>던</sub> 업<sub>던</sub> 일 (천강곡 상, 기 75)

岳陽樓의 노<sub>던</sub> 이<sub>던</sub> (두언 25:5)

大愛道 잇<sub>던</sub> 精舍 (월석 10:23)

네 사<sub>던</sub> 될 일<sub>던</sub> (능엄 9:71)

세 賦를 蓬宮에 받<sub>던</sub> 저<sub>던</sub> 스<sub>던</sub> (두언 25:52)

이 經 허<sub>던</sub> 전<sub>던</sub> (법화 2:166)

알<sub>던</sub> 니르<sub>던</sub> 양<sub>던</sub> (석보 9:33)

오늘 맞<sub>던</sub> 고<sub>던</sub> 저<sub>던</sub> 하<sub>던</sub> 들<sub>던</sub> 처<sub>던</sub> 아<sub>던</sub> (월석 13:36)

外道 | 舍利弗 것<sub>던</sub> 들<sub>던</sub>... 더욱 웅<sub>던</sub> (천강곡 상, 기 167)

「-단」: 네 모<sub>던</sub> 내<sub>던</sub> ...付屬<sub>던</sub> 이<sub>던</sub> 생각<sub>던</sub> (석보 11:8)

前賢의 後生 전<sub>던</sub> 이<sub>던</sub> 아<sub>던</sub> 못<sub>던</sub> (두언 16:11)

게으른 衆生들히... 父母供養<sub>던</sub> 고<sub>던</sub> 아<sub>던</sub> (석보 11:15-6)

오직 이 넷 時節入 사<sub>던</sub> 넷 時節入 하<sub>던</sub> 고<sub>던</sub> 고<sub>던</sub> (금강삼가 5:5)



아랫 果報 것니단 주를 솔보니 (월석 2:63)

道理 마로려 한단 전츠로 (월석 7:13)

이 道士 | 精誠이 至極한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ㄷ의  
에 한시리라 (월석 1:7)

어마니미... 모딘 業을 지스시단디면... 어마님 爲<sup>하</sup>야 布施호리이다  
(월석 23:73)

도한 일 한시단디면... 이 돈을 供養<sup>하</sup>스보리 (월석 23:65, 기 504)  
僧齋를 한단디시 한니 (월석 23:65, 기 505)

46. 「-단」이 「-던」과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구조로 보아, 「-다-」는 「-더-」와 「-오/우-」의 결합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두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면, 「-던」:「-단」은 원래 「-은」:「-오  
/우+ㄴ」과 같이, 주체법-대상법의 구별을 표시했던 것이리라 추측되  
나, 15세기 후반기에 있어서는 「-던」이 「-단」을 거의 몰아내고, 「-단」  
은 겨우 한 부분에서만 살아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나) 「-간」:「-건」

47. 이 경우에는 대립적으로 쓰였던듯 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  
게 되어 있다.

「-건」: 더나건 일 (월석 1:21)

더나건 뼈 (두언 8:56)

오라건 劫 (석보 11:5)

니건 헛 바미 =去年夜 (남명, 상:23)

죽다가 살언 百姓 (용 25장)

하늘해 나건디 오늘 사으리 더나니 (월석 21:28)

郎官 ㄷ의언디 오라고 (두언 8:64)

「-간」: 일로 現前에 나와 比丘의게 供養 한간디라 (월석 17:39)

이 사르든 如來를 頂戴<sup>하</sup>간디라 (월석 17:36)

너희들히 能히 이리<sup>하</sup>면 한마 諸佛恩을 갑간디니라 (월석 18:18)

한다가 네... ㅅ스물 사품디면... 各別히 온 姓 이슈미 맞당한디어네  
쥔 (능엄 1:89)

#### (다) 「-거신, -더신」 형에 대해서

48. 「-으신」 앞에는 「-습-」 이외에도 안맺음씨꼴 「-거-」, 「-더-」가 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으산」과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으  
산」 앞에 「-거-」, 「-더-」가 나타나는 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 설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더나거신 無量諸佛 (석보 13:15)

聖人 업거신디 오라면 (월석 9:7)

몰더신 사르든 (월석, 서:20)

니며 잇더신 鹿皮오술 (월석 1:16)

이 경우에는 「-으신」으로 대상법을 대신한다. (끝의 예 참조)

#### (2-6) 독립적으로 쓰인 ㄴ 매김꼴

49. ㄴ 매김꼴 다음에 오는 이름씨가 빠져 버리는 일이 드물게나마 있  
는데(→p. 652-4),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주체-대상법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 (가) 「-오/우+ㄴ」 형

드룬다비 (월석 17:45)

世尊 勅<sup>하</sup>산다비 (월석 18:19)

ㄴ르치산다비 修行<sup>하</sup>야 (월석 14:61)

許<sup>하</sup>산다이 (법화 2:138)

닐운다히 (영가, 상:25)



㉒ 다음에 「것」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면, 이 「것」은 모두 그 앞 풀이  
씨의 의미상의 부립말이 된다.

그딛 흔 조초 하야 (석보 6:8)

제 흔 조초 하야 (몽산 16)

흔은 조초 하고 (금강삼가 2:25)

내라 흔 아래 (능엄 2:59)

㉓ 이 경우에도 「것」의 생략으로 보면 「것」은 「하-」의 의미상의 부립말  
이 된다.

〈참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악학계법 동동)

의 「흔」의 다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앞의 「德, 福」을 가리키므로, 이  
「것」은 「하-」의 부립말이 된다.

그 「것」을 德이라 福이라 하다⇒德이라 福이라 흔 (것).

#### (나) 「-은」 형

웃도 미슴 난 조초 마라 넙고 (석보 24:26)

꽃니플 잇는 조초 노코 (능엄 7:12)

㉔ 「나-」와 「앗-」은 제음적씨로서 부립말을 가질 수 없다.

虞芮質成하노로 (용 11장)

自枉詩하노로 (두언 11:5)

自有我人相하노로 (금강삼가 5:5)

威化振旅하시노로 (용 11장)

自佛이 屬迦葉하시노로 (원각, 상1-1:106)

㉕ 「하노로, 하시노로」는 「호일로, 하신일로」의 줄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일」은 「하(시)-」의 부립말이 되지 않는다.

#### (3) ㄹ 매김꼴

1. 「-을」 앞의 「-오/우-」에는 안맺음씨꼴 「-습-」과 「-으시-」가 수의  
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활용형의 대립이 나타난다.

① 「-을」: 「-오/우+ㄹ」

② 「-스(스, 즈)불」: 「-스(스, 즈)불」

③ 「-으실」: 「-으살」

#### (3-1) 주체법과 대상법

(가) 완전한 임자씨를 한정하는 경우

(가-1) 「-을」: 「-오/우+ㄹ」

2. 「-을」 형은 그 한정을 받는 임자씨가 속뜻으로는 이 풀이씨의 임자  
말이 됨을 나타내고(주체법), 「-오/우+ㄹ」 형은 그 한정을 받는 임자  
씨가 속뜻으로는 이 풀이씨의 부립말이 됨을 나타낸다.(대상법)

「-을」

불 사르미 歡喜하며 (월석 13:72) ←사르미 보다.

㉖ 「불」은 평성이니, 「-오/우-」가 개재되지 않은 어형이다. (「-오/우-」가 개  
재되면 「:보-」가 된다.)

孝順호 子息 (월석 21:28) ←子息이 孝順하다

설버 즐기디 물 사르미 (월석 21:91) ←사르미...즐기디 물하.

놀 중심 (월석 21:113) ←중심이 놀다

찾믈 기를 姦女 (월석 8:90) ←姦女] 찾믈 길다.

가다가 도라을 軍士 (용 26장) ←軍士] 가다가 도라오다.

避仇호 (赴京호) 소니 마리 (용 28장) ←소니 避仇(赴京)하다.

相 불 사르미 (월석 2:23) ←사르미 相 보다.

增上慢호 사르미 (석보 13:22)

하마 命終호 사르미 (월석 21:125)

길 넙 사름 (석보 6:4-5)

㉗ 「넙」은 평성, 「-오/우-」 개재 없는 꼴.



젓머글 아히 시절 (내훈 3:59)

므르디 아니홀 法輪 (석보 13:4)

「-오/우+르」

하을 이틀 다 하마 일우니라 (법화 3:197) <이틀 하다

하을 童子들하로 브를 짜름 사르며 (법화 5:70) <사르물 브리다

難히 得홀 阿耨... 菩提法 (법화 6:120) <...菩提法을 得하다.

▽같은 사실을 기술한 '월석'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으니, 두 어형의 좋은 대조가 된다.

得호미 어려본 阿...法(월석 18:15) <阿...法이 得호미 어렵다.

긴 녀르메 하을 이리 업스니 =長夏無所爲 (두언 25:2)

聖은 通達하야 몰룰 이리 업슬씨라 (월석 1:19)

白淨이라 홀 仙人 (월석 21:193) <仙人을 白淨이라 하다.

衆生의 니불 오시 (월석 8:65)

駕鶴이라 홀 조이 (월석 8:101) <종을 駕鶴이라 하다.

이러흔 브든 聲聞緣覺의 몰룰 이리라 (월석 1:37)

닷가 證홀 了義 =修證了義 (능엄 1:8)

소내 몸 뿔 솟가라기 도드며 바래 몸 뿔 고기 니슬씨라 (능엄 1:19, '枝駢'의 설명)

늘근 놀근 브를 사르미 잇느니 (월석 13:23)

▽사르미 늙다 ⇒늘근 (사름) }  
사르미 늙다 ⇒놀근 (사름) } ⇒늘근 놀근 브를 사름  
사르물 브리다 ⇒브를 사름

畝굴 밭 (월석 13:28)

高山이라 홀 뵈 (월석 1:27) <뵈홀 高山이라 하다 <뵈히 高山이라

蜀이라 홀 ㅁ을 (월석 2:50)

頻婆羅라 홀 여름 (월석 2:58)

藍毗尼라 홀 天女 (월석 2:27)

(가-2) 「-스(스, 쯔)불」:「-스(스, 쯔)불」

3. 「-을」:「-오/우+르」의 대립과 한가지다.

「-스불」

(부터) 보스불 사르미 슬뿔 뉘 모르며 (월석 2:59)

(부터 功德) 들즈불 사르미 (석보 9:2)

「-스불」

부텃디 받즈불 고지라 못하리라 (월석 1:10)

몬내 혜스불 功과 德 (석보, 서:1)

「-스을」

/뵈/이 없어지고 난 뒤로는 이 두 어형의 구별이 없어지나, 다음과 같은 예는 주체법 활용임이 분명하다.

法 들즈을 사르미로 (법화 3:131)

(가-3) 「-으실」:「-으살」

4. 앞의 두 대립과 같은 형식이다.

「-으실」

느려 오실 부터 (월석 21:188, 기 419) <부터 느려 오시다.

「-으살」

하살 이틀 하마 일우샤 (법화 2:43) <이틀 하시다.

모르살 法 (법화 1:37) <法을 모르시다.

(나) 매인이름씨를 한정하는 경우

5. 「ㄴ」 활용형의 경우에서와 같이, 「ㄹ」 활용형에 있어서도, 매인이름씨를 한정하는 경우에 주체-대상법의 구별이 나타난다.

「것」

<주> 아니 주ळ 거시 잇느들 미더 (월석 18:32) <(그)거시 아니 죽다.

<대> 머글 거슬 (남명, 하:13)



이 보리로 쌀 것 밧고면 (원각, 서: 77)  
 阿難의 아를 거시 아니니 (능엄 4: 104)  
 辟支佛의 물물 거시라 (석보 13: 37)  
 너희의 어루 玩好를 꺼시 希有하야 (법화 2: 66)  
 肉眼의 能히 :불 것 아니라 (금강 29)

「이」

<주> 道理 行하리 잇거든 (석보 9: 5)

「이」는 「사람」, 「사람이 行하다」의 변형.

有情 보차리 업스며 (석보 9: 34)

信티 아니하리 이시면 (법화 5: 122)

일홈 알리 이시면 (법화 7: 151)

<대> 아스미며 버디며 아로리며 (석보 9: 29)

「아로리」는 「알+오+르+이」로서 「알 사람」의 뜻인데, 그 「사람」은 「알-」의 의미 상의 부림말이 된다. 이에 비해서 앞의 「알리」는 「알+르+이」로서, 이 「사람」은 「알-」의 의미 상의 임자말이 된다. 「알리」와 「아로리」의 대조는 이 경우의 「-오/우-」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이다.

世間엿 네발 든 중생 中에 獅子 | 위두하야 저호리 업슬씨 (월석 2: 38)

「저호리」는 「두려워할 것」의 뜻인데, 「사자를 두려워할 (다른) 짐승」이란 뜻이 아니라, 「사자가 두려워할 짐승」이란 뜻이다. 따라서 「(중생은) 쫓다」가 속구조이다.

사나을 머구릴 뷔여 오니 (월석 1: 45)

「머구리」는 「먹+우+르+이」로서, 「이」는 쌀을 가리키며, 「쌀」은 「먹-」의 의미 상의 부림말이 된다.

悉達이라 하샤리 (석보 6: 17)

「이」는 「사람」. 이 변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이 悉達이시다 ⇒ (그)이를 悉達이시다 하다 ⇒ 悉達이라 하샤리.

이 경우에 「-으시-」가 다음 풀이씨로 이동된다.

救脫이라 하샤리 (석보 9: 29)

闍婆摩羅 | 라 호리 (월석 21: 206)

「위」의 예와 한가지. 「-이다」에 「-으시-」가 없기 때문에 「호리」에 그친 것.

「바」

ㄴ 매김꼴의 경우처럼 (p. 837 참조), 「-을」형의 한정을 받는 예는 없는 듯 하다.

<대> 내...無量衆의 尊을 배라 (법화 1: 205)

算數譬喩로 몬 아를 배라 (석보 19: 5)

이 년갑고 열본 사르며 能히 홀 배 아닐씨 (월석 18: 43)

호을 바를 아디 몬하다니 (월석, 서: 10)

이 山海... 佛이... 諸佛如來入 모다 讚歎하샤 그 功德 일궤르살 배리 라 (법화 4: 53)

「곤」

<대> 누니 :불 고디 드외면 (능엄 1: 58)

저홀 곤 업수믈 (능엄 7: 63)

聲聞緣覺의 물물 고디라 (월석 1: 37)

「디」

<대> :불 딜 (능엄 10: 25)

「보디 물홀 딜 (능엄 10: 25)

은 이 규칙에 맞지 않는 예외다.

### (3-2) 주체-대상법 아닌 ㄴ 매김꼴

6. ㄴ 매김꼴의 경우와 한가지다. (→p. 840 이하)

(가) 임자말 부림말 이외의 성분인 경우

(가-1) 위치말

<주> 夫人이 나하실 들 거의어늘 (월석 2: 27)

5. 안맺음씨꼴의 굴곡범주



이 法 니르실 時節에 (석보 11:39)

命終홀 나래 (월석 21:104)

모딘 罪를 지슬 막디 (석보 9:9)

틀 거시 업스나 = 無乘 (두언 25:40)

沐浴홀 모스로 (석보 13:23)

이 經 流行홀 싸해 (월석 9:40)

서되 드릴 華瓶 (월석 10:119)

주글 제 (법화 2:217)

法華經 니를 꼬더 잇거든 (법화 4:113)

나실 나래 (석보 6:17)

부테 머므르실 지비라 (석보 6:23)

<대> 어미 :간 싸홀 무려 아롭디 업서이다 (월석 21:21)

法會홀 더 (월석 17:31)

브터 이슬 떠 (법화 2:151)

노녀 즐글 떠 (법화 5:164)

精舍 지슬 더 (석보 6:23)

안줄 거시 (천강곡 상, 기 183)

住홀 곧 (금강 83)

사를 더 (두언 7:2)

### (가-2) 방편말

<대> 사를 옷바비사 (월석 10:28)

衣服臥具飲食 資生홀 꺼슬 貪着 아니코 (법화 7:183)

受苦 더를 法 (월석 8:15)

나사 닷글 術 (월석 13:14)

서르 害홀 썬 (석보 9:17)

上官行次 甞를 도니 업서 (불정심경<정양사 영인> p.74)

庫堂 고틀 貲財 (두언 7:20)

사를 資產 (두언 25:37)

방편말의 경우는 대상법 매김꼴이 쓰이는 경향이 보이나 그 예가 적어서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속구조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

(나-1) 주체활용을 쓴

맛당홀 양을 조차 (석보 13:47)

놈 줄 브디 이실썬 (월석 2:13)

주춧 罪로 (월석 2:69)

열히 드웁 마장 (월석 11:47)

擁護홀 작르미 아니라 (월석 21:153)

地獄애 떠러디여... 날 그지 업수미작녀 (월석 21:179)

몬홀 줄로 (능엄 1:72)

조블 뿌니니 (석보 6:11)

차반 甞를 쓰리 (석보 6:16)

孝道홀실 막습 (천강곡 상, 기 46)

다르디 몬홀게 變하야 다를시 (원자, 상 2-1:28)

슬밀썬 모르며 (월석 7:18)

만히 듣조블썬 聞이오 (석보 11:43)

報身은... 便安홀실씨라 (월석 2:53)

世尊이 須達이 을똥 아루시고 (석보 6:20)

부터 느리실들 아습고 (월석 21:201)

幻術 이질썬 아니라 (천강곡 상, 기 166)

오직 四大 떠 드웁뿌닌들 表하시고 (월석 14:15)

다민 부텃 像을 想홀만 하야도 (월석 8:45)

어루 바다 자블똥거든 (법화 3:34)



누니 들을드시 바라노라 = 眼欲穿 (두언 20:18)

共은 훈가질씨니 (월석 14:69)

報障은... 聖道엿 器具 아닐씨니 (월석 9:6)

#### (나-2) 대상활용을 씀

제 홀 양으로 (석보 6:27)

精舍 지술 이룰 (석보 6:26)

衆生 救<sup>호</sup>를 딛습 (법화 7:166)

生死 버술 이룰 (월석 10:14)

이 法 信<sup>터</sup> 아니홀 줄 업스니 (석보 13:62)

앗품 뜯 내디 말라 (월석 18:17)

사를 이룰 (몽산 19)

길<sup>홀</sup> 이대 굴히울들 알리로다 (원각, 하 1-1:57)

부<sup>테</sup> 各各 홀대를 조차 教化<sup>하</sup>샤디 (월석 13:51)

#### (나-3) 「ㄷ, 디」

7. 「들」은 「-을」과 「-오/우+ㄷ」에 두루 붙으나, 「ㄷ+이(라)→대(라)」는 모두 「-오/우+ㄷ」 형에 붙는다. (pp.852-3 참조)

虛空이 네 心識을 내올디 아니니라 (능엄 3:51)

모로매 次第로 글올디이다 (능엄 5:26)

이 藥<sup>곳</sup> 아바<sup>넛</sup> 病을 도<sup>하</sup>시게 홀딘댄... (월석 21:216)

더는... 도<sup>조</sup>를 뜻다 닐올디오 이<sup>는</sup>... (금강삼가 3:12)

坐를 法으로 홀디언딩... (몽산 35)

그쳐 버리디 마를디어다 (두언 24:43)

法도 오히려 반<sup>드</sup>기 브<sup>를</sup>떠어니... (금강 39)

福 甞<sup>라</sup> 土地를 가를디어늘 (월석 21:125)

브즈러니 供養<sup>홀</sup>떠며 (법화 4:80)

반<sup>드</sup>기 아를디로다 (능엄 2:72)

조<sup>갓</sup> 果<sup>ㅣ</sup> 이디 몬홀디라도 (능엄 7:43)

微妙히 덜고<sup>덜</sup> 어루 어를디라 (능엄 1:37)

成佛<sup>홀</sup> 딛스<sup>덜</sup> 發홀디니 (월석 9:20)

몬져 丈六像이 못 우회 겨샤<sup>덜</sup> 보스<sup>불</sup>디니 (월석 8:44)

自性天真佛의 가즐비살디 아니시니라 (법화 2:33)

小乘으로 物을 化<sup>하</sup>시면 法 앗기샤미 드외살떠라 (법화 1:206)

物이 번<sup>드</sup>기 나토<sup>덜</sup> 알에 하살디니 (능엄 2:104)

오직 菩薩이샤 어루 여러 되살떠니라 (법화 4:95)

8. 「-디-」가 「-을」 형에 붙는 일도 있다.

모던 대는 당당이 모로매 一萬나출 버힐디로다 (두언 21:5)

내티디 마를디니라 (내훈 1:87)

안맏음씨끝 「-아/어-」가 앞설 때는 「-오/우-」는 겹쳐지지 않는다.

隨喜功도 그러<sup>하</sup>곤 圓持功을 아를디로다 (월석 17:54)

마<sup>조</sup>것 업슨 智慧라 닐을디로다 (월석 8:16)

9. /ㅁ/이 없어지고난 뒤로는 「-스불」과 「-스불」은 「-스을」로 한데 모여지나, 「-디-」 앞의 「-스을」은 「-스불」의 변화형으로 보아야 한다.

하<sup>늘</sup>의 갑스을디라 (내훈, 2하:55)

頂禮<sup>하</sup>스을디니 (능엄 7:24)

다 恭敬<sup>하</sup>야 위알즈을떠니라 (법화 6:111)

10. 원래 대상법은 잡음씨에는 쓰이지 않음이 원칙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잡음씨도 「-오/우-(→로)」를 가질 수 있다.

羅<sup>ㅄ</sup>이<sup>를</sup>디면 내 빛소배셔 난 아기로소이다 (월석 23:86)

하<sup>마</sup> 有無法이 아니를딘댄 딛츠매 이 므스고 (금강삼가 2:41)

#### (3-3) 예외

11.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856 참조), 매김꼴의 한정을 받는 입자씨를, 앞의 풀이말(매김꼴)에 대한 입자말이나 부림말로 돌이킬 수 있



는 경우에만 예외를 말할 수 있는데, 주체법 활용을 쓸 자리에 대상법 활용을 쓴 예외는 보이지 않고, 대상법 활용을 쓸 자리에 주체법 활용을 쓴 예외만이 보이니, 이것은 다음 시기로의 변화의 경향을 보여준다. (p.861 참조)

바래 브를 끼름 (법화 2:242)

어루 헤디 몬호 衆 (법화 4:26)

(瞿曇法) 恭敬 몬호 거시라 (월석 21:200)

一切諸佛 護念호經이라 (월석 7:75)

여러가짓 供養호 거스로 (월석 13:68)

▽〈비교〉 種種 供養호 거스로 (월석 13:70)

塵이 어루 得호 것 업순디라 (원각, 상 2-2:35)

어루 볼 것 업스니라 (원각, 상 2-2:35)

▽「볼」은 평성이니 「-을」형이다.

이논 三昧香이라 人間애 가줄빌 것 아닐찌 (법화 6:139)

▽〈비교〉 이 三昧香이 人間애 가줄불 거시 아닐찌 (월석 18:29)

秘要호 藏은 곧 法의 몬 볼 거시오 (월석 18:11)

一切 어러이 보롬 거슨 내 모매 너무니 업스니 = 盖一切難捨는 無過己身호니 (능엄 6:105)

世間애 慧日이 업스샤 울워스불리 업거시다 (석보 23:19)

▽「울워스불리」는 ‘우리러볼만한 대상이 되는 사람’의 뜻이니, 매인이름씨의 「이」(사람)는 「울월-」의 의미 상의 부립말이다.

보디 몬호 될 (능엄 10:25)

12. 이상의 예는 모두 남음직씨의 매김꼴이 그 의미 상(속구조)의 부립말을 한정하고 있는데도 주체법의 활용을 쓰고 있는 예외들이다.

#### (3-4) 독립적으로 쓰인 ㄹ 매김꼴

13. ㄹ 매김꼴에서와 같이 (p.865 이하), ㄹ 매김꼴에 있어서도 그 다음

에 오는 이름씨가 빠져버리는 일이 있는데, 문헌에 나타나는 예는 거의 다 잡음씨나 그림씨나 제음직씨의 「-을」 활용형이다.

流布호디 다옴 업시 호리라 (능엄 1:4)

쁘디 다옴 업소라 = 意無窮 (두언 21:26)

놀애를 노외야 슬픔 업시 브르느니 = 歌莫哀 (두언 25:53)

緣을 조츠며 感애 브트샤미 두루 아니호 아니호시나 = 隨緣赴感靡不周 (금강삼가 5:10)

여러 劫入 因이 아닐 아니며 (육조, 상:47)

14. 다만, 「버을-」만이 대상법 활용형으로 쓰이고 있다.

시후 時에 짜해 버으를 혼두자 호야 (법화 2:118)

엇테... 二乘에 버으를 甚히 머로물 알리오 (영가, 하:71)

#### 4) 때매김법

1. 서기 15세기 국어의 때매김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말하고 있는 현재를 토대로 하여 시간 관념을 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하지 않고, 지난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하여, 말할이가 그 때를 지금으로 생각하고서 시간 관념을 표시하거나, 경험한 일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38)

2. 말하고 있는 현재를 토대로 하는 시간 표시 방법은 세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방금 눈앞에 되어나가는 일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방금 눈앞에 되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술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시

(38) 현대말의 때매김을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본 것은 최현배님의 탁견이다.

우리말본 p.445 이하 참조.

5. 안맺음씨꼴의 굴곡범주



간 표시 방법을 「현실법」이라 한다.

둘째는, 이미 일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술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확정법」, 또는 「기정법」이라 한다.

셋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 또는 추측적인 일을 기술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추정법」, 또는 「미정법」이라 한다.

3. 지난때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관념을 표시하거나 경험을 기술하는 방법은 「회상법」 또는 「경험법」이라 한다.

4. 이러한 때매김법은 풀이씨의 씨끝으로 표시된다.

현실법은 「-느-」로써, 확정법은 「-으니/과-」와 「-은」으로써, 추정법은 「-으리-」와 「-을」로써, 회상법은 「-더-」와 「-다-」로써 표시된다.

|     |          |              |
|-----|----------|--------------|
| 때매김 | 현재를 기준으로 | (1) 현실법      |
|     |          | (2) 확정법(기정법) |
|     |          | (3) 추정법(미정법) |
|     | 과거를 기준으로 | (4) 회상법(경험법) |

### (1) 현실법

1.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방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술하거나, 방금 눈앞에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술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안맺음씨끝(보조어간) 「-느-」로써 표시된다.

그리고 소위 영원한 진리를 표현하는 데도 이 때매김법이 쓰이는데, 영원한 진리는 현실적인 사실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때매김법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느-」

2. 다른 안맺음씨끝과 결합하지 않은 경우:

「-느다」: 네 어미 이제 惡趣에 이서 至極 受苦하느다 (월석 21: 53)

사름과 사름 아닌 것쾌... 상네 供養하습는 야이 다 되느다 (석보 13: 24)

妙音菩薩摩訶薩이... 法華經을 듣고져 하느다 (월석 18: 75)

네 이제 또 물느다 (월석 23: 97)

다못 닐오더... 妨害티 아니하느라 하느다 (두언 21: 6)

이 모미 주근 後에 오으로 滅하느다 (능엄 2: 10)

불기더 물하느다 (능엄 2: 95)

슬허하요몬 히로 다못 집느다 =爲恨與年深 (두언 11: 10)

내 그제 ㅅ암 오느다 하야 (월석 10: 24)

일후를 누니 보느다 흥딘댄 (능엄 1: 101)

德叉迦는 毒을 내느다 하논 마리오 (석보 13: 7)

羅睺羅 ㄸ려다가 沙彌 사모려 하느다 흘씨 (석보 6: 2)

보느다 닐오미 물하리라 (능엄 1: 65)

「-느니」: 耶輸는... ㄸ은 ㅅ들 ㅅ 브리느니 (석보 6: 6)

金輪王 아ㄸ리 出家하라 가느니 (석보 6: 9)

네... 大悲로 니르고라 請하느니 (월석 9: 9)

地獄들히 大 鐵圍山 안해 잇느니 (월석 21: 41)

ㄸ ㄸ기 업느니 =無有休息하느니 (능엄 8: 125)

이 ㄸ스미... ㄸ기 ㅅ왜 존느니 =此心이 則同... 兎角하느니 (능엄 1: 90)

구루미 어듭느니 =雲暗하느니 (능엄 4: 44)

얼의여 ㅅㅅ호물브터 六根이 죗느니 =由凝滯하야 而具六根하느니 (법화 3: 13)

ㄸ스미 조하면 곧 佛土 | 죗느니 =心淨即佛土淨 (금강 59)

덜더더 굳느니 =確然其堅 (금강삼가 2: 29)

有生하면 則老死苦惱 | 隨之矣느니 此는 生起之相也 | 라 =...老死苦惱 | 죗느니 (법화 3: 136)

如來는 부텃 智慧 닐오물 위하야 넛느니 이제 正히 그 時節이로다 (석보 13: 60)



「-느더」: 壇經이... 六祖入 큰 오온 브들 보디 몰하느더 = ...不見六祖의 大全之旨느더 (육조, 서: 7)

3. 「-느-」에는 안맺음씨끝 「-으시-」, 「-습-」이 앞설 수 있다.

「-으시느다」: 佛子 | ...無上智慧를 求하거든 위하야 도헌 道理 니르 시느다 (석보 13: 18)

너븐 智로 너비 濟渡하시느다 솔오몬 (법화 3: 127)

「-으시느니」: 이제 또 내 아득를 두려가려 하시느니 (석보 6: 5)

太子 | ... 즈개 慈悲호라 하시느니 (석보 6: 5)

흔게 도라가 자취 업스시느니 = 反一無迹하시느니 (법화 4: 65-6)

「-습느다」: 難히 만나습느다 니르샤몬 = 言難值遇 (법화 5: 148)

「-습느니」: 赤島 안헛 움흘 至今에 보습느니 王業艱難이 이려하시니 (용 5장)

4. 「-느-」 다음에는 안맺음씨끝 (때매김에 관계 없음) 「-오/우-」, 「-으이-」, 「-오/우+으이-」가 뒤따를 수 있다. (느+오→노)

「-노라」: 나 滅度후 後에 내 弟子를 너를 마씨노라 (석보 11: 14)

내 하마 다 아노라 = 我已悉知見하노라 (법화 1: 150)

우리들히... 이제 도라가고져 하노라 (월석 14: 76)

사르미 福 求하노라 하야 (석보 19: 3)

「-노니」: 내 너의 깃구물 돕노니 (석보 11: 9-10)

내 이제 너두려 문노니 = 我 | 今에 問汝하노니 (능엄 1: 45)

「-으시노라」: 一切 하논 길 잇는 法이 便安티 몰흔 주를 如來 보시 노라 하시며 (석보 23: 18)

「-습노라」: 부터 니르시는 여둘가짓 恭敬을 나도 깃스바 머리로 받습 노라 (월석 10: 22)

「-습노니」: 내 이제 諸佛 니르시는 陀羅尼句를 열즈바 請하습노니... (월석 10: 84)

「-느이다」: 소리 잇느이다 = 有聲하이다 (능엄 4: 126)

소리 잇느이다 = 有聲하이다 (능엄 4: 126)

「-느-」는, 뒤의 /i/ 소리 때문에 (동화작용으로) 일어나는 「-느-」의 변이형태이다.

「-으시느이다」: 世尊이... 如來入 第一義諦를 펴 부르시느이다 = 敷演 如來入 第一義諦하시느이다 (능엄 4: 2)

「-습느이다」: 一切衆이 깃스와 未曾有를 讚歎하습느이다 (법화 3: 124-5)

「-노이다」: 外道 | 舍利弗 겹구던돌 이내 只숨애 더욱 웃노이다 (천강곡 상, 기 167)

썩를 두겨시다 듣고 婚姻을 求하노이다 (석보 11: 28)

「-습노이다」: 維那를 삼승보리라 王을 請하습노이다 (월석 8: 79, 기 225)

5. 「-노이다」는 동화작용을 일으켜 「\*-뇌이다」로 바뀌어, 이것은 다시 「-뇌다」로 줄어지기도 하고, 「-뇌」만이 남기도 한다.

「-뇌다」: 그리 아니라 부터와 중과를 請하승보려 하뇌다 (석보 6: 16)

「-뇌」: 즈업스실씨 오늘 몬 숯뇌 (월석 2: 45, 기 26)

6. 그림씨, 잡음씨와 「-느-」.

이상에서 보인 예들로써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느-」는 상태를 나타내는 풀이씨(그림씨)나 잡음씨에 붙는 일이 별로 없다.

그림씨에 붙은 예는 몇개 보이니(곤느니, 어듭느니, 줄느니), 「-이다」에 붙은 예는 하나뿐이다(隨之矣느니). 그러나 이 예도 한문의 토이며, 그 속뜻은 움직씨적이다.

그러므로 같은 문장 안의, 같은 표현법일지라도, 그림씨에는 「-느-」가 붙지 않고, 움직씨에는 「-느-」가 붙는 일이 있다.

難隨는 깃브다 하논 마리오 跋은 어디다 하논 마리니... 어딘 德이 잇다 하논 브디라... 和修吉은 머리 하다 하논 마리오 德又迦는 毒을 내느다 하논 마리오 (석보 13: 7)

그러나 이 현상은 한 경향에 지나지 않으며, 상태를 나타내는 풀이씨에 「-느-」가 붙은 예도 탈견할 수 있다.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 (2) 확정법(기정법)

1. 이미 결정적인 사실로 말할이에게 파악되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문법적 방법인데, 안맺음씨끝 「-으니/과-」, 맺음씨끝 「-은」으로 표현된다.

### (2-1) 안맺음씨끝으로

#### (가) 「-으니-」

2. 다른 안맺음씨끝과 결합되지 않은 경우:

「-으니라」: 녀느 쉰 아히도 出家하니라 (석보 6:10)

다시 說法하시니 羅雲의 尺寸미 여러 아니라 (석보 6:11)

人間도 欲界에 드니라 (월석 1:32)

그제 龍王들히 次第로 안즈니라 (월석 10:66)

그제... 一切衆會 다 또 瞻禮하습고 合掌하야 부르니라 (월석 21:188)

世間은... 구드니 업스니라 =世... 無牢强者하니라 (능엄 2:4)

울하니라 大王아 =如是하니라 大王아 (능엄 2:5)

물읏 想 이 존하니라 =凡想이 如之하니라 (능엄 2:116)

네... 翻譯호미 맛당하니라 (월석, 서:11)

二禪天 中에 光明이 뭇 저그니라 (월석 1:33)

蜀에서 邛이 갓가브니라 (월석 2:50)

이 眞實入 滅이니라 =乃是眞實滅이니라 (법화 3:198-9)

小人은 스기로 尺寸미 흥가지니라 =小人自同調 (두언 25:15)

辟支佛이 아니니라 (석보 13:61)

일후미 둘 아니니라 (육조, 상:44)

이럴씨 이 體는 本來 數 업슨들 아룻디니라 (석보 19:10)

▽ㄷ+이+니+라→디니라.

너희 다 供養할디니라 (법화 3:151)

이 經 디닐 싸르문... 또 供養혼디며 또 歡喜를 得게 혼디니라 (법화 6:113)

魍魎魍魎들히 혼갓 竊의논디니라 (두언 16:56)

하늘 우과 하늘 아래왜니라 (금강삼가 5:39)

고본 사람드려 道 니르디 몬호몬 ㄹ초매 못겨 이실씨니라 (법화 3:156)

「-으니아」: 늘구메 帷幄하얌직 하니아 =遲暮堪帷幄 (두언 6:31)

「-으니야」: 조스르뵈요미... 업스니야 (몽산 62)

「-이니여」: 如來 | 阿耨... 菩提를 得하니여 (금강 40)

「-이니오」: 萬里엿 戎王子 | 어느 히에 月支를 여히여 오니오 =萬里戎王子 何年別月支 (두언 15:8)

「-니여」는 「-녀」로, 「-니오」는 「-뇨」로 축약된다. (pp. 506, 511 참조)

「-으녀」: 道 | 머녀 (영가, 하:117)

아디 몬하리로다 天下엿 사르미 至極하 性이 이러하니 잇느녀 업스녀 =未知天下士 至性有此不 (두언 22:2)

「-으뇨」: 寂寂호미 일후미 긋거늘 엇데 法身이라 일흠 지하뇨 (월석, 서:5)

菩提는... 尺寸으로 得디 몬하거늘 엇데 尺寸으로 道를 사므뇨 (월석 9:23)

3. 「-으니-」 다음에 연결되는 맺음씨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술의 「-라(←다)」와 물음의 「-아, -야, -여; -오」 뿐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니덴」 앞의 「-니-」는 달리 해석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하다가 잇느닌덴... 엇데 論量하며 하다가 업스닌덴... 엇데 祖師 | 업스리오 (몽산 62)

이 어형은 「잇+느+으니+은덴, 없+으니+은덴」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잇+느+이+(이)니덴, 없+은+이+(이)니덴」과 같이 분석하여, 「이」를 매인이름씨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있는 것이면, 없는 것이면)



4. 「-으니-」 앞에는 다시 안맺음씨끝이 앞설 수 있다. 그 중 때매김에 관계 없는 것으로는, 「-으시-」, 「-습-」, 「-거(나),가-」, 「-아/어-」 및 「-아/어+으시-」, 「-습+으시-」, 「-거+으시-」, 「-습+아/어-」, 「-도소-」가 있고, 때매김에 관계 있는 것으로는 「-더-」, 「-느-」, 「-으리-」가 있는데, 때매김에 관계 있는 것과 겹쳐진 끝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때매김과 관계 없는 안맺음씨끝과 겹쳐진 예를 들어 둔다.

「-으시니-」: 王이 깃그샤 無憂樹 미티 가시니라 (월석 2:29)  
 悉達太子 | ... 一切種智에 니르리 다 마즈시니라 (월석 21:196)  
 佛은 부테시니라 (석보, 서:1)  
 이곧 삭름 아니시니라 (법화 4:115)  
 부테 涅槃하시니여 (석보 23:20)  
 므스글 因하야... 머유미 드외느니라 니르샤매 니르르시노 (금강삼가 3:49)

四祖 | 便宜히 묻 겨샤 현고들 을마시노 (용 110장)  
 「-스븐시니-」: 一分으란 多寶佛塔의 말즈오시니라 (법화 7:84)  
 「-거시니-」: 다섯 마리 네 일즉 저근 길흘 아느니 몇디위를 글월 보 내야 潛隱한 노물 기들오거시니오 = 五馬舊曾語小徑 幾回書札待潛夫 (두언 21:3)  
 世尊이... 므슴 饒益으로 이런 光明을 펴거시노 (석보 13:25)

「-스븐니-」: 그 사스미... 한 겨지블 나쓰븐니라 (석보 11:25)  
 帝釋梵王이 天衣로 뿌리스븐니라 (월석 2:39)  
 百萬億衆이 다 아라 들즈븐니라 (석보 23:12)  
 道師 | 엇던 전츠로... 네 업던 이틀 얻즈븐노 (석보 13:16)

「-거니-」: 故國에 물곤 渭水 | 흐르느니 이제 고지 正히 하거니라 = 故國流渭水 如今花正多 (두언 15:31)

넛 위안해 고지 절로 펴고 봄나래 새 도로 늘어니라 = 故園花自發 春日鳥還飛 (두언 8:34)

秦 紗해는 당당이 새 두리어니라 = 秦地應新月 (두언 6:11)

能히 韋郎으로 히여 자취를 또 疎히 하거녀 = 能使韋郎迹也疎 (두언 21:25)

「-나니-」: 閻浮에 불와 돈노미 몇千을 도라오나노 = 閻浮踰躑幾千廻 (금강삼가 2:7)

「-가니-」: 여희유메 몇버늘 슬카니오 = 爲別幾懷然 (두언 23:53)

ㄱ「-가니-, -나니-」 다음에는 씨끝 「-라」는 연결되지 않는듯 하다.

「-어니-」: 몇디위를 흘러 돈노디 북 불음 곤하야니오 = 幾廻流浪호터 若飄蓬하야니오 (남명, 하:63)

「-스바니-」: 현맛 衆生이 머리 쫓스바노 (월석 2:48, 기 28)

ㄱ「-아/어+으니-」에 「-라」 씨끝이 붙은 예는 보이지 않는다.

「-도소니-」: 趙州入 프든 果然 그러하도소니야 아니하도소니야 = 趙州意는 果如是아 不아 (몽산 56-7)

또 니르라 마츠매 엇더하도소노 = 且道하라 畢竟에 如何토소노 (몽산 52)

ㄱ「-도소+으니-」에 「-라」 씨끝이 붙은 예는 보이지 않는다.

5. 「-으니-」 뒤에는 안맺음씨끝 「-으히-」가 연결될 수 있다.

「-으니히-」: 六百年 天下 | 洛陽에 을막니히다 (용 14장)

하늬 고지 드르니히다 (월석 2:17, 기 14)

天下에 앓가본 거지 몸 곤하니 업스니히다 (월석 21:216)

眞實로 우리 종이니히다 (월석 8:94)

瞿曇沙門이 正히 그 사르미니히다 (월석 21:194)

이 이리 實하니잇가 (월석 21:24)

善心이<sub>니</sub>잇가 (법화 7:20)

如來 어디 겨시니잇고 (월석 21:192)

世尊하 엇던 因緣으로 이 寶塔이 짜해서 소사나니잇고 (월석 21:211)



이 사르문… 諸如來 | 소노로 머리 문지샤미 득원들 받득기 아를뎌  
니이다 (법화 7:175)

엇테어노… 時도 쯔 맞나미 어려울씨니이다 = 何 | 어노… 時亦難遇 닐썻  
니이다 (법화 7:137-8)

(藥은) 나다가며브터 眞心 아니호는 사르뎌 눈즈슴와 骨髓애니이다  
(월석 21:215)

6. 뒤에는 「-으이-」가 연결되고, 앞에도 다른 안맺음씨끝이 연결된  
경우:

「-으시니이-」: 沸星 도둑제 白象 득시고 헛 光明을 득시니이다 (월  
석 2:17, 기 14)

諸佛 니르시는 마론 乃終내 달음주리 업스시니이다 (석보 9:27)

오직 如來웃 우리 가슴을뎌시니이다 (법화 4:48)

世尊이 부터 得ᄃᆞ샤 오라디 못ᄃᆞ샤매 能히 이 功德 이를 지스시니  
잇가 (법화 5:117)

世事는 可忍이시니잇가 不 | 잇가 (법화 7:20)

내 어마넉 비예 이실찌긔 아바니미 어디 가시니잇고 (월석 8:97)

佛子 | 엇던 因緣으로 일후미 觀世音이시니잇고 = 佛子 | 何因緣으로  
名爲觀世音이시니잇고 (법화 7:85-6)

「-스블시니이-」: 大愛道 | … 손소 기르스블시니이다 (월석 10:19)

摩耶夫人이… 엇던 因緣으로 如來를 나쓰블시니잇고 (석보 11:24)

「-스블니이-」: 이제 바룩 ㅁ새 잇는…새 우루미 부터 목소리 저기 썻  
쥬ᄃᆞ스블니이다 (석보 24:20)

慶爵을 받즈블니이다 (용 63장)

7. 노래나 그와 비슷한 문체에 있어서는, 「-으니-」 뒤의 「-이다」,  
「-잇가, -잇고」가 생략되어서 「-으니-」가 맺음씨끝처럼 쓰이는 일이 있  
다. (pp.494,513 참조)

大千世界 ㅁ장 블ㅁ니 (월석 2:35, 기 21)

阿那律 말이 귀 아니 올ᄃᆞ니 (천강곡 상, 기 176)

跋提 말이 귀 아니 올ᄃᆞ니 (월석 7:1, 기 177)

兄님을 모를씨 발자칠 바다 남기 빼여 性命을 得ᄃᆞ시니 (월석 1:2,  
기 4)

平等王을 세스블니 瞿曇氏 그 姓이시니 (월석 1:40, 기 10)

薩婆悉達이 일홈이시니 (천강곡 상, 기 32)

하ᄃᆞ 風流 | 엇더ᄃᆞ시니 (천강곡 상, 기 51)

國王이… 묻즈와 닐오디 師는 蘊이 부요물 得ᄃᆞ야 겨시니 (남명, 상  
:53)

仁義之兵을 遼左 | 깃스블니 (용 41장)

값 ㅁᄃᆞ 百姓이 큰 功을 일우스블니 (용 57장)

外道人 五百이 … 銀돈을 받즈블니 (월석 1:3, 기 6)

七寶 바리에 供養을 담ᄃᆞ샤미 四天王의 請이스블니 (천강곡 상, 기  
87)

八姪女를 보내스블시니 (월석 8:78, 기 222)

俱夷 善慧入 뜰 아스바 … 고줄 받즈블시니 (월석 1:3, 기 6)

흔날 터럭썻을 供養功德에 涅槃을 得ᄃᆞ야니 (천강곡 상, 기 92)

(나) 「-과/와-」

8.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p.796 참조), 「-으니-」에 대한 일인  
칭 안맺음씨끝은 「-과/와-」인데, /ㄱ/은 /ㄹ/과 ㅁ이의 /ㅣ/와 잡음씨  
다음에서 줄어진다. 그리고 이 형태소는 거의 서술법 「-라(←다)」 활용  
형에만 쓰임이 특색이다.

「-과라」: 나사가거나 물러오거나 호물 길 녀든노매 브리과라 = 進退  
委行色(두언 6:53)

아츠뎌 偶然히 나 卯時로브터 장츠 酉時에 밋과라 = 朝來偶然出自卯  
將及酉(두언 15:43)

아래 잇디 아니흔 거슬 得과라 (능엄 4:75)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正<sup>한</sup> 사<sup>르</sup>미<sup>는</sup> 뜨<sup>든</sup> 긴<sup>길</sup> 긴<sup>길</sup> 흘<sup>을</sup> 놀<sup>을</sup>요<sup>물</sup> 苟<sup>且</sup>히 아<sup>니</sup>호<sup>물</sup> 알<sup>와</sup>라 =乃知正  
人<sup>意</sup> 不<sup>苟</sup>飛<sup>長</sup>纓<sup>(두언 25:34)</sup>

내... 難<sup>陀</sup>를... 生<sup>死</sup>受<sup>苦</sup>애 새<sup>히</sup>내<sup>와</sup>라 (월석 7:19)

朕<sup>이</sup> 知<sup>之</sup>矣<sup>와</sup>라 (내훈, 2하:25)

9. 「-과-」에는 「-습-」이 앞설 수 있고, 「-소-」, 「-으이-」가 뒤따를 수 있다.

「-습과라」: 智<sup>德</sup>의 健<sup>히</sup> 化<sup>한</sup>산<sup>이</sup>를 <sup>하</sup>마 보<sup>습</sup>과<sup>라</sup> (법화 4:169)

「-과소라」: 서<sup>르</sup> 도<sup>라</sup>본<sup>던</sup> 아<sup>들</sup> 업<sup>소</sup>물<sup>免</sup>과<sup>소</sup>라 (두언 21:31)

「-과이다」: 摩<sup>耶</sup> 1 부<sup>터</sup>고 술<sup>복</sup>사<sup>디</sup> 죽<sup>사</sup>릿 어<sup>리</sup>에 解<sup>脫</sup>을 <sup>하</sup>마 證<sup>과</sup>  
이<sup>다</sup> (월석 21:8)

佛<sup>子</sup>이 得<sup>한</sup>얌<sup>직</sup> <sup>하</sup>거<sup>슬</sup> 다 <sup>하</sup>마 得<sup>과</sup>이<sup>다</sup> (월석 13:37)

내 이제 스<sup>랑</sup>호<sup>니</sup> <sup>하</sup>고<sup>대</sup> 잇<sup>논</sup>들 알<sup>와</sup>이<sup>다</sup> = 我<sup>今</sup>思<sup>惟</sup>호<sup>니</sup> 知<sup>在</sup>一<sup>處</sup>  
하<sup>과</sup>이<sup>다</sup> (능엄 1:56)

오<sup>냐</sup>나<sup>래</sup>사 ...내<sup>중</sup>내 能<sup>히</sup> 비<sup>브</sup>르<sup>디</sup> 못<sup>듯</sup> <sup>하</sup>들 알<sup>와</sup>이<sup>다</sup> = 今<sup>日</sup>에<sup>사</sup>  
乃<sup>知</sup>終<sup>不</sup>能<sup>飽</sup>듯 <sup>하</sup>들 깨<sup>이</sup>다 (능엄 1:93)

▽「-깨이-」는 「-과이-」의 「이」 역행동화 형이다

「-습과이다」: 오<sup>날</sup>사 맞<sup>나</sup>습<sup>과</sup>이<sup>다</sup> = 今<sup>日</sup>에<sup>사</sup> 乃<sup>值</sup>遇<sup>한</sup>습<sup>과</sup>이<sup>다</sup> (법화 3:119-20)

내 네 아<sup>리</sup> 供<sup>養</sup>하<sup>습</sup>고 오<sup>날</sup> 또 도<sup>로</sup> 親<sup>히</sup> 보<sup>습</sup>과<sup>이</sup>다 = 我<sup>適</sup>曾<sup>供</sup>  
養<sup>하</sup>습<sup>고</sup> 今<sup>復</sup>還<sup>親</sup>觀<sup>한</sup>습<sup>과</sup>이<sup>다</sup> (법화 6:149-50)

10. 「-과-」는 맺음씨끝 「-다/라」와 결합될 수 있음이 특색이나, 「-은<sup>더</sup>」와 결합된 예가 하나 보인다.

「-관<sup>더</sup>」: 오<sup>냐</sup>날 地<sup>獄</sup>門<sup>알</sup>피<sup>서</sup> 아<sup>기</sup>와 서<sup>르</sup> 보<sup>관</sup>더 (월석 23:87)

## (2-2) 맺음씨끝 「-은(-)」으로

### (가) 매김법에서

11. 맺음씨끝 「-은」은 풀이씨를 매김말로 만드는 기능을 가졌을뿐 아

니라, 이와 아울러 확정법의 매매김을 나타낸다. (예는 p.645 이하에 많이  
파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몇가지만 보인다.)

주<sup>근</sup> 後<sup>에</sup> (능엄 2:2)

獄<sup>은</sup> 罪<sup>지</sup>손<sup>사</sup>를 가<sup>도</sup>는 싸<sup>히</sup>니 (월석 1:28)

새 出<sup>家</sup>하<sup>는</sup> 사<sup>르</sup>미<sup>니</sup> (석보 6:2)

須<sup>達</sup>이 땡<sup>ㄹ</sup>론<sup>座</sup> (석보 6:30)

難<sup>陀</sup> 1 出<sup>家</sup>하<sup>은</sup> 因<sup>緣</sup>으로 (월석 7:11-2)

곰 그<sup>를</sup> 술<sup>위</sup> (두언 23:20)

불<sup>근</sup> 헝<sup>더</sup>기 (석보 9:3)

굴<sup>근</sup> 地<sup>獄</sup> (월석 1:29)

微<sup>妙</sup>하<sup>는</sup> 뜨<sup>들</sup> (월석, 서:21)

두<sup>려</sup>이 노<sup>근</sup> 清<sup>淨</sup>하<sup>는</sup> 寶<sup>覺</sup> (능엄 6:37)

疑<sup>心</sup>드<sup>빈</sup> 고<sup>디</sup> 잇<sup>거</sup>든 (월석, 서:20)

혀<sup>근</sup> 힐 고<sup>지</sup>라 (석보 6:43)

어<sup>드</sup>본<sup>디</sup> (월석 18:51)

12. 움직씨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움직임이 이미 확정적이란 사실이  
분명하나, 그림씨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듯 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불근 헝덕」의 경우로 보면, 「헝덕이 붉다」란 사  
실이 이미 결정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표명하고 있  
다. 그림씨의 다른 예에서도 한가지며, 잡음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獨<sup>은</sup>... <sup>하</sup>웃 모<sup>민</sup> 사<sup>르</sup>미<sup>라</sup> (석보 6:13)

네 나<sup>히</sup> 며<sup>친</sup> 뻘 (능엄 2:8)

일<sup>로</sup> 아<sup>래</sup>는 三<sup>世</sup>옛 道<sup>理</sup> 하<sup>가</sup>지<sup>론</sup> 주<sup>를</sup> 니<sup>르</sup>시<sup>니</sup>라 (석보 13:50)

이 法<sup>도</sup> 다 <sup>하</sup> 佛<sup>乘</sup>이<sup>론</sup> 전<sup>초</sup>로 (석보 13:54)

### (나) 물음법에서

13. 물음법의 씨끝 「-다, -가, -고」에 앞서는 「-은-」도 역시 확정법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을 나타내는 점, 앞의 매김법의 경우와 한가지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오직 매매김만 나타낼뿐, 풀이씨를 매김말로 만드는 기능은 가지지 않는다.

「-은다」: (→p. 497 이하)

大王아 네 나히 며친뻘 恒河入 므를 본다 = 汝年이 幾時에 見恒河하다 (능엄 2: 8)

늘 爲하야 가져간다 (월석 2: 13)

네 바리를 어디 가 어든다 (월석 7: 8)

그디 었던 사르민다 (능엄 7: 62)

너희 스스이 뉘며 뉘 弟子다 (법화 7: 134-5)

「-언다」: 묻노니 그디는 이에 記知하<sup>ㄴ</sup>안다 묻하<sup>ㄴ</sup>안다 = 問君於斯記取否 (금강삼가 4: 54)

도르혀 記 得하<sup>ㄴ</sup>안다 = 還記得在麼아 (금강삼가 4: 54)

惟正上座는 能히 아란다 몰란다 (몽산 21)

「-슨다」: 므슴 方便을브터 三摩地에 드슨다 = 從何方便하야 入三摩地하<sup>ㄴ</sup>슨다 (능엄 5: 31)

「-은가」: (→p. 501 이하)

衆生이 므득 난가 疑心하<sup>ㄴ</sup>니라 (월석 14: 17)

西京은 편안하가 몰하가 = 西京安穩未 (두언 18: 5)

내 몸도 좃즈바 값 싸하가 몰 값 싸하가 (월석 8: 93)

化하<sup>ㄴ</sup>샤미 아닌가 疑心하<sup>ㄴ</sup>실씨 (법화 5: 100)

「-으신가」: 들흔 他方佛이 오신가 疑心이오 (원각, 상 1-2: 23)

갓가온 자취 존하신가 疑心하<sup>ㄴ</sup>의시며 = 疑若近迹 (법화 5: 135)

아바넝 勅書 신가 너겨 (석보 24: 51)

상네 겨샤미 아니신가 疑心하<sup>ㄴ</sup>거신마른 = 疑非常在어신마른 (법화 5: 135)

「-운가」: 부터 니르시는 解脫을 우리도 得하야 涅槃애 다드론가 하

다소니 (석보 13: 43)

제 몸 어디론가 밋디 말오 (내훈 1: 48)

「-은고」: (→p. 500 이하)

엇던 因緣으로 이런 相이 現하고 (법화 3: 112)

故園은 이제 엇더하고 (두언 25: 24)

어드메 이 서울하고 (두언 15: 50)

뉘 圓通 아닌고 마초아 뵈디니 = 當驗... 誰不圓通인고 홀디니 (능엄 4: 100)

「-으신고」: 부터 滅度하<sup>ㄴ</sup>샤미 었테 색르신고 (법화 1: 122)

일후믄 므스기신고 (월석 23: 82)

### (3) 추정법(미정법)

1. 창창 일어날 일, 방금 일어날 일을 기술하거나, 또는 추측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 바꾸어 말하면, 이미 확정되었거나, 방금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닌 사실을 기술하는 — 문법적 방법인데, 안맺음씨끝 「-으리-」와 맺음씨끝 「-을」로 표현된다.

#### (3-1) 안맺음씨끝 「-으리-」로

2. 다른 안맺음씨끝과 결합되지 않은 경우.

아들썩를 求하<sup>ㄴ</sup>면 아들썩를 得하<sup>ㄴ</sup>리라 (석보 9: 23)

블곰과 어드움과를 아디 몰하리니 었테어노 = 不識明之與暗하<sup>ㄴ</sup>리니 何以故오 (능엄 2: 23)

英雄의 버혀브터슈미사 비록 말리나 文彩와 風流는 이제 오히려 잇도다 = 英雄割據雖已矣 文彩風流今尙存 (두언 16: 25)

블ㄴ면 보미 엮스리며 = 明하<sup>ㄴ</sup>면 則見이 亡하<sup>ㄴ</sup>리며 (능엄 3: 94)

精微호믄 溟滓을 들우리오 늘뵈는 브든 霹靂도 것그리로다 = 精微穿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溟滓 飛動摧霹靂 (두언 16:2)

하다가 趙州禪을 口皮邊으로 슬퍼보리라 니르린댄 다른 나래 쇠막  
다히를 마즈리라 = 若言趙州禪을 口皮邊으로 照顧ᄌ댄 他日에 喫鐵棒하  
리라 (몽산 51)

말스물 安定히 하면 百姓을 便安케 하린더 (내훈 1:7)

沙彌는 ...慈悲入 형더글 하야사 하릴씨 沙彌라 하니라 (석보 6:2)

衆生이 드러든 더 나라해 나고져 發願하야사 하리니 엇메어노 하란  
더 이러흔 못 어딘 사름들과 혼디 이시릴씨니라 (월석 7:70)

구티여 蘇門엿 뒷꼭라물 하리아 = 敢爲蘇門嘯 (두언 25:5)

누 쏘을 골히야사 며늘이 득의야 오리야 (천강곡 상, 기 36)

舍利弗아 十方世界에 二乘도 업거니 하물며 세히 이시리여 (석보 13:56)

어디션 ...흔 부텃 일흠 念할쑤네 이런 功德 도흔 利를 어드리오 (석보 9:27)

도로 보디 몰흐느다 일흠하려 = 還名不見가 (능엄 2:72)

므스거스로 道를 사므료 (월석 9:22)

▽「-리여」→「-려」, 「-리오」→「-료」.

네 어미 ...無憂國土에 나 목수미 몬헝 劫이리라 (월석 21:59)

法身이 둘히 아니리라 = 法身이 不二矣리라 (능엄 2:14)

네 어미 열세히 마츠면 이 報 브리고 梵志 득의야 나 목수미 百歲  
리니 (월석 21:58)

이 집 어드운 안히 다 네의 焦腑 리며 = 此室暗中이 皆汝의 焦腑 리  
면 (능엄 1:59)

네 모미 아니릴씨 ... (능엄 1:61)

이 菩薩 드더니 너기던 四衆은 다른 사름미리여 (석보 19:35)

그헛 常不輕菩薩은 엇메 다른 사름미리오 내 모미 괴라 (월석 17:90)

엇메 오직 甲兵을 기우리헝쑤니료 = 豈惟偃甲兵 (두언 25:34)

3. 때매김에 관계 없는 안맺음씨끝으로서 「-으리-」에 앞설 수 있는 것  
은, 「-으시-」, 「-습-」, 「-아/어-」 및 「-오/우-」, 「-으시+오/우-」 「-습  
+오/우-」이다.

「-으시리-」: 如來 아니 오라 涅槃에 드시리라 (월석 21:200)

나라홀 맞드시릴씨 東海入 마시 저재 곤흐니 (용 6장)

솔히 여위신들 金色잇돈 가시시리여 (천강곡 상, 기 62)

「-스블리-」: 佛은 ...일구를 像으로 아디 몰흐스블리니 (월석 9:13)

虛空에 올라사 어루 親近흐스오릴씨니라 (법화 4:134)

「-어리-」: 녀름지슬 드래 모로매 功課를 아롤디니 녀름짓는 지비셔

구티여 브즈런호물 니저리아 = 農月須知課 田家敢忘勤 (두언 20:30)

어루 크게 맞나다 아니 닐어리여 = 可不謂之大遇乎아 (금강삼가3:5)

4. 「-오/우-」가 앞서게 되면, 단순한 추정법이 아니라, 대개는 말할  
이의 의도를 아울러 표시하게 된다. (p.764 이하)

「-우리-」: 내 너 爲하야 닐오리라 (월석 21:139)

내 출히 說法 말오 涅槃에 셤리 드로리라 = 我寧不說法호고 疾入於涅  
槃호리라 (법화 1:235)

내... 반득기 涅槃에 드로리니 = 我... 當入於涅槃호리니 (법화 1:121)

「-샤리-」: 장츠 精持를 나토샤리라 (월석 17:78)

「-스보리-」: 舍衛國에 도라가 精舍 이르스보리니 (석보 6:22)

둘히 어우리 精舍 땡마라 부텃기 받즈보리라 (석보 6:26)

5. 「-으리-」에는 또 (때매김에 관계 없는 안맺음씨끝으로서는) 「-으  
히-」, 「-로-」, 「-로소-」, 「-로소히-」, 「-샷-」, 「-샤스히-」, 「-랏-」,  
「-라스히-」가 뒤따를 수 있다.

「-으리히-」: 涅槃을 닷가사 苦樂을 기리 여희리이다 (월석 21:7)

往生快樂이 달음 이시리히가 (월석 9:5, 기 260)

「-우리히-」: 내 正覺 일우디 아니호리이다 (월석 8:60)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 「-스보리이-」: 즈라면 어루 法을 비호스보리이다 (석보 6: 11)
- 「-으시리이-」: 이 사르미 無量諸佛을 맛나스바 머리 님네 授記하시리이다 (월석 21: 133)
- 「-어리이-」: 그날 莊嚴을 다 솔바리잇가 (천강곡 상, 기 127)
- 「-으리로-」: 가즐비디 몰하리로다 = 不可比也 | 로다 (능엄 2: 5)
- 「-으시리로-」: 니르샤물 能히 다오디 몰하시리로다 (능엄 7: 45)
- 「-어리로-」: 眞實로 그스기 化하시다 닐어리로다 (월석 13: 44)
- 「-으리로소-」: ㅁ술 어디도 得디 몰하리로소니 = 求畔하야도 不得이로소니 (능엄 2: 102)
- 「-으리로소이-」: 나는 ...바리 알폴씨 길흘 몬 녀리로소이다 (월석 8: 94)
- 「-으시리로소이-」: 父王이 오늘 ...菩提心을 어루 發하시리로소이다 = 父王이... 發... 菩提心이샤스이다 (법화 7: 135-6)
- 「-으리샷-」: 기피 아루샤 아리브터 마즈시다 어루 솔오리샷다 = 可謂深知宿契矣샷다 (법화 4: 70)
- 「-으시리샤스이-」: 如來도 後에 받디기 煩惱하시리샤스이다 = 如來도 應後煩惱 | 샤스이다 (원각, 상 1-1: 10)
- 「-으리랏-」: 岩頭옷 아니런든 德山入 喝을 몬 알리랏다 (몽산 32)
- 「-으시리랏-」: 하다가 내 큰 法 즐기던댄 오로 맛디샤미 오라시리랏다 = 若我 | 樂大하던댄 則全付 | 久矣시리랏다 (법화 2: 231-2)
- 「-으시리라스이-」: 부테 날 爲하야 大乘法을 니르시리라스이다 (법화 2: 231)
6. 「-오/우-」는 「-으리-」에 앞서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올 수 밖에 없게 된다.  
世間에 드르며 디니리 헤디 몰하리로디 (월석 17: 34)
7. 「-어-(←거)」가 「-으리-」에 뒤따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으시-」

가 겹쳐질 때는 「-으시-」는 「-리어-」에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한다. (「-으시-」는 높임이 아닌 경우도 있다.)

- 「-으리어-」: 三輪이 부여 괴외하면 三界에 나리어니 罪福이 엇테 내게 브트리오 (남명, 상: 63)
- 고블니 몬 보아 솔웃 우니다니 님하 오놉나래 녀시라 마로리어다 (월석 8: 102)
- 멀터운 障은 수이 브리리어니와 微細흔 惑은 불교미 어려우니 (능엄 1: 107)
- 「-으시리어-」: 모든 山林에 겨시나 님스미 魏闕에 돌이시리어니 能히 畚間이나 安樂하시려 = 身處山林하시나 心懸魏闕이어니 能暫安樂乎아 (법화 5: 11)
- 그 부테 ...菩提를 하마 得하시리어늘 諸佛法이 現하야 알피 잇다 아니터니 (법화 3: 91)

「-으리어시-」: 보물 여희오 各別히 잇는 거시면 받디기 누네 비대아니하리어시니 (능엄 2: 82)

「-리어시-」의 예는 이 하나 밖에 구하지 못했음.

8. 「-아/어-」는 「-으리-」에 앞서는 것이나, 때로는 자리를 바꾸어 「-려-」가 되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에 「-으시-」가 겹쳐지면 「-으시-」는 「-려-」에 앞선다.

- 「-어리-」: 시러곰 구디 마라리아 = 得固辭 (두언 22: 23)
- 「-려-」: 円持흔 功이 일면 根마다 各各 꾸물 오을울씨 一千二百功德이 이시려니와 ... (석보 19: 10)
- 하마 비 오려다 흙저기 (월석 10: 85)
- 「-으시려-」: 城 밧기 브리 비취여 十八子 | 救하시려니 가라 흘들 가시리잇가 (용 69장)
- 부테... 土를브터 사르시려니와 (원각, 상 2-2: 160)



「-으시-」가 「-려-」에 뒤따르는것 같이 보이는 예도 있으나, 이러한 어형에 나타나는 「시」는 높임이 아니다. (p.687-8 참조)

내 모르려시니 (월석 21:210)

9. 노래에 있어서는 「-으리-」 다음의 「-이다」, 「-잇가」, 「-잇고」가 생략되어서 「-으리」가 맺음씨끝처럼 쓰이는 일이 있다. (→pp.493,514)

英主入 알피 내내 붓그리리 (용 16장)

어마님 爲<sub>ᄃᆞ</sub>ᄃᄃᄃᄃᄃ 이 돈을 布施<sub>ᄃᆞ</sub>ᄃᄃᄃᄃᄃ (월석 23:65, 기 504)

聖子 | 나샤 正覺 일우시리 (월석 2:17-8, 기 15)

발을 바사 매 아니 알꼭시리 (천강곡 상, 기 119)

모딘들 아니 깃스블리 (월석 7:23, 기 191)

하느 ᄃᄃᄃᄃᄃ 님 코티스블리 (용 85장)

어마났기 드러가 이 돈을 供養<sub>ᄃᆞ</sub>ᄃᄃᄃᄃᄃ (월석 23:65, 기 504)

현 날인들 迷惑 어느 플리 (천강곡 상, 기 74)

世界入 祥瑞를 어느 다 솔블리 (천강곡 상, 기 172)

### (3-2) 맺음씨끝 「-을(-)」로

#### (가) 매김법에서

10. 매김씨 맺음씨끝 「-을」은 풀이씨를 매김말 만드는 기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와 아울러 추정법의 때매김을 나타낸다. (예는 p.639 이하에 많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몇가지만 더 보인다.)

이 經 流行ᄃᆞ 싸해 (월석 9:40)

地獄애 드러 날 그지 업스니 (석보 9:36)

經典을 헐리 이시며 (법화 2:163)

▽헐+을+이 →헐리.

實法을 드르리 이시면 (법화 2:149)

苦難애 救<sub>ᄃᆞ</sub>ᄃᄃᄃᄃᄃ 싸ᄃᆞ 사름 업스며 (월석 21:25-6)

業 重<sub>ᄃᆞ</sub>ᄃᄃᄃᄃᄃ 恭敬<sub>ᄃᆞ</sub>ᄃᄃᄃᄃᄃ 을월 ᄃᄃᄃᄃᄃ 아니 내<sub>ᄃᆞ</sub>ᄃᄃᄃᄃᄃ (월석 21:32)

홍정바지 舍衛國으로 가리 잇더니 (석보 6:15)

어루 헤디 몬ᄃᆞ 衆 (법화 4:26)

여희을것 업수물 得<sub>ᄃᆞ</sub>ᄃᄃᄃᄃᄃ =得無所離 (능엄 6:5)

이제 흘 이른 (법화 2:149)

머굴거슬 그 주머니에 녀허 메오 (남명, 하:13)

갈 길ᄃᆞ 알의시리 (월석 7:61, 기 211)

念僧ᄃᆞ ᄃᄃᄃᄃᄃ 내<sub>ᄃᆞ</sub>ᄃᄃᄃᄃᄃ (월석 7:68)

念佛ᄃᆞ 거르를 몬<sub>ᄃᆞ</sub>ᄃᄃᄃᄃᄃ ᄃᄃᄃᄃᄃ (월석 8:75)

財物을 ... 맛들며 (법화 2:189)

主人이 ... 사글디를 占卜<sub>ᄃᆞ</sub>ᄃᄃᄃᄃᄃ (두언 7:2)

衆生이 歸依ᄃᆞ 싸히 ᄃᄃᄃᄃᄃ 잇<sub>ᄃᆞ</sub>ᄃᄃᄃᄃᄃ (석보 23:

이에 일 흘 싸히 잇<sub>ᄃᆞ</sub>ᄃᄃᄃᄃᄃ (법화 2:206)

내 本來 求ᄃᆞ ᄃᄃᄃᄃᄃ 업다니 (법화 2:226)

無明 허를 히미 이시리라 (몽산 5)

法에 드를 큰 ᄃᄃᄃᄃᄃ 나토니라 (능엄 1:28)

道 證ᄃᆞ 法은 다 몬 니르려니와 (월석 14:66)

父母의게 惡毒<sub>ᄃᆞ</sub>ᄃᄃᄃᄃᄃ 맛나든 매 마줄 이를 내야 現生애 受<sub>ᄃᆞ</sub>ᄃᄃᄃᄃᄃ 報를 니  
르코 (월석 21:66)

聖을 通達<sub>ᄃᆞ</sub>ᄃᄃᄃᄃᄃ 물를 이리 업슬씨라 (월석 1:19)

▽「물」은 지금은 물론이요, 앞으로 어떠한 일도 모를 것이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世間 다스를 말, 資生ᄃᆞ 業(월석 17:73)

百千龍이 ᄃᄃᄃᄃᄃ 안줄거시 ᄃᄃᄃᄃᄃ (월석 7:20)

ᄃᄃ을 바를 아디 몬<sub>ᄃᆞ</sub>ᄃᄃᄃᄃᄃ (월석, 서:10)

11. 그 밖에 매인이름씨 「대, 돛, ᄃ」 따위를 한정하는 「-을」 매김씨도 모두 추정법을 나타낸다.

####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법주



히의 能히 漸漸 道에 들리니 (월석 13:51-2)  
 소늘 띄면 어루 더울듯 權勢 | 무레 그르니 = 炙手可熱勢絶倫 (두  
 언 11:18)  
 쓰이라 —이라 닐을며 아니니라 (영가, 하:56)  
 모로매 ... 佛菩薩入 일후를 念홀디니 (월석 21:126)  
 너희들히 모른 일후미 性顛倒 1 들 아를디니라 (능엄 2:14)  
 이 존흔 사름에사 어루 爲하야 닐을며 (법화 2:172)  
 後엿 사르미 그 자취를 보랴딘댄 이 2티 하야사 하리라 (월석 18:  
 45)  
 上智觀하린 菩提果를 得홀줄 알리로다 (영가, 하:63)

12. 이 활용형은 이상과 같이 추정법을 나타낼뿐 아니라, 때의 관념  
 과 상관 없는(중화된) 사실——즉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방금 눈앞에  
 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니고, 방금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도 아  
 닌 사실——을 나타내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이러한  
 것은 추정법에 들 수 없을뿐 아니라, 때때김법이라고도 할 수 없겠으나  
 「-을」을 설명함에는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沙彌 2의야 이심저기 (월석 14:55)  
 처섬 들적브터 (월석 21:46)  
 善慧라 홀 仙人 (월석 1:8)  
 高山이라 홀 뵈 (월석 1:27)  
 아스미며 버디며 아로리며 (석보 9:29)  
 「아로리」는 ‘장차 알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란 뜻이다.  
 길 2 사름 (석보 6:4-5)  
 王舍城으로서 舍衛國에 을 2싯 길헤 (석보 6:23)  
 차반 2땡 쏘리 (석보 6:16)

▽이것은 방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나, 말할이는 이러한 시  
 간적 관념을 개입시키지 않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수 밖에 없다.

가다가 도라올 軍士 (용 25장)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기술한 것이나, 역시 시간적 관념을 개입시  
 키지 않은 표현으로 보아진다.  
 相 불 사르미 (월석 2:23)  
 ▽시간적 관념은 없는 사실이다.  
 물벌에 (석보 9:24)  
 즐거본것 布施홀만 하야도 (석보 19:4)  
 三惡道 | 다민 法身 하야브릴뿐 아니라 (법화 2:121)  
 님금 섬기스보물 2장 홀씨 忠이라 (월석 2:63)  
 命終은 목숨 2출씨니 (석보 6:3)  
 塵에 이쇼디 塵을 여월썰 禪이오 (몽산 63)

#### (나) 물음법에서

13. 물음법의 씨끝 「-다, -가, -고」에 앞서는 「-을-」은 추정법을  
 나타낸다. 다만 이 경우에는 때때김만 나타낼뿐, 풀이씨를 매김말로 만  
 드는 기능은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매김법에서와 같은,  
 시간관념의 중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을다」: (→ p.499)  
 諸佛如來 微妙하 覺 2른 空애 어느제 다시 山河大地를 2다 (능엄  
 4:37)  
 엇네 能히 無上菩提를 得홀따 (법화 4:176)  
 네 내 마를 다 드들따 (석보 6:8)  
 너희 어느 (棺을) 드스볼따 (석보 23:23)  
 大德아 如來 니르시는 아홉 橫死를 매 몬 들즈바심다 (월석 9:56)

「-을가」: (→ p.504)  
 두 사르몬 시러곰 님금 겨티 2가 2홀가 (두언 25:10)  
 末學이 그르 2가 저흔 전츠로 (능엄 2:65)  
 거죽 어즈롭 2월가 저호니라 (능엄 10:24)



獄主 | 더 쉼본 싸해 옴기싫가 하야 맛쪼디 못하디이다 (월석 23 : 85)

天縱之才를 그려사 아스불까 (용 43장)

王이 닐오더 어더 보스할까 (석보 24 : 43)

「-옴고」 : (→ p. 501)

엇던 幸으로 아히들히 비브르 머글고 = 何幸飫兒童 (두언 15 : 56)

누 能히 護法<sup>호고</sup> (법화 4 : 139)

荊蠻애 가몬 어느 힐고 (두언 7 : 4)

어느 저기 곳부리틀 와 보실고 (두언 22 : 9)

#### (4) 회상법(경험법)

1. 앞의 세가지 때매김과는 달리, 과거의 어느 때에다 기준을 두고, 말할이가 그 때에 되어 나가던 일, 따라서 현실과는 이미 관련을 끊게 된 일, 또는 그 때에 직접 경험한 일을 기술하는 방법인데, 1-인칭 「-다/라-」, 2·3-인칭 「-더/러-」로 표시된다. (잡음씨와 안맺음씨끝 「-으리-」 밑에서는 「-라-, -러-」로 변동한다.)

##### (4-1) 2·3-인칭 「-더/러-」로

2. 다른 안맺음씨끝과 결합하지 않은 경우 :

「-더라」 : 브데 몸 마준 이리 다 願 마티 드외더라 (월석 10 : 30)

아러 잇디 아니턴 이를 得과라 하더라 = 得未曾有하더라 (능엄 2 : 10)

病호 사르미 잇거든 夫人이 머리를 돈지시면 病이 다 도터라 (월석 2 : 30)

「-더니」 : 내 지브 이셔 環刀 | 며 막다히를 두르코 이셔도 두립더니 (월석 7 : 5)

五百 도즈기 ... 도죽하더니 (월석 10 : 27)

그뻘 衆中에 열두 夜叉大將이 모든 座애 잇더니 ... 이 열두 夜叉大將이 各各 七千 夜叉를 眷屬 사맏더니 호뻘 소리 내야 술보디 (석보 9 : 39)

「-더든」 : 내 아랫 뉘에 이 經을 바다디너 닐그며 외오며 놈드려 니르디 아니 하더든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쉼리 得디 못하리러니라 (석보 19 : 34)

하다가 人天이 本來入 歎스물 아더든 엇메 어리미혹하야 귀를 기우려 드로물 쓰리오 = 若使人天이 知本心이러든 何用歎歎側耳聽이리오 (금강삼가 4 : 41)

「-던댄」 : 하다가 아비웃 겨시던댄 우릴 어엿비 너겨 能히 救護하시리러니 (법화 5 : 158)

내 네 ㅁ디ㅁ디 힐기 쓰즐제 ... 壽者相 잇던댄 반드기 瞋心하야 ㅁ유물 내리러니라 = 我於往昔節節支解時에 若有 ... 壽者相하던댄 應生瞋恨하리러니라 (금강 79)

「-던덴」 : 軍容이 네와 다르샤 아습고 물러가니 나사오던덴 목숨 기트리잇가 (용 51장)

「-이러라」 : 六師의 무리 三億萬이러라 (석보 6 : 28)

그 도즈기 菩薩入 前世生入 怨讎 | 러라 (월석 1 : 6)

本來 브라오미 아니러라 = 非本所望이러라 (법화 2 : 77)

「-이러니」 : 그뻘 호 菩薩이 일후미 德藏이러니 日月燈明佛이 授記하샤 (석보 13 : 34)

한 難이 하나 아니러니 ... = 衆難이 非一이러니 (법화 2 : 131)

「-이러든」 : 若使二人이 如有我 | 러든 一在青山코 一在途하리라 (금강삼가 4 : 18)

「-이런든」 : 岩頭옷 아니런든 德山入 喝을 몬 알리랏다 (몽산 32)

「-이런댄」 : 若我等이 ... 成就 ... 菩提者 | 런댄 必以大乘으로 而得度脫이어늘 (법화 2 : 6)



3. 「-더-」에는 안맺음씨끝 「-습-」, 「-으시-」, 「-습+으시-」, 「-똥-」, 「-으시+똥-」이 앞설 수 있다. (때때김에 관한 안맺음씨끝과의 결합은 이에서 제외한다.)

「-습더-」: 須達이 塔 세오 ... 供養<sup>ㅎ</sup>습<sup>더</sup>라 (석보 6: 44)

姦女 | 하<sup>ㄴ</sup> 기<sup>ㅅ</sup>로 太子를 쁘려 안<sup>ㅅ</sup>바 夫人의 되셔 오니 스물 여  
들 大神이 네 모해 侍衛<sup>ㅎ</sup>습<sup>더</sup>라 (월석 2: 43)

하<sup>ㄴ</sup> 寶華聚로 ... 釋迦牟尼佛入 우리 빛<sup>습</sup>더니 그<sup>ㅅ</sup> 多寶佛이... (법  
화 4: 132)

「-으시더-」: 어마니미 太子入 우리 업<sup>더</sup>디여 슬<sup>ㅎ</sup>시<sup>더</sup>라 (석보 11:  
21-2)

如來 큰 光明 떠샤 ... ㄴ<sup>ㄹ</sup>오<sup>시</sup>더라 (월석 21: 203)

곧 이 ㅅ<sup>ㅅ</sup>해 塔을 세여 供養<sup>ㅎ</sup>시<sup>더</sup>니 내 이제 成佛<sup>ㅎ</sup>씨 (월석 21: 221)

須彌山王이 大海에 잇는듯 <sup>ㅎ</sup>시<sup>더</sup>니 그<sup>ㅅ</sup> ... (월석 21: 210)

「-스<sup>ㅅ</sup>시더-」: 一切諸佛와 ... 摩訶薩이 ... 世尊의 安否 묻<sup>즈</sup>ㅅ<sup>ㅅ</sup>시<sup>더</sup>니  
그<sup>ㅅ</sup> 如來 우연<sup>ㅎ</sup>샤 (월석 21: 9)

모든 菩薩이 ... 두 世尊을 즐겨 울워러 보<sup>ㅅ</sup>오<sup>시</sup>더니 (법화 5: 87)

「-똥더-」: 새 그<sup>ㅅ</sup>를 어제 브터 보<sup>내</sup>똥<sup>더</sup>라 = 新詩昨寄將 (두언 23: 29)

「-으시똥더-」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으시똥더이-」에 나타난다.

4. 「-더-」에는 「-으시-」, 「-으이-」가 뒤따를 수 있다. (「-으시-」는 「-더-」에 앞설 수도 있는데, 이 시기에 있어서는 「-더-」에 뒤따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순서이었다.)

「-더시-」: 길<sup>ㅎ</sup>하 사<sup>ㅅ</sup>를 濟渡<sup>ㅎ</sup>샤미 그<sup>ㅅ</sup>지 업<sup>더</sup>시<sup>다</sup> (석보 6: 38-9)

바<sup>ㅅ</sup>미도 세<sup>ㅅ</sup> 說法<sup>ㅎ</sup>더<sup>시</sup>다 (월석 2: 27)

大王이 어<sup>디</sup>르샤 ... 여<sup>원</sup> 小國에 위<sup>두</sup>ㅎ<sup>ㅅ</sup>엿<sup>더</sup>시<sup>다</sup> (석보 11: 17)

恒沙菩薩이 道場에 와 모<sup>드</sup>시니 文殊師利 上首 | ㄷ<sup>의</sup>엿<sup>더</sup>시<sup>다</sup> (능  
엄 1: 30)

값 길<sup>ㅎ</sup>히 업<sup>더</sup>시<sup>니</sup> 쉼 하나<sup>ㅅ</sup>비를 하<sup>ㄴ</sup>히 브리<sup>시</sup>니 (용 19장)

그제 世尊이 ... 그 寶階로 ㄴ<sup>ㄹ</sup>러 오<sup>더</sup>시<sup>니</sup> 梵王이 盖 자<sup>ㅅ</sup>바 (월석 21:  
202)

그저기 東土엔 周昭王이 셔<sup>엿</sup>더<sup>시</sup>니 四月入 八日에 ... (월석 2: 48)

ㅎ다가 부<sup>테</sup> 相을 묻<sup>더</sup>시<sup>든</sup> 또 能히 相으로 對答<sup>ㅎ</sup>스<sup>오</sup>리라 = 若  
使佛問相이러시<sup>든</sup> 亦能答以相<sup>ㅎ</sup>리라 (금강삼가 3: 12)

똥 後에 成佛<sup>ㅎ</sup>신 일후미 燃燈이러<sup>시</sup>다 (석보 13: 35)

이 ㅅ<sup>ㅅ</sup> 부<sup>텃</sup> 나<sup>히</sup> ㄴ<sup>ㅎ</sup>히러<sup>시</sup>니 (석보 13: 1)

「-습더시-」: 時에 文殊師利菩薩이... ㄴ<sup>ㅅ</sup>ㅅ<sup>ㅎ</sup>야셔 들<sup>ㅅ</sup>ㅅ<sup>더</sup>시<sup>니</sup> 善男子아

...=時에 文殊師利菩薩이... 默然而聽<sup>ㅎ</sup>습<sup>더</sup>시<sup>니</sup> 善男子아... (원각, 상 1-2:  
98)

「-더시이-」: 大王이 ㅅ<sup>ㅅ</sup>가<sup>ㅅ</sup> ㅅ<sup>ㅅ</sup>디 곧 업<sup>더</sup>시<sup>이</sup>다 (월석 8: 91)

바<sup>ㅅ</sup>로 드러가<sup>리</sup>니 그저기 佛法이 다 滅<sup>ㅎ</sup>리라 <sup>ㅎ</sup>더<sup>시</sup>이<sup>다</sup> (석보 23:  
36)

어마니미 상<sup>ㅅ</sup>넷 사<sup>ㅅ</sup>르미 아<sup>ㄴ</sup>러<sup>시</sup>이<sup>다</sup> (월석 23: 74)

「-더이-」: 우리<sup>들</sup>히 지<sup>ㅅ</sup>ㅅ 이<sup>ㅅ</sup>ㅅ 저<sup>기</sup> 受苦 | 하<sup>ㄴ</sup>더<sup>이</sup>다 (월석 10: 23)

즈<sup>ㅅ</sup>든 디<sup>위</sup> 블러도 맛<sup>ㅅ</sup>ㅅ ㅅ<sup>ㅅ</sup>르미 업<sup>더</sup>이<sup>다</sup> (월석 23: 83)

중<sup>님</sup>넌 다 가<sup>ㅅ</sup>고 가<sup>ㅅ</sup>를 ㅅ<sup>ㅅ</sup>다 설<sup>어</sup>ㅅ<sup>ㅅ</sup>더<sup>이</sup>다 (월석 23: 74)

내 나<sup>히</sup> 열<sup>ㅎ</sup> 저<sup>기</sup> 부<sup>테</sup> 오<sup>ㅅ</sup>야 우리 大闕에 드<sup>르</sup>시<sup>니</sup> 大闕 안<sup>히</sup> 고

ㅅ 金入 비<sup>치</sup>러<sup>이</sup>다 (석보 24: 19)

「-으시더이-」: 故로 有攀相<sup>ㅎ</sup>시<sup>더</sup>이<sup>다</sup> (능엄 1: 98)

「-으시똥더이-」: 어마니미... 날<sup>ㅅ</sup>다 五百僧齋<sup>ㅎ</sup>시<sup>똥</sup>더<sup>이</sup>다 (월석 23:  
74)

5.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르-」는, 다른데 쓰인 예가 없어서, 그  
본체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더-」의 한 변이형이 아닐까 생각  
된다.



天下 | 定할 느지르샷다 (용 100장)

實位 득실 느지르샷다 (용 100장)

#### (4-2) 1-인칭 「-다/라-」로

6. 맺음씨끝 「-다」, 「-으니」에 앞서 있는 「-더-」는 그 풀이씨의 입자 말이 말할이 자신이 아닐 경우에 쓰이고, 말할이 자신이 말의 주체로 등장될 경우에는 「-더-」 대신에 「-다-」를 쓰게 된다. (p.788 이하)

「-다라」: 내 지비 이십 저기 受苦 | 만타라 (월석 10:23)

내 지비 이셔 날마다 五百僧齋 하다라 (월석 23:74)

종을 돌아보내야 아들을 소겨 날아 僧齋를 하다라 하니 (월석 23:65, 기 505)

「-다니」: 고복니 못 보아 술웃 우니다니 님하 오냐나래 녀시라 마로 리어다 (월석 8:102)

(내) 두서 나를 호오사 몫<sub>3</sub>새 있다니 그 프리 漸漸 적거늘 (월석 10:24)

우리 나히 호마 늘거... 호 念도 즐기논 므스물 아니 내다니 우리 오 늘... 즐좁고 (월석 13:5-6)

天子入 므리 千里를 돈느니라 내 들다니 이젧 그리미 아니 이가 = 吾聞天子之馬走千里 今之畫圖無乃是 (두언 16:40)

내... 그저기 도호 璽路를 가젧다니 호 사르미 毳中 後에 파내야 (월석 10:25)

내... 舍衛國 사르미라니 父母 | 나를 北方 짜르물 일으키니 (월석 10:23)

7. 「-다-」에는 안맺음씨끝 「-습-」이 앞설 수 있다.

妻眷이 두외스바 하늘 존 섬기습다니 三年이 못 차 世間 브리시니 (천강곡 상, 기 140)

8. 「-다-」에는 안맺음씨끝 「-으이-」, 「-소-」가 뒤따를 수 있다.

「-다이-」: 네 如來... 安居호실제도 내 그 中에 잇다이다 (석보 24:44)

獄主 | 더 설본 짜해 읍기싫가 호야 맛죵디 몰하다이다 (월석 23:85)

우리 나히 호마 늘글썬... 즐거운 므스물 아니 내다이다 = 我等이 年已朽邁호씨... 不生... 好樂之心하다이다 (법화 2:181)

네 이 念을 뒀던다 아니 뒀던다 對答호스보디 實로 뒀다이다 (월석 9:35 하)

「-댕-」: 내 그런 브들 몰라호댕다 (석보 24:31-2)

「-다이다」는 동화작용으로(우물라우트) 「-대이다」가 되고, 이것은 다시 「-댕다」로 줄어진다.

「-습다이-」: 우리 平常애 如來入 微細히 여러 죄샤물 님습디 몰호스 앳다이다 = 我等이 平常애 未蒙如來入 微細開示하습다이다 (능엄 10:76)

「-다소-」: 秦入 뜰해 우루물 모다 議論하다소라 = 俱議哭秦庭 (두언 24:6)

뒀해 수플 아래 馬鞍을 뒀기다소라 = 野稅林下鞍 (두언 24:39)

如來 겨실찌기... 우리들히 甚히 어려버하다소니 이제 涅槃호시니 (석보 23:42)

「-습다소-」: 이 더를 다시 지셔 福 비스을 짜홀 삼고져 하습다소니... = 以爲祝釐之所 (상원사 권선문)

#### (5) 때매김 씨끝들의 겹침

1. 앞에 말한 때매김 씨끝들은 겹쳐지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5-1) 그 어느 한쪽의 씨끝이 그 본디의 뜻을 잃어 버리거나,

(5-2) 한 씨끝이 본디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5-3) 두 씨끝이 다 본디의 뜻을 그대로 지니거나 한다.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5-1) 「-은」과 다른 때매김 씨끝들과의 겹침

— 「-은」은 본디의 뜻을 잃어 버린다 —

2. 「-은」 씨끝은 매김과 물음의 두가지 용법을 가졌으나, 두가지가 다 확정적인 때매김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 씨끝이 현실법의 「-느-」와 추정법의 「-으리-」와 회상법의 「-더, 다-」에 연결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은」의 때매김의 뜻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매김, 물음의 기능만이 남게 된다. (「-으리-」에 연결될 경우에는 매김으로만 쓰인다.)

그리고 「-으니-」와 「-은」은 같은 확정적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씨끝은 겹쳐지는 일은 없다. (「-은」만으로 확정적 매김과 물음이 충분히 표시되기 때문.)

(가) 「-느+ㄴ(-)」

3. 「-느-」와 「-은」의 연결인 「-느」은 매김과 물음의 두가지로 쓰이는데, 어느 쪽이든 그 때매김의 뜻은 「-느-」만이 가지게 된다. (현실법) 그리고 이 두 씨끝에 다시 다른 안맺음씨끝이 끼여드는 일도 있다.

(가-1) 매김법에서

4. 다른 안맺음씨끝이 결합되지 않은 경우.

모던 일 니기는 衆生 (월석 21:103)

스랑하는 아기아드리 (석보 6:15)

더는 히 (월석 8:6)

더나가는 土地 (월석 21:164)

머리 갓는 사르물 (월석 7:8)

外道 사는 므술 (월석 9:36 상)

발 잇는 燈 (월석 1:8)

獄은 사름 가도는 싸히라 (석보 9:8)

信心은 믿는 므슴미라 (석보 9:11)

來世는 오는 니라 (석보 9:4)

▽엄격하게 따지면 來世는 미래에 속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방금 눈앞에 닥아오고 있는 사실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법이 쓰일 수도 있는 일이다.

므슴미 나는 전츠로 (능엄 1:63)

吏는 다스리는 거시오 民은 브리는 거시오 (월석 13:13)

幻身이 人間에 잇는들 모르고 (몽산 41)

양지 두리본 일 잇는드시 하야 (월석 13:22)

魂神이 아모 趣에 잇는디 모르며 (월석 21:173)

未來는 아니왔는 劫이오 現在는 現하야 잇는 劫이라 (석보 13:50)

主守하엿는 家臣 더브러 무로니 =主守間家臣(두언 7:37)

내 어미 아모더 넛는디 몰래이다 (월석 21:53)

안해 寶月을 머갓는듯 하야 =內含寶月뜻하야(능엄 10:71)

性에 마즌 목수물 사르미 다 뒛는들 브데 불기시니 =意明...稱性之壽를 人皆有之」들 하시니(법화 5:126)

5. 「-느」은 「-는」으로 변동하는 일이 있다.

호르는 심 (석보 13:23)

▽〈비교〉호르는 프리라 (월석 2:62)

우는 소리(석보 19:14)

사름 罪 주는 法 ㄴ습아는 王 (석보 9:30)

6. 다른 안맺음씨끝을 결합하는 경우.

「-느」: 얼는 藥이 프스것고 (월석 21:198)

이 ㄴ티 願하는 일와 求하는 이리 다 일리라 (월석 21:166)

돌니는 싸 (월석 10:70)

三寶 念하는 히므로 (월석 10:95)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閻浮提 布施<sub>호</sub>는 功德 (월석 21:138)

이 사르미 業障惑이 잇는 전초로 (월석 21:174)

行<sub>호</sub>는 道 = 所行道(법화 3:102)

네 니르는 覺과 明 = 汝稱覺明(능엄 4:10)

호는 이룰 (월석 13:58)

疎拙<sub>호</sub>는 모를 養<sub>호</sub>는디라 考槃과 다르니라 = 養拙異考槃(두언 6:46)

호 고대 잇는들 알와이다 (능엄 1:56)

摯를 자바 뼈 서르 보는든 恭敬<sub>호</sub>야 有別호를 불기개니라 = 執摯<sub>호</sub>야 以相見은 敬章別也 |니라(내훈 1:77)

길 널 사르미 지나가디 아니<sub>호</sub>야서 피릿소릴 든논듯 호더니라 = 行人不過聽竿籟(두언 6:41)

萬法을 모도 가<sub>호</sub>는 거시 일후미 第一義諦라 = 統萬法이 名第一義諦라 (능엄 4:3)

모미 형혀 브는들 알며 = 知身이 爲儼寄며(능엄 6:103)

本<sub>호</sub>로브트 밧곤 다 客塵이 드의엿논디... 머리 搖動호미 곤호니라 = 自本之外는 皆爲客塵이론디 如... 頭之搖動호니라(능엄 1:112-3)

「-으시<sub>는</sub>」: 請問<sub>호</sub>시는 마리 (월석 18:76)

接引衆生<sub>호</sub>시는 諸大菩薩들히 (월석 8:88, 기 248)

教法은 衆生 教化<sub>호</sub>시는 法이라 (월석 2:52)

아기씨 오시는들 아노이다 (월석 23:74)

十地는 부터 드의시는 層이 열호로<sub>호</sub>야 닐곱차 層이니 (월석 2:59)

이<sub>는</sub>... 菩薩行을 닷마시느니시니 (법화 3:45)

「닷마시느니」는 「닷마시<sub>는</sub>+이(매인이름씨)」이다.

「-으시<sub>는</sub>」: 나는 부터 스랑<sub>호</sub>시는 앞이라 (능엄 1:86)

상네 니르시는 마를 드러 니르샤 = 舉常所說(능엄 1:88)

호시는 이리 希有<sub>호</sub>샤 = 所爲希有(법화 4:6)

內宮은... 菩薩 사르시는 디라 (법화 7:177)

이 戒는 諸佛菩薩이 修行<sub>호</sub>시는 즈륵길히라 (석보 9:6)

舍利弗아 이리호미 諸佛이 호 큰 잇 因緣으로 世間에 나시논디라 (석보 13:49)

「-습<sub>는</sub>」: 부터 빅호습는 사르미 = 學佛者(법화 5:43)

唯然은 對答<sub>호</sub>습는 마리오 (금강 13)

全身舍利를... 供養<sub>호</sub>습는니와 (석보 23:4)

「호습는니」는 「호습<sub>는</sub>+이」이다

부텃 상네 조쥌는 衆 = 佛入 常隨衆(법화 1:24)

天人 위왕쥌는 尊 = 天人所奉尊(법화 1:120)

「-습<sub>는</sub>」: 諸佛을 보습는 전초로 (월석 8:28)

부텃 舍利로 七寶塔 세습는 양도 보리러니 (석보 13:14)

내이... 스랑<sub>호</sub>습는 브들 나토노니 (석보 23:29-30)

알피 물쥌는 브디 머겟거시늘 = 前에 舍問意어시늘(법화 4:70)

받쥌는 宮殿을 願호든 바드쇼셔 (월석 14:21)

上大人이라 닐오른 世에서 孔聖을 일쥌쥌는 마리니 (금강삼가 4:11)

「-스<sub>는</sub>시<sub>는</sub>」: 우흔 다 宿王의 옮겨 물즈<sub>는</sub>시<sub>는</sub> 마리라 (월석 18:80)

이제 처섬 나사 물즈오<sub>는</sub>시<sub>는</sub> 威儀라 (원각, 상 1-2:82)

「-스<sub>는</sub>시<sub>는</sub>」: 이 親近供養<sub>호</sub>스오<sub>는</sub>시<sub>는</sub> 브디라 (원각, 하 3-1:118)

請호야 물즈오<sub>는</sub>시<sub>는</sub> 마리 (법화 7:16)

## (가-2) 물음법에서

7. 다른 안맺음씨끝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pp. 499, 501, 503)

「-는가」: 비론 바블 엇데 좌시<sub>는</sub>가 (천강곡 상, 기 122)

도히 잇는가 阮元瑜여 = 好在阮元瑜(두언 23:22)

主守 | 疎闊호야 믅슴 뿌물 甚히 잘 물호는가 오히려 저허 = 尙恐主 守疎 用心未甚臧(두언 7:35)

「-논고」: 믅스 이틀 것고오려 호논고 (석보 6:27)



뉘 지스며 뉘 받노고 호리라 = 誰作이며 誰受호 호리라(능엄 4:91)

「-는다」: 엇메 게을어 法을 아니 듣는다 (석보 6:1)

엇메 너희等이... 아는 中엇 어료몰 잡는다 = 云何汝等이... 認悟中迷호는 단(능엄 2:15-6)

너희 이... 尼子를 보는다 못 보는다 = 汝等이 見是... 尼子아 不아(법화 4:8)

8. 다른 안맺음씨끝과 결합된 경우. (→p.503)

「-는가」: 世尊入 일 솔보리니 萬里外入 일이지나 눈에 보는가 너기스  
보쇼셔 (월석 1:1, 기 2)

<풀이 1> 인칭 물음법(→p.496 이하)의 세가지 활용형 중 「-는가」만 보이고, 「\*-논고」, 「\*-논다」 형은 찾아볼 수 없는데, 「\*-논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15세기 국어의 문법 규칙으로 해명되나, 「\*-논고」가 없는 데 대한 이유는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식의 물음법(-는가)은, 그 용례가 그리 많지 않아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1-인칭 임자말에 응하는 활용형으로 생각된다는 점, 이미 지적한 바인데(→p.784 이하), 「-은다」 활용형은 2-인칭 물음법에 쓰인다. (p.496 참조) 그러므로 「\*-논다」의 임자말은 1-인칭을 요구하게 되는 한편, 2-인칭을 요구하게도 되므로, 이러한 활용형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논고」는 1·3-인칭 물음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어형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으시는가」: 부테 道場에 안조샤 得호산 妙法을 닐오려 호시는가 授  
記를 호려 호시는가 (석보 13:25)

하나흔 부테 다시 니러 說法호시는가 疑心이오 (월각, 상 1-2:23)

「-으시논고」: 엇메 兵馬 니르바다 서르 싸흠호려 호시논고(석보 23:54)

부테 엇던 전츠로 이리 니르시논고 (법화 1:163)

<풀이 2> 「\*-으시는다」 형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다. 즉 「-은다」는 2-인칭 물음법에 쓰이므로 그 임자말로 들을이가 등장되는데, 여기 「-으시-」가 붙어 있으니, 이렇게 되면 임자말로 등장된 들을이를 높이게 된다. 한편 「-은다」형식의 말은 들을이를 높이지는 않는다. 즉 이 어형은 들을이를 높임에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풀이 3> 물음의 「\*-시논가」, 「\*-시논고」, 「\*-시논다」 형은 보이지 않는데, 아마 「-는가」가 말할이 자신에 관한 물음을 나타내는 활용형이기 때문에 「-으시-」는 이에 연결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어형들은 말할이 자신을 높이게 된다. →p.784-5).

<풀이 4> 「-습-」을 가진 활용형들에 있어서는 인칭 물음법이 겹쳐진 예(「\*-습논가」, 「\*-습논고」, 「\*-습논다」 따위)는 찾지 못했다.

9. 「-오/우-」 자리에 「-스-」가 들어간 「-느슨-」 형이 있는데, 이것은 2-인칭 물음법에만 쓰인듯 하다.

爲頭 도즈기 무로디 너희들히 프스글 보느슨다 (월석 10:28)

(나) 「-으리+ㄴ」

10. 「-으리-」와 「-은」의 연결인 「-으린」은 매김의 경우에만 쓰이는데, 그 때매김의 뜻은 「-으리-」만이 가지게 된다. (이 예는 극히 드물다.)

有情과 無情과 體와 性과 섯거 곽히디 못호린 전츠로 = 有情과 無情과 體性이 錯雜호야 不可分辨故로 (능엄 2:38)

本心을 아디 못호야 只춤내 成佛 못호린 전츠로 = 不了本心호야 終不成佛故로(금강 43)

아직 ㄹ르초디 ㄹ르치디 못호린 後에사 怒호고 怒를 못호린 後에사  
틀디니 = 姑教호디 若不可教然後에사 怒호오 若不可怒然後에사 答호니  
(내훈 3:5)

11. 「-으린덴」, 「-으린더」도 원래는 「-으린」과 「-덴」, 「-더」로 분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시기의 언어로서는 「-은덴」, 「-은더」를 한 씨끝으로 보는 수 밖에 없다. (p.542, p.492 참조).

(다) 「-더+ㄴ(-)」

12. 「-더-」와 「-은」의 연결인 「-던」은, 「-논」의 경우와 같이, 매김과 물음의 두가지로 쓰이는데, 그 때매김의 뜻은 「-더-」만이 가지게 된다. (회상법)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다-1) 매김법에서

13. 다른 안맺음씨끝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하늘 祭던 짜 (석보 6:19)

네 업던 이를 얻즈바 (석보 13:13)

아헛빠 恒河 보던 見 (능엄 2:10)

있더 아니던 이를 (능엄 2:10)

좁던 東山이 어위며 (월석 2:28)

네 사던 될 일허 (능엄 9:71)

내 하던 이리 (석보 24:18)

醉<sup>후</sup> 後에 브르던 놀애를 누 愛憐<sup>후</sup>려노 = 誰憐醉後歌(두언 15:11)

東岳陽에 노트<sup>후</sup>던 이를 스랑<sup>후</sup>노라 = 憶戲東岳陽(두언 25:5)

光明이 브스와 미에 비취여 네 업던들 보고 (월석 14:22)

부터 니르시논 希有法은 네 듣줍디 몰던<sup>니</sup>로소니 (법화 5:181)

그헛 羅漢이 光目일 福度<sup>후</sup>던<sup>니</sup> 無盡意菩薩이 귀오 (월석 21:59)

그 썩리 제 어미 사라셔 因果 通디 아니던들 알씨 (월석 21:20)

아래브터 제 미엿던들 처섬 信호라 = 始信從前自拘縛호라(남명, 상:12)

14. 「-던」형에는 안맺음씨끝 「-으시-」와 「-습-」이 연결될 수 있는데, 「-으시-」는 「-더-」에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한다.

「-시던」: 威音王佛 아래 니르시던 法華經 (석보 19:31)

저근 教 니르시던 時節 (법화 2:180)

如來 아래 니르시던 五種雨障 (월석 10:85)

오로 맞디고져 하시던들 처섬 아스보니 (월석 13:36)

「-더신」: 沙彌 ㄷ외야 겨샤 教化<sup>후</sup>던<sup>신</sup> 이를 니르샤몬 (월석 14:55)

如來入 몬져 詰難<sup>후</sup>야 니르더신 物 = 如來入 先所難言<sup>후</sup>던<sup>신</sup> 物 (능엄 2:46)

善慧 니버잇더신 鹿皮 오솔 바사 (월석 1:16)

다시 아랫 부터 하더신 方便力을 念<sup>후</sup>야 (석보 13:58)

「-습던」: 大慈悲 世尊入의 버릇 업습던 일을 魔王이 뉘으츠니이다(참 강곡 상, 기 75)

弟子의 미조차 그리스와 景仰<sup>후</sup>습던 이를 니르시니라 (법화 1:124)

네 몰 보습던 그지업스신 智慧者 = 昔所未曾見 無量智慧者 (법화 3:119-20)

塔廟 中에 드러 하번 南無佛<sup>후</sup>야 일롰줍더니도 다 하마 佛道를 알 우며 (석보 13:53)

「일롰줍더니」는 「일롰줍던+이」이다.

오늘 世尊入 알피 몰 듣줍더니 듣줍고 = 今於世尊前에 聞所未聞<sup>후</sup> 습고 (법화 2:50)

「듣줍더니」의 「이」도 매인이름씨.

(다-2) 물음법에서

15. 이 어형에는 「-으시-」만이 연결될 수 있다.

「-던고」: 어느 사르미 少微星이 있다 니르던고 = 何人道有少微星(두언 22:7)

「-던다」: 네 모르던다 (월석 21:195)

네 아롬 존흠딘댄 엇테 무려 닐오더... 山河大地를 넠다 하던다 = 如汝所解<sup>후</sup>던 云何問言<sup>후</sup>터... 何當更出山河大地오 하던다 (능엄 4:37)

네 이 念을 뒷던다 아니 뒷던다 (월석 9:35 하)

「-더신가」: 遮陽<sup>기</sup> 세 쥐 네도 잇더신가 (용 88장)

「-던신고」: 네 엇던 功德을 뒷더신고 (석보 24:37)

<풀이> 「\*-더신다」형이 없는 것은, 이 말의 임자말은 2-인칭인데, 「-으시-」는 그 임자말로 표시된 들을이를 높이며, 「-은다」는 그것을 높이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던가」도 보이지 않는다.



(라) 「-다+ㄴ」

16. (「-더-」의 변형인) 「-다-」와 「-은」의 연결인 「-단」의 (이 경우에는 입자말의 인칭과 상관 없음. →p.862) 때매김의 뜻은 「-다-」만이 가지게 된다.(회상법)

17. 다른 안맺음씨끝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아랫 果報 헛니단 주를 솔보니 (월석 2:63)

우리... 三寶 恭敬 아니헛단 전츠로 (월석 23:80)

네 모로매 내의... 브즈러니 付屬 헛단 이를 생각하야 (석보 11:8)

前賢의 後生 저탄 이를 아디 못하리로다=不覺前賢畏後生(두언 16:11)

오직 이 넷 時節入 사르미 넷 時節 헛니단 고들 고티도다 =祇是舊時人 改却舊時行履處(금강삼가 5:5)

18. 「-단」에는 「-으시-」가 앞설 수 있다.

「-으시단」: 게으른 衆生들히 如來 恩惠를 아루샤...父母 孝養 헛시단 고들 아스바 (석보 11:15-6)

19.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들은 녹아붙은 씨끝처럼 보이지만, 모두 「-단」이 매인이름씨를 꾸미고 있는 말로 분석된다. (「-다-」는 「ㄷ」+「-이-」의 줄인 꼴이다. p.289 참조).

「-단」: 나웃 너 나간 後에 너 爲하야 날마다 五百僧齋 아니헛단디면 지비 도라가 큰 病을 어더 (월석 23:75)

헛다가 아래 人間에 이심저귀... 如來入 일후를 들즈헛단디면 이 다 스로... (석보 9:16)

「-으시단」: 요흔 일 헛시단딘댄 어마넝귀 드러가 이 돈을 供養하스보 리, 모딘 일 헛시단딘댄 어마님 爲하스바 이 돈을 布施하요리 (월석 23:65, 기 504)

어마니미 善事를 헛시단디면 내 이 도늘 가져가 어마니물 供養하습 고 헛다가 모딘 業을 지스시단디면 내 이 도늘로 어마님 爲하야 布施하리이다 (월석 23:73)

(5-2) 「-으니-」와 다른 때매김 씨끝들과의 겹침

—「-으니-」의 뜻은 약간 번져나간다—

20. 「-으니-」는 확정법의 씨끝인데, 이것과 「-느-」, 「-으리-」, 「-더-」, 「-다-」가 겹쳐지게 되면, 「-으니-」는 앞 때매김 형태소들이 가졌던 뜻을 확정적으로 강조해 주는 구실을 하게 된다.

(가) 「-느+니-」

21. 현실적인 사실임을 확인, 강조해 준다.

大梵天王이 娑婆世界를 ㄴ습아느니라 (석보 13:6)

집앗 사르미 眷屬이라 헛느니라 (석보 6:5)

네 상네 信타 아니헛느니라 (월석 9:36 중)

이 고즈로 香油 땡ㄴ느니라 (월석 18:53)

持緊은 一乘을 브르느니라 (석보 13:8)

사르미 살면 주구미 이실씨 모로매 늘느니라 (석보 11:36)

ㄴ료미 엷느니라 (금강 10)

또 오라며 기느니라 = 亦乃長久 헛느니라 (금강삼가 3:42)

삿길 나흐니 터리 다 붙느니라 = 生子毛盡赤(두언 8:19)

如意珠寶는 들 엷슨 바미 虛空에 들면 그 나랏ㄴ자은 낫 ㄴ티 붙느니라 (월석 1:26)

이 寶塔이... 내 이제 成佛할씨 알피 소사 넛느니라 (월석 21:221)

돌밭과 새지비 프른 이시 거츠렛느니라 = 石田茅屋荒蒼苔(두언 15:38)

앗가불 뜨디 잇느니여 (석보 6:25)

迦葉比丘ㅣ 왓느니여 (석보 23:39)

이들흔 이 色이 누느 보물 내느녀 누느 色의 相을 내느녀 = 此等은 爲是色이 生眼見가 眼이 生色相가(능엄 3:18)

므숫 일로... 헛 소리 춘그려기 긴 하늘해 우느니오 = 何事로...一聲寒雁이 唳長天고 (금강삼가 2:65)



片雲은 드슴 드드로 琴臺를 바랏느니오 = 片雲何意傍琴臺(두언 7:3)

太子 | 이제 어디 잇느뇨 (월석 21:218)

시미 기픈 드른 마마래 아니 그출찌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용 2장)

22. 「-느니-」에는 「-으시-」, 「-습-」이 앞설 수 있다.

「-으시느니-」: 나옴 이 相을 알오 十方佛도 아라시느니라(석보 13:43)

金入 비젼 고지 프면 부테 나시느니라 (월석 2:47)

(부테) 드슴 이틀 날오려 하시느뇨 (석보 13:26)

부텃기 받즈바 드슴호려 하시느니 (월석 1:10)

「-습느니-」: 그 술위 보스불 나라흔 降服하습느니라 (월석 1:26)

三昧定에 釋梵이 뵈습느니 (천강곡 상, 기 118)

23. 이에는 「-으이-」가 뒤따르는 일이 있는데, 「이」는 「이」로 줄어 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없어지는 일도 있다.(앞에 나온 마침법에 쓰인 「-느니」도 그러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느니이-」: 죽사릿 法은 모뎃다가 모더 여희느니이다(월석 21:202)

世間入 사람이 다 웃느니이다 (천강곡 상, 기 167)

썰리 부터 得하리 해 잇느니잇가 업스니잇가 (법화 4:170)

衆生이 能히 諸魔怨을 降伏하느니잇가 아니잇가 (법화 7:21)

▽상태를 나타내는 풀이씨와 잠음씨에는 「-느-」가 잘 붙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p.881). 그러나 이 경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또 동작을 나타내는 풀이씨와 상태를 나타내는 풀이씨의 한계도 분명하지 않으니, 「법화 4:170」의 예로 보면 「없-」에 「-느-」가 붙지 않은 것 같으나, 「업느-」 형이 쓰이는 일도 있다.

많 저기 업느니(능엄 8:125)

엇테 菩薩이 生 업슨 法에 生 이쇼물 보느니잇고 (법화 7:158)

「-으시느니이-」: 부테 즈개 내 드슴돌 아라시느니이다 = 佛自知我心 하시느니이다 (법화 4:201)

便安히 行하시느니잇가 아니잇가 大調和하시느니잇가 아니잇가 (법화 7:20)

엇테 如來 | 因緣을 다 브리시느니잇고 = 云何如來 | 頓棄因緣이시 니잇고 (능엄 4:63)

「-습느니이-」: 十方諸衆生이 너비 다 饒益을 닐습느니이다 = 十方諸衆生이 普皆蒙饒益하느니이다 (법화 3:109)

地藏菩薩이... 엇던 願을 發하시관더 이제 世尊入 브즈러니 讚歎하사 뎡 닐습느니잇고 (월석 21:50)

「-느님-」: 이 사름들히 다 神足이 自在하야 衆生의 福田이 드윳찌 주이라 하느님다 (석보 6:18-9)

「-느(오)니(으)-」: 엇테 부테라 하느닛가 (석보 6:16)

大臣을 請하야 이바도려 하노닛가 (석보 6:16)

(나) 「-으리+니-」

24. 이 어형은 미정(추정)적인 사실임을 확인, 강조해 준다.

諸法이 幻 곤하니 幻 곤홈도 得디 못하리니라 = 諸法이 猶如幻하니 如幻도 不可得이니라 (원각, 하 2-2:11)

周室이 다시 興起하요미 맛당하니 孔門을 당다이 브료미 못하리니라 = 周室宜中興 孔門未應棄(두언 6:21)

25. 「-으리-」와 「-으니-」 사이에는 강세와 느낌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아/어-」, 「-로소-」가 들어갈 수 있다. (「리」+「어」는 「려」로 줄어진다.)

「-으려니-」: 아자비 여희요매 感念이 기프니 여훤 後에 엇던 사름뎡 보려니오 = 感深辭舅氏 別後見何人(두언 8:62)

이제 늘 더브러 무르려뇨 (석보 13:15)

▽「-려뇨」←「-으리+어+니+오」

다음과 같은 예는 잘못 이해되기 쉽다.

孟子 | 날오더 너비 비화 仔細히 날오몬 장츠 두르혀 조스르외요뎡 날오려니라(법화 1:122-3)

「-려니-」는 「-려니-」의 역행동화된 어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것 같으나,



이 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법의 맺음씨끝 「-(으)려」에 잡음씨 「-이니라」가 붙은 꼴이다. 즉 ‘말하려(는 것)이다’의 뜻이다.

「-으리로소니-」: 天龍鬼神을 네 數를 알리로소니여 모로리로소니여 (석보 11:4)

네 數를 알리로소녀 (월석 21:14)

▽「-리로소녀」←「-리로소니여」

26. 「-려니-」에는 다시 그 앞에 「-으시-」, 「-습-」, 「-오/우-」가 겹쳐지는 일이 있다.

「-으시려니-」: 어느 누를 더브르시려뇨 (천강곡 상, 기 52)

이 두 말을 어늘 從히시려뇨 (월석 7:26, 기 197)

「-스보려니-」: 未來엿 衆生이 엇데 하야사 ... 두 菩薩을 보스보려뇨 (월석 8:17)

「-스보려니-」: 언제 새어든 부터를 가 보스보려뇨 하더니(석보 6:19)

27. 「-으리로소니-」에는 「-으이-」가 뒤따르는 일도 있다.

「-으리로소니이-」: 어마니물 아라 보리로소니잇가 (월석 23:86)

#### (다) 「-더+니-」

28. 이 어형은 이미 현실을 떠난, 지난적에 일어난(경험한) 사실임을 확인, 강조해 준다.

불 터 사르물 모도오더... 金부플 티면 十八億 사르미 다 몰더니라 (석보 6:28)

네는 조히 업서 대를 엇거 그를 쓰더니라 (월석 8:98)

넋씨 元日入 會集에 므술히 우리 지블 브더니라 =舊時元日會 鄉黨羨吾廬(두언 8:43)

諸天을 아니 다 니를썬당 實엔 다 왜셔니라 (석보 13:7)

▽「왜셔니라」는 「엿더니라」의 다른 표기 방법이다.

넋히에 太平을 만나니... 뫏고리 門알피 當히얏더니라 =昔歲逢太平...

洞壑當門前(두언 25:39)

하을어미와 몃 盜賊과 오났날 존디 아니터니 天下애 슬위와 글월왜 正히 혼지비러니라 =寡妻群盜非今日 天下車書正一家(두언 15:22)

그씨 불근 殿에 오르리는 혼갓 卿相이 尊히니썬 아니러니라 =當時上紫殿 不獨卿相尊(두언 16:3)

내 아리... 方便說法이 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爲히니라 니르디 아니터녀 (법화 2:52)

네 어미 사라삼제 엇던 行業을 하더뇨 (월석 21:53)

네 여희요론 이 어디러뇨 =昔別是何處(두언 21:30)

둘희 힘이 달오미 업더니 (천강곡 상, 기 39)

▽「업더니」는 「-이다」의 생략으로 이해된다.

29. 「-더니-」에는 안맺음씨끝 「-습-」과 「-으시-」가 앞설 수 있는데, 「-으시-」는 「-더-」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습더니-」: 劫 일후믄 우홀브터 세느니... 時節入 한 사르미 깃거 보 습더니라 (월석 18:82-3)

넋날애 바리를 어더 毗盧遮那入 말로 오났일을 기드리습더니 (천강곡 상, 기 88)

▽「기드리습더니」는 「-이다」의 줄임꼴로 이해된다.

「-으시더니-」: (부테) 涅槃하실찌고 므스 마를 하시더뇨 (석보 23:30)

「-더시니-」: 彌勒菩薩은 즇개 爲혼 므스미 하실씨 즇갓 므스미 닉더 시니라 (월석 1:52)

如來入 正法이 언제 滅히리라 하더시뇨 (석보 23:81)

「-습더시니-」: 駕鵞夫人이 王 말로 나샤 齋米를 받죽더시니 (월석 8:78, 기 221)

▽끝에 「-이다」가 줄어진 말로 이해된다.

30. 「-더(시)니-」에는 다시 「-으이-」가 뒤따를 수 있다.

「-더니이-」: 乾闥婆의 아들이 놀애를 블라 七寶琴을 노더니이다 (월



석 21:190, 기 422)

世尊 世尊하 손지 네 ㄹ티 世間에 겨시더니잇가 (법화 6:150)

뒤 닐오더 어마니미 이에 잇다 하더니잇고 (월석 23:82)

菩薩 어마니미 姓이 프스기러니잇고 (월석 21:27-8)

「-더시니이-」: 宮中에 거심제 옷 허름도 모르시며 비골품도 업더시니  
이다 (월석 8:82, 기 233)

어마님 일후몬 悅帝利러시니이다 (월석 21:28)

「-으시더니이-」: 黃梅付囑은 엇데 ㄹ러쳐 맛디시더니잇고=黃梅付囑은  
如何指授 | 잇고(육조, 상 : 42)

「-더시니(으)-」: 그되는 아니 듣조뻬더시닛가 (석보 6:17)

「-닛가」는, 「-니잇가」→「-녕까」의 줄인말이다.

(라) 「-다+니-」

31. 「-더-」의 변형인 「-다-」에도 「-으니-」가 붙을 수 있는데, 그 때  
매김의 뜻은 「-더니-」와 같으나, 그 용례는 매우 드물다.

諸聲聞衆과 또 緣覺 求하는 乘의 내 受苦 업미요매 버서 涅槃 미쳐  
得게 흔 사르미게 니르노니 부테 方便力으로 三乘教를 覓요몬 衆生  
이 곧고대 着할씨 혀나게 하다니라 (법화 1:158)

내... 權으로 이 城을 땡ㄹ랫다니라 = 我...權化作此城<sup>하엿다니라</sup> (법화  
3:196-7)

32. 「-으리+러+니-」 형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으리  
러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p. 921)

(5-3) 「-으리-」와 「-더-」와의 겹침

—두 형태소가 다 제 뜻을 유지한다—

33. 이 두 씨끝이 겹쳐지면, 그 본디의 뜻을 다 가지게 된다. 즉 이  
어형은 지난 어떤 때의 상황(경험)으로서는 아직 미정적이오, 추정적인  
—그 때로서는 현실적이나, 확정정이 아닌—사실에 지나지 않았던

일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이러트시 고터 ㄷ의샤미 몬 니르헤리러라 (월석 1:21)

功德이 이러 당다이 부테 ㄷ의리러라 (석보 19:34)

그 數 | 몬내 헤리러라 (월석 8:90)

讒口 | 만하야 罪 하마 일리러니 功臣을 살아 救하시니 (용 123장)

부텃 舍利로 七寶塔 세습논 양도 보리러니 그뻬... 菩薩이 너기샤더  
(석보 13:14)

하다가 우리... 菩提를 일우리런댄 반ㄷ기 大乘으로 度脫을 得하리  
어늘 = 若我等이... 成就... 菩提者 | 런댄 必以大乘으로 而得度脫이어늘 (법  
화 2:6)

34. 이에는 다시 「-습-」, 「-으시-」가 앞설 수 있다.

「-스블리러-」: 머리 이션 보습고 가까비 완 몬 보스블리러라 (월석  
7:55)

光明이 하 盛하야 몬다 보스블리러니 百千閻浮檀金入 비치 몬 가즐  
비스블리러라 (월석 8:17)

곳 가운데마다 化佛이 겨샤 威光이 보습와 ㅁ에 비취샤 몬 가즐비스  
블리러니 (월석 21:5)

「-으시리러-」: ... 菩薩摩訶薩이 아니 오라 ... 菩提를 得하시리러라 (월  
석 21:222)

하다가 아비웃 겨시던댄 우릴 어엿비 너겨 能히 救護하시리러니 오  
놀날 브리고 다른 나라해 머리 가 업스니 (법화 5:158)

(5-4) 「-으리+러+니-」

35. 「-으리+러-」에는 다시 확정의 안맺음씨끝 「-으니-」가 뒤따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으리러-」가 가진 때매김의 뜻을 확정, 강조해  
주는 뜻을 가지게 된다.

내 아랫뉘에 이 經을 바다디녀 닐그며 외오며 놈드려 니르디 아니



하더든... 菩提를 쉼리 得디 몬하리러니라 (석보 19:34)

내 네 ㅁ디ㅁ디 활기 ㅂ즐제... 壽者相 잇던덴 반디기 瞋心하야 ㅁ  
유믈 내리러니라 = 我於往昔 節節支解時에 若有... 壽者相하던덴 應生瞋恨  
하리러니라 (금강 79)

智慧 업슨 사르미... ㅁ르초믈 받디 아니하리러니라 (법화 1:208)

이 常不輕菩薩摩訶薩이... 반디기 부테 ㄷ외리러니라 (법화 6:86)

賢良을 비록 퍼디 몬하야도 廊廟엔 偶然히 ㄸ니리러니라 = 賢良不必  
展 廊廟偶然趨(두언 24:59)

그뻬 나랏 ㅍ거시 가슴머러 足히 ㅅ곰 邊疆을 가저시리러니라 = 於  
時國用富 足以守邊疆(두언 25:6)

▽「가저시-」 < 「가제시-」 < 「가저이시-」

「-으시리러니-」: 부텨 일후미 大覺이샤 一切智 ㅁ즈시니 世間에 겨삼  
저기면 어미 주근 後에 부터씨 와 문즈분면 당다이 간 ㅅ하를 아르시  
리러니라 (월석 21:21)

하다가 설운 ㅁ스미 겨시면 곧 瞋心하야 ㅁ요믈 내시리러니라 = 若  
有痛惱之心하시면 即生瞋恨하시리러니라 (금강 79-80)

#### (6) 때매김이 표시되지 않은 활용형

이상 보아온 바와 같이, 때매김을 나타내는 씨끝은 「-ㄴ-」, 「-으니-」,  
「-으리-」, 「-더, 다-」 및 「-은」, 「-을」인데, 이러한 씨끝을 가지지 않은  
활용형들은 모두 말말이가 때매김에 관해서 관심이 없을 경우, 때매김  
을 분명히 표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경우에 쓰인다. (이러한 예는 4.  
‘맺음씨끝의 굴곡범주’의, 1) ‘한기능법의 굴곡범주’와, 2) ‘두기능법의  
굴곡범주’에 많이 나타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모두 생략한다.)

#### 5) 강조-영탄법

1. 말의 표현을 힘주어 하려거나, 말의 어조를 다채롭게 하려거나, 또  
는 말에 어떠한 정서를 부여하려 할 때에 쓰이는 여러가지의 안맺음씨  
끝들이 있는데, 이 씨끝들이 나타내는 문법적인 뜻은 꽤 다채로워서 한  
말로 그 뜻을 표현하기 어려우나, 여기에서는 「강조-영탄법」이란 이름  
으로 묶쳐 두기로 한다.

2. 강조-영탄법의 안맺음씨끝에는, (1) 「-아/어-」 계, (2) 「-거-」 계,  
(3) 「-도-」 계, (4) 「-노-」 계, (5) 「-다-」 계, (6) 「-샤-」 계, (7)  
「-소, 스-」 계의 일곱 계열이 있다.

##### (1) 「-아/어-」 계

1. 이에는 「-아/어-」, 「-애/에-」, 「-엿/엇-」이 있다.

##### (1-1) 「-아/어-」

2. 풀이의 힘을 더 한층 세게하고 다짐하는 씨끝인데, 그 결과 이미  
확정되고 완료된 상황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씨끝은 때매김  
법에 넣을 수도 있을것 같으나, 때매김과 관계 없는 경우에도 쓰이는 일  
이 있기 때문에, 강조법으로 보게 된다.

「-아/어-」의 선택은 홀소리조화에 의하며, 끝소리가 /i, j/ 일 때는  
「-야/여-」로, 줄기가 「ㄹ-」인 경우에는 「-랴-」로 변동하고(이 경우에  
드물게나마 「-여-」로 바뀌는 일이 있다), 끝소리가 /아, 어/ 인 경우에  
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다.

3. 앞에서 설명한 「-으니-」도 확정된 사실을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때  
매김 씨끝과 결합되어서, 그 씨끝이 가진 때매김의 뜻을 다짐(확인)하기도 하는  
점, 「-아/어-」와 비슷하다. 그러나 「-아/어-」는 시김법(→p.516 이하)이나, 꺾임  
법(→p.520 이하)의 경우에서처럼, 전혀 때매김의 뜻이 없는 경우에 쓰이기도  
하고, 또 「-놀, -ㄴ마론」 따위 씨끝에 연결되는 「-아/어-」는 거의 기계적으로 개



입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어-」는 때때로 김법의 씨끝으로 보지 않기로 한다.

4. 다른 안맺음씨끝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어다」: 모다 닐오더 舍利弗이 이키여다 (월석 6:31)

諸釋들히... 닐오더 王入 中엿 尊하신 王이 업스시니 나라히 威神을 일허다 하고 (석보 10:9)

一切大海 ...닐오더 설불씨 衆生이 正하길 일허다 하며 (석보 23:19)

「-어니」: 四海를 平定하샤 길 우희 糧食 니저니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용 53장)

佛祖도 오히려 더의 머구무물 니버니 魔外 엿테 시러 降티 아니하 리오=佛祖도 尙被渠呑却이어니 魔外如 何得不降이리오 (금강삼가 2:60)

▽한문토의 「-이어니」의 「-어-」는, 역시 강조법의 안맺음씨끝으로서, 「-거-」의 변이형태다. 「-아/어-」와 「-거-」가 다 같이 강조법의 씨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라」: 得大勢여 아라라 (석보 19:35)

阿難아 내 훈 말 드러라 (월석 10:21)

山中에 가 道理 닷가라 (월석 23:77)

네 願다히 하야라 (석보 24:14)

「-어저」: 내 보아저 하느다 술하씨 (석보 6:14)

「-언」: 오늘 모뎃는 한 사르미 邪曲하 道理 비환디 오라아 (석보 6:28)  
成佛하안디... 劫이니 (월석 17:22)

「-얼」: 이 사르미 氣運이 揚揚호물 感激하노니 모로매 風化엿 위두 하니를 아랄디로다 =須知風化首 (두언 15:42)

「-언다」: 닐웁 스시에 네 快樂을 전쫓 하안다 (석보 24:28)

하늘 마르치시며 싸 마르치샤물 아란다 모르논다 =指天指地를 會也 아 未아 (금강삼가 2:60)

▽「-안/언」형은 완료적인 뜻이 뚜렷한데, 이것은 「-은」에 말미암은 것이다. (→p.888 이하)

5. 「-습-」은 「-아/어-」에 앞서며, 「-으이-」, 「-으니-」, 「-스-」는 이에 뒤따른다.

「-스바-」: 그뵈 人間애 이서 부터 몬 보스환디 오라더니 (월석 21:191)

王이 닐오더 어더 보스할까 (석보 24:43)

도홀씨 도홀씨 오느날 果報 | 여 釋迦牟尼佛入 弟子入 々출 보스환디 (월석 23:82)

「-어이-」: 내 ...오늘 尊者 보스보니 깃부미 그지업서이다 (석보 24:34)

넉시 어느 趣에 간동 몰라이다 (월석 21:27)

나도 머릴 올위러 설버이다 救하쇼셔 비스보니 (월석 2:52)

回回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악장가사, 쌍화점)

▽「주여이다」도 위와 같은 어형인데, 그 변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줘여이다 → 주여이다 > 주여이다.

「-스바이-」: 大王하 나도 如來 겨신 더를 모르스바이다 (월석 21:192)

賀禮는 깃스바이다 하야 禮數홀씨라 (석보 11:30)

「-어니-」: 몇디위 緣水青山入 마새 祖師를 다디르코 도르혀 아디 몰하 야니오 = 幾廻緣水青山邊에 撞着祖師코 還不識하야니오 (남명, 하:45)

내 모뎃 엿테 드틀 마티 보스디 몬관디 내 아드리 목수를 일케 하야 노 (월석 21:219)

菩薩法利 니르심제 현맛 莊嚴과 현맛 供養이 祥瑞를 펴아노 (월석 17:23, 기 312)

岐王入 집안해 상네 보다니 崔九의 집알피 몇디월 드러노 = 岐王宅裏尋常見 崔九堂前幾度聞 (두언 16:52)

훈날 터럭쑤늘 供養功德에 涅槃을 得하야니 (천강곡 상, 기 92)

▽「하야니」는 「하야니이다」의 줄임으로 이해된다.

「-스바니-」: 五色雲入 가온디 瑞相 비시는 如來入의 헛맛 衆生이 머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리 좇스바노 (월석 2:48, 기 28)

「-어스-」: 모다 아라스라 瞿曇沙門이 實로 아논 일 업슨 黃口小兒 | 란  
(월석 21:197)

6. 「-으리-」와 결합될 때는 대개는 「-으리-」가 앞서게 되며, 이 두 형  
태소는 「-으려-」로 줄어진다.

「-으려-」: 하마 비 오려다 흠저기 (월석 10:85)

내 조흔 형더글 닷가 일업슨 道理를 求하노니 죽사릿 因緣은 듣디  
몰호려다 (월석 1:11)

머리는 아로미 업스려니 엇테 觸이 일며 = 頭는 則無相하려니 云何成  
觸이며 (능엄 3:29)

제 그 불존 相이 잇논 덜 아디 몰하려니 마시 엇테 일리오 = 自不  
知其明相所在하려니 畔이 云何成이리오 (능엄 2:102)

「-으려니-」: 아자비 여희요매 感念이 기프니 여훤 後에 엇던 사록물  
보려니오 = 感深辭舅氏 別後見何人 (두언 8:62)

엇던 德으로 降伏하려노 (석보 6:28)

「-스려니-」: 世尊入 큰 愿은... 우릴 利益하시니... 뉘 能히 갈스오려  
노 (법화 2:256)

7. 위의 예들에 있어서는 「-으리-」가 「-아/어-」에 앞서 있는 것이나,  
그 차례가 바뀌는 일도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혹시 뒤따르는 맺음씨끝의 종류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할것 같다.)

「-어리-」: 마논 프리 기우시 안조매 마즈니 곳다운 수를 다시 사물  
게을이 하야리아 = 細草稱偏坐 香醪懶再沾 (두언 15:48)

百年이 슬프다 하마 半이 드외니 四座 | 敢히 喧笑호물 마라리아  
= 百年嗟已半 四座敢辭喧 (두언 8:25) <주> 言死亡이 迫近하니 不可不爲  
燕樂이라.

하물며 나는 하을어미라 能히 玉 존흔 막스맷 머느리를 보아리여 =

況余는 寡母 | 라 能見玉心之婦耶아 (내훈, 서:8)

모물 보비로이 너교더 구슬 마티 하야 저히 守홀디니 값간이나 막습  
노하 ㅍ아려 = 寶其身體호되 若珠與瓊하야 戰兢自守 | 니 敢曰縱肆아 (내  
훈 2상:2)

「-어리로-」: 眞實로 그스기 化하시다 닐어리로다 (월석 13:44)

「-어리이-」: 天龍이 조짜블며 花香이 느리니 그날 莊嚴을 다 술바라  
잇가, 枯樹에 여름 열며 竭川에 십이 나니 그날 祥瑞를 다 술바라잇  
간 (천강곡 상, 기 127)

8. 「-으시-」는 「-아/어-」에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으려-」(←으  
리+어)와 결합될 때는 「-으시-」는 이에 앞선다.

「-아/어+시-」: 내그에 모달언마론 제 님금 爲타 하실씨 罪를 니저  
다시 브려시니 하물며 衰職 돕스보려 面折廷爭커든 이 ㅄ들 닛디 마  
락쇼셔 (용 121장)

빛근 남꼴 느라 나마시니 石壁에 수멧던 네넛글 아니라도 하늬 ㅄ  
들 뉘 모락스블리 (용 86장)

如來 壽命 니락싱제 현맛 菩薩와 헛맛 衆生이 功德 得하야시노 (월  
석 17:23, 기 312)

엇테 世尊이... 諸大菩薩 教化하샤... 菩提에 住케 하야시노 (법화 5  
:112-3)

世尊이 大慈大悲로 내 迷雲을 여르샤 나를 시러 들에 하야시이다  
(남명, 하:4)

「-으시+려-」: 어느 누를 더브르시려노 (천강곡 상, 기 52)

이 두 말을 어늘 從하시려노 (월석 7:26, 기 197)

城 맞기 브리 비취여 十八子 | 救하시려니 가라 혼들 가시리잇가  
(용 69장)

9. 「-으려시-」와 같은 어형이 보이니, 이 「시」는 높임의 씨끝이 아니다.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다. →pp.687-8 참조)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하마 色과 空과 업스면 어루 分別호미 업스려시니 비록 네 識이 이신들 장  
초 르스게 브리오 = 既無色空하면 無可分別이어서니 縱有汝識호들 欲將何用  
고 (능엄 3:35)

10. 「-아/어+이시-」 어형은 「-애/에+시-」로 줄어지고, 다시 이 어형은 「-아/  
어+시-」로 줄어지는데(→p.421 이하), 그렇게 되면 안맺음씨끝 둘의 결합으로  
오인되기 쉽다. (다음의 예는 모두 「-아/어+이시-」의 줄임꼴이다)

네 다시 말 마오 槽廠의 가시라 = 汝更勿言하고 着槽廠하라 (육조, 상:8)

▽한문토의 「-하라」로 보면 「가시라」는 높임이 아니다. (←가+이시라)

蘇武는 羊을 보고 盜賊의 뜰에 빠더시니라 = 蘇武看羊陷賊庭 (두언 21:40)

11. 이상의 어형들은 모두 일반적 맺음씨끝과 「-아/어-」와의 결합형  
인데, 「-아/어-」는 불구적 맺음씨끝과 결합되는 일이 많다.

「-아/어+(시)+든/든」(→p.551)

몬 아라든 쉐리... 眞實 工夫를 하야 (몽산 21)

엇테 소리 여희여든 分別性이 업스노 = 云何離聲하야든 無分別性고 (능  
엄 2:24)

그위실하리 천량을 가져다가 父母의 받즈와든 父母 | 깃거하고 (내  
훈 3:29)

사르물 보아시든 몬져 말하시며 (월석 2:58)

「-아/어+(시)+닐/닐」(→p.557)

중심과 어우러 머구리라 하야닐 鸚鵡 | 그 穀食을 주시 (월석 2:12)

구루미 비취여닐 日官을 從하시니 (용 42장)

大愛道 | 몬젓 양자로 出家를 請하스바닐 부테 또 듣디 아니하시니  
라 (월석 10:17)

가시樣 무르시고 눈 먼 남 무려시닐 世尊人 말을 웃비 너기니 (월  
석 7:5, 기 180)

그뻘 世自在王佛이... 싸히 골업스며 도호물 닐어시닐 法藏比丘 | 듣  
즈블시고 (월석 8:59)

持地菩薩이 네 毗舍浮佛 맞나스와시닐 마르치사디 (법화 7:102)

「-아/어-」와 「-으시-」의 차례가 바뀌는 일도 있는데(「-으샤닐」), 이  
것은 「-어시-」형보다는 덜 보편적이다.

부테... 큰 光明을 펴샤닐 그뻘... = 有佛이... 放大光明하야시닐 (법화  
7:141)

「-으려닐」(→으리+어+닐)에 「-으시-」가 연결될 경우에는 「-으시-」는  
그 앞에 오게 된다. (「-으시려닐」, p.559 참조)

아비웃 이시면 우리를... 能히 救護하려닐 이제 날 버리고... (월석 17  
:21)

世尊이 곧 須菩提 | ... 즐기느니라 니르디 아니하시려닐 須菩提 |  
實로 行흔 곧 업슬씨 (금강 55-6)

「-아/어+(시)+니와」(→p.572)

八諦는 곧 우홀 어울워 닐어니와 또 無量四諦 잇느니 (월석 14:38)

能히 느물 利케 몬하야니와 四禪에 니르러사 = 未能利他하여니와  
至四禪하야사 (능엄 9:12)

世尊하 나논 이제 부텃 알피... 菩提記를 受하스와니와... (법화 2:  
50)

오직 悉達太子 | 一生애 成佛하야시니와 나쁘닌 다 分 업고 (원각,  
상 2-2:162)

「-으려니와」형에는 「-으시-」가 앞선다. (「-으시려니와」)

너희무른 모미 일홈과 다못 혼뻘 업스려니와 廢티 몬홀 江河는 萬  
古애 흐르니라 = 爾曹身與名俱滅 不廢江河萬古流 (두언 16:11)

모를젠 스승이 (나를) 전네시려니와 아란 내 전너리이다 (육조, 상:  
33)

「-아/어+(시)+ㄴ마른」(→p.576)

알피 닐오더 조차 곧 分別하느니라 하얀마른 이제 누니 불 고디 ㄷ  
외면 = 前에 云호되 隨即分別이라 하얀마른 후에 眼이 爲所見即... (능엄 1:  
58)

아래 즈조 들즈환마른 즉자히 도로 너저 (석보 6:11)



般若時에 하마 오로 맛디고져 하야신마론 오직 저근 法 즐겨 (법화 2: 232)

「-으런마론」에는 「-으시-」가 앞서는데, 이것은 앞의 경우와 한가지다.  
無量壽佛入 모미 又 업스샤 凡夫의 心力이 몬 미츠런마론 더 如來入 本來入 願力으로 憶想하리 이시면 (월석 8: 44)  
金輪王이 ㄷ외샤 四天下를 ㄴ습아루시런마론... 世間 슬히 너기샤 (석보 6: 17)

### (1-2) 「-애/에-」

12. 느낌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으로서, 앞의 「-아/어-」와는, 같은 계열의 다른 형태소이다.

「-아/어-」는 강조를 나타내는 결과 기정적인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나, 이 형태소는 단순히 느낌을 나타낼 뿐이다. 그리고 「-아/어-」 다음에 오는 맺음씨끝 「-다」는 변동하지 않으나, 「-애/에-」 다음에서는 「-다」는 「-라」로 변동한다. 그러므로 「-애/에-」는 「-아/어-」와는 다른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13. 다른 안맺음씨끝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므슴 일로 寒山은 머리 노노물 즐겨 이제 온 길홀 니제라 하야시노  
=何事로 寒山은 愛遠遊하야 如今에 忘却來時路 1라 하야시노 (남명, 상: 28)  
부테 등 알패라 하샤 물 가져오라 하야시놀 (석보 24: 2)  
몰래라 하샤미 울하니 (월석 23: 85)  
目連이 닐오디 몰라 보애라 (월석 23: 86)  
내 긴 劫에 가히 모미 ㄷ외야 사르미 쫓을 머구몬 하려니와 地獄 소  
리 드로몬 두레라 (월석 23: 91)  
陵室에 뵈스오물 붓그레라 하시고 =慙見陵園 (내훈 2상: 55)  
먼 ㄴ새 窮혼 시르미 원하애라 =絕塞豁窮愁 (두언 23: 16)  
쁘디 나날 거츠레라 =意緒日荒蕪 (두언 23: 20)  
손바리 어러 쁘고 갓과 슬패 주게라 =手脚凍皸皮肉死 (두언 25: 26)

揚員外거의 마를 브티노니 되히 치워 茯苓이 저게라 =寄語楊員外 山  
寒少茯苓 (두언 21: 20)

나그내 ㄷ외야쇼매 시드러운 病이 이레라 =爲客羸瘵成 (두언 25: 33)  
故人的 信 書信이 업세라 니르디 아니하노라 =不道故人無素書 (두언 21: 17)

수를 자바서 쁘디 茫然하애라 =把酒意茫然 (두언 15: 13)

14. 「-으이-」가 뒤따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다」는 「-라」로 변동하지 않는다.

大王入 말쌈미샤 울커신마론 내 쁘테 몬 마재이다 (월석 8: 97)

내 어미 아모디 넷논디 몰래이다 (월석 21: 53)

내 이제... 아디 몰하에이다 =我今... 不能了하에이다 (법화 1: 164)

ㄱ하-」 줄기에 「-여」가 붙은 예는 드물다.

쌀 니고미 오라디 오히려 꼴히리 업세이다 =米熟久矣로디 猶缺篩在하  
이다 (육조, 상: 27)

15. 또 「-으리-」가 앞서는 일도 있다.

흔 願을 일우면 저그나 기튼 즐겨부미 이시려니와 내 말웃 아니 드  
르시면 ㄴ외 즐겨본 ㄷ스미 업스레이다 (월석 2: 5)

16. 「-으이다」를 연결한 어형에 있어서는 「-애/에-」와 「-아/어-」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름이 있는것 같지 않다. 즉 앞에 나온 「몰래이다」(월석 21: 27), 「업서이다」(석보 24: 34)와 여기 보인 「몰래이다」, 「업세이다」는 아무런 뜻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몰래이다, 업세이다」 따위는 「몰래이다, 업서이다」 따위 어형의 역행동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으이-」가 붙더라도 동화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또 다른 /i/를 가진 형태소가 붙는 경우에도 「-아/어-」는 동화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서, 「-으이-」 앞의 「-애/에-」는 「-아/어-」의 단순한 변이형태로 보지 않기로 한다.

### (1-3) 「-엿/엿-」

17. 이 예는 극히 드물어서, 다음 예 밖에 찾지 못했으나, 「-애/에-」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를 한층 강조한 형태소로 보아진다.

고불 님 몸 보습바 슬웃 우리다니 오늬날애 녀시라 마로렛다 (월석 8: 87, 기 246)

▽「마로렛-」←「말+오+리+엿-」

## (2) 「-거-」 계

1. 이에는 「-거-」, 「-가-」, 「-게-」, 「-것-」이 있는데, 이 씨끝들은 「-아/어-」 계의 세가지 변형과 병행한다.

### (2-1) 「-거/어/나-」

2. 강조를 나타내는 점, 앞의 「-아/어-」와 거의 같은 뜻을 가진 형태소이다. /ㄹ/과 ㅐ이, 안맺음씨끝 「-으리-」, 잡음씨의 「-이-」, 「아나-」 밑에서는 /ㄱ/이 줄어진다. 그리고 줄기 「오-」 밑에서는 「-나-」로 변동한다.

3. 다른 안맺음씨끝과 결합하지 않은 경우.

「-거(나)다」: 安樂國이논 아비를 보라 가니 어미도 몸 보아 시르미 더욱 깁거다 (월석 8: 101)

헝다가 혼 터럭근매나 이시면 門外에 잇거다 = 若有一毫末하면 且居 門外커다 (몽산 12)

天帝入 命을 받즈와 와 擁護컨디 오라거다 (능엄 7: 62)

제 오니 내 願에 甚히 맞거다 (월석 13: 15)

衆生이 福이 다으거다 (석보 23: 28)

더 중아 닐웨 헝마 다들거다 (석보 24: 15)

녀름짓는 지빋 늘근 디새알을 웃디 말라 술 다마 머구므로브터 子孫 이 즈라거다 = 莫笑田家老瓦盆 自從盛酒長兒孫 (두언 25: 17)

설불씨 世界 뵈어다 (석보 23: 18)

내 本心 求흠 ㅅ슴 업다니 오늘 이 寶藏이 自然히 니를어다 (법화 2: 226)

아비 每常 아득를 念호되 아들과 여희연디 쉬나몬 히어다 호되 (월석 13: 9)

너희들히 힘써스라 바미 헝마 ㅅ이어다 (석보 23: 13)

갈 어두물 모로매 마를디어다 = 不須求劍이어다 (금강삼가 4: 28)

내 本來 求흠 ㅅ슴 업다니 오늘 寶藏이 自然히 오나다 (월석 13: 32)  
「-거(나)라」: 어셔 도라 니거라 (월석 8: 101)

내 니마해 블른(론) 香이 몸 물랫거든 도로 오나라 (월석 7: 7)

「-거나」: 뭐나 잇거나 호매 (몽산 18)

시혹 形像을 彩色로 그리거나 시혹... 金銀銅鐵로 이 菩薩 甞라 흔번 보거나 흔번 절하면 (월석 21: 85)

헝다가 衆生이 佛身血을 내어나 三寶를 허러 나만라거나 尊經을 아 니하면 (월석 21: 39)

「-거니」: 十方世界에 二乘도 업거니 헝물며 세히 이시리여(석보 13: 56)

오직 새 사르미 우수를 보거니 엇테 넷 사르미 우루를 드르리오 = 但見新人笑 那聞舊人哭 (두언 8: 66)

行을 외다 헝야 닳디 아니하면 벅 빗 업수미 존거니 내종애 엇테 전 나리오 (법화 5: 206)

사름마다 覺性이 本來 제 두려이 이렛거니 엇테 오늬날 닳곰 쓰리오 (남명, 상: 4)

이 法華經은 無量國中에 일흠도 시러 듣디 몬호매 니를어니 헝물며 시러 보아 受持讀誦호미썩녀 (법화 5: 56)

우리는 하늘히오 그디는 當時로 사르미어니 도로 가 사르미 목숨 벅 리고 다시 이에 와 나아사 살리라 (월석 7: 12)

自然히 物이 아니어니 엇테 너 아니리오 = 自然非物이어니 云何非汝 1 리오 (능엄 2: 37)

「-거니~거니」: 브르거니 對答거니 헝야 威와 福과를 짓느니 = 唱和 作威福 (두언 6: 38)



「-진(난)」: 디나진 네넛 時節에 (석보 6:8)

그 中에 흔 長者는 우리 父母人 오라진 아로리러니 (월석 10:24)

니진 히 바리 = 去年夜 (남명, 상:23)

兵甲 닐 언 히 數 | 하니 = 兵甲年數久 (두언 11:45)

그뿐... 나히 一百 설 히 니 어 니 잇더니 (석보 24:18-9)

「설히니어니」←「설흔+이언+이(사람)」

아들 봄브터 오 난 디 하 마 스물 히 니 = 自見子來컨디 已二十年이니 (법화 2:245)

4. 「-거-」 다음에는 「-으이-」, 「-으니-」가 뒤따를 수 있다.

「-거이-」: 오늘...다 疑惑에 벼 러 디 거 이 다 = 皆墮疑惑거이다 (법화 2:50-1)

내 이제 世尊을 ㅅ즈막 보스보니 측 흔 ㅅ즈미 업 거 이 다 (월석 10:8)

「-거(나)니-」: 衡陽애 조 히 비 디 다 能히 놀 거 니 라 = 衡陽紙價頗能高 (두언 22:16)

霜骨이 甚히 기더 ㅅ하야 기리 이웃 사르미 슬 후 미 드 외 엿 거 니 라  
= 霜骨不甚長 永爲隣里憐 (두언 6:37)

더른 다미 하 다 가 이시면 衰殘<sup>한</sup> 프를 ㅅ던히 너 젓 거 니 라 = 短牆若  
在從殘草 (두언 8:42)

荊州人 醉<sup>흔</sup> 司馬를 심히 ㅅ랑<sup>하</sup>노니 罪 니버 벼슬<sup>하</sup>야쇼매 樽<sup>엿</sup>  
수를 一定<sup>하</sup>야 ㅅ상 열 어 니 라 = 苦憶荊州醉司馬 謫官樽酒定常開 (두언 21:45)

秦 ㅅ해는 ㅅ당<sup>이</sup> 새 드 리 어 니 라 = 秦地應新月 (두언 6:11)

ㅅ ㅅ를 니근 바블 맞 나 거 니 오 = 幾年逢熟食 (두언 11:10)

셴 머리에 기튼 슬 푸 미 잇느니 프른 대에 ㅅ 사 르 미 울 앗 거 니 오 =  
白頭遺恨在 青竹幾人登 (두언 20:23)

엇테 ㅅ마 眷屬이 다시 業을 더 으 거 노 (월석 21:106)

濟渡衆生이 幾千萬<sup>이</sup> 어 노 (천강곡 상, 기 166)

모던 중성이 ㅅ의업도소니 ㅅ스므라 바리 나 오 나 노 (석보 6:19)

엇던 전츠로 이에 오 나 노 = 何故至此 | 어 노 (법화 2:239)

가난코 病호물 사르미 모로매 ㅅ리는 주를 因<sup>하</sup>야 아노니 能히 韋  
郎으로 ㅅ히여 자취를 ㅅ ㅅ히케 하 거 녀 = 因知貧病人須棄 能使韋郎迹也  
ㅅ (두언 21:25)

羹애 네 소니 데 어 녀 하 니 = 羹爛汝手乎아 하니 (내훈 1:18)

5. 「-으시-」도 「-거-」에 뒤따름이 원칙이다.

「-거시-」: 설볼써 世間애 慧日이 ㅅ스샤 ㅅ워스븜리 업 거 시 다 (석보 23:19)

姪欲은 더럽고 佛道는 조 커 시 니 ㅅ테 더러븐 이틀 조흔 道 | 라 하  
리히고 (월석 9:24)

年來에 ㄴ고 크 거 시 니 어느 고대 가료 = 年來에 老大커시니 歸何處오  
(남명, 상:43)

石壁이 ㅅ하 ㅅ신들 數萬里△ 니 미 어 시 니 百仞虛空애 ㄴ리시리히가  
(용 31장)

目連이 ... 나흔 어미 하 나 아 니 어 시 니 ㅅ테 더 靑提<sup>ㅅ</sup> 救<sup>하</sup>노 (월석 23:93)

一切如來 니 르 거 시 나 菩薩이 니르거나 聲聞이 니르거나 (월석 18:49)

디 나 거 신 諸佛도... 衆生 위<sup>하</sup>야 諸法을 불어 니르더시니 (석보 13:50)

더 부터 滅度<sup>하</sup>거신디 甚히 오라고 머니 (월석 14:7)

「-거시니-」: ㅅ터위를 글월 보내야 潛隱<sup>흔</sup> 노물 기 들 오 거 시 니 오 =  
幾回書札待潛夫 (두언 21:3)

姪女 | 조좁더니 深谷深山애 언마 저 프 거 시 노 (천강곡 상, 기 123)

현맛 부테 加趺坐 | 어 시 노 (월석 7:25)

6. 그러나 「-거-」와 「-으시-」는 그 자리를 바꾸는 일도 있다.

「-으시거-」: 阿闍世王이 오 시 거 나 彌勒이 下生<sup>커</sup> 거 시 나 하 면 (석보 24:6)

德 일우산 行이 하 마 妙코 圓 하 시 거 니 어뵈던 魔事 | 이시리오 = 成



德之行이 既妙而圓하시거니 烏有魔事ㅣ리오 (법화 7: 105-6)

7. 「-거시-」가 높임을 나타내지 않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에 높임을 나타내려면 「-으시-」를 겹치게 된다. (p. 688, 그리고 p. 927 「-으려시-」 참조)

8. 「-습-」이 「-거-」에 앞설 수 있다.

像은 ㅁ틀씨니 부텃 양즈를 ㅁ득시거 그리습거나 땡ㅁ습거나 흘씨라 (월석 2: 66)

七寶로 일우습거나 구리어나... 뵈와로 佛像을 꾸미스바도 (석보 13: 52)

一切天과 ...人非人等이 다 모다 길 잡습거나 미조쥌거나 하야 느려 오시더라 (월석 21: 203)

9. 「-으리-」도 「-거-」에 앞서는데, 이 경우에는 /ㄱ/이 탈락한다. 그러나 「-리어-」는 「-려-」로 축약되지 않으니, 이로써 「-으리-」와 「-아/어-」의 연결인 「-으려-」와 구별된다.

大慈悲駕駕鳥와 ...내 몸이 正覺 나래 마조 보리어다 (월석 8: 87, 가 244)

그되내 머리셔 ㅁ비 오난마룬 如來入 舍利는 몸 나소리어다 (석보 23: 54)

반득기 아로미 업스리어니 엇테 마시라 일흠하리오 = 必無所知하리어니 云何名味리오 (능엄 3: 28)

내흘 디러셔 萬里를 보리어니 엇테 구퇴여 欄檻을 땡꼴리오 = 臨川視 萬里 何必欄檻爲 (두언 6: 44)

네 法身이 그치 업소매 헝가지리어니 그 ㄴ 無生法忍을 닷가 證하리오 = 汝法身이 同於斷滅하리어니 其誰ㅣ修證無生法忍하리오 (능엄 1: 90)

녀느 弟子들히... ㅁ츰ㅁ장 모다 스랑하야도 쯔 모르리어며 辟支佛이... 스랑하야도 저고마도 모르리어며 (석보 13: 42)

이 經 디닐 사르미 이 觀門에 들면... 그지업슨 ㅁ들 다 알리어며

이 經 니를 사르미 이 觀門에 들면... 상네 正호 法輪을 轉하리라=

持是經者ㅣ入此觀門하면... 會盡無量義하리어며 說是法者ㅣ入此觀門하면... 常轉正法輪하리라 (금강삼가 5: 37-8)

10. 「-습-」, 「-으시-」가 「-으리어-」에 앞설 수 있다.

「-스블리어-」: 城 안헛 사르미 다 와도 (부텃 棺을) 묻 드스블리어니 너희 어느 드스불따 (석보 23: 23)

「-으시리어-」: 모론 山林에 거시나 ㅁ스미 魏闕에 들이시리어니 能히 값간이나 安樂하시려 = 身處山林하시나 心懸魏闕이어니 能暫安樂乎아 (법화 5: 11)

11. 「-으리어시-」 형이 있으나, 이것은 주체높임이 아니다. (p. 687-8 참조)

보물 여희오 各別히 잇는 거시면 받득기 누네 뵈디 아니하리어시니... (능엄 2: 82)

12. 이상은 「-거-」가 일반적 맺음씨끝과 결합된 어형들인데, 「-거-」는 불구적 맺음씨끝과 결합되는 일이 많다. (「-아/어-」의 경우와 한가지다. →p. 928 이하)

「-거+(시)+늘」

닐호니 모미 맞거늘 京觀을 땡ㅁ르시니 (용 40장)

寂寂호미 일후미 긋거늘 엇테 法身이라 일흠 지하노 (월석, 서: 5)

蓮花入 고지 나거늘 世尊이 드되샤 (월석 2: 34)

建義臣을 할어늘 救호디 몸 사르시니 (용 104장)

君命엿 바오리어늘 뎡 겨퇴 엇마ㅁ시니 (용 44장)

저근 果ㅣ實 아니어늘 權으로 땡ㅁ르샤 (법화 3: 83)

無憂樹入 가지 절로 구버 오나늘 夫人이 올흔 소노로 가질 자브샤 (월석 2: 36)

畦丁이 籠을 지여 오나늘 感嘆하야 온 헤아롬 그들 뉘우노라=畦丁 負籠至 感動百慮端 (두언 16: 69)

「오-」 밑에서 「-거늘」이 쓰이기도 했으니, 「오나늘」과 「오거늘」은 임의로 변동되었던 모양이다.

새들히... 오거늘 보코 (월석 23: 76)



네 가 妻子를 마자 오거늘 (두언 8:40)

舍利를 白馬에 시려 나오거늘 만나아 (월석 2:66)

이 衆生이 지순 惡業을 果感호되 해언댄 당다이 惡趣에 떠러디리아

늘 이 眷屬이 爲호야 聖因을 닛곤 다스로 이 곤흔 한 罪 다 消滅호

리니 (월석 21:104)

아바님 病 重호샤 藥을 묻호습거늘 목숨 버려 救호스븄시니 (월석 21:212, 기 427)

왕이 맞드려 갓가비 호거시늘 (夫人이) 솔보디 (월석 2:5)

님그미 올어시늘 赴援設疑호샤 (용 33장)

부테 迦維衛國에 오나시늘 大愛道 | 머리 좇스바 (월석 10:16)

▽「오-」에는 「-거-」가 연결되는 일도 있다.

느려오실 부터는 寶階를 타 오거시늘 大王이 조쥌니 (월석 21:188-9)

나랏 百姓이 부터 오시거늘 바라습고 (월석 10:6)

이 곤흔 말 니르시거늘 보습고 (법화 4:132)

▽「거시-」~「-시거-」는 임의로 변동된다.

「-거+(시)+든」

四方에 여덟곰 버려 잇거든 帝釋이 가온더 위두호야 잇느니라 (월석 1:31)

光明이 비취어든 들니시며 (월석 2:59)

聖王 서실 나래 술위 느라 오나든 그 술위를 두샤 나라해 다 들내  
실썩 (월석 1:19)

나할 헤여 반드기 주그리어든 그 形이 化티 아니호야셔 (능엄 9:110)

大衆이... 그를 爲호샤 說法호샤물 보습거든 地上大衆은... =大衆이  
見... 爲其說法호습거든... (원각, 상 1-2:45)

諸佛이 다 그 녀글 向호야 說法호거시든 一切佛法을 다 能히 바다  
디니며 (석보 19:22)

부테... 法을 불어 니르시거든 衆生이 類를 조차... (법화 3:44)

西에 오나시든 東鄙 바라스븄니 (용 38장)

「-거+(시)+니마른」

일홈도 엿건마른 구쳐 法身이라 호니라 (월석 2:53)

이곤흔 妙體는 사르미 本來 뒷건마른 오직 龜濁흔 欲惡의 더러여  
마료물 爲홀 삭르밀썩 (법화 4:18)

내그에 모딜언마른... 罪를 니저 다시 브려시니 (용 121장)

내 得흔 智慧는 微妙호야 第一이언마른 衆生이 諸根이 鈍호야 (석보 13:57)

그디내 머리셔 궂비 오난마른 如來入 舍利는 묻 나소리어다 (석보 23:54)

하늬 險은 막츠매 難히 셔리언마른 罽門에 어느 다시 디나가리오  
=天險終難立 柴門豈重過 (두언 7:9)

天子 | 恩澤이 하거신마른 蒼生은 ㄴ장 寂寥호도다 =天子多恩澤 蒼  
生轉寂寥 (두언 20:47)

耶輸 | 올어신마른 帝釋은 뜯 달아 (천강곡 상, 기 56)

문즈오매 正흔 答 아니어신마른 또 標호야 本을 사막시고 =未爲正答  
所問이언마른 且要標之호야 (원각, 상 2-1:15)

「-거+(시)+니와」

네 모매는 호마 바튼 추미 구슬 ㄴ의요물 보앳거니와 네 아자비는  
어느 말미로 머리터리 옷 ㄴ터리오 =汝身已見唾成珠 汝伯何由髮如漆  
(두언 8:31)

녀나른 法化는 내종내 權乘에 걸어니와 이 經 바다 디니면 佛道를  
썰리 得호리라 (법화 4:145)

二乘이 비록... 모들 스나 오히려 野干이어니와 世尊이사 이 眞實入  
師子 | 라 (남명, 하:38)

諸聲門衆은 다 滅度 | 아니어니와 너희 行호미샤 이 菩薩道 | 니 (법화 3:51)

처섬브터 마초뻬 證호야 가져 오나니와 位에 올라 機를 도르혀샤...  
=從頭勘證將來어니와 轉位廻機호야샤... (금강삼가 2:57)



百年 後에 부텨 낚치 비웃 시면 當來에 罪를 어드리어니와 出家한  
은 功德은... (월석 23:77)

翡翠를 蘭苕入 우회 안갓거든 시후 보리어니와 고래를 碧海入 가온  
더 가 더 잡디 몬하리라=或看翡翠蘭苕上 未掣鯨魚碧海中(두언 16:12)  
부터는 煩惱를 떠러버리실찌 죽사릿 受苦를 아니하거시니와 상넛  
사르문... (월석 1:12)

우원 조 宗을 標하시고 묻조오물 對答 아니어시니와 이제 알면...  
=上엔 且標宗하시고 未爲酬問이어시니와 후에... (원각, 상 1-2:125)

如來와 聖王과 그 相오론 곧 毫釐마도 어긋요미 업스시거니와... (금  
강삼가 4:63)

▽「-으시-」와 「-거-」는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

「-거+ㄴ덴」(불구적이아니나, 「-ㄴ덴」과의 대조로 여기 둔다.)  
울워러 聿追를 스랑하건덴 모로매 일 막조 일우스보물 몬져 흠디니  
=仰思聿追건덴 必先述事니 (월석, 서:16-7)

子細히 니르건덴 十二因緣法이오 멀테로 니르건덴 四諦法이니 (월  
석 2:22의 2)

이 衆生의 지순 惡業을 果感호물 혜언덴 당다이 惡趣에 떠러디리어  
늘 (월석 21:104)

釋迦入 分身이 가즐비습건덴 혼 燈이 百千燈 혜듯하샤 (법화 4:121)

「-거+ㄴ덴」(→p.543)

일로 헤여 보건덴 므슴 慈悲 거시거노 (석보 6:6)

「-거+(시)+ㄴ덴」(→p.580)

方便으로 涅槃 나토건덴 實은 滅度 아니하노라=方便으로 現涅槃이언  
덴 而實은 不滅度라 (법화 5:105)

伽耶入 化는 特別히 機를 爲하샤 受하산 命이어신덴 性에 마조닌  
그지업스신들 앞에 하실찌 (법화 5:125-6)

그럴찌 聖人이 機를 對하샤 延促을 毘시건덴 本來 延促 업스니라  
(법화 5:88)

▽「-거-」와 「-으시-」는 자리바꿈을 할 수도 있다.

## (2-2) 「-가/아-」

13. 「-거-」의 1-인칭 대응의 변형으로 생각되는 「-가/아-」(→p.800 이  
하)도 강조를 나타내는 점으로는 「-거-」와 한가지다.

14. 다른 안맺음씨끝과 결합되지 않은 경우.

「-가니」: 내 仁義禮智信을 아라 行하가니 너를 恭敬호미 맛당티 아  
니하니라 =我ㅣ 解行仁義禮智信하가니 不恭敬爾라 (금강 20-1)

나는 내 어미 나혼 ㅁ외를 뒷가니 이 하야 므슴하료 (남명, 상:31)

「-가라」: 이는 恩을 알아라 하니야 恩을 갑가라 하니야 =是는 知恩耶  
아 報恩耶아 (몽산 31)

絃와 冕을 므면히 너구메 關係호미 아니라 오직 이 風塵을 避카래  
니라 =不關係絃冕 但是避風塵 (두언 20:26)

▽「-가래니라」의 해석은, 다른데 이러한 용례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하  
기 어려우나, 시김법의 「-가라」에 잡음씨가 연결된 것으로 생각된다.

「-간」: 이 사르문 如來를 頂戴하간디라 (월석 17:36)

이는 내의 사오나온 德을 나토간디니라 =是는 彰孤之不德也ㅣ라 (내  
훈, 2상:31)

▽「-다-」는 「ㄷ+이」의 줄임이다. (→p.289)

그리고 「-간」 형은 인칭에 관계없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15. 「-습-」이 「-가-」에 앞설 수 있다.

도하실찌 내 親히 저습고 香 뽕우습가니 부텨디 信티 아니하승불려  
(월석 23:88-9)

16. 「-으니-」는 「-가-」에 ㅁ따른다.

몇디위를... 胡床에 앉가니오 =幾廻... 坐胡床 (두언 18:23)



엇데 搖落호물 相對호엿가니오 =如何對搖落 (두언 6:31)

感動호야 몇버늘 시르물 술아니오 =感動幾消憂 (두언 24:22)

오직 다룬 ㅁ울히 와 잇노니 어딿 사르미아니오 =只在他鄉何處人 (두언 8:14)

더위자바 녀매 몇 격지를 들워 브리가노 =扶行幾屐穿 (두언 20:2)

췌 疎拙호니 췌 엿던 사르미아노 =謀拙更何人 (두언 11:1)

17. 「-시-」가 뒤따르기도 하나, 여기 보이는 예들에 있어서는 이 「-시-」는 주체높임의 형태소가 아니다. (→p. 687)

내 ...病緣을 여희엿가시니 엿데 오늘 므득 ㅁ슴 알포미 나거노 =我  
...久離病緣커시니 云何今日에 忽生心痛커노 (능엄 5:72)

18. 「-거-」의 경우와 같이, 불구적 맺음씨끝에 앞서는 일이 있다.

「-가늘」

담 우호로 흐린 수를 남가늘 듯 펴고 긴 흐르는 므를 구버 안조라  
=牆頭過濁膠 展席俯長流 (두언 22:4)

「-간마른」

길히 머러 가다가 泥滯홀가 저허 스랑칸마른 興이 기퍼 ㅁ츠매 고  
티디 못호노라 =路遠思恐泥 興深終不渝 (두언 16:64)

靑眼으로 보간마른 오직 길히 窮迫호애라 =靑眼只道窮 (두언 8:61)

이제 므득 본바다 이 解를 땡졸안마른 그러나 ㅁ든 잇고 지죄 업서  
(법화 1:9)

「-가니와」

내 命 그추미사 ㅁ더니 녀기가니와 ...이 네흘 못 보아호노라 (월석 10:4)

내 眞實로 宮中에 사름 잇는 주를 알아니와 오직 婦人의 남편 섬교  
된 삼가디 아니호미 못호리며 (내훈, 2하:48-9)

19. 이 어형에 「-으시-」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원래 「-가-」는 1-인칭

임자말에 응하는 씨끝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2-3) 「-게-」

20. 「-아/어-」에 대한 「-애/에-」가 있듯이, 「-거-」에 대해서는 「-게-」가 있는데, 이 밑에서는 「-다」가 「-라」로 변동하는 점도 「-애/에-」의 경우와 한가지다. (→p.930) 그러므로 「-게-」도 「-거-」의 단순한 변이 형태로는 보아지지 않는다.

봄 興에 아디 묻게라 물읷 몇마릿 그를 지스니오 =春興不知凡幾首  
(두언 22:16)

「묻게라」는 「\*못호게라」의 준 어형이다. (→p. 464)

21. 「-애/에-」에 「-으이-」가 뒤따를 수 있듯이, 「-게-」에도 「-으이-」가 뒤따를 수 있다.

아디 묻게이다 和尚은 므스 이틀 호라 호시느니잇가 =未審케이다 和  
尙은 教作何務잇고 (육조, 상:8)

아디 묻게이다 이 사르미 智慧功德이 畢竟에 어느 地位에 니를리잇  
고 =未審此人的 智慧功德이 畢竟에 至何地位잇고 (원각, 하 3-2:69)

22. 「-게-」는 「-몬(호)-」 밑에서 쓰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 (2-4) 「-것-」

23. 「-아/어-」 계에 「-엿/엿-」이 있듯이, 「-거-」 계에는 「-것-」이 있는데, 다만 「\*-것-」이 되지 않는 점이 다를뿐, 「-게-」를 한층 더 강조하는 점은 「-엿/엿-」과 한가지다. 그리고 「-엿/엿-」과 같이 그 용례가 극히 드물다.

斗牛星 브라오몬 호갓 잇비 호것다 龍泉劔 파내을 헤유미 업세라  
=徒勞望斗牛 無計斷龍泉 (두언 21:42)

저믄 사르미 즐규물 속절업시 보것다 춤논 ㄴ뽀리 호마 오시 것느



다 = 謾看年少樂 忍淚已霑衣 (두언 11:30)

×

×

×

24. 「-아/어-」 계와 「-거-」 계에 속하는 형태소들은, 그 형식에 있어 서로 비례적으로 대응된다.

「-아/어-」: 「-애/에-」: 「-엿/엇-」

「-거-」: 「-게-」: 「-것-」

그리고 「-엿/엇-」, 「-것-」은 「-다」 앞에서만 쓰이는 것이 특색이다.

25. 「-엿/엇-」과 「-것-」은, 끝소리 「ㅅ」으로써 「-애/에-」와 「-게-」를 한층 더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 보이는 안맺음씨끝들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 (3) 「-도-」 계

1. 감동(느낌)의 뜻을 나타내는 「-도-」 계에는, 「-도-」, 「-두-」, 「-뚝-」의 세 형태가 있는데, 「-두-」는 「-도-」의, 드물게 나타나는 임의 변이형태로 볼 수 있다.

#### (3-1) 「-도(두)/로-」

2. 잡음씨와 「-으리-」 밑에서는 「-로-」로 변동한다. (「-로-」로 변동하면 「-오/우-」의 변이형태인 「-로-」(→p. 631)와 구별되지 않으나, 맺음씨끝 「-다」의 변동 여부로 구별된다. (「-로라」: 「-로다」)

내 地藏 威神力을 보니 恒河沙劫에 다 닐우미 어렵도다 (월석 21: 172)

여섯 하늘래 그디 가 들 찌비 불씨 이도다 (석보 6: 35)

5) 강조-영탄법 (3) 「-도-」 계

果와 因과 어둡디 아니호도다마른... = 果因이 不昧로다마른... (금강삼가 2: 72)

遊絲 | 머므렛도다 = 駐遊絲 (두언 6: 6)

호오사 平床이 뷔엿도다 = 獨空牀 (두언 18: 6)

恭敬호습는 法이 이러흔 거시로다 호야 (석보 6: 21)

네 업던 이리로다 (월석 1: 14)

親호미 쉽디 아니홈 아니로다 (남명, 하: 14)

3. 「-두다」는 「-도다」의 임의변이형으로 보아지나, 그 용례는 매우 드물다.

애와터 앓점직 호두다 = 爲可歎惜矣로다 (능엄 3: 116)

如失乳兒 | 忽遇慈母 忽 호두다 = 젓일흔 아히 든득 慈母 맛남 론도다 (능엄 2: 1)

고려가요에도 이 용례가 보인다.

西窓을 여러호니 桃花 | 發 호두다 (악장가사, 만전춘)

4. 「-도-」 앞에는 안맺음씨끝 「-으시-」, 「-습-」, 「-으리-」가 앞설 수 있으며, 「-뚝-」과 연결되어 감동의 뜻을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내기도 한다.

「-으시도-」: 브디 기프시도다 = 意玄이로다 (금강삼가 5: 21)

도록혀 靑山ㅅ 더 ㅁ새 向호시도다 = 却向靑山更那邊 (금강삼가 5: 26)

「-습도-」: 오직 그 자취를 보습도다 = 但見其跡이로다 (법화 5: 130)

「-으리로-」: 사름 브려 닐어사 호리로다 (석보 6: 40)

罪苦ㅅ 이룬 츠마 몬 니르리로다 (월석 21: 56)

내 그디를 몬 미즈리로다 (석보 11: 34)

「-뚝도-」: 구름 썬 ㅁ룩매는 畵비치 軒檻애 오르뚝도다 = 雲江月上軒 (두언 8: 25)

5. 「-으리로-」 앞에는 다시 안맺음씨끝 「-으시-」, 「-습-」, 「-아/어-」가 앞서는데, 「-아/어-」와 「-도-」가 결합되면 강제-감동의 뜻이 더 강조된다.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으시리로-」: 俗論이 업스시면 語行이 절로 正하시리로다 = 無復俗論하시면 則語行이 自正이샀다 (법화 5: 37)

「-스블리로-」: 사르미 시르플 시름하시논 調御入 德을 이에 보스블리로다 (월석 17: 19)

「-어리로-」: 眞實로 그스기 化하시다 닐어리로다 (월석 13: 44)

6. 「-도-」 뒤에는 안맺음씨끝 「-소-」가 올 수 있는데, 「-도소-」의 연결은 감동의 뜻을 한층 더 강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尙書의 功業이 千古入 사르미게 進내뵈도소니 荊州를 雄히 놀려쇼물 내 한아비를 니섯도다 = 尙書勲業超千古 雄鎮荊州繼吾祖 (두언 25: 48)

모매 羅와 錦綺를 뵈도소니 얼굴 지스며 양즈 지수미 ... = 身披羅綿綺로소니 做模打樣이... (금강삼가 4: 55)

靑冥에 또 제 모뎀 가졌도소니 보드라와 고들과 서르 더위자밧도다 = 靑冥亦自守 軟弱強扶持 (두언 18: 11)

흔 노미... 길홀 조차 오더 또 하나히로소니 우리들히 이 노물 자뵈면 (월석 10: 28)

이우젯 사르미 또 하마 다 아니로소니 미헛 대웃 하올로 기렛도다 = 隣人亦已非 野竹獨脩脩 (두언 6: 44)

7. 「-도소-」 다음에는 다시 안맺음씨끝 「-으니-」, 「-으니-」가 올 수 있다.

「-도소니-」: 아래 이 無<sub>0</sub> 字도 사기도소니야 = 曾切着者箇無<sub>0</sub> 字야 否아 (몽산 60)

趙州入 프든 果然 그러하도소니야 아니하도소니야 = 趙州意는 果如是아 不아 (몽산 56-7)

또 니르라 막츠매 엇더하도소노 = 且道하라 畢竟에 如何<sub>0</sub> 토소노 (몽산 52)

「-도소이-」: 天女를 보진댄 내 겨지비사 눈 먼 獼猴 곤도소이다 (월석 7: 12)

太子 | 그런 사르미시면 이 이리 또 어렵도소이다 (월석 21: 216)

내의 스랑하야 헤요댄 마디니 根 쏘배 수멧도소이다 = 如我思忖엔 潛伏根裏하도소이다 (능엄 1: 56)

이 일후미 미요미로소이다 = 此名爲結이로소이다 (능엄 5: 18)

세 고디 아니로소이다 = 非三處 | 로소이다 (능엄 1: 63)

이젯 陛下入 말스미 곧 넷 사르미 막스미로쇠이다 (내훈, 2하: 44) = 今陛下之言이 即古入之心이로소이다 (내훈, 2하: 24)

「-로쇠이다」는 「-로소이다」의 역행동화 어형이다.

8. 「-도소-」 앞에는 「-으리-」, 「-으시-」가 올 수 있다.

「-으리로소-」: 네 이런 윈 일들히 녀느 일흠 사름 곤호물 값간도 묻 보리로소니 오늘브터 後엔 나흔 아들 마티 호리라 (월석 13: 25)

현맛 劫을 더난디 모르리로소니 眞實로...헤디 못하리라 (월석 14: 9)

「-으시리로소-」: 이 世界엔 千佛이 나시리로소니 이 劫 일후트란 賢劫이라 하져 (월석 1: 40)

9. 이런 안맺음씨끝들이 「-도소-」의 앞뒤에 동시에 연결되는 일도 많다.

「-으리로소이-」: 내 이제 아니 오라 주그리로소이다 (월석 21: 22)

우리들히 이 노물 자뵈면 사름 옷바비사 닐굽 뉘라도 굿디 아니하리로소이다 (월석 10: 28)

어제 그딿 마를 드로니 막스매 來往하야 닛디 못하리로헛다 (내훈, 2하: 37)

「-리로헛다」←「\*-리로쇠이다」←「-리로소이다」.

「-스블리로소이-」: (어마니물) 地獄애도 묻 보스블리로소이다 (월석 23: 81)

「-으시로소이-」: 出家하시면 正覺을 일우시리로소이다 (월석 2: 23)

「-으시도소이-」: 넷 法을 조츠샤미 맛당하시도소이다 = 宜依舊典이로소이다 (내훈, 2상: 49)

「-으리로소니-」: 天龍鬼神을 네 數를 알리로소니여 모르리로소니여 (석보 11: 4)



네 數를 알리로소녀 (월석 21:14)

「-으리로소니이-」: 어마니물 아라보리로소니잇가 (월석 23:86)

### (3-2) 「-dot-」

10. 「-도-」보다 덜 쓰이나, 감동-강조를 나타내며, 「-으시-」를 앞세우고, 「-더(이)-」를 뒤따르게 할 수 있다. 「-dot-」은 「ㅅ」을 가진 다른 강조 형태소와 같이 「ㄷ」앞에서만 쓰인다.

書生은 ㅎ마 銘을 사기dot다 = 書生已勒銘 (두언 24:62)

글워를 더더 鶴鵠을 뵈dot더라 = 拋書示鶴鵠 (두언 8:39)

새 그를 어제 브터 보내dot더라 = 新詩昨寄將 (두언 23:29)

어마니미... 날마다 五百僧齋 ㅎ시dot더이다 (월석 23:74)

### (4) 「-노-」 계

1. 「-도-」 계에 「-도-」와 「-dot-」이 있듯이, 「-노-」 계에는 「-노-」와 「-dot-」이 있는데, 두 계열의 뜻은 같으며, 「ㅅ」은 한층 더 강조함을 나타낸다.

#### (4-1) 「-노-」

2. 다른 안맺음씨끝을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예는 드물고, 「-으시-」, 「-습-」을 앞세우고, 「-조(이)-」를 뒤따르게 하는데, 「-노소-」의 연결은 영탄의 뜻이 더 강하다.

쁜 龍이 긴 늘이 지엿노다 = 浮龍倚長津 (두언 22:28)

▽중간책에는 「-도다」로 고쳐져 있다.

「-노소-」: 짓드려 제 모뎡 守하디 ㅁ하노소니 ㅁ쑤 브르미 부느니 엿  
데 ㅎ리오 = 摧不自守 秋風吹若何 (두언 18:10)

「-으시노소-」: 西方에 聖人이 나시노소니 (월석 2:49)

「-노소이-」: 도즈기 太子로브터 나노소이다 (내훈, 서:5)

「-으시노소이-」: 諸佛이... 一乘道에 맛당을 조츠샤 세흘 니르시노소  
이다 = 於一乘道에 隨宜說三ㅎ시노소이다 (법화 2:259-60)

「-습노소이-」: 一切 善根이 ㅁ자 無上心을 ㄷ습노소이다 = 一切具善根  
ㅎ야 以助無上心이로소이다 (법화 5:185-6)

### (4-2) 「-dot-」

3. 「-노-」의 강세형이며, 「ㄷ」앞에서만 쓰인다.

이 男子ㅣ 精誠이 至極홀췌 보빅를 아니 앓기dot다 (월석 1:11)

이 사르미 苦行호뎡 能히 이리ㅎ야... 쯡무딧 우희 겨를 구버 ㄷ  
다 (월석 9:35 중)

네 오히려 아디 ㅁ하dot다 = 汝猶不知로다 (능엄 3:77)

다오매 쉼리 가dot다 = 驟趨於盡也ㅣ로다 (능엄 2:7)

▽한문 본문의 토에는 「-도-」를 쓰고, 번역문에는 「-dot-」을 쓴 것을 보면  
이 두 형태소의 뜻이 별로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賢臣의 버스리 ㄷdot다 = 賢臣官則尊 (두언 24:2)

자바 버효뎡 해 소내 ㅁdot다 = 操割紛應手 (두언 8:4)

四時에 속절업시 퍼런 ㅁ늘홀 자바 ㅁdot다 = 四時에 空把靑陰布ㅣ로다  
(남명, 하:34)

ㅁ쑤 한아비들히 ㄷnidot다 = 走村翁 (두언 6:32)

▽「-dot-」의 용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예는 「ㄷnidot다」  
의 오기로 생각된다.

「-으시dot-」: 부테... 父王入 棺을 손소 메스보려 ㅎ시dot다 (월석 10:12)

님그미 長卿을 ㅁ르시dot다 = 君王問長卿 (두언 21:14)

「-습dot-」: 萬國入 衣冠하닌 冕旒를 ㄷ하습dot다 = 萬國衣冠拜冕旒 (두언  
6:5)



4. 「-뫼-」에는 「-도-」가 뒤따라 겹쳐지는 일이 있는데, 이 어형은 감  
등을 더욱 세게 표현해 준다. (→p. 945)

#### (5) 「-다-」 계

1. 느낌 영탄을 나타내는 접, 「-도-」, 「-노-」 계들과 한가지이며,  
「ㅅ」을 붙여 뜻을 한층 더 강조하는 점도 앞의 여러 형태소들과 같다.

##### (5-1) 「-다/라-」

2. 반드시 영탄의 안맺음씨끝 「-스(이)-」와 연결되어서 쓰이며, 「-으  
시-」, 「-으리-」를 앞세울 수 있는데, 「-으리-」 뒤에서는 「-라-」로 변동  
한다.

「-다스이-」: 쉬닌 時節을 보전댄 번득히 强壯<sup>하</sup>다스이다 = 觀五十時  
전 宛然强壯<sup>하</sup>다스이다 (능엄 2: 6-7)

주거 化樂天宮에 나시리어늘 天宮에 몸보스보니 도록혀 地獄에 𪛗  
시다스이다 (월석 23: 86)

世尊하 우리 ... 𪛗마 究竟滅度를 得호라 𪛗다소니 오늘샤 아로니  
智慧업스니 𪛗다스이다 = ... 今乃知之호니 如無智者<sup>하</sup>다스이다 (법화 4:  
36)

「𪛗다소니」도 비슷한 형태로 보이지만, 이 「-다-」는 1-인칭 입자말에 응  
하는 「-더-」의 변이형이다. (→p. 792)

내 本來ㅅ 𪛗스믈 일호니 비록 모미 出家<sup>하</sup>나 𪛗스미 道애 드디 𪛗  
호미 가즐비전댄 艱難<sup>하</sup> 子息이 아비 𪛗리고 逃亡<sup>하</sup>야 감 𪛗다스이  
다 = 失我本心호니 雖身出家<sup>하</sup>나 心不入道호미 譬如窮子 捨父逃逝<sup>하</sup>다  
스이다 (능엄 1: 92-3)

내 𪛗던 이리 𪛗히 𪛗다스이다 (석보 24: 18)

「-으시다스이-」: 그러면 부테 實로 大乘으로 教化<sup>하</sup>시다스이다 (월석  
13: 36)

부터... 우리... 聲聞弟子 𪛗라 𪛗시다스이다 = 佛... 而說我等이... 聲  
聞弟子 𪛗라 𪛗시다스이다 (법화 2: 246)

이논 우리 허므리라 世尊ㅅ 다시 𪛗시다스이다 = 是논 我咎 𪛗라 非  
世尊也 𪛗시다스이다 (법화 2: 5)

이제 부텃 音聲 듣조오니... 한 사르ㅅ로 道場애 니를에 𪛗시다스이다  
= 今聞佛音聲<sup>하</sup>스오니... 令衆至道場이시다스이다 (법화 2: 22)

「-으시리라스이-」: 𪛗다가 우리 큰 法 즐기는 𪛗스미 잇던댄 부테 우리  
爲<sup>하</sup>야 大乘法을 𪛗시리라스이다 (월석 13: 36)

부테 날 爲<sup>하</sup>샤 大乘法을 𪛗시리라스이다 = 佛則爲我<sup>하</sup>샤 說大乘法<sup>하</sup>  
시리라스이다 (법화 2: 231)

##### (5-2) 「-닷/랏-」

3. 「-엿/엿」, 「-꺄-」, 「-뫼-」, 「-뫼-」들과 같이 「ㄷ」 위에서만 쓰이  
며(여기에서는 「-다」 앞에서만 쓰이고 있다), 「-다-」보다 더 한층 강조  
된 형태소이다. 그리고 잡음씨와 「-으리-」 뒤에서는 「-랏-」으로 변동하  
는 점은 「-다-」, 「-도-」와 같다.

우리들히 요스시에 大師 겨신 𪛗할 모르다니 忉利天에 𪛗시닷다 (월  
석 21: 201)

허므리 實로 내게 잇닷다 = 咎實在我 𪛗랏다 (법화 2: 6)

장츠 나비 𪛗다 너기다니 쯔 나비 거므니 잇닷다 = 將講猴白이라니 有  
猴黑이랏다 (금강삼가 4: 22)

朝參 게을이호믈 𪛗모 怪異히 너기다니 𪛗헛 興趣 기루믈 당당이  
貪<sup>하</sup>닷다 = 頗怪朝參懶 應耽野趣長 (두언 15: 12) <주> 此는 言我 𪛗 常怪  
將軍의 懶於朝參<sup>하</sup>다니 乃耽野趣故 𪛗랏다

어젯 바미 𪛗름과 비 셨로믈 도록혀 스랑호니 이 蒲城에 鬼神이 드  
닷다 = 反思前夜風雨急 乃是蒲城鬼神入 (두언 16: 30)

勇猛<sup>하</sup> 謀略은 이제 어디 잇느니오 그저기 쯔 壯盛<sup>하</sup>닷다 = 勇略今何



在 當年亦壯哉 (두언 14: 6-7)

우리들히 스×× 겨신 싸흘 모루다니 忉利天에 겨시닷다 (석보 11: 11)

「-으시닷-」: 如來 恩惠를 아루샤 …父母 孝養하시닷다(월석 21: 208)

「-으리랏-」: 岩頭옷 아니런든 德山人 喝을 몬 알리랏다 (몽산 32)

그딕옷 나그내를 스랑티 아니하더든 그몸나래 또 시르물 더으리랏다 = 非君愛人客 晦日更添愁 (두언 15: 31)

「-으시리랏-」: 하다가 내 큰 法 즐기던엔 오로 맛디샤미 오라시리랏다 = 若我 樂大하던엔 則全付 久矣시리랏다 (법화 2: 231-2)

## (6) 「-샤-」 계

1. 주체높임의 안맺음씨끝 「-으시-」의 강조-영탄형은 「-샤-」, 「-샷-」인데, 이것은 「시」와 「\*아, 앓」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앓」이란 형태소가 또 하나 생겨나는 결과가 되므로 여기에서는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 (6-1) 「-으샤-」

2. 「-다-」와 같이, 반드시 「-스이-」와 연결되어 쓰인다.

諸衆生을 너비 引導하샤 菩提를 썰리 일우게 하샤시이다 = 廣導諸衆生하샤 令速成菩提케 하샤스이다 (법화 4: 169)

입시웁 비치… 頻娑果 〓 존하샤시이다 = 唇色…如頻娑果하샤스이다 (법화 7: 148)

▽「-시이-」는 「-스이-」의 역행동화 형이다.

3. 「-으시리-」를 앞세우기도 하는데, 이것은, 「-샤-」가 영탄의 표시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으시-」를 겹쳐 주체높임을 분명히 표현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如來도 後에 반득기 煩惱하시리샤스이다 = 如來도 後應煩惱 〓 샤스이다

(원각, 상 1-1: 10)

### (6-2) 「-으샷-」

4. 「-으샤-」의 강조형이며, 다른 「入」 가진 형태소들과 같이, 「-다」 위에서만 쓰인다.

二乘에 머리 견내뛰샤 〓 외야 退轉이 업스샷다 (월석 17: 26)

낫나치 子細히 〓히에 하샷다 = 令一一詳擇也 〓 샷다 (능엄 2: 34)

億千衆을 濟度하시면 그 〓늘히 너브샷다 = …其陰이 廣矣샷다 (법화 3: 46)

키 니서 武威를 가득샷다 = 丕承載武威 (두언 6: 25)

올마 안즈샤 즉재 得하샤미 거의 아니샷다 = 殆非移坐하샤 即得이샷단 (법화 3: 93)

恒沙偈 한디 아니샷다 = 恒沙之偈 〓 不爲多也 〓 샷다 (법화 3: 190)

「-스불샷-」: 먼저 내루샷 經을 어루 다 들즈오샷다 = 先所說經을 可以具聞이샷다 (법화 6: 82-3)

「-으리샷-」: 기피 아루샤 아리브터 마즈시다 어루 술오리샷다 = 可謂深知宿契矣샷다 (법화 4: 70)

「-르샷-」: 天下 〓 定할 느지르샷다, 實位 〓 실 느지르샷다 (용 100장)

5. 「겨시다」의 이 활용형은 「겨샷다」인데, 이것은 「시」가 원래 주체높임의 안맺음씨끝이었기 때문이다.

夫人도 목수미 열들하고 닐웨 기터 겨샷다 (월석 2: 13)

輕重이 次第 겨샷다 = 輕重이 有序矣샷다 (능엄 3: 82)

## (7) 「-소, 스-」 계

1. 앞에 나온 여러 강조-영탄의 씨끝들과 연결하여 그 뜻을 한층 강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소-」, 「-스-」는 단독으로도 영탄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 (7-1) 「-소-」

우리 무른 스식으로 두루 브터 돈녀 世上人 이레 제여곰 艱難호소라  
=吾徒自飄泊 世事各艱難 (두언 15:51)

炎天에 더위 떠는듯 호물 避호소라 =炎天避鬱蒸 (두언 8:9)

患難 하매 便宜히 사디 몰호소라 =多難不安居 (두언 8:43)

네 鳳翔都에 이셔 金閨엿 籍을 다뭇 通호소라 =昔在鳳翔都 共通金閨籍 (두언 7:26)

막스물 퍼 忽然히 臺에 오로소라 =披寫忽登臺 (두언 15:48)

우리 무른 이 다스로 힘니버 시러 지블 울오소라 =開輩는 抵此賴之  
하야 得全其家云호소라 (내훈 3:43-4)

도즈글 수머 흥번 호러나소니 주리며 치우메 기리 서르 브라노다=  
避寇一分散 飢寒永相望 (두언 8:29)

「-소이-」: 우리들토 ...供養호스보려 하야 머리셔 오소이다 (석보 23:53)

▽고려가요의 다음 예도 이 어형의 변형이다.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으라 오소이다 (악학궤범, 동동)

2. 이상 「-소-」를 포함한 모든 예문들은 모두 1-인칭월임이 주목되는 데, 「-소-」는 다시 1-인칭 안맺음씨끝인 「-다-」(→p.788), 「-과-」(→p.796)를 앞세울 수 있다.

「-다소-」: 特進의 빗나물 들히너기디 아니호다소라 =未甘特進麗 (두언 24:30)

秦人 불헤 우루물 모다 議論호다소라 =俱議哭秦庭 (두언 24:6)

미해 수플 아래 馬駛을 밧기다소라 =野稅林下駛 (두언 24:39)

스물히를 조차돈녀 흰히 長安에서 醉호다소라 =追隨二十載 浩蕩長安

醉 (두언 16:18)

우리도... 涅槃에 다드론가 호다소니 오늬날 이 브들 못 아스불리로  
다 (석보 13:43)

내 너교디 호마 究竟滅度를 得호라 호다소니 오늘사 아로니 =自謂  
已得究竟滅度호라 호다소니 今乃知之호니 (법화 4:35-6)

조고맛 精誠으로 피 ㅁ튼 목수물 돕습고져 호습다소니... (상원사 권  
선문)

「-과소-」: 서르 도라본된 아들 업소물 免과소라 =相顧免無兒 (두언  
21:31)

3. 이상에 보인 예문들에 나타나는 「-소-」의 특색을 간추려 보면:

ㄱ. 맺음씨끝 「-다」, 「-으니」 앞에서 쓰여서 모두 1-인칭 임자말에  
응하고 있다.

ㄴ. 「-다」를 「-라」로 변동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오/우-」의 경우  
와 한가지다.

ㄷ. 1-인칭의 안맺음씨끝 「-다-」, 「-과-」와 연결되어서 1-인칭 임자  
말에 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소-」는 다음에 나오는 「-스-」에 1-인칭의 안맺  
음씨끝 「-오-」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원적으로는 분  
명히 그랬으리라 생각된다.)

4. 그러나 「-소-」는 영탄의 안맺음씨끝 「-도-」, 「-노-」와 연결되어  
「-도소-」, 「-노소-」로써 영탄의 뜻을 한층 더 강조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자말의 인칭에는 관련이 없다. (→p.946-8, p.948-9)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소-」를 다시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 (7-2) 「-스-」

5. 극히 국한된 맺음씨끝과 연결이 가능하며, 안맺음씨끝 「-느-」,  
「-아/어-」를 앞세울 수 있다.

5. 안맺음씨끝의 굴곡범주



므스기 圓通이며 므슴 方便을브터 三摩地에 드손다 = 誰爲圓通이며  
從何方便하야 入三摩地하손다 (능엄 5:31)

爲頭 도즈기 무로디 너희들히 므스글 보느손다 (월석 10:28)

너희들히... 느외야 므슴 게을이 마라스라 (석보 23:12)

너희들히 힘빼스라 (석보 23:13)

6. 「-다-」, 「-샤-」와 연결된 「-다스-」, 「-샤스-」는 영탄의 뜻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pp. 950-1, p. 952)

## 6. 씨끝형태소의 연결

씨끝 부분은 여러 형태소가 연결되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앞에서 보아온 바이다. 단순히 맺음씨끝 하나만으로 씨끝 부분을 이룰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앞에 안맺음씨끝이 앞서서, 복잡한 활용형을 만드는 일이 많으니, 여기 그 활용형을 모두 일람표로 만든다.

1. 여기에서는 안맺음씨끝의 결합과, 그것과 맺음씨끝과의 연결을 일람표로 보이기로 하는데, 용례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들어 둔다.
2. 한 맺음씨끝의 몇가지 용례를 들 필요가 있을 때는 [,]를 사이에 두고, 맺음씨끝과 맺음씨끝 사이에는 [/]를 둔다.
3. 「-아/어-」는 「-어-」로, 「-오/우-」는 「-우-」로, 「-으/으-」는 「-으-」로 대표한다.
4. 이 표에 나타나는 활용형들은 필자가 지금까지 모은 문헌에 나타나는 것을 적다 나열한 것이므로, 앞으로 다른 문헌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더 첨가될 어형이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5. 안맺음씨끝은 다음 차례로 배열한다.

①-으히-, ②-으시-, ③-습-; ④-오/우-; ⑤-느-, ⑥-으니-, ⑦-과-, ⑧-으리-, ⑨-더-, ⑩-다-; ⑪-샤-; ⑫-아/어-, ⑬-애/에-, ⑭-엿/엿-; ⑮-거-, ⑯-나-, ⑰-게-, ⑱-것-, ⑲-가-; ⑳-도/두-, ㉑-똥-, ㉒-노-, ㉓-

-똥-; ㉔(-다-), ㉕-닷-; ㉖(-샤-), ㉗-샷-; ㉘-소-, ㉙-스-.

〈풀이〉 i ㉔의 「-다-」는 강조-영탄의 씨끝

ii ( )안의 씨끝은 맺음씨끝과 바로 붙지 않는다.

6. 둘 이상의 안맺음씨끝 겹침의 배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       |         |
|-----|-------|---------|
| 2 1 | 3 2 1 | 4 3 2 1 |
| 3 1 | 4 2 1 | 5 4 2 1 |
|     | ⋮     | ⋮       |
| 4 1 | 4 3 1 | 5 4 3 1 |
| ⋮   | 5 3 1 | 6 5 3 1 |
|     | ⋮     | ⋮       |

7. 맺음씨끝은 다음 차례로 배열한다.

서술법 : ①-다, ②-은더, ③-을써, ④-마

물음법 : ⑤-다, ⑥-고, ⑦-가

시킴법 : ⑧-으라, ⑩-고라, ⑪-고려, ⑫-어써, ⑬-으쇼셔

피임법 : ⑭-저, ⑮-저라

제약법 : ⑯-으니, ⑰-으면, ⑱-을써, ⑲-어, ⑳-거, ㉑-억, ㉒-은대, ㉓-은더, ㉔-은댄, ㉕-ㄴ덴, ㉖-ㄴ던(든), ㉗-던, ㉘-으란더, ㉙-관더(곤더), ㉚-르덴(던), ㉛-든, ㉜-늘, ㉝-라, ㉞-을시언딩(을선딩), ㉟(-사)

불구법 : ㊱-으나, ㊲-어도(라도, 나도), ㊳-고도, ㊴-니와, ㊵-ㄴ마론, ㊶-은들, ㊷-디뵈, ㊸-란더만딩, ㊹-ㄴ딩, ㊺-을쥬딩

나열법 : ㊻-고, ㊼-꼭, ㊽-으며, ㊾-으니~으니,

가림법 : ㊿-으나

의도법 : ㉟-고져, ㉡-과더(과더여), ㉢-겻고(겻고, 췌고), ㉣-웃, ㉤-려, ㉥-으라, (-가, -곳디)

미침법 : ㉦-드록, ㉧-게

전환법 : ㉨-다가, ㉩-으라, ㉪-으락

비교법 : ㉫-곤, -노니

동시법 : ㉬-다가며

설명법 : ㉭-디

비례법 : ㉮-디웃, ㉯-을스룩

흡사법 : ㉰-똥(똥, 똥, 드시, 드시, 디시)

힘줄법 : ㉱-나, ㉲-도

가치법 : ㉳-엄직, ㉴-어만

되풀이법 : ㉵-곰, ㉶-엄

연결법 : ㉷-어, ㉸-거, ㉹-디, ㉺-돌(들, 드란)

이름법 : ㉻-口, ㉼-기 (-디, -돌)

6. 씨끝형태소의 연결



# 1. [-으이-]

- 으이- : ① 업스이다(능엄 4:126), 히이다(능엄 4:126), 나라히이다(월석 8:94), 아니이다(월석 21:38) / ⑥ 프스기잇고(석보 9:35) / ⑦ 싸히잇가(월석 21:24)
- 으시- : ① 올흐시이다(능엄 4:9)
- 더시- : ① 니르더시이다(월석 7:53), 아니러시이다(월석 23:74)
- 어시- : ① 들에 하야시이다(남명, 하:4)
- 우- : ① 니르로이다(능엄 2:6)
- 스보- : ① 오수보이다(월석 8:91)
- 노- : ① 아노이다(능엄 2:4), 몰흐엿노이다(석보 24:26)
- 습노- : ① 브라습노이다(월석 8:4)
- 느- : ① 꼭느이다(월석 8:94), 몰 왓느이다(석보 23:39), 잇너다(←잇느이다, 능엄 4:126)
- 시느- : ① 오시느이다(월석 10:8)
- 습느- : ① 하습느이다(법화 1:165)
- 으니- : ① 올따니이다(용 14장), 종이니이다(월석 8:94), 아니니이다(금강 30) / ⑥ 엿더하니잇고(용 28장), 莊嚴이니잇고(법화 1:66) / ⑦ 득의니잇가(능엄 2:40), 善心이니잇가 아니잇가(법화 7:20-1)
- 으시니- : ① 뵈아시니이다(용 17장), 가수올떠시니이다(법화 4:48) / ⑥ 여위시니잇고(월석 23:87), 光明이시니잇고(법화 1:87) / ⑦ 便安하시니잇가(석보 6:20), 可忍이시니잇가(법화 7:20)
- 스별시니- : ① 기르스별시니이다(월석 10:19) / ⑥ 나스스별시니잇고(석보 11:24)
- 더시니- : ① 업더시니이다(월석 8:82), 悅帝利러시니이다(월석 21:28)
- 스별니- : ① 받스별니이다(용 63장)
- 느니- : ① 일론크니이다(월석 21:46) / ⑥ 보느니잇고(법화 7:158), 냇느니잇고(월석 23:89) / ⑦ 잇느니잇가(몽산 11)
- 으시느니- : ① 니르시느니이다(월석 13:33) / ⑥ 녀시느니잇고(석보 6:23) / ⑦ 아르시느니잇가(석보 6:15)
- 습느니- : ① 넘습느니이다(법화 3:109) / ⑥ 보습느니잇고(법화 1:67)

- 더니- : ① 비더니이다(천강곡 상, 기 86) / ⑥ 니르더니잇고(월석 23:84), 프스기러니잇고(월석 21:28) / ⑦ 겨시더니잇가(월석 18:36)
- 으시더니- : ⑥ 맞다시더니잇고(육조, 상:42)
- 으리로소니- : ⑦ 아라 보리로소니잇가(월석 23:86)
- 과- : ① 세든과이다(석보 24:29)
- 습과- : ① 얻습과이다(월석 13:6)
- 으리- : ① 업스리이다(월석 21:41), 自度ㅣ리이다(육조, 상:32) / ⑥ 이시리잇고(석보 6:5), 搖動이리잇고(능엄 1:110) / ⑦ 뒤 마마리잇가(용 15장), 프다리잇가(용 15장)
- 으시리- : ① 꼭르시리이다(석보 6:24) / ⑥ 나시리잇고(월석 2:11), 有耶ㅣ시리잇고(능엄 4:33) / ⑦ 授記하시리잇가(법화 1:88), 년분이시리잇가(월석 17:77)
- 스별리- : ① 信하수오리이다(<信하수별리이다, 법화 1:166) / ⑥ 아르스별리잇고(석보 24:10)
- 우리- : ① 닐오리이다(월석 21:38) / ⑦ 호리잇가(천강곡 상, 개 121)
- 스보리- : ① 비호수보리이다(석보 6:11) / ⑥ 듣스보리잇고(석보 6:11)
- 어리- : ⑦ 슬바리잇가(천강곡 상, 기 127)
- 더- : ① 존더이다(월석 9:36 중), 서러젓더이다(월석 23:74), 배치러이다(석보, 24:19)
- 으시더- : ① 有拳相하시더이다(능엄 1:98)
- 으시뎡더- : ① 五百僧齋하시뎡더이다(월석 23:74)
- 다- : ① 그리타이다(월석 7:6), 뵈다이다(월석 9:35하)
- 습다- : ① 開示하습다이다(능엄 10:75)
- 사- : ① 一定하사이다(월석 8:96)
- 어- : ① 설뵈이다(월석 2:52)
- 스바- : ① 모르스바이다(월석 21:192)
- 에- : ① 몰래이다(월석 21:53)
- 례(←리+에)- : ① 업스례이다(월석 2:5)
- 거- : ① 빠러더거이다(법화 2:51)
- 게- : ① 아디 묻게이다(원각, 하 3-2·69)
- 소- : ① 오소이다(석보 23:53)
- 도소- : ① 잇도소이다(능엄 2:45), 수멧도소이다(능엄 1:56), 두文殊ㅣ로소이다(능엄 2:59)



- 으리로소이- : ① 너리로소이다(월석 8 : 94)
- 으시리로소이- : ① 일우시리로소이다(월석 2 : 23)
- 스별리로소이- : ① 보스별리로소이다(월석 23 : 81)
- 으시도소이- : ① 맛당하시도소이다(내훈, 2상 : 49)
- 노소이- : ① 하노소이다(능엄 6 : 65)
- 으시노소이- : ① 옮기시노소이다(법화 2 : 47)
- 습노소이- : ① 돕습노소이다(법화 5 : 186)
- 다스이- : ① 곧다스이다(법화 4 : 36), 일터 아니하엿다스이다(법화 4 : 41)
- 으시리라스이- : ① 니르시리라스이다(월석 13 : 36)
- 으시다스이- : ① 니르시다스이다(법화 2 : 246)
- 샤스이- : ① 일우게 하샤시이다(←하샤스이다, 법화 4 : 169), 相이샤스이다(석보 23 : 22), 기샤시이다(←~스이다, 월석 2 : 65)
- 으시리샤스이- : ① 煩惱하시리샤스이다(원각, 상 1-1 : 10)
- ㅇ- : ① 도형다(←도히이다←도하이다, 내훈 2하 : 45), 數千잉다(←이이다, 내훈 2하 : 61), 아녕다(←아니이다, 석보 6 : 16)
- 우ㅇ- : ① 넓게 횡다(←회이다←호이다, 내훈 2하 : 51)
- 노ㅇ- : ① 하녕다(←하너이다←하노이다, 석보 6 : 16)
- 느니ㅇ- : ① 하느녕다(←하느니이다, 석보 6 : 19)
- 다ㅇ- : ① 하댕다(←하대이다←하다이다, 석보 24 : 32)
- 으리로소ㅇ- : ① 몰하리로성다(←~쇠이다←~소이다, 내훈, 2하 : 37)
- 느니(이)- : ⑦ 잇느넛가(←잇느니잇가, 석보 6 : 14)
- 노니(이)- : ⑦ 땡ㄴ노넛가(←땡ㄴ노니잇가, 석보 6 : 16)
- 더시니(이)- : ⑦ 아니 듣즈뻬더시넛가(←~더시니잇가, 석보 6 : 17)

- 노(이다) : ① 볼 솟녀(←솟녀이다←솟노이다, 월석 2 : 45)
- 으니(이다) : ① 꼴ㄴ니(월석 2 : 35)
- 으니(잇가, 잇고) : ⑥⑦ 올하니(천강곡 상, 기 176)
- 으시니(이다) : ① 막츠시니(월석 1 : 2), 일흠이시니(천강곡 상, 기 32)
- 으시니(잇가, 잇고) : ⑥⑦ 엇더하시니(천강곡 상, 기 51)
- 스별시니(이다) : ① 救하수별시니(월석 21 : 212)
- 더시니(이다) : ① 모르더시니(용 119장), 녀시려시니(천강곡 상, 기 136)
- 더시니(잇가, 잇고) : ⑥⑦ 님더시니(남명, 상 : 31)

- 습더시니(이다) : ① 받좁더시니(월석 8 : 78)
- 스별니(이다) : ① 돕스별니(용 29장), 請이수별니(천강곡 상, 기 87)
- 느니(이다) : ① 하느니(용 2장)
- 으시느니(이다) : ① 퍼시느니(월석 14 : 6)
- 으시느니(잇가, 잇고) : ⑥⑦ 오시느니(석보 23 : 40)
- 습느니(이다) : ① 우습느니(용 56장)
- 더니(이다) : ① 업더니(천강곡 상, 기 39)
- 습더니(이다) : ① 기드리습더니(천강곡 상, 기 88)
- 어니(이다) : ① 得하야니(천강곡 상, 기 92)
- 으리(이다) : ① 붓그리리(용 16장)
- 으리(잇가, 잇고) : ⑥⑦ 슬별리(월석 1 : 1)
- 으시리(이다) : ① 일우시리(월석 2 : 18)
- 으시리(잇가, 잇고) : ⑥⑦ 매 모르시리(천강곡 상, 기 43)
- 스별리(잇가, 잇고) : ⑥⑦ 아니 깃스별리(월석 7 : 23)
- 우리(이다) : ① 布施하요리(월석 23 : 65)
- 스보리(이다) : ① 供養하수보리(월석 23 : 65)

### <풀이>

1. 「-으이-」는 「ㅇ」만이 남겨나, 아주 줄어들거나, 또는 맺음씨끝과 더불어 줄어들어 버리는 일이 있다.
2. 맺음씨끝 「①-다, ⑥-고, ⑦-가」만이 이에 뒤따를 수 있는데, 「-고」, 「-가」와는 「-으니-」, 「-으리-」가 앞서 있을 때에 한하여 연결될 수 있다.
3. 모든 안맺음씨끝은 이에 앞선다.

### 2. [-으시-]

- 으시- : ① 보시다(능엄 2 : 57), 부테시다(석보 6 : 18) / ② 니르신더(반야심경 8), 孝道]신더(내훈 1 : 41) / ③ 도하실썸(월석 21 : 222) / ④ 썸트신고(법화 1 : 122), 어니신고(천강곡 상, 기 144); 와 보실고(두언 22 : 9) / ⑤ 엇데 업스신가(천강곡 상, 기 120), 나샤미신가(법화 3 : 106); 나가썸가(천강곡 상, 기 46) / ⑥ 나하시니(월석 21 : 114), 부테시니(월석, 서 : 22) / ⑦ 出家하시면(월석 2 : 23), 그런 사르미시면(월석 21 : 216) / ⑧ 만하실썸(월석, 서 : 16), 사르미실썸(월석 10 : 15) / ⑨



㉓ ㄴᄃᆫ샤(용 1장), 오샤아(용 38장), 사ᄃᆫ미샤(월석 10:9) / ㉔ 안ᄃᆫ신대(석보 6:41) / ㉕ 五陰이신댄(월각, 상 1-1:63) - ㉖ 지스ᄃᆫ관ᄃᆫ(월석 21:18), 사ᄃᆫ미시관ᄃᆫ(월석 23:84), 지스ᄃᆫ시곤대(석보 11:40) / ㉗ 도ᄃᆫ실시어던ᄃᆫ(월석 21:216) / ㉘ 퍼니ᄃᆫ시나(능엄 2:77), 일이시나(월석 1:1) / ㉙ 도ᄃᆫ라오샤도(석보 6:4) / ㉚ 보내신ᄃᆫ(용 15장) / ㉛ 說法ᄃᆫ시디비(석보 13:49), 니ᄃᆫ시디위(법화 2:25) / ㉜ ᄃᆫ시란ᄃᆫ만ᄃᆫ(두언 22:7) / ㉝ 니ᄃᆫ실ᄃᆫ만ᄃᆫ(석보 13:59) / ㉞ 오ᄃᆫ시ᄃᆫ(석보 6:2), 기시ᄃᆫ(월석 21:52), 보시ᄃᆫ아(천강곡 상, 기 43) / ㉟ 구피시ᄃᆫ(능엄 1:108) / ㊱ 안ᄃᆫ시며(월석 2:26), 金스비치시며(석보 6:17) / ㊲ 그치시ᄃᆫ만ᄃᆫ(두언 20:4), 마ᄃᆫ시ᄃᆫ만ᄃᆫ(두언 22:29) / ㊳ 퍼ᄃᆫ시려(법화 5:104) / ㊴ ᄃᆫ시시게(월석 2:10), 구ᄃᆫ시ᄃᆫ(석보 13:35) / ㊵ 가시ᄃᆫ다ᄃᆫ(월석 1:9) / ㊶ 사오나오시ᄃᆫ(영가, 하:69) / ㊷ 나시ᄃᆫ다ᄃᆫ(금강삼가 4:54) / ㊸ 사ᄃᆫ시ᄃᆫ(법화 4:61) / ㊹ \*ᄃᆫ시디(월각, 상 1-1:63) / ㊺ ᄃᆫ신(월석 10:27), 大人이신(금강삼가 4:11) / ㊻ 나실(석보 6:17)

-수분시- : ③ 나사분실씨(월석 21 : 222) / ⑩ 맛나수분시니(월석 2 : 9),  
 점기수오시니(법화 4 : 58) / ⑪ 請하수오시면(법화 4 : 135) /  
 ⑬ 듣조분실씨(월석 18 : 35), 님스오실씨(법화 1 : 114) / ⑮ 돕  
 스오샤(법화 1 : 112) / ⑰ 뵈수분신대(천강곡 상, 기 128) /  
 ⑲ 보수분시고(월석 21 : 204), 듣조오시고(법화 3 : 189) / ⑳ ㉑  
 보수분시며(월석 1 : 52), 돕스오시며(법화 7 : 157) / ㉒ 듣조  
 오신(법화 7 : 67) / ㉓ 孝道하수분실(월석, 서 : 16)

-더시- : ① 외오더시다(월석 8 : 97), 위두ㅎ엿더시다(석보 11 : 17),  
號ㅣ러시다(석보 19 : 29) / ⑥ 뒛더신고(석보 24 : 37) / ⑦ 잇  
더신가(용 88장) / ⑩ 입더시니(용 19장), 나갬더시니(용 49장)  
하나히러시니(석보 13 : 1) / ㉑ 묻더시든(금강삼가 3 : 12),  
問相이러시든(금강삼가 3 : 12) / ㉒ 묻더신(월석, 서 : 20)

-습더시- : ⑬ 길<sub>1</sub>이 습더시니(월석 8:97), 뜰<sub>1</sub>습더시니(능엄 1:78)

-어시- : ① 일워시니(용 21장) / ② 보아시든(월석 2:58) / ③ 퍼두  
퍼시눌(월석 1:16) / ④ 심거시니와(법화 7:32) / ⑤ 하야신  
마룬(법화 2:232)

-스하시- : ㉔ 비수하시놀(월석 8:84), 묻주와시놀(법화 1:67)

북-러시- : <높임 아님>⑬ 모르러시니(월석 21 : 210)

-거시- : ① 묻거시다(월석 18 : 42) / ①⑥ 爲커시니(용 113장), 天子  
어시니(용 31장) / ③① 니거시든(용 38장) / ③② 讚嘆하거시놀  
(월석 21 : 83), 열네히어시놀(석보 11 : 26) / ③⑧ 곧거시니와  
(월석 2 : 61), 아니어시니와(원각, 상 1-2 : 125) / ③⑨ 賢커신  
마른(용 84장) / ④③ 命이어신뎡(법화 5 : 126) / ⑦⑨ 디나거신  
(석보 13 : 15)

\*-거시- : <높임아님>⑬ 잇거시니(능엄 3:27)

-으시거시-: ⑩ 眞實하시거시니(능엄 8:64), 부테시거시니(몽산 22)—한  
편은 높임 아님.

-습거시- : ㉓ 문줍거시든(내훈 2상 : 47)

\*-으리어시-: <높임아님> ⑮ 보디 아니하리어시니(능엄 2:82)

-나시- : ㉑ 오나시든(용 38장) / ㉒ 오나시놀(월석 21:3)

\*-가시- : <높임 아님>⑬ 여히엿가시니(농업 5:72)

## 〈한글〉

1. 「-으시-」와 맺음씨 끝과의 연결은 거의 제한이 없다.
2. 이에 앞서는 안맺음씨 끝은 「-습-」, 「-더-」, 「-아/어-」, 「-거, 가, 나-」인데, 「-습-」은 「-더-」, 「-아/어-」, 「-거-」와 겹쳐질 수 있다.
3. 「-으리-」는 「-아/어-」, 「-어(←거)-」와 겹쳐질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으시-」는 높임이 아니다.

### 3. [-合-]

-습- : ① 보습다(월석 18 : 81) / ⑤ 드수불파(석보 23 : 23) / ⑦ 아  
수불까(용 43장) / ⑨ 보수불라(월석 8 : 22), 念<sub>니</sub>호수오라(법  
화 6 : 156) / ⑬ 너기수불쇼셔(월석 1 : 1) / ⑭ 연줍져 호고(월  
석 2 : 69) / ⑯ 먹스불니(월석 7 : 26), 다둔즈불니(월석 21 :  
112) / ⑰ 보수불면(석보 6 : 40), 님스오면(법화 3 : 65) / ⑱  
드수불씨(용 64장), 받즈불씨(월석 21 : 47) / ⑲ 저싸바(용 75  
장), 갑스바아(석보 23 : 21) / ㉔ 禮數<sub>리수</sub>호수불대(석보 6 : 10),  
낫스온대(내훈 2상 : 42) / ㉔ 推尋<sub>투승</sub>호수온댄(능엄 4 : 106) / ㉔  
願<sub>원</sub>호수온딘(불정심경<경양사 영인> p.52), 벅라스온든(육조



1. 「-습-」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맺음씨끝은 그리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습-」은 안맺음씨끝 가운데 가장 앞선다. (이 점 「-으이-」와 정반대이다.)
3. ㉓ 「-되-」는 반드시 「-오/우-」를 앞세우는데, 이 예 (請呼수불되)는 예외이다.

: 73) / ⑧ 濟度하살 일(법화 3: 39)

-우샤-

(1987) (1988)

-으시노-

\*-습시노-

-스 불시노-

40 \ CEB 181

-으리로.

것과 그렇지

합이 앞설 수

### 3. ④7의 「-스보

NO. 1 (84) : 22



(월석 8:85) / ⑥ 念하노고(월석 13:55), 프르렛노고(두언 24:62) / ⑦ 좌시는가(천강곡 상, 기 122) / ⑩ 브러브리니(석보 6:6), 이르수랫노니(석보 24:31), 여느니(월석 8:12) / ⑨ 가도논(석보 9:8), 圍繞하수랫논(석보 19:40), 흐르는(석보 13:23)

-으시느-: ① 니르시느다(석보 13:18) / ⑥ 누기시느고(월석 21:21) / ⑦ 시스시느가(천강곡 상, 기 124) / ⑩ 브리시느니(용 116장) / ⑨ 니르시느(석보 13:1)

-스브시느-: ⑨ 묻즈브시느(월석 18:80), 묻즈오시느(법화 1:123)

-습느-: ① 보습느다(월석 18:55) / ⑩ 아습느니(월석 10:4) / ⑨ 돕습느(법화 1:31)

#### <풀이>

1. 「-느-」에 바로 연결되는 맺음씨끝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①②⑤⑥⑦⑩⑨의 일곱)
2. 이에 앞설 수 있는 안맺음씨끝은, 「-습-」과 「-으시-」 및 그 결합체 뿐이다.

#### 6. [-으니-]

-으니-: ① 할가지니라(두언 25:15), 아니니라(석보 13:61) / ⑥ 나니오(능엄 4:9), 엇더뇨(석보 19:4) / ⑦ 좇디 아니하니아(두언 15:25), 得하니아(몽산 31), 다르니여(월석 8:31), 저그녀(석보 19:4)

-으시니-: ① 뵈시니라(능엄 2:58), 부테시니라(석보, 서:1) / ⑥ 업스시뇨(월석 7:11) / ⑦ 涅槃하시니여(석보 23:20)

-스브시니-: ① 점기스브시니라(월석 2:10), 묻자오시니라(법화 5:97)

-더시니-: ① 녀더시니라(월석 1:52) / ⑥ 하더시뇨(석보 23:31)

-어시니-: ⑥ 올마시뇨(용 110장)

-거시니-: ⑥ 기들오거시니오(두언 21:31), 잇거시뇨(석보 13:15), 加趺坐 | 어시뇨(월석 7:25)

-스브니-: ① 깃스브니라(월석 18:20), 브라수오니라(능엄 2:2) / ⑥ 연즈브뇨(석보 13:16)

-우니-: <예외>이쇼니라(능엄 7:23)

-느니-: ① 브르느니라(석보 13:8), 다하느니라(두언 23:48) / ⑥ 가느니오(두언 8:6), ㄸ외엇느니오(두언 7:26), 잇느뇨(월석

10:25), 섯갯느뇨(능엄 2:97) / ⑦ 왓느니아(두언 16:29), 잇느니아(몽산 62), 잇느니여(석보 6:25), ㄸ리느녀(영가, 하:27)

-으시느니-: ① 뵈시느니라(석보 13:27) / ⑥ 펴시느뇨(석보 13:25)

-습느니-: ① 브르습느니라(월석 1:15), 존줍느니라(능엄 2:45)

-으리니-: ① 몰하리니라(두언 6:21)

-더니-: ① 몰더니라(석보 6:28), ㅅㄸ미러니라(법화 3:177) / ⑥ 엇더하더뇨(능엄 2:8), 어딴러뇨(두언 21:30) / ⑦ 엇더녀(월석 8:91)

-으시더니-: ⑥ 하시더뇨(석보 23:30)

-습더니-: ① 보습더니라(월석 18:83)

-으리러니-: ① ㄸ외리러니라(법화 6:86)

-으시리러니-: ① 아르시리러니라(월석 21:21)

-다니-: ① 하다니라(법화 1:158), 명 ㄸ랫다니라(법화 3:197)

-어니-: ⑥ 존하야니오(남명, 하:63), ㅅㄸ라뇨(월석 2:47)

-스하니-: ⑥ 좇스하뇨(월석 2:48)

-려니-: ⑥ 보려니오(두언 8:62), ㅅㄸ이려뇨(석보 6:25)

-으시려니-: ⑥ 從하시려뇨(월석 7:26)

-스브려니-: ⑥ 보수브려뇨(월석 8:17)

-스보려니-: ⑥ 가 보수보려뇨(석보 6:19)

-거니-: ① 스치거니라(두언 16:72), ㄸ외엇거니라(두언 6:37), 새 ㄸ리어니라(두언 6:11) / ⑥ 맛나거니오(두언 11:10), 더으거뇨(월석 21:106), ㄸ어뇨(몽산 22) / ⑦ 하거녀(두언 21:25)

-나니-: ⑥ 나오나뇨(석보 6:19)

-가니-: ⑥ 깃가니오(두언 14:17), 相對하엇가니오(두언 6:31), 엇던 사르미아니오(두언 24:18), 들워브리가뇨(두언 20:2), 엇던 사르미아뇨(두언 11:1)

-도소니-: ⑥ 엇더하도소뇨(몽산 52) / ⑦ 사기도소니아(몽산 60)

-으리로소니-: ⑦ 알리로소니여(석보 11:4), 알리로소녀(월석 21:14)

#### <풀이>

1. 「-으니-」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맺음씨끝은, ① 「-다」, ⑥ 「-고」 계, ⑦ 「-가」 계만이다. 특히 「-으니-」에 강조-영탄법의 안맺음씨끝이 앞설 경우에는, 맺음씨끝은 거의 ⑥, ⑦에 국한된다.

#### 6. 씨끝형태소의 연결



2. 「-으이-」를 제외한 모든 안맺음씨끝은 「-으니-」에 앞선다.

3. 「-으이-」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맺음씨끝도 역시 ①, ⑥, ⑦에 국한되어 있으니, 결국 한 활용형 가운데 「-으이-」나 「-으니-」가 있으면, 그 안맺음씨끝은 ①, ⑥, ⑦에 국한된다.

#### 7. [-과-]

-과- : ① 얻과라(월석 7:9), 知之와라(내훈, 2하:33) / ② 보관대(월석 23:87)

-습과- : ① 보습과라(법화 4:169)

#### <풀이>

1. 이 형태소의 배치는 극히 국한되어 있다.

「-과-」는 「-으니-」에 대응하는 1-인칭 형태소이니, 「-으니-」가 서술과 물음에만 국한해 쓰이듯이, 「-과-」도 그러하겠는데, 말할이가 자기자신에 대한 일을 들을이에게 묻는 일은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과-」는 물음에도 쓰이지 못하여, 결국 서술(①②)에만 쓰이게 되는 것이다.

2. 이에 앞서는 안맺음씨끝은 「-습-」이다.

#### 8. [-으리-]

-으리- : ① 어드리라(능엄 2:78), 가져시리라(능엄 2:44), 기리랴(월석 17:35), 몰하리랴(법화 3:47) / ② 便安케 하리더(내훈 1:7) / ③ 다르리오(능엄 2:20), 빠더시리오(두언 8:58), 사르미리오(월석 17:90); 가료(석보 6:22), 썩니료(두언 25:34); 滅티 아니하류(능엄 4:39), 누류(능엄 2:30) / ④ 말리아(두언 8:47); 오리야(천강곡 상, 기 36); 주리여(용 20장), 사르미리여(석보 13:36); 사르려(능엄 3:39) / ⑤ 이시리니(석보 9:19), 百歲리니(월석 21:58) / ⑥ 모두릴씨(월석 2:8), 아니릴씨(능엄 3:32) / ⑦ 니르린덴(몽산 51) / ⑧ 니기리완더(원각, 상 2-1:9) / ⑨ 몰하리나(원각, 상 1-2:61) / ⑩ 알리오(월석 7:70) / ⑪ 보리옥(능엄 1:64) / ⑫ 업스리며(능엄 3:94), 아니리며(능엄 2:47) / ⑬ 몰하리라가(원각, 하 3-1:76) / ⑭ 일우리온(법화 4:75) / ⑮ 몰하린(능엄 2:38)

-으시리- : ① 아루시리라(석보 13:48) / ② 오시리오(천강곡 상, 기

132), 빠디시리오(법화 3:156); 미츠시료(법화 3:163) / ③

뒤우시리여(천강곡 상, 기 62); 安樂하시려(법화 5:11) / ④

니르시리니(석보 13:36) / ⑤ 맞드시릴씨(용 6장) / ⑥ 니르

시린덴(육조, 상:15) / ⑦ 無常이시리며(원각, 상 1-1:63)

-스르리- : ① 보수르리라(월석 18:55) / ② 감스오리오(남명, 상:41);

供養하수르료(석보 23:47) / ③ 기리수르려(월석, 서:9) / ④

보수르리니(월석 21:205) / ⑤ 존조오릴씨(법화 5:195)

-우리- : ① 이쇼리라(월석 7:55) / ② 주료(남명, 상:45) / ③ :보리

니(육조, 상:11)

-로리- : ① 不能復關政矣로리라(내훈 2상:38)

-샤리- : ① 나토샤리라(월석 17:78)

-스브리- : ① 삼수브리라(월석 8:92) / ② 이르수브리니(석보 6:22)

-어리- : ③ 마라리아(두언 22:23); 닐어리여(금강삼가 3:5); 得하야려(남명, 상:53)

#### <풀이>

1. 맺음씨끝과 그리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80의 맺음씨끝 가운데, 여기 나타나는 바로는, 16의 맺음씨끝(①②⑥⑦⑩⑪⑫⑬⑭⑮⑯⑰⑱⑲⑳㉑㉒㉓㉔㉕㉖㉗㉘㉙㉚㉛㉜㉝㉞㉟㊱㊲㊳㊴㊵㊶㊷㊸㊹㊺㊻㊼㊽㊾㊿)과 어울릴 뿐이다.

2. 「-으리-」에 앞설 수 있는 안맺음씨끝은, 「-으시-」, 「-습-」, 「-오/우-」, 「-아/어-」이다.

3. 「-샤리-」는 「-다」와의 연결체로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특수한 용법이다.

4. 강조-영탄의 「-아/어-」와 결합되면 「-가」 물음법으로만 쓰이게 되는 점은 「-으니-」와 비슷하다.

#### 9. [-더-]

-더- : ① 비더라(월석 1:13), 어우렛더라(석보 24:6), 大成이러라(석보 19:27) / ② 모르던다(월석 21:195), 뒛던다(월석 9:35 하) / ③ 니르던고(두언 22:7) / ④ 솟더니(석보 6:2), 보수뻬더니(석보 13:13), 아드러러니(석보 6:13) / ⑤ 잇던덴(월석 13:36), 菩提者 | 린덴(법화 2:6) / ⑥ 나사오던덴(용 51장) / ⑦ 아니런든(몽산 32) / ⑧ 니르디 아니하더든(석보 19:34), 뒛더든(금강삼가 4:17), 若有我相이러든(금강삼가 3:29) / ⑨ 보던(능엄 2:10), 가도엿던(석보 9:33)



-으시더- : ① 느려 오시더라(월석 21 : 203) / ⑩ 니르시더니(석보 13 : 27) / ②⑥ 아니하시던던 법화 2 : 226) / ⑦⑨ 니르시던(석보 19 : 31)

-스별시더- : ⑩ 묻스별시더니(월석 21 : 9)

-습더- : ① 기드리 습더라(능엄 5 : 3) / ⑩ 빗습더니(법화 4 : 132) / ②⑥ 體信호습던던(법화 2 : 226) / ⑦⑨ 받습던(두언 25 : 52)

-으리러- : ① 득외리러라(석보 19 : 34) / ⑩ 보리러니(석보 13 : 14) / ②④ 일우리런던(법화 2 : 6)

-으시리러- : ① 得호시리러라(월석 21 : 222) / ⑩ 救護호시리러니 (법화 5 : 159)

-스별리러- : ① 묻 보스별리러라(월석 7 : 55) / ⑩ 보스별리러니(월석 8 : 17)

-뫋더- : ① 보내뫋더라(두언 23 : 29)

#### <풀이>

1. 「-더-」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맺음씨끝은 아주 국한되어서, 여기에 나타나는 바로는, 80여 맺음씨끝 가운데, 불과 아홉(①⑤⑥⑩②④⑤⑥⑩⑦⑨)에 지나지 않는다.
2. 이에 앞설 수 있는 맺음씨끝은 「-으시-」, 「-습-」, 「-으리-」, 「-뫋-」의 넷이다.

### 10. [-다-]

-다- : ① 이리하다라(월석 7 : 14), 아히라라(두언 11 : 9) / ⑩ 우내다니(월석 8 : 87), 버디라니(석보 6 : 19) / ⑦⑨ 겹니단(월석 2 : 63)

-으시다- : ⑦ 孝養호시단(석보 11 : 16)

-습다- : ⑩ 섬기 습다니(천강곡 상, 기 140)

#### <풀이>

1. 「-으나-」에 대응되는 1-인칭 형태소인 「-과-」는, 그 맺음씨끝과의 결합이 「-으나-」보다 더 국한되는데, 「-더-」에 대응하는 1-인칭 형태소인 「-다-」도 역시 그러하여, 여기 나타난 바로는 ①⑩⑦의 세 맺음씨끝만이 연결된다.
2. 이에 앞설 수 있는 안맺음씨끝은 「-으시-」, 「-습-」이다.

### 12. [-아/어-]

-어- : ① 이기여다(석보 6 : 31) / ⑤ 아란다(동산 20) / ⑨ 두어라(월석 7 : 8) / ⑭ 보아져(석보 6 : 14) / ⑮ 니저니(용 53) / ⑳ 지서든(월석 10 : 21) / ㉔ 말하야놀(용 42장) / ㉘ 업서니와(천강곡 상, 기 137) / ㉙ 배안마른(용 90장) / ㉚ 득외안다(석보 6 : 4) / ㉛ 아랴디로다(월석 1 : 36)

-샤- : ㉔ 나토샤놀(법화 5 : 126)

-스바- : ② 보스반더(월석 23 : 82) / ⑦ 보스발까(석보 24 : 43) / ⑩ 놀라스바니(용 47장) / ㉔ 布施호스바든(석보 23 : 3), 묻스와든(금강 75) / ㉔ 거스스바놀(용 105장), 묻스와놀(능엄 7 : 66) / ㉘ 보스바니와(월석 8 : 17), 얻스와니와(능엄 7 : 67) / ㉙ 든즈반마른(석보 6 : 11) / ㉚ 묻 보스반디(월석 21 : 191)

-려- : ① 업스려다(월석 21 : 201) / ⑩ 일우려니(용 69장) / ㉔ 救護호려늘(월석 17 : 21) / ㉘ 다으려니와(석보 9 : 29) / ㉙ 일우려마른(월석 2 : 36)

-으시려- : ⑩ 救호시려니(용 69장) / ㉔ 아니호시려놀(금강 56) / ㉘ 건네시려니와(육조, 상 : 33) / ㉙ ㄱ슴아르시려마른(석보 6 : 17)

-스별려- : ㉘ 信受호스별려니와(월석 21 : 14), 信호스으려니와(법화 3 : 33) / ㉙ 돕스으려마른(두언 6 : 53)

-우리- : ① 묻호려다(월석 1 : 11) / ⑩ 盟誓호려니(두언 15 : 42) / ㉘ 고터디 아니호려니와(두언 23 : 54)

#### <풀이>

1. 맺음씨끝 가운데, 여기 나타난 바로는, ①②⑤⑦⑨⑭⑮⑩②④⑤⑥⑩⑦⑨⑩의 열셋만이 「-아/어-」에 연결될 수 있다.
2. 이에 앞설 수 있는 안맺음씨끝은 「-으시-」, 「-습-」, 「-으리-」(「-으시려-」, 「-스별려-」, 「-우리-」이다.)

### 13. [-애/에-]

-애- : ① 몰라 보애라(월석 23 : 86)

#### <풀이>

- ①와만 결합되며, 앞서는 안맺음씨끝은 없다.

6. 씨끝형태소의 연결

6. 씨끝형태소의 연결



#### 14. [-옛/옛-]

-우옛- : ① 마로옛다(월석 8:87)

#### <풀이>

①와만 결합되며 「-오/우-」가 앞선다.

#### 15. [-거-]

-거- : ① 갇거다(월석 8:87), 싸이어다(석보 23:13), 마를디어다(두언 24:43) / ⑨ 니거라(월석 8:101) / ⑩ 숨거니(용 72장), 내어니(월석 1:7), 훑디어니(능엄 2:52) / ⑭ 헤아리건댄(월석 21:138) / ⑮ 보건텐(석보 6:6) / ⑯ 衰하거든(용 6장), 브리어든(월석 1:29) / ㉔ 굶거늘(월석 2:33), 하늘히어늘(용 120장), 사니거늘사(월석 8:86) / ㉘ 적거니와(능엄 2:41), 아니어니와(법화 2:23), 마를디어니와(금강삼가 2:27) / ㉚ 업진마른(용 34장), 다시언마른(용 17장) / ㉜ 맛당건당(몽산 20), 假設호미언당(영가, 하:83), 行호뿌니언당(월석 18:13) / ㉞ 늦잡거니 늑거니(두언 16:47) / ㉟ 안쳐나 셔거나(석보 19:5) / ㊱ 더나전(월석 8:59), 죽건디(월석 21:27)

-으시거- : ㉑ 圓하시거니(법화 7:106) / ㉒ 붙어니르시거든(법화 3:44) / ㉓ 퍼시거늘(능엄 1:17) / ㉔ 업스시거니와(금강삼가 4:63) / ㉕ 복시건당(법화 5:88) / ㉖ 오시거나(석보 24:6)

-습거- : ㉗ 보습건댄(월석 18:21) / ㉘ 저히습거든(용 124장) / ㉙ 막습거늘(천강곡 상, 기 100) / ㉚ 길잡습거니 미조잡거니(월석 21:203) / ㉛ 일우습거나(석보 13:52)

-으리어- : ㉜ 어드리어니(월석 8:37), 호가지리어니(능엄 1:90) / ㉝ 주그리어든(능엄 9:110) / ㉞ 뻘러디리어늘(월석 21:104), 몰하리어늘사(법화 3:174) / ㉟ 니르리어니와(석보 9:10) / ㊱ 어드리언마른(두언 6:45) / ㊲ 비호리어며(월석 2:12)

-으시리어- : ㉑ 들이시리어니(법화 5:11) / ㉒ 니르시리어늘(법화 2:7)

-스별리어- : ㉑ 물 드스별리어니(석보 23:23) / ㉒ 아수오리어늘(법화 3:64)

-우리어- : ① 마로리어다(월석 8:102) / ㉒ 아니호리어늘(석보 11:34)

#### <풀이>

1. 여기 나타난 바로는, 맺음씨끝 가운데 ①⑧⑩⑭⑮⑯⑰⑱⑲⑳㉑㉒㉓㉔㉕㉖㉗㉘㉙㉚㉛㉜㉝㉞㉟㊱㊲의 열넷만이 「-거-」에 연결된 수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아/어-」의 경우와 비슷하다.

2. 이에 앞설 수 있는 안맺음씨끝은 「-으시-」, 「-습-」, 「-으리-」(「-으시리-」, 「-스별리-」, 「-우리-」)인데, 이것은 「-아/어-」의 경우와 꼭 같다.

#### 16. [-나-]

-나- : ① 오나다(월석 13:32) / ⑨ 오나라(월석 7:7) / ㉑ 오나든(월석 1:19) / ㉒ 오나놀(용 109장) / ㉓ 오나니와(금강삼가 2:57) / ㉔ 오난마른(석보 23:54) / ㉕ 오난디(법화 2:245)

#### <풀이>

1. 줄기 「오-」에 연결되는 「-거-」의 형태적 변이형태이므로, 「-거-」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독특한 형태이므로 따로 내세워 보았다.  
2. 연결되는 맺음씨끝은 모두 「-거-」에 연결되는 맺음씨끝의 범위 안에 든다.  
3. 「-거-」에 앞서는 안맺음씨끝이 다 「-나-」에 앞서지 않는 것은, 「오-」와 「-나-」 사이에 다른 안맺음씨끝이 끼어들게 되면 「-나-」는 「-거-」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 17. [-게-]

-게- : ① 아디 묻게라(두언 22:16)

#### 18. [-것-]

-것- : ① 보것다(두언 11:30)

#### <풀이>

두 형태소가 다 같이 극히 국한된 환경에서만 쓰인다.

#### 19. [-가-]

-가- : ⑨ 갑가라, 알아라(몽산 31) / ⑩ 너기가니(두언 25:29) / ㉒



-습가- : ①⑥ 뽕우습가니 (월석 23 : 88)

1. 「-거-」에 대응하는 1-인칭 형태로 생각되는 「-가-」에 연결되는 맺음씨끝은, ㉠㉢㉣㉤㉥㉦㉧㉨㉩㉪㉫㉬㉭㉮㉯㊱㊲㊳㊴㊵㊶㊷㊸㊹㊺㊻㊼㊽㊾㊿로서, 「-아-」/「-어-」, 「-거-」에 연결되는 맺음씨끝의 범위 안에 든다.
2. 이에 앞설 수 있는 안맺음씨끝은 「-습-」뿐이며, 「-거-」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거-」에 바로 앞설 수 있는 안맺음씨끝은 「-으시-」, 「-습-」, 「-으리-」이다), 「-으시-」, 「-으리-」가 제외되는데, 이것은 「-가-」가 1-인칭 형태소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1-인칭월에 있어서는 「-으시-」가 연결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으리-」는 1-인칭월에서는 「-우리-」형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 다시 「-가-」를 취하지 않더라도 인칭의 표시가 충분히 분명해진다.

-도(두)- : ① 맛도다(석보 6:14), 앓겜직하두다(능엄 3:116), 머므랏  
도다(두언 6:6), 브티수윳도다(두언 6:27), 이리로다(월석  
1:14)

-으시도- : ① 기프시도다(금강삼가 5:21)

-습도- : ① 보습도다(법화 5:130)

-으리로- : ① 보리로다(석보 13:20), 불가시리로다(두언 24:15)

으시리로- : ① 나하시리로다(월석 2:23)

스븀리로- : ① 보수븀리로다(월석 17:19), 일존주오리로다(법화 5:108)

-어리로- : ① 날어리로다(월석 13:44)

-눛도- : ① 오룩눛도다(두언 8:25)

- ①의 「-다」만이 여기 연결될 수 있다.
- 이에 앞서는 안맺음씨끝은 「-으시-」, 「-습-」, 「-으리-」(「-으시리-」, 「-스릴-」, 「-어리-」), 「-뜻-」으로서, 「-아/어-」, 「-거-」의 경우와 비슷하다.

-뜻- : ① 사기 뜻다(두언 24 : 62)

-노- : ① 지엿노다(두언 22:28)

「-dot-」과 「-no-」는 그 예가 극히 드물고, 그 환경도 극히 국한되어 있다. (두언  
중간본에서는 각각 「사기눅다」, 「지엿도다」로 바뀌어 있다.)

-**낫**- : ① **앗기낫다**(월석 1:11), **펼낫다**(남명, 하:34)  
 -**으시낫**- : ① **가시낫다**(능엄 5:88)  
 -**습낫**- : ① **절후습낫다**(두언 6:5), **돕습낫다**(두언 21:8)

- ①의 「-다」만이 연결된다.
- 안맺음씨 끝 「-으시-», 「-습-」이 이에 앞선다.

-닷- : ① 壯盛하닷다(두언 14 : 7), 在我ㅣ랏다(법화 2 : 6)  
 -으시닷- : ① 孝養하시닷다 (월석 21 : 208)  
 -으리랏- : ① 더으리랏다(두언 15 : 31)  
 -으시리랏- : ① 오라시리랏다(법화 2 : 232)

- ①의 「-다」만이 연결된다.
- 안맺음씨 끝 「-으시-」, 「-으리-」(「-으시리-」)가 이에 앞선다.



## 27. [-샷-]

- 샷- : 업스샷다(월석 1:52)
- 스샷- : 듣조오샷다(법화 6:83)
- 으리샷- : 슬오리샷다(법화 4:70)
- 르샷- : 느지르샷다(용 100장)

### <풀이>

1. ①의 「-다」만이 연결된다.
2. 안맺음씨끝 「-습-», 「-으리-», 「-르-」가 이에 앞선다.

## 28. [-소-]

- 소- : ① 올오소라(내훈 3:44) / ⑩ 흐려나소니(두언 8:29)
- 과소- : ① 쥘과소라(두언 21:31)
- 다소- : ⑩ 하다소니(석보 13:43)
- 습다소- : ⑩ 습다소니(상원사 권선문)
- 도소- : ⑩ 잇도소니(능엄3:37), 하나히로소니(월석 10:28)
- 으리로소- : ⑩ 몰하리로소니(능엄 2:102)
- 으시리로소- : ⑩ 나시리로소니(월석 1:40)
- 노소- : ① 외오노소라(월석 8:100) / ⑩ 오노소니(월석 21:200)
- 으시노소- : ⑩ 나시노소니(월석 2:49)

### <풀이>

1. ①「-다」, ⑩「-으니」만이 바로 연결될 수 있다.
2. 이에 앞설 수 있는 안맺음씨끝은, 「-과-」, 「-다-」(「-습다-」), 「-도-」(「-으리로-」, 「-으시리로-」), 「-노-」(「-으시노-」)이다.

## 29. [-스-]

- 스- : ⑤ 드순다(능엄 5:31)
- 늑스- : ⑤ 보늑순다(월석 10:28)
- 어스- : ⑨ 아라스라(월석 21:197)

### <풀이>

1. ⑤「-(ㄴ)다」, ⑨「-으라」만이 이에 바로 붙을 수 있다.

2. 안맺음씨끝 「-늑-」, 「-아/어-」가 이에 앞선다.

×       ×       ×

이상에 들어보인 모든 활용형의 씨끝형태소의 연결관계를 다시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책끝에 붙인다.

제 1 표는 안맺음씨끝과 맺음씨끝이 바로 붙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가려 보는 표이다.

제 2 표는 두개의 안맺음씨끝의 겹침,

제 3 표는 세개의 안맺음씨끝의 겹침,

제 4 표는 네개의 안맺음씨끝의 겹침,

제 5 표는 다섯 안맺음씨끝의 겹침이다.

### <제 1 표 풀이>

1. 안맺음씨끝의 ⑪ 「-사-」, ⑭ 「-다-」, ⑯ 「-샤-」는 바로 맺음씨끝과 연결되는 일이 없다.
2. 안맺음씨끝의 ① 「-으이-」, ⑥ 「-으니-」, ⑦ 「-과-」, ⑩ 「-다-」, ⑬ 「-애/에-」, ⑭ 「-엣/엣-」, ⑰ 「-게-」, ⑱ 「-것-」, ⑳ 「-도-」, ㉑ 「-똥-」, ㉒ 「-노-」, ㉓ 「-늑-」, ㉔ 「-닷-」, ㉕ 「-샷-」, ㉖ 「-소-」, ㉗ 「-스-」들은 극히 국한된 범위의 맺음씨끝과 결합된다.
3. ⑤ 「-늑-」도 맺음씨끝의 연결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4. 나머지 아홉 안맺음씨끝, ② 「-으니-」, ③ 「-습-」, ④ 「-오/우-」, ⑧ 「-으리-」, ⑨ 「-더-」, ⑫ 「-아/어-」, ⑮⑯ 「-거, 나-」, ⑰ 「-가-」는 모든 맺음씨끝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꽤 광범하게 연결이 가능하다.
5. 맺음씨끝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10, 11, 12, 15, 20, 21, 23, 33, 37, 52, 53, 56, 59, 60, 64, 65, 67, 68, 70~4, 76, 78)이 안맺음씨끝을 개입시키지 않고 바로 줄기에만 연결된다.

### <제 2 표 풀이>

1. ② 「-으시-」, ③ 「-습-」, ⑧ 「-으리-」는 상당히 많은 안맺음씨끝에 앞설 수 있다.
2. ⑨ 「-으니-」, ⑪ 「-사-」, ㉖ 「-소-」에는 「-으이-」만이 뒤따를 수 있다.
3. ① 「-으이-」를 비롯해서 ⑭ 「-엣-」, ⑱ 「-것-」, ㉔ 「-닷-」, ㉕ 「-샷-」, ㉖ 「-소-」
6. 씨끝형태소의 연결



「-스-」는 다른 안맺음씨끝에 앞서는 일이 없이, 언제든지 맺음씨끝과 바로 연결된다.

4. 나머지는 극히 국한된 안맺음씨끝에 앞설 수 있을 뿐이다.

5. ① 「-습-」, ⑪ 「-사-」, ⑬ 「-나-」, ⑭ 「-게-」, ⑮ 「-것-」, ⑰ 「-듯-」, ⑲ 「-다-」, ⑳ 「-샤-」는 다른 안맺음씨끝에 뒤따를 수 없다. 따라서 이 안맺음씨 끝들은 항상 줄기에 바로 붙는다.

6. ① 「-으이-」, ② 「-으시-」, ⑥ 「-으니-」는 꽤 많은 안맺음씨끝에 뒤따른다.

7. 나머지는 국한된 안맺음씨끝에 뒤따른다.

8. 강조·영탄의 형태소는 안맺음씨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겹쳐지는 일은 드물다.

9. 3과 5를 대조하면 ⑮ 「-것-」이 공통되어 있는데, 이것은 ⑮은 다른 안맺음씨끝과 연결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10. ( )안의 결합체는 둘만이 결합되는 일은 없고 셋이 결합될 때에 나타난다.

11. 밑줄 친 결합체는 세 안맺음씨끝<제 3표>의 앞 부분이 된다.

#### <제 3표 풀이>

1. 앞 씨끝결합의 둘째(끝) 요소에서 ① 「-으이-」, ③ 「-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으이-」는 그 뒤에 다시 다른 안맺음씨끝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습-」은 안맺음씨끝 중 가장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습-」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2. ⑥ 「-으니-」, ⑦ 「-과-」에는 「-으이-」 이외의 다른 안맺음씨끝이 연결되지 못한다.

3. ⑧ 「-으리-」제를 제외한 다른 계통의 안맺음씨끝 결합에 강조·영탄의 형태소가 붙는 일은 거의 없다.

## V. 그밖의 품사들

1. Ⅲ장에서 임자씨(이름씨, 대이름씨, 셈씨)와 토씨를 다루었고, Ⅳ장에서는 풀이씨(움직씨, 그림씨, 잡음씨)를 다루었다. 토씨는 임자씨에 의지해서 여러가지 월성분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내고, 또 뜻을 정밀히 하는 데 봉사하며, 풀이씨는 그 자체의 활용에 의해서, 여러가지 문법범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사실——준굴곡법과 순수 굴곡법(활용)——은, 조어법과 더불어 형태론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형태론의 중요한 문제는 다 설명된 셈이나, 여기 빠진 작은 품사들이 남아 있으니, 매김씨(관형사), 어찌씨(부사), 이음씨(접속사), 느낌씨(감탄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품사들은 그 자체가 어형변화를 일으키지 않을뿐 아니라, 어찌씨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씨의 의지를 입는 일도 없기 때문에, 형태론의 설명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한 것이나, 통어론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으로서의 필요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두기로 한다.

### 1) 꾸밈씨(수식사)

#### (1) 매김씨(관형사)

2. 월의 매김말(관형어)로만 기능하는 낱말, 이를테면 「흐을, 자분, 들위, 상, 진뎡, 외, 현, 첫」 따위 말을 매김씨라 한다.

흐을 : 나는 흐을 어미라(내훈, 서:8)

흐을 겨지비 설워 우느니 =寡妻哭(두언 25:45)



☆호을어미과 =寡, 호을아비환 =鰥(자회, 상:33)

이 말은 앞가지(접두사)처럼 쓰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용법에서는 가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김씨로 본다.

호을독=獨(자회, 하:33)

자본: 자본 이리 無常하야 (석보 6:11)

匠은 자본 것 빙그는 사루미라 (월석 21:192)

물윗: 물윗 사루몬 =凡百(두언 6:23)

迹은 처섬으로써 只춤 니르리 ㅎ산 물윗 이리라 (석보, 서:5)

물윗 字] 모로매 어우러사 소리 이느니 (훈, 언해)

상: 殊絶은 상 물와 다들시라 (두언 16:39)

鳳이 샅기는 상 터리 업스니 =鳳雛無凡毛(두언 8:56)

어느제 상 새를 터 =何當擊凡鳥(두언 16:46)

몹고기는 상 거시라 =衆魚常才(두언 16:62)

상 더러운 것들홀 달애샤 =誘諸庸鄙(법화 3:4)

진딧(짓): 眞金은 진딧 金이라 (월석 7:29)

識을브터 업게 홀씨 乃終내 진딧 업수미 아니니 (월석 1:36)

진짓 氣運 =眞氣(두언 8:56)

외: 孤島 외섬 (용 5:42)

외 바랫 두 머린 觀 =獨足雙頭觀(원각, 하 2-2:21)

☆외딱척 =隻(자회, 하:33)

현: 전 只리 현버늘 딴돌 (용 31장)

현 고들 울마시노 (용 110장)

현 千萬里ㄴ들 아디 묻진마룬 =不知其幾千萬里(법화 6:31)

첫(척): 아래로 첫 하느리라 (월석 1:19)

初觀은 첫 보미라 (월석 8:6)

첫 나래 (용 12장)

첫 盟誓 (천강곡 상, 기 114)

3. 그밖에 조어법으로 된, 「너나몬, 그나몬, 온갓, 현맛, 몇맛, 저구(고)맛, 죠고맛, 죠고맷」 따위 매김씨가 있다. (→pp.115, 259)

## (2) 어찌씨(부사)

4. 어찌말(부사어)로 기능하는 말을 어찌씨라 한다.

그르: 그르 알면 外道]오 (월석 1:51)

그르 नी어 ...이라 ㅎ느니 (석보 13:7)

니 ...그르 나며 굽디 아니ㅎ며 (석보 19:7)

이 罪人을 그르 주시도소이다 =此罪人謬賜也(영험약초 8)

조: 蓮모새 조 다드르면 (월석 7:61)

菩薩이 조 나샤 (월석 2:37)

世尊이 조 보시고 (월석 21:205)

이브터 오미 마스나몬히 조 디나니 =從是已來] 始過四十餘年하니(법화 5:114)

다못: 놀와 다못 議論하리오 =與誰論(두언 8:46)

술 혼셔물 다못 주리라 =共給酒一斛(두언 25:4)

님금과 臣下왜 다못 거리츄물 當하니 =君臣當共濟(두언 6:33)

뵈(뵈)로: ㅎ나히 뵈로 달아 비치 오오로 하오 (월석 2:46)

特은 ㄴ뵈 프리에 뵈로 다들씨라 (석보 6:7)

뵈로 達하면 =特達(영가, 상:64)

卓然은 ㅈ로 난 양이라(원각, 서:2)

모더: 굿븐 췌을 모더 놀이시니 (용 88장)

모더 세가지로 नी어사 ㅈ즈리라 (월석 2:14)

살면 모더 죽고 어울면 모더 버으는 거시니 (월석 2:15)

어루(로): 淸淨한 法을 어루 비호리어며 (월석 2:12)

功德이 어루 일리이다 (월석 7:60)

ㄴ라 올오물 안자셔 어루 니르위리로소니 =騫騰坐可致(두언 20:49)



집 아래 어로 온 사름이 들리로초니 = 下可容百人(두언 6:22)  
 절로: 百千寶鈴이 절로 울어늘 (월석 21:209)  
 四方이 절로 四方이 드외디 못하야 (석보 19:13)  
 프른 이슨 불서 절로 넷도다 = 靑苔先自生(두언 6:16)  
 잘: 부텃 智慧에 잘 드르샤(석보 13:4)  
 한 病을 잘 고티더니 (법화 5:150)  
 아니: 아니 뭇씨, 아니 그출씨 (용 2장)  
아니 드던히 너겨 事相을 가비야이 너기느녀 = 無乃等閑하야 輕於事  
 相가(원각, 하 2-2:42)  
 달: 달 凡夫의 報境을 펴시니라 = 別開凡夫報境(능엄 9:12)  
 聖賢이 달 靜慮를 닷가 = 聖賢別修靜慮(능엄 9:12)  
 못: 뽏 몰라 못 나니 (용 60장)  
 便安히 못 겨샤 (용 110장)  
 더디: 니러나물 더디 아니하도다 = 歸未遲(두언 6:34)  
 이거시 더디 빠러딜시 (두언 18:10)  
 ㄹ장: ㄹ장 도하신 功德 (석보 9:1)  
 ㄹ장 노팍니 = 最高(두언 15:1)  
 ㄹ이 말은 동작성 이름씨를 꾸미는 일이 있다.  
 ㄹ장 시르메 호변 늑므를 슯고 = 窮愁一揮淚(두언 16:4)  
 이리: 이리 受苦하시니라 (월석 1:6)  
 내 상네 이리 니르다니 (석보 16:60)  
 엇데: 엇데 가며 오미 이시리오 (월석, 서:2)  
엇데 느즈니오 = 何晚(두언 20:22)  
 난젓: 識境이 난젓 뭇여 나거든 (월석, 서:3)  
 是와 非왜 난젓 니러 = 是非鋒起(능엄 5:22)  
 못: 去聲은 못 노푼 소리라(훈, 언해)  
 香象은 못 힘센 象이니 (월석 2:38)

안즌 中에 못 히물 수비 得하리니 = 於坐中 最易得力(몽산 24)

ㄹ이 말은 매김말로 기능하는 임자씨, 또는 차례를 나타내는 임자씨를 꾸미는 일이 있다.

못 아수 分이 釋迦如來시니(월석 14:6, 기 293)

成佛호맨 못 第一이니 (영험약초 6)

하야: 머리 하야 세니 = 頭皓白(두언 25:52)

퍼러: 뭇햇 비르미 퍼러 나니 = 野萐青青(두언 16:65)

퍼러 베텃느닌 담모햇 프리로다 = 碧委牆隅草(두언 22:3)

일: 일 지비 오르던 이틀 = 早升堂(두언 8:14)

일 도라오라 = 早歸來(두언 8:18)

小乘을 일 즐기다가 = 早耽小乘(법화 2:178)

하다가: 하다가 有情이 邪曲호 道理 行하리 잇거든 (석보 9:5)

하다가 巫山엿 겨지비 더럽다 닐을덴 = 若道巫山女麤醜(두언 25:46-7)

또: ㄹ르매 비 업거늘 일우시고 ㄹ 노기시니 (용 20장)

聖化 | 오라샤 西夷 ㄹ 모드니 (용 9장)

5. 「모도, 모다, 다, 더, 비르서, 업시, 노피, 이리드록, 새로……」  
 등 많은 어찌씨는 조어법으로 만들어졌고(→pp. 116, 239), 또 어찌씨는 토씨의 의지를 입는 일이 있다.(→pp. 373, 374, 377, 379…)

## 2) 홀로씨(독립사)

### (1) 이음씨(접속사)

6. 말을 시작하거나, 앞의 말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뒤의 말을 비롯하는 구실을 하여, 홀로말이 되는 낱말을 이음씨라 하는데, 그 수는 그리 많지 못하다.

그러나: 聲聞이 히미 비록 못 미즈나 그러나 信으로 드로뎨 許하실  
 씨 (법화 2:159)



그러면 : 이 數에 더오디 아니홀뜰 엇메 알리오 그러면 니룩산 이음  
어려우미 佛智의 어려우미 아니라 (법화 3:165)

그럴씨 : 信力 썩르미라 하시니 그럴씨 모로매 信機를 쏘히야 (법화 2:160)

그런드로 : 惑障을 그쳐 다오샤사 智 現前타 하시니 그런드로 大道入  
機 應하시미 이 존하시니 (법화 3:92)

이런드로 : 일로 現前에 나와 比丘僧과 供養호미 드외리니 이런드로  
내 닐오디 (법화 5:202-3)

7. 다음 말들도 파생된 이음씨로 보는 것이 좋을듯 하다.

龍王은 龍의 中엇 王이니 대도흔디 ...즈게남꼴 樹王이라 하듯하야(월  
석 1:23)

大凡한디 이제 誰 이 무레 特出흔 雄傑오 =凡今誰是出群雄 (두언16:  
12)

네 소남기 처섬 옮겨 시물제 大抵한디 석자남죽하디니라 =四松初移  
時 大抵三尺強 (두언 18:13)

들좁고 깃거하가니와 그러나흔디 하녀고로 헤예혼딘 (월석 8:93)

大率한디 我와 人과 잇느닌... =大率有我人者 (금강삼가 3:55)

## (2) 느낌씨(감탄사)

8. 토씨의 의지 없이 홀로말로만 쓰이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느낌  
씨라 한다.

엇 : 舍利弗이 솔보디 엇 올하시이다 (석보 13:47)

이 : 인 男子아 엇던 이를 爲하야 이 길헤 든다 (월석 21:118)

인 슬프다 (영가, 서:15)

## [찾 아 보 기]

| <ㄱ>           |                                                  |          |                                                     |
|---------------|--------------------------------------------------|----------|-----------------------------------------------------|
| ㄱ 씨끝          | 609                                              | 격        | 330, 331                                            |
| 가림법           | 591                                              | 격조사      | 332                                                 |
| 가-물음법         | 496, 501, 671                                    | 견증말      | 43, 48, 253, 332, 334, 349, 409, 704, 716, 840, 848 |
| 가-물음토씨        | 369                                              | 견증법      | 608                                                 |
| 가상적 가지        | 37                                               | 견증자리 토씨  | 348, 361, 397, 402                                  |
| 가상적 기본형태      | 325, 462                                         | 겸양법      | 724, 726                                            |
| 가상적 뿌리        | 36, 82                                           | 겸남음직씨    | 170                                                 |
| 가상적 · 불구적 형태소 | 88, 187                                          | 겸입음말     | 178                                                 |
| 가상적 줄기        | 252                                              | 겸종성      | 307                                                 |
| 가상 형태소        | 36, 82, 189                                      | 겸하임말     | 166                                                 |
| 가지            | 31, 36, 39, 74, 85, 87, 97, 131, 132, 133, 136   | 겸합성어     | 104                                                 |
| 가치법           | 619                                              | 겸홀소리     | 64, 66, 153, 178, 337, 424                          |
| 각자병서          | 57                                               | 경험법      | 878, 900                                            |
| 간결의 원리        | 312                                              | 계사       | 49                                                  |
| 간접높임          | 673, 675, 696                                    | 고름소리     | 317, 350, 388, 402, 403, 422, 462, 497, 518, 641    |
| 간접높임법         | 656                                              | 고름홀소리    | 67, 172, 315, 316, 355, 456, 544, 695               |
| 간접인용          | 761                                              | 고-물음법    | 496, 500, 505, 670                                  |
| 간접임자말         | 738, 746, 748, 760, 776, 789, 790, 795           | 고-물음토씨   | 367                                                 |
| 같이소리          | 55                                               | 고유명사     | 274                                                 |
| 감탄사           | 50, 51, 984                                      | 곡용       | 409                                                 |
| 강세법           | 618                                              | 꼴바꿈      | 33                                                  |
| 갓은풀이씨         | 440                                              | 꼴없는 가지   | 37, 89, 90                                          |
| 같은소리 줄임       | 241                                              | 꼴없는 변이형태 | 37, 38, 254                                         |
| 개별적 변동        | 301, 305                                         | 꼴없는 이름씨  | 234, 236                                            |
| 객체            | 655, 691, 696                                    | 꼴없는 형태소  | 38                                                  |
| 객체높임          | 77, 655                                          | 곳대이름씨    | 274                                                 |
| 객체높임말         | 230                                              | 과도음      | 344, 619                                            |
| 객체높임법         | 691                                              | 관계사      | 47, 51                                              |
| 거성            | 52, 60, 63                                       | 관형법      | 479, 639                                            |
| 거센소리          | 181, 452                                         | 관형부      | 28                                                  |
| 결림씨           | 31, 47, 50, 51                                   | 관형사      | 50, 51, 979                                         |
| 검목법           | 477                                              | 관형어      | 44, 50, 979                                         |
| 결구조           | 261, 478, 479, 480, 633, 634, 639, 683, 715, 809 | 끼임법      | 487, 519, 667, 672                                  |
|               |                                                  | 꾸밈말      | 48                                                  |



꾸밈씨 48, 50, 51, 979  
구속명사 274  
구속법 522  
구속적 하임말 169  
구속형식 27, 30, 40, 90, 274  
구실 45, 46  
굴곡 46, 47, 49, 409  
굴곡가지 77, 84  
굴곡범주 78, 80, 485  
굴곡법 30, 31, 33, 74, 77, 78  
굴곡의 가지 31, 74, 78, 79, 83, 134, 727  
그림씨 49, 51, 150, 170, 182, 411, 413, 812, 881  
그침꼴 607  
근저어 135  
끝바꿈 31, 409, 411, 444  
끝바꿈꼴 411  
끝바꿈표 440  
기능 45, 46, 263, 330, 332, 477, 479  
기본월 809, 832, 834  
기본형태 35, 71, 91, 151, 301, 302, 304, 305, 307, 349, 446, 449, 450, 452, 693  
기정법 878, 882  
긴장모음 157  
긴장홀소리 157, 178  
<L>  
남음적씨 170, 812  
남은꼴 724  
날말 26, 40, 41, 45, 49, 51, 87, 88, 134  
날말 만드는 가지 32  
날말 만들기 31, 74  
날말연결 토씨 361  
높임법 655  
느낌씨 50, 51, 984  
늘어난 형태 388

<C>  
ㄷ 변격 154, 176  
다의 173  
단순어 88, 134  
판이 61, 335, 336, 470  
단편적인 마디 374, 543  
당소리 62, 327  
당소리떼 63, 455  
당소리 씨끝 452, 462  
당소리 이어바뀔 302, 445  
당소리 토씨 324  
대등적 합성어 93  
대등적 합성어 102, 117  
때때김 495, 500, 501, 513, 644, 788  
때때김법 877  
대명사 49, 51  
대비격 조사 348  
대비어 43, 48, 349, 704, 716  
대상법 810, 812, 867  
대어씨 49, 51, 274  
도움법 331, 370  
도움법 토씨 331  
도움줄기 410, 476, 483, 484  
도움토씨 331, 370, 398, 399, 404, 406, 535  
도움풀이씨 42, 416, 417, 567, 706  
독립사 51, 983  
독립어 44  
동사 49, 51, 411  
동시법 612  
동음생략 103, 105, 234, 284  
동형성 36, 86  
동형적 낱말 88  
동화작용 91, 104, 252  
되풀이꼴 608  
되풀이법 620  
되풀이 합성어 89  
된소리 326, 327  
두결홀소리 64  
두기능법 478, 479, 486, 627

두루이름씨 274  
두입술 같이소리 53  
둘째자리법 334, 353  
둘째자리 토씨 334, 353  
뒤집음말 425, 511, 524  
뒷가지 39, 85, 135, 136, 149, 150  
뒷가지 파생어 149, 445  
들음이 높임 655, 656  
띄어쓰기 26, 28, 41  
<C>  
ㄹ 벗어난 풀이씨 244  
ㄹ 변격 154, 175  
「ㄹ, ㄴ」 변격 158, 178, 250  
<口>  
마디 43, 366, 373, 478, 480  
마디연결 토씨 364, 404  
마침법 476, 480, 486, 656  
말만드는 가지 32  
말밑 96, 102, 143, 149, 196  
말본 33  
매김꼴 54, 99, 100, 105, 237, 277, 291, 293, 479, 704, 809, 840  
매김말 36, 42, 44, 50, 265, 266, 273, 313, 321, 331, 333, 390, 397, 477, 479, 491, 504, 520, 536, 595, 599, 639, 683, 684, 840, 979  
매김법 479, 627, 639, 677, 888, 896, 906, 912  
매김변형 477  
매김씨 50, 51, 84, 91, 99, 115, 207, 259, 266, 267, 295, 979  
매김자리 토씨 353  
매김조각 28  
대인이름씨 42, 90, 98, 100, 103, 108, 224, 227, 260, 266, 274, 318, 320, 347, 368, 377, 385, 392, 403, 404, 417, 435, 457, 581, 640, 646, 834, 852, 869, 897

대인풀이씨 416, 417, 621  
맺음씨끝 476, 483, 484, 485  
명령법 516  
명령적 하임말 169  
명사 49, 51  
명사법 479, 627  
모음점 452  
모음조화 66, 104, 337  
목적격 조사 337  
목적어 43, 48, 288  
몬대어씨 274  
무성의 휴식 314, 315, 327  
무형의 가지 253  
무형의 변이형태 337, 471, 493, 598, 599, 613, 614, 673, 678, 720, 738, 808  
문맥적 의의 41  
문법범주 78  
문법소 293  
물음말 367, 495, 499, 546  
물음법 331, 367, 487, 495, 670, 889, 899, 909, 913  
물음법 토씨 331  
물음토씨 331, 367, 404  
미정법 878, 891  
미침법 601  
민간어원 145  
밑말 128, 135, 136, 149, 150, 153, 160, 161, 164, 170, 174, 176, 193  
<H>  
ㅂ 벗어난 풀이씨 241  
ㅂ 변격 153, 175, 184, 450  
빠를 412  
반모음 315  
반복합성어 89, 257, 278  
반복 합성어 257  
반복형 608



|            |                                                                                                            |
|------------|------------------------------------------------------------------------------------------------------------|
| 반홀소리       | 63, 64, 315, 327, 335, 451                                                                                 |
| 받침         | 71, 302                                                                                                    |
| 받침의 入, △   | 126                                                                                                        |
| 밝은 홀소리     | 66                                                                                                         |
| 방점         | 52, 59                                                                                                     |
| 방편격 조사     | 352                                                                                                        |
| 방편말        | 44, 48, 332, 334, 352, 397, 399, 840, 842, 872                                                             |
| 방편어        | 44, 48,                                                                                                    |
| 방편자리       | 352                                                                                                        |
| 방편자리 토씨    | 351, 352, 402                                                                                              |
| 변동         | 33                                                                                                         |
| 변이음소       | 55                                                                                                         |
| 변음자        | 52                                                                                                         |
| 변이형        | 100, 101                                                                                                   |
| 변이형태       | 30, 34, 35, 91, 123, 130, 142, 159, 161, 162, 168, 181, 202, 271, 431, 544, 627, 691                       |
| 변이형태의 이웃돕기 | 493                                                                                                        |
| 변형         | 417, 477, 809                                                                                              |
| 보조어간       | 410, 426, 476, 483, 484                                                                                    |
| 보조용언       | 417                                                                                                        |
| 보조조사       | 370                                                                                                        |
| 보충법        | 444                                                                                                        |
| 보통명사       | 274                                                                                                        |
| 보편적 변동     | 301, 305                                                                                                   |
| 복합어        | 135                                                                                                        |
| 본디 어찌씨     | 212                                                                                                        |
| 부름말        | 397                                                                                                        |
| 부름자리 토씨    | 356                                                                                                        |
| 뿌리         | 30, 32, 46, 47, 74, 84, 85, 86, 87, 88, 99, 110, 131, 132, 133, 134, 209, 262, 444                         |
| 부림말        | 43, 48, 288, 294, 330, 332, 334, 337, 374, 378, 381, 388, 391, 396, 413, 479, 655, 696, 703, 812, 817, 840 |

|           |                                                  |
|-----------|--------------------------------------------------|
| 부림법       | 337                                              |
| 부림자리 토씨   | 337, 400, 405                                    |
| 부사        | 50, 51, 981                                      |
| 부사어       | 29, 44, 50, 981                                  |
| 불구가지      | 77                                               |
| 불구법       | 563, 623                                         |
| 불구뿌리      | 82, 85, 189, 209, 215                            |
| 불구어근      | 215                                              |
| 불구적 매인이름씨 | 287                                              |
| 불구적 맺음씨끝  | 481, 493, 543, 689, 787, 928, 937, 942           |
| 불구풀이씨     | 203, 204, 440, 654                               |
| 불구형태      | 144                                              |
| 불구형태소     | 36, 75, 84, 88, 188, 197                         |
| 불완전명사     | 274                                              |
| 불청불탁      | 54                                               |
| 불청불탁음     | 55, 72                                           |
| 불같이소리     | 55                                               |
| 비교법       | 608                                              |
| 비례법       | 615, 625                                         |
| 비성절음      | 452                                              |
| 비슷한 가지    | 40, 228, 229                                     |
| 비인칭물음법    | 496, 505, 513                                    |
| 비통어적 합성법  | 89                                               |
| 비통어적 합성어  | 85, 89, 90, 91, 92, 116, 134, 176, 230, 245, 445 |
| 빈칸        | 440                                              |

<人>

|        |                                                                                                  |
|--------|--------------------------------------------------------------------------------------------------|
| 入 변격   | 155, 176, 183                                                                                    |
| 사람대이름씨 | 274                                                                                              |
| 사성     | 60                                                                                               |
| 사성절    | 52, 60                                                                                           |
| 사역     | 603                                                                                              |
| 사역어    | 77, 150, 429                                                                                     |
| 사잇글자   | 68                                                                                               |
| 사잇소리   | 54, 67, 102, 259, 267, 271, 273, 276, 285, 313, 314, 327, 347, 390, 491, 504, 536, 595, 599, 684 |
| 삼중모음   | 549                                                                                              |

|           |                                                                                                                            |
|-----------|----------------------------------------------------------------------------------------------------------------------------|
| 상대높임      | 496, 505, 655, 724                                                                                                         |
| 상대높임법     | 656                                                                                                                        |
| 상성        | 52, 60, 63                                                                                                                 |
| 상승적 두겹홀소리 | 64, 65                                                                                                                     |
| 상징어       | 208, 258                                                                                                                   |
| 상징적 변이형태  | 253                                                                                                                        |
| 상징적 뿌리    | 116                                                                                                                        |
| 생략변형      | 263, 267, 375                                                                                                              |
| 서술법       | 486, 487, 656, 669                                                                                                         |
| 서술부       | 28                                                                                                                         |
| 서술어       | 28, 42                                                                                                                     |
| 선택법       | 591                                                                                                                        |
| 설음        | 305, 449                                                                                                                   |
| 설명법       | 612                                                                                                                        |
| 성         | 69, 314                                                                                                                    |
| 성절음       | 315, 335, 455, 469                                                                                                         |
| 성조        | 60                                                                                                                         |
| 세겹홀소리     | 65, 549                                                                                                                    |
| 세째자리법     | 334, 356                                                                                                                   |
| 세째자리 토씨   | 334, 356                                                                                                                   |
| 셈씨        | 49, 51, 103, 105, 269, 270, 271, 274, 326                                                                                  |
| 셈을 나타내는 말 | 270                                                                                                                        |
| 소리상통      | 152, 249                                                                                                                   |
| 소리흥내      | 238                                                                                                                        |
| 속구조       | 261, 263, 356, 372, 375, 477, 478, 480, 633, 634, 639, 644, 683, 704, 705, 706, 715, 809, 817, 840, 848, 873               |
| 속뜻        | 94, 101, 263, 321, 356, 371, 372, 383, 393, 477, 484, 537, 561, 601, 634, 643, 651, 655, 673, 683, 705, 706, 768, 817, 834 |
| 수단위 매인이름씨 | 294                                                                                                                        |
| 수사        | 49, 51                                                                                                                     |
| 수식사       | 50, 51, 979                                                                                                                |
| 수식적 합성어   | 120                                                                                                                        |
| 수식적 합성이름씨 | 94                                                                                                                         |

|         |                                  |
|---------|----------------------------------|
| 수의변이    | 153                              |
| 순경음     | 53                               |
| 순수한 굴곡법 | 31                               |
| 순음      | 306, 450                         |
| 씨       | 45                               |
| 씨가름     | 46, 50                           |
| 씨끝      | 34, 409, 410, 444, 475, 483, 485 |
| 씨끝바꿈    | 476                              |
| 씨의 분류   | 45                               |
| 시제      | 639, 788                         |
| 시킴법     | 487, 516, 668, 672               |
| 실사      | 723                              |
| 실음자     | 52                               |
| 심층구조    | 809                              |

<ㅇ>

|           |                                                                                |
|-----------|--------------------------------------------------------------------------------|
| 아주높임      | 518                                                                            |
| 안높임       | 669                                                                            |
| 안맺음씨끝     | 426, 481, 482, 483, 485, 488, 490, 491, 493, 494, 498, 499, 516, 520, 655, 788 |
| 앞가지       | 84, 85, 98, 99, 110, 135, 136                                                  |
| 앞가지 파생어   | 136, 160, 445                                                                  |
| 양보법       | 563                                                                            |
| 양성        | 66                                                                             |
| 양자 택일의 물음 | 369                                                                            |
| 얕잡음말      | 242                                                                            |
| 어간        | 444                                                                            |
| 어근        | 30, 46, 74, 444                                                                |
| 어두운 홀소리   | 66                                                                             |
| 어미        | 31, 444                                                                        |
| 어절        | 26, 27, 28, 30, 32, 331, 476                                                   |
| 어찌꼴       | 82, 478                                                                        |
| 어찌말       | 29, 43, 44, 50, 272, 273, 275, 294, 332, 840, 981                              |
| 어찌말 매인이름씨 | 296                                                                            |
| 어찌씨       | 50, 51, 116, 212, 230,                                                         |



|           |                                                                                                                                                   |        |
|-----------|---------------------------------------------------------------------------------------------------------------------------------------------------|--------|
| 언어능력      | 239, 265, 373, 981                                                                                                                                | 412    |
| 언어수행      |                                                                                                                                                   | 412    |
| 언어형식      | 26, 29, 30, 40                                                                                                                                    |        |
| 여덟받침      |                                                                                                                                                   | 70     |
| 여덟중성      |                                                                                                                                                   | 446    |
| 여린소리      | 67, 181, 326                                                                                                                                      |        |
| 연결법       | 331, 361, 621, 638                                                                                                                                |        |
| 연결법 토씨    |                                                                                                                                                   | 331    |
| 연결토씨      | 331, 349, 360, 395, 396, 398, 399, 403, 406                                                                                                       |        |
| 연음        |                                                                                                                                                   | 67     |
| 연접        |                                                                                                                                                   | 28     |
| 열린 음절     |                                                                                                                                                   | 73     |
| 용언        | 47, 49, 51, 136, 409                                                                                                                              |        |
| 우물라우트     |                                                                                                                                                   | 657    |
| 운소        | 60, 63, 327                                                                                                                                       |        |
| 운소 변동     |                                                                                                                                                   | 471    |
| 울림        | 69, 314                                                                                                                                           |        |
| 울림소리      |                                                                                                                                                   | 54     |
| 움직씨       | 46, 49, 51, 150, 411                                                                                                                              |        |
| 원형        |                                                                                                                                                   | 71     |
| 월         |                                                                                                                                                   | 43     |
| 월성분       |                                                                                                                                                   | 42, 48 |
| 위치격 조사    |                                                                                                                                                   | 343    |
| 위치말       | 28, 34, 43, 228, 264, 265, 272, 275, 278, 280, 332, 334, 343, 346, 378, 382, 383, 389, 391, 392, 396, 479, 655, 696, 700, 703, 742, 840, 482, 871 |        |
| 위치말 매인이름씨 |                                                                                                                                                   | 297    |
| 위치법       |                                                                                                                                                   | 343    |
| 위치법 토씨    |                                                                                                                                                   | 228    |
| 위치어       |                                                                                                                                                   | 43     |
| 위치자리      |                                                                                                                                                   | 228    |
| 위치자리 토씨   | 343, 346, 400                                                                                                                                     |        |
| 유사접사      | 40, 228, 229                                                                                                                                      |        |
| 유성음       |                                                                                                                                                   | 54     |
| 유연성       | 123, 131                                                                                                                                          |        |
| 유연화       |                                                                                                                                                   | 131    |

|                 |                                       |          |
|-----------------|---------------------------------------|----------|
| 유추              | 258, 604                              |          |
| 으뜸셈씨            |                                       | 274      |
| 으뜸월             |                                       | 421      |
| 으뜸풀이씨           | 42, 417, 706                          |          |
| 음성              |                                       | 66       |
| 음성적 변이형         |                                       | 36, 185  |
| 음성적 변이형태        | 34, 218, 342, 345, 355, 372           |          |
| 음성적으로 설명되는 변이형태 |                                       | 339      |
| 음소              | 62, 327                               |          |
| 음운              |                                       | 62       |
| 음절              | 63, 66                                |          |
| 의도법             | 593, 918                              |          |
| 의문법             |                                       | 495      |
| 의문사             |                                       | 495      |
| 의태어             |                                       | 208      |
| 의향법             |                                       | 486      |
| 이름꼴             | 80, 233, 236, 635                     |          |
| 이름법             | 479, 481, 625, 626, 627, 644          |          |
| 이름씨             | 46, 49, 51, 97, 111, 274              |          |
| 2.3-인칭 활용법      |                                       | 750      |
| 이은말             | 25, 41, 88, 89, 395, 396              |          |
| 이음법             | 480, 486, 492, 521                    |          |
| 이음씨             | 50, 51, 260, 289, 532, 983            |          |
| 이음어씨씨           |                                       | 51       |
| 이화              |                                       | 119      |
| 이화작용            |                                       | 153      |
| 인연              |                                       | 114      |
| 인용마디            |                                       | 487      |
| 인용말             | 44, 332, 740, 743, 761, 767, 789, 840 |          |
| 인용어             |                                       | 44       |
| 인칭물음법           | 495, 496                              |          |
| 인칭법             |                                       | 730      |
| 1-인칭법           |                                       | 732      |
| 1-인칭 의도법        |                                       | 764      |
| 1-인칭 활용법        |                                       | 732      |
| 1-인칭 활용형        |                                       | 732      |
| 임의변동            | 583, 586, 596                         |          |
| 임의변동형           |                                       | 252, 297 |

|          |                                                                                                                   |               |
|----------|-------------------------------------------------------------------------------------------------------------------|---------------|
| 임의적 변이형태 | 342, 602                                                                                                          |               |
| 입자꼴      |                                                                                                                   | 73            |
| 입자말      | 28, 29, 34, 43, 48, 275, 330, 331, 332, 333, 334, 372, 374, 378, 381, 382, 391, 396, 398, 477, 497, 655, 674, 840 |               |
| 입자법      |                                                                                                                   | 335           |
| 입자씨      | 48, 49, 51, 92, 142, 222, 262, 267, 333                                                                           |               |
| 입자자리     |                                                                                                                   | 275           |
| 입자자리 토씨  |                                                                                                                   | 335, 399      |
| 입자조각     |                                                                                                                   | 28            |
| 입성       |                                                                                                                   | 60            |
| 입술가벼운소리  |                                                                                                                   | 53            |
| 입술소리     | 306, 450                                                                                                          |               |
| 입음말      | 77, 129, 174                                                                                                      |               |
| 입음법      |                                                                                                                   | 80            |
| 입음의 가지   | 174, 182                                                                                                          |               |
| 잇소리      |                                                                                                                   | 303, 446      |
| <ㅈ>      |                                                                                                                   |               |
| 자격법      |                                                                                                                   | 477           |
| 자리       |                                                                                                                   | 330           |
| 자리바꿈     |                                                                                                                   | 582           |
| 자리법      |                                                                                                                   | 330           |
| 자리법 토씨   |                                                                                                                   | 331           |
| 자리토씨     | 331, 332, 334, 396, 399, 403                                                                                      |               |
| 자립명사     |                                                                                                                   | 274           |
| 자립이름씨    |                                                                                                                   | 274, 276      |
| 자립입자씨    |                                                                                                                   | 297, 298, 299 |
| 자립형식     | 27, 30, 40, 87, 88, 90, 91, 92, 380                                                                               |               |
| 자음접변     |                                                                                                                   | 302, 445      |
| 잡음씨      | 49, 50, 51, 261, 267, 387, 393, 411, 469, 489, 514, 531, 561, 565, 584, 631, 833, 881, 918                        |               |
| 전위       |                                                                                                                   | 582           |
| 전청       |                                                                                                                   | 54            |

|            |                                   |          |
|------------|-----------------------------------|----------|
| 전체구성       | 274, 275, 282, 296, 333           |          |
| 전형적인 매인이름씨 |                                   | 276      |
| 전환법        |                                   | 605      |
| 절          |                                   | 478      |
| 접미사        |                                   | 135      |
| 접미 파생어     |                                   | 149      |
| 접두사        |                                   | 135      |
| 접두 파생어     |                                   | 136      |
| 접사         | 31, 74                            |          |
| 접속법        |                                   | 480, 521 |
| 접속사        | 50, 51, 81, 289, 532, 983         |          |
| 접요사        |                                   | 135      |
| 정상적 맺음씨끝   |                                   | 481      |
| 제로의 변이형태   |                                   | 493      |
| 제삼류 형태소    |                                   | 135      |
| 제삼차 기능     | 334, 356                          |          |
| 제약법        | 481, 522, 609, 622, 623, 624, 735 |          |
| 제음직씨       |                                   | 812      |
| 제음직임 변형    |                                   | 420      |
| 제이류 형태소    |                                   | 135      |
| 제이차 기능     | 333, 353                          |          |
| 제일류 형태소    |                                   | 134      |
| 제일차 기능     |                                   | 333      |
| 조각         |                                   | 44       |
| 조사         | 47, 51                            |          |
| 조성모음       | 67, 172, 315, 355, 518, 695       |          |
| 조어론        |                                   | 74       |
| 조어법        | 31, 33, 74, 78, 116               |          |
| 중성         | 35, 52, 56, 65, 69, 302, 307      |          |
| 중성의 入, △   | 126, 183, 318                     |          |
| 중속적 합성어    |                                   | 120      |
| 중지법        |                                   | 480, 486 |
| 주격         |                                   | 275      |
| 주격조사       |                                   | 335      |
| 주격형        |                                   | 73       |
| 주부         |                                   | 28       |
| 주어         | 28, 43, 275                       |          |
| 주체         | 655, 673, 674                     |          |
| 주체결양       |                                   | 726, 728 |



|          |                                                    |
|----------|----------------------------------------------------|
| 주체높임     | 380, 655                                           |
| 주체높임법    | 673                                                |
| 주체-대상법   | 807                                                |
| 주체법      | 810, 867                                           |
| 준굴곡론     | 262                                                |
| 준굴곡법     | 31, 33                                             |
| 준굴곡법의 가지 | 31                                                 |
| 준자립형식    | 90                                                 |
| 줄기       | 86, 89, 90, 116, 127, 133, 409, 410, 444, 481, 483 |
| 중단형      | 607                                                |
| 중성       | 52, 64                                             |
| 중음생략     | 241                                                |
| 지소사      | 224                                                |
| 지정사      | 49, 51, 411                                        |
| 직접높임     | 673                                                |
| 직접높임법    | 656                                                |
| 직접성분     | 40, 92, 97, 115, 274, 230                          |
| 직접인용     | 761                                                |
| 직접임자말    | 738, 748, 760, 795                                 |
| <ㄴ>      |                                                    |
| 차례 셈씨    | 274                                                |
| 초성       | 35, 52, 56, 63, 71, 302                            |
| 최소 자립형식  | 27, 30, 32                                         |
| 첫째 자리법   | 334                                                |
| 첫째 자리 토씨 | 334                                                |
| 체언       | 51, 142, 262                                       |
| 추상명사     | 234                                                |
| 추정법      | 878, 891                                           |
| 축소된 마디   | 374, 543                                           |
| 축약       | 455, 463, 470                                      |
| 축약변형     | 375                                                |
| 치음       | 54, 55, 303, 446                                   |
| <E>      |                                                    |
| 타동성      | 170, 173                                           |
| 토씨       | 31, 33, 34, 47, 50, 51, 330                        |
| 통어론      | 25, 26, 27, 33, 42                                 |
| 통어론적 기능  | 268                                                |

|            |                                                             |
|------------|-------------------------------------------------------------|
| 통어적 구성     | 40, 89, 90, 92, 111, 114                                    |
| 통어적 합성법    | 89                                                          |
| 통어적 합성어    | 88, 89, 90, 91, 92, 115, 134, 153, 166, 445                 |
| <표>        |                                                             |
| 파생 가지      | 74, 77, 79, 80, 81, 82, 84, 135, 262, 444, 445, 637, 727    |
| 파생 남음직씨    | 171, 172, 173                                               |
| 파생법        | 32, 33, 74, 77, 78, 84, 127, 129, 134, 135                  |
| 파생어        | 33, 80, 86, 133, 135, 149, 160, 262                         |
| 파생 어찌씨     | 37, 81, 82, 87, 89, 90, 127, 213, 436, 442, 618             |
| 파생 용언      | 445                                                         |
| 파생 이름씨     | 229                                                         |
| 파생 이음씨     | 81                                                          |
| 파생 임자씨     | 136, 262                                                    |
| 파생적 합성어    | 129                                                         |
| 파생적 합성이름씨  | 97                                                          |
| 파생 접사      | 32                                                          |
| 파생 토씨      | 260, 261                                                    |
| 파생 풀이씨     | 136, 150, 245, 445                                          |
| 파찰음        | 55                                                          |
| 평성         | 52, 60, 63                                                  |
| 표면구조       | 809                                                         |
| 표의적 표기법    | 305                                                         |
| 풀이말        | 28, 29, 42, 49, 253, 275, 330, 333, 409, 410, 443, 477, 479 |
| 풀이씨        | 42, 47, 49, 51, 105, 111, 116, 136, 150, 409                |
| 풀이조각       | 28, 29                                                      |
| 풀이토씨       | 332                                                         |
| 품사         | 45                                                          |
| 품사 바꾸는 가지  | 136                                                         |
| 품사분류       | 45, 46                                                      |
| 품사 안바꾸는 가지 | 136, 150                                                    |

|                  |                                                                                          |
|------------------|------------------------------------------------------------------------------------------|
| 피동어              | 77, 174                                                                                  |
| <ㅎ>              |                                                                                          |
| ㅎ으로 끝나는 임자씨      | 309                                                                                      |
| ㅎ 토를 취하는 특별한 임자씨 | 312                                                                                      |
| ㅎ 토씨             | 311                                                                                      |
| 하강적 겹홀소리         | 64, 166, 452                                                                             |
| 하임               | 168, 603                                                                                 |
| 하임말              | 77, 150, 170, 429, 605                                                                   |
| 하임법              | 80, 168                                                                                  |
| 하임의 가지           | 79, 162, 182                                                                             |
| 한기능법             | 478, 480, 486, 521                                                                       |
| 한데 모여 변환 끝       | 713                                                                                      |
| 한데 모인 변화형        | 830                                                                                      |
| 한데모임             | 819, 875                                                                                 |
| 한정변형             | 428, 808, 809, 840                                                                       |
| 합성법              | 32, 33, 74, 84, 88, 129                                                                  |
| 합성어              | 33, 41, 74, 85, 86, 88, 90, 91, 92, 94, 134, 262, 267, 271, 283, 284, 295, 313, 421, 533 |
| 합성어찌씨            | 85                                                                                       |
| 합성용언             | 444                                                                                      |
| 합성임자씨            | 92                                                                                       |
| 합성 풀이씨           | 105, 444                                                                                 |
| 합용병서             | 56, 61                                                                                   |
| 향음               | 55, 68                                                                                   |
| 허릿 가지            | 135, 136                                                                                 |
| 허사               | 297, 723                                                                                 |
| 허용적 하임말          | 170                                                                                      |
| 혀끝소리             | 305, 449                                                                                 |
| 혀열소리             | 315                                                                                      |
| 현대 맞춤법           | 301                                                                                      |
| 현실법              | 878, 906                                                                                 |
| 형용사              | 49, 51, 411                                                                              |
| 형태               | 30, 161                                                                                  |
| 형태론              | 25, 27, 30, 33, 42                                                                       |

|              |                                       |
|--------------|---------------------------------------|
| 형태소          | 25, 30, 33, 84                        |
| 형태음소         | 55, 454                               |
| 형태음소적 변동(변이) | 33, 300, 445                          |
| 형태적 구성       | 40                                    |
| 형태적 변이형태     | 34, 135, 162, 271, 346, 355, 489, 700 |
| 호격조사         | 356                                   |
| 홀로말          | 44, 48, 50, 333, 334, 356, 840        |
| 홀로씨          | 48, 50, 51, 983                       |
| 홀로이름씨        | 274                                   |
| 홀소리          | 63, 327                               |
| 홀소리 고름       | 186                                   |
| 홀소리 씨끝       | 324, 422, 452, 462, 467               |
| 홀소리조화        | 532, 627                              |
| 홀소리충돌        | 157, 335, 358, 368, 459, 510          |
| 홀소리 토씨       | 315, 317, 324, 325                    |
| 홀홀소리         | 64                                    |
| 화석           | 278                                   |
| 확대된 형태       | 388                                   |
| 확대형          | 602                                   |
| 확정법          | 878 882,                              |
| 활용           | 31, 33, 49, 409, 411, 444, 476        |
| 활용의 씨끝       | 31                                    |
| 활용형          | 411                                   |
| 회상법          | 878, 900, 911, 914                    |
| 후음           | 54, 55                                |
| 휴식           | 302, 303, 304, 422                    |
| 흡사법          | 616                                   |
| 히아투스         | 157                                   |
| 힘줄말          | 189                                   |
| 힘줄법          | 618                                   |
| 「하다」형 풀이씨    | 120, 150, 209, 246                    |



|                                   |         |                          |          |
|-----------------------------------|---------|--------------------------|----------|
| bound form                        | 27, 274 | morphophonemic change    | 33       |
| declension                        | 409     | motivation               | 114, 123 |
| deep structure                    | 263     | parole                   | 412      |
| derivational affix                | 135     | pause                    | 302      |
| diminutive suffix                 | 226     | polysemy                 | 173      |
| free form                         | 27      | prosodème                | 60       |
| hiatus                            | 368     | repetitive compound      | 89       |
| inflectional affix                | 134     | root                     | 30, 134  |
| inflectional category             | 78      | simple word              | 134      |
| linguistic competence             | 412     | syntactic compound       | 88, 89   |
| linguistic performance            | 412     | syntactical construction | 40       |
| minimum free form                 | 27      | toneme                   | 60       |
| morphological construction        | 40      | tense vowel              | 165, 178 |
| morphologically defined allomorph | 135     | zero allomorph           | 337      |

## 《고침과 보탬》

58면(끝 8) 舌縮聲深→舌縮而聲深

79면(6, 12) 가까운→더 가까운

131면(끝 13) 「나」(出)와→「나」(出)

와의

168면(끝 5-6)

“「-오/우-」가 /i, j/ 밑에서 다른 변이 형태와 배타적으로 쓰임이 특이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우-」계만을 보고 한 말이다. (「-이-」계도 아울러 생각하면 이 말은 타당하지 않다.)

227면(끝 11)

“15-6세기에 「-장이」란 말이 쓰였던 것인지 아닌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한자어로서 「匠」이 쓰였을 것이다.

240면(끝 9, 11)

「드리(擧), ㄷ리」는 다른 말과 다른 점이 있다. 즉 다른 말은 「-게」로 바꾸어 말할 수 있으나, 이 두 말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두 말은 「드리」, 「ㄷ라」의 잘못 새김이나 아닐까 의심스럽다.

289면(끝 8)

「오신디」의 「디」는 다른 「디」(ㄷ+이)들과 그 뜻이 약간 다르고, 또 이 「디」는 「-오/우-」를 가지지 않은 매김꼴에 붙어 있음도 「ㄷ+이」의 「디」와 다르다. 그러므로 이 「디」는 따로 하나의 매임 이름씨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한데, 그렇게 되면 다음의 예들이 모두 이에 속한다.

(291면, 4) 「죽진디」, (649면 10~16)

「오난디, ㄷ외안디, 여희연디, 이션디」,

(650면, 12) 「보스반디」, (853면, 4~9) 모든 예.

그렇게 되면,

(648면, 끝 2) “「ㄷ」에 국한된다”는 “「ㄷ」, 「디」에 국한된다”로 고쳐야 한다.

427면(2-3 사이)

매인풀이씨 「잇다」의 용법으로 ‘뛰우고 잇거니’ (석보 24:26), ‘떡고 이쇼되’ (석보 24:28)와 같은 진행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보탬 것.

443면(끝 4-5 사이)

「불구 풀이씨」로서, 430면의 「지라」와, 「열좁-」의 원줄기 「열-」, 또 「저습-」의 줄기로 생각되는 「절-」 따위를 보태어 둘 필요가 있다.

560면(10-13)

이 예로서, 437면의 특이한 「아니라」를 보탬 것.

600-1면

「넙끗디」는 「넙끗 ㅎ디」의 줄임으로 보고, 「-끗」은 597면의 「-웃」의 기본형태로 보는 것이 좋을 듯.

610면(10) 齋戒도→齋戒예도

632면(1) 「-습지-」→「-스븐지-」

635면(11) 애완다→애와티다

661면(끝 1-2 사이)

여기에 「754면 끝 12~4줄」의 예들을 보탬.

679면(끝 1) 「-으시느-」→삭제

679면

끝 1의 「首楞三昧는…」 예문과 끝 12



689면(끝 2) -마론→-나마론  
842~860면  
842면(12줄), 844면(14, 20-22줄), 845  
면(12줄), 846면(2줄), 847면(10-11  
줄), 860면(5줄)의 예문들은 866면 이  
하「(3) ㄹ 매김꼴」의 적당한 자리로 옮  
길 것.

898면 (11-14)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이 활용형은, 이상과 같이 추정법을

나타낼 뿐 아니라, 때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사실—즉 결정적인 것, 방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방금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로, 굳이 나타내고 싶지 않은, 말하자면 때에 관해 중화된 사실—을 나타내는 일도 있다. (……)

970면 (17) 뱃음씨 끝→안뱃음씨 끝  
988면 「변형」 다음에 「변형 · 생성문법 263, 412」를 보탬 것.







[illegible]



〈제 2 표〉 [두 안맷음씨끝의 겹침]

| 뒤<br>앞 | 뒤    | 높임     |        |        | 인칭 | 배매김    |        |        |        |        |        | 피임 | 강조·영탄   |         |         |         |         |         |         |         |         |         |         |         |         |         |         |         |         |         |         |         |
|--------|------|--------|--------|--------|----|--------|--------|--------|--------|--------|--------|----|---------|---------|---------|---------|---------|---------|---------|---------|---------|---------|---------|---------|---------|---------|---------|---------|---------|---------|---------|---------|
|        |      | 1<br>이 | 2<br>시 | 3<br>습 |    | 4<br>우 | 5<br>느 | 6<br>니 | 7<br>과 | 8<br>리 | 9<br>더 |    | 10<br>다 | 11<br>사 | 12<br>어 | 13<br>에 | 14<br>엇 | 15<br>거 | 16<br>나 | 17<br>게 | 18<br>것 | 19<br>가 | 20<br>도 | 21<br>돏 | 22<br>노 | 23<br>눏 | 24<br>다 | 25<br>닷 | 26<br>샤 | 27<br>샷 | 28<br>소 | 29<br>스 |
| 높임     | 1 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2 시  | 시이     |        |        | 샤  | 시느     | 시니     |        | 시리     | 시더     | 시다     |    | 샤       |         |         |         |         |         |         |         | 시다      |         | (시노)    | 시눏      |         | 시닷      |         |         |         |         |         | 2       |
|        | 3 습  |        | 스븐시    |        | 스보 | 습느     | 스븐니    | 습과     | 스븐리    | 습더     | 습다     |    | 습바      |         |         |         |         |         |         | 습가      | 습도      |         |         | 습눏      |         |         |         | 스븐샷     |         |         |         | 3       |
| 인칭     | 4 우  | (우이)   | (우시)   |        |    |        |        | 우리     |        |        |        |    |         |         |         |         |         |         |         |         |         |         |         |         |         |         |         |         |         |         |         | 4       |
| 배매김    | 5 느  | 느이     |        |        | 노  |        | 느니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6 니  | 니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7 과  | 과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8 리  | 리이     |        |        | 리로 |        | 리니     |        | 리러     |        |        |    | 려       | (례)     | 렛       | 리어      |         |         |         |         | 리로      |         |         |         |         |         | 리랏      |         | 리샷      | 과소      |         | 8       |
|        | 9 더  | 더이     | 더시     |        |    |        | 더니     |        |        |        |        |    |         |         |         |         |         |         |         |         |         |         |         |         |         |         |         | [르샷]    |         |         |         | 9       |
|        | 10 다 | 다이     |        |        |    |        | 다니     |        |        |        |        |    |         |         |         |         |         |         |         |         |         |         |         |         |         |         |         |         |         | 다소      |         | 10      |
| 피임     | 11 사 | 사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강조·영탄  | 12 어 | 어이     | 어시     |        |    |        | 어니     |        | 어리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13 에 | 에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14 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15 거 | 거이     | 거시     |        |    |        | 거니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16 나 |        | 나시     |        |    |        | 나니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        | 17 게 | 게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18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 19 가 |        | 가시     |        |    |        | 가니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20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21 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22 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        | 23 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        | 24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        | 25 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        | 26 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        | 27 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 28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 29 스 | 소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제 3 표〉 [세 안맺음씨끝의 겹침]

| 뒤<br>앞                          | 1<br>이                    | 2<br>시                | 4<br>우    | 5<br>늑 | 6<br>니                    | 8<br>리      | 9<br>더          | 12<br>어 | 14<br>엿            | 15<br>거            | 20<br>도 | 25<br>닷 | 28<br>소 |
|---------------------------------|---------------------------|-----------------------|-----------|--------|---------------------------|-------------|-----------------|---------|--------------------|--------------------|---------|---------|---------|
| 2 스별지<br>(우지)<br>더지<br>어지<br>거지 |                           |                       | 스별샤<br>우샤 | 스별지늑   | 스별지니<br>더지니<br>어지니<br>거지니 |             | 스별지더            |         |                    |                    |         |         |         |
| 4 샤<br>스보<br>노                  | 스보이<br>노이                 |                       |           |        |                           | 샤리<br>스보리   |                 |         |                    |                    |         |         |         |
| 5 지늑<br>습늑                      | 지늑이<br>습늑이                |                       | 지노<br>습노  |        | 지늑니<br>습늑니                |             |                 |         |                    |                    |         |         |         |
| 6 지니<br>스별니<br>늑니<br>더니         | 지니이<br>스별니이<br>늑니이<br>더니이 |                       |           |        |                           |             |                 |         |                    |                    |         |         |         |
| 7 습과                            | 습과이                       |                       |           |        |                           |             |                 |         |                    |                    |         |         |         |
| 8 지리<br>스별리<br>우리<br>어리         | 지리이<br>스별리이<br>우리이<br>어리이 |                       |           |        |                           | 지리리<br>스별리리 | 지려<br>스별려<br>우려 | 우헛      | 지리어<br>스별리어<br>우리어 | 지리로<br>스별리로<br>어리로 | 지리랏     |         |         |
| 9 지더<br>습더<br>리러                | 지더이                       | 습더시                   |           |        | 지더니<br>습더니<br>리러니         |             |                 |         |                    |                    |         |         |         |
| 10 습다                           | 습다이                       |                       |           |        |                           |             |                 |         |                    |                    |         |         | 습다소     |
| 12 스바<br>려                      | 스바이                       | 스바지<br><려지>           |           |        | 스바니<br>려니                 |             |                 |         |                    |                    |         |         |         |
| 13 (례)                          | 례이                        |                       |           |        |                           |             |                 |         |                    |                    |         |         |         |
| 14 헛                            |                           |                       |           |        |                           |             |                 |         |                    |                    |         |         |         |
| 15 지거<br>습거<br>리어               |                           | <지거지><br>습거지<br><리어지> |           |        |                           |             |                 |         |                    |                    |         |         |         |
| 20 리로                           |                           |                       |           |        |                           |             |                 |         |                    |                    |         |         | 리로소     |
| 22 (지노)                         |                           |                       |           |        |                           |             |                 |         |                    |                    |         |         | 지노소     |
| 28 도소<br>노소                     | 도소이<br>노소이                |                       |           |        | 도소니                       |             |                 |         |                    |                    |         |         |         |
| 29 (다스)<br>(샤스)                 | 다스이<br>샤스이                |                       |           |        |                           |             |                 |         |                    |                    |         |         |         |

〈제 4 표〉 [네 안맺음씨끝의 겹침]

| 뒤<br>앞                                     | 1<br>이                                       | 4<br>우      | 6<br>니      | 28<br>소 |
|--------------------------------------------|----------------------------------------------|-------------|-------------|---------|
| 2 습더시                                      |                                              |             | 습더지니        |         |
| 4 습노                                       | 습노이                                          |             |             |         |
| 5 스별지늑<br>(습지늑)                            |                                              | 스별지노<br>습지노 |             |         |
| 6 스별지니<br>더지니<br>(노니)<br>지늑니<br>습늑니<br>지더니 | 스별지니이<br>더지니이<br>노니이<br>지늑니이<br>습늑니이<br>지더니이 |             |             |         |
| 8 스보리                                      | 스보리이                                         |             |             |         |
| 9 지리러<br>(지뚫더)                             | 지뚫더이                                         |             | 지리러니        |         |
| 12 지려<br>스별려                               |                                              |             | 지려니<br>스별려니 |         |
| 20 지리로                                     |                                              |             |             | 지리로소    |
| 28 (지도소)<br>리로소<br>지노소<br>(습노소)            | 지도소이<br>리로소이<br>지노소이<br>습노소이                 |             | 리로소니        |         |
| 29 (지다스)                                   | 지다스이                                         |             |             |         |

〈제 5 표〉 [다섯 안맺음씨끝의 겹침]

| 뒤<br>앞                                               | 이                                          | 니    |
|------------------------------------------------------|--------------------------------------------|------|
| 리로소니<br>(스보려)<br>지리로소<br>(스별리로소)<br>(지리락스)<br>(지리샤스) | 리로소니이<br>지리로소이<br>스별리로소이<br>지리락스이<br>지리샤스이 | 스보려니 |



|   | 20<br>도    | 25<br>닷 | 28<br>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 | <u>시리로</u> | 시리랏     |         |
| 어 | 스별리로       |         |         |
| 어 | 어리로        |         |         |
|   |            |         |         |
|   |            |         | 습다소     |
|   |            |         |         |
|   |            |         |         |
|   |            |         |         |
|   |            |         | 리로소     |
|   |            |         | 시노소     |
|   |            |         |         |
|   |            |         |         |

| 뒤<br>앞                                     | 1<br>이                                       | 4<br>우      | 6<br>니      | 28<br>소     |
|--------------------------------------------|----------------------------------------------|-------------|-------------|-------------|
| 2 습더시                                      |                                              |             | 습더시니        |             |
| 4 습노                                       | 습노이                                          |             |             |             |
| 5 스벌시늑<br>(습시늑)                            |                                              | 스벌지노<br>습지노 |             |             |
| 6 스벌시니<br>더시니<br>(노니)<br>시늑니<br>습늑니<br>시더니 | 스벌시니이<br>더시니이<br>노니이<br>시늑니이<br>습늑니이<br>시더니이 |             |             |             |
| 8 스보리                                      | 스보리이                                         |             |             |             |
| 9 시리러<br>(시뒸더)                             | 시뒸더이                                         |             | 시리러니        |             |
| 12 시려<br>스벌려                               |                                              |             | 시려니<br>스벌려니 |             |
| 20 시리로                                     |                                              |             |             | <u>시리로소</u> |
| 28 (지도소)<br>리로소<br>지노소<br>(습노소)            | 지도소이<br>리로소이<br>지노소이<br>습노소이                 |             | <u>리로소니</u> |             |
| 29 (지다스)                                   | 지다스이                                         |             |             |             |

〈제 5 표〉 [다섯 안맺음씨끝의 겹침]

| 앞       | 뒤      | 이 | 너    |
|---------|--------|---|------|
| 리로소니    | 리로소니이  |   | 스보려니 |
| (스보려)   |        |   |      |
| 시리로소    | 시리로소이  |   |      |
| (스벌리로소) | 스벌리로소이 |   |      |
| (시리라스)  | 시리라스이  |   |      |
| (시리샤스)  | 시리샤스이  |   |      |

지은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글학회 이사장.

저 서: 주해 용비어천가(1955), 국어 음운론(1958), 주해 월인천강지곡(1962, 1999 고침, 이강로와 공저), 언어학 개론(1963), 중세국어연구(1963),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1964), 옛말본(1969), 국어국문학사전(1971, 박지홍과 공저), 우리 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1974), 한글과 민족 문화(1974), 우리 옛말본(1975), 우리말 우리글(1979), 우리 말과 글에 쏟아진 사랑 (1979),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1980, 박지홍과 공저), 언어학(1981), 고친판 언어학 개론(1983), 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1983),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1985), 고친판 우리 말과 글에 쏟아진 사랑(1987),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1987), 16세기 우리 옛말본(1989),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1991),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1995),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1999), 고친판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2000)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1975년 4월 20일 초판 펴냄

2000년 1월 10일 중판 펴냄

지은이 허웅

펴낸이                      안        은        경

펴낸데 **샘 문화사**

판권  
펴낸이  
소유

충북 충주시 교현1동 충일@ 104-107

전화: 031-263-2948 / 019-402-2948

Fax: 031-276-6358

등록: 1977. 5. 27. (제6-38호)

값 50.000원